

2012 상반기

# 북한 공개정보 자료집[ 1 ]

통일부 정세분석국

[공 개 정 보 센 터]





# **목 차[일자順]**

**2012.2.7 ~ 2012.6.30**



# 목차(일차順)

## <2012.2.7(火)>

### □ 영어권

- 스웨덴 과학자의 북한 핵실험 주장에 대한 미국 과학자들의 반박 견해(2.3 美 네이처誌) ..... 1
- 「로스바흐」 EU 한반도관계대표단 副단장, 「EU가 북한의 정치·경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기고(1.31 EU 'The Parliament'誌 / 2.6 RFA) ..... 1

### □ 중국어권

- 중국 전력 회사, 駐北 중국 외교관 인용, 평양의 심각한 전력 부족 보도(2.6 中 북극성전력) · 1

### □ 일본어권

- 식량지원 재개 관련 미국의 대북 식량 2만t 반환 요구 보도(2.4 산케이 신문) ..... 2
- 「수히닌」 駐北 러시아 대사, 「현재 북한 체제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2.5 인테르팍스 통신) ..... 2

## <2012.2.8(水)>

### □ 영어권

- 「필립 윤」(前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선임보좌관), 「북한을 방치하면 내년에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2.6 美 'The Hill'誌) ..... 8
- 「칼 거쉬먼」 美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 「북한 대형 장마당 이용자 하루 10만명」이라고 주장(2.7 RFA) ..... 8

### □ 중국어권

- 「북한의 「여가생활 금지령」에 중국 음향제품 수출길이 막혔다고 보도 (2.8 中 음향전문 사이트 '헤충영음)」 ..... 8

### □ 일본어권

- 일본 경찰, 북한에 중고 노트북을 불법수출한 북한 국적의 재일동포 체포 보도 (2.7 마이니치 신문) ..... 9

### □ 러시아어권

- 「김정은 집권 첫 달간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려는 징후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평가 (2.6 네자비씨마야 신문) ..... 9

<2012.2.9(木)>

□ 일본어권

- 北, 日北 접촉時 북송 일본인 처 일시 귀국 제안(2.8 산케이 신문) ..... 14
- 일본 '현대 비즈니스'(주간지), 김정남 관련 기사 게재(2.5 현대비즈니스) ..... 14

□ 영어권

- 美 의회조사국(CRS),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 관련 보고서(2011.12.22) 작성(2.8 RFA) ..... 14

□ 러시아어권

- 한·러 6자수석대표 회담(2.8) 개최(2.8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 15
- 「예브세예프」 러시아 사회정치연구센터장 및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의 무인폭격기 개발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2.8 러시아 글로스 라디오) ..... 15

□ 중국어권

- 「장웨이」 중국 길림성 여유국 부국장, 남·북·중·러 등 동북아 국제관광벨트 개발 예정 발표 (2.8 중국 차이나뉴스 인터넷판) ..... 15

<2012.2.10(金)>

□ 영어권

- 「새뮤얼 라클리어」(美 차기 태평양군 사령관 지명자), 한반도 안정에 대해 우려 표명 (2.9 美 상원 인준청문회) ..... 22

□ 일본어권

- 일본 정부 지원과 김정은 지지 관련 조총련內 균열 발생 보도(2.10 뉴스 포스트 세븐) ..... 22

□ 중국어권

- 중북 접경 지역에 젠-11B기 대량 배치(2.7 환구망) ..... 23

□ 러시아어권

- '북한에 연해주 지역 상품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2.5 러시아 보스토크 미디어 신문, 2.3 러시아 프리마미디아 신문) ..... 23
- 심국룡 駐나호드카 북한 총영사, 김정일 70회 생일맞이 만찬 개최 (2.9 러시아 프리마미디아 신문) ..... 23
- 러시아 아무르州 주지사와 駐나호드카 북한 총영사 회의 개최 (2.3 러시아 로스인베스트 ⇨ 비즈니스 포털사이트) ..... 24

<2012.2.13(月)>

□ 영어권

- 「마이클 그린」(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미·북 대화 및 6자회담 언급 (2.10 CSIS 홈페이지 동영상 ⇨ 별도 붙임 없음) ..... 31

- 일본어권
  - 1998년 북한 우라늄 농축 착수(2.11 마이니치 신문) ..... 31
- 중국어권
  - 中 기상국, 북한에 CMACast 위성데이터 수신장비 설치 및 교육(2.13 中 기상국 홈페이지) .... 32
- 러시아어권
  - 러, 김일성 생일맞이 북한지역 관광 상품에 대한 관심 고조(2.13 프리마 미디어 신문) ..... 32
  - 러, 연해주 지역 탈북자 증가 관련 보도(2.11 보스토르크 미디어 신문) ..... 32

### 〈2012.2.14(火)〉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아무르州와 북한間 협력 착수(2.13 보스토르크 미디어 신문) ..... 38
- 중국어권
  - 中 시진핑 부주석 방미, 亞太지역은 양국의 이익 교차점  
(2.14 中 화상보 ⇨ 중국 지역신문사) ..... 38
  - 北, 안정적으로 경제·사회 위기 극복할 듯(2.1 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 39
- 영어권
  - 「빅터 차」(美 조지타운대 정치학 교수), '2.23일 예정된 미·북 3차 고위급 대화에서 대해 부정적 전망'(2.13 월스트리트저널) ..... 39
- 일본어권
  - 미·북 3차 고위급 대화 2.23일 베이징 개최 보도(2.14 NHK뉴스) ..... 39

### 〈2012.2.15(水)〉

- 중국어권
  - 北, 대내·외 문제로 주민 충성도 하락, 김정은 체제에 악영향  
(2.14 中 서록망 ⇨ 군사전문 포털사이트) ..... 44
  - 北,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 개발 박차(2.14 中 신화사) ..... 44
  - 美·北 대화, 6자회담 재개 서막  
(2.14 홍콩 봉황위성 TV “정점뉴스”, 정하오 박사 대담 ⇨ 국제문제 전문가) ..... 44
- 러시아어권
  - 「김영재」 駐러 북한대사, 키리졸브 연습 비난(2.14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 45
- 일본어권
  - 2.14 일·러 6자회담 수석대표 모스크바에서 회담(2.15 지지통신) ..... 45
  - 김일성, 김정은을 손자로 미인정(2.15 산케이 신문) ..... 45

□ 영어권

- 美 국무부, 2012년에 이어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대북 경제지원금 전액 삭감(2.14 VOA 원문 미게시) ..... 46

<2012.2.16(木)>

□ 러시아어권

-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는 김정남 관련 보도(2.15 AIF 신문 ⇨ 중앙일간지) ..... 52

□ 중국어권

- 中, 탈북자 복송에 대한 한국 언론 문제 지적(2.15 中 환구시보) ..... 52
- 中 전문가들, '美·北 대화 통한 6자회담 재개 어려울 것'으로 전망 (2.15 中 광보망 ⇨ 중국 라디오방송넷) ..... 53

□ 일본어권

- 김정은, 태양절 전후 국방위원장과 당 총서기 등극 전망 (2.16 뉴스 포스트 세븐 ⇨ 인터넷 신문) ..... 53

□ 영어권

- 북한, 7년간 OECD에 빌린 자금 절반 상환(2.15 RFA ⇨ 원문 미게시) ..... 54

<2012.2.17(金)>

□ 영어권

- 「제임스 클래퍼」 美 DNI 국장,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 (2.16 美 상원 군사위 청문회 보고) ..... 60

□ 러시아어권

- 北, '김일성, 김정일' 배지 동시착용 추진 보도(2.16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 지역 인터넷 신문) ..... 60

□ 중국어권

- 김정은, 공식 또는 비공식 중국 방문 가능성 보도(2.15 홍콩 봉황TV) ..... 61

□ 일본어권

- 일본 조총련 소속 간부 등 120명 북한 방문(2.16 NHK뉴스) ..... 61

<2012.2.20(月)>

□ 일본어권

- '김정은, 첫 정상회담 상대는 中 후진타오 국가주석'으로 보도 (2.19 뉴스 포스트 세븐 ⇨ 인터넷 신문) ..... 66
- 북한으로 컴퓨터 불법수출 혐의자 수사결과 보도(2.20 요미우리 신문) ..... 66

□ 영어권

- 「제임스 루이스」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장, 가장 위험한 사이버테러 우려국으로 북한, 이란 지목(2.16 상원 국토안보위 / 2.17 RFA) ..... 67

□ 중국어권

- 한국, 중·북 나선특구 경제협력에 우려(2.17 홍콩 봉황위성TV) ..... 67

□ 러시아어권

- 北,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행사 해외사절단 초청(2.20 인테르팍스 통신사) ..... 67

〈2012.2.21〔火〕〉

□ 중국어권

- 中 외교부, 美·北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 희망(2.20 中 국제재선 ⇨중국 관영 라디오방송국 중국국제방송[CRI Online]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 71
- 北, 4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정권 안정화 도모(2.20 中 China news) ..... 71
- 中 전문가들, '중국의 탈북자 송환은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2.20 中 환구시보) ... 71

□ 영어권

- 北 당대표자회는 리더십 변화의 신호(2.20 美 뉴욕타임스) ..... 72

□ 일본어권

- '아버지 김정일과 나' 출판 배경관련 중국측의 목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2.18 산케이 신문) ... 72

〈2012.2.22〔水〕〉

□ 영어권

- 「스티븐 보스워스」(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과 대화해야' 주장(2.21 CNN) ..... 77
- 「윌터 샤프」(前 한미연합사령관), '자유 북한(A Free North Korea)'을 위해 북한 체제 내부변화 압박 및 지원' 주장(2.21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고) ..... 77

□ 중국어권

- 中, '6자회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도(2.22 中 인민일보) ..... 78
- '한국, 탈북자 처리 문제로 골머리 앓으면서 중국에 오히려 압박' 보도(2.21 中 환구시보) ... 78

〈2012.2.23〔木〕〉

□ 중국어권

- '미·북 회담 예상보다 빨리 진행' 보도(2.23 中 인민일보 해외판) ..... 83
- '나선특구의 경제적 가치' 관련 보도(2.22 中 산경신문 ⇨ 경제전문지) ..... 83

- 영어권
  - 김정일 사후 첫 미·북 회담에서 진전 여부 주목(2.22 美 워싱턴포스트) ..... 84

<2012.2.24(金)>

- 영어권
  - ‘美·北 회담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2.23 로이터통신) ..... 88
  - ‘류쉐리엔’(길림大 교수), ‘북한에 안보 보장 제공 필요’ 주장(2.23 China Daily 영문판) ..... 88
- 중국어권
  - ‘미·북 회담에 세계가 주목’ 보도(2.24 中 CCTV) ..... 89
- 러시아어권
  - ‘러 연해주와 북한間 협력방안 논의’ 보도(2.21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 89
- 일본어권
  - 북한으로 컴퓨터 불법수출 혐의자 北해커기관과 접촉(2.22 요미우리 신문) ..... 89

<2012.2.27(月)>

- 영어권
  - 美 데이비스 대표, 일본측 6자회담 대표와 회동 후 기자회견(2.26 美 국무부 보도자료) ..... 96
- 러시아어권
  - ‘푸틴’ 총리, ‘김정은 체제 안정성 시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2.27 모스크바 뉴스 ⇨ 중앙일간지) ..... 96
- 일본어권
  - 김정일 사후 배포 북한 노동당 내부문서 입수 공개(2.25 마이니치 신문) ..... 97
  - ‘日·北 국교 정상화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선결과제’(2.27 산케이신문) ..... 97
- 중국어권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2.25 中 외교부 홈페이지) ..... 98

<2012.2.28(火)>

- 영어권
  - 北,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원한다’고 보도  
(2.27 People’s Daily Online ⇨ 中 인민일보 영문판) ..... 103
- 중국어권
  - 중국 외교부, 미·북 회담 관련 평가(2.27 中 외교부 홈페이지) ..... 103



- 「푸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후 식량원조 논의(2.27 中 외교부) ..... 103

□ 러시아어권

- 「올렉 코제야코」(아무르州 주지사), 북한에 아무르州 농지임대 계획 부인  
(2.27 리아노보스티 ㉠ 통신사) ..... 104

□ 일본어권

- 「김정은 체제하의 평양은 꿈꿨던 얼어붙은 혁명의 수도」 (2.27 교도통신) ..... 104

<2012.2.29(水)>

□ 중국어권

- 中 외교부, 탈북자 송환 문제 관련 정례 브리핑(2.28 中 외교부) ..... 110
- 「韓·美연합군사훈련 관련 북한측 반발」 보도(2.27 中 CNTV) ..... 110

□ 영어권

- 「美 선박, 미군 유해발굴을 위해 북한 도착」 보도(2.28 AP통신) ..... 111

□ 러시아어권

- 러-北, 자매도시 협정체결 적극 추진(2.27 부랴티아공화국 공식홈페이지) ..... 111

□ 일본어권

- 日경찰, PC불법수출 관련 조총련계 단체·여행사 압수수색(2.28 닛케이) ..... 112

<2012.3.2(金)>

□ 영어권

- 美 국무장관, 「美·北회담, 올바른 방향으로의 작은 첫걸음」 언급  
(2.29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 116
- 美 공화당 중진, 「北 핵프로그램 중단 믿을 수 없다」고 지적(2.29 AFP통신) ..... 116

□ 일본어권

- 「젠바 고이치로」외무상 기자회견(3.1 외무성) ..... 117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외무부, 「美·北회담 결과에 관한 논평」(3.1 외무부 홈페이지) ..... 117
- 「美·北합의에 대한 성급한 평가는 지양해야」라고 보도(3.1 이타르타스) ..... 117

□ 중국어권

- 2.28~29일 北 신의주시 청년동맹대표단 4명 단동 방문(2.29 中 단동市政府) ..... 118
- 2.23일 中·北 정부間 과학기술 연합위원회 제45회 회의 개최(2.29 中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118

**<2012.3.5(月)>**

영어권

- '2010년 이란이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 제기  
(3.4 Die Welt ⇨ 독일 일간지 / 3.4. PJMedia ⇨ 美 인터넷언론사) ..... 125
- '美·北 협상' 관련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3.2 美 CNN) ..... 125

일본어권

-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 인터뷰 TV 방영(3.3 아사히신문) ..... 126
- 中, 김정은 체제하 첫 북한 노동자 수용(3.3 교도 통신) ..... 126

러시아어권

- 푸틴 정권하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제기(3.1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 일간지) ..... 126

중국어권

- 中 외교부장 訪韓 관련 신화사, CCTV 인터뷰(3.2 외교부 홈페이지) ..... 126

**<2012.3.6(火)>**

영어권

- 美 브루킹스 연구소, 美의회 탈북자 청문회에 탈북자 송환 증언 제출  
(3.5 美 브루킹스 연구소) ..... 132

중국어권

- '중국, 김정은이 아닌 북한 주민의 이웃'으로 보도(3.5 홍콩 봉황위성 TV) ..... 132

일본어권

- '최근 평양의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간 30배 격차 발생'(3.2 교도통신) ..... 133

러시아어권

- 아무르주 주지사의 '북한측에 농지임대 계획 부인' 관련 분석기사 보도  
(2.29 코메르산트 하바로프스크 ⇨ 지역 일간지) ..... 133

**<2012.3.7(水)>**

영어권

- 北 영변 핵시설 경수로 건설 진척(3.5 美 ISIS 보고서) ..... 139

중국어권

- '美·北관계 진전은 첫걸음일 뿐'(3.5 광명일보 ⇨ 중앙 黨報 / 「리우웨이둥」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연구원 사설) ..... 141

- 러시아어권
  - ‘美·北 합의 후속회담에 대한 전망’(3.1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142

- 일본어권
  - 중국, 對北무역 수출입 총액 약 56억 달러(3.6 교도통신) ..... 142
  - 中·北 국경에 「국제협력모델지구」 건설 구상(3.6 교도통신) ..... 142

**<2012.3.8(木)>**

- 영어권
  - 北, 미국 공격 가능한 신형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확인(3.7 美 워싱턴 타임즈) ..... 146
  -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유예 약속’에 대한 비판적 견해 제시  
(3.6 시카고트리뷴誌 / 「일리나 로스 레티넨, 공화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장 인터뷰) ..... 146

- 러시아어권
  - 2011년 러시아 대북지원 총액 1,490만불로 집계(3.7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147

- 중국어권
  - 「中·北 수력발전공사 회의」 개최(3.5 신길림망 ⇨ 길림성 경제포털 사이트) ..... 147

- 일본어권
  -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국 동향 파악 필요성’ 보도(3.8 뉴스포스트세븐 ⇨ 인터넷 신문) ... 147
  - 태국 총리, 납치문제 관련 일본 입장 이해 표명(3.7 총리관저 홈페이지) ..... 147

**<2012.3.9(金)>**

- 영어권
  - 美 뉴욕 세미나, ‘南·北 관계 개선의 기회’(3.8 / AP통신) ..... 151
  - 북한內 한국전 실종 美軍 유해발굴 4월 재개(3.8 / AP통신) ..... 151

- 일본어권
  - 북한, 미국과 관계 정상화 요구(3.9 아사히신문) ..... 152
  - 김일성 생일위해 70개국 이상에서 준비위원회 조직(3.9 산케이신문) ..... 152

- 중국어권
  - 中, 젠(殲)-10 전투기 북한 판매 거부(3.8 환구시보) ..... 152

- 러시아어권
  - ‘북한에서 이란 핵실험 한 것 아니다.’  
(3.7 Uncensored Israeli News Russian ⇨ 인터넷 언론사) ..... 153

<2012.3.12[月]>

□ 영어권

- '금주 UN 안보리에서 중동지역 북한 핵확산 문제 취급 예정'  
(3.12 WND ⇨ 美 독립 인터넷 언론) ..... 160

□ 중국어권

- '6자회담은 계속해서 중국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도  
(3.9 남방인물주간 ⇨ 중국 고급시사 주간지) ..... 161

□ 일본어권

- IAEA사무국장, '북핵은 동아시아의 위협'(3.11 교도통신) ..... 161

□ 러시아어권

- 駐러 이란대사,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고 주장(3.11 루스 노보스티 ⇨ 라디오) ..... 161

<2012.3.13[火]>

□ 일본어권

- 日, 대북 제재 1년 연장 계획 검토중(3.13 교도통신) ..... 166
- 北, 미국과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요구(3.12 요미우리신문) ..... 166
-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노선 투쟁 가능성 제기(3.10 산케이신문) ..... 166

□ 중국어권

- '중국의 對北정책,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 참고 필요'(3.12 홍콩 봉황위성TV) ..... 167

□ 영어권

- 美,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권한 강화 촉구(3.12 美 국무부 보도자료) ..... 167

□ 러시아어권

- 탈북자 3명, 연해주 국경수비대원 구타로 재판회부(3.13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167

<2012.3.14[水]>

□ 영어권

- 北, 2010년 5,500만 달러를 받고 이란 핵탄두 실험 실시  
(3.5 DEBKfile ⇨ 이스라엘 정치, 안보 분야 인터넷 언론) ..... 173
- 美·北 합의는 南·北 대화의 새로운 변수(3.13 英 ISIS 보고서) ..... 173

□ 중국어권

- 韓·中, 탈북자 문제 이어 '이어도 분쟁' 서로 존중 필요(3.13 환구시보) ..... 174

- 러시아어권
  - 원칙없는 미국측의 핵문제 해결방식 비판(3.13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 174

- 일본어권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에게 지시한 내부분서 입수(3.14 마이니치 신문) ..... 175

**<2012.3.15(木)>**

- 중국어권
  - 탈북자 문제 제기, 한국은 이제 그만해야(3.9 신화망 / 3.16 「환구」 잡지) ..... 182

- 러시아어권
  - 「데니소프」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과 「리영호」 북한 외무성 부상 회담(3.14 러시아 외무부) .... 182
  -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영사관 앞 한국정부 규탄집회 개최(3.14 프리마미디어 라 지역 언론사) ... 183

- 영어권
  - 駐폴란드 북한대사 김평일 관련 보도(3.12 / 英 The Independent誌) ..... 183
  - WFP, 北 어린이들에 슈퍼시리얼 제공(3.9 WFP 홈페이지 / 3.14 VOA) ..... 184

- 일본어권
  - 日, 납치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인도적 지원 검토(3.14 일본 텔레비 라 민영TV) ..... 184
  - 日 외무장관, 북한의 핵시설 감시요원 수용 환영(3.13 일본 텔레비) ..... 184
  - 北, 은하수관현악단 파리에서 공연 보도(3.14 텔레비전 아사히) ..... 184

**<2012.3.16(金)>**

- 영어권
  - 중국측의 탈북자 문제 이슈화 비판에 대한 미국외교협회 견해(3.15 CFR) ..... 192
  - ‘평양과학기술대학’ 관련 보도(3.15 CNN 홈페이지 / 3.19 Fortune誌) ..... 192

- 러시아어권
  - 「마르쿨로프」외무부 차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회담(3.15 러시아 외무부) ..... 193
  - 중국, 미국보다 서둘러 대북 식량지원 착수(3.15 이즈베스티야 라 일간지) ..... 193

- 중국어권
  - 中·北관계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이익이 기본(3.12 홍콩 봉황위성TV) ..... 193

- 일본어권
  - 최근 평양지역에 中·北 합작회사 운영 택시 급증(3.16 지지통신) ..... 193

<2012.3.19[月]>

□ 영어권

- 北 광명성 3호 로켓발사 발표에 대한 美 전문가들 견해(3.17 AP통신) ..... 199

□ 중국어권

- '광명성 3호 발사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무시' 보도(3.19, 환구시보) ..... 199

□ 러시아어권

-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외무부 논평(3.16 러시아 외무부) ..... 200
- 김일성 생일 앞두고 항상 해왔던 전통적인 도발행위(3.19 코메르산트 ☞ 일간지) ..... 200

□ 일본어권

- 「젠바」외무장관, 북한 위성발사 관련 발언(3.18 마이니치신문) ..... 200
- 「후지무라」판방장관, 북한 위성발사 관련 발언(3.16 넷케이) ..... 200

<2012.3.20[火]>

□ 러시아어권

- '북한 위성발사,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3.19 스토레티예 ☞ 정보분석 인터넷신문) ..... 204
- '북한, 사실상 ICBM 개발능력 없다.'(3.16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204

□ 중국어권

- '광명성 3호 발사, 북한 1석 3조 효과 예상' 보도 (3.20, 제심 ☞ 경제포털사이트) ..... 205
- '한국은 진정으로 탈북자를 받아들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비판(3.19 신화사, 「천엔」 중국연구원 집행원장 사설) ..... 205

□ 영어권

- 美 상원 외교위, '北 위성발사로 신뢰성 훼손' 주장 (3.16 美 상원 외교위 성명) ..... 206
- 北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한 의문점(3.16 美 브루킹스연구소) ..... 206

□ 일본어권

- '김일성 광장의 화장실' 관련 현지르포 게재(3.19 산케이 신문) ..... 207

<2012.3.21[水]>

□ 영어권

- 美, 서울 정상회의서 中과 회담 통해 北 압박(3.20 美 블룸버그통신) ..... 212
- 뉴욕 타임즈, 北 위성 발사 발표 관련 보도(3.20 / NYT) ..... 212

□ 러시아어권

- 북한, 6자회담 참가국들 시험하는 듯(3.20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212
- 「세르게이 라브로프」(외무부 장관), 북한관련 언급(3.20 코메르산트 FM ☞ 라디오) ..... 213

- 중국어권
  - '북한에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3.20, 환구시보, 「잔더빈」 상하이 대외무역학원 학자 사설) ..... 213

- 일본어권
  - PAC3, 사정 짧으며 광대한 해역 방위에 한계(3.20 스포츠 닛폰 ⇨ 스포츠신문) ..... 214

### <2012.3.22(木)>

- 영어권
  - 美 대통령, 中·러 정상들과 北 문제 논의 예정(3.21 美 월스트리트저널) ..... 219
  - '美, 北 위성과 미사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3.21 / Bangkok Post, CSIS Pacnet series 게재 사설) ..... 219

- 중국어권
  - '북한의 위성 발사 위기,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3.21 / 동방조보 ⇨ 일간지) ..... 220
  - '합일된 의견으로 북한 정세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3.20 홍콩 봉황위성TV, 「치우쩐하이」 시사평론가 대담) ..... 221

- 러시아어권
  -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에 평화 가져다 줘(3.22 코메르산트 ⇨ 일간지) ..... 221
  - 북한 위성발사 성공에 대해 매우 회의적(3.16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221

- 일본어권
  - '주변국을 최대한 배려한 위협'(3.21 기타오지 기관 ⇨ 안보연구실 블로그) ..... 222
  - '서방 대학에 북한 유학생 증가'(3.22 산케이biz ⇨ 종합경제정보 사이트) ..... 222

### <2012.3.23(金)>

- 영어권
  - 美 북한 전문가, 북한內 추가 핵시설 존재 주장(3.22 美 CNN 인터뷰) ..... 230
  - 동창리 발사대 3.20일자 위성사진 게시 [GeoEye / Google Earth 제공]  
(3.22 美 Global Security 홈페이지) ..... 230

- 일본어권
  - 미사일 대처 '지난번 보다 어려울 듯'(3.22 지지통신) ..... 232
  - 참의원 본회의서 북한에 자제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예정(3.23 산케이) ..... 232

- 러시아어권
  - 미국의 의도적인 광명성 발사 이슈화 가능성 제기(3.22 글로스 러시아 ⇨ 라디오) ..... 232
  -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북한도발 행위 자제요청 예정  
(3.22 사할린 미디어 ⇨ 지역언론사) ..... 233

- 중국어권
  - 길림省 여유국과 나선市 관광관리국, '자동차 여행 보충협의' 체결(3.21 인민일보) ..... 233

### <2012.3.26(月)>

- 중국어권
  - 김정은의 외교책략, '원교근공(遠交'近功)분석(3.26 성도환구망) ..... 239
  - 美·北 지도자, 휴전선 지역 방문 이유(3.26 중국망 ⇨ 국무원 신문판공실 운영) ..... 239
- 영어권
  - '北, 핵안보정상회의에 없지만 강함 존재감'(3.25 美 브루킹스연구소) ..... 240
- 일본어권
  - 핵안보조사에서 북한이 최하위(3.26 NHK) ..... 240
  - 항공총대사령부, 미군 요코다기지로 이전 美·日조정소 신설(3.26 산케이) ..... 241
  - 'J알러트(전국순시경보시스템)'로 미사일 발사확인 후 지자체 전파(3.26 산케이) ..... 241
  -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은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강조(3.26 NHK) ..... 241
- 러시아어권
  - 한·러 정상회담 관련(3.26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242
  - 김일성 생일 100회 맞이 러시아 곳곳에서 기념행사 개최 ..... 242

### <2012.3.27(火)>

- 영어권
  - 北 위성 발사 막는 방안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3.26 CNN 기고) ..... 250
  - 北 로켓 발사, 핵안보정상회의 장악(3.26 / AP) ..... 250
- 중국어권
  -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3.26 홍콩 봉황위성TV) ..... 251
- 일본어권
  - 중국, 러시아의 이례적인 북한 포위망(3.27 마이니치) ..... 251
- 러시아어권
  - 오바마 대통령 DMZ 방문 분석(3.26 골로스 러시아 ⇨ 라디오) ..... 252

### <2012.3.28(水)>

- 영어권
  - 北, 위성 발사 계획 재천명(3.27 NYT) ..... 258
  - 美, 김정일 사망 전 北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3.19 넬슨보고서) ..... 258



- 엠네스티 '北, 2011년 최소 30명 처형'(3.27 '사형선고와 처형 2011'보고서 / 3.27 VOA) ..... 259

□ 중국어권

- 한국 언론, 중국 입장 왜곡 보도(3.27 홍콩 봉황위성TV) ..... 259
- 中 한반도사무 부대표, 러 6자회담 차석대표 회동(3.27 중국 외교부) ..... 260

□ 일본어권

- 김정남, 김정일 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 불참(3.27 텔레비전 아사히) ..... 260
- 동창리 기지는 발사 직후 관찰이 더 어렵다.(3.28 후지TV) ..... 261
- KAL기 폭파범 김현희 단독 인터뷰 보도(3.26 후지TV) ..... 261

□ 러시아어권

- IAEA 최대한 빨리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3.26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261

〈2012.3.29(木)〉

□ 영어권

- 美 국방부,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3.28 美 하원 군사위 청문회) ..... 268
- 韓·美연합사령관, 북한의 불시 공격능력 확대 언급(3.28 美 하원 군사위 청문회) ..... 269
- 동창리 발사장 활동 포착 최신 위성사진 입수(3.28 CNN) ..... 270

□ 중국어권

- 北, 중국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3.28 중국망, 「비디엔룽」 시사평론가 사설) ..... 271

□ 일본어권

- 대북제재 1년 연장하기로(3.29 닛케이) ..... 272

□ 러시아어권

- 러시아는 북한의 대화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3.27 리아 노보스티) ..... 272
- 한반도 문제해결은 미국에 달려있다.(3.28 이타르타스) ..... 273

〈2012.3.30(金)〉

□ 영어권

- 북한에 김정일의 결정 역행할 결정권자는 아직 없다.(3.27 美 외교협회) ..... 281

□ 중국어권

- 한반도 정세가 뒷걸음치는 것이 안타깝다.(3.30 환구시보) ..... 281

□ 러시아어권

- 북한의 위성발사는 정치선전용이다.(3.29 모스크프스코예 노보스티) ..... 283

□ 일본어권

- '평양-베이징' 고려항공편 5배 증편(3.30 TBS뉴스) ..... 283
- 북한 외무성 리근 미주국장, 베를린에서 미국 前 고위관리와 접촉할 가능성(3.30 후지TV) ..... 284
- 북한 라디오방송 '전파 중단' 전력사정 악화가 원인?(3.29 J-Cast 뉴스 ☞ 뉴스사이트) ..... 284

<2012.4.2(月)>

□ 영어권

- 北 위성 발사는 김정일의 결정이며, 철회할 여지없다.  
(3.29 armscontrolwonk.com ☞ 美 군축, 비확산 전문 블로그) ..... 290
- 美 대북지원 중 식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美 의회조사국[CRS] '대북지원' 보고서 3.20 발간 / 4.1 게재) ..... 290

□ 중국어권

- 미국의 對北 식량지원 중단은 근시안적 처사(3.31 홍콩 봉황위성TV) ..... 291
- 북한 위성 발사, 4가지 결말 예측(4.1 홍콩 봉황위성TV) ..... 292

□ 일본어권

- 장거리미사일은 미국을 흔들기 위한 '심리전 무기'(4.1 넷케이) ..... 293
- 중국 여행사, 북한관광 일시 중단(4.1 넷케이) ..... 293

□ 러시아어권

- 한반도문제 관련 학술회의 개최(3.31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293

<2012.4.3(火)>

□ 영어권

- 美·北, 로켓 발사로 격돌로 치닫고 있다.(4.2 US뉴스 ☞ 美 시사주간지) ..... 301
- 北 로켓 발사시 미국이 선택할 옵션은 제한적이다.(4.3 AP) ..... 301

□ 중국어권

- 美 아시아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은 中·러 겨냥한 것(4.2 신화사) ..... 302

□ 러시아어권

- '북한의 위성 발사' 관련 라디오 대담(3.31 에코 모스크바) ..... 303
- 북한 엘리트 계층의 한국산 제품 선호, 주체사상을 위협하고 있다.(3.29 에코 모스크바 블로그) ..... 304

□ 일본어권

- 日 우주항공개발기구, 北 초청에 불참의사 표명(4.3 지지통신) ..... 304
- 말뿐인 북한 제재, 이미 13억엔 북한으로 유출(4.3 산케이) ..... 304

**<2012.4.4(水)>**

영어권

- 北 장거리로켓 기술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  
(4.3 美 MSNBC ⇨ Microsoft社와 NBC社에서 공동운영하는 위성 / 인터넷 뉴스) ..... 312
- 북한의 새 미사일 퍼레이드용 모형일 것이다.(4.3 CNN) ..... 312

중국어권

- 北, 4개의 리스크 무릅쓰고 위성 발사(3.29 경제관찰망 ⇨ 경제주간지) ..... 313

러시아어권

- 북한의 위성발사는 6자회담 재개를 저해한다.(4.3 인테르팍스) ..... 314
- 북한 대응 차원 美 MD구상은 지정학적 변화 가져올 것이다. (4.2 골로스 러시아) ..... 315

일본어권

- 日 방위성 간부, 정보위성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4.3 지지통신) ..... 315
- 김정일이 남긴 '로켓발사' 계획은 김정은에게 득이 될 것인가?(4.4 넷케이 비즈니스) ..... 316

**<2012.4.5(金)>**

영어권

- 이스라엘 미사일 전문가, 북한과 이란 미사일간 관계 분석(4.4 Haaretz ⇨ 이스라엘 일간지) .... 325

러시아어권

- 북한은 ICBM 개발 능력이 없다.(4.3 베스트 FM) ..... 326
- 북한 로켓 발사시 국제사회 평가 불가피하다.(4.4 리아 노보스티) ..... 326
- 러시아연방우주청, 북한 위성발사 참관하지 않을 것이다.(4.4 리아 노보스티) ..... 326

중국어권

- 북한 문제 관련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진심(4.4 환구시보) ..... 327

일본어권

- 북한, 미사일발사 준비태세에 들어감(4.5 후지TV) ..... 327
- 중국내 북한국영 레스토랑, 북한으로 매출의 80%나 송금  
(4.4 레코드차이나 ⇨ 중국정보발신 뉴스사이트) ..... 328

**<2012.4.6(金)>**

영어권

- 北 로켓 발사는 북한 정보를 획득할 절호의 기회이다.(4.6 AP) ..... 335
- 美 국방부, '北 발사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4.5 미군 공보국[AFPS] / 국방부 홈페이지 게재) ..... 336

□ 중국어권

- 광명성 3호와 1,2호 차이(4.6 중국청년보↔공산주의청년단 기관지) ..... 336
- 韓·美·日, 중국에 대북 압력 행사 촉구(3.30 홍콩 봉황위성TV) ..... 337

□ 일본어권

- 김정은, 총서기 및 국방위원장직에 취임하지 않을 것(4.5 TBS뉴스) ..... 338
- 북한의 로켓은 군사기술적으로 미성숙하다.(4.5 넷케이비지니스) ..... 338

□ 러시아어권

- 김일성·김정일보다 김정은이 더 위험한 인물로 판단된다.(4.4 익스페르트↔ 유명 주간지) .. 339
- 北, 위성발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4.5 슬론 ↔ 인터넷 언론사) · 339

〈2012.4.9(月)〉

□ 영어권

- '北 로켓 발사, 이란보다 큰 우려'(4.8 AP통신) ..... 348
- 광명성 3호 참관 관련 서방언론 보도(4.8 BBC, CNN, AP) ..... 348

□ 중국어권

- 中,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향후 대응 이미 시작(4.9, 환구시보) ..... 349
- 中 인민일보 기자가 본 북한 위성 발사 준비 과정(4.9 인민일보) ..... 349

□ 러시아어권

-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만이 난처해질 것이다.(4.8 이즈베스티야) ..... 350
- 북한 핵보유 관련 러시아 전문가 견해(4.8 익스프레스 인포름) ..... 351

□ 일본어권

- 북한의 위성 공개 및 조립 완료 보도(4.8 NHK) ..... 352
- 日군사기술전문가, '1단에 노동미사일 4개 장착'(4.9 NHK) ..... 352
- 북한 미사일, 이번에는 성공확률 70~95%로 예측(4.8 산케이) ..... 353

〈2012.4.10(火)〉

□ 영어권

- 美 우주 전문가, '군사용 미사일은 아니지만 매우 가깝다.'(4.9 NBC) ..... 365
- 美 국제안보 전문가, '올해 말 경 핵실험 가능성 배제 못해'(4.9 CNN) ..... 366
- 美 국방부, '北 로켓 발사 준비에 진전이 보인다.'(4.9 AFP통신) ..... 366
- 필리핀 대통령,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비난(4.9 CNN) ..... 366

□ 러시아어권

- 러시아연방공군, 북한로켓 궤도 벗어날 시 격추시킬 것이다.(4.10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366
- 5월 중순,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4.9 코메르산트) ..... 367
-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 '광명성' 보고 실망했다.(4.9 NTV) ..... 367

- 북한 위성은 평화적인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4.9 제 1TV) ..... 367
- 북한은 발사의 평화적인 목적을 국제사회에 입증해야한다.(4.9 골로스 러시아) ..... 367

□ 중국어권

- '北 위성 발사로 다섯 가지 문제에 직면한 中 외교'(4.10 환구시보) ..... 368

□ 일본어권

- 北, 4.16일에 미사일 발사할 듯하다.(4.10 TBS뉴스) ..... 369
- 2009년 미사일과의 차이점(4.10 후지tv) ..... 370
- 北 위성, 고성능 기능은 없지만 통신은 가능(4.9 마이니치신문) ..... 370

<2012.4.12(木)>

□ 영어권

- 北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참관 서방언론 보도(4.11 NBC, BBC 4.12 CNN) ..... 381
- 美 전문가,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北 핵확산을 막았다고 주장(4.10 CISI 기고) ..... 382

□ 중국어권

- 北 위성발사 관련 中 방위 강화해야 한다. (4.10 중국망 中 국무원 신문판공실 운영) ..... 383
- 北, 김정은 시대 정식 개막(4.12 환구시보) ..... 384
- 中 후진타오 주석, 김정은 노동당 제1서기 추대 축전 발송(4.11 신화망) ..... 384

□ 러시아어권

- 북한 위성을 국제통제 하에 두는 새 결의안 채택해야 한다.(4.12 모스크프스키에 노보스티) ... 385
- 이제 남은 방법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4.10 골로스 러시아) ..... 385
- 북한 소식통, '기상 조건 문제없을 경우, 예정대로 14일에 광명성 3호 발사될 것이다'고 밝힘 (4.11 인테르팍스) ..... 386
- 북한 정통 소식통, '13~14일 중 광명성 3호 발사될 것이다'고 밝힘(4.11 이타르타스) ..... 386

□ 일본어권

- 노다 총리, '만전의 태세로 대비할 것이다.'(4.12 교도통신) ..... 386
- 日관방장관, 국민들은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당부(4.11 교도통신) ..... 386

<2012.4.13(金)>

□ 영어권

- 北, 수일 내 핵실험 할 수도 있다.(4.13 Bloomberg) ..... 396
- 北,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4.13 AP) ..... 396
- 美 한반도 전문가, '北 미사일 발사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4.12 美 헤리티지재단) ..... 397
- 北, 로켓 실패 인정은 놀라운 변화이다.(4.13 CBS) ..... 398

□ 중국어권

- 北 위성발사는 제3차 핵실험이 목적(4.13 홍콩 봉황위성TV) ..... 398

- 北, 로켓 비행 계수 숨기려 고의 폭발시켰을 가능성 있음.(4.13 홍콩 봉황위성TV) ..... 399

□ 일본어권

- 北 미사일 발사 관련 전문가 담화(4.13 지지통신) ..... 400
- 1단이 분리될 때 문제 생겼다.(4.13 NHK) ..... 402
- 美 전문가, 수개월 내에 핵실험할 것(4.13 NHK) ..... 402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외무부, 북한 위성발사 매우 우려스럽다.(4.13 인테르팍스) ..... 403
- 발사 실패보다 발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문제다.(4.13 제 1채널) ..... 403
- 북한 위성프로그램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4.12 나카누네 루 ☞ 인터넷 언론) ..... 403

<2012.4.16(月)>

□ 영어권

- 北 미사일 발사 실패, '美 동맹 MD강화 계기'(4.15 Financial Times) ..... 414
- 北 미사일 발사 후속조치 일환 아시아 우방국들과 협력 강화(4.15 美 국무부 보도자료) ..... 415
- 北, 도발로 여전히 '은자의 왕국'(4.15 美 CBS뉴스) ..... 415

□ 중국어권

- 北, 위성 발사 실패, 그러나 두 가지 목적 달성(4.14,첸장완바오 ☞절강성 지역신문) ..... 415
- 北, 더 이상 모험하지 말아야 한다.(4.13 환구시보) ..... 416
- 中, 北의 핵실험 저지로 얻는 결과(4.15, 홍콩 봉황위성TV) ..... 417
- 北의 미세한 변화, 더욱 독려해야 한다.(4.16 환구시보) ..... 417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외무부, '북한과 대화 재개할 준비 됐다.'(4.13 리아 노보스티) ..... 418
- 대북 제재서 핵실험 할 수 있다.(4.13 리아 노보스티) ..... 418
- 북한의 행동은 UN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4.14 리아 노보스티) ..... 419
- 김정일 핵개발 유언은 사실이 아니다.(4.13 골로스 러시아) ..... 419

□ 일본어권

- 北 무인기와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4.15 TBS뉴스) ..... 419
- 北 사정거리 5,500km 이상인 신형탄도미사일 공개(4.15 후지tv) ..... 420

<2012.4.17(火)>

□ 영어권

- 美 유엔대사, '北의 핵실험은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4.16 유엔 미국대표부) ..... 430
- 美 국방부, 北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4.16 美 국방부 브리핑) ..... 431
- 클린턴 장관, 北 추가 도발시 中도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4.16 AFP/로이터통신) ..... 431
- '美·北 대화의 지속과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 주장(4.16 Forbes誌) ..... 432

□ 중국어권

- 평양이 더 이상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4.17 환구시보) ..... 433
- 北 미사일 발사 실패, 나쁘지만은 않다.(4.17 환구시보) ..... 434

□ 러시아어권

- 김정은은 가스관 건설에 관한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4.17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435
- 김정은은 다른 생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이다.(4.16 베스트 FM) ..... 435
- 독재체제 유지가 북한이 존속할 수 있는 길이다.(4.14 스바보다 라디오) ..... 436

□ 일본어권

- 신형미사일 발사대는 중국산 특수차량을 개조한 것(4.16 마이니치) ..... 437
- 평양의 최근 모습과 농촌지대와의 격차에 대한 르포(4.16 NHK) ..... 437

<2012.4.18(水)>

□ 영어권

- 北 발사 후 도전과 선택(4.17 브루킹스연구소) ..... 448
- 北 로켓 기술 진전 없다.(4.17 AP) ..... 449
- 北 열병식에서 선보인 차량 중국산과 동일하다.(4.17 NYT) ..... 450

□ 중국어권

- 中,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북한 개혁 이끌어야 한다.(4.17 홍콩 봉황위성TV) ..... 450
- 한반도 정세 악화 억제, 중국 외교의 시험대 될 듯 하다.(4.17 홍콩 봉황위성TV) ..... 451

□ 러시아어권

- 일본 언론의 북한관련 보도는 검증이 필요하다.(4.17 골로스 러시아) ..... 452
- 북한을 지정학적 자극요인으로 이용하려는 국가가 있다.(4.17 골로스 러시아) ..... 453
- UN안보리 대북 추가제재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행동이다. (4.17 브즈글라드) ..... 453

□ 일본어권

- 北 미사일 발사 日·美는 환영, 중국은 당황스럽다.(4.18 주간 아사히) ..... 453
- 北 4.15 축제 참가 일본인들의 증언(4.18 요미우리 신문) ..... 454

<2012.4.19(木)>

□ 영어권

- 김정일 사후 北, 여전히 위험하고 변덕스럽다.(4.18 美 하원 외교위 북한청문회) ..... 465
- 美 전문가들, 北의 핵실험·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있다.(4.18 AFP통신) ..... 466
- 中이 北의 미사일기술 개발에 협조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4.18 AP통신) ..... 466
- 北 로켓 발사 실패로 美 미사일 방어 논쟁 점화  
(4.17 Global Security Newswire ⇨ 핵무기, 테러리즘, 안보 관련 인터넷 언론) ..... 467

- 중국어권
  - 북한의 봄은 오는가?(4.19 베이징천바오 ⇨ 베이징지역신문) ..... 468
- 러시아어권
  - 현 상황전개는 새로울 것이 없으며, 3차 핵실험 가능성 있다.(4.18 콜로스 러시아) ..... 469
  - 김정은은 군부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다.(4.19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469
- 일본어권
  - 北 대화의 여지 있다.(4.18 아사히TV) ..... 470
  - 日, 대북제재 대상 추가후보 제출(4.19 지지통신) ..... 470

<2012.4.20[金]>

- 영어권
  - 北 정권 자체를 타도해야 할 때다.(4.20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479
  - 北 로켓 발사 실패는 美 행정부 및 전문가들의 북한 능력 과대평가를 보여준다.  
(4.16 Foreign Affairs) ..... 480
- 중국어권
  - 북한의 근본적 목적은 북한과 한반도의 베트남화이다.(4.19 홍콩 봉황위성TV) ..... 481
  - 中, 기근에 처한 북한과 개혁 경험 공유해야 한다.(4.17 홍콩 봉황위성TV) ..... 482
- 러시아어권
  - 북한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 없다.(4.19 IA REX ⇨ 국제전문가 토론사이트) ..... 483
  - 북한의 변화 속단하기는 이르다.(4.19 라디오 스바보다) ..... 483
- 일본어권
  - 김정은 체제 시작(4.16 NHK) ..... 484

<2012.4.23[月]>

- 영어권
  - 中·北 관계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4.23 걸프뉴스 ⇨ 아랍에미리트연합 영자 신문) ..... 493
- 러시아어권
  - 사실상 2020년까지 북한의 ICBM 개발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4.20 바엔노예 아바즈레니예 ⇨ 군사전문 일간지) ..... 494
  - 근본적인 실패원인은 기술지원이 없기 때문이다.(4.21 도쉬지 ⇨ 인터넷 방송국) ..... 494
- 중국어권
  - 北 열병식은 한국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4.23 남방일보) ..... 495



- 일본어권
  - 김정은, 1991년부터 스위스에 체류했다.(4.23 교도통신) ..... 495
  - '북한 지하자원 수출 의존도 증가' 보도(4.20 아시아프레스) ..... 496

## <2012.4.24(火)>

- 일본어권
  - 후진타오 주석, 김정은 방중 초청 가능성이 있다.(4.23 산케이) ..... 502
- 영어권
  - 北, 대남 특별행동 위협 관련 보도(4.23 VOA) ..... 502
  -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주민 실정 보도  
(4.23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503
  - 이란, 대북 인도지원 실시(4.22 Ynetnews ⇨ 이스라엘 인터넷 언론사) ..... 503
- 중국어권
  - 김정남 관련서적 5월 홍콩 출간 관련 「고미요지」 인터뷰(4.29 아주주간 ⇨ 홍콩 시사주간지) ..... 503
  - 북한의 운명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지 않다(4.24 인민일보 사천성 지역 신문) ..... 504
- 러시아어권
  - 북한의 대남위협은 새로운 것 없다.(4.23 로스발트 ⇨ 뉴스포털 사이트) ..... 505
  - 김정은, 생각보다 매우 능력·경험있는 정치 인물로 파악된다.  
(4.21 바엔노예 아바즈레니예 ⇨ 군사전문 포털사이트) ..... 505

## <2012.4.25(水)>

- 일본어권
  - 北 북동부 지역에서도 아사자 속출(4.25 도쿄신문) ..... 512
  - 북한 주민, 강제 헌납에 불만 발생(4.24 아시아프레스) ..... 512
  - 겐바 외상, 북한의 특별행동 견제(4.24 지지통신) ..... 513
- 영어권
  - 美 하원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서한 발송  
(4.24 Stillwater Patch ⇨ 미네소타주 스틸워터시 지역 인터넷 언론사) ..... 513
  - 美, 북한과 관계 정상화 모색해야 한다.(4.23 National Interest ⇨ 시사지) ..... 514
- 중국어권
  - 北의 핵실험 첫째 목표는 對南 위협이다.(4.24 홍콩 봉황위성TV) ..... 515
- 러시아어권
  - 러시아 부총리, 핵 보유국 확대 가능성 큰 문제로 인식한다.(4.24 리아 노보스티) ..... 516
  - 러시아 국방부, 최초로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 가능성 인정했다.(4.24 리아 노보스티) ..... 516
  - 러시아 외무부, 한반도 정세 예의주시하고 있다.(4.24 골로스 러시아) ..... 516

- 리 총참모장 발언, 파트너국으로써 부적절하다.(4.24 콰소몰스카야 프라우다) ..... 517

## <2012.4.26(木)>

### □ 영어권

- 美 국방장관, 北 핵실험 중단 촉구(4.25 The Hill) ..... 525
- 美 국방부, 美 본토는 北의 미사일 공격에 안전하다.(4.25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 525

### □ 중국어권

- 美, 北에 신형 미사일 수송차량 기술 간접 제공(4.25 중국신문망) ..... 526
- 中, 북한 대표단 환대로 김정은 訪中 추측 유발(4.24 홍콩 봉황위성TV) ..... 527
- 北의 세 가지 문제가 한반도에서의 중국 지위 어렵게 만든다.(4.24 홍콩 봉황위성TV) ..... 528

### □ 일본어권

- 북한의 새로운 군사행동 징후 포착됨.(4.25 TBS뉴스) ..... 529
- 加 군사전문지, 중국 기업이 발사대 차량을 北에 인도(4.26 NHK) ..... 529
- 중국 국무원, 中·北 국경지역 경제구 개발 승인(4.25 닛케이) ..... 529

### □ 러시아어권

- 러시아 국방부,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중이다.(4.25 인테르팍스) ..... 530
- 남아시아의 군비경쟁 상황에서 북한은 가장 우려스러운 국가이다.  
(4.26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 일간지) ..... 530

## <2012.4.27(金)>

### □ 영어권

- 美 전문가, 北 핵실험 압박 주장(4.26 Bloomberg) ..... 539
- '北 신형 미사일은 가짜'에 대한 전문가들 견해(4.26 AP통신) ..... 539

### □ 중국어권

- 北, 서해발사장을 단동 근처로 한 것은 중국을 전쟁에 개입시키려는 계산이다.  
(4.26 홍콩 봉황위성TV) ..... 541
- 北, 전 세계 언론을 '책사'로 이용(4.27 환구시보) ..... 541
- 中 정협 부주석 訪北(4.26 국제재선⇨중국 관영라디오방송국 운영 인터넷신문) ..... 542

### □ 러시아어권

- 북한, 변화하지 않는다면 주체체제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4.26 가제타 ⇨ 일간지) ..... 543
-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 인정은 러시아 대외정책 변화를 의미한다.  
(4.26 812online ⇨ 인터넷 일간지) ..... 543

### □ 일본어권

- 北 조선국립교향악단 미국 공연,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연기(4.27 교도통신) ..... 544
- 北 핵실험 실행할 것이다.(4.27 후지TV) ..... 544

<2012.4.30(月)>

□ 영어권

- 北, 첫 번째 우라늄 핵실험 할 수 있다.(4.27Reuters) ..... 553
- 北 풍계리 핵실험 준비 활발(4.27 38노스 ⇨ 미국 북한 전문 웹사이트) ..... 554

□ 일본어권

- 北, 외국 전문가 초청하여 법률 개정을 위한 시장경제 연수 실시(4.30 지지통신) ..... 557
- 中, 평양에 '조선중국상회' 설립(4.27 산케이) ..... 557

□ 러시아어권

- 북한 관련 언론보도가 부정적인 이유는 정보폐쇄성 때문이다.  
(4.28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일간지) ..... 558

□ 중국어권

-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김정은의 뜻(4.24 남도주간 ⇨ 중국 광둥省 주간지) · 558

<2012.5.1(火)>

□ 영어권

- 北의 ICBM 개발에 3가지 길 있다.(4.29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565
- 北 위성 발사에 대한 서방의 반응은 위선적이다.  
(4.28 Global Research ⇨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웹사이트) ..... 566

□ 러시아어권

- 북한의 ICBM 개발성공은 아직 훨씬 멀었다.(4.30 vpk-news ⇨ 군사전문 주간지) ..... 566
- 북한, 조만간 유럽도달 가능 탄도미사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4.28 echo msk ⇨ 라디오) 567

□ 일본어권

-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드러난 김정은 체제와 인사 특징  
(5.1 코리아국제연구소 ⇨ 재일 한국인, 북한 민주화 등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 567

□ 중국어권

- 中 투먼~北 칠보산, 전용 열차 개통(4.29 신화사 길림지역 신문) ..... 568
- 中·北 기상 과학기술협력 회의 개최(4.27 중국 기상국 홈페이지) ..... 568

<2012.5.2(水)>

□ 영어권

- 北 인권문제가 관계 개선에 중요하다.(5.1 美 국무부 대변인실 서면답변) ..... 576
- 北 외자 유치 증가는 사회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5.1 The Diplomat) ..... 576

□ 중국어권	
• 북한은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4.30 홍콩 봉황위성TV)	578
• 중국 東北지역에서 출발하는 북한 자동차 여행편 재개(4.29 신화사)	578
□ 일본어권	
• 김정은 ‘유혼 관철’ 일탈에 따른 딜레마(5.2 마이니치신문)	579
• 조총련, 4.15 행사시 출장가판대 설치로 김정은 체제에 충성(5.1 지지통신)	579
□ 러시아어권	
• 러시아, 불법어업방지에 관한 러·北간 협정 비준심사 예정이다.(5.2 리아 노보스티)	579
• 극동지역 사절단, 방북 시 양국간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했다. (4.30 zpress ⇨ 극동지역 언론사)	580

### <2012.5.3(木)>

□ 중국어권	
• 北, 한국에 사이버 공격할 것이다.(5.2 대련TV방송)	588
□ 영어권	
• 미국은 중국측에 北 미사일 지원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5.1 더 힐 ⇨ 미 의회 전문지)	589
•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5.2 더 힐 ⇨ 미 의회 전문지)	589
• 북한 외에 무기금수 결의 위반 해외 국가도 제재해야 한다.(5.2 Heritage Foundation)	590
□ 러시아어권	
• 러시아 국방부,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설부른 판단 이른다.(5.2 인테르팍스)	590
• 북한 내 아사자 발생 보도는 신뢰성이 떨어진다.(5.3 러시아스에 베스트 ⇨ 주간지)	591
• 미국의 새로운 MD 구상은 러시아의 핵 파워 약화가 목적이다.(5.3 리아 노보스티)	592
□ 일본어권	
• 김정은을 읽는 4가지 키워드(5.3 NNN.ASIA 「고미요지」 기고문)	592

### <2012.5.4(金)>

□ 중국어권	
• 한반도 비핵화는 꿈일 뿐이다.(5.3 홍콩 봉황위성TV)	602
□ 러시아어권	
• 북한 핵 실험 시, 러시아는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5.3 이즈베스티야)	603
•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한 ‘망상’이다.(5.3 리아 노보스티)	603
• 러시아 軍,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은 과장됐다.(5.3 리아 노보스티)	604
• 러시아 軍, 북한과 이란은 장거리 미사일 아직 보유 못했다.(5.3 리아 노보스티)	604

□ 영어권

- 北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상 관련 보도(5.3 AFP) ..... 604
- 북한 내 휴대폰 증가로 은둔의 왕국을 벗어날 것이다.(5.1 Financial Times) ..... 605

□ 일본어권

- 日 외상, 북한 제재 실효성이 중요하다.(5.4 아사히신문) ..... 606
- 한류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고영희의 숨겨진 인생(5.4 산케이) ..... 606

<2012.5.7(月)>

□ 영어권

- 발사 실패로 당황한 北에 대한 전문가들 견해(5.5 뉴욕타임스) ..... 615
- 北, 韓 민간항공기 전파교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5.2 Fox News) ..... 615

□ 중국어권

- 북한 위성 발사의 복잡성(5.6 신산경 ⇨ 중국 공청단 운영 산업경제 신문) ..... 616
- 北, 황금평·위화도 경제지구 관리 중국 중관촌 방문(5.2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지구 사이트) ..... 617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외무부, '北 핵실험 감행 시 심각한 대응 뒤따를 것이다.'(5.4 외무부) ..... 617
-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향후 러시아 안보에 잠재적 위협 될 수 있다.(5.4 리아 노보스티) ..... 618

□ 일본어권

- 北 외무성 일본담당자, 유골반환 제안(5.5 지지통신) ..... 618

<2012.5.8(火)>

□ 영어권

- 北 엄하게 다뤄야 한다.(5.7 볼티모어 선 ⇨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지역 종합지) ..... 624

□ 러시아어권

- 北 미사일 프로그램, 아직은 유럽에 위협되는 수준 아니다.(5.4 리아 노보스티) ..... 625
- 北 핵실험, 역내 지진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5.5 인테르팍스) ..... 625
- 미국, 북한과의 전쟁으로 얻을 것 없다. (5.7 바옌노예 아바즈레니예 ⇨ 군사전문지) ..... 626

□ 중국어권

- 中·北무역 활발,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도 개방할까?(5.8 제일재경일보 ⇨ 경제전문지) ..... 626

□ 일본어권

- 北 특별행동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서울 포격이다.(5.7 J-Cast 뉴스⇨뉴스사이트) ..... 627

<2012.5.9(水)>

□ 영어권

- 北 핵실험해도 핵무기 배치까지는 아직 멀었다.(5.8 AP통신) ..... 633
- 北, 중국의 경제 발전 방해될 수 있다.(5.9 The Diplomat) ..... 634

□ 중국어권

- 김정은 訪中 가능성 모색, 의도는?(5.8 차이신 ⇨ 중국 인터넷 언론) ..... 635
- 2012년 중국 정부 유학생 북한 파견(5.8 駐北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635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 노선 방향에 관한 대통령 명령(5.7 크레믈린 홈페이지) ..... 636

□ 일본어권

- 北, 미사일 실패했는데도 왜 핵실험을 하는가?(5.9 닛케이 비즈니스) ..... 636

<2012.5.10(木)>

□ 영어권

- 해외언론을 통해 北주민들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5.10 AP통신) ..... 644
- 2015년 NPT 평가회의를 위한 1차 준비회의[4.30~5.11] 참가 대표단 성명 발표  
(4.30 / 5.3 UN 홈페이지) ..... 645

□ 중국어권

- 中 길림省 제1차 북한 자동차 여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5.9 Bitauto ⇨ 인터넷 자동차 거래사이트) ..... 646

□ 일본어권

- 北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의 90%이상 상납한다.(5.9 NHK) ..... 647
- 2004년 실종된 美유학생 납북 가능성있다.(5.9 TBS뉴스) ..... 647

□ 러시아어권

- 평양에서 한국戰 러시아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행사 개최(5.9 브즈글라드) ..... 647
- 연해주 지역 청소년, 북한에서 진행될 여름캠프 참가 예정이다.(5.10 보스토크 미디어) ..... 647

<2012.5.11(金)>

□ 영어권

- 北 어린이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5.10 세이브더칠드런 / VOA) ..... 653
- 美·英, 북한의 해외 무기판매 강력대응 촉구(5.10 Financial Times) ..... 654

□ 중국어권

- 김정은 양복 착용, 북한은 변할 것인가?(5.10 / 신화망) ..... 655

- 중국 단둥市 42개 기업, <제15회 평양 춘계 국제상품전> 참가(5.10 단둥시 정부 홈페이지) ..... 655

□ 일본어권

- 김정은은 상식인이다.(5.10 하신기 블로그) ..... 656
- 中 리자오싱 前외교부장, 김영남과 회담(5.10 닛케이) ..... 657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아무르州 기업 대표단, 북한과 임업부문 협력 논의  
(5.10 wood.ru ⇨ 임업전문 포털사이트) ..... 657

<2012.5.14(月)>

□ 영어권

- 北, 美에 예측 불능의 위협 요인이다.(5.14 美 헤리티지재단) ..... 664
- 韓정부 대북 강경조치의 희생양은 한국 기업들이다.(5.11 Washington Post) ..... 664

□ 중국어권

- 韓·中·日 경제협력은 북한 개혁에 도움이 된다.(5.14 홍콩 봉황위성TV) ..... 666
- 중국은 지역 협력의 중심 역량이 되어야 한다.(5.13 중국망) ..... 667

□ 일본어권

- 北 부유층, 당국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5.10 주간현대 ⇨ 주간지) ..... 668

□ 러시아어권

- 서방에서 나오는 정보는 북한에 대항하는 정보전에 불과하다. (5.13 보스토크 미디어) ..... 669
- 당분간 전술 핵무기 한반도 배치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5.12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669

<2012.5.15(火)>

□ 중국어권

- 미국의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어리석은 일이다.(5.15 환구시보) ..... 678

□ 영어권

- 싱가포르, 北 경제 모델 될까?(5.12 AP) ..... 679
- 김정은, 김정일보다 경제개혁에 더 개방적이다.(5.14 美 타임) ..... 680

□ 일본어권

- 北 지원하는 NGO에도 역풍불다.(5.15 마이니치) ..... 681
-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5.14 NHK) ..... 682

□ 러시아어권

- 북한은 거의 완전한 핵보유국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정책연구소 정기간행물 '핵통제' 2012/1분기) ..... 682

- 러·北간 광섬유케이블 구축됐다.(5.14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683

### <2012.5.16(水)>

#### □ 영어권

- 北 3차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 실험이 될 것이다.(5.15 Voice of Russia) ..... 690
- 인권은 북한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5.15 美 하원 외교위) ..... 691

#### □ 중국어권

- 韓·日 군사협력, 중국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5.10 광저우일보 ⇨ 광저우 지역 신문) · 692

#### □ 러시아어권

- 美 MD 구축계획 관련, 북한은 유럽도달 ICBM 개발능력 없다.(5.15 리아 노보스티) ..... 693

#### □ 일본어권

- 北에 10년간 50회 물자 불법수출한 용의자 구속(5.14 마이니치) ..... 694

### <2012.5.17(木)>

#### □ 영어권

- 中, 北에 백두산 인근 핵실험을 하지 말 것 요구했다.(5.16 Reuters) ..... 701
- 인도네시아 대통령, 민감한 北 문제에 안전책 강구(5.16 자카르타 포스트) ..... 702

#### □ 중국어권

- 北, 동남아시아와 우호 관계 강화로 외교적 국면 타파 시도 (5.17 남방일보) ..... 703
- 북한의 중국 어선 나포, 의문점(5.16 차이신 ⇨ 중국 인터넷 언론) ..... 704

#### □ 러시아어권

- 北 핵실험, 러시아 안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5.17 노바야 가제타) ..... 705
- 한국과 미얀마, 협력을 통해 상호간 이득을 꾀하려 한다.(5.16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706

#### □ 일본어권

- 개혁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 김정은  
(5.16 일본전략연구포럼 日 군사전문가 기고문 ⇨ 국가전략연구 싱크탱크) ..... 706
- 日 대학교수, 北측과 일본인 유골 반환문제 논의 위해 방중(5.17 교도통신) ..... 706

### <2012.5.18(金)>

#### □ 영어권

- 北 핵실험시 미국은 대북 봉쇄정책을 택할 것이다.  
(5.14 美 CSIS 동아시아 양자관계 e-저널 'Comparative Connections' 게재) ..... 716
- 美·北 관계에서 인권문제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5.16 美 브루킹스연구소) ..... 717



- 중국어권
  - 中·北은 중국 선박 나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5.18 환구시보) ..... 718
  - 미국의 북핵 억제는 美·中의 전략적 신뢰 부족 때문이다.(5.17 시대주보) ..... 719
- 러시아어권
  - 北, 조만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18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 720
  - G8 선언문에는 북한문제가 포함될 것이다.(5.17 리아 노보스티) ..... 721
  - 러시아 연해주 지방법원, 북한인 3명에게 실형 선고했다.(5.17 이타르타스) ..... 721
- 일본어권
  - 마나베 사다키 교수, 5.17일 북측과 접촉(5.18 후지TV) ..... 721
  - 북한 음대생과 노르웨이 문화대표단이 합동음악회 개최(5.18 교도통신) ..... 722

### <2012.5.21(月)>

- 영어권
  - 中의 대북정책은 비논리적이다.(5.19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신문) ..... 730
  - 비공개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 입수(5.19 AP) ..... 731
- 중국어권
  - 中·北의 우호 관계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5.21 환구시보) ..... 732
- 일본어권
  - 김정은을 포섭하고 싶은 중국의 심모원려[深謀遠慮](5.19 산케이) ..... 733
- 러시아어권
  - G8 공동성명, 北 문제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5.20 리아 노보스티) ..... 734
  - 러시아, G8 성명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 타격 입을 수 있다.  
(5.20 stoletie ⇨ 인터넷 언론사) ..... 735

### <2012.5.22(火)>

- 영어권
  - 北의 도발에 대한 전문가 견해(5.18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 ..... 743
  - 북한인권침해사례집, 향후 국제군사재판근거로 활용 가능 (5.17 Wall Street Journal) ..... 744
- 중국어권
  - 북한의 선제 공격에는 중국측의 경제 제제도 소용없다.(5.21 차이선 ⇨ 중국 인터넷 언론) ..... 745
  - 상해~평양 구간 전세기, 7월부터 운항 재개(5.22 동방조보 ⇨ 주간지) ..... 746
  - 中, 북·중·러 국경 투먼강 지역(훈춘)에 국제협력시범지구 건설 (5.21 국제제선) ..... 747
- 일본어권
  - 북한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러시아 외교인사 발언 의도(5.22 닛케이) ..... 747

- 북한은 핵실험을 포기한 것인가?(5.21 넷케이) ..... 748
- 日·美 장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조치 확인(5.22 니혼TV) ..... 748
- 개발 진행중인 中·北 국경지구, 외자참여 호소(5.21 아사히TV) ..... 748

□ 러시아어권

- 러시아 미사일 부대, 탄도미사일 시스템 배치 준비에 착수했다.(5.21 리아 노보스티) ..... 749
- 北 군악단, 러시아에서 공연예정이다.(5.21 프리마 미디어 ⇨ 지역 신문) ..... 749

<2012.5.23(水)>

□ 영어권

- 무수단리 발사장 개선공사 위성사진 분석(5.22 38North) ..... 760
- 중국이 한반도 평화의 열쇠이다.(5.23 걸프뉴스 ⇨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자 신문) ..... 763

□ 중국어권

- 북한은 납치한 중국 어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5.23 중국신문주간 China Newsweek) ..... 764

□ 일본어권

- 정서 불안정한 김정은, 유원지 잡초에 화내며 잡초뽑기 감행(5.21 아사히TV) ..... 766
- 中여행사, 북한관광 단체여행객 모집 시작(5.23 산케이) ..... 767

□ 러시아어권

- 北, 아시아의 비공식 핵보유국이다.(5.21 arms-expo ⇨ 군사전문 통신사) ..... 767
- 北, 탄도미사일 생산 및 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5.22 글로스 러시아) ..... 768

<2012.5.24(木)>

□ 영어권

- 美·中이 한반도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5.24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776
- 美 공화당 롬니 진영의 대북정책 관련 입장(5.23 The Diplomat) ..... 777

□ 중국어권

- 中·北은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5.23 홍콩 봉황위성TV) ..... 778

□ 러시아어권

- 新 실크로드 구축 저해요인은 북한이다.(5.23 글로스 러시아) ..... 779
- 北, 전혀 없었던 특이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5.23 에코 모스크바 ⇨ 라디오) ..... 779
- 北 사절단, 방려 예정이다.(5.23 하바로프스키에 노보스티 ⇨ 지역 신문) ..... 780

□ 일본어권

- 中·北경계지역, 중국 주도로 개발이 시작됐다.(5.23 넷케이) ..... 780

<2012.5.25[金]>

□ 중국어권

- 북한은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다.(5.23 홍콩 봉황위성TV) ..... 789
- 어선 나포 사건은 中·北관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보여준다.(5.23 홍콩 봉황위성TV) ..... 789

□ 영어권

- 中은 어선나포로 北과 단절하지 않을 것이다.(5.24 타임) ..... 790

□ 러시아어권

- 대북 UN 제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23 obozrevatel ⇨ 인터넷 언론사) ..... 791
- 北, 소비 붐 징후가 관측되고 있다.(5.24 RUSKOR ⇨ 언론사) ..... 792
- 러시아는 북한-파키스탄간 관계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5.25 nvo.ng ⇨ 군사전문 일간지) .. 793

□ 일본어권

- 연변조선족자치주, 탈북자 집중단속 시작했다.(5.24 레코드차이나) ..... 794
- 중국 前외교부장,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요청(5.24 닛케이) ..... 794
- 日외상, 북한의 행동에 따라 응해나갈 생각 있다.(5.25 지지통신) ..... 794

<2012.5.29[火]>

□ 영어권

- 북한의 극심한 가뭄 불구, 식량지원 가능성 낮다.(5.28 AP) ..... 803
- EU 의회, 중국의 탈북자 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5.28 Financial Mirror) ..... 804
- 北 수용소에 대한 탈북자들 증언(5.28 CNN) ..... 804

□ 중국어권

-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된다.(5.25 환구망) ..... 805
- 북한의 對中 태도는 시계추와 같다.(5.25 봉황망) ..... 806

□ 일본어권

- 北, 軍部내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5.26 주간 현대) ..... 807
- 北, 일본 미디어 2개社에 방북을 타진했다.  
(5.26 이자 ⇨ 산케이 디지털뉴스, 블로그 포털사이트) ..... 808

□ 러시아어권

- 北 가뭄, 쌀 수확량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5.28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808
- 北 문화·예술 사절단 극동지역을 방문했다.  
(5.29 아무르스카야 프라우다, 프리마 미디어 ⇨ 지역 언론사) ..... 809
- 불법어업방지에 관한 러·北간 협정은 6월 중 비준될 것이다.  
(5.28 fishnews ⇨ 어업분야 전문 언론사) ..... 809

## <2012.5.30(水)>

### □ 영어권

- 北에 혼란이 없다고 질서가 잡힌 것은 아니다.(5.29 WSJ) ..... 819
- 美 특수부대 北 침투 보도, 북한이 이용할 수 있다.(5.29 Washington Post) ..... 819
- 김정은에 대한 北 TV 방송 늘었다.(5.29 AFP) ..... 820
- 北, 50년만 최악의 가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28 Voice of Russia) ..... 821

### □ 러시아어권

- 특수부대 북파설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5.29 stopnews ☞ 언론사) ..... 821
- 北, 군사분쟁 발생 가능성 가장 높다.(5.30 vpk-news ☞ 군사전문 일간지) ..... 821
- 러 재무부 차관, 채무문제 논의 차 방북 예정이다.(5.29 재무부) ..... 822

### □ 중국어권

- 韓·美 특수부대 북한 잠입, 북한의 반격은?(5.30 차이선) ..... 822
- 北 평양신문社 대표단, 중국 방문(5.29 중국 기자협회) ..... 823

### □ 일본어권

- WFP 新사무국장, 북한과 조건 협상중이다.(5.29 지지통신) ..... 824
- 北, 외화획득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하다.(5.26 TBS뉴스) ..... 824

## <2012.5.31(木)>

### □ 영어권

- 北 가뭄으로 중국에 식량지원 요청시, 핵실험 어려워 질 것이다.  
(5.31 아시아타임스 ☞ 홍콩) ..... 833
- 「톨리」 준장, 곡해 여지 제공 시인했다.(5.30 NPR) ..... 834
- 北 식당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5.30 이코노미스트) ..... 834
- 김정남이 방탕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5.31 아시아타임스 ☞ 홍콩) ..... 835

### □ 중국어권

- 북한에 있어 특수부대 잠입보다 더 큰 문제는 가뭄이다.  
(5.30 타이하이망 ☞ 중국 북경성의 兩岸관련 종합 포털 사이트) ..... 836
- 동북아 전쟁 가능성, 미리 예방해야 한다.  
(5.29 환구망 / 5.27 상해포럼 2012, “중국과 아시아의 질서” 강연) ..... 837

### □ 러시아어권

- 러시아, 북한의 對러 채무를 협력발전 지체요인으로 생각한다.  
(5.30 로스발트 ☞ 정보분석 언론사) ..... 839
- 북한의 핵보유국 헌법명기는 對北 압박에 대한 조용한 대응이다.  
(5.30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839
- 北 대표단, 협력 논의 차 아무르州 방문 중이다.(5.30 아무르주 홈페이지) ..... 840

- 일본어권
  - 인도네시아, 北에 200만 달러 지원 검토중이다.(5.31 지지통신) ..... 841

<2012.6.1(金)>

- 영어권
  - 北, 탄소배출권 거래로 외화벌이(5.31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 852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집착을 중단해야 한다.(5.31 National Interest) ..... 853
  - 北의 산림농업 혁신, 식량·에너지난 극복 기여한다.(5.31 Science and Development Network  
 ⇨ 개도국 대상 과학, 기술 정보 제공 英 비영리단체) ..... 854

- 일본어권
  - 김정은이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6.1 아사히신문) ..... 854
  - 北은 국민을 죽이면서도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이다.(5.31 the liberty web⇨일간지) · 855

- 러시아어권
  - 北, 핵실험이 고립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6.1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일간지) ..... 855
  - 北 대표단, 아무르州 주지사와 만나 상호 협력방안 논의했다.  
 (5.31 portamur ⇨ 극동지역 언론사) ..... 855

- 중국어권
  - 김광훈 駐심양북한총영사, 중국 장춘市 방문(5.31 장춘일보) ..... 856
  - 北 경원郡 우호 방문단, 중국 훈춘市 방문(5.31 훈춘열선 ⇨ 훈춘지역 사이트) ..... 856

<2012.6.4(月)>

- 영어권
  - 북한 외자유치 관련 전문가 인터뷰(6.1 38 North) ..... 866
  -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은 19,000기로 추정(6.4 SIPRI '12 보고서) ..... 867

- 일본어권
  - 美 핵전문가, 北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없을 가능성 있다.(6.2 아사히TV) ..... 868
  - 北, 가뭄으로 벌써부터 도시주민 총동원하다.(6.3 아사히신문) ..... 869

- 러시아어권
  - 北, 핵보유국 헌법명기로 국제사회 압력 약화를 기대하고 있다.  
 (6.4 expert.ua ⇨ 우크라이나 주간지) ..... 869
  - 駐러 북한대사, 카자흐스탄과 협력방안 논의했다.(6.2 카자흐스탄 대사관 홈페이지) ..... 869
  - 러시아 정교회 대표단, 訪北 중이다.(6.3 vladnews ⇨ 지역 언론사) ..... 870

- 중국어권
  - 北 헌법 핵보유 명기, 6자회담 실패 아니다.(6.1 환구시보) ..... 870

- 중국 주변 안보 환경의 3대 위기(5.30 환구망) ..... 870

## <2012.6.5(火)>

### □ 영어권

-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6.4 Inter Press Service) ..... 879
- 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들, 대북 지원 반대(6.1 자카르타 글로브 ☞ 인도네시아 영자 신문) ..... 879
- 美 국무부 대북 특사들, 해외 순방길 나선다.(6.4 美 국무부) ..... 881

### □ 러시아어권

- 北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6.4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일간지)881
- 美, 중국을 배제한 대북 새로운 전략 마련해야 한다.(6.4 ruskorinfo ☞ 정보통신 언론사) .. 882

### □ 일본어권

- 中·北, 2009년 탈북자 단속 강화하기로 합의하다.(6.4 지지통신) ..... 882
- 핵실험 계획 없었다고 주장하는 北, 그 배경은?(6.1 코리아국제연구소) ..... 883

### □ 중국어권

- 中 길림성 연변지역, 불법 외국인 단속(5.25 동방조보 ☞ 일간지) ..... 884

## <2012.6.7(木)>

### □ 영어권

- 美 국무부, '北 도발에 따른 보상은 없다'고 강조(6.6 美 국무부) ..... 894
- 美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6.6 Foreign Policy) ..... 895

### □ 중국어권

- 中·北 경제·문화·관광 박람회 10월 개최 예정(6.6 중국일보) ..... 896
- 북한은 중국의 킹카드가 아닌 전략적 부담이다.(6.6 서륙망 ☞ 군사 전문 사이트) ..... 897

### □ 일본어권

- 中·北 사이에 난기류가 흐른다.(6.7 NNN.ASIA 「고마요지」 기고문) ..... 899
- 日납치담당상, 北과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6.5 TBS뉴스) ..... 900

### □ 러시아어권

- 美·러, 6자회담 상호협력 활성화에 합의했다.(6.6 러시아 외무부) ..... 900
- 北·아무르州,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6 인테르팍스, amur.info ☞ 지역 언론사) ..... 900
- 北 노동당 대표단, 6월 중 아무르州 공식방문 예정이다.  
(6.7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amur.info ☞ 지역 언론사) ..... 901

<2012.6.8(金)>

□ 영어권

- 北 불평등은 출생 당시 결정된다.(6.7 AP통신) ..... 911
-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800~1000km로 연장해야 한다.(6.5 Heritage Foundation) ..... 912

□ 중국어권

- 中 요녕 단동시 국경검문소, 북한행 특별열차 운행 시작(6.7인민망) ..... 913
-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헌법화를 반대해야 한다.(6.2 환구망) ..... 913

□ 일본어권

- 北의 방해전파 강해지다.(6.8 TBS뉴스) ..... 915

□ 러시아어권

- 北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이끌어 내야 한다. (6.7 골로스 러시아) ..... 916
- 南·北 러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사실상 동결상태.  
(6.7 모스코프스코예 노보스티 ⇨ 일간지) ..... 917

<2012.6.11(月)>

□ 영어권

- 北 핵실험 부인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6.10 블룸버그통신) ..... 925
- 北, 생화학 무기를 이용해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6.6 세계정책연구소) ..... 926
- AP 평양지국, 악마와 손잡았나.(6.11 The Australian) ..... 927

□ 중국어권

- 北, 전투태세로 쏠 국민이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6.8 국제선구도보 ⇨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지) ..... 928
- 북한산 석탄 수입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6.8 국제석탄망) ..... 929

□ 러시아어권

- 러, 對北 인도주의 지원에 착수했다.(6.8 baikal24 ⇨ 지역 언론사) ..... 930
- 러·北 외교 관계자,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6.7 외무부 홈페이지) ..... 930

□ 일본어권

- 김정은 생모 영상 공개의 의미(6.10 하신기 블로그) ..... 930
- 北 공군 전투기 비행 급증한 배경(6.9 하신기 블로그) ..... 930
- 日 방위상, '北의 위협 심각한 상황 계속될 것이다.'(6.8 산케이) ..... 931
- 北 핵실험 계획이 없다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노린다.(6.9 교도통신) ..... 931

<2012.6.12[火]>

□ 영어권

- 北, 韓 언론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다.(6.11 데일리 콜러 ⇨ 美 워싱턴 뉴스사이트) ... 941
- WFP-UNICEF, 北 영양실조 아동 지원 파트너십 구축(6.11 WFP) ..... 941
-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속국화를 피하는 최선책이다. (6.11 World Policy Institute) ..... 942

□ 중국어권

- 정치 신화적 인물, 김정은의 북한(6.8 BW Chinese ⇨ 경제 전문 사이트) ..... 944
- 中 단동항~北 남포항 컨테이너선 정기운행 시작(6.12 단동일보) ..... 945

□ 러시아어권

- 北 노동당 대표단, 블라디보스토크 방문했다.(6.11 프리마 미디어 ⇨ 지역 언론사) ..... 946
- 北 마약이 대대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데 의구심이 든다.  
(6.12 apn-spb ⇨ 정치관련 뉴스보도 언론사) ..... 947

□ 일본어권

- UN 對北제재위 카브랄 의장, 연례보고서 공개에 낙관적(6.12 지지통신) ..... 947

<2012.6.13[水]>

□ 영어권

- UN, 심각한 아동 영양실조에도 北 경제개혁 조짐 없다.(6.12 AFP) ..... 956
- UN, 올해 美 대북지원 낙관적으로 전망한다.(6.12 Reuters) ..... 957
- 北 변화를 위해 국제사회는 제3의 길을 시도해야 한다.  
(6.12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 美 고급 일간지) ..... 958
- 캐나다로 망명 신청하는 탈북난민 증가  
(6.12 런던 프리 프레스 ⇨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 일간지) ..... 959

□ 중국어권

- 北, 탄도미사일 제작 수준은 기술 모방에 그친다.(6.13 홍콩 봉황위성TV) ..... 959

□ 러시아어권

- 北 식량난은 한국의 對北 지원중단 및 자연재해에 기인한다. (6.12 이타르타스) ..... 960
- 김정은, '러시아의 날' 맞아 푸틴 대통령에 축전을 보냈다.(6.12 rusnovosti ⇨ 라디오) ..... 960

□ 일본어권

- 日관방장관, 中미사일탑재차량 北수출 관련 언급 삼가하겠다. (6.13 산케이) ..... 961

<2012.6.14[木]>

□ 영어권

- 北 경제는 강제노동을 토대로 형성된다.(6.13 휴먼라이츠워치) ..... 969



- 국제사회는 北 식량안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6.13 더 디플로멧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970
- 北, 농촌지원 軍 선전대 사진 유출에 조사 착수했다.(6.13 英 The Sun) ..... 970
- 탈북자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 미국에서 영화화된다.(6.13 Chicago Tribune) ..... 971

□ 중국어권

- 中, 미사일 발사대 탑재용 차량 북한 수출 부인(6.14 동방조보) ..... 972
- 북한은 중국 차량으로 미사일을 운반하지 않았다.(6.14 홍콩 붕황위성TV) ..... 972

□ 러시아어권

- 이제 북한을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처럼 대해야 할 때이다.(6.14 코메르산트⇨ 일간지) ..... 973
- 안정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6.13 외교협회 홈페이지) ..... 974

□ 일본어권

- 北 폭주족 증가, 추격용 차량 없어 단속 어렵다.(6.13 사치나) ..... 975
- 인민일보의 北칭찬하는 기사에 中네티즌 비판(6.13 레코드차이나) ..... 976

〈2012.6.15(金)〉

□ 영어권

- 北 핵실험 계획 부인 관련 美·中 전문가 3인 인터뷰  
(6.13 Global Times ⇨ 中 환구시보 영문판) ..... 985
- 北에 감춰진 수용소의 충격적인 폭로(6.14 내셔널 포스트 ⇨ 캐나다 일간지) ..... 987

□ 중국어권

- 일본은 미사일 탑재차량의 對北수출을 왜 다시 들춰내는가?(6.14 차이원) ..... 988
- 北, 가뭄으로 희천발전소 발전량 못미친다.(6.15 신화망) ..... 989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전문가, 협정 위반을 근거로 中·北 비난할 수 없다.(6.14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 990
- 對北 지원 이루어지고 있다.(6.14 altapress ⇨ 지역 언론사) ..... 990
- 北 노동당 대표단, 나호트카 하원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다.(6.14 나호트카 하원 홈페이지) ..... 991

□ 일본어권

- 北 열악한 인권상황을 자국의 약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6.13 아시아프레스) ..... 991

〈2012.6.18(月)〉

□ 영어권

- UN은 조건부 대북지원 해야 한다.(6.18 Bangkok Post) ..... 1002
- 韓, 北 위협에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6.15 CSIS 코리아포럼 회보) ..... 1002

□ 중국어권

- 김정일 사망 반년, 안정적 정권 교체 이뤄내다.(6.17 중국신문망) ..... 1003
- 中 단둥市, 북한 노동력 수입 계획있다.(6.15 경제관찰보 ⇨ 경제 전문지) ..... 1004

□ 일본어권

- 北 핵실험 자제하고, 경제재건을 우선시하다.(6.17 NHK) ..... 1005
- 中 대련항, 대북 불법수출의 온상(6.14 산케이) ..... 1005
- 미사일 발사대 수출에서 드러난 中·北관계(6.14 코리아리포트) ..... 1006

□ 러시아어권

- 對北 지원 재원 마련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6.15 리아 노보스티) ..... 1006
- 김정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6.18 asiareport ⇨ 정보분석 포털) ..... 1007

<2012.6.19(火)>

□ 영어권

- 北 후계구도의 국가권력기구 변화 추이 분석(6.18 美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 1016
- 北 범죄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6.16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 신문) ..... 1017

□ 중국어권

- 韓·美·日 연합 해상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6.18 홍콩 봉황위성TV) ..... 1018
- 북한 가뭄과 김정은의 꿈(6.18 차이선) ..... 1019
- 北 보건성, 중국 선縣 결핵예방센터 방문(6.18 라오청일보) ..... 1021

□ 러시아어권

- 러·美 정상, 북한에 UN안보리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했다.(6.18 리아 노보스티) ..... 1021
- 北 철도전문가, 러시아에서 연수중이다.(6.19 vladnews ⇨ 지역 언론사) ..... 1022

□ 일본어권

- 北외무성, 美에 대한 불만 표현하기 위해 힐러리 비난하다.(6.18 지지통신) ..... 1022
- 日·美 국장급 안보협의 개최하다.(6.19 지지통신) ..... 1022

<2012.6.20(水)>

□ 영어권

- 북한의 성분제도, 후계구도에서 더 중요해 질 것이다. (6.19 American Spectator) ..... 1031
- 北 예술에 대한 외국작가들 평가(6.16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신문) ..... 1032

□ 중국어권

- 중국 산둥省 둥잉(東營)市, 북한 동해안 어업 허가 받았다.(6.19 중국수산양식망) ..... 1033
- 최초의 中·北 합작영화 '평양의 약속' 개봉되다.(6.19 21CN오락) ..... 1033

□ 일본어권

- 美·韓·日 3국, 북한 인신매매 최악 국가 재지정(6.20 니혼TV) ..... 1034
- 北의 최후통첩, 한국 금융시장을 인질로 삼다.(6.19 넷케이) ..... 1034

□ 러시아어권

- 북한에서는 여전히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6.19 이타르타스) ..... 1035
- 北 노동당 대표단, 아무르州 관계자들과 회동했다.(6.19 amurinfo ⇨ 지역 언론사) ..... 1036

<2012.6.21(木)>

□ 영어권

- 中·北 국경지역 이주 강화가 안되는 이유(6.16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신문) ..... 1044
- 최초 中·北 합작영화 '평양에서의 약속' 중국 제작자 인터뷰(6.20 Hollywood Reporter) ..... 1045

□ 러시아어권

- 南北관계 긴장상태로 인해 3자 프로젝트가 동결된 상태이다.(6.20 리아 노보스티) ..... 1047
- 아무르州, 북한 노동자를 우선 고용대상으로 여기고 있다.(6.20 portamur ⇨ 지역 언론사) ..... 1048
- 駐北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 북한 협동농장을 방문했다.(6.20 가제타 ⇨ 일간지) ..... 1048

□ 중국어권

- 中 상해~연길 전세기 취항, 신분증으로 북한 여행가능하다.  
(6.19 동방조보⇨상해 지역 일간지) ..... 1048

□ 일본어권

- 日 미디어 3개社 기자단 방북(6.21 산케이) ..... 1049
- UN 對北제재위 연례보고서 이르면 다음주에 공개(6.21 TBS뉴스) ..... 1049
- 평양중심부 재개발 완공되다.(6.20 산케이) ..... 1049

<2012.6.22(金)>

□ 영어권

- 北 특별경제지구가 가난의 탈출구이다.(6.22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신문) ..... 1060
- 내년 WEF를 개최하는 미얀마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6.20 38 North) ..... 1061

□ 중국어권

- 韓·美·日 연합 해상훈련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다.(6.21 중국 동방망⇨ 뉴스전문 사이트) ..... 1063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재무부, 북한 채무조정안 7월 중 정부에 제출 예정이다.(6.21 리아 노보스티) ..... 1064
- 러시아항공社, 평양발 노선 취항 준비 중이다.(6.21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1065
- TKR 복구는 역내 지경학적 정세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6.21 이타르타스) ..... 1066

- 일본어권
  - UN보고서, 北 시리아에 방호복 등 수출 기재(6.22 마이니치) ..... 1067

<2012.6.25(月)>

- 중국어권
  - 北, 올해 중국 동북지역에 12만명 노동력 수출한다.(6.25 홍콩 봉황위성TV) ..... 1077
  - 중국 안양市에 평양아리랑 식당이 개업되었다.(6.22 안양신문망) ..... 1078

- 영어권
  - 중국의 대북정책은 비논리적이다.(6.21 CSIS 태평양포럼 회보) ..... 1078
  - 북한 가뭄 관련, 지난 주 방북 獨 구호단체 대표 인터뷰(6.23 The Hindu ⇨ 인도 일간지) 1080

- 러시아어권
  - 외교부 차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 계속해 나가고 있다.  
(6.24 인테르팍스 ⇨ 민영 통신사) ..... 1081
  - 北 통과하는 전력에너지 對韓 공급방안 논의 예정이다.  
(6.23 리아 노보스티 ⇨ 공영 통신사) ..... 1082

- 일본어권
  - 中·北을 빈번하게 왕래하는 밀수화물선 더 있다.(6.24 아사히) ..... 1082
  - 北 결혼사업에 진출, 100만 달러에 알선(6.24 뉴스포스트세븐) ..... 1083
  - 前 러시아 별북 근로자의 증언(6.24 아사히) ..... 1084

<2012.6.26(火)>

- 영어권
  - 한국에 美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6.25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1096
  - 북한의 가뭄 관련 발표에 대한 의혹(6.21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1097

- 러시아어권
  - 韓·美 군사훈련, 역내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6.25 콜로스 러시아 ⇨ 라디오) ..... 1098
  - 北 전문가, 아무르州 주택건설 현장에 투입됐다.(6.25 인테르팍스 ⇨ 민영 통신사) ..... 1099

- 중국어권
  -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벽을 허물어야 하는가?  
(상해포럼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6.26 환구망) ..... 1099
  - 북한의 노동력 수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나?(6.25 차이신) ..... 1100
  - 중국 칭다오市 북한 추계 상품전 참가 기업 모집한다.(6.25 칭다오재경일보) ..... 1101

- 일본어권
  - 중국도 농락하는 북한의 교활함(6.26 산케이) ..... 1101
  - 日, 일본인 유골과 납치문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6.26 TBS뉴스) ..... 1102

**<2012.6.27(水)>**

- 중국어권
  - 中·北 황금평·위화도 협력 보류, 정확한 사실 확인 중이다.(6.26 경제관찰보) ..... 1112
- 영어권
  - 남·북한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 겪고 있다.(6.26 AP) ..... 1113
  - 北 사람들은 해외에서 분쟁중재 교육을 받고 있다.(6.26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1114
  - 농구로 美·北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  
(6.24 데이턴데일리뉴스 ☞ 미 오하이오주 데이턴 지역일간지) ..... 1115
- 일본어권
  - 19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정은(6.26 코리아리포트) ..... 1115
  - 김정은 술 마시고 졸도, 중국에서 의사 불러오다.(6.23 산케이) ..... 1116
- 러시아어권
  - 韓·美 군사훈련,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중국까지 우려하고 있다.  
(6.26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 일간지) ..... 1118

**<2012.6.28(木)>**

- 영어권
  - 가뭄에도 영향 받지 않는 평양 엘리트(6.27 英 The Telegraph) ..... 1129
  - 한국과 중국이 北문제를 다뤄야 한다.(6.27 에어포스 타임스 ☞ 미 공군 잡지) ..... 1130
  - 북한-시리아 미사일 개발 협력 탄력 붙었다.(6.27 美 IHS Jane's) ..... 1131
- 중국어권
  - 北, 60년 만의 가뭄, 김정은의 토지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6.27 차이선) ..... 1131
  - 북한 가뭄 뒤에 숨겨진 정치적 함의, 中·美 힘겨루기 가열되다.(6.27 차이선) ..... 1132
  - 中·北, 북한 동부해역 불법 어업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6.27 중국신문망) ..... 1134
- 일본어권
  - 北 경제담당관료, 中에서 개혁개방 연수받다.(6.27 NHK) ..... 1135
  - 北의 핵실험, 월요일에 실시될 가능성 높다.(6.27 뉴스포스트세븐) ..... 1136
  - 김정은, 최룡해에게 리모델링을 명령한 이유(6.28 뉴스포스트세븐) ..... 1136
- 러시아어권
  - 中, 탈북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6.26 보스토크 미디어 ☞ 지역 언론사) ..... 1136

<2012.6.29(金)>

□ 영어권

- 북한 식량난 해소하려면 非식량 부문 문제 해결해야 한다.(6.29 Asia Times) ..... 1146
- 北은 동남아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6.29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 신문) .... 1148

□ 중국어권

- 북한은 마약 밀매 彌國이다.(6.28 China Value ⇨ 경제전문 사이트) ..... 1149
- 지도자 초상화를 구하고 숨진 14세 소녀, 북한은 반성해야 한다.(6.28 차이선) ..... 1151

□ 일본어권

- 조총련의 약체화 피할 수 없다.(6.29 산케이) ..... 1152
- 김정은의 건강악화설이 거론될 것이다.(6.28 코리아리포트) ..... 1153

□ 러시아어권

- 한반도에서 리비아 혹은 시리아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다.(6.27 mk ⇨ 일간지) ..... 1153
- 러·北 협의에 관한 외무부 언론보도문(6.27 외무부 홈페이지) ..... 1154

# 목 차(주제별)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관광





# 목차(주제별)

## I. 정치

### i) 북한체제

- ‘김정은 집권 첫 달간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려는 징후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평가  
(2.6 네자비씨마야 신문) ..... 9
- 美 의회조사국(CRS),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 관련 보고서(2011.12.22) 작성(2.8 RFA) ... 14
- 北, 대내·외 문제로 주민 충성도 하락, 김정은 체제에 악영향  
(2.14 中 서육망 ⇨ 군사전문 포털사이트) ..... 44
- 김정은, 태양절 전후 국방위원장과 당 총서기 등극 전망  
(2.16 뉴스 포스트 세븐 ⇨ 인터넷 신문) ..... 53
- ‘월터 샤프’(前 한미연합사령관), ‘자유 북한(A Free North Korea)’을 위해 북한 체제 내부  
변화 압박 및 지원’ 주장(2.21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고) ..... 77
- ‘류쉐리엔’(길림大 교수), ‘북한에 안보 보장 제공 필요’ 주장(2.23 China Daily 영문판) ... 88
- ‘푸틴’ 총리, ‘김정은 체제 안정성 시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2.27 모스크바 뉴스 ⇨ 중앙일간지) ..... 96
- 김정일 사후 배포 북한 노동당 내부문서 입수 공개(2.25 마이니치 신문) ..... 97
- ‘김정은 체제하의 평양은 풍풍 얼어붙은 혁명의 수도’(2.27 교도통신) ..... 104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에게 지시한 내부문서 입수(3.14 마이니치 신문) ..... 175
- ‘합일된 의견으로 북한 정세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3.20 홍콩 봉황위성TV, 「치우전하이」 시사평론가 대담) ..... 221
- 북한에 김정일의 결정 역행할 결정권자는 아직 없다.(3.27 美 외교협회) ..... 281
- 김정은, 총서기 및 국방위원장직에 취임하지 않을 것(4.5 TBS뉴스) ..... 338
- 김일성·김정일보다 김정은이 더 위험한 인물로 판단된다.  
(4.4 엑스페르트⇨ 유명 주간지) ..... 339
- 北, 김정은 시대 정식 개막(4.12 환구시보) ..... 391
- 김정은은 다른 생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이다.(4.16 베스트 FM) ..... 435
- 독재체제 유지가 북한이 존속할 수 있는 길이다.(4.14 스바보다 라디오) ..... 436
- 김정일 사후 北, 여전히 위험하고 변덕스럽다.(4.18 美 하원 외교위 북한청문회) ..... 465
- 김정은은 군부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다.(4.19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469
- 北 정권 자체를 타도해야 할 때다.  
(4.20 더 디플로멧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479
- 김정은 체제 시작(4.16 NHK) ..... 484
- 김정은, 생각보다 매우 능력·경험있는 정치 인물로 파악된다.  
(4.21 바엔노예 아바즈레니에 ⇨ 군사전문 포털사이트) ..... 505
- 북한, 변화하지 않는다면 주체체제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4.26 가제타 ⇨ 일간지) ... 543
- 김정은 ‘유혼 관철’ 일탈에 따른 딜레마(5.2 마이니치신문) ..... 579
- 김정은을 읽는 4가지 키워드(5.3 NNN.ASIA「고미요지」기고문) ..... 592
- 김정은 양복 착용, 북한은 변할 것인가?(5.10 / 신화망) ..... 655
- 김정은은 상식인이다.(5.10 하신기 블로그) ..... 656

- 개혁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 김정은  
(5.16 일본전략연구포럼 日 군사전문가 기고문 ⇨ 국가전략연구 싱크탱크) ..... 706
- 정서 불안정한 김정은, 유원지 잡초에 화내며 잡초뽑기 감행(5.21 아사히TV) ..... 766
- 김정은에 대한 北 TV 방송 늘었다.(5.29 AFP) ..... 820
- 김정은이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6.1 아사히신문) ..... 854
- 정치 신화적 인물, 김정은의 북한(6.8 BW Chinese ⇨ 경제 전문 사이트) ..... 944
- 北 변화를 위해 국제사회는 제3의 길을 시도해야 한다.  
(6.12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 美 고급 일간지)973 ..... 958
- 이제 북한을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처럼 대해야 할 때이다.(6.14 코메르산트⇨ 일간지) 973
- 김정일 사망 반년, 안정적 정권 교체 이뤄내다.(6.17 중국신문망) ..... 1003
- 北 후계구도의 국가권력기구 변화 추이 분석(6.18 美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 1016
- 북한의 성분제도, 후계구도에서 더 중요해 질 것이다. (6.19 American Spectator) ..... 1031
- 19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정은(6.26 코리아리포트) ..... 1115
- 김정은 술 마시고 졸도, 중국에서 의사 불러오다.(6.23 산케이) ..... 1116
- 김정은, 최룡해에게 리모델링을 명령한 이유(6.28 뉴스포스트세븐) ..... 1136
- 김정은의 건강악화설이 거론될 것이다.(6.28 코리아리포트) ..... 1153

## ii) 김정은 가계

- 일본 '현대 비즈니스'(주간지), 김정남 관련 기사 게재(2.5 현대비즈니스) ..... 14
- 김일성, 김정은을 손자로 미인정(2.15 산케이 신문) ..... 45
-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는 김정남 관련 보도(2.15 AIF 신문 ⇨ 중앙일간지) ..... 52
- '아버지 김정일과 나' 출판 배경관련 중국측의 목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2.18 산케이 신문) ..... 72
- 김정남의 장남「김한솔」인터뷰 TV 방영(3.3 아사히신문) ..... 126
- 駐폴란드 북한대사 김평일 관련 보도(3.12 / 英 The Independent誌) ..... 183
- 김정남, 김정일 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 불참(3.27 텔레비전 아사히) ..... 260
- 김정은, 1991년부터 스위스에 체류했다.(4.23 교도통신) ..... 495
- 김정남 관련서적 5월 홍콩 출간 관련 「고미요지」 인터뷰  
(4.29 아주주간 ⇨ 홍콩 시사주간지) ..... 503
- 한류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고영희의 숨겨진 인생(5.4 산케이) ..... 606
- 김정남이 방탕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5.31 아시아타임스 ⇨ 홍콩) ..... 835
- 김정은 생모 영상 공개의 의미(6.10 하신기 블로그) ..... 930

## iii) 정치행사

### 1. 2.16 김정일 생일

- 심국룡 駐나호드카 북한 총영사, 김정일 70회 생일맞이 만찬 개최  
(2.9 러시아 프리마미디어 신문) ..... 23

### 2. 4.15 김일성 생일

- 北,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행사 해외사절단 초청(2.20 인테르팍스 통신사) ..... 67
- 김일성 생일위해 70개국 이상에서 준비위원회 조직(3.9 산케이신문) ..... 152
- 김일성 생일 100회 맞이 러시아 곳곳에서 기념행사 개최 ..... 242

### 3. 당대표자회

- 北, 4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정권 안정화 도모(2.20 中 China news) ..... 71
- 北 당대표자회는 리더십 변화의 신호(2.20 美 뉴욕타임스) ..... 72
-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드러난 김정은 체제와 인사 특징  
(5.1 코리아국제연구소 ⇨ 재일 한국인, 북한 민주화 등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 567

### iv) 기타

- '북한에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  
(3.20, 환구시보, 「잔더빈」 상하이 대외무역학원 학자 사설) ..... 213
-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에 평화 가져다 줘(3.22 코메르산트 ⇨ 일간지) ..... 221
- 한반도 정세가 뒷걸음치는 것이 안타깝다.(3.30 환구시보) ..... 281
- 한반도문제 관련 학술회의 개최(3.31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293
- 北의 미세한 변화, 더욱 독려해야 한다.(4.16 환구시보) ..... 417
- 북한의 행동은 UN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4.14 리아 노보스티) ..... 419
- 평양이 더 이상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4.17 환구시보) ..... 433
- 북한을 지정학적 자극요인으로 이용하려는 국가가 있다.(4.17 골로스 러시아) ..... 453
- 북한의 봄은 오는가?(4.19 베이징천바오 ⇨ 베이징지역신문) ..... 498
- 북한의 근본적 목적은 북한과 한반도의 베트남化이다.(4.19 홍콩 봉황위성TV) ..... 481
- 북한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 없다.(4.19 IA REX ⇨ 국제전문가 토론사이트) ..... 483
- 북한의 변화 속단하기는 이르다.(4.19 라디오 스바보다) ..... 483
- 북한의 운명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지 않다(4.24 인민일보 사천성 지역 신문) ..... 504
- 북한 외에 무기금수 결의 위반 해외 국가도 제재해야 한다.(5.2 Heritage Foundation) ..... 590
- 北 엄하게 다루야 한다.(5.7 볼티모어 선 ⇨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지역 종합지) ..... 624
- 北, 전례 없었던 특이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5.23 에코 모스크바 ⇨ 라디오) ..... 779
- 안정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6.13 외교협회 홈페이지) ..... 974
- 내년 WEF를 개최하는 미얀마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6.20 38 North) ..... 1061
- 한반도에서 리비아 혹은 시리아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다.(6.27 mk ⇨ 일간지) ..... 1153

## II. 외교

### i) 북핵 및 6자회담

- 한·러 6자수석대표 회담(2.8)개최(2.8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 15
- 「마이클 그린」(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미·북 대화 및 6자회담 언급(2.10 CSIS 홈페이지 동영상 ⇨ 별도 붙임 없음) ..... 31
- 美·北 대화, 6자회담 재개 서막  
(2.14 홍콩 봉황위성 TV “정점뉴스”, 정하오 박사 대담 ⇨ 국제문제 전문가) ..... 44
- 2.14 일·러 6자회담 수석대표 모스크바에서 회담(2.15 지지통신) ..... 45
- 中 전문가들, 「美·北 대화 통한 6자회담 재개 어려울 것」으로 전망  
(2.15 中 광보망 ⇨ 중국 라디오방송넷) ..... 53
- 中 외교부, 美·北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 희망(2.20 中 국제재선 ⇨ 중국 관영 라디오 방송국 중국국제방송[CRI Online]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 71

- 中, '6자회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도(2.22 中 인민일보) ..... 78
- 美 데이비스 대표, 일본측 6자회담 대표와 회동 후 기자회견(2.26 美 국무부 보도자료) ... 96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2.25 中 외교부 홈페이지) ..... 98
- '6자회담은 계속해서 중국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도  
(3.9 남방인물주간 ☞ 중국 고급시사 주간지) ..... 161
- 美, 서울 정상회의서 中과 회담 통해 北 압박(3.20 美 블룸버그통신) ..... 212
- 북한, 6자회담 참가국들 시험하는 듯(3.20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212
- 美 대통령, 中·러 정상들과 北 문제 논의 예정(3.21 美 월스트리트저널) ..... 219
- '北, 핵안보정상회의에 없지만 강함 존재감'(3.25 美 브루킹스연구소) ..... 240
- 핵안보조사에서 북한이 최하위(3.26 NHK) ..... 240
- 중국, 러시아의 이례적인 북한 포위망(3.27 마이니치) ..... 251
- 中 한반도사무 부대표, 러 6자회담 차석대표 회동(3.27 중국 외교부) ..... 260
- IAEA 최대한 빨리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3.26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261
- 러시아는 북한의 대화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3.27 리아 노보스티) ... 272
- 한반도 문제해결은 미국에 달려있다.(3.28 이타르타스) ..... 273
- UN안보리 대북 추가제재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행동이다. (4.17 브즈글라드) ..... 453
- 北 대화의 여지 있다.(4.18 아사히TV) ..... 470
- 2015년 NPT 평가회의를 위한 1차 준비회의[4.30~5.11] 참가 대표단 성명 발표  
(4.30 / 5.3 UN 홈페이지) ..... 645
- 대북 UN 제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23 obozrevatel ☞ 인터넷 언론사) ..... 791
- 중국 前외교부장,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요청(5.24 넷케이) ..... 794
- 美·러, 6자회담 상호협력 활성화에 합의했다.(6.6 러시아 외무부) ..... 900
- 외교부 차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 계속해 나가고 있다.  
(6.24 인테르팍스 ☞ 민영 통신사) ..... 1081

## ii) 미북관계

- 「빅터 차」(美 조지타운대 정치학 교수), '2.23일 예정된 미·북 3차 고위급 대화에서 대해 부정적 전망'(2.13 월스트리트저널) ..... 39
- 미·북 3차 고위급 대화 2.23일 베이징 개최 보도(2.14 NHK뉴스) ..... 39
- 「스티븐 보스워스」(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과 대화해야 주장(2.21 CNN) ..... 77
- '미·북 회담 예상보다 빨리 진행' 보도(2.23 中 인민일보 해외판) ..... 83
- 김정일 사후 첫 미·북 회담에서 진전 여부 주목(2.22 美 월스트리트저널) ..... 84
- '美·北 회담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2.23 로이터통신) ..... 88
- '미·북 회담에 세계가 주목' 보도(2.24 中 CCTV) ..... 89
- 중국 외교부, 미·북 회담 관련 평가(2.27 中 외교부 홈페이지) ..... 103
- 美 국무장관, '美·北 회담, 올바른 방향으로의 작은 첫걸음' 언급  
(2.29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 116
- 「젠바 고이치로」,외무상 기자회견(3.1 외무성) ..... 117
- 러시아 외무부, 美·北 회담 결과에 관한 논평(3.1 외무부 홈페이지) ..... 117
- '美·北 합의에 대한 성급한 평가는 지양해야'라고 보도(3.1 이타르타스) ..... 117
- '美·北 협상' 관련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3.2 美 CNN) ..... 125
- '美·北 관계 진전은 첫걸음일 뿐'  
(3.5 광명일보 ☞ 중앙 黨報 / 「리우웨이 등」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연구원 사설) ..... 141
- '美·北 합의 후속회담에 대한 전망'(3.1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142

- 북한, 미국과 관계 정상화 요구(3.9 아사히신문) ..... 152
- 北, 미국과 상호 「연락사무소」개설 요구(3.12 요미우리신문) ..... 166
- 美·北 지도자, 휴전선 지역 방문 이유(3.26 중국망 ⇨ 국무원 신문판공실 운영) ..... 239
- 오바마 대통령 DMZ 방문 분석(3.26 골로스 러시아 ⇨ 라디오) ..... 252
- 북한 외무성 리근 미주국장, 베를린에서 미국 前 고위관리와 접촉할 가능성(3.30 후지TV) ..... 284
- 북한 문제 관련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진심(4.4 환구시보) ..... 327
- 韓·美·日, 중국에 대북 압력 행사 촉구(3.30 홍콩 봉황위성TV) ..... 337
- ‘美·北 대화의 지속과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 주장(4.16 Forbes誌) ..... 432
- 美 하원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서한 발송  
(4.24 Stillwater Patch ⇨ 미네소타주 스틸워터시 지역 인터넷 언론사) ..... 513
- 美, 북한과 관계 정상화 모색해야 한다.(4.23 National Interest ⇨ 시사지) ..... 514
-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5.2 더 힐 ⇨ 미 의회 전문지) ..... 589
- 北, 美에 예측 불능의 위협 요인이다.(5.14 美 헤리티지재단) ..... 664
- 美 공화당 톱니 진영의 대북정책 관련 입장(5.23 The Diplomat) ..... 777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집착을 중단해야 한다.(5.31 National Interest) ..... 853
- 美 국무부 대북 특사들, 해외 순방길 나선다.(6.4 美 국무부) ..... 881
- 美, 중국을 배제한 대북 새로운 전략 마련해야 한다.  
(6.4 ruskorinfo ⇨ 정보통신 언론사) ..... 882
- 北외무성, 美에 대한 불만 표현하기 위해 힐러리 비난하다.(6.18 지지통신) ..... 1022
- 농구로 美·北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  
(6.24 데이턴데일리뉴스 ⇨ 미 오하이오주 데이턴 지역일간지) ..... 1115

### iii) 일북관계

#### 1. 납치자문제

- 北, 日北 접촉時 북송 일본인 처 일시 귀국 제안(2.8 산케이 신문) ..... 14
- ‘日·北 국교 정상화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선결과제’(2.27 산케이신문) ..... 97
-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국 동향 파악 필요성’ 보도  
(3.8 뉴스포스트세븐 ⇨ 인터넷 신문) ..... 147
- 태국 총리, 납치문제 관련 일본 입장 이해 표명(3.7 총리관저 홈페이지) ..... 147
- 日, 납치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인도적 지원 검토(3.14 일본 텔레비 ⇨ 민영TV) ..... 184
- 北 외무성 일본담당자, 유골반환 제안(5.5 지지통신) ..... 618
- 日 대학교수, 北측과 일본인 유골 반환문제 논의 위해 방중(5.17 교도통신) ..... 706
- 마나베 사다키 교수, 5.17일 북측과 접촉(5.18 후지TV) ..... 721
- 日납치담당장, 北과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6.5 TBS뉴스) ..... 900
- 日, 일본인 유골과 납치문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6.26 TBS뉴스) ..... 1102

#### 2. 조총련

- 일본 정부 지원과 김정은 지지 관련 조총련내 균열 발생 보도(2.10 뉴스 포스트 세븐) ..... 22
- 일본 조총련 소속 간부 등 120명 북한 방문(2.16 NHK뉴스) ..... 61
- 조총련, 4.15 행사시 출장가판대 설치로 김정은 체제에 충성(5.1 지지통신) ..... 579
- 조총련의 약체화 피할 수 없다.(6.29 산케이) ..... 1152

### 3. 기타

- 일본 경찰, 북한에 중고 노트북을 불법수출한 북한 국적의 재일동포 체포 보도  
(2.7 마이니치 신문) ..... 9
- 북한으로 컴퓨터 불법수출 혐의자 수사결과 보도(2.20 요미우리 신문) ..... 66
- 북한으로 컴퓨터 불법수출 혐의자 北해커기관과 접촉(2.22 요미우리 신문) ..... 89
- 日경찰, PC불법수출 관련 조총련계 단체·여행사 압수수색(2.28 닛케이) ..... 112
- 日, 대북 제재 1년 연장 계획 검토중(3.13 교도통신) ..... 166
- 대북제재 1년 연장하기로(3.29 닛케이) ..... 272
- 말뿐인 북한 제재, 이미 1.3억엔 북한으로 유출(4.3 산케이) ..... 304
- 일본 언론의 북한관련 보도는 검증이 필요하다.(4.17 글로스 러시아) ..... 452
- 日, 대북제재 대상 추가후보 제출(4.19 지지통신) ..... 470
- 겐바 외상, 북한의 특별행동 견제(4.24 지지통신) ..... 513
- 日외상, 북한 제재 실효성이 중요하다.(5.4 아사히신문) ..... 606
- 北에 10년간 50회 물자 불법수출한 용의자 구속(5.14 마이니치) ..... 694
- 日외상, 북한의 행동에 따라 응해나갈 생각 있다.(5.25 지지통신) ..... 794
- 北, 일본 미디어 2개社에 방북을 타진했다.  
(5.26 이자 ⇨ 산케이 디지털뉴스, 블로그 포털사이트) ..... 808
- 日 미디어 3개社 기자단 방북(6.21 산케이) ..... 1049

### iv) 중북관계

- 中 시진핑 부주석 방미, 亞太지역은 양국의 이익 교차점  
(2.14 中 화상보 ⇨ 중국 지역신문사) ..... 38
- 김정은, 공식 또는 비공식 중국 방문 가능성 보도(2.15 홍콩 봉황TV) ..... 61
- '김정은, 첫 정상회담 상대는 中 후진타오 국가주석'으로 보도  
(2.19 뉴스 포스트 세븐 ⇨ 인터넷 신문) ..... 66
- 2.28~29일 北 신의주시 청년동맹대표단 4명 단동 방문(2.29 中 단동市政府) ..... 118
- 2.23일 中·北 정부間 과학기술 연합위원회 제45회 회의 개최  
(2.29 中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118
- 中 외교부장 訪韓 관련 신화사, CCTV 인터뷰(3.2 외교부 홈페이지) ..... 126
- '중국, 김정은이 아닌 북한 주민의 이웃'으로 보도(3.5 홍콩 봉황위성 TV) ..... 132
- 「中·北 수력발전공사 회의」 개최(3.5 신길림망 ⇨ 길림성 경제포털 사이트) ..... 147
- '중국의 對北정책,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 참고 필요'(3.12 홍콩 봉황위성TV) ..... 167
- 中·北관계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이익이 기본(3.12 홍콩 봉황위성TV) ..... 193
-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3.26 홍콩 봉황위성TV) ..... 251
- 北, 중국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3.28 중국망, 「비디앤롱」 시사평론가 사설) ..... 271
- 中 후진타오 주석, 김정은 노동당 제1서기 추대 축전 발송(4.11 신화망) ..... 384
- 이제 남은 방법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4.10 글로스 러시아) ..... 385
- 中,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북한 개혁 이끌어야 한다.(4.17 홍콩 봉황위성TV) ..... 450
- 한반도 정세 악화 억제, 중국 외교의 시험대 될 듯 하다.(4.17 홍콩 봉황위성TV) ..... 451
- 中·北 관계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4.23 걸프뉴스 ⇨ 아랍에미리트연합 영자 신문) ..... 493
- 후진타오 주석, 김정은 방중 초청 가능성이 있다.(4.23 산케이) ..... 502
- 中, 북한 대표단 환대로 김정은 訪中 추측 유발(4.24 홍콩 봉황위성TV) ..... 527
- 北의 세 가지 문제가 한반도에서의 중국 지위 어렵게 만든다.(4.24 홍콩 봉황위성TV) ..... 528

- 中 정협 부주석 訪北(4.26 국제재선) 중국 관영라디오방송국 운영 인터넷신문) ..... 542
- 北, 중국의 경제 발전 방해될 수 있다.(5.9 The Diplomat) ..... 634
- 김정은 訪中 가능성 모색, 의도는?(5.8 차이선 ⇨ 중국 인터넷 언론) ..... 635
- 中 리자오싱 前외교부장, 김영남과 회담(5.10 닛케이) ..... 657
-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5.14 NHK) ..... 682
- 북한의 중국 어선 나포, 의문점(5.16 차이선 ⇨ 중국 인터넷 언론) ..... 704
- 中·北은 중국 선박 나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5.18 환구시보) ..... 718
- 中의 대북정책은 비논리적이다.(5.19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신문) ..... 730
- 中·北의 우호 관계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5.21 환구시보) ..... 732
- 김정은을 포섭하고 싶은 중국의 심모원려[深謀遠慮](5.19 산케이) ..... 733
- 중국이 한반도 평화의 열쇠이다.(5.23 걸프뉴스 ⇨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자 신문) ..... 763
- 북한은 납치한 중국 어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5.23 중국신문주간 China Newsweek) ..... 764
- 中·北은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5.23 홍콩 봉황위성TV) ..... 778
- 어선 나포 사건은 中·北관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보여준다.(5.23 홍콩 봉황위성TV) ..... 789
- 中은 어선나포로 北과 단절하지 않을 것이다.(5.24 타임) ..... 790
-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된다.(5.25 환구망) ..... 805
- 북한의 對中 태도는 시계추와 같다.(5.25 봉황망) ..... 806
- 北 평양신문社 대표단, 중국 방문(5.29 중국 기자협회) ..... 823
- 김광환 駐심양북한총영사, 중국 장춘市 방문(5.31 장춘일보) ..... 856
- 北 경원郡 우호 방문단, 중국 훈춘市 방문(5.31 훈춘열선 ⇨ 훈춘지역 사이트) ..... 856
- 중국 주변 안보 환경의 3대 위기(5.30 환구망) ..... 870
- 북한은 중국의 킹카드가 아닌 전략적 부담이다.(6.6 서륙망 ⇨ 군사 전문 사이트) ..... 897
- 中·北 사이에 난기류가 흐른다.(6.7 NNN.ASIA「고미요지」기고문) ..... 899
- 인민일보의 北칭찬하는 기사에 中네티즌 비판(6.13 레코드차이나) ..... 976
- 北 보건성, 중국 선縣 결핵예방센터 방문(6.18 라오칭일보) ..... 1021
- 중국의 대북정책은 비논리적이다.(6.21 CSIS 태평양포럼 회보) ..... 1078
- 중국도 농락하는 북한의 교활함(6.26 산케이) ..... 1101

## v) 러북관계

- 「수히닌」 駐北 러시아 대사, '현재 북한 체제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2.5 인테르팍스 통신) ..... 2
- 러시아 아무르州 주지사와 駐나호드카 북한 총영사 회의 개최  
(2.3 러시아 로스인베스트 ⇨ 비즈니스 포털사이트) ..... 24
- 러시아 아무르州와 북한間 협력 착수(2.13 보스토크 미디어 신문) ..... 38
- '러 연해주와 북한間 협력방안 논의' 보도(2.21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 89
- 러-北, 자매도시 협정체결 적극 추진(2.27 부라티아공화국 공식홈페이지) ..... 111
- 푸틴 정권하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제기(3.1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 일간지) ..... 126
- 「데니소프」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과「리영호」북한 외무성 부상 회담  
(3.14 러시아 외무부) ..... 182
-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영사관 앞 한국정부 규탄집회 개최  
(3.14 프리마미디어 ⇨ 지역 언론사) ..... 183
- 「마르굴로프」외무부 차관과「리용호」북한 외무성 부상 회담(3.15 러시아 외무부) ..... 193
- 「세르게이 라브로프」(외무부 장관), 북한관련 언급(3.20 코메르산트 FM ⇨ 라디오) ..... 213

-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북한도발 행위 자제요청 예정  
(3.22 사할린 미디어 ⇨ 지역언론사) ..... 233
- 러시아 외무부, '북한과 대화 재개할 준비 됐다.'(4.13 리아 노보스티) ..... 418
- 러시아 외무부, 한반도 정세 예의주시하고 있다.(4.24 글로스 러시아) ..... 516
- 러시아, 불법어업방지에 관한 러·北간 협정 비준심사 예정이다.(5.2 리아 노보스티) ..... 579
- 극동지역 사절단, 방북 시 양국간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했다.  
(4.30 zpress ⇨ 극동지역 언론사) ..... 580
-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한 '망상'이다.(5.3 리아 노보스티) ..... 603
-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 노선 방향에 관한 대통령 명령(5.7 크레믈린 홈페이지) ..... 636
- 평양에서 한국戰 러시아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행사 개최(5.9 브즈클라드) ..... 647
- 러시아, G8 성명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 타격 입을 수 있다.  
(5.20 stoletie ⇨ 인터넷 언론사) ..... 735
- 북한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러시아 외교인사 발언 의도(5.22 넷케이) ..... 747
- 北 사절단, 방러 예정이다.(5.23 하바로프스키에 노보스티 ⇨ 지역 신문) ..... 780
- 러시아는 북한-파키스탄간 관계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5.25 nvo.ng ⇨ 군사전문 일간지) ..... 793
- 불법어업방지에 관한 러·北간 협정은 6월 중 비준될 것이다.  
(5.28 fishnews ⇨ 어업분야 전문 언론사) ..... 809
- 러 재무부 차관, 채무문제 논의 차 방북 예정이다.(5.29 재무부) ..... 822
- 러시아, 북한의 對러 채무를 협력발전 지체요인으로 생각한다.  
(5.30 로스발트 ⇨ 정보분석 언론사) ..... 839
- 北 대표단, 협력 논의 차 아무르주 방문 중이다.(5.30 아무르주 홈페이지) ..... 840
- 北 대표단, 아무르주 주지사와 만나 상호 협력방안 논의했다.  
(5.31 portamur ⇨ 극동지역 언론사) ..... 855
- 駐러 북한대사, 카자흐스탄과 협력방안 논의했다.(6.2 카자흐스탄 대사관 홈페이지) ..... 869
- 러시아 정교회 대표단, 訪北 중이다.(6.3 vladnews ⇨ 지역 언론사) ..... 870
- 러·北 외교 관계자,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6.7 외무부 홈페이지) ..... 930
- 北 노동당 대표단, 블라디보스토크 방문했다.(6.11 프리마 미디어 ⇨ 지역 언론사) ..... 946
- 김정은, '러시아의 날' 맞아 푸틴 대통령에 축전을 보냈다.(6.12 rusnovosti ⇨ 라디오) ..... 960
- 北 노동당 대표단, 나흐트카 하원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6.14 나흐트카 하원 홈페이지) ..... 991

## vi) 남북관계

- 美 뉴욕 세미나, '南·北 관계 개선의 기회'(3.8 / AP통신) ..... 151
- 美·北 합의는 南·北 대화의 새로운 변수(3.13 英 ISIS 보고서) ..... 173
- 北 열병식은 한국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4.23 남방일보) ..... 495
- 北, 대남 특별행동 위협 관련 보도(4.23 VOA) ..... 502
- 북한의 대남위협은 새로운 것 없다.(4.23 로스발트 ⇨ 뉴스포털 사이트) ..... 505
- 北 특별행동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서울 포격이다.(5.7 J-Cast 뉴스⇨뉴스사이트) ..... 627
- 韓정부 대북 강경조치의 희생양은 한국 기업들이다.(5.11 Washington Post) ..... 664

## vii) 기타

- 「로스바흐」 EU 한반도관계대표단 副단장, 'EU가 북한의 정치·경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기고(1.31 EU 'The Parliament'誌 / 2.6 RFA) ..... 1



- 김정은의 외교책략, '원교근공(遠交近功)분석(3.26 성도환구망) ..... 239
- 한·러 정상회담 관련(3.26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242
- 한국 언론, 중국 입장 왜곡 보도(3.27 홍콩 봉황위성TV) ..... 259
- 北, 전 세계 언론을 '책사'로 이용(4.27 환구시보) ..... 541
- 인도네시아 대통령, 민감한 北 문제에 안전책 강구(5.16 자카르타 포스트) ..... 702
- 北, 동남아시아와 우호 관계 강화로 외교적 국면 타파 시도 (5.17 남방일보) ..... 703
- 한국과 미얀마, 협력을 통해 상호간 이득을 꾀하려 한다.(5.16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706
- G8 선언문에는 북한문제가 포함될 것이다.(5.17 리아 노보스티) ..... 721
- 비공개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 입수(5.19 AP) ..... 731
- G8 공동성명, 北 문제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5.20 리아 노보스티) ..... 734
- 美·中이 한반도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5.24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776
- 北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이끌어 내야 한다. (6.7 폴로스 러시아) ..... 916
-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속국화를 피하는 최선책이다. (6.11 World Policy Institute) ..... 942
- 日·美 국장급 안보협의 개최하다.(6.19 지지통신) ..... 1022
-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벽을 허물어야 하는가?  
(상해포럼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6.26 환구망) ..... 1099
- 北 사람들은 해외에서 분쟁중재 교육을 받고 있다.(6.26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1114
- 한국과 중국이 北문제를 다뤄야 한다.(6.27 에어포스 타임스 ⇨ 미 공군 잡지) ..... 1130
- 北은 동남아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6.29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 신문) ..... 1148

### III. 군사

#### i) 핵실험

- 스웨덴 과학자의 북한 핵실험 주장에 대한 미국 과학자들의 반박 견해(2.3 美 내이처誌) ..... 1
- 「필립 윤」(前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선임보좌관), '북한을 방치하면 내년에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2.6 美 'The Hill'誌) ..... 8
- 1998년 북한 우라늄 농축 착수(2.11 마이니치 신문) ..... 31
- 「제임스 클래퍼」, 美 DNI 국장,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  
(2.16 美 상원 군사위 청문회 보고) ..... 60
- 北,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원한다'고 보도(2.27 People's Daily Online ⇨ 中 인민일보 영문판) ..... 103
- 美 공화당 중진, '北 핵프로그램 중단 믿을 수 없다'고 지적(2.29 AFP통신) ..... 116
- '2010년 이란이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 제기  
(3.4 Die Welt ⇨ 독일 일간지 / 3.4. PJMedia ⇨ 美 인터넷언론사) ..... 125
- 北 영변 핵시설 경수로 건설 진척(3.5 美 ISIS 보고서) ..... 139
-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유예 약속'에 대한 비판적 견해 제시  
(3.6 시카고트리뷴誌 / 「일리나 로스 레티넨」 공화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장 인터뷰) ..... 146
- '북한에서 이란 핵실험 한 것 아니다.'  
(3.7 Uncensored Israeli News Russian ⇨ 인터넷 언론사) ..... 153
- '금주 UN 안보리에서 중동지역 북한 핵확산 문제 취급 예정'  
(3.12 WND ⇨ 美 독립 인터넷 언론) ..... 160

• IAEA사무국장, '북핵은 동아시아의 위협'(3.11 교도통신) .....	161
• 駐러 이란대사,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고 주장(3.11 루스 노보스티 ⇨ 라디오) .....	161
• 北, 2010년 5,500만 달러를 받고 이란 핵탄두 실험 실시 (3.5 DEBKAFile ⇨ 이스라엘 정치, 안보 분야 인터넷 언론) .....	173
• 원칙없는 미국측의 핵문제 해결방식 비판(3.13 글로스 러시아 ⇨ 라디오) .....	174
• 日 외무장관, 북한의 핵시설 감시요원 수용 환영(3.13 일본 텔레비) .....	184
• 美 북한 전문가, 북한내 추가 핵시설 존재 주장(3.22 美 CNN 인터뷰) .....	230
•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은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강조(3.26 NHK) .....	241
•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만이 난처해질 것이다.(4.8 이즈베스티야) .....	350
• 북한 핵보유 관련 러시아 전문가 견해(4.8 익스프레스 인포룸) .....	351
• 美 국제안보 전문가, '올해 말 경 핵실험 가능성 배제 못해'(4.9 CNN) .....	366
• 5월 중순,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4.9 코메르산트) .....	367
• 美 전문가,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北 핵확산을 막았다고 주장(4.10 CISI 기고) .....	382
• 北, 수일 내 핵실험 할 수도 있다.(4.13 Bloomberg) .....	396
• 北 위성발사는 제3차 핵실험이 목적(4.13 홍콩 봉황위성TV) .....	398
• 美 전문가, 수개월 내에 핵실험할 것(4.13 NHK) .....	402
• 中, 北의 핵실험 저지로 얻는 결과(4.15, 홍콩 봉황위성TV) .....	417
• 대북 제재시 핵실험 할 수 있다.(4.13 리아 노보스티) .....	418
• 김정일 핵개발 유언은 사실이 아니다.(4.13 글로스 러시아) .....	419
• 北, 더 이상 모험하지 말아야 한다.(4.13 환구시보) .....	416
• 美 유엔대사, '北의 핵실험은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4.16 유엔 미국대표부) .....	430
• 美 전문가들, 北의 핵실험·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있다.(4.18 AFP통신) .....	466
• 현 상황전개는 새로울 것이 없으며, 3차 핵실험 가능성 있다.(4.18 글로스 러시아) .....	469
• 北의 핵실험 첫째 목표는 對南 위협이다.(4.24 홍콩 봉황위성TV) .....	515
• 러시아 부총리, 핵 보유국 확대 가능성 큰 문제로 인식한다.(4.24 리아 노보스티) .....	516
• 러시아 국방부, 최초로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 가능성 인정했다.(4.24 리아 노보스티) .....	516
• 美 국방장관, 北 핵실험 중단 촉구(4.25 The Hill) .....	525
• 러시아 국방부,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중이다.(4.25 인테르팍스) .....	530
• 남아시아의 군비경쟁 상황에서 북한은 가장 우려스러운 국가이다. (4.26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 일간지) .....	530
• 美 전문가, 北 핵실험 임박 주장(4.26 Bloomberg) .....	539
•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 인정은 러시아 대외정책 변화를 의미한다. (4.26 812online ⇨ 인터넷 일간지) .....	543
• 北 핵실험 실행할 것이다.(4.27 후지TV) .....	544
• 北, 첫 번째 우라늄 핵실험 할 수 있다.(4.27Reuters) .....	553
• 北 풍계리 핵실험 준비 활발(4.27 38노스 ⇨ 미국 북한 전문 웹사이트) .....	554
• 북한은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4.30 홍콩 봉황위성TV) .....	578
• 러시아 국방부,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선부른 판단 이르다.(5.2 인테르팍스) .....	590
• 미국의 새로운 MD 구상은 러시아의 핵 파워 약화가 목적이다.(5.3 리아 노보스티) .....	592
• 한반도 비핵화는 꿈일 뿐이다.(5.3 홍콩 봉황위성TV) .....	602
• 북한 핵 실험 시, 러시아는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5.3 이즈베스티야) .....	603
• 러시아 외무부, '北 핵실험 감행 시 심각한 대응 뒤따를 것이다.'(5.4 외무부) .....	617
• 北 핵실험, 역내 지진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5.5 인테르팍스) .....	625
• 北 핵실험해도 핵무기 배치까지는 아직 멀었다.(5.8 AP통신) .....	633
• 北, 미사일 실패했는데도 왜 핵실험을 하는가?(5.9 닷케이 비즈니스) .....	636

- 북한은 거의 완전한 핵보유국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정책연구소 정기간행물 '핵통제' 2012/1분기) ..... 682
- 北 3차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 실험이 될 것이다.(5.15 Voice of Russia) ..... 690
- 中, 北에 백두산 인근 핵실험을 하지 말 것 요구했다.(5.16 Reuters) ..... 701
- 北 핵실험, 러시아 안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5.17 노바야 가제타) ..... 705
- 北 핵실험시 미국은 대북 봉쇄정책을 택할 것이다.  
(5.14 美 CSIS 동아시아 양자관계 e-저널 'Comparative Connections' 게재) ..... 716
- 미국의 북핵 억제는 美·中의 전략적 신뢰 부족 때문이다.(5.17 시대주보) ..... 719
- 北, 조만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18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 720
- 북한은 핵실험을 포기한 것인가?(5.21 넷케이) ..... 748
- 北, 아시아의 비공식 핵보유국이다.(5.21 arms-expo ⇨ 군사전문 통신사) ..... 767
- 북한은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다.(5.23 홍콩 봉황위성TV) ..... 789
- 북한의 핵보유국 헌법명기는 對北 압박에 대한 조용한 대응이다.  
(5.30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839
- 北은 국민을 죽이면서도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이다.  
(5.31 the liberty web⇨월간지) ..... 855
- 北, 핵실험이 고립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6.1 러시이스카야 가제타 ⇨ 일간지) ..... 855
-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은 19,000기로 추정(6.4 SIPRI '12 보고서) ..... 867
- 美 핵전문가, 北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없을 가능성 있다.(6.2 아사히TV) ..... 868
- 北, 핵보유국 헌법명기로 국제사회 압력 약화를 기대하고 있다.  
(6.4 expert.ua ⇨ 우크라이나 주간지) ..... 869
- 北 헌법 핵보유 명기, 6자회담 실패 아니다.(6.1 환구시보) ..... 870
-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6.4 Inter Press Service) ..... 879
- 北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6.4 러시이스카야 가제타 ⇨ 일간지) ..... 881
- 핵실험 계획 없었다고 주장하는 北, 그 배경은?(6.1 코리아국제연구소) ..... 883
- 美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6.6 Foreign Policy) ..... 895
-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헌법화를 반대해야 한다.(6.2 환구망) ..... 913
- 北 핵실험 부인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6.10 블룸버그통신) ..... 925
- 北 핵실험 계획이 없다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노린다.(6.9 교도통신) ..... 931
- 北 핵실험 자제하고, 경제제진을 우선시하다.(6.17 NHK) ..... 1005
- 한국에 美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6.25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1096
- 北의 핵실험, 월요일에 실시될 가능성 높다.(6.27 뉴스포스트세븐) ..... 1136

## ii) 미사일발사 이전

### 1. 영어권

- 北, 미국 공격 가능한 신형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확인  
(3.7 美 워싱턴 타임즈) ..... 146
- 北 광명성 3호 로켓발사 발표에 대한 美 전문가들 견해(3.17 AP통신) ..... 199
- 美 상원 외교위, '北 위성발사로 신뢰성 훼손' 주장 (3.16 美 상원 외교위 성명) ..... 206
- 北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한 의문점(3.16 美 브루킹스연구소) ..... 206
- 뉴욕 타임즈, 北 위성 발사 발표 관련 보도(3.20 / NYT) ..... 212

- '美, 北 위성과 미사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3.21 / Bangkok Post, CSIS Pacnet series 게재 사설) ..... 219
- 동창리 발사대 3.20일자 위성사진 게시[GeoEye / Google Earth 제공]  
(3.22 美 Global Security 홈페이지) ..... 230
- 北 위성 발사 막는 방안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3.26 CNN 기고) ..... 250
- 北 로켓 발사, 핵안보정상회의 장악(3.26 / AP) ..... 250
- 北, 위성 발사 계획 재천명(3.27 NYT) ..... 258
- 美, 김정일 사망 전 北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3.19 넬슨보고서) ..... 258
- 韓·美연합사령관, 북한의 불시 공격능력 확대 언급(3.28 美 하원 군사위 청문회) ..... 269
- 동창리 발사장 활동 포착 최신 위성사진 입수(3.28 CNN) ..... 270
- 北 위성 발사는 김정일의 결정이며, 철회할 여지없다.  
(3.29 armscontrolwonk.com ☞ 美 군축, 비확산 전문 블로그) ..... 290
- 美·北, 로켓 발사로 격돌로 치닫고 있다.(4.2 US뉴스 ☞ 美 시사주간지) ..... 301
- 北 로켓 발사시 미국이 선택할 옵션은 제한적이다.(4.3 AP) ..... 301
- 北 장거리로켓 기술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  
(4.3 美 MSNBC ☞ Microsoft社와 NBC社에서 공동운영하는 위성 / 인터넷 뉴스) ..... 312
- 북한의 새 미사일 퍼레이드용 모형일 것이다.(4.3 CNN) ..... 312
- 이스라엘 미사일 전문가, 북한과 이란 미사일간 관계 분석  
(4.4 Haaretz ☞ 이스라엘 일간지) ..... 325
- 北 로켓 발사는 북한 정보를 획득할 절호의 기회이다.(4.6 AP) ..... 335
- 美 국방부, '北 발사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4.5 미군 공보국[AFPS] / 국방부 홈페이지 게재) ..... 336
- '北 로켓 발사, 이란보다 큰 우려'(4.8 AP통신) ..... 348
- 광명성 3호 참관 관련 서방언론 보도(4.8 BBC, CNN, AP) ..... 348
- 美 우주 전문가, '군사용 미사일은 아니지만 매우 가깝다.'(4.9 NBC) ..... 365
- 美 국방부, '北 로켓 발사 준비에 진전이 보인다.'(4.9 AFP통신) ..... 366
- 필리핀 대통령,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비난(4.9 CNN) ..... 366
- 北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참관 서방언론 보도(4.11 NBC, BBC 4.12 CNN) ..... 381
- 美 한반도 전문가, '北 미사일 발사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4.12 美 헤리티지재단) ..... 397

## 2. 중국어권

- '광명성 3호 발사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무시' 보도(3.19, 환구시보) ..... 109
- '광명성 3호 발사, 북한 1석 3조 효과 예상' 보도 (3.20, 재심 ☞ 경제포털사이트) ..... 205
- '북한의 위성 발사 위기,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3.21 / 동방조보 ☞ 일간지) ..... 220
- 북한 위성 발사, 4가지 결말 예측(4.1 홍콩 봉황위성TV) ..... 292
- 美 아시아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은 中·러 겨냥한 것(4.2 신화사) ..... 302
- 北, 4개의 리스크 무릅쓰고 위성 발사(3.29 경제관찰망 ☞ 경제주간지) ..... 313
- 광명성 3호와 1.2호 차이(4.6 중국청년보☞공산주의청년단 기관지) ..... 336
- 中,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향후 대응 이미 시작(4.9, 환구시보) ..... 349
- 中 인민일보 기자가 본 북한 위성 발사 준비 과정(4.9 인민일보) ..... 349
- '北 위성 발사로 다섯 가지 문제에 직면한 中 외교'(4.10 환구시보) ..... 368
- 北 위성발사 관련 中 방위 강화해야 한다. (4.10 중국망 ☞ 국무원 신문판공실 운영) ..... 383

### 3. 일본어권

- 「겐바」외무장관, 북한 위성발사 관련 발언(3.18 마이니치신문) ..... 200
- 「후지무라」관방장관, 북한 위성발사 관련 발언(3.16 닛케이) ..... 200
- PAC3, 사정 짧으며 광대한 해역 방위에 한계(3.20 스포츠 닛폰 & 스포츠신문) ..... 214
- ‘주변국을 최대한 배려한 위협’(3.21 기타오지 기관 & 안보연구실 블로그) ..... 222
- 미사일 대처 ‘지난번 보다 어려울 듯’(3.22 지지통신) ..... 232
- 참의원 본회의서 북한에 자제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예정(3.23 산케이) ..... 232
- 항공총대사령부, 미군 요코다기지로 이전 美·日조정소 신설(3.26 산케이) ..... 241
- ‘J알러트(전국순시경보시스템)’로 미사일 발사확인 후 지자체 전파(3.26 산케이) ..... 241
- 동창리 기지는 발사 직후 관찰이 더 어렵다.(3.28 후지TV) ..... 261
- 장거리미사일은 미국을 흔들기 위한 ‘심리전 무기’(4.1 닛케이) ..... 293
- 日 우주항공개발기구, 北 초청에 불참의사 표명(4.3 지지통신) ..... 304
- 日 방위성 간부, 정보위성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4.3 지지통신) ..... 315
- 김정일이 남긴 ‘로켓발사’ 계획은 김정은에게 득이 될 것인가?(4.4 닛케이 비즈니스) ... 316
- 북한, 미사일발사 준비태세에 들어감(4.5 후지TV) ..... 327
- 북한의 로켓은 군사기술적으로 미성숙하다.(4.5 닛케이비즈니스) ..... 338
- 북한의 위성 공개 및 조립 완료 보도(4.8 NHK) ..... 352
- 日군사기술전문가, ‘1단에 노동미사일 4개 장착’(4.9 NHK) ..... 352
- 북한 미사일, 이번에는 성공확률 70~95%로 예측(4.8 산케이) ..... 353
- 北, 4.16일에 미사일 발사할 듯하다.(4.10 TBS뉴스) ..... 369
- 2009년 미사일과의 차이점(4.10 후지tv) ..... 370
- 北 위성, 고성능 기능은 없지만 통신은 가능(4.9 마이니치신문) ..... 370
- 노다 총리, ‘만전의 태세로 대비할 것이다.’(4.12 교도통신) ..... 386
- 日관방장관, 국민들은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당부(4.11 교도통신) ..... 386
- 북한 위성프로그램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4.12 나카누네 루 & 인터넷 언론) ..... 403

### 4. 러시아권

-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외무부 논평(3.16 러시아 외무부) ..... 200
- 김일성 생일 앞두고 항상 해왔던 전통적인 도발행위(3.19 코메르산트 & 일간지) ..... 200
- ‘북한 위성발사,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3.19 스토레티에 & 정보분석 인터넷신문) ..... 204
- ‘북한, 사실상 ICBM 개발능력 없다.’(3.16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204
- 북한 위성발사 성공에 대해 매우 회의적(3.16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221
- 미국의 의도적인 광명성 발사 이슈화 가능성 제기(3.22 골로스 러시아 & 라디오) ..... 232
- 북한의 위성발사는 정치선전용이다.(3.29 모스크포스크에 노보스티) ..... 283
- ‘북한의 위성 발사’ 관련 라디오 대담(3.31 예코 모스크바) ..... 303
- 북한의 위성발사는 6자회담 재개를 저해한다.(4.3 인테르팍스) ..... 314
- 북한 대응 차원 美 MD구상은 지정학적 변화 가져올 것이다. (4.2 골로스 러시아) ..... 315
- 북한은 ICBM 개발 능력이 없다.(4.3 베스트 FM) ..... 326
- 북한 로켓 발사시 국제사회 평가 불가피하다.(4.4 리아 노보스티) ..... 326
- 러시아연방우주청, 북한 위성발사 참관하지 않을 것이다.(4.4 리아 노보스티) ..... 326
- 北, 위성발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4.5 슬론 & 인터넷 언론사) ..... 339
- 러시아연방공군, 북한로켓 궤도 벗어날 시 격추시킬 것이다.(4.10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366

-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 '광명성' 보고 실망했다.(4.9 NTV) ..... 367
- 북한 위성은 평화적인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4.9 제 1TV) ..... 367
- 북한은 발사의 평화적인 목적을 국제사회에 입증해야한다.(4.9 폴로스 러시아) ..... 367
- 북한 위성을 국제통제 하에 두는 새 결의안 채택해야 한다.  
(4.12 모스크프스키에 노보스티) ..... 385
- 북한 소식통, '기상 조건 문제없을 경우, 예정대로 14일에 광명성 3호 발사될 것이다'고 밝힘(4.11 인테르팍스) ..... 386
- 북한 정통 소식통, '13~14일 중 광명성 3호 발사될 것이다'고 밝힘(4.11 이타르타스) ..... 386

### iii) 미사일 발사 이후

#### 1. 영어권

- 北,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4.13 AP) ..... 396
- 北, 로켓 실패 인정은 놀라운 변화이다.(4.13 CBS) ..... 398
- 北 미사일 발사 실패, '美 동맹 MD강화 계기'(4.15 Financial Times) ..... 414
- 北 미사일 발사 후속조치 일한 아시아 우방국들과 협력 강화  
(4.15 美 국무부 보도자료) ..... 415
- 北, 도발로 여전히 '은자의 왕국'(4.15 美 CBS뉴스) ..... 415
- 美 국방부, 北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4.16 美 국방부 브리핑) .... 431
- 클린턴 장관, 北 추가 도발시 中도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4.16 AFP/로이터통신) ..... 434
- 北 발사 후 도전과 선택(4.17 브루킹스연구소) ..... 448
- 北 로켓 기술 진전 없다.(4.17 AP) ..... 449
- 北 열병식에서 선보인 차량 중국산과 동일하다.(4.17 NYT) ..... 450
- 中이 北의 미사일기술 개발에 협조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4.18 AP통신) ..... 466
- 北 로켓 발사 실패로 美 미사일 방어 논쟁 점화  
(4.17 Global Security Newswire ⇨ 핵무기, 테러리즘, 안보 관련 인터넷 언론) ..... 457
- 北 로켓 발사 실패는 美 행정부 및 전문가들의 북한 능력 과대평가를 보여준다.  
(4.16 Foreign Affairs) ..... 480
- 美 국방부, 美 본토는 北의 미사일 공격에 안전하다.  
(4.25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 525
- '北 신형 미사일은 가짜'에 대한 전문가들 견해(4.26 AP통신) ..... 539
- 北의 ICBM 개발에 3가지 길 있다.  
(4.29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565
- 北 위성 발사에 대한 서방의 반응은 위선적이다.  
(4.28 Global Research ⇨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웹사이트) ..... 566
- 미국은 중국측에 北 미사일 지원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5.1 더 힐 ⇨ 미 의회 전문지) ..... 589
- 발사 실패로 당황한 北에 대한 전문가들 견해(5.5 뉴욕타임스) ..... 615
- 美 MD 구축계획 관련, 북한은 유럽도달 ICBM 개발능력 없다.(5.15 리아 노보스티) ... 593
- 北의 도발에 대한 전문가 견해(5.18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 ..... 743
- 무수단리 발사장 개선공사 위성사진 분석(5.22 38North) ..... 760
- 北 핵실험 계획 부인 관련 美·中 전문가 3인 인터뷰  
(6.13 Global Times ⇨ 中 환구시보 영문판) ..... 985
- 미사일 발사대 수출에서 드러난 中·北관계(6.14 코리아리포트) ..... 1006
- 북한-시리아 미사일 개발 협력 탄력 불었다.(6.27 美 IHS Jane's) ..... 1131

## 2. 중국어권

- 北, 로켓 비행 계수 숨기려 고의 폭발시켰을 가능성 있음.(4.13 홍콩 봉황위성TV) ..... 399
- 北, 위성 발사 실패, 그러나 두 가지 목적 달성(4.14,첸장완바오 ⇨절강성 지역신문) .... 415
- 北 미사일 발사 실패, 나쁘지만은 않다.(4.17 환구시보) ..... 434
- 美, 北에 신형 미사일 수송차량 기술 간접 제공(4.25 중국신문망) ..... 526
- 北, 서해발사장을 단둥 근처로 한 것은 중국을 전쟁에 개입시키려는 계산이다.  
(4.26 홍콩 봉황위성TV) ..... 541
-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김정은의 뜻  
(4.24 남도주간 ⇨ 중국 광둥省 주간지) ..... 558
- 북한 위성 발사의 복잡성(5.6 신산경 ⇨ 중국 공청단 운영 산업경제 신문) ..... 616
- 北, 탄도미사일 제작 수준은 기술 모방에 그친다.(6.13 홍콩 봉황위성TV) ..... 959
- 中, 미사일 발사대 탑재용 차량 북한 수출 부인(6.14 동방조보) ..... 972
- 북한은 중국 차량으로 미사일을 운반하지 않았다.(6.14 홍콩 봉황위성TV) ..... 972
- 일본은 미사일 탑재차량의 對北수출을 왜 다시 들춰내는가?(6.14 차이원) ..... 988

## 3. 일본어권

- 北 미사일 발사 관련 전문가 담화(4.13 지지통신) ..... 400
- 1단이 분리될 때 문제 생겼다.(4.13 NHK) ..... 402
- 北 무인기와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4.15 TBS뉴스) ..... 419
- 北 사정거리 5,500km 이상인 신형탄도미사일 공개(4.15 후지tv) ..... 420
- 신형미사일 발사대는 중국산 특수차량을 개조한 것(4.16 마이니치) ..... 437
- 北 미사일 발사 日·美는 환영, 중국은 당황스럽다.(4.18 주간 아사히) ..... 453
- 북한의 새로운 군사행동 징후 포착됨.(4.25 TBS뉴스) ..... 529
- 加 군사전문지, 중국 기업이 발사대 차량을 北에 인도(4.26 NHK) ..... 529
- 日관방장관, 中미사일탑재차량 北수출 관련 언급 삼가하겠다.(6.13 산케이) ..... 961

## 4. 러시아어권

- 러시아 외무부, 북한 위성발사 매우 우려스럽다.(4.13 인테르팍스) ..... 403
- 발사 실패보다 발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문제다.(4.13 제 1채널) ..... 403
- 사실상 2020년까지 북한의 ICBM 개발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4.20 바엔노예 아바즈레니예 ⇨ 군사전문 일간지) ..... 494
- 근본적인 실패원인은 기술지원이 없기 때문이다.(4.21 도쉬지 ⇨ 인터넷 방송국) ..... 494
- 북한의 ICBM 개발성공은 아직 훨씬 멀었다.(4.30 vpk-news ⇨ 군사전문 주간지) ..... 566
- 북한, 조만간 유럽도달 가능 탄도미사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28 echo msk ⇨ 라디오) ..... 567
- 러시아 軍,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은 과장됐다.(5.3 리아 노보스티) ..... 604
- 러시아 軍, 북한과 이란은 장거리 미사일 아직 보유 못했다.(5.3 리아 노보스티) ..... 604
-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향후 러시아 안보에 잠재적 위협 될 수 있다.  
(5.4 리아 노보스티) ..... 618
- 北 미사일 프로그램, 아직은 유럽에 위협되는 수준 아니다.(5.4 리아 노보스티) ..... 625
- 北, 탄도미사일 생산 및 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5.22 콜로스 러시아) ..... 768
- 러·美 정상, 북한에 UN안보리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했다.(6.18 리아 노보스티) ..... 1021

#### iv) 한미군사연습

- 「김영재」 駐러 북한대사, 키리졸브 연습 비난(2.14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 45
- 「韓·美연합군사훈련 관련 북한측 반발」 보도(2.27 中 CNTV) ..... 110
- 韓·美·日 연합 해상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6.18 홍콩 봉황위성TV) ..... 1018
- 韓·美·日 연합 해상훈련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다.  
(6.21 중국 동방망 ㉠ 뉴스전문 사이트) ..... 1063
- 韓·美 군사훈련, 역내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6.25 글로스 러시이 ㉠ 라디오) ..... 1098
- 韓·美 군사훈련,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중국까지 우려하고 있다.  
(6.26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 일간지) ..... 1118

#### v) 미군유해발굴

- 「美 선박, 미군 유해발굴을 위해 북한 도착」 보도(2.28 AP통신) ..... 111
- 북한內 한국전 실종 美軍 유해발굴 4월 재개(3.8 / AP통신) ..... 151

#### vi) 기타

- 「예브세예프, 러시아 사회정치연구센터장 및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의 무인폭격기 개발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2.8 러시아 글로스 라디오) ..... 15
- 「새뮤얼 라클리어」(美 차기 태평양군 사령관 지명자),  
한반도 안정에 대해 우려 표명(2.9 美 상원 인준청문회) ..... 22
- 중북 접경 지역에 젠-11B기 대량 배치(2.7 환구망) ..... 23
- 「제임스 루이스」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장, 가장 위험한 사이버테러 우려국으로 북한,  
이란 지목(2.16 상원 국토안보위 / 2.17 RFA) ..... 67
- 中, 젠(殲)-10 전투기 북한 판매 거부(3.8 환구시보) ..... 152
- 러 총참모장 발언, 파트너국으로써 부적절하다.(4.24 콤포스몰스카야 프라우다) ..... 517
- 北, 한국에 사이버 공격할 것이다.(5.2 대련TV방송) ..... 588
- 北, 韓 민간항공기 전파교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5.2 Fox News) ..... 615
- 미국, 북한과의 전쟁으로 얻을 것 없다. (5.7 바옌노예 아바즈레니예 ㉠ 군사전문지) ..... 626
- 美·英, 북한의 해외 무기판매 강력대응 촉구(5.10 Financial Times) ..... 654
- 당분간 전술 핵무기 한반도 배치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5.12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669
- 미국의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어리석은 일이다.(5.15 환구시보) ..... 678
- 韓·日 군사협력, 중국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5.10 광저우일보 ㉠ 광저우 지역 신문) ..... 692
- 북한의 선제 공격에는 중국측의 경제 제재도 소용없다.  
(5.21 차이선 ㉠ 중국 인터넷 언론) ..... 745
- 日·美 장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조치 확인(5.22 니혼TV) ..... 748
- 러시아 미사일 부대, 탄도미사일 시스템 배치 준비에 착수했다.(5.21 리아 노보스티) ..... 749
- 특수부대 북파설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5.29 stopnews ㉠ 언론사) ..... 819
- 美 특수부대 北 침투 보도, 북한이 이용할 수 있다.(5.29 Washington Post) ..... 821
- 北, 군사분쟁 발생 가능성 가장 높다.(5.30 vpk-news ㉠ 군사전문 일간지) ..... 821
- 韓·美 특수부대 북한 잠입, 북한의 반격은?(5.30 차이선) ..... 822
- 「톨리」, 준장, 곡해 여지 제공 시인했다.(5.30 NPR) ..... 834



- 동북아 전쟁 가능성, 미리 예방해야 한다.  
(5.29 환구망 / 5.27 상해포럼 2012, “중국과 아시아의 질서” 강연) ..... 837
- 美 국무부, ‘北 도발에 따른 보상은 없다’고 강조(6.6 美 국무부) ..... 894
-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800~1000km로 연장해야 한다.(6.5 Heritage Foundation) ..... 912
- 北의 방해전파 강해지다.(6.8 TBS뉴스) ..... 915
- 北, 생화학 무기를 이용해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6.6 세계정책연구소) ..... 926
- 北 공군 전투기 비행 급증한 배경(6.9 하신기 블로그) ..... 930
- 日 방위상, ‘北의 위협 심각한 상황 계속될 것이다.’(6.8 산케이) ..... 931
- 北, 韓 언론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다.  
(6.11 데일리 콜러 ⇨ 美 워싱턴 뉴스사이트) ..... 941
- 韓, 北 위협에 정보·감사·정찰(ISR)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6.15 CSIS 코리아포럼 회보) ..... 1002
- 北의 최후통첩, 한국 금융시장을 인질로 삼다.(6.19 넛케이) ..... 1034
- UN보고서, 北 시리아에 방호복 등 수출 기제(6.22 마이니치) ..... 1067

## IV. 경제

### i) 경제일반(시장 등)

- 「칼 거쉬먼」 美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 ‘북한 대형 장마당 이용자 하루 10만명’이라고 주장(2.7 RFA) ..... 8
- 北, 안정적으로 경제·사회 위기 극복할 듯(2.1 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 39
- 北,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 개발 박차(2.14 中 신화사) ..... 44
- 북한, 7년간 OECD에 빌린 자금 절반 상환(2.15 RFA ⇨ 원문 미게시) ..... 54
- ‘최근 평양의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간 30배 격차 발생’(3.2 교도통신) ..... 133
-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노선 투쟁 가능성 제기(3.10 산케이신문) ..... 166
- 중국내 북한국영 레스토랑, 북한으로 매출의 80%나 송금  
(4.4 레코드차이나 ⇨ 중국정보발신 뉴스사이트) ..... 328
- 北, 외국 전문가 초청하여 법률 개정을 위한 시장경제 연수 실시(4.30 지지통신) ..... 557
- 北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의 90%이상 상납한다.(5.9 NHK) ..... 647
- 韓·中·日 경제협력은 북한 개혁에 도움이 된다.(5.14 홍콩 봉황위성TV) ..... 666
- 싱가포르, 北 경제 모델 될까?(5.12 AP) ..... 679
- 김정은, 김정일보다 경제개혁에 더 개방적이다.(5.14 美 타임) ..... 680
- 北, 소비 붐 징후가 관측되고 있다.(5.24 RUSKOR ⇨ 언론사) ..... 792
- 北, 외화획득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하다.(5.26 TBS뉴스) ..... 824
- 北 식당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5.30 이코노미스트) ..... 834
- 北, 탄소배출권 거래로 외화벌이(5.31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 852
- 북한 외자유치 관련 전문가 인터뷰(6.1 38 North) ..... 866
- 北 경제는 강제노동을 토대로 형성된다.(6.13 휴먼라이츠워치) ..... 969
- 김정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6.18 asiareport ⇨ 정보분석 포털) ..... 1007
- 평양중심부 재개발 완공되다.(6.20 산케이) ..... 1049
- 北 특별경제지구가 가난의 탈출구이다.(6.22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신문) ..... 4060
- 北 결혼사업에 진출, 100만 달러에 알선(6.24 뉴스포스트세븐) ..... 1083

## ii) 식량난/전력난

- 중국 전력 회사, 駐北 중국 외교관 인용, 평양의 심각한 전력 부족 보도  
(2.6 中 북극성전력) ..... 1
- 북한 라디오방송 '전파 중단' 전력사정 악화가 원인?(3.29 J-Cast 뉴스 ⇨ 뉴스사이트) ..... 284
- 北 북동부 지역에서도 아사자 속출(4.25 도쿄신문) ..... 512
- 북한 내 아사자 발생 보도는 신뢰성이 떨어진다.(5.3 러시아스에 베스티 ⇨ 주간지) ..... 591
- 北 어린이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5.10 세이브더칠드런 / VOA) ..... 653
- 北 가뭄, 쌀 수확량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5.28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808
- 北, 50년만 최악의 가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5.28 Voice of Russia) ..... 821
- 북한에 있어 특수부대 잠입보다 더 큰 문제는 가뭄이다.  
(5.30 타이하이망 ⇨ 중국 북경성의 兩岸관련 종합 포털 사이트) ..... 836
- 北의 산림농업 혁신, 식량·에너지난 극복 기여한다.(5.31 Science and Development  
Network ⇨ 개도국 대상 과학, 기술 정보 제공 英 비영리단체) ..... 854
- 北, 가뭄으로 벌써부터 도시주민 총동원하다.(6.3 아사히신문) ..... 869
- 北, 전투태세로 쏠 국민이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6.8 국제선구도보 ⇨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지) ..... 928
- UN, 심각한 아동 영양실조에도 北 경제개혁 조짐 없다.(6.12 AFP) ..... 956
- 北 식량난은 한국의 對北 지원중단 및 자연재해에 기인한다. (6.12 이타르타스) ..... 960
- 北, 가뭄으로 회천발전소 발전량 못미친다.(6.15 신화망) ..... 989
- 북한 가뭄과 김정은의 꿈(6.18 차이선) ..... 1019
- 북한 가뭄 관련, 지난 주 방북 獨 구호단체 대표 인터뷰  
(6.23 The Hindu ⇨ 인도 일간지) ..... 1080
- 北 통과하는 전력에너지 對韓 공급방안 논의 예정이다.  
(6.23 리아 노보스티 ⇨ 공영 통신사) ..... 1082
- 북한의 가뭄 관련 발표에 대한 의혹(6.21 파터슨국제경제연구소) ..... 1097
- 남·북한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 겪고 있다.(6.26 AP) ..... 1113
- 가뭄에도 영향 받지 않는 평양 엘리트(6.27 英 The Telegraph) ..... 1129
- 北, 60년 만의 가뭄, 김정은의 토지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6.27 차이선) ..... 1131
- 북한 가뭄 뒤에 숨겨진 정치적 함의, 中·美 힘겨루기 가열되다.(6.27 차이선) ..... 1132

## iii) 대북지원

- 식량지원 재개 관련 미국의 대북 식량 2만t 반환 요구 보도(2.4 산케이 신문) ..... 2
- 美 국무부, 2012년에 이어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대북 경제지원금 전액 삭감  
(2.14 VOA ⇨ 원문 미게시) ..... 46
- 「푸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후 식량원조 논의(2.27 中 외교부) ..... 103
- 2011년 러시아 대북지원 총액 1,490만불로 집계(3.7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147
- WFP, 北 어린이들에 슈퍼시리얼 제공(3.9 WFP 홈페이지 / 3.14 VOA) ..... 184
- 중국, 미국보다 서둘러 대북 식량지원 착수(3.15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193
- 美 국방부,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3.28 美 하원 군사위 청문회) ..... 268
- 美 대북지원 중 식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美 의회조사국[CRS] '대북지원' 보고서 3.20 발간 / 4.1 게재) ..... 290
- 미국의 對北 식량지원 중단은 근시안적 처사(3.31 홍콩 봉황위성TV) ..... 291
- 이란, 대북 인도지원 실시(4.22 Ynetnews ⇨ 이스라엘 인터넷 언론사) ..... 503
- 北 외자 유치 증가는 사회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5.1 The Diplomat) ..... 576

- 北 지원하는 NGO에도 역풍불다.(5.15 마이니치) ..... 681
- 북한의 극심한 가뭄 불구, 식량지원 가능성 낮다.(5.28 AP) ..... 803
- WFP 新사무국장, 북한과 조건 협상중이다.(5.29 지지통신) ..... 824
- 北 가뭄으로 중국에 식량지원 요청시, 핵실험 어려워 질 것이다.  
(5.31 아시아타임스 ⇨ 홍콩) ..... 833
- 인도네시아, 北에 200만 달러 지원 검토중이다.(5.31 지지통신) ..... 841
- 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들, 대북 지원 반대  
(6.1 자카르타 글로브 ⇨ 인도네시아 영자 신문) ..... 879
- 러, 對北 인도주의 지원에 착수했다.(6.8 baikal24 ⇨ 지역 언론사) ..... 930
- WFP-UNICEF, 北 영양실조 아동 지원 파트너십 구축(6.11 WFP) ..... 941
- UN, 올해 美 대북지원 낙관적으로 전망한다.(6.12 Reuters) ..... 957
- 국제사회는 北 식량안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6.13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970
- 對北 지원 이루어지고 있다.(6.14 altapress ⇨ 지역 언론사) ..... 990
- UN은 조건부 대북지원 해야 한다.(6.18 Bangkok Post) ..... 1002
- 對北 지원 재원 마련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6.15 리아 노보스티) ..... 1006

#### iv) 대외무역/경제협력

##### 1. 대외무역

- 중국, 對北무역 수출입 총액 약 56억 달러(3.6 교도통신) ..... 142
- '북한 지하자원 수출 의존도 증가' 보도(4.20 아시아프레스) ..... 496
- 中·北무역 활발,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도 개방할까?(5.8 제일재경일보 ⇨ 경제전문지) ..... 626
- 북한산 석탄 수입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6.8 국제석탄망) ..... 929

##### 2. 중-북 협력

- 한국, 중·북 나선특구 경제협력에 우려(2.17 홍콩 봉황위성TV) ..... 67
- '나선특구의 경제적 가치' 관련 보도(2.22 中 산경신문 ⇨ 경제전문지) ..... 83
- 中, 김정은 체제하 첫 북한 노동자 수용(3.3 교도 통신) ..... 126
- 中·北 국경에「국제협력모델지구」건설 구상(3.6 교도통신) ..... 142
- 중국 국무원, 中·北 국경지역 경제구 개발 승인(4.25 닛케이) ..... 529
- 中, 평양에 '조선중국상회' 설립(4.27 산케이) ..... 557
- 北, 황금평·위화도 경제지구 관리 중국 중관촌 방문  
(5.2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지구 사이트) ..... 617
- 중국 단둥市 42개 기업, <제15회 평양 춘계 국제상품전> 참가  
(5.10 단둥시 정부 홈페이지) ..... 655
- 중국은 지역 협력의 중심 역량이 되어야 한다.(5.13 중국망) ..... 667
- 中, 북·중·러 국경 투먼강 지역(훈춘)에 국제협력시범지구 건설 (5.21 국제재선) ..... 747
- 개발 진행중인 中·北 국경지구, 외자참여 호소(5.21 아사히TV) ..... 748
- 中·北경계지역, 중국 주도로 개발이 시작됐다.(5.23 닛케이) ..... 780
- 中 단둥항~北 남포항 컨테이너선 정기운행 시작(6.12 단둥일보) ..... 945
- 中 단둥市, 북한 노동력 수입 계획있다.(6.15 경제관찰보 ⇨ 경제 전문지) ..... 1004
- 中 대련항, 대북 불법수출의 온상(6.14 산케이) ..... 1005
- 중국 산둥省 등잉(東營)市, 북한 동해안 어업 허가 받았다.(6.19 중국수산양식망) ..... 1033

- 北, 올해 중국 동북지역에 12만명 노동력 수출한다.(6.25 홍콩 봉황위성TV) ..... 1077
- 중국 안양市에 평양아리랑 식당이 개업되었다.(6.22 안양신문망) ..... 1078
- 中·北을 빈번하게 왕래하는 밀수화물선 더 있다.(6.24 아사히) ..... 1082
- 북한의 노동력 수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나?(6.25 차이신) ..... 1100
- 중국 칭다오市 북한 추계 상품전 참가 기업 모집한다.(6.25 칭다오제경일보) ..... 1101
- 中·北 황금평·위화도 협력 보류, 정확한 사실 확인 중이다.(6.26 경제관찰보) ..... 1112
- 中·北, 북한 동부해역 불법 어업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6.27 중국신문망) ..... 1134
- 北 경제담당관료, 中에서 개혁개방 연수받다.(6.27 NHK) ..... 1135

### 3. 러-북 협력

- ‘북한에 연해주 지역 상품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  
(2.5 러시아 보스토크 미디어 신문, 2.3 러시아 프리마미디어 신문) ..... 23
- 「올렉 코제야코」(아무르州 주지사), 북한에 아무르州 농지임대 계획 부인  
(2.27 리아노보스티 ⇨ 통신사) ..... 104
- 아무르州 주지사의 ‘북한측에 농지임대 계획 부인’ 관련 분석기사 보도  
(2.29 코메르산트 하바로프스크 ⇨ 지역 일간지) ..... 133
- 김정은은 가스관 건설에 관한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7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435
- 러시아 아무르州 기업 대표단, 북한과 임업부문 협력 논의  
(5.10 wood.ru ⇨ 임업전문 포털사이트) ..... 657
- 新 실크로드 구축 저해요인은 북한이다.(5.23 폴로스 러시아) ..... 779
- 北·아무르州,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6 인테르팍스, amur.info ⇨ 지역 언론사) ..... 900
- 北 노동당 대표단, 6월 중 아무르州 공식방문 예정이다.  
(6.7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amur.info ⇨ 지역 언론사) ..... 901
- 南·北·러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사실상 동결상태다.  
(6.7 모스크프스코예 노보스티 ⇨ 일간지) ..... 917
- 러시아 전문가, 협정 위반을 근거로 中·北 비난할 수 없다.  
(6.14 폴로스 러시아 ⇨ 라디오) ..... 990
- 北 철도전문가, 러시아에서 연수중이다.(6.19 vladnews ⇨ 지역 언론사) ..... 1022
- 北 노동당 대표단, 아무르州 관계자들과 회동했다.(6.19 amurinfo ⇨ 지역 언론사) ..... 1136
- 南北관계 긴장상태로 인해 3자 프로젝트가 동결된 상태이다.(6.20 리아 노보스티) ..... 1147
- 아무르州, 북한 노동자를 우선 고용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6.20 portamur ⇨ 지역 언론사) ..... 1148
- 駐北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 북한 협동농장을 방문했다.(6.20 가제타 ⇨ 일간지) ..... 1148
- 러시아 재무부, 북한 채무조정안 7월 중 정부에 제출 예정이다.(6.21 리아 노보스티) ..... 1064
- TKR 복구는 역내 지경학적 정세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6.21 이타르타스) ..... 1066
- 北 전문가, 아무르州 주택건설 현장에 투입됐다.(6.25 인테르팍스 ⇨ 민영 통신사) ..... 1099
- 러·北 협의에 관한 외무부 언론보도문(6.27 외무부 홈페이지) ..... 1154

## V. 사회

### i) 탈북자/인권

- 러, 연해주 지역 탈북자 증가 관련 보도(2.11 보스토크 미디어 신문) ..... 32
- 中, 탈북자 복송에 대한 한국 언론 문제 지적(2.15 中 환구시보) ..... 52
- 中 전문가들, '중국의 탈북자 송환은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  
(2.20 中 환구시보) ..... 71
- '한국, 탈북자 처리 문제로 골머리 앓으면서 중국에 오히려 압박' 보도  
(2.21 中 환구시보) ..... 78
- 中 외교부, 탈북자 송환 문제 관련 정례 브리핑(2.28 中 외교부) ..... 110
- 美 브루킹스 연구소, 美의회 탈북자 청문회에 탈북자 송환 증언 제출  
(3.5 美 브루킹스 연구소) ..... 132
- 탈북자 3명, 연해주 국경수비대원 구타로 재판회부(3.13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167
- 美,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권한 강화 촉구(3.12 美 국무부 보도자료) ..... 167
- 韓·中, 탈북자 문제 이어 '이어도 분쟁' 서로 존중 필요(3.13 환구시보) ..... 174
- 탈북자 문제 제기, 한국은 이제 그만해야(3.9 신화망 / 3.16「환구」잡지) ..... 182
- 중국측의 탈북자 문제 이슈화 비판에 대한 미국외교협회 견해(3.15 CFR) ..... 192
- '한국은 진정으로 탈북자를 받아들여기를 희망한다'고 비판  
(3.19 신화사,「천연」 중국연구원 집행원장 사설) ..... 205
- 엠네스티 '北, 2011년 최소 30명 처형'(3.27 '사형선고와 처형 2011'보고서 / 3.27 VOA) ... 259
- 北 인권문제가 관계 개선에 중요하다.(5.1 美 국무부 대변인실 서면답변) ..... 576
- 北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상 관련 보도(5.3 AFP) ..... 604
- 인권은 북한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5.15 美 하원 외교위) ..... 691
- 美·北 관계에서 인권문제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5.16 美 브루킹스연구소) ..... 171
- 러시아 연해주 지방법원, 북한인 3명에게 실형 선고했다.(5.17 이타르타스) ..... 721
- 북한인권침해사례집, 향후 국제군사재판근거로 활용 가능 (5.17 Wall Street Journal) ..... 744
- 연변조선족자치주, 탈북자 집중단속 시작했다.(5.24 레코드차이나) ..... 794
- EU 의회, 중국의 탈북자 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5.28 Financial Mirror) ..... 804
- 北 수용소에 대한 탈북자들 증언(5.28 CNN) ..... 804
- 中·北, 2009년 탈북자 단속 강화하기로 합의하다.(6.4 지지통신) ..... 882
- 中 길림성 연변지역, 불법 외국인 단속(5.25 동방조보 & 일간지) ..... 884
- 北 불평등은 출생 당시 결정된다.(6.7 AP통신) ..... 911
- UN 對北제재위 카브랄 의장, 연례보고서 공개에 낙관적(6.12 지지통신) ..... 947
- 캐나다로 망명 신청하는 탈북난민 증가  
(6.12 런던 프리 프레스 &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 일간지) ..... 959
- 탈북자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 미국에서 영화화된다.(6.13 Chicago Tribune) ..... 971
- 北에 감춰진 수용소의 충격적인 폭로(6.14 내셔널 포스트 & 캐나다 일간지) ..... 987
- 北 열악한 인권상황을 자국의 약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6.13 아시아프레스) ..... 991
- 北 범죄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6.16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 신문) ..... 1017
- 美국무부, 북한 인신매매 최악 국가 재지정(6.20 니혼TV) ..... 1034
- 북한에서는 여전히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6.19 이타르타스) ..... 1035
- UN 對北제재위 연례보고서 이르면 다음주에 공개(6.21 TBS뉴스) ..... 1049
- 前 러시아 별목 근로자의 증언(6.24 아사히) ..... 1084
- 中, 탈북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6.26 보스토크 미디어 & 지역 언론사) ..... 1136

## ii) 주민생활 실태

- 北, '김일성, 김정일' 뱃지 동시착용 추진 보도  
(2.16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 지역 인터넷 신문) ..... 60
- 최근 평양지역에 中·北 합작회사 운영 택시 급증(3.16 지지통신) ..... 193
- '김일성 광장의 화장실' 관련 현지르포 게재(3.19 산케이 신문) ..... 207
- 북한 엘리트 계층의 한국산 제품 선호, 주체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3.29 에코 모스크바 블로그) ..... 304
- 평양의 최근 모습과 농촌지대와와의 격차에 대한 르포(4.16 NHK) ..... 437
- 北 4.15 축제 참가 일본인들의 증언(4.18 요미우리 신문) ..... 454
-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주민 실정 보도  
(4.23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503
- 북한 주민, 강제 헌납에 불만 발생(4.24 아시아프레스) ..... 512
- 북한 내 휴대폰 증가로 은둔의 왕국을 벗어날 것이다.(5.1 Financial Times) ..... 605
- 해외언론을 통해 北주민들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5.10 AP통신) ..... 644
- 北 부유층, 당국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5.10 주간현대 ⇨ 주간지) ..... 668
- 北, 軍部내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5.26 주간 현대) ..... 807
- 北에 혼란이 없다고 질서가 잡힌 것은 아니다.(5.29 WSJ) ..... 819
- 北 마약이 대대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데 의구심이 든다.  
(6.12 apn-spb ⇨ 정치관련 뉴스보도 언론사) ..... 947
- 北 폭주족 증가, 추격용 차량 없어 단속 어렵다.(6.13 사치나) ..... 975
- 북한은 마약 밀매 強國이다.(6.28 China Value ⇨ 경제전문 사이트) ..... 1149
- 지도자 초상화를 구하고 숨진 14세 소녀, 북한은 반성해야 한다.(6.28 차이신) ..... 1151

## iii) 기타

- '서방 대학에 북한 유학생 증가'(3.22 산케이biz ⇨ 종합경제정보 사이트) ..... 222
- 북한 관련 언론보도가 부정적인 이유는 정보폐쇄성 때문이다.  
(4.28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일간지) ..... 558
- 2012년 중국 정부 유학생 북한 파견(5.8 駐北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635
- 中·北 국경지역 이주 강화가 안되는 이유(6.16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신문) ..... 1044

## VI. 문화/관광/기타

### i) 관광

- '북한의 「여가생활 금지령」에 중국 음향제품 수출길이 막혔다고 보도  
(2.8 中 음향전문 사이트 '해충영음') ..... 8
- 「장웨이」 중국 길림성 여유국 부국장, 남·북·중·러 등 동북아 국제관광벨트 개발 예정 발표  
(2.8 중국 차이나뉴스 인터넷판) ..... 15
- 러, 김일성 생일맞이 북한지역 관광 상품에 대한 관심 고조(2.13 프리마 미디어 신문) ..... 32
- 길림성 여유국과 나선市 관광관리국, '자동차 여행 보충협의' 체결(3.21 인민일보) ..... 233
- '평양-베이징' 고려항공편 5배 증편(3.30 TBS뉴스) ..... 283
- 중국 여행사, 북한관광 일시 중단(4.1 네티케이) ..... 293
- 中 투먼~北 칠보산, 전용 열차 개통(4.29 신화사 길림지역 신문) ..... 568

- 중국 東北지역에서 출발하는 북한 자동차 여행편 재개(4.29 신화사) .....578
- 中 길림성 제1차 북한 자동차 여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5.9 Bitauto ⇨ 인터넷 자동차 거래사이트) ..... 646
- 연해주 지역 청소년, 북한에서 진행될 여름캠프 참가 예정이다.(5.10 보스토크 미디어) .... 647
- 상해~평양 구간 전세기, 7월부터 운항 재개(5.22 동방조보 ⇨ 주간지) ..... 746
- 中여행사, 북한관광 단체여행객 모집 시작(5.23 산케이) ..... 767
- 中·北 경제·문화·관광 박람회 10월 개최 예정(6.6 중국일보) ..... 896
- 中 요녕 단둥시 국경검문소, 북한행 특별열차 운행 시작(6.7인민망) ..... 913
- 中 상해~연길 전세기 취항, 신분증으로 북한 여행가능하다.  
(6.19 동방조보⇨상해 지역 일간지) ..... 1048
- 러시아항공社, 평양발 노선 취항 준비 중이다.(6.21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1065

## ii) 공연

- 北, 은하수관현악단 파리에서 공연 보도(3.14 텔레비전 아사히) ..... 646
- 北 조선국립교향악단 미국 공연,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연기(4.27 교도통신) ..... 647
- 북한 음대생과 노르웨이 문화대표단이 합동음악회 개최(5.18 교도통신) ..... 647
- 北 군악단, 러시아에서 공연예정이다.(5.21 프리마 미디어 ⇨ 지역 신문) ..... 647
- 北 문화·예술 사절단 극동지역을 방문했다.  
(5.29 아무르스카야 프라우다, 프리마 미디어 ⇨ 지역 언론사) ..... 647
- 北 예술에 대한 외국작가들 평가(6.16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신문) ..... 647
- 최초의 中·北 합작영화 '평양의 약속' 개봉되다.(6.19 21CN오락) ..... 647
- 최초 中·北합작영화 '평양에서의 약속' 중국 제작자 인터뷰(6.20 Hollywood Reporter) ..... 647

## iii) 기타

- 中 기상국, 북한에 CMACast 위성데이터 수신장비 설치 및 교육  
(2.13 中 기상국 홈페이지) ..... 647
- '평양과학기술대학' 관련 보도(3.15 CNN 홈페이지 / 3.19 Fortune誌) ..... 647
- KAL기 폭파범 김현희 단독 인터뷰 보도(3.26 후지TV) ..... 647
- 中·北 기상 과학기술협력 회의 개최(4.27 중국 기상국 홈페이지) ..... 647
- 2004년 실종된 美유학생 남북 가능성있다.(5.9 TBS뉴스) ..... 647
- 서방에서 나오는 정보는 북한에 대항하는 정보전에 불과하다. (5.13 보스토크 미디어) ..... 647
- 러·北간 광섬유케이블 구축됐다.(5.14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647
- AP 평양지국, 악마와 손잡았나.(6.11 The Australian) ..... 647
- 北, 농촌지원 軍 선전대 사진 유출에 조사 착수했다.(6.13 英 The Sun) ..... 647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스웨덴 과학자의 북한 핵실험 주장에 대한 미국 과학자들의 반박 견해 (2.3 美 네이처誌)
  - 「프랭크 본 히벨」(美 프린스턴大 물리학자), '방사성동위원소 자료들이 무기용 핵실험이나 융합 반응을 이용한 폭발 성능 강화 실험에 의한 것으로 결론짓기 어려움'
  - 「올라 달만」(CTBTO 지구물리학자), '한반도에서 수직 진동이 감지되지 않았음'
  - 「제프리 루이스」(美 몬터레이 국제문제연구소 비확산 전문가), '방사성 동위원소의 감시체계만으로 핵이 연관된 것인지 증명할 수 없음'
- 「로스바흐」 EU 한반도관계대표단 부단장, 'EU가 북한의 정치·경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기고 (1.31 EU 'The Parliament'誌 / 2.6 RFA)
  - '북한의 지도자 교체는 북한이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 개방할 수 있는 기회'
  - 'EU는 정치·경제 개혁을 전제로 북한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함'
  - 'EU 식량지원中 일부 전용 사실 드러남에 따라 향후 모든 대북 지원은 투명성 및 감시 가능한 사업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함'
- ※ 在美 한인 의사 20여명 4.28일 방북, 현지 의료시설 시찰 및 학술대회 개최(5.3-4) 계획(2.6 VOA)
- ※ 「파네타」 美 국방장관, '미국이 북한·이란 두 개 전쟁에서 승리가 가능하다고 주장(2.6 RFA)

### □ 중국어권

- 중국 전력 회사, 駐北 중국 외교관 인용, 평양의 심각한 전력 부족 보도 (2.6 中 북극성전력)

- '현재 평양은 매일 전력 공급 중단 상황'
- '대사관 등의 기관은 발전기를 이용해 자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 지역은 김정일 시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
  - ※ 2.5~7일간 중러간 6자회담 수석대표단(중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러 마르굴로프 외교부 부장) 회담 개최
  - ※ 중국 인터넷 회사(163.net), 한국의 인권단체 소식 인용, '중국이 설 연휴 前 쌀을 비롯한 식량을 북한 정부에 지원했다'고 보도

## □ 일본어권

- 식량지원 재개 관련 미국의 대북 식량 2만t 반환 요구 보도  
(2.4 산케이 신문)
  - '미국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재개 조건으로 2009년 이후 북한에 남아있는 약 2만t의 지원된 식량 반환 요구'
  - '특히, 식량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상쇄하는 형태로 신규 제공하는 식량(24만t)에서 2만t을 빼서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
    - \* 교도통신과 달리 산케이 신문만 상기 식량 상쇄 조건 보도

## □ 러시아어권

- 「수히닌」 駐北 러시아 대사, '현재 북한 체제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2.5 인테르팍스 통신)
  - '국내외 언론이 북한 내부 및 러북관계 관련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등 실질적 상황을 왜곡시키고 있음'
  - '김정일 사망後 북한 내부의 심리적 불안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 체제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김정일·김일성 생일 준비 움직임을 실례로 제시
  -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북한 지도부 내의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으며, 최근의 변화는 제한적인 성격을 가짐.'

## 붙임 1. 미국 네이처誌 원문(2.3)

### 美 네이처誌 홈페이지

- o North Korea may have conducted two covert nuclear weapons tests in 2010, according to a fresh analysis of radioisotope data.
- o In August 2010, experts meeting in Vienna informally discussed the South Korean data and measurements from an international network of radioisotope-monitoring stations operated b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CTBTO), which supports an as-yet-unratified treaty that seeks to ban nuclear-weapons testing. Among those experts was Lars-Erik De Geer, an atmospheric scientist at the Swedish Defence Research Agency in Stockholm. When they looked at the monitoring data from Russian and Japanese stations close to North Korea, "the conclusion from everyone was, 'Hell, we cannot explain them.'", De Geer recalls (see 'Nuke watching').
- o Unwilling to let the matter rest, De Geer took the radioisotope data and compared them with the South Korean reports, as well as meteorological records. After a year of work, he has concluded that North Korea carried out two small nuclear tests in April and May 2010 that caused explosions in the range of 50 - 200 tonnes of TNT equivalent. The types and ratios of isotopes detected, he says, suggest that North Korea was testing materials and techniques intended to boost the yield of its weapons.
- o Frank von Hippel, a physicist at Princeton University in New Jersey, says that De Geer's analysis provides convincing evidence of some kind of nuclear fission explosion. But he does not agree that it necessarily involved two weapons tests, or a fusion boost. "I hope that other experts will analyse it and see whether they can put forward alternative, simpler explanations," he says.
- o Others remain deeply sceptical that the tests took place at all. Most troubling is the lack of any seismic vibrations to support the radioisotope data, according to Ola Dahlman, a retired geophysicist who spent years working with the test-ban group's detection network. The Korean peninsula is wired to spot the tiniest shake from a nuclear explosion, Dahlman says. "It should have been able to see something."

美 네이처誌 홈페이지

- o Jeffrey Lewis, director of the East Asia non-proliferation programme at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n California, agrees. De Geer's hypothesis "doesn't feel right to me", he says. The monitoring system alone simply can't prove that some other sort of nuclear incident, such as a reactor accident, wasn't responsible.

**붙임 2. EU 'The Parliament'誌 원문(1.31)**

EU The Parliament 홈페이지

- o The death of Kim Jong-Il creates a momentum for change in North Korea. Whether it will be for better or worse remains to be seen. Very little is known about the new leader Kim Jong-Un. But his role is primarily as a national symbol - the real power has long been with the military. Despite this, the change in leadership will create a momentum for change for both Nor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massive propaganda designed to position the new leader Kim Jong-Un as a strong military leader shows continuity in the political leadership that reflects the official ideology of Juche - thus unfortunately nothing seems to have changed.
- o Furthermore, human rights groups are concerned that the new leader will be even worse than his father, and that new rules will increase the control with the population. It is therefore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ush North Korea in the right direction. The change in leadership can give North Korea the opportunity to open up without losing face. But it requires the rest of the world to send a clear signal, saying "we are ready" - if North Koreans are as well. I recently returned from an official visit to North Korea with a European parliament delegation. During our visit, we got a clear impression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strongly interested in more contact with the European Union. Brussels should therefore send a signal that we are ready for closer relations with North Korea on condi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that will benefit the North Korean population.
- o In this respect, the EU has unique opportunities. While South Korea and the US are perceived as enemies, Europe is considered more

EU The Parliament 홈페이지

neutral. Therefore we are in a better position to influence developments in North Korea in a more open direction. But it requires rethinking our current strategy in several areas. During our visit to North Korea we saw different projects that had been supported financially by the EU. Some of them were successful, having created real progress for the North Korean population. But unfortunately a lot of the money given as food aid has ended up in the wrong pockets.

- o So in future relations, any EU financial support to North Korea should be given under conditions of complete transparency. Furthermore the support should be targeted at specific projects that we can monitor. We need to think more in terms of development than poverty. There is poverty in North Korea, but there is not starvation a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Our target must be to develop the North Korean society in order to create general progress - also at political level.
- o During our visit we saw small markets with private trade. It already exists and so it can be strengthened. The last years have seen the growth of a very small middle class of traders, and there is potential for development. But we must be realistic in our goals. We cannot create an open and free society here and now, but we can use our leverage to pull North Korea in the right direction. But any efforts to reach out to North Korea must be followed by firm conditions of political and economic improvements and commitment from their sid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붙임 3. 중국 북극성 전력 원문(2.6)**

중국 북극성 전력 홈페이지

"朝鲜首都平壤今冬面临严重电力短缺"

- o 位要求匿名的驻平壤外交官表示，平壤每天的电力供应几乎都会中断。
- o 这名外交官表示：“大使馆和其他拥有发电机的机构多数时间都得自行发电以应对供电质量差和断电问题，我可以告诉你，电力问题是一个主要讨论话题。”
- o “我们估计，大街和居民区晚间肯定比悼念金正日期间及以前更黑。”
- o 朝鲜长期存在燃料不足问题，且因核计划和导弹测试问题受到外界的强力制裁。

## 붙임 4. 일본 산케이 신문 원문(2.4)

### 일본 산케이 신문

“北朝鮮に食糧 2 万トンの返還要求 米国が支援再開で条件”

- 米政府が北朝鮮に食糧支援を再開する条件として、2009年から北朝鮮に残されたままになっている約2万トン分の支援食糧の返還を求め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米関係筋が4日までに明らかにした。米国が昨年12月に北朝鮮側に提案した食糧支援に関し、具体的な条件が判明するのは初めて。
- 米国は08年5月、北朝鮮に50万トンの食糧支援を表明。しかし北朝鮮が09年3月に支援拒否と要員の国外退去を突然通告したことで、届けられた約2万トン分の食糧が残され、行方が分からなくなった。
- 米側は今回の食糧支援として、ビスケットなどの栄養補助食品を毎月2万トンずつ、計24万トン供与することを提案。同時に前回残された食糧の返還を北朝鮮側に要求し、返還できない場合は相殺する形で、新規供与する食糧を2万トン分減らすとの条件を提示したという。(共同)

## 붙임 5.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원문(2.5)

###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Последние изменения в руководстве КНДР носят весьма ограниченный характер - посол РФ"

-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зачастую тенденциозно подходят к освещению ситуации в КНДР и в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искажают ре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дел, заявил "Интерфаксу" посол России в Пхеньяне Валерий Сухинин.
- К сожалению, освещение этой проблематики в российских, да и в зарубежных СМИ зачастую отличается налетом необоснованной сенсационности и тенденциозностью, искажением действите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ещей, - сказал посол.
- Несмотря на эмоциональное потрясение, вызванное кончиной прежнего лидера, страна живет и работает в нормальном реж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име, готовится к предстоящим юбилеям - 7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Ким Чен Ира (16 февраля) и 1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Ким Ир Сена (15 апреля), - отметил дипломат.

- Он сообщил, что при новом лидере Ким Чен Ыне в руководстве КНДР не произошло серьезных изменений . Должен отметить, что последние изменения в руководстве КНДР носят весьма ограниченный характер, - сказал посол.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필립 윤」(前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선임보좌관), '북한을 방치하면 내년에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2.6 美 'The Hill'誌)
  - '북한은 △미사일 탑재용 핵탄두 개발, △2012년의 韓·美 대선, △군부와 중국에 대담한 지도력을 보여주려는 의도, △대선 이후에도 한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 등으로 내년에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 「칼 거쉬먼」 美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 '북한 대형 장마당 이용자 하루 10만명'이라고 주장(2.7 RFA)
  - \* NED 및 산하 연구소(CIPE)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일체 없음.
  - \* 同人은 2010.9.23 美 하원에서 CIPE 북한 장마당 연구계획 발표
  -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금년 첫 회의 개최(2.8) 예정, △'90일 보고서', △'전문가 패널 보고서' 제출 계획(2.7 RFA)
  - ※ 美 국방부, '북한 내에 6.25 전쟁 중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2.7 VOA)
  - ※ 「사위리스」 이집트 오라스콤 회장, '북한 휴대폰 가입자 2013년초 200만 예상'(2.6 로이터)
  - ※ 2013년 오라스콤의 북한 휴대전화 통신망 라이선스 독점권이 만료 되지만, 2012년말 2차 라이선스 입찰 예정 언급
  - ※ 「힐라이드」 美 국방부 아태담당 대변인, '日 오키나와 美 해병대 한국 배치 관련 한국측과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2.7 RFA)

### □ 중국어권

- '북한의 「여가생활 금지령」에 중국 음향제품 수출길이 막혔다고 보도(2.8 中 음향전문 사이트 '해충영음')
  - '김정일 사망後 북한의 「여가생활 금지령」(禁娛令) 발표로 DVD·홈시어터 등 중국의 각종 음향기기 수입 제한'

## □ 일본어권

- 일본 경찰, 북한에 중고 노트북을 불법수출한 북한 국적의 재일 동포 체포 보도(2.7 마이니치 신문)
  - '2.7일 경시청 공안부는 요코하마항에서 중국 다렌을 경유해 북한에 100대의 중고 노트북을 불법 수출(2009.2.27)한 혐의로 「포플러 테크」 이순기 사장 체포'
    - \* 同人은 同 상품들이 북한에 보내지는 것을 알고 수출했다고 혐의 인정
  - '경찰당국은 수취처인 「다렌 글로벌」이 2009년에 적발된 다른 불법 수출사건에서도 이용되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국책 무역회사와도 관계가 있다고 판단'
  - '한편, 오사카부 경찰도 1월에 700대의 PC를 북한(북한컴퓨터센터)으로 불법수출한 나고야시의 회사 적발'

## □ 러시아어권

- '김정은 집권 첫 달간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려는 징후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평가(2.6 네자비씨마야 신문)
  - '김정은은 군부 엘리트의 충성을 끌어내기 위한 행보와 체제 안정 및 건재를 과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위기 및 식량난이라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외부와의 대화 및 원조를 단절시키는 핵실험과 같은 강력한 대외정치노선은 지양하고, 최소한의 경제균형 및 권력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임.'
  - \* 1월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례로 제시

## 붙임 1. 미국 'The Hill'誌 원문(2.6)

### 美 'The Hill'誌 홈페이지

- o Despite the understandable preoccupation with Iran and the specter of a European economic collapse, we are about to repeat past mistakes by ignoring a rogue state that already possesses nuclear weapons. This failure to be more proactive is likely to end in a different kind of bad news – another nuclear test. Despite our best efforts, we remain woefully in the dark about the internal leadership dynamic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Kim Jong Un.
- o Just as a policy of fostering regime change is not tenable, a seemingly reasonable wait-and-see/status quo approach is also inadequate. It could sow the seeds for yet another nuclear test in 2013, which could lead to engineering advances that allow the totalitarian North to produce smaller (and more) nuclear warheads.
- o First, there is a military imperative. Technically, a follow-on test is the next logical step for North Korea’s plutonium-based nuclear weapons program – the North’s quickest route to a deliverable warhead. The inherent insecurity of North Korea exacerbated by Kim Jong Il’s sudden passing creates a greater incentive for the military to push forward. The first test was driven by the DPRK’s need to prove that it had a viable nuclear deterrent; the partial failure of the first test made the successful second test inevitable.
- o Second, with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olicy inertia will take over in 2012. North Korea is likely to refrain from provocative behavior. Therefore, little will be done to address the North’s nukes. Meanwhile, Kim Jong Un will have had a year to consolidate power, gain greater confidence in his new role and cultivate better ties with Beijing.
- o Third, it is almost certain that North Korea’s high expectations for an ROK policy change in 2013 will not be met. If the ruling party wins, it will continue a hardline policy of no aid to the DPRK. If the opposition party wins, a progressive government will be constrained as to how forward it can be and be arguably a more challenging adversary for the North than the conservatives.

美 'The Hill'誌 홈페이지

- o Fourth, Kim Jong Un will be under great pressure to demonstrate bold leadership, especially to key constituenci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China. In 2012 this could mean a surprise on the political or economic front. If pressed too hard or ignored in 2013, it also could mean an emboldened – or desperate – Kim Jong Un ordering a nuclear test.
- o The only restraint on North Korean action is China. China could probably stop a nuclear test, but to date it has shown no inclination to do so. China did virtually nothing when North Korea conducted its nuclear tests in 2006 and 2009.

## 붙임 2. 중국 '혜충영음' 사이트 원문(2.8)

중국 '혜충영음' 홈페이지

“禁娛令发布 我国出口朝鲜音响类产品受阻”

- o 朝鲜最高领导人金正日于上个月17日逝世，新闻传遍世界各地，并引起了种种猜测与讨论，还对中国音响产品的出口造成一小波影响。
- o 朝鲜是一个相对较为封闭的国家，娱乐设施生产发展较为迟缓，而这也成为了其他国家音响设备等娱乐设施行业争相突破的经营区域。近日，据业内人士称，因朝鲜最高领导人金正日逝世后，朝鲜颁布了“禁娛令”，朝鲜海关对各国进口的音响、碟机、家庭影院等娱乐产品进行了“限制”，明显削减了部分中国音响出口企业的热情，有广州音响企业还透露称：不少中小型企业已经考虑转行，或者谋求其他产品线突围。
- o 至于朝鲜的“禁娛令”何时解封，充满未知数，笔者认为外贸业务重心依托朝鲜的生产企业也需要谨慎重新考虑今年的整体规划

## 붙임 3. 일본 마이니치 신문 원문(2.7)

일본 마이니치 신문 홈페이지

“パソコン不正輸出容疑で会社社長逮捕…警視庁”

- o 中古パソコン不正輸出事件の構図 中国経由で北朝鮮に中古パソコンを不正輸出したとして、警視庁公安部は7日、在日朝鮮人で東京都板橋区中板橋、パソコン販売会社「ポプラテック」（豊島区）社長、李舜奇（リ・ス

일본 마이니치 신문 홈페이지

ンギ) 容疑者 (49) を外為法違反 (無承認輸出) 容疑で逮捕した。輸出には北朝鮮工作機関と関係があるとされる中国の貿易会社が関与しており、公安部は組織的背景の解明を進める。

- 逮捕容疑は09年2月27日、経済産業相の承認を受けずに中古ノート型パソコン100台 (総額86万円相当) を横浜港から中国・大連経由で北朝鮮に輸出したとしている。「北朝鮮に送られると知って輸出した」と容疑を認めているという。
- 公安部は、ノート型パソコンは「ぜいたく品」として経済制裁で北朝鮮への輸出が禁じられているため、平壤のパソコン販売店からの発注を受け、中国を経由させたとみている。李容疑者は荷受け先は大連の貿易会社「大連グローバル」としていた。同社は09年以降に摘発された他の不正輸出事件でも利用され、警察当局は北朝鮮の秘密警察「国家安全保衛部」や国策貿易会社とも関係があるとみている。
- 北朝鮮へのパソコン不正輸出では大阪府警などが1月、約700台を輸出した名古屋市の会社を摘発。金正日 (キム・ジョンイル) 総書記 (当時) が指揮していたIT研究機関「朝鮮コンピューターセンター」に送られたとみられている。

**붙임 4. 러시아 네자비씨마야 신문 원문(2.6)**

러시아 네자비씨마야 신문

"Первый месяц молодого Ким Чен Ына у власти"

- Важность военной темы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КНДР традиционно был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ысокой. Исторически глава КНДР опирался на сильную армию, символизирующу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решим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 страна имеет четвертую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армию в мире: из 27 млн. ее граждан 1,1 млн. находятся в ряда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а еще 7,7 млн. ? в резерве. Поэтому понятно, что окруженный титулованными генералами молодой вождь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сему миру и своим гражданам готовность противостоять внешней угрозе.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этому стали испытания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12 января в районе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аже если теоретически предположить раск

## 러시아 네자비씨마야 신문

ол внутри властной элиты, то во внешний мир уверенно транслируется сигнал о том, что перемен ожидать не стоит, а власть по-прежнему стабильна. Официальные заявления Пхеньяна гласят о неизменности проводимой политики: «Торжественно и уверенно заявляем, что глупые политики по всему миру, включая и марионеточную группировку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 должны ожидать от нас никаких перемен».

-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курса обрекает молодого вождя на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проблем. Главной из них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ется глубо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в котором пребывает страна. Несмотря на принимаемые мер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испытывать нехватку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По данным ООН, минимум **3 млн.**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будут недоедать в **2012** году. Угроза голода заставила Ким Чен Ына обратиться з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мощью к США. Однако Вашингтон ответил отказом, увязав оказани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 возвратом к переговорам 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США уже оказывали продуктовую помощь КНДР, отправив **330 тыс. тонн** зерна в **2008 - 2009** годах, но приостановили план поддержки из-за прекратившихся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 Складывающаяся сегодня внутривластная ситуация в Корее наводит на мысль о нес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жесткой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линии Ким Чен Ына. Поддержание минималь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аланса и сохранение соб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 более важные задачи для нового лидера, чем еще одни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которые точно перекроют возможности мирного диалога и получ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мощи,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так необходима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일본어권

○ 北, 日北 접촉時 북송 일본인 처 일시 귀국 제안(2.8 산케이 신문)

- '송일호가 2011.7월과 2012.1월에 일본인 납치 문제 외에도 요도호 납치범 송환이나 북송 일본인 처의 일시 귀국 재개 문제를 협의할 의사가 있음.'
- '북한이 일본인 처 일시 귀국 등으로 일북관계를 전환시켜 경제 제재 완화로 이어나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일본內 사단법인 「이민정책연구소」에서는 「일본인 처 정주 지원센터」를 금년 1.30일부로 설립

○ 일본 '현대 비즈니스'(주간지), 김정남 관련 기사 게재(2.5 현대비즈니스)

- '북한주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체제 붕괴 나아가서는 중국의 숨겨둔 카드로 김정남이 북한에 복권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김정남의 야망대로 김정은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해 김정남에게 조언을 구할 가능성도 있음.'

### □ 영어권

○ 美 의회조사국(CRS),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 관련 보고서 (2011.12.22) 작성(2.8 RFA)

- '김정은 정권의 내부 취약성이 3차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김정은이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김정은 정권 불안정時 △핵물질 통제 약화, △과시성 무력 도발, △美·韓·中 군사력 북한 배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 및 장기 집권 여부는 엘리트 계층에 금전적·물질적 혜택 지속적 제공 능력에 달려있으며, 이와 관련, 중국을 중심으로 외부자금 확보가 주요 안정화 요소로 작용할 것'



2012.2.9(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김정일 사후 대북 지원 관련 미북간 뉴욕채널에서의 논의는 미국의 대북 협상 및 대화 의향을 나타내는 것임.'

※ 同 보고서(Kim Jong-il's Dea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Stability and U.S. Policy)는 M.Manyin이 작성

## □ 러시아어권

- 한·러 6자수석대표 회담(2.8) 개최(2.8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 '△김정일 사후 한반도 정세, △북핵문제 해법 모색, △6자회담 재개 가능성·시기에 관해 의견 교환'
    - '한반도 전문가들,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로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 노선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예브세예프」 러시아 사회정치연구센터장 및 세계경제·국제관계 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의 무인폭격기 개발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2.8 러시아 글로스 라디오)
    - '북한은 주요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발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성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이 무인폭격기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무인폭격기로 파키스탄 등에 폭격을 가하는 미국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한반도 상황 악화에 대비하는 것임.'
- \* 사회정치연구센터는 러시아 경제, 정치 등을 연구하는 NGO

## □ 중국어권

- 「장웨이」 중국 길림성 여유국 부국장, 남·북·중·러 등 동북아 국제관광벨트 개발 예정 발표(2.8 중국 차이나뉴스 인터넷판)
    - '중국 길림성 훈춘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나선시 등을 지나는 여행이 가능함.'
- \* 2012년에는 남·북·러·중 육해 연결, 크루즈 등의 관광상품 개발 예정

2012.2.9(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이미 2011년 총 29개 여행단체 500여명이 관광을 체험했으며, 2012년부터는 최초로 중국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북한 여행이 가능하도록 허가되었음.’

## 붙임 1. 일본 산케이 신문 원문(2.8)

### 일본 산케이 신문 홈페이지

“よど号などで協議の用意 拉致解決要求けん制か 日朝接触、打開は不透明”

- 北朝鮮の宋日昊・朝日国交正常化交渉担当大使が昨年7月と今年1月、中国東北部で中井洽・元拉致問題担当相と極秘接触した際、日本人拉致問題以外に、日航機「よど号」を乗っ取り北朝鮮に渡った容疑者らの送還問題や日本人妻の一時帰国再開で協議する用意を表明する一方、戦時中に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の遺骨返還を要求したことが8日分かった。日朝関係に詳しい複数の外交筋が明らかにした。
- 北朝鮮側には、今年9月に日朝平壤宣言の署名10年の節目を迎えることにもらみ、拉致問題解決を繰り返し要求する日本の出方をけん制、日本人妻の一時帰国などで足踏み状態にある日朝関係で局面転換を図り、経済制裁の緩和につなげようとする思惑があるとみられる。ただ、拉致問題で北朝鮮の前向きな対応がない限り日本が姿勢を軟化させる可能性は低い。  
(共同)

## 붙임 2. 일본 '현대 비즈니스'誌 원문(2.5)

일본 '현대 비즈니스' 홈페이지

“金正男が語った「正恩への嫉妬」と「野望」  
中国が"隠し玉"として保護する男”

o そして、もしこうした動きが奏効しなかった場合には、冒頭で述べたように、体制崩壊という局面、さらには中国の隠し玉として、正男氏が北朝鮮において復権する可能性も出てくるのだ。

o 実際、五味氏が取材している最中も、中国当局は、常に正男氏の周囲に公安関係者を配置させていた。

「当人も自分の回りに公安関係の人間が張り付いていることは、把握していました。マカオの中華料理屋の個室で食事をしながら、彼は「この店にもいますよ」とニヤニヤしながら言うんですよ」

o 一方で、正男氏の野望通り、正恩氏が経済立て直しのために改革開放政策を採用し、正男氏に助言を求める可能性もある。

### 붙임 3. 미국 CRS 보고서 요약 원문(11.12.22)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o Perhaps most importantly, while almost nothing is known about the younger Kim, it is believed that he has only weak ties to and authority over the Korean People's Army (KPA, as the North Korean military is known), arguably the country's most important center of power. Indeed, some speculate that Kim's presumed domestic weakness could lead North Korea to launch a small-scale military provocation, such as a third nuclear test, in 2012 as a way to bolster his leadership.

o One notable feature of official U.S. and South Korean reactions to Kim Jong-il's death is the extent to which both governments have publicly stated their desire for North Korea to remain stable. Instability in North Korea would pose a number of challenges and possibly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he region. Perhaps the most worrisome are the possibilities that controls over North Korea's nuclear materials might loosen, that a weak leadership in Pyongyang could lash out militarily, and that a power vacuum could suck U.S., South Korean, and Chinese military forces into North Korea.

- o The legitimacy and longevity of Kim Jong-un's reign is likely to be tied to his regime's ability to continue funneling money and gifts to the elite families. Thus, an important factor in North Korea's future is the government's access to outside funds. China is the key external player in this regard. Since 2008, when South Korea began curtailing most of it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China has emerged as North Korea's dominant economic partner, accounting for well over half of its trade and the lion's share of its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ccording to most estimates. Moreover, in late 2009, Beijing began providing more diplomatic support to North Korea, perhaps in an attempt to boost its influence as Kim Jong-il's health waned.
- o One possible sign that the two countries will continue working together occurred shortly after Kim Jong-il's death was announced, when U.S. officials discussed "technical details" of monitoring of the aid with their counterparts at the North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 **붙임 4.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원문(2.8)**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홈페이지

#### "Москва и Сеул обсудят 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Пхеньяна"

- o В Москве нача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по проблемам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Российскую делегацию возглавляет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Игорь Моргулов, южнокорейскую - директор отдела при МИД Южной Кореи Лим Сон Нам.
- o Как сообщается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 заявлении, делегации обсудят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оторая сложилась после смер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Ира.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переговоров станет поиск путей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Еще одной волнующей всех темой станет вопрос о возможности, условиях и сроках возобновления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КНДР.
- o Именно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мнению многих аналитиков, позволили бы определить, какого курса будет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новый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рамках визита ю

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встречи и консультации с российскими экспертами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붙임 5. 러시아 골로스 라디오 원문(2.8)

러시아 골로스 라디오 홈페이지

### "Беспилотники из ящика Пандоры"

- Пхеньян готовит симметричный ответ Сеулу. КНДР, как и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взять на вооружение беспилотники. Возможную войну дронов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овоцируют США, считают эксперты.
- Основных технологий у Пхеньяна нет, поэтому наладить собств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беспилотников КНДР не успела. Им у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штурмовики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местить на побережье Желтого моря у границы с Южной Кореей.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ладимир Евсеев не исключает появления у Пхеньяна этого оружия.
- Очевидна мировая тенденция освоения технологий созда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роблема очень сильно волнует прежде всего те страны, которые ощущают внешние угрозы. В дронах они видят средство обеспечения соб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 что КНДР обратила на них внимание, только подтверждает эту тенденцию.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формально находи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войны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 США.
- Ящик Пандоры для появле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на север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крыли США, считает Владимир Евсеев: Пхеньян к этому подтолкнули американцы. Тем, что давно стали наруш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законы. Их беспилотник, сбитый над Ираном, углубился как минимум на **250** километров в глубь иран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Появление дронов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ни подтолкнули и ударам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о территории Пакистана. Если это можно американцам, то почему нельзя другим? Срабатывает эффект бумеранга, и тен

러시아 글로스 라디오 홈페이지

денция будет только усиливаться". У Пхеньяна нет никаких гарантий, что при обострении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если дел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ойдет до воен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КНДР не станет мишенью самолетов-невидимок.

## 붙임 6. 중국 차이나 뉴스 원문(2.8)

중국 '차이나 뉴스' 홈페이지

"吉林建东北亚国际旅游带 推中俄朝韩日环游线路"

- 中新社长春2月8日电 (贺宝庆 梁娜)吉林省旅游局副局长张炜8日在此间介绍,吉林省将在今年开发大图们江东北亚国际旅游带,打造朝鲜族民族风情游,推动中俄朝韩日环游线路的开展。
- 东北亚区域内的图们江和日本海拥有迷人的自然风光和多元文化,随着区域合作的深入,开发跨境旅游路线、带动区域经济发展一直是各国旅游部门合作的重点,这也被看作区域内国家间经贸合作的突破点。
- 2011年4月,酝酿已久的中俄朝三国环形跨国旅游线路正式推出,游客可以从吉林珲春出发,经俄罗斯海参崴、朝鲜罗先等地,沿途游览海参崴市阿穆尔海湾、海参崴中心广场、太平洋(6.99,-0.02,-0.29%)舰队军港、金角湾不冻港、朝鲜罗先琵琶岛等景区,体验当地风情。
- 张炜介绍说,2011年共有29个旅游团的500多人参与中俄朝三国环形跨国游。在2012年,这个旅游项目的规模将扩大。张炜还说,中国首个跨境赴朝鲜自驾游也将在2012年扩大参与规模。这是朝鲜首次向中国开放自驾游项目,游客可以自驾车从吉林珲春前往朝鲜罗先旅游。
- 据介绍,在2012年,吉林省还将通过中俄旅游年以及中日、中韩间的旅游交流活动,进一步开发东北亚国际旅游带,推进中俄朝韩日陆海联运旅游项目,游客可以乘坐豪华邮轮,环日本海沿岸浏览中俄朝韩日五国。(完)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새뮤얼 라클리어」(美 차기 태평양군 사령관 지명자), 한반도 안정에 대해 우려 표명(2.9 美 상원 인준청문회)
  - '북한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며, 북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순위임.'
  - '최근 북한 리더십 변화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지난 수년간 잠수함정 등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었으며, 특히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운반 수단 확산이 중대한 문제'
- ※ 미군 태평양사령부(PACOM)의 최대 도전과제의 1순위는 북한이며, 3순위가 중국과의 관계로 이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美 군사전문 인터넷사이트 AOL 디펜스)

### □ 일본어권

- 일본 정부 지원과 김정은 지지 관련 조총련內 균열 발생 보도  
(2.10 뉴스 포스트 세븐)
  - '현재 조총련은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보조금 확보를 위해 3대세습 지지를 공식화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조총련 중앙본부는 김정은을 열렬히 지지하는 DVD를 북한에 몰래 보냈으며, 이를 한탄하는 한 간부가 同 자료를 언론에 폭로하였음.'
  - '조총련은 同 폭로 기사를 보고 큰 혼란에 빠졌음.'
- \* 한편, 北 노동당은 김정은이 '재일교포의 자식'이라는 출신 문제로 조총련을 마치 '위협단체'로 보는 새로운 방침을 비밀리에 하달



## □ 중국어권

### ○ 중북 접경 지역에 젠-11B기 대량 배치(2.7 환구망)

- '중국 해방군, 춘절 기간中, 중북 접경 지역인 단둥 주둔 공군 제30사단에 젠(殲)-11B기를 대량 배치하였음.'
- \* 그동안 단둥 주둔 공군 제30사단은 낡고 성능이 떨어지는 젠(殲)-7B, 8B기 위주로 운영
- '이는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의 새로운 중북 관계를 펼치고, 韓·美 군사력에 대응하려는 의도임.'

## □ 러시아어권

### ○ '북한에 연해주 지역 상품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

(2.5 러시아 보스토크 미디어 신문, 2.3 러시아 프리마미디어 신문 )

- 2.1일 블라디보스토크市 행정부 관계자들과 북한측 대외경제 통상대표단(단체명: 금길, 단장: 김명훈)과 회의 개최
- 연해주 지역에서 북한으로 식료품 및 상품 공급 확대방안 모색, 양국 기업과 통상기구간 협력 확대에 관한 의견 교환
- 김명훈 단장은 '조만간 평양에 상업센터가 몇 군데 더 생겨날 예정이고, 하산-나진 철도 복구와 맞물려 러시아 상품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대될 것'이라고 언급
  - \* 북측 대표단은 블라디보스토크 제빵제과 생산기업 블라드 흘렙 및 대형시장을 방문하고, 필요한 상품 품목 및 가격 조사 실시
- 심국룡 駐나호트카 북한 총영사, 김정일 70회 생일맞이 만찬 개최(2.9 러시아 프리마미디어 신문)
  - '△김정일 사후에도 북한 대내정책 변화 없을 것,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 언급
    - \* 만찬시 김정은 관련 비디오 시청, 김정일 회고 사진전 감상, 참석자 전원에게 나호트카 지역에서 러·북간 공동 재배한 김정일花 증정'

2012.2.10(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러시아 아무르州 주지사와 駐나호드카 북한 총영사 회의 개최

(2.3 러시아 로스인베스트 ⇨ 비즈니스 포털사이트)

- \* 회의간 '아무르 지역 목재가공 합작기업 설립문제, 아무르州 건설분야 북한 노동자 150명 투입 활용방안 등 산림부문 협력방안 논의

## 붙임 1. 리클리어 美 태평양군 사령관 지명자 상원 인준 청문회 원문(2.9)

美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 o Senator, I am very much concerned about the stability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s in our best interests to ensure that we maintain a strong deterrent there.
- o I have not had discussions with General Thurman yet, but, if confirmed, I will, to get his immediate assessment. But we've had a, as you know, a transition of leadership there. Day by day, so far, so good. But it's yet to be determined how this will play out in the mid to long term.
- o There has been a shift over the last couple of decades, in my observation, of the North Korean's ability in the military area. We've seen them, through some provocation activity over the last several years, using more asymmetric tactics such as signal submarines and, certainly, their proliferation of delivery vehicles for short-, medium- and, eventually, longer-range ballistic missiles is a great concern.
- o So I am very much concerned, and we should certainly stay vigilant. And if confirmed, I will assure you it will be one of my highest priorities.

## 붙임 2. 일본 뉴스 포스트 세븐 원문(2.10)

일본 뉴스 포스트 세븐 홈페이지-1

“学校の授業料無償・補助金問題に揺れる朝鮮総連で正恩崇拜”

- o 金正日の急死によって息子・正恩の偶像化作業が急ピッチで行なわれている北朝鮮。一方、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は、この動きに一見、静観の構えを見せている。朝鮮総連には朝鮮学校の授業料無償化・補助金問題が横たわり、思想教育をしないことが前提とされているからだ。しかし、北朝鮮事情に詳しい関西大学経済学部教授の李英和氏によれば、

일본 뉴스 포스트 세븐 홈페이지-1

朝鮮總連内部では「正恩崇拜」が声高に謳われているという。李教授が報告する。

- 金正日が急死する1週間前のことだった。昨年12月の上旬、筆者の手元に1枚のDVDが届いた。13分ほどに編集された動画がDVDに収められていた。DVDを再生した瞬間、筆者は驚愕した。朝鮮語の字幕で「總連中央委員会第22期第2次会议」と書いてある。
- その直後に司会者の裴真求（副議長兼事務総局長）が「今から在日本朝鮮人總連合会・中央委員会第22期第2次会议を始めます」と開会を告げる。参加者全員が立ち上がり一斉に拍手を送る。
- 続いて「本中央委員会には、中央委員359名と中央監査委員3名が参加しています」と大会成立が厳かに宣言される。これこそ、筆者が本誌2011年9月14日号で、その存在を指摘した「門外不出」の極秘映像だった。朝鮮總連中央本部は、昨年7月9日に開催した中央委員会の模様をDVD化し、北朝鮮本国へ密かに送付した。朝鮮總連が父子三代権力世襲、つまり金正恩を熱烈に支持する証拠物としてだった。送付先は朝鮮總連を指導・監督する朝鮮労働党傘下の工作機関「対外連絡部」（現・225部）だ。

일본 뉴스 포스트 세븐 홈페이지-2

- この事実を暴露した本誌の筆者記事に、朝鮮總連は大恐慌をきたした。理由は2つあった。ひとつは「金正恩支持」決議が下部組織での討議を経ていなかったから。つまりは中央委員会の独断専行で、組織の動揺や分裂に発展するのを恐れた。もうひとつは、朝鮮学校の抱える問題。当時、文科省と地方自治体による補助金支出をめぐる、朝鮮学校の教育内容と運営実態がやり玉に挙がっていた。その敏感な時期に三代世襲断固支持を表明するのは「自殺行為」に等しいからだった。
- そんな事情から、朝鮮總連は、中央委員会で金正恩支持を決議したものの、その事実と内容を機関紙「朝鮮新報」に掲載すらしなかった。張本人の許宗萬責任副議長は、証拠のDVDが「門外不出」なのをよいことに、口をつぐんだ。
- ところが、許宗萬の独断専行と秘密主義は、朝鮮總連の組織内部に深刻な亀裂を生む。その一端が極秘DVDの流出事件である。今回、朝鮮總連の現状を嘆く某幹部が、北の工作機関に送付されたのと同じDVDを筆者に託した。
- このDVDは總連が組織活動での利用を想定していない。したがって、大会参加者の中央委員も持っていない。映像を日にできるのはごく少数の最高幹部だけ。その分だけ、朝鮮總連の衝撃は大きかった。中央本部の監察委員会（秘密警察組織）は現在も犯人捜しに血眼である。それでも朝鮮總連は

### 일본 뉴스 포스트 세븐 홈페이지-2

表面上、無関心を装う。苦渋に満ちた沈黙には、別の深刻な理由が潜む。朝鮮労働党が唐突に下した「朝鮮総連処分」がそれだ。

- 朝鮮総連は、労働党から「金正恩偶像化を推進せよ」との強い指導で、組織分裂含みの危険を冒してまで、三代世襲支持の決議を急いだ。ところが、そのわずか3か月後、金正日急死で事態が一挙に暗転する。
- 今度は同じ労働党が、朝鮮総連をあたかも「危険団体」と見立てる新方針を密かに下したのである。皮肉にも、その理由は朝鮮総連が掲げた「金正恩断固支持」と密接に関連する。金正恩が「在日朝鮮人の息子」だという出自の問題がそれだ。

## 붙임 3. 중국 환구망 원문(2.7)

### 중국 환구망 홈페이지

“大泄：解放军在中朝边境部署歼11B威慑美韩”

- 2012龙年春节期间，朝鲜金正恩政权刚刚交班，中国军事论坛赫然惊现部署在中朝边境的丹东空30师40719歼-11B机棚猛图，大批歼-11B战机进驻画面，这个信息来得相当突然，威慑意味不言而喻！
- 朝鲜金正恩政权刚刚交班，相当顺利，金正恩正在朝鲜各地视察，从画面上看相当老练，看来当初金正日选择的接班人不错。
- 从官方透露消息来看，这个师相当长的时候内装备比较老，以歼七歼八为主，没有先进的三代战机。并且地理位置靠近中朝边界，面对驻韩美军先进战机的空中优势，从装备上说，这个师没有任何优势。但他们不等不靠，创新战法，利用歼-7E的低空机动性模拟F-16以及阿帕奇武装直升机低空夜袭，用歼-8E/F扮演红军主力战机，歼-8E/F在地面雷达以及陆军YLC-6 机动式低空两坐标警戒雷达的引导下配合红旗-2对模拟低空突袭目标进行联合猎杀，相当有杀伤力！
- 但面对朝鲜半岛上空的劣势美韩空中力量，歼-7E和歼-8E/F的力量还是弱了点，对付F-16还马马虎虎，面对美韩空中重型战斗机F-15，可能就显得力不从心了！而歼-11B天生就是F-15的克星，作战能力11B绝对大胜F-15，不论是机动性还是雷达电子性能11B胜过F-15。随着大批国产化歼-11B的生产，中国主力空军大批换装国产化的歼-11B战机。那么一部分很可能到了丹东空30，以应对美韩空中优势，形成旗鼓相当的空中优势。朝鲜目前拥有的大部分战斗机都来自前苏联或俄罗斯，在引进战斗机和零部件供应等方面，一直与俄罗斯空军保持频繁的交流，与中国在这一方面的交流相对地比较少。
- 也就是说，丹东的空30师，实际上就是为了应对朝鲜可能遭受的美韩空中侵略而

중국 환구망 홈페이지

部署, 进驻或者部署三代机, 那是再正常不过了。从2003年胡总上任以来, 对朝鲜关系处理得相当恰到好处, 金同志也相当义气, 在胡总访朝时动用最大阵仗热烈欢迎。

- 金正日突然去世后, 金正恩政权顺利过度, 这位钦定的接班人果然不负众望, 相当老练持重。可以说, 中朝关系重新进入一个和谐发展的新时期。面对美韩, 中国加强东北空军实力, 进驻歼-11B可以充分打好朝鲜这张战略王牌。

**붙임 4. 러시아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원문<sup>2)</sup>**

러시아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홈페이지

"На прилавках магазино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явятся приморские продукты"

- Сегодня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туризм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Владивостока Владимир Сапрыкин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делегаци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Гымгир" из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Делегацию возглавляет директор управления "Генхын" эт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им Мен Хун.
- По сообщению Ким Мен Хуна, российские товары всегда пользовались в КНДР повышенным спросом, и сегодня интерес к ним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Нынеш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спрос вызван еще и предстоящим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ткрытием в Пхеньяне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больших торговых центров. А ускорению доставки продукции в КНДР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 расширению ассортимента мож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окончание везущейся сегодня реконструкци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магистрали Хасан - Раджин.
- Владимир Сапрыкин пригласил торгов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НДР посетить ряд популяр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ярмарок-выставок,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щих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чтобы более конкретно определиться по ассортименту и ценовому уровню требуемой ими продук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ладивостока могут также оказать необходимое содействие в налаживании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двусторонних

러시아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홈페이지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предприятиями-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и торгов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толицы Приморья с коллегами из КНДР.

- Участники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также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по различным вопросам расшир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сообщили РИА «Восток-Медиа»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ладивостока.

**붙임 5. 러시아 프리마미디어 신문 원문(2.9)**

러시아 프리마미디어 신문 홈페이지

"За 70-летие Ким Чен Ир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или до дна"

-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им Гук Рен провел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рием по случаю 70-летия безвременно почившего лидер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им Чен Ира, которое отмечается 16 февраля. Во время официальной части гостям показали фильм про нового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а, продолжившего дело отца, а на фуршете поднимали бокалы за дружбу двух народов, сообщает корр. РИА PrimaMedia.
- Гости консула стали почетные жители Владивосток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и края,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в олею судьбы оказывались рядом с Ким Чен Иром во время его знаменитых поездок по России.
-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Сим Гук Рен выразил сво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собравшимся, пришедшим отметить юбилей лидер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осле всех поздравлений собравшимс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фильм о жизни нового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сменившего на высоком посту своего отц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этой страны уверили, что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КНДР по всем ключевым вопросам после смерти Вели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Ира не изменится.

러시아 프리마미디어 신문 홈페이지

- "День рождения Ким Чен Ира ? знаменательная дата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и 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ов. У нас есть общая граница, которая не разделяет, а соединяет наши два государства. И дружбе этих народов посвятил свою жизнь человек, чье **70**-летие мы отмечаем сегодня. Примите поздравления от имени всех депутатов Думы Владивостока", - выступил Валерий Розов.
- Прием сопровождался выставкой фотографий и книг, посвященных жизни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Ира. Также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экспозиция из цветов "кимченирхва", выращенных совместно с цветоводами Находки. Эти цветы дипломаты в завершении подарили пришедшим на прием гостям.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마이클 그린」(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미·북 대화 및 6자회담 언급(2.10 CSIS 홈페이지 동영상 12 별도 불임 없음)
  - 中 시진핑 부주석의 방미시 '오바마 대통령 및 클린턴 국무장관과 면담시 미·북 대화를 짧게 언급하거나 내용이 매우 실망스러울 것'
  - '시진핑 부주석이 6자회담과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

### □ 일본어권

- 1998년 북한 우라늄 농축 착수(2.11 마이니치 신문)
  - 북한이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로 인해 플루토늄 핵개발을 중단한 뒤 1997년 그 대가로 경수로 건설 착수
  - 북한은 알려진 것보다 2년 빠른 1998년부터 비밀리에 우라늄 개발 착수
  - 1998.4 북한에서 시험제작한 6불화우라늄(UF6)을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보내 성분 분석 의뢰
  - 분석 결과 정밀도가 나빠 품질 향상을 위해 파키스탄측이 자국산 UF6와 열화우라늄가스 등을 북한측에 제공
  - 2003.12 리비아에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UF6가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IAEA 사찰단이 약 1.7t의 UF6가 담긴 실린더 총 3개 발견
  - IAEA측 조사결과, 3개 모두 북한에서 파키스탄, 두바이를 경유해 리비아로 건너갔으며, 리비아가 UF6을 손에 넣은 다음해 마카오 등의 북한 보유 은행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됨.

□ 중국어권

- 中 기상국, 북한에 CMACast 위성데이터 수신장비 설치 및 교육  
(2.13 中 기상국 홈페이지)
- 1.31-2.7 중국 기상국, 북에 CMACast 위성데이터 수신장비 설치 및 교육 진행
- 북한 기술자들과 교류 및 시스템 교체, 관련문서 체결
  - \* CMACast 집적시스템은 △CMACast 수신시스템 △기상정보 종합 분석 처리 시스템(MICAP) △위성 구름 사진 시스템 등을 포함

□ 러시아어권

- 러, 김일성 생일맞이 북한지역 관광 상품에 대한 관심 고조  
(2.13 프리마 미디어 신문)
- 러시아 전역에서 김일성 100회 생일맞이 관광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세르게이 알렉세예프」(프레가트 아에로 관광사 대표),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어권 전역에서 문의전화가 오며, 5~7개 그룹 방북 예상'
- '과거에는 북한 내부적으로 관광객을 경계하는 분위기였던 반면, 최근 들어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 러시아의 프레가트 아에로 관광사(블라디보스토크 소재)는 2월까지 관광신청을 마감하고, 첫 번째 관광그룹을 4.9일경 방북할 예정임.
- 러, 연해주 지역 탈북자 증가 관련 보도(2.11 보스토크 미디어 신문)
- 연해주 지역 탈북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범죄 발생 및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상존
- 최근 3년 동안 연해주 지역에서 제 3세계로 넘어간 탈북자 수는 20명
-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4만명) 중 1만명이 탈북자 신분이고, 이중 3천명 이상의 인원이 난민지위 신청 대기 중

2012.2.13(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비정부기구 및 정부기구가 탈북자를 지원·보호하고 있지만  
잣대가 일관성이 없음.

## 붙임 1. 일본 마이니치 신문 원문(2.11)

### 일본 마이니치 신문 홈페이지

“98年ウラン濃縮に着手 軽水炉着工の翌年”

- 北朝鮮が米朝枠組み合意(94年)でプルトニウムの核開発を凍結し、見返りの軽水炉原発の建設が始まった翌年の98年、新たにウラン濃縮による核開発に着手していたことが10日、毎日新聞の取材でわかった。米当局は北朝鮮が2000年にウラン濃縮による核開発を始めたと判断していたが、実際にはその2年前の段階で秘密裏にウラン濃縮プロセスに着手していた。北朝鮮は核開発凍結の枠組み合意に反する形で、原料となる六フッ化ウラン(UF6)の製造をパキスタンの協力で進めており、核保有に強く固執していた北朝鮮側の実態が浮かび上がった。
- 北朝鮮は80年代から寧辺(ニョンビョン)の核施設に原子炉などを建設、使用済み核燃料を再処理し、抽出したプルトニウムを使った核兵器製造を目指した。しかし、米国と交渉の結果、94年10月に軽水炉2基の供与と引き換えに核開発を凍結する枠組み合意を締結。プルトニウムを含むすべての核開発活動を停止させ、97年8月には咸鏡南道(ハムギョンナムド)琴湖(クムホ)で軽水炉の建設が始まった。その後、北朝鮮は秘密裏にウラン濃縮による核開発を模索した。
- 国際原子力機関(IAEA)の核査察活動に詳しい複数の外交筋や核専門家によると、北朝鮮当局は、ミサイル輸出で関係を築いたパキスタンの「原爆の父」と呼ばれるカーン博士と接触して90年代半ばにウラン濃縮用の遠心分離機などを入手。98年4月には、試作したUF6をカーン博士に送り、成分分析を依頼した。だが、この時点では精度が悪く、品質向上のためパキスタン側が自国製のUF6、劣化ウランガスなどを送り返した。
- 北朝鮮産と見られるUF6が初めて確認されたのはイラク戦争開戦後の2003年12月。場所は、核兵器開発断念を受け入れたリビアだった。IAEAの核査察団が、約1.7トンのUF6が詰まった大小のシリンダー計3本を見つけた。大シリンダー(直径76センチ、長さ2.1メートル)には1.6トン、小シリンダー(直径13センチ、長さ91センチ)の1本には、25キロのUF6が詰まっており、もう1本の小シリンダーには、濃縮には使えない劣化ウランガス25キロが入っていた。カーン博士が率いる「核の闇市場」は、97年にリビアと20トンのUF6売却で合意していたことも判明。いずれのシリンダーにも、パキスタン製を示す製造番号があった。

일본 마이니치 신문 홈페이지

- 大シリンダーに詰められたUF6が核物質に関する世界中のデータと照合しても合致せず、IAEAが生産地を突き止める調査を開始。その結果、  
(1) カーン博士が北朝鮮からUF6の成分分析の依頼を受けた (2) 3本のシリンダーともパキスタンから北朝鮮に輸出されたが、大シリンダーの中身は空のまま輸出された (3) いずれのシリンダーも北朝鮮からパキスタン、ドバイ経由でリビアに渡った (4) リビアがUF6を受け取った翌年にマカオなどの北朝鮮保有の銀行口座にリビアから多額の金銭が振り込まれた— ことなどが判明した。
- これを受け、IAEAは昨年9月の北朝鮮報告書で、大シリンダー内のUF6は「北朝鮮産である可能性が極めて高い」と指摘、北朝鮮が「核の闇市場」に代わり、UF6をリビアに供給した可能性を明らかにした。

**붙임 2. 중국 기상국 홈페이지 원문(2.13)**

中 기상국 홈페이지

“我国气象科技人员赴朝完成卫星广播接收站安装”

- 根据中国气象局卫星广播系统接收站(CMACast)国外站安装工作安排, 1月31至2月7日, 中国气象局国家气象信息中心和华信公司技术人员组成朝鲜站安装小组, 赴朝鲜进行了CMACast集成系统的安装和培训。CMACast集成系统包括有CMACast接收系统、气象信息综合分析处理系统(MICAPS)以及风云气象卫星云图快速显示系统。
- 安装小组成员于1月31日赶赴朝鲜进行安装任务, 在朝方技术人员的大力配合下, 安装小组完成了CMACast接收站室外射频及天线部分的安装及调试, 室内接收服务器硬件及软件环境部署, 完成了CMACast接收站、MICAPS及风云气象卫星云图快显的联调, 并对朝方技术人员进行了CMACast接收系统、MICAPS以及风云气象卫星云图快显系统操作使用的现场培训。

### 붙임 3. 러시아 프리마 미디어 신문(2.13)

#### 러시아 프리마 미디어 신문 홈페이지

"Поездкой в КНДР у приморских турфирм интересуются даже туристы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

- Продажа туро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Людей прельщ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апрельских событий, когда страна будет праздновать 100-летие Ким Ир Сена. Причем наибольший интерес проявляют не столько приморцы, сколько жители запад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РИА PrimaMedia.
- Среди наших пока изъявило желание 2-3 человека, а вот из западных регионов звонков много. Звонят даже из Украины, - рассказывает директор туркомпании "Фрегат Аэро" Сергей Алексеев. - Ес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тправили 2-3 группы, то сейчас разговор идет о 5-7 группах.
-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иморской турфирмы пояснил, что партнером на этом маршруте явл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мпания КНДР по туризму. И за все время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ни разу не было недопонимания или претензии.
- Случалось, что требовалос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писать новых туристов в группу. А это порой влекло изменение по аренде транспорта, оформление новы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бронированию гостиниц, но никогда не высказывалось какого-то недовольства или возмущ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йских партнеров. Если раньше в КНДР весьма настороженно относились к туристам, то сейчас о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араются привлечь туристов.

## 붙임 4. 러시아 보스토크 미디어 신문(211)

러시아 보스토크 미디어 신문 홈페이지

"Приморье превращается в шпионскую перевалочную базу?"

- Поток едущих в Приморье гастарбайтеров временами пестрит мигрантами и иного рода. Это беглецы-беженцы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частую пользующиеся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м иностранных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кстат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тоже) организации. Именно их «усилиями» в сложный меж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ы чьих будете?» активно вовлекаются третьи страны, в частности Китай и Россия. По информации «М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более **20** беженцев из КНДР успешно уехали из Приморья в страны «свободного мира». Вопрос: кто они?
- кто сможет нелегально пересечь две госграницы без документов и виз?
- Общество поддержки беженцев из КНДР утверждает: в России находится **40 000** рабочих из КНДР. Причем **10 000** уже сбегали со строек и лесозаготовок, а более **3000** из них ожидают статус беглеца для эмиграции.
- Число беглецов растет: тысячи корейцев работают на объектах саммита, другие едут «тянуть» газопровод и нефтепровод. Беглецы не безобидны, часто отчаянно сопротивляются при попытке задержания. Другие интересуются оборонными секретами России в Приморье. Третьи с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вступают на тропу криминала. и лесозаготовок, а более **3000** из них ожидают статус беглеца для эмиграции.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아무르주와 북한간 협력 착수(2.13 보스토크 미디어 신문)

- '11년 김정일과 「올렉 코제야코」(아무르주 주지사)간 회담에 이어 양측간 경제협력 방안 협의를 위해 북측 대표단 방러(2.13~15 추정)
  - \* 러시아측 : 대외경제, 관광·비즈니스, 경제발전, 산업·교통, 농업, 산림 담당 부처의 관계자
  - \* 북한측 :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국제교역지원위원회 대표(진철호), 대외통상담당 부처·기업소·무역회사 관계자
- 향후 농업부문 △2013년부터 최대 1,000ha 규모 농지에 곡물(콩, 감자, 야채 등) 생산, △북한 노동자 40명 투입예정
- 축산업 부문 △2012년 1,500평방미터 규모 대지에 염소농장 건설, △2013년부터 염소 350마리, △2016년 2,000마리 가축사육 예정
- 산림부문 △올 봄 러시아 산림조성에 북한 노동자 50명 투입, △목재가공합영기업 설립, △북한 노동자 전문교육센터 조성 검토
- 기타 △아무르주 곡물생산기업 대북 밀 공급방안, △김정일 아무르주 방문 1주년 기념 북한레스토랑 개업 논의

### □ 중국어권

○ 中 시진핑 부주석 방미, 亞太지역은 양국의 이익 교차점

(2.14 中 화상보 ⇨ 중국 지역신문사)

- 이번 방미의 이슈 가운데 하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의견 교환이며, 양국의 이익이 충돌하므로 협력 또한 중요
- 방미시 △유럽 채권 위기, △북한 정세, △이란, 시리아 등 지역 이슈 등도 논의할 예정'



- 이에 분석가들은 '양국이 국가 對 국가가 아닌 세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北, 안정적으로 경제·사회 위기 극복할 듯(2.1 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의 북한의 미래가 절대 암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며, 북한 경제도 완만한 성장 예상
  - 북한은 생산력 저하와 공급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규제 완화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해결이 관건
  - 북한은 농업국이 아니므로 체제가 안착될 경우 경제 발전 가능,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지만, △공공의료, △교육 무상지원, △주택공급 등으로 어느 정도 상충 가능
  - 정보 제한으로 한 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할 때, 북한 사회의 안정화 가능성이 있고, 서방세력이 바라는 북한 정권 붕괴는 이상주의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될 것

## □ 영어권

- 「빅터 차1)」(美 조지타운대 정치학 교수), '2.23일 예정된 미·북 3차 고위급 대화에서 대해 부정적 전망'(2.13 월스트리트저널)
  - '북핵 문제와 관련한 특별한 진전은 있을 것으로 상상하기 힘들며, 미·북은 미국의 식량지원 재개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 일본어권

- 미·북 3차 고위급 대화 2.23일 베이징 개최 보도(2.14 NHK뉴스)
  - 美 데이비스 대북 특별대표는 2.25일 서울, 2.26일 일본을 방문해 북한과의 협의 결과를 한·일 정부측에 설명할 예정

1) 부시 행정부 시절(2004-2007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대북 전문가

## 붙임 1. 러시아 보스토크 미디어 신문 (2.13)

### 러시아 보스토크 미디어 신문 홈페이지

#### "КНДР и Приамурье начал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Это первый визит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рамках переговоров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ачаты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ом Приамурья Олегом Кожемяко и главой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им Чен Иром.
- Так,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овместно с ГУП «Агро» планируется в Завитинском районе на площади до 1000 га с 2013 года выращивать сою, картофель и овощи с привлечением 40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озих ферм общей площадью 1500 кв. м в Ромненском районе, сдача которого запланирована к концу 2012 года. В 2013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сти 350 коз, а через 3 года увеличить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до 2000 животных, 550 из которых будут дойными.
-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едлага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 рамках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оз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руда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на посадках лесных культур весной этого года.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ая потребность в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составляет 50 человек. Также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создания совместно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древесины.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создание обучающего центра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е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 붙임 2. 중국 화상보 홈페이지 원문[2.14]

中 화상보 홈페이지

### “太平洋两岸足够容纳中美两国”

- 国家副主席习近平昨日赴美访问。访问期间，习近平将会见美国总统奥巴马，与副总统拜登举行会谈，并会见国务卿希拉里克林顿和国防部长帕内塔，就中美关系和共同关心的国际问题充分交换意见；还将会见美国国会参众两院的领导层和美国前政要，并广泛接触美国各界人士。

关于亚太关系：别刻意强化军事同盟

- 习近平表示，亚太地区是中美利益交汇最集中的地区。当前亚太国家最关心的是保持经济繁荣、维护经济增长和区域合作势头。人为地突出军事安全议程，刻意加强军事部署、强化军事同盟，恐怕并不是本地区绝大多数国家希望看到的。他指出，宽广的太平洋两岸有足够空间容纳中美两个大国。

亚太问题构建战略互信

- 近年来，美国开始“重返亚太”。政治上，全面参与东亚现有的国际合作机制；经济上，旨在建立一个以美国为中心的泛太平洋经济合作圈TPP；军事上，全面提升与日韩和澳大利亚的盟友关系，密集在亚太地区参与军演。
- 对于美国战略调整背景下，习近平副主席此次访美的意义，分析人士表示，亚太地区是中美两国利益交汇的主要地区，应该也是中美两国合作的主要地区，由于利益交汇，所以就可能在一些问题上产生分歧和矛盾，习近平副主席的此访对于两国通过对话交流而逐步构建战略互信将是一个重要的机会。
- 商讨叙利亚等国际热点话题

外界普遍分析，伴随着习近平访美而来的中美高层对话中，针对近段时间出现变化的欧债危机、朝鲜局势、伊核问题和叙利亚局势等国际和地区热点话题，也将会摆在两国领导人会谈的桌上。

## 붙임 3.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학술논문[2.1]

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홈페이지

### “朝鲜平稳过渡的经济社会基础”

- 金正日委员长逝世，引发外界对朝鲜政治、经济、社会 and 外交走向的高度关注。他能否有效地团结和依靠朝鲜党政军各界高层，实现国家政治经济社会生活的平稳过渡，开创朝鲜历史的新篇章，事关朝鲜全体人民福祉和东北亚安全与稳定。其实，冷静观察分析朝鲜最近经济社会发展状况，朝鲜的未来前景或许不像人们臆想的那么灰暗和悲观。

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홈페이지

- o 一是电力短缺状况明显缓解。电力短缺长期是制约朝经济发展的主要瓶颈。过去，甚至首都平壤都经常遭遇大面积停电的困扰。如今，平壤已基本能保障昼夜供电，即使深夜凌晨也仍可见街道和居民区楼道灯光如常，重点区域景点甚至霓虹灯持续闪烁。虽然边远城市和农村地区仍然供电不足，但收获农忙季节已能24小时保障供电。  
二是农业抗灾保收能力有所提高。2011年朝鲜开始大兴水利设施，其实是在为供电不足问题缓解后的水利发展预做准备。  
三是现代工业基础设施建设扎实推进。
- o 当前朝鲜经济面临内部体制和外部制裁两大制约。总体上看，当前朝鲜经济仍然处于困难时期。主要表现是，物资生产与供应不足，举国上下仍实行计划经济体制，经济活力不足，包括粮食、蔬菜、肉类等在内的物资供应则实行统购配给制。外部的主要障碍是经济制裁使朝鲜急切期待的大额外部投资难以注入，开发区建设利用进展缓慢。如何摆脱外部经济金融制裁是朝鲜外交面临的重要而紧迫的课题。
- o 朝鲜未来经济发展可能呈现隆起型而非缓慢起步态势。一个容易却不容忽视的事实是，朝鲜并非一个农业国，其农业人口只占全国总人口的30%多。这也意味着，外部世界尤其美韩长期以来奉行的那种利用朝鲜经济困难要挟朝鲜的做法可能越来越行不通。
- o 但在当下朝鲜，虽然也存在某些高层特权，但近乎平均主义的分配制度使绝大多数人都面临同样的境遇。而且，朝鲜迄今仍然实行公费医疗、全民免费教育和国家提供住房。虽然公费医疗水平有限，但全民义务教育却实实在在。大学招生择优录取，高中毕业参军入伍者退伍后可免试就读大学。根据现代系统论与控制论的原理，对一个系统实施有效控制是通过信息控制实现的。在整个社会的价值观与意识流趋同的情况下，这个社会就会形成独特的稳定运行机制。西方国家一厢情愿地期待朝鲜内部分化与政权崩溃，恐怕要犯理想主义的幼稚病。

**붙임 4. 美 월스트리트저널 원문 (2.13)**

美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US. to Meet With North Korean Envoys"**

- o "It's very hard to know what to expect from these talks," said Victor Cha, who helped oversee North Korea policy in George W. Bush's second term. "It's hard to imagine anything seriously happening on the nuclear issue."
- o In addition to the nuclear question, Pyongyang and Washington have been discussing the potential resumption of American food aid to the isolated Asian country.

## 붙임 5. 일본 NHK뉴스 원문 (2.14)

### 일본 NHK뉴스 홈페이지

#### “核問題の米朝協議 23日開催”

- アメリカ政府は、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が死去して以来初めて、核問題を巡る北朝鮮との直接協議を23日に北京で行うと発表しました。アメリカとしては、ジョンウン氏が後継者となった北朝鮮が、非核化に取り組む意思があるのかどうかを見極めたい考えです。
- アメリカ国務省のヌーランド報道官は13日、アメリカ政府で北朝鮮問題を担当するデイビース特別代表が、23日、中国の北京で北朝鮮のキム・ケグアン第1外務次官と核問題を巡る直接協議を行うと発表しました。
- 核問題を巡る米朝の直接協議は、去年10月にジュネーブで開催されて以来4か月ぶりで、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死去したあとでは初めてとなります。今回の協議のねらいについてヌーランド報道官は「北朝鮮が核問題を巡る6か国協議の過去の合意に基づいて非核化に取り組む意思があるのかどうか見極めるためだ」と説明しました。デイビース特別代表は、25日にソウル、翌26日には東京を訪れ、北朝鮮との協議の結果を日韓両政府にそれぞれ説明する見通しです。
- アメリカ政府は、3年以上開かれていない6か国協議の再開に向けて、ジョンウン氏を中心とする新体制がウラン濃縮の即時停止などに応じるのかどうかを慎重に探るものとみられます。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중국어권

○ 北, 대내·외 문제로 주민 충성도 하락, 김정은 체제에 악영향

(2.14 中 서북망 ⇨ 군사전문 포털사이트)

- '김정은 체제 이후, 대내·외적 문제로 체제 불안정성이 드러남.'
- 대내적으로 '서해 결빙에 따른 외화획득 차질 초래는 김정은의 위기 대응 능력의 시험대이며,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주민 불만과 함께 세습 사회주의 체제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
- 대외적으로 '북한내 쿠데타說, 김정은 암살說 등은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소문들은 정권 불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현재 어떠한 나라도 북한 정권에 개입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국만이 유일하게 북한에 영향력 있는 목소리 낼 수 있는 상황
- 대내·외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세습제를 통한 권력이양은 쿠데타 발생 및 주체사상의 와해를 막기 위한 방식

○ 北,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 개발 박차(2.14 中 신화사)

- '지난 몇 년 간, 주민 생활 개선위해 경공업 집중 투자로 주민 생필품의 생산량 증가 및 품질 향상이 이뤄짐.'

\*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 2.8 비닐론공장 현대화, 제3회 평양 제1 백화점 상품박람회, 동부지역 첨단기술 어류 양식 종합연구소 건설, 대동강 果木종합농장 및 고산果木농장 확충, 전국 각지 비닐하우스 재배 열풍 등 사례 제시

○ 美·北 대화, 6자회담 재개 서막

(2.14 홍콩 봉황위성 TV "정점뉴스", 정하오 박사 대담 ⇨ 국제문제 전문가)

- '2.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북 고위급 대화는 김정은 체제 後 북한 정세의 안정적인 안착과 6자회담 재개의 서막을 의미'
- '이번 대화로 미·북間 정책 조정은 지역 평화와 북미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북한의 어떠한 변화사항이나 그

2012.2.15(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들의 요구 및 의견을 알 수 있기에 향후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임.'

## □ 러시아어권

### ○ 「김영재」 駐러 북한대사, 키리졸브 연습 비난

(2.14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 2.14 러시아 하원에서 「김영재」 駐러 북한대사와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자유민주당 대표)간 회담
  - 북한측은 '키리졸브 연습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김정일 정권 당시 추진사업의 지속 이행' 언급
  - 러시아측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고, 김정은 방러 제안과 대북지원 의사를 밝히고, 자유민주당 대표단 여름 방북 예정' 보도
- \* 자유민주당(LDPR): 극우 보수 민족주의, 포퓰리즘, 반서구 성향의 러시아 3대 정당 중 하나

## □ 일본어권

### ○ 2.14 일·러 6자회담 수석대표 모스크바에서 회담(2.15 지지통신)

- '日 스기야마 아시아대양주국장, 러 마르쿨로프 외무차관이 김정일 사후 북한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 러측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2.23 예정된 미·북 3차 대화 관련 일·러간 협력 합의
- ### ○ 김일성, 김정은을 손자로 미인정(2.15 산케이 신문)

- '김일성은 고영희가 재일교포 출신과 기쁨조였던 이유로 김정은·김정철을 정식 손자로 인정하지 않고, 김정남을 후계자로 간주'
- '고경택(고영희 父)은 일본군 협력자로 불리는 군수공장 노동자로 밀항선을 운영·체포되어 강제적으로 북송됨.'
- '이러한 출신 배경은 김정은 모자 우상화에 타격이 될 전망이며, 김정일 사망 후 고영희 출신 성분을 국가 기밀로 지정'

□ 영어권

- 美 국무부, 2012년에 이어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대북 경제 지원금 전액 삭감(2.14 VOA ㉠ 원문 미게시)
  - \*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50만달러와 250만달러를 책정,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했음.



## 붙임 1. 중국 서육망 홈페이지 [2.14]

### 中 서육망 홈페이지

#### “朝鲜内外夹击 百姓忠诚度欠缺打击金正恩体制”

- 在外界眼中充满神秘的朝鲜，在金正恩接任以来，逐渐出现了重大的问题。近期除了朝鲜国内出现反体制事件外，近一个多月来，朝鲜黄海海域持续遭逢寒流侵袭，导致大片海域结成冰，进而影响国内人民的反体制声浪。在国际上，网络不断传出关于朝鲜兵变的事情、金正恩政权已落入执政精英掌控，甚至有谣言指出金正恩在北京遭到暗杀的消息。不论事情是真是假，都显示出目前朝鲜的政权仍然充满着不稳定性。
- 台湾今日新闻网报道，朝鲜国内的局势不如金正日在位时来得安稳。据《朝鲜日报》报道，去年9月，朝鲜出现了“世袭对社会主义的背叛”、“打倒金正恩”的反对朝鲜政权声浪。在去年年底更由于货币改革的失败，出现人民对政权不满的风声。而在近一个月也来，黄河海域不断受到寒流的侵袭，也正考验着金正恩的应变能力。由于渔业、海运为朝鲜主要的合法外汇来源，外界预料如果寒害加剧，不仅会影响朝鲜经济，还会给朝鲜领导人金正恩体制，带来沉重打击。
- 不过根据韩国新世界党议员尹相现的说法，“近来，朝鲜内部反体制事件仍在继续。这表明金正恩在权力阶层内部树立的威信还算稳固，但普通百姓的忠诚度还很欠缺。”这也说明了为何在金正日过世后不久，金正恩随即不断的往前线视察部队的举动。此举说明了金正恩迫切的想向人民展示军队的忠诚度，使得刚接管的政权不至于受到极大的动摇。
- 在国际局势而言，各国都难以介入或是干预到朝鲜的政权，目前真正能够发挥影响力的国家，只有中国。中国与朝鲜的关系密切，除了平时的领导人关系密切外，政府人员也经常交流，难想象朝鲜的领导人会在中国的领土上遭到攻击。因此，对于网络上谣传金正恩在北京遭暗杀的消息，并不值得相信。
- 而对于朝鲜的局势发展，不论内部是否出现反体制的声音，世袭制的更迭方式，就是为了不影响或是推翻朝鲜的政治方针，更是为了避免主体思想的制度垮台

## 붙임 2. 중국 신화사 뉴스[2.14]

### 中 신화사 뉴스

#### “朝鲜致力经济建设提高人民生活水平”

- 近些年来, 在朝鲜党和政府的领导下, 朝鲜人民根据自身情况, 通过多种手段和渠道推动经济建设, 在大型重点工程建设、厂矿企业现代化改造以及人民生活消费品生产方面取得了很多成就。熙川发电站是朝鲜近年来的几项大型重点工程之一。
- 此外, 朝鲜二八维尼纶联合企业完善了现代化生产工序, 保证大量生产优质的维尼纶; 兴南肥料联合企业在短期内胜利完成煤制气一期工程, 实现了肥料工业的主体化
- 近年来, 朝鲜将越来越多的力量放到了提高人民生活水平上, 集中力量发展轻工业, 新建了很多高水平的轻工业生产基地, 人民消费品在数量和质量上都有很大提高。第三届平壤第一百货商店商品展2月3日拉开帷幕。  
在朝鲜最高领导人的直接关心和推动下, 朝鲜为增进人民福利采取了一系列措施, 各地纷纷建立起综合食品加工厂。相关部门在养鱼业上运用尖端科学技术, 确立了现代化的大规模鲟鱼养殖体系。东部地区还修建了集高级鱼类研究、饲养和加工于一体的综合性养鱼研究所。
- 此外, 朝鲜重视果树业发展, 改扩建的大同江果木综合农场和高山果木农场新开辟了大规模果树林。目前朝鲜各地掀起了建设温室大棚的热潮, 全国有千余个蔬菜温室大棚在建或已建成。平壤市中心的万寿台地区是朝鲜的心脏地区, 这里有金日成主席的铜像。朝鲜去年开始对万寿台地区进行现代化改造, 计划在今年上半年建成高水平、现代化的城市中心区。目前, 该地区建设已经接近完工, 现代化住宅大楼和纪念碑式建筑物已展现雄姿。
- 平壤市内各种食品供应和商业服务设施也不断涌现, 普通门大街肉类水产商店的柜台放满了鲜鱼和冷冻鱼、各种肉和肉加工品。光复地区商业中心于今年初落成开业, 这里呈现大型购物中心的面貌, 顾客可以按照自己的喜好和要求选购各种商品。此外, 平壤市内的绫罗岛上正在修建游乐园, 在东平壤大同江畔正在建设现代化的综合服务设施和露天滑冰场。

## 붙임 3.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2.14)

### 홍콩 봉황위성TV 대담 스크립트

#### “忽略’对朝鲜有效让制裁飞一会儿”

- 郑浩：那么朝鲜国内的局势总体来讲是稳定的, 虽然透露出来的消息并不多, 但

홍콩 봉황위성TV 대담 스크립트

是通过一些有限的报道我们看到至少在朝鲜境内没有一些重大的变化。在这种情况下美国和朝鲜方面都有意要重启第三次的朝美的会晤，这是一次非常好的迹象，也为六方会谈的重启拉开了一个序幕。

- o 那么这样的话在朝鲜方面根据它以往的一些策略重新启动有关六方会谈，或者重新启动美朝的双边对话恐怕对缓解它的国内的紧张局势有一定的好处，刚才你提到一点非常重要，就是这是不是说明朝美之间有意在金正恩时代之后来重新评估双边的政策，的确是这样。我个人认为也是这样。
- o 在这种情况下，调整一下对朝鲜的政策，特别是调整一下美朝之间的双边政策，恐怕对未来无论是对地区的和平稳定，还是朝美之间的双边关系都会带来一定的好处。那么在这种情况下微调一下来试探一下，平壤方面对未来有哪些新的一些看法，有哪些新的一些意见，美国方面都是愿意来听取的，那么在听取之后特别是这次很有意思，23号是在北京举行，如果说在北京举行的话，当然美国方面有可能还和中国的外交部进行及时的沟通，也有可能和韩国的驻北京的大使也是及时的沟通。这样的话就使得其他的六方会谈的其他国家，也可以在第一时间得知到朝鲜的意向，了解到朝鲜的要求，那么这样的话对于未来时局的开启、重启六方会谈恐怕有一些好处。

**붙임 4.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2.14)**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КНДР считает учения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угроз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 o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НДР) в России Ким Ен Дже выразил озабоченность в связи с проведением масштабных уче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отметил, что это может создать угрозу безопасности как на полуострове, так 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o Во вторник лидер ЛДПР Владимир Жириновский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послом в Госдуме.
- o Что касается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ак известно, США вместе с Южной Кореей опять запланировали проведение масштабных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Поэтому с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итуация остается по-прежнему весьма напряженной. Мы считаем, что эти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маневры являются явной угроз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казал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КНДР.

- В свою очередь лидер ЛДПР выразил пожелание укреп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КНДР и высказа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нов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страна добьется новых успехов.

## 붙임 5. 일본 지지통신 원문 (2.15)

일본 지지통신 홈페이지

"日ロ首席代表が会談=6カ国協議"

- 北朝鮮核問題をめぐる6カ国協議首席代表を務める杉山晋輔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長は14日、モスクワで、新しいロシア首席代表のモルグロフ外務次官と会談し、昨年12月の金正日総書記死去後の北朝鮮情勢や同協議の再開問題などについて意見交換した。
- 杉山局長が記者団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会談では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にも言及。モルグロフ次官は日本勤務時代に拉致被害者家族と面会したことがあり、杉山局長が問題解決への日本の立場に理解を求めると、次官は「重要性は承知している」と応じたという。
- 23日に予定されている米朝協議については、北朝鮮が新たな指導者の下、権力が移行している時期に対話路線が進むよう、日ロ間でも協力してゆくことで一致した。

## 붙임 6. 일본 산케이 신문 원문 (2.15)

일본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高英姬の真実 「喜び組」出身の側室 金日成主席は正恩氏を孫と認めず”

- 北朝鮮の新指導者、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氏の母、高英姫（コヨンヒ）氏（2004年死亡）が在日朝鮮人出身であるだけでなく、後に「喜

## 일본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び組」と呼ばれる接待役だった経歴などから、祖父の金日成（イルソン）主席が生前、正恩氏を正式な孫と認めていなかったことが14日、関係者などの証言により分かった。父は日本軍への協力者といえる軍需工場労働者で、密航船を運営し逮捕され、やむなく北朝鮮に渡ったことも判明。“負の出自”は、16日の金正日（ジョンイル）総書記生誕70周年を境に加速しそうな正恩母子の偶像化に打撃となりそうだ。（桜井紀雄）

- 高英姫氏は、格闘家の高太文（テムン）氏の娘という説が広く信じられてきた。しかし、北朝鮮の民主化に取り組むNPO「救え！北朝鮮の民衆／緊急行動ネットワーク」（RENK）が北朝鮮内部や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関係者らから得た証言と、在日朝鮮人の帰国者名簿など複数の記録から、父親は韓国・済州（チェジュ）島出身の高京沢（ギョンテク）氏だと裏付けられた。
- 太文氏の娘と高英姫氏の帰国時期や年齢、「万寿台（マンスデ）芸術団」で活動した経歴が似ていたため、誤解が生じていたが、韓国の情報機関、国家情報院も「父は京沢氏だ」としていた。
- 関係者らの証言などによると、京沢氏は1929年に出稼ぎのため渡日。陸軍管理下で軍服や天幕を作る大阪市の「広田裁縫所」で働いた。戦後、済州島への密航船を運営し日本の警察に逮捕され、出所後、62年に家族を連れ北朝鮮に渡った。法務記録には「強制退去」と記された。他の在日朝鮮人のように「地上の楽園」を夢見た帰国ではなく、半ば強制的な送還だった。
- 英姫氏が芸術団の踊り子時代に、金総書記に見初められたことは知られている。韓国に亡命した金総書記の親族らの証言によると、後に「喜び組」と呼ばれる秘密パーティーでの接待役に選ばれ金総書記の固定パートナーとなり、76年から平壤の別荘で同居した。
- 内部情報によると、出自に加え、金総書記に既に正妻がいたことから側室として扱われた。正恩氏ら2人の息子をもうけたが、金日成主席は当時、金総書記の別の妻が生んだ長男、正（ジョン）男（ナム）氏を後継者とみなし、正恩氏らを正式な孫とも認めなかったという。
- 金主席死去後は英姫氏を偶像化する動きも表れた。一方で、3代世襲の根拠に「革命の血統」を掲げる北朝鮮にとり不都合な英姫氏の出自には全く触れず、金総書記死去後は「最高機密」に指定され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러시아어권

○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는 김정남 관련 보도(2.15 AIF 신문 ㉮ 중앙일간지)

- 마카오 당국 관계자, '마카오 내에서는 테러 발생 가능성 때문에 김정남의 마카오 거주를 전혀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언급
- 또한, '아파트 임대료는 중국 정보당국, 유흥비는 북한 출처 자금으로 결제중이며, 중국 보안국에서 상시 감시를 하고 있음.'
- '김정남은 돈을 쓸 줄만 알고, 버는 법은 모르며,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그랜드라파(Grand Lapa) 호텔의 관계자는 '최근 김정남이 밀린 숙박료 15,000달러를 신용카드 결제하려 했으나 되지않아, 기존 17층에서 다른 방으로 옮겼다'라고 언급
- '최근 김정은 비판 후 북한·중국측의 자금지원이 끊긴 듯 보이며, 위조여권으로 유럽行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임.'
- '중국은 비만과 고혈압이 있는 김정은을 고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친중 성향의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중국어권

○ 中, 탈북자 복송에 대한 한국 언론 문제 지적(2.15 中 환구시보)

- '2.8~12일, 중국 심양·장춘·연길에서 체포된 31명의 탈북자 복송에 대한 한국 언론의 중국 정부 비난 및 언어 사용 과격 지적'
  - \* 한국 SBS가 '삼대멸족, 공개처형' 등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사실처럼 보도해 시청자들의 판단 흐리게 했다고 비판
- '중국의 탈북자 처리는 주권 범위 내에서 3개 원칙에 근거해 이뤄지며, 최근 한국 언론의 지적은 인권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

\* 3개 원칙 : △국제법규 및 조중협정, △기존 관례, △인도주의

-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유입을 반기지만, 실제로 이들의 한국 사회 편입이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中 전문가들, '美·北 대화 통한 6자회담 재개 어려울 것'으로 전망

(2.15 中 광보망 ⇨ 중국 라디오방송넷)

- 「장리엔구이」(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국제연구소 교수) : '미·북 대화가 예상보다 일찍 진행된 것은 김정은 체제가 미·북 대화에 적극적이며 북핵 및 6자회담에 대한 북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 「타오원자오」(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 '미·북 모두 더욱 활발한 소통채널을 원하지만 기존 행보로 봤을 때 6자회담의 빠른 재개는 어렵고, 9.19성명 합의사항 이행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
- 「리우지양용」(중국 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한 외교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대화에 앞서 북한은 어떤 비방도 없이 침착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

□ 일본어권

○ 김정은, 태양절 전후 국방위원장과 당 총서기 등극 전망

(2.16 뉴스 포스트 세븐 ⇨ 인터넷 신문)

- '김정은, 4.15 태양절 전후 국방위원장과 당 총서기로 등극할 것.'
- '이 과정에서 김정은 생모의 출신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재일교포 귀국자는 사과나 배 중 하나로 분류되어 차별과 억압의 대상임.'

\* 서민들은 신분을 은어로 토마토(겉과 속이 모두 빨강, 핵심계층), 사과(겉은 빨강지만 속은 흰, 동요계층), 배(속과 겉 모두 흰, 적대계층)로 호칭.

- '우상화 작업에서 고영희의 출신 성분('사과'에 해당)은 치명타가 될 수 있어 민감한 정치 문제로 부상되었고, 노동당은 고영희의 출신을 최고기밀로 다루고 위반자를 엄벌에 처한다고 비밀리 결정'

□ 영어권

- 북한, 7년간 OECD에 빌린 자금 절반 상환(2.15 RFA 원문 미게시)
  - 2004~10년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북한이 받은 대출금 4,315만달러 중 절반 가량인 2,233만달러를 상환
  - \* OECD는 북한에 경제기반시설, 교육 및 인도주의 사업 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빌려주고 있음.



## 붙임 1. 러시아 AIF신문 원문 (2.15)

러시아 AIF신문 홈페이지

"Охота на «медведя»"

-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акао на мои вопросы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есколько первоначально, хотя и обошлись без вызова охраны. Попросив отключить диктофон, один из чиновников сказал, что в городе совсем не рады присутствию сына Ким Чен Ира.
- По сведениям того же чиновника, аренду квартир ему оплачивают китайские спецслужбы. На азартные игры и девочек он расходуется платежи, идущие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Экс-наследник не занимается бизнесом и не «крышует» местные игорные заведения, о чём ходили слух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азетах.
- И, пожалуй, главная сенсация: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у «медведя» начались проблемы с наличностью. Источник в фешенебельном отеле «Гранд Лапа» сообщил: недавно сын Ким Чен Ира был выселен (!) из номера на 17-м этаже, ибо не смог оплатить проживание и задолжал гостинице около 15 000 долларов США. «Он дал в залог свою золотую «Визу», но его кредитная карта оказалась пустой».
- Недавно Ким Чен Нам заявил: его сводный брат, новый глава КНДР, 28-летний Ким Чен Ын, недолго удержится у власти. И, видимо, Политбюро решило наказать «коммуниста-плейбоя», перестав пересылать ему деньги, - предполагает Харальд Брюнинг. - Может, так же поступили и китайцы - в Пекине пока не собираются ссориться с «молодым вождём».

## 붙임 2. 중국 환구시보 홈페이지 원문 (2.15)

中 환구시보 홈페이지

“韩媒报道中国遣返朝鲜脱北者”

- 据2月15日出版的《环球时报》报道, 韩国部分媒体和政客14日热炒中国掀起“抓

中 환구시보 홈페이지

捕脱北者风潮”，称30多名“脱北者”本月20日将被中国警方遣返回朝鲜。韩国《东亚日报》称，“脱北者”被送回朝鲜将面临“三代灭族”，并鼓动韩国政府出面对中国施压，一些韩国政客和市民团体14日还到中国驻韩大使馆前面示威。不过，也有韩国主流媒体开始反思对朝报道的职业道德。

- 对于报道中提到的“脱北者”被遣返后的命运，韩国3大电视台之一的SBS电视台14日提出质疑：“三代灭族？韩国对朝报道的选择性和职业道德”。该电视台认为，近来部分韩国媒体极力渲染金正恩下达对“脱北者”“三代灭族”指示，该报道最早源自美国“自由亚洲电台”，该台的报道也仅仅是凭借朝鲜两个居民的传闻。报道还直接批评当天《东亚日报》关于“脱北者”的报道“误导读者”，称“如果韩国普通百姓不了解情况，会误以为‘三代灭族’是确切消息”，“韩国媒体应该客观报道朝鲜及其领导人，对于不清楚和不确切的消息应慎重报道”。
- 辽宁社科院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吕超14日对《环球时报》记者表示，中国处理“脱北者”一般根据3个原则：国际法规和中朝之间的约定、处理这一问题的惯例、人道主义因素。中国对“脱北者”的处理是常态化管理，是中国主权范围内的事，不存在所谓的“掀起遣返高潮”。近年来，韩国一些媒体不断对中国处理“脱北者”大肆炒作，利用所谓人权问题向中国施压。韩国政府出于政治考量和民族情绪对“脱北者”进入韩国表示欢迎，但实际上“脱北者”融入韩国社会异常艰难，已成为韩国的一个严重社会问题。

### 붙임 3. 중국 광보망 홈페이지 원문 (2.15)

中 광보망 홈페이지

“美国与朝鲜将重开对话 专家：恢复六方会谈难度大”

- 中国之声《新闻纵横》报道，美国务院发言人努兰日前表示，美国与朝鲜高级代表将于本月23号在北京恢复举行会谈，就重启六方会谈的问题交换意见。
- 其实，按照原计划，这次高层对话本来在去年12月就应该举行，但金正日的去世打乱了计划。如今恢复会谈的时间早于预期，有学者认为，这体现出以金正恩为中心的朝鲜新一届领导班子可能有意积极推动与美国的对话。中央党校国际战略研究所朝鲜问题专家张琏瑰认为，与此同时，美国同朝鲜接触的意愿更强烈：
- 张琏瑰：金正日去世了以后，无论是美国也好、朝鲜也好都急于恢复接触，在美国这方面来讲，主要就是进一步摸一下金正日去世以后，朝鲜这个新的领导集体在一些重大问题上究竟是一种什么态度，比方说在核问题上，恢复六方会谈这方面等等是不是有一些新的想法，在什么情况下朝鲜有可能放弃核武器，想通过这次会谈进一步摸底，看一看以前达成的一些协议，朝鲜是不是有意继续遵守。
- 尽管美朝双方都在有意的同对方建立更通畅的沟通渠道，但是在中国社会科学院

中 광보망 홈페이지

美国研究所研究员陶文钊看来, 即使美朝双方抓紧一切机会建立对话, 以目前的局势看, 短期内恢复六方会谈的难度依然很大。

○ 陶文钊: 2005年9月19号六方会谈第四轮结束的时候, 各方所发表的一个共同声明, 这个共同声明到现在为止仍然是一个重要的国际文件, 所以我觉得六方会谈想要恢复, 也得要在这个共同声明的指导之下来恢复。

○ 清华大学刘江永教授认为, 在这样的局势下, 即将于23号举行的朝美对话凸显了朝鲜外交的成熟:

刘江永: 从朝方的这次和美方的接触来看, 我认为实际上朝鲜目前比较冷静, 没有对这些野心也好或者是美韩之间的互动抱以抨击, 或者说拒绝跟美方和韩方的对话。朝方它的立场是不会有根本性的变化, 但是在策略上, 我想朝方也是在外交上还是比较成熟的, 对话比对抗好, 双方接触

比彼此在军事方面采取边缘政策要好得多。

## 붙임 4. 일본 뉴스 포스트 세븐 원문 (2.16)

일본 뉴스 포스트 세븐 홈페이지

"北朝鮮が必死に隠す「りんご問題」 金正恩実母は在日朝鮮人"

○ 金正日の急死によって息子・正恩の偶像化作業が急ピッチで行なわれている北朝鮮。そんな中、北朝鮮が金正恩について必死に隠そうとしている情報がある。北朝鮮事情に詳しい関西大学経済学部教授の李英和氏が報告する。

○ 金正恩の称号は「大将同志」から「領導者」「最高指導者」へと矢継ぎ早に格上げされてきた。4月15日の「太陽節」(金日成の誕生日)前後には国防委員長と党総書記に登り詰めるだろう。

○ この超速での繰り上げ達成には、避けて通れない関門が待ち受ける。金正恩の生母にまつわる「りんご問題」の処理である。

○ 北朝鮮は事実上の身分社会だ。国民は「3階層52部類」の複雑怪奇な出身成分表で管理される。「3階層」とは上から順に「核心階層」(25%)、「動揺階層」(25%)、「敵対階層」(50%)となる。

○ 庶民はこれを隠語で「トマト」(皮も実も赤い)、「りんご」(皮は赤いが実は白い)、「梨」(皮も実も白い)と呼ぶ。

일본 뉴스 포스트 세븐 홈페이지

- 金正恩の実母は在日朝鮮人の高英姫だ。その在日朝鮮人帰国者は「りんご」か「梨」のどちらかに分類され、徹底した差別と抑圧の対象とされてきた。
- したがって、金正日と高英姫の「結婚」は最高幹部の間で公然の秘密だったが、高英姫の出身成分（りんご問題）は禁忌事項とされてきた。
- だが、金正恩の偶像化作業には、生母の偶像化がどうしても不可欠だ。正直に出自を明かすか、それとも隠蔽して出自を捏造するか。労働党は「りんご問題」の処理をめぐって苦悶を重ねてきた。
- 両方の可能性をにらんで昨年5月には元山農業大学構内に「尊敬する金正恩同志」の記念碑が作られたりもした。元山港は高英姫が乗った帰国船の寄港地で、元山市を金正恩の「第2の故郷」と定める可能性に備える作業だった。
- ところが、偶像化作業が再起動した段階で金正日が急死した。金正恩は経験と実績を欠く。「革命の血統」だけが金正恩の正統性を担保する。そこに出自の疑問が付け加われば、小さな傷でも致命傷になりかねない。「りんご問題」は敏感な政治問題に浮上した。
- そこで労働党は金正日急死の直後、間髪を入れずに「りんご問題」の処理方針を決めた。高英姫の出自をこれまで通りに「最高機密事項」として扱い、これを破った者は「厳罰に処する」と秘密裏に決定したのである。

2012.2.16(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제임스 클래퍼」 美 DNI 국장,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2.16 美 상원 군사위 청문회 보고)
  - '이란과 시리아로 탄도미사일 수출 및 2007년 폭파된 시리아 원자로 건설 지원 등은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보여줌.
  - '북한은 2007.10월 6자회담에서 핵 물질, 기술, 노하우 등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핵기술 수출 재개 가능성 있음.
  - '2006.10월과 2009.5월 핵실험은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뒷받침
  - '2010.11월 미국 대표단에 2천기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영변 농축 시설 공개, 이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
  - 'DNI는 북한이 억지, 국제적 위신, 강압 외교를 목적으로 핵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판단
  - '북한 정권이 군사적 패배나 돌이킬 수 없는 통제력 상실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맞서 핵무기 사용을 시도하지 않을 것
  - '김정은의 권력 범위를 판단하기 이르지만, 기존 권력층이 정권 불안 차단과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소한 당분간 응집력을 보일 것

### □ 러시아어권

- 北, '김일성, 김정일' 뱃지 동시착용 추진 보도  
(2.16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 지역 인터넷 신문)
  - 駐나호드카 북한 총영사관 관계자는 '향후 김정일 뱃지 착용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

- '앞으로 북한 주민들은 2개(김일성, 김정일)의 배지를 의무적으로  
동시 착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

## □ 중국어권

### ○ 김정은, 공식 또는 비공식 중국 방문 가능성 보도(2.15 홍콩 봉황TV)

- '2.16일 김정일 생일 행사 이후, 김정은이 정식 혹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 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이 여전히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지만  
경제적 필요성으로 중국 방문을 통해 개혁 개방을 배우려 할 것'
- '중국 방문時 무기 및 장비 지원, 전자전 및 정보수집 기술  
지원, 중국측에서 수집한 한·미間 군사 및 신호정보 공유,  
중국군 현대식 훈련방법 전수 등 4개의 군사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
- \* 향후 중국과 북한이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

## □ 일본어권

### ○ 일본 조총련 소속 간부 등 120명 북한 방문(2.16 NHK뉴스)

- '2012. 1월말~2월 중순까지 일본 조총련 소속 간부 및 관계자  
120명이 최소 7천만엔(약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지참하고 북한 방문'
- '북한측은 조총련에 대해 축하금 등의 기부와 북한내에 포장  
마차 출점 등을 요청'
- '이는 새로운 체제하에서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 조총련계를  
움직인 것으로 추정'
- 이와 관련 日 미야츠키카 도시오<sup>2)</sup> 교수, '재일교포에 대해 신체제  
구축에 협력해 충성심을 맹세하도록 동원한 것'이라고 언급

2) 야마나시縣 야마나시大 교수, 북한 관련 뉴스 평론가

- 미야즈카 도시오 교수, '재일교포의 헌금은 신체제 선전이 되며, 김일성 100회 생일 대비 추가적 자금 협력 등의 요청' 전망

## 붙임 1. 美 DNI 국장 상원 군사위 보고 원문<sup>2.16)</sup>

### 美 DNI 홈페이지

- 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Its export of ballistic missiles and associated materials to several countries, including Iran and Syria, and its assistance to Syria—now ended—in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reactor (destroyed in 2007), illustrate the reach of the North's proliferation activities.
- o Despite the October 2007 Six-Party agreement—in which North Korea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transfer nuclear materials, technology, or know-how—we remain alert to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might again export nuclear technology.
- o We judge North Korea has tested two nuclear devices. Its October 2006 nuclear test is consistent with our longstanding assessment that it produced a nuclear device, although we judge the test itself was a partial failure. The North's probable nuclear test in May 2009 had a yield of roughly two kilotons TNT equivalent and was apparently more successful than the 2006 test. These tests strengthen our assessment that North Korea has produced nuclear weapons.
- o In November 2010, North Korea revealed a claimed 2,000 centrifuge uranium enrichment facility to an unofficial US delegation visiting the Yongbyon Nuclear Research Center, and stated it would produce low-enriched uranium to fuel a planned light-water reactor under construction at Yongbyon. The North's disclosure supports the United States' longstanding assessment that North Korea has pursued a uranium-enrichment capability.
- o The Intelligence Community assesses Pyongyang views its nuclear capabilities as intended for deterrence, international prestige, and coercive diplomacy. We also assess, albeit with low confidence, Pyongyang probably would not attempt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US forces or territory, unless it perceived its regime to be on the verge of military defeat and risked an irretrievable loss of control.



美 DNI 홈페이지

- o Although it is still early to assess the extent of his authority, senior regime leaders will probably remain cohesive at least in the near term to prevent instability and protect their interests.

**붙임 2 러시아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원문 (2.16)**

러시아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홈페이지

"Приморье и Хабаровск вместе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тметили  
новый праздник"

- o После кончины товарища Ким Чен Ира по единодушному стремлению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мы объявили день его рождения днем сияющей звезды, - заявил посл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приема в Хабаровске, приуроченного к этой дате, руководитель хабаров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КНДР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оварищ Ким Чжэ Чжон. Мы также планируем носить значок товарища Ким Чен Ира. Хотя при своей жизни он нам этого делать не разрешал.
- o А у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груди каждого корейца должен появиться и второй значок его сына. Примерно тоже творилось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94-м году, когда умер ее первый вождь.

**붙임 3.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2.16)**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 o 还有一个消息提到，可能在金正恩冥寿70大寿，明天朝鲜所谓大规模纪念活动之后，金正恩将会正式的秘密的，到中国大陆重要的盟友当中展开访问，并且有可能会仿效中国大陆，展开所谓改革开放，因为在军事上朝鲜仍然是先军政治保持核弹，但在经济上可能要改革开放，同时可能会像中国大陆提出重要所谓军事援助的四大要求。
- o 第二，根据这个情报显示，四大要求，包括第一，是武器装备，希望解放军，中国大陆继续向朝鲜提供一般性的常规性大量的武器装备。第二是提供技术的提升，特别是提到可能是电子战，侦测设备的技术的提升，第三是希望分享一系列的情报，朝鲜特别迫切希望中国大陆把侦测朝鲜半岛的，特别是美韩军队的电子讯号情报，能够和朝鲜进行更多的分享，第四项是希望更多的朝鲜军官海陆空的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军官可以接受中国现代化军队的若干实战的培训, 甚至中国和朝鲜能不能有联合的演习, 这是一个情报的分析。

## 붙임 4. 일본 NHK 뉴스 원문 (2.16)

일본 NHK뉴스 홈페이지

### "朝鮮総連 現金持参し北朝鮮へ"

- 北朝鮮の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が生誕70年となったのに合わせ、朝鮮総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の幹部など120人余りが北朝鮮に出国し、少なくとも7000万円余りの現金を持ち出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公安当局は、北朝鮮が新しい体制の下で結束を図ろうと、朝鮮総連の関係者を中心に働きかけを行ったものとみています。
- 去年12月に死去した北朝鮮のキム総書記は、16日が生誕70年の日で、ピョンヤン中心部の広場では大勢の市民が肖像画に花を手向けているほか、15日は祝賀ムードを盛り上げようと花の展覧会などが開かれました。
- 公安当局などによりますと、この日に合わせて朝鮮総連や関連組織の幹部など合わせて120人余りが、先月末から今月中旬にかけて北京などを経由して北朝鮮に出国していました。
- 10万円以上の現金を北朝鮮に持ち出す場合は、税関に申告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出国した人の多くが現金の持ち出しを申告し、総額は少なくとも7000万円余りに上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中には金属製のへらといった調理器具やソースなどの調味料を段ボール箱に詰めて持ち出そうとした人もいましたが、経済制裁に伴う輸出禁止のため許可さ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 公安当局によりますと、北朝鮮から朝鮮総連に対し、「祝い金」などの寄付と「屋台」の出店の要請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で、今回の現金や調理器具などはこのためのものとみられています。公安当局は、北朝鮮が新しい体制の下で結束を図ろうと、朝鮮総連の関係者を中心に働きかけを行ったものとみています。
- 120人余りの在日朝鮮人が北朝鮮に向け出国したことについて、北朝鮮の実情に詳しい山梨学院大学の宮塚利雄教授は「キム総書記の生誕70年という記念の年であることに加えて、北朝鮮が、在日朝鮮人に対し、キム・ジョンウン氏による新しい体制づくりに協力し、忠誠心を誓うよう動員したということだろう」と分析しています。
- また、「祝い金」などの現金や「屋台」の要請については「在日同胞から多額の献金があったというのは新体制の宣伝になる。また1989年に北朝鮮で開かれた祭典で、朝鮮総連が屋台を出して話題になったことがあり、今回の要請につながったのだろう」と話しています。

일본 NHK뉴스 홈페이지

- 宮塚教授は北朝鮮が、ことし4月15日のキム・イルソン主席の生誕100年に向け、今後も在日朝鮮人に資金協力などの要請を行う可能性があるとしたうえで「在日朝鮮人の中には、経済的に厳しく、献金が大きな負担になっている人もいます。自分の経済活動をなげうってでも献金しなければならない人も出るだろう」という見通しを示しまし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일본어권

#### ○ '김정은, 첫 정상회담 상대는 中 후진타오 국가주석'으로 보도

(2.19 뉴스 포스트 세븐 인터넷 신문)

- '中 후진타오, 3월말부터 4.15일 사이 북한 방문 가능성이 제기됨.'
- '그 이유는 김정일의 100일간 추도기간이 3월말에 끝나고, 4.15일이 김일성 생일이기 때문임.'
- '후진타오, 핵안보정상회의(3.26~27 서울 개최)에 참석할 예정이며, 북한도 방문함으로써 외교적 밸런스를 취할 의도가 있음.'
- 방북의 배경에는 중북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억측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음.'
- '방북이 실현되면 각국 정상 가운데 후진타오가 김정은과 첫 정상 회담을 가지는 것만으로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 북한으로 컴퓨터 불법수출 혐의자 수사결과 보도

(2.20 요미우리 신문)

- '지난 2.7일 경시청 공안부는 북한으로 중고 노트북 100대를 불법 수출(2009.2.27)한 혐의로 북한 국적 재일동포인 이순기 체포'
  - \* 同인은 「포플러 테크」사 대표로 同 노트북이 요코하마항에서 중국 대련을 경유해 북한에 보내지는 것을 알고 수출했다고 혐의 인정
- '경시청 수사결과, 2008~2009년에 네차례에 걸쳐 최소 4,000대 이상의 컴퓨터와 액정 모니터를 북한으로 수출'
- '모두 북한계 무역회사 「다렌 글로벌」을 경유해 평양 컴퓨터 판매점으로 납품'
- '대부분 북한 암시장을 통해 노동당 고위 관계자 등 부유층에게 팔려 일부 특권계급을 중심으로 컴퓨터가 급속도 보급되고 있음.'

## □ 영어권

- 「제임스 루이스」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장, 가장 위험한 사이버 테러 우려국으로 북한, 이란 지목(2.16 상원 국토안보위 / 2.17 RFA)
  - 「제임스 루이스」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장, ‘이란, 북한과 같이 절제력이 없는 공격국들이 첨단 사이버 공격 역량을 확보하면 미국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언급
    - \* 2012 사이버보안법에 대한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언급
  - ‘북한은 9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 전쟁 능력 확보를 추구해왔으며, 사이버공격 능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
  - ‘북한은 일상적으로 한국의 전산망을 노리고 있으며, 그간 몇 차례 낮은 수준의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일 수 있음.’
  -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공개정보는 제한적이지만 북한이 사이버 무기를 추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음.’
  -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공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국가가 사이버공격을 절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라고 언급

## □ 중국어권

- 한국, 중·북 나선특구 경제협력에 우려(2.17 홍콩 불황위성TV)
  - 중국 국제정치학원 잔더빈 박사, ‘중·북 나선특구 경제협력이 북한 개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국은 이 지역의 중국 편입과 한국측 소외에 대한 우려로 한·중 기업들의 공동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고 언급
  - ‘나선지역 협력은 양국의 필요에 의해 오랜 시간 걸쳐 결정된 것으로 양측에 모두 이득이며, 북한은 최근 외국투자은행법 등을 수정·보완하면서 외국자본 유치 강화에 나서고 있음.’

## □ 러시아어권

- 北,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행사 해외사절단 초청  
(2.20 인테르팍스 통신사)
  - ‘김일성 생일행사에 러시아, 중국, 일본 사절단을 대거 초청했으며, 10일 일정의 방문기간 중 아리랑공연 관람 예정’이라고 보도

## 붙임 1. 일본 요미우리 신문 원문 (2.20)

### 일본 요미우리 신문 홈페이지

“北の闇市場へPC 4千台、高官購入か…不正輸出”

- 北朝鮮にノートパソコンを不正輸出したとして、警視庁公安部に外為法違反容疑で逮捕された中古パソコン販売会社「ポプラテック」(東京)社長の李舜奇容疑者(49)が、少なくとも4000台以上のパソコンや液晶モニターなどを北朝鮮に送っていたことが捜査関係者への取材でわかった。
- 多くは北朝鮮の闇市場を通じて朝鮮労働党の高官ら富裕層に渡ったとみられ、一部の特権階級を中心にパソコンが急速に普及している実態が浮かび上がった。
- 捜査関係者によると、李容疑者は逮捕容疑のノートパソコン100台のほか、2008~09年に計4回にわたって、少なくともパソコンやモニターなど計4000台以上を輸出していたという。いずれも中国・大連の北朝鮮系貿易会社「大連グローバル」を経由し、平壤のパソコン販売店に納入されていた。

## 붙임 2. 일본 뉴스 포스트세븐 원문 (2.19)

### 일본 뉴스 포스트세븐 홈페이지

"北朝鮮·金正恩氏 初の首脳会談相手は中国の胡錦濤国家主席"

- 中国の胡錦濤国家主席が3月末から4月15日の間に北朝鮮を訪問する可能性が出てきた。この理由として、北京の外交筋は昨年12月17日に死亡した北朝鮮の金正日総書記の100日間の追悼期間が3月末に終わることや、4月15日が金総書記の誕生日であることを挙げている。実は、胡主席は3月26、27日に韓国で開催される核安全保障サミットに出席する予定で、韓国だけでなく、北朝鮮も訪問することで外交的バランスをと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ものだ。
- 胡主席が最後に北朝鮮を訪問したのは6年半前の2005年10月で、その後、金総書記は4回も訪中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胡主席の答礼の訪朝はないことから、胡主席がいつ訪朝してもおかしくはないといわれていた。中国国内の政治日程的にも、全国人民代表大会(全人代=国会に相当)が3月中旬に終了、3月下旬から4月中旬にかけての外遊には支障がないことが挙げられる。
- また、北朝鮮メディアは新指導者、金正恩氏が金総書記の死を悼む弔電へのお礼の電報をロシアやキューバ、モンゴルなどには送ったと報じたが、

일본 뉴스 포스트세븐 홈페이지

最大の支援国である中国への返電については報じておらず、両国関係がぎくしゃく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の憶測が飛び交っていることも訪朝の背景にある。

- 訪朝が実現すれば、各国トップの中で、胡氏が初めて金正恩氏と首脳会談をすることになるだけに大きな注目が集まりそうだ。

### 붙임 3.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 원문 (2.16)

美 PIIE 홈페이지

“Securing America’s Future: The Cybersecurity Act of 2012.”

- China and Russia are great powers with many interests and are unlikely to engage in frivolous attacks. They have instead taken advantage of our weak cyber defenses to engage in widespread economic espionage and crime. Other potential attackers may not be so restrained. When these less constrained attackers acquire advanced cyber-attack capabilities, the risk to the U.S. will increase significantly. The two most dangerous of these “acquiring powers” are Iran and North Korea, but anti-government groups, cyber criminals and perhaps jihadis may also be acquiring cyber-attack capabilities
-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cyber warfare capabilities since the mid-1990s and Kim Jong-il, the former leader, had a deep interest in information warfare and ensured long term support for the DPRK military to acquire cyber-attack capabilities. North Korea routinely probes South Korean networks and may be responsible for several basic-level attacks. As with Iran, open sourc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capabilities is limited, but we know they want cyber weapons and it is unwise to depend on the restraint of a nation that feels no compunction about shelling islands or torpedoing patrol boats.

### 붙임 4. 홍콩 봉황위성TV 원문 (2.17)

홍콩 봉황망 홈페이지

“詹德斌：韩国担心中国将罗先纳入本国经济圈”

- 所以韩国媒体很关心说朝鲜的罗先特区很可能会快速的融入到中国经济圈当中，我不知道您个人怎么来看中朝之间的合作，是否看好，韩国方面最为关心和担忧的地方又是哪里？

홍콩 봉황망 홈페이지

- 詹德斌：我个人对罗先这个地方的合作是比较乐观的，因为朝鲜罗先港这个地方开发也好，罗先港的开发利用也都是决定很多年了，并不是一时头脑发热作出了一个决定。也正是因为双方有需要，所以这种合作应该说对双方是有利的。
- 朝鲜我们注意到前几天还特别修改了一些法律，专门针对外国投资企业的一些法律，包括外国投资银行法，实际上朝鲜自己也在积极的做引进外资或者说开放的这样的一些准备。
- 中国方面也是希望利用罗经推动东北地区的发展，其实双方的决心应该说很大，前景我个人比较乐观，韩国方面主要是担心，从积极的方面说，中朝的合作有助于推动朝鲜开放，这是比较积极评价的，但是他担心的是排除韩国的这种中朝合作是他不愿意看到的，所以韩国前一段时间我们也看到，他也希望甚至在中韩的企业当中把罗经地区纳入进行，这也就是反应了韩国担心的一个侧面。

붙임 5.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사 원문 (2/20)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사 홈페이지

"Гостей из России, Китая и Японии ждут в КНДР на 100-летие Ким Ир Сена"

- На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рождения первого лидер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Ир Сена в Пхеньян приглашены иностранные делегации.
- КНДР планирует 15 апреля провести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в честь 100-летия основателя страны Ким Ир Сена, на празднование приглашены делегации Китая,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 Визит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егаций в страну продлится около 10 дней. Как ожидается, зрители помимо прочего увидят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Ариран" - ставшее традицией массовое гимнастическое выступление.
- Из Японии, по данным СМИ, КНДР пригласила около 60 человек, в их числе влиятельные бывшие члены парламента, ученые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час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중국어권

- 中 외교부, 美·北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 희망(2.20 中 국제재선 中国 관영 라디오방송국 중국국제방송[CRI Online]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2.20일 기자회견 통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북 고위급 대화를 환영한다'고 발표
  - '이번 회담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각 당사국들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北, 4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정권 안정화 도모 (2.20 中 China news)
  - 「왕위성」(북한문제 전문가)은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회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개최해 인사임명 등 중대 사안을 발표'
  - '이번 대회는 김정은의 안정적 승계後, 개최되는 것으로 정식 인사 임명을 통해 정권 공고 및 안정화 실현에 목적이 있다'고 언급
- 中 전문가들, '중국의 탈북자 송환은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2.20 中 환구시보)
  - 북단대학 한국연구센터 「스위엔화」주임, '한국은 탈북자를 인권·정치 난민 문제로 보는 반면 중·북은 국경 및 출입국 관리 문제로 간주'
  - '북한 주민들의 중국 밀입국은 정치적 핍박,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에 "인권 유린"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
  - 요녕 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센터 「뤄차오」주임, '중국의 탈북자 처리는 주권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며, 중·북간 체결된 조약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근거하므로 비난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

□ 영어권

○ 北 당대표자회는 리더십 변화의 신호(2.20 美 뉴욕타임스)

- '4월 중순 개최 예정인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 총비서와 중앙군사위원장 직책을 부여 받을 것'으로 전망
-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관리 기관을 만들어 김정일을 영원한 중앙군사위원장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음'
- '2.23일 베이징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은 우리측 농축 공장 가동 중단 및 6자회담 복귀 등에 대해 북한측을 설득할 것'
- '미국에게 있어 이번 회담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의도를 가늠하는 첫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

□ 일본어권

○ '아버지 김정일과 나' 출판 배경관련 중국측의 목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2.18 산케이 신문)

- 김정남과의 고미 편집위원간 이메일 내용을 편집하여 '아버지 김정일과 나, 김정남 독점고백'이라는 책을 최근 출간한 배경과 관련하여 중국측의 목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
- '중국에서 김정남과 접촉은 중국 당국의 허가 내지는 암묵의 양해가 없으면 불가능'
- '중국측은 북한측에 경제 정책과 국가 운영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수단(기자)을 가지려고 함.'
- 한국의 前 외교관에 따르면, '중국은 메일과 접촉을 차단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책에 쓰인 내용은 중국이 북한에 바람직한 체제의 모습을 전하는 메시지'라고 보도

## 붙임 1. 중국 국제재선 보도 원문 (2.20)

### 중국 국제재선 홈페이지

“外交部：希望朝美对话为重启六方会谈创造条件”

- 国际在线报道(记者 蔡靖淼 王策)：中国外交部发言人洪磊20日在例行记者会上表示，中方欢迎朝美在北京举行第三次高级别对话，希望有关对话取得积极成果，为重启六方会谈创造条件。
- 据报道，美国朝鲜事务特使戴维斯将于23日起与朝鲜第一副外相金桂冠在北京举行会谈。对此，洪磊说，中方愿继续与有关各方加强沟通协调，共同为推进六方会谈进程、维护半岛及东北亚地区的和平稳定发挥建设性作用。
- 去年7月和10月，朝美双方分别在纽约和日内瓦进行了两次对话。此前，美国国务院称第三次对话是前两次对话的延续，重点将讨论恢复六方会谈的问题。

## 붙임 2. 중국 China News 원문 (2.20)

### 중국 China News 홈페이지

“朝鲜将召开第4次党代会 或宣布政治架构施政方针”

- 朝鲜劳动党中央政治局决定，将于4月中旬召开朝鲜劳动党代表会议。外界分析认为，劳动党很可能在会上正式确立金正恩的领导人地位，宣布政权交接及朝鲜未来的内外政策和施政方针。
- 据朝鲜中央通讯社20日报道，朝鲜劳动党中央政治局18日发表声明，决定在4月中旬召开朝鲜劳动党代表会议，发扬金正日的革命业绩，拥戴金正恩。但该声明没有提及代表会议的具体议题。
- 中国国际问题研究基金会战略研究中心执行主任、朝鲜问题专家王嵎生接受中新社记者采访时表示，朝鲜不常召开劳动党代表会议，一般都是在关键时刻召开，宣布包括人事安排在内的一些重大事项。此次会议是在金正恩平稳接班后召开，旨在通过正式的人事任命进一步巩固政权，实现政权的平稳过渡。

### 붙임 3. 중국 환구시보 원문 (2/20)

#### 중국 환구시보 홈페이지

“专家驳斥韩对我遣返朝鲜非法入境者指责 称无可厚非”

- o 对于中韩在处理该问题上的分歧，复旦大学韩国研究中心主任石源华分析称，韩国认为“脱北者”问题是人权和政治避难问题，但对中国和朝鲜来说，这是边界和边境管理问题，中国和朝鲜之间签订了引渡条约。从朝鲜到中国的非法入境者到底是政治避难，还是出于经济窘迫原因出来谋生，情况错综复杂，不能简单认为中国遣返非法入境者就是践踏人权。中国相关部门会严格区分这些问题。
- o 辽宁社科院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吕超对《环球时报》记者表示，朝鲜非法入境中国的人员目的有几种：打工挣钱，借道中国进入韩国、美国。原因并不是韩国所称的在朝鲜受到政治迫害，主要还是经济问题。中国处理“脱北者”是中国主权范围内的事情，无可厚非。而且，中国除了根据中朝两国之间的约定和国际法规，也考虑到了人道主义因素。

### 붙임 4. 美 뉴욕타임스 원문 (2/20)

#### 美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In Another Signal of Leadership Change,  
North Korea Sets Party Meeting”

- o North Korea's Workers' Party will hold a conference in mid-April, the government announced Monday, affording its new leader, Kim Jong-un, the opportunity to inherit top party posts held by his late father.
- o But the new leader, believed to be still in his late 20s, has yet to assume his father's other top titles, including general secretary of the party and chairman of it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Some analysts foresee April as the likely time for him to receive both.
- o Analysts said that the new leader may take the top commission title or make his father the commission's "eternal chairman" and create a new governing agency through a constitutional revision.
- o On Thursday, American and North Korean officials are to meet in Beijing for the first senior-level talks since October. Washington is trying to persuade North Korea to suspend operations at its

uranium-enrichment plant and return to six-nation talks on e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 meeting on Thursday will give the Americans the first serious opportunity to judge the North's intentions since Kim Jong-il's death.

## 붙임 5.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2.18)

### 일본 산케이 신문 홈페이지

#### “金正男メール150通” 出版の背景に浮かぶ中国の意図

- 金正日総書記の長男、金正男氏との150通以上のメール交信を一挙に公開した『父・金正日と私 金正男独占告白』（五味洋治著、文芸春秋社刊）は北朝鮮を知るための第1級の最新資料としてソウルの大型書店でも山積されている。この本について特に熱い視線を送ったのが、北朝鮮情報をさぐり、情勢を分析するインテリジェンス・ソサイエティ（情報・諜報界）の人々だ。彼らは金正男氏の情報発信と書籍化の背景に、「中国の強い意図が働いている」とみている。（ソウル 加藤達也）
- 「父・金正日と私」の著者、東京新聞の五味洋治編集委員は2004年9月25日、日朝協議の取材待機中の北京空港で金正男氏を偶然発見、名刺を渡した。金正男氏は04年9月、北京空港で6人の記者と会い、五味編集委員を含め、名刺を渡した5人と、短期間メール交信をしていた。なぜ、メールを復活させたのが五味編集委員だったのだろうか。
- 韓国情報筋は「かつて北京特派員であり、中国政府当局の対北朝鮮政策に精通していること、さらに夫人が中国人で中国側としては、“いざ”というときに親族を人質に取ることもできる」と指摘している。情報筋は、著作の終章で「金正男が平壤に帰る日」という五味編集委員自身が見解を表した一文に注目している。インタビューやメールのやりとりを含まないこの章で、五味編集委員は中国による「正男擁立シナリオ」を提示している。北朝鮮をめぐるインテリジェンス・ソサイエティではこのシナリオは「中国の意図を極めて慎重に、正確にくみ取っている」と高く評価されているという。
- そのポイントは、（1）金正男氏は北朝鮮の経済再生には中国式改革・開放しかないと強く認識している（2）中国は本音では、世襲は政権の正統性を揺るがし、政権の不安定化を招きかねないと考えている（3）北朝鮮は、核と軍事力に頼って国を守る姿勢で、このままなら経済自立は見込めず、国内が混乱する可能性がある—である。

일본 산케이 신문 홈페이지

- 中国の外交に詳しい韓国政府筋は「中国で金正男氏と接触しようとする場合、中国当局の許可なしに暗黙の了解がなければ不可能だ」としたうえで、「外国メディアの記者も監視対象であり、中朝関係の琴線ともいえる金正男氏にかかわる問題では特に、監視と制約が一層強いのは当然だ」と指摘。また中国側は北朝鮮に対し経済政策や国家運営についてメッセージを発信する手段（記者）を持とうとしていた、と明かした。
- 「中国はその経緯をほぼすべて監視し、承知したうえで許容した。中国はメールや接触を遮断することもできたはずだが、それをしなかった。この本に書かれていることは結果的に、中国から北朝鮮に対し望ましい体制のありかたを伝えるメッセージとなっている」これが、韓国の元外交官の読後感だっ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스티븐 보스워스<sup>3)</sup>」(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과 대화해야' 주장

(2.21 CNN)

- '2012년 대화 재개 가능성 높아, 미국은 북한과 신중한 방식의 대화 필요'
- '고위 군 관리와 문민 지도자 모두의 합의 없이 검증받지 않은 김정은은 실권을 장악할 수 없을 것'
- '북한의 막후 실력자는 군대이지만, 당 고위 인사들도 분명히 일부 영향력 있음.'
- '김정은 체제 하에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해 미사일·핵 실험 등을 통해 힘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

○ 「월터 샤프」(前 한미연합사령관), '자유 북한(A Free North Korea)'을 위해 북한 체제 내부변화 압박 및 지원' 주장(2.21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고)

- '한·미는 김정은 체제를 단절시키고 달래는 전략을 지속,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을 변화시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단계 밟아야 함.'
- '북한은 △끊임없는 핵무기 및 기술 개발과 확산, △탄도미사일 및 특수부대 능력 강화, △인권문제 악화, △실패한 경제 등이 지속될 것.'
- '북한 내부 변화를 위해 한·미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개발, 청·장년과 군부 변화 유도에 초점 맞춰야 함.'
- '북한 문제는 한·미 대선에서 핵심적 이슈로 다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 뒷전으로 미룰 수 없음.'
- '유엔 등 국제기구도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 행동,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 '북한 불안정에 대비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군사자유무역협정(MFTA) 필요'라고 주장

### □ 중국어권

3)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09.3~11.10월)와 주한 미국 대사(97~00년)를 지낸 한국통, 現 미 터프츠大 플레처스쿨 학장 재직

- 中, '6자회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도 (2.22 中 인민일보)
  - '2.23 미·북 회담의 주요 의제는 6자회담 재개이며, 6자회담의 계속된 지연은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영향 끼칠 것임.'
  - '지난 3년間 미·북 양측 모두 6자회담 재개를 원했지만, 전제 조건에 있어 이견차 존재'
  - '6자회담이 중단되면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等 한반도 정세 악화되어 6자회담의 재개는 더욱 시급'
  -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안정을 위한 유효한 체제로 각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함.'
  - '중국은 6자회담의 중요한 당사국으로서 6자회담 재개 및 각 나라의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국, 탈북자 처리 문제로 골머리 앓으면서 중국에 오히려 압박 보도(2.21 中 환구시보)
  - '한국은 탈북자 복송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지만 한국 또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한·중 양국은 모두 북한 사회의 혼란이나, 동·서독 통일時 처럼 난민의 대거 유입을 원치 않음.'
  - 요녕 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센터 「뤄차오」주임, '탈북자 문제는 한·중間의 문제이지 국제문제가 아니며, 국제적 이슈화는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언급



## 붙임 1. 美 CNN 보도 원문 (2.21)

美 CNN 홈페이지

“Bosworth: Why we must talk to North Korea”

- o Do you imagine talks starting at any point in the near future? Stephen Bosworth: I think they could. I've stopped trying to predict what North Korea may or may not do. I think that there is a good possibility that we may see a resumption of talks sometime in 2012. But I certainly wouldn't bet on it... Our problem with North Korea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it is a particularly difficult foreign policy challenge for our system of government to work with and to work on. We have a tendency to believe that problems exist to be solved - not to be managed, but solved. And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at, in my judgment, requires that we talk to them in a serious fashion.
- o What do you make of Kim Jong-un? Stephen Bosworth: I can't believe that he's going to have any real authority within the system in North Korea without the concurrence of all senior military and civilian leaders. They're not engaged in some sort of a suicide mission. They're not about to turn their fate over to a 28-year-old or 29-year-old untested person, even if he is Kim Jong-il's son and Kim Il-sung's grandson.
- o So who is the power behind the throne? Is it the party? Is it the military? Stephen Bosworth: I think it's largely the military, but senior party officials obviously also have some influence. We know that Kim Jong-un's uncle and aunt have particularly important roles at present. But I think this is not that dissimilar from the situation that has always existed. I think that Kim Jong-il was loath to overrule significant elements in the military or in the party. So they spent a lot of time trying to work toward consensus.
- o So you don't expect significant change under Kim Jong-un? Stephen Bosworth: No, I really don't. Now, on the other hand, that doesn't mean that bad things could not happen, because, in fact, if they begin to sense that either the outside world is pressing in on them, or that the outside world is ignoring them, they may well do things designed to get our attention - perhaps missile tests, nuclear tests, things

designed to show that they remain a force to be dealt with and that they are not to be ignored.

## 붙임 2 美 CSIS 기고문 원문 (2.21)

### 美 CSIS 홈페이지

#### “A Free North Korea”

- o While Kim Jong-un is concerned with solidifying his power position within North Korea and upholding his family's nam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ust choose whether to continue the strategy of deterring and placating the Kim regime or to take to change the increasingly dangerous situation on the peninsula and bring freedom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 o Without a new ROK-U.S. strategy North Korea will continue the past patterns of unrelenting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echnology, improvement of ballistic missile and SOF capabilities, deterioration of human rights conditions for the general North Korean public, and a failed economy.
- o First and most importantly,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develop a Strategic Communications Plan designed to inform the North Korean populace. The plan must focus on educating those most likely to influence change, primarily the young and middle aged population. Influence must also be exerted on the military, which the Kim regime relies on as a deterrent to dissenting opinions and actions.
- o Second, North Korea and its leadership must be held accountable in the eyes of the world.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ultimately affects the entire globe and cannot be put on the backburner any longer.
- o Thir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must make it clear that they will hold Kim Jong-un accountable fo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violations, provocative declaration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 o Fourth, every possible avenue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should be utilized. A ROK-U.S. Military Free Trade Agreement (MFTA), promoting easier exchange and procurement of technology and equipment, should be developed and approved by both countries.

- o Finally, in order to be prepared for eventual changes,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ideally China must begin a dialogue about what a free North Korea would look like.

### 붙임 3. 중국 인민일보 보도 원문 (2.22)

#### 중국 인민일보 홈페이지

##### “重启六方会谈不能一拖再拖”

- o 朝鲜和美国代表将于本月23日在北京举行第三次高级别对话。这是继去年7月和10月两轮对话后，朝美双方之间的又一次对话。从各方透露出的信息看，如何重启六方会谈是对话重点。重启六方会谈进程已经拖了很久，能否出现转机不仅关乎六方会谈本身，对半岛局势也将产生微妙的影响。
- o 朝美双方恢复沟通并重新回到对话轨道上来，传递出些许积极信号。同时也要看到，3年来朝美双方多次表达了重启六方会谈的愿望，但在复谈前提条件上有明显分歧。在对朝食品援助的数量、种类和方式上，朝美未能达成共识。美国认为，在如何停止朝方铀浓缩设施的运行方面没有得到明确答复。
- o 现在已经不是六方会谈要谈什么的问题，而是各方如何才能重开谈判。围绕重启会谈的较劲成为常态，不能不说是一个退步。拖延战术可能让某一方获得更多主动权，但从长远看，全局利益受损对相关各方均无益处。
- o 六方会谈陷入僵局以来，相继发生的“天安”号事件以及朝韩延坪岛炮击事件，使半岛局势一度剑拔弩张。长期对峙氛围下，因“擦枪走火”恶化半岛局势的风险远未消除。此次美朝对话与美韩联合军演“碰巧”同期，朝鲜对此发出严词警告。半岛上空的火药味进一步突显了重启六方会谈的迫切性。
- o 尽管六方会谈自启动以来历经坎坷，但这一机制是实现半岛无核化、维护半岛和东北亚地区和平稳定的有效机制，是各方通过对话改善关系的重要平台。有关各方应采取行动，将重启六方会谈的愿望转化为实际行动。做到这一点，需要除去预设条件，更不能制造紧张态势。重启六方会谈要从大局着眼，不能总是想着让事态发展服从于单方面考虑。事实表明，越是能从大局出发看待这个问题，就越是能更多地从中获益。
- o 作为六方会谈的重要一方，中国将继续为重启谈判进程创造有利条件。希望有关各方的对话能够以相互尊重为基础，坦诚协商，尽早取得实实在在的进展。

## 붙임 4 중국 환구시보 보도 원문 (2.21)

### 중국 환구시보 홈페이지

#### “专家：韩当局惧怕“脱北者”压力 却对中国说三道四”

- 环球网综合2月21日出版的《环球时报》报道，有关“中国要遣返数十名脱北者”的消息近日被韩国媒体炒得沸沸扬扬，一些韩国团体还针对中国驻韩使领馆连续举行抗议。事实上，韩国政府也曾因“脱北者”问题坐在“道德被告席”上。虽然在指责中国时振振有词，但它也深感“脱北者”给本国造成的负担，并通过种种政策，阻止其大量涌入韩国。
- 据新加坡“AsiaOne”新闻网1月25日报道，韩国国家选举委员会因针对“脱北者”的政策遭到国内舆论抨击。文章说，今年韩国大选的海外投票日期定于3月28日至4月2日，韩国国家选举委员会正酝酿一项计划，将与中国公安部门合作，防止在华“脱北者”冒充参与投票的海外韩国公民混进韩国驻华使领馆。
- 在有的分析看来，韩国虽然愿意接受“脱北者”，但也并不希望他们大量涌入。美国前副防长沃尔福威茨2009年曾在《华尔街日报》上撰文说，韩国政府出于“与中国相似而又不同的目的”，不愿意向“脱北者”伸出援手。中韩两国都不希望朝鲜发生“革命”，担心朝鲜重演当年柏林墙倒塌后，难民一拥而出的局面。韩国表现克制的另一个原因是担心过分激怒朝鲜，韩国政府官员连对朝鲜发出最温和的批评都担忧对方的反应，而美国政府中很多人也因担心影响与朝鲜的核谈判而在“脱北者”问题上不愿有所作为。
- 辽宁社科院朝鲜半岛问题专家吕超说，“脱北者”目前在韩国已经导致不小的社会问题，现在进入韩国的“脱北者”肯定不止2万多人。韩国一方面感到在韩“脱北者”是个负担，一方面对中国的政策说三道四。如果韩国执意把“脱北者”问题拿到国际上，争取所谓国际同情，除了抹黑中国的国际声誉，恶化中国民众对韩国的看法，实际上捞不到什么好处。而且，“脱北者”问题说到底是中朝之间的问题，不是国际问题。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중국어권

- '미·북 회담 예상보다 빨리 진행' 보도 (2.23 中 인민일보 해외판)
  - '2.23 미·북 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것은 미·북 양측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임.'
  - '미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이해 및 일부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및 태도를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음.'
  - '북한은 미국의 식량 원조를 받아내고,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관계 개선 및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함.'
  - 「장리엔구이」 남북한 문제 전문가는 '구체적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 상호간 입장 조율 등이 이뤄질 것이므로 이번 회담은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
- '나선특구의 경제적 가치' 관련 보도 (2.22 中 산경신문 經濟전문지)
  - '중·북이 나선특구 개발에 합의하면서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진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처럼 경제특구부터 시작해 북한이 경제 개발에 나선다면 북핵 및 동해 문제 등도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것'
  - '양측의 협력으로 이 지역에 실질적인 발전이 있다면 향후 동북아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 '나선지역은 중국의 두만강, 연변 및 길림성 일대의 대외개방 창구 역할을 할 것'
  - '자본이 풍부하고 인프라시설 개발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중국과 자본이 부족한 북한의 협력은 아시아 통합화에도 도움이 될 것'
  - '그러나 북한 정책의 잦은 변화로 제 2의 신의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망

□ 영어권

○ 김정일 사후 첫 미·북 회담에서 진전 여부 주목

(2.22 美 월스트리트저널)

- '미국은 표면적으로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될 것'
- '「글린 데이비스」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베테랑 외교관이지만, 북한에 대한 경험은 없는 상태임.'
- '「에번스 리비아4」(美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 선임국장), '북한은 새로운 미국 협상팀의 판단을 원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이 기존 노선을 바꿨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
- '지난 1월초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식량지원 조건과 분량에 대해 강력 비판한 것은 협상 작전의 일환일수도 있으며, 이것을 통해 외부 세계는 김정은 체제와 김정일 체제의 차이를 알 수 있음.'
-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 조건에 바로 동의할 경우, 김정은은 김정일과 다른 것을 할 자신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됨.'
- '「마커스 놀랜드」(美 피터슨연구소 부소장, 한반도 전문가), '식량지원 조건에 대한 동의는 북한이 타협하고 기존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의미'
- '식량지원 문제가 교착상태일 경우, 북한은 핵무기, 확산, 군비 축소 등의 이슈에 대한 논의에 나설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美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

## 붙임 1. 中 인민일보 해외판 보도 원문 (2.23)

중국 인민일보 홈페이지

### “朝美北京会谈为何引人关注”

- 这次会谈原定于去年12月下旬举行，因金正日去世被推迟。但这次会谈比人们预想的时间早了许多。这似乎表明，朝美双方都有些急迫的问题需通过这次会谈去解决。
- 美国方面的“急迫问题”其实美国官方已公开挑明，这就是要通过接触对朝鲜新领导人进行“摸底”，看朝鲜在一些重大问题上是否有新主张、新想法。这包括朝鲜是否有意遵守2005年“9·19”共同文件中关于弃核的承诺；是否愿意在弃核方面采取一些切实行动；在核问题上朝鲜的底线是什么；以及朝鲜乐意做哪些让步以换取它所需要的东西，等等。因为不久前朝鲜已将拥有核武器定为金正日的三大革命遗产之一，并称这是任何“援助”或“补偿”都不能换取的、有此想法的人是“痴人做梦”。美国想知道朝鲜此说究竟是一种宣传语言还是真实决定。
- 朝鲜方面“急需解决”的问题主要有两项：一是当下物质的，即通过谈判和交换，争取美国提供粮食援助。因为春天将至，青黄不接，而且在宣布“打开强盛大国之门”的一年需要增加配给以制造某种气氛；二是外交战略方面的，即通过会谈加强与美沟通，改善朝美关系，令美国“习惯”于同“核朝鲜”打交道，在拥核前提下促成朝美签署和平协定和正式建交，令美国事实上承认其核国地位。
- 但笔者认为，不管这次朝美会晤是否达成具体协议，这种接触和会谈本身就具有积极意义。第一，它表明美朝双方都有通过对话谈判和平解决彼此关切的意愿，双方都不是一味对抗、剑拔弩张。第二，通过谈判，至少可以加深相互了解，知己知彼有助于双方修正不切实际的主张，相互调适。第三，解决朝鲜核问题是一个漫长的过程，其间急流猛进和止步不前都是其组成部分。

## 붙임 2 中 산경신문 보도 원문 (2.22)

중국 산경신문 홈페이지

### “罗先特区：多少商机在其中”

- “这个问题最为引人注意的就是朝鲜会不会像中国一样实行改革开放”。国家发改委对外经济研究所研究员张燕生在接受《中国产经新闻》记者采访时说：“朝鲜多年来一直是把罗先当做一个推动朝鲜改革开放的先行区，但是很多年过去了，这个区并没有什么实质性的发展。很多国际组织，比如UNDP(联合国(微博)开发计划署)曾经也希望在中国的图们江地区实行中国、朝鲜、俄罗斯三国的区域合作，但多年来都未能达到预期。”

중국 산경신문 홈페이지

- “金正恩上台后，很多人都在关注罗先地区的发展能否取得新的实质上的进展”，张燕生指出：“如果取得了实质性的进展，就会对未来东北亚的发展产生很大影响。如果朝鲜也如同改革开放初期的中国一样，从经济特区开始起步，那么未来的朝鲜就会趋于平静，朝核问题和东海问题就会进入一段相对稳定的时期。如此一来，罗先地区就能对中国的图们江地区、延边地区甚至整个吉林省的对外开放提供窗口与桥梁。”
- 张燕生指出，朝鲜目前最缺的就是资本，而中国现在最充裕的就是资本，而中国在大型基础设施建设方面又有着深厚的经验。双方的合作将对整个亚洲区域一体化有着积极的影响。
- 然而，目前也有业内人士对罗先特区未来的前景表示担忧，他们认为罗先特区会成为第二个“新义州”。对此，中投顾问宏观经济研究员马遥向《中国产经新闻》记者采访时表示：“朝鲜曾经的新义州经济区对此可以提供一些借鉴，包括新的经济区可以由更多的国际集团等民营企业全程参与，以释放出‘市场为先’的口号。而且，政府也应该积极响应，由于朝鲜政策经常变化，因此如果企业投资失利，中国政府也可以提供一部分补偿。”

**붙임 3. 美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원문 (2.22)**

美 WSJ 홈페이지

**“What Counts as Progress in NK-US Talks?”**

- Outwardly, the U.S. is looking to determine North Korea's sincerity about returning to the six-party process, the aid-for-disarmament talks that began in 2003 and produced agreements in 2005 and 2007 that later fell apart with finger-pointing all around.
- Thursday's meeting isn't just a one-way test. The U.S. has a new representative to North Korea, Glyn Davies, a veteran diplomat but unfamiliar to the North Koreans.
-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want to take the measure of the new U.S. team,” says Evans Revere of Albright Stonebridge Group, a Washington consulting firm. “And of course, we need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ition in Pyongyang has changed the fundamental position there.”



美 WSJ 홈페이지

- o In early January, in the first public statement by Kim Jong Eun's government directed at Washington, North Korea strongly criticized the terms and amount of aid the U.S. was offering.
- o Analysts said it may have been a negotiating maneuver. But it also provided a new way for the U.S. and outside world to measure what's different between the Kim Jong Il and Kim Jong Eun regimes.
- o If North Korea quickly agrees to the conditions the U.S. has set for providing food aid, even as quickly as at Thursday's meeting, it will be a sign that Kim Jong Eun is confident enough to do something different from his father.
- o "It means someone in Pyongyang can compromise and has enough power to go and change the stance," says Marcus Noland, deputy director and senior fellow at the Peterse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a North Korea watcher.
- o If the food issue remains stalemated, it's unlikely the U.S. or anyone else is going to come to the view that Pyongyang is really willing to move forward and discuss the thornier issue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美·北 회담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

(2.23 로이터통신)

- 美·北 회담 첫날 결과는 생산적이었으나, 미국 등 동맹국과 북한間 극복해야 할 불신이 여전히 깊은 상태
- 北은 2005.9월 채택된 공동성명 하에 비핵화를 약속했으나, 그 이후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시설을 공개
- 미국, 한국 등 동맹국은 6자회담 복귀를 원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회의적이며, 전문가들은 베이징 회담이 6자회담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류셰리엔」(길림大 교수), '북한에 안보 보장 제공 필요' 주장

(2.23 China Daily 영문판)

- '최근 韓·美 군사훈련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당시의 긴장 상태를 상기시키며, 美·北 회담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
- '美·北 회담은 올해 직면할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북한이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美·北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논의가 형식에 그칠 수 있고, 북한은 자국의 안보가 6자회담으로 인해 강요되기보다 미국에 의해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음.'
-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것 또한 북한의 외교적 목표 중 하나이며, 외부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선군정치를 유지할 것임.'
-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지역내 안보 매커니즘의 구축과 경제 통합 여부에 달렸으며, 몇 차례의 美·北 회담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 □ 중국어권

### ○ '미·북 회담에 세계가 주목' 보도 (2.24 中 CCTV)

- '미국은 북한 新정권에 대한 탐색성 대화가 주된 목적인 반면 북한은 美·北관계 개선 및 미국과의 거리를 좁히려 이번 대화 시도'
- '북한의 9.19 공동성명 이행 및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서로의 양보가 없다면 실질적인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지 않을 듯'
-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회담에 나선 이유는 한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임.'

## □ 러시아어권

### ○ '러 연해주와 북한間 협력방안 논의' 보도 (2.21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 양측간 공동프로젝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駐나호드카 북한 총영사 심국룡과 「에프게닌 오베취킨」(연해주의회 의장)間 회담
- 양측은 회담간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고전압 전선 구축, △나진~하산 구간 철도 현대화 등에 대한 논의
- 北측은 연해주 의회 관계자의 방북을 초청했고, 「에프게닌 오베취킨」 의장은 '향후 북한과의 협력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북한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있다'고 언급

\* 북한 철도전문가 극동에서 연수 예정(2.22 인테르팩스 電 중앙 통신사) 등 현재 극동지역은 철도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 일본어권

### ○ 북한으로 컴퓨터 불법수출 혐의자 北해커기관과 접촉

(2.22 요미우리 신문)

- '지난 2.7일 북한으로 다수의 중고 노트북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2012.2.2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체포된 이순기 수사결과, 2009.3~4월 평양 방문해 「조선컴퓨터 센터(KCC)」, KCC 산하 「평양정보센터(PIC)」 담당자와 접촉'

- 'KCC 간부의 요청으로 북한으로 수출된 컴퓨터 중 일부가 KCC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됨.'

\* KCC: 1990년에 김일성 주석이 설립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자 양성 기관으로 사이버 공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붙임 1. 로이터통신 보도 원문 (2.23)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U.S. envoys says North Korea talks no instant fix”

- o Davies told reporters a dinner discussion with North Korean negotiators Thursday had been "productive" but he stressed these talks were dealing with a backlog of unresolved issues that would take time to address.
- o But there are still great depths of distrust to overcom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 o North Korea agreed to curtail its nuclear activities under a an aid-for-denuclearization agreement reached in September 2005 at six-party talks bringing together North and South Korea, China, Japa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greement, the North agreed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s in exchange for economic and diplomatic incentives to be provided by the other parties involved in the negotiations.
- o But the embryonic deal was never fully implemented. Instead, the North staged two nuclear test blasts -- in 2006 and 2009 -- and later disclosed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giving it a second path to obtaining fissile material for bombs in addition to its long-standing program of producing plutonium.
- o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heir allies have been skeptical of North Korea's assertions that it wants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Analysts have said Davies' talks in Beijing are unlikely to trigger breakthroughs.

## 붙임 2. China Daily 영문판 보도 원문 [2.23]

China Daily 홈페이지

"China DPRK requires security guarantees"

- o It will be the first contac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since Kim Jong-il's death. It will sustain a mechanism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which is critical to the stability and peace on the peninsula. However, the live-fire military drills by the Republic of Korea (ROK) near a disputed sea boundary with the DRPK despite the latter's threat to respond with a "merciless attack" will cast a shadow over talks. The military drills remind people of the tensions that were caused by the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of the ROK, and the Yeonpyeong Island shelling incident in 2010. It seems the year 2012 may face uncertainties after 2011 witnessed a stead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especially during the leadership transition period for the DPRK. Hence, talks will be crucial for related authorities to decrease uncertainties in the rest of year.
- o The complicated geopolitical landscape in Northeast Asia determined that the DPRK nuclear issue is in essence a regional issue beyond any bilateral relations. But without a thawing of US-DPRK relations, multilateral talks to realize de-nuclearization are liable to become just formalistic.
- o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DPRK's national security has been exposed to structural contractions among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 A long-term hostility and sanctions imposed on the DPRK by the US-led alliance make Pyongyang feel security threats all the time. The US-DPRK high-level dialogue is conducive to helping Pyongyang break through the security dilemma and gain a stable external environment.
- o To make dialogue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US is one of Pyongyang's diplomatic goals. If it goes ahead smoothly, the DPRK could obtain assistance from the US to mitigate domestic pressures for development and further consolidate the new government.
- o To survive from outside security threats, the new DPRK leadership will not change its "military first" strategy. To change Pyongyang's security perceptions, the US' commitment and actions in the security field are critical. The DPRK wants its security to be ensured by the US rather

China Daily 홈페이지

than constrained by the Six-Party Talks. The DPRK's target to establish normal relations with the US and sign a peace agreement to replace the truce agreement signed during the Cold War era cannot be achieved overnight.

- o Regional security issues should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s among countries rather than forming regional alliances. The existence of alliances can only strengthen regional confrontation and discreteness, while multilateral forms such as the Six-Party Talks are more conducive to regional security. To promot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e the DPRK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a common goal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Whether the Korean Peninsula can realize denuclearization does not depend on the DPRK alone but rests with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security mechanisms and the progress of economic integration. The nuclear issue cannot be solved through just a few high-level dialogue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붙임 3. 中 CCTV 방송 보도 원문 (2.23)**

중국 CCTV 홈페이지

“时隔四月 朝美代表再对话引关注”

- o 美国代表戴维斯说，也不想了解朝鲜过去两个月发生什么，他只想知道，新人领导人今后的打算，对六方会谈有什么计划，到现在为止他是一种试探性的接触或者跟朝鲜的官方一些人了解一些想。
- o 美国现在对朝鲜基本重启会谈的条件没有变，在这种重启条件没有变的情况下，除非是朝鲜作出比较大的让步才有可能重启，所以我理解他的话，他是鼓励、调动你的积极性，然后试探一下，想推动朝鲜新的领导人往前迈步，也就希望推动朝鲜改变立场，但是到现在为止美国和韩国立场没有变化，而且在韩半岛上前不久又搞了实战演习，朝鲜对于韩美之间的立场是严阵以待，没有任何的退让，如果这个不改变的话，实质性的会谈还是没有，但是有一点点是积极的。这一次跟前两次高级别会谈的话，一次在纽约，一次在日内瓦，这次重新回到北京来谈，而且比人们预料早了一点，金正日最高领导人去世两个月就恢复和谈，其实表达了一个信息，朝鲜方面至少希望对话解决问题还是唯一的途径，通过六方会谈在北京搭的途径还是解决半岛问题一个重要的途径，这个信号是非常积极的。
- o 我也透露一个信息，朝鲜也想策划一些像平常外交一样的外交工作，比如派自己

중국 CCTV 홈페이지

最好的歌剧团，交响乐团访问美国，最好的画家去访问美国，通过这种文化外交的方式拉进跟美国人们之间的感情，现在朝鲜跟美国是可以谈的，但是跟韩国的关系非常紧张，觉得朝鲜跟韩国之间的对话才是重启六方会谈的最关键的因素，

- 现在朝鲜外交非常积极主动，也想打开跟西方的关系，也想越过韩国拉近跟西方的距离，然后有利于自己搞经济建设。
- 这次对话一方要摸底，一方要搭脉，而外界还有一个关注点，朝鲜会在这一次的会谈当中透露朝鲜新领导人金正恩怎样的治国方针线索呢？至少有一点，就像有一些媒体分析的那样，朝鲜政府在金正日去世之后仅隔了两个月就决定和美国重启高层对话，表明其有意要改善朝美之间的关系。

**붙임 4. 러시아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원문 [2/21]**

러시아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홈페이지

"Спикер примор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встретился с генконсулом КНДР"

- Председатель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иморья Евгений Овечкин встретился с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ом КНДР в Находке товарищем Сим Гук Рёном.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бсуд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Приморским краем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новый созыв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должит укреплять связи с КНДР, так же, как это делали депутаты прошлых созывов. Кроме того, товарищ Сим Гук Рён рассказал, что делегац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осетит КНДР.
- Темой обсуждения стали проекты по прокладке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газопровода и высоковольтных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реконструкц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путей участка «Хасан-Раджин». Проект включает реконструкцию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и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52 километр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нтейнерного терминала в порту Раджин.
- Председатель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Евгений Овечкин заверил, что депутаты 5-го созыва продолжают укреплять соотр



러시아 보스토크미디어 신문 홈페이지

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Приморьем и КНДР. А так же,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совместны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проекты представляю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для нашего края.

## 붙임 5.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 원문 (2/22)

일본 요미우리 신문 홈페이지

### “PC輸出で逮捕の社長、北ハッカー機関と接触”

- 北朝鮮向けのノートパソコン不正輸出事件で、外為法違反容疑で逮捕された中古パソコン販売会社社長で朝鮮籍の李舜奇容疑者(49)が2009年に訪朝し、サイバー攻撃への関与が指摘されている北朝鮮の研究機関「朝鮮コンピューターセンター(KCC)」幹部と接触していたことが捜査関係者への取材でわかった。
- 警視庁公安部は李容疑者が北朝鮮に輸出したパソコンの一部がKCCに渡った疑いもあるとみて調べている。
- 捜査関係者によると、李容疑者は09年3~4月、平壤を訪れ、KCCの販売部長と、KCCの傘下企業「平壤情報センター(PIC)」の販売担当者らと接触。李容疑者は08~09年、北朝鮮に少なくとも4000台以上のパソコン機器を輸出したことが判明しており、大半は闇市場を通じ、高官らに渡っていた。
- 李容疑者は調べに対し、「KCCは北朝鮮の情報技術部門の取りまとめをしていた」と供述しており、公安部はKCC幹部らが李容疑者に対し、パソコンの一部をKCCやPICにも流すよう要求したとみている。
- KCCは1990年に故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が設立した、プログラム開発や技術者の育成を担当する機関。昨年8月に韓国のオンラインゲームを狙った不正プログラムがばらまかれた事件では、開発者がKCC出身の北朝鮮ハッカーだったことが韓国の警察当局の捜査で判明している。
- 日韓の公安当局はKCCはハッカーの養成機関で、日本や米韓を狙ったサイバー攻撃の研究も進めているとみている。PICも大量破壊兵器開発への関与が指摘され、日本政府は輸出する際には経産相の許可が必要とする「外国ユーザーリスト」に加えてい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美 데이비스 대표, 일본측 6자회담 대표와 회동 후 기자회견

(2.26 美 국무부 보도자료)

- 美 「글린 데이비스」(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기야마 신스케」(日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와 1시간 동안 매우 심도있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6자회담 진전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함.
- 美·北 베이징 회담 초반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 이를 포함한 회담 주제를 전달했지만, 북한측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음.
-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6자 회담 회원국들의 다각적인 협력임.
- ‘이번 회담에서 특히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행동을 파악하려고 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일 등 양자회담이 아니라 기하학적 형태의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도

### □ 러시아어권

#### ○ 「푸틴」 총리, ‘김정은 체제 안정성 시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2.27 모스크바 뉴스 ⇄ 중앙일간지)

-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모스크바 뉴스 기고문(‘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을 통해 △북핵 불허용, △한반도 비핵화, △정치·외교적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지지입장 등을 밝힘.
- ‘대북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특히 치밀함이 요구되며, 김정은 체제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경솔한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 및 남북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 북한과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독재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무력으로 내정문제를 간섭하는 일부 국가로부터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며, 이라크전을 예시로 들면서 서방측 비판

## □ 일본어권

### ○ 김정일 사후 배포 북한 노동당 내부분서 입수 공개

(2.25 마이니치 신문)

- 북한 노동당 지도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인 지난 1.6일 당 간부들에게 배포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조선노동당의 경제노선과 임무」라는 제목의 내부분서를 입수
- 同 문서에는 中·北이 국경에 위치한 황금평과 위화도에서 추진해온 공동개발사업에 대해 '좌절했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공동개발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내부분서에는 '황금평의 50년 장기 임대는 조국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 조국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조속히 제안해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
  - \* 황금평 등의 개발은 김정은 측근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주도해온 中·北 경제협력의 핵심 사업인 만큼 中·北간 심각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마이니치 신문사 평가)
- 또한, '남포항과 나진항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철저히 경제 이익을 얻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기재
- 이 외에도 이집트의 오라스콤社가 일부 투자해 건설 중에 있는 105층 류경호텔과 관련, '완성된 부분부터 연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기재

### ○ '日·北 국교 정상화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선결과제'

(2.27 산케이신문)

- 「스기야마」(日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日·北 국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납치 문제의 해결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고 언급

□ 중국어권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2.25 中 외교부 홈페이지)

- '25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및 외교부 장즈쥘 부부장을 각각 만나 中·北 관계 및 6자회담에 관해 의견 교환하였다고 게시

## 붙임 1. 美 국무부 보도자료 원문 [2.26]

美 국무부 홈페이지

### “Remarks to the Media With Asia Bureau Director General Shinsuke Sugiyama”

- o We've just finished an hour's worth of very in-depth, detailed discussions. I sought the counsel of Director General Sugiyama on the way forward.
- o I reported to the Director General that among the topics I raised was, of course, the abductee issue. We always raise that issue when we meet with the North Koreans; we did it on this occasion quite early in the discussions, and of course we will do it on every occasion when we meet with the North Koreans.
- o QUESTION: So when you raised the abduction issue, what was the response from North Korea? AMBASSADOR DAVIES: All I can tell you at this stage is, they've listened. But in terms of their reaction, in terms of my being able to report to you any progress, I'm sad to say I don't have anything positive to report to you.
- o But quite frankly, what will be important, in terms of achieving the ultimate goal, which i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combined multilateral effort involving all members of the Six-Party Talks.
- o So I'm dodging your question, I admit that, but I'm doing it for good diplomatic reasons - because I have to carry this forward in kind of a straight-line fashion and report first to my Secretary of State and to officials in Washington. And I'm hoping, before too long, some of these details can be made known.
- o Because where we are, of course, is seeking with North Korea in our bilateral engagement to get to a point where we can obtain certain actions from them on the nuclear issue in particular, so that we can then begin to discuss how a Six-Party round might look. If we get to a stage, past this bilateral phase, where we are actively discussing a Six-Party round - if we do - there will be all manner of discussions.

- o And I'm sur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it will indeed be, not simply bilateral discus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ut we'll seek to have discussions in all kinds of different geometrical configurations.

## 붙임 2 러시아 모스크바 뉴스 보도 원문 (227)

### 러시아 모스크바 뉴스 신문 홈페이지

####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 o Не менее серьезная ситуация складывается вокруг 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Мы неизменно выступаем за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ичем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призываем к скорейшему возобновлению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 o Однако, судя по всему, не все наши партнеры разделяют такой подход. Убежден, что сей час нужно проявлять особую аккуратность. Недопустимы попытки испытать на прочность нового лидера КНДР, которые, по сути, провоцировали бы небудуманные контрмеры.
- o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активный диалог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этой страны, развивать добрососедские связи, одновременно выводя Пхеньян на решение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Очевидно, что это будет сделать легче, если на полуострове укрепится атмосфера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возобновится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 o На фоне страстей вокруг ядерных программ Иран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вольно начинаешь задумываться о том, как возникают риск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кто их усиливает. Есть ощущение, что учатившиеся случаи грубого и даже силов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извне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стран могут стимулировать те или иные авторитарные режимы (да и не только их) к обладанию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 붙임 3. 마이니치 신문 보도 원문 (2.25)

### 마이니치 신문 홈페이지

“北朝鮮：内部文書に「中朝共同事業は挫折」 国境2島”

- 中国と北朝鮮が、国境に位置する鴨緑江の北朝鮮領中州、黄金坪島（ファングムピョンド）と威化島（ウィファド）で進めてきた共同開発事業について、北朝鮮の朝鮮労働党指導部が作成した内部文書は「挫折した」と表現し、見直しを検討するよう求めている。黄金坪島などの開発は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氏側近の張成沢（チャン・ソンテク）国防副委員長が主導してきた中朝経済協力の目玉事業だけに、背景に中朝間で深刻な意見対立が起きている可能性もある。
- 黄金坪島などの共同開発は、中朝両国による経済協力の目玉の一つとして、昨年6月、北朝鮮側が参加して着工式が開かれた。12月には朝鮮中央通信が、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による黄金坪・威化島経済地帯法の採択を伝えたものの、その後の工事は始まっていない。中朝貿易関係者らによると、開発や運営の主導権をめぐる中朝両国間に意見の相違が顕在化しているという。
- 内部文書はこうした現状を踏まえて「黄金坪の50年間長期貸し出しは我が国の利益に合っていない」と指摘し、両島事業が挫折したと指摘。そのうえで「我が国の実情に合う方法を早急に提案して、着手すべきだ」と強調している。
- 一方で北朝鮮南西部の南浦（ナムポ）特別市の南浦港や、北東部の羅先（ラソン）特別市の羅津（ラジン）港の拡張工事については「中国政府から徹底的に経済利益を得るとの立場を堅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訴え、中国政府から港湾施設へのインフラ投資を引き出すよう促している。
- また、エジプトのオラスコム社が一部投資しているとされ、平壤市内で建設中の105階建ての高層ビル「柳京（リュギョン）ホテル」は「完成した部分から年内に営業を始めるべきだ」と提案した。

## 붙임 4. 산케이 신문 보도 원문 [2.27]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拉致問題進展なし」 米代表、対北 日韓と連携確認”

- 拉致問題については「解決に向けわれわれ自身がさら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朝国交正常化に向けた努力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拉致問題の解決なしにそこには行けない」と述べた。

## 붙임 5. 中 외교부 홈페이지 게시 원문 [2.25]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武大伟特别代表会见朝鲜第一副外相”

- 2012年2月25日, 中国政府朝鲜半岛事务特别代表武大伟在北京会见朝鲜外务省第一副相金桂冠, 就六方会谈问题交换了意见。

“交部副部长张志军会见朝鲜第一副外相”

- 2012年2月25日, 外交部副部长张志军在北京会见朝鲜外务省第一副相金桂冠, 就中朝关系、六方会谈问题深入交换了意见。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北,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원한다'고 보도

(2.27 People's Daily Online 中 인민일보 영문판)

- 북한은 美·北 회담을 통해 흥작기에 대비한 식량 지원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원함.
- 북한은 美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이 핵무장한 북한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며, 핵무기 보유를 전제한 평화조약 체결과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목표로 함.
- 작년 12월 중순 북한의 핵개발 중단 대가로 미국이 20만톤 이상 식량지원 합의를 했기 때문에 3차 회담에서 일부 진전 가능성 있음.
- 한편, 북한의 핵개발 중단은 철회 가능하지만 미국의 지원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의 진정성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 □ 중국어권

#### ○ 중국 외교부, 미·북 회담 관련 평가 (2.27 中 외교부 홈페이지)

- 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美·北과 6자회담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美·北 회담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언급
- '중국은 계속해서 6자회담의 각 당사국들과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 ○ 「푸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후 식량원조 논의(2.27 中 외교부)

- 中 「푸잉」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해 양국관계와 국제지역 문제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게시

## □ 러시아어권

### ○ 「올렉 코제마코」(아무르주 주지사), 북한에 아무르주 농지임대 계획 부인

(2.27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 「올렉 코제마코」 아무르주 주지사, 러시아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농지임대를 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
- 북한과 체결한 국제협력 협정은 국가 차원에서 공동추진하는 사업이며, (북한측에 임대가 아닌)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던 외딴 지역의 러시아측 소유 농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임.
- 이러한 사업은 러시아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기업 유치에 힘든 지역에서 이뤄질 것이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그 어떤 논란도 없어야 하고, 러시아 땅에서는 러시아인이 일을 해야 한다고 언급
- '단 1헥타르의 토지라도 외국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무르주의 기본 원칙이며, 누구든지 유명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

## □ 일본어권

### ○ '김정은 체제하의 평양은 썩썩 얼어붙은 혁명의 수도'

(2.27 교도통신)

- 최근 교도통신 「이노우에」 기자가 김정은 체제 이후 일본 미디어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여 쓴 르포에서 '평양은 김정은의 지도를 강조하는 슬로건만 보일 뿐 김정일 사망前과 큰 변화가 없다'고 보도
- 김정은의 나이와 결혼 여부를 질문하려 했으나 제지당했고, 고영희의 재일교포 출신 여부에 대해 평양의 한 남성은 '처음 듣는다고 답변
- '2.15일 김영남의 중앙보고대회 연설과 평양시내 간판에서 「강성대국」의 표현이 사라지고, 「강성국가」 및 「강성부흥」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고, 전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도중 3번이나 정전되었다'라고 보도

5) 「올렉 코제마코」는 2008.10월부터 아무르주 주지사를 역임해왔으며, 2011.8월 김정일 방러 당시 만나 양측간 협력 논의를 하였고, 2011.10월에도 방북 후 김정일을 만나 양측간 협력문제를 논의한 전력이 있음.

## 붙임 1. 中 인민일보 영문판 보도 원문[2.27]

People's Daily Online

“US, DPRK talks offer window into new leadership”

- o DPRK mainly wants to solve two urgent issues through the talks. First, it seeks food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through exchange of interests at the meeting. As the spring lean season is looming. Second, it wants to enhance communication and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meeting, in hopes that Washington will get used to a nuclear DPRK. It aims to sign a peace treaty and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under the precondition of possessing nuclear weapons. In other words, it wants de facto recognition from the United States of its nuclear power status.
- o In fact, the two sides are more likely to reach some agreement in the talks. One i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provide DPRK with more than 200,000 tons of food if some of the nuclear programs in DPRK can be "suspended". That is because, both parties have already reached a broad agreement on this matter during a secretary-level meeting as early as mid-December last year. This agreement will be no obstacle to both parties, once they reaffirm it to be effective.
- o For the United States, the food originally to be provided unconditionally as humanitarian assistance, does not go contrary to Hillary Clinton's previous provisions of "no compensation" and "no reward" to DPRK on the nuclear issue.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is unable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DPRK's "suspension", as "suspension" is a reversible action on DPRK's nuclear program, while the "payment" of the United States is irreversible, therefore, the deal is worthwhile.

## 붙임 2 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 원문 [2.27]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2012年2月27日, 外交部发言人洪磊主持例行记者会

外交部发言人就中方如何看待六方会谈前景等答问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 问：有消息称中国副外长傅莹上周访问了朝鲜，请证实。如果属实，请介绍此访的有关成果。

答：中朝两国外交部一直以各种形式保持着交流与沟通。两国外交部负责人上周进行了接触，就双边关系和共同关心的国际地区问题交换了意见。双方一致同意继续发展中朝传统友好合作关系，共同致力于维护朝鲜半岛和平稳定，推动早日重启六方会谈。双方还讨论了中方向朝提供粮援问题。

○ 问：请介绍中方对朝鲜援助的具体内容，中方有无附加前提条件？

答：中方一直在向朝鲜提供力所能及的援助。我们也欢迎有关各方和国际社会向朝提供各种形式的支持与帮助。这有助于朝鲜克服暂时的困难。

○ 问：近日，第三次朝美高级别对话在北京举行，中国政府朝鲜半岛事务特别代表武大伟会见了朝鲜第一副外相金桂冠，能否介绍有关情况？中方如何评价此次对话成果？中方如何看待六方会谈前景？

答：中方与朝美双方一直就六方会谈问题保持密切沟通。第三次朝美高级别对话结束后，中方也分别与双方就有关问题交换了意见。中方对朝美进行了认真、积极的对话表示欢迎。我们愿与有关各方一道，继续为推进六方会谈进程、维护半岛及东北亚地区的和平稳定发挥建设性作用。

**붙임 3.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원문 [2/27]**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Глава Приамурья отрицает, что земли области будут отданы КНДР в аренду”

○ Губернатор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Олег Кожемяко в эфире местной телекомпании заявил, что область не намерена передавать земли в аренду аграриям из КНДР, о чем было заявлено ранее.

○ “Ни одного гектара земли в аренду иностранцам область передавать не намерена. Это наше основное правило. Если кто-то планирует незаконно через подставные компании решать эти вопросы, мы будем это жестко пресекать”

○ “Я не уверен,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состоянии сегодня дать рыночную цену за аренду земли, и с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конкуренцию, скажем, Китаю. И если руководство нашей страны не

проявит свою политическую волю, то властям края и региона придется самим выбирать, что лучше”, - отметил политолог.

- Губернатор уточнил, что подписанные соглашения с КНДР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касаются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снове. Работа в этой связи ид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российск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 “В основном это касается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заросших и долгое время не использовавшихся земель. К тому же это будет совмест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земли, которая принадлежит государству. Никаких других разговоров и быть не должно. На нашей земле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наши люди”

## 붙임 4. 교도통신 르포 보도 원문 [2/27]

### 교도통신 홈페이지

#### “【ルポ / 金正恩体制下の平壤】 (1)

金正恩体制下の平壤 / いてつく「革命の首都」 「遺訓」貫徹を強調  
頻繁停電、問題ないと兵士”

- 「金正恩 (キム・ジョンウン) 同志の指導に従い主体革命偉業を完遂しよう」一。赤地の看板が29歳の新指導者への忠誠を訴える。昨年12月に金正日 (キム・ジョンイル) 総書記が急死し、正恩氏が異例の3代世襲で最高権力者となった北朝鮮。いてつくような冷え込みの中、市民は13日も朝から“革命の首都”の整備に駆り出されていた。金総書記生誕70年となる16日を前に、日本メディアとして初めて新体制下の平壤 (ピョンヤン) に入った。
- 北朝鮮の中でも優遇されエリート層だけが住むとされる平壤。記者の単独行動はこれまでと同様に厳しく制限され、自由に歩き回ることはできないが、金総書記死去前と比べ市内の様子に大きな変化は感じられない。「悲しみを力と勇気に」などと金総書記の「遺訓」貫徹や正恩氏の指導を強調する新たなスローガンが目立つ程度だ。
- 国営テレビの子ども向け番組では、語り部役の老人が「軍事強国」を築いたのは金総書記の功績とたたえ、正恩氏は「うり二つ」と継続性を強調している。30代の男性市民は記者に「将軍が亡くなって間もない。(正恩氏の家族関係など) 詳しいことは知らないが、(正恩氏は) 遺訓に従って同じようにやっていくと言っている」と語った。平壤駅近くの路上。12

## 교도통신 홈페이지

日朝は日曜日にもかかわらず地下道から出てくる人波が絶えなかった。手元の温度計は氷点下8度。「みんな工事現場に向かっている。強盛大国の年。土日にはやらなければいつやるんですか」。近くに立っていた中年女性は、慎重に言葉を選びながら説明した。

- 住宅の配管工事なのか、人々が至る所で道路脇の地面を掘り返している。職場や学校単位の“休日返上”とみられ、道具は古びたスコップだけの人海戦術。平壤駅近くのホテル建設の工事現場でも、重機ではなく動員された朝鮮人民軍兵士の隊列が鉄骨を運んでいた。
- 平壤は食糧事情などが地方に比べると格段に恵まれ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若い兵士は「革命の首都だから当然ではないですか」と格差を暗に認めた。しかし電力不足は深刻なままだ。ホテル近くのレストランでも夕食を取る間だけで3回停電した。「もう慣れていきます」と30代女性。底冷えのするホテルの部屋の窓から目を凝らしても、夜は街の輪郭さえ分からないほどの暗闇だ。
- スローガンが掲げる「経済強国」には程遠い北朝鮮。新しい看板には、ハードルを下げた印象を与える「強盛復興」「強盛国家」との表現も目立つ。「強盛大国というのは宣言するものではない。停電が少なくなるとか食糧配給が増えていくとか、市民が生活向上を実感するプロセスだ」。平壤市民は海外からの訪問客にそう語ったという。

## 【ルポ / 金正恩体制下の平壤】 (2)

金総書記生誕70年 / 正恩氏、年齢もタブー 難題山積、首都に涙なく"

- 北朝鮮は16日、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生誕70年を記念する「光明星節」を迎えた。昨年12月の総書記の急死から約2カ月。首都平壤（ピョンヤン）は祝日ムードに包まれ、涙を流す市民の姿はない。核問題による国際的孤立、電力不足、食糧難一。年齢を口にすることさえはばかれる新指導者、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氏（29）は、最高権力と共に引き継がれた難題に父親の「遺訓」だけで対処できるのか。
- 金総書記が馬に乗って故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と並んだ銅像が設置された万寿台（マンソデ）創作社。特別に一般開放された16日早朝、氷点下4度の冷え込みの中、軍人や市民らが長い列をつくり、献花した。
- 15日に訪れた金総書記を象徴するペゴニア科の赤い花「金正日花」の展示会。正恩氏の「若々しさと力を反映した花」もいずれ登場するだろうと語る女性解説員の金麗元（キム・リョウォン）さん（41）は「正恩氏の年齢を知っているか」との質問に困惑した笑みを浮かべるだけで答えなかった。「結婚は？」と尋ねると、近くにいた男性が「それは聞いてはいけません」と制した。

교도통신 홈페이지

- 正恩氏の母親の故高英姫氏は帰還事業で北朝鮮に渡った元在日朝鮮人とされる。「日朝関係改善に積極的になるのでは」。北朝鮮による拉致被害者家族らの間ではそんな淡い期待もあるが、高氏の出自や、正恩氏の2人の兄については依然としてタブーだ。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関係者は「母親が帰国者であることはみんな知っている」と指摘する。しかし、平壤のある男性市民(39)は「初めて聞きました」。表情がこわばったように見えた。
- 一方で、正恩氏の偶像化は急ピッチで進められている。「光明星節」関連の行事は最近登場した勇ましい曲調の称賛歌「金正恩將軍を命懸けで守る」で締めくくられ、テレビやラジオで繰り返し流れている。
- 「革命偉業は唯一の継承者に堅固に引き継がれている」。正恩氏本人も出席し、国家や党、軍の最高幹部が勢ぞろいした15日の中央報告大会。金永南(キム・ヨンナム)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は富強国家を意味する「強盛大国」を掲げた金総書記の「遺訓」を正恩氏が忠実に実現しつつあると強調した。しかし、2回の核実験を実施し弾道ミサイル開発を続ける「軍事強国」を取り巻く経済的環境は厳しい。平壤駅前など市内のあちこちには総書記存命時から設置されている「強盛大国」のスローガンが残るが、金委員長らの演説では「強盛国家」「強盛富興」と言い換えられ「大国」との表現は消えた。
- 光明星節を翌日に控えた15日夜、道を走るバスはヘッドランプだけをつけ、満員の車内は真っ暗だっ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중국어권

#### ○ 中 외교부, 탈북자 송환 문제 관련 정례 브리핑(2.28 中 외교부)

- 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 '불법 밀입국한 북한인들을 북송한 것은 10여 차례 이상이며, 이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 국경을 월경한 것이기 때문에 난민이라고 규정지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언급
- 중국의 법률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며, 불법 밀입국은 어떠한 나라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불법 행위로 한국 언론들이 탈북자 문제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경향이 있음.
- 이는 실제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은 계속해서 국내법,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할 것임.
- 韓·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므로 이에 한국이 이번 문제에 대해 좀 더 침착하기를 바라며, 소통과 협력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실질적 행동으로 韓·中관계를 유지해야 함.

#### ○ '韓·美연합군사훈련 관련 북한측 반발' 보도(2.27 中 CNTV)

- 김정일 死後 애도기간이자, 제3차 美·北회담이 갖 종료된 상황에서 진행된 韓·美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반발
- 키리졸브 훈련 이후에는 23년 동안 중단되었던 韓·美 연합상륙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예상
- 이번 훈련은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김정일의 대응 능력 및 정치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이기도 함.
- 미국은 대화와 군사훈련이라는 강은 양면책으로 북한 새 지도자의 입장, 정책 변화에 대해 탐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북한 또한 韓·美연합군사훈련을 도발로 간주하고 전쟁 불사를 외치면서 강경 대응하고 있음.

□ 영어권

○ '美 선박, 미군 유해발굴을 위해 북한 도착' 보도(2.28 AP통신)

- 美 유해발굴 조사단 선박이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했고, 유해발굴 작업은 3.1일부터 개시 예정임.(로버트 윌러드 美 태평양군사령관)
- 美·北은 2011.10월 미군 수천명의 유해 발굴을 재개하기로 합의 했으며, 이는 양국간 긴장 완화의 신호임.
- 미군 유해발굴 작업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으로 2005년 중단됐으며, 미국은 발굴 인력의 안전에 대해 우려함.

□ 러시아어권

○ 러-北, 자매도시 협정체결 적극 추진(2.27 부라티아공화국<sup>6)</sup> 공식홈페이지)

- 「젠나디 아이다예프」(울란우데 시장), 김재천(駐 하바로프스크 북한 총영사)과 만나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며 양측 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논의
- 「빅토르 콘드라쇼프」(이르쿠츠크 시장), 김재천과 만나 양측 간 자매 도시 협정체결, 교환학생 프로그램 마련, 문화부문 협력 등 논의 (2.28 이르쿠츠크市 공식홈페이지)
- 러-北간 자매도시 협정체결 현황

기존 체결	최근 협정체결 검토 중
△모스크바-평양, △블라디보스토크-원산, △상트페테르부르크-남포, △나호드카-라선	△블로그베렌스크-평성, △하바로프스크-청진, △기타 :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등

6) 부라티아 공화국은 러시아 동 시베리아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연방 공화국 중 하나이며, 작년 8월 김정일과 메드베데프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개최된 장소

□ 일본어권

○ 日경찰, PC불법수출 관련 조총련계 단체·여행사 압수수색

(2.28 닛케이)

- 2.28일 日 경시청 공안부, 조총련 이타바시(板橋) 지부, 재일본 조선인과학기술협회, 중외여행사 등 3개 기관을 전격 압수수색
- 조총련 관계자, 'PC 불법수출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산하 단체의 사무실까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부당한 불법 수사이며 전대 미문의 정치적인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

## 붙임 1. 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 원문 (2.28)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2012年2月28日, 外交部发言人洪磊主持例行记者会

- 问：近来，“脱北者”问题在韩国国内急剧升温。有鉴于“脱北者”被遣返后可能“遭受迫害”，中方能否切实地帮助“脱北者”？
- 答：据中方掌握，一些非法入境朝鲜人反复被遣返，有的多达十多次。他们非法入境主要是出于经济目的，没有充分的根据来定性为“难民”。
- 我愿重申，中国的法律尊严理应得到尊重和维护。非法出入境、组织偷渡等犯罪行为在任何国家都不会被允许。
- 韩国一些媒体炒作所谓“脱北者”问题有情绪化和政治化的倾向，既不符合实际情况，也不利于问题的解决。中方将继续根据国内法、国际法和人道主义原则妥善处理有关问题。中韩在许多领域都是重要的合作伙伴，在新形势下双方要共同面对的挑战和问题有很多，对目前这个问题，希望韩方冷静对待，通过有效沟通与合作处理分歧，以实际行动维护中韩关系大局。

## 붙임 2. 美 AP통신 보도 원문 (2.28)

美 AP통신 홈페이지

“US ship in North Korea to prepare for remains hunt”

- Chief of the U.S. Pacific Command, Adm. Robert Willard, said Tuesday the ship is offloading equipment at Nampho, a port city west of the capital, Pyongyang.
- The U.S. and North Korea agreed in October to restart the search for thousands of American service members, a sign of easing tensions between the wartime enemies.
- The program is due to begin formally on March 1, with a U.S. advance team arriving in Pyongyang later in the month.
- The search was suspended in 2005 during tensions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U.S. cited misgivings about the security of its personnel.

### 붙임 3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 홈페이지 원문 (227)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 홈페이지

“Столица Бурятии установит побратимские связи  
с одним из городов КНДР”

- Корейские партнеры определяют город, который готов развивать связи со столицей Бурятии. Причем, договор между побратимами,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может быть подписан уже 15 апреля.
- Визит корейской консуль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Улан-Удэ приурочен к открывающейся сегодн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музее Бурятии выставке, посвященной 70-летию Ким Чен Ира.

### 붙임 4. 러시아 이르쿠츠크市 홈페이지 원문 (228)

러시아 이르쿠츠크 시 홈페이지

"Мэр Иркутска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КНДР"

- Мэр Иркутска Виктор Кондрашов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КНДР в Хабаровске Ким Чжэ Чжоном, в ходе которой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установления побратим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толицей Приангарья и одним из городо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организовать обмен делегациями школьников, а также продолж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выставки.

## 붙임 5.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 원문 (2.28)

### 일본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朝鮮總連系団体を外為法違反容疑で搜索 不正輸出事件で警視庁 ”

- 北朝鮮に中古パソコンが不正輸出された事件で、警視庁は28日、外為法違反(無承認輸出)容疑で逮捕された中古パソコン販売会社社長、李舜奇容疑者(49)の関係先として、在日本朝鮮人總連合会(朝鮮總連)の傘下団体「在日本朝鮮人科学技術協会」(科協、東京・文京)など数カ所を同容疑で家宅搜索した。
- 捜査関係者によると、科協は在日朝鮮人の科学者や技術者でつくる団体。押収された李容疑者のメールには「科協」の文字が記されており、警視庁公安部は、朝鮮總連傘下団体の関係者が李容疑者と北朝鮮の政府機関幹部との接触を仲介した可能性があるともみている。
- 科協が入る朝鮮出版会館(東京・文京)には28日午前8時すぎ、警視庁の捜査員十数人が搜索に入った。同会館前では早朝から拡声器やプラカードを持った関係者が搜索中止などを訴え、警備に当たった機動隊員らとにらみ合いになるなど一時騒然とした。
- 朝鮮總連広報は「不当な違法捜査であり、前代未聞の政治弾圧だ。警察当局は不当極まりない強制捜査を即時中止すべきだ」とコメントし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美 국무장관, '美·北회담, 올바른 방향으로의 작은 첫걸음' 언급

(2.29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 「클린턴」 美 국무장관,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지만, 이번 발표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작은 첫걸음을 상징함.
- 미국은 북한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북한의 새 지도부를 그들이 취할 행동에 따라 판단할 것임.
- 24만톤의 영양지원과 전달 과정에서 요구되는 철저한 배분 감시 등 세부사항의 마무리를 위해 북측과 만나기로 합의
- '아랍 혁명에서 신흥 경제 대국의 부상, 여전히 위험한 알카에다 세력, 한반도 핵외교에 이르기까지 이번 발표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 중 하나'라고 언급

#### ○ 美 공화당 중진, '北 핵프로그램 중단 믿을 수 없다'고 지적

(2.29 AFP통신)

- 美 공화당 소속 중진들이 '미국 영양지원의 대가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약속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북한과 합의한 美 정부를 비난
-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美 공화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장), 북한과의 합의는 실패한 과거 합의와 매우 비슷함.
- 북한에 미신고 핵시설이 존재한다고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핵활동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액면가 그대로 믿어서는 안됨.
- '북한은 우리 코앞에서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
- 「에드 로이스」(美 공화당 소속 하원 비확산소위원장), 북한에 속아온 수년은 북한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움을 보여줌.

- '군부가 지원식량을 빼돌리는 북한에서 식량 분배나 비핵화도 검증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

## □ 일본어권

### ○ 「젠바 고이치로」 외무상 기자회견(3.1 외무성)

- 이번 美·北합의가 日·北협상 재개에 미칠 영향과 日·北협상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당장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지만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으며,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 미국과 북한의 플루토늄 중단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 관련, '생각이 다른 점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나 큰 차이같지는 않다.'
- '이번 합의는 모든 핵관련 시설 중단으로 가는 중요한 스텝이며, 향후 모든 핵관련 시설 중단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

## □ 러시아어권

### ○ 러시아 외무부, 美·北회담 결과에 관한 논평(3.1 외무부 홈페이지)

- 美·北간 회담 결과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 등의 유예,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통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 환영
- '6자회담 참가국들의 노력으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고 논평

### ○ '美·北합의에 대한 성급한 평가는 지양해야'라고 보도

(3.1 이타르타스)

- 러시아 전문가들, '이번 美·北합의는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임.'
- 하지만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

□ 중국어권

- 2.28~29일 北 신의주시 청년동맹대표단 4명 단동 방문  
(2.29 中 단동시정부)
- 2.23일 中·北 정부間 과학기술 연합위원회 제45회 회의 개최  
(2.29 中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 중국 과학기술부 국제협력사 「상슈」참사관과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외과학기술 협력국 「최배덕」국장이 공동으로 회의 진행
  - 양측은 회의를 통해 '새로운 분야 개척, 새로운 방식 모색으로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힘쓰자'고 합의



## 붙임 1.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원문 (2.29)

美 국무부 홈페이지

### “Opening Remarks by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Before the Hous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 o Before I begin, I want to say a few words about North Korea. And with your permission, I want to just share with you the statement that we just put out. We are looking to a continuing effort and we have completed a third exploratory round of U.S.-North Korean bilateral talks to improve the atmosphere for dialogue and demonstrate it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has agreed to implement a moratorium on long-range missile launches, nuclear tests, and nuclear activities at Yongbyon, including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 o The DPRK has also agreed to the return of IAEA inspectors to verify and monitor the moratorium on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and confirm the disablement of the five-megawatt reactor and associated facilities.
- o Now, the United States, I will be quick to add, still has profound concerns, but on the occasion of Kim Jong-il's death, I said that it is our hope that the new leadership will choose to guide their nation onto the path of peace by living up to its obligations. Today's announcement represents a modest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We, of course, will be watching closely and judging North Korea's new leaders by their actions.
- o We also have agreed to meet with the North to finalize administrative details necessary to move forward with a proposed package of 240,000 metric tons of nutritional assistance along with the intensive monitoring required for the delivery of such assistance.
- o Now, this is just one more reminder that the world is transforming around us, from Arab revolutions to the rise of new economic powers to a more dispersed by still dangerous al-Qaida terrorist network to nuclear diplomac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time, onl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the reach, the resources, and the relationships to anchor a more peaceful and prosperous world.

## 붙임 2. AFP통신 보도 원문 [2.29]

AFP통신 홈페이지

“Republicans criticize US, N. Korea deal”

- o Republican lawmakers Wednesday criticized President Barack Obama and warned that North Korea was not to be trusted after it promised to suspend its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US food aid.
- o Representative Ileana Ros-Lehtinen, head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and a staunch critic of communist countries, said that the North Korea agreement "sounds a lot like the failed agreements of the past."
- o "North Korea's promise to suspend certain nuclear activities can't be taken at face value, given the almost certain existence of several undeclared nuclear facilities," she said in a statement.
- o "Pyongyang will likely continue its clandestine nuclear weapons program right under our noses. We have bought this bridge several times before."
- o Representative Ed Royce, a Republican who has long sought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said that the death in December of longtime leader Kim Jong-Il should have prompted a "rethink" in policy toward the authoritarian state.
- o "Years of getting duped by North Korea should tell us that verification on their turf is extreme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said Royce, who heads a House subcommittee on non-proliferation.
- o "That applies to food aid distribution, where the military has stolen food aid, or nuclear disarmament," he said.

## 붙임 3. 일본 겐바 외무상 기자회견 원문 (3.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外務大臣会見記録（平成24年3月1日（木曜日）”

- o 今回の米朝の結果が日朝交渉の再開に与える影響と日朝交渉をどうしているかという二つをお伺いします。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日朝の話は、昨日も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我々としては直ちに日朝間の対話を行うという状況に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けれども、引き続いて対話の窓は開いていますし、適当な時期、適当な方法といったものを対話の場合は考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
- 米国側の発表文には、プルトニウム型の停止についても明記されているのですが、これは北の発表文にはないのですが、これについての受け止めをお願いします。
- 米国側からは既に、担当者が来日をされたときに局長が詳細な説明を聞いております。北朝鮮の発表文も聞いておりますけれども、特に齟齬がある部分も部分的に私(大臣)はあるというように思っていますが、今の点についてはそんなに大きな齟齬で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というようには私(大臣)は思っています。
- 今回の北朝鮮の約束というのは、六者協議の長い間の中で、特に真新しいものではなく、それにもかかわらず食糧支援を引き出したという点において、瀬戸際外交の続き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もありますが、大臣はこれについて、どうお考えでしょうか。
- 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具体的行動が確保されたわけではないのです。ですから、まさに一歩、ワンステップだというように私(大臣)は考えていまして、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モラトリアムですし、いわば一時停止の状況です。そして、調整が引き続き必要ですし、細部の詰めも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ただ、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では大きな流れの中で前向きの流れなのか、全くそうではないのかと言ったら、それはやはり、重要な一歩だという認識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もちろん、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何度も申し上げますが、具体的行動が確保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が非常に大切なことだというように思います。
- 米国政府による食糧支援というのは、本来でしたら人道目的だったはずですが、今回は完全に核問題の協議の取引材料となっているという側面があると思います。この点、健全であるというよ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
- まず一つは、食糧というより栄養支援であるというように思っています。これは基本的に米国と北朝鮮との間での話だというように考えていまして、やはり大事なことは非核化等に関する北朝鮮の具体的な行動を確保することにつなが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より重要なのではないかとというように考えています。
- 今回の合意では、ウラン濃縮活動の停止の対象として言及があったのは寧辺(ヨンビョン)の核施設だということで、本来であればその他にあるであろうと疑われている核施設への立ち入り、最終的には追加議定書レベルでのチェックが行われなければ核開発の検認・監視ができていたとは言い難いという指摘がなされて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いますが、今回寧辺（ヨンビョン）だけに言及があっ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大臣は今回の合意が十分なものであるというよ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

- まさに重要な一歩であり、土台となることを期待したいということです。おっしゃるとおり、我々の目標は全ての核関連施設の停止であります。つまりは、朝鮮半島の完全かつ検証可能な非核化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我々の目標は全く変わっていません。ただ、そのための重要なステップであり、今後全ての核関連施設の停止に至るための土台と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 붙임 4.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원문 (3.1)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Комментарий МИД России”

- Мы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восприняли результаты третьей встречи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ША и КНДР. Особо приветствуем решение КНДР ввести мораторий на испыт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пуск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на обогащение урана...
- ...предпринимаемые участниками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степенно приближают нас к их возобновлению.

## 붙임 5.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사 원문 (3.1)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사 홈페이지

“Новый лидер в КНДР - новая ядерная политика?”

- Ряд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ые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ят за действиями нового лидер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объявление 29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사 홈페이지

февраля как свидетельство того, что Ким Чен Ын начал уделять приоритетное внимание "деликатным отношениям с США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 Более того, некоторые эксперты со значительной осторожностью отнеслись и к последнему по времени согласию Пхенья на на предложенные Вашингтоном условия. Дело в том, напоминают они,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цы уже не раз в прошлом нарушали обещания, данные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сообществу.
-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что самое мудрое в данной ситуации - не давать скоропалительных категоричных оценок дей ствительн о важному событию в дел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 ского пол уострова.

**붙임 7. 中 단둥市 정부 홈페이지 게시 [2.29]**

중국 단둥시 정부 홈페이지

“朝鲜新义州市青年同盟代表团到丹东考察”

- 2月28日, 应丹东团市委邀请, 朝鲜平安北道新义州市金日成社会主义青年同盟代表团一行四人来丹进行为期两天的考察访问。
- 丹东市委常委、宣传部长宋立跃会见了代表团一行, 并对他们的到来表示欢迎。宋立跃表示, 通过促进两市青少年之间的交流, 可把朝方文学艺术方面的人才引到丹东来, 也可以把丹东的艺术精品通过交流考察的方式宣传出去, 增进两市、两国之间的友谊。考察期间, 代表团参观了市青少年宫、丹东二中等青少年教育活动场所。

**붙임 6. 中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게시 [2.29]**

중국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中国朝鲜政府间科技合作联委会第45届会议召开”

- 2月23日, 中国朝鲜政府间科技合作联委会第45届会议在北京顺利召开。科技部国际合作司参赞汤庶率团出席, 并与朝鲜国家科委对外科技合作局局长崔培德共同主持了会议。

중국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自中朝政府间科技合作协定于1957年签署以来，两国科技合作与交流稳步发展，并不断取得新的成就。科技合作已成为两国友好合作关系的重要组成部分，双方通过定期召开联委会、互派科技考察团组等形式，增进相互了解，开拓合作领域，为促进两国科技、经济的发展，为增强两国人民的传统友谊做出了积极贡献。



- 会上，双方分别就两国科技政策和科技发展最新情况作了简要介绍，就第44届联委会议定书项目的执行情况进行了总结，并确定了两国新一批科技合作与交流项目。双方一致认为，通过本次会议，两国科技主管部门加强理解与沟通，将进一步深层次、宽领域地扩大合作。双方表示将不断拓展新领域、探索新方式，推动两国科技合作稳步务实发展。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2010년 이란이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 제기

(3.4 Die Welt 德일 일간지 / 3.4. PJMedia 美 인터넷언론사)

- 「Hans Rühle」 ('82~'88년 독일 국방부 기획국장 재직), 서방 정보 기관들이 탐지한 2010년 北에서의 2차례 핵실험 중 한차례 또는 두차례 모두 이란측의 핵실험일 가능성 있음.
- 「Lars-Erik de Geer」 스웨덴 핵물리학자, 북한이 2010년 비밀리에 두차례 핵실험을 한 이유가 2006, 2009년과 같이 플루토늄 무기 실험이 아닌 농축우라늄 실험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2.3 네이처誌)한 바 있음.
- 그러나, 「Hans Rühle」은 '북한이 이란을 위해 핵실험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욱 크며, 지난 수년간 정보기관들이 북한과 이란間 핵실험 준비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탐지해왔었다'고 주장
  - \* 이란 혁명수비대원이자, 前CIA 첩보원으로 활동한 「레자 키릴리」가 2010.12.30 <Fox News>에 북한이 이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북한에서 이란과 공동 핵실험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란 핵 과학자들이 北에 파견되었다고 기고

#### ○ '美·北 협상' 관련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3.2 美 CNN)

- 북한은 임시로 핵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지만 결국 손을 떼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평화적 목적으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려고 할 것임.
- 이번 합의로 김정은이 국제사회와 좋은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핵활동 유예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목표와는 거리가 있음.
  - \* 「빅터 차」(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실장 / 前 NSC 아시아담당 국장), 「엘렌 킴」 / 「마리 듀몬드」(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등 기고

## □ 일본어권

### ○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 인터뷰 TV 방영(3.3 아사히신문)

- 「김한솔」이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3.1)에서
- △'대학진학 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그 경험을 대학에서 살리고 싶다', △'전 세계에서 유학 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며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생활에 비해 보스니아에서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다', △'국제 감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공유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다'고 언급

\* 김한솔은 2011.10월부터 보스니아 남부 '유나이티드월드칼리지 모스타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음.

### ○ 中, 김정은 체제하 첫 북한 노동자 수용(3.3 교도 통신)

- 中 연변조선족자치주, 이르면 3월중 북한 노동자 200~300명 수용할 예정으로 김정은 체제하 중국으로의 근로자 파견이 밝혀진 것은 최초임.
- 중국에서의 취업이 중요한 외화획득원이 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 북한의 對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 러시아어권

### ○ 푸틴 정권하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제기

(3.1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 일간지)

- 1975년도부터 러시아 북부지역 산림조성에 대한 북한 노동력 활용 관련 긍정적·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향후 상호협력의 지표가 될 것임.
- 향후 농업분야 프로젝트의 발전전망을 기대하며, 양측 간 구축된 △상호관계, △노하우, △인적자원, △과학 잠재력이 향후 협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
- 북한노동력 활용 관련, '북한에 아무르주 토지를 내주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산림(목재가공)부문에서 이루어졌던 방식과 같은 공동의 협력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방식이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도

## □ 중국어권

### ○ 中 외교부장 訪韓 관련 신화사, CCTV 인터뷰(3.2 외교부 홈페이지)

- 「양제츠」외교부장,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국제 사회와 함께 6자회담의 조속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고 언급



## 붙임 1. PJMedia 보도 원문 (3.4)

PJMedia 홈페이지

“Did Iran Test a Nuclear Bomb in North Korea in 2010?”

- o The Sunday morning edition of Germany's Die Welt reports that Western intelligence agencies detected two nuclear weapons tests in North Korea in 2010, and that one or both of them might have been conducted for Iran.
- o Rühle, who headed the German Defense Ministry's policy planning staff during the peak of the Cold War in the 1980s, deplores the “credulousness of Western experts” who accept Iran's protests that its nuclear program is peaceful. Many Western experts still give credence to these representations. Despite numerous indications to the contrary, they give Ira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rguing that a nation's intent to weaponize nuclear power is not proven until it has carried out a nuclear test. But what if Iran had already tested a nuclear weapon, and not on Iranian territory, but in a place where nuclear tests are conducted without regard for world opinion, and where nuclear expertise and technology have long been exported in exchange for hard currency payments - in North Korea?
- o Evidence of the 2010 nuclear tests in North Korea was published Feb. 3 in Nature magazine, citing the work of the Swedish nuclear physicist Lars-Erik de Geer. The Swedish scientist analyzed data showing the presence of radioisotopes that betrayed a uranium bomb explosion. De Geer took the radioisotope data and compared them with the South Korean reports, as well as meteorological records. Nature reports, “After a year of work, he has concluded that North Korea carried out two small nuclear tests in April and May 2010 that caused explosions in the range of 50 -200 tonnes of TNT equivalent. The types and ratios of isotopes detected, he says, suggest that North Korea was testing materials and techniques intended to boost the yield of its weapons.”
- o But why should North Korea keep the nuclear tests secret? asks Rühle. North Korea proudly advertised its previous nuclear tests. But the North Korean tests of 2006 and 2009 used bombs with a plutonium core. The 2010 tests, according to Lars-Erik de Geer's calculation, employed enriched uranium. North Korea might have secretly enriched uranium on a sufficient scale to produce sufficient explosive material for two test bombs. But the more likely explanation is this, Rühle concludes: The second explanation would be that North Korea conducted a nuclear test for a foreign entity, in this case, an Iranian explosive. That would be a sensation, although not quite a surprise, to be sure. Intelligence services have observed a close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n and Iranian experts over a period of years for the preparation of a nuclear test, although the previous assumptions centered on the prospect of an underground nuclear test in Iranian territory.

## 붙임 2 美 CNN 보도 원문 (3.2)

### 美 CNN 홈페이지

“The price of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 o However, beyond these tactical solutions are longer-term strategic challenges.
- o First, North Korea may temporarily halt their program, but the grim reality is that it will not part with it.
- o Second, the IAEA inspectors will go into the facilities without a suppor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declaring that the uranium program is in violation of standing denuclearization agreements. (China opposed this.)
- o So while the United States will see this move as monitoring a freeze, North Korea will see it as valida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 only has peaceful intentions with its uranium program.
- o Third, it is too soon to tell whether this agreement means the junior Kim is turning over a new leaf and seeking to make nice with the world.
- o Fourth, the slightest opening up of this brittle dictatorship under the untested son will ensure that it comes crumbling down -- something for whic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outh Korea are wholly unprepared.
- o Fifth, a nuclear freeze is a long way from the denuclearization objectives sought in the 2005 agreement at the so-called Six-Party Talks.
- o Indeed, one of the unmet U.S. "pre-steps" for returning to the Six-Party Talks was a commitment by the North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such as the 2010 submarining of a South Korean navy ship and artillery shelling of a South Korean island.

## 붙임 3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 원문 (3.3)

###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金正男氏の息子「ボランティア活動したい」 東欧TVに”

- o 「ボランティア活動がしたい」――。北朝鮮の故・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長男正男（ジョンナム）氏の息子で、旧ユーゴスラビアのボスニア・ヘルツェゴビナに留学中のキム・ハン솔さん（16）が、1日に放送されたテレビのインタビューで将来の夢などを語った。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 昨年10月からボスニア南部モスタルの国際学校に通っているハンソルさんが登場したのは、中東の衛星テレビ局アルジャジーラのバルカン地域向けの番組。「世界中から留学している友人たちの話を聞くうちに、自分の中で気持ちが変わり始めている。新しい考えが出てきた」と滑らかな英語で答えた。
- 祖国・北朝鮮や父親の正男氏と過ごした中国での暮らしに比べ、ボスニアでは「地域社会とその関わりの大切さを学んでいる。国際感覚を持って異なる考えを共有し、様々な視点から世界を見ている」と話した。
- 将来の進路について「大学進学前にどこかでボランティア活動に取り組んでみたい。その経験を大学でいかしたい」とも語った。
- ハンソルさんは北朝鮮と歴史的に交流が深いボスニアのビザ発給を受け、同校で2年間学ぶ予定。昨年12月の金総書記死去の発表の際は冬休み中でボスニアを離れていたが、新学期で学校に戻ってきたとみられる。

## 붙임 4.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3.3)

일본 교도통신 홈페이지

“中国、北朝鮮の労働者受け入れへ 金正恩体制では初 ”

- 北朝鮮と国境を接する中国吉林省延边朝鮮族自治州で、北朝鮮労働者2000~3000人の受け入れが3月中にも開始されることが3日、州関係者の話で分かった。北朝鮮の新指導者、金正恩氏の体制下で、中国への労働者派遣が明らかになるのは初めて。
- 中朝国境地帯の遼寧省丹東市の縫製工場では、金正日総書記時代から既に千人を超える北朝鮮労働者が働いているとされる。今回、新たに吉林省への労働者派遣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は、正恩氏の新体制でも中国での就労が重要な外貨獲得源となっている実態を浮き彫りにし、北朝鮮の対中依存の深まりを示したといえそうだ。

## 붙임 5. 러시아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원문 (3.1)

러시아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신문 홈페이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сосед, с ней нужно дружить"

러시아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신문 홈페이지



○ Премьер в статье говорит о важности развития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 КНДР, а ведь у Приамурья сегодня наблюдаются явные подвижки в этом вопросе.

○ КНДР - это наш сосед. И здесь самое важное то, что с соседями надо дружить, хотим мы этого или нет! Второе - это то, что примерно с 1975 года в север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использовали труд корейских лесозаготовителей.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есть как положительные, так и отрицательные моменты, но это показатель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егодня проглядываются серьез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в этом вопросе. Есть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оекты. И я убежден, работать с КНДР нужно, поскольку есть связи, есть опыт, есть люди и есть научный потенциал, который сможет помочь в процесс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НДР 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

○ Предлагаю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КНД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ейчас очень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К примеру, мы регулярно отправляем детей в корейский лагерь. Также хорошо нам может послужить их трудолюбие. Я не говорю о том, чтобы отдать амурские земли корейцам, но совмест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акое уже ведется в сфере деревообработки, несомненно, принесет большую пользу области.

**붙임 6. 中 외교부 홈페이지 게시 원문 (3.2)**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杨洁篪外长谈对印度、韩国进行正式访问”

○ 2012年2月29日至3月2日, 中国外交部长杨洁篪对印度和韩国进行了正式访问。在结束访问时, 他接受了新华社和C的采访。

二、您此次访问取得了哪些成果？

○ 访问韩国期间, 我同韩方就首尔核安全峰会有关议题和成果等交换了意见。中方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支持韩方举办此次峰会，愿配合韩方做好峰会筹备工作。

- 我同韩方还就朝鲜半岛形势交换了看法，双方一致认为维护朝鲜半岛和平稳定，实现东北亚地区长治久安，符合有关各方共同利益。双方同意共同为此作出努力。双方愿同有关各方和国际社会一道，共同致力于创造条件，早日重启六方会谈。

三、您如何看待中印、中韩关系的发展前景？

- 中方高度重视中韩关系，始终将发展对韩关系放在周边外交的重要位置。今年是中韩关系承前启后、继往开来的重要年份，双方迎来建交20周年暨“中韩友好交流年”，两国合作面临新的发展机遇。我们愿同韩方一道，继续增进双方战略互信，深化经贸合作，密切人文交流，加强在国际和地区重大问题上的协调与合作，推动中韩合作不断取得新进展，更好地造福于两国和两国人民。

“杨洁篪同韩国外长金星焕会谈”

- 关于非法入境朝鲜人问题，杨洁篪强调，中方一直按照国内法、国际法和人道主义原则处理相关问题，希望韩方重视中方的立场和关切。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美 브루킹스 연구소, 美의회 탈북자 청문회에 탈북자 송환 증언 제출

(3.5 美 브루킹스 연구소)

- 「로버타 코헨」 美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은 탈북자를 송환 대상인 불법 경제 이주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국제 난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 그 이유는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정치적·사회적·종교적 박해자이며, △생계형 탈북자들도 정치적 박해로 간주할 수 있는 국가 경제 정책으로 인해 월경했을 경우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고, △거의 모든 탈북자가 현지체제 중 난민(refugees sur place)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주장
  - \* UNHCR은 국적국에서 나올 때는 난민이 아니더라도 귀국시 박해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난민이 되는 경우 'refugees sur place'라고 규정함.
  - \* 「안토니오 구테레스」 UNHCR 고등판무관이 2006년 방중시 중국 관료들에게 refugees sur place를 언급하며 난민 심사 절차 없이 귀국시 처벌될 수 있는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난민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 UNHCR은 중국측에 탈북자들에게 임시 문서 취득, 서비스 접근, 강제 송환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한 특별 지위 부여를 제안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중국은 동의하지 않고 있음.
  - \* 중국은 베트남을 포함한 타국 난민 중국내·외 재정착에 관해서는 UNHCR에 협조하는 반면 북한 관련해서는 거부하고 있음.

### □ 중국어권

#### ○ '중국, 김정은이 아닌 북한 주민의 이웃'으로 보도(3.5 홍콩 봉황위성 TV)

- '중국은 국제 사회에 중국이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이웃임을 밝혀야 하고, 중국은 북한 주민을 위한 정책 外에는 김정은의 모든 정책을 支持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 □ 일본어권

### ○ '최근 평양의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간 30배 격차 발생'(3.2 교도통신)

- 최근 김정은 체제 이후 평양을 방문한 교도통신 「이노우에」 기자는 르포를 통해 '2월 현재 평양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미 달러貨의 환율이 공식 환율과 대비하여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도
- 호텔 등에 표시된 28일자 공식 환율은 1달러=98.90원이나, 보통강 상점에서 꿀 1병의 표시 가격은 4,500원이지만 2달러를 주고 구입할 수 있었고, 결국 1달러=2,250원임.
  - \* 「보통강 상점」처럼 김정일이 현지지도한 상점조차도 거래 가격이 크게 차이나고, 반찬과 군고구마를 파는 상점에서는 1달러=3,500원으로 공식 환율과 약 35배 차이 발생
- '평양 시민의 월급은 약 3천~5천원 정도이며, 평양의 모든 상점에서 거래시 외화 지불이 가능하고, 달러·위안·엔·유로貨가 널리 유통된다고 보도

## □ 러시아어권

### ○ 아무르州 주지사의 '북한측에 농지임대 계획 부인' 관련 분석기사 보도(2.29 코메르산트 하바로프스크 지역 일간지)

- 지난 2월말 「올렉 코제마코」(아무르州 주지사)가, '단 1헥타르의 토지라도 외국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계획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 「에프게니 조토프」(연해주입법의회 농업정책·자원개발 위원장), '연해주 땅은 지역민들이 개발해야 하며 외국에 농지를 임대해주면 안그래도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이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주지사 발언 지지
- 「나탈리아 주바레비치」(사회정책 독립연구소 지역프로그램 소장), '주지사의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하려는 발언이다. 노동가능 인구가 적은 연해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일을 해왔다'라고 언급
  - \* '극동지역 농지개발은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동북아 지역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몽상이며, 결과적으로 극동지역의 가능한 파트너는 이웃 국가가 될 것임. 사업은 농지 장기임대를 통한 국경인접 지역으로의 소규모 수출 또는 내수 방식이 될 것임.'이라고 추가 전망

## 붙임 1. 美 브루킹스연구소 증언제출 원문(3.5)

### 美 브루킹스 홈페이지

- o Although China claims that North Koreans in its country are economic migrants subject to deportation, we submit that North Koreans in China should merit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 o First, a definite number of those who cross the border can be expected to do so out of a well founded fear of persecution on political, social or religious grounds. It is well known that in their own country North Koreans suffer persecution if they express or even appear to hold political views unacceptable to the authorities, listen to foreign broadcasts, watch South Korean DVDs, practice their own religious beliefs, or try to leave the country. Some 200,000 are incarcerated in labor camps and other penal facilities on political grounds. Moreover, North Koreans imprisoned for having gone to China for food or employment often try, once released, to leave again. Some conclude they will always be under suspicion, surveillance and persecution in North Korea and therefore cross the border once again, this time seeking political refuge, ultimately in South Korea.
- o Second, those who cross the border into China for reasons of economic deprivation, probably the majority, may also qualify as refugees if they have been compelled to leave North Korea because of government economic policies that could be shown to be tantamount to political persecution. These North Koreans are not part of the privileged political elite and therefore have insufficient access to food and material supplies. In times of economic hardship in particular, food is distributed by the government first to the army and Party based on political loyalty whereas many of the North Koreans crossing into China during periods of famine are from the “impure,” “wavering” or “hostile” classes, which are the poor, deprived lower classes, designated as such under North Korea’s songbun caste system.[2] Their quest for economic survival could therefore be based on political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Examining such cases in a refugee determination process might establish that certain numbers of North Koreans crossing into China for economic survival merit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 o Third, and by far the most compelling argument why North Koreans should not be forcibly returned is that most if not all fit the category of refugees sur place. As defined by UNHCR, refugees sur place are persons who might not have been refugees when they left their country but who become refugees “at a later date” because they have a valid fear of persecution upon return. North Koreans who leave their country because of economic reasons have



美 브루킹스 홈페이지

valid reasons for fearing persecution and punishment upon return. Their government after all deems it a criminal offense to leave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and punishes persons who are returned, or even who return voluntarily. North Koreans in China therefore could qualify as refugees sur place.

- o The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tonio Guterres in 2006 while on a visit to China raised the concept of refugees sur place with Chinese officials. He told them that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s without any determination process and where they could be persecuted on return stands in viol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To UNHCR since 2004, North Koreans in China without permission are deemed "persons of concern," meriting humanitarian protection.[3] It has proposed to China a special humanitarian status for North Koreans, which would enable them to obtain temporary documentation, access to services, and protection from forced return. To date, China has failed to agree to this temporary protected status.
- o While China has cooperated with UNHCR in making arrangements for Vietnamese and other refugees to integrate in China or resettle elsewhere, it has refused to cooperat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s.

**붙임 2.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3.5)**

PJMedia 홈페이지

“阮次山：中国是朝鲜人民之友 而非金正恩之友 ”

- o 阮次山：从我们中国的观点来看，我们对于金正恩，我们必须很仔细地了解他的背后，他的背后跟我们的关系何在？我们是不是愿意向全世界说，我们是支持他的政权的。
- o 所以我觉得，可能我们刚才讲的中国在叙利亚问题上（展示）我们的立场，我们在朝鲜问题上，我们也要向全世界的各个国家展示一个立场，就是（说）中国不是金正恩之友，我（们）是朝鲜人民之友。
- o 所以并不是金正恩所有的政策我中国都支持，除非金正恩所有的政策都是为朝鲜人民的福祉，那我支持他。我赞成朝鲜人民要自己处理自己的问题，可是呢，如果金正恩没有在这个问题上顾及到朝鲜人民的利益，我中国——就像我们上次讲——绝不会送他一张空白指标。

朱茵：所以7号中日韩在北京有一场高级别的会谈，不知道中国会不会有机会来表明这个立场。

## 붙임 3.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3.2)

### 교토통신 홈페이지

“【ルポ/金正恩体制下の平壤】(3)北朝鮮経済/ 卓球 2 ドル、出回る外貨  
平壤市内、格差拡大も”

- 核問題による経済制裁や慢性的な食糧難にあえぐ北朝鮮。首都平壤（ピョンヤン）では2月、自国通貨ウォンの実勢と公定レートの間には最大で30倍以上の開きがあり、多くの市民が米ドル札を手に外国製の家電製品を購入したり、時間貸しの卓球を楽しんだりしていた。しかし、外貨を持たない市民らの生活は厳しくなる一方だ。

#### ▽闇レート

- 「どのお店でも外貨で支払えます。なぜ朝鮮のお金が必要ですか？」
- 外国人や在日朝鮮人も多く宿泊する平壤駅近くの高麗（コリョ）ホテル。ちょっとした買い物のために少額でいいからと粘っても、フロントの女性従業員は両替に応じなかった。
- 平壤市内ではドルだけでなく、中国人民元や円、ユーロも広く流通しているが、自国通貨への両替を拒まざるを得ないのには理由がある。額面と実勢レートとの間に大きな乖離（かいり）が生じているからだ。
- ホテルなどに表示されていた2月8日の公定レートは1ドル=98・90ウォン。しかし、北朝鮮側の案内で訪れたスーパーマーケット「普通江（ポトンガン）商店」では、蜂蜜1瓶の表示価格は4500ウォン。ドルで支払うと2ドルだった。1ドル=2250ウォンの計算だ。
- 店の出入り口には「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同志が現地指導された商店」とのプレートが誇らしげに掲げられている。金総書記が視察した店でさえ自国通貨を公式レートと大きく異なる価格で扱っていることになる。
- 総菜や焼き芋を売る店では1ドル=3500ウォンと公定レートと約35倍の開きだったという。「国の生産力が落ち、闇ではひどく安く扱われている」。平壤を訪れた在日朝鮮人男性は表情を曇らせた。

#### ▽価格競争

- カメラやコンピューター、テレビや冷蔵庫といった家電製品を扱う専門店では、市民らがドルを手に会計窓口にも並ぶ。中国製が多いが、「日本製」とシールが貼られたデジタルカメラも。価格表示をメモしようとする店員か

## 교토통신 홈페이지

ら制止された。「他の店との価格競争がありますから」(平壤市民)。店内には価格引き下げの広告が張られていた。

- 「カードはない。現金で」。ピラミッドのような形をした柳京(リュギョン)ホテル近くの商業施設で、女性連れの男性が卓球台1時間の料金として財布から2ドルを取り出した。
- カードとは外貨を入金するプリペイド式の「電子決済カード」。別の施設の女性店員は「政府はなるべく現金の流通を減らそうとしている」と説明。外貨普及で育つ“市場経済”を管理しようと、政府が躍起になっ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

## ▽格差

- しかし、平壤市民の誰もが十分な外貨を持っているわけではなさそうだ。「割り込まないで」。通りがかった商店では、配給券が配られた直後とみられる住民らが詰め掛け、焼き菓子のために長い列をつくっていた。
- 平壤市民の正式な月給は3千~5千ウォン程度。「貿易とか商売をやっている外貨へのアクセスがあるかどうかで、生活が左右される」。市民らは何らかの方法で月給以外の収入を得ているとみられるが、平壤の外交筋は外貨の有無で生活水準に大きな格差が生じていると指摘する。
- 配給で足りない分は自前で補うしかないが、コメなどは市場での取引が認められていないため闇価格は高騰。平壤のある30代女性は「コメの配給量は十分ではないが、最近はパンなどで済ませることも多い」と、経済制裁に適應して食生活も変化していると語った。

## 붙임 4 러, 코메르산트 하바로프스크 원문 (2.29)

## 러시아 코메르산트 하바로프스크 신문 홈페이지

“Власти регионов высказываются  
против аренды сельхозземель иностранцами”

- Губернатор Приамурья Олег Кожемяко выступил против передач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угодий в аренду иностранцам. Хотя ранее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общало, что совместно с КНДР подготовлен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сельхозпроект». Тем

러시아 코메르산트 하바로프스크 신문 홈페이지

не менее, федеральные власти собираются на форуме АТЭС -2012 представить около 20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по освоению инвесторам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ельхозугодий некоторых регионов ДВФО. Эксперты называют эти планы утопией, по их мнению, после выборов эти земли сдадут в аренду ближайшим соседям России.

- Приморские законодатели солидарны с господином Кожемяко. Прежде чем привлекать иностранцев, нужно сначала создать приморцам условия для работы на земле, счита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и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ю приморского заксобрания Евгений Зотов. «На этой земле, по-хорошему,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сельские жители Приморья.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край не мало рабочих мест. Есл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иностранцы, то я уверен, они будут привлекать своих сограждан, а приморцы останутся не у дел».
- Директор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независимого института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Наталья Зубаревич считает, что заявление приамур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следу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 контексте предстоящих выбор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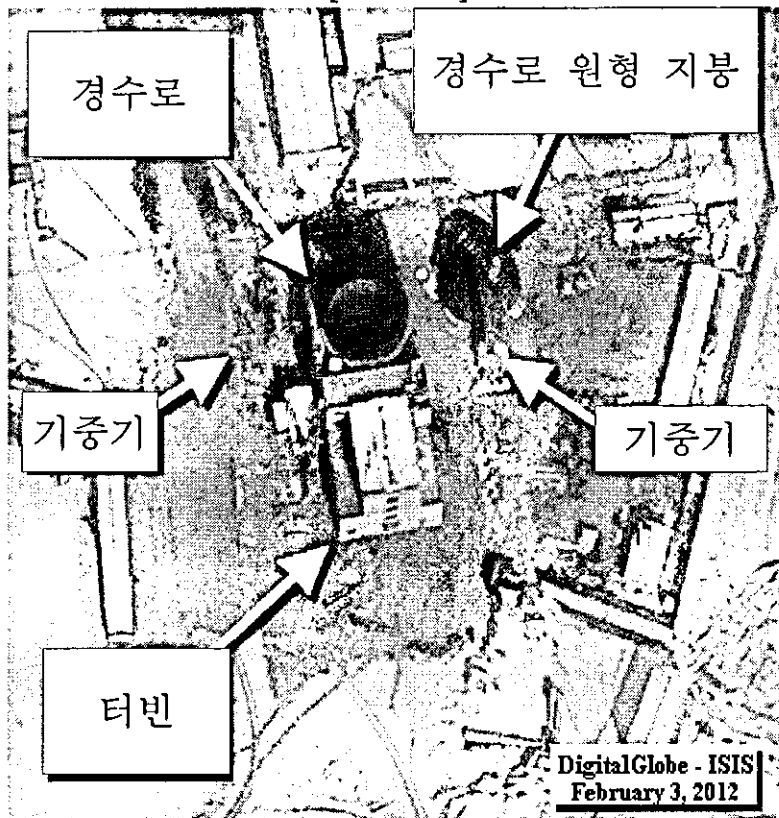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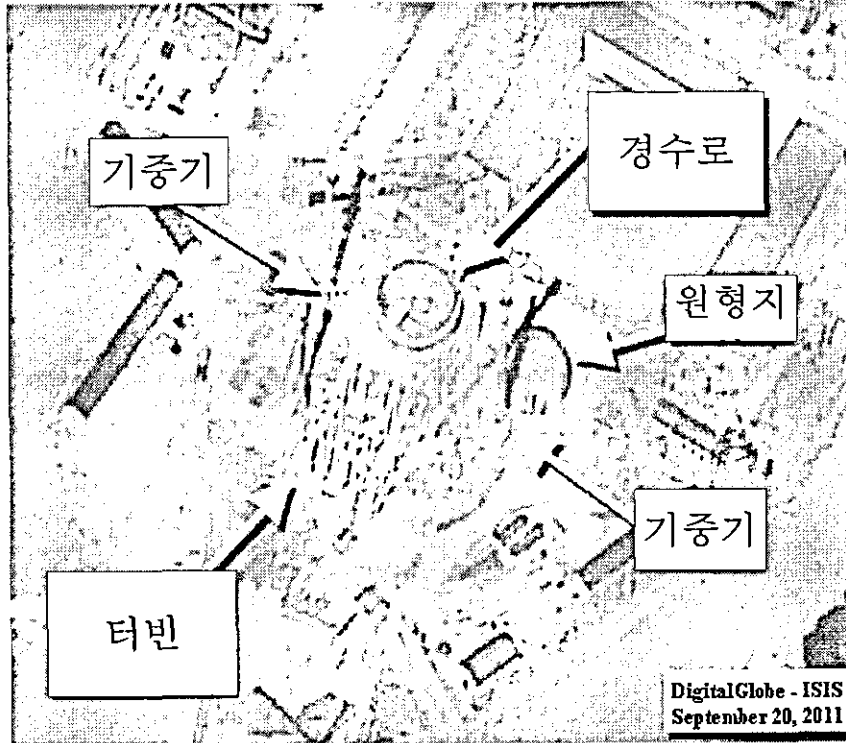
○ 北 영변 핵시설 경수로 건설 진척(3.5 美 ISIS 보고서)

- 미국의 핵 관련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서, 23일 촬영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을 근거로, 경수로 건설이 진척을 이룬 것으로 보임.
- 경수로 터빈 건물이 외형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나(사진#1), 경수로 건물의 원형 지붕은 아직 건물 옆 지상에 남아있음.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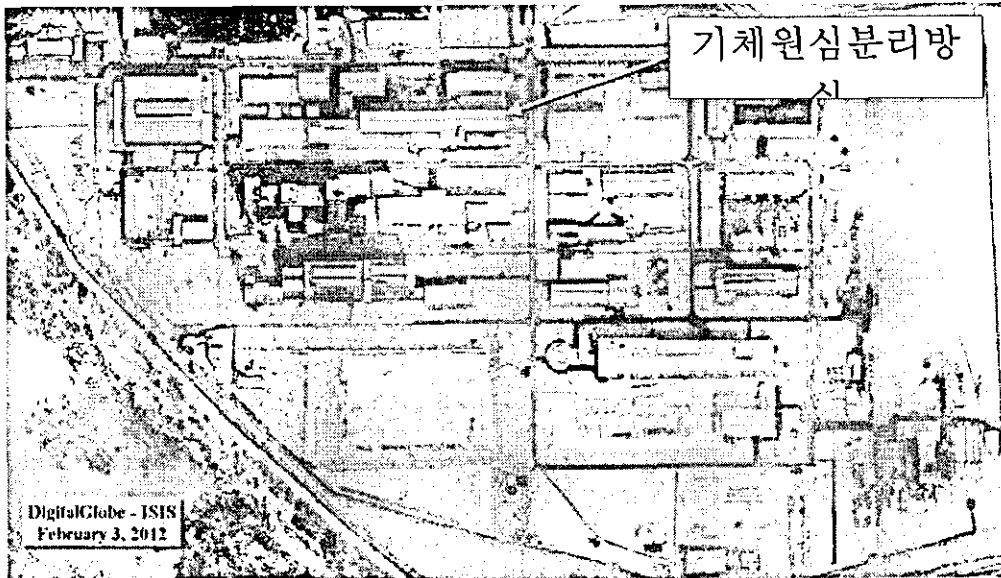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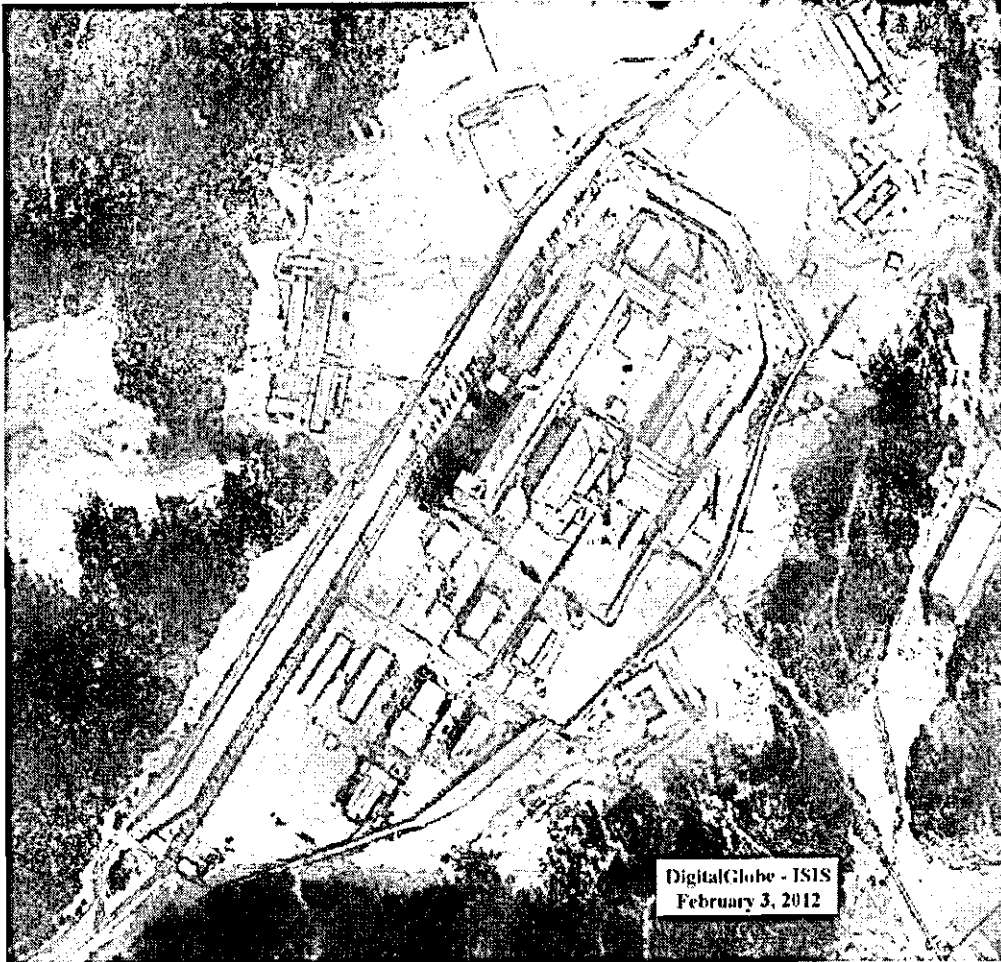
- 2011.9.20일 촬영된 위성사진은 터빈 건물이 여전히 건설 중인 것을 보여줌. (사진#2)

[사진 #3]



- 기체원심분리 방식의 우라늄농축공장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에 위치한 연료가공공장의 모습임.

[사진 #4]



- 사진#4는 영변 핵시설에 위치한 재처리공장의 모습임.

## □ 중국어권

### ○ '美·北관계 진전은 첫걸음일 뿐'

(3.5 광명일보 ⇨ 중앙 黨報 / 「리우웨이등」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연구원 사설)

- '제3차 美·北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합의한 내용은 잠정적 핵실험 중단이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약속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
- '△미·북회담, △6자회담 재개, △각국의 공동선언문 발표, △최종 약속이행의 순서로 이뤄져야 완전한 핵문제 해결 가능'
-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완전한 핵문제 해결을 낙관하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 '美·北 합의 후속회담에 대한 전망' (3.1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알렉세이 아르바토프」(러시아과학아카데미 국제안보센터소장), '북한의 대화 이유는 식량난 뿐 아니라 서방의 새로운 제거대상이 되지 않지 않으면서 김정은의 정책추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언급
  - \* '합의내용 이행 및 핵무기 포기·NPT체제 복귀 논의를 위해서는 각국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접어두고, 북한에 先체제보장을 약속하고 기술지원 및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
- 「콘스탄틴 아스폴로프」(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핵문제 뿐 아니라 에너지·경제지원, NPT체제 복귀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라고 언급
  - \*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 반면, 일부 국가가 6자회담을 북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양자회담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 중국, 對北무역 수출입 총액 약 56억 달러 (3.6 교도통신)

- '중국 세관총서(수출입 관세 감독·관리기관)가 3.6일 공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對北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62.4% 증가한 56억 3940만 달러로 2010년에 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
- '경제 제재 등으로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남.'
- '중국의 對北수출액은 39%증가한 약 31억 6475만 달러이며, 수입은 107.2% 증가한 약 24억 7464만 달러'라고 보도

### ○ 中·北 국경에 「국제협력모델지구」 건설 구상 (3.6 교도통신)

- 「장안순」(연변조선족자치주 공산당위원회 서기), '훈춘시에 국제협력모델 지구를 설치해 물류와 관광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언급
  - \* 모델 지구는 약 90km<sup>2</sup>로 나진항 / 러시아 극동의 항구를 이용한 물류 외에도 러시아의 석탄 등 자원의 1차 가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임.



## 붙임 1. 美 ISIS 보고서 게시 원문 (3.5)

### 美 ISIS 홈페이지

“Light Water Reactor Construction Progressing at Yongbyon Nuclear Site ”

- o ISIS has acquired a new satellite image taken on February 3, 2012 of the Yongbyon nuclear site in North Korea which shows that construction of the light water reactor is progressing.
- o In the new image, the reactor's turbine building appears externally complete (see figure 1). The dome for the reactor building, however, remains on the ground next to the building.
- o An earlier satellite image from September 20, 2011 shows the turbine building still under construction (see figure 2).
- o Figure 3 shows the fuel fabrication facility at the Yongbyon nuclear site which includes the gas centrifuge uranium enrichment plant.
- o Figure 4 shows the reprocessing facility at the Yongbyon nuclear site.

## 붙임 2. 중국 광명일보 보도 원문 (3.5)

### 광명일보 홈페이지

“朝美和解：万里长征第一步 ”

- o 从朝美的表态来看，至少可以看出双方互动的如下几个特点：第一，朝鲜暂停进行的活动包括铀提炼、核试验、导弹试射，还允许国际原子能机构重返朝鲜，表明朝鲜确实显示出了诚意；第二，双方的妥协都是有条件的，朝方的前提是“在有效的对话继续时”，其解释权完全在朝鲜一方；第三，美国的这一让步也暗示出其对双边会谈出现新的期待。
- o 但是当前的朝美和解显然只是迈出了万里长征的第一步。而朝鲜目前承诺的也只是暂停，没人知道它是否会像过去一样，在需要的时候重启核试验，那样的话一切又会回到原点。目前来看，真正解决朝核问题的步骤大体应该包括：美朝谈判，恢复六方会谈，各方发表共同宣言，各方最终兑现承诺，这才有望彻底解决朝鲜核问题。从历史经验看，这中间存在太多的变数，难以预料各方究竟能走到哪一步，所以现在仍远不是乐观之时。

### 붙임 3.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보도 원문 (3.1)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신문 홈페이지

“Американцы поддались на ядерный шантаж КНДР”

- Н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й кризис в КНДР-не единственная причина, по которой Пхеньян пошел на переговоры.
- Пхеньян старается дистанцироваться, чтобы удар не пришелся по нему- поясняет ведущий сотрудник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новом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лидеру Ким Чен Ыну надо показать, что он способен проводить свою соб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 В ходе эт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стороны пытались найти комплексное решение. Оно должно было включать не только ядер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но также и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мощи, определить условия возвращения КНДР в Договор 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ДНЯО).
-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лучалась патовая ситуация- считает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Пока что Россия и Китай пытаются достичь консенсуса в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ах, но некоторые страны используют их только как площадку для давления.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дву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разумеется, оказываются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и.
- Ведь достигнутое соглашение- это почти ремейк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заключенных госсекретарем Мадлен Олбрайт в 2000 году...для закрепления успеха стоит отложить на будущее требования отдельных стран.

### 붙임 4.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3.6)

교도통신 홈페이지

“中朝貿易、最高の56億ドル 11年62%増”

- 中国税関総署が6日までに公表した貿易統計によると、2011年の中国

교도통신 홈페이지

の対北朝鮮貿易は、輸出入総額で前年比62.4%増の56億3940万ドル(約4590億円)となり、10年に続き過去最高を更新した。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よる経済制裁などで北朝鮮が国際社会から孤立を深める中で、中国依存を強めている実態が浮き彫りとなった。

- 中国の対北朝鮮輸出は39%増の約31億6475万ドルで、輸入は107.2%増の約24億7464万ドル。品目別統計は非公開だが、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対北朝鮮輸出で多いのは原油、輸入は石炭や鉄鉱石だった。

## 붙임 5.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3.6]

교도통신 홈페이지

“朝ロ国境に国際協力地区 中国、物流・観光拠点に”

- 北朝鮮とロシアに国境を接する中国吉林省延边朝鮮族自治州のトップ、張安順州共産党委員会書記は6日、同州琿春市に朝ロなどとの「国際協力モデル地区」を設置し、物流や観光の拠点とする構想を明らかにした。北京市内で記者団に語った。
- モデル地区は約90平方キロで、北朝鮮の羅津港やロシア極東の港を利用した物流のほか、ロシアの石炭など資源の1次加工産業の拠点とする方針。中朝ロ3カ国をめぐるツアーなど観光分野での協力も検討しており、現在、中央政府の承認に向けプロジェクトの立案を進めているという。
- 張書記は、同州での北朝鮮労働者の受け入れに関しては「積極的に(北朝鮮との)労働協力について模索しているが、具体的な方法は研究中」と述べるにとどめ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北, 미국 공격 가능한 신형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확인

(3.7 美 워싱턴 타임즈)

- 3.1일 美의회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로버트 월라드」(美 태평양사령관), '아직 (신형 ICBM) 실험은 감지되지 않았고,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북한측은 선전중이다'라고 언급
- '신형 이동식 ICBM은 북이 이미 실험·배치한 발사대에서 쏘는 「대포동 2호 미사일」보다 강력한 것'이라고 보도
- '美 정보관계자들은 과거 중거리 「노동미사일」처럼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이란에 수출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
- 「월라드」사령관, '신형 미사일 개발이 입증되면, 사전 탐지가 어려울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어떤 대응 태세를 갖춰야할 지 결정하게 될 것이고, 미사일 방어력 증강도 고려 될 것'이라고 언급
- '이동식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쏘는 미사일보다 탐지하거나 대응하기가 훨씬 어렵고,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보다 발사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보도

#### ○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유예 약속'에 대한 비판적 견해 제시

(3.6 시카고트리뷴誌 / 「일리나 로스 레티넨」 공화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장 인터뷰)

- '그동안 우리는 북한과 수차례 합의를 해왔으며, 미국은 북한에게 또 속고 있다. 북한이 핵연료를 생산하고 핵폭탄을 제조하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가 3가지 있다고 주장
- '△북한은 핵폭탄 8~12개를 비축하고 있는데, 0~8개의 핵폭탄은 보유하려 할 것,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핵무기 판매 지속, △핵 프로그램 유예를 하더라도 북한이 핵기술 및 기술정보를 이란 등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견해 제시

## □ 러시아어권

- 2011년 러시아 대북지원 총액 1,490만불로 집계 (3.7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러시아 연방 관세청이 지난해 해외원조 총액 규모를 발표했으며, 북한은 니카라과(총 2,890만불)에 이어 2위로 집계되었음.'
  - '지난해 러시아는 총 6,330만불 규모의 해외원조를 이행했으며, 니카라과와 북한의 경우 무상·인도적 지원이 99.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 중국어권

- 「中·北 수력발전공사 회의」 개최(3.5 신길림망 ⇨ 길림성 경제포털 사이트)
  - 2.29일, 압록강에 위치한 운봉 발전소에서 <中·北수력발전공사(公司)>가 「2011년도 중국 對外업무회의」 개최, '운봉 발전소'와 '태평만 발전소'에 대한 대외업무 강화와 <中·北수력발전공사>의 발전에 대해 논의
    - \* 운봉 발전소(자강도 자성군 소재) : 중국과 북한이 공동투자자 압록강에 건설한 수력발전소, 1965년부터 가동하여 총용량 40만 kw로 생산된 전력은 中·北에 송전
    - \* 태평만 발전소(평북 삭주군 소재) : 중국과 북한이 공동투자자 압록강에 건설한 수력발전소로 1985년부터 가동하여 총용량 34만 kw 생산된 전력은 中·北에 송전

## □ 일본어권

-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국 동향 파악 필요성' 보도 (3.8 뉴스포스트세븐 ⇨ 인터넷 신문)
  - '일본은 한국에 의한 평화 통일을 전적으로 지지해야만 하는 입장이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실시간으로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의 동향을 파악한 뒤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한다고 보도'
- 태국 총리, 납치문제 관련 일본 입장 이해 표명(3.7 총리관저 홈페이지)
  - '일본을 방문한 「잉락」 태국총리가 3.7일 노다 총리와 회담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이해 표명하며, 향후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게시'

## 붙임 1. 美 워싱턴 타임즈 보도 원문 (3.7)

워싱턴 타임즈 홈페이지

### “No Inside the Ring: North Korea's ICBM”

- o Recent congressional testimony confirmed North Korea's development of a new long-range, road-mobile missile that can reach American shores, increasing the threat of a nuclea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 o “There is development within North Korea of a road-mobi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system that we've observed,” Adm. Robert F. Willard, commander of the U.S. Pacific Command, told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Friday. “We have not observed it being tested yet, to my knowledge. We are watching the development very closely.”
- o The new mobile missile was first reported by The Washington Times on Dec. 5. The road-mobile ICBM bolsters North Korea's already-deployed launch-pad-fired Taepodong-2 missile that has been tested.
- o The new missile is also raising concerns i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that North Korea will sell the missile to Iran, as it has done with past medium-range Nodong missiles.
- o Adm. Willard said the mobile missile is “advertised to be significant in terms of its range capability.” The admiral, who retires this month, said once the missile is proven, “there will be a decision made with regard to how we posture to deal with what could be something less predictable than Taepodong-2 or some of the other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that are a little more easy to observe.”
- o Road-mobile missiles are much harder to detect and counter than static missiles. They are usually solid-fueled, allowing them to be fired much faster than liquid-fueled missiles.
- o Under questioning from Rep. Michael R. Turner, Ohio Republican, Adm. Willard said the new North Korean mobile ICBM would cause an increase in missile defense efforts. “I think that's one of the posture options that will have to be considered, yes,” he said.

## 붙임 2 美 시카고트리뷴 보도 원문 (3.6)

美 시카고트리뷴 홈페이지

"Snookered again by North Korea?"

- o Washington has been snookered again, critics say. "We've bought this bridge several times before," said U.S. Rep. Ileana Ros-Lehtinen, R-Fla.
- o This time there are three reasons why North Korea might be willing to negotiate away its ability to create more nuclear fuel and build more bombs.
- o Reason one: North Korea has an arsenal of eight to 12 nuclear bombs. It's easy to understand why Pyongyang wanted to go from zero to eight nukes.
- o Reason two: The only other rationale to keep building nukes is to sell them on the sly to rogue nations or terror groups.
- o Reason three (and the most diabolical): Freezing its program wouldn't stop North Korea from marketing nuclear technology and technical know-how, as it has to Iran, Syria, Pakistan and others.

## 붙임 3.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3.7)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Россия также не осталась в стороне  
и помогла нуждающимся государствам"

- o Россия также не осталась в стороне и помогла нуждающимся государства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умму 63,3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что, правда, на 12% ниже уровня 2010 года.
- o Больше всего отече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досталось Никарагуа - 28,9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КНДР - 14,9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Более 99,5% этих сумм приходи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ую и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 붙임 4. 일본 뉴스포스트세븐 보도 원문 (3.8)

### 뉴스포스트세븐 홈페이지

“日本外務省 中国のゴリ押し要求に応じ領事館用の土地を譲渡 ”

- 中国の実相を正視し、正面から向き合い、主張すべきことを主張しなければならないにも拘わらず、日本外交は心許ない。日本国の主張を展開するどころか、昨年七月に完成した北京の新しい日本大使館の建築確認を巡って、日本外務省がしてはならない妥協を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
- 現在、米朝合意に向けた両国の交渉が進んでいる。詳細は詰められていないが、経験不足の金正恩体制に対し、アメリカも必死で食い込みを図っているのである。本来、日本は韓国による平和統一を全力で支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だ。拉致問題解決のためにも、リアルタイムで北朝鮮をめぐる諸国の動きを把握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上で、現実的な手を打つべき時なのだ。

## 붙임 5. 日-태국, 공동성명 게시 원문 (3.7)

### 총리관저 홈페이지

“日タイ共同声明要旨”

### 3. 地域・国際社会への貢献

(東アジア地域協力)

- E A Sにおいて、政治・安全保障分野の協力を強化していくことで一致。昨年の日・ASEAN首脳会議にて採択された「バリ宣言」に基づき、ASEAN共同体構築に向け協力することで一致。海洋に関する海洋法を含む国際法の諸原則に則って地域の海洋安全保障及び海洋の安全に関する協力を促進・深化させることの重要性で一致。広域包括的経済連携の議論加速のためASEAN+（プラス）の作業部会の設置の必要性を確認。

(朝鮮半島)

- 米朝対話の結果を重要な一步として歓迎。北朝鮮に具体的行動を引き続き求めることで一致。関連安保理決議実施へのコミットメントを改めて強調。タイ首相は拉致問題に関する日本の懸念及び立場に理解を表明。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美 뉴욕 세미나, '南·北 관계 개선의 기회' (3.8 / AP통신)
  - 뉴욕에서 이틀간(3.8~9일) 개최되는 학술 포럼은 南·北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회로,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할 전망
  - 북한은 원조를 받기 위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는 그렇지 않아 한반도 긴장은 여전히 높은 상태임.
  - 세미나에는 北 6자회담 대표 리용호 외무성 부상, 한국의 임성남 대표, 헨리 키신저 前 국무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前 국무부 부장관이 참여했으며 美 정부 당국자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3.10일 다른 민간학자들 중심의 '트랙2' 회의가 또 열릴 예정임.
  - 美·北 합의는 2009년 6자회담 철수와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이후 관계 개선을 향한 북한의 가장 실질적인 신호로 해석됨.
- 북한內 한국전 실종 美軍 유해발굴 4월 재개 (3.8 / AP통신)
  - 美·北간 긴장이 완화되며 한국전 실종 美軍 유해 5,300구에 대한 발굴을 4월부터 재개
    - \* 1996~2005년까지 33차례의 美·北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92구의 미군 유해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2005년 북핵 위기 당시 북한內 미군 유해 발굴 인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됨.
  - 美 선박이 이미 발굴 장비를 북한에 운송했으며, 美軍 선발 부대가 3월 중 도착하고, 발굴 작업은 4월 재개 예정
    - \* 각각 미군 30명으로 구성된 2개팀이 2,000명 이상의 미군이 실종된 운산군과 장진호 부근에서 작업 예정
  - 9월까지 4차례 발굴 작업에 필요한 인력, 연료, 식량, 수송, 물, 안전 등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북한측에 570만 달러 지급 예정

## □ 일본어권

### ○ 북한, 미국과 관계 정상화 요구 (3.9 아사히신문)

- 3.8일 뉴욕에서 개최중인 세미나에서 北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했고, '핵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북한은 한국측에 경제 협력 등이 담긴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대의 南·北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
- 북한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일찍이 그리고 있음.

### ○ 김일성 생일위해 70개국 이상에서 준비위원회 조직(3.9 산케이신문)

-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인 4.15일 전후에 걸쳐 해외로부터 VIP대우로 약 300명을 초청하는 대규모 제전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일본을 포함한 70개국 이상에서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음.
- 대규모 축하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은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을 공개함과 동시에 초대객들을 크게 환대해 김정은체제가 견고하다는 인상을 줘 국제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임.
- 북한의 조선준비위원회와 각국의 국제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주요행사는 4.11~16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개최
- 일본에서는 전 국회의원 24명을 포함해 조총련 관계자와 주체사상 연구원 등 100명이 방북할 예정임.

## □ 중국어권

### ○ 中, 쟈(殲)-10 전투기 북한 판매 거부 (3.8 환구시보)

- 일본 군사 분석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기존의 Mig-31기와 병행 사용 위해 다시 한 번 중국에 12대의 쟈(殲)-10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으나 중국이 거부하였다고 보도
- 현재 중국은 지역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주변 지역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음.
- 또한 북한이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미국과 접촉하는 부분에 불만을 느껴 북한의 판매 요청을 거절했으며 이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도

□ 러시아어권

○ '북한에서 이란 핵실험 한 것 아니다.'

(3.7 Uncensored Israeli News Russian 인터넷 언론사)

- '북한에서 이루어진 핵실험은 이란 핵실험이 아닌, 이란 대표단에게 우라늄 설비와 관련한 북한의 기술 가능성을 보여주고, 향후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계약을 하기 위함이다.'
- '대부분의 국가들(북한, 남아공, 리비아, 파키스탄)이 우선 핵기술을 개발하고 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획득하는 반면, 이란의 경우 충분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의 협력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김정일은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공격한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대개 미국은 이러한 국가를 고립·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
-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원과 동시에 제재를 통해 고립시켰고, 얼마 전 합의만 봐도 이러한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비자금' 형태의 지원이 남한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라고 보도

## 붙임 1. AP통신 보도 원문 (3.8)

AP통신 홈페이지

“Nuclear envoys of the rival Koreas in New York”

- o The two-day, academic forum in New York is an opportunity to break the ice between communist North Korea and U.S.-allied South Korea, which in turn could nudge forward efforts to restart long-stalled, six-nation talks on the North's nuclear program.
- o But while Pyongyang is striving to improve ties with the U.S., which it sees as important for securing aid and moving toward its ultimate goal of normalized relations, there's no sign it wants to do the same with Seoul. Tensions remain high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 o North Korea's representative to the six-nation disarmament talks, Ri Yong Ho, and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Lim Sung-nam, are among several dozen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at a hotel near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Henry Kissinger and former Deputy Secretary of State Jim Steinberg have also taken part, but no currently serving U.S. government officials.
- o Another "track 2" meeting organized by a different group is scheduled for Saturday.
- o The U.S.-North Korean accord is the most substantive sign of warming ties since the North pulled out of the six-party talks in 2009 and ramped up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 붙임 2. Associated Press 보도 원문 (3.8)

Associated Press

“Search for U.S. troops missing in Korean War  
set to resume in North Korea ”

- o The hunt for the remains of more than 5,300 U.S. troops classified as missing in the Korean War is set to resume in North Korea as tensions between the countries ease.

Associated Press

- o Wounded in both legs and wearing a U.S. Army field coat peppered with bullet holes, 1st Lt. Robert Schmitt led a desperate U.S. hilltop assault against advancing Chinese forces in one of the bloodiest battles of the Korean War. He never returned. The hunt for thousands of fallen American troops like Schmitt, missing from a conflict fought six decades ago, is about to resume in North Korea as tensions ease between the wartime enemies.
- o A decade of search operations that led to the recovery and identification of 92 troops was suspended seven years ago, with the U.S. citing worries about the security of its personnel. That ended the only cooperation between the militaries of the two nations, which formally remain at war because the 1950-53 conflict ended with a cease-fire and armistice, not a formal peace treaty.
- o While Washington says the renewed search for remains is a purely humanitarian endeavor, the October resumption agreement, through which North Korea receives millions of dollars in compensation, comes amid intense efforts to coax the impoverished country into nuclear concessions. That culminated last week in a commitment by the North to freeze nuclear activities and allow international nuclear inspections in exchange for food aid.
- o A U.S. ship already has transported equipment for the searches to North Korea, and a U.S. advance team is due to arrive this month. Searches are expected to begin in April.
- o The resumed hunt, with two teams of 30 U.S. members each, will focus on two areas where more than 2,000 soldiers and Marines are recorded as missing: in Unsan County, north of the capital, Pyongyang, and farther north near the Chosin Reservoir, the area where Schmitt died.
- o Maj. Carie Parker, spokeswoman for the Pentagon's Defense Prisoner of War/Missing Personnel Office, said North Korea would receive about \$5.7 million for the first four recovery operations through September. That is compensation for provision of services including labor, fuel, food, transportation, water and security.
- o The three-year war killed at least 4 million people from June 1950 to July 1953, including civilians and troops from the two Korea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the name of the United Nations. More than 36,000 U.S. troops died, including more than 8,000 who were listed as missing in action on both sides of the Korean Peninsula.

### Associated Press

- o Of the missing, the remains of just 192 have been recovered and identified. Some 63 of those were from boxes of remains handed over by Pyongyang between 1991 and 1994, which are still being examined.
- o Laboratory work also is continuing to identify many of the remains retrieved between 1996 and 2005, when the U.S. military conducted 33 searches in North Korea. Those searches were suspended for what the Pentagon described as security concerns, during a tense period in ill-starred negotiations on the North's nuclear program.
- o To the frustration of veterans and relatives of the missing, the U.S. in 2010 rejected a North Korean offer to recover remains it had unearthed during agricultural work at several locations, linking it to progress on the nuclear negotiations.
- o Downes, whose airman father Lt. Hal Downes has been missing-in-action since his plane went down over North Korea in 1952, also complained the U.S. military has been slow to share information with relatives. But he says the process has picked up pace as the government looks to meet a target set by Congress: to be able, by 2015, to identify 200 MIAs from all conflicts each year.

## 붙임 3.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원문 (3.9)

###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北朝鮮、米との関係正常化など訴える ”

- o 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る6者協議の南北首席代表がともに出席し、ニューヨークで開かれている学術会合で8日、北朝鮮の李容浩(リ・ヨンホ)外務次官が米国との関係正常化を訴えた。韓国側は北朝鮮に早期の対話を呼びかけたが、議論はかみ合わなかった模様だ。
- o 参加者によると、北東アジアの平和などをテーマにした会合で、李次官は米国との関係正常化のほか、核について「自分たちを守るためのもの」と主張したという。また、経済協力などが盛り込まれた金大中(キム・デジュン)、盧武鉉(ノ・ムヒョン)両政権時代の南北合意を韓国側が履行するよう求めた。
- o 北朝鮮は朝鮮戦争の休戦協定を平和協定に転換し、米国との関係正常化を目指す道筋をかねて描いている。李次官の発言には、2月下旬の米朝合意をてこにこうした動きを進める思惑があるとみられる。

- 一方、韓国の林聖男（イム・ソンナム）・朝鮮半島平和交渉本部長は会合で、早期の南北対話を訴えたという。米朝協議が先行する中で韓国は南北関係の改善を急いでおり、今回の会合を利用して北朝鮮との本格的な接触を模索している。

## 붙임 4.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3.9)

### 일본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金主席生誕日に大祭典 70カ国以上に準備委員会 ”

- 北朝鮮が金日成主席の生誕100周年に当たる今年の4月15日（太陽節）の前後数日間にわたり、海外からVIP待遇で約300人を招待し、大規模な「祭典」を計画していることが8日分かった。すでに日本を含む70カ国以上に準備委員会が組織されているという。北朝鮮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
- 大規模な祝賀行事を開催する狙いについて同関係者は、新指導者である金正恩氏の“お披露目”をするとともに、招待客を大々的に歓待して正恩体制の盤石ぶりを印象づけ、国際世論の軟化を図るためとしている。
- この関係者によると、昨年12月に死去した金正日総書記は生前、今年の太陽節を「経済大国への飛躍を確実にする重大行事」と位置づけ、自身が中心となり準備を進めていた。主要行事は4月11日から16日の日程で平壤を中心に開催することも決定済みで、金総書記の死去後、正恩氏が「（金総書記の）遺訓通り実施する」と関係部署へ指示したという。
- 一連の行事は「金日成主席生誕100周年記念国際祭典」の名称で、北朝鮮の「朝鮮準備委員会」と各国の「国際準備委員会」が共催する形式。金主席のゆかりの地での植樹のほか、朝鮮半島の統一をめぐる討論会や共同文書の採択も行われる。海外からの招待客は北朝鮮最高級の羊角島ホテルに宿泊、国家行事にVIPとして参加するという。
- 北朝鮮はすでに日本や欧州、アフリカ諸国などに準備委員会を設置。参加が見込まれる親北朝鮮の政財界人らを選定している。日本からは元国会議員ら招待客24人を含め、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関係者や主体思想研究者ら100人規模の訪朝が見込まれているという。

## 붙임 5. 중국 환구시보 보도 원문 (3.8)

### 중국 환구시보 홈페이지

“揭秘：中国歼10战机为何只卖巴铁却不卖朝鲜？”

- 最新的消息称，朝鲜最近再一次对中国提出，希望就购买或者引进12架歼10战斗机事宜，与中国协商。外电报道称近期朝鲜再一次通过途径对中国提出要求引进购买12架歼10战斗机的事宜。来自日本的军事分析家中川XX分析指出：中国此次还是拒绝了北韩的提议。
- 如果，北韩真的引进了中国产歼10式战斗机。尽管北韩现有国防费用开支，尽可以购买12-14架。但是，即便如此，北韩也可以快速形成“战区化联合” 北韩希望采购此类战斗机，来配合米格-31式使用。这样的组合，对于两种战斗机来说，是十分融洽的。
- 对于米格-31式这样的大型飞机，他必须减少起飞架次。但是，北韩的举动已经引起了中国不满与担忧。中国现在是一个十分敏感的国家。中国不希望在他和平走出的阶段内，其周边出现不稳定。因此，中国必须采取针对北韩的一些举措。同时，北韩秘密接触华盛顿，试图抛开中国直接交往华盛顿引起中国极大不满。
- 因此，中国拒绝出卖歼10给北韩。可以说他的举动符合中国利益的方式。

## 붙임 6. Uncensored Israeli News Russian 원문 (3.7)

### Uncensored Israeli News Russian 언론사 홈페이지

“Вторые испытания в КНДР не иранские”

- Корейц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овершили вторые испытания, но это была их собственная бомба, а не иранская. Это делалось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иранских наблюдателей с целью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КНДР в области урановых устройств и получить контракты и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для следующих разработок, которые аятоллы частично аутсорсят коммунистам.
- Иран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дном отношении не имеет аналогов. Большинство стран сначала разработали ядерную технологию, и лишь затем приступали к получению материа



Uncensored Israeli News Russian 언론사 홈페이지

ла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оружия (КНДР, ЮАР, Ливия, Пакистан).  
Но у Ирана уже сей час более чем достаточно желтого кека.

- Что интересно: Ким Чен Ир хорошо знал, что Америка никогда в истории не вторгалась в страну, имеющую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Обычно американцы пытаются изолировать и сдерживать таких оппонентов. Они поддерживали режим Ким Чен Ира, 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изолировали его с помощью санкций. Недавний договор о поставка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эта политика продолжается. Эти фактически взятки используются с целью обезопасить Южную Корею и отвлечь Северную от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금주 UN 안보리에서 중동지역 북한 핵확산 문제 취급 예정'

(3.12 WND 미 美 독립 인터넷 언론)

- 금주 개최 예정인 「UN 안보리 중동위기 관련 특별 각료회의」에서 중동에서의 북한 핵확산 문제를 다룰 것임.
- 「에번스 리비어」(前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중동에서 북한의 조연자 역할에 대한 근거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 확산 능력을 보유한 것 뿐 만 아니라 이미 확산시켰다고 언급
  - \* 2007.9월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에서 미국 측이 사찰한 북한 영변 원자로와 동일한 디자인의 원자로 발견
- 미국은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된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북한이 감독했다고 믿고 있음.
  - \* 미국은 북한과 시리아가 미국과 IAEA의 감시를 벗어나 핵개발을 할 목적으로 비밀 원자로를 건설한 것으로 믿고 있음.
- 북한이 이란과 북한 내에서 이란 과학자들을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고, 美 국방부는 2009.5월 北의 2차 핵실험 당시 이란 기술자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추측
- 美 정보기관은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이 북한 관료들이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신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를 만난 2001년부터 시작됐다고 판단
- 2004.4월, 北 용천시 열차사고시 北이 제조한 핵연료를 시리아로 운반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시리아 기술자들이 사망했으며 英 언론은 이스라엘의 폭격이었다는 추정 보도를 한 바 있음.
- 당시 美 정보기관은 북한이 사고현장을 봉쇄한 기간중 美 위성을 통해 제염 작업으로 보이는 활동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보도

## □ 중국어권

### ○ '6자회담은 계속해서 중국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도

(3.9 남방인물주간 ⇨ 중국 고급시사 주간지)

- 제3차 美·北 고위급 회담으로 美·北이 합의에 이른 것은 미국의 경우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회복으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식량 지원을 받으려는 속셈임.
- 미국의 對北지원 증가로 중국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며, 중국 또한 美·北 관계 회복을 바라고 이를 위해 중재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美·北 관계 회복을 중국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북핵위기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시스템이 되어야 함.
- '美·北 관계 회복만으로 기초가 없는 6자회담은 중국의 지역전략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주장

## □ 일본어권

### ○ IAEA사무국장, '북핵은 동아시아의 위협'(3.11 교도통신)

- 「아마노」 IAEA사무국장, '이란보다도 이미 2번의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 문제가 더 심각하며, 세계에 미칠 영향도 크다고 강조
- IAEA감시요원 복귀를 둘러싼 북한과의 접촉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

## □ 러시아어권

### ○ 駐러 이란대사,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고 주장

(3.11 루스 노보스티 ⇨ 라디오)

- 「마흐무드 레자 사자디」 (駐러시아 이란대사), 러시아 라디오에 출연 금번 美·北 합의 관련 언급중에 '북한과 이란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
- 「사자디」,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위 정책에도 핵무기 관련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도 NPT참여를 거부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란은 NPT 참여 국가로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가라고 주장

## 붙임 1. WND(舊 World Net Daily) 보도 원문 (3.12)

WND 홈페이지

### “U.S. frets about N. Korea in Mideast”

- 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olds a special ministerial meeting on the crisis in the Middle East this week, and one topic overshadowing the gathering is North Korea. Numerous published reports have speculated about the extent of North Korean involvement both in the Syrian conflict and Iran's nuclear standoff.
- o A retired State Department negotiator confirmed that speculation about North Korean “advisers” in the Mideast is well-founded. “There is a strong evidentiary case to be made,” explained Evans Revere, a former State Department North Korean negotiator.
- o A group of high-level North Korean officials headed by Vice-Foreign Minister Ri Yong Ho, recently concluded a U.S. visit where it participated in several private symposiums and met groups of current and former American policy makers. Revere, now a lecturer with Princeton University, was a former State Department veteran who participated in numerous negotiations with the Pyongyang government for the administrations of both Presidents Clinton and George W. Bush.
- o Revere spent more than six hours with the North Koreans in New York City on Saturday. One issue raised was the on-going North Korean presence in Iran and Syria.
- o In September 2007, Israel attacked a suspected secret Syrian nuclear reactor complex in “Operation Orchard.” At the site was a reactor said to have a design almost identical to one inspected by U.S. officials at the North Korean Yongbyon Research Center.
- o Revere confirmed Washington was well aware of a troubling North Korean “presence” in both Syria and Iran. That presence, says Revere, involved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technology to both Tehran and Damascus. “I raised in my comments (with the North Koreans) in a very prominent fashion, relations with Syria. You cannot have a serious conversation without raising these issues. ... These are legitimate concerns with a strong evidentiary case to be made. Not only does the DPRK have the ability to proliferate arms, but has already done so.”
- o In the case of Syria, it is believed that North Korea actually supervised the construction of the secret nuclear reactor eventually destroyed by Israel. In

WND 홈페이지

- Iran, the involvement would appear to be more extensive, with North Korea actually training groups of Iranian scientists both in the country and in the DPRK itself.
- o Iranian engineers were believed by the Pentagon to actually be on site when North Korea exploded its second atomic device in May 2009. The device's explosion resulted in a small earthquake registering 4.7 on the Richter scale, according to the U.S. Geological Survey. While never actually confirmed, Iranian and North Korean diplomats at the U.N. in New York refused any comment on the issue when raised in 2009.
  - o According to U.S. sources, North Korea saw the "export" of nuclear technology as a means to raise much needed hard currency. Iran, seeking to resurrect a project first begun under the shah, was more than eager to supply such cash. In Iran's case, North Korea provided covert cooperation, while Moscow, also attracted by Tehran oil money, was an overt supplier, a main public contractor.
  - o In the Syrian controversy, the construction of a reactor almost identical to the one which had been mothballed in Yongbyon under a U.S. agreement, wa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to allow the North Koreans and their Syrian "hosts" to engage in banned "research" away from the prying eyes of Washington and the IAEA.
  - o North Korean involvement in Syria is believed by U.S. intelligence to date back as far as 2001 when several DPRK officials visited new President Bashar al-Assad in Damascus.
  - o In April 2004, a train accident near the North Korean city of Ryongchon was believed to have killed numerous Syrian engineers who, it is believed, may have been attempting to transport nuclear fuel fabricated by the DPRK back to Syria. The cause of the accident was never released by Pyongyang, but British newspapers speculated Israel sabotaged the train to stop the Syrian scientists. What is known by U.S. intelligence is that North Korea quarantined the accident site for several days while American satellites observed what appeared to be a nuclear decontamination operation in progress.
  - o Former U.S./U.N. Ambassador and U.S. arms-control negotiator John Bolton was not surprised with the North Korean meddling. Bolton told WND: "One likely reason Syria has barred wider access for the IAEA is the presence of more North Korean [and/or] Iranian nuclear weapons related activities. ...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Assad regime's brutality in Syria is to recognize the hidden hand of Iran [and North Korea]."

## 붙임 2. 중국 남방인물주간 보도 원문 (3.9)

### 중국 남방인물주간 홈페이지

"媒体称朝美關係出現緩和 中方應堅持六方會談"

- 現在朝鮮願意改善關係，條件也就是區區24万吨營養食品，到不了一場大規模軍事演習的十分之一費用，可謂“价廉物美”，那又何樂而不爲？而這些互動都有助於達到制約中國的目的；再者，奧巴馬總統面臨大選年，但內政和經濟乏善可陳，美朝關係緩和的外交成績正可謂雪中送炭。
- 同時，朝美直接接觸也會對中朝關係產生影響。從以往來看，平壤習慣使用“靠近一下美國，讓中國提供更多援助”的方法，在中美兩大國之間周旋。
- 由此可見，華盛頓平壤突然走近，中國不能掉以輕心。從全局來看，中國歡迎朝美關係緩和，甚至在他們的双邊接觸中扮演推手的角色。畢竟，金正恩權力的穩固以及美朝關係緩和有助於朝鮮半島的局勢穩定。這對爭取周邊和平環境的中國來說是十分有利的。
- 同時，國際社會放緩制裁，美國增加對平壤的援助，也可以相對減輕中國的負擔。但是，中國要堅持的是，以中國爲主導的六方機制仍然是解決朝鮮核危機和維護南北朝鮮和平穩定的合法有效機制。朝美的和解不能走偏到“架空”六方會談，損害中國在這個地區的地緣戰略利益。

## 붙임 3.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3.11)

### 교도통신 홈페이지

“北朝鮮核は東アジアの脅威 IAEA天野氏が危機感”

- 国際原子力機関（IAEA）の天野之弥事務局長は10日、共同通信の取材に、北朝鮮の核開発は「東アジアにとって脅威だ」と危機感を表明、北朝鮮核問題の解決に全力で取り組む考えを示した。
- 天野氏は核兵器開発疑惑が深まり、各国が懸念を示すイランよりも、既に2回の核実験を行った北朝鮮の方が「問題は深刻で、世界に与える影響も大きい」と強調した。
- また、2月末の米朝合意で盛り込まれた寧辺核施設へのIAEA監視要員の復帰を実現させたいと説明。復帰をめぐる北朝鮮との接触時期などについて「現在、状況を見極めている」と述べた。

## 붙임 4. 러시아 루스노보스티 원문 (3.11)

러시아 루스 노보스티 라디오 홈페이지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Ислам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р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йед Махмуд Реза Саджади"

- По ваше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Вы знаете наверняка, чт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американцам удалось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достигнуть с КНДР. Они уговорили их до того, что Пхеньян согласился ввести мораторий на разработку свое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в обмен, как известно широ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сего лишь на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О чем они еще могли договориться, пока нам неизвестно, но это та информация, которой мы на сегодня обладаем.
- Сам вопрос, связанны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Ираном, они абсолютно друг от друга отличаются. 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есть и атомная бомба, а в часть оборонительной доктрины КНДР входит ядерное оружие. Это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для Ирана не затрагивается вообще вопрос, связанный с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в оборонительной доктрине Ирана. Кроме того, Иран, подписывая договор 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доказал, что не занимается немирными целями, развивая свою 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Давай те посмотрим те страны, которые занимались создание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они не стали присоединяться к этому договору- ДНЯО.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일본어권

- 日, 대북 제재 1년 연장 계획 검토중 (3.13 교도통신)
  - 일본 정부는 4.13일에 만료되는 대북 제재조치를 1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중임.
  - 일본 정부는 3월말 각료회의시 대북제재 조치 1년 연장안을 결정하려고 추진중임.
  - 이는 4.15일 김일성 생일과 관련하여 시기를 2주 정도 앞당겨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日·北 접촉의 환경을 마련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北, 미국과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요구 (3.12 요미우리신문)
  - 미국을 방문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3.10일 뉴욕에서 개최된 비공식 세미나에서 김정은의 뜻이라며,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각각의 수도에 연내 개설하자고 미국측에 요구
-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노선 투쟁 가능성 제기 (3.10 산케이신문)
  - 일본의 언론인 「이시마루 지로」는 북한 내부 정보제공자와의 70여회 전화 통화를 통해 파악한 김정일 사후 북한의 최근 실상 보도
  - 청진·회령·무산 등에서는 2월부터 부분적으로 식량배급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이는 체제안정을 위해 민심을 장악하려는 목적일 것
  - 최근 경제 악화로 대량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게 되어 북한의 전력부족 사정이 심각함.
  - 그러나 북한 정권은 김정일 동상 만들기, 김일성 생일 축하 행사 등 생산성이 없는 곳에 막대한 돈과 노동력을 쓰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 '향후 경제난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놓고 김정은을 둘러싼 특권층 사이에서 이권 다툼이나 노선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 중국어권

### ○ '중국의 對北정책,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 참고 필요'

(3.12 홍콩 봉황위성TV)

- 「장보후이」(홍콩 영남대학 亞太금융센터 주임),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이익이 존재하면  
서도 전략적 부담이 되는데, 이는 中·北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국이  
참고할 수 있음.
- 「쭈핑」(베이징대학 전략연구소센터 부주임교수),  
북한과 이스라엘은 체제, 이데올로기, 현재 처한 문제 등 비교  
불가능한 부분도 많음. 이에 중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가에만 있어서는 안되며,
- 중국이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중국의  
이익도 존중받아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전략 조정도 고려해야 함.

## □ 영어권

### ○ 美,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권한 강화 촉구(3.12 美 국무부 보도자료)

- 「로버트 킹」(북한인권특사)는 「마르주끼 다루스만」(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방북해 인권 상황을 감시 및 평가하는 권한 이행을 허용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 탈북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우려, 탈북자와 가족들에 대한 처벌과  
감금 중단,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노동환경 개선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 러시아어권

### ○ 탈북자 3명, 연해주 국경수비대원 구타로 재판회부

(3.13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탈북자 3명이 2011.9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국경을 불법으로  
월경하였다가 연해주 국경수비대와 충돌하는 사건 발생
- 체포 과정에서 국경수비대원 2명이 부상당했으며, 탈북자들은 러시  
아연방 형법 제 318조에 의하여 기소된 상태로 10년형 예상
- 러시아연방 수사위원회 수사국은 보도 자료를 통해 기소장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발표

## 붙임 1.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3.13]

### 교도통신 홈페이지

“対北朝鮮、制裁延長決定を前倒し 生誕記念で刺激避ける”

- 政府は、4月13日に期限となる独自の対北朝鮮制裁措置の1年延長を3月末にも閣議決定する方向で調整に入った。北朝鮮が4月15日に故金日成主席生誕100年を迎えることから、無用な刺激を避けて約2週間前倒しし、日朝接触の環境を整える狙いがあるとみられる。複数の政府関係者が12日明らかにした。
- ただ制裁措置の延長自体に北朝鮮が反発する可能性は高い。日本人拉致問題では「解決済み」との姿勢を変えておらず、手詰まり状況の打開につながるか見通せない。

## 붙임 2.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 원문 [3.12]

### 일본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北朝鮮、相互の連絡事務所の年内開設を米に要求”

- 北朝鮮の核問題を巡る6か国協議の北朝鮮首席代表を務める李容浩(リョンホ)外務次官が10日、ニューヨークで開かれた非公開セミナーで、最高指導者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氏の意思として、米国と北朝鮮の連絡事務所をそれぞれの首都に年内に開設することを米側に求めたことがわかった。
- 核問題を巡る米朝合意を契機にした北朝鮮の外交攻勢の一環といえる。
- 関係筋によると、李次官は同セミナーで米側出席者の元米外交官や専門家らに対し、米国は北朝鮮への敵視政策を転換すべきだと要求したうえで、「今年中に双方の首都に連絡事務所を開設したい。これはトップの意思だ」と述べた。
- 米朝が2月に北京で合意したウラン濃縮活動停止などに関して李次官は、国際原子力機関(IAEA)要員の北朝鮮入りが「まもなく行われる」として、3月末か4月初めにもIAEAとの本格協議に入る意思を示した。

## 붙임 3.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3.10]

### 일본 산케이 신문

“「薬の代わりに」覚醒剤まん延 北朝鮮の実態”

- 金正日死後、北朝鮮内部の情報提供者と約70回、電話でやりとりしたという石丸氏は、北朝鮮の現状をこう述べた。
- 「政権は金正恩体制の安定と安全を最優先しているため、人、モノの移動がこれまでになく厳しい監視統制下であり、住民の間には逆らえば命取りとの恐怖が広がっていて、人々が息を潜めている感じだ。緊張のピークはこれから（金日成生誕100周年の）4月下旬まで続くだろう」
- 中朝国境の北朝鮮側に石丸氏の情報提供者の国境警備隊の兵士がいた。これまでは「潜伏哨所」という穴に隠れて脱北しようとするものの監視に当たっていたのだが、金正日の死後は国境沿線をずっと巡回するよう命じられたという。電話で石丸氏に「脱北者をひとりも出さなと命令され、忙しくて死にそうだ」と話した。国境の警戒態勢は1月下旬にいったん緩み、2月16日の金正日生誕日まで厳しくなり、いまは少し緩んでいるという。
- 90年代前半から約80回の中朝国境取材を通じ北朝鮮をみてきた石丸氏は、今後をこう分析している。「いま、反体制勢力が生まれる余地はほとんどゼロだと思う。監視は庶民より幹部に対してずっと厳しい。党や軍の幹部は行動を10分刻みで報告させられているという。（粛清を恐れ）戦々恐々としているだろう」
- その一方で、金正恩体制の弱点も指摘する。
- 「内部から連絡のあった清津、会寧、茂山などでは2月から部分的に食糧配給が復活している。正恩時代になって、少しはよくなったと、体制安定のために民心掌握を図るのが目的だろう。だが、政権は昨年以來、大変な政治的浪費をしている。莫大（ばくだい）なカネと労力をつぎ込んでいる平壤の化粧直し、4月の金日成生誕百年の行事、金正日の遺体のミイラ化、銅像作り…。何の生産性もない。金正日ー正恩親子の偶像化と権威付けだけが目的だ。このままでは経済はいずれ行き詰まる。その時、経済難をどう打開するのか、政策をめぐって金正恩を取りまく特権層の間で利権争いや路線闘争が闘争が起きる可能性がある」
- 日朝関係者によると、電力逼迫（ひっぱく）の兆候は昨夏からはじまり、今冬には平壤市内でも通電が1日1時間ということが珍しくなかった。石丸氏によると、毎年、冬季は全体の約55%を占める水力発電所が供血のため稼働率を落とすが、さらに経済逼迫（ひっぱく）により北朝鮮が大量の石炭を中国に輸出したため、火力発電所が動かせなくなって電力事情が深刻化したとみられている。

### 일본 산케이 신문

- それによると覚醒剤は「オルム」(氷)、「ピンドゥ」(氷毒)と呼ばれ、『会寧市内では半数近くの人たちが麻薬をやった経験があるのではないか。麻薬で家庭が壊れたり家を売り払ってコチェビ(浮浪児)になりはてたりした人もいます』という証言を紹介している。
- もともと80年代、金正日の主導で外貨稼ぎの手段として始まったアヘン生産だが、国際社会からの批判を浴び、90年代後半から覚醒剤に変わった。さらに海外の取り締まりが強化されると今度は国内に広まった。利ざやの大きい商売としても蔓延してしまった。
- 2009年、核実験により国連安保理決議で密輸取り締まりが強化されたことと、国境から流入する大量の覚醒剤を中国が問題視したことが契機となって、昨年からは北朝鮮当局も摘発をはじめている。
- しかし、北朝鮮の薬物汚染は根深く社会にしみこんでしまったようだ。北朝鮮から日本に脱北した元在日帰国者はこう証言している。
- 「とにかく麻薬の浸透はすごい。薬もろくにない国だから皆、薬の代わりにしていた。5年前、私は息子を北朝鮮に残して脱北したが、その後息子は中毒になってしまった。あの国は麻薬で滅んでしまう」

## 붙임 4.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3.12]

###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張泊匯：中國對朝鮮政策可借鑒“美以關係”

- 張泊匯：如果這被成功運用過，那麼這個手段說明有一些有效性，但這個很有意思，可以借鑒的是美國同以色列的關係，完全是共一個處境，他們之間是有同盟關係也有共同的戰略利益，但是以色列也經常是美國的戰略負擔，一個大國對一個小的同盟國，怎么去塑造它的行為，經常是非常頭痛的問題，中國面臨的是完全同樣的問題，這個是需要再進一步探討的。
- 朱鋒：泊匯兄的比喻我覺得非常好，美國和以色列，中國和朝鮮，但是我覺得這兩者又不具有那麼多的可比性，因為最重要的問題是朝鮮不是以色列，以色列不是朝鮮，這兩個國家的行為、意識形態，包括它的體制，各方面的問題差別太，所以我覺得中國現在在對朝政策上，我並不認為增強對朝鮮影響力是我們的目標。
- 因為這么多年我們都知道，朝鮮的現有體制已經決定了，它在大國中最基本的政策，就是它的主体思想，就是要強調一切以自己為主，強調自己的獨立性，我覺得這一點我們應該尊重朝鮮同志。但是就是我剛才講的，中國這么多年對朝鮮、對半島和平穩定、對朝鮮繼續發展的善意，我們的利益需要尊崇，如果我們的利益得不到尊崇，那我們可能也不得不重新尋找一種新的模式跟新的戰略。

## 붙임 5. 美 국무부 게시자료 원문 [3.12]

美 국무부 홈페이지

“U.S. Urges HRC to Renew Mandate of Special Rapporteur on North Korea”

- o We urge the DPRK to allow the Special Rapporteur to visit the country and fulfill his mandate to observe and asse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 o Whil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DPRK remain deplorable and the people of the DPRK continue to suffer from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we recognize the DPRK’s willingness to allow me, the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o visit the country this past May as part of a food assessment delegation.
- o We also appreciate the human rights discussions that have taken place during other meetings I have held. We remain committed to building upon this foundation, which we hope serves as a first step towards dialogue on human rights.
- o First,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the lack of due process in the DPRK. We seek his views on how the DPRK can develop a more transparent and impartial judicial system.
- o We share the Special Rapporteur’s concerns about forced and compulsory labor and would welcome additional recommendations on how the DPRK could improve labor conditions for North Korean workers.
- o We appreciate the Special Rapporteur’s concern about the abducted nationals from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countries, and his appeal to the DPRK to resolve this issue urgently.
- o We share the Special Rapporteur’s specific concerns about the case of Oh Kil-nam and his wife, Shin Suk-ja and daughters, Oh Hae-won and Oh Kyu-won, whose whereabouts remain unknown. We reiterate his request that this family be reunited promptly.
- o We share the Special Rapporteur’s assessment of the importance of resuming inter-Korean dialogue and would welcome another round of inter-Korean family reunions.
- o We appreciate the modest progress between DPRK officials and the American Red Cross on family reunions between Korean-Americans and family members in the DPRK, but we seek greater progress in this area.

美 국무부 홈페이지

- o Finally, we share the Special Rapporteur's deep concerns about the plight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from the DPRK. We urge the DPRK to end the punishment and imprisonment of North Koreans who have sought asylum abroad as well as their family members.
- o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the excellent work of the Special Rapporteur and ur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tinue to highlight the significant human rights concerns inside the DPRK by supporting the renewal of this important mandate.

**붙임 6.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3.13)**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Троих граждан КНДР судят  
за избиение пограничников в Приморье”

- o Следствие в Приморье передало в суд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в отношении трех граждан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бвиняемых в сопротивлении пограничникам, которые задержали их за незаконное пересечение морской госграницы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во вторник краевое след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СК РФ.
- o "По версии следствия, вечером 19 сентября 2011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д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заливе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граждан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казали сопротивление членам экипажа пограничного сторожевого корабля "Приморье", - сообщает управление.
- o Во время задержания за незаконное пересечение госграницы обвиняемые, по данным следствия, избили двух членов экипажа пограничного корабля. В отношении граждан КНДР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по статье 318 УК РФ (применение насилия в отнош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ласти). Санкция стать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аказание в виде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сроком до 10 лет.
- o "Уголовное дело с утвержденным обвинительным заключением направлено в суд для рассмотрения по существу", - отмечается в релизе.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北, 2010년 5,500만 달러를 받고 이란 핵탄두 실험 실시

(3.5 DEBKAFfile ☞ 이스라엘 정치, 안보 분야 인터넷 언론)

- 서방 정보기관이 2010년 북한의 두차례 비밀 핵실험 중 적어도 한번은 이란의 핵폭탄 또는 핵탄두 실험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다섯가지 근거 제시
- 첫째, 북한이 2010.4월 중순경, 5.11일경 TNT 50~200톤 폭발력의 비밀 지하 핵실험을 두 차례 실시
- 둘째, 한국·일본·러시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기구(CTBTO) 감시기지가 핵분열 폭발시 생성되고 대기의 장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치명적 수소 중동위원소인 '듀테륨'과 '트리튬'을 탐지하여 분석
- 셋째, 트리튬 탐지 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이란과 시리아와의 관계를 감시하는 몇몇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란을 위해 핵 탄두 내부 장치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함.
- 넷째, 북한이 이란의 방사능물질 폭발물("dirty bomb")을 실험했을 가능성 또한 조사함. 트리튬은 방사능물질 폭발물의 범위, 강도, 치명도를 높임.
- 다섯째, 2010.4월 핵실험 직후, 5월 두 번째의 핵실험 준비를 위한 이란 핵 과학자 및 기술자들이 대거 평양에 도착, △4월말 이란이 20%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대량 북한으로 수송. △5월 실험 직후, 이란 중앙은행이 북한원자력위원회 계좌로 5,500만 달러 송금 조치
- 송금한 액수로 볼 때 한번이 아닌 두 차례의 실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됨.

#### ○ 美·北 합의는 南·北 대화의 새로운 변수 (3.13 英 ISIS 보고서)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SIS), '2.29일 美·北 합의가 南·北 대화에 탄력적인 작용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미국은 美·北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반응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며, 美·北 합의와 다소 부드러워진 한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상황에 진전을 이끌 것임.
- 북한의 최대 고민은 경제난이므로, 미국의 식량지원을 얻기 위해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임.

## □ 중국어권

### ○ 韓·中, 탈북자 문제 이어 '이어도 분쟁' 서로 존중 필요 (3.13 환구시보)

- 매번 분쟁 발생시 중국은 침착한 반면, 한국은 들끓고 흥분된 여론을 조성하는데 탈북자 문제도 이런 가운데서 나타난 것임.
- 중국은 대국으로서 양국의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이지만, 중국의 권익도 보호받아야 함.
- '이어도'에 대한 이견 차이를 중국은 한국과 충돌하지 않고 담판으로 해결할 것이며, 한국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을 것임.

## □ 러시아어권

### ○ 원칙없는 미국측의 핵문제 해결방식 비판 (3.13 글로스 러시아 라디오)

- 사실상 금번 美·北합의는 작년 9월 김정일 생전 논의한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졌고, 핵실험 중단을 대가로 식량을 지원받는다는 기본 공식을 벗어나지 않은 합의임.
-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란 문제와는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태도는 부적절함.
-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핵문제를 다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가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은 멋진 환상에 그칠 것임.



□ 일본어권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에게 지시한 내부분서 입수 (3.14 마이니치 신문)

- 북한 김정은의 발언이 적힌 내부분서는 김정은이 작년 12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에게 지시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마이니치에서 입수 보도
- 김정은이 조선노동당내의 쿠데타 움직임에 신경을 쓰고 있는 한편, 일반 주민들에게는 애정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해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김정은 체제 전략을 보여줌.
- 실제로 북한당국은 주민에 대한 사상재점점을 진행하면서 식량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처벌보다 갱생'의 방침으로 대하는 등 주민 중시의 자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 또한, 일반 주민들이 식량난 등으로 당 지도부에 불만을 갖더라도 즉시 처벌하지 말고 선전과 교육으로 갱생시켜야 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김정은은 '위험분자는 주민이 아니라 지도부에 존재한다'고 발언하고, 작년 1231일 조선노동당 간부에게 김정은 체제에 반발하는 지도부내의 인물을 색출해 처분하도록 지시
-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한 치의 양보없이 무조건 최후까지 유훈을 수행하자는 것이 나의 확고한 결심이다'라고 의지 표명
- 김정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단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해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지시
- 김정은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앞두고 북한내 주민생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태양절 이후 인민의 생활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계
- 김정은, '불만의 목소리를 조국의 제도에 대한 반감의 싹으로 보고 법적으로 다루서는 안된다'고 지적해 생활고로 인한 불만과 체제 비판을 결부시켜 처벌하지 않도록 강조
- 김정은, '정말로 위험한 것은 칼을 품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극소수의 불순분자이다. 인민보안, 사법검찰 부문의 일꾼들은 철저히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 처벌해야한다'고 강조

## 붙임 1. 이스라엘 DEBKAFfile 보도 원문 (3.5)

DEBKAFfile 홈페이지

“North Korea Tested Iranian Warhead in 2010 for \$55m”

- o German and Japanese intelligence sources Monday, March 5, confirmed - and qualified- to debkaf file reports in the German Der Spiegel and Welt am Sonntag that Western intelligence had known for 11 months that at least one of North Korea's covert nuclear tests in 2010 was carried out on an Iranian radioactive bomb or nuclear warhead.
- o Those sources report five facts are known for sure: 1. North Korea carried out two covert underground nuclear explosions in mid-April and around May 11 of 2010 equivalent to 50- 200 tonnes of TNT.
- o 2. Two highly lethal heavy hydrogen isotopes, deuterium and tritium, typical of a nuclear fission explosion and producing long-term contamination of the atmosphere, were detected and analyzed by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CTBTO) monitoring stations in South Korea, Japan and Russia.
- o 3. The presence of tritium in one of the tests led several intelligence agencies watch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ts longstanding links with Iran and Syria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Pyongyang had tested the internal mechanism of a nuclear warhead on Iran's behalf.
- o 4. Another possibility examined was that North Korea had tested an Iranian "dirty bomb" - i.e. a conventionally detonated device containing nuclear substances. Tritium would boost its range, force and lethality.
- o 5. The Japanese and German sources found confirmation of their suspicions that North Korea had abetted Iran's nuclear aspirations in three events: a) Shortly after the April explosion, a large group of Iranian nuclear scientists and technicians arrived in Pyongyang. They apparently came to take part in setting up the second test in May. b) In late April, Tehran shipped to Pyongyang a large quantity of uranium enriched to 20+ percent - apparently for use in the May test. c) Straight after the May test, the Central Bank of Iran transferred \$55 million to the account of the North Korean Atomic Energy Commission. The size of the sum suggests that it covered the fee to North Korea not just of one but the two tests.

## 붙임 2 英 ISIS 보고서 원문 (3.13)

### 英 ISIS 홈페이지

“Seoul keeps an open mind on North Korea”

- o Nevertheless, having already begun talks with the US on a food-aid deal shortly before Kim Jong-il's death, on 29 February North Korea agreed to suspend uranium enrichment, halt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allow inspectors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once again inspect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in return for 240,000 tonnes of food aid from the US. Seoul welcomed the announcement, saying it was a step towards creating 'an appropriate environment for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deal will create momentum for inter-Korean talks.
- o The US has insisted that for North Korea the road to improved relations with the US 'runs through Seoul'. The North's response is hard to predict.
- o While the country's economic weakness undoubtedly puts the regime under pressure - the economy is unlikely to improve in 2012 and recovery is only possible by acceding to external limits on the nuclear programme in return for aid - Pyongyang is maintaining its 'military first' policy, partly in an effort to keep the Korean People's Army loyal to Kim Jong-un. This gives power to hardliners who will be reluctant to make nuclear concessions.
- o It has been argued that Kim Jong-un's presumed weakness could tempt Pyongyang to engage in military provocations to bolster his credentials, but the fact that this deal was made suggests that he has consolidated considerable authority.
- o Kim Jong-un will rely to a degree on Chinese support, especiall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 o Still, the combination of a Pyongyang striking deals with Washington and a less hardline Seoul may lead to further diplomatic progress on the peninsula.

## 붙임 3. 중국 환구시보 보도 원문 (3.13)

중국 환구시보 홈페이지

“环球时报：中韩各自记住，尊重对方是自重”

- 中韩之间的很多纠纷，中方都相对低调、克制。韩国舆论的炒作总是很起劲，韩国政府往往随波逐流，最终导致中韩外交危机的出现。目前仍在折腾的“脱北者危机”，就是这么闹出来的。
- 中国作为大国，有不与韩国斗情绪的意识，主动维护中韩友好大局，但中国的正当权益必须维护，中国不会为了哄韩国高兴，任由韩国在原则问题上“打醉拳”。
- 在苏岩礁问题上，中国不会主动将分歧升级为冲突。中国政府没这份精力，中国社会也没有这个兴趣。中国通过谈判解决分歧的态度很明确，没有变的理由。如果韩方想把事情闹大，那请他们提前想好了。中国没有选择，一定奉陪到底。
- 希望韩国媒体上的一些叫嚣，不会主导韩国官方对中韩关系的思考。韩国不应娇惯自己，要求中国处处顺着它说话，满足它的各种要求和任性。中国是比韩国庞大、复杂得多的社会，中国人也有自己的感情和愿望，我们不可能把韩国放到所有排序的最前面。
- 希望韩国也不做咄咄逼人者。让我们彼此尊重对方。尊重对方其实就是自重。

## 붙임 4. 러, 골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3.13)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пишем, Иран в уме”

- Приход к власти молод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после смерти его отца Ким Чен Ира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родил надежду на перезагрузку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Как оказалась, небезосновательную.
- Строго говоря, фундамент для нынеш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был заложен еще осенью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Ким Чен Ир был еще жив, дипломаты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США и КНДР провели два раунда прямых переговоров. Кроме того, формула "продов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ольствие в обмен на мораторий " стандартна для диалога Пхеньяна с зарубежными оппонентами.

- Параллели между ядерным программами Иран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оводимые США, неуместны, поскольку КНДР уже создала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а допустить аналогичные подвиги в отношении Ирана нельзя, заявил в интервью израильскому радио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зраиля Дани Аялон.
-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требует, чтобы на предстоящем форуме в Сеуле п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Обама прошел сквозь игольное ушко всех тайных и явных интересов и амбиций ядерных, безъядерных и "пороговых" держав.

## 붙임 5.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 원문 (3.14)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正恩氏内部文書 「住民重視」で求心 食糧不満そらす狙いか”

- 北朝鮮の新指導者、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氏のマルスム（お言葉）が記された内部文書は、朝鮮労働党内部でのクーデターの動きに正恩氏が神経をとがらせる一方、住民には愛情あふれる指導者ぶりを強調して求心力を高めるという正恩新体制の戦略を改めて印象づけた。実際、北朝鮮当局は住民に対する思想再点検を進めながら、食糧問題で不満を抱く住民には「処罰よりも更生」の方針で向き合うなど、住民重視の姿勢を前面に押し出している。
- 「住民は落ち着いている。緊張しているのは党や国家機関の幹部たちだ」。2月中旬に中国を訪れた北朝鮮の経済関係者は、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死後の北朝鮮国内の雰囲気をこう解説した。北朝鮮では今年に入って朝鮮人民軍や地方機関、企業などの人事刷新が進められており、「幹部らは自分の地位が守られるか、気が気でない」（経済関係者）状況という。
- また別の経済関係者によると、昨年、党などの幹部に対し、治安機関である国家安全保衛部が改めて「身元照会」を一斉に実施。北朝鮮の指導理念「主体思想」に忠実か厳しく点検したり、外国への渡航歴を調査したりす

##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るなどで「評定書」を作成しているという。評定書は今年の人事の参考資料として使用されるだけでなく、治安機関が「反体制の芽」を摘む作業にも活用されているとみられる。

- 一方、昨年12月31日の発言で正恩氏は「わが党は母の党だ。母親は愚かな子、病身の子を捨てない」と強調している。さらに「病気にかかった人々を、1回たたく前に、10回会って教育し、すべて党の懷に抱き込むべきだ」とも述べ、一般住民が食糧難などで党指導部に不満を募らせたとしても、直ちに処罰せず、宣伝や教育によって更生させるべきだとの姿勢を示している。
- 正恩氏の発言に呼応するように、住民には正恩氏の寛大さを示すエピソードが広まっている。軍隊で、規律を重視する小隊長よりも、部下のために野菜を植えた分隊長を称賛した▽住民が金総書記に弔意を示す際に手袋をしたり赤い服を着ていたりしてもとがめないよう指示した—などだ。
- 北朝鮮をめぐるっては、外部情報の流入や貧富差の拡大などにより、住民の反体制意識が高まる可能性が国外で指摘されている。ただ、今回の内部資料に書かれた正恩氏の発言からは、北朝鮮指導部は「危険分子は住民側ではなく、指導部に存在する」との見方で対処し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

## "金正恩氏、クーデター警戒 内部文書で処分指示"

- 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氏が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に任命された翌日の昨年12月31日、朝鮮労働党幹部に対し、指導部内で正恩新体制に反発する人物を特定して処分するよう指示していたことが13日、毎日新聞が入手した内部文書で分かった。独裁者だった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急死を受けて新指導者になった直後の正恩氏が、内部からのクーデターの動きに強い危機感を抱き、その排除を急いでいた様子が明らかになった。正恩氏の党内部での発言が表面化するのは初めて。
- 内部文書は、正恩氏が12月31日、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幹部に対して指示した「マルスム（お言葉）」の記録。
- 正恩氏は金総書記の遺訓を順守する立場を強調し、「一寸漏らすことなく、一步の譲歩もなく、無条件に最後まで（遺訓を）遂行しようとするのが、私の動かぬ決心である」と表明した。その中でも「人民の生活を向上させること」を最重要課題に位置づけ、「食糧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最も切迫な問題になっている」との認識を示した。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 さらに「人民生活を向上させるには、多段階的に変化させるべきである」と述べ、急な変化を伴う措置を取らないよう求めた。
- 正恩氏は故金日成（キム・イルソン）国家主席の生誕100年を迎える4月15日（太陽節）を前に、北朝鮮内で住民生活の改善への期待感が高まっていることを念頭に「太陽節以後、人民の生活問題が完全に解決されるというような宣伝はすべきでない」と戒めた。また、生活苦に対して住民から不平不満の声が上がっている点を認めながらも「（不満の声が）わが国の制度に対する反感の芽だとレッテルを貼って、そのような人々を法的に扱ってはならない」と指摘し、生活苦による不満と体制批判を結び付けて処罰しないよう強調した。
- そのうえで、正恩氏は「本当に危険なのは、腹の中に刀を隠し、時期を待っている極少数の不純分子である」との認識を示したうえで「人民保安、司法検察部門のイルクン（活動家）たちは、徹底的に腹の中に刀を隠している人々をえり分け、処理すべきである」と訴えた。
- 正恩氏は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に対して強い嫌悪感を示している。「李」が韓国語で「2」と同音であり、「明博」のイニシャルが「MB」となるのを皮肉って「李明博逆徒は、知能指数が2MB（メガバイト）しかなく、政治的に無知だ」などと切り捨て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중국어권

- 탈북자 문제 제기, 한국은 이제 그만해야 (3.9 신화망 / 3.16 「환구」 잡지)
  - 한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UN에 탈북자 문제 제기, 이는 양국 관계와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한반도에 불안정 요소를 더하는 것임.
  -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위기 때 발생되어 현재는 그 수가 줄었으며, 이들은 경제적 문제로 '불법월경'한 것임.
  - 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아직도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한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자국의 법률과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밀입국자를 수용하는 나라는 없으며, 한국은 '己所不欲勿施於人'의 이치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임.
  - 올해는 韓·中 수교 20주년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의 전망이 밝은 상황에서 한국은 더 멀리 보며 이성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야 함.

### □ 러시아어권

- 「테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과 「리영호」 북한 외무성 부상 회담  
(3.14 러시아 외무부)
  - 3.14일 모스크바에서 「테니소프」 러시아연방 외무부 제1차관은 북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리영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접견
  - 양측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행동에 있어서 긴밀한 조율 실시
  - 양자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南·北·러를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그 밖의 3자 투자협력 프로그램 실현을 포함한 상호간 실질적인 행동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

7) 己所不欲勿施於人(기소불욕물시어인) :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된다.



○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영사관 앞 한국정부 규탄집회 개최

(3.14 프리마미디어 지역 언론사)

- 북한 국기를 들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휴대한 시위자들이 '한국 정부가 對北 반목·증오심을 조장한다'고 주장



- 「아나톨리 들가체프」(연해주 의원, 공산당원), '한국 정부는 연해주 이웃지역인 한반도를 전쟁으로 이끄는 행보를 하고 있으며, 집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러시아내 북한 자주권 수호세력이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 알려주려 한다고 주장
- 「유리 포쉬바일로」(연해주 의원), '리비아, 이라크 사태가 한반도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국가를 자극 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

□ 영어권

○ 駐폴란드 북한대사 김평일 관련 보도 (3.12 / 英 The Independent誌)

- 김평일은 1998년부터 폴란드 대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폴란드 외교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김평일이 대사관내 거주한다고 함.
- 駐폴란드 북한대사관 대변인, '기자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김평일은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폴란드 거주 여부 조차도 확인 거부함.
- 김평일은 외교 행사 등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며, 가끔 러시아·알제리·시리아 대사관에 모습을 보이는 게 전부임.

2012.3.15(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Nicolas Levi」(바르샤바 소재 폴란드-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면 김평일이 신정권에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 있으며, 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이 김정은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보도
- o WFP, 北 어린이들에 슈퍼시리얼 제공 (3.9 WFP 홈페이지 / 3.14 VOA)
  - 세계식량계획(WFP)이 2011.8월부터 북한측에 영양지원을 해왔고, 매달 북한 어린이 환자 8,000명 이상에게 특별 영양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로 매주콩, 밀, 슈퍼시리얼(필수 영양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특별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 환자들의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것임.
    - \* WFP는 대북 사업 자금의 37%만 모금했지만, 북한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아 → 입원 아동 → 탁아소 아동 → 임산부 및 수유모 → 유치원 아동 → 인민학교 아동 → 노인」 등의 순서로 식량을 제공함.
    - \* 2012.4월부터 대북 사업을 107개郡에서 82개郡으로 축소하면서 수혜자를 350만명에서 240만명으로 줄이고, 노인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 □ 일본어권

- o 日, 납치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인도적 지원 검토(3.14 일본 텔레비 ㉞ 민영TV)
  - 「마츠바라」(日 내각 납치문제 담당대신), 자신을 비난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관련 '모든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 제기
  - '납치문제에 진전이 생겨 많은 관계자가 일정한 해결이라고 보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
- o 日 외무장관, 북한의 핵시설 감시요원 수용 환영(3.13 일본 텔레비)
  - 「겐바」日 외무장관은 북한의 핵시설 감시요원 수용을 환영하며,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첫 번째 스텝으로서는 좋다고 평가
  - '그러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모든 핵관련 활동의 전면중단'이라고 강조
- o 北, 은하수관현악단 파리에서 공연 보도(3.14 텔레비전 아사히)
  - 북한 관계자, '가까운 시일 내에 유럽과 미국에서 더 많은 문화 이벤트를 계획 중'이라고 언급

## 붙임 1. 중국 신화망 보도 원문 (3.9)

### 중국 신화망 홈페이지

#### “脱北者问题, 韩国理应收手”

- 最近, 所谓“脱北者”问题成为韩国上下关心、媒体热炒的一个焦点。为了达到自己的目的, 韩国甚至不顾中国的反对, 把“脱北者”问题提到联合国人权理事会上。
- 这种做法不仅有损中韩两国友好关系, 不利于增进两国人民的理解和友谊, 也将给维护朝鲜半岛和平稳定增添新的不安定因素。
- 所谓“脱北者”问题产生于上世纪90年代中期。在这一时期, 朝鲜连续几年遭受罕见的水灾和旱灾, 出现严重的经济困难。也就是在这一时期, 一些人为了解决吃饭问题, 采取偷越国境的非法手段进入中国。
- 时至今日, 朝鲜的经济困难依然存在, “脱北者”还时有发生, 但人数已较90年代的高潮期减少。很显然, 这些所谓的“脱北者”并不是“难民”, 而是因经济原因非法进入中国的“非法越境者”。
- 而韩国一些媒体非要给这些“脱北者”戴上“难民”的帽子, 甚至渲染“脱北者”被遣返回朝鲜后将被“枪杀”“灭三代”等等, 既不符合国际法, 也不符合实际情况。
- 一些“脱北者”被遣返后又多次非法进入中国, 连韩国媒体报道的一些“脱北者”也承认自己多次被遣返, 又多次非法偷渡出境的情况。所谓“枪杀”“灭三代”的说法不攻自破。
- 在当今世界上, 没有任何一个国家会不按本国法律和国际协定, 无条件地接收非法偷渡者。有报道说, 现在泰国等地还滞留着上百名“脱北者”, 他们已经等了好几年了也没去成韩国, 不就说明了这个问题吗?“己所不欲勿施于人”。同属东方文化圈的韩国应该明白这个道理。
- 今年是中韩建交20周年, 两国关系已经发展成为“战略合作伙伴关系”。同时, 旨在实现半岛无核化的六方会谈也出现了重新启动的征兆。在此形势下, 韩国的一些人应从大局出发, 理性地对待“脱北者”问题。

## 붙임 2. 러시아 외무부 게시 원문 (3.14)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СООБЩЕНИЕ ДЛЯ СМИ О встрече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А.И.Денисова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Ли Ён Хо”

- 14 март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И.Денисов принял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Ли Ён Хо - главу делегации КНДР на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ах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по путям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ысказались за тесную координацию действий на этом треке.
- При обсуждении проблематик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активизации практ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том числе в част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рокладки транзитн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из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а также других трехсторонних программ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붙임 3. 러, 프리마 미디어 보도 원문 (3.14)

러시아 프리마 미디어 언론사 홈페이지

“Коммунисты Приморья провели митинг  
у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 Акцию протеста провели в среду приморские коммунисты у здан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митинг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20 человек. Митингующие держали в руках флаги КНДР и транспаранты с надписями, осуждающи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за разжигание вражды к жителям КНДР.

러시아 프리마 미디어 언론사 홈페이지

- “Мы не можем пройти мимо фактов, ког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саждает среди своих граждан вражду и ненависть к наро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Это путь к войн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оторая может развернуться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границ России и Приморья. Своей акцией мы пытаемся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к этой проблеме и показать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то в России есть силы, готовые защитить суверенитет КНДР”, - сказал один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итинга, депутат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член КПРФ Анатолий Долгачев.
- “Мы види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мире, и опасаемся, что ливийский или иракский сценарии “продвижения демократии” могут быть реализован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чевидно, что страны, которые явно не собираются воевать на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подталкивают к этому других.” - сказал Юрий Пошивайло.

**붙임 4. 英 인디펜던트誌 보도 원문 (3.12)**

The Independent 홈페이지

“Left out in the cold: the man who would be Kim”

- Kim Pyong-il was sent abroad after a spat with Kim Jong-il in the late 1970s, and has languished in far-flung postings ever since, with stints in Finland, Bulgaria and Hungary.
- He has been Ambassador to Poland since 1998. But even three decades after his exile, he is still a threat for the regime. Last summer, as Kim Jong-il battled with the ill health that killed him in December, there were reports citing South Korean intelligence sources that Kim Pyong-il was back in Pyongyang and under house arrest as the handover of power approached.
- In the bizarre world of North Korean politics, Kim Pyong-il is considered a threat because of his resemblance to his father, Kim il-Sung. It was a bid to look like North Korea's first leader that made current leader Kim Jong-un shave the sides of his head. And the family resemblance may have forced Kim Pyong-il into the wilderness, experts on Asian politics say.

The Independent 홈페이지

- o A spokesman at the Warsaw embassy said Kim Pyong-il gives no interviews because "all journalists lie", and refused even to confirm whether the diplomat was living in Poland. But a source close to the Polish Foreign Ministry said he is living inside the embassy compound.
- o Kim Pyong-il almost never makes public statements or appearances. Some of the only photographs of him and his children, who were educated in Poland, date from his visit to a small Polish town in 2007, which were published on the town's website. He is rarely seen at diplomatic soirées in Warsaw, putting in only occasional appearances at the Algerian, Russian and Syrian embassies.
- o "Everyone was on the look-out for him at the time that Kim Jong-il died, and there were instructions to try to locate him and see if we could make contact," said a diplomat from an EU nation in Warsaw. "But we never got sight of him." Another source said they had met him socially and exchanged pleasantries, but when talk turned to the subject of his half-brother, Kim Pyong-il tensed up and walked away.
- o Kim Pyong-il was born several years after his half-brother, who would become "Dear Leader" Kim Jong-il, and to a different mother. Testimony from defectors who have left North Korea points to a fierce rivalry between the two men during their youth, with Kim Jong-il from an early stage the designated successor to his father as leader of the country, but Kim Pyong-il an ambitious rival. At one stage there were rumours that Kim il-Sung might divide up power between his sons, with Kim Jong-il in charge of the party and Kim Pyong-il taking control of the army - something Kim Jong-il vowed to stop.
- o In the 1970s, as both men were rising through the ranks in North Korea, Kim Pyong-il was a playboy with a reputation for hosting wild parties. "At some of these parties, people around him were shouting 'Long live Kim Pyong-il!'" says Nicolas Levi, a Korea analyst at the Poland-Asia Research Centre in Warsaw, who has spent years researching Kim Pyong-il. Realising that, in the personality cult built around his father, chanting for the long life of anyone else was sacrilegious, Kim Jong-il seized his opportunity.
- o "Kim Jong-il heard about it and told Kim il-Sung, who got very angry," says Dr Levi. After this happened, the younger brother was exiled, as the ambassador to Yugoslavia, followed by a series of other postings.

The Independent 홈페이지

- o “Kim Pyong-il and Kim Jong-nam are part of the same basket of outsiders, who are members of the family but currently have limited influence,” says Leonid Petrov, Lecturer in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Sydney. “It seems that China is entertaining the possibility of Kim Jong-nam as a potential successor who could introduce China-style reforms into the country, but this is a fantasy. Once you introduce reforms into North Korea, the whole system will collapse completely.”
- o Others suggest Kim Pyong-il, with his close ties to the regime, Kim family name and knowledge of life abroad, might have a key role to play in any post-Communist state that springs up if and when the perverse dictatorship that his father set up ever collapses.
- o “When Communist regimes have fallen, many of those who were linked to the regime often remain in power,” says Dr Levi of the Poland Asia Research Centre. “If the North Korean regime does fall at some point in the future, it is quite possible that Kim Pyong-il might have a role to play in a new government.”
- o But this scenario does not seem to be on the cards in the immediate future. “The very fact that he is still alive suggests that he is not seen as a serious threat to Kim Jong-un,” says Dr Levi.

## 붙임 5. WFP 게시 원문 (3.9)

WFP 홈페이지

“DPR Korea: Supercereals Doing A Super Job”

- o WFP has since August 2011 provided nutritional assistance to 30 child patients at the Chongnam Gu People’s Hospital.
- o In recent months, the hospital has received Supercereal - a specialised blended food rich in vital nutrients and vitamins - as well as soya beans and wheat. The foods have been given to child in-patients as part of efforts to combat malnutrition, especially amongst the most vulnerable.
- o WFP is targeting over 8,000 children per month in pediatric hospitals in DPRK for specialised nutrition assistance.

## 붙임 6. 일본 테레비 보도 원문 (3.14)

### 일본테레비 홈페이지

#### “人道支援には拉致問題の進展が必要”

- 北朝鮮の朝鮮中央通信が、人道支援に反対する松原拉致問題相を非難した報道をめぐり、松原氏は13日、「拉致問題が進展すれば人道支援は可能になる」と述べた。
- 松原氏は13日の会見で、北朝鮮への人道支援に反対する自身を朝鮮中央通信が非難したことについて、「全ての人道支援に反対しているのではない」と反論した。
- その上で、「拉致問題が進展し、多くの関係者が一定の解決とみなす合意ができれば人道支援は可能になる」と述べ、食料支援などの人道的支援を行うには拉致問題の進展が必要だとの認識を改めて示した。

## 붙임 7. 일본 테레비 보도 원문 (3.13)

### 일본테레비 홈페이지

#### “玄葉外相、北朝鮮の核施設監視受け入れ評価”

- 北朝鮮・李容浩外務次官が、アメリカと合意した核施設の監視について、近く I A E A (= 国際原子力機関) の監視要員を受け入れるという姿勢を示したことについて、玄葉外相は13日朝、「北朝鮮が具体的な行動を行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切であって、第1ステップとしては良いのではないか」と述べ、北朝鮮の方針を一定程度評価した。しかし、「最終的なゴールは、北朝鮮による全ての核関連活動停止だ」と強調した。



## 붙임 8. 일본 텔레비전 아사히 원문 (3.14)

### 텔레비전 아사히 홈페이지

“北朝鮮が“イメチェン”？管弦樂團がパリで公演へ”

- 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体制になって3カ月、北朝鮮に変化の兆しが見えています。厳しい口調でおなじみの国営テレビには、若い女性キャスターが登場し、背景も明るい雰囲気になるなど大胆な模様替えが行われています。そんななか、イメージ戦略の一環でしょうか、北朝鮮のオーケストラがパリで公演を行います。
- 北朝鮮の銀河水（ウナス）管弦樂團は関係者を含め100人ほどで、和やかなムードのなか、前日リハーサルに臨みました。現地の名門樂團「ラジオフランスフィルハーモニー」と合同公演し、韓国人の世界的音楽家・鄭明勲（チョン・ミョンフン）氏の指揮で、ブラームスの交響曲や朝鮮民謡のアリランなどを演奏する予定です。
- 北朝鮮代表団の団長：「（両国の）管弦楽演奏による合同公演は初めてのこと。大きな成果を収めると信じています」
- 北朝鮮の関係者は、ANNの取材に対して「近く、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でさらに多くの文化イベントを計画している」と話しています。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중국측의 탈북자 문제 이슈화 비판에 대한 미국외교협회 견해 (3.15 CFR)

- 미국외교협회(CFR), '2.24일자 中 인민일보 사설에서 탈북자 문제를 정치 이슈화한 한국에 대해 비판한 것은 한반도에 대한 '고의적인 맹목'이라고 평가
  - \* 인민일보는 베이징 美·北 회담이 열리는 민감한 기간에 탈북자 문제를 논쟁화한 것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한 결례이며, 이는 6자회담 재개를 방해하고, 탈북자 복송을 난민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비난
- '국제 사회가 탈북자 강제 복송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더 높여서 중국측의 강제 복송 행위를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견해 제시

#### ○ '평양과학기술대학' 관련 보도 (3.15 CNN 홈페이지 / 3.19 Fortune誌)

- '평양과학기술대학'은 2010.9월 개교 후 현재 전원 남학생으로 구성된 267명의 학생(학부생 200명)이 다니고 있으며, 학생들은 고위층 자제들로 당이나 軍 고위간부의 자제들이 많음.
  - \* 「김진경」 평양과학기술대학 총장은 서울 출생으로 한국전에 참전했고, 70년대 미국으로 이민한 재미교포로 1992년 중국에 연변과학기술대학 설립, 1998년 미국 간첩혐의로 정치범수용소 수감된 경력이 있으나, 북한 지도부를 설득해 북한 유일의 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
-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교수진은 전원 외국인이며, 그중 절반은 미국인임. 대학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학생은 무상교육이고, 교수진도 전원 자원봉사자들로 대부분이 김진경 총장과 같은 기독교인임.
  - \* 「김진경」 총장은 김정일 장례식에 참석해 김정은과 악수했고, 김정일 사망 이후 「클린턴」 美 국무장관과 개인 면담을 하는 등 美·北간의 대외관계에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짐.
- 연평도 사건 후 남북관계가 경색에 따른 기부금 감소로 과학장비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 러시아어권

- 「마르굴로프」 외무부 차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회담 (3.15 러시아 외무부)
  - 3.15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마르굴로프」 외무부 차관과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회담
  - 양측은 6자회담 관련 한반도 핵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자관계 현안을 논의했음.
- 중국, 미국보다 서둘러 대북 식량지원 착수 (3.15 이즈베스티야 일간지)
  -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러시아과학아카데미산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은 김정은에게 있어서 김일성 100회 생일을 잘 치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알고, 김일성 100회 생일 기간에 맞춰 식량지원을 추진중임.'
  - '미국이 지원조건을 내건 것과는 달리, 중국은 동양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 무상 식량지원(쌀 15만톤, 옥수수 26만톤)을 함으로써 북한이 고마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노린 수이다'고 주장

## □ 중국어권

- 中·北관계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이익이 기본 (3.12 홍콩 봉황위성TV)
  - 「장보후이」(홍콩 영남대학 亞太금융센터 주임), '북한은 전통적 혈맹국으로 모든 군사동맹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전략적 이익의 바탕에서 이뤄짐.'
  - '中·北의 전략적 이익은 中·美·日의 신뢰 부족에서 생긴 것으로 중국은 북한이 부담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최근 평양지역에 中·北 합작회사 운영 택시 급증 (3.16 지지통신)
  - 최근 들어 평양에 中·北 합작회사가 운영하는 택시 급증, 현재 8개 회사 총 4,000대가 운영중으로 화려한 노란색 택시까지 등장함.
  - 평양에는 몇년전까지 동유럽에서 생산된 구형 택시 40~50대 밖에 없었으나, 2년 전부터 중국제 택시가 늘어났고 김정일 사망 후 급증.
  - 중국자본 진출을 배경으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 수요가 증가되고, 부유층이 많은 평양에서는 서비스업이 발전하는 등 소비 사회가 형성되고 있음.

## 붙임 1. 미국외교협회(CFR) 게시 원문 [3.15]

### CFR 홈페이지

“China: North Korean Refugees a Hindrance to Denuclearization?”

- o That a leading Chinese publication(Renmin Ribao) would voice such a critique is surely a prime example of what President Obama once characterized as China's “willful blindnes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 o A February 24 Renmin Ribao editorial issued in Chinese during the latest round of U.S.-DPRK talks in Beijing criticizes South Korea for politicizing the refugee issue “at a sensitive moment” while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ere engaging in talks in Beijing. The editorial argues that South Korea's actions are a sign of disrespect toward China's efforts to contribute constructively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that they hinder the resumption of Six Party Talks. Furthermore, it states that it is useless for South Korea to politicize, internationalize, and connect the issue of China's repatriation of North Koreans to the refugee issue.
- o China continues to insist that all North Korean refugees are economic migrants and has refused to allow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on Refugees to interview them.
- o But if North Korean refugees have faced these same circumstances for over a decade with no crescendo of outcry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not only the Chinese government that has been willfully blind to their plight.

## 붙임 2. CNN 홈페이지 보도 원문 [3.15]

### CNN 홈페이지

“The capitalist who (still) loves North Korea”

- o FORTUNE - On the morning late last year that North Korea announced the death of Kim Jong Il, the dictator who for 17 years had presided over the world's most isolated regime, James (Chin-Kyung) Kim, a 76-year-old Korean-American educator, was in an interesting place: his office in Pyongyang, North Korea's capital. That alone is remarkable for a man who had in 1998 been a political prisoner of Kim Jong Il. But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 James Kim created -- the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 -- is up and running in the heart of North Korea is a minor miracle.

CNN 홈페이지

- o We wrote about Kim in September 2009. Construction was then under way on the barren spit of land due south of central Pyongyang where the university now sits. PUST is the only private university in that isolated country -- a tribute to Kim's doggedness. Born near Seoul, he fought in the Korean War and moved to the U.S. in the 1970s. Kim managed to persuad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o buy into his vision: setting up a first-rate science and technical university in the capital that draws strictly on foreign scholars for its faculty.
- o PUST -- which I visited for a few days just before Kim Jong Il died -- opened its doors in the fall of 2010. It now has 267 students, all male and 200 of whom are undergraduates. Classes are taught in English, and half the foreign faculty comes from the U.S., a country North Korea still relentlessly demonizes.
- o The students are drawn from the country's elite, many the sons of senior officials in the ruling party or military officers. PUST depends on donations to survive. Students pay no tuition, and the faculty are all volunteers. Almost all, like James Kim himself, are evangelical Christians, living a spartan existence in a country where organized religion is banned. Nonetheless, Kim and his staff believe they are serving a higher calling by helping North Korean youth.
- o Kim has more fundamental concerns at the moment. Much of the original funding to construct the school came from evangelical Christians in South Korea, the majority of whom are fervently anti-Communist -- something Pyongyang ignored. In the year after PUST opened, North Korea shelled one of the South's northernmost islands, and inter-Korean relations deteriorated. Not surprisingly, Kim's fundraising shriveled, leaving the students with very little scientific equipment to use.
- o It's conceivable that Kim Jong Il's death could reset relations between Pyongyang and the world -- and improve Kim's fundraising. And if anyone could serve as a bridg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outside world, it's James Kim. He attended Kim Jong Il's funeral -- one of the few Americans present, if not the only one -- shaking hands afterward with Kim Jong Un, the 29-year-old son who is now the North's supreme leader. Not long after, James flew off to Washington for a private meeting with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Is a thaw possible? I asked him recently. "I don't know yet," he said. "Too soon to tell."
- o This article is from the March 19, 2012 issue of Fortune.

### 붙임 3. 러시아 외무부 게시 원문 (3.15)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СООБЩЕНИЕ ДЛЯ СМИ О консультациях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И.В.Моргулова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Ли Ён Хо”

- 15 марта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ись консультаци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В.Моргулова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Ли Ён Хо, в ходе которых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по тематике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 также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 붙임 4.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보도 원문 (3.15)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신문 홈페이지

“Китай спешит накорми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раньше США”

- Китайцы четко понимают, насколько для нов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важно правильно отметить 100-летие деда, - говорит ведущий сотрудник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 Хотя формально предоставляемая помощь является безвозмездной, в Пекине знают, что северяне найдут способ отблагодарить соседей. Такая помощь, в отличие от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США, которая об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условиями, налагает мораль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е, по словам эксперта, на востоке имею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 붙임 5.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3.12)

###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中朝关系基础为国家利益非意识形态”

- 朱锋：我觉得您的问题可以分两部分来看，第一个部分就是片子中也提到的一个话题，就是中国的对朝战略利益是否经常在变，或者说是不是让人有点看不清楚。我觉得我的看法并不是这样，我们在朝鲜半岛的战略利益是非常明确，半岛作为中国的国家安全门户，半岛作为今天中国最重要的经济合作伙伴，作为中国从历史到现实，最重要的社会联系非常重要的地方。
- 我们在半岛的利益就包括稳定、和平、无核化，包括我们说不应该出现任何反对中国的势力，但是问题在于半岛和中国的互动，不能够仅仅局限于这样一种双边关系，或者仅仅局限于中国和朝鲜，中国和韩国。
- 邱震海：但是理论上，朝鲜这几年在对中国的国家安全构成了相当程度的威胁，从这个角度说，中国应该怎么调整？但是从理论上它又是中国一个传统的盟友，而且是用鲜血凝成的友谊，这又使中国陷于进退之中。
- 张泊汇：这个就是如何平衡中国的战略利益和战略负担之间的关系，中朝之间肯定是有共同战略利益的，任何一个军事同盟都有以利益为基础的，而不是以意识形态为基础的，它这个战略利益就基于所谓东北亚大国之间的战略互不信任，中美之间和中国与美日之间的战略互不信任。因此中国和朝鲜的关系，有它的战略利益基础，但是就中国现在当前最重要的是，如何把朝鲜作为中国战略负担给中国造成代价，进行控制，这个是问题的关键。

## 붙임 6.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3.16)

### 일본 지지통신 홈페이지

“中朝合弁のタクシー急増=人民元が浸透、経済活動拡大”

- 北朝鮮の首都・平壤で中朝合弁会社が運営するタクシーが最近急増したことが分かった。中国資本の進出を背景に経済活動が活発化する中、市民の足としてのタクシーの需要が高まりつつあるようだ。2月下旬に訪朝した北京在住の東アジア学研究者、荒巻正行氏が明らかにした。
- 荒巻氏が現地の関係者から聞いた話によると、平壤のタクシーは数年前まで40~50台程度しかなく、東欧で生産された古い車体がほとんどだった。しかし、2年ほど前から中国製などのタクシーが出回り始め、昨年12月の金正

일본 지지통신 홈페이지

日労働党総書記死去以後に急増。現在、中朝合弁などのタクシー会社8社が計400台を運営しており、派手な黄色の車体のタクシーまで登場した。

- 平壤では経済活動の活性化に伴い、人民元が「第2の通貨」として小額紙幣に至るまで流通。タクシーの支払いも人民元か、外貨で買えるプリペイドカードが主になっている。車の交通量そのものが増えており、安全面を考慮してか、市内からは右ハンドルの日本車が「一掃された」という。
- 荒巻氏は「(富裕層が多い)平壤ではサービス業が発展するなど消費社会が育ちつつある。服喪の雰囲気は薄く、飲食店の屋台が特設されるなど活気があった」と指摘。「金総書記の(軍事を優先する)『先軍時代』から平壤市民の生活を重視する時代が変わったとの感触を得た」と語っ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광명성 3호 로켓발사 발표에 대한 美 전문가들 견해 (3.17 AP통신)
  - 「빅터 차」(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국장), '北 로켓발사는 실망스러운 행위로 김정은이 다룰 것이라는 의견을 약화시키며, 과거와 똑같고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
  - 「에반스 리비어」(前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 '北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어 단호한 대응 외에 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
  - 핵안보정상회의(3.26~27)는 北의 로켓발사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北이 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 「조나단 폴락」(브루킹스연구소 北 핵프로그램 전문가), '미국은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과거 北의 미사일 발사 사례를 들어 중국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
  - 北 로켓발사 발표 前, 美 공화당 의원 5명은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핵활동 유예 등 북한의 허구성 약속과 식량지원을 서로 맞바꾸기로 결정한 美 정부를 비난

### □ 중국어권

- '광명성 3호 발사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무시 보도 (3.19, 환구시보)
  - 美·北 합의로 식량지원을 얻은 북한의 로켓발사는 6자회담을 위해 노력한 중국을 무시한 처사임.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설득했을 뿐 아니라, 식량·철강·건축자재 등도 지원했음.
  - 또한, 북한은 이번 로켓발사에 대해 어떠한 사전 언질도 없었으며, 국제 사회가 모두 이 사실을 안 후에야 중국은 북한대사를 소환해 우려를 표명함. 이는 중국의 체면을 깎아내린 것임.

## □ 러시아어권

### ○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외무부 논평 (3.16 러시아 외무부)

-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북한의 평화적인 우주 공간 개발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만, UN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따라 UN 회원국의 의무사항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해서는 안됨.
- 북한은 국제사회에 반고, 역내정세를 긴장시키며, 6자회담 재개를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함. 6자회담 재개 및 역내에 상존하는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에는 변함없음.
- 이는 평화적인 미사일 발사 권리를 포함한 UN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점차 해제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개선시키는 유일한 방법임.

### ○ 김일성 생일 앞두고 항상 해왔던 전통적인 도발행위 (3.19 코메르산트 일간지)

-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위성을 발사하는 계획은 김정일 정권에도 해왔던 행동이며, 김정은은 이러한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임.
- 북한은 위성발사와 관련,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6자회담 재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외 전문가 및 기자 초청 의향을 최초로 밝힘.

## □ 일본어권

### ○ 「젠바」 외무장관, 북한 위성발사 관련 발언 (3.18 마이니치신문)

- '韓·美·中·러와 연계해 자제를 요구해야 하며, 미국도 美·北합의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UN안보리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위성이라고 하지만 위반임.

### ○ 「후지무라」 관방장관, 북한 위성발사 관련 발언 (3.16 닛케이)

- 나라의 평화와 안전 확보, 국민의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관계국과 긴밀히 연계하고 관계부처간 협력해서 정보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음.
- 위성도, 탄도미사일도 UN안보리결의에 위반된 것이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어질까 우려된다. 일본은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고 있음.
- 총리관저內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했고 내각 위기관리감을 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도 개최했음.

## 붙임 1. AP통신 보도 원문 (3.17)

AP통신 홈페이지

“Analysis: NKorea launch would risk ties with US”

- o "It's a real slap in the face," said Victor Cha, a White House director for Asia policy during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It undercuts a lot of theories that the young leadership might be different. If anything, it shows that it's very much the same as before, only more unpredictable."
- o "They (North Korea) are putting the Obama administration in a very, very difficult position," said Evans Revere, a former senior State Department official for East Asia. "The administration would have little choice but to react in a firm way to this."
- o A major international nuclear summit March 26-27 in South Korea, to be attended by Obama, will provide a high-profile opportun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rank up diplomatic pressure on the North over its plans, although most analysts doubt it will change course.
- o "The U.S. will probably really lean on the Chinese," said Jonathan Pollack, an expert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think tank. He said he expected the message to China to be: "You remember what happened last time they tried to launch a satellite?"
- o Republican lawmakers already have accused his administration of "appeasing" Pyongyang by offering 240,000 tons of food in exchange for a freeze on nuclear activities and a moratorium on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s. Even before Friday's announcement, a group of five Republican senators wrote to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accusing the administration of accepting the North's "hollow commitments."

## 붙임 2 중국 환구시보 보도 원문 (3.19)

중국 환구시보 홈페이지

“美亚洲炸锅了：金正恩玩弄美国忽悠中国”

- o 朝鲜宣布发射卫星之后，朝鲜周边的国家一下子都炸了锅。美国说朝鲜不负责任；韩国抗议，日本宣布要拦截朝鲜的卫星；中国也召见了朝鲜驻华大使，希望不要将局势复杂化。
- o 朝鲜忽悠的岂止是美国，还有我们中国。我们为了说服朝鲜，重新回到六方会谈的谈判桌上，也是给朝鲜不少么援助。粮食啊，钢铁啊，不少运输给朝鲜提供援助。韩国《东亚日报》15日刊登独家报道称，中国政府于2月下旬开始对朝鲜进行大规模无偿援助，援助物资包括粮食、建材等，价值高达6亿元人民币。但是朝鲜还是不给中国面子，准备发射卫星也不给中国打个招呼。等到国际社会都知道了，还得找到朝鲜大使，表示关切和忧虑。

### 붙임 3.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원문 (3.18)

####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ミサイル発射予告 玄葉外相、各国と連携し「自制求める」"

- 玄葉光一郎外相は17日、名古屋市内で講演し、北朝鮮の「人工衛星」打ち上げ予告について「改めて米韓、中国、ロシアと連携して自制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北朝鮮核問題をめぐる6カ国協議メンバー各国と協力して対応する考えを示した。
- 玄葉氏は「米朝合意と相いれないと米国も認識している」と指摘。さらに「国連安保理決議は、弾道ミサイル技術を用いた発射を禁じている。『衛星』とはいえ、違反だ」と北朝鮮を批判した。

### 붙임 4.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 원문 (3.16)

####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官房長官、北朝鮮衛星打ち上げ「情報収集と分析に万全期す」”

- 藤村修官房長官は16日午後の記者会見で、北朝鮮が4月にロケットで衛星を打ち上げると発表したことを受けて「我が国の平和と安全の確保、国民の安全・安心の確保の観点から、引き続き関係各国と連携を密にして、関係省庁間で協力して情報収集と分析に万全を期すよう指示を出した」と明らかにした。
- 官邸の危機管理センターに情報連絡室を設置したほか、内閣危機管理監をトップとする関係省庁の局長級会議も開いた。
- 長距離弾道ミサイルを発射する可能性については「衛星も弾道ミサイルも国連の安保理決議に違反しており、対話を通じた諸問題の解決に向けた取り組みも後退させかねないと懸念している。我が国としては発射しないよう強く自制を求める」と述べた。

## 붙임 5. 러시아 외무부 게시 원문 (3.16)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Комментарий МИД России о предстоящем запуске в КНДР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Земли"

- Сообщение о предстоящем запуске в КНДР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Земли вызывает серьезну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Россия никогда не отрицала суверенного права КНДР на мирное освоение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месте с тем, как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резолюция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требует от Пхеньяна отказаться от всех пуск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технологи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и носит обяза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для всех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 Призываем Пхеньян не противопоставлять себя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сообществу,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действий, обостряющих обстановку в регионе и создающих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сложнения для перезапуска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жидаем от всех сторон максимальной сдержанности.
- Неизменно убеждены, что возобновление шестистороннего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и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уществующих в регионе проблем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реальным путем оздоровления обстановк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постепенной отмены санкцио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введенных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Советом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ключая право на мирные ракетные пуски.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러시아어권

#### ○ '북한 위성발사,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3.19 스토레티에 ☞ 정보분석 인터넷신문)

- UN 우주조약 가입국인 북한은 우주공간을 개발할 법적권리가 있으며, 사실상 1874호는 UN헌장과 우주조약에 상충되는 결의안으로 문제가 있음.
- NPT 혹은 생화학무기와 관련 국제조약이 있는 반면, 미사일 기술개발을 제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차원의 조약은 없음.
-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의 우주개발은 허용되고 북한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는 모든 국가가 평등하다는 UN헌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모순임.
- 북한의 위성발사 이유는 △김일성 생일 100회를 기념하고, △핵프로그램 중단 상황에서 과학기술 부문 발전 차원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것임.
- 북한은 현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란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 제재 상황속에서도 제한적이거나 대북 식량지원·군사협력을 하는 우방국이며, △일본과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노선을 따를 것이고, △러시아와는 긴밀한 관계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위성발사를 계획함.

#### ○ '북한, 사실상 ICBM 개발능력 없다.' (3.16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이고르 코로트첸코」(국제무기거래분석센터 소장),
  - 'ICBM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은 △핵 소형화, △궤도 진입, △관련 기술·재료 보유 등이다.'

- '이전 2번의 발사실패로 알 수 있듯 북한은 궤도진입 능력이 없으며, 미사일기술 통제체제를 위해 외부로부터 관련기술·재료를 들여오는 것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군사비 지출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CBM 개발능력이 없다.'
-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 부문에서 이뤄냈다고 볼 수 있는 기술개발의 최대치는 스커드(액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타입을 북한식으로 현대화시킨 모델이다'라고 주장

## □ 중국어권

### ○ '광명성 3호 발사, 북한 1석 3조 효과 예상' 보도

(3.20, 재심 ㉮ 경제포털사이트)

- 美·北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이 로켓발사 발표를 한 것은 김정은의 계산된 생각이 있을 것임.
- 로켓발사를 통해 △향후 美·北 회담에서 미국에 압력을 가해 더욱 신속한 식량지원 확보, △김일성 생일 기념 행사를 위한 국내 안정, △총선을 앞둔 한국에 혼란을 주는 1석 3조의 효과 등을 예상했을 것임.
- 지난 美·北 합의시 핵포기로 미국에 투항해 식량지원을 얻은 것은 김정일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한국의 군사훈련 또한 김정은을 압박했을 것, 이에 미사일로 위신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보도

### ○ '한국은 진정으로 탈북자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고 비판

(3.19 신화사, 「천연」 중국연구원 집행원장 사설)

- 한국의 정치가, 언론, 외교인사들이 탈북자의 북송 반대를 크게 외치고 있지만 탈북자의 한국행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음.
- 한국이 진정으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中·北 국경의 수십만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

2012.3.20(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한국행 탈북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 수요에 훨씬 못미치며, 한국 대사관과 해외 주재 정부 기관의 경비는 오히려 삼엄하고, 진정으로 탈북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님.
- 한국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타국에 하라, 하지마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우선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비판

## □ 영어권

### ○ 美 상원 외교위, '北 위성발사로 신뢰성 훼손' 주장

(3.16 美 상원 외교위 성명)

- 「존 케리」(美 상원 외교위원장),
  - '광명성 3호 발사는 北에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주기 보다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
  - 2.29 합의에서 美와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韓·美와 협조를 약속한 北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음.
  - 위성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추가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北은 국제사회와 다른 관계를 원한다면 위성 발사 계획을 재고해야 함.
    - \* 케리 위원장의 성명은 北 발표 직후 나온 것으로 美 의원들 중 유일한 공식 반응이며, 케리 위원장은 그동안 대북 식량지원 등을 지지해오던 입장이었음.
- 北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한 의문점(3.16 美 브루킹스연구소)
  - 2.29일 美·北합의시 '美가 유예를 약속한 미사일 실험에 위성 발사가 포함된다고 확실히 했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



2012.3.20(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中은 北 위성 발사 계획을 전혀 몰랐는지 의문이며, 그렇다면 中이 北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
- 무엇보다 北이 美와 미소 외교(smile diplomacy) 후 얼마 안된 시점에 미사일 실험을 발표한 것이 가장 큰 의문이며, 이는 엄청난 오산임.
- 위성 발사 발표는 北이 대외 관계보다 김氏 가문 승배를 고취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중한 협상을 피하기 위해 도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입증함.

## □ 일본어권

### o '김일성 광장의 화장실' 관련 현지르포 게재 (3.19 산케이 신문)

- 김일성 광장에는 군인이나 군중들을 위한 화장실이 없다. 광장 지하에 화장실이 몇 개 있지만 최근 들어 통행금지가 되었음.
- 국가적 행사가 있는 전날부터 집합을 명령받은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길에서 용변을 보고 있음.
- 현재 평양의 소년 소녀들은 다음 달 실시되는 김일성 생일 100주년 마스게임 연습에 여념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아이들은 화장실용 비닐을 가지고 다님.

## 붙임 1. 러시아 스토레티에 보도 원문 (3.19)

러시아 스토레티에 신문 홈페이지

"Почему Пхеньян не пускают в космос?"

- Во-первых, КНДР в 2009-м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Договору 1967 г ода о принцип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ледовательно, требования от Пхеньяна выполнять положения резолюции 1874 вступают в диссонанс.
- Во-вторых, получение каким-либо государством раке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фактически никак не лимитируется...ядер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о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ДНЯО. Подоб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авовые механизмы существуют также и в отношении химического и биолог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 В-третьих, резолюция 1874 сама вступает в противоречие с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м докумен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Уставом ООН, в котором постулируется принцип «суверенного равенства всех ее членов». Если Объединенные Нации позволяют Пакистану, Индии и Израилю заниматься развитием косм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то почему так усиленно хотят лишить подобной возможности КНДР?
- Почему же КНДР, отдавая отчет в резко негативной реакции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решила на запуск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Причина довольно проста. В стране 15 апреля будут отмечать сотую годовщину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Ким Ир Сена, дату эту, как водится, необходимо ознаменовать масштабны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 붙임 2.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3.16)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Задача создания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Пхеньяну не по плечу"

- "Во-первых, у меня большие сомнения в то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может решить эту задачу, учитывая, что все предыдущие пуски их ракет фактически заканчивались неудачами. То есть, вывести спутник на орбиту им до сих пор не удалось"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 Однако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такого варианта развития событий необходимо выполнение еще одного условия - габариты существующих ядерных устройств должны быть доведены до "очень компактных"
-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сегодня Пхеньян находится под действие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и тяжел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в стране не позволяет привлек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военные расходы.
-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то, что действующий режим контроля раке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фактически не позволяет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лучить подобного рода технологии и материалы извн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аксимум, что сегодня имеет Пхеньян - это глубоко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ые ракеты типа "Скад" (жидкостная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скажем так,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исполнении. Это максиму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области создания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붙임 3. 중국 재심 보도 원문 (3.20)**

중국 재심 홈페이지

“朝鲜“导弹”谁的泪殇”

- 就在半个月前，美国才刚刚宣布双方就核问题“冰释前嫌”。朝鲜同意停止核试等相关活动，以换取美方24万吨营养食品的粮食援助以及改善双边关系。仅仅半个月，朝鲜便“翻脸不认人”，美国颜面尽失。
- 然而，细细分析而来，此次朝鲜反水有情可原。自去年年底朝鲜前最高领导人金正日突然薨殁以来，年轻的金正恩挑起大梁，面对着“路向何方”的严峻问题，而“国内稳定”是其行动的最高原则。也正是凭借着“初生牛犊不怕虎”的蛮劲，金正恩才能够“翻脸不认人”，其实其个中心思还是为了讨价还价。
- 可以预见，刚刚上任数月的金正恩面临着国内的巨大压力，而在这时“弃核投美”换得口粮这一举动，显然有悖其父金正日的教导。加之，韩国在此时颇为“不识时务”地叫嚣军演，金正恩被迫出招，拿“导弹”树立威信。
- 以此看来，朝鲜发射“导弹”或许是为了在将来的朝美谈判中向美国施压，借此敦促美国迅速发放粮食援助，另一方面也是为了纪念金日成的诞辰，稳定朝鲜国内，并且向面临国会议员选举和总统选举的韩国“小秀肌肉”，可谓“一石三鸟”。

## 붙임 4. 중국 신화사 시설 원문 (3.19)

### 중국 신화사 홈페이지

#### “请韩国真心接纳“脱北者”

- o 在“脱北者”问题上，韩国个别政治家、大部分媒体及韩国外交人员在奋力疾呼，要求国际社会“不要遣返”，却闭口不谈接纳数万“脱北者”进入韩国一事。如果韩国真愿意在“脱北者”问题上有所作为，他们该表示出诚意，比如韩国国家应制订计划，将在中朝边境的数十万“脱北者”用数年时间先接到韩国。
- o 从韩国统一部发布的数字看，在1990年，韩国仅接受了9名朝鲜人，2000年这一数字增加到312人，2008年增至2809人。但韩国接纳的人数、规模大大小于实际需求。韩国使领馆、政府在外机构并没有敞开大门欢迎“脱北者”，而是戒备森严，唯恐大量涌入。
- o 我们应该呼吁国际社会，特别是韩国立即行动起来，从每年接受数万“脱北者”做起。己所不欲，勿施于人，韩国自己没有像样的行动，怎么能要求其他国家做什么、不该做什么呢？(中国研究院执行院长陈言)

## 붙임 5. 美 상원 외교위 성명 원문 (3.16)

### 美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

#### “Chairman Kerry on the DPRK Satellite Launch”

- o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Chairman John Kerry (D-MA) today issued the following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DPRK announcement that it plans to launch a satellite to celebrate the Great Leader's 100th birthday: This wouldn't be a move in the real interests of the DPRK and it's troubling.
- o It certainly violates the spirit of the commitments the DPRK made just last month in Beijing, and would seriously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its pledge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our South Korean allie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o If carried out, this satellite launch will contraven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nvite further international condemnation.
- o The DPRK should reconsider its course, particularly if they ever want to see a different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of nations.

## 붙임 6. 美 브루킹스연구소 게시 원문 (3.16)

美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

### “North Korea's Planned Satellite Launch”

- o When U.S. negotiators were crafting what became Pyongyang's February 29th statement, did they seek or receive any assurance that the missile-test moratorium included satellite launches?
- o Was China, which so far has “taken note” of the North Korean announcement and called on “all parties” to act constructively, totally unaware of the North Korean plan? If so, that doesn't speak well of its special relationship with Pyongyang.
- o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 why Pyongyang chose to announce a missile test at this time, so soon after its most recent smile diplomacy resulted in a limited yet non-trivial understanding with the United States. This may simply reflect a huge miscalculation.
- o It certainly suggests that Pyongyang places greater emphasis on promoting the Kim Family Cult than on its external relations. Today's announcement may suggest, once again, that Pyongyang is using provocations to avoid serious negotiations while a political transition is still underway.

## 붙임 7.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3.19)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 “金日成広場のトイレ ”

- o 1992年4月。朝鮮人民軍創設60年式典で金正日氏がお立ち台から初めて甲高い声を発して以来、広場は北朝鮮の「顔」である。金日成、金正日父子の葬列がここに集合し、金正恩氏が金正日生誕70年軍事パレードを閲兵した。来月15日には金日成生誕100年の祝典が、25日は人民軍創設80周年の軍事パレードが行われる。数十万人の住民らが近くの沿道に晴れ着姿で集まることだろう。
- o だが、金日成広場に軍人や群衆のためのトイレはない。だから、軍人たちは前日から極力、水を飲まない。広場の地下に数カ所のトイレがあるらしいのだが、入り口は近年通行止めだ。ちなみに天安門広場は周囲の歩道の溝に水を流して臨時トイレにしている。
- o 北朝鮮の数十万人の軍人や住民は、国家行事の前日から市内各所に集合を命じられる。人々はやむなく道端で用を足し、厳冬も盛夏も金一族の行事のため野外で夜を明かす。実に非人道的、非生産的な人力浪費の限りだ。
- o 綾羅島メーダースタジアムで行われるマスゲームには、10万人の平壤市内の小中学生が招集される。訓練は6カ月から1年間続くが、子供たちは喜んで練習するという。ほうびにもらえるわずかなお菓子や学用品のためだ。いま、平壤の少年少女は来月の本番に向けて金日成生誕100年マスゲームの練習に余念がないだろう。子供たちはマスゲームにはトイレ用のビニール袋などを持っていく。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美, 서울 정상회의서 中과 회담 통해 北 압박(3.20 美 블룸버그통신)
  -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후진타오」 주석을 포함한 세계 정상들과 회담에서 북한과 핵개발을 둘러싼 이란과의 대립이 배경이 될 것으로 보임.
  - 「벤 로데스」(백악관 국가안보국 부보좌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매우 강한 공동전선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
- 뉴욕 타임즈, 北 위성 발사 발표 관련 보도 (3.20 / NYT)
  - '미국은 지난 美·北회담 당시 북한측에 위성 발사가 합의 위반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보도
  - 미사일 유예 합의 후 로켓 발사 발표는 미국에 대한 외교적 모욕인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로켓 프로그램을 얼마나 용인할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임.
  -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로켓 발사 강행시 식량지원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약속한 식량지원은 북한이 원하는 종류나 규모가 아니었으며,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짐.

### □ 러시아어권

- 북한, 6자회담 참가국들 시험하는 듯(3.20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러시아 과학아카데미산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은 핵프로그램과 우주개발이 별개의 문제라 확신하고 있으며, 역내 발생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2012.3.21(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얼마나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 시험하고자 하며, 이는 중동의 사례처럼 결의안이 채택 후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사실상 한국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금지된 국가지만, 위성발사체를 2차례 발사했다.'
  - '미국으로부터 추가식량지원을 노린 수였을지도 모르나, 사실상 이렇게 이슈가 된 상황에 발사취소는 힘들게 됐다.'
  - '북한 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근보다, 90년대 말부터 계속된 만성적인 영양실조다.'
- 「세르게이 라브로프」(외무부 장관), 북한관련 언급(3.20 코메르산트 FM 라디오)
- '북한처럼 핵과 미사일기술 보유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책임감을 느끼고 공격과 같은 행동을 제안하지 않게 된다.'

## □ 중국어권

- '북한에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  
(3.20, 환구시보, 「잔더빈」 상하이 대외무역학원 학자 사설)
-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발사에 세계가 놀랐지만 북한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국제사회는 침착해야 하며 북한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 '현재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위성이 아니라고 비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북한은 이번 로켓이 위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보기 드물게 국제전문가 및 언론의 현장 취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 '이를 보면 이전과는 다른 성의가 드러나며,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국제여론에 반응하기 시작했으며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 '북한의 주장처럼 韓·美·日도 위성을 발사하고 군용 스파이 위성도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조금하계 북한을 비난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행동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의 투명성을 높이고 로켓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2012.3.21(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실제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면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고 정권안정을 위함일 것이다. 이에 주변국들은 북한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
- '韓·美·日이 북한 로켓발사에 호들갑 떨게 되면 정세는 더 악화되고 북한 내 강경파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미 발사 일정을 발표한 북한의 계획 취소는 어렵기에 각국은 적대적 태도가 아닌 침착한 모습으로 북한의 로켓발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 □ 일본어권

○ PAC3, 사정 짧으며 광대한 해역 방위에 한계(3.20 스포츠 닷폰<sup>※</sup> 스포츠신문)

- 방위성은 '이지스함 2~3척으로 일본전역을 방호할 수 있다.'며 SM3 능력에 자신감을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요격실험이 계속 실패하고 있으며 확실히 파괴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음.
- 최후의 보루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은 사정범위가 20km정도로 매우 좁다. 사고나 발사 실패로 미사일 일부가 낙하할 경우 낙하지점 예측이 더 어려워짐. 오키나와현만 해도 약 1000km의 해역에 크고 작은 160개의 섬이 점재해 있으며 요격이 매우 어려운 것이 실정임.
- 일본 영역으로 낙하할 가능성이 낮지만 요격태세를 취하는 것은 북한에 강력한 자세로 대응해 방위에 적극적인 모습을 국내외에 어필할 의도가 있기 때문임.
- 거액을 투자한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듯함.



## 붙임 1. 美 블룸버그통신 보도 원문 (3.20)

### 美 블룸버그통신 홈페이지

“Obama to Press Hu on North Korea, Iran at Seoul Nuclear Summit”

- o President Barack Obama will meet with China's President Hu Jintao next week in Seoul as the U.S. seeks to keep up pressure on North Korea to negotiate an end to its nuclear weapons program.
- o North Korea and the confrontation with Iran over its nuclear development will be the backdrop for Obama's meetings with world leaders, including Hu, at a nuclear security summit March 26-27.
- o “There is a path that allows North Korea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n Rhodes, Obama'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e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told reporters in a briefing.
- o The U.S. expects the summit will demonstrate there is a “very strong and united fron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topp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material, Rhodes said.

## 붙임 2. 美 뉴욕 타임즈 원문 (3.20)

### NYT 홈페이지

“North Korea Complicates Nuclear Talks With Plans”

- o American officials have said that they made clear to North Korean officials during negotiations last month that a satellite launching would be a deal-breaker. Washington suspects North Korea of using the launchings as cover to develop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hile the North has insisted that it has the sovereign right to develop “peaceful” space technology.
- o By first accepting that missile-moratorium deal and then announcing its plan to launch the rocket, North Korea appeared to be delivering a diplomatic slap to Washington while testing the Obama administration's tolerance for its rocket program.
- o Unless the United States or North Korea backs down, the North's rocket launching will probably deprive Mr. Kim of the 240,000 tons of badly needed food aid. But the promised “nutritional assistance” was neither of the type nor of the amount the North had wanted. China, which cherishes stability in the North and has endorsed Mr. Kim, reportedly shipped large amounts of food aid to the North recently.

### 붙임 3.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보도 원문 (3.20)

####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신문 홈페이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елает ракеты и ждет в гости МАГАТЭ"

- Пхеньян демонстрирует желание найти консенсус в решении кризиса в регионе,-говорит ведущий сотрудник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При этом там убеждены, что яд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и освоение космоса-разные вещи.
- КНДР пытается проверить, насколько участники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е готовы на уступки,- поясняет Асмолов.-Ведь иногда резолюции принимают, а потом игнорируют,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опыт ближневосточ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Например, Южная Корея дважды запускала космические аппараты. Между тем Сеулу тоже запрещено создавать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дальнего радиуса действия.
- Пхеньян може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ытаться добиться от СШ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мощи, Но теперь, после поднятого шума, отказаться от запуска будет сложно. По данным Асмолова, КНДР обеспечивает себя продуктами питания на 80%. Речь, скорее, надо вести не о голоде, а о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м недоедании.

### 붙임 4. 러시아 코메르산트 FM 원문 (3.20)

#### 러시아 코메르산트 FM 라디오 홈페이지

"Коммерсант FM-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й Лавров"

- При этом он привел пример с КНДР, которая открыто говорит, что у нее есть ядерное устройство и ракет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проявля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не предлагает бомби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 указал Лавров.

## 붙임 5. 중국 환구시보 사설 원문 (3.20)

중국 환구시보 홈페이지

### "给朝鲜表露诚意的机会"

- 朝鲜宣布将于4月中旬发射“光明星3号”观测卫星。虽然此举令各国震惊，但朝鲜的主张也并非毫无道理。国际社会应该冷静观察，给朝鲜一个证明清白的机会。
- 但从目前来看，并没有任何证据可以指责朝鲜发射的不是卫星。朝鲜为了证明此次发射的是卫星，罕见地宣布邀请权威外国专家和媒体参观发射现场。从另一个角度看，这反映了朝鲜的诚意和变化的迹象，与朝鲜之前在核问题上的态度截然不同。即朝鲜开始在意国际舆论的反应，并且愿意通过提高透明度的方式化解分歧。这样的态度更让人倾向于相信，这次它将要发射的可能真是卫星。
- 假如朝鲜能够证明其将发射的确是卫星，美日韩拿联合国1874号决议施压的说服力就大大削弱。因为朝鲜并未接受过1874号决议，而联合国也没有任何规定限制一个主权国家在自己的国土上发射地球观测卫星。正如朝鲜所主张，美日韩自己也在发射卫星，还是军用间谍卫星。朝鲜有充分理由以1874号决议指责与其情况相似的韩国。
- 既然如此，国际社会就不应该急于谴责朝鲜，更不应急于掀起新一轮对抗行动，而应趁这个机会促使朝鲜增加透明度，监督和促使其不将火箭转作洲际导弹。退一步说，如果朝鲜确实是为了发展洲际导弹，其目的也还是为了吓阻来自远方的威胁，维护政权生存，这需要周边国家共同提升朝鲜的安全感，消除其发展洲际导弹的动机，尤其是被朝鲜视为敌对的国家更应反思如何消除相互间的敌意。
- 实际上，朝鲜发射卫星是否导致地区局势恶化取决于美日韩的反应。在此前发生的历次所谓朝鲜“导弹危机”中，美日韩都捞到了不少好处。有的国家趁机发展了自己的间谍卫星和导弹防御系统，有的国家企图发展自己的远程弹道导弹系统。此次恐怕也不例外。如果美日韩趁此机会大动干戈，局势自然会更加恶化，也会被朝鲜国内强硬派反利用。
- 因此，相关各国不妨冷静等待朝鲜揭开卫星的面纱和公开火箭发射结果，而不应借此机会火上浇油。从目前的情况看，已经公布发射日程的朝鲜估计很难取消计划，没有必要为此树立一个更加敌对的朝鲜。（作者是上海对外贸易学院学者詹德斌）

## 붙임 6. 일본 스포츠 닛폰 보도 원문 (3.20)

### 일본 스포츠 닛폰 신문 홈페이지

"田中防衛相 北の「衛星」領域落下なら撃墜命令も"

- 北朝鮮が4月に行うと予告した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実験とみられる「衛星」打ち上げに備え、田中直紀防衛相は19日、自衛隊に破壊措置命令を下すことを検討すると表明した。政府は南西諸島を中心に迎撃態勢を敷く方向だが、地上配備型の迎撃ミサイルは射程が短く、広大な海域を防衛する能力に限界がある。
- 田中防衛相は予算委で「自衛隊に破壊措置を命ずることを考えている。わが国の安全保障が脅かされる不測の事態を確認したら所定の手続きを進める」と強調。具体的には、地对空誘導弾パトリオット(PAC3)や、弾道ミサイル迎撃機能を持つイージス艦の展開を検討する考えを示した。
- 破壊措置命令は日本領域にミサイルが着弾や落下する事態を警戒、自衛隊がミサイル防衛(MD)の態勢を整えるために出す。上空を通過しても、領空侵犯に該当しない高度約100キロ以上の宇宙空間に達し、領土や領海に落ちる恐れがなければ迎撃措置は取らない。
- 日本のMDシステムは(1)海上自衛隊のイージス艦が迎撃ミサイルSM3を発射して大気圏外で迎撃(2)撃ち漏らした場合は航空自衛隊のPAC3が着弾前に迎撃—の2段階。防衛省は「イージス2~3隻で日本全域の防護が可能」とSM3の能力に自信を示すものの、米国では迎撃実験の失敗が相次いでおり、確実に破壊できる保証はない。
- その場合に「最後のとりで」となる地上配備型のPAC3は、射程範囲が20キロ程度と極めて狭い。事故や発射失敗でミサイルの一部が落下する場合、落下地点の予測がより困難になる。沖縄県だけでも東西約1000キロの海域に大小約160の島が点在し、迎撃は非常に難しいのが実情だ。
- 北朝鮮は今回、「運搬ロケット」の1段目が韓国の西方沖、2段目はフィリピン東方沖に落下すると予告した。予告通りなら日本領域に落下する可能性は低いだが、迎撃態勢を取るのには、北朝鮮に厳しく対応し防衛に積極的な姿勢を内外にアピールする狙いがある。巨費を投じたMDシステムを活用しなければ「無用の長物」と批判を受けかねない懸念もありそうだ。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美 대통령, 中·러 정상들과 北 문제 논의 예정 (3.21 美 월스트리트저널)
  - 「오바마」 美 대통령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중 「후진타오」 中 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도전에 대해 연설할 계획임.
  - 「대니 러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 ‘북한은 고립을 심화시키는 선택을 할 것이며, 이는 불행한 일로 북한이 직면한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
    -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
  - 「벤 로데스」(백악관 NSC 부보좌관), ‘핵안보 및 비확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과 우리가 北과 거래하는 노력 사이에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
- ‘美, 北 위성발사 미사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3.21 / Bangkok Post, CSIS Pacnet series 게재 사설)
  - 「Carl Baker」(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미국은 반사적으로 합의 위반이라며 비난했지만, 미국의 반사적인 반응은 북한에 대해 적개심이 없다는 미국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성 발사가 미사일 발사와 같다는 미국측의 주장은 미국의 적개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임.’
    - ‘미국과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위성발사 미사일 프로그램이 같다고 인식하더라도 북한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둘의 차이점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어온 것도 사실임.’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미국이 미사일과 위성의 차이를 인정하면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약하게 비추어 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둘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게 핵 유예를 파기할 구실을 주는 것임.’
- ‘북한이 위성 프로그램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의 외국 전문가 및 기자단 초청을 받아들이고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이 적대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전략임.’
- ‘또한 이러한 전략으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위성을 발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UN 결의안에 위배되는 도발로 취급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새 발사 시설과 추진 장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

## □ 중국어권

### ○ ‘북한의 위성 발사 위기,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3.21 / 동방조보 ㉠ 일간지)

- 「리우밍」(상하이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소장),
  - ‘북한이 주변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성을 발사한다면 中·北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은 이를 염두에 뒤야 한다.’
  - ‘중국은 제3차 미·북 고위급 회담을 주선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6자회담 재개를 추진했다. 이런 좋은 분위기가 북한의 도발로 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 ‘그러나 현재 주도권은 북한이 가지고 있으며,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정책 유연성이 관건이다.’
  - ‘중국도 이전과는 다르게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 발표 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중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외교 이미지 수립에도 이롭다.’
  - ‘7월에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외교장관회의가 열린다. ARF는 북한이 가입한 유일한 안보관련 회의이므로 ARF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기대할 만하다고 주장

○ '합일된 의견으로 북한 정세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3.20 홍콩 봉황위성TV, 「치우쩐하이」 시사평론가 대담)

- '북한의 로켓발사 발표로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반응이 거세지만 관련국들은 합일된 의견으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
- '각국의 일관된 입장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느끼면서 위성 발사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하지만 과도한 태도는 북한의 반발만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침착해야 한다.'
- '지난 30년간 북한의 위성 발사 후 국제사회의 과도한 반응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 전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1년 반 만에 찾은 화해의 분위기를 소중히 여기며 강경하면서도 침착한 태도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 러시아어권

○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에 평화 가져다 줘(3.22 코메르산트 ☞ 일간지)

- 북한 문제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전체 차원이 아니더라도 양자회담을 통해 다뤄지게 될 것이며, 러·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됨.
- 「파벨 레샤코프」(모스크바국립대 한국학센터 소장), '북한은 한국의 나로호 발사를 근거로 서방의 이중잣대 적용을 비난하고 있고, 그 어떠한 대북 도발행위도 전쟁선포로 간주한다는 등의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 '총체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이며, 사실상 한국은 이에 동의하지만, 미국이 선 북핵문제 해결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

○ 북한 위성발사 성공에 대해 매우 회의적(3.16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알렉산드르 젤레즈냐코프」(치올코프스키 우주과학아카데미 우주비행학 전문가),  
· '북한의 2차례의 발사실패를 고려할 때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다.'

2012.3.2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이 성공적인 궤도진입을 시킨다 해도 위성 자체는 단순화된 구조일 것이다. 인공위성 자체 무게는 10kg 이하, 최선의 경우 애국가등을 내보내는 위성에 무선송신기가 장착된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로운 위성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발표는 사실상 이전 2차례 발사된 위성이 성공했다고 믿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용이다'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주변국을 최대한 배려한 위협' (3.21 기타오지 기관 ⇨ 안보연구실 블로그)
  - 북한, 러시아와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본의 난세이제도 상공을 비행해 필리핀 공해로 떨어뜨리는 경로를 선택함.
  - 2009년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이 예상 외로 러시아를 자극했고 일본을 자극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배웠을 것임.
  -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음.
  - 난세이제도는 혼슈보다도 해면의 비율이 높으며 도시도 별로 없음.
  - 일본은 1999년에 강력한 탄도미사일 경계체제와 방호체제 정비했음.
  - 따라서, 주변국 가운데 군사적·정치적으로 무난한 필리핀을 선택했을 것임.
- '서방 대학에 북한 유학생 증가' (3.22 산케이biz ⇨ 종합경제정보 사이트)
  - 올해부터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북한 유학생 3명(교수 2명, 학생 1명)이 자연과학과 법률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왔으며, 유럽 전체에서 25~30명이 유학중임.
  - 2009년 이후 중국으로 가는 유학생이 급증했고, 2010년 가을에 배수로 증가해 동북3성에 200명이 유학중이며, 주로 어학 및 과학기술 육성이 목적임.
  - 유럽에서는 2000년 이후 북한과 국교를 맺는 국가들이 증가되어 모스크바, 바르샤바 외에 대사관이나 대표부를 개설한 파리, 제네바, 베를린 등으로 유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미국도 북한 유학생을 수용하기 시작하여 전년 대비 30% 증가한 57명이 유학중임.



## 붙임 1. 美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원문 (3.21)

美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North Korea, Iran Expected To Dominate Nuclear Talks”

- o North Korea and Iran are expected to dominate President Barack Obama's trip to South Korea this weekend, as concerns mount about Tehran's nuclear ambitions and Pyongyang's preparations for a satellite launch the U.S. and its allies said they believe is largely for military purposes. The real action, however, will take place on the sidelines of the summit, where Mr. Obama is scheduled to hold meetings with the leaders of China, Russia and Turkey. He also will deliver a speech in Seoul detailing the challenges posed by Iran and North Korea.
- o "They may choose to deepen their isolation," said Danny Russel, senior Asia director on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at would be unfortunate, and we think that that would be a mistake that will only exacerbate the problems that North Korea faces and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he added.
- o U.S. officials said preventing the North Korean launch will be among the top issues raised during Mr. Obama's talks with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and President Hu Jintao of China. "We certainly hope and recommend that China bring all the instruments of power to bear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in North Korea along the lines that President Obama has advocated," said Mr. Russel.
- o "I think there is a very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president's achievements on nuclear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and our efforts to deal with Iran and North Korea," said Ben Rhodes, a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er.

## 붙임 2. Bangkok Post 보도 원문 (3.21)

Bangkok Post 홈페이지

“US should test North Korea's space exploration claim”

- o The instinctive reaction to last week's announcement by North Korea that it plans to launch a satellite next month was to denounce it as a violation of the "Leap Day deal".

Bangkok Post 홈페이지

- o Let me suggest a way to avoid another rerun: rather than insisting the launch violates the long-range missile launch moratorium, Washington should test the North Korean claim that it is launching a satellite and not a missile by accepting Pyongyang's offer to allow experts and journalists to observe the launch.
- o While most analyses of the North's rationale for making this announcement involve Pyongyang palace intrigue, this approach is mistaken. The planned launch has been a long time in the making. The use of a new test facility suggests that it is part of a long-term strategy and is not being driven by an internal power struggle as much as it is by the desire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the satellite programme.
- o Therefore, the US would be well-served to be more nuanced in its response. There is a real potential for what North Korea is calling the US bluff on Washington's oft-repeated pledge that it bears no hostile intent toward North Korea.
- o From Pyongyang's perspective, US insistence that an attempted satellite launch is the same as a missile launch is a clear manifestation of that hostility. While the US (and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 is satisfi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North Korea's satellite programme and a missile programme, North Korea clearly did not get that memo. And they may have a case.
- o Calling the US bluff presents a serious dilemma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Acknowledging a distinction between missiles and satellites would likely be interpreted as a signal of weakness to political opponents and allies alike — not a good move in an election campaign. But, refusing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 gives North Korea an excuse to walk away from its nuclear moratorium.
- o The North Korea clearly does not intend to stop its pursuit of a satellite programme. Therefore, perhaps the best strategy would be to accept the North Korean offer to observe the launch and push for more transparency. This would undermine Pyongyang's claim that the US has "hostile intent" and force it to accept demands for more transparency.
- o This would reassure the US that this really is a satellite launch and not a missile test. It would make any attempt to launch a long-range missile more provocative and could be characterised as a clear breach of UN sanctions. It would also provide an opportunity to learn more about the new launch facility and the propulsion system.

Bangkok Post 홈페이지

- o Some will reject this approach, claiming that allowing North Korea to proceed with the launch gives it the opportunity to test the propulsion system that would be used for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But it seems better than the alternative \_ a return to stalemate. Maybe it is time to call North Korea's bluff rather than get sucked back into the tactical tit-for-tat that has allowed Pyongyang to control the strategic game for years.
- o Carl Baker is director of programmes at Pacific Forum CSIS. It originally appeared in the Pacific Forum CSIS Pacnet series.

**붙임 3 중국 동방조보 보도 원문 (3.21)**

동방조보 홈페이지

“中国更主动斡旋朝鲜射星危机”

- o 上海社科院亚太研究所所长刘鸣认为，一旦朝鲜不顾各方意见试射了卫星，势必将会对包括中朝关系在内的对外关系产生影响。“眼下，朝鲜至少要作出必要姿态来管理这个问题。”
- o 刘鸣认为，目前正处于一个微妙时期。中国希望借由此前第三次美朝高层会谈的结果促使美朝关系得到改善，从而推动六方会谈的召开，中国不希望这种积极的趋势因为某些个别事件搅黄，担心朝鲜半岛业已形成的有利气氛被破坏。但是，现阶段主动权在朝鲜一方，况且朝鲜对试射卫星的态度又相当坚定。其中的关键还要看朝鲜的政策弹性有多大。
- o 此外，在刘鸣看来，中国积极的态度也有助于在国际上塑造一个良好的外交形象。
- o 日本媒体昨天获悉的将于4月3-4日召开的东盟首脑会议主席声明草案显示，7月在金边召开朝核六方会谈所有各方出席的东盟地区论坛（ARF）外长会议时，东盟有意从中斡旋以推进重启六方会谈和朝鲜半岛南北对话。
- o 报道称，ARF主席国柬埔寨与朝鲜保持着传统友好关系。据消息人士透露，柬埔寨副首相兼外长贺南洪将在ARF论坛召开之前，于6月上旬出访平壤，直接与朝鲜方面进行沟通。此外，贺南洪还计划5月访美。
- o 虽然朝鲜预告发射卫星等，造成其局势并不明朗，但由于ARF是朝鲜加入的唯一一个讨论地区安全问题的场合，因此东盟有意届时充分发挥作用。

## 붙임 4.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3.20]

###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邱震海：各方应立场一致 防止朝鲜局势激化”

- 姜声扬：朝鲜宣布发射卫星，引发周边国家还有美国的激烈反应。让刚刚回暖的朝鲜半岛局势，又再度出现了危机。我们现在看到了美国的反应，似乎越来越激烈。
- 邱震海：对，我认为现在事态正在不断的升级，这个里面我觉得有两点需要向包括中国在内的各方大家指出来的，第一，各方在这个问题上一定要保持立场一致；第二，在保持立场一致的同时，一定要避免事态的细化。
- 各方只有保持立场的一致，一致向朝鲜施压，我想朝鲜才能感受到来自国际社会的一些压力。只有在这种压力之下，也许朝鲜新的领导层才能改弦易辙，放弃4月15号如期试射“光明星3号”卫星的计划。
- 但是与此同时，我们必须指出的是，各方在立场一致的同时，必须要避免事态的计划。像日本方面，目前所谓的要在4月15号，朝鲜如期发射卫星的时候，要启动导弹拦截机制，以此来击落卫星，这种举动我想可能是在立场，各方立场一致，保证强硬的同时，似乎又跨越了一步了。因为这种举动弄得不好，会导致朝鲜更加激烈的反弹。
- 我们不要忘了，在过去三十年之前，朝鲜就是也是由于这个先发射卫星，然后引起国际社会过度的反应之后，才导致了第二个核试验的进行，所以我们觉得朝鲜半岛，好不容易迎来了一年半，将近一年半的相对和平的局面，大家要非常珍惜，一方面要对朝鲜施加强硬的压力。另一方面，也要保持一定的克制，千万不要使局势再度升级。

## 붙임 5. 러시아 코메르산트 보도 원문 [3.22]

### 러시아 코메르산트 신문 홈페이지

"Барак Обама обозначит границу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Участник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вряд ли обойдут стороной и 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КНДР.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 кулуарах будет обсуждаться намерение Пхеньяна запустить 14-16 апреля на околоземную орбиту космический спутник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Северокорейц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е без оснований обвиняют Запад в применении двойных стандартов: "южане" ведь регулярно используют свой космодром Наро", рассказал "Ъ" директ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МГУ Павел Лешаков.

러시아 코메르산트 신문 홈페이지

- "Любые провокации в нашем отношении будут восприняты как объявление войны", предупредили в Пхеньяне. "По сути, объявлять Пхеньяну ничего и не придется-две Кореи формально находя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войны", пояснил "Ъ" Павел Лешаков. По его словам, единственным возможным реш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кризиса было бы заключение постоянного мира вместо действующего с 1953 года перемирия. "Сеул согласен на такой шаг, который стал бы ключом к комплексному решению накопившихся проблем, считает эксперт. Однако против этого выступают США, утверждающие, что вначале нужно решить вопрос с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ой".

**붙임 6.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3.16)**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Эксперт: КНДР в лучшем случае запустит спутник с музыкой "

- "У меня есть большие сомнения, что они этот спутник вообще запустят. Предыдущие два запуска - в 1999 и 2009 годах - заканчивались авариями, хотя власти КНДР оба раза объявляли, что эти запуски прошли успешно", - сказал Железняков. По его словам, если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доработали ракету, то спутник, который она сможет вывести на орбиту, будет простейшим по конструкции.
- "Космический аппарат будет весить не более десяти килограммов. По устройству - в лучшем случае на спутнике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 радиопередатчик, который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 какую-нибудь мелодию, скорее всего патриотичную, в дух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и.
- Он добавил, что все сообщения о запуске нового спутника, в основном, рассчитаны не на внешнюю аудиторию, а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Что им скажут, тому они и верят. Они ведь до сих пор верят, что вокруг Земли "вертятся" дв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утника", - отметил Железняков.

## 붙임 7. 일본 기타오지 기관 게시 원문 [3.21]

### 기타오지 기관 홈페이지

“北朝鮮弾道ミサイルは何故沖縄上空を飛行する計画なのか  
周辺国への最大限の配慮を行い恫喝!?”

- 北朝鮮弾道弾が来月試験を行い、今度は南西諸島方面からフィリピンへ飛ばすとのこと。
- なぜ今回の弾道弾試験が日本の南西諸島上空を飛行しフィリピン方面へ着弾させる経路を飛行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みますと、一説には沖縄の米軍基地を狙っている、という話もあるのですが、もちろんその側面も皆無ではないにしてももう一つ重要な要素があるように思います。
- それは、前回、2009年の弾道ミサイル試験がおもいのほかロシアを刺激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北朝鮮にとりロシアは友好国であるとともに隣国の大国、特にアメリカを標的としうる経路を飛翔させた場合、地球は球状ですのでロシア上空を近接して飛行することになるわけです。
- もちろん、日本列島の本州島を上空通過する形での実験も行えるのですが、何分先方としては日本もできるだけ刺激を避けたく、ミサイルは国威発揚と恫喝に用いる展望を掲げつつ、あまり刺激すればかえって悪い結果になる、ということ学んだのでしょう。なにより、日本は1999年の弾道ミサイル危機を契機に世界でも最も濃密な弾道ミサイル警戒体制と防護体制を整えてしまいましたから。
- 消去法でフィリピンへ。南西諸島は本州よりも、海面の割合が多く都市部も本州ほどではない、前回の経路を費消した場合東日本大震災被災地上空を飛行することにもなりますし、この点も多少日本を刺激しないよう選択肢の選定に入れた可能性があります。そして、最も周辺国では軍事的政治的に無難なフィリピンを選んだのではないかと。
- また、これは外交的に弾道ミサイル試験を恫喝の道具、として用いるのではなく、国内への国威発揚と、そしてなによりも軍部への文民統制として、言い方がおかしければ政軍関係を現状のまま維持させる手段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国際情勢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内政問題の延長なのだ、ともいえるやもしれません。
- もちろん、我が国としては非常に問題視するべき命題で、必要な措置としてミサイル迎撃能力の整備と能力の向上、加えて最悪の場合の選択肢としてミサイル攻撃に先んじて、アメリカが9.11以降先制的自衛権という単語を生み出しましたが、そこまでいかずとも連続する攻撃を策源地攻撃する選択し、というものは考慮されるべきではありますが。

## 붙임 8. 일본 산케이 biz 보도 원문 (3.22)

### 일본 산케이biz 홈페이지

#### “北朝鮮留學生が急増、ケンブリッジなど欧米大学”

- 世界トップクラスの教育レベルを誇る英ケンブリッジ大で今年度から北朝鮮留學生3人が自然科学や法律を学ぶなど、欧州で北朝鮮からの留學生が増えている。欧州全体でその数は25~30人とみられる。2009年以降、中国への留學生も急増、欧州への留學も「語学力と海外の科学技術のノウハウを貪欲に身につけよ」という金正日時代の方針に沿ったものだという。
- 北朝鮮に詳しいグリーン・フォード前欧州議會議員（英労働党）やケンブリッジ大への留學を支援した国際交流団体「東西連合」のマシュー・ライヘル事務局長の話では、3人のうち2人が教授で、學生は1人という。
- 欧州では00年以降、北朝鮮と国交を結ぶ国が相次いだ。北朝鮮はモスクワ、ワルシャワといった旧共産圏のほか、大使館や代表部を開設しているパリ、ジュネーブ、ベルリンなどに留學生を派遣しているという。
- ケンブリッジ大関係者は「プログラムの1年目なので、北朝鮮が中国の開放政策を見習おうとしているかどうかは、まだ判断できない」と打ち明ける。
- ベルリンの壁崩壊前、北朝鮮は共産圏の国々に留學生を派遣していたが、韓国・延世大の武貞秀士教授は「10年前から北朝鮮は英語能力取得のため毎年10人近い留學生をオーストラリアに派遣するようになった」と解説する。
- 同教授によると、08年に脳梗塞に見舞われた金正日総書記（当時）は韓国との技術・工業力格差があまりに開いたため、09年以降、「民生」をスローガンに掲げて「貪欲に海外のノウハウを吸収する」との方針に轉換した。北朝鮮は、奇跡的な經濟成長を遂げた中国のスーパーマーケットや工場をつぶさに見學し、国家統制型市場經濟をとる中国モデルを追従する方針を決めたという。
- 北朝鮮留學生は米国でも受け入れられ始め、前年比3割増の57人。中国では10年秋で前年から倍増し、東北3省に200人が留學中だ。目的は語学力、科学技術者育成のためという。
- 同教授は「大物北朝鮮大使が駐在、英米に比べ目立たず科学技術のノウハウが蓄積できるスウェーデンへの留學が先行した。北朝鮮当局は留學生が亡命するのを防ぐため、家族を平壤に残し、留學生には集團生活をさせて厳しく管理しているので、亡命騒ぎは起きていない」と話し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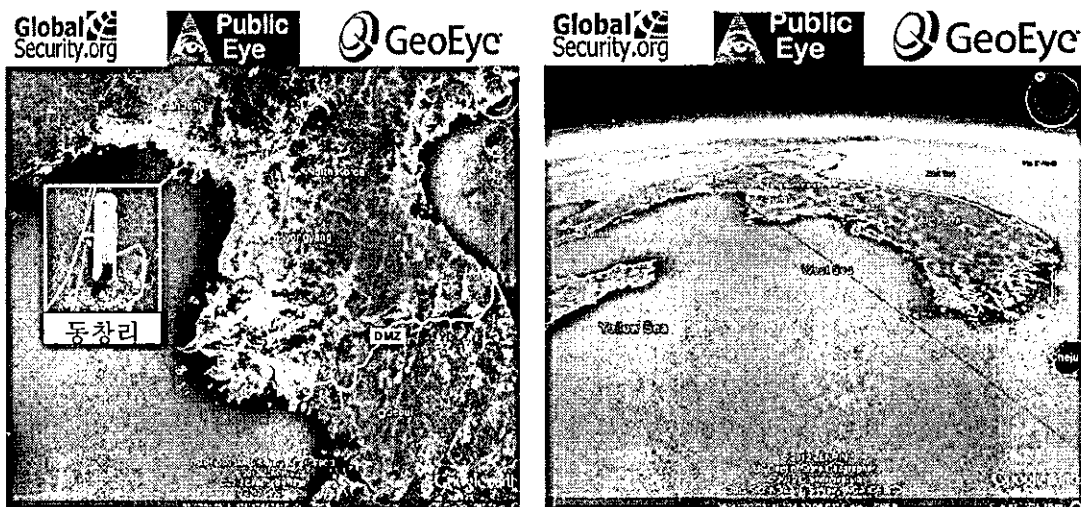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美 북한 전문가, 북한內 추가 핵시설 존재 주장 (3.22 美 CNN 인터뷰)

- 「지그프리드 헤커」(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겸 교수), ‘北은 우라늄농축 시설을 과거에 인정했던 것보다 더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 ‘최근 위성사진과 다른 연구를 비롯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2010년 영변 핵시설 방문시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임.’
- ‘영변 우라늄농축시설의 정교함과 규모가 이전과 완전히 달랐으며, 북한이 말하는 2009.4월보다 훨씬 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 분명하고, 영변 외에 다른 곳에도 우라늄농축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
- ‘북한은 플루토늄 폭탄 4~8개를 갖고 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급일 것’이라고 추정
-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놀랍지 않으나, 미사일 유예 합의 후 즉시 위성 발사를 발표한 것이 놀라우며 이는 2.29 합의를 조롱하는 것임.’
- 헤커 교수는 2010.11월 영변 방문시 2,000개의 원심분리기로 저농축우라늄을 생산 중인 시설을 보고 ‘고농축우라늄 폭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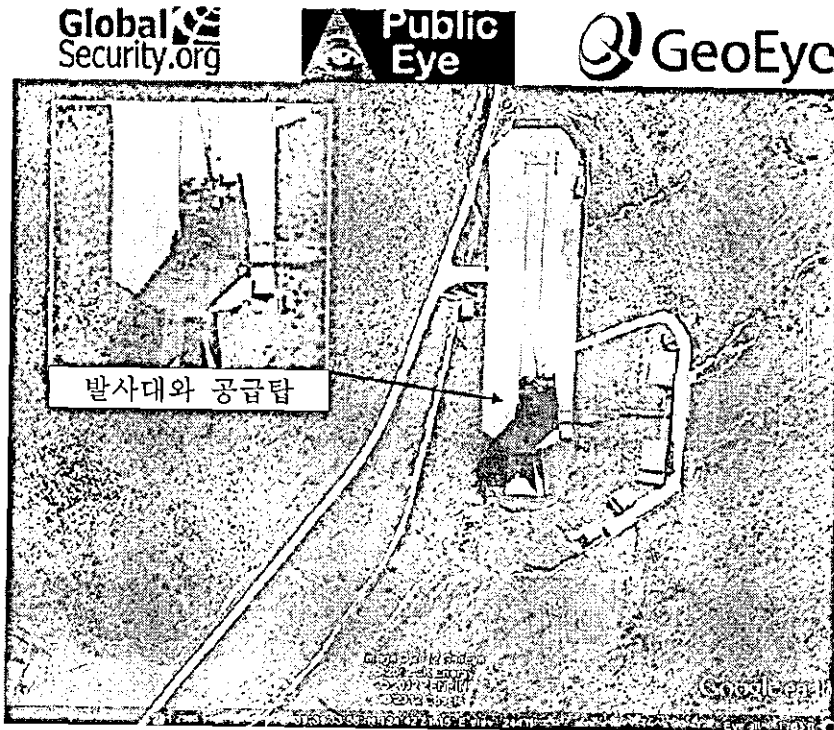
○ 동창리 발사대 3.20일자 위성사진 게시 [GeoEye / Google Earth 제공]  
(3.22 美 Global Security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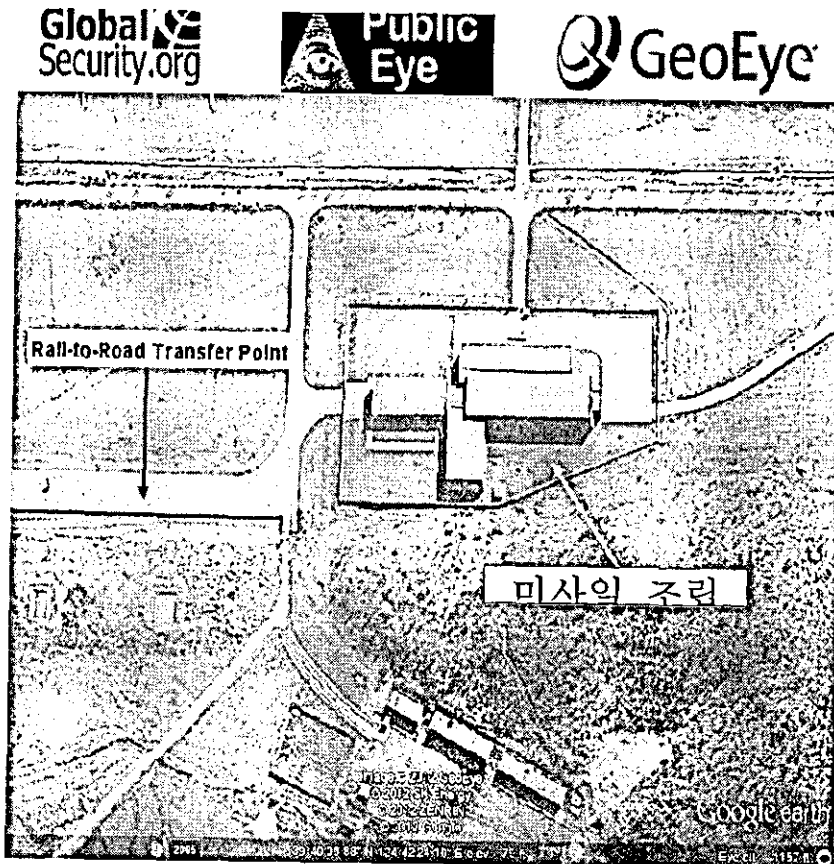


2012.3.23(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낙후되고 외진 곳에 위치한 함북 무수단리 발사장을 대체할 목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공사 중이던 평북 동창리 발사대에 대한 정비 완료



※ 발사대와 공급탑에 미사일이나 로켓은 보이지 않음.  
발사 예정일에서 일주일전 쯤 부터 발사 준비 활동이 감지될 것으로 보임  
완공된 발사대와 미사일 체크 아웃 건물로 이어지는 거리 15마일 레일 포착



※ 미사일 조립 시설과 새로 지은 rail-to-road transfer point

## □ 일본어권

- 미사일 대처 '지난번 보다 어려울 듯' (3.22 지지통신)
  - 이와사키 시게루 통합막료장(자위대 최고위층),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서해쪽이라 지난번 발사 때와 비교해서 정보수집 등 자위대의 대처가 어려울 듯함.
  - 2009년 발사 때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레이더는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 추적에 성공한 바 있음.
- 참의원 본회의서 북한에 자제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예정 (3.23 산케이)
  -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에 강력히 항의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임.
  -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 중단을 규정한 UN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며, 국제사회의 의사를 또다시 무시한 도발 행위임.
  -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미사일 발사에 만전의 태세를 기하도록 요청.
  - 중·참 兩의원은 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전후에도 항의결의 채택했었음.

## □ 러시아어권

- 미국의 의도적인 광명성 발사 이슈화 가능성 제기(3.22 골로스 러시아 ⇄ 라디오)
  - 광명성 발사와 관련, 中·北간 불화를 발생시키기 위해 미국이 문제를 더 이슈화 시켰을 가능성 있음.
  - 미국이 중국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대해, 중국은 영지誌 The Global Times를 통해 韓美日이 북한을 상시적인 주적으로 삼지 않을 것을 설득해도 듣지 않는 마당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 미국은 중국의 '추종국'이 얼마나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하는지 국제사회에 알리고 反中정서를 형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의도했을 수 있음.
  - 한국의 장거리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논의는 악화된 현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012.3.23(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아나톨리 치가노크」(군사예측센터 소장), 위성 궤도진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보유를, 인공위성 발사성공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예브게니 김」(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은 위성발사 계획을 작년 12월 이미 밝혔고, 얼마 전 美·北회담에서도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미국, 일본에게 새로운 사건이 아님.

○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북한도발 행위 자제요청 예정

(3.22 사할린 미디어 報 지역언론사)

- 「니콜라이 박」(사할린 고려인단체 前회장), 푸틴 대통령당선자가 밝혔듯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의기간 동안 韓·美 군사훈련과 같은 북한을 도발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사할린 고려인들을 대표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임.

□ 중국어권

○ 길림省 여유국과 나선市 관광관리국, '자동차 여행 보충협약' 체결

(3.21 인민일보)

- 최근 중국 길림성 여유국(관광국)과 북한 나선시 관광관리국은 △여행노선, △차량규모, △주관업체 등에 관련한 '자동차 여행 보충협약' 체결
- '보충협약'에 의하면 자동차 여행 노선은 두만강 지역까지 확대되어 △크루즈 승선, △어린이 공연 관람, △비파도 관광 등이 포함되어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게됨.
- 또한 차량규모는 2대부터 20대까지로 제한했으며, 새롭게 6개의 여행사가 생기면서 현재 길림성에는 13개의 여행사에서 북한 여행을 모집하고 있음.
- 작년 도로사정, 기후문제로 중단되었던 자동차 여행이 재개되면서 4륜 구동 이상이라는 조건이 없어지는 등 규정이 완화됐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도 마련하기로 하였음.

## 붙임 1. 美 CNN 보도 원문 (3.22)

美 CNN 홈페이지

“Scientist: North Korea likely has more nuclear facilities”

- o North Korea has more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than it has admitted to previously, a U.S. scientist charged Thursday.
- o Prof. Siegfried Hecker of Stanford University told CNN his conclusion is based on his study of recent satellite images and other research, and what he saw when he was invited by North Korea to visit its Yongbyon nuclear power plant in 2010 to see its secret uranium enrichment program.
- o "When I saw the sophistication and scale of that uranium enrichment facility at Yongbyon in a building that I had been in before that housed something totally different, it was clear that they started the program long before the time that they had said, which was April 2009. So my conclusion was, they had to have another site someplace else," said Hecker.
- o Hecker, an emeritus director of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also estimated that North Korea has between four and eight plutonium bombs, each of which could do damage similar to that of the atomic bomb dropped on Nagasaki in Japan at the end of World War II.
- o "I wasn't so surprised that they would do a space launch," said Hecker, who is also the co-director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What I was surprised at is, first of all they even agreed to a missile moratorium but then immediately turned around to say, 'We're doing this space launch' and quite frankly, that makes a mockery of the agreement."
- o The Stanford University scientist visited Yongbyon in November, 2010, and reported that he saw a facility that housed 2,000 centrifuges and was producing low-enriched uranium. It could, however, he wrote then, "be readily converted to produce highly-enriched uranium (HEU) bomb fuel."

## 붙임 2. 美 Global Security 보도 원문 (3.22)

Global Security 홈페이지

“New Imagery shows North Korean Launch Site Ready”

- o A map show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ocation of the new launch center. (Image Credit:GeoEye and Google Earth)

Global Security 홈페이지

- o An close examination of the launch pad and umbilical tower, shows no sign of a missile or launch vehicle. Since the launch is planned to take place in the April 12-16 time frame, launch preparation activity will probably not be visible until about a week prior to the launch.
- o Detail of the launch pad and umbilical tower. No missile or launch vehicle are visible. (Image Credit:GeoEye and Google Earth)
- o The imagery obtained from GeoEye, taken on March 20, shows a completed launch pad, and the extension of a 15 mile rail spur that ends at the missile check out building.
- o Detail of the Missile Assembly Building and the new rail-to-road transfer point. (Image Credit:GeoEye and Google Earth)
- o The location of the launch site allows the North Korea the ability to place a satellite in orbit without overflying South Korea territory. (Image Credit:GeoEye and Google Earth)
- o Located on the We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just 30 miles south of the Chinese border, the new facility has been under construction for several years. It is intended to replace the aging and remote launch site at Musudan-ri on the Northeast coast.
- o The launch date has been announced to fall between April 12-16th. The North Korean's plan to place the satellite in orbit in southerly direction thus avoiding overflight of South Korean territory.

### 붙임 3.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3.22)

일본 지지통신 홈페이지

“ミサイル対処「前回より困難も」”

- o 北朝鮮が新設した西部の基地から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を予告したことについて、防衛省の岩崎茂統合幕僚長は22日の記者会見で、「日本から遠くなるので、少しやりにくい部分が出てくるかもしれない」と述べ、前回の発射時と比べ自衛隊の対処が難しくなる可能性を示唆した。
- o 北朝鮮は2009年の発射で、日本海側の舞水端里基地を使用し、海上自衛隊のイージス艦などのレーダーは、日本列島の上空を通過するミサイルの追跡に成功した。
- o 今回は西部に建設した東倉里基地から発射を予告しており、岩崎統幕長は「黄海側なので物理的に日本から遠くなる」とし、情報収集などを含めて対処が難し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

## 붙임 4.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3.23)

### 일본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北朝鮮に自制迫る 「衛星」で参院が決議「挑発的行為の繰り返し」”

- 参院は23日の本会議で、北朝鮮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実験とみられる「衛星」打ち上げ予告に強く抗議し、北朝鮮に自制を迫る決議を採択する。発射を強行すれば「弾道ミサイルに関連する全活動の停止を規定した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に違反し、国際社会の意思を再三無視した挑発的行為の繰り返しだ」と非難している。
- 決議は「わが国、北東アジア地域の平和と安定を損なう行為として断じて容認できない」とも強調している。
- 日本政府に対しても、ミサイル発射に備えた万全の態勢を取るよう要請。「米国や韓国をはじめとする世界各国、国際機関と連携し、北朝鮮に働き掛けを継続、強化する」ことも要望に盛り込んだ。
- 衆参両院は、北朝鮮が2009年4月に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を強行した前後にも抗議決議を採択した。

## 붙임 5.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원문 (3.22)

###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Сияющая звезда КНДР угрожает саммиту"

- Выведение спутника на орбиту будет означат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цы овладели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Если имеется искусственный спутник, нужно четко понимать,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на нем может находиться какое-то ядерное оружие.
- "О запуске спутника северокорейцы сообщили давно, в том числе американцам еще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и повторили это недавно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в Вашингтоне, когда речь шла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хеньяну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Американцы возражали, говорили, что это нехорошо. Тем не менее они пошли на соглаше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в обмен на мораторий на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и запуски рак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 Возможно, игра вокруг "Сияющей звезды"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амом деле против Китая. Накануне саммита в Сеуле советник п

러시아 글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резидента США по азиатским проблемам рекомендовал Китаю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е инструменты власти, чтобы повлиять на принимаемые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решения. Официальная англоязычная газета The Global Times назвала подобную логику США ошибочной и неприемлемой.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Пекин не может влиять на Пхеньян, поскольку не может убедить Вашингтон, Токио и Сеул не держать КНДР постоянно на мушке. Выходит, что шумиха вокруг "Сияющей звезды" понадобилась СШ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казать всему миру ? посмотрите, как непредсказуемо ведут себя китайские спутники. За всем этим просматривается попытка внести раздор между КНДР и Китаем, оторвать их друг от друга.

## 붙임 6. 러시아 사할린 미디어 원문 (3.22)

러시아 사할린 미디어 언론사 홈페이지

"Сахалинец предложит президенту Южной Кореи не дразнить КНДР во время саммита АТЭС"

- Я поддерживаю высказывани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счет прохождения саммит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иметь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и всей Азии. Чтобы в это время не проводились учения с американцами, чтобы не провоцирова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а агрессию, я написал это обращение от лиц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до, чтобы саммит прошел спокойно.

## 붙임 7. 중국 인민일보 보도 원문 (3.21)

중국 인민일보 홈페이지

“吉林省新增6家旅行社 可办理“赴朝鲜自驾游”

- 自去年6月吉林省首次推出赴朝跨境自驾游业务以来,吸引了众多自驾游爱好者的关注与追捧。近日,省旅游局和朝鲜罗先市观光管理局在长春签署了《关于跨境自驾车旅游项目的补充协议》,双方就吉林省赴朝自驾游的活动旅游线路、车辆规模、承办企业等问题进一步达成一致。
- 补充协议确定了赴朝自驾车旅游线路延伸至朝鲜罗先市豆满江区,即圈河口岸-元

중국 인민일보 홈페이지

汀口岸-罗先特别市-豆满江区-元汀口岸-圈河口岸。游客除了可参观游览罗津港码头、乘游船出海、观看朝鲜儿童表演、游览琵琶岛外，还能体验豆满江区的异域风情。

- 补充协议规定每团车辆规模限定在2至20辆（含20辆）。同时，新增了6家可办理“赴朝自驾游”的吉林省旅行社，分别是延边假日国旅、吉林市中国国际旅行社、吉林市中国旅行社、松原市青旅、吉林省九洲国际旅行社、延边阿里郎国旅。加上首批的吉林省青年商务国旅、吉林省中青旅、长春文化国旅、吉林省中新国旅、延边海峡国旅、延边曙光国旅、琿春三疆国旅，吉林省具有“赴朝自驾游”资质的旅行社达到了13家。游客报名需要携带有效证件，如果没有护照，可以带着相关证件到旅行社代办通行证。
- 双方还就安全保障措施、旅游服务接待、中朝俄环形跨国游、中朝俄韩跨国邮轮游等事宜达成了共识。据了解，去年8月赴朝自驾游实现常态化运行后，由于道路、天气等原因一度暂停。今年，重新开放后，在自驾游的车型上有所放宽，不再严格规定四驱以上的车辆。同时，朝方表示会在当地提供必要的紧急救援措施，确保游客出行安全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중국어권

#### ○ 김정은의 외교책략, '원교근공(遠交'近功)분석 (3.26 성도환구망)

- 최근 대만의 금일신문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김정은이 「원교근공<sup>8)</sup>」의 외교책략을 구사한다고 보도
- 북한은 올 1월 美 AP통신의 평양지국 개설을 허가하였고, 2월 美·北 제3차 고위급 회담 참여 등의 對美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
- 반면 북한은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2월말 「키 리졸브」 韓·美 연합군사훈련 및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을 하였음.
- 이런 외교책략을 취하는 이유로 첫째로 對美관계 개선으로 △느슨한 외교환경 구축, △물자지원 획득, △외교 이미지 개선을 위함이고, 둘째는 한국과는 긴장관계를 유지해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한국에 의한 통일을 막기 위한 것임.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한반도 정세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안보 완충세력을 하나 더 얻는 것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임.

#### ○ 美·北 지도자, 휴전선 지역 방문 이유(3.26 중국망 中國國務院 新聞辦公室 운영)

-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에 도착한 美 오바마 대통령의 첫 일정은 휴전선 지역 방문부터 시작됨.
- 천안함 사건 2주년, 김정일 사망 100일째 되는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지역을 방문한 것은 대선을 앞둔 일종의 쇼이자 북한에 압력을 가한 것임.
- DMZ 방문이 북한의 신경을 건드린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북정책 약화에 대한 미국 국내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임.
- 김정은 또한 최근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방문해 경비태세 강화 지시했고, 이는 최근 韓·美연합군사훈련, 탈북자 문제로 반감이 커진 북한이 위성 발사 발표와 함께 韓·美·日에 압력을 가하고 김정은 권력 강화를 위한 것임.

8)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해야 한다.

## □ 영어권

- '北, 핵안보정상회의에 없지만 강함 존재감' (3.25 美 브루킹스연구소)
  - 「조나단 폴락」(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이 없어서 오히려 눈에 띈다.'
    - '북한의 지구관측 위성 발사는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지만,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는 미해결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은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시 고립 강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
    - '이번 회의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사람이 韓의 차기 대통령에 선출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 '북한은 잠재적인 결과를 무시하고 고유의 정책 논리와 스스로 정의한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고

## □ 일본어권

- 핵안보조사에서 북한이 최하위 (3.26 NHK)
  -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핵위협이니셔티브(NTI)가 발표한 핵물질 안보지수에서 북한이 37점으로 최하위를 차지
  - 조사대상은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고농축우라늄 등의 핵관련 물질을 1kg이상 보유한 32개국으로 핵관련물질 관리와 수송실태, 국제적 핵안보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5개의 항목에 대해 분석
  - 호주가 100점 만점 중 94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 외에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41점, 핵개발을 추진 중인 이란이 46점으로 평가

- 항공총대사령부, 미군 요코다기지로 이전 美·日조정소 신설 (3.26 산케이)
  - 일본 영공 침범과 탄도미사일에 대처하는 항공자위대의 중추인 항공총대사령부가 26일 미군 요코다기지(도쿄)로 이전해 운용 개시
  - 또한, 미사일방위(MD)의 거점이 될 '美日공동통합운용조정소'를 설치해 정보공유와 연계운용을 강화,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항공총대사령부 지하에 조정소 개설. 美日간부가 미국의 조기경계 위성과 항공자위대의 지상배치형 레이더, 공중 경계관리제기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할 예정임.
  - 같은 층에는 미사일 요격 등의 지시를 내리는 항공자위대 지휘소가 있으며, 지하 통로로 미국 공군의 지휘소를 왕래할 수 있음.
- 'J알러트(전국순시경보시스템)'로 미사일 발사확인 후 지자체 전파(3.26 산케이)
  -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의심되는 위성 발사의 발사정보를 지자체에 전파하는데 'J알러트'를 활용할 방침 결정
  - 발사확인 후 1~2초만에 정보가 전달되며, 2009년의 발사 때 이용된 긴급정보 네트워크시스템 'Em-net'보다 전달속도가 단축됨.
  - 'J알러트'는 내각관방이 긴급정보를 발신하면 인공위성을 경유해 1~2초만에 지자체 전용 단말기로 전달되며, 단말기에는 방재무선과 커뮤니티 FM방송이 접속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음성이 나오는 시스템임.
-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은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강조 (3.26 NHK)
  - 올해의 「외교청서9」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개발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위협'이라고 강조
  -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2008.8월의 日·北 실무자협 의에서 합의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도록 반복해서 요구 하고 있다'고 기재
  - 「외교청서」는 다음달 초에 각료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임.

9) 외무성이 1년 동안의 정부의 외교활동을 정리한 것으로 1957년 이후 매년 발행됨.

## □ 러시아어권

### ○ 한·러 정상회담 관련(3.26 리아 노보스티 ⇨ 통신사)

- 「세르게이 프리호디코」(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며, 주요 핵심의제는 철도연결, 가스관·송전선 구축과 관련한 3각(韓·러·北)협력 프로젝트 추진 전망이다.'
- '핵문제를 정치·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하는 과정 재착수와 관련한 공동의 노력재개 필요성의 논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 '러시아는 한국이 김정일 사후 북한의 내부적 정치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심이 있다.'
- '금번 정상회담은 양자간 경제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011년 양국간 교역액은 전년대비 40% 늘어 250억불에 도달했고, 한국의 대러 투자 축적규모는 30억불로 집계됐다.'

### ○ 김일성 생일 100회 맞이 러시아 곳곳에서 기념행사 개최

- 「김영재」(주러 북한대사),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김일성 생일 100회 맞이 행사 참석(3.24 루스코르 ⇨ 정보포털)
- 김일성 생일 100회 기념, 극동연방대학교에 주체사상 및 김정일·김일성 관련 서적·영상물 기증행사 개최(3.23 프리마 미디어 ⇨ 지역 언론사)
- 「심국룡」(駐나호드카 북한총영사), '러북간 상호관계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며, 현재 김일성대학교와 극동대학간 학생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한 내 60%가 넘는 학생들이 러시아어를 배우는 등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다.'
- 「박용훈」(駐나호드카 북한영사), '북한에서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김일성 서적을 읽은 경우 대학교육을 받은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주장

## 붙임 1. 中 성도환구망 보도 원문 (3.26)

### 성도환구망 홈페이지

“分析/远交近攻 朝鲜金正恩外交策略浮现.”

- 台湾今日新闻网报道, 种种迹象显示, 朝鲜第三代领导人金正恩正采取“远交近攻”的外交策略。今年1月份, 朝鲜允许《美联社》在平壤开设了分社, 这是西方媒体首次在朝鲜开设分支机构; 2月23日, 朝鲜外务省第一副相金桂冠和美国朝鲜政策特别代表戴维斯(Glyn Davies)在北京举行第三次高级别对话, 双方达成了一系列协议, 包括朝鲜愿意暂停所有核计画, 以换取美国24万吨的粮食援助。
- 不过就在朝鲜与美国改善关系之际, 朝鲜对于同为“太极旗兄弟”的韩国态度却转趋强硬。2月底, 美国与韩国举行的“关键决断”年度联合军事演习, 朝鲜斥责为“不可饶恕的冒犯之举”, 并称其目的是准备向朝鲜发动突然袭击, 金正恩更扬言, 如果美韩联合军演侵犯朝鲜领土, 朝鲜将“予以强有力的还击”。
- 3月11日, 朝鲜劳动党中央机关报《劳动新闻》刊登了一则韩国总统李明博“暴毙”的新闻, 虽然这则报导的末尾也注明了尚不能“确认”李明博的“死讯”, 但是这种诅咒他国元首死讯的假新闻, 足以显示朝鲜官方对韩国领导人的仇恨心态。
- 朝鲜新政府之所以采取这种“远交近攻”外交策略, 主要基于两大因素考量: 一方面, 缓和与美国的关系可以为朝鲜获得较为宽松的外交环境、物资援助, 并改善朝鲜的国际形象。

另一方面, 保持与韩国的紧张关系可以增强朝鲜内部凝聚力, 又可以避免被韩国“统一”的危险。

- 简而言之, 朝鲜非常清楚, 缓和了与美国的关系, 就不必担心朝鲜半岛局势会失去控制, 毕竟韩国还是得听老大哥的话。对朝鲜而言, 缓和对美国关系等于为朝鲜加上了一个安全缓冲阀。

## 붙임 2. 중국망 보도 원문 (3.26)

### 중국망 홈페이지

“为何美朝领导人均踩“三八线”?”

- 美国总统奥巴马25日抵达韩国, 参加次日的首尔核安全峰会。奥巴马抵韩的第一站选择了赴朝韩边界“三八线”非军事区进行走访, 用望远镜向对面的朝鲜望去。这是奥巴马任内首次、也是10年来美国总统首次访问朝鲜半岛非军事区。人们知道, 26日恰好是天安舰事件两周年的纪念日, 而3月25日是朝鲜已故领导人金正日

중국망 홈페이지

去世100天的日子。敏感的时间、敏感的地点、敏感的活动安排对于奥巴马的举动来说有评论员就认为说在美国大选的关键时刻，作秀和施压应该是奥巴马韩国行程的真正的意图（见中国之声2012年3月25日）。而美联社称，也在本月，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首次造访板门店和非军事区，要求军队保持高度警戒。

- o 为何同在一个月，几乎同一时间美朝最高领导人先后踩“三八”线？朝鲜宣布将于4月12日至16日之间发射银河3号运载火箭，将朝鲜研制的地球观察卫星“光明星3号”送入极地轨道。美日韩声声斥责，日本还表示用导弹“恭候”。但朝方似乎不为所动。
- o 朝鲜为何要进行打“卫星牌”，朝鲜最高领导人为何先踩“三八线”？朝鲜官方表示迎接金日成主席诞辰100周年。但更多的国际分析人士认为是朝鲜对美日韩施压。
- o 前不久，美韩宣布要在东海进行联合军演，被朝鲜认为是对朝鲜的威胁。而韩国士兵侮辱朝领导人一事也引发朝鲜的极度反感。近来，朝鲜官方认为韩现政权是不共戴天的仇敌。在3月12日的联合国人权理事会议上，韩国国会代表团攻击朝鲜驻联合国驻日内瓦办事处大使，导致人权理事会会议被迫暂停，也进一步引起了朝鲜的反感。加上，美日韩等国高调质疑中国遣返朝鲜“脱北者”，这一切为朝鲜要报复美日韩找到了导火索。那么，美朝领导人先后踩“三八”线意味着什么？显然，朝鲜方面表明，这是为金正恩巩固权力进一步造势之举。
- o 美国领导人奥巴马总统在首尔参加核安全峰会的前一天踩“三八”线，不会不明白其刺激朝鲜神经，支持盟友韩国的用意，但不等于直接向朝鲜宣战。而更多的用意是安抚美国国内批评他对朝软弱的声音，保住他来之不易的票源，更直接说是一种政治作秀。

**붙임 3. 美 브루킹스연구소 게시 원문 (3.25)**

美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

“North Korea and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bsent but Very Much Present”

- o The second Nuclear Security Summit convenes today in Seoul,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ill be conspicuous by its absence. Like Iran, North Korea has been excluded from global deliberations over nuclear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But out of sight is not out of mind.
- o On March 16, North Korea announced plans to launch an earth observation satellite. It was also expected to consolidate the power of Kim Jong Un, Kim

美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

- o Il Sung's young and untested grandson, who was elevated to supreme leadership in the DPRK following the death of his father last December.
- o But Pyongyang's latest moves will be intensively discussed in bilateral meetings during the conference, leaving open how North Korea might choose to respond.
- o However, its two nuclear tests (first in 2006, again in 2009) followed soon after two attempted missile launches, so the threat of unspecified countermeasures needs to be taken seriously.
- o President Obama's impending talks with Chinese President Hu Jintao and Russian President Medvedev will underscore the North's deepening isolation if (as seems almost certain) it proceeds with the satellite launch.
- o A successful outcome to the Seoul meeting will attest to South Korea's ever larger international role and to the enhanced stature of President Lee.
- o But Pyongyang perceives a growing possibility that the next ROK president (to be elected in December) will be someone much more to its liking.
- o However, the North appears determined to act according to its own policy logic and self-defined interests, irrespective of the potential consequences.

## 붙임 4. 일본 NHK 보도 원문 (3.26)

NHK 홈페이지

“核セキュリティー調査 北朝鮮が最低 ”

- o 核兵器に転用可能な高濃縮ウランなどを所有する世界32か国の核セキュリティーの実態を分析した調査結果がまとまり、北朝鮮やイランが、核関連物質の管理の実態が不透明だなどとして厳しい評価を受けました。
- o これは、韓国のソウルで開かれる核セキュリティーサミットに合わせて、アメリカに拠点を置くNGOの「核脅威イニシアチブ」が発表したものです。調査の対象となったのは、核兵器に転用可能な高濃縮ウランなどの核関連物質を1キロ以上保有する32か国で、核関連物質の管理や輸送の実態や国際的な核セキュリティーのルールを順守しているかどうかなど、5つの項目について分析しています。

NHK 홈페이지

- その結果、最も高い評価を受けたのはオーストラリアで100点満点中、94点、逆に最低だったのは北朝鮮の37点で、国際条約などに加盟せず、管理の実態が不透明だと指摘されています。このほか、核兵器を保有するパキスタンが41点、核開発を進めるイランが46点と、厳しい評価を受けました。一方、日本は、社会的な安定や核テロ防止条約を順守していることなどが評価される一方で、核兵器への転用も可能だとされるMOX燃料の保有量が増加していると指摘されて、68点で23位にとどまりました。
- 調査に当たったチョウビー主任研究員は「最も低い評価を受けた北朝鮮は、核物質の管理について国際社会に対して最も真剣な取り組みを求められている」と述べています。

**붙임 5.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3.26)**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横田基地に日米調整所 北朝鮮「衛星」に対処 ミサイル防衛も一体化”

- 領空侵犯や弾道ミサイルに対処する航空自衛隊の中核、航空総隊司令部が26日、米軍横田基地（東京都）に移転し運用を開始する。日米は移転に伴いミサイル防衛（MD）の拠点となる「日米共同統合運用調整所」を新設し、情報共有や連係運用を強化。自衛隊と米軍の一体化がより加速する。
- 北朝鮮は4月に事実上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実験とみられる「衛星打ち上げ」を予告しており、早々に調整所の機能に注目が集まりそうだ。
- 調整所は総隊司令部の地下に開設し、大型モニターを設置。日米の幹部が、米国の早期警戒衛星や空自の地上配備型レーダー、空中警戒管制機などの情報を共有、協議する。同じ階にはミサイル迎撃などの指示をする空自の指揮所があり、地下通路で米空軍の指揮所とも行き来できる。

“「Jアラート」で即時通報へ 発射確認後1、2秒で自治体に”

- 北朝鮮による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実験とみられる「衛星」打ち上げ予告を受け、政府は25日、発射情報を自治体に速報する「Jアラート」（全国瞬時警報システム）の活用する方針を固めた。有事法制に基づく「国民保護」での運用は初。発射確認から1、2秒で情報を伝えることができ、前回の平成21年の弾道ミサイル発射時より国民への情報伝達は大幅に短縮される。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 21年4月に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際、政府は緊急情報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Em-Net (エムネット)」で発射情報を伝えた。今回はJアラートとエムネットの2段階構えでの対応も検討する。
- Jアラートは、内閣官房が緊急情報を発信すると人工衛星を經由して1、2秒で自治体の専用端末に届く。端末には防災無線やコミュニティーFM放送が接続されており、音声自動的に流れるシステムだ。
- エムネットより優れているのは「速報性」。内閣官房は発射情報を約1分後には確認できるが、Jアラートを使えばその数秒後には全国の自治体に情報が届く。これに対し、エムネットを利用した前回は発射情報が自治体に届くまで3分ほどを要した。
- Jアラートは21年の発射の際も活用を検討したが、当時は市区町村の整備率は約1割。ミサイルが上空を通過した秋田県で導入済みの市町村はゼロ、岩手県も5市町だったため見送った。これが国会で問題となり、普及を加速させ、整備率は98% (23年12月現在) まで拡大した。今回ミサイルが上空付近を通過するとみられる沖縄県の石垣・宮古島両市も整備済みだ。
- 大規模なシステム改修も行った。以前は定型の音声しか発信できなかったが、ミサイル発射や上空通過といった状況の推移に即応し、音声内容を柔軟に変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

**붙임 6. 일본 NHK 보도 원문 (3.26)**

NHK 홈페이지

“外交青書 北朝鮮の核・ミサイル脅威”

- 外務省は、ことしの「外交青書」をまとめ、北朝鮮による核やミサイルの開発は、国際社会全体にとっての脅威だとして、関係国と連携して非核化に向けた具体的な行動を求めていく方針を強調しています。
- 「外交青書」は、1年間の政府の外交活動をまとめたもので、このうち北朝鮮情勢については、「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開発は、地域のみならず、国際社会全体にとっての脅威だ」としています。そして、アメリカや韓国など関係国と緊密に連携して、北朝鮮に、ウラン濃縮活動の停止など非核化に向けた具体的な行動を求めていく方針を強調しています。
- また、拉致問題について、「2008年8月の日朝の実務者協議で合意された全面的な調査を開始するよう、繰り返し要求している」としたうえで、すべて

NHK 홈페이지

의被害者の1日も早い帰国を実現するため、政府一丸となって取り組むとともに、諸懸案の包括的な解決に向け、関係国と連携していくとしています。

- 一方、普天間基地の移設を含む在日アメリカ軍の再編については、「抑止力を維持しつつ沖縄の負担を速やかに軽減するために着実に実施するよう、日米両国が協力して取り組んでいく」としています。外務省は、「外交青書」を来月上旬に閣議で報告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붙임 7.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3.26)**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Главы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обсудят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КНДР в Сеуле"

-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двух лидеров будет проблематика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жидается, что стороны подтвердят тезис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зобновления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по скорейшему перезапуску процесса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по его словам, также намерена поинтересоваться тем, как в Южной Корее видят текущую внутривосточную ситуацию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пунктов повестки встречи станет обсуждение перспектив реализации трехсторонних проектов (Росс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НДР), сообщил Приходько. Среди них - со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их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с Транссибом, транзит газа 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ю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В Кремле отмечают, что седьмая по счету встреча Медведева и Ли Мен Бак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на фоне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щегося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Двусторонний товарооборот в 2011 году увелич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0 годом на 40% и достиг рекорд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25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Объем накоплен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в российскую экономику составляет порядка трех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 붙임 8 러시아 루스코르·프리마 미디어 원문 (324)

러시아 루스코르·프리마 미디어 언론사 홈페이지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Ким Ир Сена в честь его 100-летия вручили дипломаты КНДР в дар ДВФУ"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корпуса КНДР подарили библиотеке ДВФУ труды об идеях чучхе по случаю столетия в еличай ш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корей ского народа Ким Ир Сена.
- "Значимое место в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России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нимает обмен студентами: ребята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Ким Ир Сен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едут изучать рус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в ДВФУ, студенты ДВФУ приезжают изучать Корею в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Подобные обмены будут расширяться, ведь сегодня больше 60% корей 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изучают русский язык и интересуются Россией".
- "У нас в Корее считается, что даже если человек без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читает все сочинения товарища Ким Ир Сена и выучит их, это будет равносильно тому, что он закончил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Москве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основателя КНДР"

- Посол КНДР в РФ Ким Ён Чже выступил 24 марта в Москве на открытии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заседания, посвященного 1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основателя КНДР Ким Ир Сена.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北 위성 발사 막는 방안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 (3.26 CNN 기고)

- 「스콧 스나이더」(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자 한반도 전문가),
  - ‘미국은 북한의 위성을 궤도에 들어서게 하는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제3자를 찾아 6자회담국 내에서 지원을 동원해야 한다.’
  - ‘북한이 다단계 로켓을 발사할 경우 선제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윌리엄 페리」 前 국방장관과 「애쉬튼 카토」 국방부 부장관의 정책 과제에 따라 美 대통령에게 확실한 선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 ‘북한의 위성 발사前 미국은 유엔에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중국과 협력해 북한 위성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1874호 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 ‘미국은 북한 위성 발사 반대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새 정권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의 증거로 북한에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특사를 보내야 한다.’
  - ‘美·北은 대치를 피하기 위해 2.29 합의 이행으로 북한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 ○ 北 로켓 발사, 핵안보정상회의 장악 (3.26 / AP)

-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북한 문제에 묻혀 버렸으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의도한 것일 수 있음.
- 「리홍」(中 군비통제군축협회 사무국장), ‘핵안보 논의가 묻히게 하려는 북한의 수작에 넘어가면 안된다.’
- 「Ralph Cossa」(CSIS 태평양 포럼 회장), ‘북한은 기대를 높인 다음 그 기대를 깨고 또 다시 복귀하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가 고조 될수록 협상력도 높아진다는 논리이다’라고 언급

## □ 중국어권

### ○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3.26 홍콩 봉황위성TV)

- 「정하오」(국제문제 전문가),
  - ‘북한의 위성 발사 발표 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계획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중국이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그 책임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이익과 책임은 함께 얽혀 있으므로 중국만이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질 수는 없다.’
  - ‘중국은 韓·美·日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는 압력도 동시에 받고 있기에 그 부담이 크다.’
  -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을 중국에 전가해 책임을 묻고 이로써 지원을 얻는 무책임한 행동을 많이 했다.’
  - ‘이번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평양을 설득해 위성 발사를 취소하도록 노력했지만 북한의 결정을 중국이 저지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 ‘그러나 발사 전까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결국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에 따른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각국이 얼마나 냉정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

## □ 일본어권

### ○ 중국, 러시아의 이례적인 북한 포위망 (3.27 마이니치)

- 중국이 이번에 북한에 대한 거부반응을 드러낸 배경에는 美·北합의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있음.
- 그럴 경우 한반도 안정을 목표로 美·北대화에 협력해온 중국의 체면이 구겨지며,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 중국 신화사는 한국측이 발표한 중국측의 ‘북한 위성발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빼고 ‘각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만 전했다. 이는 북한을 배려해 보도를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자제를 요구한 데에는 위성발사 후 핵실험에 나설 것을 예상해 미리 견제해두려는 의도도 있는 듯함.
- 러시아가 북한에 강경자세를 취한 데에는 동북아의 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을 강화한 점이 배경에 있음.

## □ 러시아어권

### ○ 오바마 대통령 DMZ 방문 분석 (3.26 글로스 러시아 ⇄ 라디오)

- 「알렉산드르 보론초프」(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
  - '오바마 대통령의 DMZ 방문으로 인해 한반도에 새롭게 긴장감이 조성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 '미국 대통령의 DMZ 방문은 역대 대통령들 방한시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의례적인 행동이며, 북한은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익숙한 일로 받아들인다.'
- 「콘스탄틴 아스플로프」(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 '오바마 대통령의 DMZ 방문은 韓·美동맹 강화를 상징하는 대외적인 효과를 노린 선전용이다.'
  - '사실상 미국은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을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재선을 노린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붙임 1. 美 CNN 보도 원문 (3.26)

美 CNN 홈페이지

“How to stop North Korea’s satellite test”

- o The United States seeks a third party willing to offer North Korea launch services to place a North Korean satellite in orbit, and mobilizes support for such an offer among allies and partners in the six party framework.
- o The United States quietly puts into place assets designed to give the U.S. president a credible preemptive option by following through on the past policy recommendations of former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Perry and current Deputy Secretary of Defense Ashton Carter that a North Korean multi-stage rocket be the object of a preemptive strike if it is placed on the launch pad.
- o The U.S. pursues U.N. authorization in advance of a North Korean satellite test to enforc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with action to preempt North Korea’s satellite launch, arguing that North Korea’s 2010 provocations have shown that limited use of force on the peninsula need not escalate into full-scale war.
- o The United States sends a special envoy to Pyongyang to make the offer of launch services, while underscoring American will to stop North Korea’s planned launch, with the understanding that acceptance of such an offer may be used by North Korean authorities as evidence of international support for North Korea’s new political leadership.
- o The United States coordinates with Beijing to underscore to Pyongyang the since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willingness to launch a North Korean satellite into orbit so as to uphold restrictions on North Korean long-range missile launches of any kind as stated i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 o Having sidestepped confrontation, the United States and DPRK implement “Leap Day” pledges, opening the way for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hat North Korea called for in its own February 29 statement.

## 붙임 2. Associated Press 보도 원문 (3.26)

Associated Press

“North Korea rocket hijacks nuclear summit”

- o The security summit that began here on Monday was supposed to be an opportunity for President Barack Obama and other leaders to find ways to

### Associated Press

keep nuclear material away from terrorists. So far, North Korea has upstaged that agenda. And that may be just what Pyongyang intended.

- o "I think North Korea did this to overshadow our talks about nuclear security," said Chin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head Li Hong. "We shouldn't fall for their trick."
- o "If they raise hopes, then dash hopes, then come back again, they think they might get a better deal," said Ralph Cossa, president of Pacific Forum CSIS, a Hawaii-based think tank. "The better the crisis, the better the deal."
- o North Korea has said it would launch its rocket around the April 15 celebration of the birthday of North Korean founder Kim Il Sung - and that timing is probably not linked to this week's nuclear summit, said Koh Yu-hwan, a North Korea professor at Seoul's Dongguk University. However, the North may have timed its March 16 launch announcement with the global meeting in mind, he said. "North Korea can demonstrate to the world how volatile and tens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with the launch, he said. "That would help it achieve its interests in future negotiations."
- o China, as North Korea's biggest source of diplomatic support and economic assistance, faces pressure to get the North to halt its rocket plans. However, China maintains its leverage is limited by Pyongyang's unpredictable nature and Beijing's overriding concern for stability along its northeastern border.
- o China will continue to express its concerns to North Korea - and may send a high-level official to Pyongyang to press its case - but won't cut off aid for fear of destabilising the new government, Peking University international relations expert Zhu Feng.

## 붙임 3.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3.26)

###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郑浩：中国在朝鲜问题上只能承担积极但有限的责任”

- o 您认为中国在朝鲜发射核卫星的问题上，到底应该要承担多少的责任？
- o 郑浩：这是一个非常复杂的问题，首先我们来看首尔的核安全峰会正在进行当中，前不久朝鲜方面已经宣布在4月12号到16号择时发射“光明星三号”卫星，这件事情当然引起了与会各方的高度关注。但是我必须说朝鲜发射卫星，并不是这次首尔核安全峰会的一个主要的议题，主要的议题是谈论其他的，有关核能安全利用等等各方面的议题，但是毫无疑问引起了国际社会高度的忧虑和关切。
- o 在朝鲜宣布发射卫星之后，我们也注意到国际社会也一种声音，希望中国多多的



###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发挥作用, 尽量敦促朝鲜方面放弃有关的发射, 但是我必须说, 中国能够承担的责任是非常有限, 中国只能承担积极但有限的责任。我们也看到今天在外交部的记者会上, 发言人也特别说, 朝鲜方面发射卫星引起各方的关注, 有关各方应该本着维护朝鲜半岛和平稳定这样一个责任, 共同的来承担这样的责任, 这个也符合各方的利益。

- 也就是说在利益和责任上大家是捆绑在一起的, 不能只说只有中国能够发挥作用, 发挥更大的责任, 中国的压力其实非常大, 不仅来自美国、日本、韩国等一些国家, 同时也来自朝鲜方面的压力。因为我们知道朝鲜经常用这种手段, 把自己的一些错误的决定绑架在中国的身上, 这个是非常不负责任的一种行为, 我个人认为这是一种讹诈行为, 因为通过这种方式朝鲜似乎要得到中国更多的支持。
- 我们看到自从这个事件发生之后, 中国方面一直在努力试图说服平壤, 放弃他的发射计划, 直到今天这种努力仍然在进行当中。但是我必须指出, 朝鲜一旦要决定的话中国很难来阻止, 这个发射其实分成两个部分, 一个部分就是准备发射, 还有一个就是发射之后, 中国现在和各方能够做的, 就是尽量的在发射之前, 来阻止或者是让朝鲜方面放弃有关的发射计划。但是一旦发射的话, 恐怕其他的国家要承担更多的责任, 其他国家能否保持克制、冷静的对待事件, 将是非常的关键。

## 붙임 4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 원문 [3.27]

###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衛星」阻止、異例の北朝鮮包囲網 中露、安定を重視  
核実験、強くけん制”

- 核安全保障サミット開催地の韓国・ソウルで、日本や米国、韓国に加えて、中国とロシアも北朝鮮の「衛星」打ち上げに反対する立場を鮮明にした。北朝鮮の生命線を握る主要国が一致して北朝鮮に圧力をかけた形だが、打ち上げ強行によって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新体制の求心力向上を図る北朝鮮が、これに応じる可能性は低い。打ち上げ予告日が刻々と近づく中、事態を收拾する手立ては依然見えてこない。
- 「ご家族は最近いかがですか」。首脳会談の冒頭、オバマ米大統領は胡錦濤中国国家主席にこう語りかけ、胡主席は「とても元気です」と応じた。両者の会談はこの約3年で11回目。和やかに交わされたあいさつの直後、話題は北朝鮮情勢に切り替わり、慎重な言葉遣いになった。
- 中国が今回、北朝鮮への拒否反応をあらわにした背景には、ミサイル発射実験などの一時停止の見返りに栄養補助食品を提供することを約束した先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月末の米朝合意が、再び振り出しに戻ることにへの危機感がある。後戻りすれば、朝鮮半島の安定を日指して米朝対話に協力してきた中国の面目もつぶれる。中国側は北朝鮮への不満を表明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だ。

- 国営新華社は、胡主席が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との会談で「各国が（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を望む」と述べたと伝えた。だが、韓国側が発表した中国側の「衛星発射は正しくない」という発言は、報じていない。中国外交には「内政不干涉の原則」があるため、国営メディアは北朝鮮に配慮する形で発言の報道を控えたようだ。
- 北朝鮮の打ち上げ予告以降、中国外務省の張志軍（ちょうしぐん）外務次官が16日に北朝鮮の池在竜（チジェリョン）駐中国大使と会談し、憂慮を伝えた。19日にも6カ国協議議長を務める中国の武大偉（ぶだいい）朝鮮半島問題特別代表が北朝鮮の李容浩（リヨンホ）外務次官に再度自制を促したとみられる。
- こうした事態が繰り返されるごとに、6カ国協議の進展が遠のいた。今回、胡主席自らが北朝鮮に自制を求めたことは、「衛星」を打ち上げた後に核実験に踏み切ることを見越し、あらかじめけん制しておく意図もありそうだ。
- ロシアもこれまでは、打ち上げ予告について「深刻な懸念」を表明しながらも、関係国に自制を要求するなど北朝鮮への配慮を見せてきた。だが今回、一転して北朝鮮に厳しい姿勢を示したのは、北東アジアの安全保障を重視する立場を強めたことが背景にあるようだ。5月に発足するプーチン次期政権が、アジアの安全保障を外交政策の柱の一つに据え、9月には極東ウラジオストクで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APEC）首脳会議を開く。北朝鮮に近い地域の本格的な経済開発に乗り出しており、これらの事情も今回の発言に絡んでいるとみられる。

**붙임 5.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3.26]**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Барак Обама обменялся с Ким Чен Ыном  
посещениями Пханмунджома"

- "Может ли это привести к нов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Честно говоря, не думаю. Конечно, северные корейцы не в восторге от таких демонстраций силы и решимости"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мости, но они к этому привыкли. Посе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 это, в общем-то, традиционный шаг со стороны американских президентов, когда они с визитом бывают в Южной Корее. Это достаточно ритуальное действие со стороны руководства США. Оно важно в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м, в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м плане. Но само по себе не подкреплено какими-то конкретными шагами, программами. Допустим, расширением вое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там или изменением военной доктрины. Оно не несет в себе какой-то реальной угрозы".

- Это всего лишь демонстративное действие, рассчитанное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внешний эффект, считает аналитик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Оно призвано ничего реально не сделать, но подкрепи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существующем альянсе Вашингтона и Сеула. Бараку Обаме в ноябре предстоят перевыборы, поэтому нужны очки, в том числе заработанные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спутнике. Американцы были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ны о его запуске ещ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а вспомнили о нем только накануне саммита в Сеуле, отметил эксперт.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北, 위성 발사 계획 재천명 (3.27 NYT)

- 美측은 美·北대화시 위성 발사는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北측에 명확히 경고했다는 입장이지만, 北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우리는 朝·美 고위급회담에서 평화적 위성 발사가 장거리미사일 발사 임시 중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했다”고 발언
-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임.
- 일부 전문가들은 北측 대표단이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위성 발사를 고집하는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 제기
- 「오바마」 대통령은 3.25일 “북한內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발언
- 미국은 선의를 가지고 맺은 합의를 위반했다고 북한을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협상력을 높이거나 합의를 파기하기 위해 합의 문안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오랜 협상 전략이었다고 지적함.

#### ○ 美, 김정일 사망 전 北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 (3.19 벨스보고서)

- 美·北은 김정일 사망 몇일 전에 ‘트랙2(민간채널)’을 통해 김일성 탄생 100주년 축하행사로 2012.4.15일 전후에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음.
- 「에반스 리비어」(前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 ‘김정일 사망 사흘 전 2011.12.15일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성발사 가능성을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
-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으며, 북한은 이미 이 상황을 감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

○ 앰네스티 '北, 2011년 최소 30명 처형'

(3.27 '사형선고와 처형 2011'보고서 / 3.27 VOA)

- 북한의 사형선고는 국내법에 처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사형선고와 처형 건수는 2011년 최소 3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북한의 사형 현실을 과소평가한 것임.
- 사법부 독립성 결여와 수많은 헌법 및 법조문 문제로 북한의 재판은 공정성과 정당한 법 절차 등 국제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음.
- 2011.1월 미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은 권력 승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국자 200명 이상을 수감했으며, 이중 일부가 처형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음.
- 2011.7월 미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南·北 대화에 참가했던 북한 당국자 30명이 총살형이나 교통사고로 위장돼 살해당했음.
-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공개 처형이 2011년 내내 이뤄졌으며,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처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임.
- 2011.3.10일 불법 및 즉결 또는 임의 처형 특별 조사위원(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은 2007~2010년 북한 정부에 경제 범죄로 37명이 처형당했다고 전했다.
- 「라지브 나라얀」(앰네스티 동아시아담당 연구원, VOA와 인터뷰
  - '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인권 감시기구들이 북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처형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
  - '특히 2011년에는 김정은 권력이양과 관련해 처형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北에서는 종종 고문을 통해 끌어낸 자백을 토대로 사형을 선고하고,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

□ 중국어권

○ 한국 언론, 중국 입장 왜곡 보도 (3.27 홍콩 봉황위성TV)

- 「리홍」(中 군비통제군축협회 사무총장),
  - '한국언론은 후진타오 주석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 위성 발사 저지를 촉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지만,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홍레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답 회피했다.'

- '중국의 태도는 줄곧 일관되고 공개적으로 표명했음.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한 후, 중국 「장즈권」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 대사와 만나 대국적인 관점에서 위성 발사 정지를 촉구했다.'
- '그러나 한국 언론의 보도는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가 중국이 북한에 적절한 영향력과 압력을 가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처럼 보도했다.'
- '이러한 보도는 中·北 관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 중국의 입장을 왜곡 해석하며, 중국이 한국측에 서 있는 것처럼 해서 이를 북한에 전달한다.'
-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강조한 것을 마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 행사에 동의한 것처럼 해석하는데, 이는 일방적인 한국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

○ 中 한반도사무 부대표, 러 6자회담 차석대표 회동 (3.27 중국 외교부)

- 3.27일, 「쉬부」 중국 한반도사무 부대표와 訪中한 「그리고리 로그 비노프」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한반도 정세, 6자회담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함.

□ 일본어권

○ 김정남, 김정일 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 불참 (3.27 텔레비전 아사히)

- 김정남이 3.25일 평양에서 개최된 김정일 사망 100일 중앙추모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음.
- 김정은 측근 최고 간부는 김정남에게 '귀국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 보냈으나, 그 후에도 김정남은 평양을 방문하지 않음.
- 김정남 가족은 김정일 사망 후에도 중국과 북한을 왕래하고 있으며, 김정남은 자신이 귀국함으로써 권력다툼에 말려들 것을 경계함.
- 현재 김정남은 중국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 당국도 이런 상황을 관찰하며, 김정남의 신변보호를 하고 있음.

○ 동창리 기지는 발사 징후 관찰이 더 어렵다. (3.28 후지TV)

- 「오카베 이사쿠」(군사평론가),
  - 발사탑 옆 2개의 낮은 건물과 파이프라인 같은 것은 반지하 연료공급 시설임. 지금까지는 연료차량의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하시설이면 연료주입 상황이나 발사 타이밍 등을 위성영상으로 포착하기 힘들 것임.
  - 2009년 대포동 2호 때보다 대형 미사일 발사도 가능할 것임.
  - 동창리 발사장은 서해 깊숙이 있어 무수단리 발사장에 비해 공격하기 어려움. 또한 중국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간섭 등 신경 써야 하는 일도 늘어남.

○ KAL기 폭파범 김현희 단독 인터뷰 보도 (3.26 후지TV)

- 김정은 체제는 아직 불안정함.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압력을 받아도 멈추지 않을 것임.
- 북한은 일본인 처 귀국 문제와 같은 쉬운 문제부터 토론해 해결과정에서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으로 남치문제를 해결할 것임.

□ 러시아어권

○ IAEA 최대한 빨리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 (3.26 이즈베스티야 ⇄ 일간지)

- 익명의 러시아 외무부 고위급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북한이 바보짓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북한에 가야한다는 입장'을 언급
- 하지만 IAEA 사무총장이 결정을 주저하고 있으며, 위성을 발사하면 북한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됨.
- 위성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간 차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사를 풀어서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불가능함.

## 붙임 1. New York Times 보도 원문 (3.27)

NYT 홈페이지

### “North Korea Reaffirms Plan to Launch Satellite”

- o Washington says that during the negotiations for the February deal, its officials clearly warned the North against a satellite launching, calling it a deal-breaker.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spokesman said Tuesday that during those talks, its officials “consistently maintained that a moratorium on long-range missile launches does not include satellite launches for peaceful purposes.”
- o How the two sides could have reached a deal despite such a disagreement remains unclear.
- o Some analysts said the North Korean diplomats who negotiated the February deal might have been upended by hard-liners in Pyongyang who insisted on launching a satellite to celebrate the 100th birthday of the North’s revered founder, Kim Il-sung, on April 15.
- o What appeared to be a lack of policy coordination in Pyongyang raised questions about how much control the young Mr. Kim can exert over policy and “diplomatic maturity,” said Cheong Seong-chang, an analyst at Sejong Institute. (On Sunday, Mr. Obama said it was “not clear exactly who’s calling the shots” in Pyongyang.)
- o American officials accuse North Korea of reneging on a deal struck in good faith. But longtime North Korea analysts also say that it is one of the North’s time-honored negotiating tactics to abuse loopholes in the language of an agreement to strengthen its leverage or even kill the deal.

## 붙임 2. 벨스 보고서 원문 (3.19)

벨스보고서

### “CONFIRMING NK EXPLICITLY WARNED ON ‘SATELLITE’ MISSILE PYONGYANG DECISION MADE BEFORE KJI’S DEATH..”

- o SUMMARY: we can now confirm that days before the December death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US and DPRK negotiators directly, and through “Track 2” connections, discussed in detail Pyongyang’s plan to celebrate the 100 th anniversary of founder Kim Il-sung’s birth with a satellite launch sometime around April 15 of this year.



넬슨보고서

- o To the first point, Loyal Reader Evans Revere, former PDAS-EAP/State for Powell & Armitage, and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Society, tells us he was informed by DPRK officials of the launch plans on Dec. 15, 2011, a full three days before Kim Jong-il's death the morning of Dec. 18.
- o Evans says he warned his DPRK counterpart at the time that, in his view, the Obama Administration would consider any such satellite launch a direct violation of existing UN sanctions, that he passed on this information to the appropriate Administration officials, and that they appeared to already be aware of the situation.

**붙임 3. 앰네스티 보고서 원문 (3.27)**

앰네스티 홈페이지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2011"

- o In North Korea death sentences are often imposed even though the alleged crime is not subject to a death sentence under domestic law.
- o At least 51 executions, not counting the thousands that were believed to have taken place in China, were reported to have been carried out in seven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fghanistan (2), Bangladesh (5+), China (+), Malaysia (+), North Korea (30+), Taiwan (5) and Viet Nam (5+).
- o In North Korea, while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reported in the media appeared to have declined in 2011, at least 30 executions were reported to have been carried out during the year. The figure however appears to be a gross underestimate of the reality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 o No trials in North Korea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f fairness and due process, given the lack of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several problematic constitutional and legal provisions.
- o In January 2011 unconfirmed reports suggested that more than 200 officials had been detained by the State Security Agency in a move to consolidate the leadership succession of Kim Jong-un, raising concerns that some of them had been executed.
- o In July 2011,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unconfirmed reports that North Korean authorities had either executed by firing squad or killed in staged

엠네스티 홈페이지

traffic accidents 30 officials who had participated in inter-Korean talks or supervised bilateral dialogues with South Korea.

- o Public executions, including within political prison camps, are believed to have taken place throughout the year. Public executions are a breach of North Korea's own penal code. In addition to the number of "judicial execution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a high number of extra-judicial executions are taking place in the country.
- o On 10 March 2011,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sent a communication to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regarding 37 reported cases of executions for economic crimes between 2007 and 2010.

**붙임 4.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3.27)**

봉황위성TV

“黎弘：韩媒放大曲解中方发言挑拨中朝关系”

- o 胡锦涛和李明博在今天的会谈的时候表示，中国曾经敦促朝鲜放弃卫星发射计划，不过中国的外交部发言人洪磊在当天的记者会上拒绝证实这样一种说法，我想中国的态度其实是一贯的也是公开的，也是非常光明正大的，就是说中国对朝鲜发射这个事情表示关切，这确实是有的事情，当我们中国了解到朝鲜要发射卫星的时候，中国外交部的副部长张志军就在第一时间约见了朝鲜大使，显然是表达关切，希望朝鲜能够顾全大局，就是从稳定的大局出发，暂时不要发射。
- o 所以说这种关切已经表达，这是公开的一个事情。所以你刚才讲韩联社的这些报道，我的一个理解，我在韩国这边的一个感受，就是他们这边现在有一个什么趋向呢？媒体或学者，一方面他们是对中方发难，就是说这个问题你看朝鲜这样做是以中国没有施加足够的影响没有施加足够的压力造成的，导致朝鲜越来越放肆。
- o 第二个方面，他们就是挑拨中国和朝鲜的关系，他会把你的话进行曲解、放大，然后反映他要向朝鲜传递信息，中国现在跟他们站到一块儿，跟韩国站到一块儿。所以我想他这是一种挑拨关系的一种做法，这个我们作为中国来讲，我们应该还是比较冷静的看到这点。
- o 另外就是要正确的区分媒体的报道，我想我刚才对照了一下华盛顿邮报的说法，我觉得华盛顿邮报的说法跟我们说法大致没什么大的区别，但是只不过是侧重点不同，比如说我们中方强调愿意为实现半岛无核化、维护半岛和平继续做出努力，我想这种努力，既然也包括国防的工作，那么他们可能解读为，中国同意去对朝鲜施加压力，我觉得这种理解是片面的也是他们自己有的时候可能是一厢情愿的。

## 붙임 5.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원문 (3.27)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外交部朝鮮半島事務副代表徐步与俄罗斯六方会谈副团长举行会谈 ”

- 2012年3月27日, 外交部朝鮮半島事務副代表徐步与来访的俄罗斯外交部无任所大使、六方会谈副团长洛格维诺夫举行会谈, 就朝鮮半島局势、六方会谈等问题交换了意见。

## 붙임 6. 일본 텔레비전 아사히 보도 원문 (3.27)

### 텔레비전 아사히 홈페이지

“「問題起こらない」 歸國を促されるも金正男氏は…”

- 金正日總書記の死亡から100日が過ぎた北朝鮮ですが、長男の正男（ジョンナム）氏が本國から歸國を促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一度も歸っていないことが分かりました。
- 中朝の關係筋によりますと、正男氏が金總書記の告別式に参加しなかったことを受け、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氏に近い最高幹部が「歸國しても問題は起こら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を送りました。しかし、その後も正男氏は平壤を訪れては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ANNの取材で、正男氏の家族については、金總書記死亡後も中國と北朝鮮を行き來し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ます。正男氏本人は、歸國することで權力争いに巻き込まれるのを警戒しているとみられます。現在、正男氏は中國國內にとどまっています。中國当局もこの状況を觀察しながら正男氏の身の安全に配慮していることも分かりました。中國当局の動向から、正男氏は事實上、中國政府の保護下にあるとみられます。

## 붙임 7. 일본 후지TV 보도 원문 (3.28)

### 후지TV 홈페이지

“北朝鮮の新しい打ち上げ基地は発射の兆候がこれまでより見えにくいと指摘されています。”

## 후지TV 홈페이지

- 27日に閉幕した核安全保障サミットで、批判の合唱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は27日、あらためて衛星打ち上げ断行を宣言しました。準備が進む新しい打ち上げ基地では、発射の兆候がこれまでより見えにくいと指摘されています。
- 北朝鮮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は「平和的な衛星打ち上げは、絶対に放棄しない」との声明を発表した。27日午後、ミサイル発射問題で北朝鮮が新たな声明を発表し、発射の強行をあらためて強調した。一方、韓国・ソウルで行われていた核安全保障サミットは、原子力施設の安全強化などを、加盟国に求める共同コミュニケを採択し、閉幕した。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ミサイル発射は)国際社会に対する正面からの挑戦と言える。国際社会でいっそう孤立する点が残念だ」と述べた。
- すでにミサイルの本体部分を北西部、東倉里(トンチャンリ)の新発射場に運び込んだという北朝鮮。これまで秘密に包まれていたトンチャンリ発射場。注目すべきは、新設備と規模、そして地理的位置だという。
- 軍事評論家の岡部いさく氏は「まず、発射塔横の2つの低い建物とパイプラインらしきもの、これは半地下式の燃料供給設備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これまででは、燃料車両の動きなどでわかった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地下施設ですと、燃料注入の状況ですとか、発射のタイミングなど、衛星画像からはとらえにくくなるでしょう」と語った。
- さらに、東倉里の発射塔の高さは、50メートルを超えるとされており、岡部氏によると、2009年のテポドン2号より大型のミサイルの発射も可能になるという。
- 岡部氏は「東倉里発射場は黄海の奥深くにあって、これまでの日本海沿岸の舞水端里(ムスダンリ)発射場に比べると、海からも空からも攻撃が届きにくくなりますよね。それに中国からも極めて近いですから、偵察にせよ攻撃にせよ、中国への刺激、あるいは中国からの干渉など、いろいろ気を遣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も増えてきます」と話した。

## 붙임 8 일본 후지TV 보도 원문 (3.26)

## 후지TV 홈페이지

“金賢姬元工作員、北朝鮮ミサイル発射について「国際社会の圧力受けてもやめないだろう」”

- 1987年に起きた大韓航空機爆破事件の金賢姬(キム・ヒョンヒ)元工作員が、FNNの単独インタビューに応じ、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について、「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体制はまだ不安定」と指摘したうえで、「国際社会への挑戦であり、圧力を受けてもやめないだろう」と語った。

후지TV 홈페이지

- 金賢姬元工作員が、テレビ取材に応じたのは、金正日総書記の死去後、初めてとなる。金元工作員は「ミサイル発射は、今、安定・掌握ができていない難しい状態で、金正恩の国際社会に対する1つの挑戦だといえる。発射を通じて、金正恩体制の試験台になります」と語った。
- 流ちょうな日本語で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金元工作員は、ミサイル発射は、金正恩氏の功績を築くため、国際社会の圧力を受けても、発射をやめ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強調した。
- 金元工作員は「わたしの考えでは、今、北朝鮮は、核開発、ミサイル発射、食糧援助、みんなを捨てないで、みんなを1つの手に取ろうとする。北朝鮮は、絶対に放棄しないだろうと思う」と語った。また、発射を強行すれば、中国との関係も悪化し、北朝鮮は、いっそう孤立するとの見方を示した。
- 金賢姬元工作員は「中国の助けも受けられ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ますます孤立して、もっと悪い状態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語った。
- 一方、日本人妻の帰国をめぐる日朝の極秘接触については、拉致問題の解決につながる可能性を指摘した。金元工作員は「北朝鮮の立場で見れば、(日本人妻のような)たやすい問題から討論して、解決する過程で成果があったら、その次に拉致問題の解決につながると思う」と語った。

**붙임 9.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원문 (3.26)**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신문 홈페이지

"Медведев передаст Путину от Обамы «меседж» по ПРО"

- “Мы считаем, что ехать туда нужно, и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чтобы Корея не делала глупостей. Но Аmano (Юкия Аmano- генсек МАГАТЭ.《Известия》) колеблется. Если они спутник запустят, то придется уезжать”, заметил 《Известиям》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источник в МИД России.
- По его словам, най ти разницу между испытанием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дальнего действия и спутника можно только, если «залезть внутрь объекта с отверткой».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美 국방부,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 (3.28 美 하원 군사위 청문회)

- 「피터 라보이」(美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대행), '4월 중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식량지원을 중단했다'고 발표
-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지 않게 돼 유감이며, 북한 주민들은 정말로 영양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준비할 것임.
- 그러나 북한이 2.29 합의 약속을 뻔뻔스럽게 어겨 굶주린 주민들에게 영양지원 제공을 포함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음.
- 식량지원 중단 이유는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이며, 이를 북한 정치 변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님.
- 북한의 우라늄 농축 등 도발행위가 미국과 동맹국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지 2년이 지났으며, 이는 2010.11월 연평도 포격사건과 함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군사능력 활용 의도를 상기시켜줌.
-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 및 군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
- 2012년 주요 관심사는 북한의 잠재적인 도발이며, 4.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은 강하고 번창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중대 행사임.
- 북한에게는 韓의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韓을 교란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2012.3.29(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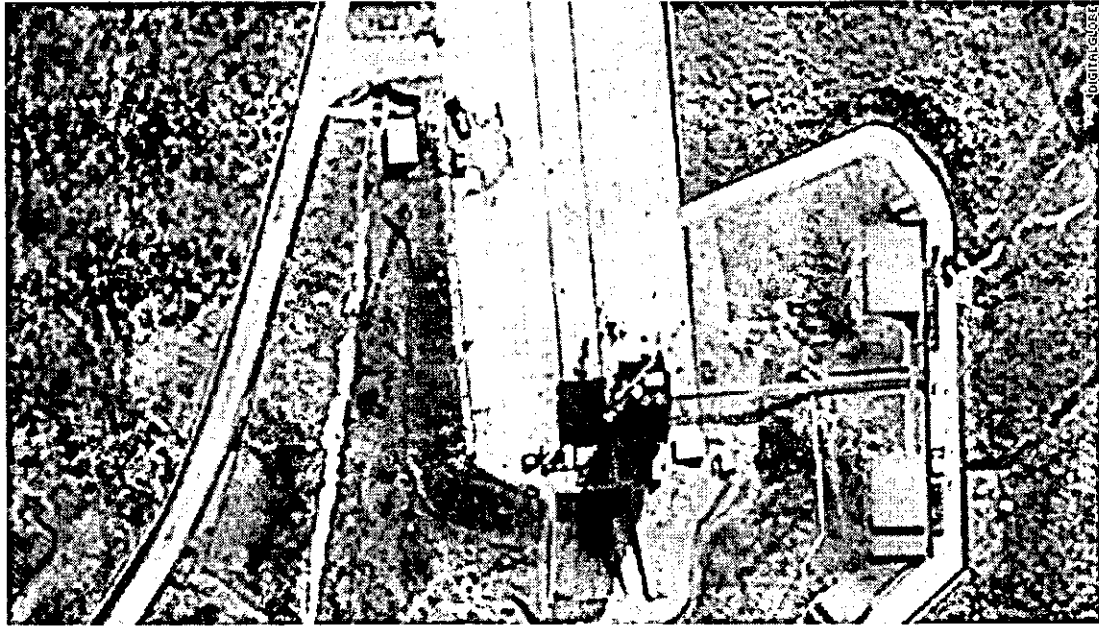
- 북한이 4.15~16일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미사일 프로그램 강화에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를 활용할 것이라는 혐의를 굳히게 됨.
- ‘미사일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실험하고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는 매우 도발적이다’라고 강조
- 2.29 합의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에 합의했으며, 미국은 위성 발사는 합의 파기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음.

○ 韓·美연합사령관, 북한의 불시 공격능력 확대 언급

(3.28 美 하원 군사위 청문회)

- 「제임스 서먼」(한미연합사령관), ‘북한은 불시에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
- 북한 정권 변화는 한반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새 지도자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책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임.
- 이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위성 발사 계획 발표,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한반도 긴장을 강화시키고 있음.
- 북한은 세계 4위의 재래식 무기,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 장거리 포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병력의 70%를 DMZ 90마일 이내에 배치하고 있음.
- 북한은 특히 핵·미사일·사이버 분야에서 비대칭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공격하거나 도발을 유발하는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은 최근 최고사령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군대 우선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북한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미국은 2.29 합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했으며, 위성 발사는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음.

○ 동창리 발사장 활동 포착 최신 위성사진 입수 (3.28 CNN)



- DigitalGlobe가 28일 촬영한 동창리 발사장 위성사진에서 트럭 모습 및 공급탑(umbilical tower) 위로 로켓을 드는데 사용될 크레인 모습 포착
- 「Joseph Bermudez」(DigitalGlobe 선임연구원)
  - 한국 언론은 추진체가 발사시설로 옮겨졌다고 보도한데 반해 사진에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음.
  - 발사장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많아졌으며 특히 발사대에서 상당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위성 발사 준비 활동과 일치하는 움직임으로 보임.
  - 추진체가 놓일 이동식 발사 플랫폼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발사대 위 트럭 주변에 무엇인가를 쏟은 흔적이 보임. 이동식 발사 플랫폼 주변에 추가적인 지원 장비도 포착되었음.
  - 평양 인근 공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철도로 운반한 다음 발사대에서 가까운 조립 시설에서 조립 하고 있음.
  - 발사대 우측 건물들은 연료와 산화제 저장고이며, 공급탑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볼 수 있음.



## □ 중국어권

○ 北, 중국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3.28 중국망, 「비디안롱」 시사평론가 사설)

-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저지할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임.
- 북한에 있어 중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항상 중국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님.
-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중국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간파하고 이를 이용하기 때문임.
- 오랜 기간 중국은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했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의 對美, 對日 견제용이자 중요한 전략적 보호막이었기 때문임.
- 또한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동질감에서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음.
- 김정일 정권 후기부터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으로 핵무기와 미사일로써 韓·美·日과 흥정을 시작함.
- 이런 북한의 행동을 중국 또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연평도 사건과 같이 대부분이 북한의 독자적인 행동임.
- 사전에 고지도 없었으며 사후에는 중국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이 사건을 수습했음.
- 이런 중국의 행동은 외교전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가 필요함.
- 중국은 전략적 필요와 같은 사회주의 진영의 전통적 우방이기 때문에 북한을 진심으로 버릴 수 없음.
- 한편으로는 중·북간의 신뢰가 이미 예전과 같지 않고 북한이 문제를 일으켜 이미 자신들의 계륵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

2012.3.29(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그러나 북한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중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임.
- 혹은 전면적인 전쟁 발발이나 북한 내란 발생時에는 더 이상 북한을 보살펴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 결론적으로 더욱 긴박해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은 더욱 중국과 공조해야 되며, 韓·美·日에 대한 전략도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변화를 모색해야 함.

## □ 일본어권

### ○ 대북제재 1년 연장하기로 (3.29 닛케이)

- 4.13일로 만료되는 일본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1년 연장할 방침을 결정함.
-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핵개발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추가 제재도 검토할 예정이며, 대북 송금의 보고의무를 현재 300만 엔에서 낮추는 방안과 인적 왕래의 규제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 러시아어권

### ○ 러시아는 북한의 대화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3.27 리아 노보스티)

- 「메드베데프」(대통령),
  - 북한, 이란 같은 국가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됐는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 핵문제를 논의하는 현존하는 회담의 틀 내에서, 또한 확대 회담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는 시기에 상관없이 회담이 재개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

○ 한반도 문제해결은 미국에 달려있다.(3.28 이타르타스)

- 서방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은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
-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시장경제를 실현시킨 중국을 비롯, 베트남, 더 나아가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
- 미국은 아시아,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를 공격한 실례가 있으며, 심지어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도 경계심을 갖게 함.
-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핵보유만이 공격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음.
-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교류를 착수할 경우에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임.
- 북한 개혁의 선행조건은 안보보장이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손에 달려지만, 사실상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 미국은 유연성을 발휘할 의향이 없어 보임.

## 붙임 1. 라보이 美 하원 군사위 보고 원문 (3.28)

### 美 하원 군사위 홈페이지

- o Well, I can tell you that it's regrettable that the food aid is not moving forward. The North Korean population really needs nutritional assistance. And we're prepared to provide that to North Korea. The real motivation and the linkage, as you -- this is not intended to be linked to anything else, to any movement by the North Koreans.
- o However, the fact that North Korea so brazenly violated commitments that it just so recently agreed to in the discussions in Beijing and its commitment that it announced on February 29th, on leap day, indicates that they're not reliable and we cannot expect them to meet other international commitments, including the commitments that they've agreed to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nutritional assistance to the needy population --
- o Well, Congressman, we don't believe that nutritional assistance should be a lever to achieve a political outcome. It is a humanitarian effort that we have intended. And again, it's regrettable that this has stopped. So by the reason, again, why we're not providing that food assistance at this point is because we have -- our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meet their agreements has been diminished. We do not use it as a lever to change their policies.
- o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 large conventional military, proliferation activities and pursuit of asymmetric advantages through its ballistic missile and weapons-of-mass- destruction program, including uranium enrichment, continue to present a serious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the region as a whole.
- o It was almost two years ago that North Korea brazenly sank the ROK naval vessel Cheonan. That event, coupled with the unprovoked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November 2010 provides a reminder that Pyongyang is willing to utilize military capabilities with deadly consequences.
- o These incidents demonstrate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need to take further steps to bolster deterrence and preserve security. We're working closely with our ROK allies and armed forces to ensure that the responses to any future North Korean provocation are effective and appropriate and integrated into alliance plans and conducted from an alliance perspective. Furthermore, through our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we meet biannually to identify ways in which the full range of alliance capabilities,

美 하원 군사위 홈페이지

- including conventional forces, missile defense, nuclear capabilities, strategy and doctrine can be leveraged to maximize deterrence.
- o The potential for a North Korean act of provocation in 2012 remains a major concern. The April 15th centennial celebration commemoration of Kim Il Sung's birth provides a milestone for North Korea to try to show it has become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Kim Jong Un,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power and establishing his legitimacy, perhaps through a provocative act or display of force, is a real possibility.
  - o The upcoming ROK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elections in April and December respectively are opportunities for Pyongyang to disrupt and potentially influence South Korean political outcomes.
  - o Our suspicions about North Korea using its celebrations this year to enhance its missile program were confirmed when North Korea announced on March 16th that it plans to conduct a missile launch between April 12th and 16th.
  - o This grand launch is highly provocative because it manifests North Korea's desire to test and expand its long-range missile capability. In addition, the launch, if it occurs, would be in direct violation of Pyongyang'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1874, which prohibit North Korea from conducting any 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 o North Korea's announcement is also troublesome because only two weeks prior, in a February 29th statement after three rounds of bilateral talks, North Korea had agreed to implement a moratorium on long-range missile launches. During those discussions the United States made it very clear that a satellite launch would be a deal- breaker.

**붙임 2 서면 美 하원 군사위 보고 원문 [3.28]**

美 하원 군사위 홈페이지

- o In stark contrast, one of the world's poorest, most closed and most militarized countries, North Korea lies less than 20 miles from the northern districts of Seoul, a city of over 24 million people. The change in North Korean leadership has led to a period of increased uncertainty on the Korean

美 하원 군사위 홈페이지

- peninsula. The new leader appears to be following the same pattern of his late father and grandfather.
- o Examples of this are North Korea's recent announcement of their intention to launch a satellite with a ballistic missile, and their continued rhetoric denouncing both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nd alliance military exercises. These actions are increas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 o Additionally, North Korea continues to adhere to its military- first policy. They maintain the fourth largest conventional military force in the world, the world's largest special operating force, and significant long-range artillery capabilities. Over 70 percent of their combat powers are arrayed within 90 miles of the demilitarized zone.
  - o North Korea also continues to pursue asymmetric capabilities, especially in areas of nuclear, missile and cyber. The development of these asymmetric capabilities and the forward stationing of its conventional forces provide North Korea the ability to attack or provoke the Republic of Korea with little warning.
  - o Kim Jong Un's recent appearances, including a visit to the joint security area, continue to stress his role as military commander and further reinforce the importance North Korea places on its military-first policy. It is undetermined at this time whether or not he will change any North Korean strategies or policies in the future.
  - o We have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s that will enable us to provide food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we've been under the -- it's been very important to us to delink humanitarian assistance, including nutritional assistance, and other kinds of activities such operational -- remains recovery operations from politics and from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That's been our intent all along. However, when we recently reached this deal, this did prohibit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And we indicated at the time that a satellite missile launch we would interpret as a missile launch because it would use missile technology.
  - o The North Koreans have announced that they will launch a missile. We are working very closely with allies and other partners in the region to try to discourage North Korea from launching this missile as they've intended. But we believe that this reflects their lack of desire to follow through on their commitments -- their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so we have not -- we

美 하원 군사위 홈페이지

have been forced to suspend our activities to provide nutritional assistance to North Korea largely because we have now no confidence that the monitoring mechanisms that ensure that the food assistance goes to the starving people and not the regime elite, that these monitoring mechanisms we have no confidence that they would actually abide by the understandings.

**붙임 3. CNN 보도 원문 (3.28)**

CNN 홈페이지

"EXCLUSIVE: Activity seen at North Korea launch site"

- o A new satellite image has captured increased activity on North Korea's launch pad as the country prepares for its controversial missile launch in mid-April.
- o The DigitalGlobe image taken on March 28 shows trucks on the Tongch'ang-ni launch pad. Atop the umbilical tower, which sits beside where the assembled rocket will stand, a crane arm that will be used to lift the rocket stages has been swung wide.
- o While South Korean media are reporting the first stage of the rocket - known as the booster - has been moved to the launch facility, DigitalGlobe Senior Analyst Joseph Bermudez said that is not visible in this image.
- o "It does confirm a higher level of activity within the overall facility and significant activity at the launch pad specifically," according to Bermudez. "This activity appears consistent with preparations for a satellite launch."
- o The booster would be placed on top of the mobile launch platform (in the satellite image, the black square on the launch pad) that shows nothing on it when the DigitalGlobe image was taken. There is evidence of some sort of spill near the trucks sitting on the launch pad, Bermudez told CNN. Additional support equipment is visible near the mobile launch pad.
- o Bermudez said the North Koreans are assembling the long-range missile inside a horizontal assembly facility not far from the launch pad after it was shipped by rail from a factory outside Pyongyang.
- o The buildings visible to the right of the launch pad in the satellite image are storage for fuel and oxidizer, according to Bermudez. A pipeline leading to the umbilical tower is visible in the image.

## 붙임 4 중국망 보도 원문 (3.28)

### 중국망 홈페이지

#### “朝鲜吃定中国不会放弃它观点中国

- 朝鲜准备发射卫星，中国的影响如果最终没有发挥威力，不是装出来的无奈，就是真的无奈。中国对朝鲜的重要，并不保证朝鲜任何时候都听命于中国，这是因为朝鲜吃定了，中国不会放弃它。
- 在中国抗美援朝之后相当长的时间里，朝鲜作为中国对美日军事斗争的前沿，无疑是增加了战略纵深，扩展了战略预警，是中国很重要的战略屏障。通过朝鲜和韩国之间不断的军事摩擦和松松紧紧的关系，中国也多了一张挥洒自如的外交牌。这也是中国为什么在多么艰难的情形下，对朝鲜的支持都不遗余力、朝鲜也深感自己对中国的重要的原因。加之当时中国对意识形态和同一社会主义阵营的高度重视，朝鲜从来都不必怀疑，中国会突然之间放弃他。
- 金正日后期，特别是朝鲜经济遭遇几次严重缺粮之后，越来越多地依赖核武和导弹，和美日韩讨价还价。这许多的行动中，许多是和中国事前或事后是有默契的，但也有许多显然是铤而走险的举动。那些事情不但中国事先不会知情，事后也不是都对中国言听计从。如朝鲜对韩国延坪岛的炮击等。朝鲜找的麻烦，许多时候也都是中国为之擦屁股善后。尽管处理朝鲜惹出的麻烦，也是中国外交筹码的一部分，但是中国也需要为之付出其他方面的、额外的代价。
- 从内心深处，真心倾全力地不放弃，是基于自己战略需要的同时，也出于同一社会主义阵营，有着传统友谊和很深的革命感情。
- 心不甘情不愿的不放弃，是因为中国朝鲜之间的互信已经大不如第一代领导人时期。朝鲜一方面郁闷于自己某些时候被中国利用，另一方面也吃定中国不会放弃自己，而利用中国的保护，制造更多的麻烦和美日韩讨价还价。从天安舰事件到延坪岛炮击，这些显然中国不会同意的麻烦制造，最终都还是中国不得不出面善后，也让中国对朝鲜越来越是自己的战略“鸡肋”头疼不已。
- 中国对朝鲜的不放弃，除了有上述两种情况，还有一种情况才是最可怕的。就是中国不得不放弃，不放弃也保不住。不得不放弃，是因为朝鲜自身找的麻烦太大，中国善后付出的成本太高。保不住是，中国即便倾全力，在美日韩撕破脸皮强力打击、全面战争的情况下，中国无力最终确保朝鲜的不失。再就是，朝鲜发生难以控制的内乱等。
- 总之，朝鲜可以吃定甚至假设中国不会放弃它，但在新的更加严峻的国际形势下，需要在各方面与中国有更多、更好的默契（这并非就不能主动挑衅美日韩）。更重要的是，朝鲜对美日韩的斗争不能采取数十年一贯的模式，斗争的方式以及自身的发展都要与时俱进。



## 붙임 5.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 원문 (3.29)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北朝鮮制裁 1 年延長へ 政府、4 月期限切れで”

- 政府は28日、4月13日に期限が切れる北朝鮮への日本独自の経済制裁を1年間延長する方針を固めた。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実験とみられる「人工衛星」打ち上げの予告や、核開発問題や日本人拉致問題の解決に向け北朝鮮が具体的な行動をみせていないことを踏まえ、継続が必要と判断した。近く閣議決定する。
- 延長するのは、北朝鮮籍の船舶入港や輸出入の禁止措置。2006年の北朝鮮の核実験を受けて踏み切った。輸出禁止の制裁は09年の2度目の核実験後に発動した。
- 北朝鮮が「人工衛星」を打ち上げた場合は追加制裁を検討する。北朝鮮への送金の報告義務を現在の300万円から引き下げる案や、日本との間での人の往來の規制を強化することが視野にある。

## 붙임 6.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3.27)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 "Было бы неплохо, чтобы государства, о которых много говорят, принимали боле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дискуссиях. Я, правда, не уверен, что названные вами государства (Иран, КНДР) были бы готовы в таких дискуссиях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сегодняшней жизни, но, будем надеяться, чт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они вернутся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и мы сможем этот диалог продолжить - как в существующих форматах для обсуждения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допустим, того же самого Ирана ил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ак и в более расширенных форматах, не исключая такого рода саммита, хотя тематика этого саммита не охватывается темой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 сказал Медведев журналистам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Сеуле.
- "Так что,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я надеюсь, это будет возможно,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все от нас зависящее", - добавил он.

## 붙임 7. 러시아 이타르타스 보도 원문 (3.28)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사 홈페이지

“Ключ к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Ким Чен Ын ?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олучивший образование на Западе.
- Ким Чен Ын, конечно, осознаёт,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нуждается в коренной перестройке. Он мог 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пытом Китая, который наглядн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как можн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мпартии двигаться в сторону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и. Вспомним: в начале китайских реформ многие предрекали, что перемены приведут и к краху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в КНР, и к развалу самого кита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кептики оказались посрамлены: ныне достижениям КНР удивляется весь мир. Успешный опыт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строя накоплен и во Вьетнаме. Наконец, у КНДР есть пример Южной Кореи.
- Однако, чтобы реформы состоялись, новом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лидеру необходимо прежде всего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КНДР. Задача эта архисложная. Соединённые Штаты обладают в военном потенциале, в сотню раз превышающи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Может ли это оставлять равнодушной КНДР? Ведь сам Вашингтон начинает нервничать при появлении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ране пары-тройки ракет, а у американцев тысячи ракет и тысячи самолётов, кораблей, танков и прочих вооружений. И эти вооружённые до зубов американцы уже более полувека ведут себя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откровенно враждебно. Нарращивают военный потенциал на юге Кореи и вокру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ибегают к оскорбительной и воинственной риторик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режим называют диктаторским, кровавым, антинародным, предрекают лидера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удьбу Гитлера и так далее.
- Могут ли в Пхеньяне не обращать внимания на бряцание оружием и словесные нападки? Нет, конечно.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북한에 김정일의 결정 역행할 결정권자는 아직 없다.

(3.27 美 외교협회)

- 「스콧 스나이더」(美 외교협회[CFR] 韓-美 정책 디렉터),

- ‘작년 말 김정일이 미국과의 협상과 위성 발사 모두 비준했으며, 김정일 사후 김정일의 결정에 상반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주도권을 행사한 예가 없다. 북한 지도부는 김정일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뿐이다.’
- ‘현재 북한의 근본적 딜레마는 내부 권력 강화를 위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북한의 국제적 정당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반대로 북한의 대외적 양보가 내부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이번 발사와 관련 북한이 언급한 이유 중 하나가 지도자 교체이고, 김정은의 권력을 내세우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양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강행하는 데에는 국제적 대가가 따를 것이다.’
-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2009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촉발돼 성명이나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에 대해 북한은 매우 부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09년 당시와 같이 3차 핵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 □ 중국어권

○ 한반도 정세가 뒷걸음치는 것이 안타깝다.(3.30 환구시보)

- 한반도 정세는 회복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점점 긴장국면이 되고 있으며, 경제와 주민생활로 볼 때 수혜자는 없고 핵문제로 인한 손해는 북한이 가장 많이 입었음.

2012.3.30(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현재 북한은 핵과 로켓 문제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데 중요한 우방인 중국은 이를 이해하고 함께 걱정하고 있음.

북한이 진행하는 핵무기 실험과 위성발사는 자신들의 국력과 비교해 통상적이지 않으며, 韓·美·日의 압력에 맞서 小國이 大國외교를 펼치고 있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해준다고 여기고, 韓·美·日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음.

中·러 또한 핵카드를 쥐고 있지만 이는 국가 안보에 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음.

현재 북한이 취하는 강경외교는 韓·美·日의 책임이 크며, 이들의 압력 행사는 북한과 같은 小國에는 불공평함.

동북아에서 안보환경이 가장 취약한 나라가 북한이기에 이런 환경에서 그들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것도 우연이 아님.

동북아의 안보는 북한의 안보 환경과 궤를 같이 하므로 중국은 韓·美·日과 달리 북한을 친구로 여겨 왔음.

북한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함.

북한이 중국을 가까이하는 것은 現체제 유지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이는 핵보유보다 중요한 부분임.

中·北 양국은 오랜 기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심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임.

이에 북한이 친구의 건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위성발사를 이성적이고 신중히 생각하길 바람.

韓·美·日도 북한에 대한 위협이 줄곧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더욱 신중해야 하며, 對北 전략 변화를 모색해야 함.

## □ 러시아어권

○ 북한의 위성발사는 정치선전용이다.(3.29 모스크프스코에 노보스티)

- 「알렉산드르 제빈」(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계속 주창해 왔고, 김일성 100회 생일이라는 의미있는 해에 실질적인 목표달성이 요구됨.
  -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식량난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달성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함.
  - 이러한 견지에서 금번 위성발사는 군사적인 측면보다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선전용 의미가 더 큼.
  - 또한 과거와는 달리 발사궤도 및 참관단 초청 발표 등을 통해 위성의 비군사적인 성격을 입증하려 노력함.
  - 국제사회의 지나치게 강력한 대응은 오히려 북한을 핵실험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발사를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야 함.
  - 이는 '외부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내정문제를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이들 국가의 핵무기 보유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푸틴 대통령 당선자의 대외정책과 일맥상통함.

## □ 일본어권

○ '평양-베이징' 고려항공편 5배 증편(3.30 TBS뉴스)

- 고려항공, 북한이 위성발사를 예고한 4.12~16일을 포함한 2주 동안 평상시의 5배인 왕복노선 56편으로 증편됨.
- 현재 평양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고려항공편은 1주일에 왕복 6편 있음.

2012.3.30(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다음 달 해외 과학자와 미디어 등을 대거 초대해 태양절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위성발사를 가장 중요한 행사로 생각함.
- 북한 외무성 리근 미주국장, 베를린에서 미국 前 고위관리와 접촉할 가능성(3.30 후지TV)
  - 북한 외무성 리근 미주국장은 미국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3.30일 베를린으로 출국할 예정임.
  - 아시아 정책을 담당했던 미 국무부 前 고위관리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리근 국장에게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북한 라디오방송 '전파 중단' 전력사정 악화가 원인?  
(3.29 J-Cast 뉴스 뉴스사이트)
  - 북한의 해외용 라디오방송 '조선의 소리'에서 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이상 징후가 발견됨.
  - 영어 방송은 시작된 지 20분 만에 돌연 전파가 멈추거나, 프랑스어 방송에서는 음악이 흐르는 중에 예정보다 5분 빨리 방송이 끝나거나 했음.
  - 일본어 방송도 도중에 전파가 끊기는 것은 물론 방송횟수와 주파수의 수가 갑자기 줄어든 일도 있었음.
  -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의 라디오방송에 대한 방해전파도 한때 불안정해짐.
  - 전기가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평양시에서도 전력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 대부분의 단파 송신기는 평안북도에 설치되어 있어 전력사정이 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봄을 맞아 서서히 전력사정이 좋아지고 있으며, 3월 하순 시점부터는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강한 방해전파도 확인됨.

## 붙임 1. 美 외교 협회 인터뷰 원문 (3.27)

美 외교협회 홈페이지

### “North Korea's Transition Dilemma ”

- o I actually think that what happened is that late last year, Kim Jong-il, then North Korea's leader, authorized both a negotiation process with the United States and plans to conduct a satellite launch, and so those decisions were made by him. But he died on December 17, and he's not there to make any further decisions about what the right course of action might be, and there's not yet any single decision-maker in place who could make a decision that might be seen as contradicting a course of action that had already been approved by Kim Jong-il.
- o There's no evidence that any consequential decisions or initiatives have yet been made by a member of the Korean leadership following Kim Jong-il's death.
- o North Korea's fundamental dilemma at this point is that anything that they do for ostensibly domestic political reasons to consolidate their leadership appears likely to have negative ramifications for perceptions of their legitimacy internationally, and likewise, any concessions that the North Koreans offer on the international stage may well not serve the interests of domestic political consolidation.
- o I'm saying that one of the justification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offered for conducting this test is related to the leadership transition, and in that sense, this is really set up as a way of showing the power of the leader, and it's likely very hard in that circumstance and probably not likely that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back down. But there will be international costs from moving forward with that particular action.
- o I think 2009 offers a very clear guidebook for what's likely to happen. A North Korean satellite launch will be met with calls for debate at the UN Security Council, the adoption of some sort of statement or resolution to which the North Koreans are likely to respond very negatively. The North Koreans then may well decide that in response they want to pursue a third nuclear test. That's the way it played out three years ago.

## 붙임 2 중국 환구시보 보도 원문 (3.30)

### 중국 환구시보 홈페이지

“环球时报：半岛局势再次逆转令人惋惜”

- 朝鲜半岛局势颠过来倒过去，但总趋势更像是越绷越紧。没有真正的获益者，要评只能评谁的损失最多。如果以东北亚地区经济发展水平和百姓生活做尺子，那么这些年围绕核问题吃亏最多的，显然是朝鲜。
- 朝鲜是中国的重要友好国家，对朝鲜在核问题和运载火箭问题上进退两难的处境，中国人能在很大程度上理解，甚至感同身受。
- 朝鲜发展核武器、发射卫星的举动与其国力相比都极不寻常。朝鲜强顶韩美日的压力，对东北亚的各战略力量确实用得很巧，一次次找到通常情况下难以置信的战略空间。朝鲜真正做到了“小国开展大外交”。
- 平壤或许认为，只要有了战略核导弹，朝鲜的国家安全就有了根本保障，韩美日的对朝态度就会彻底转变。但其实不会。即使对俄中两国，核盾牌对国家安全的作用也不是全方位和全天候的。在两国的大量现实威胁中，核武器帮不上忙。发展战略威慑力量只能置于国家经济、社会发展的全局之中，它不能是不顾一切的。
- 我们知道，朝鲜当前强硬的外交姿态并非都是平壤造成的，韩美日的责任很大。它们施加了那么多压力，对朝鲜这样的小国是不公正的。半岛及整个东北亚安全环境最恶劣的国家是朝鲜，而不是别的谁。平壤对核武器的欲望最强，不是偶然的。
- 东北亚各方安全的增加，只能同朝鲜安全环境的好转同时发生。正因为看到了这一点，中国对朝鲜的态度一直与韩美日不同。在任何时候，中国人都把朝鲜视为朋友。朝鲜也应当看到，如果因为它某个举动造成了中国的为难，实际上这些为难最终会有一部分曲折转回到朝鲜自己身上。朝鲜紧挨着中国和中国的强大及安全，是朝鲜现行体制长期安全稳定的根本保障。这个因素的重要性，不会比朝鲜拥有核武器更小。
- 中朝友谊经过长期的考验，中国社会对朝鲜的善意由衷而无私。朋友的建议值得认真倾听，因为中国在东北亚安全问题虽多，但资源更多，中国不会仅仅顺着自己的利益给朝鲜出主意。
- 希望朝鲜在发卫星的问题上保持理性和审慎。韩美日更应慎行。它们的安全与朝鲜比起来堪称牢不可破。它们吓唬朝鲜一直没收效，它们得试着换个方法了。



### 붙임 3 러시아 모스크프스쿠예 노보스티 보도 원문 (329)

모스크프스쿠예 노보스티 신문 홈페이지

#### “Спутник раздора”

- Во-первых, решение о запуске многое говорит о ситуации в самой КНДР. В нынешнем юбилейном году должно быть объявлено о достижении цели, громко провозглашавшей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15 лет, построе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и могущественной державы.
- Однако в совместной новогодней передовой статье трех газет КНДР, подводящей итоги 2011 года и ставящей задачи на нынешний, признается наличие в стран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блемы и указывается на ее злободневность.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желаемого продвижения к намечен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высотам, в том числе в обеспечении населения едой и товарами ширпотреба, добиться не удалось.
- А когда не хватает «хлеба», обращение к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 выигрышным «зрелищам», призванным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достижения, ставящие КНДР в один ряд с окружающими «большими» странами, оказывается практически неизбежным. Конечно, всякий такой запуск имеет военный аспект, но очевидно,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то, что на этот раз главная нагрузка, которую попытается поднять в космос «Ынха», будет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политической.
- Кстат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те позитивные тенденции, что намечались в подходе КНДР к реализации своей 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Если пуск 1998 года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то накануне пуска в 2009 году Пхеньян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ряду конвенций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мирных целях. На этот же раз и вообще оповестил о траектории полета, учитывающей интере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седних государств и даже пригласил ученых и журналистов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при запуске с тем, очевидно, чтобы за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его невоенный характер.

## 붙임 4. 일본 TBS 뉴스 보도 원문 (3.30)

### TBS뉴스 홈페이지

“「ピョンヤン-北京」航空便数、通常の5倍へ”

- 北朝鮮が「衛星打ち上げ」と主張する事実上の長距離ミサイル発射実験の前後に、ピョンヤンと北京を結ぶ航空便が、5倍近くに増便され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 現在、ピョンヤンと北京を結ぶ航空便は、北朝鮮の「高麗航空」が往復で週6便あり、北京空港は北朝鮮への事実上の表玄関となっています。
- 高麗航空などによりますと、北朝鮮が「衛星を打ち上げる日」と予告している来月12日から16日を含む2週間に、通常のおよそ5倍の往復56便に増便され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 北朝鮮では来月、海外の科学者やメディアなどを大勢招待し、故キム・イルソン主席の誕生100年を祝う「太陽節」というイベントを行いますが、その中でも「衛星」の発射は最も重要な行事とされています。

## 붙임 5. 일본 후지 TV 보도 원문 (3.30)

### 후지TV 홈페이지

“北朝鮮外務省局長、ドイツ・ベルリンで米政府元高官と接触の可能性”

- 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予告をめぐり、緊張が高まる中、北朝鮮外務省の局長が、30日にもドイツ・ベルリンに向かい、アメリカ政府の元高官と接触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がわかった。
- 北朝鮮外務省の李根(リ・グン)アメリカ局長は29日、中国・北京に到着し、外交筋によると、アメリカの民間団体の招きで、30日にもベルリンへ向かう見通し。
- 李局長はベルリンで、アメリカ国務省でアジア政策に携わってきた元高官と接触する可能性があり、アメリカ側は李局長に対し、ミサイル発射を中止するよう強く求めるものとみられる。

## 붙임 6. 일본 J-Cast 뉴스 보도 원문 (3.29)

### J-cast 뉴스 홈페이지

“北朝鮮ラジオが突然「停波」 電力事情悪化が原因?”

- 停波が相次いでいるのは、北朝鮮が海外向けに行っているラジオ放送「朝鮮の声」。国内で一般的なAMラジオ放送に使われる中波と呼ばれる帯域以外に、短波と呼ばれる帯域を使って、朝鮮語以外にも日本語、英語、中国語、ロシア語、ドイツ語、フランス語、アラビア語、スペイン語で「労働新聞ダイジェスト」などの「官製情報」や発信するほか、金日成主席や金正日総書記を称える音楽を流している。世界に現存する、数少ない「プロパガンダ放送」のひとつでもある。大半の言語では、1時間の番組を1日数回、複数の周波数で放送している。複数の周波数で放送する理由は、短波の場合、帯域によって電波の「飛び具合」が違ってくるからだ。
- 東アジア各国の放送のリスナーでつくる「アジア放送研究会」の掲示板に寄せられた情報や、北朝鮮のIT情報を集めたウェブサイト「ノース・코리아・テック」の情報を総合すると、異変が目立ち出したのは2012年2月中旬~下旬頃。例えば北米向けの英語放送が始まってから20分後に突然電波が止まったり、フランス語放送では、音楽が流れている途中に、予定よりも5分早く放送が終わったりした。
- 日本語放送も同様で、放送の途中で電波が途切れるのはもちろん、放送回数や周波数の数が、突然減ることもあった。
- 北朝鮮は、自国民が資本主義諸国の放送から情報を得るのを防ぐため、韓国などのラジオ放送に対して妨害電波を出していることで知られている。この妨害電波も、一時期不安定になっていた事が確認されている。
- ロイター通信は2月1日、平壤駐在の外交官の話として、ここ数年で最も厳しい電力不足に見舞われていることを伝えている。
- 優先的に電気が供給される平壤市でもこの有様だが、短波の送信機の大半は北朝鮮北西部の平安北道に設置され、さらに電力事情は厳しい可能性もある。電波の送信機は大量の熱を発生し、かなりの電気を使うことで知られており、電力供給が間に合わなくなったものとみられる。
- ただし、春先に向けてじょじょに電力事情は好転しつつある模様で、3月下旬時点では、放送が正常化に向かっているほか、強い妨害電波も確認されてい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위성 발사는 김정일의 결정이며, 철회할 여지없다.

(3.29 armscontrolwonk.com ☞ 美 군축, 비확산 전문 블로그)

- 「Jeffrey Lewis」(美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동아시아 비확산 국장),

- 지난주 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전략연구소(IISS) 주관 북한 관리들과의 '트랙-2 대화' 참석 결과 기고
- '북한의 위성 발사는 김정일의 결정이며, 철회할 방법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고, 대화에 참여한 북한 관리들은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았다.'
- '과거 발사시 북한은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엔진을 시험했으며, 미국은 향후 북한이 무수단 IRBM과 도로기동성 ICBM을 시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대부분의 우주조약 당사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성 발사 서비스를 이용해 우주 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 유럽우주기구(ESA)와 러시아가 북한 위성 발사 제안을 한 적이 있고, 상업 발사 서비스가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것임.'
- '한국도 자체 우주 발사 프로그램에 장애로 작용하는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수용하고 있듯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개선되기 전에는 남·북한 모두 자체 우주 발사 역량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

○ 美 대북지원 중 식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美 의회조사국[CRS] '대북지원' 보고서 3.20 발간 / 4.1 게재)

- 1995~2008년 13억달러 이상 지원했으며, 이중 50% 이상이 식량이며 40%가 에너지인 것으로 나타남.

【1995-2011년 美 대북지원 현황】

식량지원		KEDO 관련 비용	6자회담 합의에 따른 지원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 지원	합계
물량	물품가치		중유	비핵화		
225만 8,164톤	7억815만 달러	4억370만 달러	1억4,600만 달러	4,500만 달러	190만 달러	13억1,375만 달러

- 2008~2009년 약속한 식량지원 50만t 가운데 3분의 1을 제공했으나, 북한과의 마찰로 2009년 이후 대북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미국을 딜레마에 빠뜨렸으며, 북한은 공평한 식량 배분을 허용하고 수입식량 지급을 돕는 개혁에 저항하고 있음.
- 대북 식량지원 재개 문제는 △안보 및 인권 문제와의 연계, △모니터링 개선 문제와의 연계, △한국 정부와의 정책조율, △중국에 대한 대북 식량지원 모니터링 개선 압박, △세계식량 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야 함.
- 1995~2009년 에너지 지원에 6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북한의 플라토늄 핵시설 유예의 대가로 이를 지원했음.
- 2007~2008년 북한의 비핵화를 돕기 위해 기술 지원도 제공했으나, 2009년 북한의 6자회담 철수로 에너지 지원을 중단함.
- 對北 에너지 지원은 2011, 2012,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경우, 2011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관련 예산이나 '빌 에머슨 인도적 신탁기금'을 이용해야 함.
- 북한 재난에 대한 의약품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2010년과 2011년 여름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60만 달러와 90만 달러의 의약품을 지원했음.

□ 중국어권

○ 미국의 對北 식량지원 중단은 근시안적 처사(3.31 홍콩 봉황위성TV)

- 「두평」(시사평론가),

- ‘미국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먼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여겨 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함.’
- ‘이로써 핵문제를 둘러싸고 美·北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며 한반도 정세 및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현재 미국의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
- ‘미국이 강경하게 나서면 정세가 더욱 악화되어 6자회담 재개가 어려워지며, 온건정책을 펼치면 북한에 돌아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식량지원은 북한 일반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데 이를 중단함은 핵문제와 연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인데 핵문제와 연계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짐.’
- ‘북한은 굶어죽더라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지난 美·北합의시 ‘북한은 위성 발사를 계속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은 없었으므로 베이징 합의에 따르면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타당하지 않음.’
- ‘오바마 정부가 더 적절한 대응 방식을 찾지 못한 것 같음.’

○ 북한 위성 발사, 4가지 결말 예측(4.1 홍콩 불함위성TV)

- 첫째, 위성 발사 취소 : △기술적 요인, △부적합한 기상 상태, △우방국의 간청 등으로 취소할 가능성 있음. 그러나 이는 북한의 전체적인 핵계획과 상반되고 정치적 대가가 크므로 가능성이 가장 낮음.
- 둘째, 위성 발사 실패 : 韓·美·日은 한숨 돌리게 되고 충돌 가능성도 없어짐. 동북아 정세 완화로 볼 때 좋은 결말임. 그러나 실패 뒤 계속해서 발사 시도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음.
- 셋째, 위성 발사 성공 : 성공적인 궤도 진입으로 주변국 주권도 침범하지 않음. 그러나 1998.8월, 2006.7월 두 차례 위성 발사 실패를 감안하면 이러한 가능성도 판단하기 어려움.
- 넷째, 위성 발사 실패 및 타국 주권 침범 : 美·日은 요격 여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함. 美·日이 요격하면 북한도 반격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각국은 동북아 정세 급변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함.

## □ 일본어권

### ○ 장거리미사일은 미국을 흔들기 위한 '심리전 무기'(4.1 닛케이)

- 북한이 향후 장거리미사일을 양산해 국내 각지의 지하시설에 실전배치 하더라도 실제 미국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
- 북한이 현실에서 사용하기 힘든 ICBM을 개발하는 것은 실험에서 실증된 기술을 응용해 배치가 끝난 중거리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임.
- 또한 기술정보를 과거에 수출한 적이 있는 중동국가 등에 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음.
- 그리고 무엇보다도 對美 '심리전 무기'로 쓸 수 있음.

### ○ 중국 여행사, 북한관광 일시 중단(4.1 닛케이)

- 북한, 중국의 여행사에 대해 4.7~20일 동안 여행객 수용을 중단한다고 통보함.
- 4.12~16일로 예정된 인공위성 발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단동시 여행사, '북한에서 행사가 있어서 여행을 중단한다고 들었다'고 언급함. 그러나 중단기간을 놓고 '20일까지', '22일까지' 등 여행사마다 대답이 엇갈림.
- 일부 여행사, '신의주는 중단기간 중이라도 당일 여행은 가능하다'고 언급함.

## □ 러시아어권

### ○ 한반도문제 관련 학술회의 개최(3.31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스베트라나 수슬리나」(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2012.4.2(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경제발전 속도가 심각하게 둔화됨으로써 북한은 결국 경제 개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5년 내에 대대적으로 경제개혁이 착수될 것이다.'

「알렉산드르 제빈」(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센터 소장),

- '금번 美·北회담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과 미사일실험 유예 합의는 일시적인 성격을 띤다.'
- '합의문의 설정과제 이행 우선순위에 있어서 서로간 시각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중동의 경우처럼 북한에서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드미트리 베르호투로프」(일백 시비르 편집장),

- '가스관 건설과 관련,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
- '한국은 더 이상 러시아산 가스에 관심이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관 건설 및 한국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 '기존 방안 대신 양자 차원의 총체적인 에너지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붙임 1. 美 armscontrolwonk.com 게시 원문 (3.29)

美 armscontrolwonk.com

### "Hostile Intent"

- 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hosted a not-for-attribution Track 2 event at Arundel House. I came away with the impression that Kim Jong Il himself made the decision to launch the satellite to commemorate Kim Il Sung's birthday. North Korea may be between a rock and hard place – there is no way to countermand the order of the late Dear Leader himself, but for some reason they also want to salvage the deal.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North Koreans at my meeting didn't provide any reason to think that North Korea would do anything other than launch that rocket.
- o I started with three substantive points. First, all previous North Korean launches have used Nodong and Scud engines. The United States is very concerned about future flight tests of the Musudan IRBM, as well as a possible road-mobile ICBM.
- o Second, North Korea's right to access space could be satisfied, as it is for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arties to the Outer Space Treaty, by the provision of launch services. Both the ESA and Russia have previously offered to launch North Korean satellites and that a commercial launcher is much less likely to drop the Great Leader's satellite in the drink.
- o Third, sometimes the wise decision is to not exercise a right you might have. South Korea, for example, accepts arbitrary limits on the range of its ballistic missiles, which poses real problems for its own space launch program. I believe that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oth refrain from developing indigenous space launch capabilities until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Peninsula is rather better.

## 붙임 2. 美 CRS 보고서 원문 (3.20)

美 CRS 홈페이지

###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1995-2011>

- o Between 1995 and 2008, the United States provided North Korea with over \$1.3 billion in assistance: just over 50% for food aid and about 40% for energy assistance.

美 CRS 홈페이지

o Since early 2009,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virtually no aid to North Korea. In 2008 and 2009, the United States shipped about a third of a planned 500,000 MT food aid pledge before disagreement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led to the program's cessation.

Food Aid (per FY)		KEDO Assistance (per calendar yr; \$ million)	6-Party Talks-Related Assistance (per FY; \$ million)		Medical Supplies & Other  (per FY; \$million)	Total  (\$ million)
Metric Tons	Commodity Value  (\$ million)		Fuel Oil	Nuclear Disablement		
2,258,164	708.15	403.70	146.00	45.00	10.90	1,313.75

o Providing food to North Korea would pose a number of dilemmas for the United States. Pyongyang has resisted reforms that would allow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food and help pay for food imports.

o In deciding how to respond to North Korea's current request,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Congress must make a number of decisions, including whether to resume food aid; if so, whether to condition food aid on progress in security and/or human rights matters; whether to link assistance to Pyongyang easing its restrictions on monitoring; whether to Decide on whether and how to harmonize policy with Seoul; whether to pressure China to monitor its own food aid; and whether to Select the mix between the WFP and NGO Channels. In 2011, many Members of Congress tried to prohibit food aid to North Korea.

o Between 1995 and 2009, the United States provided around \$600 million in energy assistance to North Korea. The aid was given over two time periods—1995-2003 and 2007-2009—in exchange for North Korea freezing its plutonium-based nuclear facilities. In 2008 and 2009, North Korea also took steps to disable these facilities. However, no additional energy assistance has been provided since 2009, when Pyongyang withdrew from the Six-Party Talks — involving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o In 2007 and 2008, the United States also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 to help in North Korea's nuclear disablement process.

o No energy assistance for North Korea was proposed in the Administration's FY2011, FY2012, or FY2013 budget requests.

o If the Obama Administration resumes food aid to North Korea, two options would be to use FY2011 food aid that has not been committed or to tap the Bill Emerson Humanitarian Trust.

美 CRS 홈페이지

- o From time to time, the United States has responded to humanitarian disasters in North Korea by sending medicines and other emergency equipment. For instance, after floods struck parts of North Korea in the summer of 2010, the Obama Administration sent North Korea about \$600,000 worth of pharmaceuticals and other assistance. The aid was channelled through two U.S. NGOs: Samaritan's Purse and Mercy Corps. The aforementioned 2011 \$900,000 flood relief package was distributed by Samaritan's Purse, which along with other NGOs paid for the costs of transporting the assistance.

**붙임 3.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3.31)**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 杜平：美国取消对朝鲜粮食援助缺乏长远考虑”

- o 朝鲜坚持发射卫星，美国方面威胁，甚至是已经决定了，如果它真的坚持发射的话，那就是要冻止对朝鲜的粮食援助，也就是取消当时的承诺，因为它认为朝鲜首先违背了承诺。
- o 这个事情到现在为止，我觉得各方都在做一些反映的措施，我觉得没有什么太多的指责，问题就在这个，也就是说，当美朝之间的关系，特别是关于核问题稍稍有一点共识的时候，突然一下又降到冰点，甚至是回到原点了，就是给朝鲜半岛将来的局势，特别是朝鲜核问题的六方会谈到底什么时候能够恢复，又投下了一个非常重的阴影。
- o 一方面就是它对朝鲜半岛的局势影响力不如以前了，特别是对朝鲜的影响力不如以前，或者很难做到随心所欲，现在又不能应，应的话就是说，可能会使得局势更加恶化，然后使得自己的目标，或者所有国际社会其他国家的重要目标，也就是说，恢复六方会谈达不到，如果太软的话，又觉得被朝鲜给耍了，所以在两难之间，实际上奥巴马政府确实很难拿捏。
- o 现在就是我个人认为，尽管朝鲜做出来要发射卫星的决定，但是美国方面在取消粮食援助方面，我觉得这个反应过快了一点，而且不够冷静。
- o 但是提供粮食援助的一个重要的目的，就是还是要针对普通的朝鲜老百姓，因为朝鲜现在确实是出现粮荒，大多数普通民众的粮食特别的紧缺，如果在这个时候取消粮食援助的话，实际上就把核问题跟粮食援助挂钩了，本来是一个人道主义的东西，现在跟核问题挂钩起来的话，会使得这个问题可能比较复杂，朝鲜可能也不会买账，也就是说，宁愿饿也不愿意在美国的压力之下屈服。
- o 所以美国作出这种反应，实际上美国国内的一些学者也有一些反思，为什么反思在哪个地方，一个就是说当时双方在北京达成协议的时候，文字里面没有提到，朝鲜不能够继续的发射卫星，这个是没有的。当时就是说，朝鲜现在作出这种决定，按照过去在北京达成协议的方式，在那个框架之下对朝鲜进行反击的话，好像是有一点不太欠妥，另外一方面我是觉得，可能奥巴马政府确实找不到更好的办法。

## 붙임 4.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4.1)

###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 “媒体分析：朝鲜发射卫星四种结局推测”

- 朝鲜发射卫星计划正紧锣密鼓地进行，但事态发展往往千变万化。有媒体分析朝鲜射星计划的四种可能：
  1. 朝鲜中止“卫星”发射：宣布理由可以是因自身“技术原因”，或称天气不适；也可宣布应“友好国家请求”等等。但这与朝鲜整体核计划相悖，而且政治代价大，这种选择可能性最小。
  2. 朝鲜“卫星”发射失败：可使美、日、韩长长舒一口气，冲突未起即已消弭。对于东亚紧张局势缓和而言，无疑是一个不错的结局。但对朝鲜来说未必会激起其进行更多次试射的巨大冲动。
  3. 朝鲜“卫星”发射顺利：进入外太空，未侵犯国际规定的周边主权，这种可能应该是值得庆幸。至少避免当下的正面相撞，维持一时的偏安局面。但考虑到朝鲜在1998年8月和2006年7月两次发射均告失败，故这种可能性有多大很难判定。
  4. 朝鲜试射不成功，侵犯他国主权：美、日面临拦截与否的重大抉择。而对朝鲜来说，在美日对其导弹进行拦截时，它是否进行攻击，也是一场生死考验。这种情况发生后，东亚各国都应有东亚局势发生剧变的多种准备。

## 붙임 5.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 원문 (4.1)

###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 “北朝鮮の長距離ミサイル 米揺さぶる「心理戦兵器」”

- 北朝鮮が4月12～16日に「人工衛星打ち上げ」の名目で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実験をしようとしている。複数の軍事筋は「過去の失敗を踏まえ、今回の実験は成功してもおかしくない」と指摘する。ただ実験を経て今後配備に進んだとしても、実際に米国を攻撃する「実戦用兵器」というより、米国民を揺さぶる「心理戦兵器」という性格が色濃い。
- 今回北朝鮮が発射するのは、過去に実験したことがある「テポドン2」の改良型とみられ、推進部分の増強などにより射程は1万キロメートル超と米本土にも届く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とな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
- 軌道がそれて日本の領域内に落ちる事態に備え日本政府が自衛隊に「破壊措置命令」を出すなど、日米韓は「準有事」の体制に入っている。

##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 もっとも北朝鮮が今後長距離弾道ミサイルを量産し、国内各地の地下サイロに実戦配備したとしても、実際に米国にとって深刻な脅威になるとは限らない。
- 第1の理由は戦略理論的に導き出される。北朝鮮がICBMを開発するのは米国へのけん制の意味合いが強い。米本土を直接攻撃できる手段を持つことで米国への抑止力とするとともに、朝鮮半島を統一する際に米軍の介入を排除する狙いとされる。
- 第2に、情勢緊迫時に発射の兆候をつかんだ米軍がICBM基地を先制破壊する可能性もある。攻撃は有人・無人機や巡航ミサイルによる空爆となる。米軍にとってこれは、中国との将来の軍事衝突に備えて開発中の「空・海戦闘(エア・シー・バトル)」構想の実験の機会となる。
- 第3に、発射しても日米のミサイル防衛(MD)システムや米軍が開発中の航空機発射式「エアボーン・レーザー」で撃墜される可能性もある。
- 北朝鮮が現実には極めて使いにくい兵器であるICBMを開発する理由は他にもある。まず、実験で実証した技術を応用して配備済み中距離ミサイルの弾頭重量を増やすなどの利点がある。
- 技術情報を過去にミサイルを輸出した中東などの国に売り、利益を上げることも可能だ。そして何よりも、対米「心理戦兵器」として使えるということがある。北朝鮮の国防委員会は2月に発表した声明で「大洋を越えた遠距離に米国本土があるので安全だと思うなら、それより大きな誤算はない」と強調した。

## 붙임 6.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 원문 (41)

##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 “中国旅行会社、北朝鮮向け停止”

- 香港の中国人権民主化運動情報センターは31日、北朝鮮向け旅行を扱う中国の旅行会社が4月7～20日の期間中、北朝鮮への旅行を停止するとの通知を出していたと伝えた。旅行停止は北朝鮮が予告済み、4月12～16日とされる「人工衛星」の打ち上げに関係しているとみられる。
- 北朝鮮と国境を挟んだ丹東市(遼寧省)の複数の旅行会社は「北朝鮮で行事があるため旅行を停止することにした」という。停止期間を巡っては「20日まで」「22日まで」と社によって対応が分かれた。一部の社は丹東市対岸の北朝鮮の都市、新義州ならば「停止期間中も日帰り旅行はできる」としている。

## 붙임 7. 러시아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보도 원문 (331)

###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신문 홈페이지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накануне перемен”

-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ынуждена будет пойти по пут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еформ.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для этого - серьезное отставание КНДР в темпах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корее всего серьезны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начнутся в средне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 через два-пять лет"
- Он, в частност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оизошло коренное изменение ситуации, что требует полного пересмотра всей концепции проекта".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а, Южная Корея уже 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российском газе. "Просто так построить трубу и предложить корейцам газ мы уже не можем. Им это теперь не нужно", - подчеркнул он, предложив взамен выработать на двустороннем уровне более общую програм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сфере энергетики.
- Александр Жебин остановился на исследовании содержания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февраля этого года. Специалист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веденный Пхеньяном мораторий на пуски рак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и приостановку ура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не является бессрочным. Кроме того, даже из текста двусторонних соглашений между США и КНДР очевидно, что стороны по-разному видят очередность реш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детальн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 периодически возникающие особенно в западных экспертных кругах и СМИ предположения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ости начала в КНДР "цветной революции". По мнению кореевед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е возможно развитие сценария по арабскому варианту. Вместе с тем, одинаково маловероятным видится 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ямого вторжения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о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美·北, 로켓 발사로 격돌로 치닫고 있다. (4.2 US뉴스 美 시사주간지)
  - 미국과 북한은 북한측의 로켓 발사 준비로 인해 외교적 충돌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중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음.
  - 「빅터 차」(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
    -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강화를 시도하고,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단지 민간 용도일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
    -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된다면 이는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 '북한은 다음 단계로 장거리 운송 메커니즘을 보유했기 때문에 로켓에 핵탄두 장착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라고 전망
- 北 로켓 발사시 미국이 선택할 옵션은 제한적이다.(4.3 AP)
  -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시 미국과 동맹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임.
  - UN 안보리 제재 강화는 북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를 반대해 온 중국의 지지 없이는 힘들 것임.
  - 대북 강경 대응이 낱을 결과 또한 불확실하며, 남·북한 경색 국면으로 인해 2009년 보다 한반도 긴장 상태가 고조될 위험 또한 더 큰 상태임.
  -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3단 은하 3호 로켓이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 일부가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것임.

- 미국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은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 금융·은행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음.
- 「존 박」(하버드대 벨퍼 센터 동북아 전문가), '북한에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

## □ 중국어권

### ○ 美 아시아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은 中·러 겨냥한 것

(4.2 신화사)

-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측의 아시아·중동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계획에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밝힘.
- 러시아는 중국과 공동 대응 및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兩者간 안보회의를 5월에 개최 예정임.
- 중국은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각국은 전략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고 정치·외교 채널로 보편적 안보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힘.
- 동맹국인 韓·日 언론도 이와 같은 미국의 "好意"를 반기는 것 같지는 않음.
- 일본의 한 학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이 韓·日 안보의 보호벽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전쟁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함.
- 「한국일보」는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자 中·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미국의 이와 같은 행보는 오히려 한국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도함.

※ 3.28일자 한국일보에 '아시아의 MD체제 구축은 미일 동맹과 중러 협력이란 갈등구도 속에 놓여 있어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게 사실이다'라고 보도



2012.4.3(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각국의 반대에도 미국이 아시아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고집하는 것은 중·러를 겨냥한 것임.
- 「진산룡」(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이전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었지만 현재 미국은 북한·이란의 긴장 정세를 이용해 이러한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 ‘경제 불황으로 향후 10년 동안 미국이 국방 예산을 5,000억 달러를 감소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동맹국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 「가오주구이」교수(중공중앙당교궈중국 공산당 고위간부 양성 국립 단기교육기관)
  - ‘미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 한다. 아시아를 장악하려는 대상이 바로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목표 대상이다.’
  - ‘현재 목표 대상은 북한·이란이지만, 더 정확한 목표 대상은 바로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대국이다.’

## □ 러시아어권

### ○ ‘북한의 위성 발사’ 관련 라디오 대담(3.31 예코 모스크바)

- 「게오르기 쿠나제」(과학아카데미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은 과거 서울올림픽을 앞둔 한국에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
  - ‘핵안보회의를 앞둔 시점에 위성발사 발표를 한 것은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 ‘현재 시점에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바실리 갈로빈」(이타르타스 통신사 일본주재 통신원),
  - ‘확언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 같지는 않으며, 정말 위성발사를 하려는 것 같다.’

2012.4.3(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최대한 안정적인 궤도를 선택했고, 과거와는 다른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

○ 북한 엘리트 계층의 한국산 제품 선호, 주체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3.29 에코 모스크바 블로그)

- 「바실리 갈로빈」(이타르타스 통신사 일본주재 통신원),
  - '최근 북한내 한국산 밀수품이 성행하고 있으며, 인기품목은 한 통(250g)에 16불에 달하는 분유와 치약, 비누 등이 있다.'
  - '제품 수요가 꾸준해 중국내에서는 북한을 겨냥한 한국산 모조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김일성 100회 생일맞이 관련, 중국으로의 해산물 수출을 금지시켰지만 여전히 중국내 거래가 성행하는 등 사실상 국경통제가 힘들어졌다.'
  - '밀수로 이윤을 벌어들이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됐고,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사업에 깊이 연관돼 있다.'
  - '북한 엘리트계층의 해외제품 선호경향은 주체사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도

□ 일본어권

○ 日 우주항공개발기구, 北 초청에 불참의사 표명(4.3 지지통신)

- 「후지무라 관방장관」, '북한의 발사 실험에 일본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일본 우주항공개발기구(JAXA)에도 그렇게 전했다.'고 언급
- JAXA도 4.3일 오전 북한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으며, 조총련 관계자가 4.2일 초청문서를 직접 가지고 왔다고 함.

○ 말뿐인 북한 제재, 이미 1.3억엔 북한으로 유출(4.3 산케이)

- 4.15일 김일성생일 100주년에 맞춰 조총련이 300명을 방북시키고 총 11억엔을 현금하도록 조직원에 지시함.

2012.4.3(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이에 따른 내부 반발이 강하며, 동원 및 모금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미 적어도 약 1억 3천만엔이 북한으로 반출됨.

조총련은 당초 400명을 방북시킬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적어 300명으로 하향조정했지만 실제로 방북하는 사람은 100명에 불과함. 선발대로 수십 명이 평양에 들어갔지만 아직 목표한 인원을 채우지 못한 듯함.

북한은 4.5일~25일 동안 평양시내 4곳에서 총 125개의 가판대 출점을 요구하고 있음.

준비 비용을 모두 자비로 해야 하며, 판매 할당량이 부과되고, 현금도 요구받기 때문에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금과 관련해 당초 1억엔의 할당량을 내걸었지만, 그 후 산하 상공회에서만 10억엔을 모으도록 지시함. 그러나, 모금력이 약해진 상공회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개인이 현금 10만엔 이상을 가지고 나갈 경우 신고해야 하나, 신고만 하면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용목적도 묻지 않음.

그러나 수천만~수억엔 단위가 되면 금액이 커서 조사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반출하는 방법을 쓰거나, 중국에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음.

## 붙임 1. US뉴스 보도 원문 (4.2)

### US뉴스 홈페이지

"U.S., North Korea Headed for Clash Over Rocket Launch"

- o Pyongyang and Washington appear headed for a high-stakes diplomatic clash as the North Korea prepares to launch a new rocket—and China stands in the middle.
- o A White House spokesman declined comment Monday on new alleged images of the launch site, which showed fuel tanks and other equipment.
- o "The U.S. will respond by trying to get more resolutions at the U.N., and by pushing the Chinese to punish the North Koreans," says Victor Cha, who directed Asian affairs fo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under George W. Bush.
- o Two close U.S. allies in the region, South Korea and Japan, "are quite concerned" about the planned launched, Cha says. Neither nation believes it is solely for civilian purposes, he adds.
- o If the North's long-range rocket works, it likely would possess a weapon capable of hitting two U.S. states: Hawaii and Alaska, Cha says.
- o "The next step for North Korea," he says, would be to begin exploring ways to fit such a rocket with a nuclear warhead "because they would have a long-range delivery mechanism."

## 붙임 2. Associated Press 보도 원문 (4.3)

### Associated Press

"US faces limited options on North Korea"

- o Despite tough talk from President Barack Obama,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ave limited options if North Korea goes ahead with its planned long-range rocket launch in mid-April.
- o Washington is likely to take the matt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analysts say, and could tighten its already tough sanctions. Such efforts would struggle without support from China, which can be expected to resist any moves that might threaten the stability of its neighbor.

### Associated Press

- o There also is deep uncertainty about where turning the screw further on North Korea would lead.
- o The stakes are higher than they were in 2009 as the potential for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o escalate into conflict are greater now than they were then.
- o Crucially for Washington, if the three-stage Unha-3 rocket works, it could demonstrate that North Korea has parts of the United States in its missile range.
- o The launch plans, disclosed a little more than two weeks after the accord was announced, undermined what little faith Washington and Seoul had in North Korea's sincerity about talks on its nuclear program. It also all but squashed the fleeting prospect that the nation would change after the December death of longtime ruler Kim Jong Il.
- o The U.S. and allies including Japan and South Korea could seek to clamp down further on the North's illicit weapons trade and impose additional financial and banking restrictions that have hurt North Korea in the past.
- o "The U.S. is highly likely to unveil another round of sanctions to send a clear political message to North Korea," said John Park, a Northeast Asia specialist at Harvard University's Belfer Center.

## 붙임 3. 중국 신화사 보도 원문 (4.2)

### 중국 신화사 홈페이지

#### “建亞洲反導系統 美國“劍指”伊朝 意在中俄”

- o 新華網北京4月2日電 (記者 雷東瑞) 美國國防部長助理梅德林·克里頓上週四透露，為避免未來美國及盟友遭到伊朗和朝鮮導彈襲擊，美國計劃在亞洲和中東建立一套類似於歐洲的彈道導彈防禦系統。
- o 美國此舉立刻遭到俄羅斯的反對。俄羅斯電視台27日說，俄外長拉夫羅夫已邀請北京與俄共同抵制美國此舉，莫斯科還計劃在5月舉辦以旨在反對美國反導計劃的安全會議。俄《國防》雜誌主編科羅特琴科表示，為應對美國新反導計劃，俄羅斯需要在亞洲部署能克制美國反導系統的導彈。

중국 신화사 홈페이지

- 同日, 中國外交部發言人洪磊在例行記者會上說：“我們注意到有關報道。中方始終認為, 各國應從維護全球戰略穩定和增進各國戰略互信出發, 慎重處理反導問題, 通過政治和外交途徑實現普遍安全。”
- 作為美國盟友, 日韓輿論上對美國“好意”也沒有領情。日本學者仲村澄世說, 建立反導系統未必能讓日韓躲進安全堡壘, 反而會激發亞洲軍備競賽, 甚至可能把日本引入戰爭, 是愚蠢行爲。《韓國日報》認為, 韓國既要顧及韓美同盟, 又要顧及與中俄合作關係, 美國等于給韓國出難題。
- 亞洲反導系統既然遭到各方反對, 美國爲什麼還要執意如此呢? “美國在亞洲搞反導目的, 實際上要對付中俄。以前沒有借口, 不敢公然這麼做。現在趁着朝鮮伊朗緊張局勢, 把他的行爲“合法化”。”中國人民大學國際關係學院副院長金燦榮對新華網記者說。
- 中共中央黨校國際戰略研究所高祖貴教授在接受新華網記者採訪時說：“美國要的是掌控亞洲, 誰對他掌控亞洲構成挑戰, 反導系統的目標就會對准誰。美國現在目標是朝鮮伊朗, 但不是主要部分; 更重要和不便說的是把目標對准中、俄、印、巴等亞洲大國。”金燦榮說：“隨着美國經濟的下滑, 美軍費已經捉襟見肘, 今后10年還將減少5000億美元, 在這種情況下, 美國需要盟友掏更多的錢帮他分担責任。”

**붙임 4. 러시아 에코 모스크바 보도 원문 (3/31)**

에코 모스크바 라디오 홈페이지

“Г. КУНАДЗЕ...”

- В принципе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довольно стандартная реакция северный корейцев на большое событие, которое только что произошло в южной Корее.
- Ну конечно, обидно ребятам. Вот они, значит, и запустили эти свои ракеты. Кстати говоря, вот знаете, я помню, было когда... Допустим,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в Сеуле были, северные корейцы устраивали прямые провокации, просто вот чтобы напомнить о том, что они тоже есть. А сами эти ракеты... Ну, стандартные ракеты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противокорабельные, н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에코 모스크바 라디오 홈페이지

- Ну, вы знаете, во-первых, я не вижу прямой связи между пусками ракет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и подготовкой запуска в общем, как обычно, неизвестно чего. Я всегда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говорю, что если выйдут на околоземную орбиту, значит, запустят спутник. Если не долетит, значит, была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 Дело в том, что на сей раз похоже, что они испытывают не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То есть, эт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 это один черт, запускает она спутник, или она запускает боеголовку, зависит от траектории полета. Но на сей раз, они себя пытаются вести более респектабельно, чем предыдущие разы, когда их ракета демонстративно летела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Японии, над головами основной территории Японии, пугая японское население. Сей час они выбрали максимально безопасный коридор на юг. Там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населенных островов. И южная Корея, когда запускала свою ракету, она тоже выбирала этот же коридор. То есть, это резко на юг, в сторону Филиппин. Поэтому, похоже, что о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хотят запустить спутник. Но надо посмотреть, что из этого получится.

**붙임 5. 러시아 에코 모스크바 블로그 원문 (3.29)**

에코 모스크바 라디오 블로그

“Возлюбленная вождя,...и другие слухи из КНДР”

- И в Пхеньяне нечто похожее- например, по поступающей информации, в моду среди тамошней элиты сей час вошли контрабандные товары из враждебной, ненавистной Южной Кореи, они считаются самыми престижными. Особенно популярно сухое молоко, которое покупают для детей. Банка 250 граммов на черном рынке идет примерно за 16 долларов. Это при том, что обычный житель Пхеньяна (даже по завышенному курсу) получает в месяц долларов тридцать.
- Через Китай контрабандой таскают и друг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товары- зубную пасту, мыло, стиральный порошок.

### 에코 모스크바 라디오 블로그

- И тоже за бешеные, немислимые для обычн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ца деньги. Спрос настолько стабилен, что сообразительные китайцы, как сообщается, наладили выпуск поддель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для КНДР- они там официально запрещены, но власти, похоже, слегка закрывают глаза на черный рынок. Примерно так же, как в позднем СССР вяловато боролись с фарцовщиками, почти ставшими частью системы.
- Чуть больше рвения власти проявляют на фронте искоренения вредного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при новом правителе Ким Чен Ыне, как сообщается, усилена спецгруппа для пресечения контрабандного завоза в страну дисков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фильмами и телесериалами.
- Но, похоже, задача эта безнадежная. Пхеньянская номенклатура желает не только получше питаться- ей охота и запрещенное кино посмотреть. В соседнем Кита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телепрограммы записывают и копируют на диски.

## 붙임 6.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43)

### 지지통신 홈페이지

“北朝鮮、JAXAに招待状=政府は拒否-「衛星」打ち上げ”

- 藤村修官房長官は3日午前の記者会見で、北朝鮮から日本の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JAXA)に対し、「人工衛星」と称する長距離弾道ミサイル打ち上げ現場視察の招待状が届い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 藤村氏は「発射実験にわが国関係者が出席することは当然適当でなく、JAXAに対し、そのことを伝えている」と述べ、応じない考えを示した。
- JAXAなどによると、朝鮮宇宙空間技術委員会による招待で、文書は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の関係者が2日に持参したという。「衛星」発射が平和目的であることをアピールする狙いがあるとみられる。



## 붙임 7.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43)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北制裁骨抜き、すでに1.3億円流出 総連、11億円献金を指示”

- 北朝鮮の4月15日の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生誕100年に合わせ、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が300人を訪朝させ、計11億円を献金するよう組織員に指示していたことが2日、分かった。内部で反発が強く、動員、集金ともに難航しているが、すでに少なくとも約1億3000万円が北朝鮮に持ち出されていたことも判明。国際社会が経済制裁を科しながらも、ミサイル発射を強行しようとする金正恩(ジョンウン)政権への資金流出を止められない現実がある。
- 政府の調べによると、金正日(ジョンイル)総書記が死去した昨年12月から今年2月までに、日本から北朝鮮への現金持ち出しについて112件、計約1億3千万円の申告があった。政府関係者は「届け出ないケースがあり、現実にはその数倍になる」とみている。
- 朝鮮総連関係者や公安当局によると、「強盛国家」を目指す北朝鮮にとって最重要の金主席生誕100年に際し、朝鮮総連は400人を訪朝させる計画を立てていた。しかし応募者が少なく300人に下方修正。それでも、9~17日に訪朝するのが確実なのは、朝鮮総連中央・地方本部の幹部ら50人と親北団体所属の日本人ら50人にすぎない。先遣の数十人が平壤入りしているが、まだ目標人数には達していないようだ。
- 動員を鈍らせているのは、2月16日の金総書記生誕70年の際の苦い経験だ。北朝鮮本国が強く求めたのが「屋台村」への出店だった。
- 結局、金総書記生誕70年にも2月10~26日にチヂミ(韓国風お好み焼き)などの屋台を出したが、関係者は「甘い物に飢えているためか、たい焼きのほか、酷寒の中、アイスクリームが飛ぶように売れた」と話す。しかし「準備費用は全て持ち出しで、売り上げノルマが課される上に献金も求められた」(関係者)という。金主席生誕100年には、今月5~25日に平壤市内4カ所で計125店と、北朝鮮側はさらに大規模な出店を求めている。
- 献金については当初1億円のノルマを掲げたが、その後、傘下の商工会だけで10億円を集めるよう指示されたという。関係者は「集金力の弱まった商工会には負担が大きすぎる」と話す。それでも、すでに持ち出しが確認された額と合わせると、数億円以上のカネが持ち出されるのは確実だ。
- 個人の現金持ち出しについても10万円を超える場合、申告が必要だが、「申告さえすれば上限額はなく、使用目的も問わない」(税関)。ただ、1人数千万~億円単位になれば額が大きすぎて調査される危険があるため、分散して持ち出す方法が取られたり、中国へ送る形を装う手段などが検討されているという。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北 장거리로켓 기술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

(4.3 美 MSNBC ⇄ Microsoft社와 NBC社에서 공동운영하는 위성 / 인터넷 뉴스)

- 「데이비드 라이트」와 「시어도어 포스틀」(美 핵과학자회보[BAS] 로켓 분석 담당 물리학자),
  - '북한의 첫 번째 로켓은 노동 엔진을 사용했으며, 두 번째는 옛 소련의 해상발사 R-27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세 번째 로켓은 이란의 사피르 2호의 상단 로켓과 유사하며, 이는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은하 발사체는 북한의 발사 기술의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며, 탄도미사일로 전환해 1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할 경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언급

#### ○ 북한의 새 미사일 퍼레이드용 모형일 것이다. (4.3 CNN)

- 4.3일자 조선일보 기사 <北,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김일성 생일때 선보일 가능성>에 대해 美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들은 퍼레이드용 모형일 것이라는 견해 제시
  - \* 조선일보는 북한이 광명성 3호보다 규모가 큰 길이 40m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오는 4.15일 또는 25일 실시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여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
- 「찰스 빅」(GlobalSecurity.org 소속 무기 전문가), '실제 발사할 수 없는 지상 시험 플랫폼일 가능성이 크지만 동창리 발사장의 탑이 대포동 2호 보다 길기 때문에 언젠가 여기서 더 긴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

- 「데이비드 라이트」(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소속 무기 전문가), '북한은 美 위성이 포착하도록 모형을 전시하기로 유명하며 과거에 진짜 미사일을 만들기 전에 전시용 미사일 동체를 만들기도 했다.'
- 「George Little」(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평가하는 北 미사일 최대 사정거리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으며 '미국은 모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만 언급

## □ 중국어권

### ○ 北, 4개의 리스크 무릅쓰고 위성 발사(3.29 경제관찰망 ⇄ 경제주간지)

- 「청샤오허」(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
  - '북한이 주변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위성 발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김정일 유훈 관철, △김정은 위신 강화, △핵안보정상회의에 쏠린 관심 전환, △한국과의 위성 발사 경쟁 우위 확보로 한국에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이다.'
  - '위성을 발사시 그에 따른 리스크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가장 먼저 △中·北관계 타격, △2.29 합의 위반으로 美·北관계 악화, △동북아 군비 경쟁 촉발, △북한 성토 관련 UN결의안 통과 및 제재 가능성 등이 있다.'
  - '2009.4월, 북한의 제2차 위성발사 당시 중국은 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를 언급했고 UN 결의안과 對北제재를 반대했었으나, 이번에는 중국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 '북한 위성 발사 발표 당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바로 駐中북한 대사를 만났는데 中·北관계에 있어 매우 드문 일이다.'
  - '중국측의 입장 표명을 통해 △관심과 우려 표명, △중국은 국제사회의 반응 주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추구, △관련 당사국은 냉정, 침착한 태도로 사태의 급변 억제 등을 표명했는데, 이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다.'

- '올해는 중국 지도자 교체가 있기에, 중국은 국내외 안정적 국면이 한반도 문제로 영향받지 않기를 바란다.'
- '북한의 위성 발사는 확실히 중국의 바람과 어긋나며, 南·北 문제에서 중국은 한 쪽에만 치우치는 정책과 입장으로 비난받았는데 이제는 북한의 무모한 계획을 보고만 있지 않다.'
- '북한의 위성 발사로 예전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처럼 韓·中관계가 다시 한 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넣어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다.'
- '북한을 포함한 각국은 평화적인 우주 개발 권리가 있지만, 南·北 관계 경색과 2.29합의가 얼마 지나지 않은 후, 북한이 이런 모험과 같은 일을 결정했다.'
- '이에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은 이 지역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
- '中·北 이익이 충돌하는 시점에서 중국은 필시 주도적으로 나서서 향후 中·北관계의 발전 방향을 정확히 해야 한다.'
- '북한이 계속해서 위성 발사 계획을 고집한다면 중국의 우려와 관심은 구체적인 대북 제재로 바뀔 수 있다.'
- '북한이 위성 발사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라고 언급

## □ 러시아어권

### ○ 북한의 위성발사는 6자회담 재개를 저해한다.(4.3 인테르팍스)

- 「세르게이 라프코프」(외무부 차관),

- '전략안보 협의차 일본을 방문해 미국의 아시아 MD 구상을 비롯한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 '사실상 미국은 이전부터 유럽 외에 아시아, 중동 지역에 MD를 구축하는 계획을 꾸준히 밝혀왔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몇 년 후에는 군사·정치 정세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 '북한의 위성발사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주요 과제인 6자회담 재개를 저해한다.'고 언급

○ 북한 대응 차원 美 MD구상은 지정학적 변화 가져올 것이다.

(4.2 글로스 러시아)

- 북한 지도부는 사실상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죽어나가는 주민들에게 관심이 없음.
- 이제까지 지도부를 위협하는 민중봉기와 같은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음.
-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대응한다는 미국의 MD 구상 주장이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
- 향후 미국의 MD구상과 관련해 중국이라는 제 3의 국가 역할이 대두될 것임.
- 자국에 위협적인 미국의 MD가 아시아에 출현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은 불가피하게 상황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까지 지정학적으로 볼 수 없었던 상황이 전개될 것임.

□ 일본어권

○ 日 방위성 간부, 정보위성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4.3 지지통신)

- '남측으로의 발사는 지구의 자전방향으로 발사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 만일 성공한다면 정보수집위성 발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기술력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o 김정일이 남긴 '로켓발사' 계획은 김정은에게 득이 될 것인가?

(4.4 넷케이 비즈니스)

- 인공위성 발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북한의 발표대로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본격적인 미사일협의를 재개하기 위해서임.
- 이번에 발사하는 로켓은 대포동2호의 파생형인 3단식 로켓일 것임.
-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군사용 미사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 북한이 로켓을 굳이 남쪽으로 발사하는 것은 미국본토를 겨냥한 ICBM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임. 예정궤도를 발사지점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꺾으면 미국 동해안을 비상하는 궤도와 가까워짐. 즉 미국 공격을 시뮬레이션 하는 의도가 있음.
- 북한이 미국과 미사일발사 동결을 약속했음에도 발사를 단행하는 이유는 '미사일과 로켓은 다르다.'는 주장을 미국과 여러 나라에 인식시키기 위해서임.
- 북한이 미사일과 로켓을 구분하는 배경에는 장래에 미국과의 미사일 협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음.
- 발사가 실패하면 축하하는 커녕 '김정은 체제의 앞날에 암운이 감돌았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나, 그럼에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임.
-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발사할 가능성이 높음. 로켓발사와 인공위성발사가 실패로 끝나면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생각지도 못한 부채를 남기게 되는 것임.

## 붙임 1. 美 MSNBC 보도 원문 (4.3)

美 MSNBC 홈페이지

"A look at North Korea's rocket technology"

- o Unha-2 is about 100 feet (30 m) tall and weighs 80 to 85 metric tons, according to physicists David Wright and Theodore Postol, who published an analysis of the rocket in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 few months after the failed launch. The rocket's first stage apparently uses Nodong engines. The second stage appears identical to the old sea-launched Soviet R-27 ballistic missile, Wright and Postol wrote, while the third is very similar to the upper stage of Iran's Safir-2 launcher, strongly suggesting that North Korea and Iran have cooperated on their missile programs.
- o "In particular, our analysis shows that the Unha launcher represents a significant advance over North Korea's previous launchers and would have the capability to reach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ith a payload of 1 ton or more if North Korea modified it for use as a ballistic missile," Wright and Postol wrote.
- o Not much is known for sure about the Unha-3, but it's likely to be broadly similar to the Unha-2. Experts will have a better idea when, and if, it actually lifts off the pad next month.

## 붙임 2. 美 CNN 보도 원문 (4.3)

CNN 홈페이지

"New North Korean missile or parade float?"

- o North Korea is building a long-range missile to launch later this month, according to South Korea's Chosun Ilbo newspaper, but American officials and experts who spoke to Security Clearance questioned whether it is anything more than a parade mock-up.
- o The report cites American and South Korean officials who say the missile is likely to be unveiled at the April 15 parade to hon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Il-sung, who founded communist North Korea.

CNN 홈페이지

- o The 40-meter missile supposedly has a bigger booster and could give it the capability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report. It is longer than the expected 32-meter rocket the regime is expected to use for its satellite launch between April 12 and 16.
- o A senior U.S. official told CNN's Elise Labott that the missile is believed to be a modified Taepodong-2, but it could just be a mock-up.
- o A Pentagon spokesman refused to discuss the U.S. assessment of the longest range of North Korean missiles. The United States is "monitoring all of this very closely," spokesman George Little said.
- o Weapons expert Charles Vick of GlobalSecurity.org told CNN's Larry Shaughnessy that he believes this is likely a ground test platform and not capable of actually flying. But Vick noted the tower assembled at the new launch site is taller than the Teapodong-2 rocket, so one day it may be able to launch a taller rocket.
- o Another weapons analyst said North Korea is known putting mock-ups out for "the U.S. satellites to see." In the past, the regime has built a missile body to display before the actual missile has been built, according to David Wright of 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 붙임 3. 중국 경제관찰망 보도 원문 (3.29)

중국 경제관찰망 홈페이지

“朝鲜发射卫星要冒四重风险”

- o 显然，朝鲜第三次卫星发射计划引发国际社会的高度关注，六方会谈中的五大国都对朝鲜这一计划表示反对。然而朝鲜敢“冒天下之大不韪”，其背后考量是什么？
- o 第一、不折不扣地实现金正日的“遗训”。众所周知，朝鲜第三代领导核心金正恩治国理政的权威主要来源于其父金正日的“传承”，因此金正恩主政后，为树立和巩固自己的权威和权力基础，他走的是按父亲的“遗训”办事的道路。第二、进一步提高金正恩的威信。。从他过去差不多一百天的执政实践看，金正恩主要在四个方面强化自己的威信。第三、转移核峰会的注意力。即将在3月26日闪亮登场的首尔核峰会将成为举世瞩目的焦点。届时，将有五十八位国家元首和国际机构代表与会。有鉴于此，在核峰会前搞一出卫星发射的大戏，似乎可以把峰会的气



## 중국 경제관찰망 홈페이지

- 氛搅乱，并把世界的注意力从首尔转移到平壤。第四、羞辱韩国。如果第三次发射真的成功了，那朝鲜将在至关重要的、关乎国家荣誉与尊严的卫星发射竞赛中拔得头筹，从而以行动再次羞辱韩国。
- 当然，朝鲜“一石多鸟”的如意盘算掩盖不了卫星发射所带来的风险和不利后果。首当其冲的是中朝关系。2009年4月朝鲜第二次发射卫星后，尽管一些国家对朝鲜的职责和非难甚嚣尘上，中国却持迥然不同的态度，中方认为：火箭与导弹技术既相通，也有区别；发射卫星与试射导弹和核试验性质不同，也涉及各国和平利用外空的权利；中方不赞成安理会就此次朝鲜发射问题通过决议，更不赞成对朝鲜实施新的制裁。但中国对朝鲜第三次卫星发射计划的态度发生重大变化，表现在：（1）动作快，朝鲜宣布消息的当天，中国外交部副部长就约见朝鲜驻华大使，这在中朝关系史上比较罕见；（2）态度消极，传达了四点信息：第一、中国对发射卫星事表示关切和忧虑，即中国反对朝鲜发射卫星；中方注意到国际社会的反应，即中国注意到并理解其他国家的关切和反应；第三、维护半岛和东北亚地区的和平稳定是目标，即朝鲜不要通过卫星发射破坏目前这种稳定的局面；第四、有关各方保持冷静克制，避免事态升级导致出现更加复杂局面，即韩美日等国不要火上浇油，干出格的事。
  - 中国的这种“罕见地公开向朝施加压力”的做法有其自身的考虑。今年是中国领导层更迭的一年，有些事件使这一更迭变得更加扑朔迷离，中国现任领导人不仅需要稳定的国内政局，而且也需要稳定的外部环境，中方不希望朝鲜半岛出事。朝鲜卫星发射计划显然与中方的诉求南辕北辙，在朝韩争端中曾饱受非议的中国为显示其“一直本着事物本身的是非曲直决定政策和立场，不会偏袒任何一方”的原则和立场，挺身而出，干预朝鲜的冒险计划。此外，过去两年，中韩关系显示出经热政冷的特。一旦因朝鲜发射卫星引发半岛危机，中国可能象以往那样被迫选边，中韩关系恐将再次受到冲击，天安舰和延坪岛事件就是明证。因此，通过向朝施压，把可能的危机消灭在萌芽状态，可以使中韩关系在证实开启自由贸易谈判之际免遭无妄之灾。最后，尽管包括朝鲜在内的各个国家有和平探索和利用太空的权力，但在朝韩关系紧张、美朝刚刚签署“2.29”协议的情况下，朝鲜新领导人就决定冒险行事。如果不对此进行适当的约束，长此以往，中国可能丧失掌控这一地区的主动权。所以在金正恩履新后中朝利益碰撞的第一个回合，中国必须主动出击，为未来中朝关系的发展定调子。
  - 天安舰以来，中朝关系取得迅速的发展，但中国对朝卫星发射计划态度的转变对朝鲜而言是一个坏消息。如果朝鲜一意孤行，坚持原来的计划，中国可能被迫把“关切和忧虑”转化为具体的反制措施。如果形势发展到那一步，中朝关系势必受到损害。
  - 其次，朝鲜的卫星发射计划可能颠覆美朝“2.29”协议。毋庸置疑，朝鲜的卫星发射计划使刚刚略显回暖的朝美关系面临挑战。显然，随着朝美对抗的升级，“2.29”协议的基础遭到了破坏，朝美关系未来的发展面临逆转的风险。
  - 再其次，朝鲜卫星发射计划很可能授人以柄，加剧东北亚地区的军备竞赛。朝鲜卫星计划出笼后，日本军方表现极为活跃，多次扬言，要对朝鲜的的卫星发射实

중국 경제관찰망 홈페이지

施拦截。日本的举动除了有为韩国撑腰打气，推动美日韩三边军事合作的意图外，还能够显示自己对领空内和周边“有事”进行干预的强大的导弹防御能力。

- 除上述风险以外，朝鲜试射卫星还可能带来其他负面的结果。韩国等国可能趁机在核峰会大力炒作朝核以及朝鲜卫星发射等问题，促使联合国安理会通过新的谴责朝鲜的主席声明，甚至制裁决议。
- 总而言之，尽管面临巨大的国际社会压力，但要让信誓旦旦的朝鲜政府知难而退，收回成命，似乎很难。但无论如何，朝鲜的这步险棋，最终的结果是旗开得胜，还是鸡飞蛋打，我们还得拭目以待。综合以上利弊分析，朝似乎得少失多。

**붙임 4. 러시아 인테르팍스 보도 원문 (43)**

인테르팍스 통신사 홈페이지

“Позиция России по ПРО не зависит от персоналий ”

-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й Рябко в интервью "Интерфаксу" рассказал о переговорах "шестерки" и Ирана, диалоге по ПРО и "микрофонной" истории во время беседы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и Барака Обамы.
- Вы отправляетесь в Токио на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с беспокоит ПРО в Азии и будете ли вы также поднимать вопрос о планируемом КНДР запуске спутника? Будете ли Вы обсуждать весь этот клубок проблем с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ой?
- Буду обсуждать все эти вопросы. Мы, конечно, озабочены глобальным характером противоракетных планов США. Налет сенсационности вокруг того, что обсуждается возможное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ПРО в регионе Персидского залива, понятен. Это серьезная тема, и серьезное изменение готовится в общей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Но для нас, для тех, кто в Москве этим занимается постоянно, строго говоря, ничего нового в этом объявлении нет, потому что американцы никогда не скрывали, что европейский фазированный адаптивный подход - это часть более широкого плана. Они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нам говорили, предупреждали, что, помимо т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ертывания ЕвроПРО, которая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рамках

인테르팍스 통신사 홈페이지

х европейского фазированного адаптивного подхода, у них есть намерения созд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дсистемы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 в Азии на Тихом океане, в районе Персидского залива, что сей час и происходит.

- Что касается пуск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путника и того, как от пуск может соотноситься с резолюциями СБ ООН, я думаю здесь сомнений нет: мы озабочены планам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этого пуска. Это мешает реализации главной задачи - возобновлению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붙임 5. 러시아 글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42]**

글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Позиция России по ПРО не зависит от персоналий ”

- Вопрос в другом ? почему пхеньянский и тегеранский режимы столь упорно держатся за свои проекты, несмотря на вполне реальные неприятност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оизойти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в одном случае- повальный голод с угрозой массового восстания, в другом- гибельная война).
-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ряд ли беспокоит будущее число голодных смертей, лично им голод точно не грозит, и народные волнения для правящей верхушки - угроза гипотетическая(это ведь надо испытать на себе, а такого раньше не было). В ответ на непредсказуемое поведение КНДР и Ирана США объявили о размещении элементов ПРО в Азии 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Япон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уже объявили о своем полном согласии, ведутся переговоры с Бахрейном, Кувейтом, ОАЭ,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ей 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Персидского залива.
- Можно, конеч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США ведут темную игру, пытаются навязать миру свое повсемест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но нельзя не признать, что повод для этого у них есть.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от-вот на сцене появится третий игрок, причем такой, что мало не покажется никому. Но теперь борьба перешла на новый, угрожающий, уровень- размещение 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О на Окинаве и в Южной Корее, то есть у самых китайских границ не позволит Пекину оставаться безучастным наблюдателем.
- Третий игрок неизбежно вмешается в ситуацию, при этом вряд ли займет чью-либо сторону. Это уже совсем другой, невиданный досел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й расклад.

**붙임 6.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4.3)**

지지통신 홈페이지

“情報衛星へ發展も＝南方向發射は高技術－防衛省幹部”

- 北朝鮮が「衛星」を名目に長距離弾道ミサイルを南方向に打ち上げると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防衛省幹部は3日、民主党の外務・防衛合同部門會議で「(地球が)自転する東西(方向)に打つよりも、はるかに技術的に難しい。もし成功した場合は情報収集衛星(の打ち上げ)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との見方を示した。
- 部門會議で出席議員が、發射が南方向であることの意味を尋ねたのに対し、防衛省幹部は「(困難な技術に)あえてチャレンジしようとしているのだろう。本当にできるか分からないが、技術が高ま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

**붙임 7. 일본 닛케이 비즈니스 보도 원문 (4.4)**

닛케이비즈니스 홈페이지

“北朝鮮の“ロケット發射”：「金正日が残した計画」は吉となるか?”

- 今回の人工衛星發射には2つの目的がある。第1は、北朝鮮が發表した通り、金日成の生誕100周年を祝賀することである。
- 第2の目的は、米国との間で本格的なミサイル協議(北朝鮮の建前は「ロケットに関する協議」)を再開させることである。北朝鮮は4月にロケッ

## 넷케이비즈니스 홈페이지

トを發射した上で、米国にミサイル協議を持ちかけるであろう。その場合、北朝鮮は、「今後のロケット發射を中止する代わりに、米国が、北朝鮮の人工衛星打ち上げを肩代わりする」という案を再び持ち出してくる可能性が高い。これは、金正日が2000年に、マデレーン・オルブライト米國務長官（当時）に対して提案したものだ。

- 北朝鮮の發表によると、同国は「銀河3」ロケットを、北西部の海岸にある基地から南に向けて發射する。1段目は500キロ飛翔して韓国の西方海上に落下する予定。2段目は2500キロ飛翔してフィリピンの東方海上に落下する予定である。今回發射するロケットがどのようなものか、現時点で正確に知ることはできないが、テポドン2の派生型の3段式ロケットである可能性が高い。
- もちろん、北朝鮮が人工衛星を打ち上げる能力を持ったとしても、それをそのまま軍事用のミサイルとして使用することはできない。爆弾を積んだ弾頭部分を、大氣圏へ再突入させられなければ、実際に爆弾を目標に投下することはできない。今後、そのための実験も必要となる。
- 第2に、今回、北朝鮮がロケットを南方に發射すると予告していることは極めて意義深い。ロケットを最も効率的に發射するためには、東向きに飛翔させるのが有利である。地球の自転を利用できるからだ。実際、北朝鮮は過去の実験において、テポドンを東向きに發射している。ちなみに、西向きに打ち上げる場合、約2分の1の重さの物しか打ち上げられない。
- それ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が敢えてロケットを南向きに發射するのは、これが米国本土を目標とする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を指すものであるからであろう。今回、北朝鮮が發表したロケットの予定軌道を、發射地点を基準に北方に折り返すと、米国の東海岸に飛翔する軌道に近いものになる。つまり、北朝鮮は米国本土を攻撃する場合と似かよった想定でロケットを發射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
- ただ、例えばワシントンDCに向けて北方にロケットを發射すると、1段目は中国に、2段目はロシアに落下することになる。このため、実際に米国本土の方向に向けて發射するのは避け、南方に發射するものとみられる。つまり、今回、北朝鮮がロケットを南方に發射する背景には、対米攻撃をシミュレートする意図が存在する。この予定軌道からも、ロケット發射後、米国にミサイル協議をもちかけるであろうことが推測できる。

### 넷케이비지니스 홈페이지

- なぜ、北朝鮮はわざわざ米国にミサイル発射の凍結を約束しておきながら、事実上のミサイル発射を行うのであろうか。その目的は次の2つである。第1は、自国が開発中の長射程ロケットは飽くまで平和利用のためのものであって、軍事用のものではない、との主張を国際社会に喧伝し、これを受け入れさせることである。すなわち、「ミサイルとロケットは別物である」との自国の主張を米国や諸外国に認識させようとしている。
- 北朝鮮がミサイルとロケットを区別する背景には、将来における米国とのミサイル協議において有利な立場を確保する狙いがある。さらに、米国にとっても譲歩しやすい環境をつくるという計算がある。米国政府としては、「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に対価を与えた」となると議会や共和党への説明が難しい。しかし、「北朝鮮のロケット開発には平和利用という側面もある。それを中止させるためには一定の対価を与えるのも仕方ない」と言うことができれば、国内的に受け入れさせやすい。
- 第2の目的は、北朝鮮がロケットを発射した場合においても、米国が北朝鮮との交渉を拒絶しにくい状況をつくり出すことにある。既に述べたとおり2月の米朝合意は、ミサイル発射の凍結だけでなく、核実験やウラン濃縮活動の凍結を含んでいる。つまり、米朝合意は核問題とミサイル問題をパッケージ化している。このため、米国が今後、北朝鮮のロケット発射を「ミサイル発射である」と主張して2月の合意を履行しない場合、北朝鮮は「米国が合意を守らなかったため仕方ない」という名分でウラン濃縮活動を再開し、核実験を強行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
- もし発射が失敗すれば、祝賀どころか、「金正恩体制の前途に暗雲がたれ込む」とのメッセージとなってしまいうであろう。それ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がこうしたリスクの高い計画を進めているのは、今回のロケット発射は金正恩が決めたものではなく、生前に金正日が決めたものだから、と考えられる。
- しかし、彼はロケット発射を見ずして死去し、計画実施の責任を経験不足の若き金正恩に引き渡した。もちろん、北朝鮮が人工衛星の発射を中止する可能性を完全には排除できない。だが、現状では打ち上げを実施する可能性が高い。これでロケット発射と人工衛星の打ち上げが失敗に終われば、金正日は、金正恩に思わぬ負債を残したことにな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이스라엘 미사일 전문가, 북한과 이란 미사일간 관계 분석

(4.4 Haaretz ☞ 이스라엘 일간지)

- 북한의 발사 준비 위성사진 공개로 북한과 이란의 관계가 더욱 명백해지고 있으며, 美·北 회담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사라지고 있음.
- 북한이 발사하고 미국이 식량 지원을 철회하면 북한 발사 시기와 아이러니하게 겹친 이란과 P5+1의 핵협상에도 타격을 줄 것임.
- 「탈 인바르」(피셔 연구소 우주연구센터장/탄도 미사일 분야 이스라엘 전문가),
  - 서해(동창리) 발사대는 이란의 썸난 시설과 거의 동일하지만 북한의 발사가 사실은 이란의 미사일 실험이라는 주장 일축.
  - ‘북한과 이란의 관계가 긴밀하긴 하지만, 액체와 고체 연료를 모두 사용하는 이란의 로켓 공학이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북한이 위성 발사에 실패한 반면 이란은 세 차례나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 ‘북한이 시험 발사를 적게 하고도 어떻게 미사일 발사 단계 까지 왔는지 의문이며, 이란의 발사가 북한에게 도움이 됐을 것.’
  - ‘은하 3호가 내년 이란이 발사할 통신 위성 장착 시모르그 (Simorgh) 로켓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의 발사는 이란에도 도움이 될 것.’
  - ICBM 버전인 대포동 3호의 사정거리가 5,000~6,000 km 정도 이고,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추정에 대해 ‘핵탄두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사거리가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 북한은 ICBM 개발 능력이 없다.(4.3 베스티 FM)

- 「이고리 코로트첸코」(국방부 산하 민간자문기구 대표),
  - ‘한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한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핵·미사일 보유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정거리 1만 km가 넘는 ICBM 개발 가능한 기술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현재 기술수준과 대북제재 상황 하에서는 사실상 ICBM을 개발할 수 없다고 본다.’
  - ‘현재 북한은 소련 기술(스커드 미사일)을 바탕으로 한 작전·전술용 미사일 보유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축소 모형이라면 모를까 정찰위성이 발견했다고 하는 40m 짜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에 선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 ‘MD구상을 다루게 될 나토 정상회의(5월)를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

### ○ 북한 로켓 발사시 국제사회 평가 불가피하다.(4.4 리아 노보스티)

- 「세르게이 라브코프」(외무부 차관),
  - ‘북한의 위성 로켓발사 실험 계획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는 UN 안보리 결의안에 반하는 행동이며, 로켓 발사시 국제 사회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감정적인 대응으로 새로운 대립국면을 초래해서는 안되지만, 원칙적인 평가는 필요하다’라고 언급

### ○ 러시아연방우주청, 북한 위성발사 참관하지 않을 것이다.

(4.4 리아 노보스티)

- 러시아연방우주청 대변인, ‘북한의 발사계획은 UN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동이며, 연방행정기구인 연방 우주청은 북한위성발사를 참관하지 않을 것이다’고 발표



## □ 중국어권

### ○ 북한 문제 관련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진심(4.4 환구시보)

- 북한은 위성 발사를 통해 김정은 체제 이후 거둔 업적을 선전하고 김정은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임.
-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對美외교에서 보여준 외교적 전술의 연장선임.
- 스스로 물러설 길이 없는 상황에서 위기를 조성해 위험한 행동을 고집함으로써 협상의 발언권을 높여 최대의 보상을 얻어 왔음.
- 대외적으로 미국과 흥정하기 위함인데 중국의 노력들이 항상 실효를 거두지는 않았기에 미국이 중국의 對北 영향력을 크게 의존하지 않았으면 함.
-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극단적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미국은 성의를 보이고 여건을 만들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 정치적 대화로 신뢰를 쌓아야 함.
-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은 미국과 반목하고 싶지 않으며, 양측의 해결방식이 다를 뿐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원치 않음을 양측 모두 같음.
- 미국이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태의 악화를 막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지켜나갔으면 함.
- 이러한 국제사회의 善意에 북한이 태도를 바꿔 환영받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음.

## □ 일본어권

### ○ 북한, 미사일발사 준비태세에 들어감 (4.5 후지TV)

- 4.4일 2~3단까지 조립된 것이 확인돼 인공위성의 명목으로 발사를 예고한 탄도미사일의 설치작업이 거의 완료됨.

- 「오카베 이사쿠」(군사평론가),
  - '3.31일 사진을 보면 미사일발사 준비태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료시설 근처에서 연료주입 차량이 보이기 시작했고, 크레인의 각도가 변했다.'
  - '3.20일 사진에서 세로를 향했던 크레인이 3.31일 사진에서는 가로로 되어있으며, 일정한 속도로 조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 중국내 북한국영 레스토랑, 북한으로 매출의 80%나 송금

(4.4 레코드차이나 ⇨ 중국정보발신 뉴스사이트)

- 중국내에 북한국영 레스토랑이 다수 존재하며, 레스토랑은 中·北협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짐.
-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출자가 전혀 없는데다가 매출의 80%가 평양으로 송금됨. 송금은 북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함.
- 레스토랑의 경영 및 출자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하고 있으며, 레스토랑간 교류는 전혀 없다고 함.
- 심양에 있는 레스토랑에는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여성종업원 10명이 일함. 모두 평양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이며, 출신 성분도 좋음.
- 평양대학의 관광학과는 매년 재학생 300명을 실습생으로 해외에 파견하며, 파견처는 상하이, 베이징,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으로 다양함.

## 붙임 1. 이스라엘 Haaretz 보도 원문 (44)

Haaretz 홈페이지

"The real implications of the North Korean (and Iranian) missile launch"

- o As more details and satellite footage emerge of the preparations for the North Korean space-missile launch in ten days, the connection between its research program and that of Iran is increasingly evident. But while the technological advantages from the launch for Iran are less clear, the wider implications of the launch, if it should go ahead, are for the stillborn agreement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nd the dying hope that it could serve as a precedent for solving the Iranian nuclear issue.
- o On Wednesday night, Tal Inbar, the head of the space research center at the Fisher Institute and one of the leading Israeli experts on ballistic missile posted fresh images of the Sohae launching station in North Korea. The photos, which were taken by Israeli reconnaissance satellite Eros B, were of the launching pad from which the Unha-3 rocket is expected to take take off, sometime around the April 15, coinciding with the 100th birthday of Eternal President Kim Il-Sung. Similar to previous satellite photographs, there are clear signs of preparations for a launch. Inbar, who has spoken in the past about the deep cooperation between Iran and North Korea over missile development, says that "if the two programs are not brothers, they are first-cousins" and that the Sohae launch-pad is almost totally identical to an Iranian installation in Semnan, which yet to be used.
- o Despite the identification, Inbar dismisses the reports that the North Korean launch is actually an Iranian test-launch in disguise. "While they are closely linked, the Iranians are much more advanced than the North Koreans in rocketry, using both liquid and solid fuel. Iran has succeeded in launching three satellites and North Korea has failed in its only attempt. The North Koreans have carried out so few test-launches that it is questionable how they have made their missiles operational.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the Iranian launches have served the Koreans." That said, Inbar believes that the North Korean launch will be of use also to their Iranian counterparts as the

Haaretz 홈페이지

Unha-3 is very similar to the Simorgh rocket which is scheduled to carry an Iranian communications satellite into space next year.

- o However, Inbar is not that impressed by the size or the range of the Unha-3. Despite the calculations that an ICBM version (Taepodong-3) could reach targets of 5,000-6,000 kilometers, which would put part of the continental U.S. in range, he believes it would not be able to carry a nuclear warhead that far. For a nuclear strike, it would more likely be able to reach half that distance, slightly further than the Rodong-1 or the Iranian Shahab-3, which are already in service.
- o But even if the American sources who have been talking about North Korea having the ability to launch a nuclear missile at the U.S. are overplaying the threat, it is increasingly hard to see how Barack Obama can go ahead and deliver food assistance once Pyongyang launches. This will signal another blow to the yet-to-be confirmed new round of talks between the P5+1 and Iran, which are ironically scheduled to take place just when Unha-3 will be lifting off.

## 붙임 2. 러시아 베스티 FM 보도 원문 (43)

베스티 FM 라디오 홈페이지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демонизируют Северную Корею”

- o Вы знаете, идет демонизац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ак страны с огромным ракетно-ядер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Разумее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МИ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 властям это выгодно. Однак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оценок экспертов, я думаю, все-так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ходится не на столь высоко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уровне, чтобы создавать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с дальностью стрельбы, превышающей 10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Это преувеличение! Реально то, что сегодня имеет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это ракеты оперативно-тактического класса, основанные на старых советских технологиях, за основу которых взята ракета "Скат".
- o Я с трудом представляю себе, как 40-метровую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акету можно вывезти и прокатить по центральным ули

베스티 FM 라디오 홈페이지

цам и площадям Пхеньяна! Разумеется, с уменьшенным макетом это возможно сделать. В принципе, северокорейцы - мастера по дезинформации, 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такие достижения, мне кажется, у них не хватит техни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 Во-первых, это идет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война. Не будем забывать, что впереди чикагский саммит, который посвящен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е. И для американцев и их союзников выгодно запугивать мир масштабными ракетн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Ирана.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и страны находятся на очень низко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уровн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здавать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я думаю, при существующем уровне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й и тех режимных санкций, которые действуют против нее, такую задачу не может решить в принципе.

**붙임 3.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44)**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Россия призывает "откалибровать" реакцию сообщества на спутник КНДР”

- "Мы не скрываем глубокой озабоченности подобными планами, считаем, что они идут вразрез с резолюциям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 то же время мы считаем, что если запуск состоится, важно точно и правильно откалибровать реакц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ельзя дать волю эмоциям и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новый виток конфронтации. Хотя принципиальную оценку этому дать нужно и мы такие оценки даем. У нас состоялся откровенный разговор с япон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и я не думаю, что с полит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у нас есть какие-то расхождения или разногласия с Токио", - заявил Рябков журналистам после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очередной раунд которых состоялся в Японии.

## 붙임 4.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44)

###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космоса не поедут на запуск спутника”

-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смического запуска Роскосмос руководствуется официальной позицией РФ, выраженно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в заявлении от 16 марта 2012 года. Учитывая, что этот запуск является прямым нарушением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за которую голосовала 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космос как федеральный орган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не может принять в нем какого-либо участия”, - сказал собеседник агентства.

## 붙임 5. 중국 환구시보 보도 원문 (44)

### 중국 환구시보 홈페이지

“中國對美國表明心迹：不會為朝鮮跟其翻臉作對”

- 此次朝鲜高调公布卫星发射计划，引起国际社会的的一致反对，又是朝鲜出人意外的举动。分析认为，朝鲜此举，与本月即将召开的朝鲜劳动党代表会议和最高人民会议有直接关联。朝方试图借此向外界表明金正恩执政以来取得的伟大成就，从而树立年轻的金正恩在朝鲜不可动摇的地位。
- 此外还有分析将此次朝鲜的突破行动解释为一种外交战术，并且认为这是朝鲜数十年间积累的对美外交战术的延伸，在没有退路的情况下，一边提升危机程度一边坚持自己的冒险举动，将一个争议焦点最大限度的细分，在协商时最大限度的争取话语权，从而在每一个阶段都获得最大限度的补偿。此次朝美北京会谈和卫星发射预告无不体现了这一战术的特点。
- 很显然，朝鲜此举除了在国内树立金正恩的个人威信之外，国外主要是为了与美国讨价还价。对此中方应该提醒美国，不要过于看重中国对朝鲜的影响。从朝鲜的一贯做法来看，中方的努力不一定能够取得满意的效果。美国要想朝鲜彻底放弃危及国际社会的冒险行动，最好的还是创造条件，拿出诚意，和朝鲜坐到谈判桌前，进行心平气和的政治对话，建立互信机制。
- 在朝鲜问题上，中国不会和美国翻脸。这没有必要，因为中国和美国的態度是相同的，也不希望朝鲜发展危及人类生存的核武器。双方有此共识，只是各自解决问题的方式不同而已。中国希望美国能够听取中方的劝告，保持冷静克制，

중국 환구시보 홈페이지

并且敦促相关各方，不要让局势复杂化，应当通过外交途径、以和平方式妥善解决朝鲜问题，维护朝鲜半岛及东北亚的和平与稳定。

- 维护和平是世界各国的共同责任，并且完全符合国际社会的共同利益，中国已经在努力做了，那么美国也应该注意到这一点，并且尝试着去做。或许就是因为国际社会的善待，朝鲜能够改弦更张，放弃那些美国不能够接受的行为方式，融入到国际大家庭之中，成为国际社会欢迎的正常国家。

붙임 6. 일본 후지tv 보도 원문 (45)

후지tv 홈페이지

“北朝鮮・東倉里の発射場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軍事評論家の岡部  
いさく氏に聞きました。”

- 北朝鮮の東倉里(トンチャンリ)の発射台に、4日までにミサイルの2~3段目まで組み上げら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北朝鮮が、人工衛星の名目で発射を予告している弾道ミサイルの設置作業が、ほぼ完了していることが、FNNの取材でわかりました。最短で12日にも発射されるとみられる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場のある東倉里では今、何が起きているのか、軍事評論家の岡部 いさく氏に聞きました。
- (発射台がある東倉里の3月20日と31日の衛星写真を見て、どういう印象を持っている?) 31日の写真を見ると、これはいよいよ、ミサイルの発射準備態勢に入ろうとしているなという印象がありますね。
- (どこに注目して見ていけばいい?) 1つには、車両の姿が見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れともう1つ、燃料施設の近くに燃料車でしょうか、やはり車両が見えてきますね。それと、20日の写真では、縦を向いていたクレーン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クレーンが31日、横になっていますね。
- (クレーンの角度が変わった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 このクレーンは、発射台の上にミサイルの1段目、2段目をつり下げて重ねていく、その作業のためのクレーンですね。これを動かして、いよいよその態勢を整えつつあるということな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 (FNNの最新の取材によると、少なくとも2段目までは組んで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だが?)ここに発射台がありますね。つまり今は、ここに1段目が立っていて、そしてこの上に、さらに2段目が立っているという状

후지tv 홈페이지

態なんです。さらに、本当はここに3段目、衛星カバーとなる部分が、ここに重なっていく。こういう作業になるはずです。

- o (組み上げにはどのぐらいの期間を見たらいい?) 打ち上げ予告期間まで、10日を切りましたよね。順調かどうかはわかりませんが、少なくとも、あり得るペースで進んでいるなという感じはします。

**붙임 7. 일본 레코드 차이나 보도 원문 (4)**

레코드차이나 홈페이지

“中国内の北朝鮮国营レストラン、「本国からの出資ゼロ」なのに売り上げの8割も送金”

- o 2日、中国国内に複数存在する北朝鮮国营のレストラン。北朝鮮からの出資はないうえに、「売り上げの8割は平壤へ送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送金は「北朝鮮支援の一環」という。写真は遼寧省瀋陽市の北朝鮮レストラン。店舗は中朝協力の一環として作られ、北朝鮮からの出資はないうえに、「売り上げの8割は平壤へ送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 o あるレストランの経営者によると、店の経営・出資者は中国籍の朝鮮族で、北朝鮮からの資金は一切出ていないとう。経営を担当する朝鮮族の女性によると、中国国内には同じような北朝鮮レストランが多くあるが、店舗同士の関係はまったくないという。
- o 一方、同店には北朝鮮から派遣されてきた女性従業員10人が働いている。いずれも平壤大学を卒業し、非常に優秀で、出自も申し分ないという。そのうちの1人、平壤出身のキム・ウネさんは、両親がともに医師。平壤大学の観光学科は毎年、在学中の約300人を実習生として海外に派遣している。上海、北京、ラオス、ベトナム、カンボジア、ロシアなど行き先はさまざまだ。
- o キムさんも大学3年で上海へ派遣され、3年後に帰国する予定。上海では一緒に派遣された10人で大部屋に住み、パソコンも携帯電話もない生活。勝手に宿舎を離れることも許されず、月2回の買い物にも経営者が同行する。休みは週1回で、宿舎で本を読んだり中国語を勉強したりして過ごす。期間中は帰省も許されず、家族への電話も禁止されているが、手紙や写真を送ることはできるという。卒業後の就職希望を尋ねると「分かりません。国家が手配すると思います」と答え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로켓 발사는 북한 정보를 획득할 절호의 기회이다.(4.6 AP)
  -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공격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드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급박히 움직이고 있음.
  - 3년 전 위성 발사 이후 기술 진전 정도에 대한 정보와 로켓에 외국 기술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할 것임.
  - 사진으로 로켓 단의 질량비를 산출해 위성 발사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 주장의 진위도 빠른 시간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로켓 궤적 또한 추적할 것임.
  - 「미치시타 나루시게」(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북한 전문가), '북쪽으로 발사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불가능하며, 남쪽으로 발사해도 북으로 발사한 것과 유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미국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며, 미사일 발사의 핵심이고 위성 발사로는 시험할 수 없는 재진입 기술 시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임.
  - 「데이빗 라이트」, 「테오도르 포스틀」(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 '2009년 발사 분석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산일 가능성이 큰 외국 부품 비축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이번 발사로 이 사실이 입증되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해외 부품 조달 능력으로 인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음.'
  - 필요한 부품 부족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자주 하지 않을 것이고, 유예 합의를 할 의향이 커지는 등 향후 무기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북한이 자체 부품 제조 역량이 없다면 수입 금지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美 국방부, '北 발사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4.5 미군 공보국[AFPS] / 국방부 홈페이지 게재)

- 「조지 리틀」 美 국방부 대변인,

-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사일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 '韓·日 동맹국들과 미사일 발사 관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발사의 영향권에 있는 동맹국 韓·日의 안보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발사는 어떤 국가에서도 수용될 수 없다.'고 강조

□ 중국어권

○ 광명성 3호와 1,2호 차이(4.6 중국청년보→공산주의청년단 기관지)

① 발사 방향

- 과거 동향발사에서 남향발사로 바뀌어 서해 상공으로 진입. 이는 로켓이 일본 상공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함.
- 남향발사는 동향발사와 비교해 연료 소모가 많고 로켓의 사거리 및 탑재력을 요하기 때문에 은하3호의 탑재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줌.

② 발사 지점

- 지난번 무수단리 기지에서 이번에는 서해 위성발사장으로 바뀜. 이곳은 50m높이의 탑재대와 넓은 규모, 현대화 설비를 갖추.
- 액체연료 주입과정이 지하시설에서 자동화되어 미국 스파이 위성에도 포착되지 않고 로켓 발사 준비시간도 크게 단축함.

③ 위성 발사 사전 예고

-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해사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 로켓발사지점 및 궤도 보고

- 또한 외국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해 발사 상황을 공개할 예정으로 이는 위성 발사 기술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을 보여줌.
- 韓·美·日, 중국에 대북 압력 행사 촉구(3.30 홍콩 불황위성TV)
  - 「주지엔룽」(中·日문제 전문가),
    - ‘북한의 위성 발사 전, 이미 국제적인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韓·美·日은 북한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동북아 문제의 주도권이 존재한다.’
    - ‘그 이면에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이러한 심리전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성 발사 전에 전쟁 발발 가능성도 적다.’
    - ‘美·日의 아시아 MD시스템 구축은 중국이 존재하는 이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양국이 겨냥하는 대상은 중국임을 의심할바 없다.’
    -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 ‘우선 양국이 북한문제를 핑계로 협력체제를 만들어 중국과 정면 충돌하게 되면 MD 구상의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 「뤼하이타오」(군사문제 전문가),
    - ‘장거리 위성 발사는 미사일 개발의 바탕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韓·美·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韓·美·日이 과민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아시아 MD 구축은 명확한 이유가 불충분한 계획이다. 북한을 핑계로 동아시아에 간섭하고 군비 마련과 군사적 배치에 근거를 대기 위함이다.’
    - ‘아시아 MD구축은 중국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론에 불과하다. 미사일 비행 궤도는 여러 방향이 있고 중국의 넓은 국토를 감안하면 정찰이 어렵다.’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 김정은, 총서기 및 국방위원장직에 취임하지 않을 것(4.5 TBS뉴스)

- 북한관계 소식통, '4.11일에 열리는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총서기직에 추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과거 김정일은 3년상을 치른 뒤 총서기직에 취임했으며, 이번에도 관습에 따라 적어도 향후 3년간 김정은이 총서기로 추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4.13일에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국방위원장직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

### ○ 북한의 로켓은 군사기술적으로 미성숙하다.(4.5 닛케이비즈니스)

-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고 군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가 필요함.
- 체제 유지의 벼랑끝에 있는 북한에는 인공위성 발사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 북한의 위성발사는 사실상 미사일 발사실험임.
- 북한은 '군사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세부적인 기술과 로켓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했음. 그러나 그런 발표가 현재까지 없음.
- 1t 이상의 인공위성을 실어야 기상관측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이 발표한 100kg는 너무 작으며, 기상관측 위성으로서도 기능할 수 없음. 또한 군사적으로도 핵탄두 탑재가 불가능함.
- 로켓의 연료가 '액체연료'인 점도 군사적으로 문제임. 연료 주입에 긴 시간이 걸리며 공격받기 쉬움. 따라서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
-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발사기지를 중국쪽으로 변경함.

-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韓·美·日 3국의 방위시스템을 파악하는 기회로 보고 있음.

## □ 러시아어권

### ○ 김일성·김정일보다 김정은이 더 위협한 인물로 판단된다.

(4.4 엑스페르트<sup>러</sup> 유명 주간지)

- 젊고, 외국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자유주의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김일성·김정일보다 더 위협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냉혈한 인물인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일이 권력을 잡았던 초창기처럼 비우호적인 군부 관계자들을 숙청했으며, 단거리 미사일 실험 감행과 위성발사 계획 발표를 하는 등 체제강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 北, 위성발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4.5 슬론<sup>러</sup> 인터넷 언론사)

- 「안드레이 란코프」(김일성<sup>대</sup> 출신 러시아 한국학자),
  - ‘김일성 100회 생일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위성 발사 발표는 놀랍지 않다.’
  - ‘하지만 불과 2주전 미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을 약속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의문이 든다.’
  - ‘결과적으로 식량지원보다 위성발사가 더 중요한 정치적, 기술적, 선전적 측면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북한은 첩보기관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들여오는 기술정보·주요부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舊 소련시대 포함)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전수한 바 없다.’
  - ‘모든 방법(제재, 원조, 외교적)을 동원했지만, 사실상 대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 ‘로켓발사 후 한동안은 시끄럽겠지만 항상 그래왔듯 추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식량지원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주장’

## 붙임 1. 美 국방부 게재 원문 (4.5)

### 美 국방부 홈페이지

"Pentagon: U.S. Takes Prospect of North Korea Launch Seriously"

- o The Defense Department is closely monitoring the prospect of a long-range rocket launch this month by North Korea, a senior Pentagon official told reporters today.
- o "The North Koreans will be violating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f they move ahead with such a launch," said George Little, acting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public affairs, "and we call on them, as other countries have, not to launch the missile."
- o "This is very serious business when North Korea does something like this," Little said. "We're monitoring it closely. We understand the impact it could have on regional stability."
- o "We're working very closely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as well as our Japanese allies to monitor what's happening with respect to this missile launch," Little said. "We hope it doesn't happen. But if it does, we'll be ready to track it."
- o At the Pentagon today, Little said the Defense Department is operating on the assumption that the launch could happen. The North Koreans have indicated that they intend to launch the satellite, he noted.
- o In terms of U.S. allies in the region who could potentially be affected by the launch, Little said, "we have an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both Japan and the Republic of South Korea." Such a launch is unacceptable t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Little said.
- o "I believe we have what we need to track [the launch] and to also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to respond," he added.

## 붙임 2. Associated Press 보도 원문 (4.6)

### Associated Press

"Along with security threat, North Korea rocket launch presents potential intelligence bonanza"

- o As the U.S. and its allies decry North Korea's planned rocket launch, they're also rushing to capitalize on the rare opportunity it presents to assess the secretive nation's ability to strike beyond its shores.

Associated Press

- o Military planners want to know how much progress North Korea has made since its last attempt to launch a satellite three years ago. Arms negotiators will be looking for signs of how much the rocket, a modified ballistic missile launcher, uses foreign technology.
- o One thing analysts could quickly test is North Korea's insistence that the satellite launch is a peaceful mission. Experts can easily estimate from photographs the rocket stages' mass ratio – a measure of their efficiency – and that will give a quick indication of whether the rocket is designed primarily to be a space vehicle launcher or long-range missile.
- o They also will be watching where the rocket goes. If North Korea were to attack the United States, Michishita said, it would likely launch to the north. It can't feasibly conduct such a test, because that would anger Russia and China, which would be under the flight path. Launching to the south can provide similar data.
- o Analysts stress that success by no means suggests North Korea could pull off an attack on the U.S. North Korea has a long way to go in testing the technologies required for re-entry – a key to missile delivery that is not tested in satellites.
- o In an analysis of the 2009 launch, Wright and Postol suggested North Korea relies heavily on a stockpile of foreign components, likely from Russia. If data from the upcoming launch confirm that, it may mean Pyongyang's missile program is severely limited by the isolated country's ability to procure new parts from abroad.
- o That could figure into future arms talks. If North Korea is running out of the parts it needs, it isn't likely to conduct frequent missile tests and may be more willing to agree to moratoriums. More emphasis on blocking its imports would also make sense if the North cannot manufacture what it needs.

**붙임 3. 중국청년보 보도 원문 (4.6)**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析称朝鲜此次发射卫星与前两次发射有3点显著不同”

- o 除卫星本身的功能外，这次发射与前两次发射还有三点显著不同：
- o 一是发射方向一改过去向东发射的做法，改为向南发射，在黄海上空入轨。这样做的目的当然是为了减小火箭飞越日本上空带来的负面影响，也说明“银河3号”

###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의运载能力更强了。因为向南发射与向东发射相比，要消耗更多的燃料，需要火箭有更远的射程和运载能力。

- 二是这次发射地点也与前两次卫星发射有很大区别。前两次均是在舞水端里基地发射的，这次却选在平安北道铁山郡东仓里基地，即“西海卫星发射场”。这一基地开工于2000年，曾进行过洲际导弹发动机的点火试验。这里的发射塔架高度达到50米，而舞水端里的塔架高仅30米。另外，“西海卫星发射场”还拥有支持台、引擎燃烧实验洞、地上管制所等组成的完整设施。其规模比舞水端里基地大3倍左右，设施也更现代化。尤其是导弹发射准备的核心阶段——液体燃料加注过程可全部在地下自动完成，能够避开美国间谍卫星的监视。由于发射设施自动化程度较高，也相应缩短了火箭的发射准备时间。
- 三是朝鲜一改以前的做法，按照国际规定和程序，提前向国际民用航空组织、国际海事组织、国际电信联盟等机构通报了火箭发射地点和大致轨道。同时，还全面公开发射情况，并邀请外国专家和记者观看卫星发射。外国专家和记者可到西海卫星发射场，亲眼看到安装在发射架上的运载火箭“银河3号”和人造卫星“光明星3号”，并在发射综合指挥所观看运载火箭和卫星的发射准备实况。他们还可参观平壤卫星控制综合指挥所，并在相关地点观看“光明星3号”发射实况。这也是前两次所没有的。这说明，朝鲜对自己的卫星发射技术是充满信心的。

## 붙임 4.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3.30)

###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凤凰全球连线：美日韩打心理战 逼中国对朝施压"

- 朱建荣：现在我觉得是在朝鲜的卫星发射之前的一种国际上的心理战，日本、韩国、美国希望在这个问题上通过外交一层层的压力，迫使朝鲜让步，在这个过程当中，也存在着在东北亚问题上的主导权，同时一个潜在台词就是针对中国，在这样的问题上中国不能袖手旁观，也逼着中国对朝鲜施加压力，不过我想这样一场心理战还会持续下去。不过在真正发射之前，变成热战，擦枪走火的可能性，现在看来还比较小。
- 罗海涛：发射卫星需要有大推力火箭，特别是这种远程发射，还有控制技术，这都是将来发展战略导弹的一些基础科学，如果它能够发射卫星的话，这种技术如果转向发射战略导弹这都是非常容易的事情。所以他们对此表示敏感，如果对卫星发射严格控制或者是在有关的国际组织或者各种条约的限制下仅仅利用外层空间的和平利用这个是可以的，只不过他们总是担心会偏向另外一个方面，这是美日还有韩国比较紧张的一个方面。不过这个问题目前还没有很清晰的证据，所以朝鲜发射卫星的问题上，我认为有点神经过敏。



홍콩 동황위성TV 홈페이지

- 第二个，反导系统是对着哪个方向呢？朝鲜的导弹往哪打，它也没有说。所以它用这个无非就是想介入东亚的事务，或者为它的军备或者是军事布局提供一些借口，朝鲜的反导这个根本就不存在这么一个概念，所以它所谓的反导我认为还是针对其他国家的，它只不过拿朝鲜说事。
- 朱建荣：不过现实来说，日美要搞真正的导弹防御系统可能还需要一个过程，不是那么简单，毕竟在中国存在，我想他们的潜台词就是中国，这是毫无疑问的，但是美国跟日本跟中国都有非常密切的千丝万缕的各方面的关系，它们都不可能有一家主动的说我就针对中国，它不敢说，通过这个借着北朝鲜说事，把这个体系合作的基础打起来，一旦以后如果出现了一些跟中国正面冲突的时候，可以付诸实施，进一步的推进。
- 罗海涛：这个可以说它那是很脆弱的，在某种程度上就是一种理论性的所谓拦截，因为现在战略导弹的飞行轨道是多方面的，而且我们国土那么大，我们在纵身上发射它根本无法侦测到，我们还可以在海洋发射，它怎么侦测到？你说它反导怎么做呢？简直就是无从做起。

**붙임 5. 일본 TBS뉴스 보도 원문 (45)**

TBS뉴스 홈페이지

“ジョンウン氏、まだ総書記にならず”

- 北朝鮮では新指導者キム・ジョンウン氏の体制強化が推し進められていますが、北朝鮮関係筋はJNNの取材に対し、11日に開催される朝鮮労働党の代表者会でジョンウン氏が「総書記」に推戴されないとの見通しを示しました。
- 北朝鮮の新指導者キム・ジョンウン氏は現在「党中央軍事委員会副委員長」の地位にあり、今回の代表者会では党の最高ポストである「総書記」になるとの見方が強まっていました。しかし、関係筋は「父親のキム・ジョンイル氏は3年間喪に服した後に総書記に就任した。今回もその慣習に従って、少なくとも向こう3年間はジョンウン氏が総書記に推戴されることはない」と話しています。同じ理由から、13日に予定されている最高人民会議で国家の最高ポストである「国防委員長」に就くこともないとしています。

## 붙임 6. 일본 닛케이 비즈니스 보도 원문 (45)

### 닛케이비즈니스 홈페이지

#### “ロケット” 軍事技術的には未熟”

- 北朝鮮の朝鮮宇宙空間技術委員会は、人工衛星「光明星3」を4月12～16日の間に打ち上げると発表した。この予告に対して日米韓の3国は、ミサイルの発射実験は「国連決議違反」であると非難し発射の中止を求めた。ロシアも同じ立場を明らかにした。他方、中国は「憂慮」を示しただけで、「国連決議違反」と明言はしなかった。この大国の足並みの乱れが、北朝鮮の立場を有利にしている。大国がいくら非難しようと、体制を維持するために、北朝鮮は「人工衛星」を発射するだろう。
- それなのに、北朝鮮はなぜ「人工衛星」を発射するのか。最大の理由は、体制維持である。食糧を確保し国民を飢餓から救うことよりも、体制の維持の方が大事な目標だからだ。
- 北朝鮮は、4月15日に故金日成首席の生誕100周年を迎える。100周年祭典を大々的に行いたいところだ。このため、2012年を「強盛大国の元年」にする、と宣伝してきた。ところが経済は疲弊し、国民に配る食糧は足りない。「強盛大国」のスローガンは「強盛復興」に後退した。
- これでは、金正恩の体制に傷がつく。さらには軍も威信を失う。新しい指導者、金正恩氏の権威を高め、軍の立場を強くするために、「人工衛星発射」を必要としている。体制が弱体化してしまうか、それを維持できるかどうかの瀬戸際にある北朝鮮には、「人工衛星発射」以外に選択の余地はなかった。
- 北朝鮮の「人工衛星」が、事実上の「ミサイルの発射実験」であるのは間違いない。核爆弾などを搭載するミサイル・ロケットを使って、「人工衛星」を打ち上げる。ただ、「ミサイル発射実験」は国連決議や米朝合意、日朝合意違反になるので、「人工衛星」とカモフラージュしているのだ。
- 北朝鮮は、「人工衛星の発射」という理由をつくるために、「朝鮮宇宙空間技術委員会」という団体を構成し、「軍事用ではない」と強調している。この団体は、実体のない看板だけの団体と言うべきだろう。軍事用でないならば、技術の細部やロケットの詳細について明らかにしてもいいはずだ。しかし、そうした発表は無い。
- 北朝鮮は、「人工衛星」を過去に2回発射している。だが、いずれも失敗と言われている。打ち上げた物体が、地球を周回する軌道に乗らなかった。北朝鮮のミサイルの推力が足りなかったのである。今回は、推力を向上させたかどうか注目される。

닛케이비즈니스 홈페이지

- それでも、北朝鮮のミサイルにはなお問題が多い。まず、打ち上げる「人工衛星」の重量を「100キロ」と発表した。これは小さすぎる。北朝鮮が説明する「気象観測衛星」としては機能しない。つまり、1トン以上の重さの「人工衛星」を運べないと観測は無理だ。また軍事的にも、核爆弾の搭載は不可能だ。
- さらに、ロケットの燃料がなお「液体燃料」である点は、軍事的に問題だ。液体燃料ロケットは、燃料の注入に長い時間がかかり、相手に簡単に攻撃される。このため、軍事的には実はたいした脅威にはならない。米口のミサイルは、固形燃料を使用しているから、直ちに反撃できるのである。
- 北朝鮮は、今回は発射基地を西海岸の中国側に変更した。これは、米軍の攻撃を避けるためである。日本海側に基地を置くと、米空母から簡単に攻撃される。一方、中国に近い西側ならば、米軍の戦闘機やミサイルが中国国境を侵犯する恐れがあるので、米軍も攻撃しにくい。
- 中国は、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を韓米日の3国がどのように迎撃し、防衛するのかを知るチャンスと考えている。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の背後では、日米韓3国の防衛システムと中国軍との情報戦が展開されている。

**붙임 7. 러시아 슬론 보도 원문 (45)**

슬론 언론사 홈페이지

“Зачем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обственный спутник”

- В самом заявлении ничего удивительного нет. Понятно, что сотая годовщина основ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авящей династии - дело серьезное, и широко отметить ее необходимо.
- Правда, есть в данном решении и странности. Всего лишь за две недели до этого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с США.
- Судя по всему, в Пхеньяне решили, что запуск (а точнее, его политические, технические и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е аспекты) важнее, чем получе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з США.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там допустили ошибку. Переговоры с США вполне можно было отложить н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и начать их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запуска - скажем, в августе, когда шум, неизбежно вызванный запуском ракеты, приутих бы. Уч

슬론 언론사 홈페이지

итывая нынешние настроения в Вашингтоне, очевидно, что в таком случае США, скорее всего, пошли бы на компромисс и согласились бы оплатить приостановку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В таком случае, КНДР смогла бы одновременно и провести празднично-испытательный запуск, и получить халявное про  
довольствие от своего главного противника.

- Эта инженерная винтажность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северокоре йским инженерам приходится опираться только на то, что см  
огла достать северокорей ская разведка. Ни СССР, ни Россия н  
е передавали КНДР технологий,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остройк  
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так что эти тех  
нологии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и некоторые важные компонент  
ы ракет) приходилось добывать неофициально, силами соотве  
тствующих ведомств.

**붙임 8. 러시아 엑스페르트 보도 원문 (4.4)**

엑스페르트 주간지 홈페이지

“Большой маленький диктатор<sup>14</sup> Ким Чен Ын”

- Большой маленький диктатор<sup>14</sup> Ким Чен Ын оказался еще  
более кровавым, опасным и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м, чем были его  
отец и дед.
- Сразу после смерти Ким Чен Ира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были уве  
рены: нов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КНДР, молодой и неуклюжий К  
им Чен Ын, будет мягким и сравнительно либеральным пол  
итиком. Дескать, учился он в Швейцарии, особенным автори  
тетом в правящей верхушке не пользуется, а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е должна подтолкнуть режим к некоторым  
либеральным реформам. Но ситуация стала развиваться ровно  
в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엑스페르트 주간지 홈페이지

- Свое правление молодой диктатор начал с того, что расстрелял всех неугодных ему генералов.
-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им Чен Ын решил завоевать авторитет военных, ведь некоторые могли усомниться в его способности перенять власть. Тут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его отец, Ким Чен Ир, во время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в 1994 году устроил ровно такие же чистки. Тогда казни устраивали за любое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или проявление своеволия.
- Всего за неполных три месяца управления страной Ким Чен Ын принял несколько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наглядно демонстрируют его желание лишь ужесточить режим в стране.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лидер КНДР ведет себя также довольно агрессивно. Он уже провел испытания ракет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чем немало напугал Южную Корею, Японию и даже Кита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середине апрел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бирается вывести на орбиту свой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ий спутник».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北 로켓 발사, 이란보다 큰 우려' (4.8 AP통신)

- 북한이 핵무기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발사가 이란보다 더 큰 위협으로 간주됨.
- 북한의 2009년 로켓 상단이 이란의 위성발사체 샤푸르와 매우 유사하며, 이는 북한과 이란이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제임스 몰츠」(몬터레이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교수), '북한은 의도적으로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발사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과 이란이 얼마나 군사력 발달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
- 「데이비드 라이트」(美 미사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UCS]' 물리학자),
  - '최근 한국의 위성발사 작업이 북한의 발사를 중단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한국은 러시아 기술을 사용한 우주발사선을 개발해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를 했으며, 현재 미국과 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 「마르쿠스 실러」(獨 슈무커테크놀로지 분석가이자 北 미사일 전문가), '1990년대 이란에 북한 로켓 전문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간 미사일·로켓 부문에 대한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 협력 정도는 불확실한 상태다.'

#### ○ 광명성 3호 참관 관련 서방언론 보도(4.8 BBC, CNN, AP)

##### - BBC News

- 위성이 아니라 위성이 장착되는 로켓이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미 핵폭탄을 보유한 북한이 이제는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2012.4.9(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위성 발사는 세계에 북한이 강성대국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강성대국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음.

- CNN

- 「크리스찬 라디오」(유럽 우주 전문가), '북한이 앞으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우주 발사체이다.'
- 북한의 광명성 3호 공개에도 불구하고 예측불허인 북한의 의도에 대한 경계를 놓지 않는 미국의 의심이 가시지는 않을 것임.

- AP

- 「브라이언 위든」(美 Secure World Foundation 기술고문 / 前 美우주사령부 공군장교), '북한이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만한 기술이 실제로 있는지 의문이며,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시험 및 개발을 통해 북한 주민들과 세계에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보도

## □ 중국어권

### ○ 中,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향후 대응 이미 시작(4.9, 환구시보)

- 4.8일, 韓·中·日 외교장관 회담에서 3국은 모두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같이 했음.
- 「진산룽」(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이미 향후 대응을 이미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세 가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 '△북한의 발사 성공으로 韓·美·日이 안보리에 제기할 경우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 △韓·美·日의 요격 성공 후 북한은 위기 봉착으로 또 다른 행동 펼칠 가능성, △요격 실패로 韓·美·日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 中 인민일보 기자가 본 북한 위성 발사 준비 과정(4.9 인민일보)

- 4.8일 이른 아침 평양 양각도 호텔에 인민일보, AP, AFP, 로이터통신, 교토통신 등 각국의 80여 명의 기자들이 집합해

2012.4.9(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보안검색 후 북한이 제공한 버스로 기차역으로 이동하여 서해 위성발사장으로 이동하는 특별열차로 갈아타고 5시간 이동함.
- 열차는 산으로 둘러싸인 현장에 멈춰 섰는데 주변은 민등성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낮은 건물들이 곳곳에 있었고, 로켓 탑재대와 흰색 로켓이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광명성 3호를 발사할 은하3호 탑재로켓이었음.
  - 북한의 장명진 총책임자는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며, 20년 이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
  - 서해 위성발사장은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정식 완공됐고, 발사장에는 연동실험장(위성 및 로켓 장착 실험장), 위성발사장, 종합지휘소, 엔진실험장 및 관제실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동실험장에서 광명성 3호를 볼 수 있었으며, 발사 성공 후 우주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송출할 예정이고, 은하 3호는 높이 30m, 직경2.4m, 무게 91톤으로 초기추력이 120톤이라고 소개함.
  -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는 북한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선물로 사전에 이미 계획된 행사이며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고 강조함.
  - 북한처럼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위성 발사장의 촬영을 허락한 나라도 없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는 일부 국가의 주장도 어이없는 일이라고 함.
  - 장명진 총책임자는 '현재 로켓에 연료 주입은 하지 않았지만 연료 주입에서 발사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위성 발사는 다른 나라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분명히 발사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주장함.

## □ 러시아어권

○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만이 난처해질 것이다.

(4.8 이즈베스티야)

- 「콘스탄틴 아스몰로프」(과학아카데미산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2012.4.9(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3차 핵 실험이 이루어진 후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북측 요구사항도 달라질 것이다.'
- '핵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식량지원은 물론, 모든 부문에서의 협력이 완전히 금지될 것이고, 직접적인 군사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 '금번 발사와 관련, △일본은 북한을 구실로 對中 방어 군사력 배치, △한국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터진 민간인 사찰 스캔들에 대한 관심 분산, △미국은 자국의 역내역할 강화 정당화에 이용하고 있다.'
- '마치 북한이 악행을 멈추려 해도 이를 차단하려 한다는 느낌이 든다.'
- '이에 반해 △중국은 이중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고, △러시아 또한 대북비판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UN결의안 위반으로 인해 북한을 심판하게 됐다.'
- '결과적으로 북핵실험 문제가 터질 경우에도 난처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라고 주장'

○ 북한 핵보유 관련 러시아 전문가 견해(4.8 익스프레스 인포름)

- 「드미트리 로고진」(나토주재 러시아 상임대표),
  -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하는, 군사부문에 핵 이용의 경계 선상에 있는 국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은 아니다.'
- 「바짐 레이데르만」(前 모스크바 주재 이스라엘 무관),
  - '북한은 몇 차례의 폭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로켓발사체 보유는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 할 수 있다.'
- 「빅토르 예신」(前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
  - '사실상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력 사용도, 6자회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은 전적으로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 「게오르기 툴로라야」(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실장),
  - '북한은 인정받지 않은 핵보유국이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지 모를 도발과 긴장심화를 우려해 미국은 핵 국가와 대화하듯 북한과 협상하게 됐다. 한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교훈을 주었다.'
- 「세르게이 카라가노프」(외교국방정책 평의회 의장)
  - '북한의 케이스를 따르는 국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란을 저지할 방법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선은 비난하지만 폭발 가능성을 우려해 대북원조를 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

## □ 일본어권

### ○ 북한의 위성 공개 및 조립 완료 보도 (4.8 NHK)

- 북한측은 카메라와 안테나, 태양전지를 갖춘 인공위성 실물과 발사종합지휘소 내부를 공개했지만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개량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
- 로켓 연료로 구 소련의 탄도미사일 연료 등에 이용된 '디메틸 히드라진'이 사용될 가능성 있으며, 3년전 발사 때도 이 연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 日군사기술전문가, '1단에 노동미사일 4개 장착' (4.9 NHK)

- 「다구치 츠토무」(해상자위대 전 장교),
  - '형태 및 크기는 3년전 발사된 대포동 2호와 거의 비슷함. 이번 발사는 미사일의 비행과 분리가 프로그램대로 확실히 이뤄질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일 것임.'
  - '1단 하부에 로켓엔진 분사구가 4개 있음. 지금까지 대포동 2호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을 4개 묶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영상으로 확인됨.'

- '발사가 성공할 경우 북한은 사정거리가 긴 대형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게 되며 미국과 아시아 각국에 큰 위협이 될 것임.'
- '매우 민감한 인공위성을 공개하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임. 정보수집용인 복잡한 위성이 아니라 노래 등을 전송하는 위성일 것임. 북한은 위성을 핑계 삼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음.'

○ 북한 미사일, 이번에는 성공확률 70~95%로 예측 (4.8 산케이)

- 인공위성이라고 칭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납았지만 꾸준히 개량했다'는 이유로 70~95%의 높은 성공률을 예측하고 있음.
- 실험용급인 '실증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한다면 대륙간탄도탄과 같은 수준의 기술확보가 됨.
- 「나가토미 노부오」(우주공학 애널리스트),
  -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겸한 로켓임. 완벽하지 않지만 2단 분리에 성공한 2009년 실험은 90% 성공한 것임. 오래된 방식이지만 기술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음. 3단이 점화 되지 않더라도 7,000km 정도 비행할 수 있는 능력 있음.'
  - '향후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사정거리 5,500km 이상)의 양산체제 지향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
- 「가네다 히데아키」(전 해상자위대 간부),
  - '북한이 앞선 노동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제공했지만 실증 위성은 이란이 먼저 성공했음. 이번 발사 배경에 양국의 기술협력 관계가 당연히 있을 것임.'
  - '인공위성과 ICBM은 고도조정과 명중 정확도 등 구체적 기술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성발사 성공은 ICBM 기술 수준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주장

「에야 오사무」(군사정보에 정통한 저널리스트),

- ‘이번 발사의 성공 확률은 높다. 구 소련도 미국도 1950년대, 60년대에 인공위성을 발사해 ICBM을 개발했으므로 북한도 그럴 것이다.’
- ‘한국은 두 차례 위성발사에 실패한 적이 있으며, 북한이 먼저 성공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큰 정치선전이 될 것이다.’
- ‘북한은 발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에 상관없이 다음 단계로 핵실험실시를 예고할 것이다.’
- ‘현재 미국은 이란문제와 핵실험을 동시에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며, 위성 발사와 이에 이은 북한의 위협이 아시아의 전략환경을 격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 붙임 1. 美 AP통신 보도 원문 (4.8)

美 AP통신 홈페이지

"N. Korea rocket launch draws more worry than Iran's"

- o Th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cerned about both countries' satellite launches, which require technology also needed to launch missiles, Pyongyang's efforts are seen as a greater threat, in part because it already is believed to be capable of producing nuclear weapons.
- o "They are deliberately pushing the envelope," said James Moltz, a professor at the U.S. Naval Postgraduate School in Monterey, California. Moltz said the launches underscore how both countries, isolat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struggling to develop military capabilities that no one else wants them to get."
- o For Iran, long-range missiles are seen as a key to keeping Israel at bay. North Korea wants a credible threat to counter the United States. Nothing could accomplish that better than raising the fear that it will put a nuclear weapon on the tip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ough North Korea is not yet believed to be capable of making weapons small enough.
- o But playing the satellite card has two big pluses for North Korea and Iran. The launches augment data for military programs and at the same time boost national pride, just as the U.S., Soviet and, more recently, Chinese space programs have done for their countries.
- o Recent satellite work by South Korea could complicate efforts to get North Korea to stop, said physicist David Wright of 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South Korea has developed a space launcher – interestingly, using Russian technology – and has been trying to place satellites in orbit," Wright said. "South Korea is currently negotiating with the U.S. to allow it to deploy missiles with longer range – the current range limit is 300-600 kilometers (185-370 miles). So North Korea is likely feeling a double standard, and probably does not want to be shown up by South Korea."
- o The upper stages of the rocket North Korea used in its 2009 launch bore several similarities to the Safir, which suggests ongoing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programs.
- o "It is known that North Korean rocket experts were in Iran in the 1990s," said Markus Schiller, an analyst with Schmucker Technologie in Germany and a leading expert on North Korean missiles. "Personally, I would expect a continuing cooperation between these countries on the missile-rocket sector, but it remains unclear to what degree they still cooperate."

## 붙임 2. BBC News / CNN / AP 보도 원문 (4.8)

### BBC News 홈페이지

“North Korea moves rocket into place for launch”

- o What worries many is not what the rocket is carrying but what's underneath it. North Korea already possesses nuclear bombs, and it's now developing missile technology, too.
- o The satellite is meant to show the world that the North is now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but we saw little that looked strong or prosperous.
- o 'This has been planned long ago. This launch is done on the occasion of 100th birthday of our President, Kim Il-Sung. We are not doing it for provocative purpose.
- o In the control room, they say, everything is ready of lift-off this week.
- o 'North Korea has problems feeding its own people, does he think it's right to spend this much money and effort on this program?' 'if we don't develop our own technology, we will become slaves. We need our own technology to be an advanced country, to be a powerful space nation.', says the launch director.

### CNN 홈페이지

“North Korea readies controversial rocket launch”

- o An independent European analyst who visited the launch site said he saw nothing obvious that raised red flags. "I don't know what they want to do in the future, but today what we see is a space launcher," said Christian Lardier.
- o Despite North Korea's assurances, scepticism of course is going to remain, particularly from the United States, always wary about the intentions of an unpredictable country.

Associated Press

“Rocket in position at launch pad in North Korea”

- o Jang denied the launch was a cover for a missile test, saying the relatively diminutive rocket and fixed Sohae station would be "useless" for sending a mobi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o "During the recent senior-level North Korea-U.S. talks, our side made clear there's only a moratorium on long-range missile launches, not on satellite launches," he said. "The U.S. was well aware of this."
- o He said two previous satellites also named Kwangmyongsong, or Bright Shining Star, were experimental, but the third will be operational.
- o However, Brian Weeden, a technical adviser at Secure World Foundation who is a former Air Force officer at the U.S. Space Command, questioned whether North Korea truly has the technology to successfully send a satellite into orbit.
- o "The end goal is to test and develop their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show their people and the world that they are strong," Weeden said from Washington.

**붙임 3. 中 환구시보 보도 원문 (4.9)**

환구시보 홈페이지

“专家：中国已开始为控制朝鲜卫星“事后危机”做工作”

- o 周边国家应对摘要：中国人民大学国际关系学院副院长金灿荣认为，从8日召开的中日韩外长会来看，中国已经开始为控制事后危机做工作。英国《卫报》引述朝鲜问题专家罗伯特·威洛比的话说，现在是西方同朝鲜重新打交道的时候了。
- o 据4月9日出版的《环球时报》报道，朝鲜卫星发射愈演愈烈的同时，亚洲外交也如火如荼地运行着。韩国KBS电视台报道称，正在中国召开的中日韩三国外长会议，集中讨论了朝鲜发射卫星的问题。报道称，三国外长在8日的会谈中，“一致认为”朝鲜发射火箭是违反联合国安理会决议的行为，此前安理会的相关决议明确要求朝鲜禁止一切利用导弹技术的发射活动。
- o 中国人民大学国际关系学院副院长金灿荣认为，从8日召开的中日韩外长会来看，中国已经开始为控制事后危机做工作。未来可能出现几种情况；第一种是朝鲜发射成功，美日韩可能会闹上安理会。安理会像2009年那样通过一项谴责朝鲜的主席声明，朝鲜可能进行第三次核爆。第二种是美日韩拦截成功，朝鲜会非常尴尬，有可能做出其他举动。第三种是拦截不成功，美日韩会非常尴尬。

## 붙임 4. 中 인민일보 보도 원문 (4.9)

### 인민일보 홈페이지

#### “朝鲜卫星发射后将在太空播放金日成之歌”

- 4月8日一大早, 记者按照昨晚朝方通知的要求, 来到了平壤羊角岛酒店。记者看到, 来自美联社、法新社、路透社、共同社等多个国家媒体的近80名记者正在酒店大厅里互相交流, 等候出发。在接受安检后, 各国记者一道乘坐朝方提供的大巴前往火车站, 换乘专列驶向此次采访的目的地——朝鲜西海卫星发射场。
- 经过将近5个小时的行程后, 专列终于在一处四面环山的地方停了下来。记者看到列车附近到处是干涸的泥土和光秃的山坡, 几幢低层建筑零散地分布在周围。这时车厢里突然有人发出了惊呼声, 顺着他目光的方向, 记者发现远处的群山中露出一截火箭发射架和白色的火箭, 后来确认这就是近期引起国际社会广泛关注的朝鲜“银河3号”运载火箭, 用于发射“光明星3号”卫星。
- 朝鲜西海卫星发射场总负责人张明进一出现就被记者们围了个水泄不通, 大家争先恐后地向他询问“光明星3号”卫星发射的相关准备情况。张明进毕业于朝鲜金日成综合大学物理系, 从事本职工作已经20多年, 他首先简单地向记者们介绍了西海卫星发射场的有关情况。他说, 西海卫星发射场位于朝鲜平安北道铁山郡, 于2009年4月正式完工, 发射场内的主要建筑物包括联动试验场(进行卫星和火箭组装的实验场)、卫星发射场、综合指挥所、发动机试验场和遥控试验场。在联动试验场内, 他向大家展示了“光明星3号”卫星实体, 据他介绍, 卫星成功发射之后将在太空播放《金日成将军之歌》和《金正日将军之歌》。
- 在介绍完西海卫星发射场总体布局和展示“光明星3号”卫星后, 张明进带着记者们走向卫星发射场。沿着山沟里铺设的水泥路一直前行, 经过一处较大的拐弯后, 卫星发射场的全貌清晰地展现在各位记者的眼前。在一片空旷的水泥地上只有一个发射架和固定在发射架上的白色火箭。在距离发射架和火箭200多米的地方, 记者们被禁止前行, 只能从这里进行拍摄。“银河3号”运载火箭上端的朝鲜国旗清晰可见, 火箭中下部分写着几个朝文大字“银河3号”, 几名工作人员正在发射架上忙碌着。张明进介绍说, “银河3号”运载火箭高30米, 直径2.4米, 卫星发射重量为91吨, 初始推动力为120吨, 目前“银河3号”火箭安装工作已经基本完成, 一声令下就可以进行发射。他强调说, 此次发射“光明星3号”卫星是朝鲜人民献给伟大领袖金日成诞辰100周年的礼物, 是事先早就计划好的安排, 绝对不是某些国家所宣传的“导弹发射”。世界上还没有哪个国家像朝鲜一样允许这么多记者携带摄像器材这么近距离地拍摄卫星发射场。某些国家说朝鲜准备发射导弹是非常可笑的事情。
- 随后, 在张明进的带领下, 记者们来到了综合指挥所。指挥所大厅前方摆放着几块大屏幕, 正在实时显示卫星发射场的有关情况, 几名工作人员正在电脑前操作着, 实时掌握卫星发射的最新进展。张明进介绍说, 目前火箭还没有加注燃料, 但从燃料加注到实际发射所需要时间不是太长, 朝鲜此次发射卫星不会对其他国家产生危害。最后, 张明进非常自信地表示, 此次卫星发射一定能够成功。



## 붙임 5.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보도 원문 [4.8]

이즈베스티야 신문 홈페이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ама готовит почву для ужесточения санкций ”

- После третьего за последние 6 лет испытания ядерного заряда станет ясно, что КНДР ? атомная держава, и тогда спрос с нее будет другой, - считает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Кореяского центра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 Если обнаружится, что северяне продолжают испытывать ядерные заряды, можно будет говорить уже не только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поставок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предметов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о и о полном запрет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третьих стран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а также о прямом военном давлении.
- Япония под предлогом защиты от обломков ракеты выстраивает военную структуру для защиты от Китая, - поясняет японист,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ШЭ Андрей Фесюн. У Южной Кореи свои интересы. Например, отвлечь внимание от скандала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еред выборами в парламент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намеченными на 11 апреля.
- В Сеуле сей час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скандал, связанный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в личных целях служеб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отрудниками канцеляр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и даже кандидат от про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партии настаивает на очень серьезном расследовании этих инцидентов, - поясняет Асмолов.
- Происходящим в регионе очень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и США - события в КНДР оправдывают усиление активности активности в регионе.

## 붙임 6. 러시아 익스프레스 인포름 보도 원문 (4.8)

### 익스프레스 인포름 언론사 홈페이지

“КНДР готовится перед войной провести последнее подземное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 Дмитрий Rogozin, постоя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Ф при НАТО: Она является страной,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 испыт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Держава- это обладатель ядерной мощи, способной к немедленному употреблению. Россия, США, Франция, Китай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Есть страны, которые скрывают наличие ядерной мощи, например Израиль.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тоит на грани приобрет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ей и присутствия ядерной энергии в военной технике. Но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она не является.
- Вадим Лейдерман, военный атташе Израиля: Потенциально. Корея облад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количеством плутония, чтобы сделать еще несколько взрывов. Имея ракетоносител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нести ядерную головку, она фактически становится ядерной страной.
- Виктор Есин, в 1994-1996 годах начальник Главного штаба ракетных войск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Де-факто- да, но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в лице ООН 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 признает ее как ядерную державу. Силowymi методами пытаться разоружи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едопустимо, а в рамках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 невозможно. Без Китая тут не обойтись, экономик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целиком зависит от Китая. Но он пока переводит стрелки на США.
- Георгий Толорая,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их программ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РАН: Да, но, как и Индия с Пакистаном, это не признанная ядерная страна. Но американцам придется вести диалог с КНДР как с ядерной страной, иначе последуют провокации и дальнейшая напряженность. Корея преподала урок США и всему миру, что игнорирование их мнения на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ах чревато дурны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 붙임 7. 일본 NHK뉴스 보도 원문 [4.8]

### NHK뉴스 홈페이지

#### “北朝鮮 “衛星” 公開 組み立て完了”

- 北朝鮮は、8日、北西部ピョンアン北道のトンチャンリに新しく完成した発射場に、19か国の報道陣およそ60人をピョンヤンから列車で案内しました。
- 発射場では、北朝鮮が「人工衛星の打ち上げ」と称して今月12日から16日までの間に発射すると予告している長距離弾道ミサイルが、1段目から3段目まで組み立てが完了した形で発射台に据え付けられています。
- 高さが30メートル、重さは91トンだということで、1段目の噴射口は4つあることが確認できました。側面には、北朝鮮の国旗や「銀河3号」を意味する「ウンハ3」というハン글が書かれています。また、北朝鮮側は、今回、搭載予定の実物だとするカメラやアンテナそれに太陽電池を備えた「人工衛星」のほか、最高指導者のキム・ジョンウン氏が3年前に訪れたという「発射総合指揮所」の内部も公開しました。
- 発射場の責任者は「人工衛星を搭載して燃料を注入すれば、すぐに発射できる。燃料は地下から自動で注入する仕組みで、時間はかからない」と述べ、発射に向けた準備が最終段階にあると説明しました。ただ、開発にかかる費用や今回改良が加えられた点などについては言及を避けました。
- 北朝鮮が打ち上げを予告している「人工衛星を載せたロケット」の燃料には、旧ソビエトの弾道ミサイルの燃料などに利用された「ジメチルヒドラジン」が使われる可能性があるとみられています。
- 「ジメチルヒドラジン」は、水素と炭素、窒素からできた有機化合物で、常温で液体のため長期の保管や取り扱いが容易なことなどから、旧ソビエトの弾道ミサイルの燃料などとして広く使われ、3年前、北朝鮮が事実上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際もこの燃料が使われたとみられています。
- 今回、陸上自衛隊は落下物によるけが人が出た場合などに備えて、沖縄本島と宮古島、石垣島、与那国島の4か所に、部隊を展開することにしており、万が一、燃料が地上に飛び散った場合に備えて化学防護車も使用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 붙임 8. 일본 NHK뉴스 보도 원문 (4.9)

### NHK뉴스 홈페이지

“専門家 “1段目にノドン4本装着””

- 北朝鮮がメディアに公開した事実上の弾道ミサイルについて、軍事専門家は、1段目は「ノドン」とみられる4本の中距離弾道ミサイルを束ねたもので、アメリカを含む各国にとって大きな脅威になりえると指摘しています。
- 北朝鮮が衛星の打ち上げ用だとして公開した事実上の弾道ミサイルについて、海上自衛隊の元海将補で軍事技術に詳しい田口勉氏は「形や大きさは3年前に発射された『テポドン2号』とほとんど変わらない。今回の発射は、プログラムした通りにミサイルの飛行や切り離しが確実に行えるかどうかを検証するのが目的ではないか」と話しています。
- そのうえで「1段目の下の部分に、ロケットエンジンの噴射口が4つ確認できる。『テポドン2号』はこれまで中距離弾道ミサイル『ノドン』を4本束ねていると言われていたが、今回、それが初めて映像で確認された」と述べました。
- そして「発射が成功すれば、北朝鮮は射程が長い大型のミサイルを制御できる技術を手にしたことになり、アジア各国やアメリカなどにとって大きな脅威になる」との見方を示しました。
- 一方、北朝鮮がロケットに搭載する本物だとして公開した人工衛星については「極めてデリケートな人工衛星をあのように公開するのは通常ならありえない。情報収集用の複雑な衛星ではなく、歌などを流すだけのものではないか。北朝鮮は衛星にかこつけて弾道ミサイルの技術を確認しようとしている」と話しています。

## 붙임 9.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4.8)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北朝鮮ミサイル、今回は成功確率95%?”

- 「人工衛星」と称する北朝鮮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について、複数の軍事専門家が「70~95%」と高い成功率を予測している。「古い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が着実に改良をしてきた」という北朝鮮のミサイル技術への評価からだ。今回、北朝鮮は海外から専門家やメディアを入れて打ち上げをみせるという。宣伝を狙っているのは明らかだが、自信の表れともいえる。打ち上げでは実験用クラスの「実証衛星」を飛ばす可能性が高いが、成功すれば大陸間弾道弾と同様の技術獲得となる。

- 北朝鮮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試射は1998年にテポドン1号(2段式)、2006年と09年にテポドン2号(3段式)が行われた。98年は日本海と三陸沖に落下、06年は失敗して爆発し、09年に太平洋上に落下した。98年、09年は「人工衛星」と称しているが、ともに衛星が軌道を周回している事実は確認されてない。
- だが、専門家が注目するのは06年に失敗したテポドン2号が09年、格段の技術革新で2段目の分離に成功した事実だ。
- 09年の発射について防衛省は、イージス艦追尾情報などを総合し「東北地方上空を通過、日本の東2100キロメートル、発射地点からは3000キロ以上を飛翔」と発表した。3000キロは、日本に関わる危険水域とみて追尾を行った距離で、追尾はこの時点で終了している。従って実際は「4000キロ以上飛んだ」との見方が多い。
- 09年の発射画像で詳細に検討した宇宙工学アナリストの中富信夫氏は次のように評価する。
- 「ミサイルと人工衛星を兼ねたロケットだ。完璧なものではないが、分離の成功である実験は90%成功したといえる。古い方式だが技術の信頼性が上がっている。第3段に点火できなくても7000キロぐらい飛ぶ能力がある」
- 中富氏は、98年以來の北朝鮮のミサイル技術に関する情報を総合すると、「今後は長距離弾道ミサイル(ICBM、射程5500キロ以上)の量産体制を目指すことが時間の問題になってくる」と予測している。
- 元海上自衛隊幹部(海将)でミサイル防衛に詳しい金田秀昭・岡崎研究所理事はイラン・北朝鮮関係に注目する。
- 「技術的に元々は北朝鮮が上流でノドンの技術をイランに提供したが、実証衛星はイランが先に成功している。今回の打ち上げにも両国の技術協力関係は当然背景にあるだろう」
- 一方、金田氏は人工衛星とICBMについてこう解説する。「衛星は、地球の重力を振り切る秒速7・9キロ(第1宇宙速度)達成が必要だ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が、射程1万キロのICBMは秒速6キロ以上だ。もちろん、高度調整や命中精度など個別具体的な技術はあるが、基本的には衛星打ち上げの成功はICBMの水準獲得と同じだ」

- 北朝鮮の軍事情勢に詳しいジャーナリストの恵谷治氏も「今回の発射の成功率は高い」とみる。
- 「実際に人工衛星を打ち上げると思う。もちろんひとつは平和目的を強調するためだが、旧ソ連も米国も1950年代、60年代に人工衛星を飛ばしてICBMを開発してきたわけで、不思議ではない。また、北朝鮮が衛星を打ち上げたい理由はもうひとつある。それは韓国が衛星打ち上げにすでに2回失敗しているからだ。韓国は10月までに3回目を予定しているが、北朝鮮が先んじて成功すれば、金正恩体制にとってこれほどの政治宣伝はない」
- 恵谷氏はまた、発射の成功、失敗に関わらず、北朝鮮は次に「核実験実施を予告してくるだろう」とみている。
- 「米国はイラン・イスラエル問題に手を焼いているが、北朝鮮は米国の外交・安保の最大の弱点を突いてくるだろう。現在の米国にとって、イラン問題と核実験への2正面作戦は困難だからだ。衛星発射とそれに続く北朝鮮の脅威の増大がアジアの戦略環境を激変させる可能性が高い」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美 우주 전문가, '군사용 미사일은 아니지만 매우 가깝다.'(4.9 NBC)
  - NBC와 함께 현장 참관한 「제임스 오버그」(前 NASA 우주 엔지니어),
    - '광명성 3호는 수준 이하였고, 진짜 위성인지 의심스러웠다.'
    - '북한측은 우리가 위성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을 허용했다. 오염으로부터 위성을 보호해야 하는데 북측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처음 봤을 때는 모형인 줄 알았고 며칠 후 발사될 위성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설계였고, 북한은 위성 설계를 비밀로 해왔는데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할 것을 알고 그랬을 수도 있다.'
    - '군사 미사일은 아니지만 98%정도는 비슷하다. 매우 쉽게 무기로 전환될 수 있으며, 위성 발사를 위해서 이 정도 크기와 비용의 추진체가 필요하지는 않다.'
    - '러시아도 서방과 경쟁하고 과시하기 위한 부란 우주왕복선 프로젝트가 80년대 소련 재정 파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기에 북한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북한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할지 상당히 의심스러우며, 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작동할 지 또한 매우 의문스럽다.'
    -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서 얻으려고 하는 위성 사진이나 기상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곳은 많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을 봐서 발사 목적이 딴 곳에 있을 것이다.'
    - '로켓을 다른 국가에 팔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이 국가들도 평화적 목적을 위해 로켓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 美 국제안보 전문가, '올해 말 경 핵실험 가능성 배제 못해'(4.9 CNN)

- 「짐 월쉬」(MIT大 국제안보전문가),

- '북한의 미사일은 현대 미사일 프로그램의 특징인 고체 원료와 현대식 유도시스템이 모두 없으므로 15년간 4차례의 장거리미사일 시험은 활발한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 '지난 두 위성 발사 때처럼 위성이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큰 우려가 되고 있다. 미사일 자체가 걱정이 아니라 미사일이 타국 영공을 침해해서 일본이나 한국이 요격하고 국제적인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미사일 발사가 국제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고 북한이 맞대응하는 것이다. 사태가 고조되면 올해 말경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 美 국방부, '北 로켓 발사 준비에 진전이 보인다.'(4.9 AFP통신)

-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

- '북한은 국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계획을 진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 '우리는 북한이 발사 강행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실험도 북한의 국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

○ 필리핀 대통령,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비난(4.9 CNN)

-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어떤 발사도 불필요한 도발이며, 이는 동남아 지역의 긴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비난

□ 러시아어권

○ 러시아연방공군, 북한로켓 궤도 벗어날 시 격추시킬 것이다.

(4.10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러시아연방공군 참모본부, '북한 로켓발사체 궤도에서 벗어나 러시아 영토로 추락할 위협이 있을 경우, 항공·우주방어군은 격추할 태세를 갖췄다.'



2012.4.10(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하지만 전투 대비태세 혹은 미사일·대공 방어망 등급 격상과 같은 특별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
  - '로켓추락 예보시스템과 우주통제시스템은 상시 준비태세에 있으며, 실시간으로 항공·우주 공간을 감시한다. 동부지역의 대공 방어망도 실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
- 5월 중순,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4.9 코메르산트)
- 「파벨 레샤코프」(모스크바 국립대 한국학센터 소장),
    - '2009년 은하 2호 발사 후 이루어진 대북제재에 반발한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 '하지만 이번의 경우 미국은 과거보다 신중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많은 저명한 전문가들이 백악관에 이를 권유하고 있다'고 주장
-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 '광명성' 보고 실망했다.(4.9 NTV)
- 북한 발사장 현지에서 로켓의 모습을 본 리포터들 사이에서 실망스런 한숨이 나왔음.
  - 모두가 비밀 탄도미사일이라 생각했던 북한 기술의 기적은 구식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정확한 발사일은 아직 알려진 바 없음.
- 북한 위성은 평화적인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4.9 제 1TV)
- 「이고르 마리노」(치올코프스키 우주아카데미 연구원),
    -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근본적으로 위성 대신 다른 것을 장착할 수 있다.'
    - '로켓 조종시스템에 궤도진입 프로그램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떨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는 사실상 일반 ICBM과 같다'고 주장
- 북한은 발사의 평화적인 목적을 국제사회에 입증해야한다.(4.9 글로스 러시아)
-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로켓프로그램의 폐쇄성이며, 법적으로 그 어떤 국가도 북한의 우주공간 개발을 저지할 수 없는 상황임.

- 「포르르 토피카노프」(국제안보센터 분석관),
  - '많은 국가들이 우주기술 부문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로켓 기술을 발전시킨다. 문제는 북한과 같은 국가가 이러한 기술을 ICBM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알렉산드르 보론초프」(극동연구소 한국·몽골 과장),
  - '북한의 위성발사는 국제법상 상충되는 부문이 있다. 평화적으로 우주공간을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조약과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충돌하는 것이다'고 언급

## □ 중국어권

### ○ '北 위성 발사로 다섯 가지 문제에 직면한 中 외교' (4.10 환구시보)

- 「장톈구이」(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 韓·美·日은 즉시 요격한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나라는 오히려 비당사자인 중국이며, 다섯 가지 외교적 문제에 직면했다.
  - 첫째, 북한 위성 발사 참관 여부
    - '참관에 응하게 되면 이는 곧 북한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기존의 '관심과 우려'라는 공식 태도에 어긋나고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게 됨.'
    - '또한 핵확산 혐의를 받는 국가로 간주되어 중국 외교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반면 초청을 거절하면 북한의 불만을 살 수 있음.'
  - 둘째, 북한 위성 발사 후 중국의 항의 제기 여부
    - '북한은 안보적 문제로 궤도를 최대한 서쪽으로 발사할 것인데 이는 중국의 영토 침범 가능성 있음.'
    - '이에 중국이 항의하면 中·北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국내 여론 반발 가능성 있음.'

- 셋째, 안보리 제기後, 중국의 투표 향방
  - ‘위성 발사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韓·美·日은 안보리의 對北 제제안을 채택하려 할 것이고, 이 때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며, 사실 북한 문제는 중국 태도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중국이 △대북 제제결의안 지지할 경우 서방의 칭송을 받으나 북한의 미움을 사게 되고, △부결권 행사할 경우 중국을 북한 지지자 혹은 이익 대변인으로 간주하여 韓·美·日이 외교·정치·군사적으로 對中 압력을 행사할 것임.’
- 넷째, 국제사회의 후속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안보리 對北제제안, 의장성명은 모두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중국이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하느냐 혹은 변화를 주느냐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 국제정치 문제이자 국내 정치 문제이기도 함.’
- 다섯째, 국제사회의 중국 對北지원에 대한 비난 대응
  - ‘중국의 對北 지원이 북한의 현재 행보와 무관함을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함’이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北, 4.16일에 미사일 발사할 듯하다. (4.10 TBS뉴스)
  - 「이즈미 하지메」(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발사실패로 김정은의 권위가 떨어지는 리스크를 피해야 하므로 4.16일 발사가 제일 가능성이 높음.’
    - ‘4.15일이 중요한 날이므로 그 전에 발사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4.16일까지 발사예정기간에 포함시킴. 4.16일이 가장 안전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 2009년 미사일과의 차이점 (4.10 후지tv)

- 「오카베 이사쿠」(군사평론가),

- ‘2009년 미사일의 분사구 하단에는 검은색 판자 같은 것이 두 개 있었음. 아마도 분사방향을 조절해서 로켓을 컨트롤 하는 이른바 ‘날개’같은 것임.’
- ‘그러나, 이번 미사일에는 날개가 보이지 않음. 즉, 북한은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일을 컨트롤하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려고 함.’
- ‘또한, 발사대 윗부분에 미사일의 뾰족한 끝부분을 지탱하는 오렌지색의 물음표 모양을 한 지지대가 두 개 있음.’
- ‘이것은 향후 사정거리가 약 1만 km인 더 큰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

○ 北 위성, 고성능 기능은 없지만 통신은 가능 (4.9 마이니치신문)

- 위성치고는 소형이기 때문에 북한이 설명한 용도로는 쓰기 어려울 것이나 외관으로 볼 때 기능을 충족시켰다는 의견도 있음.

- 「마토가와 야스노리」(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명예교수),

- ‘크기로 보면 지구의 사진 촬영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기상 예측이나 자원탐사 등의 고성능 기능은 없는 것이 분명함.’
- ‘로켓은 위성을 탑재한 뒤 발사대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제부터 탑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함.’

- 「아키야마 히로아키」(와카야마大 우주교육연구소 소장),

- ‘공개한 위성 윗부분의 금색부품이 지구를 관측하는 망원 광각렌즈이며, 윗부분을 지구를 향하게 하여 관측할 것임.’
- ‘봉처럼 생긴 것이 정보를 지상으로 보내는 안테나일 것이며, 고도 500km로부터의 통신은 가능할 것임.’
- ‘그러나, 공개장소가 클린 룸이 아님. 옛날 위성이라면 모를까 가는 전기회선이 사용되어 먼지에 약한 최근 위성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

## 붙임 1. NBC 보도 원문 (4.9)

NBC 홈페이지

“NBC space expert on North Korea satellite launch: 'It's not a military missile ... but it's darn close”

- o So NBC News invited James Oberg, our “Space Consultant,” to accompany us into North Korea to view the Kwanggmyongsong-1 satellite. With a 22-year career as a space engineer in support of NASA's spaceflight operations, Oberg has the experience and technical expertise to determine the veracity of North Korea's claims about this mission.
- o The satellite did not meet the expectations I had. I have to ask myself whether these expectations may have been too narrow, but at the same time it raised questions in my mind as to how real what we were being shown was. We asked whether this was a mock-up; in fact, we kept on asking them again and again because they insisted this was a real satellite.
- o The problem is the North Koreans didn't just let us in [to the same room as the satellite], they let us get much too close. So you need to protect the satellite from contamination - from touching, from people breathing on it, sneezing on it. They didn't protect the satellite from any of that.
- o I thought at first it was a model. I couldn't believe it was the one being launched in a few days. It's certainly not a design I've seen much before. They kept its configurations a secret. Maybe it's because they realized it was going to puzzle people.
- o It's not a military missile ... but it's darn close. Like we've said on TV, this rocket is not a weapon, but it's maybe 98 percent of one. It can be converted all too easily and all too frighteningly into a weapon, and they don't need it. They don't need a booster of this size, of this cost, to launch a satellite they say they want to.
- o For example, the Russians were seriously involved in building similar projects like their own Buran space shuttle just to compete and show off to the West. And they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bankrupting their own intellectual potential and real budgets in the 1980s as [the Soviet Union] was grinding to a halt. Those lessons should be taken to heart in a rational -- hypothetically rational -- North Korean regime.

NBC 홈페이지

- o I wouldn't want to put a number on it, but in my opinion it's significantly in doubt that they'll get this thing into orbit. And then, once it's in orbit, I think it's significantly in doubt that they can make it work.
- o There are a number of providers who already supply the information this satellite is supposed to provide like taking orbital pictures, providing weather data, etc. They are spending far too much money for a service they can easily obtain elsewhere. So the reasons for the launch must lie elsewhere. They probably want to sell these rockets to other countries. These other countries probably don't want them for peaceful purposes either.

**붙임 2. CNN 보도 원문 (4.9)**

CNN 홈페이지

"What's behind North Korea's launch plans?"

- o There are two characteristics if you have a modern missile program: One is solid fuel, and the other is a modern-guidance system. This missile has neither of those. And four tests, four long-range missile tests over like 15 years, is not a very active missile program.
- o The big worry is they're going to fire it up there, and it will get wobbly on them and start to veer off course like the last two did. That's the real concern I have: not the missile itself but that the missile might stray into foreign airspace and that Japan or South Korea might feel inclined to shoot it down and then suddenly we're off to the races with an international incident.
- o But I'm afraid what we're really looking at here, further down the road, is there's going to be the missile test, then there's going to be international reaction, and then (North Korea) is going to have to push back. So I would not rule out a nuclear test sometime later this year if this continues to ratchet up.

### 붙임 3. AFP통신 보도 원문 (4.9)

#### AFP통신 홈페이지

"US sees 'additional steps' toward NKorea rocket launch"

- o North Korea has taken "additional steps" towards the launch of a long-range rocket despite international pressure against it, the Pentagon said Monday.
- o "We believe they've taken additional steps for a possible launch," Pentagon spokesman George Little told reporters, adding that any such test "would be a violation of North Korea's international obligations."

### 붙임 4. CNN 보도 원문 (4.9)

#### CNN 홈페이지

"North Korea planning new nuclear test, South Korean intelligence report says"

- o Bill Richardson, the former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said Kim Jong Un may be trying to consolidate his leadership by sending a message to two audiences --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 may be trying to establish himself as in charge. But his most important audience is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party leaders, he told CNN. "He's trying to show them that he is not going to buckle down from the United States or the six-party talks or China; that they're going to proceed with this launch; that they're going to proceed with him taking over the leadership of the country."
- o Richardson urged the United States not to react in haste. "Let's see what eventually happens," he said. "This is how the North Koreans operate: They try to send these huge, scary messages by these actions."
- o Analysts say the planned trajectory of the multistaged rocket's path is north to south over the Yellow Sea, with the main body of the projectile eventually landing in the Pacific Ocean near the Philippines.
- o President Benigno Aquino III of the Philippines has condemned any such launch as a "needless provocation" that could increase tensions in Southeast Asia.

## 붙임 5. 러시아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보도 원문 (4.10)

###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Россия готова уничтожить ракету из КНДР, если она отклонится от курса”

- Российские средства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и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ы готовы уничтожи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ракету "Ынха-3" ("Млечный путь") в случае ее отклонения от курса и угрозы падения на росси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сообщает 10 апреля Интерфакс со ссылкой на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Ф.
- "В случае отклон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от курса и возникновения угрозы ее падения на нашу территорию Войска воздушно-космической обороны (ВКО) готовы сбить эту ракету", - сказал собеседник агентства. По его словам, н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принимать каких-т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 по переводу в повышенные степени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сил и средств ПРО и ПВО в связи с предстоящим пуско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кеты.
- "Система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о ракетном нападении и система контроля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работают в условиях постоянной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и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отслеживают обстановку в воздушно-косм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редства ПВО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также круглосуточно несут боевое дежурство по охране воздушных рубежей страны", - сказал собеседник агентства.

## 붙임 6. 러시아 코메르산트 보도 원문 (4.9)

### 코메르산트 일간지 홈페이지

“КНДР выследили на ядерном полигоне”

- Как рассказал "Ъ" директ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МГУ Павел Лешаков, оба раза подземным взрывам предшествовали запуски ракет. "В 2009 году Пхеньян запустил "Ын



코메르산트 일간지 홈페이지

ха-2", после чего против КНДР были введены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анкции. В ответ северокорейцы выгнали из страны экспертов МАГАТЭ, вышли из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и провели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напомнил эксперт. Три года назад пауза между испытанием ракеты и ядерным взрывом составила месяц. Таким образом, испытание на полигоне Пхунгери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уже до середины мая.

- По оценке Павла Лешакова, на этот раз от США можно ожидать куда более сдержанной реакции, чем ранее.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отмечает эксперт, к этому Белый дом сей час активно склоняют авторитетные советники и аналитики.

## 붙임 7. 러시아 NTV 보도 원문 (4.9)

NTV 방송사 홈페이지

“Репортеров разочаровала «Лучезарная звезда» Пхеньяна”

- Чуд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технической мысли- спутник «Кванмёнсон», о котором все думали как о секрет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е- оказалось выполненным в ретроманере. Когда наконец показали саму ракету, репортеры разочарованно выдохнули: чуд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технической мысли оказалось выполненным в ретроманере. Правда, это не мешает корейцам гордиться белым цилиндром с национальным флагом на борту.

## 붙임 8. 러시아 1TV 보도 원문 (4.9)

1TV 방송사 홈페이지

“ракета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а не только в мирных целях”

- Высказывается мнение, что эта ракета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а не только в мирных целях. "В принципе вместо этого с

1TV 방송사 홈페이지

путника можно же поставить что угодно. Правильно? А дальше система управления ракеты - закладывается в нее программа, что она выходит на орбиту и выводит на орбиту спутник. А можно заложить другую программу, чтобы эта ракета не вышла на орбиту, а упала в какой-то заданный район, то есть это та же самая обычная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ая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для несения любой бомбы", - сказал академик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космонавтики им. К.Э.Циолковского Игорь Маринин.

**붙임 9. 러시아 콜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4.9)**

콜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КНДР не откажется от Млечного Пути”

- Петр Топычканов. "Сегодня целый ряд стран развивают ракетные технологии, параллельно продвигаясь в области косм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 сказал он. - Вопросы в этой связи вызвали космические разработки Ирана, который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параллельно с космическими запусками увелич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своих ракетных сил. Такие же вопросы возникают в адрес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Эти технологии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при создании ракет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дальности, способных доставить ядерный боезаряд, например, в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Америки".
- "Существует коллиз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равовом видении этой проблемы.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ес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оговор, разрешающий всем государствам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ирном освоении космоса, к которому и апеллирует КНДР.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уществует известная резолюция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запрещающая Пхеньяну запускать ракеты. С юрид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КНДР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договор по своему статусу имеет приоритетное значени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резолюцией - даже если это резолюция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 붙임 10. 中 환구시보 보도 원문 (4.10)

### 中 환구시보 홈페이지

“张琯瑰：朝鲜发卫星，中国面临五“烤””

- 朝鲜宣布将于4月中旬发射卫星，美日韩誓言一旦其发射物犯境必行击落，业已布兵就位，只待令下。对阵双方皆是先谋而后动，其实在这场战争边缘游戏中，真正被置于火上“烤”验者不是游戏者，而是“非当事者”的中国。中国外交面临5个“烤”验。
- 第一“烤”，中国是否接受朝鲜邀请派代表赴现场观察发射。朝鲜为示其发射和平性质，已向8个国家和有关国际组织发出现场观察发射过程的邀请。美日俄等国已明确拒绝。中国面临抉择。如接受邀请赴现场观察，一是即使在现场也无法做出和平还是非和平利用的结论，而赴现场这一行动本身即是对朝鲜发射行为的支持，与此前中国对此事深表“关切和忧虑”的正式表态相悖，或将引起国际社会的质疑和猜测；二是此举可能使国际社会相信，中国与极少数几个被认为有核扩散嫌疑的国家为伍，中国外交进一步被“固化”。而如果中国拒绝出席观察，也将招来朝鲜方面不满。
- 第二“烤”，万一朝鲜发射“出偏”犯境，中国是否提出抗议。美日韩已对朝鲜发射做了军事应对部署。为保安全，朝方可能尽量使发射物轨道西移，这样侵犯中国主权的可能性增加。一旦出现这种情况，如果中国明示抗议，朝中关系将受影响，如中方息事宁人，则中国面临来自国内民意的压力。
- 第三“烤”，“朝鲜发射”被再次提交安理会讨论后，面对美日韩决议草案，中国将如何投票。无论朝鲜这次发射是“成功”还是“失败”，美日韩必然将之提交安理会讨论，并力主通过一项对朝谴责制裁的决议。届时，中国持何态度便成焦点，朝鲜问题实际上被转换成中国态度问题。中国有三种选择：一是支持美日韩决议草案，这会使中国获西方赞扬但得罪朝鲜；二是行使否决权，美日韩将进一步视中国为朝鲜过激行为的支持者和利益代言人，加大对中国外交、政治和军事压力，中国外交处境和周边环境进一步恶化；三是力主用“主席声明”取代“谴责和制裁决议”，这种中庸选择可能性最大，但两面不讨好。
- 第四“烤”，国际社会对朝鲜将采取的后续行动，中国持何种立场。无论安理会通过的文件是“决议”还是“主席声明”，朝鲜极可能有激烈回应，甚至借机进行新一轮核试验。对此，中国是继续坚持既定对朝政策，还是进行某种调整，这就不仅是一个外交和国际政治问题，也是一个国内政治问题了。
- 第五“烤”，面对半岛日益危险的局势，如何回应国际社会对中国援助的指责。中国本着“稳定为先”既定思路，给朝鲜提供大量援助。这引来国际社会的一些不满，奥巴马日前就公开指责中国对当前朝鲜一系列举措负有责任。中国如何让国际社会相信中国的援助与当前朝鲜过激言辞和举措无关，是一个难题。

## 붙임 11. 일본 TBS뉴스 보도 원문 (4.10)

### TBS뉴스 홈페이지

“「ミサイル」発射はいつ?”

- 北朝鮮が“人工衛星”の打ち上げを行うと予告した期間は、「12日から16日までの午前7時から12時」です。人工衛星の打ち上げは気象条件に大きく左右されますが、発射施設のある北朝鮮北西部の天気は、15日以外、強い風や雨など不安定な状況が続くという予報もあり、打ち上げに影響を与える可能性も出てきています。ミサイル発射はいつ行われるのでしょうか。
- 「(Q. 発射の日程は何日だと思いますか?) 可能性が高いのは16日だと思います」(静岡県立大学・伊豆見元教授)
- 伊豆見教授は、重要な政治日程が続く中で、打ち上げ失敗により「ジョンウン氏の権威が落ちるリスクを避けるのでは」との見方を示します。さらに、発射予告日の設定にも意味があるとみています。
- 「15日は重要な節目で、その前に(発射)すべきなのに、最初から16日まで発射予定の期間に入れている。16日が一番安全な日だと考えている可能性がある」(静岡県立大学・伊豆見元教授)

## 붙임 12. 일본 후지tv 보도 원문 (4.10)

### 후지tv 홈페이지

“北朝鮮が公開した事実上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について、岡部いさく氏の解説です。”

- (2009年、前回のミサイルと、今回公開されたミサイルを比べて、注目されるポイントが2つ。1つが噴射口ですが、どこが注目でしょう?)
- まず、前回の打ち上げのシーンを見てください。(噴射口の下の部分)ここは、ロケットの噴射炎が出ていますね。そここのところに、黒い板のようなものが見えます。これはおそらく、噴射の方向をこの板で変えて、ロケットをコントロールする、いわゆる「ベーン」というもののように見えるんですね。(一方、今回のミサイルの噴射口は)ここに4つ、うっすら噴射口が見えるんですが、前回と同じだとすると、ここにこう、ベーンという板が本当はあるはずなんです。しかしこれね、見えないんです

후지tv 홈페이지

よ、ペーンがないんです。それで、向こう側が透けて見えていますよね。つまり、ペーンを使わずにミサイルのコントロールをする、そういう新しい技術を、北朝鮮は試そうとしている。それをすでに会得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るわけです。

- (そして、もう1つ注目された部分がありますが?)
- 発射台の上のほうですね。ここに今回のミサイルの先端部分、3段目の上のところが写っています。ここに、オレンジ色のちょっとはてなマークのような形をした。これ、ミサイルの先端部を支えるアームなんですが、これが見えていますよね。それが実は、もう1つあります。つまり、これが支えるようなミサイルを、この発射台から打ち上げる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ふうに作られているようなんですね。
- (さらに大きなミサイルを今後、作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か?)
- そうですね。今のミサイルが、射程が6,000kmとも8,000kmともいわれています。それより、さらに大きいとなると、射程はおそらく1万km、たとえばアメリカにまで届くような、そういうミサイルの開発を、北朝鮮は考えているののかもしれない。

**붙임 13.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 원문 [4.9]**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北朝鮮「衛星」>高い機能ない 通信は可能 専門家分析”

- 北朝鮮が公開した「人工衛星」の写真を基に、衛星に関わる専門家に分析してもらった。衛星としては小型のため、北朝鮮の説明する用途での使用は難しいという見方がある一方、外観からは機能を満たしているとの意見も出た。
- 地球を詳しく調べる衛星の重量は、1トン以上あるのが一般的だ。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JAXA)の陸域観測技術衛星「だいち」(現在は運用終了)は約4トンだった。JAXAの的川泰宣名誉教授は「大きさからすると、地球の写真の撮影くらいは可能だろうが、気象予報とか資源の探査といった高い機能はないことは確かだ」と疑問を呈する。またロケットの先端部に収容する衛星を打ち上げ直前に地上で公開したこと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も「これから上空につり上げて収納するというのは、作業が困難になり、普通は考えられない」と指摘した。

- 一方、小型衛星に詳しい和歌山大宇宙教育研究所の秋山演亮所長は「衛星だとすると、上面の金色の部品が、地球を観測する望遠や広角のレンズで、上面を地球へ向けて観測するのだと思う」と話す。上部を重くし、地球の重力で引っ張ってもらうなどの方法で、レンズのある上面を地球へ向けられるという。
- また棒のような突起物が、情報を地上に送るアンテナの可能性があると推測し、「衛星を打ち上げるという高度500キロからの通信は可能だろう」と話す。側面を覆うのは、起動電力を得るための太陽電池パネルとみられる。ただ「公開場所はクリーンルームではなさそう。昔の衛星ならともかく、細かい電気回線が使われていて、ほこりに弱い最近の衛星では考えにくい」としてい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北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참관 서방언론 보도

(4.11 NBC, BBC 4.12 CNN)

##### - CNN

- 「유리 카라쉬」(러시아 우주정책 전문가), '핵탄두는 여행가방 정도 크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켓에 탑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위성이다.'
- 「박 한」(美 조지아대 북한전문가), '위성이냐, 미사일이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관건은 북한의 동기다.'
- 지난 몇 일 동안, 이번 발사는 기술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을 기념하기 위한 정신적 목적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음.

##### - NBC

-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시설은 원시적이었으며, 기술자가 16명, 유선 전화가 6대 밖에 없었고, 대형 스크린이 로켓 실험을 생중계하고 있었음.
- 서방 전문가들은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로켓 발사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화하려는 북한에게 큰 수모가 될 것임.

##### - BBC

- 평양에서 30분 떨어진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내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로켓의 실시간 실험이 전송되고 있었음.
- 폭우로 인해 로켓은 방수포에 싸여 있었지만 연료는 계속 주입되고 있었으며, 북측은 예정대로 발사가 이번 주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음.

○ 美 전문가,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北 핵확산을 막았다고 주장

(4.10 CISI 기고)

- 「스콧 스나이더」(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한반도 전문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발간 보고서에서 북한 핵확산에 대해 분석
  - 'CFR 한반도 독립태스크포스의 2010.6월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수직적 확산(대량살상무기[WMD]의 성능 향상)과 수평적 확산(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이전)을 시도해 왔다.'
  - '지금까지 북한의 수평적 확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2007.10월 이스라엘이 플루토늄 시설공사 중이었던 시리아 핵시설을 폭격한 것이다.'
  - '이스라엘 폭격 전에는 북한이 시리아에 핵기술을 지원했다는 것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 '이스라엘의 시리아 시설 폭격과 유사하게 북한의 수직적 확산을 막으려는 억지 노력은 없었다.'
  - '북한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다단 로켓 실험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 '이에 따라 북한이 과거 세 차례 실험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도 북한 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을 정책적 옵션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다.'
  - '국제적인 비난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도 북한의 계획을 막지 못했고, 유엔 안보리의 노력이 지금까지 효과가 없다는 점은 현재 북한의 발사 계획에 빌미를 제공했다.'
  - '한국은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에 대한 선제공격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 '미국도 북한의 국제협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선제공격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표하지 않고 있다.'



2012.4.1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 역시 북한이 발사와 국내 요인을 연계시킨다는 것을 알고 발사 중단이 북한의 체제 강화를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해 개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북한의 위성 발사나 핵 실험 등 도발 행위를 막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북한은 이스라엘 방식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까지 이웃 나라들의 우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

## □ 중국어권

○ 北 위성발사 관련 中 방위 강화해야 한다.

(4.10 중국망 中國 國무원 신문판공실 운영)

- 북한 위성발사에 대해 韓·美·日은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책임감있는 大國으로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임.
- 외교적으로 북한과 韓·美·日의 긴장태세를 완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우며 중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자국의 방위 강화임.
- 중국은 남·북한, 일본의 이웃으로 아시아 대국이며, 이러한 지리적 위치에서 혼자서 살아남기는 어려움.
- 이번 위성 발사방향은 중국 동향으로, 발사 실패時 중국 해역과 상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많기에 방위를 강화해야 함.
- 더욱 중요한 부분은 북한 위성 요격을 빌미로 중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것임. 올해 美·日의 군사전략보고서는 모두 중국을 "잠재위협"으로 보고 있음.
- 그러므로 이번 위성발사를 기회로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기회를 노릴 것임.
- 북한 위성발사로 인해 북한과 韓·美·日간의 마찰이 중국 방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들의 정세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 군사·정치·외교수단을 합리적으로 잘 이용해야 함.

○ 北, 김정은 시대 정식 개막(4.12 환구시보)

- 4.11일 제4차 노동당 대표자대회에서 김정은이 제1서기로 추대되면서 '김정은의 북한'이 정식으로 세계 무대에 나서게 되었음. 이러한 정권 안정은 중국과 한반도 정세에 모두 이로움.
- 中·北은 지리적 이웃으로 '순망치한(唇亡齒寒)'의 특수한 관계임. 이에 중국 국민들은 북한의 혼란이 아닌 안정을 바라고 있음.
- 최근 中·北은 경제무역 분야 협력으로 양국의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북한은 민생개선과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계속해서 경제협력에 힘쓰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의 안정과 정책의 확실성은 양측 경제발전과 주변 정세 안정에 매우 중요함.
- 한반도의 민감한 문제에 있어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한 자세만 유지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지속될 것인데,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임.

○ 中 후진타오 주석, 김정은 노동당 제1서기 추대 축전 발송

(4.11 신화망)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은의 노동당 제1서기 추대 관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축전을 발송했으며,
- 축전 내용은 '중국은 북한 인민들이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이어 노동당과 단결하여 김정은 동지의 지도 가운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함.'
- '中·北 양국은 이웃나라로 전통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했고, 이는 중국 黨政의 변치 않는 방침임.'
- '우리는 북한과 함께 양국의 돈독한 우정, 각 분야의 실질적 협력,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양국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쌓아 온 中·北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임.'

- '김정은 제1서기와 북한 노동당의 지도 속에 강성대국 건설의 위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함'이라고 기재

## □ 러시아어권

- 북한 위성을 국제통제 하에 두는 새 결의안 채택해야 한다.

(4.12 모스크프스키에 노보스티)

- 「콘스탄틴 아스몰로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은 위성 로켓발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 정치적 측면보다 국내 상황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 '북한의 탄도기술 개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위성을 국제 통제 하에 두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 '북한 체제는 조건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전환기에 있으며, 고르바초프 정권 이전의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차세대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될 것이다.'고 주장

- 이제 남은 방법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4.10 골로스 러시아)

- 「예브게니 김」(북한문제 전문가),
  -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이중 해석이 가능하며, 북한의 우주 연구를 금지한 실례가 없다.'
  - '북한의 우주공간 개발에 대한 주권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러시아 외무부의 언급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
- 「게오르기 톨로라야」(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실장),
  - '로켓이 궤도를 벗어나거나 폭발할 수 있다는 기술 불안정을 위협으로 볼 수 있다.'
  - '미국은 對北 압박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썼으며, 이제 언론을 이용해 북한의 정치·경제 주요 동맹국인 對中 압박을 하는 방법만 남았다.'

2012.4.12(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중국의 두통거리가 되고 있지만, 북한체제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은 對北 고립·압력 정책 반대라는 기존 노선을 유지할 것이다'고 주장
- 북한 소식통, '기상 조건 문제없을 경우, 예정대로 14일에 광명성 3호 발사될 것이다'고 밝힘(4.11 인터팩스)
- 북한 정통 소식통, '13~14일 중 광명성 3호 발사될 것이다'고 밝힘  
(4.11 이타르타스)

## □ 일본어권

- 노다 총리, '만전의 태세로 대비할 것이다.'(4.12 교도통신)
  - 일본 정부는 4.12일 오전, 실제 발사에 대비한 경계태세 돌입
  - 노다 총리는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전에 출근하며 '마지막까지 자제를 요구해 나갈 것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입장 표명
  - 다나카 방위상, '예기치않은 사태에 대비해 긴장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
  -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노다 총리는 안전 확인과 철저한 정보수집,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관계각료에게 지시 예정임.
- 日 관방장관, 국민들은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당부(4.11 교도통신)
  - 후지무라 관방장관,
    - '발사시기를 분석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냉정히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당부
    -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관계국과 연계하면서 최후까지 북한에 발사중지를 촉구하겠다'고 강조

## 붙임 1. CNN / NBC / BBC 보도 원문 (4.11~12)

### CNN 홈페이지

"North Korea's space oddity: Missile or Satellite?"

- o "Potentially yes, it can carry a warhead," says Russian space policy expert Yuri Karash. "The nuclear warhead can be the same size as a suitcase (so) it is possible to deliver it, but in this case I believe it is a satellite."
- o Han Park is a North Korean specialist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in the United States, and he's also been invited as an observer by Pyongyang. He says this is all about trust. He trusts them but he does have questions. "Is it a satellite or a missile? Ultimately it isn't about science, but the motives of North Korea," he says.
- o But in the last few days it has become clear that this is not just about technology, this is a spiritual quest, this is about honoring the memory of the founding father of the nation, Kim Il Sung.

### NBC 홈페이지

"Inside North Korea's mission control room"

- o Earlier today, we were taken to see the main mission control room here in pyongyang. It was a quite primitive facility. We only counted 16 engineers in the entire room, the big screens were showing the live transmission of the rocket. There were only about six telephone lines, and experts we have been speaking to say there was a real risk that this satellite will never actually make it into orbit, and that the rocket could actually come crashing down, and that would be an enormous embarrassment for north korea because one of the main motivations for this rocket launch is to establish the credentials of the new leader here, kim jong un.

### BBC 홈페이지

"Inside N. Korea's mission control room as rocket is fuelled"

- o We've been brought about half an hour outside pyongyang this morning to mission control for the rocket launch planned this week. Inside there, there is a control room, there's a giant screen with a live video feed coming of the rocket on its launch pad. It's been covered in sheets of plastic because of the heavy rainfall, they say, to protect the rocket. The fuelling is ongoing to get the rocket ready for launch. The technicians and the controllers are all there at their terminals and we are told that the launch is due to go ahead on schedule this week.

## 붙임 2 美 CSIS 보고서 원문 (4.10)

### CISI 홈페이지

"Taking Down North Korea's Missile Threat: Which Country Can Be the Israel of East Asia?"

- o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dependent Task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released in June of 2010 also highlighted both vertical proliferation (North Korea's indigenous development of a delivery capability for WMD) and horizontal proliferation (whereby North Korea sells or transfers nuclear material to other state or non-state actors) as priority sources of concern. Thus far, the most effective response to North Korean horizontal proliferation has been the October 2007 Israeli decision to strike a nuclear reactor under construction in Syria that could have become a plutonium factory.
- o Until the Israeli strike, it was not publicly known that North Korea was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in the construction of a reactor at a location within Syria that had no associated facilities for production of nuclear power. But there has been no deterrent effort analogous to the Israeli strike on the Syrian facilities to stop North Korea from pursuing vertical proliferation by extending its own missile delivery capabilities.
- o A direct strike on North Korean facilities carries with it considerable risks, even if it might be the only effective way to send a clear message regarding the international unacceptability continued North Korean multi-stage rocket tests. This is presumably why no country has pursued this policy option despite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conducted three previous tests, each accompanied by ample advance warning through satellite reconnaissance and each accompanied by progressively stronger expressions of concern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 o Neither international criticism nor the imposi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under UN resolutions have stopped North Korea from pursuing its plans. Without teeth or political will to comprehensively implement sanctions, the apparent ineffectiveness of UN Security Council efforts to date is probably being interpreted in Pyongyang as a green light for their current launch plans.
- o A South Korean civilian commission set up to review defense policy following the March 2010 Cheonan incident recommended in December of 2010 that South Korea pursue a policy of "proactive deterrence" that seemed to advocate a preemptive option in cas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although

CISI 홈페이지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has recently underscored South Korea's will to retaliate strongly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re has been no public discussion of preemption against North Korea's satellite launch preparations.

- o Moreover, President Obama's message to North Korea delivered in hi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peech in Seoul signals the likelihood of a U.S. response to perceiv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rules, but does not signal any apparent need to take preemptive action to prevent such violations.
- o China's President Hu Jintao faced stern requests to restrain North Korea from making the launch on the sidelines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n Seoul, but Beijing knows how North Korea has tied the launch to domestic factors and is unlikely to intervene to stop the test for fear of upsetting North Korea's domestic political consolidation.
- o The bottom line is that there is no country in East Asia that has the capacity or will to use force to stop North Korean provocative actions such as a satellite or nuclear test. Until there is an "Israeli option" that breaks the cycle of North Korean impunity for its destabilizing actions, expect North Korea to utilize neighboring countries' fears regarding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own internal and regional instability as its primary means by which to impose on its neighbors the increasing costs of North Korean stability and regime survival.

### 붙임 3. 중국망 보도 원문 (4.10)

중국망 홈페이지

“美日韩对朝卫星“剑拔弩张”，中国需防“城墙失火””

- o 早在朝鲜放出要在4月15日左右发射卫星的第一时间，美日韩随即发出不惜代价予以抵制的声音，中俄则表达了“关切和忧虑”。尽管朝鲜已邀请30多个各国媒体和专家来朝鲜于发射日在现场观看，但美日韩同声抵制，加上朝鲜与美日韩相互之间敌对情绪由来已久，这次朝鲜发射卫星之紧张局势很难平息。
- o 作为责任大国的中国怎么办，实属一个大难题，显然，通过外交层面来平息朝发射卫星引发的双方紧张局势已很难实现。依笔者之见，中国当务之急是及早防备。防什么？一言蔽之就是要防止“城墙失火，殃及池鱼”。

### 중국망 홈페이지

- 中国是朝鲜、韩国和日本的近邻，是亚洲的大国。这种地缘位置注定中国难以独善其身。人们看到朝鲜此次发射卫星与前两次不同，其中，发射方向一改过去向东发射的做法，改为向南发射，在黄海上空发射，朝鲜这样做显然是为减少火箭飞越日本上空带来的负面影响，但人们知道，东海与中国沿海相邻，一旦火箭发射不成功，也有掉进中国海或飞越中国上空的可能，有媒体指出有落入中国上海附近海域的可能，这不能不引起国人十二分关注和防备。
- 当然更重要的是应对美日借口拦截朝卫星实则提供反中国导弹演习机会，这决不是空穴来风，而是日本媒体4月4日透露的消息云：相对于朝鲜，美国更关注无论经济实力还是军事实力更强大的中国。实际上，无论美国还是日本，今年出台的军事战略报告，都赤裸裸地把中国视为“潜在威胁”。因此，他们必然珍惜每个机会对中国进行刺探情况和创造反中国导弹的机会。这一次美日韩明摆出要拦截朝卫星的姿态，用意也要落实侦察中国的部署。
- 对东海朝鲜发射卫星引发朝与美日韩之间的磨擦，中国的防范的基点似乎是十分警惕要千方百计防止祸端引向中国，同时也要想方设法促使双方平息事态。达到了这个目标，关键是“有理有利有节”，充分运用军事、政治、外交手段。

## 붙임 4. 환구시보 보도 원문 (4.12)

### 환구시보 홈페이지

#### “王林昌：朝鲜正式进入“金正恩时代”

- 朝鲜劳动党第三次代表会议是在2010年9月28日举行的，会议推举金正日为朝鲜劳动党总书记，金正恩只当选为朝鲜劳动党中央军事委员会副委员长。但金正日的突然辞世，使朝鲜最高领导人位置出现空缺。对于朝鲜来说，“补缺”势在必行。而今年4月，又对于朝鲜劳动党至关重要——4月15日为金日成诞辰100周年，4月25日是朝鲜人民军建军80周年纪念日。一个是“太阳节”，一个是“建军节”。朝鲜是一个东方国家，有逢五逢十大庆的习惯，朝鲜劳动党选择在这个时候正式确立金正恩的领导人地位是有政治智慧的。据报道，在这次党代表会议上金正恩被正式推举为该党第一书记，紧接着，朝鲜最高人民会议常在委员会在4月13日召开朝鲜第12届最高人民会议第五次会议，届时也会推选金正恩成为国防委员长。至此，经过一年半历练的金正恩将正式以新领导人名义举行“太阳节”的隆重庆典。
- 去年金正日去世后，外界对朝鲜的政局曾有种种揣测，经过大约半年的观察，人们似乎得出朝鲜政局总体稳定和内外政策大体相袭的结论。而通过这次党代会高层领导的确定和朝鲜未来内外政策和施政方针的宣布，最终实现政权平稳过渡。一个确定的、而不是模糊的朝鲜将鲜明地呈现在世人的面前。后金正日时代——“金正恩的朝鲜”将走向世界舞台。朝鲜这种新的确定性无论对中国还是对朝鲜半



환구시보 홈페이지

岛局势的稳定都有好处。

- o 中朝关系有一点特殊。一是国土相连，这种地理上的邻里关系，使两国有着与别国不同的诸多共同利益。古语说唇齿相依，进而唇亡齿寒，历史进化到了今天的程度，这个古语的意义依然警示着中国人民，对朝鲜的期望是稳定而不是动乱；近年间，中朝双方推进经贸合作来发展和繁荣两国的经济有诸多新开端，而朝鲜也把“改善民生”和建设“强盛大国”的目标写在纲领上。延续而不是中断这些新开端，在经济上通过互利和互补实现“共赢”也是我们的期望。朝鲜政局稳定和政策相袭的确定性有助于实现双方经济发展。总之，一个稳定富裕的邻邦比什么都好。
- o 朝鲜的确定性对于周边稳定也很重要。因为无论是在二战结束后的冷战时期，还是在冷战结束后的南北对峙时期，不管气氛紧张还是缓和，都局限在一定范围内，朝鲜半岛相对平和而不是战乱频发。“金正日时代”作为当事的一方，让这种局面维持延续了近20年，“金正恩时代”的开启，可以视作“金正日时代”的继续。只要朝鲜半岛有关各方在敏感问题上保持克制，朝鲜半岛相对平和的局面就可以继续维持。因为“金正日时代”是“金正恩时代”的一面镜子。

**붙임 5. 신화망 보도 원문 (411)**

신화망 홈페이지

"胡锦涛致電祝賀金正恩出任朝鮮勞動黨第一書記"

中共中央总书记胡锦涛11日向金正恩发去贺电，祝贺他被推举为朝鲜劳动党第一书记，贺电全文如下：

朝鲜劳动党第一书记

金正恩同志：

欣悉朝鲜劳动党代表会议推举金正恩同志为朝鲜劳动党第一书记。我谨代表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并以我个人名义向你和朝鲜劳动党中央委员会表示热烈祝贺。

我们欣慰地看到，朝鲜人民继承金正日同志遗志，紧密团结在朝鲜劳动党的周围，在金正恩同志领导下，努力建设社会主义强盛国家。

中朝两国是山水相连的友好邻邦。不断巩固和发展中朝传统友好合作关系，是中国共产党和政府坚定不移的方针。我们愿同朝鲜同志携手努力，继续深化中朝传统友谊，

신화망 홈페이지

扩大各领域务实合作，共同促进朝鲜半岛和东北亚的持久和平与稳定，把两党两国老一辈领导人亲手缔造和培育的中朝关系巩固好、建设好、发展好。

衷心祝愿第一书记同志和朝鲜劳动党在领导朝鲜人民建设强盛国家的事业中不断取得新的更大成就。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总书记

胡锦涛

二〇一二年四月十一日于北京

붙임 6. 러시아 모스크프스쿠에 노보스티 보도 원문 (4.12)

모스크프스쿠에 노보스티 일간지 홈페이지

“Вечно живые”

- «КНДР от приуроченного к столетию Ким Ир Сена пуска своей ракеты, как утверждается, со спутником не откажется. Тут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е резоны внушительне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сказал «МН»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Пуск, по его словам, «конечно, придется осудить, так как развит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противоречит резолюциям Совбеза ООН. Но надо принимать и новую резолюцию, чтобы постави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утники под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троль».
- Новому вождю, подчеркнул ученый, «надо будет ответить и на вызовы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еверян, среди которых десятки, если не сотни тысяч бизнес-отходников в соседний Китай»: «Режим уже трансформируется, и его, правда, очень условно, можно сравнить уже не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эпохи Иосифа Сталина, а с СССР времен генсека Константина Черненко».

## 붙임 7. 러시아 글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4.10)

### 글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Репортеров разочаровала «Лучезарная звезда» Пхеньяна”

- Фактически в резолюции Совбеза ООН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тся о запусках спутников на орбиту Земли, отметил специалист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Евгений Ким: “Резолюция Совбеза была составлена весьма двусмысленно. Никто не запрещал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заниматься исследованием космоса. В этом смысле позиция России, в принципе, понятна. Ведь формально Корея нарушила резолюцию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 Эксперт по КНДР Георгий Толорая в интервью "Голосу России" выразил мнение, что опасность для России и других соседних с КНДР государств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уществует: “Это угроза технической неисправности, если ракета полетит куда-то не туда или взорвется. Если же запуск будет успешным,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владела ракет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до такой степени, что может впоследствии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ракетное оружие. Но пока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добную технику в боевых, военных, целях нереально”. Георгий Толорая считает, что США исчерпали все возможные средства давления на КНДР. Вашингтону осталось устроить атаку в СМИ и надавить на глав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ника КНДР- Китай. “Пхеньян создает Китаю большую головную боль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ША, - сказал эксперт. - Но Пекин не может допустить распада КНДР. Поэтому он будет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той линии, которая не позволит использовать эпизод с запуском спутника или в целом 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КНДР для изоляции и удушения этого режима, как бы он к нему ни относился”.

## 붙임 8. 러시아 인테르팩스 보도 원문 (4.11)

### 인테르팩스 통신사 홈페이지

“Датой пуска «Ынхи-3» назвали 14 апреля”

-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т ракету «Ынха-3» со спутником 14 апреля, если позволят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 «Интерфак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источник. Источник в КНДР: «Если не помешают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то ракет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уществующими планами, будет запущена 14 апреля».

## 붙임 9. 러시아 이타르타스 보도 원문 (4.11)

### 이타르타스 통신사 홈페이지

“Запуск в КНДР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Кванмёнсон-3" может быть осуществлен 13-14 апреля ”

- Сияющая звезда -3”, может быть осуществлен 13-14 апреля. Об этом ИТАР- ТАСС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из хорошо осведомле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Данное событие специально приурочено к отмечаемому в стране 15 апреля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азднику - 100-летию "первого и веч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КНДР Ким Ир Сена.

## 붙임 10.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4.12)

### 교도통신 홈페이지

“首相「万全の態勢で備え」 警戒強化、ミサイル予告期間入り”

- 政府は12日午前、北朝鮮が「衛星」打ち上げと称する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の予告期間を迎えたのを受け、実際の発射に備えた警戒態勢に入った。野田佳彦首相は12日朝、通常よりも早い午前7時前に官邸入りし、「最後まで自制を求めているが、万が一の時にはしっかりと万全の態勢で備えたい」と記者団に語った。
- 田中直紀防衛相も7時前に防衛省に登庁し「不測の事態に備え、緊張感を持って万全を期したい」と記者団に述べた。
- 発射が強行された場合、首相は安全確認や情報収集の徹底、国民への情報提供を関係閣僚に指示する。

## 붙임 11.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4.11)

### 교도통신 홈페이지

“北ミサイルで官邸対策室設置 態勢を強化”

- 政府は11日午後、「衛星」打ち上げと称する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に備え、首相官邸の危機管理センターに官邸対策室を設置した。藤村

교도통신 홈페이지

修官房長官は記者会見で、発射時期を分析しているとした上で「万々が一に対処しており、一般の皆さんは冷静に対応いただきたい」と呼び掛けた。

- 官邸対策室は、北朝鮮が12日～16日の午前7時から正午の間の発射を予告しているのを受け、これまで情報収集を行ってきた同センターの情報連絡室を改組して態勢を強化する。
- 藤村氏は会見で「地域の平和と安定を損なう行為を慎むよう関係国と連携しながら最後まで北朝鮮に発射の中止を働き掛ける」と強調し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수일 내 핵실험 할 수도 있다.(4.13 Bloomberg)

- 「브루스 베네트」(美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

- ‘이번 발사는 김정일이 1년前쯤 결정했을 것이고, 과학자들에게 많은 요구를 했을 것이다. 이번 실패로 일부는 처형될 수도 있다고 본다.’
- ‘북한 지도부는 이번 실패를 무마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난번 북한은 4월에 발사하고 5월에 핵실험을 했다. 이번은 더 빨리 하려고 할 것이다.’
- ‘1~2주內 혹은 수일內 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큰 충격을 노리고 있다면, 히로시마 폭탄 같은 10~20 메가톤급의 핵실험을 할 것이다.’
- ‘북한 엘리트 중 상당수가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번 실패를 아직 입증되지 않은 김정은의 실패로 볼 것이므로 북한 내부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다.’
- ‘관건은 미국이 한걸음 물러나 군사적, 경제적 대응에만 머무느냐 아니면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도 하느냐이다’라고 주장

○ 北,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4.13 AP)

- 「빅터 차」(前 美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

- ‘김일성 생일 기념 중 북한에 큰 망신이다.’
- ‘다음 단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며, 지금부터 핵실험장의 움직임과 북한 내 외신기자들에게 북측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 「브라이언 위든」(美 Secure World Foundation 기술고문/前 美 우주사령부 공군장교),

- ‘발사는 우주개발과 미사일 목적 달성에서 모두 실패했다.’

2012.4.13(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로켓이 빨리 조각날수록, 더 적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실험의 유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보다 이번 발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크다.'

- 「스캇 페이스」(美 조지 워싱턴大 우주 정책 연구소장),

- '북한은 로켓 잔해를 수거하고 실패 원인을 이해하는데 국제적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며, 이번 실패는 책임 기술자 및 관리자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

○ 美 한반도 전문가, '北 미사일 발사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

(4.12 美 헤리티지재단)

-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동북아담당 선임연구원),

- '군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유엔헌장 7조 42항을 채택해 더욱 광범위한 대북 제재를 위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제출해야 한다.'
- '유엔 회원국들은 모두 북한의 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 및 기술 거래를 금지하는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충분히 따르고, 북한사람·외국인·기업·정부기관 등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 '미국은 독립적으로 북한 확산에 연루된 기업·은행·정부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 '한국과 일본에 강력한 전방부대를 유지하고, 양국과의 합동 훈련을 늘려야 한다.'
- '미국 국방비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미국 군사력 감축은 아시아에서 동맹국 방어, 안보 위협 저지, 공격적 행동·자연 재해에 신속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
- '미사일방어 개발 및 배치를 지속하고, 한국에 미국의 역내 미사일망과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한 다층적 미사일방어 시스템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2012.4.13(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현재 사정거리 300km로 제한된 미사일 개발에 대한 허용 범위를 늘려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
- 北, 로켓 실패 인정은 놀라운 변화이다.(4.13 CBS)
  - 익명의 美 행정부 관계자,
    - '이번 발사는 선전용이며, 실패는 내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번 발사는 잠재 고객들에게 북한 무기를 선보일 기회이기도 했지만, 실패로 인해 이들은 구매를 재고하게 될 것이다.'
  - 북한이 로켓 실패를 대내외적으로 인정한 것은 과거 정보를 엄격히 통제해왔던 정권으로서는 놀라운 행동임.

## □ 중국어권

- 北 위성발사는 제3차 핵실험이 목적(4.13 홍콩 봉황위성TV)
  - 「정하오」(시사평론가),
    -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는 정치, 전략·군사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 '정치적으로 4월의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위성 발사를 통해 黨·軍을 결집시키고, 김정은의 지위를 다시 한 번 확실히 하려 할 것이다.'
    - '또한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위성 발사 현장뿐 아니라 공장을 참관하게 하고 경제성과를 선전하기도 했는데, 이로써 김정은의 정치 성과를 과시하고 대외 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 '전략적으로는 위성 발사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 '북한은 2009년의 전례대로 위성 발사 후 韓·美·日의 강경한 반대 입장과 안보리 제재조치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2012.4.13(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러한 對北제제는 북한에게 제3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 '북한이 단순히 위성을 발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치적 위성을 발사, △제3차 핵실험 준비, △韓·日에 대한 정보 수집에 이용했다.'
- '왜냐하면 韓·日이 북한 위성 발사에 대비해 각종 전쟁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시기가 바로 북한이 韓·日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

○ 北, 로켓 비행 계수 숨기려 고의 폭발시켰을 가능성 있음.

(4.13 홍콩 봉황위성TV)

- 「리웨이」(군사 전문가),

- '북한의 위성이 비행 1분만에 폭발하므로 발사는 실패함. 이는 북한이 고의로 폭발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 '첫째, 이전 두차례 위성 발사시에는 제1단 로켓과 제2단 로켓의 점화 과정이 매우 순조로운 상태였고, 이는 접합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증명한다.'
- '또한 외신기자들을 위한 설명회에서도 자폭장치가 있어 로켓 조각이 타국 영토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으므로 자폭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둘째, 미국의 대형 레이더를 비롯한 한국, 일본의 선진 정찰 기기들이 이번 위성 발사 과정을 모두 추적했을 것이다.'
- '북한은 자신들의 비행 계수를 고스란히 이들에게 주기를 원치 않기에 스스로 자폭했을 가능성이 있다.'
- '셋째, 발사 시간대가 적합하지 않다. 지난 두 차례는 11시, 12시에 발사했으나, 이번에는 이른 아침 7시에 발사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시간대이다.'
- '결론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 후, UN안보리는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북한은 다음 단계인 핵실험을 준비하려 할 것이다'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 北 미사일 발사 관련 전문가 담화(4.13 지지통신)

- 「오가와 가즈히사」(군사애널리스트),
  - ‘자국의 기술력과 평화목적을 과시하려고 남쪽 코스를 택한 결과, 지구 자전의 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료를 대량으로 주입해야 해서 무게를 이기지 못했을 것이며, 단적으로 말해 기술력의 문제일 것이다.’
  - ‘발사실패가 김정은 체제에 미칠 영향은 크다. 향후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경계할 필요가 있다.’
- 「마토가와 야스노리」(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명예교수),
  - ‘발사 후 1분정도 비행하고 고도 약 120km까지 달한 후 떨어졌다는 보도가 맞다면 1단과 2단이 분리된 후 2단 엔진이 잘 점화되지 않았던 것 같다.’
  - ‘발사된 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보도공개된 인공위성이 탑재된 로켓이었을 경우, 이 위성은 태양전지패널이 붙어있는 쪽부터 위성자체를 회전시켜 자세를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보인다.’
  - ‘오전 7시 40분이라는 발사시간은 위성과 태양과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 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 「다나츠구 노부히로」(무로란공업대학 항공우주기 시스템연구 센터장),
  - ‘1단 로켓엔진에 이상이 있었다면 발사 직후에 폭발했을 것이다. 1분간 정상적으로 움직였다면 도중에 궤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상에서 지령으로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 ‘남북방향 발사는 방향제어가 어렵고 비행경로 폭도 좁다. 궤도에서 벗어나 섬 등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폭파시켰을 수 있다.’
  - ‘연소시간을 보면 2단 분리까지는 안됐으며, 1단 연료를 다 못 썼을 가능성이 있다. 연료는 신뢰성이 높은 히드라진을

2012.4.13(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독성이 매우 강하며 바다에 떨어졌을 경우 주변 해양 오염이 우려된다.'

「변진일」 (재일교포,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

- '발사에 성공했다면 북한은 4.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하고 김일성생일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홍보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 '김정은이 직접 발사를 명령했을 것이며, 해외 보도진까지 불러 실패했기 때문에 국위선양을 하려다가 오히려 국가 위신이 실추되었다.'
- '향후 만회를 위해 부심할 것이며, 미국의 대응에 따라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 발사도 틀림없이 재도전 할 것이다.'

「이종원」 (와세다대학 대학원 교수),

-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실패로 김정은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국내·외에 위성이라고 칭한 미사일을 공개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온 김정은의 첫 실패이며 기세가 꺾였다.'
- '성공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실패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신체제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 '개발자와 군강경파의 책임을 어떻게 추궁하는지에 따라서 체제 내부에 긴장과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젊은 지도자가 새로운 체제 시작 직후에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 '단기적으로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핵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같은 도발행동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적으로는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中·北관계가 긴박해 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회복이 급선무인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체제약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o 1단이 분리될 때 문제 생겼다.(4.13 NHK)

- 「고토 하지메」(미사일에 정통한 군사전문가),
  - ‘발사된 미사일이 3년전과 거의 같은 것이라면 1단과 2단 분리하는 발사 후 약 2분 후에 일어나야 하는데 1단이 그보다 빨리 분리됐다면 타이밍이 너무 빨랐고 분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단, 2단, 3단을 조합해 하나의 미사일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북한이 면밀히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 ‘새로운 발사장에서 조립할 때 미스가 있었을 것이며, 예상한 비행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 「다구치 츠토무」(해상자위대 전 기술부장),
  - ‘액체연료가 샐거나 엔진에 공급되는 액체연료의 양이 너무 많아 폭발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 ‘혹은 문제가 발생해 북한이 직접 미사일을 폭발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

o 美 전문가, 수개월 내에 핵실험할 것(4.13 NHK)

- 「패트릭 크로닌」(북한정세에 정통한 전문가),
  - ‘발사실패는 북한이 직면할 최초의 중대 문제가 될 것이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수개월 내에 제 3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 ‘미국 정부는 또다른 도발행동 자제를 요구하기 위해 美·北 직접 협의를 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 ‘북한이 美·北합의 발표 후 한달 만에 발사를 강행한 것은 북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인물과 미국이 관계를 쌓지 못한 결과이며, 북한과의 협상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외무부, 북한 위성발사 매우 우려스럽다.(4.13 인테르팍스)
  -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 '북한 위성발사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따라 북한은 탄도로켓을 이용한 군사·민간 목적의 모든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
  - '금번 발사로 인해 6자회담 재개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밝힘
- 발사 실패보다 발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문제다.(4.13 제 1채널)
  - 북한 현지에서, '발사에 실패한 것보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 '이제 이미 우주강국이라 믿고 있는 주민들에게 3번째 위성 발사 실패 이유를 설명하는 일만 남았다.'
  -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평소처럼 김일성 생일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보도
- 북한 위성프로그램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4.12 니카누네 루 인터넷 언론)
  - 「알렉산드르 제빈」(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 '북한의 위성발사는 국내 정치·선전적 목적이 크며, 최근 우주 분야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한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중잣대 적용을 비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개발 명목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 '북한 지도부 내 분열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체제붕괴 위험성은 없다.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는 북한 지도층은 체제 견고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 '경제난으로 인한 경제개발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진보 및 보수적 성향간 이견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정치적 안정은 모두가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

## 붙임 1. Bloomberg 보도 원문 (4.13)

### Bloomberg

"North Korea May Hold Nuclear Test in Days, Rand's Bennett Says"

- o Bruce W. Bennett, a senior defense analyst at Rand Corp. who is visiting Seoul, comments on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tests after 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said the North's rocket launch may have failed:
- o "This launch was decided on, probably a year ago by Kim Jong Il before he died. He was probably very demanding of his scientists. For this kind of failure to occur I assume some people will pay with their lives."
- o "I would have to think the North Korea leadership is very anxious to have something that eases this failure. Last time they launched in April and had a nuclear test in May. I would suspect they would try to do it more quickly. They may do it within the next couple of weeks, perhaps within the next few days."
- o "If he really wants to make an impact, he's going to detonate something closer to the Hiroshima bomb, in the 10- to 20-megaton range."
- o "I don't think it will be particularly good for Kim Jong Un. In the elite a fairly large number do have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They're going to look at this as the failure of a young guy who hasn't shown his mettle yet. 'It's going to be destructive in North Korea.'"
- o 'The key question is going to be China. China was prepared to support them in 2009. In 2010 they hardly said a word. China's No. 1 imperative is to maintain stability in North Korea. I suspect they won't be outwardly supportive. I suppose they will refuse to criticize.'
- o "The real question is do we step back and limit our response to military and economic action? Do we take political action? Do we broadcast into North Korea to undercut the regime?"

## 붙임 2. Associated Press 원문 (4.13)

### Associated Press

"North Korea fires long-range rocket "

- o "It blows a big hole in the birthday party," said Victor Cha, former director for Asia policy in the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contacted in Washington. "It's terribly embarrassing for the North."

Associated Press

- o He said the next step would be to watch whether North Korea conducts a nuclear test, as has been speculated by the South Korean intelligence community. North Korea is reportedly making preparations for such a test soon. "We have to watch very carefully what they are doing now at the nuclear test site and how they explain this with all those foreign journalists in the country," Cha said.
- o Weeden said the launch appeared to be a failure of both space and missile objectives. "The earlier it breaks up, the less data you've collected, so the less useful that test is likely to be," he said. "It's very likely that the U.S. and its allies probably gathered more information about this test than the North Koreans have."
- o Scott Pace, the director of the Space Policy Institute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aid the North will be hard pressed to get any international help in recovering its lost rocket. "I would not expect the North to receive any help in understanding what may have gone wrong," he said. "The failure will certainly not be good for the engineers and managers responsible."

**붙임 3. 美 헤리티지재단 원문 [4.12]**

美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

"North Korean Missile Launch Demands Strong U.S. Response"

- o Submit a new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requiring more extensive sanctions on North Korea for yet another U.N. resolution. The new U.N. resolution should invoke Chapter VII, Article 42 of the U.N. Charter, which allows for enforcement by military means. This would enable naval ships to intercept and board North Korean ships suspected of transporting precluded nuclear, missile, and conventional arms, components, or technology. To date, China has insisted that U.N. resolutions adopt the weaker Article 41 provisions.
- o Demand that all U.N. member nations fully implement existing U.N. resolution requirements to prevent North Korea's procurement and export of missile-related and WMD-related items and technology, and freeze the financial assets of any involved North Korean or foreign person, company, or government entity. Any violating government, business, bank, or individual should be subject to sanctions.
- o Washington should implement a comprehensive program to independently impose U.S. sanctions on any company, bank, or government agency

美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

complicit in North Korean proliferation. Washington should also lead a multilateral initiative calling on other nations to similarly target North Korean and foreign proliferators as well as those engaged in North Korean illegal activities, such as *currency counterfeiting and drug smuggling.*

- o Maintain a robust forward-deployed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and Japan. The U.S. should augment joint training exercises with South Korea and Japan, including U.S. combat units deploy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U.S. forward bases in Asia.
- o Fully fund U.S. defense requirements. Reducing U.S. military capabilities undercuts America's ability to defend its allies, deter security threats, and respond quickly to aggressive actions or natural disasters in Asia. The cuts announced thus far are damaging enough. The United States cannot possibly cut defense spending by the additional half-trillion dollars mandated under sequestration and still maintain necessary levels of deterrence and defense commitments to Asia.
- o Continue missile defense development and deployment, and call on South Korea to deploy a multi-layered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s interoperable with a U.S. regional missile network. Although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indicated greater interest in such a system than previous liberal governments, Seoul has yet to make necessary decisions to begin implementation.
- o Approve Seoul's request to extend the permissible limits on its missile development beyond the current 300-kilometer range restriction.

## 붙임 4. CBS 보도 원문 (4.13)

CBS 홈페이지

"North Korea's embarrassing rocket launch failure sparks multi-nation search for debris"

- o An Obama administration official, speaking on condition of anonymity, dismissed the launch as a "propaganda effort," the failure of which "will have ramifications internally," CBS News White House correspondent Norah O'Donnell reports.



CBS 홈페이지

- o "This launch was also a chance for North Korea to showcase its military wares to prospective customers," the official said. "The failure will make those customers think twice before buying anything."
- o The acknowledgment of the rocket's failure – both to the outside world and to North Koreans – was a surprising admission by a government that in the past has kept tight control over information.

**붙임 5.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4.13)**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郑浩：朝鲜发射火箭的目的是第三次核试验”

- o 我们看到在整个今年或者这个月，有一连串非常重大的政治活动，当然放卫星具有非常现实的一个意义，这个意义最主要的是表现在他要通过发射卫星，来凝聚朝鲜全党、全军的凝聚力，来进一步的显示金正恩的领导地位。因此在发射卫星这个问题上，实际上是通过这样一个发射政治卫星，来起到一个鼓舞全党和全国更加凝聚在以金正恩为首的党的核心领导层周围，因此这是一个非常重大的政治卫星，是一个政治事件，所以我觉得首先他考虑的，就是要完成这个政治任务。
- o 第二个就是要广为宣传了，我们看到这次非常奇特，他邀请了100多位海外记者到现场进行报道，而且除了报道放卫星之外，还带他们去参观工厂或者是一些经济成就的展览等等，实际上也是利用这样一个机会，来为朝鲜做一系列的宣传。因为我们知道今年是朝鲜要打开建设强盛大国大门的元年，所以他也需要借助外界的媒体，为朝鲜做一些宣传，也特别是在金正恩掌握了军政大权之后，也让外国媒体到朝鲜来，亲眼看一看朝鲜现在所取得的一些成就，然后做一些宣传，所以还有这样的一个政治上的宣传用以。当然我们说通过放卫星，通过邀请外国媒体实地考察，实地采访，也表现出在某种程度上，金正恩有意在寻求开放。
- o 我觉得他大胆的邀请外国记者到首都，到发射基地去考察去拍摄做采访，实际上已经包含有他希望通过这个事情来打开一扇小小的门。
- o 从其他的方面特别是从战略分析，我觉得其实有他非常深层次的考量，特别是我个人觉得朝鲜其实他发射这颗卫星，他真正的意图并不是在这颗卫星上，当然发射卫星对他很重要，有政治上的含义，但是无论失败与否，因为在前两次已经是失败的，这是第三次，第三次能不能成功没有人能够知道。即便是失败了，当然成功了更好，即便是失败了，其实他的最终目的，还是在准备进行第三次的核试验，这个恐怕是他背后战略上的重大考虑
- o 在这种情况下，其实朝鲜方面已经认为，我个人认为他认为，其实对他来讲并不是很重要，成功了说明更好，因为经过三年的改进，这次发射能够成功是一个非常大的，很好的一个收获，如果不成功朝鲜早就估计到了，全世界会反弹，特别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是西方国家，特别像美国、日本、韩国等等会强烈的反弹，有可能还会通过联合国安理会，通过一个主席声明来指责，来抨击朝鲜，或者甚至于通过各种进一步的制裁措施，对朝鲜进行施压，进行制裁，平壤早就料到会，按照2009年的那个路子来走。因此他认为这颗卫星我打上去以后，成规了是一个收获，没成功好，当你们要责备我、抨击我、制裁我的时候，我就给你另外的颜色看看，我就进行第三次的核试验，这是一个绝佳的机会，一个绝佳的借口。所以他就加了这么一个名义，找了这样的一种理由，绝佳的机会。

- o 不要看朝鲜好像是专门打了一颗卫星上去，就是这么一个卫星，其实朝鲜方面恰恰也在利用这样一个机会，即要放政治卫星，即要准备第三次核试验，同时也在搜集韩国、日本的一些情报。因为他知道韩国、日本这个时候，都是以战争的状态来进入到各种作战的程序当中，这个时候其实朝鲜也是一个绝佳的窥及、搜集、分析这些情报的最佳机会。

**붙임 6.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4.13)**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李炜：朝鲜或主动炸毁火箭保护飞行参数”

- o 我觉得就是说，这回朝鲜卫星发射失败是在第一分钟内爆炸的，我觉得一个可能性非常大是朝鲜自己引爆的，为什么这么说呢？因为根据我们刚才看的那个前面的资料片，就是前两次卫星发射的时候，在一级火箭和二级火箭点燃的过程中都是非常顺利，所以一级火箭和二级火箭接口对朝鲜来说是一个成熟的技术，而且已经两次成功飞行了。所以，这回为什么就在一级二级接口上就出现问题了呢？很明显，大家回顾一下，就是我们的记者在朝鲜访问的时候，卫星发射基地的主任就给大家说，大家不要担心，我们火箭发射过程我们有自爆装置，不会把火箭碎片随意掉到别国领土的。那么这个已经是个暗示我能自爆的。
- o 第二个大家知道在这回发射的过程中，全世界最先进的侦察的手段，包括从美国本土运来的大型雷达，还有所有韩国、日本的最先进的侦察手段，全部拿出来跟踪这颗发射的过程，那么这样的话，朝鲜说你全部跟全世界最先进的数据过来，我等于是被你们来给你们提高提供我们的飞行参数，那我不愿意给你。因为朝鲜虽然向国际社会公布了他的基本的轨道、发射的地点和大约坠落的地区他都公布了，但是进一步的飞行参数他又不愿意告诉别人，那么他所以很有可能是他自己引爆。
- o 还有一个原因就是说已经没有时间了，因为发射的窗口很重要，前两次发射的时候都是在中午11点到12点之间，这是朝鲜这个地区最好的发射窗口时段。而这回在大清早的7点多发，那么很明显不是个最佳的发射时段，也不是个最佳的窗口，甚至是个非常有可能失败的窗口。朝鲜在这个时候发射，其实也是一个非常有趣的做法，就是这个时候发射的话，我有很多原因来解释向国际社会，假如他要承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认这次发射失败的话,当然也可能他像上一次,他不说发射失败,他继续对国内说是发射成功,因为有1分钟的录像时间足够把火箭从地面上向天空发射过程中拍下来,那人们就可以根据这个录像来欢呼的。

- 现在就是说,今天联合国安理会要开会了,开会如果说联合国安理会形成更强硬的制裁措施的话,他还有一把剑,就是他可以做下一步的核试验。因为前一段西方相片,卫星相片提供的就是好像朝鲜在准备下一次的核试验,所以说你国际社会对他强硬了,他有强硬的后续准备,就是核试验。如果国际社会只是谴责只是批评,那么他就有可能再次回到六方会谈的桌上,大家接着来谈这些事。

붙임 7.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4.13)

지지통신 홈페이지

“北朝鮮ミサイル発射・識者談話”

- 軍事アナリスト小川和久氏の話 自国の技術力や平和目的を誇示しようと南向きのコースを取った結果、地球の自転の力を利用できないために燃料を大量に積まないといけなくなり、増量に耐えられなかった可能性がある。端的に言って、技術力の問題だろう。打ち上げ失敗が、金正恩体制に与える影響は大きい。今後、権力闘争が起きる可能性もあり、警戒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 的川泰宣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名誉教授の話 打ち上げから1分余り飛行し、高度約120キロに達した後、落下したという報道が正しければ、1段目と2段目が分離された後、2段目エンジンがうまく着火し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打ち上げられたのがミサイルではなく、報道公開された人工衛星が搭載されたロケットだった場合、この衛星は太陽電池パネルの張り方から衛星自体を回転させて姿勢を安定させる方式と考えられる。午前7時40分ごろという打ち上げ時刻は、衛星と太陽との角度を合わせるために決められた可能性がある。
- 棚次巨弘・室蘭工業大航空宇宙機システム研究センター長の話 1段目のロケットエンジンに異常があれば、打ち上げ直後に爆発する可能性が高い。1分間は正常に動いたとすれば、途中で軌道がずれるなどしたため、地上からの指令で爆破し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南北方向への打ち上げは方向制御が難しく、飛行経路の幅も狭い。軌道がずれて、島などに落ちるのを避けるために爆破したのではないかと。燃焼時間からすると、2段目の分離までは至っておらず、1段目の燃料をすべて使い切っ

## 지지통신 홈페이지

ていない可能性がある。燃料は信頼性の高いヒドラジンを使っていると思われるが、毒性が非常に高く、海に落ちた場合は周辺海域の汚染が心配だ。

- 辺真一コリア・レポート編集長の話 打ち上げに成功していれば、北朝鮮は13日の最高人民会議で発表し、金日成生誕100周年の記念行事でもアピールしたはずだが、全てが台無しになった。金正恩氏がじかに発射を命令したのだろうし、外国の報道陣を呼んで失敗したのだから、国威発揚が逆に国家の威信失墜につながった。今後はどう挽回するかに腐心し、米国の対応次第で核実験に踏み切る可能性がある。ミサイル発射も間違いなく再挑戦するだろう。
- 李鍾元早大大学院教授（朝鮮半島政治・外交）の話 長距離ミサイルの発射実験に失敗したことで、新指導者の金正恩氏への政治的なダメージは大きいだろう。重要な節目で、内外にも「衛星」と称してミサイルを公開し、周到に準備した上で自信を持って臨んだ正恩氏にとって、最初の挫折であり、出はなをくじかれた形だ。「成功」と強弁するのは難しいとみられ、今後失敗をどう説明するかは、新体制を評価する一つの物差しとなる。開発者や軍強硬派の責任をどのように追及するかによっては、体制内部に緊張や亀裂が走る可能性がある。若い指導者が新体制スタート直後に最大の政治的危機を迎えたといっている。短期的には失敗を取り返すために強気に出る可能性があり、核や南北間の軍事的緊張といった挑発行動に警戒する必要がある。中長期的には、核実験を実施した場合、中朝関係が緊迫する。そうなると、経済立て直しが急務の北朝鮮にとってはダメージが大きく、体制の弱体化が進む可能性がある。

## 붙임 8. 일본 NHK 보도 원문 (4.13)

## NHK 홈페이지

“1段目切り離しでトラブルか”

- ミサイルに詳しい軍事専門家の小都元氏は「発射されたミサイルが3年前とほぼ同じだとすれば、1段目と2段目の切り離しは、打ち上げのおよそ2分後になるはずだが、1段目がそれより前に切り離されているとしたら、タイミングが早すぎ、切り離しの過程で何らかのトラブルがあったことが考えられる」と話しています。

NHK 홈페이지

- そのうえで、「1段目、2段目、3段目を組み合わせて一つのミサイルとして発射するには、極めてデリケートな管理が必要だが、北朝鮮が今回、そうした緻密な管理ができていたかは疑問だ。新しい発射場での組み立て作業の際に何らかのミスがあり、想定どおりの飛行にならなかった可能性もある」と分析しています。
- また、海上自衛隊の元技術部長で軍事技術に詳しい田口勉氏は、落下前に起きた爆発について「液体燃料が漏れ出したか、エンジンに供給される液体燃料の量が多くなりすぎたため、爆発が起きた可能性も考えられる。あるいは、何らかのトラブルが発生し、北朝鮮がみずからミサイルを爆破させた可能性もある」と分析しています。

**붙임 9. 일본 NHK 보도 원문 (4.13)**

NHK 홈페이지

“専門家 数か月以内に核実験の可能性”

- 北朝鮮情勢に詳しいアメリカの専門家、パトリック・クローニン氏は、12日、NHKのインタビューに対し、北朝鮮による発射が失敗したことについて「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からキム・ジョンウン第1書記への権力の移行に際して、北朝鮮が直面する最初の重大な問題となるだろう」と述べました。そのうえで、北朝鮮が今回の失敗を取り返すためにも「数か月以内にも3回目の核実験を実施する可能性がある」と分析しました。
- また、今後のアメリカ政府の対応については、弾道ミサイルの発射などを禁じた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決議に違反したとして北朝鮮を非難する一方で、「さらなる挑発行動の自制を求めるため、いずれは米朝で直接協議を行う機会をうかがうことになるだろう」との見方を示しました。
- 一方、北朝鮮が非核化に向けた措置を進める見返りに、アメリカから食糧支援の提供を受けるとした米朝合意の発表から僅か1か月余りで発射を強行したことについて「北朝鮮で意思決定を行う人物とアメリカが関係を築けていなかった結果だ」と述べ、アメリカ政府として、これまでの北朝鮮との交渉の在り方を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強調しました。

## 붙임 10. 러시아 인테르팍스 보도 원문 (4.13)

### 인테르팍스 통신사 홈페이지

“Запуск спутника в КНДР не способствует возобновлению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 источник в МИД РФ”

- МИД России обеспокоен запуском спутника в КНДР. "Эти сообщения вызывают серьезну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 сказал "Интерфаксу" источник в российско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ведомстве. Со беседник агент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резолюция СБ ООН 1874 требует от КНДР воздерживаться от любых запусков - как военных, так и гражданских -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Дипломат также высказал мнение о том, что этот запуск может осложнить работу над возобновлением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КНДР.

## 붙임 11. 러시아 제 1채널 보도 원문 (4.13)

### 제 1채널 방송사 홈페이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дтвердила, что запуск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прошёл неудачно”

- Чуть больше часа назад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фициально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ракета-носитель "Млечный путь" со спутником "Сияющая звезда" упали в океан. Сообщ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было край не лаконично: "Запуск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в 7.38 утра, спутник на орбиту не вышел, специалисты изучают причины".

## 붙임 12. 러시아 나카누네 보도 원문 (4.12)

### 나카누네 인터넷 일간지 홈페이지

“Спутник-это "зрелище" для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м не хватает "хлеба”

-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тоже стремитс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ему народу, что КНДР в этой области- "на равной

나카누네 인터넷 일간지 홈페이지

ного" с самыми передовыми странами мира и уж, конечно, оп  
ередить в этом соревновании южнокорей цев.

○ Северокорей цы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готовы соблюдать свои дог  
воренности с американцами, которы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в фе  
врале в Пекине насчет моратория на запуски межконтинента  
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вое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Что же ка  
сается мир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смоса, то здесь они намерены  
продолжать свою программу.

○ На самом деле, принципиальных расхождений в высшем рук  
оводстве нет. И военные, и гражданские чиновники отлично  
понимают, что с ними произой дет в случае, если режим рух  
нет и объединение произой дет по южнокорей скому сценари  
ю при поддержке США. Судьба лидеров восточноевропей ских  
компартий ,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оказались под судом и умерл  
и за решеткой , судьба иракских генералов и ливий ской пра  
вящей верхушки- это достаточно убедительные свидетельст  
ва в пользу того, что всем нужно держаться вместе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미사일 발사 실패, '美 동맹 MD강화 계기'(4.15 Financial Times)

- 美·北합의 파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으로부터 순진하며 무능하다는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해왔던 행정부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2주전, 「메들린 크리돈」(국방부 고위 관료)은 '미국이 일본, 한국, 호주와 아시아 지역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발언했음.
- 이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으로 탄력이 붙었음.
- 이에 지난 주 중국 영자 기관지 글로벌 타임즈는 '아시아의 공격적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임.
-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감시하는 한편 DF-21D 대함탄도탄을 포함한 중국의 미사일 능력 또한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 지난 달, 「조나단 그리너트」(美 해군참모총장)는 '미국의 중국 미사일 격추 필요시 금주 북한을 감시했던 이지스함을 배치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대형 선상 레이저와 전파방해 장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언급
-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맹국들 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권력을 쥔지 4개월 만에 김정은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수모를 안겼지만, 한편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음.



○ 北 미사일 발사 후속조치 일환 아시아 우방국들과 협력 강화

(4.15 美 국무부 보도자료)

- 「커트 캠벨」(美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일본 도착 후 발언
  - '우리는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를 논의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일본측의 견해를 들을 것이다.'
  - '한국도 방문해 외교통상부·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나 이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며,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 '美 백악관·G8·美 유엔대사의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매우 강력히 비난하고,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매우 확고한 결의를 보여줬다'고 강조

○ 北, 도발로 여전히 '은자의 왕국' (4.15 美 CBS뉴스)

- 북한은 로켓 발사 등 반항적인 행위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은자의 왕국(Hermit Kingdom)'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임.
- 김정은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 장군들과 편안한 대화를 나눈 것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군부의 지지를 얻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지만, 북한에 피해를 입히는데 관심이 거의 없음.

□ 중국어권

○ 北, 위성 발사 실패, 그러나 두 가지 목적 달성

(4.14,첸장완바오 中国浙江성 지역신문)

- 「선딩리」(북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 '북한의 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중요한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2.4.16(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원조를 받지 않으면서까지 위성 발사를 고집하면서 국제 사회의 갖가지 억제 벗어남, △실패로 끝났지만 다음을 위한 준비 성공, △발사성공으로 인한 기술 과시 등 세 가지 효과 중 앞의 두 가지 목적은 달성했다.'
- '발사 실패로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또다른 실험을 할 것이며, 그 시기는 기술 개선과 정치·외교적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이번 위성 실패로 6자회담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만큼 6자회담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다자회담을 통해 美·北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람.'
- '이번 위성 발사로 북한은 對美관계에서 중요한 "카드"를 쥐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카드는 다름 아닌 개혁 개방과 발전이다'라고 주장

○ 北, 더 이상 모험하지 말아야 한다. (4.13 환구시보)

- 「뤼차오」(요녕성 사회과학원 남북한센터 주임)

-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현재의 국제 정세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 '△UN 제재, △대북식량 지원 중단 등 韓·美·日의 보복성 조치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 '이번 위성 발사로 美·北 관계, 동북아 정세 회복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 '북한 또한 신정권이 새롭게 성립된 상황에서 많은 노력과 자본을 쏟아 부은 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취약한 국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 '이에 북한은 중국 외교부의 주장처럼 냉정과 자제를 유지 하면서 위성 발사나 핵실험 등 더 이상의 도발행위를 그치고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

o 中, 北의 핵실험 저지로 얻는 결과(4.15, 홍콩 봉황위성TV)

- 「양변」(홍콩 봉황위성TV 평론가)

- '국제사회는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제사회와 안보리 비난 앞에서 북한이 그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많다.'
-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와 핵실험 저지를 설득해야 되고 그럴 능력이 있다.'
- '중국이 이를 설득한다면 △對日·對韓관계 강화, △美·中 관계 회복, △中·北관계 회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또한 中·北관계 회복으로 북한 경제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역내 美·中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주장

o 北의 미세한 변화, 더욱 독려해야 한다.(4.16 환구시보)

- 4.15 김일성 100회 생일 대규모 열병식에서 진행된 김정은의 공개 연설은 김정일과는 다른 모습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어린 나이의 김정은 정권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더욱 개방적 마인드를 지닐 것임.
- 이번 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났지만 사전 통보, 사후 실패 인정은 젊은 지도자의 특별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개방성에 대해 외부세계는 더욱 독려해야 함.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역사적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외부의 반응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 고립된 북한에게 있어 더욱 가중한 고립과 제재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것을 韓·美·日은 깨달아야 하며, 격려가 비난보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식임.
- 중국의 동북아 전략적 이익 가운데 북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외부 세계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이런 사적 이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서 안됨.
- 중국은 북한의 개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보다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번영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큼.

- 중국의 성공적 개혁개방이 북한의 본보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자주독립성을 인정하기에 무조건적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을 선전하지는 않을 것임.
- 이에 韓·美·日은 중국의 현실적인 對北정책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韓·美·日이 진정으로 대외 협력적인 기정은 정권을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꿔 북한에 새로운 정치 신호를 보내야 함.

## □ 러시아어권

### ○ 러시아 외무부, '북한과 대화 재개할 준비 됐다.'(4.13 리아 노보스티)

- 러시아 외무부, '핵 문제 관련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마련 및 역내 정세 안정화 노력을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계속 해나갈 준비가 됐다.'
- '南·北간 대화재개 및 관계 안정화를 기대하며,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물론 국제사회의 완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한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우주실험 발사실패로 인해 다른 국가가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장표명

### ○ 대북 제재시 핵실험 할 수 있다.(4.13 리아 노보스티)

- 「안톤 홀로프코프」('핵 클럽'잡지 편집장, 북측 초청으로 참관단 자격 평양 방문),
  - '우리가 만난 고위 관리들과 현지 학자들은 대북 제재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고, 새로운 지하 핵실험이 수 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 '북한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위성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몇 년 후 발사에 충분히 성공할 것으로 본다. 발사 실패로 6자회담 재개 및 美·北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것이 UN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주장

○ 북한의 행동은 UN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4.14 리아 노보스티)

- 「알렉산드르 제빈」(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 '북한 군부가 자궁심 고취 차원에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UN의 대응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 '북한은 금번 발사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민수용 발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도 이행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로켓을 발사했다는 것은 억측이며, 그렇다면 한국의 로켓 프로그램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을 것이다.'고 주장

○ 김정일 핵개발 유언은 사실이 아니다.(4.13 콜로스 러시아)

- 「콘스탄틴 아스몰로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김정일 핵개발 유언 관련, 정보출처 자체가 객관적일 수 없는 탈북자를 통해서 입수됐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 '김정일 유언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확신하며, 일본 정계 등에서 북한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핵보유국으로 묘사, 압박하기 위해 흘린 정보이다.'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北 무인기와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 (4.15 TBS뉴스)

- 「오오쿠보 요시노부」(군사연구원),
  - '무인기는 정찰이 주된 목적이지만 최근 들어 공격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페이로드"라는 수하물을 탑재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폭탄을 달아 순항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폭탄 뿐만이 아니라 생물 및 화학무기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을 것이다.'

2012.4.16(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마지막에 공개된 대형미사일의 엔진부분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과 흡사하므로 무수단의 개량형 혹은 강화형 일 것이다.'
  - '사거리는 5,000km을 넘는다. 미사일을 숨긴 장소를 알아 내더라도 언제 이동할지 모르므로 이동식 발사기는 매우 골치 아픈 존재'라고 주장
- o 北 사정거리 5,500km 이상인 신형탄도미사일 공개(4.15 후지tv)
- 「우가키 타이세이」 (군사평론가),
    - '신형 탄도미사일에는 대포동과 거의 흡사한 기술이 이용된 로켓부스터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정거리는 약 5,000km 전후에서 6,000km대 이상일 것이다.'
    -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더 길 것이며, ICBM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 '퍼레이드 때 최신 무기가 잇따라 등장한 이유로는 북한군도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무기정비 및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나라의 지도자 교체를 각인시키려는 연출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

## 붙임 1. Financial Times 원문 (4.15)

### Financial Times

#### "How US can exploit North Korea's flop"

- o Having seen its tentative February efforts to engage Pyongyang go up in a shortlived bout of smoke, the administration found itself on the end of a Republican tongue-lashing. Yet there are opportunities mixed in with this setback. The signature piece of Mr Obama's foreign policy over the past 18 months has been the so-called "pivot" to Asia - a series of diplomatic and military initiatives aimed at reasserting US leadership in the region and pinning back China's ambitions. North Korea has just given him a new opening.
- o Two weeks before the North Korean launch, Madelyn Creedon, a senior Pentagon official, said the US wanted to develop the sort of regional defence shield in Asia that has proved so controversial in Europe. The other countries, she said, could be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 the strongest US allies in the region and each of which now has China as their biggest trading partner. The idea is not a new one but North Korea's experiments in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have given it momentum.
- o The Chinese reaction to this new US missile defence push has been angry. The Global Times, a nationalist tabloid from the same publishing stable as the People's Daily, warned last week that "a vicious arms race in Asia may follow". Beijing knows that the US and its allies have only one eye on North Korea, the other on China and its fast-developing missile capabilities - including the DF-21d anti-ship missile.
- o Admiral Jonathan Greenert, head of US naval operations, said last month that if the US ever needed to shoot down the Chinese missiles, it would look to mobilise the Aegis cruisers in the region that were watching North Korea this week. In the long run, the navy hopes to have large shipboard lasers to do the job, as well as a range of jamming equipment to confuse incoming missiles.
- o The many critics of missile defence question if it will ever really work. But even with these doubts, the idea is binding the US and its Asian allies more closely together, despite China's growing economic reach. It took Kim Jong-eun just four months to snub a US president. But he has also provided a new opportunity for Mr Obama to reinforce the US position in the region.

## 붙임 2. 美 국무부 보도자료 원문 (4.15)

美 국무부 홈페이지

### "Remarks at Narita Airport"

- o Obviously we'll be discussing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we will be wanting to listen carefully to Japanese views about next steps.
- o I'll also be travelling to South Korea on this trip to have similar consultations wit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Defense officials. I think as you know, discussions are underway at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States is in the Chair at the Security Council and I think there is a very strong sense among the partners, and you've seen it in the statements from the White House, from the G8, from Ambassador Rice, very strong condemnation of the provocative action that North Korea has taken that i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very clear and determined effort to send a strong message that further provocations would be most unwelcome.  
I'll have a couple of other opportunities to give statements during the day tomorrow, but I'm happy to take a couple of very quick questions.

## 붙임 3. 美 CBS 보도 원문 (4.15)

美 CBS 홈페이지

### "North Korea likely to remain the "Hermit Kingdom"

- o That kind of defiant act keeps North Korea so isolated they call it the Hermit Kingdom. Kim, only four months into his rule, looks like he will keep it that way.
- o Kim Jong-Un's words and his surprisingly easy-going banter with his generals suggests he has the backing he needs from the military to stay in power.
- o The only country that might temper the North's aggressiveness is China, but China has little interest in anything that would damage a fellow communist country.



## 붙임 4. 천장원바오 보도 원문 [4.14]

### 천장원바오 홈페이지

“专家解读朝鲜发射卫星失败：三个目标已达成两个”

- 复旦大学国际问题专家沈丁立认为，朝鲜官方宣布卫星发射失败，但其实它这手牌已经达到了主要目的。朝鲜发射卫星的目标有三个，一是能够打破国际社会对它的种种遏制，而且它坚持自己发射，不要任何援助。另一个目标就是，让自己的技术更加精进。而事实是，一次次的失败为今后的成功做好了准备。第三个目标是，这次发射卫星成功，可以炫耀自己的技术和能力。如今它达成了前二个目标，总体来说还是达到了目的。
- 沈丁立认为，朝鲜下一步会做什么，还要看各方的互动。国际社会对朝鲜的各种经济制裁，其实已经到达了一个极点。沈丁立分析说，朝鲜为了让自己的技术更加精进必然要进行新的试验，朝鲜是不甘被关在航天俱乐部大门之外的。可以断言，这次失败积累了更多有价值的数据，相信还会进行再一次试验。至于时间，一方面取决于技术上的改进，另一方面取决于政治、外交时机。
- 沈丁立认为，朝鲜发射卫星的行动对六方会谈的影响肯定是不利的，会让六方会谈更难进行下去，而且对于最终达到美国所希望的目标会越来越难。换句话说，这个行为虽然增加了六方会谈的难度，但更加凸显了六方会谈的难能可贵和价值。至于卫星发射之后美朝关系会怎么走，现在可以说美朝对话难恢复，希望寄托在能不能找到某种形式的多边会谈，在多边会谈的框架下来寻求美朝对话，从而解决现在由于卫星发射造成的危机局面，而这个平台现成的就是六方会谈。
- 有分析说，朝鲜发射卫星会成为今后它对付美国的一张“王牌”。沈丁立说，应该说这是一张牌，但绝对不是“王牌”。朝鲜希望通过用这些技术能够改变和美国的关系，能够得到美国的尊重，它在不断突破外部的限制，最终希望能够得到一种安全感。但是，朝鲜自己的发展，改革开放才是他们手里的真正的“王牌”。

## 붙임 5. 中 환구시보 보도 원문 [4.13]

### 中 환구시보 홈페이지

“吕超：朝鲜发卫星是“昏招”，希望它别再冒险”

- 这次卫星发射的失败，并不会缓和目前的国际形势。估计美国、日本、韩国等国家的报复性行动会接踵而至，包括提交联合国决议制裁朝鲜、停止对朝鲜的营养品援助等等。各种负面影响都会到来。
- 13日，朝鲜宣布“光明星3号”卫星发射失败。其实，这次失败并不是非常意外的事情。此前，朝鲜已进行过两次卫星发射，在国际上已经争议很大，这次发射卫星，各方面条件都不成熟，是个“昏招”。尤其是，前期朝鲜与美国关系好转，与欧洲的关系也有所好转，东北亚局势也趋于缓和，在这种形势下，朝鲜突然强行

决定发射卫星，使所有这些外交努力都一下归零了，东北亚的局势也趋向紧张。这是非常得不偿失的。

- 从朝鲜自身来讲，新政权刚刚确立，正是百废待兴的时候，它却用相当大的精力和金钱来发射卫星，而发射卫星对它的空间技术并不会有很大的提高，反而会因为巨大的投资而累及本来就很薄弱的国民经济。
- 对于朝鲜来讲，下一步最重要的就是像中国外交部所呼吁的，保持冷静克制的态度，进行危机公关，把负面影响降到最低。特别是不要再冒险，比如再次发射卫星，或进行核试验等等，这些都是非常危险的举动。在国内，朝鲜也应该审时度势对待危机，全面恢复国内建设，稳定国家和社会，发展经济，尽快搞好民生。对朝鲜来讲，这才是当务之急。

## 붙임 6.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4.15)

###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汤本：北京阻朝鲜核武 缓三矛盾扩三发展”

- 汤本：凤凰北美的记者已经报道了，他们访问了一位美国专家认为，朝鲜有可能进行核武器的实验，但是我个人认为这种可能性很小，因为他必须面对国际社会，尤其是整个全球各国，尤其是安理会的谴责之后，应该有所收敛。
- 在这个问题上，我觉得中国北京方面有强大的游说能力，应该阻止朝鲜发射，再进行新的核武器的试制和试验，因为这个对朝鲜不利，对东北亚地区的安全不利，同时中国如果成功的阻止他进行核试验的话，给中国带来的三个缓和。
- 第一缓和和日本和韩国的关系，中国加强日韩的关系，能够使中日自由贸易区早日成型。同时缓和和中国和美国的关系，在地区的合作中，中美增加互信；第三，缓和和中朝的关系，因为朝鲜如果试制核武器，事实上对中国的安全也有某种程度带来不稳定的因素。当然如果阻止成功的话，会带来三方面发展的成果，第一发展中朝关系，促进朝鲜经济改革，促进日韩关系，也促进中美关系在这个地区的合作。

## 붙임 7. 中 환구시보 보도 원문 (4.16)

### 中 환구시보 페이지

“环球时报：朝鲜的细微变化也应受到鼓励”

- 朝鲜昨天举行纪念金日成百年诞辰大阅兵，金正恩在一改其父亲金正日不在群众集会上讲话的习惯，发表了令外界惊奇的公开演讲。虽然其讲话内容以“继承性”为主，但讲话发表形式的不同寻常，留给外界大量回味。
- 金正恩年仅29岁，他的年轻有可能影响朝鲜新政权与外界交往的性质，也促其建设“强盛国家”采取更开放的思想。朝鲜发卫星并遭遇失败的全过程伴随了美日韩的激烈抗议，但朝方能提前通报发卫星，并在事后坦率承认发射失败，这些似

中환구시보 페이지

乎都是金正恩这位年轻领导人“刻意”带来的。

- 针对金正恩政权的开放性姿态，外界应予以鼓励。这会不会成为朝鲜走上改革开放的历史性开端，不仅取决于平壤新政权的后续计划，还在很大程度上取决于外界对平壤新姿态的反应。
- 外界、首先是美日韩，要对朝鲜做一个更贴近现实主义的定位。朝鲜不会做否定前任领导人治国方针的激进转弯，朝鲜无论怎么变化，政治的传承性大概都不会丢。此外，朝鲜的独立自主也不会为新的国家政策做牺牲，平壤对国家安全的追求将始终高于其他追求。美日韩应当清楚，它们压朝鲜的弹簧已经触底，对“孤立的朝鲜”来说，“更严厉的孤立和制裁”毫无意义。鼓励比谩骂更有可能触动平壤看问题的方式。
- 中国是朝鲜的友好邻国，我们从不忽视朝鲜对维护中国在东北亚战略空间的重要意义。但外界不应以为中国的半岛政策仅仅是自私自利的。中国全社会都希望朝鲜走向对外开放和繁荣，这个愿望高于中国人对朝鲜开放可能带来外交不确定性的担心。
- 中国改革开放的成功经验，是类似政策对朝鲜吸引力的重要来源。但鉴于朝鲜对独立自主的特殊在意，中国不宜向朝鲜主动推销改革模式，中国必须尊重朝鲜学习什么或者坚持什么的自由。美日韩不应对中国对朝政策指手画脚，进一步增加环朝鲜政治环境的复杂性。
- 美日韩是否真的想要一个更有对外合作意愿的金正恩政权呢？它们迄今的做法大多是反方向的。而现在是它们改弦更张，向平壤传递新政治信号的大好时机。

**붙임 8.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4.13)**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МИД: РФ готова работать с "шестеркой"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диалога с КНДР”

- “Россия готова совместно с партнерами по шестисторонним переговорам продолжать усилия по нормализации обстановки в регионе и созданию условий для скорейшего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по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ИД РФ, размещенном на сайте ведомства.
- “Надеемся также на то, что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озобновится диалог, отношения будут нормализованы, это поможет снизить напряже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целом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сказал он.
- Мы, конечно же, сожалеем в связи с тем запуском ракеты, который был произведен Пхеньяном вопреки настоятельным п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ризыв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е делать этого, включая и призывы дружественных КНДР государств, по край ней мере, Китай и Россия такие призывы адресовали. К счастью, на этот раз неудача запуска этого космического эксперимента не обернулась ущербом для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 сказал Лавров на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 главами МИД Китая и Индии.

**붙임 9.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4.13)**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КНДР в случае санкций может провести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 эксперт"**

- "По край ней мер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чиновники и местные ученые, с которыми мы общались, говорят о том, что это вполне вероятно, - сообщил РИА Новости Хлопков. - Этого же от них ждут кураторы этой темы в американ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 которыми лично мне довелось общаться в Сеуле".
- По данным эксперта, новый ядерный взрыв они могли 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недель. По его предположению, есл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йдет на этот шаг, ядерный взрыв также будет подземным, как и предыдущие.
- "Скажу крамольную мысль - возможно, то, что ракета упала - это лучший выход из ситуации, потому что это оставляет возможность, чтобы запуск спутника не стал серьезным дестабилизирующим фактором, - считает эксперт. - Неудача запуска оставляет окно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ост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сохранения февральски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между СШ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хотя многое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какая реакция будет от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они, безусловно, будут ее продолжать развивать.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они вполне могут провести успешный запуск".

## 붙임 10.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4.14)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Млечный путь》 падает в море”

- "Лучше бы этот пуск увенчался успехом. Поскольку многие опасаются, что теперь для самоутвержд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могут пойти на очередное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Здесь многое, конечно,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той реакции, которая последует на эти события со стороны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 "Северокорейцы все позиционировали именно как запуск гражданского спутника, а не как военный тест. И, в общем-то, выполняли все процедуры,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запуска гражданского спутника. Разговоры о том,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они запустили боевую ракету, - это, извините, домыслы. Потому что в этом случае также и к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е можно предъявить аналогичный набор претензий".

## 붙임 11. 러시아 글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4.13)

글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Завещание Ким Чен Ира. Подлинник?”

- Показательно, что в японское издание текст завещания поступил из Южной Кореи. Его передал бывши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перебежчик, а ныне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Ли Ен Хол. Иными словами, поставщик сенсации - лицо, отнюдь 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е в объекти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з Пхеньяна.
- "Неслучайно, на мой взгляд, это завещание появилось даже не на фоне запуска спутника, а на фоне партконференции, на которой Ким Чен Ын был провозглашен первым секретарем, а к вечному президенту Ким Ир Сену прибавился вечный генсек Ким Чен Ир, - сказал Асмолов. - Есть ощущение, что, публикуя слухи, определенные круги в Японии продолжают рисовать обра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ак ужасной и непредсказуемой ядерной державы. Это отвечает определенному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му тренду и не несет ничего нового".

## 붙임 12. 일본 TBS뉴스 보도 원문 (4.15)

### TBS뉴스 홈페이지

#### “北朝鮮、無人機や新型弾道ミサイル公開”

- 15日のパレードで北朝鮮は、開発が指摘されていた無人機や、新型の弾道ミサイルを公開しました。
- キム・ジョンウン第一書記の演説のあとに行われた軍事パレード。34種880台あまりもの兵器類が登場し、これまでで最大規模のものとなりました。中でも、専門家を驚かせたのは……。
- 「これですよ。これも驚きですよ」 (軍事研究 大久保義信副編集長)
- 北朝鮮が極秘裏に開発を進めているとされていた無人機。朝鮮半島有事の際は、アメリカ軍の妨害電波などで使いにくくなるとみられますが、専門家は……。
- 「(無人機は) 偵察がメインで、最近では攻撃に使われるようになってくるが、ペイロード部という荷物を載せる部分がある。(そこに) 爆弾をつけて巡航ミサイル的な使い方をすると。必ずしも爆弾だけじゃなくて、生物・化学兵器を積むことも十分可能だろうと」 (軍事研究 大久保義信副編集長)
- おとしとして初めて公開された中距離弾道ミサイル「ムスダン」や、日本全土を射程に収める「ノドン」も登場。締めくくりは……。16輪の車両に載せられて登場した巨大なミサイル。全長16メートルほどのノドンよりも大きく、テポドンとは違った形です。自走式で車からの発射も可能とみられます。
- 「エンジン部分に似ているところが多いので、(中距離弾道ミサイル) ムスダンの改良型か強化型? 射程は5000キロを超える。(ミサイルを) 隠した場所が分かったとしても、それがいつどう動くか分からないわけですから。この移動式発射機というのは本当にやっかいな存在」 (軍事研究 大久保義信副編集長)
- 事実上のミサイル発射に失敗した北朝鮮ですが、新型兵器の披露で軍事増強を内外に誇示しています。

## 붙임 13. 일본 후지TV 보도 원문 (4.15)

### 후지TV 홈페이지

#### “北朝鮮軍事パレード

#### 射程5,500kmを超える可能性がある長射程の新型弾道ミサイル公開”

- 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第1書記は15日、故・金日成主席の生誕100年を祝う朝鮮人民軍の軍事パレードで、およそ20分演説した。一方、今回の軍事パレードで、射程5,500kmを超える可能性がある、長射程で新型の弾道ミサイルを公開した。「テポドン2号」と共通の技術を使った軍用弾道ミサイルで、大陸間弾道ミサイルの開発を狙ったものとして注目される。
- 軍事評論家の宇垣大成氏は「新型の弾道ミサイルが公開されました。テポドンと、だいたい同じ、共通の技術を使ったロケットブースターが使われ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射程距離は、おそらく5,000km前後から6,000km台以上。おそらく、IRBM(中距離弾道ミサイル)よりは、射程が長いように見受けられます。ICBM(大陸間弾道ミサイル)の開発を狙うものと言っていると思います」と話した。
- このミサイルは、移動式の自走発射機に載せられており、指定された場所に移動して、ミサイル本体を起立させ、発射するもの。
- 射程5,500~6,000km級で、アラスカ、ハワイなどを射程圏内に収める可能性があるため、アメリカにとって大きな脅威となり得る。
- また、北朝鮮のパレードとしては初めて、主力戦闘機「ミグ29」が5機登場した。
- 新型戦車「暴風」や無人飛翔(ひしょう)体(UAV)など、北朝鮮で最新の兵器が相次いで登場した。その理由について、軍事評論家の宇垣大成氏は「北朝鮮人民軍も、これまでにはない、新しい分野の兵器の整備・開発に力を入れていると。名実ともに、国の指導者の代替わりを印象づける演出が見てとれます」と話し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美 유엔대사, '北의 핵실험은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4.16 유엔 미국대표부)

- 「수전 라이스」(유엔주재 미국 대사), 유엔 안보리 회의 후 브리핑
  -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 '의장 성명은 국제사회가 도발행위는 심각하며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또 반항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 '미국은 북한제재위원회에 강력한 새로운 조치를 곧 제출할 것이며, 조치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명과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 품목 명단 등이 포함됐다.'
  - '이번 의장성명은 2009년 채택된 것보다 강하고 단호하며, 전례 없이 신속하게 채택됐다.'고 강조
  - (의장성명이 과거보다 강력한 이유) '핵 프로그램을 직접 우려하고 있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상했으며, 북한 발사 후 신속히 논의를 시작해 주말까지도 집중 논의했다.'
  - (北 3차 핵실험 가능성)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다.'
  -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북한이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재앙의 길로 가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단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



○ 美 국방부, 北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

(4.16 美 국방부 브리핑)

- 「리언 패네타」(美 국방장관), '북한이 실패했지만 미사일 발사 시도라는 도발행위를 감시하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접촉해 왔다.'
-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충분히 준비를 할 것이며,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준비를 지속할 것이다.'
- '북한의 발사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에 반항한 도발행위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 '북한은 발사를 강행했고 실패했다. 북한이 어떤 추가 도발에도 나서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 '북한은 협상테이블로 복귀해 외교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바란다. (北 3차 핵실험 징후 관련) 여러가지 소문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언급

○ 클린턴 장관, 北 추가 도발시 中도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4.16 AFP/로이터통신)

- 「힐러리 클린턴」(美 국무장관), 브라질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
-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어 새로운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추가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합의했다.'
- '우리는 북한의 새 지도부에게 도발행위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북한의 새 지도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며, 핵 보유국이 되려 하기 전에 자국민을 우선시하고, 부양하며, 교육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북한의 젊은 새 지도부는 이제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들 정책을 면밀하게 살피고, 도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로켓 발사는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려던 미국과의 잠재적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언급

○ '美·北 대화의 지속과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 주장(4.16 Forbes誌)

- 「더그 벤도우」(CATO 연구소[美 공공정책 싱크탱크]선임연구원/前 대통령 특별보좌관),
  - '미국은 북한의 발사 실패와 관련, 외교적 역할을 재강조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북한과의 협상보다는 처벌이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 대화할 때 도발 행동이 적었으며, 2년전 상대적으로 고립시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
  - '대화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美행정부는 기대를 낮추고 달성되지 못할 합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
  - '동시에 美행정부는 노골적인 공개 요구를 그만둬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게끔 했다.'
  - '유감을 표하는 성명으로 충분했을 것이며, 그 후 사안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 북한의 목적은 주목을 받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미국은 관심을 주거나 불안감을 내비쳐서는 안된다.'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권력층이 미국의 보복으로 자멸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농간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핵확산을 우려하겠지만 핵공격의 직접적인 위협은 받지 않을 것이다.'
  - '불행히도 오늘날 27,000명의 주한미군이 핵위협에 불모가 되고 있다. 한국의 국방에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으며 미국은 국방의 책임을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
  - '미군 철수와 함께, 미국은 북한 주변국들이 북한을 상대할 때 그들의 편이 될 것임을 나타내야 한다. 대북관계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미국은 국제적 인정, 교역, 원조 대신 북한이 비핵화하는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촉구하고 북한의 합의 거부 시 중국의 대북 투자 및 원조 축소를 요구해야 한다.'
- '중국이 거부하면 미국은 한반도 상황 악화시 중국이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 '또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한다면 미국은 한국, 일본의 핵무기 보유 반대 입장을 재고할 것임을 시사해야 한다.'
-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중국 또한 미국, 한국, 일본 당국을 괴롭히는 상황에 똑같이 처해야 한다'고 주장

## □ 중국어권

- 평양이 더 이상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4.17 환구시보)
  - 4.16일, UN 안보리의 북한 위성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 성명 채택에 중국도 찬성함.
  - 이는 발사前 중국의 권고에 대해 무시한 결과이며, 김정은 정권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평양의 新정권에 보내는 공개적 성토임.
  - 김정은은 젊고 그의 對中인식이 형성되는 가운데 있으므로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필요함.
  -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對北인식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함. 중국이 한반도와 북한의 안정을 지지하지만 大國으로서 북한만을 바라볼 수는 없는 형편임.
  - 외부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볼모로 삼고 북한의 모든 행동을 중국이 받아줄 것이라고 여기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임.
  - 만약 북한이 실제로 중국을 볼모로 삼고 하고 싶은대로 한다면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함.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전략적인 중국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양국의 우호관계가 동북아 전략에 이롭지만 관계 불화를 피하기 위해 핵 비확산 등에 관한 기본적 전략 조정은 없을 것임.
- 북한은 더욱 이성적으로 對中관계를 이해해야 하며, 북한이 중국을 따라서 발전하는 것이 북한 정치 안정을 위한 최선임.
- 북한 정치의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중국의 對北 영향력이 핵무기 보유나 미사일보다 중요할 수 있음.
- 김정은 정권의 초기 단계이므로 中·北 고위층 간의 소통과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함.
- 중국의 인민은 김정은을 존중하며 그의 지도 가운데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
- 핵문제에 있어 북한이 스스로의 이익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어려운 입장도 살폈으면 함.
- 북한이 이러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경솔한 행동을 삼갔으면 하며 양국의 우정이 진정성 위에 새롭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람.

○ 北 미사일 발사 실패, 나쁘지만은 않다.(4.17 환구시보)

- 「젠신」(日 JCC신일본연구소 부소장),
  - '위성 발사 실패는 한 시대의 끝이자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만은 않음. 위성 발사 실패 후 국제사회는 북한을 더욱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함.'
  - '북한은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며, 전쟁만을 일삼는 惡國도 아님. 비록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이로 인한 피해는 없었음.'
  - '북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협과 리스크를 과장했고, 북한을 도발만 일삼는 나라로 이미지화했음.'
  -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 위성 발사 실패는 아픔이지만 교훈 또한 얻을 수 있는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음.'

- '위성 발사 실패로 북한이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자신들만의 발전을 길을 찾았으면 하고, 관련 당사국들 또한 냉정한 사고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함.'

## □ 러시아어권

### ○ 김정은은 가스관 건설에 관한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7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발레리 수히닌」(駐북 러시아 대사),
  - '김정은은 북한을 통과하는 러·北·南 가스관 건설에 관한 국제협정을 지지하며,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한은 국가간 협정을 체결한 만큼 이제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심국룡 나호드카 주재 북한 총영사도 얼마전 연해주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비슷한 언급을 했음.
- 양측은 최근 駐러 북한 대사관에서 만나 가스관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일련의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확인됨.
-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들은 양국 관계발전 뿐 아니라, 역내 전체 경험을 지향하고 있음.

### ○ 김정은은 다른 생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이다.(4.16 베스트 FM)

- 「게오르기 톨로라야」(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실장),
  - '김정은은 구소련 혹은 공산주의가 존재했던 시대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세대다.'
  - '새로운 세대가 믿는 것은 공산주의 이념이 아닌, 민족주의와 같은 북한 인민과 국가의 위대함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이다.'

2012.4.17(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최근 북한은 개방성, 투명성, PR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외참관단 초청, 사실여부의 즉각적인 발표 등을 실례로 들 수 있다.'
- 'IT 기술을 잘 몰랐고, 폐쇄성이 안보를 유지해준다고 믿었던 김정일에 반해 김정은은 IT의 힘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IT 전쟁에 임할 것이다.'라고 주장
- 「알렉산드르 제빈」(극등문제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
  - '김정은은 아버지의 전통에서 벗어났다. 군 열병식에서 연설을 하는 등 김정일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
  - '김정일은 1998년 지도자가 됐을 당시, 1990년 김일성이 했던 녹음 연설을 틀어줬다.'고 주장
- 독재체제 유지가 북한이 존속할 수 있는 길이다.(4.14 스바보다 라디오)
  - 「발렌틴 모이세예프」(前 외부무 아주 부국장),
    - '북한과 같이 독재로 지탱되는 권력구조를 가진 국가의 자유화는 불가능하다.'
    - '독재체제가 약화되고,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체제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김일성이 건국한 국가형태 그대로 김정은에게 물려줬으며, 사실상 이러한 과거형태 유지가 북한의 존속방법이다.'
    -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 '폐쇄경제 국가인 대북 경제제재는 사실상 주민들의 삶만 힘들게 할 뿐이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말로 하는 제재에 국한된다.'고 주장
  - 「빅토르 체레프코프」(前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 '북한의 경제상황은 점차 악화될 것이고, 향후 5~7년 후 현재 쿠바와 같은 경제·정치 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 '북한 주민들은 과학기술 발달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계의 실상을 알게 될 것이고, 이에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신형미사일 발사대는 중국산 특수차량을 개조한 것(4.16 마이니치)
  - 4.15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미사일의 이동식발사대 차량은 중국우주비행과학기술 그룹의 자회사가 작년 5월에 개발한 'WS51200'일 가능성이 높음.
  - 중국우주비행과학기술 그룹의 자회사가 작년 8월경 캄보디아 선적의 화물선에 'WS51200' 4대를 적재해 북한 남포항으로 발송한 것이 확인됨.
  - 중국우주비행과학기술 그룹은 특수차량을 개발중이었던 2010년 10월 자사 홈페이지에 '某國의 고객과 WS51200의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공표했으며, 3천만 위안(약3억 9천만 엔)의 계약 금액도 밝혔고, '모국'이 북한일 가능성이 높음.
- 평양의 최근 모습과 농촌지대와의 격차에 대한 르포 (4.16 NHK)
  - 평양에는 과거 6년 전에 비해 중국제품이 급증했고, 일본산 중고차가 줄어든 것에 비례해 중국차가 늘어남.
  - 중국제품은 식품, 의류, 기계류 및 모든 분야에서 늘어났고, 발사장으로 가기 위해 탑승한 열차 공조설비와 객실내에 있던 수건 등도 중국제품이었음.
  - 평양에는 깔끔한 복장을 한 사람, 세련된 화장을 한 여성이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장사에 소질있는 사람이 넉넉해진 것이 배경으로 보임.
  - 한편, 농촌지대는 평양과 대조적이었고, 손질이 잘 안 된 밭이 많이 보였으며, 팽이를 사용하고 삼태기를 메는 등 농업용 기계와 연료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음.
  - 오래 입어 낡은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사람이 많아 빈부격차가 확실히 느껴짐.

## 붙임 1. 유엔 미국대표부 게재 원문 [4.16]

### 유엔 미국대표부 홈페이지

"Remarks by Ambassador Susan E. Rice, U.S.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at the Security Council Stakeout"

- o Today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a Presidential Statement that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recent attempt to launch a satellite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he swift and unanimous adoption of this strong presidential statement show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united in sending a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that such provocations are serious and totally unacceptable.
- o Critically, the Security Council made clear that there will be consequences for any future North Korean launch or nuclear test. If North Korea chooses again to def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n the Council has expressed its determination to take action accordingly.
- o The United States, for our part, will soon propose to the Committee a robust package of new designations, including the names of companies responsible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a list of technical items that North Korea needs to proceed with its illicit programs.
- o This presidential statement is stronger and more explicit than the one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in 2009 in reaction to North Korea's last launch. It was also adopted with unprecedented speed.
- o (Q: Madame Ambassador, if you could enlighten us—what is your view on why this presidential statement is much, much stronger than the one in 2009?) Well, this was negotiated in earnest, in good faith, among those members of the Council most concerned directly with the nuclear program. As we were aware that this was coming, we had the opportunity to begin discussions promptly. We have pursued them intensively, including over the weekend.
- o (Q: The Council acts very cautiously normally, but they explicitly warned about a possible test. Is there any information on what is being prepared by North Korea?) Well, I'm not going to comment on intelligence matters, but there is the fact of history—that in 2006 a launch was followed by a nuclear test. The same was true in 2009. And so, clearly, the potential for that pattern to persist is one that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mindful of and think would be a disastrous course for the North to pursue. It will only lead to the North's increased isolation.



## 붙임 2. 美 국방부 게재 원문 (4.16)

美 국방부 홈페이지

- o On North Korea, we have been in very close contact with our counterparts in South Korea and Japan as we monitored the provocative, and ultimately unsuccessful, attempt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conduct a missile launch. We will continue to be fully prepared for any future provocations should they occur. We hope that won't be the case, but we continue to be prepared in the event that that happens.
- o (Q: Mr. Secretary, when you have the kind of failed rocket launch we saw with North Korea, do you expect them to do something provocative to try to save face? And specifically, are you expecting a nuclear test in the weeks and months ahead?) You know, whether their launch was a success or a failure, the bottom line was that it was provocative and that they should not have taken that step because it violates the U.N. resolution and it was, you know, clearly something that they had been urged not to do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o They went ahead, did it; it failed. Our hope is that they will not engage in any further provocation. But I can assure you that we have -- we have taken all of the steps necessary to deal with any contingency. But, again, our hope is that they will not engage in provocation, but that they'll go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try to resolve these issues, as they should, on a diplomatic basis.
- o (Q: Did you say a nuclear test? -- to detonate another nuclear warhead, as they've threatened to do or talked about doing?) I -- all we've ever -- I heard the same rumors you have. I haven't seen anything specifically.

## 붙임 3. AFP통신 보도 원문 (4.15)

AFP통신 홈페이지

"China ready for action against N.Korea: Clinton"

- o China and other world powers will back "further consequences" against North Korea if it undertakes new provocation following its rocket launch,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aid Monday.

- o "We are working to ensure that the new North Korea leadership hears unequivocally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ir provocative behaviour will not be rewarded," Clinton said during a trip to Brasilia.
- o "We have all agreed -- that includes China -- that there will be further consequences if they pursue another provocative action," Clinton said at a press conference with Brazilian Foreign Minister Antonio Patriota.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Clinton: North Korea should re-evaluate policies"

- o North Korea's new leadership should reevaluate its policies and work to feed and educate its people before trying to become a nuclear power,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aid on Monday.
- o "The new young leadership of North Korea has a very stark choice; they need to take a hard look at their policies, stop the provocative action," Clinton said at a press conference in Brazil's capital. "They need... to put their people first ahead of their ambitions to be a nuclear power."
- o She said the rocket launch ended a potential deal to provide food assistance to the reclusive state and warned of consequences if North Korea continues with "provocative actions."

**붙임 4. Forbes誌 원문 [4.16]**

Forbes 홈페이지

"North Korea: A Paper Tiger Threatens the Peace"

- o Washington should use the North's failed launch to reemphasize the role of diplomacy while moving in a new direction. It is probably less painful to have a root canal than dicker with a North Korean diplomat. Nevertheless, the DPRK appears to behave less provocatively while talking with America and South Korea, in particular. In contrast, at a time of relative isolation two years ago the North torpedoed a South Korean warship and bombarded a South Korean island. Even if talks go nowhere they may perform a useful role. Thus, Washington should pursue discussions with limited expectations. Let North Korean officials talk without pressing hard for an unattainable agreement.

Forbes 홈페이지

- o At the same time, Washington should stop ostentatiously making public demands. For instance, President Obama insisted that the North drop its missile launch. His comments ensured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move ahead. A disappointed statement of regret would have sufficed, followed by a conscious effort to downplay the issue. Pyongyang's objective is to win attention and create anxiety. The U.S. should not provide the first or evidence the second. In fact, the North's failed launch demonstrated that the event received a build-up far exceeding the stakes.
- o Even if North Korea had a long-range missile that worked, Kim Jong-un & Co. would not use it against America. North Korea has a return address and the U.S. has a devastating retaliatory capacity. Kim wants his virgins in this world, not the next. None of his colleagues want to play a game of self-immolation.
- o Without forces in South Korea, the U.S. could stand largely aloof from the North's antics. Washington would still worry about proliferation, but would face no direct threat of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no matter how small. Unfortunately, today 27,000 Americans stationed in the South act as nuclear hostages. Yet their presence is not necessary for the ROK's defense. Seoul enjoys a 40-1 economic and 2-1 population advantage over the North. Washington should turn responsibility for South Korea's defense over to the South Koreans, where it long has belonged.
- o As the U.S. disengages militarily, it should indicate that it plans to step behind the North's neighbors as they deal with Pyongyang. The ROK should take the lead in confronting North Korea.
- o The U.S. should call on China to support an allied plan offering to swap recognition, trade, and aid for denuclearization. The U.S. should request a commitment to squeeze investment as well as aid flows and energy shipments should the North refuse to make a deal. If China refuses, Washington should politely indicate that the PRC will bear the burden if things go badl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North Korea come calling to request aid to feed its starving population, the U.S. will point the way to Beijing.
- o Moreover, Washington should explain, if the North insists on creating an expansive nuclear arsenal, that the U.S. will reconsider its objection to South Korea and Japan possessing nuclear weapons. If the PRC is going to protect its discreditable ally, it should pay the full price for doing so. Chinese officials should wake up to the same nightmares as those which now disturb policymakers in America, South Korea, and Japan.

## 붙임 5. 中 환구시보 보도 원문 (4.17)

### 中 환구시보 홈페이지

#### “希望平壤不搞新的莽撞之举”

- 安理会16日通过主席声明，对朝鲜发卫星进行强烈谴责。中国对该声明投了赞成票。这是中国一段时间以来首次明确加入谴责朝鲜激进行为的行列。分析认为，这是朝鲜在发射卫星问题上对中国的劝阻置若罔闻的结果。这也是金正恩接班以来，中国第一次对平壤新政权公开采取严厉态度。中国这样做很有必要。金正恩很年轻，其对中国的认识仍在形成之中。
- 中国要避免金正恩政权误判中国的对朝思维。中国支持朝鲜半岛稳定，支持朝鲜的稳定，但中国是大国，中国对外战略的口袋里不仅只装着一个朝鲜。中国的利益面相当宽阔，朝鲜如果同样珍惜中朝关系，就应在中朝利益之间不断扩大共同面，防止两者的不协调。外界常有一种议论，即朝鲜认为它已经成功“绑架”了中国。它可以随心所欲，无论做什么，中国都只能承受，并且在国际舞台上护着它。不知道平壤是否真的这样想。我们希望这只是外界的误传。中国视朝鲜为朋友，但朝鲜必须同样将中国当成朋友。如果朝鲜真以“绑架”之计谋对待中国，它一定会对此付出代价。
- 中朝友好毫无疑问有利于维护中国在东北亚的战略空间。但中国不会为避免中朝关系的不和谐，就改变自己的核不扩散等根本性政策。中国一些周边国家近年来的对华关系发生了调动，但中国同亚洲国家关系的总态势没有变。中国有足够的自生性力量确保自己在东亚的位置，中朝友好是对中朝两国互利的，不是单向的。
- 或许朝鲜应当对中朝关系保持更高的冷静和理性。朝鲜紧贴着中国和中国的强大与繁荣，是朝鲜政治稳定的最关键保障之一。甚至可以说，中国因素对朝鲜维护政治上独立自主的促进意义，决不小于它拥有核武器和战略导弹。
- 由于金正恩初掌政权，中朝高层沟通尚需磨合。中国人民尊重金正恩，真心希望朝鲜在其带领下走出一条符合自己国情的发展之路。也希望金正恩在核问题上不仅考虑朝鲜的利益，也要考虑中国的难处。因为中朝的战略利益本应相辅相成。希望平壤汲取这次的教训，不搞新的莽撞之举。我们同时希望，朝鲜解决问题的过程是中朝友好不断发展的过程，两国友谊在真诚的基础上历久弥新。

## 붙임 6. 中 환구시보 보도 원문 (4.17)

### 中 환구시보 홈페이지

#### “庚欣：卫星失败对朝鲜未必是坏事”

- 朝鲜卫星发射失败，人们或忙着打捞碎片，或揣测朝美等下一步动向，其实，朝鲜近日最重要的大事不是卫星，而是金正恩政权的正式起步。卫星落下并不完全是一件坏事，它或许标志着一个时代的结束，以及给朝鲜及半岛局势带来的新机遇。

中 환구시보 홈페이지

- 朝鲜发射失败，将使国际社会对朝鲜的认知更加冷静、客观。事实很清楚，朝鲜并不是发达的高科技国家，也不是真有能力对外穷兵黩武的“恶魔”，尽管朝鲜常常对外宣示强硬，但即使其有什么非分之想、过激之举，也不至于造成对地区及国际社会的实质性重大伤害。一直以来，由于不了解或故意，一些人总是过分夸大朝鲜的威胁与风险，把朝鲜塑造成了一个心力强悍、天天找茬寻衅的恶人，致使人们对朝鲜缺乏冷静、准确的定位与对应，也使朝鲜与外部极少互信、极难互动，这是今天半岛危机出路难寻的重要原因。其实，无论这次发射成败，与任何对手相比，朝鲜都是一个弱者，客观认知朝鲜，可能使半岛局势出现一些新变化。
- 毋庸讳言，发射失败对于新手上路的金正恩政权是一个“痛”。但如果平壤能总结教训，“痛定思痛”，而不是再行险招，往自己的新伤口上撒盐，那么这次失败对朝鲜应该是一件好事。但它提示朝鲜：发展是硬道理。小到一颗卫星的发射，大到一个国家的强盛，都没有捷径可寻，更不能靠赌博式的“剑走偏锋”侥幸实现，而只能通过脚踏实地的苦干实干才能成功。
- 今天的朝鲜是一个特殊形态的国家面对着积重难返的转型压力，需要进行全面反思。热战与冷战的创伤未愈，全球化也没有使朝鲜得到多少好处。朝鲜今天面对的困难是全方位的，在综合实力、体制建设、国际环境、发展前景等各方面都缺乏竞争力。即使这次发射成功，也不能解决体制改革等复杂的社会转型任务。朝鲜要想让人看得起而惹不起，出路还在自己脚下。朝鲜是半岛问题的第一当事人，朝鲜如有变化，半岛就会出现新的机会。
- 说到机会，这次发射失败对各国也都是一次新契机。美国作为半岛纠纷的始作俑者及半岛唯一的外来驻军，在半岛获取了重大利益，理所当然应对缓和局势担负最重要的责任。这次发射失败，也许使中国对朝鲜乃至各方多几分劝说的机会。中国在“六方”中不是简单的司仪，完全可以发挥更积极的作用，带头捕捉难得的时机，清晰定位朝鲜问题的性质，引领半岛及东北亚再创新局。但愿此次卫星落下，能够引发朝鲜认真反思、奋起变革，找到自己的发展之路，同时带动有关各方回归冷静，携手重回六方会谈框架。

**붙임 7. 러시아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보도 원문 (4.17)**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Бросок на Восток”

- Нов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оддерживает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глаш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газопровода из РФ в Южную Корею и счит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ть этот проект. Об этом недав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но заявил посол РФ в КНДР Валерий Сухинин.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проект осуществляет "Газпром",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 министерство нефтя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НДР.

- По словам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ла в КНДР, теперь нужно решать сугубо практ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так как основно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подписано. Схожее мнение высказал генконсул КНДР в Находке Сим Гук Рён в ходе недавней встречи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иморья.
- Как уточнили "РБГ" в посольстве КНДР в РФ, обе стороны наметили ряд крупны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включая транскорейский газопровод. Он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звитие не только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но и общерегиональ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붙임 8. 러시아 베스티 FM 보도 원문 (4/16)**

베스티 FM 라디오 홈페이지

“Сила Кореи скрывается в вожде ”

- Ким Чен Ын, понимаете, человек совсем другой, по-моему, природы. Во-первых,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уже вырос и сформировался как личность в период, когда не стал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е стало мирового коммунизма. Это совсем уже другая генерация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они думают и мыслят по-другому. И, по-моему, они не очень верят в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е идеалы, если раньше кто-то верил, то сейчас, по-моему, нет. Сейчас они верят в величие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в национализм, в примат собстве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то, что их государство заслуживает быть на первых местах в мире. Поэтому Ким Чен Ын, видим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все-таки другую политику. Я очень ясно вижу то, что сейчас там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открытость и прозрачность, пиар - это нечто совершенно новое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приглаш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в на самые чувствительные объекты, и немедленное сообщение о том, что произошло или не произошло, и вообще его работа

베스티 FM 라디오 홈페이지

на камеру, видеоряд, который начался с момента смерти Ки  
м Чен Ира, те репортажи, которые шли с похорон, показываю  
т, что, по-моему, он хорошо понимает силу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Да, конечно. Но Ким Чен Ир не очень понимал  
силы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предпочитал просто от  
малчиваться по-старинке, считаю, что закрытость страны - эт  
о гарант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Ким Чен Ын не таков, по-моему, он  
будет ве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войну очень активно.

-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он уже отошел от традиций своего отца.  
Он выступил с публичной речью на параде! Ведь Ким Чен  
Ир за все время своего пребывания у власти ни разу этого не  
делал. Вот когда его назначал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тета обо  
рона, занимал он все свои первые посты на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и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в 1998 году, тогда депутатам дали про  
слушать в записи речь Ким Ир Сена 1990 года. То есть, пони  
маете, с чем выступал Ким Ир Сен в 90-м году, сохранило а  
ктуальность для 98!

**붙임 9. 러시아 스바보다 라디오 보도 원문 (4.14)**

스바보다 라디오 홈페이지

“Валентин Моисеев, Виктор Черепков”

- Мне кажется, о либерализации нельзя говорить вообще, в пр  
инципе при такой структуре власти. Если вся страна существ  
ует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там существует диктатура. Как тол  
ько будут какие-то послабления, как только будет какая-то  
либерализация, тут же люди поймут, что так жить больше  
нельзя, и страна развалится.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тут не только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а страна сохраняет свою власть со времени  
Ким Ир Сена. Ким Ир Сен построил страну, он передал в то  
м виде, в каком она существовала, своему сыну, сын никаких  
изменений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внес, и так же она досталась его  
внуку. Страна сохраняет тот способ существования в том вид  
е, в котором она существует. Поэтому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мо  
гли или надеялись говорить о передаче власти, что эта влас

스바보다 라디오 홈페이지

ТЬ МОГЛА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ИЗМЕНИТЬСЯ ИЛИ БЫЛИ КАКИЕ-ТО ШАНСЫ У ВНУКА ИЛИ У СЫНА СДЕЛАТЬ ЧТО-ТО ДРУГОЕ, ОТЛИЧНОЕ ОТ ТОГО, ЧТО ДЕЛАЛИ 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И, - ЭТО НЕВОЗМОЖНО.

- Эт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вопрос,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довольно сложный.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таких рычагов очень немног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акие могут быть санкции, они и так в санкции себя загнали, притом надо учитывать, чт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анкции меньше всего коснутся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и больше всего коснутся населения.
- Я думаю, лет 5-7- это железно. За это время ухудшится у 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и я думаю, что они перейдут на какие-то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модели,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начинает Куба. И какие-то изменения все же появятся. Потому что эти режимы, хоть и долго держатся, когда передаются, но международное наше сообщество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темпы роста с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интернета нет, но другие формы, есть и радио, они свое сыграют. Народ, когда узнает, как живет весь мир, там будут совершенно по-другому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всю жесткость, которая там есть.

**붙임 10.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 원문 (4.16)**

마이니치 홈페이지

“新型ミサイル発射台は中国輸出の特殊車両改造か”

- 北朝鮮が15日の軍事パレードで公開した新型ミサイルの移動式発射台は、昨年夏に中国から輸出された特殊車両を改造したものとみられることが、香港の報道や、情報関係筋の話で明らかになった。新型ミサイルが長距離弾道ミサイルかどうかは明確でないが、米国が北朝鮮による移動式長距離弾道ミサイル開発を警戒する中で、こうした特殊車両を輸出した中国の意図が注目されている。
- 新型ミサイルは直径2メートル、全長20メートル前後で、これまでに公開された「ムスダン」(射程距離3000~4000キロ)よりも全長が長く、燃料をより多く積めるため、射程距離も伸ば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新型ミサイルに対応するため、この移動式発射台は片側8輪



### 마이니치 홈페이지

で、「ノドン」(射程距離1000~1300キロ)搭載の片側5輪に比べて大型化している。形状などから中国の「湖北三江航天万山特殊車両」が昨年5月に開発した「WS51200」である可能性が高い。

- 一方、情報関係筋によると中国国防省系列の国有企業、中国航天科工集団の子会社が昨年8月ごろ、カンボジア船籍の船に「WS51200」4台を積載して北朝鮮の南浦港に発送し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という。また香港のインターネット新聞「鳳凰網」によると、中国航天科工集団は特殊車両を開発中だった10年10月、自社のホームページで「某国の顧客との間にWS51200の輸出契約を結んだ」と公表。3000万元(約3億9000万円)の契約金額も明らかにしており、この「某国」が北朝鮮を指す可能性が高い。

## 붙임 11. 일본 NHK 보도 원문 (4.16)

### NHK 홈페이지

“北朝鮮 変わることはできるのか”

- 今回6年ぶりに取材に入りましたが、日についたのは中国製品の急増ぶりです。
- 通りを走る車は、以前日本から輸入された中古車が年月を経て減るのに比例して、中国車が増えました。
- 中国製品は食品、衣類、機械類と、あらゆる分野で増え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ほどです。たとえば、発射場に向かうために乗った列車の空調設備や客室にあったタオルなどがそうでした。また、経済的に余裕のある人も少数ながら現れているようです。
- こざっぱりした服装の人、洗練された化粧の女性が増えたように感じます。中国との貿易が増えるにつれ、商才のある人が潤っているなどといった事情がありそうです。
- 一方、ピョンヤンとは対照的なのが農村地帯です。
- 列車で発射場に向かった際、目に入ったのは赤茶けた畑でした。手入れがあまりされていない畑も少なくありません。農作業の様子も見えましたが、くわを振るい、もっこを担ぎ、といった様子で、農業用機械や燃料が不足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でした。服装も、着古したものをそのまま着続けているという人が多く、貧富の格差がはっきりしてきたように感じます。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발사 후 도전과 선택 (4.17 브루킹스연구소)

- 「에반스 리비어」(前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차관보),

- '북한은 UN 안보리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했지만, 중국이 성명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 실험 등의 도전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발사 실패로 북한 정권의 상부층 일부는 김정은에게 북한 군부와 기술적 기량에 대한 입증에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발사는 미국과의 2.29 합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합의 직후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북한을 믿을 수 없음을 재확인 시켰다.'
-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도 손상을 입었다. 중국은 2012.3월 발사를 발표하지 말라고 북한을 설득했지만 단호히 거절 당했으며 발사 만류도 무시당했다.'
- '현재 상황은 북한 지도부를 중요한 시험대에 올려놨다. 김정은이 대립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길 바라지만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독일에서 열린 트랙2의 美·北간 비공식 대화에서 북한 대표단은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한다면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북한의 대응 리스트에 추가 핵 실험이 포함됐음이 거의 확실하며, 북한의 3차 핵 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 北 로켓 기술 진전 없다. (4.17 AP)

- 전문가들은 북한이 3년전 발사 실패로부터 우주비행에 대해 배운 것이 별로 없어 보이며,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지적
- 또한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미사일 또한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미사일을 실은 차량이 더 관심을 끌었음.
- 신형 미사일을 실은 차량은 16개의 바퀴가 달렸으며, 지금까지 북한이 선보인 것 중 가장 큰 차량임.
- 차량의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더 큰 미사일을 이동할 수 있어 미사일 탐지 및 파괴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임.
- 「닐 헨슨」(스탠포드大 국제안보협력센터),
  - ‘결론적으로 로켓의 신뢰도에 큰 결함이 있어 보인다. 2006년 발사 이후 두 번째로 비행 초반 1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 ‘적어도 1단계 로켓 기술은 2000년대 초반 수준에서 멈춘 것으로 보인다. 은하 2호와 은하 3호의 가장 큰 차이는 로켓에 쓰여진 3이라는 숫자다.’
  - ‘그러나 발사장에서 로켓 조립과 연료 주입은 순조롭고 신속했으며, 적어도 지상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보여준다.’
  - ‘은하 3호보다 큰 로켓을 위한 새 발사장의 지지탑이 5년간 로켓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북한의 계획을 뒷받침한다.’
- 「데이비드 라이트」(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미사일 전문가),
  - ‘로켓이 이렇게 빨리 실패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기술 수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로켓은 매우 복잡하며 수십 개의 요인 중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실패할 수 있다.’
  - ‘따라서 각 부분이 작동하는 것을 넘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북한은 이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2012.4.1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미사일은 ICBM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다. 디자인이 특이했으며, 북한의 디자인 능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확실치 않다.’
- 「테드 파슨즈」(IHS Jane's[美 정보제공기업]Defense Weekly),
  - ‘이 차량은 ‘중국우주비행과학기술그룹’의 차량 디자인과 매우 비슷하며, 러시아·벨라루스産 차량과도 유사하다.’
  -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에게 이러한 기술을 제공한 국가는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강조
- 北 열병식에서 선보인 차량 중국산과 동일하다. (4.17 NYT)
  - 「테드 파슨즈」(IHS Jane's[美 정보제공기업]Defense Weekly),
    - ‘북한 열병식에서 미사일을 실은 차량은 중국산 차량과 디자인이 동일한 윈드스크린, 와이퍼, 문, 핸들, 발판이 있고 그릴 부분도 매우 비슷하며 전조등도 거의 똑같다.’
    -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중국 업체가 관여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 최고위급의 승인이 필요하다.’
  - 「제임스 하디」(IHS Jane's[美 정보제공기업] Defense Weekly),
    - ‘차량이 중국산으로 확인될 경우 북한에 무기 및 관련 물자 제공, 또는 무기와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서비스 및 지원을 금지한 2009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언급

## □ 중국어권

- 中,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북한 개혁 이끌어야 한다.  
(4.17 홍콩 봉황위성TV)
  - 「탕번」(시사평론가),
    -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미국의 對北 규탄 태도를 볼 수 있었지만, 반면 비교적 이성적 모습으로 한동안 對北 경제 제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012.4.1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도 위성 발사 실패 후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는 등 향후 과도한 강경 반응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中·北 관계는 줄곧 군사전략적 측면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양상을 띄어 왔으며, 전통적인 외교 전략하에 고려하는 부분이 많았다.'
- '북한을 규탄하는 새로운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가운데 중국은 안보리 및 동북아 관련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 '새로운 외교적 사고로 對北정책을 조정해 북한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 '또한 △6자회담의 진행 추진, △美·北 합의 이행, △美·中 간 동북아 전략 신뢰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한반도 정세 악화 억제, 중국 외교의 시험대 될 듯 하다.

(4.17 홍콩 봉황위성TV)

- 「앤서니 유엔」(홍콩 봉황위성TV 시사평론가),

- '과거 중국은 對北 억제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대가 없이 북한에 많은 원조를 제공했으나 지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이다.'
- '로켓 발사 전부터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은 어떤 통보도 없었으며,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對北 외교정책을 조정해야 할 전환점이다.'
- '냉전시대에는 북한은 미국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으나,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났다.'
- '또한 韓·美가 연합해 압록강 넘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다.'
- '이에 이웃나라 小國을 어떻게 대할지, 즉 對北 외교정책을 다시 한 번 제정해야 한다.'
- '핵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을 받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주변국인 韓·中·日이다.'

- '시대가 변했으니 중국의 對北정책 또한 변해야 하며,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 일본 언론의 북한관련 보도는 검증이 필요하다.(4.17 콜로스 러시아)

- 「게오르기 톨로라야」(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실장),
  - 마이니치 신문의 김정은 자본주의 논의 촉구 보도 관련, '일본 언론매체는 정기적으로 출처 없는 정보를 보도하는데, 이는 선정적인 소식으로 북한정권을 흔들려는 목적이다.'
  - '편파적인 일본 언론매체가 아니라, 북한 외교관, 중국·러시아 전문가 등의 유사언급 확인과 같은 정보검증이 필요하다.'
  - '북한에게 있어서 개혁은 이미 불가피한 요구지만, 문제는 개방으로 인해 체제붕괴 및 남한으로의 흡수가 이루어질 것을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 '때문에 북한은 아직까지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내부적인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장거래, 영세기업, 기업간 물물교환과 같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
- 「빅토리아 삼소노바」(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연구원),
  - '북한은 중국의 노하우를 활용한 북한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러시아는 역내 증대되는 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南·北 모두의 중재자 혹은 균형자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러시아는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스관 건설, 철도길 연결과 같은 협력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2012.4.18(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상기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도 아닌, 시장 지향의 러시아 노하우를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

○ 북한을 지정학적 자극요인으로 이용하려는 국가가 있다.

(4.17 골로스 러시아)

- 「게오르기 톨로라야」(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실장),
- '북한은 이미 분쟁 시 사용할 수도 있는 플루토늄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 '대북 압박은 북한을 또 다른 차원의 핵프로그램 개발로 내몰 수 있다.'
- '북한의 모든 고위급 정치인들은 전쟁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대응할 것이다.'
- '아태지역 내 역할이 증대되는 중국이라는 요인을 염두하고 지정학적 촉진제 차원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될지라도, 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

○ UN안보리 대북 추가제재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행동이다.

(4.17 브즈글라드)

- 「콘스탄틴 아스몰로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이 또다시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제안보 시스템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셈이 될 것이다.'
- '차라리 해외참관단 통제 하에 우주로켓을 발사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
- '북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재를 중단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北 미사일 발사 日·美는 환영, 중국은 당황스럽다.(4.18 주간 아사히)

- 「다하라 소이치로」(저널리스트),

- '방위성은 속으로 미사일 발사를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 '오키나와현 주민들은 전부터 자위대가 들어와 미군과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맹렬히 반대했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발사라는 긴급사태로 인해 주민들은 큰 저항 없이 자위대를 받아들였다.'
- '이는 중국에 있어 당황스러운 사태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해군력을 증강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지배하에 두려 했다. 원래대로라면 日·美합동훈련을 강하게 견제했겠지만,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o 北 4.15 축제 참가 일본인들의 증언 (4.18 요미우리 신문)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후 평양 등에 체류한 일본 방북단들이 현지 모습을 증언함.
- 4.13 동상 제막식에서 기묘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는데, 동상 앞줄에 체격이 건장한 군인들이 서있고, 그 뒷쪽에는 체구가 작은 남성들이 체격에 맞지 않은 큰 군복을 입고 서있어 일반인이 이벤트에 동원돼서 군복을 입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음.
- 4.15 군사퍼레이드 현장에서 울부짖는 관중은 거의 없었으며, 박수 정도의 조용한 환영모습만 보였고, 의외로 차분해서 놀랐음.
- 김정은의 공적을 칭송하는 기록영화 상영회에 초대받은 참가자도 있었으나, 영화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졌음. 김정일이 찍힌 과거 영상에 최근 김정은의 모습을 합성한 것처럼 보여 부자연스러웠음.



## 붙임 1. 브루킹스연구소 게재 원문 (4.17)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

"Bitter Harvest: North Korea's Challenges and Choices After the Launch"

- o Pyongyang, which has some experience defying UNSC resolutions, will almost certainly reject this statement. But it cannot ignore the fact that China, its ally and frequent protector, endorsed the statement.
- o North Korea may profess not to care about its global reputation, but the fact remains that its prestige has hit a new low. While we should hope that Pyongyang would be chastened by its setback, we cannot dismiss the possibility that it will respond by doubling down on its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by conducting a nuclear test.
- o Some suggest the failure may prompt the leadership to reconsider the path the nation is on. However, faced with this failure, some in the upper reaches of the regime are more likely making the case to Kim Jong-un that an alternative demonstration of the North's military and technological prowess is now more important than ever.
- o In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s failed launch has damaged, probably fatally, the February 29th U.S.-DPRK agreement. That accord had offered a slight hope that some improvement in bilateral ties and progress in dealing with the nuclear issue might be possible.
- o Instead, North Korea's announcement of a launch so soon after concluding the agreement simply reconfirmed to most observers that Pyongyang cannot be trusted.
- o Pyongyang has also damaged its ties with China. PRC efforts last month to convince North Korea not to announce the launch were flatly rejected. And China's attempts to dissuade Pyongyang from carrying out the launch were similarly brushed aside.
- o This situation now presents an important test of his leadership. How will Kim Jong-un respond? Will he continue to follow the policies and recommendations of those who brought about this setback, or will he opt for a different path?
- o While one hopes that Kim will choose a non-confrontational path, precedent and the regime's need to appear unbending suggest otherwise.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

- o At a recent Track II dialogue in Germany, the DPRK delegation head warned that if the United Nations imposed sanctions or took other steps in response to a launch that "violate our sovereignty," the DPRK would respond with unspecified measures of its own. The short list of responses almost certainly includes another nuclear test. We cannot rule out that this is exactly what Pyongyang will do.

## 붙임 2. Associated Press 원문 (4.17)

Associated Press

"North Korea's failed rocket shows lack of progress"

- o Analysts sifting through information on North Korea's failed rocket launch say Pyongyang appears to have learned little about spaceflight since its last flubbed attempt three years ago, and that the country is a long way from being able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with a long-range missile. The experts also said an apparently new missile North Korea showed off at a military parade Sunday did not seem to present any major leaps forward.
- o "An obvious conclusion is they have a major reliability problem," said Neil Hansen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at Stanford University. "This is the second Unha first stage that malfunctioned early in flight, after the July 4, 2006, launch -- and this is Unha-3. The Unha technology for at least the first stage appears frozen to the early 2000s." Hansen said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rocket launched in 2009 and the one that failed last week was "the paint that said 3 on the rocket body."
- o "The fact this failed so early calls into question how good its technology is," said David Wright, a missile expert with 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Rockets are very complicated and any one of dozens of things can go wrong and cause failure, so it isn't good enough just to get pieces to work. You need the whole system to work. North Korea clearly isn't there yet."
- o Still, North Korea hasn't stood completely still. Hansen noted that the preparations to get the rocket assembled and fueled on the new

Associated Press

launch facility went smoothly and were completed quickly, which may demonstrate increased expertise, at least on the ground. North Korea has announced it will continue to build rockets over the next five years, and Hansen said the gantry at the new site backs up that claim because it was built for a bigger rocket than the Unha-3.

- o "It appears to be much too small to be an ICBM," said Wright, of the UCS. "And it looks like an odd configuration, so it's not clear what it says about North Korea's design capability."
- o Of more interest, perhaps, was the vehicle that carried the missile. With 16 wheels, it was the biggest yet displayed by the North. That's important because such vehicles can transport missiles for launch in different sites, giving them an element of mobility that makes them harder to find and destroy. The bigger the vehicle, the larger the missile it can transport.
- o Ted Parsons, of IHS Jane's Defence Weekly, said the one used Sunday strongly resembles vehicles designed by the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 Hansen said there are also similarities to Russian or Belarus vehicles. A country that provided such technology would be violating U.N. sanctions, though it may be hard to prove how or from whom North Korea got them.

**붙임 3. New York Times 원문 (4.17)**

New York Times

"North Korea Says It Will Abandon Deal With U.S."

- o Some analysts said on Tuesday that China may have broken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 by providing 16-wheel missile-launching vehicles that were seen in a military parade in Pyongyang, the North's capital, on Sunday carrying a new type of missile.
- o Ted Parsons of IHS Jane's Defense Weekly pointed out similarities to a known Chinese vehicle: "The same windscreen design, the same four windscreen wiper configuration, the same door and handle design,

New York Times

a very similar grill area, almost the same front bumper lighting configuration, and the same design for the cabin steps.”

o He added that the involvement of a Chinese vehicle builder “in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would require approval from the highest levels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o James Hardy, another analyst at Jane’s Defense Weekly, said that if it is confirmed, China’s involvement would breach a 2009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at bans countries from supplying North Korea with “any arms or related matériel, or providing financial transactions, technical training, 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such arms.”

## 붙임 4.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4/17)

###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汤本：中国可创新外交思维引导朝鲜改革”

o 朝鲜这一次发射卫星没有得到安理会全体成员的决议的谴责，而是得到了轮值主席的谴责，这说明安理会全体成员对具体发表决议的不同意见。也说明表示了对朝鲜进一步进行核试验的一个担忧，那么轮值主席的强烈的谴责，不仅表达了美国的态度，但同时美国也是有限制的态度，有克制的态度，美国在未来的一段时间内，对朝鲜加度经济制裁的可能性，目前看来并不是很大，但目前我们观察朝鲜对此的反应，那么朝鲜也可以从他的国内的民意角度来看，他已经通过大阅兵式的方式，表达了他卫星发射失败之后的一个态度，未来可以预计，他不会有过激的反应。

o 对于中国来讲，前一段时期，中国对朝关系由于受到军方战略界智库多方面的影响，出现了一个比较复杂的一个态势。因此在传统的战略现实，传统的战略原则，传统的外交原则上考虑过多。面对着安理会的新的一个局势，中国面对着安理会的力量以及东北亚格局有关的各国力量的一个新的折冲时期，应该创新外交思维，应该重新思考，来对朝鲜的政策，应该引导朝鲜进行改革。同时，推动六方会谈的进行，帮助美朝恢复原来谈判的条款，同时，也在东北亚奠定和中美之间战略互信。

## 붙임 5.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417]

###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 “如何防止半岛局势恶化考验中国外交”

- 我们过去也从来没有说，我们对他有约束力，我们中国援助他，过去包括现在，包括我们做这个节目的时候，我们中国对他的粮食援助，燃油还有其他援助，还是源源不断的，当然了我们过去不附加任何条件，我们过去为什么要这样做，今天我们也没有时间去仔细的分析，可是在这个时候，我们必须要做另外一个思考。
- 一直到现在，从我们外交部发言人说，他发射火箭没有知会这个现状来看，显然金正恩对我们到目前为止不是非常的友善，他虽然吃我们的，用我们的，我们说“用人的手短”，他对我们显然是不手短，在这个时候我们以后，下一步如何制定我们对朝鲜的外交政策，跟外交政策的态度，我过去一再强调，这个是我们要做另外一种思考的转折点。
- 过去在冷战时代，他那边是我们阻挡美国经过鸭绿江，用过去“剪刀式”的政策，一个从外蒙，一个从这边来进军我们的东北，这个时代已经过去了，过去的战术、战略跟现在不一样，美国他也不可能，韩国跟美国加起来，然后跟中国越过鸭绿江来打地面战时代，这个已经过了，也没有这个时代了。所以我们对于旁边小国家，我们今后如何对待？我过去常常强调，我们外交政策必须要有情有义，可是现在对于朝鲜，他对我们似乎是无情无义的，我们如何去对待他，如何制定我们今后在朝鲜半岛的外交政策。
- 因为我们也当然十分了解，一个有核弹又有导弹基础的朝鲜，受到最大威胁的不是美国，他不可能遥遥千里跑去炸美国，就算遥遥千里用一颗核导弹炸了美国，他也是死路一条，所以旁边我们这几个国家，韩国、日本还有中国，才是受到威胁最严重的国家。时代变了，我们对朝鲜的政策也必须要改变，改变到什么？我觉得我们最近的外交似乎做的也可以，我们不希望朝鲜因为他各种不理性的动作，引起东北亚地区局势的紧张，我们不愿意有紧张的局势，可是不愿意有紧张局势，如果去约束这个可能会发动紧张局势的人，这才是我们外交政策的一个考验。

## 붙임 6.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417]

###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 “Японцы толкают Ким Чен Ына в капитализм?”

- "Японские СМИ периодически вбрасывают информацию, которая абсолютно непонятно как к ним попала. Она нацелена на дешевую сенсацию и раскачив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лодки. Стоит подождать проверки этой информации и того, когда о п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одобных дискуссиях в КНДР заговорят дипломаты, китайские и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рты, а не ангажированные японские СМИ".

-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потребность в реформах насущна уже много лет. Вопрос в том, что им нельзя допустить открытость страны. Проникновение зарубежных идей и общение с иностранцами взорвет режим, начнется коллапс и поглощение Севера Южной Кореей. Это в КНДР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именно по этому они до сих пор не идут на реформы.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надо будет ограничить рамками внутри страны. Для начала, по сути, легализовать то, что существует уже и так. Это рыночная торговля, мелкое частн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товарообмен между предприятиями. Это пока существует вне правового поля, нелегально и периодически подвергается гонениям".
-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развиваться по своему пути, используя, может быть, китайский опыт.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России необходимо, может быть, выступить в роли балансера или посредником и для Севера, и для Юга, чтобы уменьшить их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Китая".
- Россия уже предложила схему,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КНДР выйти из изоляции и развивать кооперацию на рыночных началах. Это прокладка газопровода в Южную Корею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стыков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путей двух Корей с Транссибирской магистралью. На этой площадке, в частности, возможно заимствова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опыта реализации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коммер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 н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и не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а рыночных.

**붙임 7.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4/7)**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КНДР прервала контакты с МАГАТЭ”

- На таком фоне трудно надеяться на скорое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ядерному доосье в формате "шестерки" (две Кореи, США, КНР, Япония и Россия).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 "У КНДР уже есть плутониевые ядерные устройства, и они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в конфликтной ситуации, - отметил Георгий Толорая, бывший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НДР. - Давление на Пхеньян может подстегнуть другую часть их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 создание взрывных устройст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урана. Для России это неприемлемо".
- "Все политические лидеры Пхеньяна понимают, что война станет для них самоубийством. Но они готовы ответить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оэтому заирать Пхеньян не следует, хотя он и удобен для кого-то в качеств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аздражителя на фоне возрастающего китайского фактора в АТР".

**붙임 8. 러시아 브즈글라드 보도 원문 (4.17)**

브즈글라드 일간지 홈페이지

"Совбез ООН введ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анкции, а США еще добавят от себя"

- Политика санкций приводит скорее к скандалам, чем к реальным успехам, - считает ведущий сотруд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Лучший способ вызвать коллапс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северян - прекратить действие санкций и сменить отношение на дружелюбное.
-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вокруг КНДР складывается ситуация, похожая на сирийскую, и Москва опять выступает оппонентом Запада. Россия, по словам Асмолова, оказалась в неприятном положении. Если позволить КНДР и дальше нарушать запреты, это покажет недееспособность всей систе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резолюция, запрещающая любые полеты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составлена предвзято. По его мнению, стоило бы разрешить КНДР запуски космических ракет, но при условии строжайшего контроля со стороны иностранных инспекторов.

## 붙임 9. 일본 주간 아사히 보도 원문 (4.18)

### 주간 아사히 홈페이지

#### “新型ミサイル発射台は中国輸出の特殊車両改造か”

- 4月13日朝、北朝鮮は「人工衛星」と称する長距離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が、数分で空中分解を起こして海上に落下した。ジャーナリストの田原総一郎氏は、「誤解を恐れずに記せば」と前置きしたうえで、日本の防衛省は、ホンネではこのミサイル発射を歓迎していると言う。
- 実は、沖縄県民はかねて自衛隊が大量に沖縄にやってきて、しかも米軍と連携して大掛かりな訓練などを行うことには大反対であった。
- ところが、北朝鮮がミサイルを発射するという緊急事態が生じたことで、これまで強いタブーだったことが抵抗らしい抵抗もなく受け入れられた。自衛隊にしてみれば堂々と突破できたのである。そして米軍の精鋭と大規模な訓練ができた。
- これは中国にとっては大いに困惑すべき事態である。中国はこれまで海軍力の増強を重ねてきて、実質的に東シナ海と南シナ海をコントロール下に置こうと考えていた。本来ならば日米連携の訓練に対して強い牽制をしたいのだが、弟分のような北朝鮮がとんでもないことをしてくれたので、イライラしながら黙っているしかない。
- 私が信頼している安全保障の専門家が興味深い解説をする。
- 「私たちは今回のミサイル発射を、北朝鮮が中国を困らせるためにやったと捉えています。このところ中国は北朝鮮に冷たい。食糧援助と経済援助を満足にやっていない。そこで、駄々っ子がデパートの床に座り込んでギャアギャア泣き叫んだ。そうすれば、困り切った親が仕方なく言うことを聞いてくれる。それが今回のミサイル発射の本当の狙いではないでしょうか」



## 붙임 10.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 원문 (4.18)

###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北の祝祭、見せかけ…合成映像・一般人に軍服?”

- 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に前後して、平壤などに滞在していた日本の訪朝団の複数の参加者が、現地の模様を証言した。
- ミサイルについて、当局者は相当な自信を持っていた様子だったという。発射直後に「成功」と聞かされた参加者もあり、北朝鮮内部での情報伝達の混乱ぶりが浮き彫りになった。過去の式典では熱狂的な民衆の姿ばかりが伝えられてきたが、実際は比較的冷静だったという。
- 訪朝団は社民党の元国会議員ら約20人。「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生誕100周年」の記念行事出席のため、10日に北朝鮮入りし、その大半が17日、北京経由で帰国した。
- 仏教を通じて交流のある最福寺(鹿児島県)の池口恵観法主らは発射前日の12日、ミサイルの管制室に招かれ、当局者から「発射した様子はあとでDVDで公開する。それでミサイルか人工衛星かを判断してほしい」などと説明を受けたという。一緒に訪朝していた参加者は「ずいぶん自信があるんだな」と感じた。
- しかし実際は失敗。この参加者の通訳男性は、結果を尋ねられ、公式発表どおり、「軌道に進入しなかった」と答えたという。ところが、訪朝団の一人、金丸信・元副総理(故人)の次男、信吾氏(67)は同行の通訳から「成功した」と聞かされた。信吾氏はその後ホテルに戻り、中国の衛星放送で失敗を知ったという。
- 随行者から「成功した」と聞かされた参加者は他にもおり、公安当局幹部は「訪朝団の随行者は相当のエリート。そのメンバーですら正しい情報が入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は、当時、北朝鮮内部は相当に混乱したのだろう」とみる。
- 13日に行われた金主席と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銅像の除幕式で、珍妙な光景を目撃した人もいた。銅像に近い前列には、筋骨たくましい軍人が胸を張ってずらりと並び、訪朝団のメンバーも「すごい」と圧倒された。ところが、ふと後方に目を向けると、小柄で貧相な男たちが、明らかにサイズ違いのぶかぶかの軍服を着せられ、所在なげな様子。「一般人が何かのイベントで軍服を着せられている、という印象だった」と、この参加者は振り返る。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 長距離弾道ミサイルなどが披露され、北朝鮮に招待された各国メディアが取り上げた15日の軍事パレードでは、現場で泣き叫ぶ観衆はほとんど見あたらず、拍手程度の静かな歓迎ぶりだったという。「意外と穏やかなので驚いた」と参加者の一人は言う。
- 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氏の功績をたたえる記録映画の上映会に招かれた参加者もいた。正恩氏が金総書記に同行して軍事施設や農場を視察する姿が次々に紹介され、「正恩氏は、以前から金総書記とともに民衆を導く偉大な存在だった」とのイメージを植え付けようという意図とみられる。
- ところが肝心の映像の出来が悪かった。ある参加者は「金総書記が映っている昔の映像に、最近の正恩氏の姿を合成したように見えて、不自然だった」と苦笑いしてい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김정일 사후 北, 여전히 위협하고 변덕스럽다.

(4.18 美 하원 외교위 북한청문회)

-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
  - ‘북한과의 협상은 영화 그라운드호그 데이(Groundhog Day)<sup>10)</sup>와 같이 끊임없는 반복과 같으며, 협상 철회에는 도발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 ‘북한의 도발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또다시 양보하면서 구애에 나서며, 이는 협상타결로 이어진다. 그러나 결국 또다시 미사일 발사나 비밀 핵실험이라는 또다른 배반으로 귀결된다.’
  - ‘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모두 북한에 배반당했다.’
  -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UEP)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으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지만 북한은 시리아에 비밀 원자로를 건설하며 배반했다.’
  - ‘김정은은 실패했지만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노골적인 위반과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진정한 결과가 없다.’
  - ‘북한의 정치는 모두 김씨 왕조를 위한 것으로 미국의 우려와 주민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다.’
  - ‘김정은이 4.15일 열병식에 나타난 모습은 향후 대북정책의 협로를 보여줬고, 김정일과 비슷하게 보이려 행동했다고 주장’

10) 영화 ‘그라운드호그 데이’는 매일 같은 일을 겪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렸으며, 그라운드호그 데이는 경칩과 비슷한 기념일로 봄을 알리는 동물인 북미산 그라운드호그(마멋)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임.

○ 美 전문가들, 北의 핵실험·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있다.(4.18 AFP통신)

- 「마이클 그린」(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미 하원 외교위원회 북한 청문회 발언
  -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도 미사일 발사 후 핵실험을 했으며, 이를 감안할 때 북한이 향후 수개월 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프레데릭 플라이츠」(미 중앙정보국[CIA] 및 국무부에서 근무했던 군사·정보 전문가),
  - ‘북한이 곧바로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50% 미만이지만, 북한은 기술을 갖추고 고립을 견딜 준비가 됐을 때 결국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것임은 확실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의 계획이 무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사일 실험은 일본·하와이·미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고, 핵무기 운반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다.’
- 「스콧 스나이더」(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 겸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연구소장),
  -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다.’
  - ‘우리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 ‘미국이 북한의 핵 유예 약속의 대가로 식량지원에 합의한 것은 실수였다’고 지적

○ 中이 北의 미사일기술 개발에 협조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4.18 AP통신)

- 미 하원 외교위원회 북한 청문회에서 중국의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 「하워드 버먼」(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캘리포니아]),
  -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식량과 연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2.4.19(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인 명성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이라고 주장
- 「마이클 그린」(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 '북한의 이동 발사대는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
  - 'UN 제재 명단에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이 중국에서 공공연히 운영되고 있으며,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2009년 제재 이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北 로켓 발사 실패로 美 미사일 방어 논쟁 점화  
(4.17 Global Security Newswire ⇨ 핵무기, 테러리즘, 안보 관련 인터넷 언론)
  - 일부 美 의원들과 군축 지지자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실패로 인해 미국 미사일 방어 지출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북한의 지속적 탄도 미사일 개발 노력으로 인해 미국의 국방 예산을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국방력을 정당화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함.
  - 미국의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제(Ground-Based Midcourse Defense·GMD)'는 대기권 밖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상요격기 3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배치되어 있음.
  - 2011.1월,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이 5년 안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최근 북한의 실패는 북한의 능력 과대평가를 보여줌.
  - 한편, 미국의 방어 체제는 지난 2년간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두 번의 시도도 실패했음.
  - 지난 달 하원 청문회에서 패트릭 오라일리 미사일방어국장은 2010.12월 모형 탄두 요격에 실패한 비행시험 재시도를 연기하겠다고 언급함.

2012.4.19(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존 티어니 민주당 하원의원은 북한의 발사 실패는 美 의회가 미국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미사일 방어 예산 삭감을 포함한 2013년 국방예산안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함.
- 미사일 방어 활동 예산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97억 달러,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제(GMD)예산은 전년 12억 달러에서 감소한 9억300만 달러의 승인을 요청함.
- 대선주자 미트 롬니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국방비 삭감안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토안보 수호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비난함.
- 「마이크 터너」(美 공화당 하원의원),
  - ‘북한의 발사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노력을 보여주며, 북한의 실패가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제 개발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
- 「하워드 맥키언」(美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 ‘북한은 미국민을 공격하려는 노력을 추진해 온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퇴보시켰다’고 주장

## □ 중국어권

### ○ 북한의 봄은 오는가? (4.19 베이징천바오 北京 베이징지역신문)

- 외신기자 초청, 위성발사 실패 시인, 김정은 공개 연설 등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보들이 개혁개방을 예고하느냐에 대해 국제사회의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음.
- 「진산룽」(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태도 변화는 있지만 김정은은 기존 방침대로 나아갈 것이며, 큰 개혁은 없을 것이다.’

2012.4.19(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개혁개방을 일환으로 對美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김영남의 공개연설에서도 민생개선을 강조했다.'
- '그러나 북한체제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변화 또한 체제유지 위주로 갈 것이다.'
-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對中관계 발전이며, 중국은 상호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지만 줄곧 대북지원을 해왔고 양국은 전통적 우방이다.'
- '북한에 있어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이익이고, 손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북한 지도자도 분명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현 상황전개는 새로운 것이 없으며, 3차 핵실험 가능성 있다.

(4.18 골로스 러시아)

- 「게오르기 톨로라야」(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실장),
  - '2.29합의 파기와 같은 현 상황전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시나리오이며, 역내정세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3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 「드미트리 모샤코프」(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연구소 동남아 센터장),
  - '사실상 현재와 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돼왔으며, 얼마 후면 다시 북한 핵무기 개발 중단 및 대북 식량지원 재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

○ 김정은은 군부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다.(4.19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알렉세이 말라셴코」(모스크바 싱크탱크기관 키네기센터 수석연구원),
  - '김정은이 유화노선을 채택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군부세력이 자신을 이동시킬까 두려워하고 있다.'

2012.4.19(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만큼의 권위가 없다. 현 북한의 강력한 메시지는 군부 엘리트의 지지를 얻기 위한 김정은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 「콘스탄틴 야스몰로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은 이미 핵실험 중단은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될 때까지 라고 밝힌 바 있으며, 2.29 합의 당시 북한 위성발사 계획은 알려졌었다.'
  - '미국을 비롯한 모두가 교활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는 합의했는데 북한이 배신한 것처럼 비취지길 원한다고 주장'

## □ 일본어권

o 北 대화의 여지 있다. (4.18 아사히TV)

- 「익명의 북한 당국자」,
  - '미국은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UN까지 움직였다. 북한의 자주권을 짓밟는 일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위성 발사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미국의 태도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미국, 일본과 협의해 나가고 싶다.'
  - '우리들은 IAEA사찰을 받아들일것다고 표명했다.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쪽이다'라고 주장

o 日, 대북제재 대상 추가후보 제출 (4.19 지지통신)

- 일본 정부는 4.18일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 단체 등의 후보 리스트를 UN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함.



## 붙임 1. 美 하원 외교위원장 청문회 발언 원문(4.18)

美 하원 외교위 홈페이지

“North Korea’s Kim Jong-un Following in Father’s Dangerous Footsteps,  
Ros-Lehtinen Says at Hearing”

- o U.S. Rep. Ileana Ros-Lehtinen (R-FL), Chairma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made the following opening statement earlier today at a Committee hearing titled “North Korea after Kim Jong-il: Still Dangerous and Erratic.”
- o “Today, we will examine the tumultuous events that have again consumed the Korean peninsula. In a sense,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is similar to the endless repetition presented in the film ‘Groundhog Day.’ Withdrawal from negotiations is followed by provocative action. Next there is a wooing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ith concessions offered. Then a so-called ‘breakthrough deal.’ Finally, another betrayal, often in the form of a missile launch or the disclosure of a secret nuclear operation.
- o “It was so with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with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and thus it has come to pass as well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President Clinton’s Agreed Framework ended with the disclosure of Pyongyang’s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President Bush’s attempt at rapprochement, including the removal of North Korea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which I adamantly opposed, was met with the construction of a secret nuclear reactor in Syria, which Israel thankfully destroyed, and then yet another betrayal.
- o “The Obama Administration is confronted with the abject failure of its ‘Leap Day’ deal of February 29th with North Korea, and has refused to send witnesses who were privy to the Beijing negotiations to testify today at this hearing.
- o “Old Kim, Kim Jong-il, had, of course, responded to President Obama’s inaugural overture of an ‘outstretched hand’ by kidnapping two U.S. journalists, firing a missile, setting off a nuclear weapon, sinking a South Korean naval vessel, and shelling a South Korean island. His son, Kim Jong-un, seems fully intent on fulfilling the old adage that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He has already tried a failed missile launch and may be plotting yet a third nuclear test. The UN Security Council issued a Presidential Statement ‘condemning’ the April 13th missile launch as ‘a serious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1874.’ No real

美 하원 외교위 홈페이지

consequences for North Korea's flagrant violation and action that threaten global peace and security.

- o "While the missile blew up soon after leaving the launch pad, it is said that in international relations, measuring intent is just as important as measuring capability. North Korea's rhetoric should have told our negotiators all they needed to know. The 'military first' policy of starving the people to feed the army and supply the munitions industry remains.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estimated this month that the North Koreans spent \$850 million on the failed missile launch – enough to buy corn to feed the entire population for an entire year.
- o "Politics in North Korea remains all about the Kim dynasty and its needs, not about either the concerns of the U.S. or the welfare of the Korean people. A particularly unfortunate result of the Leap Day agreement was the combining of discussions of nuclear disarmament and food assistance at the same negotiating table. This was a departure from the approach of both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Bush Administration which held to the Reagan doctrine that 'a hungry child knows no politics.'
- o "It also led to a highly embarrassing reversal on the food aid decision following the missile launch, even as Administration officials insisted that there was no direct linkage between food assistance and the failed negotiations. Our distinguished panel of experts can shed light today on whether the succession from the old Kim to the young Kim has really changed anything in North Korea - or is it merely a matter of old Kim in a new uniform?
- o "Further, there is the pressing issue of how we should respond to possible further provocation, including another nuclear test. We also wish to examine how we should go forward in addressing the simmering North Korean crisis: a rogue state in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working on a delivery capability, engaged in murky proliferation activities with opponent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 o "The young general at Sunday's military parade gave every indication that trouble lies just ahead with North Korea. Dressed in a dark Mao suit, he viewed tanks, missiles, and goose-stepping troops, as they paraded through North Korea's capital in a celebration of the hundredth anniversary his grandfather's birth. In his first public remarks since assuming power, the young Kim bombastically warned that 'the days of enemies threatening and blackmailing us with nuclear weapons are forever over.' The new Kim looks and acts suspiciously very much like the old Kim."

## 붙임 2. AFP통신 보도 원문 (4.18)

AFP통신 홈페이지

"N. Korea experts say new nuclear test likely"

- o "It's not unreasonable to expect that in the next few months we will see, based on the historical pattern, a nuclear test," said Dr Michael Green, an analyst at the Washington-base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think tank.
- o "The pattern fits," he told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referring to missile tests carried out by the isolated North in 2006 and 2009, ahead of nuclear tests later in those years.
- o Frederick Fleitz, a former CIA officer and ex-State Department official on arms control, said that the chances of a nuclear test "are less than 50-50 right now," but it was nevertheless likely in the future. "I think there will be a nuclear test eventually when North Korea is technically ready and prepared to endure the enormous amount of isolation it will endure," said Fleitz, who now heads up the Langley Intelligence Group Network, an intelligence forecaster.
- o "Frankly all bets are off with this country," he said, while stressing that he thought ballistic missile tests "are certain."
- o "The missile test may be more threatening because the missile test could land on Japan, it could land on Hawaii, it threatens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and it is the delivery system for a nuclear weapon," he said.
- o But Scott Snyder, a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and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Korea Policy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aid relying on Beijing to intervene was unlikely to yield results.
- o "It's very clear that the Chinese have their own interests in promotion of North Korean stability and this is creating a gap in expectations," he said.
- o "We shouldn't be relying on China as a way of trying to pursue our approach to North Korea." Tying nuclear concessions to food aid "was a mistake," he added.

### 붙임 3. AP통신 보도 원문 [4.18]

#### AP통신 홈페이지

"US: No progress in North Korea missile program"

- o At a hearing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U.S. lawmakers voiced suspicion that technology from China is being used in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and demanded Beijing cut its "economic lifeline" to Pyongyang.
- o Top Democrat Howard Berman of California noted that China had joined in the Security Council's statement Monday which deplored last week's rocket launch, but it nevertheless still helped North Korea with food and fuel.
- o "China's willingness to support such a wicked regime casts a dark shadow on Beijing's own international reputation," Berman said.
- o Michael Green, who served as senior director for Asian affairs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told the hearing that the chassis of this "mobile launcher" was probably a Chinese-made system.
- o He said that North Korean trading companies that are on the current U.N. sanctions list are openly operating in China, and the council's sanction committee has not done anything about it since the latest restrictions were imposed in 2009.

### 붙임 4. Global Security Newswire 원문 [4.17]

#### GSN 홈페이지

"North Korea's Failed Rocket Launch Prompts Missile-Defense Questions"

- o North Korea's failed rocket launch last week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rethink missile defense spending, according to some lawmakers and arms control advocates. Others, though, say that Pyongyang's continued efforts to strengthen its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proves the U.S. defenses should receive even more money.
- o The United States's principal domestic defense against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strike is justified primarily by a perceived threat from North Korea, observers note. 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program today is comprised of 30 land-based interceptors in California and Alaska that are designed to intercept missiles outside the Earth's atmosphere.

GSN 홈페이지

- o In January 2011, then-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said he believed North Korea could develop a missile capable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within five years. North Korea has repeatedly demonstrated an inability to launch such an attack, however, and the most recent failure on Friday -- when a rocket purportedly intended to carry a satellite into space broke apart shortly after liftoff -- suggests Gates's prediction may have been exaggerated, according to critics.
- o The U.S. defense system, meanwhile, has not been tested in two years and the two most recent attempts failed. Testifying before a House panel last month, the Missile Defense Agency chief, Lt. Gen. Patrick O'Reilly, said his organization would postpone reattempting a flight test carried out in December 2010, when an interceptor failed to hit an incoming dummy warhead.
- o In a statement to Global Security Newswire, Rep. John Tierney, D-Mass., said the failed North Korean launch on Friday was the latest indication that Congress must increase scrutiny over the U.S. missile defense program.
- o The Obama administration in its fiscal 2013 budget request is proposing some cuts to missile defense spending as part of broader efforts to rein in government deficits. It is asking Congress for \$9.7 billion for antimissile activities, which would represent a cut of \$700 million, or 6.7 percent, from the current fiscal cycle. The fiscal 2013 request for the GMD program is \$903 million, according to Missile Defense Agency spokesman Richard Lehner. In fiscal 2012, Congress appropriated approximately \$1.2 billion for the program, on which about \$38 billion in today's dollars has been spent since the late 1980s.
- o Republicans, including presumed presidential nominee Mitt Romney, have said the proposed reductions call into question the Obama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homeland security.
- o Turner told GSN on Tuesday that the North Korean launch demonstrated a continued commitment by Pyongyang to develop a missile capable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and that it would be "irresponsible" to "count on sustained failure" by the isolated nation. "I can't imagine accepting someone's incompetence as being a reason for delaying" U.S. missile defense development, Turner said.
- o "It appear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pursue its efforts to strike the American people, while at the same time President Obama has degraded U.S. national missile defense," said McKeon, chairman of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 붙임 5. 베이징천바오 보도 원문 [4.19]

### 베이징천바오 홈페이지

#### “朝鲜的春天?”

- 首次邀请世界各国媒体、首次承认卫星发射失败、最高领导人首次公开演讲……近日, 关于朝鲜的一切问题都是国内外媒体关注的焦点, 而随着朝鲜第三代领导人金正恩“不寻常”的亮相, 许多人都在猜测, 这些举动是否意味这朝鲜会实行真正的改革开放, 是否会真正融入国际社会, 朝鲜的春天是否已经到来? 对此, 中国人民大学国际关系学院副院长、中国国际关系学会副会长金灿荣教授在接受竞报采访时表示, 虽然朝鲜的姿态有所变化, 但金正恩还是会按照既定方针走下去, 朝鲜不会进行重大的改革。
- 朝鲜春之声: 一心只想与美国搞好关系  
对此, 金灿荣认为, 金正恩上台后, 朝鲜对外的姿态会有变化。现在朝鲜国策就是与美国缓和关系, 然后建立正常的关系, 这是朝鲜的既定国策, 是金日成时期确定下来既定方针。金灿荣说, 朝鲜现在在姿态上已经有些改变, 比如金永南在公开讲话中就提出要搞好民生, 这也是朝鲜目前外交大方向。
- 朝鲜春之感: 一切变化都为维护其体制  
金灿荣说, “我一直认为朝鲜的一切外在的变化都是为了维护自己的体制, 本身其实并不想改变。”
- 朝鲜春之路: 最好做法是与中国搞好关系  
最后, 金灿荣直言不讳地说, 朝鲜目前面临的局面很尴尬, 为了获得利益, 朝鲜实际上最好的做法就是与中国搞好关系, 虽然中国奉行互不干涉内政原则, 但对朝鲜的援助和支持一直都没有中断, 而且中朝有着传统的友谊。“我想朝鲜领导人也清楚, 与中国搞好关系对朝鲜只有好处没有坏处。”

## 붙임 6.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4.18]

###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пробежала" ракета”

- “Развитие событий - предсказуемое, об этом предупреждали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Можно ожидать третьего ядерного испытани  
я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что серьезно обострит обстановку в реги  
оне. Очень печальный исход этого эпизода с неудачным зап  
уском спутника, который сам по себе особой угрозы, в обще  
м-то, не представлял”.

폴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 "Все,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округ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США и КНДР от 29 февраля, м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продолжением всего, что было до того.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мы можем вновь услышать о том, что работы по ядерному оружию опять прекращаются или прио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помощь возобновляется. Все это уже было не раз и вертится по кругу".

**붙임 7. 러시아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보도 원문 [4.19]**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Почему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новь схватилась за оружие?”

- Алексей Малашенко, член научного совета Московского центра Карнеги: С помощью устрашающих заявлений Пхеньян разыгрывает традиционную карту. Не надо забывать, что к власти пришел третий Ким, которому надо утвердиться. От него многие ожидали смягчения курса, но он боится, что военные могут его "отодвинуть". Тем более что у нов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нет того авторитета, каким обладали его дед и отец. Поэтому такие заявления были сделаны с явным расчетом на поддержку военной элиты страны.
-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огда говорят,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рушила мораторий на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многие забывают, что речь идет о неформальной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по сути - джентльменском соглашении между КНДР и США. Северяне заранее предупреждали: мораторий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диалог. Причем уже тогда бы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Пхеньян собирается запускать спутник. Поэтому лукавят в этой истории, пожалуй, все - в том числе и американцы. Они пытаются представить дело так: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а потом северокорейцы предательски себя повели. Кстати, гуманитарная помощь не играла такой важной роли, как можно подумать. Северяне просили рис, но США испугались, что его используют не по назначению (например, для снабжения армии. - "РГ"), поэтому согласились на поставки детского питания, к тому же маленькими порциями.

## 붙임 8. 일본 아사히TV 보도 원문 (4.18)

### 아사히TV 홈페이지

“「米政府の出方次第だ」北朝鮮は話し合いの余地も”

- アメリカ側の警告に対し、平壤の北朝鮮当局者は強く反発しながらも、「今後の出方次第では話し合いの余地もある」と述べました。
- 北朝鮮の政府関係者は18日朝、ANNのインタビューに対して、「アメリカは他国を巻き込み、今回、国連まで動かした。我が国の自主権を踏みにじることは許されないし、衛星打ち上げの権利を放棄することはない」と話しました。一方で、「アメリカの出方次第では状況が変わる可能性もある。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アメリカや日本と協議していきたいと、今後の話し合いについては含みを持たせています。また、国際社会が憂慮している3回目の核実験については、「我々はIAEAの査察を受け入れると表明している。拒否しているのは向こうだ」と主張し、直接答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 붙임 9.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4.19)

### 지지통신 홈페이지

“日本も制裁追加候補を提出”

- 北朝鮮による弾道ミサイル発射後、国連安保理が制裁の対象拡大を検討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議長声明を採択したことを受け、日本政府は18日までに新たな対象団体などの候補リストを安保理の下部組織・制裁委員会に提出し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北 정권 자체를 타도해야 할 때다.

(4.20 더 디플로맷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지난 20년간 美·北간 합의에 성과가 없었으며, 이제는 북한 정권 자체를 약화시켜야 할 때임.
- 북한의 발사 시도는 북한 정권이 여전히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다른 불량국가들에게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북한 정권의 본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각적·장기적인 전략을 도입해야 함.
- 북한은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매우 유용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개발해 전세계 불량국가들에게 퍼뜨릴 것임.
- 북한 지도부의 유일한 관심사는 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근 미사일·핵 실험도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및 김정일의 정당성 확립과 결부돼 있음.
- 미사일·핵 실험은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발행위를 일삼는 장기적인 전략이기도 함.
- 미국은 북한과 외교게임을 끝내고 북한 정권을 궁극적으로 타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북한의 재래무기·탄도미사일·핵기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고,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북한 자산을 동결해야 함.
- 북한을 상대로 정치적 공방을 시작해야 하며, 탈북자 강제 복송을 막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야 함.

2012.4.20(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무엇보다 △휴대폰과 라디오 공급 장려, △북한의 선전 약화를 위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 개선, △김정은과 장군들에 대한 개혁정신 고취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알려야 함.
  - 북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미국의 결의는 계속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북한 군부의 잔혹한 지배를 종식시키는 것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
- 北 로켓 발사 실패는 美 행정부 및 전문가들의 북한 능력 과대 평가를 보여준다. (4.16 Foreign Affairs)

- 「자크 하이만스」(美 남가주대 국제관계 부교수),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실패는 전문가 분석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냈다. 발사 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 진전을 당연시했으며 적어도 2009년 발사 당시 정도의 성과는 낼 것이라고 믿었다.’
- ‘일부 기술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곧 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발사 실패는 전문가들의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북한의 선전보다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 ‘2006년의 완전한 실패, 2009년의 부분적 실패, 2012년에도 완전한 실패를 기록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성과는 솔직히 한심하다. 핵실험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 ‘놀랍게도 미국의 정책은 입증에 거듭 실패한 무기들을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수립되어 왔다.’
-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외교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에 기초했고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비밀리에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現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의 위협에 대한 美 행정부의 맹신을 감안시 전문가들이 미사일 발사 실패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미국의 오산은 국제 핵확산 속도를 과대평가하는 현 추세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 ‘그러나 전략적 무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속도가 오히려 둔화되어 왔다. 핵시대 초반 25년에 비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실패율도 훨씬 높다.’
- ‘주요 원인은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 대부분이 빈약한 정치제도의 결과로 과학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기술적 기량이 낮고, 기술팀간 협조가 약하며, 기술적 실수로부터 배우기보다는 고발과 비난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불법 공급망을 통해 더 많은 부품을 수입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여분의 무기급 플루토늄이 매우 적을 것이고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도 과대평가 됐을 것이다.’
- ‘핵실험 여부를 떠나 북한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핵무기 기술 진전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호랑이 중 북한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주장

## □ 중국어권

### ○ 북한의 근본적 목적은 북한과 한반도의 베트남化이다.

(4.19 홍콩 봉황위성TV)

- 「쉬광위」(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 이사),
  - ‘북한이 선군정책을 내세우며 새로운 무기로 힘을 과시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도발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핑계로 韓·日·濠와 연합해 중·러를 겨냥한 MD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 ‘북한은 이러한 전략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어 美·北관계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와 북한을 베트남化 시키려는 것이다.’

2012.4.20(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에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은 군사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
- 中, 기근에 처한 북한과 개혁 경험 공유해야 한다.

(4.17 홍콩 봉황위성TV)

- 「탕번」(북단대학 국제관계와 공공사무 학원 교수),

- '태양절 열병식 행사를 통해 김정은은 권력 공고와 더불어 세계에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원로층의 지지를 받아 선군정치 노선을 걸어갈 것임을 보여줬다.'
- '그러나 기근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최근 <봉황주간>은 1990년대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기근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런 가운데 젊고 외국 유학 경험이 있는 김정은의 사고는 이전 지도자들과는 다를 것이다. 또한 김정은의 경제 개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북한은 자신만의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가기에 중국의 권고를 마음 속에 두지는 않겠지만 기근이 기회가 될 수 있다.'
- '기근에 빠진 북한은 반드시 경제 발전의 길을 걷고 개혁 개방을 해야 하며, 이미 韓·中기업 등 외부 사회와 협력 하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 '중국은 개혁개방의 경험을 북한 지도자와 공유해야 하며, 이는 한반도 안정에도 이롭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더 멀리 보는 시각으로 전통적인 외교를 조정할 때이다.'
- '북한이 국제사회와 발맞출 수 있는 길은 개혁개방뿐이며, 韓·日과 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은 중국의 앞날과 韓·中·日 FTA에도 이로울 것이다.'
- '2차대전 후에는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보호막 역할을 했지만 IT 기술전·핵전쟁이 펼쳐지는 오늘날 이러한 역할에는 많은 대가가 따른다'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 북한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 없다.(4.19 IA REX ㉸ 국제전문가 토론사이트)

- 「콘스탄틴 아스폴로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은 여전히 힘과 완강함을 보여주고 있고, 1930~50년대 구소련 방식의 선동적 미사여구를 늘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반응에 있어서는 100% 예측 가능하다.’
  - ‘조만간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만한 근거가 없고, 김정은 체제하의 행정책 변화 또한 없을 것이다.’
  - ‘어떠한 동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어떠한 특정 틀 내에 국한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대북 강경조치는 상황을 지체시킬 뿐이며, 북한이 다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 「드미트리 베르호투로프」(동방학 전문가),
  - ‘여름 이전까지 상황은 과거의 패턴을 보일 것이다. 소리 치다 또다시 잠잠해지는 식의 행동은 이미 2006년, 2009년에 했었다. 시간이 흐르면 자기구역으로 각자 다시 돌아갈 것이다.’
  - ‘로켓발사체 발사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일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가 우주를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북한은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원자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

### ○ 북한의 변화 속도하기는 이르다.(4.19 라디오 스바보다)

- 「안드레이 란코프」(러시아 북한학자, 김일성大 졸업),
  - ‘해외참관단 초청 및 발사실패 발표 등과 같은 유화적인 징후가 있으나, 한편으로 탈북자 단속 및 국경강화 등과 같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 속도하기 이르며,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 '북한내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당대표자 및 최고인민회의 이후 새 지도부 핵심요직에 평생 정치와 당 관료직에 있었던 사람이 배치됐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 '평생 군에 몸담았던 이들이 밀려났는데, 이는 김정은 혹은 장성택이 군부세력을 점차 권력에서 없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라도 정치관료 시대가 도래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

## □ 일본어권

### ○ 김정은 체제 시작 (4.16 NHK)

- 「이데이시 타다시」(NHK 해설위원),
  - '북한은 현재 자동조종으로 날고 있는 비행기와 같다. 군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아버지가 짜놓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다.'
  - '그러나 언제까지나 자동조종을 할 수는 없다. 지난 한주간 김정은이 직접 조종간을 잡은 순간이 몇 번 있었다.'
  - '△발사실패를 인정한 것, △해외언론을 초대한 것, 그리고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하는 대담한 인사를 펼친 것 등이다.'
  - '김정은은 아버지의 노선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 독자노선도 펼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해설

## 붙임 1. 더 디플로맷 보도 원문 (4.19)

더 디플로맷 홈페이지

"Don't Return to Korea Status Quo"

- o Two decades of engagement have gone nowhere with North Korea. It's time to take steps to undermine the foundations of the regime itself.
- o Furthermore, the launch attempt has demonstrated that the regime is as dedicated as ever to expanding its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 both to blackmai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sell that technology off to its fellow rogue states. The United States and the free world must recognize that the core of this crisis is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adopt a multi-pronged strategy that will undermine the junta's rule.
- o North Korea is the lynchpin of the global proliferation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he Hermit Kingdom has provided invaluable assistance to Iran'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Meanwhile, the Syrian nuclear reactor at Dair Alzour was a mirror image of the North's uranium enrichment facility at Yongbyon. As the authoritarian state develops its capabilities, it soon disseminates that knowledge to the world's rogue states. Therefore, the proliferation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is in large part the measure of the proliferation crisis throughout the world.
- o The sole concern of North Korea's rulers is the continuation of their regime. Hence, since the onset of the nuclear crisis in the early 1990s, Pyongyang has sought to bind agreements with non-aggression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aid shipments. While this latest round of missile and nuclear tests are tied to the 100th birthday of Kim Il-sung, and securing the "legitimacy" of Kim Jong-un in the eyes of the military and the people, they are also part of the North's long-held strategy of acting provocatively to extract favorable concessions at the negotiating table.
- o Instead of accepting a perpetual diplomatic game of inches with Pyongyang, Washington should fundamentally orient its policy towards ensuring the regime's ultimate overthrow. First, the United States should lead an international effort to completely stop the North's shipment of conventional arms, ballistic missiles, and nuclear technology abroad. Likewise, Washington should target and freeze their financial assets in the international banking system.

더 디플로맷 홈페이지

- o Furthermore, the West should begin a political war against Pyongyang. Reports such as the recent publication that details the plight of the North's 200,000 political prisoners should be immediately and repeatedly highlighted b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should work with countries in the region to ensure that North Korean escapees are not forcibly repatriated, but instead able to begin new lives free from that brutal dictatorship. Most importantly, the United States should place the cause of the freedom of the North Korean people at the very center of this effort by encouraging the spread of cell phones and radios within the population to facilitate the spread of badly-needed outside news and perspective and improve the quality of Radio Free Asia broadcasts to undermine the North's propaganda, and inspire revolutionary action against Kim Jong-un and his generals.
- o As long as the North Korean regime remains in power, the resolve and will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continually challenged. Only by ending the Pyongyang junta's brutal reign can true peace ever come to the Korean Peninsula.

**붙임 2. Foreign Affairs 원문 (4.16)**

Foreign Affairs 홈페이지

"North Korea's Lessons for (Not) Building an Atomic Bomb"

- o The dismal failure of North Korea's April 13 long-range missile test -- it broke into pieces after 81 seconds [1] of flight time -- has also exposed the poverty of standard proliferation analyses. In the days leading up to the test, most commentators apparently took Pyongyang's technological forward march for granted. Even the more sober voices [2] evinced little doubt that this test would go at least as well as the country's 2009 effort, which managed to put a rocket into flight for about fifteen minutes before it malfunctioned.
- o Meanwhile, other technical experts regaled readers with tales of the "emerging" [3] bona fide North Kore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4]force, which might soon be able to target the continental United



Foreign Affairs 홈페이지

States. The actual results of the test, however, demonstrate that the analysts' nightmare scenarios were hardly more credible than North Korea's own propaganda volleys.

- o The country's long-range missile test record [7] is frankly pathetic: a total failure in 2006, a partial failure in 2009, and a total failure in 2012. And its nuclear test record is almost as bad: a virtual fizzle [8] in 2006, and a very modest blast at best [9] in 2009.
- o Amazingly, the assumption that Pyongyang already owns the very weapons that it has consistently failed to demonstrate has long driven U.S. policy. The Clinto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diplomacy was based on the belief that there was a "better than even chance" [10] that Pyongyang had built the bomb.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then ripped up the Clinton-era policy because it thought that the North Koreans had cheated [11] and built even more bombs than Clinton realized. Most recently,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has gone so far as to state that "we know" [12] that Pyongyang possesses "between one and six nuclear weapons". Given Washington's blind certainty about the North Korean menace, it is little wonder that few analysts anticipated its latest belly flop.
- o Washington's miscalculation is not just a product of the difficulties of seeing inside the Hermit Kingdom. It is also a result of the broader tendency to overestimate the pace of global proliferation. For decades, Very Serious People have predicted [13] that strategic weapons are about to spread to every corner of the earth. Such warnings have routinely proved wrong -- for instance, the intelligence assessments that led to the 2003 invasion of Iraq -- but they continue to be issued. In reality, despite the diffusion of the relevant technology and the knowledge for building nuclear weapons, the world has been experiencing a great proliferation slowdown. Nuclear weapons programs around the world are taking much longer to get off the ground -- and their failure rate is much higher -- than they did during the first 25 years of the nuclear age.
- o The key reason for the great proliferation slowdown is the absence of strong cultures of scientific professionalism in most of the recent crop of would-be nuclear states, which in turn is a consequence of their poorly built political institutions. In such dysfunctional states, the quality

Foreign Affairs 홈페이지

of technical workmanship is low, there is little coordination across different technical teams, and technical mistakes lead not to productive learning but instead to finger-pointing and recrimination. These problems are debilitating, and they cannot be fixed simply by bringing in more imported parts through illicit supply networks.

- o Pyongyang is reportedly already preparing a new nuclear test [15]. There is reason to be skeptical of these reports, since the country probably has very little weapons-grade plutonium to spare, and the widespread view that it is rapidly accumulating a highly enriched uranium stockpile [16] smells like yet another wonky overestimation of its technical capabilities. But whether or not North Korea carries out a successful nuclear test in the near future, its institutional dysfunction indicates that any further progress toward an operational nuclear arsenal is likely to remain slow and halting at best. Among the various tigers that populate the East Asian region, this one is made of paper.

### 붙임 3.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4.19)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朝鲜的根本目的是朝鲜半岛越南化”

- o 我基本的判断是这样的，朝鲜之所以要搞“先军政策”，搞一些新的装备来壮大自己的能力，而且展示给世人各种各样的导弹，通过阅兵式来展示，通过卫星发射来展示他的能力，他的这一系列做法，我个人认为对东北亚的安全局势没有影响，理由在这里，即便朝鲜不搞这些东西，美国的反导系统针对中俄仍然要搞，不是决定性的因素，只不过是趁这个机会，美方趁这个机会可以拉拢日、韩、澳个方面的力量，来推进反导系统，多了个借口而已。朝鲜真正的战略意图在哪里呢？是要引起美国的注意，要解决美朝之间的关系，打通这个关系，能够使朝鲜半岛，北朝鲜越南化，这是它的根本目的，所以它表现的非常激烈，我的基本观点是这样，它的政治意义直接大于它的军事意义。
- o 我觉得这个事情，当然了角度不一样，看法不一样，不要把朝鲜半岛，北朝鲜本身“先军政策”所搞的军事表象所迷惑，我觉得不要仅仅看到，它想要和谁打仗，想要和谁来叫板打架，这是次要的。最重要的问题，我觉得还是他想解决到自己国家和国际社会，特别是美国的关系，这是非常重要的一点。

## 붙임 4.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4.17)

### 홍콩 봉황위성TV 홈페이지

#### “朝鲜面临大饥荒 中国应给朝鲜分享改革经验”

- 我们可以看到这一次金正恩确实巩固了他的最高领导权，他向全世界展示了巩固领导权的形象，同时也说明他得到了全体元老层的支持，他也说要继续进行先军路线，而在这次大阅兵中，也展示了朝鲜认为是最先进的武器，这些部分的东西。但是我们可以看出来他也面临着许多压力，首先面临着饥饿的压力，面临着饥饿的恐慌，根据我们《凤凰周刊》的报道，朝鲜面临着大饥荒，虽然饥荒不像90年代，但是这也带来的慢性的饥饿。
- 面对这样的情况，我想作为一个曾经在外国留学的年轻领导人，他的思考有一点点和以往领导人有所不同，当然他要做改革，怎么改？而且他谈到关于在经济领域中的定量计算，以及科学的一些判断等等，一些比较超脱原来带有威权、集权，先军路线，不管经济以往金正日的路线，当然道他的路会怎么走，在走的过程中中国发挥什么作用，都很重要。
- 当然现在有了契机，因为面临着大饥饿，面临着慢性的饥饿，朝鲜必须发展他的经济，必须搞改革开放，他已经做了一些试点性的努力，和中国企业家的合作，以及跟外部社会的合作，甚至和韩国企业家的合作。
- 在这种情况下，我觉得中国方面可能要考虑一个长远的发展方向，首先中国方面应该考虑到，所有中国所恪守的传统外交原则，应该是有所调整的时候了，可以说是改善外交思想，外交的思想应该在新的环境中有所调整。中国如果认为自己是代表先进文化的话，他应该把自己改革开放以来的经验，分享给朝鲜的领导人，这样才能有利于朝鲜半岛的稳定局势。因为朝鲜只有走向改革开放，才能使得他和国际社会接轨，能和韩国、和日本有一个良好的经济互动关系，这也有利于中国未来要进行的，中、日、韩自贸区的发展。
- 朝鲜对于中国来说很多专家认为，我们可以看到过去的一段时间，中国的军方，中国的战略界以及中国的智库，对于如何处理中朝关系有不同的意见，可以看出政府在处理和中朝关系中，体现了这些不同意见的反应。有时候规劝朝鲜应该不要使得局势恶化，有时候又希望有一些反应，可能认为朝鲜仍然是中国的战略屏障，从朝鲜作为地缘政治重要的国家，对于中国的安全，又有某种程度相当大的战略意义。二此世界大战中的这种思考，或者说二次世界大战以后一段时间内的一种思考，今天高科技战争、核子战争，使得人类对战争的概念完全不同的，因此朝鲜作为战略屏障，但这种作用你要付出多大的代价。

## 붙임 5. 러시아 콜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4.19]

콜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круглого стола”

- Я не вижу оснований для радикальных перемен. Определённые колебания, но они идут в рамках определённого коридора. Да, возможно, будут ещё жесты демонстр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своей мощи и неуступчивости, будет определённая риторика в стиле СССР 30-50-х годов, но реакция всех сил будет абсолютно предсказуема. И поэтому я не жд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радикальных изменений. Ведь ситуации, подобные произошедшему 13 апреля запуску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которые вызвали всеобщее осуждение, уже были и в 2006-м, и в 2009-м годах. Они просто решили проверить, насколько дружелюбны намерения США. Жесткие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а только консервируют ситуацию. Корея может на кого-то напасть- Это фантастика.
- Покричат и успокоятся,- просто разъяснил Верхотуров. Это было уже в 2006 и 2009 годах. Стороны два месяца увлекались риторикой, потом все возвращалось на круги своя. Запуск ракетносителя должен был получить поощрение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наче мы можем прийти к тому, что космос будет кем-то захвачен. Например, США. А яд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реи необходима,- им нужна энергия, а других ресурсов нет.

## 붙임 6. 러시아 라디오 스바보다 보도 원문 [4.19]

라디오 스바보다 홈페이지

“Андрей Ланьков”

- В целом есть, наверное, некоторые признаки смягчения, вы уже упомянули один из них- решение пригласить необыч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журналист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запуск ракеты. Решение заявить о запуске заранее, за месяц. И потом,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очень неожиданное при этом- это решение о том, что неудачу с запуском ракеты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Но пока я бы не стал слишком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придавать этим первым сигналам. Есть и другие сигналы. Например, резкое затягивание гаек на границе, существенное осложнение

라디오 스바보다 홈페이지

жизн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и так далее. Так что поживем- увидим.

- Мы пока не знаем. Более того, я не уверен, что мы можем вобще говорить об армии и партии, как о двух совсем отдельных группах. Но если мы посмотрим на перестановки,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в начал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на 4 конференции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где было избрано новое руководство, мы увидим, что на ключевых постах появились люди, всю жизнь являвшиеся гражданскими партий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партийными бюрократами.
- И они несколько потеснили тех, кто всю жизнь служил в армии. Так вот, если это о чем-то говорит, то говорит это о том, что ли сам Ким Чен Ын, то ли, что более вероятно, его главный попечитель, его дядя потихонечку оттесняют от власти военных, и сей час пришло время партапаратчиков, по край ней мере, отчасти.

**붙임 7. 일본 NHK 보도 원문 (4.16)**

NHK 홈페이지

“「ジョンウン体制 始動」”

- Q 6、ジョンウン第1書記の体制になって、北朝鮮はますます危険な方向に進んでいると見るべきなのでしょうか。
- A 6、あるロシアの専門家が、面白い例えをしていたのですが「今の北朝鮮は自動操縦で飛んでいる飛行機のようなものだ」と言うのです。確かに軍事を最優先して核兵器やミサイルの開発を進めるというのは、父親の路線をそのまま踏襲し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
- その意味では、父親の組んだプログラム通りの自動操縦の状態なのかも知れませんが、ただ、いつまでも自動操縦というわけには行かないと思います。雲があったら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し、着陸をする時には機長自らが操縦桿を握ります。この一週間の動きの中にも、機長が操縦桿を握った瞬間が、いくつか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 Q 7、それはどういう時ですか。
- A 7、発射の失敗を認め、臨時ニュースで国民にも伝えました。今までの北朝鮮なら、失敗しても成功だと言い張るか、沈黙して何も言わないかだったと思います。率直に失敗を認め国民にも知らせたのは、これま

## NHK 홈페이지

での北朝鮮にはなかったことです。他にも変化の兆しは見えました。先ほど紹介した銅像の除幕式にはジョンウン第1書記も出席しましたが、この会場には外国メディアも案内されました。ジョンウン氏が市民に囲まれて談笑している映像も公開されました。こうした映像を見ますと、これまでよりかなりオープンになったという印象を受けます。

- Q 8、これはジョンウン氏の方針なのでしょうか。
- A 8、ジョンウン氏本人の指示なのか、それとも周囲の演出なのかはわかりません。
- ただ、もうひとつ、これはトップにしかできないであろう注目すべき動きがありました。軍の首脳人事です。北朝鮮の軍隊には、国防相に当たる人民武力部長、総参謀長、それに総政治局長という3つの重要なポストがあるのですが、総政治局長は、前任者が亡くなった後、ずっと空席になっていました。その重要ポストに、チェ・リョンヘ（崔竜海）という人が抜擢されたのです。この人は党の官僚だった人物で元々は軍人ではありません。そんな人物が、軍のナンバー2のポストに就いたのです、いわば2階級特進の抜擢です。こんな大胆な人事ができるのは、軍の最高司令官であるジョンウン氏しかありません。
- きのうの軍事パレードでも、チェ・リョンヘ氏は、ジョンウン第1書記のすぐ隣にいて、親しげに言葉を交わしている姿が確認されています。この異例の抜擢も、「自動操縦」ではないジョンウン氏自らの決定ではないかと思えます。
- Q 9、父親の路線を基本的には継承しながらも、独自色も出してきたというのでしょうか。
- A 9、そうだと思います。ただそれが、吉と出るか凶と出るかはわかりません。オープンにすれば親しみやすさは演出できますが、カリスマ性はなくなります。統制が弛んでアラブの春のような動きにもつながりかねません。抜擢人事も、選ばれた人は喜びますが、はずされた人には不満が残ります。派閥抗争の要因にもなり組織の弱体化を招く怖れもあります。この一週間である程度見えてきたキム・ジョンウン体制が、これからどこに向かうのか、お父さんの路線を引き継ぐとは言っても、いつまでも「自動操縦」を続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ことは確かだと思います。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中·北 관계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

(4.23 걸프뉴스 ㉠ 아랍에미리트연합 영자 신문)

- 「크리스토퍼 힐」(前 美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민과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반항은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다.’
  - ‘유엔 안보리 결의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중국을 포함해 어떤 국가도 북한과의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특히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로켓 발사 준비 당시 중국의 포기 설득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중국이 의사소통에서 대담 조차 얻지 못한 것은 새로운 모욕으로 해석된다.’
  - ‘중국의 대북 교역과 투자가 이상하게도 중국을 북한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징조들이 있다.’
  - ‘대북제재와 비협조적인 북한 행동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로 오랫동안 북한의 무역 파트너였던 한국과 일본의 철수에 따라 중국 상인과 투자자들이 최근 몇 년간 북한에 진입했다.’
  - ‘중국의 대북 교역은 2005년 10억달러에서 2011년 51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석탄 등 원자재를 수입하고, 기계·소비재·정제된 석유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 ‘중국은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는 짐을 오래 지고 갈 수 없을 것이다.’
  - ‘중국은 북한과의 쌍무 무역을 중단함으로써 북한 행위를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언급

## □ 러시아어권

### ○ 사실상 2020년까지 북한의 ICBM 개발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4.20 바엔노에 아바즈레니에 ⇨ 군사전문 일간지)

- 지난 2009.4월 은하 2호 발사실험을 통해 북한의 다단 탄도 로켓 개발 가능성 입증됐음.
- 북한은 대포동 타입의 2~3단짜리 탄도로켓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정거리는 하중량에 따라 6,000km까지(원형공산오차 3.7~3.8km) 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재정부족과 UN안보리 제재로 인한 자재·기술 도입 및 발사실험이 힘들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현 상황에서 2020년까지 북한의 ICBM 개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개발한다 해도 일본에 도달 가능한 수준임.

### ○ 근본적인 실패원인은 기술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4.21 도쉬지 ⇨ 인터넷 방송국)

- 「유리 카라쉬」(우주정책 전문가, 로켓발사 해외참관단 자격 평양 방문),
  - ‘북한의 로켓발사 실패원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로켓기술 전수로 舊소련과 미국이 우주프로그램을 개발한 실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유럽, 일본, 한국 모두 사실상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아 로켓·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기술지원 없이 자력으로 우주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힘들다.’
  - ‘로켓발사를 통해서만 기술실험이 가능하며, 몇 차례의 발사 실패는 일반적이다.’
  -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은 가능하다.’
  - ‘북한의 우주발사장은 발사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아주 작은 규모의 발사대 한 개가 설치된 시설’이라고 언급



## □ 중국어권

○ 北 열병식은 한국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4.23 남방일보)

- 「장리엔구이」(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 ‘북한의 열병식은 일종의 정치적 성격을 띠며, 당시의 국내외 환경에 따라 다른 의도를 드러내지만 선군정치라는 공통된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
  - ‘이번 열병식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을 위함이었지만 외부에서는 일종의 위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에 선보인 장거리 미사일과 무인기를 통해 북한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고 6자회담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의도라고 분석하지만, 북한의 실제 의도는 한국과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며 미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이번 위성 발사 또한 작년 12월에 미국에 이미 통지함으로써 미국을 안심시켰다.’
  - ‘북한은 핵문제는 美·北간의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이미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하고 복귀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고 주장

## □ 일본어권

○ 김정은, 1991년부터 스위스에 체류했다.(4.23 교도통신)

- 4.22일자 스위스의 프랑스어誌 ‘르 마탱’ 등 두 개의 신문은 김정은이 소년시절에 스위스에 체류한 기간이 기존에 알려진 1998년부터가 아닌 1991년부터였다고 보도함.
- 이번에 판명된 경찰 문서에는 1991.11월에 제네바 주재 국제기관 대표부 외교관의 아들로 입국한 기록이 있음.
- 1991년부터 공립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베른의 국제학교에 다녔다는 정보도 있음.

o '북한 지하자원 수출 의존도 증가' 보도 (4.20 아시아프레스)

- 북한의 지하자원수출 의존이 높아지고 있음. 2011년 對中 수출액 24억 2천만 달러 가운데 65.1%를 석탄과 철광석이 차지했고, 수출된 철광석은 모두 무산광산에서 채굴된 것으로 보임.
- 무산광산은 가채량이 수십억 톤에 이르는 대규모 우량광산으로 중국국경 두만강을 따라 위치해 북한의 귀중한 외화벌이 거점이 되고 있으며, 작년보다 개발이 더 진행되고 있음.
- 화룡시에서 무산군과 마주보고 있는 남평진까지 가는 1시간 동안 30대 이상의 정광을 가득 실은 20톤급의 대형 덤프트럭이 지나다님.
- 남평진에서는 무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지대가 관광지로 정비되고 있음.
- 작년 5월에는 없었던 구조물이 산 정상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채굴한 광석을 산기슭으로 보내는 수송관 시설인 듯함.
- 남평진측에도 변화가 생겼고, 2009년부터 시작된 화룡시와 남평진을 연결하는 약 40km의 철도공사가 완공에 가까워짐. 이 노선이 완성되면 더 많은 양의 철광석을 저렴한 값에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음.
- 무산광산에서 산출된 철광석 중 얼마큼의 양이 1년에 중국으로 수송되고 있는지는 공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1년도 안 되어 크게 변화한 광산과 주변 풍경에서 中·北양국이 무산광산에 쏟는 관심도를 읽을 수 있었음.

## 붙임 1. 걸프뉴스 게재 원문 (4.23)

걸프뉴스 홈페이지

“Is North Korea losing China?”

- o The world, it seems, must be shown that North Korean scientists, despite their dearth of success in producing food, have mastered how to produce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 o There used to be a measure of sympathy in Asia for the plucky North Koreans and their systematic defiance of the US and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those days are over. As the unanimous adoption of 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tatement on April 16 suggests, no one, including the Chinese, is trying to make the case any more for nuance in dealing with the North.
- o The Chinese, in particular, appear to have lost patience. Reportedly, in the run-up to the rocket launch, the North Koreans refused to respond to China's pleas that they stand downs.
- o The Chinese have had centuries of experience dealing with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ost difficult of imperial China's tributary small neighbours, but not even receiving a reply to their communications was a new insult.
- o If the North Korean problem is ever to be solved, it will be when China says that it has had enough. That day may be approaching, but in the meantime there are worrisome signs that China's trade and investments in North Korea, the latest of which is a Chinese supermarket in which local currency can be traded at free-market (that is, black-market) rates, could oddly make China dependent on the North.
- o Chinese traders and investors have in recent years moved in as Japan and South Korea, two of North Korea's longstanding trade partners, have withdrawn, owing to official sanctions and increasing public irritation with the North's intransigent behaviour.
- o China's trade with North Korea has increased from around \$1 billion (Dh3.67 billion) in 2005 to more than \$5.1 billion in 2011. The overall pattern is familiar: China imports North Korean raw materials, such as coal, and exports machinery, consumer goods,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 o All countries carry some burden from the past, and China is no exception. But the burden of protecting North Korea from the world's justified outrage is one that China cannot afford to carry for long.
- o Now would be a very good time for China, as the expression goes, to put its money where its mouth is. China should follow up on its Security Council vote to condemn North Korea's behaviour by shutting down bilateral trade.

## 붙임 2 러시아 바엔노예 아바즈레니예 보도 원문 (4.20)

바엔노예 아바즈레니예 일간지 홈페이지

“круглого стола”

- Я не вижу оснований для радикальных перемен. Определённые колебания, но они идут в рамках определённого коридора. Да, возможно, будут ещё жесты демонстр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воей мощи и неуступчивости, будет определённая риторика в стиле СССР 30-50-х годов, но реакция всех сил будет абсолютно предсказуема. И поэтому я не жд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радикальных изменений. Ведь ситуации, подобные произошедшему 13 апреля запуску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которые вызвали всеобщее осуждение, уже были и в 2006-м, и в 2009-м годах. Они просто решили проверить, насколько дружелюбны намерения США. Жесткие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а только консервируют ситуацию. Корея может на кого-то напасть. Это фантастика.
- Покричат и успокоятся,- просто разъяснил Верхотуров. Это было уже в 2006 и 2009 годах. Стороны два месяца увлекались риторикой, потом все возвращалось на круги своя. Запуск ракетносителя должен был получить поощрение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наче мы можем прийти к тому, что космос будет кем-то захвачен. Например, США. А яд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реи необходима,- им нужна энергия, а других ресурсов нет.

## 붙임 3. 러시아 도쉬지 보도 원문 (4.21)

도쉬지 인터넷 방송사 홈페이지

“Андрей Ланьков”

- В целом есть, наверное, некоторые признаки смягчения, вы уже упомянули один из них- решение пригласить необыч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журналист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запуск ракеты. Решение заявить о запуске заранее, за месяц. И потом,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очень неожиданное при этом- это решение

도쉬지 인터넷 방송사 홈페이지

о том, что неудачу с запуском ракеты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Но пока я бы не стал слишком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придавать этим первым сигналам. Есть и другие сигналы. Например, резко затягивание гаек на границе, существенное осложнение жизн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и так далее. Так что поживем-увидим.

- Мы пока не знаем. Более того, я не уверен, что мы можем вообще говорить об армии и партии, как о двух совсем отдельных группах. Но если мы посмотрим на перестановки,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в начал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на 4 конференции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где было избрано новое руководство, мы увидим, что на ключевых постах появились люди, всю жизнь являвшиеся гражданскими партийными работниками, партийными бюрократами.
- И они несколько потеснили тех, кто всю жизнь служил в армии. Так вот, если это о чем-то говорит, то говорит это о том, что ли сам Ким Чен Ын, то ли, что более вероятно, его главный попечитель, его дядя потихонечку оттесняют от власти военных, и сейчас пришло время партаппаратчиков,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отчасти.

**붙임 4. 중국 남방일보 보도 원문 (4.23)**

중국 남방일보 홈페이지

“频繁阅兵想要威慑的不止韩国”

- “阅兵是一种政治举动，每次阅兵都企图表达一些意图。然而把漫长时期内组织的多次阅兵归纳成某个方向的意图就太简单化，每次阅兵都是在不同的国内国外环境中进行的，都有不同的意图，唯一的共性是体现先军政治。”张琏瑰说。
- 虽然这次阅兵是纪念金日成百年诞辰，进一步显示金日成作为国父、缔造者的丰功伟绩，坚决先军政治的决心，而在外国看来，可能还有示威的味道。”张琏瑰说。
- 外界有评论认为，朝鲜在阅兵中展示远程导弹和无人机意在威慑韩国，在朝鲜半岛局势中取得主动权，同时在六方会谈问题中施加外交影响。而张琏瑰认为，虽

### 중국 남방일보 홈페이지

然朝鲜动不动就宣称要摧毁韩国，但它的野心绝不仅在韩国，而是想威慑周边国家，威慑目标未必包括美国。

- “这次朝鲜发射卫星在去年12月中旬就通知美国了，但没有告诉其他国家，朝鲜发卫星、发导弹、搞核武器都要私下跟美国进行沟通，让美国放心。可以说朝鲜最敬佩的是美国，最想结交的是美国，最恨的也是美国，因为美国有绝对的力量。
- 朝鲜已经宣布永远退出了六方会谈，无意回到六方会谈，而且朝鲜始终认为核问题是朝美之间的问题。”张珺瑰告诉记者。

## 붙임 5.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4.23)

### 교도통신 홈페이지

“正恩氏、スイス滞在91年から 少年時代、地元紙報道”

- 22日付のスイスのフランス語紙ルマタンなど2紙は、北朝鮮の金正恩第1書記が少年時代にスイスに滞在していた期間が、確認されていた1998～2001年ではなく91年からだったと伝えた。スイス警察の公式文書から判明したという。
- 同紙などによると、金第1書記は「パク・ウン」の名前で98年から首都ベルン郊外の公立校に在学し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今回判明した警察の文書には、91年11月に在ジュネーブ国際機関代表部の外交官の息子として入国したとの記録がある。
- 91年から公立校に入るまでベルン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にいたとの情報もある。

## 붙임 6. 일본 아시아프레스 보도 원문 (4.20)

### 아시아프레스 홈페이지

“<北朝鮮>朝中鉱物貿易の優等生、茂山鉱山を望む”

- 北朝鮮の地下資源輸出への依存が高まっている。最大の貿易相手国である中国との間では、2011年の輸出額24億2千万ドルのうち、65.1%を石炭と鉄鉱石が占めた。鉄鉱石輸出のすべては、咸鏡北道の茂山(ムサン)

아시아프레스 홈페이지

鉱山で採掘されたものと思われる。茂山鉱山は可採量が数十億トンに上る大規模な優良鉱山であり、中国国境の豆満江沿いに位置する立地のよさもあって、北朝鮮にとっては、貴重な外貨稼ぎ拠点になっている。

- 筆者は三月下旬、豆満江を挟んで茂山郡と向かい合う中国側の南坪鎮を訪れた。そこで見たのは、昨年より開発がさらに進んでいた茂山鉱山の姿だった。
- 南坪鎮は、吉林省延辺朝鮮族自治州の和龍市から車で一時間ほど。わずかその間に、30台以上の精鉱を満載した20トンクラスの大形ダンプカーとすれ違った。これだけでもざっと見て600トン。いかに多くの鉄鉱石が茂山鉱山から中国に流れて行っているのかが分かる。
- 南坪鎮には、茂山を一望できる高台が観光スポットとして整備されている。取材当日はあいにくの曇りだったが、数キロ先に見える茂山鉱山からは、数分ごとに発破音が聞こえてきた。さらに鉱山をよく眺めると、昨年5月には無かった建造物が山の頂上部分に設置されているのが見えた。採掘した鉱石を麓に送る輸送管の施設のようである。
- 南坪鎮側にも変化があった。2009年から始まっている、和龍市内と南坪鎮を結ぶ40キロ余りの鉄道工事が完成に近づいていたのだ。「和坪鉄道」と名付けられたこの路線が完成すれば、これまでよりも多い量の鉄鉱石を、より安く大量に輸送することができる。環境への影響も抑えられる。和龍市の周辺地域ではひっきりなしに往来するダンプカーが、住環境に少なくない悪影響を及ぼしており、改善が急がれていた。
- 茂山鉱山で産出された鉄鉱石のうち、一年にどれくらいの量が中国へと運ばれているのかは、公表されていない。だが、わずか一年足らずで大きく姿を変えた鉱山とその周辺の様子からは、朝中両国が茂山鉱山に注ぐ関心の高さを十分に読み取ることができ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일본어권

○ 후진타오 주석, 김정은 방중 초청 가능성이 있다. (4.23 산케이)

- 4.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후진타오 中 주석과 북한 김영일 北 노동당 서기와의 회담에서 김정은의 방중을 정식으로 초청했을 가능성이 있음.
- 당시 후진타오 주석은 김영일에게 '김정은 동지의 지도 아래 당과 정부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사업에 새로운 성과를 낼 것을 믿고 있다.'고 언급
- 후 주석은 또 '양국의 고위급 왕래를 포함한 黨간의 교류를 유지해 가자'고 언급
- 이에 대해 김영일은 '中·北 우호협력관계 발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다. 기존대로 양당과 양국의 관계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중국의 의향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임.
- 후 주석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지 말자'고 전했으며, 이는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임.

### □ 영어권

○ 北, 대남 특별행동 위협 관련 보도(4.23 VOA)

- 「다니엘 핑크스톤」(국제위기그룹 선임 연구원),
  - '북한측의 대남 특별행동 위협은 사이버 공격이나, 재외 한국인 등 예기치 않은 대상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비대칭 공격 또는 특수작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



○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주민 실정 보도

(4.23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2011년 말 김정일 사망 후 황해남도에서 아사자가 2만명 이상이라는 보도 관련, 이코노미스트(영국 주간 경제지)는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조명했음.
-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는 소련보다 2배나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에 집착하면서 인권에 대한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한국은 좌·우파 정치인 사이에 북한 수용소가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동맹국인 중국은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은 '아랍의 봄'과 같은 시민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 부족으로 현실과 동떨어지고 최근 기술 실패에 체면이 깎인 지도부에 휘둘리고 있음.

○ 이란, 대북 인도지원 실시(4.22 Ynetnews ☞ 이스라엘 인터넷 언론사)

- 「푸야 하지안」 (이란 적신월사 홍보부장),
  - '밀가루, 분유, 쌀 등 85t의 대북 인도적 지원물품을 북한 적십자사에 전달했다.'
- 대북제재와 미국의 식량지원 중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 중국어권

○ 김정남 관련서적 5월 홍콩 출간 관련 「고미요지」 인터뷰

(4.29 아주주간 ☞ 홍콩 시사주간지)

- 홍콩 신세기출판사는 일본의 「고미요지」 편집장이 김정남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근거로 출간한 「아버지 김정일과 나」의 중국어판을 5월에 발행할 예정임.
- 「고미요지」(일본 도쿄신문 편집위원)
  - '김정남도 일본에서 출간된 책을 읽었으며, 특별한 반응 없이 출판이 다소 일렀다고 말했다.'

2012.4.24(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노동당 제4차 회의를 통해 북한이 정식으로 김정은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는 젊고 정치적 실적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없이 김정일의 정치노선을 따를 것이다.'
- '김정남도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정은 주변 인물은 모두 김정일을 따르던 자들로 실제 권력은 그들 손에 있다.'
- '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잃었지만, 김일성 탄생 기념과 김정은 정권 후의 큰 정치적 행보이기에 큰 의미를 지닌다.'
- '韓·中·日의 입장은 종전과 같으며, 동북아 정세도 얼마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 '북한 위성 발사 후 북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은 주변국의 말을 듣는 나라가 아니다. 어떠한 행동을 보이면 주변국은 바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

#### ○ 북한의 운명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지 않다

(4.24 인민일보 사천성 지역 신문)

- 북한 문제는 美·北관계 문제로 김정은 체제 후 양측의 관계 개선에 희망이 보였으나, 위성 발사로 美·北관계는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왔음.
- 일본의 경우,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위성발사를 핑계로 군사력 증강 및 미국과 MD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음.
- 한반도의 위기 때마다 일본의 군사강국 시도는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세를 더 복잡하게 하므로 경계해야 함.
- 북한의 운명은 스스로에 달려 있지 않으며, 한반도 문제는 각국의 이익이 맞물려 있고, 국제사회의 민감한 부분이기에 인내를 필요로 함.
-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각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최종적으로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서야 함.
- 위성 발사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 시대의 한반도의 미래와 새로운 힘겨루기는 이제 시작됨.

## □ 러시아어권

### ○ 북한의 대남위협은 새로울 것 없다.(4.23 로스발트 뉴스포털 사이트)

- 「알렉산드르 보론초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 과장),
  - '상황이 직접적인 서울 테러공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대남위협은 새로울 것 없는 군사적 선동구호다.'
  - '만약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을 '종이호랑이'로 생각했다면, 이미 오래전 강경 대응을 했을 것이다.'
  - '하지만 북한과는 여전히 대화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향후 대화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현 상황전개는 최근 한국이 북한과의 충돌상황을 계속 만든 잘못도 있다'고 주장

### ○ 김정은, 생각보다 매우 능력·경험있는 정치 인물로 파악된다.

(4.21 바엔노예 아바즈레니에 군사전문 포털사이트)

-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매우 능력있고, 경험 있는 정치 인물임.
- 실제로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것은 2007년이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경험을 쌓았음.
- 김정일은 김정은이 국가 내부구조를 배울 수 있도록 했고, 이 덕택에 김정은은 국가발전 방향에 명확한 안목을 가지게 됨.
-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절로 떠올리는 '김일성 시대'에 대한 인민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김일성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행동 또한 김정은의 이러한 정치적 면모를 볼 수 있는 요인임.

## 붙임 1.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4.23)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中國主席 正恩氏訪中正式招請か？ 核實驗自制促す ”

- 中国国営新華社通信によると、胡錦濤国家主席は23日、北京の人民大会堂で、北朝鮮の金(キム)永(ヨン)日(イル)朝鮮労働党書記らと会談した。会談で胡主席は「金正(ジョン)恩(ウン)同志の指導の下、党と政府が社会主義強盛国家建設事業に新たな成果を上げることが信じている」などと祝意を示しており、党第1書記に就任した金正恩氏の訪中を正式に招請した可能性がある。
- 胡主席は「ハイレベルの往来と党間交流を維持していこう」と訴えた。金永日氏も「朝中の友好協力関係発展は金日(イル)成(ソン)主席、金正(ジョン)日(イル)総書記の遺訓だ。従来通り、両党や両国の関係が発展するように努力していく」と応じており、中国の意向を尊重する姿勢を示した。
- 胡主席はまた、「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を維持し、北東アジアの恒久平和を実現するため、ともに努力を怠らないようにしよう」とも伝えた。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失敗し、指導部の威信回復のためにも3回目の核実験の準備を進めているとされる北朝鮮に対し、自制を求める意図が込められているとみられる。
- 生前、金総書記は2010年5月に4年ぶりに訪中し、同年8月、11年5月と8月の訪中では吉林省など東北地方を視察している。

## 붙임 2. VOA 원문 (4.23)

### VOA 홈페이지

"N. Korea Threatens South With Special Military Action "

- Daniel Pinkston, the senior analyst in Seoul for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says while there is no indication of a mobilization of North Korea's military, the announcement from Pyongyang is puzzling and worrying. "I don't know what a special team could do in three or four minutes," noted Pinkston. "Maybe some type of special operations or some type of asymmetric attack that could include cyber attacks or attacks against unexpected, unusual targets in the South, maybe attacks against South Korean targets abroad."

### 붙임 3. 더 디플로맷 원문 (4.23)

더 디플로맷 홈페이지

#### "North Korea in Ashes Threat"

- o Talk of turning any part of Seoul to “ashes” is particularly troubling considering that previous North Korean missile tests in 2006 and 2009 have been followed by nuclear tests, and there are reports of tunneling suggesting another nuclear test could be coming.
- o The heat of election campaigns are rarely the best places for formulating policy - candidates need to sound tougher than their opponents. And so it was with presumptive Republican nominee Mitt Romney, who issued a statement shortly after this month’s launch. “Although the missile test failed, Pyongyang’s action is another blatant violation of unanimou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demonstrates once again that Pyongyang is committed to developing long-range missiles with the potential of carrying nuclear weapons,” Romney said. “Its weapons program poses a clear and growing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ne for which President Obama has no effective response. Instead of approaching Pyongyang from a position of strength, President Obama sought to appease the regime with a food-aid deal that proved to be as naïve as it was short-lived.”
- o Yet despite such criticism, U.S. President Barack Obama was right to at least test the waters with the new Kim regime.
- o The depths of misery being faced by many North Koreans was underscored in a report carried by South Korea’s Arirang that said more than 20,000 in North Korea’s South Hwanghae Province alone have died of starvation since Kim Jong-il’s death at the end of last year.
- o With this in mind, then, the Economist is right to suggest a shift in international emphasis to the suffering being inflicted by the regime on North Koreans themselves. “The North Korean gulag has persisted for twice as long as its Soviet counterpart did. Yet the world looks away,” it notes. “The United States expends its diplomatic energies in negotiations over the regime’s tin pot nuclear and missile program, with little to show for the effort. South Korean brethren have other things on their minds - the political left wants better relations with the North, while others just wish it was not there. As for China, an ally, it forcibly repatriates North Koreans who have fled across the border, even though they face execution.”

더 디플로맷 홈페이지

- o Lacking the information or even tools to foment their own version of the Arab Spring (only an estimated 1.5 percent of the population have cell phones), North Koreans are at the mercy of a leadership that appears detached from reality and perhaps humiliated by its latest technical failure.

## 붙임 4. Ynetnews 원문 (4.22)

Ynetnews 홈페이지

"Iran sends humanitarian aid to N. Korea"

- o Iranian Red Crescent Society officials announced that Islamic Republic has sent 85 tons worth of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the Fars News Agency reported Sunday. "The IRCS's humanitarian aid cargo included 85 tons of flour, powdered milk and rice which were delivered to North Korea's Red Cross," said the organization's head of PR, Pouya Hajian.
- 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imposed harsh sanctions on North Korea over its nuclear program, and the US recently called off plans to send food aid after the impoverished state's defiant rocket launch. The Iranian shipment is regarded as an attempt to bypass these sanctions. According to WikiLeaks, the organization is sometimes used as a cover to smuggle Iranian agents into other countries.

## 붙임 5. 홍콩 아주주간 원문 (4.29)

홍콩 아주주간 홈페이지

“金正恩受挫與金正男揭密”

- o 五月在香港出版的中文版《父親金正日與我：金正男獨家告白》（香港新世紀出版社推出）一書對此作了詳盡描述。四個月前，金正日病逝，預定的三子金正恩接班，血統世襲獲得確立和強化，金家統治由此得到延續。
- o 五十四歲的本書作者五味洋治是日本《東京新聞》記者，他對金正男作了世界首度獨家深度採訪。此書日文版出版後，旋即成為備受矚目的暢銷書。五味洋治一

홍콩 아주주간 홈페이지

九八二年畢業於日本早稻田大學第一文學部，八三年進入《東京新聞》（中日新聞東京總社）工作，九七年赴韓國延世大學學韓語，隨後先後在首爾分社、中國總局，主要報道朝鮮半島局勢，時下任《東京新聞》編輯委員，著有《中國是否能阻止朝鮮》、《晚生社》等著作。

- 四月十五日，在東京的五味洋治接受亞洲週刊採訪時說，書出版後，金正男讀了此書，沒有什麼太大反應，只是認為出版早了些。五味洋治說，勞動黨第四次會議上，朝鮮正式步入金正恩時代。金正恩還年輕，政治上的實績還不多，過一段時間，他只能沿著父親金正日一樣的政治路線走，不會有大的變化。金正男也同樣認為金正恩不會實施改革開放，而且金正恩身邊的重要人物以前都跟隨金正日，真正大權掌握在他們手中。
- 五味洋治說：「朝鮮發射『衛星』失敗，他們會感覺沒有面子，而且一直對外宣稱為了紀念金日成誕辰一百週年，也是金正恩執政以來第一次大動作，對他及這個國家意義非凡。東北亞局勢近期也不會有明顯的變化，中國、韓國、日本依舊同先前的立場一樣，會比發射之前更關注朝鮮，朝鮮是個不聽話的國家，今後他們再有什麼動作，周邊國家會馬上採取對話。

**붙임 6. 中 인민일보 사천성 지역 보도 원문 (4.24)**

中 인민일보 사천성 지역 신문 홈페이지

“朝鮮的命运 并不取决于自己”

- 朝鮮问题说到底就是美朝关系问题。对美国而言，美朝之间改善关系的努力已经停滞了好些年，其间双方的疑虑仍在逐步加深。年轻的金正恩上台先是给美朝关系的改善提供了一个契机，同意用停止核试验换取粮食援助，但随后就用发射卫星给了美国一记重拳。再一次被朝鮮算计的美国，快速做出强烈回应。无论“人道”与否，食物援助都不现实了，进一步的各种制裁也会接踵而至。基于美国大选的考虑，奥巴马是绝不能让自己外交政策的弱点让共和党对手察觉的。这让原本就扑朔迷离的美朝关系，又增添了大量的未知数，美朝关系依旧只会在原点徘徊。
- 作为美国在东北亚的代言人，日本对于这次的朝鮮发射卫星一事，叫嚷的很厉害，几乎是举国动员、最高警戒，自始至终态度强硬。近年来日本不断以朝鮮核试验、试射导弹、卫星为借口壮大自己的军事实力，加入美国的战区导弹防御系统。可以说，几乎每次朝鮮半岛出现危机，最受益的都是日本。这是需要警惕的，因为日本提升国际影响力、追求军事强国的诉求日趋强烈，对朝鮮半岛的稳定并不会带来多大益处，甚至还可能让局势变得更加复杂。

中 인민일보 사천성 지역 신문 홈페이지

- 而对于韩国来说,这次发射无疑是对趋于右倾强硬的李明博当局一个最高警告。这一事件前后,韩国当局的反应可谓“硬不起来、软不下去”,无所应对肯定会激起国内民愤和盟友不满。距离三八线只有40公里的首尔,是朝鲜可以随意劫持的人质。反应太大害怕激起朝鲜更大动作,自己会直接受害,实在苦不堪言。此番过后,想必李明博会重新检讨并调整其对朝政策。
- 冰冻三尺,非一日之寒。朝鲜的命运,从根本上并不取决于自己。朝鲜半岛问题涉及各大国的核心利益,牵动国际社会的敏感神经,处理起来需要耐心,不可能一蹴而就。但不论局势如何变化,不论各方如何剑拔弩张,最终还是应回到谈判桌上来。朝鲜半岛的这次危机算是告一段落了,但迎来“金正恩时代的朝鲜半岛,其未来局势的走向依旧扑朔迷离,也许新一轮的较量才刚刚又拉开帷幕。

**붙임 7. 러시아 로스발트 보도 원문 (4.23)**

로스발트 뉴스포털사 홈페이지

“КНДР готовит ядерный аргумент”

- "Вряд ли дело дойдет до прямых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актов в Сеуле",- отметил в беседе с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Росбалта"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Кореи и Монголии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Александр Воронцов. "Скорее всего, дело ограничится воинственной риторикой",- считает эксперт.
- В принципе, ничего нового в развитии ситуации нет. Официальный Пхеньян может сделать очередное заявление. Может быть организовано передвиж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армейских частей в направлении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 "Если бы в Сеуле или в Вашингтон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читали, что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КНДР- это бумажный тигр, уже давно нашли бы повод и возможность наслать на эту страну какую-нибудь "бурю в пустыне".
- Однако этого не происходит. Очевидно, что с Пхеньяном нужно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Только теперь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затруднен еще больше. Кстати, винить в этом только официальный Пхеньян было бы ошибкой. К сожалению, Южная Корея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также сделала много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конфронтации с Севером.



## 붙임 8. 러시아 비엔노예 아바즈레니예 보도 원문 (4.21)

비엔노예 아바즈레니예 군사전문 포털 홈페이지

“Ким Чен Ын - новая загадк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й сравнительно молодой возраст, сын Ким Чен Ира уже является вполне состоявшимся и опытным политиком.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таковым он стал еще в 2007 году, что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сообщения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адио. Есть опыт у Ким Чен Ына и в обл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тец предоставил своему сыну прекрас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изучить внутреннюю структуру государства, поэтому ждать от нового лидера опрометчивых и легкомысленных решений не приходится. Это человек со сложившимися взглядами, имеющий яс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направлениях развития своей страны.
- Следует заметить, что Ким Чен Ын удачно использует накопившееся разочарование народа в период правления отца и авторитет деда, на которого похож внешн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кончавшийся Ким Чен Ир был и способнее и дальновиднее своего предка, население ассоциирует годы его пребывания у власти с двадцатилетним хаосом и беспорядком. Правление же основателя династии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современным жителя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ериодом стабильности.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일본어권

#### ○ 北 북동부 지역에서도 아사자 속출(4.25 도쿄신문)

- 북한의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에서도 김정일이 사망한 작년 12월 이후 아사자가 속출함.
- 100일간의 애도기간 중 경제활동이 중단된 것과 함께 국경이 봉쇄돼 중국으로부터의 식량밀수가 끊어진 점이 아사자 급증의 원인이 됨.
- 과거 국경경비대는 뇌물을 받고 밀수를 묵인했지만, 3월 말 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통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암시장도 물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함.
- 2009년 디노미네이션 단행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돼 가난한 주민은 살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시장과 역전을 배회하는 꽃제비도 늘어남.
- 최근 회령시에서는 '김정은을 타도하자.'는 낙서가 주택가 담벼락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아사자가 속출하는 참상을 규탄했을 가능성도 있음.

#### ○ 북한 주민, 강제 헌납에 불만 발생(4.24 아시아프레스)

- 4.25일 인민군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북한정부가 인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강요하고 있음.
-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한 여성은,
  - '4.25일에 맞춰 정부에서 세면도구, 노트, 돼지고기 등을 헌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동맹 등의 조직에서는 식사를 만들어 軍에 바치도록 명령해 준비를 하고 있다.'
  - '하루종일 시장에서 장사를 해 쌀 1kg이라도 벌면 다행이다. 4.15가 지나도 힘든 생활에는 변화가 없다.'

2012.4.25(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4.25는 군대를 지원하는 날이니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친한 사람끼리는 4.15 특별배급도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4.25는 오죽하겠느냐 라고 얘기한다.'라고 언급
  - 정부의 '헌납명령'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며, 회령시는 4.17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기 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이 북한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선전해온 강성대국의 실현이 말만으로 끝난 것도 있어 현지에서는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음.
- 젠바 외상, 북한의 특별행동 견제(4.24 지지통신)

- 「젠바 외상」,
  - '북한은 UN안보리 의장성명을 진중히 받아들여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韓·美와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발언

## □ 영어권

- 美 하원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서한 발송  
(4.24 Stillwater Patch ☞ 미네소타주 스틸워터시 지역 인터넷 언론사)
- 「미셸 바크먼」(美 미네소타주 하원의원)이 최근 클린턴 美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최근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시도는 미국이 이러한 도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거라는 메시지를 보낼 기회와 의무를 부여한다.'
    - '로켓 발사 실패로 인해 북한 지도부는 핵실험이나 군사 도발 등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압박을 받을 것이므로 행정부가 가능한 빨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여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한다.'

2012.4.25(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08.10월,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된 후, 북한은 국제사회에 평화롭게 재편입하려는 국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후 천안함 폭침, 황장엽 암살 시도, 하마스 와 헤즈볼라에 로켓 및 로켓추진식 수류탄(일명, 투척기) 제공 시도, 연평도 폭격, 이란과 무기 프로그램에 협력했고, 지정 해제 직전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 나아가 김정은은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없다.'
-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공포하는 것은 현 행정부의 손에 달렸다.'라고 언급

○ 美, 북한과 관계 정상화 모색해야 한다.(4.23 National Interest ㉮ 시사지)

- 「테드 켈런 카펜터」(美 CATO 연구소 국방.외교정책 선임연구원),

- '행정부의 현 전략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고 두 핵국가와의 끈적한 적대관계를 보장할 것이므로 관계 정상화로 전향해야 한다.'
- '북한 비핵화의 불가능한 꿈을 추구하는 대신, 핵무기 실전 배치를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인도와 파키스탄도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했으며, 북한의 경우 이러한 암묵적 합의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다.'
- '절제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평화조약 체결 의향 표명, △대사관 및 영사관 설치 포함 북한과 수교, △미국 및 UN 대북 경제 제재 폐지를 지지해야 한다.'
- '현상유지론자들은 미국이 얻는 것 없이 주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현 정책이 앞으로도 통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잃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 '대사관 및 영사관 설치하는 미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에 전례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12.4.25(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현재 미국은 한국·중국·러시아·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많은 경우 이러한 정보의 신뢰도도 불확실하고 이들 국가는 미국과 상이한 의도를 갖고 있다.'
- '또한 양국 간 통상 개방의 가능성도 생기면 미국 기업과 미국인들에 대한 노출 및 관계를 통해 개혁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

## □ 중국어권

○ 北의 핵실험 첫째 목표는 對南 위협이다.(4.24 홍콩 봉황위성TV)

- 「허량량」(봉황위성TV 시사평론가),

- '북의 위성 발사 실패는 일종의 전략적 속임수이며, 처음부터 위성을 발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 '그러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은 매우 크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한국 정부를 겨냥한다고 할 수 있다.'
- '또 다른 목적은 미국과의 대등한 입장을 가지기 위함이다.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 '1,2차 핵실험을 통해 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미국은 개의치 않을 것이다.'
-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으며, 미국이 이로 인해 북한과 대등한 입장을 가지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 '중국 또한 동북아와 한반도의 긴장 분위기를 조성을 원치 않으므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
- '그러나 이런 긴장 분위기는 회복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핵무기가 아닌 평화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향후 정세와 중국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

□ 러시아어권

○ 러시아 부총리, 핵 보유국 확대 가능성 큰 문제로 인식한다.

(4.24 리아 노보스티)

- 「드미트리 로고진」(부총리),

- '북한이 로켓과 같은 일종의 대량파괴무기 운송수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정거리를 늘리려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이웃국가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국가가 핵보유국이 되려는 것을 특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 로켓이 궤도를 벗어날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 '러시아와 역사·전통적인 관계를 가진 북한이 이웃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라고 언급

○ 러시아 국방부, 최초로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 가능성 인정했다.

(4.24 리아 노보스티)

- 「니콜라이 마카로프」(러시아군 총참모장),

- '위협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많은 국가의 핵 개발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미국과 함께 진행한 분석 결과 북한과 이란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위협 가능성이 있었고, 이 때문에 MD 구축에 합의했다.'
-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지 않은 많은 국가들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언급

○ 러시아 외무부, 한반도 정세 예의주시하고 있다.(4.24 골로스 러시아)

-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신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6자회담 모든 참여국들의 지속적인 실무접촉을 지지함.
- 상황을 위기로 몰아서는 안 되며, 현재 중요한 것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며, 단기적으로 6자회담 복귀가 우선임.

○ 러 총참모장 발언, 파트너국으로써 부적절하다.(4.24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 「이고리 코로트첸코」(국방부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소형화시켜 로켓에 탄두로 장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 ‘총참모장의 발언은 향후 언젠가 있을지 모를, 어떠한 이론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빅토르 바라네츠」(군사 평론가),
  -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단 한 번도 이러한 개발이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일종의 게임의 법칙이다.’
  -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 운반수단이 있다고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가 위협이 된다는 참모총장의 발언은 파트너국으로써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

## 붙임 1. 일본 도쿄신문 보도 원문 (4.25)

도쿄신문 홈페이지

### “餓死 北東部でも続出 北朝鮮 ”

- 【ソウル=辻渕智之】南西部の黄海南道（ファンヘナムド）で餓死者が二万人に達したとの情報がある北朝鮮で、北東部の咸鏡北道（ハムギョンプクト）、咸鏡南道（ハムギョンナムド）、両江道（リャンガンド）でも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が死去した昨年十二月以降、餓死者が続出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韓国の脱北者団体「NK知識人連帯」が複数の現地関係者との電話で確認した。
- 北朝鮮は故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生誕百年を迎えた今月、多彩な国家行事を催し、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も強行。国威発揚を狙った祝賀行事の陰で、各地の地方住民が飢えに苦しむ現状が明らかになった。
- 北東部の三つの道は、中国との国境に近い地域。同団体によると、総書記死去から百日間の哀悼期間中、経済活動が中断。同時に国境が封鎖され、中国からの食糧密輸が断たれたことが餓死者急増の原因とされる。 国境封鎖は当局が脱北阻止を狙ったもの。従来、国境警備隊は賄賂で密輸を黙認していたが、三月下旬の哀悼期間終了後も統制は続いている。
- また闇市場も量不足で価格は高騰。北朝鮮では二〇〇九年十一月のデノミネーション（通貨呼称単位の変更）断行以降、貧富の格差が拡大、貧しい住民には買えない水準になっている。市場や駅前などをさまよう放浪者も増えているという。
- 北朝鮮では一九九〇年代後半に深刻な食糧難が起きた。全国で数十万～百万人以上が餓死したとされ、「苦難の行軍」時代と呼ばれる。同国の食糧は五～七月に底をつくため、同団体は「今後一、二カ月が厳しく、苦難の行軍の初期に近い状況」と懸念する。
- 咸鏡北道の会寧（フェリョン）では最近、「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第一書記）を打倒しよう」と新体制を非難する落書きが住宅街の塀で見つかった。餓死者が出る惨状を糾弾した可能性もあるという。



## 붙임 2. 일본 아시아프레스 보도 원문 (4.24)

### 아시아프레스 홈페이지

“<北朝鮮>新たな供出強制にうんざり 北朝鮮住民語る ”

- 25日の朝鮮人民軍創建記念日を控え、北朝鮮政府が人民に新たな負担を強いている実態が明らかになった。23日、北朝鮮国内の取材協力者が電話で伝えた。
- 咸鏡北道会寧（フェリョン）市に住む、北朝鮮内部情報を伝える雑誌「リムジンガン」の協力者のこの女性は「（25日の人民軍創建記念日に合わせ）国では洗面道具、ノート、豚肉などを出すよう住民に要求しています。また、女性同盟（主婦の組織）などの組織では、食事を作って軍に納めるよう言われており、準備をしています」と現地の状況を語った。
- こうした政府の「供出命令」に対し、住民の反応は冷淡だという。
- 「一日中、市場で商売をして、コメ一キロ分でも稼げれば良い方です。4・15（4月15日。故金日成主席の生誕100周年記念日）が過ぎても苦しい生活は何も変わっておらず、大変です。それでも4・25（4月25日）は軍隊を支援する日だから、しょうがないと割り切っていますが…。親しい人同士では、『4・15の特別配給でさえ満足に貰えなかったんだ、4・25に我々が期待することなんて何も無い』と言っていますよ」と女性は語った。
- 会寧市のこの女性が住む地域では、17日を最後に、現在まで電気の供給が全く無い状態が続いているという。このように、政府がここ数年宣伝してきた「強盛大国」の実現が肩透かしに終わったこともあり、現地では失望が広がっていると、この女性は強調した。

## 붙임 3.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4.24)

### 지지통신 홈페이지

“北朝鮮は議長声明順守を = 玄葉外相”

- 玄葉光一郎外相は24日午前の記者会見で、北朝鮮が金正恩労働党第1書記への侮辱に反発して韓国に「聖戦」を警告したことについて、「北朝鮮が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議長声明を重く受け止め、具体的に行動することが大事だ」と述べ、さらなる挑発行為を容認しないとする議長声

지지통신 홈페이지

明を順守するよう求めた。政府の対応に関しては「米国や韓国と緊密に連携を取りながら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

## 붙임 4. Stillwater Patch 원문 (4.24)

Stillwater Patch 홈페이지

"Michele Bachmann Requests that North Korea be 'Relis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 o Dear Secretary Clinton: The recent attempt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to launch an Unha-3 rocket into orbit presents an opportunity and obligation for the United States to make a statement that it will not tolerate such provocative actions.
- o The failure of the North Korea rocket launch will put pressure on their leadership to take even more aggressive action, such as testing a nuclear weapon or another military attack. For this reason, I urge the administration to send a messa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relis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s soon as possible.
- o Currently, the State Department has designated four countries as state sponsors of terrorism: Syria, Cuba, Sudan, and Iran, with North Korea being delisted in October 2008. Since that time, it seems that North Korea has done little to earn the distinction of a country that intends to peacefully reintegrate itself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o Since being delis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North Korea sunk the South Korean Patrol ship Cheonan killing 46 sailors, attempted to assassinate high-level defector Hwang Jang-Yop who was residing in South Korea, attempted to provide Hamas and Hezbollah with rockets and rocket propelled grenades, fired artillery rounds at the South Korean island of Yeonpyeong killing two Marines and two civilians, and collaborated with Iran on weapons programs.
- o In addition, just prior to being delisted, North Korea assisted Syria in building a nuclear reactor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 Furthermore, it seems that Kim Jong Un, the newly

Stillwater Patch 홈페이지

bestowed leader of North Korea, has no intention of working with the United States.

- o On Friday April 13, 2012, the Obama administration compared it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with that of the Bush administrations. White House spokesman Ben Rhodes said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for instance, there was a substantial amount of assistance provided to North Korea. North Korea was removed from the terrorism list, even as they continued to engage in provocative actions." However, it is now in your hands to condemn this action, fix a previous administration's mistake, and declare North Korea in no uncertain terms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붙임 5. National Interest 원문 (4.23)**

National Interest 홈페이지

"An Agenda for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 o The current strategy is unlikely to prevent either country from eventually having a nuclear capability, while guaranteeing that Washington will have a horrifically hostile relationship with two new, prickly nuclear-weapons powers. The Obama administration needs to drastically alter that strategy, moving to normalize relations with Tehran and Pyongyang.
- o Instead of pursuing the chimera of Pyongyang's return to nuclear virginity, Washington should focus on getting the Kim regime to stop short of actually deploying an arsenal. That status of "one screwdriver turn away" from being a full-fledged nuclear-weapons power was the de facto policy of both India and Pakistan from at least the mid-1970s to the mid-1990s. It's hardly ideal, and—as in the case of those two countries—the implicit bargain can break down, but it's probably the best we can hope for from North Korea.
- o In exchange for that restraint, the United States should offer the following carrots: —Express a willingness to sign a peace treaty formally ending the armed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Agree to establish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embassies and consulates in both countries—Agree to

National Interest 홈페이지

rescind most of the current U.S. economic sanctions directed against Pyongyang and to support the repeal of UN resolutions authorizing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 o Advocates of the status quo will inevitably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be making major concessions while getting very little in return. But it is evident that the current policy has not worked in the past, is not working now and has little prospect of working in the future. Given that sobering reality, we would not be giving up much at all.
- o Moreover, there are some potential benefits to the United States that, while subtle, are very real. For example, the establishment of an embassy in Pyongyang and consulates in two or three other locations would give U.S. intelligence agencies unprecedented opportunities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ultrasecretive country. Currently, Washington must rely heavily (if not totally)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outh Korean, Chinese, Russian and Japanese governments. The reliability of such data is frequently uncertain, and those countries all have their own agendas, which, although they may overlap with America's, are hardly congruent.
- o Getting a better view of North Korea would also be a benefit to opening bilateral commercial ties. One should not overstate the potential, since North Korea produces few products that American consumers desire, and the DPRK is hardly the most appealing investment arena for American businesses. But even limited exposure to U.S. firms and Americans routinely traveling to North Korea and interacting with North Koreans can help create low-key incentives for reform.

**붙임 6. 홍콩 봉황위성TV 원문 (4.24)**

봉황위성TV 홈페이지

“何亮亮：朝鲜若再核试 首要目标是对韩示威”

- o 何亮亮：这当然是一个方面了，我们看到朝鲜发射卫星失败，虽然也有人说卫星发射是一个战略欺骗，可能他根本就没有发射卫星，但是第三次核试验可能性还是相当大的。我们知道朝鲜发射举行核试验通常他有多方面的目的，但是以当前的这个时间点来说，我觉得跟平壤日内对首尔政府。
- o 另一个方面从根本上来说，朝鲜开发核武器，还是为了要跟美国平起平坐，他希望美国能够承认朝鲜作为一个核国家的地位，能够实现朝美关系的正常化，但是从朝鲜历次的行动来看，第一次、第二次的核试验都没有能够达成这样的效果，第三次核试验可以肯定，美国对他不会加于理睬的。

동향위성TV 홈페이지

- 朝鲜的核武器对于美国没有多大的威胁的作用, 美国也不会因此说我现在要跟你平起平坐, 而且中国也是明确反对朝鲜核试验的, 因此未来朝鲜如果举行进行核试验的话, 可能会肯定使东北亚的局势、朝鲜半岛的局势会出现新一轮的紧张, 但是我相信最后这样的紧张局势还是会恢复平静, 所有的问题特别是不能够用核武器, 而必须用和平谈判来解决的这些问题朝鲜半岛的非核化的问题, 朝鲜还是要面对这些问题, 所以未来这个局势到底怎么发展, 包括中国方面会采取什么样的对策, 我想都值得关注的。

**붙임 7.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4.24]**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Рогозин назвал "большой проблемой" возможное расширение ядерного клуба"

- "Если страна пытается создать оружие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она будет параллельно создавать средств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то есть оружие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ничего не стоит, если его нечем забросить на территорию противника", - сказал Рогозин журналистам. "не являются большим секретом попытк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увеличить дальность и точность ракетного вид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у России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нет иллюзий".
- Вице-премьер констатировал, что "расширение клуба ядерных держав, особенно за счет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пока не сформулировали всем остальным своим соседям и партнерам ощущение уверенности в том, что с ними можно иметь дело..., вот это расширение этого круга для нас представляет большую проблему".
-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ы сказали, что в случае отклонения этой ракеты от зада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она будет уничтожена россий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 объяснил Рогозин.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 том, как прошедший пуск может отразиться на отношениях России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Рогозин отметил, что "у нас никаких иллюзий по поводу этого партнера нет, мы, конечно, очень бы хотели, чтобы КНДР жила как страна дружелюбна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воему окружению, чтобы мы могли торговать с этой страной, у нас есть большие связи исторические и родовые".

## 붙임 8.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4.24)

###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Генштаб РФ впервые признал ядерную угрозу со стороны Ирана и КНДР”

- “Угроза всегда существует, поэтому мы внимательно отслеживаем развитие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многих государств... И тот анализ, который мы проводили вместе с американцами,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да, такая вероятность есть, угроза существует, и с тем, что создать противоракетную оборону необходимо, мы согласились”, - 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Генштаб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Ф генерал армии Николай Макаров в интервью телеканалу **Russia Today**.
- По словам Макарова, в Генштабе знают о том, что “многие страны, не заявляющие о налич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а самом деле его имеют”.

## 붙임 9. 러시아 콜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4.24)

### 콜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МИД РФ следит за ситуацие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Мы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м за тем, как развивается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н является нашей околицей, и поэтому обстановка та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затрагивает интере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 заявил источник в российско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ведомстве, комментируя сообщения о завершении подготовки Пхеньяна к проведению третьего ядерного испытания.
- Дипломат отметил, что МИД РФ “поддерживает постоянные рабочие контакты по ситуации на полуострове со всеми участниками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РФ, США, КНР, Япония и две Кореи - "ИФ")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НДР”.
- “Мы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нельзя допустить скатывания ситуации в кризисное русл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ажно вернуться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рельсы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 возобновлению в кратк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шестистороннего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 подчеркнул дипломат.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美 국방장관, 北 핵실험 중단 촉구(4.25 The Hill)

- 「리언 패네타」(美 국방장관),

- 「(북한은) 핵실험이든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다른 행위이든 그 어떠한 도발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국과 국제 사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위협한 도발로 간주할 것이다」
- 「북한과 우라늄 농축 시설 동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핵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바람이었지만 불행히도 북한은 다시 도발을하기로 결정했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 「토미 비에터」(美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대변인),

- 「위협적 발언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며, 북한 주민들의 필요사항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북한 사람들을 위한 번영과 안보의 길이다」라고 언급

#### ○ 美 국방부, 美 본토는 北의 미사일 공격에 안전하다.

(4.25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 「브래들리 로버츠」(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청문회前 다음과 같이 서면답변
- 「미국 본토는 현재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이고 제한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2012.4.26(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는 지난 10년간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방어체제(GMD) 개발과 배치의 꾸준한 진전에 따른 것이다.'
- 'GMD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조기경보 레이다·해상 배치 레이다 시스템·정교한 지휘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현재 30기의 GBI를 갖추고 있어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 '북한과 이란은 현재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를 활발히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은 최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으며, 양국 모두 ICBM이나 ICBM에 탑재 가능한 탄두를 개발하지는 못했다.'
-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해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GBI의 성능을 향상하고 새로운 탐지기를 배치하는 등 GMD를 계속 개선시켜야 한다.'
- '정밀추적우주시스템(PTSS)과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SM-3 블럭 2B(Block IIB)의 실전 배치도 이란과 북한의 ICBM 위협에 대응하는데 필요하다.'
- '미국은 향후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사일 위협과 방어 등 역내 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일본 및 일본·호주와 3자 협력 대화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 'SM-3블럭 2B와 PTSS은 2013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됐으며, 이 프로그램은 북한과 이란의 장기적인 위협에 대응하는데 중요하다'고 답변

## □ 중국어권

○ 美, 北에 신형 미사일 수송차량 기술 간접 제공(4.25 중국신문망)

- 홍콩 「아시아타임즈」, '미국제 디젤 엔진과 독일제 자동운전 시스템이 4.15일 북한 열병식에서 선보인 탄도발사장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 있다'고 보도



2012.4.26(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로써 평양의 핵무기 개발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저지 유효성에 의심이 일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연구제조 기술 제공을 비난하고 있지만, 미국 또한 이동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해 북한을 직·간접적 도왔다는 것에 대해 비난받고 있음.
  - 「미치시타 나루시게」(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미국은 이번 일을 빌미로 중국에 더욱 압력을 가하는 듯 했지만 현재로선 곤란해졌다.'라고 언급
  -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중요한 동맹국으로 어떠한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음.
- 中, 북한 대표단 환대로 김정은 訪中 추측 유발(4.24 홍콩 봉황위성TV)
- 4.23일, 북한 노동당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관리들과 회동을 가짐.
  - 이는 김정은이 정식으로 북한 권력의 우두머리가 된 후 이뤄진 방문으로 김정은 訪中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음.
  - 왜냐하면 관례상 中·北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은 黨에서 추진하기 때문임.
  - 현재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訪中과 중국 최고위층과 회담을 가질 수 있는 신분을 갖추게 되었음.
  - 김영일과 후진타오 주석의 회담 연설 원고를 보면 공식적인 회담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김영일이 중국 최고층에 북한 최고층 관련 소식 전달 여부에 대해 외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그 내용은 아마도 김영일이 북한 최고층의 특사로서 북한 지도자의 訪中관련일 것으로 추측됨.

2012.4.26(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관영언론 신화사는 이번 뉴스에서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中·北관계의 미래와 지역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언급
- 김정일 사망 후 黨·政·軍의 최고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과 중국 관계의 서막이 이로써 시작될 것으로 보임.

○ 北의 세 가지 문제가 한반도에서의 중국 지위 어렵게 만든다.

(4.24 홍콩 봉황위성TV)

- 「양시위」(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 '올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 △또 다른 위성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은 중국을 힘들게 할 것이다.'
  - '북한측의 주장은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면, 인도처럼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 '하나 혹은 위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지위는 피동적이 될 것이다.'
  - '중국은 경제 개발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원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주변 정세는 더욱 요동칠 것이다.'
  - '그러나 중국은 전략적 대국으로 몇 가지 사건으로 전체적인 지위 변화는 없을 것이고 이에 급하게 전략을 취할 필요는 없다.'
  - '한반도 정세의 핵심 열쇠는 미국과 북한이 쥐고 있고, 중국의 역할은 양측이 서로 이 열쇠를 내어 놓고 모두가 기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그러나 이 열쇠를 내어 놓지 않는다면 중국이 손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남·북한과 미국의 손해가 제일 크다.'
  - '그러므로 중국은 정세급변을 막도록 각측의 자제를 촉구하며, 중국보다는 다른 관련국들의 損益이 클 것이기에 가장 여유롭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

## □ 일본어권

### ○ 북한의 새로운 군사행동 징후 포착됨. (4.25 TBS뉴스)

- 이번주 연평도 포격의 거점이 된 북한의 발사기지 부근에 미사일 발사대가 집결되는 등 군사적 행동이 포착됨.
- 이번주 초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항상 배치되어 있는 지대함 미사일 외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운반 및 발사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대가 다수 설치된 모습이 확인됨.
- 일본 정부는 직접 한국 영토로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나, 북한이 예고한 특별행동과의 연관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음.

### ○ 加 군사전문지, 중국 기업이 발사대 차량을 北에 인도(4.26 NHK)

- 캐나다에서 발간되는 중국 군사전문지 칸와 디펜스 리뷰(漢和防務評論)전자판은 4.25일 '후베이산장항천만산 특종차량(湖北三江航天万山特種車輛)이라는 중국 기업이 2008년에 북한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작년에 8대를 넘겨줬다.'고 보도
- 「핑커푸」(칸와 디펜스 리뷰 편집장),
  - '차량은 민생용으로 인도됐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북한이 군사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
- 차량에는 중국이 수입한 미국제 디젤 엔진과 독일제 기어장치가 사용됨.

### ○ 중국 국무원, 中·北 국경지역 경제구 개발 승인(4.25 닛케이)

- 중국 국무원은 4.25일 두만강 지역 훈춘시 경제구 개발을 승인했다고 발표(승인문서 기재일 : 4.13일)
- 2015년까지 인프라를 정비해 中·北·러에 일본, 한국, 몽골을 더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거점을 지향함.
- 이 시기에 북한도 대상에 포함시킨 경제개발 승인을 공표한 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핵실험에 나설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2012.4.26(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승인된 '두만강지역(훈춘) 국제협력 모델구'는 넓이가 약 90km<sup>2</sup>이며, '국제산업협력 / 국경무역협력 / 中·北 경제협력 / 中·러 경제협력'의 4개 블록으로 구성됨.
- 中·北경제협력구에서는 설비제조와 신소재, 유기식품 등의 산업을 비롯해 물류 등의 서비스업을 전개함.
- 동북아의 무역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자르비노항의 시설 확충도 지원함.

## □ 러시아어권

○ 러시아 국방부,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중이다.

(4.25 인테르팍스)

- 「아나톨리 세르듀코프」(국방부 장관),
  - '러시아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관련한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상황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언급

○ 남아시아의 군비경쟁 상황에서 북한은 가장 우려스러운 국가이다.

(4.26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 일간지)

- 「바체슬라프 벨로크레니츠키」(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연구소 부소장),
  - '남아시아에 군비경쟁이 계속되면서 러시아 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다. 핵폭탄은 꼭 사용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극단적인 상황 시 복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유하려 한다.'
  -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경우 공격의 수단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정치 시스템이 폐쇄적이라서 가장 우려스러운 국가'라고 주장

## 붙임 1. The Hill 보도 원문 (4.25)

The Hill 홈페이지

"Panetta warns North Korea to halt proposed nuclear tests"

- o Defense Secretary Leon Panetta issued a stern warning to North Korea not to proceed with a new round of nuclear weapons testing, saying such tests would accelerate the "dangerous cycle" of provocation set by Pyongyang.
- o "Our hope was that we were beyond that when we were discussing with the North Koreans steps to have them begin to close their enrichment facilities," Panetta told reporters in Brazil on Wednesday. "Unfortunately, they decided to engage again in provocation."
- o "Threatening rhetoric only reinforces North Korea's isolation and does nothing to address the needs of its people," Tommy Vietor, National Security Council spokesman said on Wednesday regarding Pyongyang's plans."
- o "The path towards prosperity and security for the North Korean people is for Pyongyang to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its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according to Vietor.
- o For his part, Panetta said he did not have any specific information as to whether the North Koreans would proceed with the new round of nuclear tests.
- o That said, any effort to further develop the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would be taken as a "dangerous provoca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ording to Panetta.
- o "I, again, would strongly urge them not to engage in any kind of provocation, be it nuclear testing or any other act that would provide greater instability in a dangerous part of the world," he said.

## 붙임 2 美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원문 (4.25)

美 상원 군사위원회 홈페이지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NUCLEAR AND  
MISSILE DEFENSE POLICY"

- o The homeland is currently protected against potential limit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attacks from states like North Korea and Iran. This is

美 상원 군사위원회 홈페이지

a result of the steady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in developing and deploying 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GMD) system. This system consists of Ground-Based Interceptors (GBIs), early-warning radars, sea-based radar systems, and a sophisticated command and control architecture. With 30 GBIs in place, the United States is in an advantageous position vis-a-vis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Iran. Although both countries have active programs to develop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and space-launch vehicles, most recently evidenced by North Korea's failed attempt to launch a Taepo Dong-2 missile, neither has successfully tested an ICBM or demonstrated an ICBM-class warhead.

- o Maintaining this advantageous position is essential. This requires continued improvement to the GMD system, including enhanced performance by the GBIs and the deployment of new sensors. It also requires the development of the Precision Tracking Space System (PTSS) to handle larger raid sizes and the Standard Missile 3 (SM-3) Block IIB as the ICBM threat from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matures. These efforts will help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possesses the capability to counter the projected threat for the foreseeable future.
- o The United States also continues to consult with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its future ballistic missile defense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engages in a trilateral dialogue with Japan and Australia, and separate trilateral dialogue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each, we address a wide range of regional security issues, including missile threats and defenses. These trilateral dialogues support U.S. efforts to deepen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nd strengthen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s.
- o The FY 2013 budget request also includes funding for the SM-3 IIB and Precision Tracking Space System (PTSS), two programs that faced congressional reductions in the previous budget that will cause delays in their deployment timelines. These programs are vital to addressing the long-term threats from regional actor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so slips in the program schedules due to budget reductions introduce additional risk.

**붙임 3. 중국 신문망 보도 원문 (4.25)**

중국 신문망 홈페이지

“媒体称美国间接为朝鲜新型导弹运输车提供技术 ”

- o 据香港亚洲时报在线报道, 美国制造的柴油发动机和德国制造的自动驾驶系统可能被用于朝鲜4月15日阅兵式展示的导弹发射装置中, 这引发了对国际社会遏制平

## 중국 신문망 홈페이지

壤核武器威胁的努力是否有效的猜测。

- 报道称, 尽管美国指责中国向朝鲜提供导弹研制技术, 但美国自己也因为朝鲜移动导弹技术提供直接或间接帮助而受到炮轰。日本政策研究大学院大学的道下德成说: “美国似乎在借机向北京进一步施压。但现在看起来似乎很困难了。”
- 另据路透社电, 白宫发言人杰伊·卡尼23日说, 美国已向中国提出了如下新指控: 一家中国公司向朝鲜出售了最近的阅兵式中被突出展示的一辆导弹运输车所使用的零部件。
- 中国是朝鲜的唯一重要盟友, 它否认自己违反了任何规定。

## 붙임 4. 홍콩 봉황위성TV 원문 [4.24]

### 봉황위성TV 홈페이지

“朝鲜代表团获中国超高规格接待 引发金正恩将访华猜测”

- 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胡锦涛23号, 在人民大会堂会见了由朝鲜劳动党中央政治局候补委员、中央书记、国际部部长金永日率领的朝鲜劳动党代表团。金永日访问期间, 除了国务委员戴秉国, 中共中央政治局委员、中央书记处书记、中组部部长李源潮分别会见之外, 和中共总书记、国家主席胡锦涛的见面, 属于高规格接待。
- 朝鲜劳动党代表团访问中国, 中国高规格接见。在金正恩正式登上朝鲜权力顶峰后劳动党访问中国, 是否为金正恩访华铺路, 从惯例看中朝两国领导人的互访, 都由党组织推进。金永日的北京行是否为金正恩访华铺路, 也成为外界观察点。如今金正恩, 朝鲜劳动党第一书记、朝鲜国防委员会第一委员长身分, 具备了访问中国和中国最高层会晤的对等身分。
- 从金永日和胡锦涛会谈时阅读讲稿的细节可以看出, 这是一次相当正式的会谈。而在北京方面超高规格的接见中, 外界观测, 金永日是否也向中国最高层带来了朝鲜最高层的信息。那么金永日就成为朝鲜最高层的特使, 而他传递的信息内容或许也有访华部份。虽然官方新华社的通稿没有提到朝鲜最近进行的火箭发射问题, 但中方也强调了中朝继承传统、面向未来、睦邻友好、加强合作的精神, 并有加强在重大国际和地区问题上的战略沟通和协调的提法。在金正日去世后, 集党政军最高权力大满贯于一身的金正恩, 和中国互动的序幕或将由此拉开。

## 붙임 5. 홍콩 봉황위성TV 원문 [4.25]

### 봉황위성TV 홈페이지

“杨希雨：朝鲜三件大事可使中国陷于被动”

- 我觉得中朝产生友好关系实际上经历了半个多世纪了，所以不管是金日成时代，还是金正日时代，还是现在开始的金正恩时代，所以中朝两国的友好关系一直存在着的。中国是本着维护朝鲜稳定从这个角度出发，跟朝鲜半岛南北双方都保持了友好的关系，我们现在跟韩国的关系也不错，跟朝鲜的关系也是友好关系，这样的话我们中国可以在维护朝鲜半岛稳定方面做一些协调，做一些沟通的工作来维护朝鲜半岛的稳定。
- 今年年内，朝鲜会不会举行第三次核试验，不是说两个星期之内，就是说今年有三件事情对于中国来说比较头疼的事情。一个就是朝鲜会不会举行新的核试验，就是所谓第三次核试验；再一个朝鲜会不会因为卫星发发射失败，在年内进行第二次卫星发射，再一个第三就是朝鲜会不会正式的宣布，进行弹道导弹试验。就是说他的逻辑就是你不让我发展卫星，那我干脆就学印度，我也来一个弹道导弹事件。
- 三件事情，发生任何一件，或者任何三件同时发生，这个都会使中国在半岛的地位陷入一个比较被动的局面，因为我们要求的是我们希望搞经济建设，希望周边和平稳定，半岛和平稳定，这三件事情，只要有任何一件事情出现，显然会极大的搅动这个局势，这个是问题的一个方面。但问题的另一个方面，就是说，中国毕竟是一个战略性大国，不会因为一件事、两件事，而整个的地位发生根本性的动摇，所以中国对这个事情应该讲，他采取的策略就是不急不躁，反正局势关键的钥匙是在美国和朝鲜的手里，中国的作用是要求美国和朝鲜把这个钥匙交出来，如果你们交了，大家都皆大欢喜，大家都能得到利益，但是如果交不出来，中国认为，中国的利益受损，但是实际上，朝鲜、美国乃至韩国的利益受损更大。所以从这个角度讲，中国一方面极力在推动有关各方保持克制，防止紧张局势升级，但是即便我们没有做到这一条，紧张局势升级了，我想中国在有关各方当中，也将是最从容了，因为其他各方在紧张局势当中受到的危害，利益的损失要比中国大的多。

## 붙임 6. 일본 TBS뉴스 보도 원문 [4.25]

### TBS뉴스 홈페이지

“北朝鮮に新たな軍事行動の兆候”

- 25日、朝鮮人民軍創建80周年の記念日を迎えた北朝鮮。かつてないほどに韓国イ・ミョンバク政権への対決姿勢を強めています。こうした中、今週に入ってから日本政府の分析で、おとしヨンピョン島を砲撃し



TBS뉴스 홈페이지

た北朝鮮の発射基地付近にミサイルランチャーの集結など、軍事的な動きがみられ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

- 拍手と歓声の中、入場するキム・ジョンウン第一書記。北朝鮮では25日、朝鮮人民軍が創建されてから80周年を祝う大会が開かれました。ジョンウン氏の発言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リ・ヨンホ総参謀長が韓国への非難を繰り返しました。
- 激しく韓国を非難する北朝鮮。新たな軍事行動が懸念される中、その兆候ともみられる動きがJNNの取材で明らかとなりました。動きがあったのは、おとしし11月、北朝鮮が韓国のヨンピョン島を砲撃した際の拠点となったケモリ海岸付近です。
- 複数の日本政府関係者によりますと、今週はじめに衛星写真などを分析したところ、通常配備されている地对艦ミサイルなどの他に中・短距離ミサイルを運搬・発射するためのミサイルランチャーが多数集められている様子が確認されたといいます。日本政府では、直接、韓国の領土に撃ちこむとは考えにくいと見ていますが、明らかに韓国の方角を意識して配備していることから、北朝鮮が通告している「特別行動」と関連する可能性もあるとみて、注意深く観察しています。
- 朝鮮半島の軍事情勢に詳しい専門家は、「砲撃があったら、海に向けてではないか」とした上で、こう指摘します。
- 北朝鮮の言う「特別行動」とは何を意味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未だ、その正体は見ていません。

**붙임 7. 일본 NHK 보도 원문 (4.26)**

NHK 홈페이지

“中国企業が8台の発射車両”報道

- 北朝鮮が軍事パレードで公開した弾道ミサイルの発射台を兼ねた車両について、中国の軍事動向を伝えるカナダの雑誌の電子版は「中国企業が去年、8台を引き渡した」と伝えました。
- 北朝鮮は今年15日の軍事パレードで大陸間弾道ミサイルとみられるものを公開し、これを運搬する発射台を兼ねた車両が中国の特殊車両と極めて似ていたことから、中国が開発を支援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が出ています。

NHK 홈페이지

- これについて、中国の軍事動向を伝えるカナダの雑誌「漢和防務評論」の電子版は25日、独自に確認した情報として、「『湖北三江航天万山特種車両』という中国企業が2008年に北朝鮮側から受注し、去年、8台を引き渡した」と伝えました。
- この企業は中国軍系の大手国有企業の子会社で、軍事用の特殊車両の製造を手がけています。
- この雑誌の平可夫編集長は「車両は民生用として引き渡された」としたうえで、「中国企業は、北朝鮮の軍事利用の意図を知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指摘しています。
- また、記事によりますと、この車両には中国が輸入したアメリカ製のディーゼルエンジンとドイツ製のギアボックスが使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 武器への転用が可能な物資を北朝鮮に提供することは国連安保理の決議で禁じられており、アメリカ政府は中国側に懸念を伝えています。

**붙임 8.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 원문 (4.25)**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中国、朝ロ国境地域の経済区開発を承認 ”

- 中国国務院（政府）は25日、中国、北朝鮮、ロシアが国境を接する地域を流れる図們江（北朝鮮名・豆満江）地域の琿春市（吉林省）での経済区の開発を承認したと発表した。2015年までにインフラを整備し、中朝口に日本、韓国、モンゴルを加えた北東アジア地域の経済・技術協力を促す拠点を目指す。
- 国務院が同日、同院のホームページ上に掲載した承認文書の日付は13日付だった。この時期に北朝鮮も対象に含む経済開発の承認を公表したことは、近く核実験に踏み切るのではないかとされる北朝鮮に自制を促す狙いもあるとみられる。
- 承認された「図們江地域（琿春）国際協力モデル区」は広さが約90平方キロメートル。「国際産業協力」「国境貿易協力」「中朝経済協力」「中ロ経済協力」の4つのブロックからなり、中朝経済協力区では設備製造や新素材、有機食品などの産業をはじめ、物流などのサービス業を展開する。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 鉄道や道路といった物流をはじめとするインフラを整備。北東アジアの貿易拡大を促すため日本海に面する北朝鮮の羅津港とロシアのザルビノ港の施設拡充も支援する。
- 中国は09年から東北部の振興を目的に、琿春市も含めた吉林省内の長春－吉林－図們を結んだ地域のインフラを整備する開発計画を進めている。

**붙임 9. 러시아 인테르팍스 보도 원문 (4.25)**

인테르팍스 통신사 홈페이지

“Минобороны РФ собирает и анализирует информацию 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 Российское военное ведомство отслеживает ситуацию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вязанную с подготовкой очередных испытаний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заявил в интервью агентству "Интерфакс-АВН"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Ф Анатолий Сердюков. При этом Сердюков добавил, что делать выводы пока преждевременно.

**붙임 10. 러시아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보도 원문 (4.26)**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Над Южной Азией нависла ядерная тень”

- В беседе с «НГ»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Вячеслав Белокреницкий отметил, что «гонка ракетных вооружений в Южной Азии продолжается и это, конечно, создает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фон как для Индии, Пакистана, их ближайших соседей, так и России, которая обязана просчитывать все риски для ее безопасности.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 «Атомная бомба- это не ружье, висящее на стене, которое обязательно выстрелит. Им хотят обладать как крайним средством возмездия, а н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Тем более что в Индии живет более 150 миллионов мусульман. Пакистанцы осознают: в атомной войне не погибли бы и их единоверцы».
- Существ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 обладающих ракетным и ядер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к югу от рубежей России 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это, конечно, тревожный момент. Но больше всего беспокойство вызывают действ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в силу закрытости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эт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заключил эксперт.

**붙임 10. 러시아 콤포몰스키야 프라우다 보도 원문 (4.24)**

콤포몰스키야 프라우다 일간지 홈페이지

- “Эксперт: России не следовало признавать налич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у Ирана и КНДР. Аналитики считают угрозой «сырой»”
-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 существует какой-либо угрозы со стороны Ирана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потому что Иран пока что не вышел даже 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стадию начала конкретных разработок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се, что говорил начальник Генштаба касается неких теорет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явиться через определ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времени. А что касаетс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на является обладателем ядерного взрыв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Н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и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это устройство до компактной боеголовки, до установки ее на одну из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перативно-тактических ракет, я думаю, что дан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оценивается, как маловероятная», - отметил Коротченко.
  - «Давай же обратим свои взоры на США и на Израиль. В Израиле тоже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но мы ни разу и нигде не слышали о том, чтобы США говорили, что со стороны Израиля исходит ядерная угроза. Потому что такие правила игры. Мы же себя показываем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епорядоч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Потому что еще нет стопроцентной гарантии того, что у Ирана и 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есть средства доставк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их ядерные заряды еще сырые», - подчеркнул он.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美 전문가, 北 핵실험 임박 주장(4.26 Bloomberg)

- 「데이빗 올브라이트」(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 / 前 무기 검사관),
  - ‘핵실험은 곧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김정은은 군심을 확보하고 엘리트층을 고무시키며, 한국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핵실험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 ‘핵실험이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 ‘미사일 발사 실패는 조롱거리가 됐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조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핵실험이다.’
  - ‘ISIS는 북한이 플루토늄 3kg의 핵무기 6~18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더 큰 폭발력의 무기설계를 만드는 것이 핵실험의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 ‘북한은 기존 폭탄보다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내기 위해 플루토늄 코어에 고농축우라늄을 둘러싸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다.’
- 「조지 로페즈」(前 유엔 대북제재 패널 전문가),
  - ‘이번 실험의 기술적 이유는 플루토늄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의 질과 폭발과정을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예측

#### ○ ‘北 신형 미사일은 가짜’에 대한 전문가들 견해(4.26 AP통신)

- 북한이 4.15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 6종이 가짜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북한 군사력에 대한 의문이 한층 증폭되고 있음.
- 액체연료와 고체연료가 뒤섞인 것으로 보이는 이 미사일들은 실제로 비행할 수 없으며, 미사일 피복이 불안정하게 흔들린 것도 금속이 얇아 비행을 견딜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2012.4.27(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미사일들은 똑같이 보이도록 제작됐지만 약간씩 상이하며, 미사일들을 실어 나른 발사대에도 맞지 않았음.

「마르쿠스 쉘러」, 「로베르트 슈무커」(독일 슈무커테크놀로지 분석가 / 나토 미사일 이슈 자문),

- ‘이 미사일들이 모형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북한이 이런 모형으로 해외 분석가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또는 단순히 일을 엉터리로 했는지 알 수 없다.’
- ‘모형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손에 넣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 ‘북한이 기능을 갖춘 ICBM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번 열병식은 걸만 요란했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에 진전이 없었음을 보여줬다.’

「데이비드 라이트」(미국 민간정책연구소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UCS]' 물리학자),

- ‘KN-08은 다소 영성하며, 개발 중에 있는 미사일로 보인다.’
- ‘북한이 모형 대신 실제 미사일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 ‘미사일 탑재차량은 과시용에 지나지 않는다. 미사일 공개로 국제적인 관심을 얻었다는 점에서 탑재차량 구매비용은 권력 유지에 유용하게 사용됐다고 할 수 있다.’

「테오도르 포스틀」(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 전 해군참모총장[CNO] 과학고문),

- ‘대포동 2호는 미래에 더 큰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KN-08는 연막일 뿐’이라고 언급
- ‘KN-08과 같은 미사일을 제작하는 것은 고도의 고유 기술을 필요로 한다. 초라한 경제의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곳에서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다’라고 주장

## □ 중국어권

○ 北, 서해발사장을 단동 근처로 한 것은 중국을 전쟁에 개입시키려는 계산이다.(4.26 홍콩 봉황위성TV)

- 칸와 디펜스 리뷰 최신회(캐나다에서 발간되는 중국 군사전문지 漢和防務評論), '북한이 이번 위성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중국과 매우 가까운 동창리로 한 것은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보도
- 이곳은 중국 국경과는 46km, 중국의 중요 도시 단동과는 불과 58km 떨어진 거리이며,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 뒤 제어되지 못한다면 19.8초 만에 중국에 떨어질 수 있기에 이는 안보 위협임.
- 북한이 이곳에 발사센터를 설립한 이유를 미국은 두 가지로 분석했음.
  - 첫째, 韓·美에 대한 경고로 오발 혹은 가까운 곳 발사時 중국이 위협받으므로 韓·美·日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
  - 둘째, 한반도에 전쟁 발발時, 전장을 中·北국경으로 옮겨 중국을 전쟁에 개입시킨 뒤, 中·北 동맹을 맺으려는 의도
- 최근, 한반도 주변의 정찰 레이더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북한이 1년 동안 발사하는 미사일이 몇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임.

○ 北, 전 세계 언론을 '책사'로 이용(4.27 환구시보)

- 「잔더빈」(상하이 대외무역학원 학자),
  -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발표한 뒤 세계 주요 언론들은 △ 발사 목적, △국내외 정세에 미치는 영향, △어떠한 카드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대응하느냐에 대해 많은 분석이 있었다.'
  - '이들 언론이 일부러 북한을 대신해 전략을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북한의 「책사」 역할을 했다.'

2012.4.27(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폐쇄된 북한의 정보 제한으로 인해 외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결정 과정도 알 수가 없다.'
-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북한의 이러한 제한사항은 오히려 각국 언론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에 김정일 사망·위성 발사 실패 등 새로운 뉴스거리가 나오면 바로 독점보도 및 헤드라인이 되었다.'
- '언론과 전문가들의 경쟁적 분석 및 보도는 객관적으로 북한 언론 정확도를 더욱 높이게 만들었다.'
- '중요도가 높지 않은 뉴스도 韓·美·日의 보도를 거친 뒤, 북한 입장이 더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
- '이번에 북한이 외신기자들을 광명성 3호 발사장과 열병식에 초청한 것도 이러한 언론의 전파력을 보고 기회를 이용한 것이며, 때로는 외부의 분석이 북한보다 더 세밀하고 다양하게 이뤄지기도 한다.'
- '안보리 제재 후 북한의 다음 카드와 시기, 국내·외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북한을 위해 전략을 만들어 준 것이다.'
- '손익분석·정확도는 북한 자체 정보기구보다 더 정확·유용했고, 실시간 제공된 무료 분석이며, 이는 북한이 한 푼 들이지 않고 세계 각지 언론과 전문가를 고용한 것과 같다.'
- '북한은 세계 언론의 호기심을 이용해 각국의 태도를 엿보고 정세향방을 예측하면서 전략을 조정하고 있고, 이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에 있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원인일 수도 있다'고 주장

o 中 정협 부주석 訪北(4.26 국제재선<sup>중</sup>중국 관영라디오방송국 운영 인터넷신문)

- 4.23~26일, 북한 전국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중국 「리우웨이」 정협 부주석이 이끄는 방문단 訪北해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 양측은 中·北 간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와 경제·인문 등 영역에서 양측 관계 발전, 中·北 미래협력을 위해 노력하자고 의견 교환



## □ 러시아어권

### ○ 북한, 변화하지 않는다면 주체체제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4.26 가제타 ☞ 일간지)

-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아왔고 국제사회는 매우 지쳐있는 상태임.
- 러시아 또한 과거의 자제심을 발휘 입장과는 달리, 최근 들어 공식성명에 흥분된 어조가 눈에 띈.
- 얼마 전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언과 관련, 사실상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평가가 지배적임.
- 하지만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핵무기 위협 확산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임.
- 북한은 국제합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해결되지 않는 한반도 문제로 인해 여타 국가에 비해 더 피해를 입고 있음.
-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 중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에너지 및 수송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를 원함.
- 상황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주체체제는 이제 영원하지 않을 것임. 한마디로 북한은 이제 보호받지 않는 새로운 차로 갈아탔다고 할 수 있음.

### ○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 인정은 러시아 대외정책 변화를 의미한다.

(4.26 812online ☞ 인터넷 일간지)

- 새 정부 출범과 관련, 최근 러시아 국내외 정책에 있어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약 2주 후 등장할 푸틴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방향은 서방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될 것임.
- 실례로 이제까지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와 이의 운송수단을 생산할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핵 위협을 부인해왔음.

2012.4.27(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하지만 엇그제 갑작스럽게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 가능성을 인정함.
- 이는 러시아가 서방과 미국의 현 군사 독트린을 인정할 의향을 알리는 신호탄임.
-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러·美 관계 개선에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MD구축에 대한 입장도 바뀔 것임.

## □ 일본어권

### ○ 北 조선국립교향악단 미국 공연,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연기

(4.27 교도통신)

-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는 4.26일,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공연 시기를 여름 이후로 연기했다고 발표
- 로버트 스프링스 GRS대표는 5월경으로 계획한 공연시기에 대해 '7월부터 9월사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라고 말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음.
- GRS는 김일성생일 100주년인 4.15일에 맞춰 미국 남성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총 150명을 북한에 파견해 두 차례 공연을 개최한 바 있음.

### ○ 北 핵실험 실행할 것이다. (4.27 후지TV)

- 「박한식」(미국 조지아대학 석좌교수),
  - '김정은의 연설은 매우 자연스러웠으며, 단어 선택에 설득력이 있었다. 북한이 세계의 주목을 모으려 한다면 핵실험을 실행할 것이다.'
  -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 목적이기 보다 김일성생일 100주년에 맞춘 사상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더라도 중단할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언급

## 붙임 1. Bloomberg 보도 원문 (4.26)

Bloomberg 홈페이지

"Korea's Kim Poised to Rattle Region With Nuclear Blast"

- o "It could happen any day now," said Albright,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 Washington. A nuclear test would make Kim "look more powerful and successful," Albright said. "He needs this to keep the military feeling secure and the elites energized, and it certainly scares the South Koreans. North Korea knows that well."
- o The regime risks a double failure if a nuclear test is unsuccessful. That prospect isn't necessarily daunting, Albright said. "They can still say, 'Look, we're on the path to thermo- nuclear weapons,'" he said.
- o With the failed missile test, "people made fun of them, the military gets angry and starts to feel people don't fear North Korea," he said. "One way to deal with that is a nuclear test."
- o Albright's organization estimates North Korea has six to 18 nuclear weapons with about three kilograms of plutonium in each. Efforts to create bomb designs with greater potential impact would be a factor for conducting a test.
- o The Pyongyang government has hinted at efforts to develop a thermo-nuclear device and may also be working on a device that wraps highly enriched uranium around a plutonium core to generate a much higher yield than its existing bombs, said Albright, a physicist and former weapons inspector.
- o George Lopez, a former member of the UN panel of experts for enforcing sanctions on North Korea, said he believes the North Koreans are planning a uranium test. "Technically, I'm betting that this test will be a uranium test, not a plutonium test," he said today. The technical reason to conduct the test would be to evaluate uranium enrichment quality and the detonation process, he said.

## 붙임 2. 美 AP통신 보도 원문 (4.26)

### 美 AP통신 홈페이지

"Analysts: North Korea's new missiles are fakes"

- o Analysts who have studied photos of a half-dozen ominous new North Korean missiles showcased recently at a lavish military parade say they were fakes, and not very convincing ones, casting further doubt on the country's claims of military prowess.
- o But the weapons displayed April 15 appear to be a mishmash of liquid-fuel and solid-fuel components that could never fly together. Undulating casings on the missiles suggest the metal is too thin to withstand flight. Each missile wa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others, even though all were supposedly the same make. They don't even fit the launchers they were carried on.
- o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missiles were mock-ups," Markus Schiller and Robert Schmucker, of Germany's Schmucker Technologie, wrote in a paper posted recently on the website Armscontrolwonk.com that listed those discrepancies. "It remains unknown if they were designed this way to confuse foreign analysts, or if the designers simply did some sloppy work."
- o But after pouring over close-up photos of the missiles, Schiller and Schmucker, whose company has advised NATO on missile issues, argue the mock-ups indicate North Korea is a long way from having a credible ICBM.
- o "There is still no evidence that North Korea actually has a functional ICBM," they concluded, adding that the display was a "dog and pony show" and suggesting North Korea may not be making serious progress toward its nuclear-tipped ICBM dreams.
- o The missiles, called KN-08s, were loaded onto the largest mobile launch vehicles North Korea has ever unveiled. Pyongyang gave them special prominence by presenting them at the end of the parade, which capped weeks of celebrations mark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country's founding father, Kim Il Sung.
- o The unveiling created an international stir. The missiles appeared to be new, and designed for long-range attacks.
- o That's a big concern because, along with developing nuclear weapons, North Korea has long been suspected of trying to fiel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or ICBM, capable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contends that North Korea's failed April 13 rocket launch was an attempt to test missile technology rather than the scientific mission Pyongyang claims.

美 AP통신 홈페이지

- o David Wright, a physicist with th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who has written extensively about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said he believes the KN-08s could be "somewhat clumsy representations of a missile that is being developed."
- o "To understand whether there is a real missile development program in place, we are trying to understand whether the mock-ups make sense as the design for a real missile," he said. "It is not clear that it has a long enough range to make sense for North Korea to invest a lot of effort in."
- o Theodore Postol, a professor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former scientific adviser to the U.S. Chief of Naval Operations, said the Taepodong-2 design remains the more real future threat – though even that remains at least a decade away – and the KN-08 is simply a smoke screen.
- o "I believe that these missiles are not only mock-ups, but they are very unlikely to be actual mock-ups of any missiles in design," he said. "Fabricating a missile like the KN-08 would require a gigantic indigenous technical effort. ... The only way North Korea could develop such a missile with its pitiful economy would be if someone gave it to them."
- o Some missile experts say the launchers were designed to carry a larger missile than the 18-meter-long KN-08, and argue that North Korea would not have spent millions of dollars on them unless it has, or intends to have, a big missile to put on them.
- o But Wright said the launchers, like the missiles they carried, could also have been more for show than anything else.
- o "Given the international attention it has gotten from parading these missiles you could argue that the cost of buying the large trucks – which add a lot of credibility to the images of the missiles – was money well spent in terms of projecting an image of power," he said.

**붙임 3.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4.26]**

봉황위성TV 홈페이지

“朝鲜发射场刻意紧贴丹东 盘算把中国拉入战端”

- o 另外有一个报道引起我们注意，是最新的《汉和防务评论》杂志当中特别提到，朝鲜的最新这次发射卫星和长程导弹，未来的发射场所谓东昌里的发射场，实际上选择了非常靠近中国大陆，这个边境来设立，是朝鲜一个刻意的行为。美国发现这次朝鲜发射火箭的东昌里火箭中心，实际上就是一个长程导弹的发射中心，

북항위성TV 홈페이지

发射完火箭之后，美国也发现在它周边储存有所谓朝鲜最新的导弹的储存和检验库，而目前大约还有2枚的导弹是放在那里的，所以说未来朝鲜以东昌里作为他最新的长程导弹的发射中心。

- 朝鲜以往的发射中心放在舞水端里，是在朝鲜的西北部，这个舞水端里发射当时的导弹，还被称为舞水端里导弹，但朝鲜现在建设的更大型的导弹发射中心，放在紧邻中国边境有多近呢？离中国边境只有46公里，而且这个东昌里发射中心，离中国重要的城市丹东只有58公里。根据这个推算的话，一旦发射火箭或者导弹的话，如果失去控制，19.8秒将要落到中国大陆的境内，因此朝鲜这个动作对中国来说，是有一定安全上威胁的。
- 朝鲜为什么选择东昌里这么邻近中国的地方来设立导弹或者火箭的发射中心呢？很重要的一点，美国分析有两点，第一是警告美韩不要轻举妄动，不要来吓唬或者摧毁朝鲜这个大型的导弹发射中心，因为一旦误炸或者偏离的话，就会威胁到中国，这样美日，美国、韩国也不敢轻举妄动。另一方面朝鲜故意放在贴近中国的地方，是希望一旦朝鲜半岛发生战争的话，能够迅速把战火烧到中朝边境，把中国拉入战端，形成中朝的同盟，这是朝鲜的一些盘算。
- 另外特别提到中美俄日，实际上现在对于朝鲜的导弹是高度关注的，最新情报显示，监测雷达在这个区内增加了2倍，同时海上黄海和日本海周边的一方面，监测导弹的相关，像美国、日本相关的海上导弹的监测船只增加了大约20艘，而这些导弹船说是针对朝鲜，但朝鲜一年也发射不了几颗导弹，重点针对的是一年将有30次左右导弹发射的中国大陆的导弹部队，对于中国是新的危险。

**붙임 4. 중국 국제재선 보도 원문 (4.26)**

국제재선 홈페이지

“全国政协副主席、中国和裁会副会长厉无畏访问朝鲜字号”

- 据新华社电，应朝鲜全国和平委员会的邀请，中国全国政协副主席、中国人民争取和平与裁军协会副会长厉无畏于23日至26日率团访问朝鲜。
- 访问期间，朝鲜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委员长金永南会见了厉无畏一行。金永南表示，金日成主席和中国老一辈领导人缔造的朝中传统友谊在金正日总书记的关怀和指导下不断加强。金正恩同志继承了金日成主席、金正日总书记的遗志，高度重视发展朝中传统友谊。不断巩固和发展朝中友好合作关系是朝鲜党、政府和人民始终不渝的坚定立场。
- 厉无畏转达了贾庆林主席对金永南的良好祝愿。厉无畏说，中朝传统友好合作关系保持着良好发展势头。两国高层和各级别交往频繁，经贸合作不断拓展，人文领域交流活跃。不断巩固和发展中朝友好合作关系，是中国政府坚定不移的方针。我们愿同朝鲜人民一道，携手努力，继往开来，把中朝传统友好合作关系巩固好、建设好、发展好。

## 붙임 5. 중국 환구시보 보도 원문 (427)

### 환구시보 홈페이지

#### “詹德斌：全球都给朝鲜当“军师””

- 朝鲜宣布发射“光明星三号”卫星以后，全球主要新闻媒体都跟着忙碌分析朝鲜此举的动机、对国内外局势的影响，以及朝鲜接下来还会打出什么牌来反击国际社会的谴责和制裁要求。虽然这些媒体并不是有意替朝鲜出谋划策，却在客观上扮演着朝鲜“军师”的角色。
- 朝鲜从数百年前开始就被西方称为“隐士之国”，直至今日也没有摆脱封闭国家的形象。信息管制让外界无法了解朝鲜人的生活状态，更无从知晓朝鲜主要政策的决策过程。但在瞬息万变的国际传播时代，朝鲜的管制反而激起了各国媒体强烈的好奇心。
- 于是，各国媒体争相接近朝鲜，因为只要挖掘到一点新鲜信息，那就可能是独家新闻，而这样的新闻也必然会放在重要的时段和位置播放和刊登。比如金正日去世、卫星发射失败等消息公布后，CNN、NHK、KBS等全球有影响的媒体纷纷中断了编排好的节目，邀请专家学者分析朝鲜政局。
- 各国媒体和专家的竞争性分析、报道客观上帮助朝鲜扩大了自己的舆论阵地。原本关注度没那么大的朝鲜新闻经由韩国、日本、美国的转载放大后，朝鲜的立场反而得到了准确、及时的转达。朝鲜最近几周来邀请外媒参观“光明星三号”发射场、观摩阅兵式等，不排除是看中了各国媒体的传播力，择机加以利用。
- 也正因为韩国、日本、美国等国有一批专门关注朝鲜的媒体和专家学者，朝鲜领导人和军方的一举一动都成为监测和分析的对象。毫不夸张地说，外界媒体和专家的分析往往比朝鲜自己想的还要缜密，至少角度更加多元和全面。朝鲜发射卫星失败并遭到安理会谴责之后，媒体们就在不厌其烦地分析朝鲜下一步出什么牌，选择什么时机，以及可能引发的国内、国际效应等。这等于是全球媒体和专家都在为朝鲜出谋划策，分析利弊，其准确程度可能比朝鲜自己的情报机构做出的分析更高，更有用。
- 不仅如此，这些分析都是非常及时和免费的。朝鲜等于是雇用了全球各地的媒体从业人员和专家学者，但却没花一分钱。朝鲜与外界的关系，如同双方中间隔着一层水银玻璃对视。外界看不清朝鲜，但朝鲜却可以清晰地看清外面的一切。朝鲜利用全球媒体的追逐信息的好奇心，适时发布消息，试探各国态度，研判局势走向，调整对外战略战术，这或许就是我们看到朝鲜总能从一定程度上掌控着半岛局势主动权的原因。

## 붙임 6. 러시아 가제타 보도 원문 (4.26)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 “Спасители ПРО”

-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режим, выживающий за счет самоизоляции, испытывающий непреодолимый страх перед враждебным окружающим миром. Ни о какой экспансии речи идти не может-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нужно Пхеньяну исключительно как гарантия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и.
- Задач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дчеркив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непредсказуемость, что она и делает разными способами, отвечая на любые шаги Южной Кореи или США каскадом зубодробительных угроз либо даже силовыми мерами (прошлогодний обстрел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строва). Реакция внешних сил различна и меняется. От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се заметно устали. Даже в российских заявлениях, обычно безукоризненно сдержанных, звучит раздражение. Пхеньян не только наруша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но и создает риски, что что-то пойдет не так- ракеты могут просто полететь не по заданной траектории. Неурегулированная корейская проблема России мешает больше, чем другим государствам региона: не продвигаются заманчивые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и транспортные проекты. Гипотети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Москве только выгодно в отличие от большинства других вовлеченных стран, которые к возможному событию относятся совсем без энтузиазма.
- Россия в угрозу сво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 стороны Иран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принципе не верит: Пхеньян конструирует ракеты для самозащиты. Однако перспектива любой эскалации с угрозой приме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еподалеку от российских границ должна настораживать, о чем, собственно, и сказал генерал Макаров. Перспективы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не выглядят радужными. В случае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мо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статус-кво, рассчитывая на то, что черту Пхеньян сам переходить не будет, а режим чучхе все-таки не вечен. Строго говоря, он и так уже явно пересидел любые сроки, которые ему отводили.



## 붙임 7. 러시아 812online 보도 원문 (4.26)

812online 인터넷 일간지 홈페이지

“По каким политическим шагам можно понять новую политику  
Путина”

- До сложения Дмитрием Медведевым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  
чий остается около двух недель, и страна уже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перестроена под следующего главу государства. Н  
ачальник Генштаба Николай Макаров во вторник в эфире те-  
леканала **Russia Today** внезапно признал существование ядери  
ой угрозы для России со стороны Ирана и КНДР. Напомним,  
до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 Минобороны отрицало ядерную угрозу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Ирана для России, утверждая, ч  
то эти страны не обладают достаточ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с  
озд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средств его доставки.
- По сути, Кремль сообщает Западу, и США в частности, что Р  
оссия готова признать их ныне дей ствующую военно-полити  
ческую доктрину.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е исключает других  
неожиданных шагов со стороны Москвы, вплоть до изменени  
я позиции по ПРО, остающей ся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препятств  
ий на пути улучшения россий 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
- Все вместе это может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о том, что высшее  
россий 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решило поменять главный внешнепо-  
литический вектор в сторону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США  
и Западом.

## 붙임 8.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4.27)

교도통신 홈페이지

“北朝鮮楽団の米公演延期 ミサイル発射で夏に”

- 北朝鮮の国立交響楽団による米国公演を計画している非政府組織「グ  
ローバル・リソース・サービシズ (G R S)」は26日、北朝鮮が人工

### 교도통신 홈페이지

衛星と称する弾道ミサイルを發射したことを受け、公演時期の目標を夏まで延期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 米ジョージア州ダルスで記者会見したスプリングズGRS代表は、5月ごろとみられていた公演時期について「7月から9月までの実施に向けた計画を進めている」と述べ、実現に楽観的な見通しを示した。
- GRSは金日成主席生誕100年の4月15日に合わせ、同州アトランタの男声合唱団とオーケストラ計150人を北朝鮮に派遣してコンサートを2回開いていた。

## 붙임 9. 일본 후지TV 보도 원문 (4.27)

### 후지TV 홈페이지

“米・北朝鮮専門家「ミサイル發射失敗公表は金正恩本人の指示」”

- 北朝鮮から招待されて、4月中旬にピョンヤンを訪問していたアメリカの専門家が、FNNのインタビューに答え、ミサイル發射失敗の公表は、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第1書記本人の指示だったと北朝鮮側から説明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 ジョージア大学のパク・ハンシク教授は「真実を公表したがったのは、金正恩氏本人だと(北朝鮮内部で)聞いた」と語った。
- パク教授は、軍事パレードでの金第1書記の演説について、本人が原稿を執筆したと、高官から聞いたことも明らかにした。
- パク教授は「生で見たが、彼の演説はとても自然で、言葉の選び方に説得力があった。北朝鮮が、世界の注目を集めようとしたら、(核実験を)実行するかもしれない」と述べた。
- パク教授は、ミサイル發射は、軍事目的というより、故・金日成主席の生誕100年にあわせた思想的な意味があったため、国際社会が何と言おうと、中止する可能性はなかったと強調し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첫 번째 우라늄 핵실험 할 수 있다.(4.27Reuters)

- 「올리 하인노넨」(前 IAEA 사찰단장/하버드대 벨퍼센터 선임연구원),

- ‘북한이 처음으로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폭탄을 제조하고 터트릴 수 있을 것이다.’
- ‘이는 북한이 충분한 양의 HEU를 생산하는데 성공하고 핵폭탄 설계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 ‘2010년 말 美 전문가가 목격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HEU 생산을 위해 쉽게 변경될 수 있다.’
- ‘북한에 핵무기 제조 비밀을 판매한 A.Q.Khan 조직은 1990년대 중반 개발한 우라늄 핵폭탄 설계도를 갖고 있다.’
- ‘북한이 플루토늄 무기를 만들 수 있으면, 우라늄 무기도 만들 수 있다.’
- ‘북한이 우라늄 시설을 성공적으로 작동시켰을 경우, 적어도 3.5톤의 저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을 것이지만 핵분열을 위한 농도 90%에는 훨씬 못 미칠 것이다.’
- ‘무기급 물질 생산을 위해 북한은 연간 저농축 우라늄 1.8톤 생산량을 HEU 40kg으로 전환하기 위한 1000여 개의 농축 기계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추가 1~2개의 핵폭탄 제조를 위한 핵물질을 생산하는데 충분하다.’

- 「제임스 액튼」(美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소속),

- ‘북한의 플루토늄 비축량은 몇 개의 무기만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낙후된 플루토늄 생산 인프라 상태로 인해 생산량 증가는 더디고 눈에 떨 것이다.’
- ‘대조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북한의 무기량을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

○ 北 풍계리 핵실험 준비 활발 (4.27 38노스 ☞ 미국 북한 전문 웹사이트)

-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 장소를 촬영한 최근 인공위성 사진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그러나 위성 사진 상으로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3.8일 사진에서는 북한이 갯도에서 굴착한 토사를 운반하고 두 개의 인접한 흙더미를 만들었음.
  - 최근 눈이 온 후 핵실험 장소의 도로에 눈이 없으며, 이는 차량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줌.
  - 토사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탄광차의 행렬도 포착됐으며, 토사 주위의 차량들과 구축물, 정체불명의 물체들은 핵실험 준비를 위한 것으로 보임.

[사진#1] 지오아이 인공위성 사진(2012.3.8일 풍계리)



- 3.27일 사진에서는 도로에서 갯도 입구로 새로운 차량이 이동한 흔적과 토사 더미 위에 정체불명의 장비 조각들이 발견됨. 다만 이 단계에서 핵실험 준비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불명확함.

[사진 #2] 지오아이 인공위성 사진(2012.3.27일 풍계리)



- 4.18일 사진에서는 토사 더미 위에 탄광차들과 인근에 정체 불명의 물체들이 보이며, 이들의 위치와 개수는 매일 바뀌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토사 더미 주변의 차량 및 구축물, 다른 물체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토사 더미의 크기는 큰 변화없음.

[사진 #3]



2012.4.30(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원래 도로를 막고 있는 토사 더미 주변의 도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액체가 지나가는 배수로가 보임. 배수로가 없다면 입구가 진흙투성이로 변해 작업이 어려운 것임.
- 3D 투시도로 볼 때 핵실험 장소가 얼마나 가파른지를 알 수 있으며, 배수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사진 #4] 풍계리 핵실험 장소의 3D 모델



- 2012.3.8~4.18일 위성사진을 볼 때 토사 더미 주변의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음.

[사진 #5]



□ 일본어권

○ 北, 외국 전문가 초청하여 법률 개정을 위한 시장경제 연수 실시

(4.30 지지통신)

- 북한이 작년에 실시한 외자유치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미국, 중국 등 해외전문가 및 관료를 초청해 시장경제와 국제법 등에 대해 연수를 받음.
- 자력갱생을 표방해온 북한이 법개정에 외국 전문가를 관여 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외자유치에 대한 진지한 자세의 표출임.
- 북한은 작년 11월말부터 12월21일까지 '외국인투자법' '라선 경제무역지대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였고, 형식 통일과 용어의 간소화·명확화와 함께 '재산권, 지적재산권, 소득 보호' 등 일정한 시장경제 원칙을 포함시킴.
- 시장경제와 국제법 등의 지식이 부족한 북한은 자력으로 개정 작업을 하지 못해 싱가포르, 중국, 미국 전문가를 평양에 초청해 법률, 회계, 금융 등의 연수를 실시함.
- 라선시에서는 중국 관료 약 30명이 6개월간 체류하면서 지도를 했다고 전해짐.

○ 中, 평양에 '조선중국상회' 설립 (4.27 산케이)

- 중국과 북한 양국기업의 폭넓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선중국상회(상공회의소)가 4.27일 평양에 설립되었고, 북한에서 투자와 무역을 전개하고 있는 약 50개의 중국기업이 참가함.
- 중국은 4.28일 함경북도와 길림성을 연결하는 관광열차를 개통 시킬 예정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중국 류훙차이 주북한 중국대사는 4.27일 조선중국상회 설립식 인사에서 '中·北양국의 무역은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으며, 두 개의 경제구를 공동개발, 관리하는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중국 자본기업은 中·北의 우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이바지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 □ 러시아어권

○ 북한 관련 언론보도가 부정적인 이유는 정보폐쇄성 때문이다.

(4.28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일간지)

- 북한 관련 언론보도가 부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정보 폐쇄성으로 인해 탈북자 인터뷰와 소문 등을 근거로 기사를 내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전 세계적으로 정보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핸드폰부터 인터넷 사용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국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공관 내 인터넷 사용공간 조성조차도 북한 지도자의 개별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몇명도 안되는 해외 언론인의 활동도 제한적임.

## □ 중국어권

○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김정은의 뜻

(4.24 남도주간 ☞ 중국 광둥성 주간지)

- 북한이 예전과 달리 이번 위성 발사를 사전 예고한 것은 김정은 지도下에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투명화하려는 의도임.
- 「뤄위안」(중국 군사과학협회 부사무총장), '이는 위성 발사에 대한 정치적 색채를 지우고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발사 시각 외신기자들의 일정은 도서관 방문으로 위성 발사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이는 북한의 목적이 '투명화'가 아닌 선군정치를 선전하기 위함이었음.
- 그렇지만 △발사 사전 예고, △외신기자 초청, △실패 인정, △실패에 따른 책임 문책 없음 등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인 것은 분명함.



## 붙임 1. Reuters 보도 원문 (4.27)

Reuters 홈페이지

"Could North Korea test "uranium bomb" for first time?"

- o North Korea, believed to be preparing for a third nuclear test, would probably be able to make and explode a uranium device for the first time after earlier relying on plutonium, a former chief U.N. inspector said. "This assume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succeeded in producing HEU, in sufficient quantities as well, and have a bomb design," Olli Heinonen said in a paper he sent to Reuters on Friday.
- o A uranium enrichment facility of the type seen by a U.S. expert in late 2010 could be easily modified to produce HEU, said Heinonen, who headed safeguards inspections worldwide for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until 2010.
- o The smuggling network of Pakistani nuclear proliferator A.Q. Khan, which sold nuclear secrets to North Korea and others, had design drawings of a uranium device developed in the mid-1990s, Heinonen said. And in any case, he said, "due to the fact that they were able to make a plutonium device, they should also be able to make a uranium one.
- o "North Korea's plutonium stockpile is only sufficient to produce a handful of weapons and, given the dilapidated state of its plutonium production infrastructure, producing more would be slow-going and very noticeable," James Acton of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aid. In contrast, the enrichment programme appears capable of "significantly expanding North Korea's arsenal," he added.
- o If commissioning of the enrichment site had been successful, North Korea would now have at least 3.5 tonnes of low-enriched uranium, Heinonen said, with a fissile concentration still well below the 90 percent level required for bombs.
- o To produce weapons-grade material, it could install 1,000 more enrichment machines to convert an annual production of 1.8 tonnes of low-enriched uranium to 40 kg of HEU, he said. "This is an amount sufficient to generate the necessary fissile material for one to two additional nuclear bombs per year," Heinonen, now a senior fellow at Harvard University's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said.

## 붙임 2. 美 38노스 게시 원문 (4.27)

### 美 38노스 홈페이지

#### "North Korean Nuclear Test Preparations: An Update"

- o The most recent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available of the Punggye-ri Nuclear Test facility supports the contention that preparations are continuing and that the North Koreans are proceeding as if the test go-ahead decision has already been made. The imagery does not, however, give any indication of when that detonation may take place.
- o Satellite pictures from April 18, 2012 are the latest in a series of photos that document continuing preparations for an upcoming nuclear test. A March 8, 2012 image shows that North Korea dumped spoil material—excavated from the test tunnel—and created two adjacent teardrop shaped mounds, together covering an area that is 300 square meters greater than observed in 2011 (indicating that the tunnel has been expanded since then) (see figure 1). Overall, some 8,000 cubic meters of rubble have been excavated at the site covering 4,000 square meters. The photo also reveals a dark-toned material situated adjacent to the tunnel entrance which may be stemming material intended to eventually seal the tunnel, but is more likely mud impeding work at the site.
- o The imagery, taken after a recent snowfall, shows significant activity: the road system around this remote base is entirely snow-free, indicating extensive vehicle traffic. The central courtyard of the operations base is also clear of snow and there are several signatures of generator activity. A rail line for mining carts (also visible in subsequent pictures) that has been used to bring out and dump excavation material, also known as "spoil," is visible. Vehicles, structures and unidentified objects are on top of and around the spoil pile, perhaps to prepare the test device and diagnostic equipment in the test chamber. Once that is done, the mining carts can be used to deliver stemming material and spoil to seal the shaft during the final test preparation stage.
- o A satellite photo from March 27, 2012 shows that there is new vehicle tracking on the spoil pile from the road to the tunnel portal and small pieces of unidentified equipment were also newly placed on top of that pile (see figure 2). It is unclear at this time what this new activity specifically represents with respect to nuclear test preparations.

美 38노스 홈페이지

- o The latest imagery, taken April 18, 2012, documents continuing preparations for an upcoming nuclear test and shows a train of mining carts on top of the spoil pile and random unidentified structures or objects on or near the piles (see figure 3). Based on an examination of previous satellite photos, their position and number appear to vary on a day-to-day basis, indicating the continued movement of vehicles, structures and other objects on or near the spoil piles at the mouth of the test tunnel. According to one press report on April 21, the North had completed the removal of the large spoil pile near the test site, probably to seal the tunnel for the explosion. However, this imagery shows the size of the pile largely unchanged. Whether the test device has been emplaced in the chamber and stemming with other material has been completed, remains unclear.
- o The April 18 photo illustrates a drainage ditch that passes water flow from a gully around the spoil pile that blocked the original path. Without such a ditch, the entrance would be muddy, making it more difficult to work in the area. The following 3D ground level rendering of the site highlights the steepness of the terrain and the need for such a ditch.
- o Figure 5: Successive March - April 2012 imagery shows increasing activity around spoil pile.

### 붙임 3.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4.30)

지지통신 홈페이지

- “「市場經濟」反映で異例の研修=米中の専門家・官僚招く－昨年の外資法改正・北朝鮮”
- o 北朝鮮經濟に精通した韓国の消息筋は29日までに、北朝鮮が昨年行った外資誘致関連法の改正に関し、米国、中国など外国の専門家や官僚を招き、市場經濟や國際法などについて研修を受け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自力更生」を標ぼうしてきた北朝鮮が、法改正に外国を関与させるのは異例で、外資誘致に対する真剣な姿勢の表れだ。
  - o 北朝鮮は昨年11月末から金正日総書記の死去直後の12月21日にかけて、「外国人投資法」「羅先經濟貿易地帯法」など14本の法律を改

지지통신 홈페이지

正。形式の統一や用語の簡易・明確化に加え、「財産権、知的財産権、所得の保護」など、一定の市場経済原則を盛り込んだ。

- 消息筋によると、北朝鮮は「強盛国家」元年とする2012年をにらみ、経済再建には外資誘致が必須と判断。10年から、金総書記の義弟の張成沢国防委副委員長が主導し、中国に近い羅先経済特区や黄金坪の中朝共同開発を推進するとともに、関連法改正に着手した。
- しかし、市場経済や国際法などの知識が不足している北朝鮮は自力では改正作業を進められず、シンガポール、中国、米国の専門家を平壤に招請。法律、会計、金融などの研修を受けた。羅先では、中国の官僚約30人が6カ月間滞在し、指導したという。

**붙임 4.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4.27]**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北朝鮮との経済協力加速 中国、平壤に商工会設立 ”

- 中国と北朝鮮の両国企業の幅広い協力を促進するため、朝鮮中国商会(商工会議所)が27日、北朝鮮の平壤に設立された。北朝鮮で投資や貿易を展開している50余りの中国企業が参加したという。新華社電が伝えた。
- 中国は北朝鮮、ロシアとの国境地帯に新たに国際協力モデル地区の設置を決定したほか、28日には北朝鮮咸鏡北道と中国吉林省を結ぶ観光列車を開通させる予定であるなど、北朝鮮との経済協力を加速させている。
- 中国の劉洪才駐北朝鮮大使は27日の朝鮮中国商会設立式典のあいさつで「中朝両国の貿易は史上最高を更新し、二つの経済区を共同開発、管理する事業も順調に進んでいる」と指摘、「中国資本企業は中朝の友情を発展させるため、より大きな貢献を望んでいる」と強調した。(共同)

## 붙임 5. 러시아 러시아이스카야 가제타 보도 원문 [4.28]

### 러시아이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Россию втянули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войны”

- Чем больше страна ограничивает доступ на свою территорию или к каким-либо событиям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МИ, тем выше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она потерпит поражение в борьбе за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Запад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д жест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контролем находится все, даже мобильные телефоны. Число мест, откуда можно выйти в интернет, строго ограничено. В российском посольстве этой страны мне рассказали о том, что потребовалось личное указание главы КНДР, чтобы им в одну из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ых комнат провели Интернет. Передвижения не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строго контролируются. Но что принесла КНДР такая политика закрытости? Ведь статьи об этой стране все равно появляются в иностранной прессе. Только основаны они обычно на свидетельствах перебежчиков и слухах, а потому несут негативный характер. В итоге на Западе воспринимают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ак государство-"изгоя", которое следует изолировать от цивилизованного мира.

## 붙임 6. 중국 남도주간 보도 원문 [4.24]

### 남도주간 홈페이지

“朝鲜放卫星：开放姿态据称系金正恩本人意愿”

- 针对此次朝鲜事先张扬的卫星发射方案，有评论认为，与以往历次发射火箭之前的秘而不宣不同，在新领导人金正恩的领导下，朝鲜试图将自己的此次发射行为透明化。在朝鲜宣布将发射“光明星3号”卫星的当天，朝鲜就通过其驻伦敦大使馆向国际海事组织提交了报告，称自己已经决定于2012年4月12日至16日择机在平安北道铁山郡西海卫星发射场发射“光明星3号”地球观测卫星。
- 更令人感觉惊奇的是，朝鲜官方还给各国专家和媒体发了观礼帖。这是朝鲜1998年开始卫星发射试验以来的第一次。据悉，这种开放的态度，是金正恩本人的意愿“世界上还没有哪个国家像朝鲜一样允许这么多记者携带摄像器材这么近距离地拍摄卫星发射场。”朝鲜西海卫星发射场总负责人张明进说，“某些国家说朝鲜准备发射导弹是非常可笑的事情。”

남도주간 홈페이지

- 中国军事科学协会副秘书长罗援少将表示, 朝鲜这些高调动作的主要目的是淡化其军事色彩, 突显卫星发射是进行“民用”及“和平利用太空空间”, 以减轻卫星发射的敏感度, 并求得国际社会的理解。有报道称, 火箭发射时, 受邀记者基本上都不知情。当时, 朝方为记者们安排的行程是参观一个大型图书馆。似乎也可以解释为何朝鲜此次遍邀外国媒体观摩发射现场, 但却在火箭发射的最紧要关头安排记者们去参观图书馆的意图所在: 他们的目的, 更多是在于展示朝鲜的“先军力量”, 而非将发射过程“透明化”。
- 无论如何, 这次火箭发射, 朝方的确显露了一种与以往不同的姿态。比如按照国际惯例通知相关国际机构火箭发射的程序, 邀请外媒观礼, 失败后主动公开承认, 尚未清算火箭发射失利的责任人员等。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北의 ICBM 개발에 3가지 길 있다.

(4.29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마이클 라스카」(싱가포르 방위전략연구소[IDSS] 연구원),
  - ‘북한은 작전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3가지의 잠재적인 길이 있다.’
  - ‘첫째, 북한은 위성 발사로 위장한 대포동 2호의 변종을 강화하는 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
  - ‘둘째, 대포동을 개발하기 위해 노동을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의 기술을 수정한 경험을 이용해 사정거리 및 탑재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 ‘셋째, 외부의 은밀한 운영·기술·재정적 지원 하에 선진화된 설계 및 엔진과 정확한 유도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대형 미사일을 도입해 시험할 수 있다.’
- 북한 ICBM 개발에 대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공식 발언도 이어지고 있음.
  - 「로버트 게이츠」(前 美국방장관), 2011.6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제1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잠재적인 이동식 ICBM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
  - 「로버트 윌러드」(美 태평양사령관), 2012.3.7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내에서 이동식 ICBM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으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 北 위성 발사에 대한 서방의 반응은 위선적이다.

(4.28 Global Research ⇨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웹사이트)

- 북한은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일환인 위성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규탄을 받은 반면, 인도의 중국 타격을 위한 탄도 미사일 발사는 비난을 면함.
- 북한과 인도의 경우 모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지만, 안보리와 서방 언론은 인도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결의안 위반은 문제시하지 않았음.
- 북한은 식량 부족에 시달릴 때 로켓 발사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서방 언론의 비난을 받은 반면, 인도가 심각한 빈곤 문제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난하지 않음.
- 중국의 대북 트럭 부품 판매가 북한에 재래식 군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미국이 비난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은 인도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비, 원료, 기술 수출을 금하는 안보리 결의 1172호를 위반하고 인도에 사용 후 핵연료와 핵기술 판매를 승인했으며, 인도에 우라늄을 판매하고 있는 캐나다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임.
- 중국을 겨냥한 인도의 국방력 강화 노력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므로 서방 정부와 언론에 용인되는 반면, 미국 위협에 대해 국방력을 증강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므로 매도당하고 있음.

□ 러시아어권

○ 북한의 ICBM 개발성공은 아직 훨씬 멀었다.

(4.30 vpk-news ⇨ 군사전문 주간지)

- 러시아 전문가, '서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 우주 프로그램이 ICBM 개발과 연관이 있다 해도 사실상 초기단계에 있다.'
- '사실상 ICBM 완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10여 차례의 성공적인 발사가 전제돼야 한다.'



2012.5.1(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은하 3호를 포함한 과거 2차례의 발사가 ICBM 실험이었어도, 북한의 작동 가능한 개발은 아직 훨씬 멀었다.'
- '비록 은하 3호가 3단 로켓이어도 태양동기 궤도에 안착한 유효하중 850kg짜리 러시아 2단 로켓보다 훨씬 약하다고 평가된다.'
- '또한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 '경제제재 강화 및 인도적 지원 중단상태에서 북한이 향후 로켓 발사체 혹은 ICBM 발사를 계속 감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

○ 북한, 조만간 유럽도달 가능 탄도미사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28 echo msk ⇨ 라디오)

- 「세르게이 코셀레프」(러 국방부 해외군사협력처장),
  - '북한 혹은 이란이 조만간 로켓·핵 공격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러시아 국방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들 국가는 유럽도달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조만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위협이라기보다는 '미사일 도전'으로 명명하고 있다'고 언급

## □ 일본어권

○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드러난 김정은 체제와 인사 특징

(5.1 코리아국제연구소 ⇨ 재일 한국인, 북한 민주화 등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 장성택이 정치국원이 된 것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장성택의 권한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편파적인 견해임.
- 장성택은 최룡해를 자신이 앉아야 할 위치에 앉혀 군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확대해 자신은 대국적인 입장에서 黨, 軍, 政의 조정 역할을 철저히 맡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장성택, 김경희의 정치 향방은 비대화되고 부패가 눈에 띄기 시작한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회복하는 것임. 군의 비대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김정은의 권력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김정일의 유언일 가능성이 높음.

- 軍 주도가 아닌 黨 주도의 선군정치가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새로운 '선군노선'으로 추정되며, 작년 말에 김정은이 국방위원회가 아닌 黨정치국의 이름으로 최고사령관이 된 것이 그 증거임.
- 장성택과 최룡해 보좌 라인에 의한 김정은 군사독재체제는 당분간 軍의 기득권층으로부터 반발을 받을 것이나, 김정은이 그들을 신뢰하는 한 북한권력은 이 시스템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임.

## □ 중국어권

### ○ 中 투먼~北 칠보산, 전용 열차 개통(4.29 신화사 길림지역 신문)

- 4.28일 중국 투먼시와 북한 칠보산을 잇는 전용열차가 정식 개통했으며, 65명의 중국 여행객이 이용했음.
- 3박 4일 일정의 1,900위안 여행 상품으로 중국 투먼을 출발해 북한 남양에서 전용열차를 이용하게 됨.
- 3박 4일 일정에는 김일성 기념관, 동해폭포, 개심사, 승선대 등 10여 곳을 관람하게 됨.
- 중국의 5.1노동절 연휴를 맞아 북한 여행 문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 中·北 기상 과학기술협력 회의 개최(4.27 중국 기상국 홈페이지)

- 4.26, 중국 기상국과 북한 기상수문국은 중국 심양에서 기상 과학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함.
- 양측은 회의를 통해 <국경지역 防災관련 협력 회담 요강>을 체결하고, △상호 자료공유, △자동관측소 건설, △국제연수, △과학자 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함.

2012.5.1(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이번 협력으로 △북한 국경지역의 자동관측소 부족 해결, △실시간 기상 예보, △기상 재해 예측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중국 또한 요녕성, 길림성 압록강 유역의 홍수 예측력 강화와 홍수로 인한 경제손실, 인명피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붙임 1. 더 디플로맷 게재 원문 [4.29]

더 디플로맷 홈페이지

### "Tackling North Korea's Missile Quest"

- o In this context, North Korea has currently three potential pathways to develop an operational ICBM: 1) It can continue to enhance the Taepodong 2 variant, disguising it as a space launch vehicle; 2) It can use the experience to modify technologies of the Musudan IRBM and extend the range and payload capabilities in a similar way it has used the No Dong to develop the Taepodong; and 3) It can introduce and test a new larger type of missile with more advanced design, engines, and accurate guidance systems based on external covert operational,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In doing so, it can use the newly constructed space launch facility located at Tongchang-ri.
- o Indeed, there have been a series of less-noticed public statements by high-ranking U.S. officials that point toward North Korea's emerging ICBM development trajectory. For example, during the 10th IISS Asia Security Summit, the Shangri-La Dialogue, held in June 2011 in Singapore, former U.S.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said that "with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long-range missiles and potentially a road-mobi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their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North Korea is in the process of becoming a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 o More recently, on March 7, 2012, Adm. Robert Willard, commander of the U.S. Pacific Command, testified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 Committee, noting that "there is a development within North Korea of a road-mobile ICBM system that we've observed...We have not observed it being tested yet, to my knowledge. We are watching the development very closely."

## 붙임 2. Global Research 보도 원문 [4.28]

Global Research 홈페이지

### "THREATENING NORTH KOREA: A Tale of Two Rocket Launches"

- o While the United States accuses China of violating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 by selling the North Koreans truck parts, Washington itself has cleared the way to export equipment, material and technology to India to assist its nuclear program in violation of a Security Council

Global Research 홈페이지

resolution. Canada, too, which is selling uranium to India, is violating the sam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o North Korea was censured by the Security Council for launching a satellite as part of a civilian space program, but India escaped censure for launching a ballistic missile whose purpose would be to destroy Chinese cities. Both launches violat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the Security Council and Western media ignore the resolution prohibiting India's ballistic missile program.
- o North Korea was rebuked for what was widely described as an extravagant expenditure on a rocket launch at a time Pyongyang is dependent on outside help to feed its people [15], while India's widespread and profound poverty hardly seemed a consideration to a Western media that could find little critical to say about India's expensive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 o India's efforts to add to the credibility of its security and preparedness are accepted as legitimate by Western governments and media because they're directed at China. Pyongyang's efforts to add to the credibility of its security and preparedness are reviled and censured because they're aimed at bolstering North Korea's defense against hegemonic threats. India's actions—insofar as they contribute to the United States' new military strategic focus of containing the challenge of China's rise—is in Wall Street's interests. North Korea's actions—in challenging the United States' ability to forcibly integrate the country into the US-led neo-liberal world economic order—is against Wall Street's interests.

**붙임 3. 러시아 vpk-news 보도 원문 (4.30)**

vpk-news 군사전문 주간지 홈페이지

“Пхеньян никого не напугал”

- o По словам специалиста, если даже косм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Пхеньяна увязана, как это утверждают на Западе, с разработкой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ходится лишь в начале пути, завершение которого не прос

## vpk-news 군사전문 주간지 홈페이지

матривается: «В самом деле для отработки МБР необходимы по меньшей мере десять ее успешных пусков. Если даже в случае «Ынха-3» и двух предыдущих неудачных пусков в 1998 и 2009 годах испытывались прототипы МБР, северокорейцам пока слишком далеко до «работающей» ракеты. Хотя «Ынха-3» имеет три ступени, она заметно «слабее» упомянутых ранее двухступенчаты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 выводивших на солнечно-синхронные орбиты полезную нагрузку массой до 850 килограммов».

- «Но разве северокорейцы решили проблему миниатюризации атомного боеприпаса- Конечно, нет»,- констатировал он. В любом случае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идется провести еще множество пусков, чтобы «научить» летать свои ракеты-носители или МБР. Хватит ли у нее на это средств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анкции лишь ужесточаются, а гуманитарная помощь прекращается- Вряд ли.

## 붙임 4. 러시아 echo msk 보도 원문 [4.28]

## echo msk 라디오 홈페이지

“Ракетно-ядерные удары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и или Ирана невозможны в обозримой перспективе - начальник ГУМВС Минобороны”

- В обозримой перспективе ракетно-ядерные удары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ли Ирана невозможны, "это мнение экспертов Минобороны". Об этом в интервью радиостанции "Эхо Москвы" 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Сергей Кошелев.
- При это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 этих странах "теоретически возможно в обозримой перспективе создать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акету, которая будет достигать территории Европы". "Это мы называем не угрозой, это мы называем ракетным вызовом", - пояснил С.Кошелев.

## 붙임 5. 일본 코리아국제연구소 보도 원문 (5.1)

### 코리아국제연구소 홈페이지

#### “朝鮮労働党第4回党代表者会での規約改訂と人事の特徴”

- 金正恩は新設された第1書記と党中央軍事委員長に就任し、常務委員としても名を連ね、党と軍を総括・指揮する権限を掌握した。党内の全事業は第1書記の金正恩から指揮を受ける党政治局常務委員を中心に行われる。党政治局を代表する政治局常務委員が政治局委員、党中央委員会書記を人選、党書記局を組織する。
- 今回の党代表者会では、金正恩の全権掌握に基づき、ある程度金正恩色を出した人事が進められた。
- 注目されていた張成沢(チャン・ソンテク)はワンランク上がり政治局員となった。この人事に対して一部の人は、張成沢の権限が縮小したように受け止める向きがあるが、それは一面的な見方である。
- 張成沢は金慶姫の夫として後見人の役割を果たす上においても、また、権力闘争の火種にならないためにも、あえて一步下がったポジションに位置したのである。青年同盟時代を共にした弟分である崔龍海を、自らが座るべきポジションにつけ、軍に対する党の影響力を拡大させ、自らは大局的な立場から党、軍、政府の調整役に徹することがベストであると判断したと見られる。
- 張成沢、金慶姫後見人の政治方向は、肥大化し、腐敗が目立つ軍に対する党の指導を回復することである。軍の肥大化を克服することなくして金正恩の権力安定は望めないと見ているのだろう。それは金正日の「遺言」である可能性が高い。
- 軍主導ではなく、党主導の「先軍政治」、これが金正恩体制が進める新たな「先軍路線」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昨年末に金正恩が国防委員会ではなく党政治局の名前で最高司令官となったのはその証であろう。
- 張成沢－崔龍海補佐ラインによる金正恩軍事独裁体制の確立、ここに新たに発足した北朝鮮体制の政治的特徴がある。この体制は当面軍の既得権層から反発を受けるだろうが、金正恩が彼らを信頼しているかぎり、北朝鮮権力はこのシステムに収斂するしかない。

## 붙임 6. 中新화사 길림지역 신문 보도 원문(4.29)

### 신화사 길림지역 신문 홈페이지

#### “中国图们至朝鲜七宝山旅游专列开通”

- 新华网吉林频道 4 月 28 日电 (宗巍、张彪) 28 日, 中国图们市至朝鲜七宝山的旅游专列正式开通, 来自中国的 65 名游客踏上这趟专列, 将在未来几天内感受朝鲜的异国风光。
- 吉林省图们市外事旅游局副局长赵仁杰获悉, 整个旅程为 3 天 4 夜, 组团费用大约 1900 元。来自中国的游客沿着中朝铁路线从图们口岸出境, 经过十几分钟的步行, 到达对岸的朝鲜南阳市, 然后在南阳市登上旅游专列。
- 在 3 天 4 夜的时间里, 这批游客可以参观金日成画像, 游览金日成与周保中会面的纪念馆、纪念塔, 到达七宝山后可以参观东海瀑布、开心寺、升仙台等 10 余处自然景观。图们市与朝鲜隔图们江相望, 有公路和铁路“双通道”与朝鲜相连, 跨境旅游资源丰富。七宝山位于朝鲜咸镜北道中部海岸, 风景秀丽迷人。
- 临近“五一”假期, 前来图们市咨询到朝鲜旅游的人多了起来, 图们市相关旅行每天都能接到几十个咨询电话。据介绍, 想要去朝鲜的游客需要提前 5 天提供相关材料, 并提前一天到达图们市, 办理相关手续。(完)

## 붙임 7. 중국 기상국 보도 원문 (4.27)

### 중국 기상국 홈페이지

#### “中朝双边气象科技合作会谈取得重要成果”

- 4月26日, 在辽宁省沈阳召开的中朝双边气象科技合作会议上, 以中国气象局副局长于新文为团长的中国气象局代表团与以朝鲜气象水文局副局长刘凤哲为团长的朝鲜气象水文局代表团进行了会谈, 双方签署了《中国气象局与朝鲜气象水文局关于加强两国边境地区防灾减灾合作会谈纪要》, 中朝双方就在边境鸭绿江流域选址、建设加密自动站并进行资料共享、加强国际培训合作、进行科学家交流等事宜合作会谈取得了富有成效的成果。
- 为保证自动观测站切实发挥防灾减灾作用, 中方与朝方商定在自动气象站建成并交付使用后, 在人员培训和技术支持等方面对朝方提供协助, 由朝方做好自动站的维护, 确保其正常运行。此次中朝边境地区气象科技合作项目的启动, 填补了朝鲜边境自动站建设的空白, 朝鲜气象水文局将借助该项目的实施在边境地区建设首批自动气象站, 初步形成鸭绿江流域的地面气象观测网, 切实有效增强气象资料实时通讯传输能力, 提升朝鲜局部地区的气象灾害监测和预警能力。同时,



중국 기상국 홈페이지

项目的实施也将为提高辽宁省、吉林省气象局鸭绿江流域洪涝灾害预报预警能力发挥重要作用，有助于减少鸭绿江流域发生的特大洪水所造成的严重的经济损失和人员伤亡。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인권문제가 관계 개선에 중요하다. (5.1 美 국무부 대변인실 서면답변)

- 미·북 직접 대화에서 강제수용소 문제 제기 실시 여부 관련 서면답변에서 '미국은 강제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강조
  - '인권상황 개선은 대북정책의 핵심요소이며, 북한이 인권문제를 다루는지가 미·북 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로버트 킹」 美대북인권특사가 2011.5월 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한 당국자들과 인권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
  - 「스티븐 보즈워스」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미·북 고위급 대화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했다.'
  - '북한과 직접 대화 외에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우리는 UN 총회, UN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북한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서면 답변 제출

○ 北 외자 유치 증가는 사회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5.1 The Diplomat)

-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Chosun Exchange 사무총장 ☞ 싱가포르 소재 대북 지식교류 민간단체),
  - '북한의 신 지도부는 안보를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계속 요구할 수 없으며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한 수출 상품이 없는 실정이며, 천연자원 투자 유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북한 내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는 3~4년 전에 비해 북한 투자유치기관들에 대한 권한 및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홍보를 대폭 확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북한 내 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기관들이 생겼으며, 이는 상부 권력층 내 경쟁을 시사한다.’

‘각 기관은 각각 다른 후원자와 후원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북한 당국자들에 의하면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투자유치기관들이 유치금의 일정부분을 취하기 때문에 이윤추구와 관리책임의 모호한 경계에 더해 타 기관과의 경쟁은 해외투자에 기반한 개발전략이 경쟁조직 간 중계 이윤 추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뜻한다.’

‘최근 북한 보도에 따르면 주요 투자유치기관인 합영투자위원회와 대풍투자그룹 간 접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두 기관은 합작회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되어 올해 1월 수정된 새 투자법 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두 기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는 미지수이다.’

‘북한 내 법치주의와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결여되어 있으며, 투명성 확보도 어렵고, 대부분의 상업 활동이 법적 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버마의 경우와 같이 건전한 정치체계가 결핍된 시장화는 광범위한 경제 개발은 무시되고, 소수 엘리트층만 부를 축적하여 기존 권력 구조가 강화되면서 경제 침체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한 비공식 정보 유입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건재하며,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더라도 여전히 기존 사회 및 정치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

## □ 중국어권

### ○ 북한은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4.30 홍콩 봉황위성TV)

- 「주커치」(시사평론가),
  - ‘북한의 핵보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핵무기는 美·日 등 주변국에 대한 위협력은 실제 존재하지 않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다.’
  - ‘외부에서는 모두 북한의 개혁을 바라고 있다. 중국이 이를 이끌어줄 수 있지만 우선 북한 자신들의 뜻이 중요하다.’
  -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고 강경한 태도를 바꾸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아직 없지만,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북한은 개혁보다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고 표현한다. 중국 또한 젊은 김정은이 북한에 더욱 많은 가능성을 가져다주길 바라고 있다’고 논평

### ○ 중국 東北지역에서 출발하는 북한 자동차 여행편 재개(4.29 신화사)

- 2011.10월 잠정 중단되었던 북한 자동차 여행이 4.28일 재개됨.
- 길림성 중국청년여행사 대표,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중단된 자동차 여행이 4.28일 첫 번째 여행팀이 훈춘 권하 세관을 출발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 ‘이번 여행은 총 22대의 자동차가 참여했고, 5.1~2일이 북한의 휴일이라 4.30일 돌아오는 여정이다.’
  - ‘5.3일 북한이 세관 문을 열면 두 번째 팀이 출발할 예정인데 아직 차량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이번 단체여행 참가비는 1인당 1,580~1,980위안이며 작년에는 북한 도로 사정으로 지프차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고속도로 보수 후, 일반 승용차도 가능하게 됐다’고 홍보

## □ 일본어권

### ○ 김정은 '유훈 관철' 일탈에 따른 딜레마(5.2 마이니치신문)

- 김정은은 최고지도자로 취임한 직후부터 '인민애'와 '자애'를 강조한 시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으며, 이번 '숙청 재조사' 조치도 그 일환인 듯함.
- 김정은은 자본주의적 방식도입을 담은 경제논의를 촉구하는 등 과감한 국내개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자애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것은 김정일이 추진해온 공포 통치의 나쁜 점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이어짐.
- 김정은이 권력승계 때 선언했던 '유훈 관철'에서 일탈하게 돼 권력승계의 정통성이 부정될 수 있음.
- 김정은은 측근에 의한 쿠데타에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와 中·北 국경 단속을 강화했다는 정보도 있음.
- 김정은에게는 유훈을 관철하면서 국내개혁에 나서는 정합성이 요구되고 있음.

### ○ 조총련, 4.15 행사시 출장가판대 설치로 김정은 체제에 충성

(5.1 지지통신)

- 4.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축하행사 때 조총련이 평양시내의 4개 지역에 약 140개의 이동식 가판대를 설치하여 운영함.
- 이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운영 수익은 상납된 것으로 추정됨.

## □ 러시아어권

### ○ 러시아, 불법어업방지에 관한 러·북간 협정 비준심사 예정이다.

(5.2 리아 노보스티)

- 러시아 정부는 2012.1.30일 러시아와 북한간 체결된 「불법어업 방지에 관한 러·북간 협정」을 비준 심사할 예정이다.

2012.5.2(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본 협정은 해양 생물자원 보호·합리적 이용·관리 및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출입 방지 차원에서 체결되었음.
- 협정에 따라 양국 담당기관은 해양생물자원 수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는 어획 허가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극동지역 사절단, 방북 시 양국간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했다.

(4.30 zpress ☞ 극동지역 언론사)

- 김일성 100회 생일행사에 참석했던 정부·외교관계자로 구성된 극동지역 사절단 방북 후 귀국
- 사절단 대표, '방북 시 북측 러·북친선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양국간 문화관계 발전, 고등교육 상호협력 심화, 새로운 농·어업 부문 협력 프로젝트 마련 방안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언급

## 붙임 1. 美 국무부 보도자료 원문 (5.1)

### 美 국무부 홈페이지

#### "North Korea: Human Rights Abuses (Taken Question)"

- o (Q: Do we ever raise the issue of forced labor camps when we are in direct talks with the North Koreans?)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ncluding forced labor camps. Promoting human rights is a key component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how the DPRK addresses human right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spect for closer U.S.-DPRK ties.
- o Ambassador King,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ad direct discussions on human rights issue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in Pyongyang in May 2011, including with First Vice Foreign Minister Kim Kye Gwan. Both Ambassador Bosworth and Ambassador Davies raised human rights issues in their capacity a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in each round of high-level U.S.-DPRK bilateral talks.
- o In addition to raising these issues in face-to-face meetings, we highlight our specific concerns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our annual human rights report.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e call attention to specific human rights violations and with our bilateral and multilateral partners, we continue to identify areas where we can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on the ground in North Korea.

## 붙임 2. The Diplomat 원문 (5.1)

### The Diplomat 홈페이지

#### "North Korea's Resource Headache"

- o Indeed, there's evidence that changes in economic management are taking place. Instead of heralding some great reform, however, the tapping of North Korea's rich mineral and fossil fuel wealth can be seen as potentially retarding social change.
- o The new leadership recognizes that it can't rely forever on exhortations to sacrifice for the stake of security and must find a way to deliver economic results. North Korea's growing interest in exploiting resources through joint ventures can be seen in the radically increased authority

The Diplomat 홈페이지

that investment agencies have been endowed with compared to their predecessors 3 to 4 years ago, as well as in the investment pitches they've made to investors abroad.

- o Over the last few years there have been multiple organizations competing for investments, suggesting a certain degree of competition at the apex of North Korean society. Different investment agencies appear to have had different patrons and belong to different patronage networks.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have described the competition for investments as "intense."
- o As many agencies take a cut of the investments they bring in, the blurred lines between profit-seeking and regulatory responsibilities, combined with some degree of competition with rival organizations, means that a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foreign investments could degenerate into rent-seeking by rival patronage networks if the process is managed poorly.
- o Recent reports from North Korea indicate that the two main agencies dealing with investment are in greater contact with each other. The Joint Venture and Investment Committee and the Daepung Investment Group operate under new investment laws passed in 2010 and amended in January this year. These laws are North Korea's attempt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joint ventures along the lines of China's own investment laws.
- o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JVIC and Daepung will develop. Discussions with North Koreans indicate that understanding of the rule of law and property rights remains weak, that transparency is a major issue, and that much commercial activity takes place outside of the legal framework put down on paper.
- o Marketization without good governance could result in a stagnant and isolated economy, much like Burma over the last decade, as broad-based economic development is ignored while a narrow elite is enriched and existing power structures are strengthened by resource wealth.
- o North Korea's system has shown resilience to the encroachment of unofficial sources of news and information that have been growing since the mid-1990s. We might see a more internationally engaged economy, but one that's still harnessed to maintain the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s essentially as they are.



### 붙임 3.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4.30)

#### 봉황위성TV 홈페이지

“朱克奇：朝鲜不可能弃核 威慑力仅限于韩国”

- 所以在这种情况之下，如果说朝鲜不可能弃核的话，我们为什么还非得在六方会谈这个框架内来进行一个外交的活动。
- 我觉得对于朝鲜到底是有核还是无核这个问题不要太在意，实际上朝鲜就算是一个有核国家的话，应该说它现在没有投掷能力，它的那个核武器恐怕也就是吓唬吓唬韩国，它的这种核武器的威慑力对于美国来讲是不存在的，对于日本其实也不存在，包括它对于周边的一些国家实际上并不存在，当然如果说在它本土引发一个核装置的话有可能会造成一些环境上的影响，在现代社会里面即使这种环境上的影响也是不可小觑的，这是必须得去重视的一个方面，但是我觉得现在外界可能就是把朝鲜的有核还是无核看的太重了。
- 其实外界一直都希望朝鲜能够进行改革，改革是我们期待的朝鲜的一个积极的变化的一种表现，而且呢中国在这方面可以说是在推动，甚至可以说在引导，但是我们不应该忽视一个问题，就是首先改革有一个内部意愿的问题，这个意愿我们姑且先不讨论，非常重要是改革有一个外部环境的问题，就目前而言，我是还没有办法设想朝鲜能够放弃他的核武器或者改变他的那种以超强硬对强硬的这样的一种处事的方式，那么这里面可能存在着很深的矛盾，当然，矛盾虽然很深，但并不是说完全没有希望化解，这里面朝鲜需要做出自己的努力，同时所有其他的国家也需要付出努力。朝鲜本身不愿意提改革开放这个专用名词，他更愿意说是打开强盛大国之门，当然这需要激活朝鲜由内到外和由外到内的一种良性互动，我们也希望像金正恩这样的年轻人能够给朝鲜带来更多的可能性

### 붙임 4. 중국 신화사 보도 원문 (4.29)

#### 신화사 홈페이지

“中国东北赴朝鲜自驾游季节性中断后恢复运营”

- 新华网长春4月29日电（记者姚焜）记者从位于中国东北的吉林省中国青年旅行社了解到，参与今年吉林省第一批赴朝鲜自驾游的游客已于28日从琿春出关前往朝鲜。这一旅游项目自去年10月季节性中断后再次恢复运营。
- 吉林省中国青年旅行社经理江浩介绍说，由于冬季冰雪路面不利于行车安全，去年开通的吉林至朝鲜自驾游项目在10月暂停。今年4月28日，朝鲜自驾游项目恢复，第一批游客已经从琿春圈河口岸过关前往朝鲜。

### 신화사 홈페이지

- 这一批共有22辆车，4月30号返回国内。因为朝鲜5月1日、2日两天放假，因此海关关闭。如果朝鲜5月3日开放海关，今年第二批朝鲜自驾游将会出发，目前车辆数目未定。”江浩说。
- 据了解，朝鲜自去年5月末开始允许中国游客对招商引资的窗口城市罗先特别市进行自驾游。中国游客可开车越过中朝边境，游览罗先一带。
- 吉林省首批朝鲜自驾游团队于去年6月成行，车主直接驾车到达琿春，经圈河口岸进入朝鲜，参观罗津港口、乘船游览罗津湾等。去年6月至10月，共有三批中国游客近50辆车经圈河口岸进入朝鲜旅游观光。
- 江浩介绍说，目前这一旅游项目的团费从每人1580元至1980元人民币不等。“朝鲜国内道路状况十分不好，去年只有越野车可以通行。今年年初，新修整的二级公路通车，目前普通轿车也可以参团游览朝鲜。”江浩说。

## 붙임 5.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 원문 (5.2)

###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金第1書記: 6 幹部の肅清取り消し 正日体制の判断覆す”

- 北朝鮮の金正恩 (キム・ジョンウン) 第1書記は最高指導者就任直後から、治安機関などに、生活苦により不平不満の声を上げる住民を処罰しないよう訴えてきた。その後も「人民愛」「慈愛」を強調した施策を次々に打ち出しており、今回の「肅清再調査」もその一環のようだ。指導者としての実績の乏しさを「慈愛」によって補おうとの意図がうかがわれる。
- 金第1書記は、資本主義的手法の取り入れを含めた経済論議を促すなど、大胆な国内改革を模索しているとみられる。先月13日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失敗を潔く認めたのに加え、就任早々に肉声を披露した。北朝鮮内部でも「変化」に対する期待感が高まっているようだ。
- ただ「慈愛」政策を次々に繰り出すことは、父親の金正日 (キム・ジョンイル) 総書記が進めてきた「恐怖による統治」のひずみを露呈させることにもつながる。金第1書記自身が権力継承の際に宣言した「金総書記の遺訓貫徹」から逸脱することになり、権力継承の正統性が否定されかねない。金第1書記は側近らによるクーデターに強い危機感を抱いていることも判明し、国内や中朝国境の取り締まりを強化しているとの情報もある。
- 金第1書記は遺訓を踏襲しつつ、国内改革に踏み出せるか。その整合性をつけることが迫られている。

## 붙임 6.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5.1)

지지통신 홈페이지

“出張屋台で正恩体制に忠誠=収益は上納-朝鮮総連”

- 北朝鮮が4月15日に行った故金日成主席生誕100周年の祝賀行事に関連して、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が平壤市内の4カ所に約140の移動式屋台を展開したことが、1日明らかになった。金正恩体制への忠誠を示すため、収益は上納されるとみられる。
- 参加した朝鮮総連幹部がひそかに写真を撮影し、NGOの「救え！北朝鮮の民衆 / 緊急行動ネットワーク（RENK）」が公表した。

## 붙임 7.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5.2)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Кабмин РФ обсудит создание информсистемы торговл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РФ рассмотрит также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ратификации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РФ и КНДР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незаконного, несообщаемого и нерегулируемого промысла живых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Проект закона внесен МИДом совместно с Росрыболовством.
-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двух стран направлено на сохранение, рациона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 регулирование живых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принятие мер в целях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незаконного, несообщаемого и нерегулируемого промысла живых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а также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незаконного вывоза и ввоз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объектов живых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уловов живых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и продукции из них.
-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глашением компетентные органы сторон выдают сертификат на вывозимые с их территорий объекты живых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Документ будет подтверждать зако

##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нность добычи или вылова этих живых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Копия такого сертификата направляется компетентному органу стороны, на территорию которой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ввоз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 При ввозе объектов живых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компетентные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сторон будут проверять оригинал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импортером сертификата на соответствие его копии, направленной другой стороной.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верки принимается решение о ввозе или запрете ввоза объектов живых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на территорию государства.
- Соглашением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что порядок выдачи сертификата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государств-сторон. Вместе с те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РФ выдача такого сертификата и порядок его выдачи не установлены. В связи с этим оно подлежит ратификации на основан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ах РФ".

## 붙임 8. 러시아 zpress 보도 원문 (4.28)

## zpress 극동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Приморцы отметили юбилей Ким Ир Сена в Пхеньяне”

- Делегация находилась в столице КНДР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Комитета помощи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ам по случаю 100-летнего юбилея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вожд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товарища КИМ Ир Сена. В её состав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корпуса,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амчатки, Сахалина, Приморья,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а также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во главе с епископом Уссурийским Иннокентием, викарием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епархии.
- В ходе визита в КНДР глав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делегации Валентин Пак встретился такж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тета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й дружбы Верхов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Хон Со

zpress 극동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ХЫНОМ. В ходе беседы обсужда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активного содей ствия - на уров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арламента КНДР 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 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 в ра звитии культурных отношений , углублении взаимного сотру 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креплять связи с ДВФУ), а также разработке новы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в сфе 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 ства, марикультур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중국어권

○ 北, 한국에 사이버 공격할 것이다.(5.2 대련TV방송)

- 「박건일」(중국 사회과학원 亞太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주임),

- ‘4.25일 북한 리영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수위 높은 대남 비난을 했는데 이는 어떤 상황下에서라는 전제가 있다.’
- ‘최근 한국은 북한을 모욕하고 자극하는 일련의 행동을 했지만 중국 언론은 이를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 ‘북한을 모욕하고 자극하는 행동에 대해 북한 또한 분명히 반응을 보일 것이다.’
- ‘4.23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대남 특별 행동을 곧 개시한다면서 강력한 현대화 무기를 언급했다.’
- ‘현대화 무기는 대규모 살상무기가 아닌 전자기술로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2~3분 내에 서울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은 북한의 방식으로 상대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
- ‘또한 현재 사이버전은 국제적인 규칙·법률 체계가 없으므로 북한은 이러한 틈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인터넷 체계는 폐쇄되어 있으나 언제든지 대외 공격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불가능함.’
- ‘이에 정부기관을 포함한 한국의 전체 인터넷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몇 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북한 식 聖戰일 것’이라고 주장

## □ 영어권

### ○ 미국은 중국측에 北 미사일 지원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5.1 더 힐 ☞ 미 의회 전문지)

- 「에드 로이스」(美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
  -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과의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베이징 美·中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 의혹을 북한에 제기해야 한다.’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팽배하나, 중국의 관대한 지원 없이는 어떤 노력도 불가능하다.’
  -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미사일 중 일부는 가짜이지만 바퀴 16개가 달린 미사일 발사대 차량은 가짜가 아님이 확실하며, 전문가들은 이 차량이 중국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의 가장 큰 무기 공급처였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차량은 중국 국영 우주과학기술그룹 산하의 기업에서 제작됐으며, 이는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아야 한다.’
  - ‘당시 거래에 이용된 중국측의 은행들도 제재 대상’이라고 주장

### ○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5.2 더 힐 ☞ 미 의회 전문지)

- 「빌 존슨」(美 하원의원 [공화·오하이오])

- ‘미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양보를 기대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도발로 대응해 왔다.’
- ‘북한이 5월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어떤 결과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2012.5.3(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은 북한이 장기적인 불안정을 지속시킬 뿐이다. 미국은 대북 정책을 재평가하고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

○ 북한 외에 무기금수 결의 위반 해외 국가도 제재해야 한다.

(5.2 Heritage Foundation)

-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지 재단 동북아 선임연구원),

- '미국이 중국 트럭 제조업체의 UN 결의 위반 여부 판별을 위해 중국 당국을 압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UN이 북한 외에 다른 위반 국가에도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UN 회원국들은 대북 무기금수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 또는 해외 개인, 기업, 정부기관의 자산을 동결함으로써 UN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 '현재까지 UN과 미국은 북한에만 제재를 가하고 있다.'
- '중국은 계속해서 UN의 강력한 행동을 저지할 것이므로 미국은 대북 무기 확산 공모에 대한 자체 제재를 가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미국은 계속해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개발, 배치하고 국방비 삭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역내 미사일 네트워크와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다층(multilayered)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러시아 국방부,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선부른 판단 이른다.


(5.2 인테르팍스)

- 「아나톨리 세르듀코프」(러 국방부 장관),

-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정보를 분석·수집중이지만 아직 선불리 결론 내리기 이른다'고 언급



○ 북한 내 아사자 발생 보도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5.3 러시아스에 베스트  주간지)

- 「올렉 키리야노프」(한반도 문제 전문가),
  - ‘미국의 식량지원을 받은 후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최근 행보는 이해되지 않는다.’
  - ‘로켓발사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북한 지도부 내 파벌(강경 對 온건) 갈등, △김정일의 유흔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 ‘로켓발사 실패 원인과 관련,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자력으로 우주분야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국제제재를 받는 북한의 경우 기술·재정적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 ‘북한 로켓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4.13 발사의 경우 연료공급 시스템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다.’
  - ‘대북제재 강화 상황에서 북한은 로켓발사 보다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더 크며, 대남 도발을 감행 및 남·북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정은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북한이 조만간 급진적인 경제전환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북한 내부적으로 개혁은 체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지역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의 투자자 유치와 같은 변화는 있을 수 있다.’
  - ‘기근 문제와 관련, 순수 북한의 기준에서 봤을 때 최근 몇 년간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목격자들에 따르면, 평양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최근 2~3년간 북한 내 삶의 수준은 제고됐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옷도 더 잘 입고, 식당과 카페도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확산되기 마련이다.’
  - ‘일부 국제단체가 북한 내 기근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은 식량을 무상 공급 받기를 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더 많은 원조를 받으려 한다.’

2012.5.3(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국제기구의 경우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재원충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재적 공여국들에게 조금은 과장되게 발표한다.'
- '북한 내 기근문제는 있으나, 아사자의 발생과 같은 보도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 미국의 새로운 MD 구상은 러시아의 핵 파워 약화가 목적이다.

(5.3 리아 노보스티)

- 「루슬란 푸호프」(러 전략기술분석센터 소장),
  - '북한 및 이란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위협예방 차원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MD 구상 주장은 사실이지만, 제한적인 성격을 띤다.'
  - '사실상 전방위 형태의 MD완성을 위한 기술적 근간 마련과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핵 파워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김정은을 읽는 4가지 키워드 (5.3 NNN.ASIA 「고미요지」 기고문)

- 김정은을 읽을 수 있는 4가지의 키워드로 △후광정치, △나이 콤플렉스, △승부욕, △스위스 유학 등을 들 수 있음.
- 4.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에 맞춰 실시된 연설에서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을 각각 17회 언급했고, 이 외에 혁명(46회), 인민군(22회), 군사우선(11회) 등 호전적 단어를 자주 언급함.
- 이에 비해 인민생활(4회), 경제(3회), 산업(2회) 등 서민생활에 관련된 단어는 얼마 안 나옴. 앞으로도 김정일이 구축한 군사 우선노선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이며, 군사력으로 지킨 나라의 안전과 안정이 우선이고, 주민생활은 그 다음이 될 것임.
- 29세인 김정은에게는 나이 콤플렉스가 있을 것이며, 통치경험도 없는 김정은이 주변 사람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임.

2012.5.3(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김정은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지시를 난발하고 있지만 간부들은 통치경험이 없는 김정은의 콤플렉스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함부로 반대의견을 낼 수 없다고 함.

탈북을 막기 위해 中·北국경의 인적·물적 왕래를 엄격하게 규제해 지방도시가 기능마비에 빠지고, 평양 교외에 간부들을 초대하기 위한 대규모 별장을 짓기 위해 주민들을 대량 동원해 지방 간부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함.

김정은의 승부욕은 13년간 김정일의 전속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음.

외교협상에서도 항상 승리에 집착한다면 자신의 요구를 실현 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방심할 수 없는 사태가 이어질 것임.

김정은은 17살에 평양에 돌아왔을 때 후지모토와의 술자리에서 '유럽이나 일본에 가면 식량이 쌓여있는데 북한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고민했다고 함.

김정은은 9년간의 풍요로운 해외생활로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김정은이 개혁을 해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또한 전국을 시찰할 때에도 군인들과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개방적인 지도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함.

그러나 식량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정권안정이 제 1의 과제이므로 자신의 색을 드러내기에는 당분간 어려울 것임.

## 붙임 1. 中 대련 TV 방송국 신문 보도 원문(5.2)

### 대련 TV 방송국 홈페이지

“朴健一：朝鲜将网络攻击韩国 ”

- 25号的时候，我们注意到次帅李英浩称朝鲜装备了强大的现代化的武器，一击便可以击溃美帝国主义，并且誓言要发动圣战报复李明博集团，那么朝鲜在宣布放弃朝美协议和发表社论谴责美国双重标准之后，您认为朝美、朝韩以及整个半岛局势将会向着一个怎样的方向去发展？我们不能光看朝鲜自己说的这几句话，而且我们的媒体可能不习惯于做这种更深刻的分析，朝鲜李英浩的讲话是比较长的，他还有前提，在什么什么情况下如何如何如何，那么现在朝鲜的矛头主要针对不是美国，很清楚是针对韩国来的。韩国在这段时期干了很多不像话的一些事情，那么对朝鲜做了一个很大的刺激性的行动。
- 我们国内媒体，包括报纸、电视、广播，都没有好好讲讲韩国人做了什么，那么从朝鲜角度来讲，对朝鲜来讲是非常大的侮辱，所以朝鲜肯定要做出一个反应来的，而且我们看到23号的时候，朝鲜人民军最高司令部特别作战处来讲的这个话，我相信朝鲜肯定要采取行动的，那么采取什么样的行动？刚才讲到朝鲜方面讲，它有强大的现代化的武器，那么现代化的武器指的是什么？
- 这里边可能不光是指的这种毁灭性的、大规模杀伤性武器这种东西，我们也可以把像电子技术这样的东西，也作为现代化武器当中的一个。所以从现在情况来讲，我可以用两三分钟的时间，让整个汉城瘫痪掉。我觉得从目前情况来讲，按照朝鲜的作战方式给对方一个强大的打击的话，很可能是一种网络的攻击方式，
- 那么我们知道到现在为止，我们还没有看到说国家和国家之间通过网络开战，所以说在网络战争这个方面，目前国际上还有很多该做的事情没做的，比如建立一堆规则、法律体系等等，对朝鲜来讲，这个是可以利用的很大的一个漏洞。朝鲜可以攻击韩国，但是韩国攻击不了朝鲜，目前朝鲜它构建起整个网络体系来讲，它首先是封闭的，但是它随时可以打开一个窗口对外进行攻击的。但是韩国方面攻击朝鲜，目前来讲理论上是做不到的。
- 所以我比较关心的是，今后一段时间，突然在两三分钟内，韩国的整个网络系统，包括政府国防军队的整个网络系统的瘫痪，这也可能就是一个朝鲜说的圣战当中的闪电式的，几分钟之内解决问题的办法。

## 붙임 2. 美 더 힐 게재 원문 (5.1)

美 더 힐 홈페이지

“Our North Korean policy has become based on blind trust”

- o Top U.S. officials - including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 are in Beijing this week for the latest installment of the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With Iran, North Korea, trade - and now an escaped blind human rights activist - there is certainly plenty to talk about.
- o In preparing, U.S. officials were doing their best to spin the two countries as being in sync. Friday morning, the New York Times ran a page one article, “U.S. Sees Positive Signs From China on Security Issues.”
- o Quite the headline. Especially considering it comes only weeks after North Korea attempted a missile launch. Most believe a third North Korean nuclear test could come very soon. Neither effort would be possible without China’s generous subsidies.
- o It gets even more awkward given North Korea’s 100th birthday bash for founder Kim Il Sung, when missiles were paraded through Pyongyang. Some might be fakes, but definitely not fake was the 16-wheel truck launcher. Top experts say it was likely based on a Chinese design, whose transfer would have required a sign-off from Beijing.
- o Reuters reports that the Chinese firm that provided North Korea with the body of the transport vehicle is pretty open about the transaction, a violation of U.N. sanctions. Historically, China has been one of North Korea’s largest arms suppliers.
- o Some make the excuse that China can’t quite control all the companies on its territory, but this particular company is a subsidiary of state-owned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 o Instead of an “at their word” policy, Chinese companies violating U.N. sanctions should be identified and sanctioned. Crucially, the Chinese banks that facilitate the sales should be targeted.

### 붙임 3. 美 더 힐 게재 원문 (5.2)

美 더 힐 홈페이지

"It is time to reevaluate America's North Korean policy"

- o This behavior has been exhibited by North Korea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enters into talks with North Korea in the hopes of extracting some sort of concession o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and, inevitably, North Korea tires of negotiations and responds with a provocation of some sort.
- o With each failed launch, North Korea learns from its mistakes building up to the moment when they will have fully functional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dditionally, there are growing expectations that North Korea will conduct a third nuclear test in May reinforcing the idea that North Korea believes there are no consequences for its provocation.
- o Appeasement through engagement will only ensure that North Korea remains a breeding ground for long term instability in the region for decades to come. It is time to reevaluate and change course.

### 붙임 4. Heritage Foundation 게재 원문 (5.2)

Heritage Foundation

"Don't Let North Korean Missile Debate Obscure Real Issues"

- o While Washington should press Beijing for details to determine if the Chinese truck manufacturer violated U.N. resolutions, more importantly, the U.S. should insist that the U.N. target secondary (i.e., foreign) violators. U.N. member nations should fully implement existing U.N. resolution requirements to prevent North Korea's procurement and export of missile-related and WMD-related items and technology by freezing the financial assets of any involved North Korean or foreign person, company, or government entity. To date, U.N. and U.S. efforts have focused on North Korean entities.

Heritage Foundation

- o Since China will continue to impede sufficient U.N. action, Washington should independently impose U.S. sanctions on any company or government agency complicit in North Korean proliferation. Washington should then call on other nations to similarly target North Korean and foreign proliferators, as well as those engaged in North Korean illegal activities, such as currency counterfeiting and drug smuggling.
- o In light of this growing missile threat, the U.S. should continue to develop and deploy missile defenses and reverse planned budget cuts. Washington should also call on South Korea to deploy a multilayered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s interoperable with a U.S. regional missile network in order to provide for a more coherent and effective defense of allied military facilities and the South Korean populace.

**붙임 5. 러시아 인테르팍스 보도 원문 (5.2)**

인테르팍스 통신사 홈페이지

“Секвестра гособоронзаказа не будет”

- o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Ф Анатолий Сердюков рассказывает "Интерфаксу" о гособоронзаказе, соглашениях по Черноморскому флоту и неудачах в косм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Появились сообщения,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может провести очередное испытан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Мы собираем информацию, анализируем ее, но пока делать выводы преждевременно.

**붙임 6. 러시아 러시아스키예 베스티 보도 원문 (5.3)**

러시아스키예 베스티 주간지 홈페이지

“Олег Кирьянов: КНДР на удивление легко и спокойно прошла период смены руководства ”

- o Как это бывает с КНДР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гда, у нас нет полной информации, а потому приходится во многом строить дога

## 러시아스키예 베스트리 주간지 홈페이지

дки. Дей ствительно, если смотреть с позиций внешнего наблюдателя, то поведения Пхеньяна выглядело несколько нелогично. Казалось бы, если уж так надо Пхеньяну произвести запуск, то можно было хотя бы хоть что-то взять от Вашингтона: получили бы часть помощи, а потом и запуск устроили. А так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е получили, и отношения со всеми ухудшили. Это, надо признать, остается загадкой до сих пор. Есть версия о том, что в верхушке КНДР идет борьба между какими-то фракциями: одни выступают за диалог с США 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а другие – «ястребы» – предпочитают пока стучать кулаком по столу. Другая версия, что решение произвести запуск именно в период торжеств 100-летнего юбилея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Ким Ир Сена принимал еще покойный Ким Чен Ир. А потому сын не мог не выполнить завет отца. Кстат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раньше уже говорила Соединенным Штатам в ходе двусторонних контактов, что намерена запустить спутник.

## 붙임 7.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5.3)

##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Цель новой ПРО - обезценивание ядерных сил РФ, считают эксперты”

- "Современная система ПРО США дей ствительно в своей основе нацелена на отражение ракетных угроз со стороны "стран-изгоев". Однако очевидно, что подлинные цели масштабных работ в США в области ПРО носят куда более далеко идущий характер. И любые уверения США о "не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ПРО" против России заведомо несерьезны, поскольку абсолютно й конечной целью всех программ ПРО США является достижение полной неуязвимости территории США от любого ракетно-ядерного удара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полное обезценива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ядерных сил России".
- "Ограниченные варианты 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О, при том что они пока что дей ствительно направлены против ракетного ору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з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Ирана, являются по сути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ми и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ми, имея целью создан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базиса для создания в будущем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системы ПРО национ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США".

**붙임 8. 일본 NNN.ASIA 보도 원문 (5.3)**

NNN.ASIA 홈페이지

“金正恩を読む4つのキーワード”

- 4月に行われた一連の会議で、北朝鮮の若き指導者金正恩氏は、朝鮮労働党の第一書記、国防委員会の第一委員長というポストに就いた。第一という名前はついてはいるが党の規約や憲法の改正によって、この2つのポストは、最高権力を意味することになった。つまり、名実ともに、29歳の新指導者が国家の顔になったわけだ。公の場への露出も増えているが、まだまだ謎の多い彼は何を指すのか。
- 4つのキーワードで読み解いてみる。それは(1)七光り政治(2)若きコンプレックス(3)勝負欲(4)スイス留学だ。
- まず、七光り政治。先月15日の祖父金日成主席100周年にあわせて約20分間の演説を行った。演説スタイルは祖父を意識したと評価されているが、正恩氏はそれぞれ17回金日成、金正日について名前に言及している。
- このほか革命(46)、人民軍(22)、軍事優先(11)などの好戦的単語が頻出する。
- これに対して人民生活(4)経済(3)産業(2)など、庶民生活に関連する単語はわずかしかない。今後も、父の金総書記が築いた軍事優先路線を守っていくのは間違いない。軍事力に守られた国の安全、安定が優先であり、住民生活は二の次となるだろう。
- まだ29歳とされる正恩氏には、間違いなく若きコンプレックスがあるはずだ。周囲にいる北朝鮮の幹部クラスは若くて60代、父親と同じほど年齢の差がある。統治経験もない正恩氏は、周囲の言いなりになって物事を進めるのではないかとの見方が多かった。現実には逆のようだ。
- 韓国紙・東亜日報が、韓国政府筋の話として伝えたところによると正恩氏が現実を考慮しないむちゃな指示を乱発しているが、幹部らは、統治

## NNN.ASIA 홈페이지

経験がないという正恩氏のコンプレックスを逆なでしてはいけないと氣を使い、うかつに反対意見を出せないという。

- 産経新聞によれば、一方で脱北防止のため、中朝国境の人や物の流れを厳しく規制し、地方都市は機能麻痺に陥り、平壤郊外に、幹部らを招待する大規模な別荘地を造るため、住民を大量動員し、地方の幹部から批判が上がっているという。15日に行った演説からも、若さが垣間見える。体を揺すり、落ち着きがなかった。もし、正恩氏に父親か母親がいれば、忠告しただろうが、残念ながら二人とも他界してしまった。
- 勝つことへのこだわりについては、13年間金総書記の専属料理人であった藤本健二氏の証言が手がかりになる。
- 藤本氏は「正恩氏はバスケットボールをする時も格別だった。競技が終わった後、兄の正哲氏は友人らに挨拶してそのまま、その場を立ち去ったのに、正恩氏はコーチのように友人らを呼び集めて、ゲームを分析していた」と話している。「野心に満ちて断固たる性格」とも評している。
- 外交交渉でも常に勝利することを目指すとすれば、かなり危険だ。自分の希望を実現するために、あらゆる手段を使ってくる可能性があり、油断できない事態が続くだろう。
- 前出の藤本氏によれば、平壤に戻った正恩氏が17歳のころ、北朝鮮の元山にある招待所で藤本氏とウォッカを飲んでいた。
- 「我々は毎日こうやってジェットスキーや乗馬などを楽しんでいるが、一般人民は何をしているだろう。欧州や日本に行けば、食料が山積みになっているが、北朝鮮には何もない」と悩んでいたという。豊かな海外生活で、北朝鮮の困難な実情はよく知っているはずだ。
- そのため、住民の中には「いつか、正恩氏が大きな改革をして、経済を建て直してくれるはずだ」との期待がある。事実、先月13日に「人工衛星」打ち上げ失敗について、わずか4時間半後に、その事実を認めている。これは正恩氏自身の決断だったと伝えられる。
- また、全国を視察する際にも、わざわざ軍人の輪に入って、手を握りながら記念写真に収まるなど、開放的な指導者を目指しているようだ。
- しかし現実には簡単ではない。食料事情も厳しいなか、政権安定が第一の課題なので、自分色を出すのは当面難しいだろう。

2012.5.3(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중국어권

○ 한반도 비핵화는 꿈일 뿐이다. (5.3 홍콩 봉황위성TV)

- 「쉐리타이」(미국 스탠포드대학 국가안보협력센터 연구원),

- ‘현재 북한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제적 환경과 내부 수요에 의해 지하 핵실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 ‘이는 핵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리스크보다 크기 때문에 유혹적이다.’
- ‘핵탄도미사일은 유지비용이 적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결합(핵+탄도미사일)은 小國·가난한 나라 국정에 부합한다.’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있다.’
- ‘국제사회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기정노선대로 걸어가고 있다.’
- ‘북한은 현재 핵무기 소형화와 장거리미사일 기술 완성, 즉 실전에 쓰일 수 있는 핵탄도미사일 보유를 위해 뛰고 있고, 결국 이에 관한 기술적 난관도 극복할 것이다.’
- ‘현재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가난하지만 북한은 고집대로 나갈 것이므로 두 가지 결합이 큰 어려움은 아니다.’
-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보유에 관해 美·中은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려 할 의지도 힘도 없어 보인다.’
- ‘오래 지나지 않아 북한은 위협력은 커지고 비용은 낮아진 핵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다.’
- ‘그렇게 되면 韓·美·日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간섭,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 ‘이로써 한반도의 비핵화 전망은 암담하고 한반도의 핵무장, 핵탄도미사일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다.’
-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북한의 주변국들은 핵탄도미사일 보유국 북한과 어떻게 교류할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북한 핵 실험 시, 러시아는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5.3 이즈베스티야)

- 전문가들, 북한 보유 농축우라늄으로 3~6개 핵폭탄 제조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3차 핵실험 후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구사항도 달라질 것임.
- 이 경우 현재와 같은 식량·필수품 공급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북한과의 협력 전면 금지 혹은 직접적인 군사압력 가능성 있음.
-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크레믈린 측에서도 강경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며,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임.

○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한 ‘망상’이다.

(5.3 리아 노보스티)

- 「익명의 크레믈린 고위급 관계자」(메드베데프 정권 4년간 대외정책 보좌),
  - ‘러시아 대외정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정관념 중 하나는 러시아가 북한체제를 지원한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 ‘김정은과 아직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의견교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최근 북한의 결정은 협잡꾼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실패했지만, 로켓발사는 단순히 말해 불필요한 행동이다.’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을 반미주의의 상징처럼 생각해, 러시아가 필요에 의해 대북 지지를 한다는 것은 헛소리이다.'
- '북한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여타 그 어떤 국가보다 북핵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줄곧 핵실험 불허용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

○ 러시아 軍,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은 과장됐다.

(5.3 리아 노보스티)

- 「니콜라이 마카로프」(러시아군 총참모장),

- '북한과 이란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현재와 같은 국제적 제재를 하는 상황 속에서 ICBM을 실전 배치하는 것은 아주 힘든 과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

○ 러시아 軍, 북한과 이란은 장거리 미사일 아직 보유 못했다.

(5.3 리아 노보스티)

- 「이고리 세르군」(러시아군 총참모부 정보국장),

- '최대사거리 5,500km 이상급 ICBM 및 관련기술은 공식 핵보유국들만이 보유하고 있다.'
-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이스라엘, 인도, 이란, 북한, 파키스탄과 같은 선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들만 보유하고 있다.'
- '이들 국가는 역내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자처하지만, 공식 핵보유국에는 속하지 않는 국가이다.'라고 주장

## □ 영어권

○ 北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상 관련 보도 (5.3 AFP)

-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는 반체제 인사가 아니라, 식량과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갇혀있음.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한 여학생은 외국인들과 서양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은 한국가요를 부른 이유로 감금됐고, 아버지가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을 잊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수용소에 갇히기도 함.
  - 1990년대 중반~2005년 수감된 278명 가운데 60명은 식량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탈북하거나 한국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며, 27명은 일본에 살다 북한으로 이주한 한국계 사람이었음.
  - 29명은 가족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혐의로, 5명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들어왔음.
  - 30명은 지도부의 존엄성 훼손·자본주의 찬양·국가비밀 폭로·부패 관여 등 북한 정권을 비평했다는 이유로, 나머지는 간첩 혐의로 수용되었음.
  - 국제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난 수십년간 기아·과로·처형 등으로 40만명의 수감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 북한 내 휴대폰 증가로 은둔의 왕국을 벗어날 것이다.

(5.1 Financial Times)

- 한국에 거주하는 한 탈북자에 의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필수한 중국 휴대폰을 언덕에 묻어두고 정해진 시간에만 땅을 파서 매주 한국으로 전화를 건다고 함.
- 2010년 한국으로 건너온 다른 탈북자는 5분 이상 통화할 경우 추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만 통화한다고 함.
-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은둔의 왕국'을 넘어 점점 세계와 연결되고 있음.
- 북한에는 두 종류의 휴대폰 사용자가 있는데 하나는 접경 지역에서 국제 통화가 가능한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고 중국의 지인 등이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임.
- 더 많이 이용되는 것이 오라스콤 통신망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며, 국제통화는 할 수 없지만 국내 정보 확산에 기여함.

- 「안드레이 란코브」(국민대 교수),
  - ‘몇 개의 공중전화기가 전부였던 시절처럼 완벽히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을 당국도 받아들여야 했다.’
  - ‘당국이 도청을 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증가하는 통화량을 다 소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휴대폰이 이미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면 과장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
- 「스캇 브루스」(노틸러스 연구소장),
  - ‘북한은 완전한 통제를 버리고 중국처럼 정부가 소수를 본보기 삼아 나머지도 따라오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다.’
- 최근 평양 방문자들은 상당수의 허름한 옷차림을 한 일반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고 함.
-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도 최근 북한의 미래에 대한 강의에서 일반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결국 휴대폰이 북한 체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日 외상, 북한 제재 실효성이 중요하다. (5.4 아사히신문)
  - 「젠바 외상」, ‘북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수보다도 실효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 북한이 엄중히 받아들여 또 다른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한류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고영희의 숨겨진 인생 (5.4 산케이)
  - 고영희의 부친인 고경택은 ‘지상낙원’이라는 이상을 좇았기 보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북한으로 도망감으로써 복잡한 여자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한 현실주의자였음.



2012.5.4(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고경택은 김정일과 딸의 동거 덕분에 '만수대기념품공장'의 고문지배인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앉았으며, 86세까지 천수를 누렸음.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1980년경 고영희의 출신을 아는 재일 귀국자들이 잇달아 행방불명이 됨. 고영희가 재일 귀국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숙청된 것으로 보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꺼번에 고영희의 우상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는 추측이 나왔지만 올해 2월에 등장한 '평양의 어머니'라는 표현 이후 현재까지 눈에 띄는 묘사가 없음.

## 붙임 1.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5.3)

### 봉황위성TV 홈페이지

#### “朝鲜半岛无核化成为梦幻泡影”

- 当前在平壤决策者心目中，无论从国际大环境衡量，还是从内政需要着眼，再次进行地下核试爆，均有其必要性，而风险远不能抵销着手核试爆所带来的诱惑。
- 如今朝鲜拥有核航弹了。然而，一支核导弹部队在对敌国实施核突袭时的突防能力，远比一个运载核航弹的轰炸机中队更加令人恐怖。何况，核导弹部队的维持费用要比运载核航弹的轰炸机中队低许多。“两弹（核弹和导弹）合一”尤其适合铁了心要拥有核武器的小国、穷国的国情。
- 平壤拥有核导弹，为其国策所决定。朝鲜研制核武器的进程有时表现为迂回曲折，宗旨却不受干扰。既然当前国际社会无从提供够多的胡萝卜，也无力祭起够重的大棒，则平壤仍可沿着既定的路线走下去。
- 平壤正在双管齐下，谋求核武器小型化和远程导弹技术完善化，亦即早日争取核弹、导弹“两弹合一”，拥有能够用于实战的核导弹。朝鲜专家持之以恒，自然会突破核弹、导弹“两弹合一”的技术瓶颈。如今朝鲜固然民穷财尽，可是平壤一意孤行的话，稍假时日，“两弹合一”应该是不成问题的。
- 在朝鲜拥有核导弹之前，美、中两国似乎均无力也无意愿“挽狂澜于既倒”。不久以后朝鲜应当拥有核导弹，其直接结果是其核威慑效能提高不少而维持成本却降低许多。朝鲜拥有核导弹以后，今后美国、日本、韩国就更不可能对朝鲜大动干戈了。
- 鉴此，朝鲜核问题将发生质变。朝鲜半岛无核化的前景非常暗淡，可以说朝鲜半岛核武器化甚至核导弹化成为一个不可逆转的趋势了。今后，美国及朝鲜邻国要作好如何同一个拥有核导弹的朝鲜打交道的精神准备了。

## 붙임 2.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보도 원문 (5.3)

### 이즈베스티야 일간지 홈페이지

####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дготовила новое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КНДР располагает запасами обогащенного урана, которых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произвести от трех до шести атомных бомб.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у

**이즈베스티야 일간지 홈페이지**

ченые и военные ожидаю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решения на проведение теста от политиче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 После третьего за последние шесть лет испытания ядерного заряда станет ясно, что КНДР — атомная держава, и тогда спрос с нее будет другой, — считает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В этом случае можно будет говорить уже не только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поставок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предметов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что предусмотрено действующим и санкциями ООН, но и о полном запрет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третьих стран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а также о прямом военном давлении. Судя по тону зая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не намерено давать спуска Пхеньяну в случае, если северные корейцы все же решатся на новое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Аналогичная позиция и у Китая. При таком раскладе более жесткие санкции и иные меры давл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в Совбезе ООН будут приняты, скорее всего, единогласно.

**붙임 3.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5.3)****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В Кремле называют иллюзией поддержку КНДР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 "С Ким Чен Ыном (новым лидером КНДР) мы пока прямого контакта не имеем. Мы с ним не общались. Но очевидно, что последние решения - это решения жуликов и наперсточников. Это решение о запуске ракеты, который, слава Богу, закончился именно так, как закончился, оно было, мягко говоря, ненужным. Есть резолюция ООН, где написано четко, что запуск и люб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недопустимы".
- Как отметил источни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ичего России хорошего не сделала, а политика КНДР - блеф, угрозы и шантаж. "И цепляются за них как за символ поддержки антиамериканизма. Он зачем нам нужен, этот символ? Это бред. Изначально мы всегда говорили, что любые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неприем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лемы. Мы больше, чем американцы, чем кто-либо, озабочены ядерными вопросам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ни же у нашей границы. Это, пожалуй, одна из самых главных иллюзий, что мы их поддерживаем".

**붙임 4.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5.3)**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Ракетная угроза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и Ирана преувеличена - Генштаб ВС РФ”

- "Признавая, что в этих странах реализуются программы создания ракет меньшей и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мы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принятие на вооружение Пхеньяном и Тегераном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 задача крайне трудновыполнимая, если реализуемая вообще в условиях действ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 сказал Макаров.

**붙임 5.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5.3)**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у Ирана и КНДР пока нет - ГРУ”

-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ми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с дальностью поражения более 5,5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и технологией их создания обладают только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нные ядерные державы", - сказал он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 Москве. По его словам, анализ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обладает лишь не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тран - "это Израиль, Индия, Иран,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акистан, которые имеют развитые ракетные программы, претендуют на региональное лидерство и не входят в состав официальных ядерных держав".

## 붙임 6. AFP 보도 원문 (5.3)

### AFP 홈페이지

"N. Korea camps house the desperate, not dissidents"

- o A new report on North Korea's notorious political prison camps shows that many of those jailed in recent decades were desperate people seeking food or work overseas rather than dissidents.
- o Other offences were even more trivial, it says: one female former student was serving a term for having a western-style dance with a foreigner, another student was incarcerated for singing a South Korean song.
- o An entire family was thrown into a camp after the father forgot to refer to the state's late founder Kim Il-Sung as "Great Leader" during an ideological session.
- o It lists the names of 278 people in the camps between the mid-1990s and 2005 and information on their offences. Among the 278, about 60 prisoners -- the largest single category -- were being punished for fleeing the impoverished country in search of food and work abroad or for trying to escape to South Korea.
- o Twenty-seven of the inmates were ethnic Koreans who had settled in the North after moving from Japan. Five people were imprisoned for Christian worship while 29 were "guilty by association" -- serving time because of alleged offences committed by family members.
- o About 30 were jailed for making critical comments about the regime, "defaming the dignity" of leaders, praising capitalism, disclosing state secrets or engaging in corruption. Others were held on espionage charges or for their political beliefs.
- o Last month a group called 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estimated that 400,000 inmates of the camps have died in the past few decades from starvation, overwork or execution.

## 붙임 7. Financial Times 원문 (5.1)

### Financial Times

"Mobile phones help weaken N Korean isolation"

- o Every week, Mrs Ri, a North Korean defector now living in Seoul, receives a call from her family back home. To make the calls, Mrs

Financial Times

Ri's relatives must run an elaborate gauntlet to call abroad on a Chinese mobile phone, smuggled in over the border. Fearing they could be shot if it is found in their home, they wrap the device in a plastic bag and bury it on a dusty hillside, digging it out to speak only at pre-arranged times. "You mustn't talk more than five minutes. That's how they can trace you," said another North Korean, who defected in 2010.

- o Despite these risks, North Korean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nnected to the world beyond their hermit country, where most foreign media are banned and the internet is virtually inaccessible. North Korea has two types of mobile user. In the northern border areas, people use Chinese phones, which enable them to call abroad. Friends or fixers in China pay the bills. Far more widely used are the phones operated by Egypt's Orascom, which cannot take international calls, but do aid the spread of information around the country.
- o Andrei Lankov, a professor of North Korean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said the state had to accept it could no longer monitor everyone, as it could in the days of only a few public phone boxes. "The authorities do their best to eavesdrop but they can hardly digest such a volume of traffic," he said.
- o North Korea will forsake "total control" and would shift to a model where "the government makes an example of a select group to try and force the rest of the country to stay in line, like the Chinese do," says Scott Bruce, a Nautilus director.
- o Mr Lankov said it would be an exaggeration to say phones were already undermining state security but added that "the potential was there".
- o Still, recent visitors to Pyongyang have expressed surprise at the number of seemingly ordinary workers in drab clothes who have a mobile phone.
- o Siegfried Hecker, a leading US expert on Pyongyang's nuclear programme who has visited North Korea seven times, includes photographs of ordinary citizens chatting on mobiles in his presentations on the key factors determining Pyongyang's future. "Time is not on their side," he said in a recent lecture. "Cell phones are going to get them in the end".

## 붙임 8.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원문 [5.4]

###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北朝鮮制裁「実効性が大事」 玄葉外相 ”

- エジプト訪問中の玄葉光一郎外相は3日、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を受けて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下部組織が新たに北朝鮮企業3社を制裁対象にしたことについて、「(制裁対象に)指定された団体数よりも実効性がどれだけ確保されるかが大事だ。北朝鮮が厳粛に受け止め、さらなる挑発を行わないことが大事だ」と語り、北朝鮮が核実験を行わないよう自制を促した。カイロ市内で記者団に語った。

## 붙임 9.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5.4]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韓流ドラマ超え 金正恩第1書記の生母、高英姫氏の隠された波乱人生”

- 劇場型国家-。金日成主席、金正日総書記、金正恩第1書記と続く金ファミリーへの礼賛と演出であふれた北朝鮮についてこう称されることがある。しかし礼賛対象であるはずが舞台に上がることさえ許されなかった女性がいる。金第1書記を産んだ新たな「国母」故高英姫(コ・ヨンヒ)氏だ。その実像は北朝鮮国内では一言も触れられず、日韓でも在日朝鮮人出身の元踊り子という以外、ほとんど知られてこなかった。彼女の隠されてきた過去には、韓流ドラマをはるかにしのぐ劇的人生があった。
- 京沢氏は1913年に韓国の最南部に位置する済州島で船頭の三男として生まれた。16歳で大阪に渡る。出稼ぎが目的だったとみられ、軍服などを生産する工場で働いた。日本が朝鮮半島を支配していた当時、日本と朝鮮半島に国境はなく、済州島の人々にとって大阪はソウルよりも近い大都会だった。
- 京沢青年が一攫(いっかく)千金の夢見て海を渡ったとしても不思議ではない。正妻のほか、4人の愛人を持ち、把握されただけで十数人の子供をもうけた。戦後には、済州島と行き来する密航船を運営したとして逮捕された。愛人や子供の多さ、密航船の運営をとっても、ある程度の資金を蓄えていたことが推測できる。軍需工場の一介の労働者から見事に成り上がったといえる。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 しかしやがて破綻する。原因の一つは逮捕だ。さらには女性関係のもつれがあったとされる。「地上の樂園」という理想を迫ったとうより、日本国内でも済州島でもなく、何のしがらみもない北朝鮮に逃げ出すことで女性問題を一気に解消するという現実主義に立ったわけだ。
- ともかく「朝鮮画報」に写し出された団欒もようからは、京沢氏は見事に逆境を脱したことがうかがえる。金総書記と娘の同居を境に平壤の「万景台記念品工場」の顧問支配人という榮譽職に取り立てられ、86歳で天寿を全うした。
- こんな嫉妬はどこ吹く風で、高英姫氏は、持ち前の口配りで夫の金総書記だけでなく、夫の部下らも引きつけていった。
- 金総書記が別荘で食事を終え、一人外で夜風に当たっていると、泥酔した警護員の男に出くわした。「酒を飲んでいるのか」と怒鳴ると、逆上した男がいきなり銃を総書記の額に突き付けた。その瞬間、果敢に男に飛び掛かったのが英姫氏だったという。文字通り、命がけで夫の命を救い、総書記の側近らの心までつかんだのだ。
- 死去する前には「尊敬するお母さまは（金正日）最高司令官同志に限りなく忠実な忠臣の中の忠臣であられる」と朝鮮人民軍内部で英姫氏を偶像化する文書が作成された。
- この一時浮上した偶像化は、正哲氏ら英姫氏の子供を後継者に担ぎ上げる動きとされ、後継者争いを嫌った金総書記の命令で固く禁じられたとされる。ただ、英姫氏の「忠誠分子」が軍内にも広がっていたことを示す証左とはいえるだろう。
- 「正恩氏の存在すら後継者として宣伝されるまで住民には知らされてこなかった。高英姫氏についてもごく一部の人たちを除いて全く知らなかった。在日朝鮮人帰国者の間では、『在日出生』が（金総書記の）子供を産んだということが伝わっていたが」。北朝鮮関係者の一人はこう説明する。
- 金総書記が金主席の後継者として公式登場した1980年ごろ、英姫氏の出自を知る在日帰国者らが相次ぎ行方不明になっていった。「英姫氏は在日帰国者だ」と口にしたため粛清されたとされた。
- 金総書記の帰りを「お母さまと夜通し待った…。今年に入って金第1書記を紹介した記録映画の中で、第1書記の孝行ぶりを示すエピソードとしてこう描かれた。2月に入ると、金第1書記の母親を指す「平壤のお母さま」という表現が登場した。専門家の中には「一気に高英姫氏の偶像化が進むのでは」との観測が広がった。だが、それ以来、目立った描写はない。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발사 실패로 당황한 北에 대한 전문가들 견해 (5.5 뉴욕타임스)

- 「제프리 루이스」(미국 몬터레이 국제학연구소[MIIS]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책임자), '북한이 14년 동안 로켓 발사에 실패한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는 상대방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해 생기는 실행 불안(performance anxiety)이다.'
-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7년 플루토늄 원자료를 폐쇄했기 때문에 새 연료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그프리드 헤커」(전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핵과학연구소] 소장으로서 차려 방북), '플루토늄 원자료가 폐쇄됐는데 왜 플루토늄으로 실험을 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함.
-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 또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섞은 혼합산화물(MOX)연료로 핵실험을 하고,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에 탄두를 탑재할 것임.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려운 기술을 익히고 핵무기를 확장하기 보다는 실패를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함.
- 「자크 하이만스」(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국제관계학 교수), '북한과 같이 실패한 국가는 기량 부족, 기술 오차,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 문제들은 불법적인 공급망을 통해 수입한 부품들로 간단히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

#### ○ 北, 韓 민간항공기 전파교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5.2 Fox News)

- 북한은 러시아산 전파교란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TV 전송 안테나 등에 탑재할 경우 반경 150마일까지 교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마틴 스트리트리」(IHS Jane's 전자전 전문가),
  - '북한은 GPS 전파 교란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어도 2010년부터 이러한 작전을 써왔다.'
  - '러시아산 전파교란 장치는 이라크 해방작전 개시 첫 10일 동안 GPS 유도 무기가 표적을 빗나가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었었다.'
- 북한이 서울 공격을 위한 미사일 수천 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전파 방해도 한국에 심각한 우려를 낳을 것임.
-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적 행위를 일삼은 전력이 있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통하지 않고 있음.
- 美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를 더 중시하겠다는 입장은 특히 북한을 염두에 둔 결정일 것임.

## □ 중국어권

### ○ 북한 위성 발사의 복잡성 (5.6 신산경 ⇨ 중국 공청단 운영 산업경제 신문)

-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 韓·美·日이 군사적 수단까지 언급하며 강경대응한 것은 위성과 미사일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임.
-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 행사를 위한 위성 발사라고 했지만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다음에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발사 목적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 미국은 위성 발사의 평화적 이용을 실제로 확인하게 될까봐 북한의 참관 초청을 거절했다고도 볼 수 있음.
- 실제 목적은 위성 발사 자체 이외에도 기술 과시와 언급되지 않은 목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韓·美·日은 우려하고 있는 것임.

2012.5.7(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현재 북한의 기술적 수준으로 보면 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韓·美·日은 위성 발사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므로 북한을 설득하기 어려움.
- 북한 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났지만 국제사회는 북한과 더불어 韓·美·日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음.
- 북한 위성 발사로 인한 마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권력 구조, △미사일과 위성 발사 관련 규칙, △美·北 적대 관계를 더 깊이 알아야 함.

○ 北, 황금평·위화도 경제지구 관리 중국 중관촌 방문

(5.2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지구 사이트)

- 4.16일 북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구의 20여 명의 관리자들이 중국 중관촌을 방문함.
- 북한 대표단은 중국의 바이두, CapitalBio 등 유명 기업과 과학 기술 혁신 개발품들에 대한 소개를 듣고 중국의 개발 특구 건설에 대한 연수를 받았음.
- 이번 방문을 통해 나선경제무역구,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의 中·北 공동개발과 공동관리 및 교류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외무부, '北 핵실험 감행 시 심각한 대응 뒤따를 것이다.'

(5.4 외무부)

-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외무부 대변인),
  -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관련, 러시아는 IAEA와 서방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위성 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UN안보리 차원의 심각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

○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향후 러시아 안보에 잠재적 위협 될 수 있다.

(5.4 리아 노보스티)

- 「바체슬라프 트루브니코프」(前 대외정보국 국장),
  -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핵무기가 여타 국가들에게 연쇄반응을 일으켜 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 ‘북한, 이란,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이미 보유했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핵무기 잠재력은, 이들이 러시아의 적국이 아니더라도 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체제의 국가들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 ‘非적대적이던 미사일·핵 잠재력은 러시아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및 나토와 MD구축 문제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 일본어권

○ 北 외무성 일본담당자, 유골반환 제안 (5.5 지지통신)

- 北 외무성 일본과 조병철 연구원이 지난 5.2일 방북한 아사노 겐이치 도시샤대 교수와 가진 회담에서 ‘(2차세계대전) 戰後 북한에 잔류한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최근 발견되어 일본측이 요청한다면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아사노 교수는 4.28~5.3까지 방북함.

- 북한에서는 최근 대규모 건설공사가 각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유골은 공사현장에서 발견됐으며, 조병철 연구원은 일본인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함.

## 붙임 1. 뉴욕타임스 보도 원문 [5.5]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 “North Korea’s Performance Anxiety”

- o The flop was the latest in 14 years of fizzles and outright failures in North Korea’s efforts to conduct showy tests of its long-range missiles and atom bombs. The blunders have damaged its military image and raised its profile among late-night comedians.
- o “It must be incredibly stressful,” noted Jeffrey Lewis, director of the East Asia Nonproliferation Program at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He called it “performance anxiety.”
- o Atomic analysts differ on the likely makeup of the test device but agree that the country stands at a critical juncture in getting beyond the giggles – if not the sexual innuendo.
- o “It was a huge loss of face,” Mark Fitzpatrick, a senior nonproliferation expert a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n arms analysis group in London, said of last month’s rocket failure. “It’s almost certain they will double down by proceeding with a third nuclear test.”
- o Analysts see North Korea’s switch to a new fuel as likely because in 2007 it shut down a reactor that made plutonium – which fueled its first two atomic blasts.
- o “Why base anything else on plutonium if it’s a dead end?” asked Siegfried S. Hecker, a former director of the Los Alamos weapons lab who has repeatedly visited North Korea.
- o A move to highly enriched uranium – or a mixture of the two bomb fuels, known as a composite core – would let North Korea expand its ways of shaking the earth and perhaps, one day, of mounting warheads atop missiles to intimidate neighbors.
- o But some military analysts say it’s quite possible that North Korea – instead of mastering the difficult technologies and expanding its nuclear arsenal – will continue to fail.
- o Jacques E. C. Hymans, who teaches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rgues in the current issue of Foreign Affairs that failed states like North Korea are doomed to poor workmanship, technical errors and finger pointing. “These problems,” he said, “cannot be fixed simply by bringing in more imported parts through illicit supply networks.”

## 붙임 2. Fox News 원문 (5.2)

### Fox News 홈페이지

"North Korea accused of jamming signals of hundreds of civilian flights"

- o Martin Streetly, an IHS Jane's expert on electronic warfare, told Fox News: "North Korea certainly has the capability to jam GPS signals and is believed to have been doing so since at least 2010."
- o It is believed North Korea has obtained the jamming devices from Russian companies and that the devices are effective for about 150 miles if mounted on a structure such as a television transmission antenna.
- o And they can be effective, as coalition flight crews found out during the Iraq war. "Russian-sourced jammers were encountered during the opening stages of Operation 'Iraqi Freedom', where they were credited with causing a number of GPS-guided munitions to miss their intended targets during the first 10 days of the campaign," said Streetly.
- o With it being estimated that North Korea has thousands of missiles trained on Seoul just 50 miles south of the border between the two Koreas, then it is understandable any jamming that could disrupt missile defenses would raise serious concerns in South Korea.
- o North Korea has a long history of provocative acts to try to get the attention of the U.S. and the world. It has worked in the past, but not recently. Washington got wise to Pyongyang's attempts at brinkmanship in exchange for aid.
- o But the problem isn't likely to go away anytime soon, and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pledging to focus more on Asia, it is likely to be North Korea particularly, as the latest reports suggest, that is preparing for a third nuclear test.

## 붙임 3. 중국 신산경 보도 원문 (5.6)

### 신산경 홈페이지

“朝鲜发射卫星的复杂性解读”

- o 针对朝鲜此次宣称发射卫星，朝鲜与美韩日激烈争吵甚至以军事手段对抗的原因究竟是什么？其实真正的原因就在于，发射卫星跟发射导弹在诸多方面是相通的，难以截然区分。

신산경 홈페이지

- 但美韩日指责朝鲜发射卫星的目的是为了测试远程导弹甚至就是为了发射导弹，因此违反了联合国(微博)安理会的有关决议，应该立即停止并受到制裁。这个问题牵涉到两个方面，一是朝鲜这次是否真的发射了卫星，二是朝鲜此次发射目的是否真如其所言只是为了发射卫星，而不是为了测试导弹。第一个方面比较好解决，直接进行检测或者如朝鲜所言到现场直接去观看就可以了，但难的是第二个方面，如何鉴别朝鲜发射卫星的目的？其实确定地鉴别朝鲜发射卫星的目的是十分困难的，因为发射卫星的诸多技术跟发射导弹的诸多技术是相通的，而且很难保证朝鲜这次用这个火箭技术发射了卫星，下次就不再用相同的技术来发射导弹。
- 因此，朝鲜大大方方地宣称要打破国际惯例，邀请其他国家的专家和记者参观其卫星发射；而对于美国拒绝派员参与观看卫星发射时，就认为美国害怕客观确认朝鲜卫星发射的和平性质。可以看出，朝鲜发射卫星的目的，除了发射卫星本身，可能还有对发射卫星所具有的自主技术的看重，甚至还有其他没有言说的目的，所以美韩日对朝鲜通过发射卫星来测试导弹的担忧也并非全无道理。
- 美韩日对不同国家的卫星发射采取不同对待，很难使朝鲜信服。如美国对韩国发射“罗老”号和日本发射先进的间谍卫星就根本没有大张旗鼓的谴责或者威胁拦截，即使对于印度3月份宣称的将在两周之内试射射程达5000公里、可覆盖整个中国且可携带核弹头的“烈火5”洲际弹道导弹却不加制止，也未予以任何评论或道义上的谴责。因此，朝鲜指责美国和日本“既没有理由，也没有脸面”对他国卫星发射事务指手画脚，他认为美国通过大量卫星组建起自己的太空间谍网络，侦察其他主权国家，而日本也不甘落后，正大力发展太空间谍网络，“企图成为军事大国”。
- 总之，虽然朝鲜此次发射卫星失败，但国际社会仍将严密关注朝鲜与美日韩的动作，以免擦枪走火。而朝鲜发射卫星所面临的复杂性问题，对于各方而言，也已经达到了只可意会，不可言说的程度。要真正理解朝鲜发射卫星所引发的争议或者冲突，或许还要在地区权力结构、导弹或卫星发射制度乃至美朝敌对观念上下功夫。

**붙임 4. 중국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지구  
사이트 게시 원문(5.2)**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지구 홈페이지

“ 朝鲜“两个经济区”管理员研修班访问中关村”

- 针对朝鲜此次宣称发射卫星，朝鲜与美韩日激烈争吵甚至以军事手段对抗的原因究竟是什么？其实真正的原因就在于，发射卫星跟发射导弹在诸多方面是相通的，难以截然区分。
- 代表团一行重点听取了百度、汉王、北斗星通、仁创、博奥生物、碧水源等企业

중관촌 국가자유혁신시범지구 홈페이지

的介绍, 观摩了示范区企业自主研发的科技创新产品。

- 此次培训由国家商务部主办, 学员主要研修学习中国开发区建设的相关内容, 对落实中朝两国“共同开发、共同管理罗先经济贸易区和黄金坪威化岛经济地带”、推动中朝两国进一步交流与合作将发挥重要作用。

**붙임 5. 러시아 러시아 외무부 브리핑 원문 (5.4)**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Брифинг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России  
А.К.Лукашевича, 4 мая 2012 года”

- Располагает ли МИД России информацией по поводу готовящихс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спытаний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Если они состоятся, какова будет реакция России?
- Обычно мы не отвечаем на гипотет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Как у многих западных коллег, у нас нет под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Я ознакомился с заявлениями руководителя МАГАТЭ Ю.Аmano о том, что Агентство также не обладает такими данными. Если же испытание все-таки произойдет, то следует ожидать серьезной реакции не только участников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но и Совбеза ООН, как это произошло в связи с неудавшимся запуском в КНДР спутника.

**붙임 6.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5.4)**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Ракетно-ядерный потенциал Ирана может угрожать РФ в будущем - эксперт”

- Ракетно-ядерное оружие, которым располагают сегодня Иран, Пакистан и КНДР, может де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региональную обстановку, вызвать цепную реакц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а други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е страны и,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угрожать в будущ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считает директор Службы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и (СВР) России в 1996-2000 годах Вячеслав Трубников.

- "Даже если Иран, Пакистан и КНДР не станут противниками России, уже имеющийся и перспективный ракетно-ядерный потенциал этих стран в состоянии де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региональную обстановку. Это также чревато опасностью цепной реакци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Сирия, Турция, Египет, Япония, Южная Корея, Тайвань), что может породить новые ракетные опасности для России", - говорится в статье Трубинов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в спецборнике к проходящей в Москв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е (ПРО). Спецборник выпущен журналом "Национальная оборона" и роздан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конференции.
- Как подчеркивает бывший глава СВР, 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отношения с нестабиль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 радикальными режимами могут стремительно меняться к худшему, и невраждебный ракетно-ядерный потенциал может превратиться в реальную угрозу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по мнению Трубинова, необходимо искать точк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с США и НАТО по проблеме создания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붙임 7.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5.5)**

지지통신 홈페이지

“日本人の遺骨返還も = 訪朝の教授に提案 ”

- 北朝鮮外務省の日本担当者が、訪朝した浅野健一同志社大教授に対し、敗戦後の混乱の中で現在の北朝鮮に残留した日本人のものとみられる遺骨が最近発見され、日本側から要請があれば返還するとの考えを示したことが5日、分かった。
- 4月28日から5月3日まで訪朝した浅野教授によると、外務省日本課の趙炳哲研究員が2日の会談の際に明らかにした。北朝鮮では最近大規模な建設工事が各地で行われているが、遺骨はこうした工事現場で見つかったとされ、趙氏は「日本人のものと確認された」と説明したという。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엄하게 다뤄야 한다. (5.7 볼티모어 선 ☞ 메릴랜드州 볼티모어 지역 종합지)

- 「브루스 렘킨」(前 美공군 차관보, 前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수석 협상대표),
  - ‘미국은 막강한 무력과 한국과의 오랜 군사동맹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대응에 실패해 신뢰성이 떨어진 북한의 부당 행위(민간인 포격, 천안함 폭침 등)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 ‘1999~2000년 KEDO에 근무할 당시 1994년 美·北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국제 컨소시엄(美·한·일·EU)이 북한의 핵재처리 중단을 단행했다.’
  - ‘2000년 여름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식량 부족으로 수만명이 굶주리고 있었다.’
  - ‘당시 북한 통역사에게 개선된 삶과 아이들의 미래 보장을 위해 우리는 제네바핵합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통역사는 친애하는 지도자의 꿈은 강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 ‘우리는 거주지역을 위협하는 추가 미사일을 가로채거나 파괴하는 등 북한의 약속 파기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게 책임감있게 행동하라고 압력 행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없다.’
  - ‘우리는 전쟁에 지치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 다른 책임감 있고 문명화된 국가와 사회에 위협을 주는 북한의 행동을 두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우리는 위협을 감수하고 북한을 파악한 후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는 전략 및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北 미사일 프로그램, 아직은 유럽에 위협되는 수준 아니다.

(5.4 리아 노보스티)

- 「블라디미르 예프세예프」(사회정치연구소 소장),
  - ‘북한에는 화성 6호(사정거리 500km)를 보유한 미사일 부대와 노동 1호(사정거리 1,300~1,500km, 탑재중량 700~1,000kg)로 무장한 3개 미사일 대대가 있으며, 이들을 잠재적 핵무기 발사체로 볼 수 있다.’
  - ‘현재 북한은 대포동 타입의 2, 3단짜리 액체형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사정거리는 탑재 중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6,000km급 정도이다.’
  - ‘하지만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재료·기술적 어려움과 재정 부족으로 완성이 매우 힘들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 북한이 ICBM을 개발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평양과 부쿠레슈티(북한근접 유럽국가인 루마니아 수도)간 거리가 7,700km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유럽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주장’

○ 北 핵실험, 역내 지진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5.5 인테르팍스)

- 「이반 티호노프」(과학아카데미 산하 해양 지질학·지구물리학 연구소 지진학 연구실장),
  -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약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역내 지진 활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북한에서 발생하는 모든 핵폭발은 약 10~20kt급이며, 이는 지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리히터 규모 4의 천발지진(진원의 깊이가 지하 70km 미만에서 발생하는 지진) 정도의 수준이다.’
  - ‘이 지역은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필리핀, 태평양이라는 4개의 암석판이 접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며, 판의 움직임은 역내 지진 활동성을 결정 짓는다’고 주장

○ 미국, 북한과의 전쟁으로 얻을 것 없다.

(5.7 바엔노에 아바즈레니에 ⇨ 군사전문지)

- 미국은 대선 전까지 북한을 비롯한 '악의 축' 국가에 비난을 거듭할 것이지만, 향후 몇 개월 내에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임.
- 미국이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군의 참여 하에 리비아전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
- 하지만 현재 북한은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핵 보유 사실이 가정일지라도 심각한 대응을 야기할 수 있을 적국과의 전쟁을 미국은 사실상 원치 않음.
- 또한 북한과의 전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석유 혹은 가스와의 같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 감수의 합목적성이 떨어짐.

□ 중국어권

○ 中·北무역 활발,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도 개방할까?

(5.8 제일재경일보 ⇨ 경제전문지)

- 최근 북한이 대외개방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中·北무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연간 물동량 30만 톤의 나진항은 이미 무역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북한이 청진항 개방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황금평 개발, 훈춘과 나선을 잇는 고속도로 보수 등 개방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단둥시의 한 정부인사에 따르면, '황금평 개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공업 위주로 될 것이며 팍스콘(애플 아이폰의 중국 납품업체)대표도 최근 이곳을 다녀갔다'고 언급함.
- 20년간 對北 무역을 해왔던 중국 무역상은 '청진항 개발에 대한 중국측의 발표는 없었지만, 현재 발전상황으로 볼 때 나진항은 머지않아 무역 수요를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투먼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길림에서 철도로 청진항으로 물자 운송 후 다시 중국 해안도시와 동북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길림과 러시아 무역상들에게는 가장 경제적인 이동 노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북한과의 무역 및 개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中·北 무역은 여전히 발전 속도가 더디며, 기업 간의 협력이 아니라 북한 정부가 개입되어 있으며, 현금 교역은 매우 적은 편임.
- 현재 북한은 여전히 생필품과 식품으로 중국과 물자 교환을 하고 있으며, 북한 기업의 채무도 무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 일본어권

○ 北 특별행동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서울 포격이다.

(5.7 J-Cast 뉴스뉴스사이트)

- 「변진일」(코리아 리포트 편집장),
  - '북한의 GPS 전파교란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행동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특별행동을 위한 준비이며, 앞으로도 경계가 필요하다.'
  - '3~4분 이내의 초토화, 지금까지 없었던 등의 표현을 종합해 봤을 때 수도권 포격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 '김정은 측근들은 국지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예측
- 김정은의 주변에서는 특별행동을 개시한다며 북한내의 여론을 모으면서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신(김정은)이 행동 개시를 겨우 막고 있는 것'이라고 어필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대로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 등으로부터 '말뿐인 공갈외교'라고 간파당해 향후 '벼랑끝 외교'가 통용되지 않게 되는 딜레마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스스로를 '위험한 게임'에 내몰고 있음.

## 붙임 1. 볼티모어 선 게재 원문 (5.7)

### 볼티모어 선 홈페이지

#### "Get tough with North Korea"

- o However, despite our unequalled military power and the strength of our long-standing military alliance with South Korea, our repeated inaction in providing a meaningful response has made our ability to influence, much less deter, the DPRK's unconscionable behavior – from the shelling of civilians to the sinking of a foreign warship in international waters – lack any credibility.
- o From 1999-2000, I served as the chief negotiator for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or KEDO, the international (U.S., South Korea, Japan, European Union) consortium carrying out the goal of shutting down North Korea's nuclear reprocessing capabilities under the 1994 U.S.-DPRK Agreed Framework.
- o In the summer of 2000, my last time in North Korea, food was meager and tens of thousands were starving. During a break in the negotiations, I remarked to the North Korean translator that, together, we needed to make the Agreed Framework succeed, to ensure a better life and future for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She responded, "It is our Dear Leader's dream that we shall be a great power."
- o We must determine what our response will be to the DPRK's breaking of promises and otherwise irresponsible behavior. Are we, for example, ready and willing to intercept and destroy the next missile, especially if its trajectory threatens populated areas? If so, preparations, including strategy, tactics and policy, must be made now.
- o Every knowledgeable commentator mentions the role of China when we wring our hands with frustration at the seeming impossibility of successfully coercing North Korea to act responsibly. Despite its vested interest in avoiding conflict or collapse on its border, China has been unwilling to exert its influence, at least not to an effective degree.
- o Despite our current state of war weariness and fiscal challenges, we cannot afford to let North Korea (or Iran, or any other irresponsible actor) perpetuate behavior that poses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U.S. and the other responsible, civilized nations and societies. Our strategy and our plan must be to weigh the risks, account for them, and then to act, decisively and unmistakably. That is the essence of toughness and deterrence, and it is urgently needed.

## 붙임 2.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5.4)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Эксперты: ракетные программы Ирана и КНДР пока не опасны для Европы”

- Сухопутные войска КНДР имеют в своем составе отдельный ракетный полк, вооруженный ракетами "Хвасон-6" (дальность - до 500 километров), и три отдельных ракетных дивизиона, вооруженных ракетами "Нодон-1" (1,3-1,5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с полезной нагрузкой от 700 до тысячи килограммов). Потенциально они могут выступать в качестве носителей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 По данным Евсеева, в КНДР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двух- и трехступенчатых жидкост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типа "Тэлходон". Их дальность действи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еса полезной нагрузки, может составлять до 6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 Однако отсутствие достаточ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 отсталость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в условиях действ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на основе резолюций 1718 и 1874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а, сильно затрудняют завершение работ по этому проекту.
-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край не маловероятно создание в КНДР к 2020 году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Учитывая, что расстояние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Бухарестом - столицей ближайшего европ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составляет 7,7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становится очевидным отсутствие для Европ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кетной угрозы на весь рассматриваемый период", - указывает Евсеев.

## 붙임 3. 러시아 인테르팍스 보도 원문 (5.5)

인테르팍스 통신사 홈페이지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в КНДР не приведут к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м землетрясениям в регионе - эксперт”

- Испыт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КНДР могут вызвать слабые землетрясения, но серьезного влияния на сейсмичность в этом регионе не оказывают, считает заведующий лабораторией

인테르팍스 통신사 홈페이지

сейсм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морской геологии и геофизики (ИМГиГ) ДВО РАН, доктор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их наук Иван Тихонов.

- "Все ядерные взрывы, происходящие в КНДР, имеют мощность около 10-20 килотонн. Они соответствуют мелкофокусным землетрясениям магнитудой порядка 4 по Рихтеру. На мой взгляд, серьезного влияния они не могут оказать на сейсмичность в этом регионе", - заявил он в субботу агентству "Интерфакс-Дальний Восток".
- "Это край не сложный район в плане сейсмичности: в районе Японии 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тыкуются четыре литосферные плиты - Евразийская,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ская, Филиппинская и Тихоокеанская. Движение этих плит определяет сейсмичность в данном регионе", - пояснил ученый .

**붙임 4. 러시아 바엔노예 아바즈레니예 보도 원문 (5.7)**

바엔노예 아바즈레니예 군사전문지 홈페이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лит США"

- Но об одном можно говорить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до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США кандидаты и их сторонники будут обрушиваться на «ось зла» с новой и новой испепеляющей критикой, однако до реальны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ситуация дойдет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вряд ли. Теперь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йска, если вступят в военный конфликт, к примеру, с КНДР, то война будет вестись скорее по ливийскому сценарию. Отличие в одном - вместо исламских боевиков, которым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нечего делать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силы корейцев южных.
- А ведь менталитет американцев таков, что даже явно гипотетическая угроза в виде ядерн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ответа может заставить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попрिдержать своих ретивых лошадей. Ну, не привыкли американцы в открытую воевать с тем противником, который хотя бы на теоретическом уровне может им серьезно ответить. Да и по большому-то счету,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ля США не слишком приглядная территор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воих планов: нефти и газа здесь нет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запасы не разведаны).



## 붙임 5. 중국 제일재경일보 보도 원문 (5.8)

### 제일재경일보 홈페이지

“中朝贸易加速 罗津港后开放清津港？”

- 最近, 朝鲜对外开放有加速之势, 中朝贸易也发展迅速。一位从事20年中朝贸易的商人在接受《第一财经日报》记者采访时表示, 每年300万吨吞吐量的罗津港已经很难满足贸易需求。据悉, 朝鲜已经有在开放罗津港后, 再开放清津港的打算。
- 在对外贸易方面, 丹东与新义州边境地带的黄金坪岛开发、琿春中朝口岸与罗先 之间的公路改造等重大中朝边境开发项目的落地, 也呈现出日益开放趋势。丹东 政府部门一位工作人员在接受本报采访时说:“目前, 黄金坪岛开发的具体项目 还没有确定, 不过很可能是以加工业为主的工业区。富士康总裁郭台铭最近也来 黄金坪岛考察。”中国的一位地方官员也表示, 朝鲜有意将清津市纳入自由贸 易区, 尝试开发清津港, 效仿中国的深圳、东莞等城市。
- 一位从事20年中朝贸易的商人在接受本报记者采访时表示:“虽然没有从中国政府方面听到开放清津港的说法, 但按照其发展趋势来看, 是有可能的。罗津港将来很难满足大量的贸易需求。”
- 图们市一位政府官员则听到了这样一种说法: 吉林将把物资, 通过铁路运到清津、罗津两个港口, 再运到中国沿海城市或东北亚地区。在东北亚物流线路中, 对吉林、俄罗斯的贸易商来说, 这是距离最短成本最划算的线路。
- 尽管朝鲜贸易开放呈加速态势, 但中朝贸易始终不如其他边境地区贸易那样兴盛, 始终蹒跚前行。据了解, 中朝企业合作不能直接企业对企业, 必须与朝鲜当地政府对接, 所做的贸易也大多是食物易货, 现金交易很少。直到目前, 朝鲜还是需要用日常用品和食物来与中方交换物资。“朝鲜的贸易公司规模并不小, 但都是纯粹的计划经济, (朝鲜) 中央批复了一款商品的价格合同之后, 即使该产品的生产成本价格上涨, 也很难再有议价空间。所以国内企业都在争出口到朝鲜的第一批货物, 要不就得亏本。”一位业内人士说。此外, 朝鲜企业的欠资现象也让中朝贸易蹒跚前行。

## 붙임 6. 일본 J-cast 뉴스 보도 원문 (5.7)

### J-cast 뉴스 홈페이지

“北朝鮮の「特別行動」あるのか 最悪のシナリオは「ソウル砲撃」”

- 北朝鮮が、「今までにない特異な手段」で「特別行動を間もなく開始する」と不気味な宣言をしてから2週間がたった。この間、韓国でGPS（全地球測位システム）をかく乱する妨害電波が確認された。

## J-cast 뉴스 홈페이지

- 250機以上の航空機や船舶でGPS障害がみられたものの、運航への実害は報告されていない。妨害電波は、北朝鮮からの「攻撃」であり、「特別行動」はこれでもう終わりなのか。専門家の中には、「韓国首都圏への砲撃」を懸念する声もある。
- そんな中、韓国の国土海洋部（省）が5月2日、ソウル近郊を中心に航空機のGPSに障害を起こす妨害電波が4月28日から続いていると発表した。中央日報（韓国）の報道などによると、韓国の放送通信委員会は、妨害電波は北朝鮮地域から発信されていたのを把握したとしている。
- GPSは補助的に使われており、「正常運航」に大きな影響は出ていないという。その後、韓国北西部で漁船のGPSなどにも障害が確認されたが、事故の報告はない。
- この「妨害電波による攻撃」が、北朝鮮がいう「特別行動」なのだろうか。
- 「コリア・レポート」の辺真一編集長に聞いてみると、「妨害電波によるGPSかく乱の例は、過去にもある」として、「『特別行動』そのものではない」と指摘した。
- むしろ、「特別行動」に向けた準備行為であるかもしれず、今後も警戒が必要だ。 辺編集長が懸念しているのは、2010年に起きた「（韓国の）島への砲撃」ではなく、ソウルなど首都圏への砲撃だ。「3～4分」以内の「焦土化」、「今までにない」などの北朝鮮側の表現を総合的に考えると、「首都圏への砲撃」の可能性が強く浮上してくるという。
- しかし、「首都圏への砲撃」を実行してしまえば、韓国側から強い反撃を受けるのは間違いない。局地戦では済まず、全面戦争につながる可能性すらある。北朝鮮はそこまで「覚悟」しているのか。
- 北朝鮮の「3代目」である金正恩第1書記の周辺は、「特別行動をとる」と北朝鮮国内の世論を高めつつ、対外的には「平和を愛する自分（正恩氏）が、何とか行動を抑えているのだ」とアピールする狙いがある可能性もある。
- しかし、このまま何もしなければ、韓国などから「口先だけの恫喝外交だ」と完全に見透かされ、今後は「瀬戸際外交」が通用しなくなるというジレンマも抱えているはずで、正恩氏は「危険なゲーム」に自らを追い込んでいる形だ。
- 辺編集長は、「（正恩氏周辺は）局地戦までは考えている」と見ている。 近く北朝鮮が実施に踏み切るとみられる核実験も含め、予断を許さない情勢のようだ。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핵실험해도 핵무기 배치까지는 아직 멀었다. (5.8 AP통신)
  -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배치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주장함.
  -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졌으며, 두 차례 발사 후 핵실험 전례와 풍계리 핵실험 장소의 인공 위성 사진이 핵실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핵실험의 지연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 제재를 감수할 것인지 여부를 재고 중인 것으로도 해석되나,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큰 상태임.
  - 「제프리 루이스」(몬테레이국제학연구소[MIIS] 비확산 연구소),
    -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이 일부만 성공할지라도 이로 인한 전시효과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으며, 이 무기들이 언젠가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로 엄청난 영향력을 얻고 있다.’
  - 핵실험은 두 가지 실질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 북한은 △과거에 사용했고 얻기 힘든 플루토늄 대신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해 핵실험 장치들을 개발하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게 탄두를 줄여야 함.
  - 「이반 오엘리치」(전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이자 핵무기 전문가),
    - ‘핵폭발 장치와 무기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폭탄이 얼마나 큰지, 핵폭탄으로 기술되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 ‘무기는 가볍고 작으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미사일 탑재를 위해서는 수백kg 이하로 1~2입방미터보다 작아야 한다.’
  - 핵실험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핵전문가들에게 가치 있는 교훈을 주지만, 실행 가능한 무기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임.

- 「마이클 엘르만」(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
  - '지하에서 장치를 실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군대 및 전략적 핵무기는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

o 北, 중국의 경제 발전 방해될 수 있다. (5.9 The Diplomat)

- 중국의 급속히 발전하는 여러 지역과 북한의 근접성으로 인해 북한의 문제가 중국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음.
- 중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촉구함.
- 그 이유는 북한의 도발행동이 미국, 일본, 한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 및 한국과 일본의 첨단 군사 대응 방안 개발의 정당성을 제공할 것이며, 이들 국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겠지만 중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함.
-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고려할 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할 여유가 없는데도 북한은 중국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중국 지도부와 국민들의 우려가 되고 있음.
-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는 대외적 개방 이후 주요국으로서 커지고 있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감을 저해할 수 있음.
-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일본의 압박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한편, 북한의 서방국과의 대결에 휘말리는 것도 원치 않음.
-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일반 중국인들은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정부에 북한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중국 내 북한 여론도 상당히 악화됐음.
- 일부 네티즌은 북한이 핵실험 능력이 있는지 조차 의심하며, 주민 선동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그 근거로 2009년 핵실험 당시 방사능 잔해가 검출되지 않았던 것을 들며 핵실험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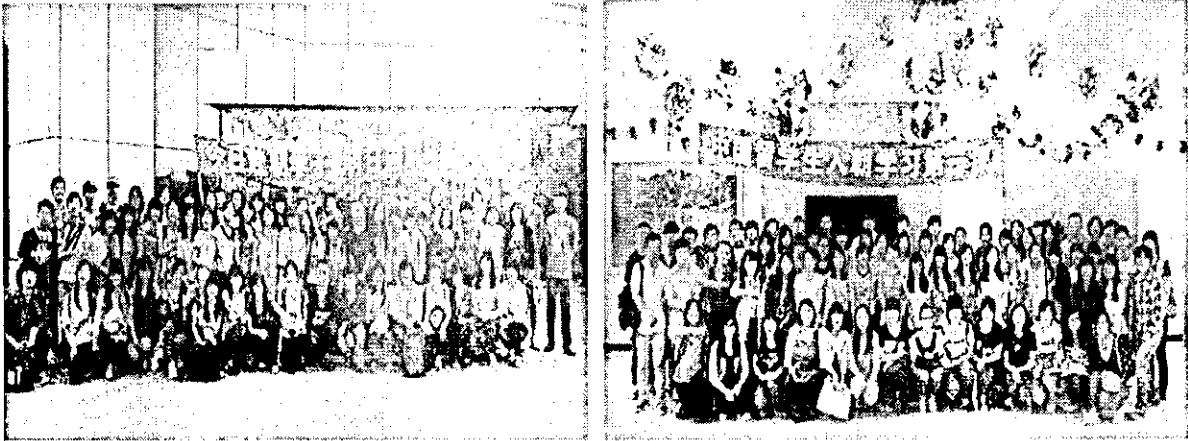
## □ 중국어권

### ○ 김정은 訪中 가능성 모색, 의도는? (5.8 차이선 對 중국 인터넷 언론)

- 올해 4월 북한 인민보안부 대표단의 중국 방문에 대해 韓·日 언론은 김정은 訪中 관련 보안문제를 논의했었다고 해석함.
-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부대가 확대되기 전, 韓·日과 함께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정밀타격하려 하는데 이는 중국의 안보에 큰 위협을 미치기에 중국은 김정은의 방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이 있음.
- 외부에서는 중국의 對北 영향력이 이전만 못하다고 보고 있으나 북한의 가장 가까운 국가로 中·北의 소통 강화는 아주 시급한 사안임.
- 또한 4월말 訪中한 북한 대표단을 극진히 대접한 것도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성의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권을 장악하고 이미 어느 정도의 구심력을 갖춘 김정은은 전면적으로 외교업무를 전개할 수 있음.
- 김정은은 중국 방문을 통해 對中관계 강화로 국내 경제 개선 및 북한이 처한 국제적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함.
- 최근 中·北이 힘써 건설한 국경지역 경제개발구는 김정일 사망으로 개발 프로젝트가 정지된 상태이며, 중국은 김정은 訪中을 계기로 협력 개발 프로젝트의 재개를 기대하고 있음.
- 또한 탈북자, 북핵문제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가능성이 있음.

### ○ 2012년 중국 정부 유학생 북한 파견(5.8 駐北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5.4일 2012년도 중국 정부 유학생 60명이 북한에 도착한 후, 5.6일 駐北중국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개관, 유학생할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음.



## □ 러시아어권

### ○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 노선 방향에 관한 대통령 명령

(5.7 크레믈린 홈페이지)

-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

- '한반도 핵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 안보·평화 메커니즘 형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킨다.'
-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과 상호 이득이 되는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과는 신뢰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십 및 전략적 상호협력을 심화시킨다'라는 명령 발표

## □ 일본어권

### ○ 北, 미사일 실패했는데도 왜 핵실험을 하는가? (5.9 닛케이 비즈니스)

- 2012년은 북한에 있어 중요한 해이므로 국제적으로 주목을 끌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발상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부터 있었음.
- 한편 국내적으로도 이벤트가 필요했으며, 김정일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목표로 강성대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경제 재건을 하지 못했음. 따라서 군사적으로 성과를 내야만 했고 그 결과 미사일 발사가 선택됐음.

그러나 김정일 사망으로 미사일 발사가 유훈이 됐고, 북한 당국으로서는 지킬 수밖에 없었음. 이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죽은 김정일뿐이었고, 후계자 김정은에게는 무리였음.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지만 일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며, 우선 핵보유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내외에 보여 줄 수 있었음.

출범한 지 얼마 안됐으며, 기반이 약한 김정은 정권에 있어 '핵'이라는 방패는 과거 이상으로 중요함.

'핵 운반수단을 반드시 가질 것이다', 즉 '반드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우습게보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성공함.

이런 의사표시는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임.

반 추방상태인 김정남을 중국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 보낼지도 모른다고 김정은 정권이 의심하고 있어 '개입하려 한다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강하게 나온 것임.

또 다른 이유는 주변 각국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는데도 세계는 대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군사적 제재에 나서지 않았고 UN이 경제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거의 없음. 또 한국도 개성공단 조업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도 비난을 했지만 무역을 중단 하지는 않았음.
- 이를 통해 북한은 '하고 싶은대로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런 '성과'를 배경으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짐. 미사일 발사는 기술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한 것임.

## 붙임 1. AP통신 보도 원문 (5.8)

### AP통신 홈페이지

“Experts say even if North Korea performs 3rd nuke test,  
a useable weapon may still be far off”

- o But experts say North Korea probably has a long way to go before it will be able to actually deploy a nuclear weapon.
- o Fears that such a test may be imminent were heightened last month, when North Korea marked an important anniversary with a long-range rocket launch. Its two previous tests came soon after such launches. Satellite imagery also suggested stepped-up activity at the North’s Punggye-ri nuclear testing site.
- o Little progress at the site has been reported since, which could mean the activity was a ruse or the device is simply not ready yet. It also could mean that the new regime headed by Kim Jong Un, who assumed power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in December, is having second thoughts about whether to risk international sanctions by forging ahead.
- o Sooner or later, however, a test is highly likely.
- o “The North Koreans clearly value the demonstration effect of nuclear and missile tests, even if the test is only partially successful,” said Jeffrey Lewis, of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at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North Korea gets a tremendous amount of leverage from our fear that these weapons might work someday.”
- o A test could have two practical goals. North Korea may be developing devices that use highly enriched uranium, instead of the harder-to-obtain plutonium it has relied on in the past. If so, it needs to try one out and see if it works. Either way, the North has to shrink its warheads down to fit them on a missile — so it needs to test that capability as well.
- o “A weapon has to be light and compact, a more or less self-contained package,” said Oelrich. “To fit on a missile, they would have to be less than a few hundred kilograms (about 600 pounds) and smaller than a cubic meter or two.”
- o Success or failure, the tests provide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s nuclear scientists to learn valuable lessons. That’s wh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imposed harsh sanctions after each of its previous underground blasts. But turning those lessons into a viable weapon is no easy task.
- o “Testing a device underground is relatively easy, as one can initiate the test once everything is in order and verified to be ready,” said Michael Elleman,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 military or strategic nuclear weapon must be able to detonate on demand, with little forewarning.”



## 붙임 2. The Diplomat 보도 원문 [5.9]

The Diplomat 홈페이지

### "North Korea Hijacks China Plans?"

- o North Korea's proximity to some of China's booming regions mean any problems in the Hermit Kingdom risk having repercussions in China. China for its part has expressed concern through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another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joined other Security Council members in urging Pyongyang to refrain from such a move.
- o The reason is obvious. Any military-related action by the North will lead to some sort of response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These countries will have a perfectly legitimate reason to expand their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or else in the case of South Korea and Japan, work to develop even more sophisticated military responses.
- o Although all three nations would frame their response as a reaction to North Korean moves, this would still be seen as a growing threat to China as well. China is fast developing its economy and has no room for potentially disruptive activities such as these. Yet North Korea risks hijacking China's development, a reality that is causing considerable consternation among both China's leadership and its public.
- o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risks undermining Beijing's international standing and growing responsibilities as a major nation that's increasingly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China doesn't want to see North Korea being pressured by the United States or Japan, yet it also doesn't want to be dragged into the North's confrontation with the West.
- o The response of the ordinary citizens toward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nuclear test has been even more pronounced. Many netizens are calling on the government not to support North Korea, and the Chinese public's view of Pyongyang has deteriorated significantly.
- o Some netizens, though, question whether North Korea is even able to conduct a nuclear test, arguing that any claims to the contrary are

The Diplomat 홈페이지

simply propaganda aimed at rallying its people. They point to previous claims, arguing that while the 2006 test left traces of radiation picked up by international monitors, no such traces were discovered in 2009. In their minds, there are only two possibilities: North Korea has remarkably advanced nuclear technology, or the test that took place wasn't nuclear. The latter is of course more likely. But whatever happened, North Korea-China ties have continued to slide since then.

**붙임 3. 중국 차이신 보도 원문 [5.8]**

차이신 홈페이지

“金正恩试探访华可能 深意何在？”

- 朝鲜人民保安部代表团于4月访华，被日韩媒体解读作为金正恩访华的安保问题进行先行沟通。
- 日媒称，之所以金正恩访华还在酝酿中，其中第一个原因在于，中方对金正恩断然拒绝中国的要求强行试射火箭感到为难；其二，由于射星失败，外界普遍揣测朝鲜将进行第三次核试验，而种种迹象似乎也证明了朝鲜这一行动的可能性。分析认为，美国多半会趁朝鲜核导弹部队尚未成军之际，与日韩一起采取对朝鲜地下核设施进行精确打击，对中国国家安全而言，其严峻性将远过于1962年古巴导弹危机时候浮现的美苏间的核危机，这使中国不得不对金正恩的访华持谨慎态度。
- 诚然外界看来，中国对朝鲜的影响力似乎不如以往，但作为与朝鲜最亲近的国家，与朝鲜加强沟通仍是当务之急。已就任朝鲜劳动党第一书记，同时是朝鲜国防会第一委员长的金正恩，已集朝鲜党政军权利于一身，具备了与中国最高层会见的身份。4月底访华的朝鲜劳动党代表团也受到中共中央高规格的接见，此举似乎能说明，中方对与朝鲜的对话已是充满诚意的。
- 手握大权的金正恩获得自信，认为自己具备了一定的向心力，可以全面开始外交工作。据韩国《中央日报》日文版报道，金正恩上月给中国国家领导人发送电报，希望共同努力让朝中两国的友好关系有利于两国人民，“相信朝中关系会良好发展”。报道称，这显示出金正恩希望强化朝中友好关系的姿态。有消息透露，朝鲜已秘密向中方传达目前不会进行核试爆。
- 金正恩访华，一方面是加强对华关系改善国内经济，另一方面是推进对华关系，从而改善朝鲜所处的国际环境。近几年，中国着手在中朝边境附近地区建设联合经济开发区，然而，开发计划因金正日去世事实上处于停滞状态。中方期待通过金正恩访华再次全面启动中朝联合开发项目。同时，中方亦可就“脱北者”与朝核问题等中方亦被国际社会施压的问题与朝鲜进行沟通。

## 붙임 4. 駐北중국대사관 보도 원문 (5.8)

駐北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2012年公派留学生抵朝驻朝鲜使馆”

- 根据中朝两国教育交流协议, 5月4日, 2012年度60名中国国家公派留学生入朝学习。5月6日下午, 留学生应邀来到使馆做客。教育组邀请使馆领事部姜亚先参赞及周启昌领事为留学生做朝鲜概况、领保及协助、在朝学习生活知识讲座。同学们听取讲座后, 表示对朝鲜有了更深刻的了解, 收获颇丰, 并立志在朝期间刻苦读书、利用良好的语言条件, 力争在留学结束时取得丰硕的学习成果, 为中朝友好交流与合作贡献自己的绵薄之力。

## 붙임 5. 러시아 크레믈린 게재 원문 (5.7)

크레믈린 홈페이지

### “Подписан Указ 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з)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углублять равноправное доверительное партнёрство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ёрство с Республикой Индие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Вьетнам, развивать взаимовыг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Японией,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Австралией, Новой Зеландией и другими ключев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 н) в отношении кризисных ситуаций: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мирн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рамках шестистороннего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и продолжению работы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механизма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붙임 6. 일본 닛케이 비즈니스 보도 원문 [5.9]

닛케이 비즈니스 홈페이지

“北朝鮮、 “ミサイル” 失敗でもなぜ核実験?”

- 鈴置：2012年は、金王朝の初代指導者である金日成の生誕100年に当たります。国際的に注目を集めるために「何か」やりたいという発想は、2代目である金正日の生前時からあったと思います。一方、国内的にも何らかのイベントが必要でした。金正日は100周年をメドに「強盛大国」、つまり軍事的に強くて経済的にも豊かな国をつくと国民に約束していたのですが、経済再建には失敗したままです。せめて軍事的な成果を見せないと格好が付きません。そこで、ミサイル打ち上げに白羽の矢が立ったのでしょう。2012年にミサイル発射、というのは金正日時代からの既定路線だったと思われます。
- 池上：金正日が亡くなる直前に、北朝鮮はミサイル発射をアメリカに通告していたという説がありますね。そのまま金正日は死んでしまったので、「ミサイル発射」が遺訓となり、北朝鮮政府としては守らざるを得なくなりました。止められるのは、亡くなった金正日本人だけで、後継者の金正恩には無理です。
- さて、そこで気になるのが、今回のミサイル発射によって、いったい誰が得をするのかです。
- 鈴置：もちろん北朝鮮自身です。実験が成功しようが失敗しようが“やり得”です。今回は失敗しましたが、それでも北朝鮮は一定の成果を収めた、と思っているでしょう。
- 池上：打ち上げに失敗したのに、得をしたのですか？
- 鈴置：はい。まず「核保有国になる」という強い意志を内外に示すことができました。今、若い金正恩が3代目に就任したことで「政権が不安定化するのではないか」と国内外の人は考えています。出帆直後で基盤の弱い政権にとって「核」の後ろ盾は今まで以上に貴重です。
- 核弾頭だけ持っていても兵器としての意味は薄い。運搬手段たるミサイルが必須なわけです。「核の運搬手段は必ず持つつもりだ」、つまり「核保有国に絶対なってみせる。俺をなめるなよ」というメッセージを発することに成功したのです。

닛케이 비즈니스 홈페이지

- この意思表示は、韓国や米国だけにではなく、中国に対してもな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いまは北朝鮮から半ば追放状態にある金正日の長男、金正男を、中国が新たな指導者に仕立て送り込んでくるかも知れない、と金正恩政権は疑っているからです。「介入しようとしたら承知しないぞ」と肩をいからせているつもりかもしれません。
- 「失敗しても北は得をした」という理由はもうひとつあります。周辺各国の猛反対を押し切ってミサイル実験を敢行したのに、世界は対抗措置をとれないでいます。米国だって軍事的な制裁に乗り出せない。国連は非難しましたが、経済制裁を強化しても実効はほとんどない。韓国だって南北が共同で運用し、北にとっては貴重な外貨稼ぎの場である開城工業団地の操業を続けたままです。中国だって非難は口だけで、別に貿易を中断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 北朝鮮は「やりたいことをやっても懲らしめられない」ことを確認できました。この“成果”を背景に、核実験に踏み切る可能性が増したと思います。ミサイル打ち上げは技術的には失敗したけれど、政治的には目的を果たしたのです。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해외언론을 통해 北주민들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 (5.10 AP통신)
  - 북한 주민들은 외국 언론에 전례 없이 접근해 외부 세상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됨.
  - 이는 美국무부 의뢰로 컨설팅그룹 인터미디어(InterMedia)가 2010~2011년 탈북자와 북한 난민 수백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임.
  -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드라마 시청 및 해외뉴스방송 청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으나, 이는 과거에 비해 약한 수준임.
  - 북한 당국의 사찰 및 검열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상호 신고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조사 대상자 가운데 남성의 절반 이상은 외국 DVD를 보는 한편, 해외 라디오방송 뉴스를 듣거나 해외방송사의 뉴스를 시청하는 여성은 2/3 규모에 달함.
  - TV 시청자 1/3은 국영방송 프로그램에 고정된 TV를 중국 및 한국 국경선에서 탐지할 수 있는 해외 방송사의 신호를 잡도록 변경하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북한의 언론환경은 여전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개방되었고,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20년전에 비해 외부 정보에 활발히 접근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 표출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뉴스 및 오락미디어를 접하며 한국과 미국에 더욱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음.

2012.5.10(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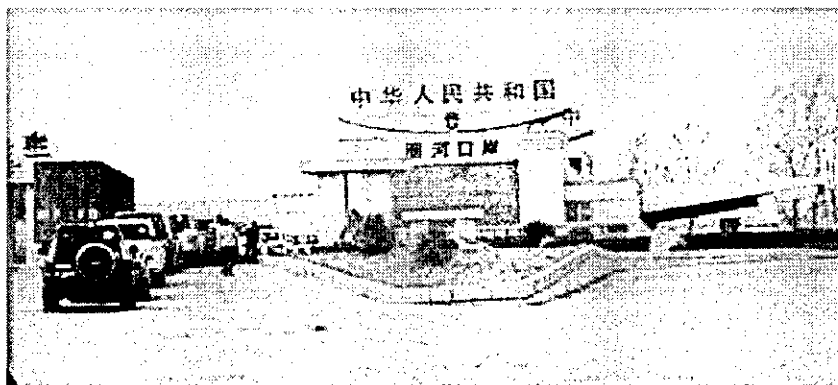
- 이같은 변화가 단기적으로 북한 정부에 의미있는 압박을 가하지는 못하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국가 권력구조 및 정책의 기본 전제를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음.
- o 2015년 NPT 평가회의를 위한 1차 준비회의[4.30~5.11] 참가 대표단 성명 발표 (4.30 / 5.3 UN 홈페이지)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P5) (5.3 UN 홈페이지)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우려함.
    -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 폐기와 관련 활동의 즉각 중단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명시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북한의 4.13일 발사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핵실험을 포함한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함.
    - 적절한 시기에 6자회담 재개를 강력히 지지함.
  - EU (4.30 UN 홈페이지)
    - 국제 사회는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 유지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야 할 중대한 확산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북한의 핵폭발 장치 및 전달 장치 실험이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음.
    -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 1718호, 1874호에 대한 심각한 위반인 북한의 4.13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함.
    -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기존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북한이 NPT 및 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과 IAEA가 요청한 개인, 문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함.

## □ 중국어권

○ 中 길림省 제1차 북한 자동차 여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5.9 Bitauto 인터넷 자동차 거래사이트)

- 중국 길림성의 China Auto Star社가 지난 5.1 노동절 연휴에 기획한 제1차 국제 자동차 여행인 '신비한 북한 나진·선봉, 자동차 여행'이 5.5일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음.
- 이번 자동차 국제 여행은 중국에서 처음 기획된 것으로 개인이 직접 운전해 북한을 여행할 수 있어서 많은 자동차 여행자들의 관심을 받았음.
- 이번 여행에 참여한 차종은 △벤츠, △BMW, △아우디, △혼다, △현대 등이며, 총 14대의 차량에 51명이 참여했음.
- 중국 장춘을 출발해 훈춘市 권하 국경지대를 거쳐 북한 나진 선봉에 도착하는 3일 일정 여행은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음.
- 이번 여행의 반응이 좋아 China Auto Star社는 다시 한 번 관련 여행 상품을 기획할 예정임.





## □ 일본어권

- 北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의 90%이상 상납한다. (5.9 NHK)
  - 북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 90%이상을 당국에 상납하도록 지시함.
  - 현재 개성공단에는 5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한 명당 월급은 85달러에서 100달러임.
  - 월급은 북한 당국의 지시로 평양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데 이중에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북한 화폐로 4,000원 정도이며, 이는 암시장 환율로 2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04년 실종된 美유학생 납북 가능성있다. (5.9 TBS뉴스)
  - 일본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2004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유학생 '데이비드 스네돈'이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펴다 북한 당국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美 국무부에 제공함.

## □ 러시아어권

- 평양에서 한국戰 러시아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행사 개최  
(5.9 브즈글라드)
  -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 행사가 러시아 곳곳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평양에서도 북한 軍·외교당국 관계자 참석하 러시아 대사관 주재로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개최됨.
  - 러시아 외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991구의 참전용사 유해를 포함한 총 1,372구의 구소련 러시아인의 유해가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연해주 지역 청소년, 북한에서 진행될 여름캠프 참가 예정이다.  
(5.10 보스토크 미디어)
  - 극동 연해주지역 아르테모프스크市에서는 7.26~8.9일 북한에서 진행될 '청소년(12~15세) 테마 여름캠프'의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참가비는 18,500루블(한화 70만원 상당)임.

## 붙임 1. AP통신 보도 원문 (5.10)

### AP통신 홈페이지

"Illicit access to foreign media is changing North Koreans' worldview, study says"

- o A U.S. government-funded study says North Koreans have unprecedented access to foreign media, giving them a more positive impression of the outside world.
- o The study was commissioned by the State Department and conducted by a consulting group, InterMedia. It is based on research involving several hundred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fugees during 2010-2011. The Associated Press obtained the study ahead of its formal release Thursday.
- o The study, titled "A Quiet Opening: North Korea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says restrictions that threaten years in prison and hard labor for activities like watching a South Korean soap opera or listening to foreign news broadcasts have been tightened since the mid-2000s, but are enforced less than in the past. People remain wary of government inspection teams, but fewer citizens appear to be reporting on each other.
- o Nearly half of those interviewed said that while in North Korea they had watched a foreign DVD, the most commonly used type of outside media. About a quarter of people had listened to a foreign radio news broadcast or watched a foreign news station.
- o Nearly one-third of television watchers whose sets were fixed to state-run programming had modified them in order to capture a signal from outside stations detectable along the Chinese and South Korean borders.
- o "While it remains the most closed media environment in the world, North Korea has, to a significant extent, opened unofficially since the late 1990s. North Koreans today have significantly greater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than they did 20 years ago," the study says.
- o Nowadays, North Koreans with exposure to outside news or entertainment media are more likely to be favorably disposed towar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the North's traditional enemies – although they would be extremely limited in their ability to express such views or act on them, the study says. While these changing views are unlikely to result in significant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the short term, many North Koreans "are beginning to look more critically at the basic premises of their country's power structure and policies," it says.

## 붙임 2. United Nations 원문 (5.3)

### United Nations 홈페이지(4.30)

"EU General Statement, First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2015 NPT Review Conference, Vienna 30 April-11 May 2012"

- 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be faced with major proliferation challenges, which must be addressed in a resolute way in order to maintain the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PT regime. Iran's nuclear programme defying many UNSC and IAEA BoG resolution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testing of a nuclear explosive device and delivery mechanisms are most worrying examples in this regard. We strongly condemn the North-Korean launch conducted on April 13th, which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695, 1718 and 1874. We strongly urge the DPRK to abandon all its existing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We call on the DPRK to return to full compliance with the NPT and IAEA safeguards obligations, and provide the IAEA with the requested access to individuals, documentation, equipment and facilities.

### United Nations 홈페이지(5.3)

"Statement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rance,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2012 Non-Proliferation Treaty Preparatory Committee"

- o We also remain concerned about the DPRK's nuclear program, including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We strongly urge the DPRK to fulfill its commitments under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 Party Talks, and to fully comply with all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1874, including abandoning all it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immediately ceasing all related activities. We note with serious concern the 13 April launch by the DPRK and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actions which may cause grave security concerns in the region, including any nuclear tests. We reaffirm our firm support for the resumption of the Six Party Talks at an appropriate time.

### 붙임 3. 중국 Bitauto 게재 원문 (5.9)

#### Bitauto 홈페이지

##### “吉林省中汽之星首届跨境自驾游圆满成功”

- 吉林省中汽之星应广大车友的要求，经中朝两省市旅游部门的协调，适逢五一假期举办了吉林省首届跨境自驾游“探秘朝鲜、罗津先锋——自驾游跨境之旅”的活动。这次自驾游不仅是吉林省首次，在全国范围内来说也是首次组织车队、车主驾车直接跨越国境进入朝鲜旅游，受到了广大自驾游爱好者的追捧。参加本次活动的人数有51人，车辆有14辆，聚集了奔驰、宝马、奥迪、路虎、丰田、现代跑车等车辆。
- 本次活动历时3天，从长春出发，经由珲春圈河口岸出境，抵达朝鲜罗津先锋。由参加活动的车友反馈得知，这次朝鲜跨境自驾之旅，不仅让客户感受到吉林省中汽之星的热情关怀，让我们更加珍惜今天的幸福生活。
- 由吉林省中汽之星主办、仕界名车友情支持的吉林省首届“探秘朝鲜——跨境自驾游”活动已于5月5日取得圆满成功，车友对这次活动给予了很高的评价。继“朝鲜自驾游”活动之后，我公司还会为广大车友推出一系列活动，敬请期待！

### 붙임 4. 일본 NHK 보도 원문 (5.9)

#### NHK 홈페이지

##### “北朝鮮 給与の90%以上を上納”

- 北朝鮮が、韓国と共同で開発するケソン工業団地で働く労働者の給与の90%以上を当局に上納させ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ケソン工業団地が北朝鮮にとって貴重な外貨獲得の手段であることが改めて浮き彫りになりました。
- これは、北朝鮮に詳しい韓国の政府筋が明らかにしたものです。韓国と北朝鮮が共同で開発するケソン工業団地には、現在5万人の労働者が働いており、1人当たりの月給は85ドルから100ドル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 給与は北朝鮮当局の指示により、ピョンヤンの銀行口座に振り込まれていますが、このうち実際に労働者に支払われるのは、北朝鮮の通貨で4000ウォン程度、闇のレートで2ドル未満に相当する金額で、残り90%以上を当局に上納させ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 この関係筋によりますと、去年末、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死去が発表された2日後、北朝鮮の責任者が、急きょ韓国の当局者をケソン工業団地に呼び出し、キム総書記の遺訓として工業団地の事業を継続することを一方的に通知したということで、ケソン工業団地が、北朝鮮にとって貴重な外貨獲得の手段であることが改めて浮き彫りになりました。

NHK 홈페이지

- 韓国のイ・ミョンバク政権は、北朝鮮との関係が悪化したあともケソン工業団地の事業を継続していますが、今後北朝鮮が新たな核実験などに踏み切れば、韓国国内で事業の見直しを求める声が強まることも予想されます。

**붙임 5. 일본 TBS뉴스 보도 원문 (5.9)**

TBS뉴스 홈페이지

“米国人の拉致情報を米国務省に提供”

- アメリカを訪れている、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被害者の家族らが、北朝鮮に拉致された可能性が高いとされるアメリカ人男性について新たな情報をアメリカ国務省に伝えたとして、「拉致を自国の問題として取り組んでほしい」と訴えました。
- 拉致問題の合同訪米団は、8日、ワシントンで会見し、アメリカ・ユタ州出身で中国に留学中だったデイビッド・スネドンさんが、2004年8月、旅行先の雲南省で行方不明になった後、北朝鮮に拉致された可能性が高いと述べました。
- スネドンさんが「脱北者の支援に関わっていると疑われ、中国当局に逮捕された後、何らかの理由で北朝鮮当局に身柄が引き渡された」との情報提供がごく最近もたら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合同訪米団はこの情報を国務省に伝えた上で、スネドンさんの地元、ユタ州選出の議員らと面会し、情報を提供するとともに「拉致問題を自国の問題としても取り組んでほしい」と要請したということです。

**붙임 6. 러시아 브즈글라드 보도 원문 (5.9)**

브즈글라드 일간지 홈페이지

“КНДР почтила память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 Церемония в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в годы войны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отдавших свои жизни за свободу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ошла в День Победы в столице КНДР возле монумента «Освобождение» при участии военного оркестра и сотрудников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и и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Церемонию возглавляли посол РФ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Тимонин и военный атташе посольства Дмитрий Железников. В ней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родны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МИД КНДР.

브즈글라드 일간지 홈페이지

- Помимо Пхеньяна, памятники, монументы и захоронения имеются в городах Чондин, Хамхын, Вонсан, Раджин, Хэджу, Нампхо, Синьй джу и ряде других. Всего, по данным российской дипмиссии в столице КНДР,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захоронено 1 тыс. 372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включая 991 военнослужащего.

**붙임 7. 러시아 보스토크 미디어 보도 원문 (5.10)**

보스토크 미디어 지역일간지 홈페이지

“Примор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риглашают провести лет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В Приморье открыт набор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детские лагеря отдыха. Как сообщили РИА «Восток-Медиа»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ртем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для отдыха в профильном лагер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бъявляется набор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5 лет. Смена состоится с 26 июля по 9 августа 2012 года. Стоимость путевки - 18 500 рублей. Набор в профильный лагерь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о 1 мая 2012 года. За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родителям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щаться в отдел молодежи и туризм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ртем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о адресу: Артем, ул. Кирова, 48 каб. 221, телефон 4-35-81.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영어권

○ 北 어린이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5.10 세이브더칠드런 / VOA)

- 국제 어린이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2012년 세계 어머니 현황(State of the World's Mothers 2012)'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1990~2010년 발육부진 어린이 비율이 매년 5.6% 감소해 영양 실조 퇴치율이 빠른 나라 6위를 차지함.

<연평균 어린이 발육부진 감소율(%), 1990~2010>

순위	국가	5세미만 발육부진 어린이(%)		연평균 감소율	
		베이스라인	엔드라인	연도	%
1	우즈베키스탄	39	20	1996-2006	6.7
2	앙골라	62	29	1996-2007	6.6
3	중국	32	9	1990-2007	6.3
4	카자흐스탄	33	18	1997-2006	6.3
5	투르크메니스탄	28	19	2000-2006	6.3
6	북한	64	32	1998-2009	5.6

- 북한에서 5세 미만 어린이 중 발육부진은 1998년 64%였지만, 2009년에는 32%로 감소함.

\* 세이브더칠드런은 1990~2010년에서 가장 가까운 연도의 수치를 활용해 각국의 감소 비율을 산출함.

- 북한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복지 상태는 저개발국가 83개 중 47위를 차지함.

저개발국가	어린이 지수					순위
	5세미만 사망률 (1000명당)	5세미만 저체중 비율	초등학교 입학률	중학교 입학률	안전 식수 확보률	어린이 지수 순위 (83개국중)
	2010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0년	
북한	33	19	-	98	98	47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어린이 지수 중 △북한의 5살 미만 사망률은 2010년 1,000명 당 33명, △ 5살 미만 중 저체중은 19%, △ 중학교 입학률은 98%, △안전한 식수 확보율은 98%로 나타남.
- 생후 6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하는 유아 비율은 65%, 2살까지 모유 수유를 하는 비율은 37%로 4단계 평가기준 중 하위에서 2번째인 '양호(Fair)' 평가를 받음.

<유아 모유수유 비율(%), 2000-2011>

국가	생후 1시간 이내	생후 6개월간	생후 6~9개월간	2세까지	점수	평가
북한	18	65	31	37	5.3	양호

o 美·英, 북한의 해외 무기판매 강력대응 촉구(5.10 Financial Times)

- 美·英 당국자들은 북한이 중동·아프리카에 핵 기술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우려 가운데, 북한의 해당 지역 무기 판매에 대한 더 강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북한의 국제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UN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 등에 무기 및 관련 기술 판매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임.
- 영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국영 무기수출업체인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는 이란·시리아 외 다른 중동·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지사를 두고 있음.
- 자회사의 명칭 변경을 통한 규정 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더 강력한 UN 제재 이행이 필요하며, 제재 대상 개인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영국 당국자들은 주장함.
- 작년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북한發 콩고행 무기 관련 자재가 적발됐으며, 2010년에는 그리스에서 북한發 시리아행 금지물자가 적발됨.



□ 중국어권

○ 김정은 양복 착용, 북한은 변할 것인가?(5.10 / 신화망)

- 지난 4.12일 북한이 양복 차림의 김정은 사진을 공개하자, 국제 언론은 이를 통해 개방과 관련한 숨은 뜻을 분석하려고 했음.
- 「장리엔구이」(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 ‘사진 한 장으로 어떤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김일성도 양복을 좋아했으며, 서양 언론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 ‘스위스 유학생황이 김정은의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보통 유학생과는 다른 생활을 했기에 일반적인 서양식 생활이나 민주제도, 선거에 대해 잘 모를 것이다.’
  - ‘이런 사진보다는 신문 사설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을 통해 북한은 개혁개방을 부인했다.’
  - ‘또한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은 북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선군혁명을 강조했다.’
  - ‘김정은이 옆사람과 얘기를 했다거나 손을 흔들고 미소를 보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 ‘열병식 연설에서 강조한 선군정치, 핵무기와 위성 개발은 모두 김정일 유훈이다.’
  - ‘이에 김정은이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인민복을 입었던 김정일과 달리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

○ 중국 단둥市 42개 기업, <제15회 평양 춘계 국제상품전> 참가

(5.10 단둥시 정부 홈페이지)

- 5.14~17일 개최되는 제15회 평양 춘계 국제상품전에 중국 단둥시의 42개 기업과 12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2.5.1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번 상품전에서 단동시는 △전자, △기계, △의류, △식품, △석유화학, △자동차, △건축자재 등 분야의 96개의 부스를 개설할 예정임.
- 평양 국제상품전은 <조선국제전람회> 주최로 열리는 북한 최대 규모의 국제 전람회임.
- 현재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북한의 시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단동시는 이번 상품전을 통해 對北 무역의 교두보 역할과 지위를 더욱 명확히 할 것임.
- 중국의 중소기업 국제시장 개척 자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이번 전시회 참가 기업의 부스 개설 비용은 모두 정부지원을 받음.

## □ 일본어권

### ○ 김정은은 상식인이다.(5.10 하신기 블로그)

- 최근 김정은의 평양 만경대유희장에서 의 질책은 당연한 일일 한 것이며, 보통 국가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음.
- 인터넷을 통해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도 상식적임.
- 해외로부터의 정보유입을 경계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당과 정부의 간부 외에 연구원, 보도관계자 등으로 한정되어있다고 전하는 미디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틀렸음.
- 청년들이 도서관·가정·평양 시내의 PC방에서 즐기고 있고, 북한 국내로 한정된 인트라넷이지만 서서히 개방되고 있음.
- 스위스에서 5년 이상 지극히 평범한 청년으로 생활한 김정은은 시민사회를 체험했으며, 서울·도쿄의 청년들과 똑같은 감성,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분간하며, 서서히 하고 있는 것임.

○ 中 리자오싱 前외교부장, 김영남과 회담(5.10 닛케이)

-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리자오싱 前 중국 외교부장이 5.8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인민일보가 5.10일 보도함.
-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리 前외교부장이 중국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임.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아무르州 기업 대표단, 북한과 임업부문 협력 논의

(5.10 wood.ru ⇨ 임업전문 포털사이트)

- 극동 아무르州 대형 임업기업 대표단, 아무르州의 벌목·목재 가공·산림복원 관련 북한과의 협력 논의차 방북 후 귀국함.
- 양측은 2011년 협력성과 및 기업생산 목표달성 저해요소를 진단하고, 단기 전망의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함.
- 향후 상호 협력을 통해 벌목량 6% 증대 및 목재가공 생산의 안정적인 발전과 새로 도입된 제재(製材) 라인 활동을 100%로 끌어올릴 예정임.
- 또한 사회 인프라시설 건설 및 산림복원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을 계획하였음.

**붙임 1. 세이브 더 칠드런 보고서 원문 (5.10)**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State of the World’s Mothers 2012”

o Countries Making the Fastest and Slowest Gains Against Child Malnutrition, ~1990-2010(annual % decrease in stunting)

	Country	% Children under-5 stunted		Average annual rate of reduction	
		baseline	end line	years	%
1	Uzbekistan	39	20	1996-2006	6.7
2	Angola	62	29	1996-2007	6.6
3	China	32	9	1990-2007	6.3
4	Kyrgyzstan	33	18	1997-2006	6.3
5	Turkmenistan	28	19	2000-2006	6.3
6	DPR Korea	64	32	1998-2009	5.6

o The Complete Mother’s Index 2012

Less Developed Countries and Territories (minus least developed countries)	Children’s Index					Rankings
	Under-5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Percent of children under 5 moderately or severely underweight for age	Gross primary enrollment ratio (% of total)	Gross secondary enrollment ratio (% of total)	Percent of population with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Children’s Index Rank (out of 83 countries)
	2010	2010	2011	2011	2010	
DPR Korea	33	19	-	98	98	47

o Infant and Toddler Feeding Scorecard

	put to the breast within 1 hour of birth	exclusively breastfed (first 6 months)	breastfed with complementary food (6-9 months)	breastfed at age 2 (20-23 months)	Score	Rating
DPR Korea	18	65	31	37	5.3	Fair

## 붙임 2. 英 Financial Times 원문 (5.10)

Financial Times 홈페이지

"Call for action over N Korea arm sales"

- o US and UK officials are seeking stronger action against North Korean arms sale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amid fears that the country could eventually look to sell nuclear technology in the region.
- o Despite a UN resolution banning it from selling arms internationally, North Korea has tried to earn foreign currency by selling weapons and associated technology to countries including Iran and Syria. The state arms company, Komid, has offices in both countries as well as others in the Middle East, Asia and at least one African country, according to UK officials.
- o The officials said more aggressiv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by UN member states was needed to prevent Komid sidestepping the measures by changing the names of the subsidiaries through which it operates. A more extensive list of proscribed individuals was also needed, they added.
- o Several shipments of North Korean weapons have been intercepted. According to a report last year by a UN panel of experts, South Africa discovered arms-related material en route from North Korea to the Republic of Congo in 2009, while Greece blocked a shipment of banned items allegedly bound for Syria in 2010.

## 붙임 3. 중국 신화망 보도 원문 (5.10)

신화망 홈페이지

“金正恩穿上西装 朝鲜就会变吗”

- o 在4月12日朝鲜官方公布的标准照中，外界没有见到他身着人民装那几乎是朝鲜领导人的象征。反之，人们见到一个穿西装的新晋朝鲜劳动党第一书记。国际媒体努力从种种蛛丝马迹中发掘金正恩的内心世界。他们忙着历数这个不足30岁的年轻人种种不同寻常举动，比如穿起西装。比起金正恩的标准照，朝鲜报纸上正式发表的社论更能代表真实意图。

## 신화망 홈페이지

- 长期从事朝鲜半岛问题研究的中央党校国际战略研究所教授张琏瑰在接受《青年参考》采访时，不认为这张标准照传达出了任何特殊信息。”“这些细节没有太多意义。”张琏瑰说。
- 与这些外媒不同，曾在朝鲜金日成综合大学留过学的张琏瑰，不相信留学生活对金正恩会有影响。他解释说，金正恩的学习和一般留学完全不同。他住在使馆，用假名，上学放学都由使馆司机接送。这样的结果是，金正恩实际上很少有机会接触西方国家的一般生活，也很难接触到当地的民主制度或者选举。
- 张琏瑰相信，在金正恩对改革开放的态度上，媒体是过度解读了，一张西装标准照不能说明什么问题。他的例证之一是，金日成也很喜欢穿西装，留下过很多身着西装的照片。
- 比起金正恩的标准照，张琏瑰说，朝鲜报纸上正式发表的社论更能代表朝鲜领导层的真实意图。这些发言是经过相当级别的干部研究批准的，是最正式的声音，而通过这些声音，朝鲜明确否认会改革开放。
- 在4月“太阳节”庆祝期间，据称是因为金正恩的意思，世界各大媒体的百余名记者第一次云集平壤。在4月15日的人民军阅兵式上，他们出乎意料地见到了金正恩公开发表演讲。
- 但张琏瑰相信，真正说明情况的，不是这些类似金日成的亲民风格的细节，而是金正恩的发言内容他在演讲中宣布朝鲜将继续“先军革命”，努力统一朝鲜半岛，使朝鲜半岛处在朝鲜的领导之下。
- “朝鲜没有任何变化，”张琏瑰说，“金正恩笑了笑，或者举了举手，并不代表什么。看看他正式的发言要继承金正日遗愿，坚持先军政治，发展核武器，搞卫星等这都是金正日的革命遗产。” 这或许是穿着西装的金正恩与穿人民装的金正日之间没有变化的东西。

## 붙임 4. 중국 단둥시 정부 홈페이지 원문(5.10)

### 단둥시 정부 홈페이지

“丹东市42家企业将参展第15届平壤春季国际商品展览 ”

- 第15届平壤春季国际商品展览会将于5月14日至17日在平壤三大革命展示馆举行。丹东市将派出42家企业、123人组成的代表团参展。这是历年来该市代表团参展规模最大的一次。
- 该市企业将在展会上设立室内、室外共计96个展位，参展的商品主要有电子产

단동시 정부 홈페이지

品、机械制造、纺织服装、粮油食品、石油化工、工程车辆、建材等，种类和数量均创历年新高。

- 平壤国际商品展览会由朝鲜国际展览社主办，是朝鲜目前规模最大的国际性展览会。目前，很多国内企业看好朝鲜市场商机。在今年丹东参展企业中，有12家企业是国内一些大型企业在丹东的代理商，希望通过代理商参展将产品介绍到朝鲜。业内人士表示，借助本届展会，丹东将进一步凸显对朝贸易“桥头堡”的地位和作用。
- 此外，经过严格审查和精心挑选，今年平壤春季国际商品展览会该市有10多家中小企业首次参展。这将为该市中小企业发展和“走出去”创造契机。按照国家和省、市中小企业国际市场开拓资金管理规定的有关要求，此次参展企业摊位费将享受全额补贴。

**붙임 5. 일본 하신기블로그 보도 원문 (5.10)**

하신기블로그 홈페이지

“金正恩第1書記は常識人”

- 朝鮮中央テレビ（9日）によると、金正恩第1書記がピョンヤンの万景台遊園地を視察し、道路のひび割れ、雑草が生え放題、ペンキが剥げ落ちていることに、「従業員にはこれが見えないのか。遊園地の状況がこんなにひどいとは思わなかった」「なぜ剥げたペンキを塗らないのか」「草をむしらないのか」と述べ、同行した崔竜海軍総政治局長に遊園地の営業を停止し、将兵を動員して園内を整備するよう指示した。
- 「最高指導者としての威厳を強調」と伝えるメディアもあるが、当たり前のことをしようとしただけのことである。普通の国になろうとしていると思えばよかろう。
- また、労働党機関紙「労働新聞」が9日、金第1書記が主要幹部らに国土整備に関する基本方針を示した先月27日付の談話全文を掲載した。そこには、「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他国の先進的な科学技術のデータに多く接するようにするべきだ」との指示がある。これも常識的なことである。
- 「外国からの情報流入を警戒し、ネットを利用できるのは党や政府の幹部のほか、研究者や報道関係者などに限定されている」と伝えるメディアがあるが、基本的な間違い。青年学生らが図書館、家庭、ピョンヤン

하신기블로그 홈페이지

市内のネットカフェで楽しんでいる。北朝鮮国内に限定されたイントラネットだが、徐々に開放されている。

- スイスでごく普通の青年として5年以上生活した金正恩氏は市民社会を一市民として体験しており、ソウルや東京の青年と同じ感性や合理性がある。それが出てきているだけのことである。無論、立場というものがあるから、自ずと弁え、徐々にということである。

**붙임 6.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 원문 (5.10)**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中国前外相が訪朝、北朝鮮ナンバー2と会談”

- 北朝鮮を訪問している中国の李肇星前外相が、金永南（キム・ヨンナム）北朝鮮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と会談した。中国共産党機関紙の人民日報が10日までに伝えた。金委員長は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第1書記に次ぐ北朝鮮の序列第2位。北朝鮮が核実験を準備しているとされることを巡り、李氏は中国側の懸念を伝え、自制を促したとみられる。
- 李前外相は中国の国際交流団体「中国国際友好連絡会」の会長として訪朝した。

**붙임 7. 러시아 wood.ru 보도 원문 (5.10)**

wood.ru 입업전문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Ведущие лесопромышленники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я посетил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упней ших лес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заготовке, переработке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лес



wood.ru 임업전문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посетили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Визит длился с 13 по 20 апреля.

-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целей данного посещения явилось участие в XVI-м заседании Подкомиссии по лес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был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2011 году, озвучены проблемы, препятствующие достижению целевых индикаторо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приятий, и определены конкретные задачи на краткосрочный период.
- Результат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олжны стать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ов заготовки древесины на 6%, стаби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еревообрабатывающе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ыход на полную мощность введенных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ых линий лесопиления.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бъектов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лесо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ласти.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美에 예측 불능의 위험 요인이다. (5.14 美 헤리티지재단)

- 「피터 브룩스」(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북한은 장거리 탄도마시일 실험 등 도발행위를 일삼으며, 미국에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 ‘지난 2년간 북한은 한국 군함을 침몰시키고 한국 섬을 포격했으며, 한국 국방장관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 ‘젊고 경험이 부족한 북한의 새 지도자는 국내외에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등 추가 도발을 경고하고 있다.’
- ‘게다가 올해 미사일 실험에 이어 3차 핵실험도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 ‘핵·미사일 실험이 성공한다면 시리아·이란 등 국가들로 핵무기가 확산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강조

○ 韓정부 대북 강경조치의 희생양은 한국 기업들이다.

(5.11 Washington Post)

- 이명박 정권 이전 정부까지 南·北간 합작 사업이 이윤창출과 평화구축의 기회로 장려되어 온 반면, 현 정권 이후 이러한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강경 조치가 취해졌음.
-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파산에 몰리고 경영자들이 정부에 반감을 가지게 됨.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 기업가들이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우려해 다시는 북한과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았음.

- 석탄수입회사를 운영했던 이영승씨,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유일한 희생양은 북한과 거래했던 한국 기업들이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 보호책이나 피해보상이 전혀 없었다.'
- 개성공단은 예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공단 폐쇄시, 정부가 참여 기업들에게 수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
- 윤민호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특히 2010년 이후 한국 기업들이 대북교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총 4,600백만 달러의 저리 대출을 제공했다.'
- 한국의 기업인 김정태씨의 경우에는 정부의 北 여행 및 운송 제한으로 인해 3천만 달러의 잠재소득과 1,500만 달러의 초기 투자비용을 잃었음.
- 김정태씨는 2009년 의류제조업체 설립을 위해 평양에 공장을 짓고 600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5년간 北당국과 협상을 진행했고, 이후 5년간 공장 건축과 고용을 추진했음.
- 그러나 2009.4월 통일부가 더 이상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 공장 감독을 하지 못했고, 북한 노동자 훈련을 위한 기술자를 보내지 못했으며, 통일부로 전화해 건의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함.
- 최근 그는 녹슬고 못쓰게 된 섬유 기계들을 찍은 사진을 받아 보았으며, 주택과 부동산을 차압당했음.
- 북한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인 '평화자동차'는 수출입이 아닌 북한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하며, 미국 국적인 최고 경영자와 일본 국적인 고위임원들이 북한 여행 제한을 받지 않기에 살아남음.
  - ※ 박상권 회장은 회사 운영을 위해 10년 전 미국 시민권을 획득
- 평화자동차 남포공장은 Fiat과 Brilliance 등 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중국과 이태리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조립 차량을 생산하고 있음.

2012.5.14(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평화자동차의 최대 고객은 지분 30%를 보유한 북한 정부이며, 주로 검정색 밴과 SUV를 대량 구매한다고 함.
- 그러나 평화자동차도 북한에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체계가 없고, 대북 교류를 하지 않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음.
- 2011년 80만 달러의 수익을 낸 평화자동차는 중국으로 현금 가방을 운반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송금하고 있음.

## □ 중국어권

○ 韓·中·日 경제협력은 북한 개혁에 도움이 된다.(5.14 홍콩 봉황위성TV)

- 5.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韓·中·日 정상회의에서 3國은 연내 FTA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음.
- 「탕번」(북단대학 국제관계와 공공사무 학원 교운교수),
  - ‘韓·中·日의 전면적 협력을 통한 한국의 경제 발전은 북한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 발전 앞에서 스스로 민생을 챙겨야 하고, 개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韓·中·日 FTA 추진 과정은 북한에 커다란 압력이 될 것이다.’
  - ‘북한은 1991년 이미 나선을 자유경제무역지구로 설정했으나, 경험부족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 ‘그러나 2012년 중국과 항구 사용권 관련 계약을 하면서 개혁 개방의 경험이 있는 중국과 공동으로 나선지역을 관리하게 됐다.’
  - ‘이는 민감한 주권문제이지만 김정일 집권時 이미 양측이 합의했으며, 중국도 공항·항구 건설 투자로 東海 출항구가 생기게 된 것이다.’

2012.5.14(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이 나선항을 이용하게 되면 이곳 뿐 아니라 신의주와 기타 지역 경제 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 '이로써 북한 개혁은 가능성이 보이며, 서양 유학 경험이 있는 북한의 지도자가 개방적 사고로 북한 주민의 복지를 추구했으면 한다'고 발언

○ 중국은 지역 협력의 중심 역량이 되어야 한다.(5.13 중국망)

- 「런웨이둥」(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전략연구센터 부연구원),

- '5.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韓·中·日 3국과 지역 협력 강화는 중국, 동북아 및 전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지역 협력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안보도 중요한 부분이나 경제협력에 비해 동아시아의 정치안보 협력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 '물론 △영토분쟁, △한반도 정세, △兩岸관계, △정치경제의 형식차이 등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는 복잡하다.'
- '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신뢰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 안보 시스템을 만들어 독립자주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중국은 경제·영토·인구·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동북아와 동남아를 잇는 허브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지역 협력을 위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 '이러한 중국의 역할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자, 스스로의 안보와 권익 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韓·中·日 FTA가 지역협력의 중심이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북한·러시아·몽고도 지역 협력에 포함 시켜야 한다.'
- '이와 함께 동북아와 동남아를 함께 엮어 동아시아가 미래 세계 발전에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어권

○ 北 부유층, 당국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5.10 주간현대 ㉠ 주간지)

- 미사일 발사 실패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 김정은의 표정은 밝았음.
- 김정은이 실패를 역으로 이용해 군부內 숨어있는 反김정은派 숙청을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임.
- 본래대로 라면 미사일 실패를 북한 주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없었지만 일부러 공표함으로써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음.
- 그 결과 국가정책을 놓고 자주 김정은과 대립한 김영춘이 지목되었고, 김정은은 김영춘의 권력을 한꺼번에 빼어 그의 부하급인 리영호를 최측근으로 기용함으로써 굴욕을 안겨줌.
- 中·北무역의 급증으로 새로운 부유층이 생기고 있음. ‘中北 무역망’이라는 中·北무역 전용 사이트에서는 대형기기에서부터 일용잡화에 이르기까지 매일 몇 백 종류 이상의 물품정보 교환이 양국 기업 간에 이뤄지고 있음.
- 특히 활발한 것이 PC와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 무역으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 거래액은 3배, 휴대폰은 40배 정도 증가함.
-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전자기기의 보급도 추진돼 북한당국은 이를 경계하고 있음.
- 그러나 中·北국경 부근에서라면 해외통화나 인터넷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가 부유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음. 휴대폰으로 해외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그들간의 비즈니스에서 필수이기 때문임.
- 3~4월까지 북한 당국은 정보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 광범위에 걸쳐 방해전파를 내보내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자, 부유층 사이에서는 당국의 방식에 서서히 불만을 갖기 시작함.

□ 러시아어권

○ 서방에서 나오는 정보는 북한에 대항하는 정보전에 불과하다.

(5.13 보스토크 미디어)

- 북한에서 인육을 먹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러시아 각 언론에서 문제·원인을 다루고 있음.
- Russia Today(방송사)에서는 이웃국가들의 대북 식량지원이 제한되는 등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함.
- 극동지역 북한 외교 소식통, '서방에서 나오는 이러한 정보는 북한에 대항하는 정보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힘.
- 북한 측 옹호자들, '인터넷상에 떠도는 동영상과 사진은 조작하게 만들어진, 한국 배우들이 찍은 영상이다'라고 논평함.

○ 당분간 전술 핵무기 한반도 배치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5.12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美 의회에서 한반도 전술 핵무기 배치가 논의되는 등,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며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
- 현재 강경파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중국이 북한의 위협한 야심을 억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 않음.
-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역내 비핵화 방침과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노선 위반을 의미한다고 평가함.
- 이러한 견지에서 美 대선 전까지 전술 핵무기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붙임 1. 美 헤리티지재단 게재 원문 (5.10)

美 헤리티지 재단 홈페이지

“Protect America from What?”

- o North Korea remains a wild card—and a dangerous one at that. The recent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 is just the latest in a string of provocations from Pyongyang.
- o Over the last two years, it has sunk a South Korean warship, shelled a South Korean island, and hatched a plot to assassinate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 o The accession of a new, young, and inexperienced North Korea leader late last year could portend more provocations as he attempts to signal strength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s.
- o In addition to the missile test, another nuclear weapons test is expected this year. These nuclear and missile tests improve North Korea’s ability to target the United States—not to mention that successful tests increase the attractiveness of secondary proliferation to the likes of Syria, Iran, and others

## 붙임 2. Washington Post 원문 (5.11)

Washington Post 홈페이지

"South Korea's businesses pay the price for Lee's tough policy toward the North "

- o For much of the previous decade, South Korean leaders encouraged private companies to do business with the authoritarian North, seeing the joint ventures as a chance for both profitmaking and peacemaking. But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has used a series of increasingly aggressive measures to cut off those deals, in the process forcing South Korean companies into bankruptcy and leaving business executives bitter about Seoul's policy U-turn.



Washington Post 홈페이지

- o Now, those measures have taken dramatic effect, with South Korean executives vowing never again to do business with the North, fearing vulnerability to Seoul's policy changes. "The only victims from [Lee's policy] are the South Korean companies who were dealing with North Korea," said Lee Young-seung, who ran a coal importing company. "No government countermeasures have been set up to protect us or help the companies that were damaged. I feel let down and neglected."
- o One exception to Lee's clampdown i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 still-growing capitalist enclave just north of the border that is home to more than 120 South Korean companies. Seoul is reluctant to yank support for Kaesong because a closure would force the government to pay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insurance to those companies.
- o The economic cooperation director at South Korea's Ministry of Unification, Yoon Min-ho, said that, particularly since 2010, "it is true that South Korean companies are going through hardships due to the disconnection" of links with the North. But the government, Yoon said, has distributed \$46 million in low-interest loans to those struggling companies.
- o As a result of South Korea's restrictions on shipping and travel to the North, Kim Jung-tae, a Seoul-based businessman, says he has lost \$30 million in potential earnings, and all of his initial \$15 million investment. Kim had hoped to open a clothing manufacturer in 2009 and planned to use a factory in Pyongyang with 600 employees. He'd already been through five years of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another five years of factory construction and hiring.
- o But in April 2009, Kim, who'd traveled to the North 95 times, encountered a proble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ould no longer approve his visa. That meant Kim couldn't oversee the factory's opening. And he couldn't send technicians to train the North Korean workers. "I called the ministry and appealed, and I have complained several times," Kim said. "I've visited in person. But everything has been denied."
- o Kim recently received photos of the abandoned textile machines, corroded and no longer usable. Kim's bank foreclosed on his home

Washington Post 홈페이지

and a commercial property in Seoul. He rents a room from his son. At age 69, Kim says, he has given up hope on his investment.

- o Pyeonghwa has survived because it neither imports nor exports to the South — it simply produces and sells cars in North Korea — and because its top executive, as well as its upper-level Japanese employees, can still travel to the North. The president, Park Sang-kwon, 10 years ago obtained U.S. citizenship — a business decision, he said, to reduce Pyeonghwa's vulnerability. (He owns a home in New Jersey and has l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parts of 20 years.)
- o Workers at Pyeonghwa's manufacturing plant in Nampo obtain complete-set part kits from China and Italy (paying royalties to companies such as Fiat and Brilliance) and then produce knockoff models, including one (only recently discontinued) resembling a Mercedes-Benz sedan. Pyeonghwa's biggest customer is the North Korean state itself, which owns 30 percent of the company, and which scoops up vans and SUVs in bulk, generally preferring automobiles in black.
- o But Pyeonghwa faces some inconveniences both because it operates in a country that lacks a trusted banking system and because it's headquartered in a country that doesn't deal with the North. The company calls itself "a brid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it remits its earnings to Seoul by hiring "hand carriers" who lug bags of cash to China. From there, the profits — \$800,000 in 2011 — are entered into the banking system and transferred to the South.

### 붙임 3.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5.14)

봉황위성TV 홈페이지

“汤本：中日韩经贸合作有利促进朝鲜改革”

- o 杨娟：那您认为这种中日韩的这种全方位的合作对于同样是处在东北亚的朝鲜会带来什么样的影响呢？
- o 汤本：带来巨大的压力，那我们知道朝鲜在1991年已经开辟了第一个自由经贸区或者说自由贸易区，有的把它叫做经贸开放区，叫罗先，这个罗先是以罗金港口

## 북항위성TV 홈페이지

还有先锋两个港口缩写成罗先，那么这个罗先呢在发展过程中呢就是始终是不能发展起来，为什么呢？没有经验，那么到2012年发生了质的变化，签署了新的合约，跟中国签署了合约，不仅已经有一个码头让中国使用，而且有三个新的码头都是7万吨级的，5万吨级的码头让中国来使用，那这是个很大的变化，也就是说在这个罗先经贸自由区，这自由贸易区里面它不是朝鲜人在管，中国有改革开放的经验，就是知识分子、经营管理人才和他们一起共管一个地方，这里边涉及到大家很敏感的一个主权问题，但是在金正日的主持下，中朝双方签了这个合同，而且中国投资了30亿在那里建机场、建港口，这样中国就有了日本海的出口，可以缩短行程，节省50%的运费，抵达南韩、抵达日本。

- 即使从罗先港出发，转过来进入中国内地也节省三分之一的费用，同时也刺激那一带的经济发展，我们知道由于各种各样的历史原因，由于璦琿条约，由于各种各样的入股的条约，本来海参崴属于满清中国的，现在已经在俄罗斯的手里，那么现在的这个朝鲜的这个港口让中国的共管，中介50年它的三个重要的码头已经有一个码头在使用，三个码头加四个码头，当然这个消息可能只是韩联社报道，还没有通过正式的公布，但是已经行为一个令人关注的方面，如果通过罗先自贸区的发展然后推动其它的新一周的经贸发展，然后其它地区随势而来的话，朝鲜的改革就有了希望，但朝鲜也不能自外于经济潮流，因为它看到它的兄弟或者它的大哥也好、它的弟弟也好，南韩经济上如此强盛的发展，它不能不考虑自己的民生，要考虑民生它必须改革，所以在中日韩自贸区的推动和建立过程中，将给朝鲜带来巨大的压力，我们也期待新的朝鲜的领导人因为在西方有过留学的经验，希望有这样的开放的思想，是以朝鲜人民的福祉为一个政府追求的福祉。

## 붙임 4. 중국망 보도 원문(5.13)

## 중국망 홈페이지

“评论：中国要成为推动地区合作的主导力量”

- 事实上，地区合作绝不可能只涉及经济问题，政治和安全问题也是重要内容。相对于经济合作，政治和安全合作一直是东亚合作的短板。当然，东亚地区矛盾比较复杂。地区内国家之间的领土领海纠纷，朝鲜半岛局势，两岸关系，政治经济模式差异等问题比较突出，在外部势力的渗透下则更显复杂。为此，东亚国家应共同坚持以史为鉴、尊重事实、面向未来、平等互利、包容差异的基本原则，反对军国主义、极端民族主义等一切错误倾向，不搞军备竞赛，不以对抗的方式处理彼此问题，加强政治和战略互信，共同走和平发展道路。在这个基础上努力建立地区安全机制，独立自主地解决本地区的各种矛盾，为地区合作的顺利发展提供政治和战略保障。
- 中国是本地区的重要国家，经济规模世界第二，地区第一，领土面积和人口都居

## 중국망 홈페이지

地区第一, 历史悠久, 文化深厚, 兼有陆海双重优势, 而且地处连接东北亚和东南亚的纽带位置, 没有任何理由不在地区合作中发挥主导作用。而美国以中国为对象的遏制战略也迫使中国不得不发挥主导作用。所以, 在地区合作中发挥主导作用既是中国责无旁贷的职责, 也是维护自身安全和发展权益的唯一途径。中国有责任也有必要积极就地区合作的方式、途径、原则、框架提出自己的建设性主张, 在地区内部事务中扮演积极角色。加强中日韩三国合作, 建立三国自贸区是地区合作的重要组成部分, 但中国发展地区合作的目标显然不能局限于此。虽然目前尚处建框架、定原则、打基础的阶段, 但东北亚合作未来的发展要考虑将朝鲜和俄罗斯乃至蒙古纳入其中。与此同时, 还要考虑将东北亚和东南亚连成整体的具体途径, 最终使整个东亚成为未来世界格局中的重要一极。

## 붙임 5. 일본 주간현대 보도 원문 (5.10)

## 주간현대 홈페이지

“「金正恩を吊るせ!」北朝鮮「革命」前夜をレポート 歴史は繰り返す”

- ミサイル発射失敗からわずか2日後のパレードだったにもかかわらず、金正恩に落ち込んだ様子が見られなかったのはなぜか。それは正恩がこの失敗を逆手にとって、軍部内に潜む“反正恩派”を一掃することに成功したからだ。北朝鮮との外交に携わる、中国の外務省高官が説明する。
- 今回、金正恩第一書記がミサイル発射の失敗を認めたからには、その責任を誰かにと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そこで正恩が狙いを定めたのが、·反正恩·の最右翼·金永春前人民武力部長だった。
- 金永春は金正日総書記の右腕として、テロや工作活動の実行班として暗躍し、軍のトップである人民武力部長にのぼりつめた人物だ。
- しかし、'09年1月に正恩が後継者に内定してから、金永春はしばしば国家政策をめぐる正恩と対立することとなった。
- 正日総書記が健在だった頃は、正恩も永春に対して強くモノを言えなかったが、昨年12月17日、総書記が死去したことで、この後継者と「軍長老」の権力の均衡は崩れた。正恩第一書記は、永春の権力を一挙に奪い、彼の部下にあたる李英鎬を最側近に起用するなどして、屈辱を与えた。

## 주간현대 홈페이지

- 周知の通り、発射されたミサイルはわずか1分で空中分解。完全な失敗に終わった。本来なら北朝鮮の国民に明らかにする必要はなかった。だが、あえてこれを公表することで、「この責任を誰かが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流れを作り出したのだ。
- 実は、軍部よりもさらに現体制に不満を持っている勢力がある。北朝鮮の富裕層だ。彼らの間では、いまにも噴出せんばかりの「マグマ」がうねっている。
- 実際、中朝貿易は急速に伸びており、貿易額は正日時代に比べて62%増の56億・に達した。金正恩時代を迎えた今年はさらに伸びており、『中朝貿易網』という中朝貿易専用のネットサイトでは、大型機械から日用雑貨まで、毎日何百種類という物品情報の交換が両国の企業同士で行われている。これによって、北朝鮮に新たな富裕層が誕生してきた」
- 特に活発になっているのが、パソコンや携帯電話といった電子機器の貿易で、「'07年と比べるとノートパソコンなどの電化製品の取引額は3倍、携帯電話にいたっては40倍ほども増加している」(同・中国高官)という。
- 貿易が活発になればなるほど、こうした電子機器の普及も進むのだが、北朝鮮の当局はこの流れを警戒している。民衆が携帯電話を手にすることで、北朝鮮国外に電話をかけたり、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したりして、海外からの情報が流入しやすくなるからだ。
- ところが、中朝国境付近であれば、海外通話もネットも制限なく利用できるということが富裕層の間で広まってきている。携帯で海外と連絡を取ることは彼らのビジネスにとって必須。比較的自由に海外の情報に接しており、もはや情報の流入は堰き止めようがなくなっている。昨年9月、北朝鮮からの脱北者9人が石川県沖で救助されたという事件が起こったが、この脱北者らは携帯電話を所有し、それを使って脱北に関する情報収集を行っていた」(同・中国高官)
- 3月から4月にかけて、北朝鮮当局は情報の流出入を防ぐため、広範囲にわたって妨害電波を発信した。ここにも当局の警戒感がみてとれる。だが、富裕層らにとっては「ビジネスの妨げになる妨害電波はただうっとうしいだけのもの。富裕層の間では当局のやり方に徐々に不満が高まっている」(同)という。

## 붙임 6. 러시아 보스토크 미디어 보도 원문 (5.13)

### 보스토크 미디어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Всплеск каннибализма в КНДР - газетная утка западных спецслужб или ре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дел?”

- Проблема каннибализм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уже становилась предметом обсуждения и на российском телевидении. Американский репортер Джеймс Корбет, работающий в японской Осаке, в эфире англоязычного канала «RussiaToday» увязал всплески каннибализма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ородах с постоянными угрозами стран запада и ближайших соседей КНДР ограничи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помощь в ответ на воинственную риторику нового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а.
-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источник близкий к одному из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КНДР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беседе с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РИА «Восток-Медиа» выразил мнение, что информация о всплеске каннибализма в КНДР - это всего лишь очередной виток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авда, в комментариях к этому ролику сторонники идей Чучхэ заявили, что все видеок кадры и фото,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авторами клипа, якобы, являются грубой подделкой и сняты с помощью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предельного с КНДР государства.

## 붙임 7. 러시아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보도 원문 (5.12)

###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США хотят верну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Корею Конгресс”

- Судя по всему, американским ястребам надоело смотреть, как Пхеньян несмотря на давл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других стран спокойно развивает свою ракетную и 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ы. Американцам также не нравится, что Пекин не пытается реально с

러시이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держивать опасные амбиции Пхеньяна либо, как минимум, и  
збега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жесткие средств давления на КНДР.

- Тем не менее инициатива Конгресса хотя и важна как определен  
ный сигнал о смене настроений в США, но отнюдь не о  
значает,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арака Обамы согласится с этим  
предложением. Как считают эксперты, Обама как минимум в  
плоть до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не пойдет на размещение  
такт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не только фактический отказ от безъядерног  
о статуса региона, но и "расписка" со стороны Обамы в том, ч  
то его курс на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мира провалился.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중국어권

○ 미국의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어리석은 일이다.(5.15 환구시보)

-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 한반도에 전술적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임.
- 1990년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미국이 다시 재배치한다면 중·러는 반대할 것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생각한다면 크게 반대하지 못할 것임.
- 핵무기에 있어서 북한은 이미 이성적이지 못하며, 한국 또한 자신들만의 안보만 고려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한 번 대치 정국으로 빠지게 될 것임.
- 현재 외부세계는 북한의 핵보유를 환영하지 않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도 없음.
-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를 제어하려는 동북아의 환경은 변함이 없고, 북한 새 지도자의 실질적 안보 정책도 전개되지 않았음.
- 향후 북한이 핵보유와 국가 발전의 기회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지 아직 불확실성이 많음.
- 만약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받아들인다면 한반도의 북한 핵억제력이 무너질 것이고, 남·북한은 공개적인 핵군비 경쟁에 돌입할 것임.
- 韓·美는 물론이며 북한, 동북아 전체도 이런 경쟁에서 뒤처지려 하지 않을 것인데 이 지역의 평화 지수만이 떨어질 것임.
- 핵무기 재배치가 평양에 압력을 가할 것이지만, 그 실효성은 낮아 보임. 韓·美는 중국에도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핵배치가 베이징의 對北 설득의 수단이 되지는 않을 것임.



2012.5.1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는 한국인에게는 심리적 안정이 될 것이나, 서울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평양은 매우 위험을 느껴 무엇인가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함.
- 오늘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중국을 포함해 모두들 불안함을 갖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동북아의 공통된 숙명임.
- 역사는 38선과 냉전을 한반도에 마지막으로 남겨 놓았고 누가 이에 더 가깝고 멀어서 피해를 입느냐하는 문제일 뿐임.
- 한국인은 자신들이 현대 문명을 향유하는데 있어 냉전이 어떤 영향도 못미친다고 생각하고 북한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자부심을 가질 뿐, 이런 차이에 대가를 지불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음.
- 중국의 힘만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제어할 수 없으며, 韓·日의 핵무기에 대한 전략도 저지할 수 없음.
- 그러나 동북아의 핵정세가 다시 한 번 악화된다면 중국 또한 스스로의 핵위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핵전략 조정을 고려할 것임.
- 글로벌화 시대에 동북아의 혼란한 정세에서 동북아 자신은 물론 세계 어느 국가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음.
- 그러므로 누구도 남의 고통에 대해 즐거워하거나, 이로 인한 이득을 취하려고 생각해서는 안됨.

## □ 영어권

### o 싱가포르, 北 경제 모델 될까? (5.12 AP)

- UN이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한 지 2주도 안된 상황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광근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안정수 경공업상이 외자 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함.
- 한국과의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경제 협력을 위해 다른 국가들로 눈을 돌리고 있음.

2012.5.1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싱가포르 기업들은 이미 북한 부유층을 위한 하이네켄 맥주와 헬로키티 캐릭터 등의 상품과 일부 주민을 위한 햄버거, 닭 튀김, 와플 등을 수출하고 있음.
  - 북한은 동남아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무역 다변화, 천연자원 수입 및 소비재 수출을 모색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외자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모델 역할을 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광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음.
  -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Chosun Exchange 대표 & 싱가포르 소재 대북 지식교류 비영리 단체),
    - ‘북한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정권 구조를 위협하지 않는 성공적 성장모델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 ‘싱가포르의 발전 모델은 고도 경제성장을 관리하기 위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에 매력적이다.’
  - 2000~2006년까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11개국과의 교역이 북한 전체 교역의 10~12%를 차지했으나 UN 제재 이행 후 2010년 2% 이하로 떨어짐.
  - 북한은 이러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음. 2010년 싱가포르는 북한의 6대 교역국이었고, 나선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 싱가포르의 모델을 따르고자 함.
  - 북한은 또한 값싼 노동력과 소비재 수출 증대를 노리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국 홍보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 김정은, 김정일보다 경제개혁에 더 개방적이다. (5.14 美 타임)
- 김정은은 5.9일 국가가 운영하는 평양 만경대 유희장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질타함.
  - 유희장의 정원과 놀이기구들을 점검하는 동안 페인트칠이 벗겨진 것을 꾸짖고 유희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음.

2012.5.1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는 김정일과 김일성이 북한內 시설들을 순시할 당시 종종 칭찬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임.
- 스위스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 경제 개혁에 더욱 개방적임을 엿볼 수 있음.
- 그러나 김정은이 전국적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이런 노력들은 능숙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음.
- 김정은이 제시한 청사진에는 기존 도로교통에 대한 개혁 및 보수와 새로운 도로교통 개발 등이 담겨있음.
- 4월 미사일 시험 발사도 새 지도자 김정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음.

## □ 일본어권

○ 北 지원하는 NGO에도 역풍불다.(5.15 마이니치)

-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고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꾸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NGO에도 강한 역풍이 불고 있음.
- 「조지 리」(영국 NGO 러브NK칠드런 회장),
  - ‘이번 달 북한에 밀가루 60톤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30톤밖에 보내지 못했다.’
- 한국계 영국인인 조지 리 회장은 2006년 나선특별시에 최초로 빵공장을 설립했고, 현재는 사리원 등 4곳에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약 16,000명에게 점심용 빵을 무상으로 전달하고 있음.
- 중국에서 사는 밀가루 대금 등 운영비용 연간 약 32만 달러는 유럽과 미국, 한국 기업과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함.
- 그러나 이런 기부금은 북한을 비난하는 국제적 여론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이번에도 지원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일부에서 기부금이 감소함.

○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5.14 NHK)

- 최근 中·北간 주요 인물의 왕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중국 측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양시위」(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 ‘북한은 중국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책이 없었더라면 북한의 핵개발은 더욱 진행됐을 것이다.’
  -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성능향상을 위해서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해 제시
- 중국은 앞으로도 핵실험을 중단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 러시아어권

○ 북한은 거의 완전한 핵보유국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정책연구소 정기간행물 ‘핵통제’ 2012/1분기)

- 「젠나지에 예프스타피예프」(前 대외정보국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및 군축 과장),
  - ‘북한의 군사적인 목적의 핵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됐는데, 자원 제한으로 인해 매우 느린 속도로 개발이 진행됐다.’
  -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즈음 플루토늄 핵개발을 결정했고, 현재 수준의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파키스탄이 도움을 줬다.’
  - ‘사실상 북한은 거의 완전한 핵보유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도록 합의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체제 및 대대적인 경제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할 것이다.’

2012.5.1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김정은은 아직은 요구되는 수준의 파워와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매우 노련하고 교활한 군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
- 러·北간 광섬유케이블 구축됐다.(5.14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하산~두만강 구간 철도를 따라 구축된 광섬유케이블이 운용에 들어갔으며, 향후 북한 내부로 연결·설치할 계획임.
  - 이는 러시아·한반도 광섬유케이블 구축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이며, 주로 △러·北 철도의 기술적 필요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것임.
  - 「세르게이 리파토프」(러시아측 프로젝트 담당자),
    - '하산~두만강 구간의 전기통신 연결은 TSR의 수송 잠재력을 실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무엇보다 디지털 통신망 본선은 아시아와 유럽간 전기통신 이용에 있어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고, 아시아 전역의 현대 전기통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 붙임 1. 중국 환구시보 보도 원문 (5.15)

### 환구시보 홈페이지

#### “环球时报：美核武器重回韩国将是蠢招”

- 据韩国多家媒体报道，美国国会部分议员计划推动在韩国重新部署战术核武器。这显然是韩美针对朝鲜发展核武器考虑采取的反对策，但它的实际效果是否就能形成准确的对冲，却很难说。冷战高峰时期美国曾在韩国最多部署了900多件核武器，后在上世纪90年代逐渐撤出。美国如果现在把核武器送回朝鲜半岛，中俄肯定会反对，但鉴于朝鲜正在发展核武器，北京、莫斯科也不好大张旗鼓地进行阻止。
- 对核武器的事，朝鲜已不冷静，韩国会不会接下来陷入非理性的恐惧，进而不顾一切构筑自己的“安全”，将决定半岛下一轮对峙的性质。朝鲜拥核不受欢迎，只是外界没有制止其这样做的有效手段。然而目前东北亚抑制朝鲜拥核的大环境没有变，朝鲜新领导人真实的国家安全策略尚未展开，朝鲜未来如何平衡拥核与获得国家发展的机会，尚有很多不确定性。
- 如果韩国把美国核武器请回来，那么半岛的下一步会变得很确定：对朝鲜拥核的抑制将完全垮掉，三八线南北将转入公开的核军备竞赛。韩美当然不会在这场核竞赛中输掉，朝鲜也不会输，东北亚没人会输，输的将是这一地区以往差强人意的和平保险系数。
- 重新部署核武器肯定会对平壤形成压力，但这些压力导致正面效果的可能性极低。韩美或许认为这样做还能给中国施压，但这些压力同样变不成北京劝导平壤的新工具。把核武器搬回来，只是对韩国人做心理按摩。但韩国人切不要忘了，当首尔感觉“完全安全”时，平壤就会觉得“很不安全”，朝鲜人很可能会为重新出现今天这样的战略态势而加快做些什么。说到底，朝鲜半岛今天的情况让各方都感到不安，中国也一样。
- 然而不安就是今天东北亚人共同的命。历史把三八线和冷战的最后一角留在了朝鲜半岛，谁离它近谁倒霉。但韩国人似乎以为，冷战的残存一点都不应该影响他们对现代文明的享受。他们只需为韩国比朝鲜高得多的生活水平骄傲，而完全不需要为这一悬殊的差距付出代价。
- 仅凭中国一己之力阻止不了朝鲜拥核，当然也阻止不了韩日对核武器的未来考虑。但如果东北亚的核形势进一步恶化，中国可以也必须重新审视自己当前的核战略，确保自己的核威慑保持高质量。在全球化时代，整个亚太地区甚至全世界都做不到对东北亚的这一乱局完全置身事外。因此谁也别对此幸灾乐祸，别想从中渔利。

## 붙임 2. Associated Press 보도 원문 (5.12)

Associated Press 홈페이지

"Can Singapore serve as economic model for N. Korea?"

- o Less than two weeks after being punished with new U.N. sanctions, North Korea has sent its ceremonial head of state and two top economic officials to Singapore and Indonesia on a trip that appears aimed at drumming up outside investment. With ties remaining tense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is looking elsewhere to build economic partnerships. Singaporean entrepreneurs already are supplying the well-to-do in Pyongyang with everything from Heineken beer to Hello Kitty, and have introduced some locals to hamburgers, fried chicken and Belgian waffles.
- o North Korea is looking to diversify its trade, import natural resources and export consumer goods with Southeast Asia's help. Singapore offers an attractive model for attracting direct foreign investment, while resource-rich Indonesia could give pointers on how to make money from minerals, said Cho Bong-hyun, a research fellow at the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Seoul.
- o The North Koreans may also use the trip to Singapore to learn how to develop a successful growth model that does not threaten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said Andray Abrahamian, executive director of Choson Exchange, a Singapore-based nonprofit group that has provided business and legal training for about 200 young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nd students. "Singapore's development trajectory has been attractive to a number of countries who are interested in maintaining political stability to manage rapid economic growth," he said.
- o From 2000 to 2006, trade with 11 Southeast Asian countries – including Indonesia, Singapore and Thailand – accounted for 10 to 12 percent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But after Singapore and others pledged to enforce U.N. sanctions, trade with the region dropped to less than 2 percent in 2010, according to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n Seoul.

Associated Press 홈페이지

- o North Korea has sought to reverse that trend. In 2010, Singapore was North Korea's sixth-largest trade partner, according to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n Seoul. And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developed two special economic zones, in Rason in the northeast and Hwanggumphyong in the northwest, and is looking to Singapore for guidance, analysts said. North Korea could also try to sell itself to manufacturers looking for cheap labor as well as boost exports of its consumer products, analysts said.

**붙임 3. 美 타임 보도 원문 (5.14)**

美 타임 홈페이지

“Kim Jong Un Doesn't Like this North Korean Amusement Park”

- o Last Wednesday, Kim Jong Un lambasted a North Korean amusement park for its 'pitiful' state of disrepair, according to North Korea's official media agency. Kim was touring the government-operated Mangyongdae Funfair in Pyongyang, the nation's capital, when he heavily criticized the upkeep of the amusement park.
- o Kim carried on while inspecting the park's gardens and rides, continuously criticizing the peeling paint and raising concerns about the attraction's safety. The trip was a sharp departure from the inspection tours taken by his father, Kim Jong Il, and grandfather Kim Il Sung, whom often praised North Korea's facilities.
- o The young leader, believed to be around 29, succeeded Kim Jong Il last December after the elder Kim passed away. Though much remains to be seen, it has been hinted that the current Kim, who spent time in Switzerland as a teenager, is more open to economic reform than his father.
- o The criticism also comes shortly after Kim revealed a “master plan” for improving living standards throughout the country. Among Kim's suggested blueprints include efforts to renovate, repair and develop new and existing road transportation options in the reclusive nation.
- o Kim's current efforts could just be a way of establishing his image as a competent leader after his father's death. Just last month, North Korea fired a rocket during a “missile test” in a political display of power with the newest Kim at the helm (even if later, the rocket turned out to be a dud).



## 붙임 4.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 원문 (5.15)

###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 “北朝鮮:支援に逆風 食糧送るNGO、寄付金減”

- 北朝鮮が人工衛星打ち上げ名目で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実験を強行し、さらに核実験の動きもちらつかせる中、北朝鮮に対する国際社会の目は厳しさを増すばかりだ。北朝鮮への地道な人道支援を続ける非政府組織(NGO)にも強い逆風が吹いている。「今月60トン送る予定の小麦粉が、資金不足などで30トンしか送れなかった」。北朝鮮で四つのパン工場を運営する英国のNGO「ラブNKチルドレン」のジョージ・リー会長(54)は4月下旬、北京市内の事務所でこう残念がった。
- 韓国系英国人のリー会長は06年に北朝鮮北東部の羅先(ラソン)特別市に最初のパン工場を開設。現在は黄海北道沙里院(ファンヘプクドサリウォン)など4カ所で、幼稚園、小学校の子供たち約1万6000人に昼食用のパンを無償で届けている。中国で買い付ける小麦粉代など運営費用、年間約32万ドル(2600万円)は、欧州や米国、韓国の企業や個人からの寄付金だ。ただ、こうした寄付金は北朝鮮を非難する国際世論に大きく影響される。今回も支援者などから「一時中断すべきだ」との声が上がり、一部で寄付金も減少したという。

## 붙임 5. 일본 NHK 보도 원문 (5.14)

### NHK 홈페이지

#### “北朝鮮説得できるかは不透明”

- 日本、中国、韓国の3か国の首脳による「日中韓サミット」は、北朝鮮による核実験を含む挑発行為を阻止するため、連携を強化す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が、カギを握る中国が核実験を行わないよう北朝鮮を説得できるかどうかは、依然、不透明な情勢です。
- 北京で13日開かれた「日中韓サミット」は、北朝鮮による核実験を含む挑発行為を阻止するため、連携を強化す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 これを受けて、中国の温家宝首相は会見で、「当面の急務は朝鮮半島情勢の緊張がエスカレートするのを全力で防ぐことだ」と述べ、北朝鮮が3回目の核実験を行う構えを見せるなか、厳しい情勢が続いているという認識を示しました。

NHK 홈페이지

- 中国と北朝鮮の間では、先月下旬には朝鮮労働党のキム・ヨンイル書記が訪中し、胡锦涛国家主席と会談したり、今月上旬には李肇星前外相が訪朝したりするなど、要人の往来が活発になっており、中国側はこうした機会に核実験を行わないよう北朝鮮を説得しているものとみられます。
- これについて、北朝鮮の核問題を担当した元外交官で、中国国際問題研究所の楊希雨研究員はNHKの取材に対し、「北朝鮮は中国の圧力に直面しており、こうした中国の政策がなければ、北朝鮮の核開発はさらに進んでいるはずだ」と述べました。
- そのうえで、楊研究員は「北朝鮮は技術的に核実験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ぬ理由をいくつも抱えている」と述べ、核兵器の小型化や性能の向上を図るためにも、北朝鮮の核実験は避けられないという見方を示しました。
- 中国は、引き続き、核実験をやめるよう北朝鮮に対する説得を続けるとみられますが、その効果は、依然、不透明な情勢です。

**붙임 6. 러시아 핵통제 인터뷰 원문(2012년 1/4분기)**

러시아 정책연구소 홈페이지

“В первом номере журнала Ядерный Контроль мы публиковали интервью «Девять вопросов о ядерном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ядерной сфере, и прежде всего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елись очень много лет. Страна обладает ограниченными ресурсами, поэтому они развивались очень медленно. В конце 1960-х – начале 1970-х гг.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Они избрали плутониевый путь. В конце концов они провели два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я(в 2006 и 2009 гг.), и можно считать,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почти полноправный член ядерного клуба.
- Сей час одна из задач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договориться с северными корейца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они отказались от развития военн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Но для этого нужны очень больш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гарантии для режима, а также огром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мощь. Американцы, отказавшись от поддержки Организации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атомн

러시아 정책연구소 홈페이지

ой энерге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ЕДО), сами нанесли сокрушительный удар по перспективам развит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не ядерных рамок. Что касается нового лидера,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Ким Чен Ын пока не обрел должной силы и влияния, как его дедушка и отец. Но он находится в руках очень опытных и очень хитры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которые не дадут ему совершать ошибок.

**붙임 7. 러시아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보도 원문 [5.14]**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В поддержку Транссибу”

- Росси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давно ввели в действие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ую линию связи (ВОЛС)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м приграничном участке Хасан (РФ) - Туманган (КНДР). Эту линию намечено продлить в глубь КНДР. Данный проект можно считать началом первого этапа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российско-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ВОЛС. Так как Хасан - Туманган - северная часть ныне восстанавливаемого транзитного коридор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 российский Транссиб.
-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овала госкомпания "Корейская связь". Приграничная ВОЛС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основном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потребностей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России и КНДР, а также в коммерческих целях.
- По мнению Сергея Липат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я российской части проекта,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е соединение Хасан - Туманган - это серьезная поддержка в реализации транзит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Транссиба. Более того - магистральная цифровая сеть связи становится эффективным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м путем между Азией и Европой, и служит для развития современных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всей Азии".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3차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 실험이 될 것이다.

(5.15 Voice of Russia)

- 「젠나지에 예프스타피예프」(前 러시아 대외정보국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및 군축 과장),

- ‘핵폭탄을 보유한 것과 핵무기 체계를 갖춘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이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갖추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 ‘항공기나 함선 등에 탑재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핵무기 체계는 없으며, 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탄두 소형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는 것이다.’
- ‘핵전문가들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2.22일 美·北합의를 파기하고 핵실험을 한다면 기존 무수단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 실험을 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 ‘아직 확실치 않은 것은 플루토늄인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실험인지 여부이다.’
- ‘북핵 관련국들간 엄청난 입장차가 있고 이견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일치된 대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은 포용정책과 강경정책을 오락가락하고, 중국은 북한의 대외정책과는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만을 강조하고 있다.’
- ‘일본은 이상하리만치 남북자 문제에만 몰두함으로써 건설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건설적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너무 온건한 편이다.’
- ‘또한 미국의 일관성 없는 한반도 정책이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편협한 시각으로 핵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당파적 갈등으로 인해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계다가 아랍의 봄 이후 북한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북한과의 건설적 협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발언

○ 인권은 북한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5.15 美 하원 외교위)

- 美 하원은 북한 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2012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이 법안은 북한 난민 보호를 위한 미국 정책을 강화하고, 중국에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있음.
- 「일레나 로스-레티넨」(美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성명에서 인권이 북한정책 중 핵심요소라고 강조
  - 「제임스 릴리」(前 주한 미국 대사)와 스티븐 솔라즈(前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강력 지지하며, 법안 연장을 도와준 「하워드 버만」(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양당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으로 독재는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80장짜리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김정일·김일성과 같은 상태로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수용소에서 수십만명의 주민들이 강제 노동·기아·고문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용소 밖에서도 언론·종교·집회의 자유가 없다.'
  - '당국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탈북 시도자들을 즉각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처벌도 없이 주민들을 불구로 만들고 있는 북한 정권은 해외와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어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한 안보 위협을 다루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2012.5.16(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 내 밀거래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강제 결혼을 하고 성노예 취급을 당하고 있다. UNHCR 이사국인 중국은 탈북자 강제 송환을 지속하고 있다.’
- ‘북한 인권법을 2017년까지 연장한 이번 법안을 통해 인권·난민 보호·정보의 자유 등을 개선시킬 것이다. 의회에 북한 방송·난민 및 망명 신청·국제적 인도지원의 투명성과 감시 등에 대한 보고도 지속할 것이다.’
- ‘이번 법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공헌한 릴리 전 대사와 솔라즈 前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이들은 수년간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HRNK) 책임자로 활동했다.’
-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이들을 대신해 미국인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존엄성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북한 인권법은 2004년 만장일치로 제정됐으며 2008년 4년 연장됐다’고 언급

## □ 중국어권

○ 韓·日 군사협력, 중국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5.10 광저우일보 ⇨ 광저우 지역 신문)

- 「왕성」(길림대학 한반도문제 전문가),
  - ‘김정일 사망·위성 발사 등에 있어서 韓·日의 정보는 뒤쳐져 있었기에 양국의 정보 공유 강화는 필요하다.’
  -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는 변명이며, 실제로는 미국의 전략이 亞太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양국의 군사협력협정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다. 2011.1월 북한은 韓·日 국방장관 회담시 군사협력협정이 논의된 것에 대해 “불굴의 원수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조주 위학(助紂爲虐)<sup>11)</sup>”이라고 했음.
  - ‘그러므로 남·북한 간에 돌발적인 사태 발생 가능성도 있다.’

11) 조주위학(助紂爲虐) : ‘폭군인 주를 도와 포학을 자행한다’는 의미로 독재자와 한편에 서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악인들의 행동을 지칭

2012.5.16(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5.7~18일 진행되는 사상 최대 韓·美 연합 공군훈련, 韓·美·日의 3군 연합 군사훈련 계획을 고려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합 행동을 대비해야 한다.'
- '중국은 韓·中·日 3자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군사적으로도 대비해야 한다.'
- 「양원상」(북경대학 일본문제 전문가),
  -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은 韓·日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 불쾌함을 표할 것이지만, 과도한 반응을 취할 필요는 없다.'
  - '양국의 협력 의도가 중국을 잠재 위협으로 여기고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양국이 안보 관계를 강화해 북한을 공동 대응하는 것도 동북아에 다자간 안보협력 시스템 수립을 원하는 중국의 안보 전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 '그러나 중국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韓·日 양국과 대립할 필요는 없다. 사실 韓·日관계가 튼튼한 것도 아니며, 상호 신뢰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 '중국은 韓·日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 필요로 하기에 양국이 중국을 공개적인 敵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 '장기적으로 중국은 韓·美·日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시스템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만 지역 군사 동맹 관계 강화를 막고 중국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美 MD 구축계획 관련, 북한은 유럽도달 ICBM 개발능력 없다.

(5.15 리아 노보스티)

- 「예브게니 부권스키」(現 러시아 정책연구소 전문가 자문협의체 위원, 軍 중장 퇴역),
  - ‘미국이 MD 배치 지역을 재검토 한다면 露·美간 합의가 가능하지만,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에 MD를 구축할 경우 그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 「블라디미르 예프세예프」(사회정치연구센터 소장),
  - ‘對유럽 실질적인 미사일 위협 분석 결과,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북한과 이란은 유럽, 무엇보다 미국에 도달할 만한 수준의 ICBM 개발능력이 없다.’
- 「표트르 벨로프」(지정학 아카데미 지전략과장),
  - ‘미국이 MD를 구축하는 주요 원인은 높은 수준의 삶의 질 유지를 원하는 데 있다.’
  -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원 재분배가 필요하고, 분배 통제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가 요구된다’고 주장

## □ 일본어권

### ○ 北에 10년간 50회 물자 불법수출한 용의자 구속(5.14 마이니치)

- 북한에 타일 등을 불법수출해 체포된 나고야市の 무역회사 ‘케이제이’의 조총련계 사장 성 모씨가 지난 10년간 옷과 가구 등의 물자를 약 50회에 걸쳐 수출했다는 가능성이 나옴.
- 성 모씨는 2009년 12월과 2010년 5월에 도로보수에 사용되는 타일 등을 불법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벽지를 수출한 혐의로 재구속됨.
- 불법수출된 자재는 창광대로의 포장 보수 등에 사용되었고, 성 모씨는 2010.1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받음.
- 이번 사건에 북한계 무역회사 「다렌 글로벌」이 관여된 것도 판명되었음



## 붙임 1. Voice of Russia 원문 [5.15]

Voice of Russia 홈페이지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till high on the agenda"

- o Interview with Gennady Yevstafyev - expert in nonproliferation issues and retired Lieutenant General of the Russian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 o Very simple, because it is one thing to have a bomb but it is the other thing to have missile capable nuclear systems, and as far as nuclear systems, I mean the means of delivery, are concerned there is no hard evidence about that. You see, the problem is that of course they can try to mount this bomb on the aircraft or even on the ship or vehicle, this is quite possible but it is not available for real arsenal of nuclear weapons. Everybody is trying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this problem is to halt Pyongyang's drive towards more sophisticated smaller nuclear weapons that could be mounted on the missiles.
- o The major task as it is formulated by nuclear specialists is to try to prevent Pyongyang drive to the third test because if it breaks the test moratorium which it has signed with Americans on the 22nd of February this year, if Pyongyang breaks the test moratorium everybody is quite sure that it will almost certainly be a test of miniaturized weapon which they are planning to put atop the existing missile systems. And this existing missile system which Americans called Musudan is a missile capable of travelling about from 3,000 to 5,000 kilometers, and it is a big step of course for Pyongyang. And of course the only thing we don't know is whether it is based on plutonium or on highly enriched uranium.
- o Of course there are tremendous differences between all the parties which participate in the so called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se differences, they are not resolved and they prevent establishing a unified strategy towards North Korea. And this is not going to allow any constructive breakthrough.
- o For example South Korea is from time to time either is propagating sunshine policy or hard-line policy. Now we are in the hard-line area.

Voice of Russia 홈페이지

China stresses peace and stability on Korean Peninsula regardless how North Korea is developing its policy towards the outside world. Japanese are extremely strange people because they have really removed themselves of any construc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events because they are focusing almost exclusively on the so called abductees issue.

- o And Russia is developing a very constructive policy but generally speaking our approach to Pyongyang is quite soft, and we believe that the inconsistencies of Washington policies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exacerbate the crisis.
- o The Americans view the problem very narrowly, they are fixated on the nuclear issue, whereas there are so many elements of Korean Peninsula problem, and moreover their secession is a badly influenced by domestic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by the struggle between the two ruling parties. And we don't see any positive and much less creative approach on the part of Americans in this crisis.
- o But after the Arab Spring North Koreans are very, very circumspect and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cooperate with them in a really constructive way than it was before.

**붙임 2. 美 하원 외교위 게재 원문 (5.15)**

美 하원 외교위 홈페이지

“Human Rights Vital Component of North Korea Policy, Ros-Lehtinen Says”

- o U.S. Rep. Ileana Ros-Lehtinen (R-FL), Chairma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earlier today spoke in favor of H.R. 4240, the Ambassador James R. Lilley and Congressman Stephen J. Solarz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2. The bi-partisan measure was authored by Ros-Lehtinen, and authorizes support for human rights programs and non-government-controlled information in North Korea. The bill enhances U.S. policy for 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and urges China to halt the repatriation of those who have fled the dictatorship. The bill passed the House today by voice vote.

美 하원 외교위 홈페이지

- o Statement by Ros-Lehtinen: "I rise in strong support of H.R. 4240, the Ambassador James R. Lilley and Congressman Stephen J. Solarz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2. I want to thank my co-author and Ranking Member, Mr. Berman, and the dozens of bipartisan cosponsors who have joined us to continue the important human rights work that Congress began nine years ago."
- o "The North Korean regime remains one of the world's worst human rights abusers, as the legacy of tyranny has been passed to a new generation. South Kore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etailed in a 380- page report released earlier this month that Kim Jong-Un maintains the same hellish gulag as his father and grandfather before him."
- o "Hundreds of thousands of men, women, and children are forced into slave labor, starved, and tortured to death in isolated camps. Even outside the camps, the North Korean people enjoy no freedoms of speech, religion, press, or assembly."
- o "Officials crush any dissent, and have reportedly authorized the on-the-spot execution of those attempting to flee the country. A regime that maims its own people with impunity cannot be trusted to keep its agreements with foreigners. Thus, solv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s also an integral part of addressing the North Korean security threat."
- o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are brutalized and trafficked in China, where they are sold into forced marriage and sexual slavery. And China, which sits on the Executive Board of the UN's refugee protection body, continues to forcibly repatriate North Koreans into palpable danger."
- o "H.R. 4240, Mr. Speaker, will continue the important, bipartisan work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by extending, until the year 2017, its authorities to promote human rights, refugee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It also will maintain the reporting to Congress on North Korea broadcasting, refugee and asylum applications, and transparency and monitoring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 o "The title of the bill honors the lives and contributions of Ambassador Lilley, who served as the top U.S. diplomat to South Korea and China, and Congressman Solarz, the former Chairman of th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 After distinguished careers of

美 하원 외교위 홈페이지

Asia-focused public service, both of them served as Directors of the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uring the last several years of their lives.”

- o “H.R. 4240 is a welcome opportunity for Republicans and Democrats to champion with one voice the freedom and dignity that all of us cherish as Americans, on behalf of some of the world’s most oppressed people. I trust that this reauthorization will enjoy the same unanimous support as the 2004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nd the 2008 Reauthorization.”

**붙임 3. 중국 광저우일보 보도 원문 (5.10)**

광저우일보 홈페이지

“专家称韩日军事合作难以深入中国无需过度反应”

- o 韩日素有历史积怨和领土之争，是什么原因促使两国首次达成军事合作，这种合作的最大看点是什么，中国该如何应对？就此问题，本报记者采访了北京大学日本问题专家梁云祥和吉林大学朝鲜半岛问题专家王生。
- o 王生也认为，韩日之间确实需要进一步加强对朝鲜的情报共享，在金正日逝世、朝鲜发射卫星方面，他们的情报部门显得都很滞后。不过，王生还表示，日韩此次达成军事合作，朝鲜“威胁”是借口，最主要的是在美国全球战略东移亚太的背景下，围堵中国崛起。
- o 韩日首次军事合作协定明确声称是为了应对朝鲜威胁。对此，王生分析说，这可能会刺激朝鲜。早在2011年1月，针对韩日防长举行会谈商讨缔结军事合作协定一事，朝鲜祖国和平统一委员会主办的“民族共助网”就发表文章说，日本曾对朝鲜民族进行过残酷的殖民统治，是朝鲜民族的“百年夙敌”，韩国加强与日本的军事合作，实际上是助纣为虐。因此，朝韩之间可能会出现一些意想不到的突发事态。
- o 梁云祥认为，正在谋求和平崛起的中国肯定会对此表示不快，但没有必要过度反应。因为，虽然不能完全排除日韩之间的合作有视中国为潜在威胁的考虑，而且日韩之间强化安全关系共同对付朝鲜也同中国谋求建立东北亚多边安全合作机制的安全战略不相吻合。但中国没必要自己引火烧身，主动同日韩之间处于对立面，而且日韩之间也并非铁板一块，其信任程度仍然不高。更何况中国同日本与韩国都分别保持着相对稳定和相互需要的全面关系，很难想象日韩之间会公开以中国为敌。当然，从长远来看，中国全面改善同美国、日本、韩国的关系，努力建立东北亚多边安全合作机制，才能阻止这一地区军事同盟关系的强化，真正保障中国自身的安全。

광저우일보 홈페이지

- 王生则认为, 考虑到目前的南海局势与本月7日至18日韩美空军演习的规模和持续时间为历次之最, 再加上日美韩计划举行首次三国联合军演, 不排除美国有可能为在东亚地区联合行动有所准备。中国万不可麻痹大意, 应该在积极推进中日韩三边合作的同时, 在军事上做好准备。

**붙임 4.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5.15)**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Эксперты: РФ и США могут договориться по ЕвроПРО”

- "Компромисс возможен, если США пересмотрят районы развертывания ПРО. Если они развернут свои системы в Польше и на кораблях в Балтийском море, никакой компромисс будет невозможен", - заявил Бужинский в ходе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в РИА Новости на тему "Система ПРО в Европе: есть ли компромисс".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США и НАТО так и не оставили планы развернуть противоракеты шахт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GBI в Польше, против чего резко выступала Россия, а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любая ракета шахт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 это фактор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потому что туда можно загрузить и другую ракету, а не перехватчик".
-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ладимир Евсеев отметил, что "анализ реальных ракетных угроз Европе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таких угроз не существует", поскольку ни Иран, н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обла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ями, чтобы создать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которые способны достичь Европы, а тем более США.
- С ним солидарен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деления геостратегии Академи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Петр Белов,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 что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создания глобальной системы ПРО США в том, что "США хотят сохранит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а это требует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я ресурсов, а контроль за этим распределением требует абсолютного военного превосходства".

## 붙임 5.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 원문 (5.14)

###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北朝鮮不正輸出>容疑の社長、10年で50回物資送る”

- 北朝鮮にタイルなどが不正輸出された事件で、外為法違反（無承認輸出）容疑で逮捕された名古屋市の貿易会社「ケージェイ」社長で在日朝鮮籍、成元弘明（本名・成光淳）容疑者（62）が過去10年程度の間、衣服や家具などの物資を、約50回にわたり北朝鮮へ輸出した可能性があることが京都府警と警視庁などの合同捜査本部の調べで分かった。一部が不正輸出された疑いもあり、捜査本部は成元容疑者がかかわった輸出の全容解明を急ぐ。
- 捜査関係者によると、輸出されたとみられるのは飲食店向けの漆器類や店員の衣類、家具や照明器具など。日本政府は北朝鮮については06年11月以降、大量破壊兵器に転用される可能性のある物資やぜいたく品の輸出を禁止し、09年6月から輸出をすべて禁じた。捜査本部は成元容疑者の輸出も、一部が不正だった疑いがあるとみて輸出品目や時期などを調べる。
- 成元容疑者は09年12月と10年5月に道路改修に使うタイルなどを不正輸出した罪でこれまでに逮捕、起訴され、壁紙を輸出した容疑で再逮捕された。捜査本部は北朝鮮側から成元容疑者に届いた電子メールや、成元容疑者が現地で撮影した写真などを押収しており、これらの資材が平壤中心部の「蒼光（チャンガン）通り」の舗道改修などに使われたことを確認した。
- 「労力英雄」称号　成元容疑者は「愛国事業として協力した」と供述しており、今回の輸出品については、一部無償だった。成元容疑者は10年1月、北朝鮮当局から「労力英雄」の称号などを贈られたとされる。北朝鮮に億単位の経済功績を残した人物が受けるといい、一連の輸出が評価されたとみられる。
- 捜査本部は北朝鮮当局が成元容疑者の祖国への忠誠心を利用する形で輸出を促したとみている。今回の事件では中国にある北朝鮮系の貿易会社「大連グローバル」がかかわったことも判明。同社は過去の不正輸出事件でも再三利用されており、実態解明を進め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中, 北에 백두산 인근 핵실험을 하지 말 것 요구했다.(5.16 Reuters)

- 익명을 요구한 복수(複數)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북한의 핵실험 계획 중단을 압박해 왔으나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음.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은 보복조치를 고려하겠지만 실질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다.'

· '중국은 불쾌해 하고 있으며 방사능 유출과 환경오염을 우려해 북한에 장백산맥(백두산) 인근에서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중국은 이전 두 차례의 핵실험 후에도 백두산에 환경 피해를 줬다고 항의했었다.'

· '중국 당국자들은 외교적 위협의 효용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중국의 불쾌감을 보여주기 위한 경제적 조치에 그칠 것이며 대북 식량 지원은 계속 될 것이다.'

- 「진찬룡」(북경 소재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부학과장),

· '비공개 협상이 실패하면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으로부터의 광물 및 특산품 수입 또한 줄어들 수 있다.'

\* 중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북수출은 2010과 비교해 20.6% 증가한 2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은 81.4% 감소한 1억 4740만 달러에 그침.

· '중국이 북한 핵실험 포기를 압박하고 있지만 대사 소환과 같은 심각한 외교적 조치는 피할 것이다.'

·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시점에 중국은 불필요한 외부적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며,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 동북지역 불안정에 대한 우려로 중국은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 「안드레이 란코브」(국민대 교수),
  - '대북제재는 북한의 의사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 '중국에게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한의 불안정 또는 붕괴보다 낮기 때문에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반대할 것이다.'
- 중국 지도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에 따르면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역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음.
-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을 연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함.

○ 인도네시아 대통령, 민감한 北 문제에 안전책 강구

(5.16 자카르타 포스트)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김영남(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5.15일 면담시 말을 잘 들어주는데 그쳐 북한 변화를 압박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짐.
- 이번 회담은 대부분이 북한 측의 설명으로 이뤄졌으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 「유도요노」 대통령,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세계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에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듣기를 원한다'고 언급
- 「마르티 나타레가와」(인도네시아 외무장관),
  - '김영남은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위성 발사와 한반도 통일 노력 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안보관련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 '김영남은 핵 프로그램과 인권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며, 유도요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의 최근 권력 승계로 북한 당국자와의 회담은 드문 기회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북한의 세계관을 들어야 한다.'
- 김영남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 후 첫 외유로, 김영남은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김정은의 초청 메시지를 전달했음.
- 유도요노 대통령은 오해를 막기 위한 투명성과 대화를 강조한 한편, 김영남은 장거리로켓 발사 후 유엔 제재로 피폐한 북한 경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음.

## □ 중국어권

### ○ 北, 동남아시아와 우호 관계 강화로 외교적 국면 타파 시도

(5.17 남방일보)

- 5.10~16일, 84세의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북한의 동남아 외교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 「잔더빈」(상하이 대외무역학원 학자),
  - '북한의 동남아시아 정책은 전통적으로 이익적 충돌이 없고, 라오스·베트남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수용해 관계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 '현재 북한의 외교 무대가 비교적 협소해 이러한 국면 타파를 위해 동남아 국가와의 전통적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 김영남이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도 주목할 점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발전 경험을 배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 「추이즈잉」(동제대학 亞太연구센터 한반도연구실 주임),
  - '이번 방문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김정일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다.'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경제적 외교 왕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 외 정치적으로도 북한은 동남아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빈번한 양자 방문은 정상적인 일임.'
-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재 韓·美·日과의 긴장된 관계를 타파하려는 의도이다.'
- 김정은의 동남아 외교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지도 않고 일시적인 현상도 아님.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하는 등 북한의 동남아시아 외교적 활동은 오래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 「잔더빈」(상하이 대외무역학원 학자),
  - '김정은은 태양절 연설에서 선군정치와 내각이 책임지는 경제 시스템을 언급했다. 이는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민생안정과 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 '이런 김정은의 뜻에서 체제 해결의 가능성도 있으며, 선군정치 시스템에서 경제 권력을 내각에 이양하는 것은 커다란 개혁이 될 것이다.'
- 「추이즈잉」(동제대학 亞太연구센터 한반도연구실 주임),
  - '김정은의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은 할 것이나, 이러한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

○ 북한의 중국 어선 나포, 의문점(5.16 차이선 擘 중국 인터넷 언론)

- 북한이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한 가운데 단순한 中·北 간 어업 분쟁인지, 최근 중국의 對北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이 점점 밝혀지고 있음.
- 북한이 어선 송환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입금인의 휴대폰이 중국 단동시 관할로 확인되며, 이번 사건이 중국 조폭과 북한의 부패 관리들과 연루 여부에 대한 의혹도 있음.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에 이번 사건은 북한 내부 식량 부족과 군부대 기율이 해이해진 상황에서 일어나 북한의 일부 軍警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있음.
- 그러나 최근 북한 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 제지를 한 중국 태도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과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과 분쟁을 일으키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 러시아어권

○ 北 핵실험, 러시아 안보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5.17 노바야 가제타)

- 러시아 국경에서 17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북한 풍계리에서 핵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음.
-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패를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여겨, 이를 만회하고 싶어 하고 자국의 강한 군사력을 특별행동 차원에서 입증하려 함.
-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 또한 '승리'로써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특별행동으로는 △직접적인 對南공격, △국지전, △핵실험 등이 있음.
- 하지만 △對南 영토 공격은 남한의 즉각적 대응, △국지전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남한이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핵실험 가능성이 가장 높음.
- 북한의 핵실험은 러시아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1차 핵실험 당시 연해주 기상청은 북한 남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방사능 구름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달하는 시간이 16~18시간이라 집계한 바 있음.

○ 한국과 미얀마, 협력을 통해 상호간 이득을 꾀하려 한다.

(5.16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한국은 금번 이명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통해 천연자원 부국인 미얀마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과의 對미얀마 영향력 발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함.
- 북한은 미얀마와 적극적인 협력을 해왔으며, 군사 핵 프로그램 개발 및 지하병커 등의 건설에 있어 도움을 줬다는 설도 있었음.
- 미얀마는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서방과의 반대 노선으로 인해 야기된 외교적 고립의 돌파구 마련,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투자·지식·노하우 획득, △심각한 對中 의존 문제를 해소하려 함.

□ 일본어권

○ 개혁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 김정은

(5.16 일본전략연구포럼 日 군사전문가 기고문 ㉸ 국가전략연구 싱크탱크)

-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미사일 실패사실을 알린 것은 체제의 폐쇄성, 우민정책을 타파해야 한다는 결의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음.
- 선군정치 계승을 표방하더라도 실체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기를 스스로 자초할 수 있음.
- 군사력을 실체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에 의한 경제재건과 정보공개가 불가피함.
- 그러나 개방이 진행돼 억압이 느슨해지면 주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해 체제 붕괴에 이를 수도 있음.

○ 日 대학교수, 北측과 일본인 유골 반환문제 논의 위해 방중

(5.17 교도통신)

- 일본인 납치자 지원활동을 해왔던 대학교수가 5.17일부터 중국 동북부를 방문해 송일호 대사와 논의를 위해 방중한 것으로 알려짐.

2012.5.1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2차세계대전) 戰後 혼란으로 북한에 남은 일본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수습 및 반환에 관해 의견 교환할 예정임.

일본 총리실과 외무성이 정부 직원 동석 여부를 검토했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이후이며, 3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어 보류함.

## 붙임 1. Reuters 원문 (5.16)

Reuters 홈페이지

"Exclusive-China pushes North Korea to drop nuclear test plan-sources"

- o China has been quietly and gently pressuring North Korea to scrap plans for a third nuclear test, said two sources with knowledge of closed-door discussions between the countries, but there is no indication how the North will react.
- o If North Korea goes ahead with the test, China would consider taking some retaliatory steps, but they would not be substantive, a source with ties to Pyongyang and Beijing told Reuters. "China is unhappy ... and urged North Korea not to conduct a nuclear test near Changbai Mountain," said the source, who declined to be identified because of the sensitivity of the matter.
- o China feared a radiation leak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from a blast, the source added. "China also complained about the environmental damage to the area after the first two tests."
- o Chinese officials have discussed whether threats of diplomatic action would be effective, but any action might be restricted to some economic measures to signal China's displeasure and would not affect vital food aid for North Korea, the source said.
- o Major diplomatic repercussions were unlikely, however, said Jin Canrong, associate dean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Renmin University in Beijing. Instead, Jin, who has knowledge of how China deals with North Korea, said China may use financial levers to influence its neighbour. "If closed-door negotiations fail to produce results, economic aid could be cut," Jin said, adding that imports of mineral resources and unspecified "special local products" could also be reduced.
- o China's exports to North Korea rose 20.6 percent last year to \$2.28 billion from 2010, while imports plunged 81.4 percent to \$147.4 million, according to Chinese customs figures.
- o Despite pressuring North Korea to cancel plans for a third test, China would want to avoid serious diplomatic measures, such as recalling its

Reuters 홈페이지

ambassador, said Jin. "China does not want unnecessary external trouble ahead of the 18th congress. A major change in policy is not likely," he said, referring to the Communist Party's five-yearly conclave later this year when a broad leadership change is widely expected.

- o The United States wants China to do more to rein in North Korea but China has little leverage over it and is unlikely to pull the plug on food aid due to fears of instability in its northeast, said the Western diplomat and Jin.
- o "Experience has shown that sanctions have little impact on North Korean decision-making. And, of course, the comprehensive sanctions regime will be sabotaged by China, for whom a nuclear North Korea is a lesser evil than an unstable and or collapsing North Korea," said Andrei Lankov, a North Korea expert at South Korea's Kookmin University.
- o In addition, in the face of rising tension over disputed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the last thing China needs is the United States using a North Korean nuclear test as an excuse to step up it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said a source with ties to China's top leadership, requesting anonymity.
- o North Korea hopes the United States would sign a peace treaty and recognise it - the North's long-standing demands - if it put off the nuclear test, the source with ties to Pyongyang and Beijing said.

## 붙임 2. 자카르타 포스트 보도 원문 (5.16)

자카르타 포스트 홈페이지

"Yudhoyono plays it safe on sensitive North Korean issue"

- o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 played the part of a good listener when he met North Korea's second-most powerful man, Kim Yong-nam, at the Merdeka Palace on Tuesday, disappointing activists who wanted him to push for changes in Pyongyang.
- o The meeting did not achieve any significant outcomes as it was mostly filled by explanations from the North Korean figure.

자카르타 포스트 홈페이지

- o “To have a better and more developed relationship, firstly, I want to hear what we can do to ensure that the world, and the Asia-Pacific, can become a peaceful region,” Yudhoyono said, before shutting reporters out of the meeting.
- o Kim, the President of North Korea’s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later told Yudhoyono about his country’s stance on numerous security-related issues that have been under the global spotlight, such as a planned satellite launch and the efforts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Foreign Minister Marty Natalegawa.
- o While Kim did not delve in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human rights, President Yudhoyono opted not to pursue it, Marty said.
- o “The meeting was a rare opportunity, particularly due to the recent leadership succession in North Korea. Therefore, our first step was to listen so we could learn Pyongyang’s world-view on many issues,” he said.
- o It is Kim’s first overseas trip since Kim Jong-un became leader in December, following the death of his father, Kim Jong-il. Marty said Kim delivered an invitation by North Korea leader Kim Jong-un for Yudhoyono to visit Pyongyang.
- o Yudhoyono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and dialogue to avoid misunderstanding”, Marty said.
- o Kim emphasized desire to seek help for the country’s impoverished economy following UN sanctions being imposed after the launch of a long-range rocket last month.

**붙임 3. 중국 남방일보 보도 원문 (5.17)**

남방일보 홈페이지

“朝与东南亚有传统友谊 强化关系为开拓外交局面”

- o 最近，朝鲜在东南亚的外交活动引人关注。从本月10日至16日，84岁的朝鲜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委员长金永南，先后对新加坡和印度尼西亚进行了正式访问。这是金正恩成为朝鲜最高领导人后，朝方最高级别官员的正式出访。
- o 上海对外贸易学院学者詹德斌认为，朝鲜对东南亚国家的政策主要和传统有关。



## 남방일보 홈페이지

- 它和东南亚的一些国家不存在利益冲突，与老挝、越南的意识形态一致，这是它发展与东南亚国家关系的优势。此外，当前朝鲜外交舞台比较小。为了开拓局面，强化与东南亚国家的传统关系很有必要。
- 金永南访问新印期间，陪同人员的经济背景引人关注。其中有朝鲜对外经济投资协力委员会委员长李光根、轻工业相安正秀等。此前有媒体分析称，朝鲜当局可能通过金永南此行，吸取印度尼西亚和新加坡的发展经验。
  - 同济大学亚太研究中心朝鲜半岛研究室主任崔志鹰认为，这次访问有经济上的考虑，主要是打开资源困窘的尴尬局面，这延续了金正日此前的风格。金正日执政期间，就委派过许多经济、技术方面的官员出国访问，学习他国现代化经济发展经验。金正恩时代，依然会重视经济上的外交往来。此外，政治因素也存在。朝鲜和东南亚的关系一直比较友好，增加一些双边往来是正常的。尤其当前朝鲜与美日韩的关系比较紧张，朝鲜意欲通过金永南的访问慢慢突破目前的困难。
  - 就在金永南访问新加坡和印尼之前，金正恩的另一肱骨大臣——朝鲜高级军事代表团团长、人民军总参谋长李英浩9日访问了老挝。朝鲜对东南亚的热情远非局限在一国，也非是一时心血来潮。朝鲜在东南亚的外交投入长远而灵活。早在2000年，朝鲜就加入东盟地区论坛（ARF）；2007年，朝鲜第一次向东盟地区论坛提交了有关防卫和安全形势的报告，展示出“透明化”的诚意；2008年7月，朝鲜加入了《东南亚友好合作条约》，成为该条约的第25个加盟国。
  - 詹德斌认为，金正恩在国内经济和民生方面有一些新思路。“在金日成诞辰百年纪念讲话时，金正恩曾说，以后不让老百姓勒紧裤腰带，并指出内阁应集中力量发展经济。朝鲜有两套经济系统，一套是先军经济系统，一套是内阁负责的经济系统。金正恩这番话，说明他会在不放弃‘先军’的条件下发展民生，发展经济贸易。不排除在这种思路下，会有体制的改革。如果把先军经济系统内的一些经济权力交给内阁，那会是一次很大的改革。”不过，崔志鹰认为，金正恩会让朝鲜逐渐开放，但是这一变化会很缓慢。

## 붙임 4. 중국 차이신 보도 원문 (5.16)

## 차이신 홈페이지

## “朝鲜“绑架”中国渔民 疑点重重？”

- 朝鲜扣押三艘中国渔船、29名中国渔民？这次不是中韩渔业纠纷，抓扣中国渔民的是我们用鲜血和生命凝结成的兄弟朝鲜，而背后的原因究竟是网络上传言的朝军警堕落、与中国境内黑社会有染，还是简单的中朝间渔业纠纷，亦或是朝鲜方面对华关系的某种表态，真相将逐步浮出水面。

차이신 홈페이지

o 网传朝军警与丹东黑社会联手“绑架”?

网络上热传一封逃回渔民的公开信，称被扣的23536船船长被用枪逼着与船主通话，内容是让三船每船汇40万共计120万元人民币才可放船。这位被抓船长在电话中还透露，是朝方189号巡逻艇把他们扣押至朝鲜海域，并被洗劫一空。而颇令人迷惑的是，赎金收款人手机归属地竟然在中国境内丹东市。有人据此猜疑，这起事件可能是丹东黑社会与朝方不法军警导演的一场闹剧。

o 有分析称，该起事件即便说明朝鲜部分军警有问题，归因于其国内粮食紧张和军队纪律近年涣散；但不能代表朝鲜对中方的态度（虽然中国近期对朝鲜发射卫星予以谴责，力劝朝鲜搞核试验），毕竟中朝友谊是用鲜血和生命凝结起来的、经过数十年历史考验的，而且当前朝鲜新一届领导人积极与中国交好、面临美日韩和国际社会孤立下，朝鲜断不敢与中国再起争端。相信不久中朝官方可以将此次事件圆满解决。

**붙임 5. 러시아 노바야 가제타 보도 원문 (5.17)**

노바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Последнее корейско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 o В 177 километрах от границы России на крайнем северо-востоке КНДР находится превращенная в запретную зону деревня Пунгэри (по-русски - Богатое ущелье).
- o Однако невыносимая обида - мягко говоря, не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поднятого в Пхеньяне шума. Руководству КНДР сейчас остро необходимо снять крайне неприятный осадок, который остался у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в связи с унижительным провалом глав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оводу 100-летия Ким Ир Сена - запуска тяжелой трехступенчатой ракеты со спутником.
- o Теперь же «специальные действия» должны показать, что история с ракетой была лишь досадной случайностью, и КНДР остается могучей военной державой. Новому 29-летнему лидеру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у нужна победа.
- o Что может Пхеньян? Нанести страшный удар по Сеулу он,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 он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быстрое ответное уничтожение сам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 исключены, конечно, б

노바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олее локальные операции - например, артиллерийский удар по одному из 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стровков у морской линии разграничения. Но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от 23 апреля лишает КНДР фактора внезапности - Южная Корея ждет провокаций и готовится на них жестко ответить. Но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ыми «специаль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новое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 «последне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предателям».

- Качество этих работ име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После первого ядерного испытан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евой гидрометеоцентр рассчитал, что при ветре с юго-запада радиоактивное облако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остигнет Владивостока за 16-18 часов.

**붙임 6. 러시아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보도 원문 (5.16)**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Южная Корея помогает Мьянме прорывать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ую изоляцию”

- Таким образом, Южная Корея в ходе одного визита стала создавать базу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ступа к многообещающему рынку Мьянмы, а также ее полезным ископаемыми, к которым, как уже очевидно, демонстрируют явный интерес Китай, Япония, ЕС и США. Быть здесь в числе первых крайне важно, чем и объясняется "взрывная" активность Сеула.
- Есть и другой аспект "битвы за Мьянму". Это конкуренция с КНДР за влияние на эту страну. До этого Мьянма поддерживала а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хеньяном, ходили слухи о помощи Севера бирманским генералам в создании собственной военн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и разветвленной сети подземных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объектов. Теперь же у Мьянмы появилась новая альтернатива в лице Южной Кореи. Не случайно, что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 Ясно, что и руководство Мьянмы преследует свои интересы, развивая отношени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Во-первых, это и пробы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золяции, в которой страна оказалась из-за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с Западом. Во-вторых, получение реальной помощи, опыта, знаний и инвестиций,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поднятия экономики. В-третьих, ликвидация чрезмерной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итайского влияния.

**붙임 7. 일본 전략연구포럼 보도 원문 (5.16)**

전략연구포럼 홈페이지

“北朝鮮の「銀河3号」発射失敗と各国の対応  
—北朝鮮の長射程ミサイル発射実験の失敗の背景とその影響—”

- 金正恩の指導力は未知数である。しかしすでにいくつかの点で独自性を発揮している兆候が見られる。金日成に似せた容姿、服装、話しぶり、ミサイルの発射準備を外国人記者団に公開し、ミサイル発射の失敗を公表したこと、その直後に民衆の前に姿を見せ、金日成生誕百年を祝う軍事パレードで約20分にわたる演説を自ら行ったことなど、いずれも開放性、親しみやすさ、金日成の再来を演出するスタイルをとっている。
- しかしこれらは表面的な演出とばかりは言えない。特に開放性を自ら進めているとみられることは注目に値する。ゴルバチョフも、「新思考」と「グラスノスチ(情報を公開し意見を表明すること)」を重視した。また就任後最初に行ったのが、アルコール中毒の追放などの腐敗一掃と綱紀粛正であった。その手法に類似している。
- 今回公開された平壤では車が増え、携帯電話も普及してきている。金正恩体制は、経済的にも社会的にも徐々に、改革と自由化を進める可能性がある。そうなればいずれ拉致問題解決にも何らかの打開策が見えてくるかもしれない。
- 今回のミサイルの発射を最終的に決断したのも金正恩であろう。責任者は処罰されるであろうが、政治的に重要なことは、失敗それ自体ではなく、失敗を初めて公に認めたことである。金正恩が、民衆に事実を知らせるといふ決断を実践したことは、体制の閉鎖性、愚民政策を打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決意の現れともとれる。
- しかしその前途は多難である。とりわけ米中両国間のアジア太平洋での角逐は今後ますます先鋭化していくものとみられる。その中で、半島国家であり分断国家でもある北朝鮮の舵取りを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

전략연구포럼 홈페이지

- 今のところ米中を含め周辺の大国は現状維持を望んでいる。しかし今回のミサイル発射の失敗に続き、北朝鮮が軍事面で弱体さをさらけ出し、抑止力が張子の虎に過ぎないことをさらに露呈すれば、均衡は崩れ、一挙に情勢が流動化する可能性もある。
- 「先軍政治」の継承を標榜していても、実体が伴わなければ、むしろ危機を自ら招くことになりかねない。軍事力を実体のあるものにするためには、国内の改革開放による経済の立て直しと情報公開が不可避である。しかしそのような政策により、国内的で開放が進み抑圧が緩められれば、民衆の不満が一気に爆発し体制崩壊に至るかもしれない。
- それは、かつてゴルバチョフが辿った道である。民衆の間に開放の声が高まれば、チャウシェスクやカダフィのように、独裁者は悲劇的な最後を遂げがちである。金正恩が悲劇の独裁者にならず、自ら地位を降りる賢明な独裁者になることを期待したい。

**붙임 8.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5.17]**

교도통신 홈페이지

“北朝鮮側と邦人遺骨返還を議論へ 民主・中井氏の関係者 ”

- 民主党の中井治衆院予算委員長に近い関係者が17日から中国東北部を訪問し、北朝鮮の宋日昊・朝日国交正常化交渉担当大使と会談する方向で最終調整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終戦前後の混乱で現在の北朝鮮に残留した日本人のものとみられる遺骨収集、返還に関し意見交換する見通し。複数の政府関係筋が16日、明らかにした。
- 官邸や外務省が政府職員を同席させるか検討したが、北朝鮮が人工衛星と主張する4月中旬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失敗後で、3回目の核実験実施の懸念も消えないことから見送る。
- 訪中するのは拉致被害者支援に関わってきた大学教授。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핵실험시 미국은 대북 봉쇄정책을 택할 것이다.

(5.14 美 CSIS 동아시아 양자관계 e-저널 'Comparative Connections' 게재)

- 「빅터 차」(美 조지타운대 교수/CSIS 한국석좌),

- '현 시점에 북한 핵실험과 같은 도발이 위험한 이유는 사태 발생 이후 긴장 완화를 위한 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 '과거 패튼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적 제재 후 사태진정을 위해 다시 조용히 대화로 복귀했지만, 지금은 북한의 도발과 합의 실패에 지친 미국이 적어도 11월 대선 후까지는 대화보다 봉쇄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현재 북한 도발과 관련해 악순환에 처해 있으며,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 도발을 할 경우, 한국도 외교적 대응이 아닌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황은 급속히 악화될 것이다.'
- '美 행정부가 대북 외교와 대화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관적이라고 한다면 너무 약한 표현일 것이다.'
- '순진하게 북한의 속임수에 또 당했다며, 공화당이 정면 공격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동안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 '한편, 외교적 교착과 북한의 커지는 미사일 위협은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를 높이는 촉발제가 되었다.'
- '韓·美 양국은 지난 몇 달에 걸쳐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 후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적 발언은 미사일 사거리 논의를 처음으로 실무급에서 고위급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최근 방미한 韓 국회의원단이 전례없이 이 사안을 문제시켰으며, 한국 대선을 앞두고 더욱 쟁점화 될 것'이라고 언급

○ 美·北 관계에서 인권문제를 엄중히 다루야 한다.

(5.16 美 브루킹스연구소)

- 「로버트 코헨」(美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의 핵 야욕이 최우선시 되며 인권문제 등 다른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 ‘북한이 핵 유예를 약속하는 대가로 미국은 1995~2004년 대규모 식량 및 연료를 제공했지만, 인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 ‘美 의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채택하며 행정부에 북한과 협상시 식량지원에 대한 감시와 함께 인권을 포함하라고 요구하는데 그쳤다.’
  - ‘그동안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美·北 관계에서 인권문제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한 안보 위협을 다루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 「로버트 킹」(美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덕분에 북한 당국자들과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 UN에서 활발히 다루게 만들었다.’
  -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2.29 합의 당시 킹 특사가 제기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화는 무산되고 말았다.’
  - ‘북한 정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면 핵 문제가 해결하기 더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다.’
  - ‘미국은 양자 및 다자 협상시 한 분야가 교착국면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테이블에 광범위한 문제들을 올려놔야 한다.’
  - ‘북한과 협상에서 식량지원 및 이에 대한 엄격한 감시보다 인권문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
  - ‘핵 문제와 상관없이 라디오 방송·DVD·이동식 미디어장비와 인권전문가 등 사람간 교류를 통해 북한을 둘러싼 정보 차단벽을 뚫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 □ 중국어권

○ 中·北은 중국 선박 나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5.18 환구시보)

- 5.8일 중국 해역에서 어업하던 3척의 중국 어선이 정체불명의 북한인에게 나포되어 29명에 대한 몸값을 요구받고 있음.
- 먼저 중국 선원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건 발생과 선원 구출 과정에 대해 중국은 관련된 소식을 통보받아야 함.
- 중국 선원을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일각에서는 양국의 관계를 고려해 해상·육지에서의 中·北 간 마찰이 간과되면서 북한이 점점 대담해진다고 보고 있음.
-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납치세력은 중국 해역을 넘어 범죄 행위를 했으므로 이는 한국 해경이 폭력으로 중국 어선을 대하는 것보다 더욱 나쁜 성질의 것임.
- 중국은 中·北의 우호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양국의 실질적 협력으로 이번 특수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원함.
- 이번 사건은 中·北이 사건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냐에 대한 시험대임.
-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中·北 간의 분쟁, 특히 중국 이익에 반하는 북한의 행동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중국은 對北 관계에 있어 중국 국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주도적이고 유연성이 있어야 함.
- 또한 선원들을 구출해 동북아에서 위신을 세워 어떠한 세력도 중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만약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이들 세력은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



2012.5.18(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만약 이러한 일이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발생했다면 관련 뉴스들이 빠르게 전해졌겠지만 북한이기에 사건이 매우 민감하게 변했는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일임.
  - 북한의 특수한 국정을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서 중국 선원의 생명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선 안됨.
  - 중국 국민들도 북한이라고 해서 이해심과 인내심을 가지지는 않을 것임.
  - 북한 당국도 이번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모든 중국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보장해야 함.
  -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편한 심경을 북한은 명확히 알아야 하며, 앞으로 중국의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좋은 이미지를 세워야 할 것임.
  -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中·北 정부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함.
- 미국의 북핵 억제는 美·中의 전략적 신뢰 부족 때문이다.  
(5.17 시대주보)
- 북한의 광명성 3호는 발사 실패했는데,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압력으로 북한이 고의로 추락시켰다는 분석이 있음.
  - 그러나, 북한이 성공적으로 발사했더라도 성공적인 핵탄두 개발을 위해서는 농축우라늄, 핵탄두소형화 등의 기술을 발전 시켜야 함.
  - 미국은 중국의 대북 정책을 의심하면서 주시하고 있음.
  - 美·中 관계학자 「왕지스」와 「이칸」은 <美·中 전략 상호간 의심>이라는 보고서에서 양측은 적도, 친구도 아니며 전략적으로 서로 의심한다고 언급했음.
  - 「왕지스」,
    - '중국은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핵확산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행동을 취할 경우 불안을 느낄 것이다.'

- '또한 한반도 긴장에 대한 더 큰 책임은 북한보다 미국에 있다고 여기는 중국 지도자들도 있다.'
-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용인하기 때문에 한국에 전술적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응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함.

## □ 러시아어권

○ 北, 조만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18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 북한이 경수로 공사를 재개한 가운데, 핵병기를 강화시키고 조만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현재 북한은 이웃국가 뿐 아니라, 아태지역 전역에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음.
-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은 더욱 강력한 중국의 對北 압박을 원하지만, 정권붕괴로 인한 북한 난민 유입을 우려하는 중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임.
- 「알렉산드르 제빈」(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실장),
  - '북한이 새로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현재 북한은 적당한 시기를 보고 있다. 중동에서의 전쟁이 이러한 실험을 감행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로이터 통신의 중국 인근 백두산 근처에서의 핵실험 가능성 관련 보도는 북한을 악의 국가로 묘사하려는 캠페인의 일환이다.'
  - '북한은 백두산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인근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북한은 과거 지하 핵실험을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영토로의 방사능 유출 사례 또한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

- 「진찬룡」(북경 인민대학 국제연구학과 부학과장),
  - ‘만약 비공식 대화가 성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면, 중국은 경제지원을 줄일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광물자원 혹은 제조상품의 수입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
- G8 선언문에는 북한문제가 포함될 것이다.(5.17 리아 노보스티)
  -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대통령 보좌관),
    - ‘G8 선언문에는 당연히 시리아, 북한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다.’
    - ‘러시아는 우리(G8)가 각 국가, 이웃,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신호를 분쟁발생 그룹에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행동에 있어서 모두가 평화적인 방법을 취해나가야 하며, 일방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아직 입장차로 인해 선언문이 합의되지 않았지만 계속 작업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고, 다 잘 될 것’이라고 발언
- 러시아 연해주 지방법원, 북한인 3명에게 실형 선고했다. (5.17 이타르타스)
  - 2011.9월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오징어 조업을 한 혐의로 국경 수비대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러시아측 수비대원을 무력 공격한 혐의를 받은 북한인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음.
  - ‘권력기관 관계자에 대한 무력 사용’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에 의하여 2명에게는 5년(사회교화소), 나머지 1명에게는 3년(유치장) 형량이 선고됐음.

## □ 일본어권

- 마나베 사다키 교수, 5.17일 북측과 접촉(5.18 후지tv)
  - 마나베 사다키 타쿠쇼쿠大 교수가 5.17일 심양에서 북한측과 접촉을 가짐.

2012.5.18(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차세계대전) 戰後 혼란으로 북한에 남은 일본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수습 및 반환에 관해 협의함.
- 이번 접촉에서 북한측 송일호 대사는 참석하지 않았음.
- 북한측은 유골 반환을 제안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자금 등을 끌어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 음대생과 노르웨이 문화대표단이 합동음악회 개최

(5.18 교도통신)

- 5.17일 평양에서 북한음대생과 노르웨이 문화대표단이 합동 음악회를 개최해 'Take on me'라는 유명 팝송 등을 연주함.
- 북한에서 서방국가의 팝송이 공공장소에서 연주되는 것은 드문 일이며, 음악회에서는 양국의 민요 등도 연주됨.

## 붙임 1. 美 CSIS 게재 원문 (5.14)

### CSIS 홈페이지

#### "US-Korea Relations: North Korea's Rocket Launch"

- o The danger of such a provocation is that there appear to be no exit ramps to dampen tensions after the event. The past cycle of events has been a North Korean provocation, which is followed by international sanctions, which is then followed by a quiet return to diplomacy to de-escalate the situation.
- o The US, fed up with DPRK belligerence and failed deals, will not seek diplomacy and would presumably just move into containment mode, at least until after the November elections. Thus, we currently sit in a "negative feedback loop" when it comes to DPRK provocations. This situation would be exponentially exacerbated if the next provocation is a conventional military action against the ROK, as Seoul's certain response will be military rather than diplomatic.
- o It would be an understatement to say there is widespread skepticism and pessimism in Washington about the utility of diplomacy an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not resume dialogue with Pyongyang any time soon unless for some unforeseen reason, it seeks to spend the political capital to re-engage with Pyongyang amid what would be a frontal assault from Republicans about naively buying the same horse yet again.
- o Meanwhile, the lack of any diplomatic progress and North Korea's increasing missile threats have created greater impulses in Seoul to push for revision of its missile guidelines with Washington. The two countries held several talks over the past months to discuss the issue, and Seoul continues to press for Washington's acquiescing to a maximum ballistic missile range of between 800 km to 1,000 km (the current restriction is 300 km).
- o President Lee spoke openly about ROK desires in the aftermath of the DPRK missile test, which for the first time elevated this negotiation out of the working levels to a higher political level. Recent ROK parliamentary delegations to the US have been giving demarches on this issue, something not seen in the past. It's an election year not only in Washington but also in Seoul, and the possibility that candidates could take this up is far from remote.

## 붙임 2. 美 브루킹스연구소 게재 원문 (5.16)

美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

“North Korea, Human Rights and Chen Guangcheng”

- o With North Korea, the dynamic has been different. Containing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has been the overriding priority and all other issues have taken a back seat. Little or no mention of human rights was made from 1995 to 2004 when the US was providing large quantities of food and fuel to the North to have it freeze its nuclear program. Nor did the US insist at that time on monitoring arrangements to ensure that food reached the needy. Congress in fact reacted by adopting the 2004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hich called on the Executive Branch to “include” human rights in it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improve food monitoring as well. The Act authorized the appointment of a US Special Envo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o Since that time, human rights have gained a higher (albeit modest) profile but there is still no established niche for discussion of such issues in US-North Korean relations. Special Envoy Robert King to his credit has managed to raise some human rights concern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spoken out publicly and has actively engaged at the UN. But when the 2012 “Leap Day”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fell through, the dialogue on human rights the Special Envoy was trying to develop collapsed as well.
- o First, it's time to recognize that nuclear issues will be much harder to resolve if insufficient attention is paid to the nature of the regime.
- o Second, the United States should seek to ensure that a range of issues is on the table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talks so that lack of progress in one area of negotiation does not necessarily shut down all other avenues.
- o Third, raising human rights with North Korea should go beyond discussing food assistance and the need for stringent monitoring conditions.
- o Fourth,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pierce the information wall around North Korea by radio broadcasts, sending in DVDs and mobile media equipment, and promoting people to people exchanges of journalists, lawyers, labor experts, human rights specialists and others - irrespective of nuclear progress.

### 붙임 3. 중국 환구시보 보도 원문 (5.18)

#### 환구시보 홈페이지

##### “中朝须快速解决我船员被绑案”

- 据媒体报道, 3艘中国渔船5月8日在中国海域捕鱼时被朝鲜不明身份人员控制, 劫持至朝鲜海域, 中方29名船员被扣, 劫持者提出赎金要求, 并发出威胁。中国外交部17日要求朝方确保中国船员安全与合法权益。我们认为, 当前解救中国船员是头等重要的。我们同时认为, 对事件发生以及解救船员的过程, 中国社会应得到通报。即使为解救船员暂时不便透露细节, 事后通报也应当补上。
- 事情涉及中国船员的生命, 十分严重, 这种严重性不是包括中朝关系在内任何其他国家利益可以冲抵的。我们不仅要救出这些中国船员, 还应当采取坚决措施, 防止类似事件重演。现在有一些人怀疑, 以往朝方有些人在陆地及海洋边境地区同中方的“摩擦”受到了迁就, 为顾全中朝两国关系, 这些“摩擦”常被“大事化小”, 从而导致了朝方一些人胆子越来越大。希望这种说法最终被证明是没有根据的。如果媒体的报道属实, 那么此次武装劫持者是深入中国海域的越界犯罪行为, 这比韩国海警“粗暴执法”的性质恶劣得多。这些罪犯必须受到追究和严惩。
- 我们珍视中朝友好, 希望两国能有效合作, 顺利解决这一特殊个案。这个事件是对中朝关系在办案层面实际合作质量的一次考验。有一点值得中方认真理解: 在互联网高度发达的今天, 中朝之间的纠纷, 特别是一旦朝方有人严重触犯我方利益, 都是捂不住的。捂只会把事情搞得更糟, 损害国家公权力在中国民间的信任。中国维持对朝友好关系的做法应当更具主动和灵活性, 留足保护中国公民生命财产安全的空间。中国在这方面有强有力的筹码, 我们应当敢于使用它们。
- 中国应通过解救这些被绑船员在东北亚立威, 任何人以及任何力量都不得威胁中国公民的人身安全。谁这样做都将遭到坚决回击, 他们只会付出代价。中朝友好应当有承受力。我们须设想一下, 如果这件事发生在中国与其他国家之间, 各种信息会迅速出来很多。但一遇朝鲜, 事情马上变得“很敏感”, 这很不正常。我们理解朝鲜的国情有些特殊, 但中国船员生命安全的重要性不会因为绑匪跟朝鲜有关就打折扣, 中国公众也不可能因为涉及朝鲜就有了更多理解和耐心。
- 朝鲜政府有义务有责任迅速查处此事, 确保所有中国船员安全返回。平壤应清楚中国公众对这件事的集体愤怒, 他们如果希望今后得到中国的更多支持, 他们就应尽量在中国民间树立好的形象。我们期待此事得到快速解决, 也期待中朝官方给公众一个完整的说法。

## 붙임 4. 중국 시대주보 보도 원문 (5.16)

시대주보 홈페이지

“美核压朝核，背后是美中战略互疑 ”

- 最近朝鲜发射“光明星三号”卫星的火箭坠海失败。有分析认为实际上是朝鲜迫于国际压力（尤其中国方面施压）进行的自行击毁。但即便朝鲜射星成功，朝鲜离核弹研发还有相当长时间，需要时间进一步提炼浓缩铀、进行弹头小型化以及隔热试验。而朝鲜暂时没有突破。
- 美国关注中国对朝政策，但也存在疑虑。美中关系学者王缉思与李侃如在月前联合撰写的《美中战略互疑》的报告，就谈及中美其实非敌非友而是战略互疑。王缉思认为，“北京依然公开支持朝鲜半岛实现无核化，如果朝鲜采取任何开发核武器和核扩散的新行动的话，北京都会深感不安。然而有些中国领导人认为，需要对朝鲜半岛的紧张局势担负更多责任的是美国，而不是朝鲜”。但美国方面却认为中国在对朝政策方面有所“纵容”，这也是美国坚持认为应该在韩国部署战术核武器，来应对朝鲜问题的动因。

## 붙임 5. 러시아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보도 원문 (5.18)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КНДР строит новый реактор”

-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троит реактор на легкой воде. По оценкам, это позволит усилить ее атомный арсенал. Ожидают, что вскоре будет проведено третье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цы не обещают спокойной жизни ни своим родственникам на юге, ни соседям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США хотят, чтобы Китай давил на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сильнее. Но жесткие шаги с его стороны исключены. Ведь Пекин опасается, что иначе режим в КНДР может рухнуть. А за этим последует наплыв к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в Поднебесную.
- Как указал в беседе с «НГ»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Александр Жебин, вполне вероятно, что они «проведут новое, третье по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счету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Пхеньян ждет подходящего момента. Поводом может послужить вой на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Комментируя сообщение, эксперт сказал, что он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часть кампании по демонизации КНДР. Корейцы считают эту гору священной. Испытания на ней немислимы. За их последствиями тщательно следили зарубеж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Это были подземные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никаких свидетельств радиоактивных выброс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итая и России не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 По словам заместителя декана в Школ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род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Пекине Цзинь Каньжун а, Китай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финансовые рычаг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влиять на соседа. «Если переговоры за закрытыми дверями не принесут результата, тогда может быть сокращена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мощь. Может быть уменьшен импорт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инер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и специф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붙임 6.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5.17)**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Дворкович: G8 должна послать сигнал конфликтующим сторонам в Сирии”

- Тема Сирии, как и КНДР, найдет отражение в итоговой декларации саммита "восьмерки", но документ пока не согласован, сообщил на брифинге в РИА Новости помощ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Ф Аркадий Дворкович. "Конечно, в заявлении "восьмерки" будут эти темы. С нашей точки зрения, "восьмерка" должна дать сильный сигнал всем конфликтующим группам, сторонам о том, как мы считаем необходимым действовать, чтобы ситуация стала безопасной для всех и внутри страны, и для окружающих стран, для всего мира. Речь идет о том, что действовать мирным образом должны и власти, и те, кто прот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естует против действия властей . Односторонний сигнал для нас неприемлем", - сказал Дворкович.

-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ка в этой части декларация не согласована". "Мы продолжаем работу", - сказал Дворкович. "Но, конечно, тема Сирии, тема Ирана, тем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ругие страновые сюжеты в декларации будут", - добавил он. "Пока есть разногласия, это нормально, но время еще есть, все будет хорошо", - отметил помощ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Ф.

**붙임 7. 러시아 이타르타스 보도 원문 (5.17)**

이타르타스 통신사 홈페이지

**"За нападение на российских пограничников суд приговорил трех граждан КНДР к 3 и 5 годам колонии"**

- К реальным срокам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приговорил суд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трех граждан КНДР, которые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пали на российских пограничников. Двум подсудимым назначено наказание в виде 5 лет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с отбыванием наказания в исправительной колонии общего режима, одному - в виде 3 лет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с отбыванием наказания в колонии поселения, рассказала сегодня корр.ТАСС старший помощник руководителя след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КР по Приморскому краю Аврора Римская.
- Суд посчитал доказанным вину осужденных в совершении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го ст. УК РФ "применение насилия в отнош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ласти". Это случилось 19 сентября, когда пограничники сторожевого корабля "Приморье" Погрануправления ФСБ РФ по Приморскому краю задержали корейских рыбаков, которые вели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дах России незаконный промысел кальмара. При задержании граждане КНДР оказали сопротивление и напали на российских пограничников, избив двух членов экипажа.

## 붙임 8. 일본 후지tv 보도 원문 (5.18)

### 후지tv 홈페이지

“中井 洽氏と共に北朝鮮と接触を続けてきた真鍋教授が北側と会談 ”

- 民主党の中井 洽(ひろし)衆議院予算委員長と共に、北朝鮮と接触を続けてきた真鍋貞樹拓殖大教授が、17日、中国・瀋陽入りし、北朝鮮側と会談した。
- 瀋陽に到着した真鍋教授は、17日夜、北朝鮮の関係者と会談し、第2次大戦後に北朝鮮に残留した日本人のものとみられる遺骨の収集や返還などについて協議した。
- 真鍋氏によると、会談には、宋日昊(ソン・イルホ)日朝国交正常化担当大使は出席しなかった。
- また、拉致問題が話し合われたかについても、「個別の問題には、答えられない」と回答を避けた。北朝鮮側は、遺骨の収集や返還を日本側に働きかけることで、日本から資金などを引き出す狙いがあるとみられる。
- また今回、真鍋氏には、外務省職員など、政府関係者は同行しなかった。

## 붙임 9.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5.18)

### 교도통신 홈페이지

“北朝鮮でポップソング披露 ノルウェーと合同音楽会”

- 北朝鮮の首都平壤で17日、同国の音大生らとノルウェーの文化代表団の合同音楽会が開催され、ノルウェーのバンド「a-ha」の世界的ヒット曲「テイク・オン・ミー」が北朝鮮のアコーディオン奏者らにより披露された。
- 北朝鮮で欧米のポップソングが公の場で演奏されるのは珍しい。
- 音楽会はノルウェーの憲法記念日に当たる17日に合わせて開催された。両国の民謡なども取り上げられた。
- 「テイク・オン・ミー」をめぐっては、北朝鮮の学生によるものとされるアコーディオン演奏が今年、動画投稿サイト「ユーチューブ」で公開され、音楽ファンの間で話題になってい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中의 대북정책은 비논리적이다. (5.19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신문)

- 「랄프 코사」(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소장), 「브래드 그로스만」(CSIS 퍼시픽포럼 이사),
  -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비논리적인 중국의 입장 때문에 북한 문제를 다루는 베이징 회담이 항상 좌절되고 있다.’
  - ‘실제로 중국이 현재 대북정책에 비해 자신들의 국익이 손상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 ‘중국은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안정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 포기를 설득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 ‘중국은 북한의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채찍을 버리고 북한의 악행을 엄중 단속하는 것을 거절했다.’
  - ‘대신 중국은 대북제재를 최소화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신속히 동의했지만, 대북 제재대상 40곳을 3곳으로 줄였다.’
  - ‘중국은 주변국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인 92%는 북한의 천안함 포격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58%는 경제관계 손상을 무릅쓰고 중국에 강하게 항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한국인 60% 이상은 통일 후 중국이 일본의 3배에 달하는 최대 위협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2012.5.21(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고 안보리 제재를 거절하는 것은 북한의 부정행위를 막는 노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을 부추길 것이다.'
- '미국은 한국·일본 등 동맹국처럼 중국의 자멸적인 정책에 따른 결과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 '북한은 동북아 불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발전에 주력하기 위해 동북아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잘못 판단한 비논리적이고 자멸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 '다만 일부 중국 전문가들이 자국의 현재 대북정책 논리에 대해 엄중히 논의하고 있다는 잠재적인 희소식도 있다'고 주장

○ 비공개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 입수

(5.19 AP)

-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UN 안보리 외교관,

- '보고서는 북한이 시리아 및 미얀마에 무기를 판매하고 사치품을 수입하는 등 UN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가 위반 적발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치밀한 수법들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 무기 및 탄도 미사일 관련 물품 거래는 보고하지 않았으나 무기 및 관련 물품 그리고 사치품의 불법 판매 사례는 보고했다.'
- '패널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같은 국가 간 미사일 개발 협력 의혹을 제기한 최근 언론 보도나 논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의혹과 패널의 조사 결과는 일치한다고 밝혔다.'

- 'UN 제재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하지는 못했지만 불법 거래를 훨씬 어렵고 비싸게 만들었고 둔화시켰다.'
- '2010.11월 프랑스에서 적발된 북한發 시리아行 화물에 포탄 제조용 동판과 구리막, 로켓 제조에 사용 가능한 알루미늄 합금 튜브가 포함돼 있었다는 2012.4월 프랑스의 보고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 '보고서에는 2009.6월, 2011.5월 두 차례 미국이 무기 또는 미사일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한 미얀마行 북한 선박이 前者의 경우 추적당하는 것을 눈치 채고 되돌아갔으며, 後者の 경우 美 해군 구축함이 저지해 북한으로 돌아간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전문가 패널은 2008년 이후 북한과 미얀마 간 군사 협력 활동이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다.'

## □ 중국어권

○ 中·北의 우호 관계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5.21 환구시보)

- 중국 외교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북한에 나포된 중국 어선과 선원이 석방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 중국 어민들의 해상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는 일부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곧바로 보완하는 것임.
- 북한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의 명확하고 훌륭한 해결 방법도 갑작스럽게 혼란이 발생하고, 해결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음.
- 그러므로 이번 사건이 中·北 간 육상·해상 경계의 마찰을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함.
- 中·北 양국은 서로를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그 중요도의 정도 또한 서로가 비슷할 것임.
- 중국은 결단성있고 단호한 태도로 中·北간 마찰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함.

- 양국의 우정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중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
- 여기에 관해서는 中·北 관계의 어떠한 특수성도 용납되지 않으며, 북한은 규칙을 준수하고 중국 국민의 생명·재산에 관련된 중국의 이익을 존중해야 함.
- 중국과 교섭 이후, 북한은 비교적 빨리 어선을 석방하면서 손상되었던 이미지가 다소 회복되었음.
- 그러나 이것은 그저 북한이 보여준 임시적인 태도에 그칠 뿐이며, 중국 정부와 여론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침범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움.
- 북한의 이와 같은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여론이 감독하게 하며, 북한이 이러한 중국 여론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이번 어선 나포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인지, 북한의 석방 조건 등등 모든 진상을 발표해야 함.
- 현재 중국은 많은 해상 분쟁을 겪고 있기에 중국 어민 스스로 조심하고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해야 함.
- 中·北의 우정이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지만, 양국의 우정이 국가의 전략적 측면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하는 우정이 되어야 함.

## □ 일본어권

### ○ 김정은을 포섭하고 싶은 중국의 심모원려<sup>12)</sup>[深謀遠慮](5.19 산케이)

- 김정은체제가 시작된 4월 중순부터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함.
- 4.22일 북한의 김영일 비서가 방중해 다이빙귀 국무위원과 회담을 가졌고,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등 당간부와 만난 데 이어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만났음.

12) 심모원려(深謀遠慮) : 깊은 꾀와 먼 장래에 대한 생각

2012.5.21(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에 중국은 5.8일 리자오싱 前 외교부장을 평양에 보냈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가짐.
- 고위급의 왕래는 김정은의 방중문제와 북한 핵실험에 관한 논의가 주제인 것으로 추정됨.
-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자국의 완충지대, 방어존이라고 생각해 온 중국은 세습 과정이라는 가장 취약한 시기에 있는 김정은 체제에 하루라도 빨리 췌기를 박고 싶은 것으로 보임.
- 러시아 푸틴 정권이 출범한 것도 중국이 서두르는 이유이며, 중국은 러시아에 앞서 김정은을 포섭하고 싶어함.
-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에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외교 무대 데뷔이며,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상외교임.
- 中·北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데뷔에 걸맞은 무대임은 틀림없음.
- 김정은의 방중시기에 대해 관측 소식통 사이에서는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굳히기 위해 후진타오 체제하에서의 조기 방문설과 올 가을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로 이행한 이후 年内 혹은 내년 봄 방문설이 제기되고 있음.

## □ 러시아어권

- o G8 공동성명, 北 문제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5.20 리아 노보스티)
  - G8 공동성명, 내용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 없는 과거 성명을 반복하는데 그쳤음.
  - 북한 문제 관련 G8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을 도발행위로 규정하며, 핵 프로그램 및 북한 내 인권문제 관련 우려를 표명함.
  - 북한에 국제적 의무사항 준수를 촉구함과 동시에 UN의 對北제재 실현을 촉구함.



o 러시아, G8 성명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 타격 입을 수 있다.

(5.20 stoletie ⇄ 인터넷 언론사)

- G8 정상회의가 과연 러시아에 이득을 가져다주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 국내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함.
- 푸틴 대통령이 이번 G8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차라리 잘됐다는 의견도 있음.
- G8 정상회의 성명으로 인해 사실상 러시아는 과거 동맹국이던 국가들과의 관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음.
- 실례로 러시아는 G8 정상회의에서 리비아 사태 관련 성명에 합의함으로써 서방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對 주권국가 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음.
- 금번 G8 성명으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 이란과의 관계에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사실상 G8 비난성명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다는 의향을 이들 국가에 따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음.

## 붙임 1. 아시아타임스 게재 원문 (5.19)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The 'illogic' of China's North Korea policy"

- o Discussions in Beijing about North Korea are always frustrating. The real problem is the illogic of the Chinese position - at least from a US perspective. Indeed, it would be hard to create a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t does more damage to Chinese national interests than Beijing's current approach toward Pyongyang.
- o The standard explanation for Chinese policy goes like this: while denuclearization is desired, stability comes first. There is little chance that North Korea can be persuaded to give up its weapons - at least for a long time - as its arsenal is seen as a form of legitimacy and a deterrent to regime change.
- o Moreover, Beijing has limited influence in Pyongyang and North Korea's real aim is a relationship with the US, hopefully one that sidelines Seoul as well. China enables Pyongyang's misbehavior. When dealing with North Korea, China walks softly and has discarded the stick. Whether motivated by ties once as close as "lips and teeth", the desire to maintain whatever leverage China has in Pyongyang, or the fear that pressure might destabilize the North or prompt it to act out, Beijing refuses to crack down on North Korean misdeeds.
- o Instead, it offers diplomatic cover and minimizes any punishment that might be agreed up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example, while Beijing quickly agreed to 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statement condemning the North's recent missile launch, it quickly whittled down the list of North Korean companies to be sanctioned from the 40 proposed by the US, European Union, and others, to three.
- o China antagonizes its neighbors. The readiness to back Pyongyang infuriates South Koreans. Beijing's fear of offending North Korea by even expressing condolences for the deaths of South Korean citizens aft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has hardened South Korean feelings toward China. Nearly 92% of South Koreans were dissatisfied with Beijing's response to the shelling incident and more than 58% wanted Seoul to strongly protest, even if it meant damaging the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More than 60% now consider China the biggest threat after reunification, almost three times as many as identified Japan.
- o The protection afforded Pyongyang and the refusal to see that UN sanctions have consequences undermines attempts to stop North Korea's misbehavior,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encourages other governments to act in similar ways, and makes a mockery of international laws and institutions.

- o We could be snarky and say we're pleased that China is helping the US achieve its foreign policy objectives. But it is more accurate to say that we, like our South Korean and Japanese colleagues, are frustrated by the consequences of Beijing's self-defeating policies.
- o North Korea continues to act out, endangering lives, risking the destabilization of Northeast Asia, and forcing other governments to divert resources that could be better used elsewhere. China is not the only country that seeks a stable Northeast Asia so that it can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Yet Beijing continues to pursue misguided, illogical and self-defeating policies.
- o There is some potential good news on the horizon, however. More and more frequently during our visits to China and dur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with Chinese scholars and even some officials, we witness our Chinese colleagues seriously debating one another over the logic behind Beijing's current policy.

**붙임 2. Associated Press 원문 (5.19)**

AP 홈페이지

"Experts: North Korea still violating sanctions"

- o An expert panel's report says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U.N. sanctions, citing possible attempts to ship arms to Syria and Myanmar and illegally import luxury goods, U.N. diplomats said Friday. Two Security Council diplomats, speaking on condition of anonymity because the report has not been released, said the panel concluded the violations "illustrate elaborate techniques" used by North Korea to evade the discovery of its sanctions-busting.
- o The panel's latest assessment said member states did not report any violations involving the transfer of items related to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or ballistic missiles, "but they did report several other violations including illicit sales of arms and related material and luxury goods," the diplomats said.
- o The panel said it couldn't confirm recent media reports and academic papers citing possible ongoing missile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other states, especially Iran and Syria, the diplomats said.

AP 홈페이지

But they quoted the panel as saying this “would be consistent with reports of the DPRK’s long history of missile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and with the panel’s observations.”

- o In assessing the impact of sanctions, the panel concluded that “although the resolutions have not caused the DPRK to halt its banned activities, they appear to have slowed them and made illicit transactions significantly more difficult and expensive,” the diplomats said.
- o The panel cited a number of cases including a report from France in April 2012 about its interception in November 2010 of “an illicit shipment of arms-related material originating from the DPRK and destined for Syria,” the diplomats said. The shipment contained brass discs and copper rods used to manufacture artillery munitions and aluminum alloy tubes useable for making rockets, the diplomats quoted the report as saying.
- o The report referred to two North Korean ships heading for Myanmar – one in June 2009 and the other in May 2011 – which the U.S. has said were suspected to be carrying weapons or missiles, one diplomat said. The first turned back, apparently after it became aware it was being tracked, and the second headed home after being challenged by a U.S. Navy destroyer. The panel also found that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a 2008 memorandum of cooperation between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and Myanmar could violate sanctions, the diplomat said.

### 붙임 3. 중국 환구시보 보도 원문 (5.21)

환구시보 홈페이지

“环球时报：中朝友谊应当看得见摸得着”

- o 朝鲜外务省昨天向中国驻朝使馆通报称，近日被抓扣的所有中国渔民和渔船都已获释返回。中国外交部门这两天的动作是比较快的，并且获得效果，值得称赞。然而对于整个事件，中国有必要反思，一些漏洞需及时补上，这是中国渔民海上安全获得实际改善的前提。中国渔民被朝方抓扣发生于本月8日，但对他们的施救

## 환구시보 홈페이지

在多日之后才全速运转起来。这至少暴露了两个问题，一是海上执法部门对渔民的保护较弱，朝方人员没把中方执法放在眼里，想抓人就抓人。二是该区域里保护渔民的应急机制不完善，做不到事情一发生警报就拉响，各部门进入全力施救状态。

- 在涉及韩国或南海的摩擦中，以及非洲沿海的反海盗斗争中，中国的应急机制要敏锐得多。给中国公众的印象是，事情一涉及朝鲜，一些清晰、成熟的做法就变得含混不清，力度不够。这次事件应当成为处理中朝陆海边界摩擦的转折点。中朝友谊的地缘政治基础很强大，两国都对彼此友好给予战略重视，而且可以肯定地说，朝鲜对它的实际重视决不会比中方的重视更小。对这一点中方应有斩钉截铁的认识，这是我们以实事求是态度大胆处理中朝具体摩擦的基础。
- 换句话说，中朝友谊归友谊，具体事上如果朝方一些人员胡来，中方决不能允许。在这方面中朝关系没有“特殊化”的空间，朝鲜必须守规矩，尊重中方的每一项具体利益，尤其要尊重中国公民的生命及财产安全。
- 朝鲜这一次在中方的交涉下能较快放人，对它的形象稍有挽回。但我们很担心，这只是朝方这两天的“应急表现”，在中国官方和舆论监督不到的地方，今后还会有朝方人员做损害中方具体利益的事。
- 为防止朝方反复，中方应开放舆论监督，让中国民间的态度直接与朝鲜面对面。应从这一次做起，公布朝方抓扣中国渔民的真相，包括究竟是谁干的，朝方的释放是不是无条件的，等等。中国对外海上摩擦处在高峰期，这要求中国渔民自己一定要小心谨慎，依法捕鱼。此外中国海上执法部门须全面加强监管，尤其要加强对中国渔民的保护。国家在这方面增加投入很有必要，这既是对保护中国渔民人身安全的直接投入，也是对中国国家安全以及中国社会凝聚力的有效投入。在具体解决事情时，相关部门也要更加灵活和强硬。我们希望中朝友谊发扬光大，但这种友谊应当不仅是国家战略层面的，而且是现实生活中看得见摸得着的。

## 붙임 4. 일본 산케이 보도 원문 (5.19)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北朝鮮・金正恩氏を取り込みたい中国の深謀遠慮 ”

- 中国と北朝鮮で高官往来が始まった。中国側の北朝鮮の新体制への配慮が日立ち、急接近する中朝関係に金正恩氏の早期訪中が現実味を帯びている。金正恩体制の取り込みを急ぐ中国は、さきの日中韓首脳会議で共同宣言に北朝鮮への言及を阻止するという前代未聞の拳に出た。中国が露骨に北朝鮮の「盾」として行動し始めた理由とは-。(久保田るり子)
- その中国が始動したのは金正恩新体制の布陣が決まった4月中旬からである。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 まず4月22日、北朝鮮の金永日書記（外交担当）が訪中、戴秉国國務委員（外交のトップ）と会談、金書記は李源潮組織部長、王家瑞対外連絡部長ら党幹部とも会った。さらに金書記は胡錦濤主席を表敬、金正恩氏の「あいさつ」を胡錦濤主席に伝えた（朝鮮中央放送）。
- これに続いて中国は5月8日、李肇星前外相を団長とする訪朝団を平壤に送った。李前外相は金永南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長らと会談している。
- 高官往来は、金正恩氏訪中問題と北朝鮮の核実験に関するやりとりが主題とみられている。
- 北朝鮮の擁護する中国の狙いはどこにあるのか。伝統的に朝鮮半島を自国の緩衝地帯、防衛ゾーンとみてきた中国は、世襲成立という最も脆弱（ぜいじゃく）期にある金正恩体制に早くクサビを打ち込んでおきたいとみられる。
- 北朝鮮の親中化はまず中国東北部の開発に直結する。さらに将来的に、朝鮮半島を縦断する経済・軍事的に重要な太平洋ルート構築に欠かせない。
- 朝鮮半島に同様の戦略的価値を見いだすであろう北朝鮮の友好国ロシアでは、プーチン政権がスタートしたことも、ぐずぐずしてはられない理由だ。中国はロシアに先駆けて金正恩氏を取り込みたいのである。
- 名実ともに北朝鮮の最高指導者となった金正恩氏にとって、急ぐ必要はないが避けて通れないのは外交デビューであり、友好国である中露との首脳外交だ。
- 北朝鮮にとって中国は、70-80%を依存する経済、エネルギー、軍事協力と文字通り命綱を握られている後ろ盾である。同時に、中国にとっての存在意義も熟知している。
- 金正恩体制は依存と緊張の中にある両国関係を維持できるのか、それとも中国に呑み込まれていくのか。いずれにしても中朝首脳会談が金正恩第1書記のデビューにふさわしい舞台であるのは間違いない。
- 金正恩氏の訪中時期について観測筋の間では、金正恩氏の権力基盤固めのため、胡錦濤体制下での早期訪問説と、今秋の共産党大会で次期指導部に移行した後の年内あるいは来春の訪問説が浮上している。

## 붙임 5.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5.20)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Итоговая декларация G8 не преподнесла сюрпризов”

- Итоговая декларация "восьмерки" не принесла никаких сюрпризов, она лишь повторяет сделанные ранее заявления лидеров в стран G8.
- КНДР: Переходя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лидеры "восьмерк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считают запуск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подземные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и прочие действия властей КНДР провокациями. Они выразили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в связи с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ой КНДР, призвали руководство страны к выполнению сво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а коллег по ООН - к реализации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ы призываем всех членов ООН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G8 и в полной мере выполнить резолюции СБ ООН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 говорится в декларации.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Ираном, "восьмерка" высказала озабоченность ситуацией с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в КНДР.

## 붙임 6. 러시아 stoletie 보도 원문 (5.20)

stoletie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Приносит ли России пользу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ах «большой восьмерки»?”

- С точки зрения либералов, Москва оказалась край не благодарно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организаторам саммита. Ан нет,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се равно не поехал. При этом российская оппозиц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бывает в состоянии тихой радости: поскольку, мол, Запад подобного афронта Москве не простит, то примется еще активнее поддерживать «белоленточников».

stoletie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Мы вынуждены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гда подписываться под заявлениями «восьмерки». Хотя тем самым наносим себе немалый вред в отношениях со странами, которые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были нашими союзниками.

- Большую ошибку мы допустили в 2011-м в ходе саммита во французском Довиле, в едином порыве с остальными членами «восьмерки» заявив, что «Каддафи и лив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смогли выполнить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защите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и потеряли свою легитимность». И это - при том, что западные страны фактически открыто начали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против сувере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ина которого - наличие богатейших нефтяных запасов. Из песни слова не выкинешь: нас использовали как таран для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сведения счетов с государством, которое просто обречено было в обозримой перспективе оставаться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м попутчиком России.
- Очень хорошо, что В. Путин не поехал в Кэмп-Дэвид. Тем самым Россия, по существу, открестилась от странного, отдающего политическую конъюнктуру итогового заявления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 котором на одну доску ставятс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ран и терроризм. Понятно, что это могло бы очень сильно навредить связям с Пхеньяном и Тегераном. И нам пришлось бы долго объясняться с глазу на глаз с лидерами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доказывая, что мы на самом деле не хотели их осуждать.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의 도발에 대한 전문가 견해 (5.18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

- 「더글라스 팔」(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부회장),

-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 실패에 따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북한이 비난에 대해 더 포악한 행동으로 반응하는 기존 패턴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북한은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협상카드로 고농축우라늄(HEU)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미사일 실험은 김정일이 사망 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계획한 것으로, 김정은이 이를 뒤집을 수 없었다.’
- ‘김정은 정권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징후가 많이 보인다.’
- ‘2011.12월 김정일 사망 후 몇개월간 모든 것이 엄격하게 진행됐으며, 미국과 합의 및 약속을 어긴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 사망 전에 이뤄진 것이다.’
- ‘북한은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김정은을 둘러싼 70~80대 간부들은 오래 갈 수 없으며, 김정은은 자신의 나이와 경험에 비슷한 사람의 임명을 원치 않을 것이다.’
- ‘2012년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외교가 불가능하며, 美 행정부는 열린 자세로 북한과 합의했지만,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으며 현재 다시 시도하려는 정치적인 지지가 없는 상태이다.’
- ‘북한의 핵물질 및 핵무기 판매를 막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마련했다.’
- ‘우리는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금융시스템과 북한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견해 제시

○ 북한인권침해사례집, 향후 국제군사재판근거로 활용 가능

(5.17 Wall Street Journal)

-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그 어떤 업적보다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한 것에 대해 칭송받아 마땅함.
- 이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진 북한은 이대통령에 대해 그 어떤 시기보다도 극렬한 모독을 퍼붓고 있음.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최근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의 충격적인 내용은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대북 지원의 비도덕성을 통감하게 할 것임.
- 보고서에 기록된 증언들은 북한 정권 붕괴 후 뉘른베르크 재판과 같은 국제군사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특히 북한 엘리트층이 접하는 외부정보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용소 책임자들이 자신의 범죄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향후 처벌 가능성을 인식할 것이며, 잔학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물론 북한 정권이 전복되어야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것이며, 한국·미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해 북한이 계속 핵 카드를 쓸 수 있는 한, 북한 정권은 지속될 것임.
- 북한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포용을 통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 대신 대북 지원을 중단하게끔 할 것임.
- 남한의 대북 여론이 지난 몇 년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러한 변화는 탈북자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큼.
-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현재 2만3천명이 넘고, 이들의 애기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은 중국 정부에 대한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 운동으로 이어졌음.
- 탈북자들을 지원하다가 중국 대련에서 체포된 김영환씨는 한때 주사파였지만 전향했으며, 그를 포함해 과거 햇볕정책을 지지하던 이들 중 많은 수가 현재 대북방송 또는 탈북자 관련 NGO에 몸담고 있음.

- 국제사회도 동일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같은 뉴스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함.
-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대북지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음.

## □ 중국어권

### ○ 북한의 선제 공격에는 중국측의 경제 제재도 소용없다.

(5.21 차이선 ⇨ 중국 인터넷 언론)

- 아시아에서 '한국·일본·필리핀·팔라우' 등이 중국 어민에 대해 "탄압"하는 사건은 많았지만, 中·北 간의 이번 (나포)사건은 매우 드문 경우임.
-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외교적 지지자였으며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각종 지원을 끊이지 않고 제공했음.
-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연구 등과 관련해, 중국 또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한반도의 전략적 평형을 위해 제3차 핵실험 불가를 요구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음.
- 영국의 한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비밀리에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촉구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보복성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보복성 조치는 광물 지원 축소 등 경제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對北 식량 지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북한이 먼저 중국 어선을 납치하면서 보복 행위를 했고, 아직까지 정부 관여 사건인지 개인적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중국은 실망했음.
-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은 외부세계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분석이 있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더 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
- △한국의 군비 증강, △카다피 정권 몰락,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북한 정권은 더욱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

2012.5.22(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그러므로 경제 개발에 집중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발사 및 핵무기 개발이 시급하게 됨.
-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기에 이런 신뢰가 가지 않는 국가에 대해 세계는 심리적 준비를 해야 할 것임.

o 상해~평양 구간 전세기, 7월부터 운항 재개(5.22 동방조보 ☞ 주간지)

- 오는 7.6일부터 중국 상해에서 출발하는 북한 관광이 재개되며, 북한은 중국의 관광객 유치에 위해 가격 혜택, 비자 수속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 상해의 관광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 등으로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었음.
- 이에 따라 북한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2010.4월 북한 여행이 개방되면서 상해~평양행 항공편을 증설하고 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을 찾았음.
-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근 10개월간 북한 여행이 중단되었고, 올해 일어난 여러 사건들도 관광에 영향을 끼쳤음.
- 사실 핵실험 위협이나 중국 어선 나포보다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 김정일 사망 등이 북한 여행에 영향을 끼쳤음.
- 왜냐하면 북한의 큰 정치 행사에는 평양의 많은 호텔, 여관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을 수용할 여력이 없음.
-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상해~평양행 전세기가 중단되면서 일부 중국 관광객은 단둥에서 북한을 여행할 수 밖에 없었음.
- 그러나 7.6일 상해~평양행 전세기 운항이 재개될 예정으로 현재 온라인에서는 각종 여행상품들이 이미 판매되고 있으며, 이번 전세기는 10월까지 매주 화, 금 두차례 운항됨.
- 작년과 달리 4일·5일 관광 등 북한관광 상품도 풍부해졌고, 가격도 4,000위안~6,000위안 선으로 저렴해졌음.
- 올해는 북한의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이 이뤄졌으나,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상품 등에 대해 가격에 대한 특별한 요구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음.

○ 中, 북·중·러 국경 투먼강 지역(훈춘)에 국제협력시범지구 건설

(5.21 국제재선)

- 지난 4월 중국 국무원은 길림성 훈춘시에 '중국 투먼강 지역(훈춘)국제협력시범지구' 건설을 정식 발표함.
- 5.21일 길림성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구는 면적 90km<sup>2</sup>에 △국제 산업 협력구, △국경 무역 협력구, △中·北 무역 협력구, △中·러 무역 협력구로 구성된다고 소개함.
- 또한 이곳에 1,000만톤 규모의 석유 저장고를 건설할 예정으로 투먼강 지역 협력과 석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경 무역의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임.

□ 일본어권

○ 북한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러시아 외교인사 발언 의도

(5.22 닛케이)

- 5.3일 러시아의 외교담당 고위급 관계자가 북한이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고 국영 러시아 통신이 전함.
- 익명의 러시아 외교담당 고위급관계자,
  -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 '북한의 정책은 허세와 위협, 협박이다. 그들은 러시아에게 좋은 일을 해준 적이 없다.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 '러시아는 처음부터 핵실험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에 있어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보다도 심각하다.'
- 러시아에 정통한 일본 정부관계자,
  - '크렘린의 고위급 관계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미국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이다.'
  - '북한을 노골적으로 비판함으로써 푸틴 정권은 북한 문제를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워싱턴에 전하려 한 것이다.'

2012.5.22(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과격한 표현을 쓴 북한 비난을 일부러 러시아통신에 흘린 것은 미국측에 우등생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임.

○ 북한은 핵실험을 포기한 것인가?(5.21 넷케이)

-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韓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올 가을 中 공산당대회에서의 권력 이행을 앞두고 안보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꺼려하는 중국이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관측함.
- 최근의 中·北 고위급들의 왕래가 이런 견해를 뒷받침해줌.
- 고위급회담에서 중국은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는 한편, 경제 지원 중단도 시사해 엄격하게 자세를 요구하는 등 강경함과 유연함을 같이 사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설득에 적극적이었던 정보도 전해짐.
- 중국측은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지 않도록 中·北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내놓음.
- 「타케사다 히데시」(연세대 교수),
  -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한 뒤에 중국을 방문하면 핵실험 직후의 협상카드를 중국측에 독점적으로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 '중국의 브레이크는 단기적으로 밖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 제시

○ 日·美 장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조치 확인(5.22 니혼tv)

- 미국을 방문 중인 日 겐바 외상은 5.21일 클린턴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실험 등 또 다른 도발행위에 나설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을 확인함.

○ 개발 진행중인 中·北 국경지구, 외자참여 호소(5.21 아사히tv)

- 중국 길림성 정부는 회견에서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외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함.

□ 러시아어권

- 러시아 미사일 부대, 탄도미사일 시스템 배치 준비에 착수했다.  
(5.21 리아 노보스티)
  - 북한 및 이란의 핵 위협 예방 차원이라는 나토의 유럽 MD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전략 미사일 부대도 야르스(Yars) 탄도미사일 시스템 배치 준비에 착수함.
  - 메드베데프 前 대통령 재직시 러시아 서·남부 지역에 유럽 MD 구축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배치를 지시한 바 있으며, 국방부 또한 전략 미사일 부대 재군비가 유럽 MD와 관련이 있다고 밝힘.
  - 세르게이 카라카예프(전략 미사일 부대 사령관),
    - ‘테이코프스키 미사일 사단에 야르스(Yars) 이동식 미사일을 올해 6월 배치에 착수, 2012년에는 탄도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재군비가 100%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
- 北 군악단, 러시아에서 공연예정이다.(5.21 프리마 미디어 1차 지역 신문)
  - 제1회 극동 국제 군악단 페스티벌(5.23~28일) 참석 차 하바로프스크 방문 예정인 북한 군악단이 아르츰市에 들러 5.22일 공연을 할 예정임.
  - 금번 북한 군악단 공연은 러·北 우호관계 발전 및 협력에 있어, 駐러 북한 총영사관 업무를 지원해온 블라디미르 노비코프(아르츰 시장) 주관으로 이루어졌음.

## 붙임 1.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게재 원문 (5.18)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홈페이지

### "North Korea's Provocations"

- o (Q: Will Pyongyang conduct a third nuclear test?) A couple of weeks ago, the media in North Korea, as well as a lot of outside scientific and policy observers, thought that it seemed inevitable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want to test a third nuclear weapon in the aftermath of being condemned for their firing of a failed missile satellite. The condemnation came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o There was every expectation that North Korea would follow its normal pattern, which is to react to being criticized by doing something more outrageous. That's what has happened in the past. And they have a new source of highly enriched uranium that they may want to demonstrate to the world they have mastered, in the hopes it can become either a bargaining chip or a whole card for them in their game of getting recognized as a legitimate nuclear power, much as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India as a legitimate nuclear power.
- o (Q: What was the significance of North Korea's failed missile test?) The decision to test the missile was really made by the father of the current ruler. He had planned to do a missile test to honor his father to mark the one hundredth anniversary of his birth. Once that was decided, the kid could not reverse it. I imagine the scientists may have been shaking in their boots, having put this missile together and not being confident it would work. But they were condemned to go through with it in one way or another and paying a price for having done 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o (Q: How stable is the regime with Kim Jong Un at the helm?) The regime shows a lot of signs of being very unstable. We had the first few months after the death of the father in December where everything was in lockstep. We weren't to expect departures from what had been ordered before his death, including the meeting with the United States, signing an agreement, and firing a missile that defeats the agreement. These are decisions that were made earlier.
- o Now that we're past that point and we're past the ceremonial requirements, North Korea has to make decisions about the future. Young Kim Jong Un,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홈페이지

who's a very difficult looking person—if you can judge just from pictures and behavioral style—is surrounded by people in their seventies and eighties. It's hard to imagine that they will last for very long and that he wouldn't want to appoint people he was closer to in age and experience.

o (Q: Is there any hope for diplomacy with North Korea?) Not this year and not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The administration stuck its head out in Washington and made an agreement. Again, it was not perfectly executed, but now there's no political support, except in extremely small and non-official circles, to go back and try again.

o (Q: What shoul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 to minimize the North Korean threat?) We have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o keep them from sending nuclear materials or weapons to parties that would pay the regime in cash. They are not 100 percent, but it's a pretty effective mechanism. We have existing sanctions and if North Korea sets off a nuclear test there'll be additional sanctions, probably on its banking system and connections to the outside world, plus some more companies that deal with North Korea.

## 붙임 2. Wall Street Journal 원문 (5.17)

### Wall Street Journal

#### "North Korea's Gulag"

o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deserves praise for one accomplishment above all others: He has p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n the world's agenda. This certainly has hit a nerve in Pyongyang. The late Kim Jong Il cut off talks with the South, and now Kim Jong Eun has embarked on a campaign of abuse against President Lee that is vile even by that regime's standards.

o A new report by South Kore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rovides further vindication. It documents the suffering of Pyongyang's roughly 200,000 political prisoners, held in a network of labor camps across the country. The report contains detailed and harrowing accounts from 200 former prisoners. The shocking nature of the crimes

Wall Street Journal

they witnessed should conv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that making any deal to provide aid that extends the life of such a regime is immoral. The testimonies could form the basis for a Nuremberg-style trial after the North collapses.

- o That might help prisoners right away. More a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filters into the North, especially among the elite, so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labor camps should become aware of the danger of future prosecution. Knowing that their crimes are being recorded will serve as a deterrent to gratuitous cruelty.
- o Of course, the agony will only truly end when the Kim family is overthrown. And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last two decades, that is unlikely as long as they can play the game of nuclear blackmail to extract the resources they need from Seoul, Washington and other donors. Exposing the true nature of the regime should refute claims that change through engagement is possible and close the aid spigots.
- o It is encouraging that South Korean public opinion toward the North has undergone a dramatic shift in this direction over the last few years, largely as a result of the growing number of defectors. More than 23,000 now live in the South, and their stories and concern for the families left behind have led to pressure on Beijing to stop repatriating North Korean refugees caught in China.
- o Consider the news this week of Kim Young-hwan's arrest in Dalian, China, where he was trying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Mr. Kim is a member of the "386 generation," South Koreans who were born in the 1960s and fought for democracy in the 1980s. Like many of his fellow student leaders, Mr. Kim once sympathized with North Korea but has become disillusioned. He and many other former supporters of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yoo-hyun's "sunshine policy" of engagement now work in NGOs that broadcast into the North or publicize the refugees' stories.
- o Reports like these deserve wide attention so that the rest of the world has the same epiphany. Sustaining Pyongyang with aid only extends the misery of those imprisoned in the North's gulag.

## 붙임 3. 중국 차이쉰 보도 원문 (5.21)

### 차이쉰 홈페이지

#### “朝鲜先发制人 中国经济杠杆“哑火””

- 在亚洲范围内，涉及中国渔民的此类事件并不罕见，包括韩国、日本、菲律宾甚至是帕劳这样的太平洋小国，都“封杀”中国渔民。然而，中国与朝鲜之间发生这样的事件还是非常少见。一直以来，中国都是朝鲜最主要且最坚定的经济和外交支持者。自金正恩上台之后，中国对于朝鲜的各类援助有增无减。
- 最近，朝鲜由于试射导弹以及研制核武器等“犯规”措施，受到国际社会的指责和制裁。考虑到国际社会压力，以及保持朝鲜半岛战略平衡的需要，中国也向朝鲜温和施压，要求其勿进行第三次核试验。根据英国媒体援引消息人士的话称，中国私下里已敦促朝鲜放弃核试验，并称若朝鲜一意孤行，中国可能会考虑一些报复性的措施。具体而言，中国可能采取经济杠杆来表达自己的不满，例如削减一些对朝矿产资源的援助。当然，北京的任何行动都不会影响对朝鲜重要的整体粮食援助计划。
- 不过即便如此，朝鲜仍悍然对中国采取“报复”行为。即便朝鲜扣押中国渔船尚无法判断属官方行为还是个人行为，但朝鲜当局在此次事件当中的表现仍足以令中国深感失望。分析认为，朝鲜的手段明显是向世人宣告：朝鲜政府不会屈服于任何外界压力；而这句话背后更深层的含义，则是朝鲜第三次核试验恐怕势在必行！
- 尽管奥巴马在国会年度报告中并未将朝鲜问题置于重点关注对象，但卡扎菲的倒台及惨死、韩国加快军备升级步伐以及美国不时的语言刺激(例如在韩重置核武)，仍深深触动金家政权。简而言之，朝鲜政府的不安全感正逐日加深，尤其是在需要将部分精力用于经济建设的当下；因此发展“远程投放能力+核武器”成为朝鲜的当务之急。此前朝鲜射星实为远程投放能力提升的一次测试，尽管以失败告终，但并不影响朝鲜继续朝着强化核威慑的方向前行。此前，来自韩国、美国及日本的情报显示，朝鲜在两周内进行第三次核试验的可能性极大。虽然在此后4周内，朝方一直毫无动静，但研究人员表示，朝鲜“随时可能再启核试验”。毕竟，对于一个无法被信任的国家，全球恐怕不得不做好一切意外发生的思想准备。

## 붙임 4. 중국 동방조보 보도 원문 (5.22)

### 동방조보 홈페이지

#### “上海赴朝鲜包机游7月重启”

- 刚刚经历朝鲜核试验威胁、中国渔船被劫持等一系列事件，中国游客前往朝鲜旅游会遭遇障碍吗？记者昨天从上海锦旅获悉，7月6日，上海发团的朝鲜游重启；而且，朝鲜为了吸引更多的中国游客前往旅游，今年的价格将更有优势，签证办理也更便利。

동방조보 홈페이지

- 记者了解到, 朝鲜上半年经历金日成诞辰一百周年、金正日逝世等重大事件, 很大程度上影响了中国游客前往旅游。业内人士介绍, 今年年初至今, 很少有包括中国游客在内的入境游客前往朝鲜; 朝鲜官方急切希望有更多的中国游客前去旅游, 借以提振该国经济。
- 朝鲜旅游自2010年4月开通, 去年又增开了上海至平壤的包机, 神秘的朝鲜吸引了不少中国游客。不过, 朝鲜国内发生的一些重大事件屡屡打断正常的旅游进程。2010年的“天安舰事件”后, 朝鲜入境旅游曾中断近10个月; 今年发生在朝鲜的大事件让朝鲜的旅游受到很大影响。
- “其实, 此前朝鲜核试验威胁, 包括近段时间的中国渔船被劫持等事件对中国游客前往朝鲜旅游影响并不大, 倒是朝鲜国内的‘金日成诞辰一百周年’、金正日逝世等重大事件, 在很大程度上影响了朝鲜旅游。”上述旅行社朝鲜游负责人谢建骁介绍, 朝鲜国内的这些重大政治活动, 动用了朝鲜首都大量的酒店、宾馆资源, 以致朝鲜旅游部门没有能力接待入境游客。
- 据悉, 自去年12月至今, 上海至平壤的包机一直停飞。这期间, 只有少数中国游客由东北丹东等地前往朝鲜旅游。经有关方面的努力, 上海赴朝鲜旅游将于7月恢复。上述旅行社韩国部经理谢建骁介绍, 重启后的朝鲜游首发团定于7月6日出发, 目前各类旅游产品刚刚上线销售。
- 此次朝鲜包机旅游产品从7月1日开始至10月底结束, 每周二、五均发团, 单程飞行时间大约3小时。据介绍, 此次重启的朝鲜游产品将比去年更丰富, 既有五日游, 也有四日游, 价格从4000多元至6000元, 相比去年有一定优势。
- “今年朝鲜的通货膨胀比较厉害, 物价上涨不少, 为吸引中国游客, 朝鲜方面基本没提酒店、旅游等方面的价格; 而且我们增加了不同档次的旅游产品, 有约4000元价格的产品, 游客选择性更多。”

붙임 5. 중국 국제재선 보도 원문 (5.21)

국제재선 홈페이지

“中国在中俄朝边境设图们江区域(珲春)国际合作示范区”

- 为了加快东北老工业基地的振兴发展, 提升我国沿边开发开放水平, 保持和发展与周边国家, 特别是与俄罗斯、朝鲜的经济技术合作的良好势头, 今年四月, 中国国务院正式同意在吉林省珲春市设立“中国图们江区域(珲春)国际合作示范区”。
- 5月21日上午, 吉林省在北京就示范区的建设情况举行新闻发布会。作为国际合作示范区的依托, 珲春市是我国唯一地处中、俄、朝三国边界边境的一个窗口城

### 국제재선 홈페이지

市, 也是我国唯一及边境经济合作区、出口加工区和中俄互市贸易区为一体的区域。该示范区占地约90平方公里, 包括国际产业合作区, 边境贸易合作区、中朝和中俄珲春经济合作区四大板块。经济技术合作涉及工业、农林产业、旅游、商贸物流、对外通道建设、社会事业等项目, 吸引外商投资约280亿元。

- 随着我国经济的发展, 对能源资源的需求迅速增加, 加快建立我国国家石油储备体系刻不容缓。据悉, 未来将在示范区内建设1000万吨的石油储备库, 这必将为加快图们江区域国际合作开发, 发展石化产业打下良好基础。在中俄边境贸易发展前景广阔。

## 붙임 6. 일본 닛케이 보도 원문 (5.22)

###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北朝鮮は詐欺師」 ロシア高官発言の思惑 ”

- 耳を疑うような発言がモスクワから飛び出した。「ペテン師、詐欺師!」。ロシア大統領府の高官が北朝鮮をこうののしったのだ。いったい、クレムリンの真意はどこにあるのか。この発言は5月3日、国営ロシア通信が伝えた。実名は伏せられているが、外交を担当する高官だという。
- 高官は北朝鮮が4月、事実上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実験を強行したことについて「ペテン師、詐欺師の決定」と非難し、さらに次のような発言を繰り返した(5月3日付、モスクワ発の共同通信社電)
- 「ロシアが北朝鮮を支持しているというのは幻想だ」「北朝鮮の政策は虚勢と脅し、脅迫だ。彼らはロシアにとってよいことは何もなかった。われわれの友人ではない」
- 「ロシアは最初から核実験は容認できないと言ってきた。国境を接するロシアにとって、北朝鮮の核問題は米国にとってよりも深刻だ」
- どんな場で、これほどの非難を繰り返したのか、詳しい情報はない。ロシアはソ連時代から北朝鮮と友好を保ってきた。北朝鮮によるミサイル発射についても「ロシアは国連決議への違反だと言いながら、厳しい制裁の発動には慎重だった」(国連外交筋)
- それだけに、これほど激しく批判するのは驚きだ。興味深いのは、5月7日のプーチン大統領の就任を直後に控えたタイミングであることだ。プーチン氏の意向を踏まえ、何らかの意図をもって爆弾発言を打ち出したのかもしれない。では、その真意は何か。
- ロシアに詳しい日本の政府関係者は解説する。
- 「クレムリンの高官があのような発言をしたのは、米国の反応を探るためだ。『プーチン政権は北朝鮮問題で米国と協力する用意がある』。北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朝鮮を露骨に批判することで、こんな秋波をワシントンに送ろうとしたのだろう」

- 前任のメドベージェフ氏に比べ、プーチン氏は米国への警戒感が強いといわれる。その彼にとって最悪の筋書きは、今秋の米大統領選でオバマ大統領が負け、共和党の「ロムニー米政権」が生まれることだ。
- 米共和党はオバマ氏の民主党より保守的であり、外交・安保では強硬派が多い。共和党内には「ロシアは全体主義国家に戻ろうとしている」との批判もくすぶる。
- 過激な北朝鮮非難をわざわざロシア通信に流したのは、“優等生”ぶりを米側に印象づけるためにちがいない。

**붙임 7.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5.21)**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北は核実験を諦めたのか 中国がブレーキ? 権力移行を控え混乱回避”

- 北朝鮮の3回日の核実験へ向けた動静がやんでいる。先月、動きがあるたびに伝えられていた偵察衛星などの観測に基づく実験場周辺の変化も20日現在、公に伝えられていない。日米韓の外交筋は中国が強力にブレーキをかけて北朝鮮が踏みとどまっているとみる一方、「いつ実施しても不思議ではない」との見方で一致している。
- 核戦略に詳しい外交筋によると、核実験用の坑道は、実は再利用が可能で新たに何本も掘削する必要はなく、「掘削作業そのものが、国際社会に見せるためのポーズだ」と指摘する。
- 韓国外交安保研究院の尹徳敏教授は「完全な核兵器保有国であることを世界に示すため、核実験は必ず実施する」とした上で、なかなか踏み切らない理由について「秋の中国共産党大会での権力移行を控え、安全保障問題の複雑化を嫌う中国が強力なブレーキをかけている」とみる。
- こうした見方を裏打ちするのが最近の中朝の高官往来だ。4月22日に北朝鮮の金永日書記（外交担当）が訪中し、外交トップの戴秉国国务委員や、王家瑞党対外連絡部長らと会った。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 一連の高官会談では核実験回避が中心話題だったとみられるが、「中国は友好姿勢を示す半面、経済支援の打ち切りも示唆して厳しく自制を求めるなど硬軟合わせ技で北朝鮮の取り込みに本気だった」(韓国外交筋)との情報も伝わる。
- 日米韓の外交筋の間では、中朝高官会談で金正恩第1書記の中国招請についても話し合われたとの観測が上る。中国側は「北朝鮮が核実験に踏み切らないよう、中朝首脳会談というカードを切った」との見方だ。
- ただ、韓国・延世大の武貞秀士教授は「金正恩氏の立場では、核実験をした上で訪中すれば、核実験直後の交渉カードを中国側に独占的に持たせることもできると考え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中国のブレーキは短期的にしか有効ではないとの見方を示し、「北朝鮮の核実験はいつあってもおかしくない」と断言している。

**붙임 8. 일본 니혼tv 보도 원문 (5.22)**

니혼tv 홈페이지

“日米外相、北の挑発に断固たる措置を確認”

- アメリカを訪れている玄葉外相は21日、クリントン国務長官と会談し、北朝鮮が核実験など更なる挑発行為をした場合は、断固たる措置を取っていく方針を確認した。
- 両外相はさらに、中国に対して、北朝鮮の挑発行為を抑えるよう、互いに働きかけていく考えで一致した。

**붙임 9. 일본 아사히tv 보도 원문 (5.21)**

아사히tv 홈페이지

“開發進む中朝国境地区 外資参入を呼びかけ”

- 中国東北部の北朝鮮国境近くで進められている経済開発について、地元政府は、交通インフラなどの整備が順調に進んでいるとして、積極的な外資の参入を呼びかけました。

아사히tv 홈페이지

- 中国東北部・吉林省の図門江流域は、北朝鮮とロシアの国境と接していて、国際的な経済開発を行うモデル地区として工場の建設などが進められています。また、中国は、日本海を通る海上貿易ルートを確保するため、北朝鮮東部の羅津（ラジン）港の開発にも力を入れていて、中国側と結ぶ道路の整備などを中国側の負担で進めています。地元政府は会見で、鉄道や道路など交通インフラ整備が進んでいるとして、外国企業を積極的に受け入れたいとアピールしました。

**붙임 10.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원문 [5.21]**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В России три ракетных соединения перевооружат «Ярсами»”

- Российские РВСН начали подготовку к развертыванию комплексов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Ярс» в Иркутском, Новосибирском и Козельском (Калужская область) ракетных соединениях. Как передает в понедельник, 21 мая, РИА «Новости», в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Ярсы» установят в специальные шахты. По словам командующего РВСН Сергея Каракаева,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начнется постановка на боевое дежурство третьего дивизиона мобильного 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Ярс» в Тейковском ракетном соединении (Ивановская облас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этом соединении РВСН в 2012 году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ся перевооружение на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ные комплексы.
- Как ранее сообщалось на сайте Минобороны, перевооружение частей РВСН проводится, в частност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преодоление системы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которая развертывае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Европы. До этого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выступил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заявлением по поводу ЕвроПР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елел развернуть на западе и юге страны комплексы, обеспечивающие огневое поражение противо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в Европе.
- В понедельни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НАТО завершило первую фазу создания ЕвроПРО.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льянса и США, система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развертывается с целью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ядерной угрозе со стороны Ирана и КНДР.



## 붙임 11. 러시아 프리마 미디어 보도 원문 (5.21)

### 프리마 미디어 지역 신문 홈페이지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выступит перед жителями Артема”

-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выступит перед артемовцами. Концерт пройдет в детском парке "Артемка" 22 мая, сообщили РИА PrimaMedia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ртем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из КНДР посетит Артем проездом. Направляется он в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для участия в перв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стивале военной музыки.
- Концерт корейского оркестра состоится благодаря главе Артем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ладимира Новикова, который поддерживал инициативу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КНДР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영어권

○ 무수단리 발사장 개선공사 위성사진 분석 (5.22 38North)

- 4.29일 위성사진(DigitalGlobe 촬영) 분석 결과, 지난해 여름 시작된 함경북도 무수단리 위성 발사장 개선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개선 작업은 대형 액체 추진 로켓 또는 ICBM과 같은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을 발사하려는 목적으로 일본 상공으로 발사될 수 있기 때문에 역내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신축 발사대 외에도 더 큰 로켓 수용이 가능한 조립동 공사로 인근 대포동 마을의 주택 70채와 건물 5곳 등이 철거되었음.
- 로켓 조립 공간의 바닥 면적은 기존 무수단리 또는 동창리 시설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임.

구 분	조립 공간 바닥 면적(m <sup>2</sup> )	기타 공간 바닥 면적(m <sup>2</sup> )
동해 발사장 새 조립동	1750	1592
동해 발사장 기존 조립동	864	874
서해 발사장 기존 조립동	864	1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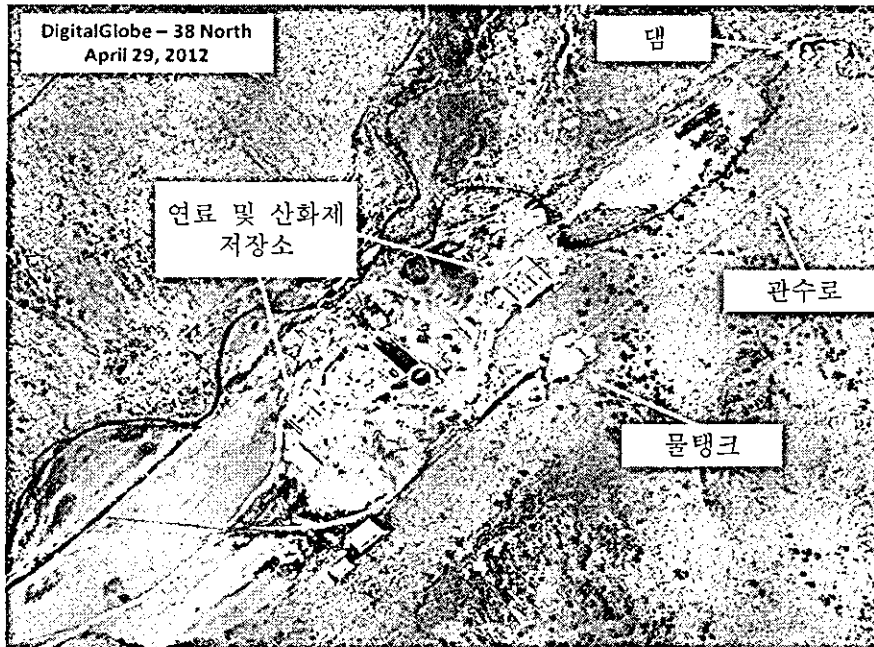
- 현재 공사 속도라면 2016~2017년부터 운용될 것임.
- 신축 조립동은 이란의 '셈난 미사일 우주센터'와 유사하지만 양국의 조립동 설계 및 신축 또는 신형 장거리 액체추진 로켓 개발 협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임.
- 새로운 발사대 공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기존 로켓 엔진 실험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1km, 기존 발사대에서 동쪽으로 1.75km 떨어진 외진 곳에서 진행 중임.
- 화염 방출구 크기가 길이 33m, 폭 9.5m, 깊이 6~8m에 이르는 등 기존 무수단리 및 동창리의 방출구보다 큰 규모임.

2012.5.23(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또한 화염 방출구 위쪽으로는 로켓 지지대로 보이는 4개의 콘크리트 기초가 들어서 있으며, 간격이 14.5m, 폭이 9.5m인 것으로 보아 동창리 발사장의 지지대(간격 10m, 폭 8m)보다 큰 규모임.

연료 및 산화제 탱크를 수용할 건물들 역시 길이 23.5m, 폭 18m로 동창리 발사장에서 가장 큰 연료 및 산화제 저장소(길이 24m, 폭 13m)보다 큼.

【사진 #1 : 무수단리 신축 발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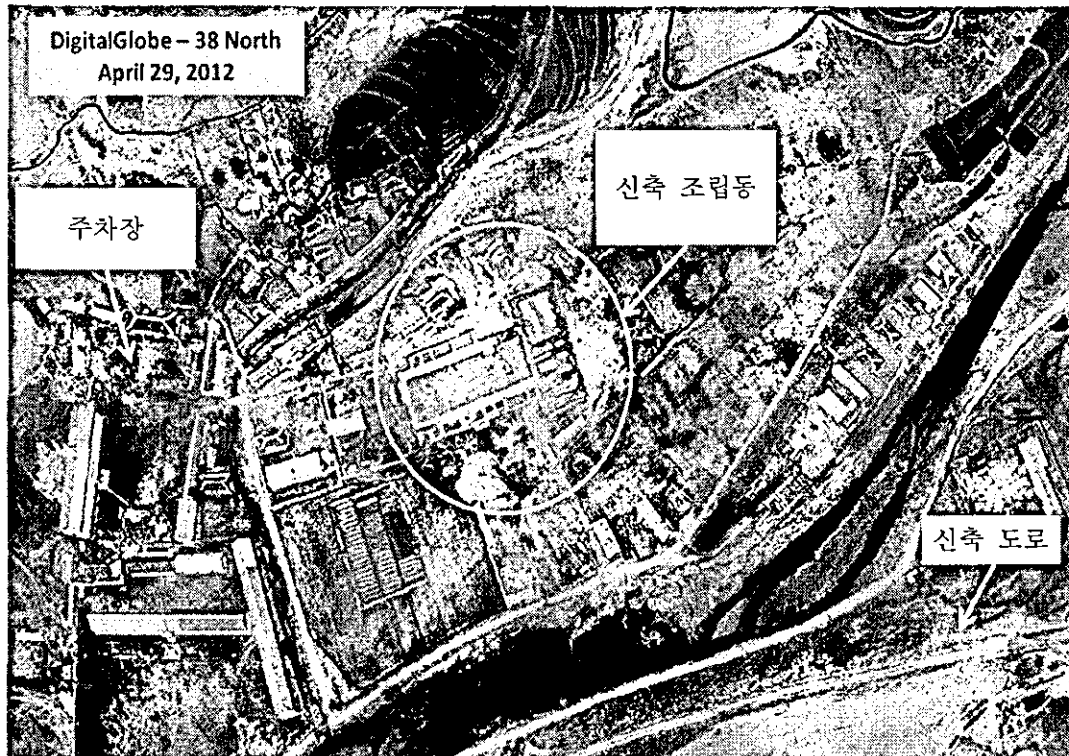
【사진 #2 : 무수단리 신축 발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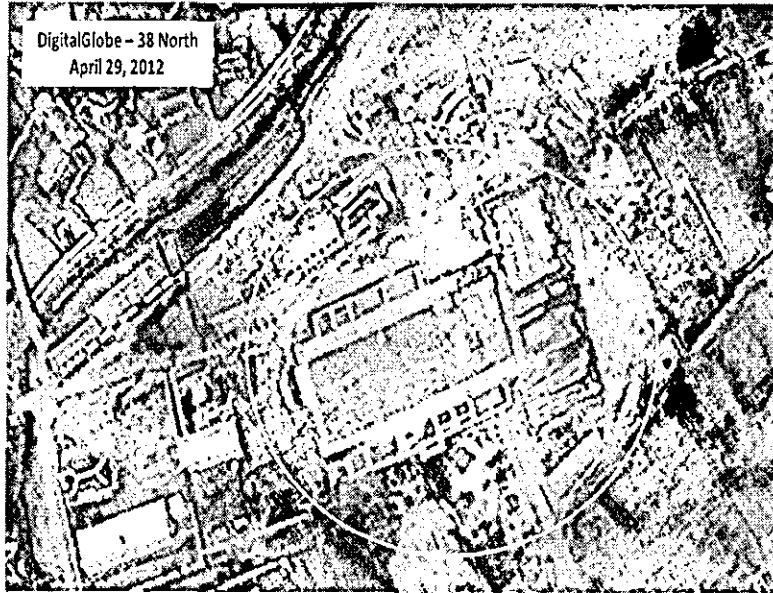
【사진 #3 : 공사 전 대포동 마을】



【사진 #4 : 공사 초기 단계 미사일 조립동】



【사진 #5 공사 초기 단계 미사일 조립동】



○ 중국이 한반도 평화의 열쇠이다.

(5.23 걸프뉴스 ⇨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자 신문)

- 「마니크 메타」(Asian Affairs[아시아 전문 잡지] 논평가),
  - ‘중국의 활발한 참여 없이는 한반도 분단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 수 없다.’
  - ‘중국은 북한이 영원한 경제 마비를 겪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고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주민들 대다수가 기아에 직면한 북한에서 WMD 개발은 일탈행동일 뿐만 아니라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에서 고문·공개 처형·노예 노동·강제 유산·유아 살해 등 인권유린 혐의로 비난을 받고 있다.’
  -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사회인 북한은 핵 야욕을 갖고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악화시킬 뿐이다.’
  - ‘핵을 이용해 식량 등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은 미사일 10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 ‘북한 미사일 시스템은 연구 및 개발 중이며, 전문가들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국은 △미국과 더욱 활발한 협조, △남북 화해 및 협동 증진, △한반도 비핵화, △북한 사회 개방 등의 노력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멤버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

## □ 중국어권

### ○ 북한은 납치한 중국 어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5.23 중국신문주간 China Newsweek)

- 「순싱지에」(길림대학 국제관계학 박사),

- '5.21일 북한에 납치된 28명의 중국 어민들이 무사히 돌아왔지만, 中·北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이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납치 주체인데 어업 분쟁이든 납치이든 사건의 장본인을 밝혀야 한다.'
- '중국 어선의 GPS는 사고지점이 중국 해역으로 나왔으므로 북한 당국은 무장 침략한 북한인을 처벌해야 한다.'
- '이렇게 해야만 중국 어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가 된다.'
-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사 사건 재발 근절을 약속해야 한다.'
-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잦은 어업 분쟁을 겪고 있지만, 이번은 중국 어민들이 분쟁 해역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기에 북한의 어선 나포는 강도 행위이다.'
- '북한은 중국이 필리핀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기회를 틈타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다.'
- '사건 발생 후, 駐中북한대사관은 中·北 우정과 항미원조(抗美援朝)<sup>13)</sup>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자고 발표했다.'
- '그러나 혁명전쟁 시대의 외교이념은 변해야 하며, 북한은 中·北동맹조약을 중국을 이용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

13) 항미원조(抗美援朝) : 한국전쟁의 중국명

‘경제개발 위주의 중국과 선군정치의 북한은 다른 시대에 있으며, 민생과 경제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중국이 북한에 권고한 것도 이미 한 두 차례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과 위성 발사, 군사적 요소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개방·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세계속에 편입한 반면, 북한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세계와 떨어져 있다.’

‘60년대에 맺은 조약은 변화해야 하고, 혁명전쟁 시대에는 경제적 이익보다 전쟁이 중요했지만 경제시대에는 권력과 책임이 평형을 이뤄야 하며, 서로의 행위를 감시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심기를 북한은 계속해서 건드리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대북 원조는 북한의 행위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무조건적인 원조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북한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이다.’

‘핵미사일 시대에 북한이 중국 안보의 완충지라는 말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 북한의 제멋대로인 행동이 동북 아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도화선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미국이 더욱 더 동북아에 MD시스템을 건설하려고 한다.’

‘북한의 선군정치로 韓·美, 美·日 동맹이 이제는 韓·美·日 3국 동맹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에 모두 이롭지 않다.’

‘한반도는 돌발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中·北관계가 더 이상 피로 맺어진 우정으로 묘사될 수 없으며, 중국의 국가 이익에서 출발해 북한을 다자간 협력의 틀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어권

○ 정서 불안정한 김정은, 유원지 잡초에 화내며 잡초뽑기 감행

(5.21 아사히TV)

- 기분나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이 드디어 임박했다며, 각 국의 정보기관이 서두르고 있음.
- 5.14일 발표된 韓·中·日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북한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임.
- 일본 정보분석담당 관료,
  - ‘공동선언에서 북한에 관한 언급이 삭제된 것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묵인한다는 싸인이다.’
  - ‘중국 소식통 정보에 따르면 4월말에 한번 북한으로부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핵실험을 실시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다.’
  - ‘그 증거로 4.24일에 베이징공항에서 파키스탄인 과학자가 북한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었다.’
  - ‘그러나 그때 중국이 반대해 중지시켰다.’
  -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은 중국은 5.4일에 美·中 전략대화, 5.13~14일에 韓·中·日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권위의 실추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북한과의 사이에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던 듯하다.’
  - ‘공동선언에 북한에 대한 문언이 있으면 핵실험을 했을 경우 중국의 체면이 구겨진다. 이를 제외시킨 것은 중국이 핵실험을 인정한 것이다. 북한이 5월중에라도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각국의 정보기관이 예측하고 있다.’
- 중국에 핵실험을 저지당한 이후 김정은의 행동이 이상했음. 5.9일 만경대유원지를 방문해 무성한 잡초를 보고 분노했으며 스스로 뽑았다고 함.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 타국의 선진기술을 접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성명으로 당원을 질책함.
- 중국의 억압에 굴한 김정은의 화풀이인 것으로 보임.



- 中여행사, 북한관광 단체여행객 모집 시작(5.23 산케이)
  - 중국의 상해금강국제여행사는 7월에 북한을 방문할 단체여행객 모집을 시작했으며, 일본인 등 외국인도 참가 가능하다고 함.
  - 7.6일 출발하며 3박 4일, 4박 5일 등 일정의 패키지를 1인당 4,000~6,000 위안에 판매함.
  - 고려항공은 10월 말까지 상해로 가는 전세기를 1주일에 2회 운항할 계획이라고 함.

## □ 러시아어권

- 北, 아시아의 비공식 핵보유국이다.(5.21 arms-expo ⇨ 군사전문 통신사)
  - 최근 핵무기의 역할은 눈에 띄게 변화했는데, 서방 국가들에게 군사적인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음.
  - 아시아 개도국에서 핵무기는 서방 국가들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역내 논쟁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음.
  - 「알렉산드르 흐람치힌」(정치군사분석 연구소 부소장),
    - ‘현재 아시아에는 최소한 4개의 비공식 핵보유국이 있는데, 이들 국가의 핵 보유량은 거의 증대되는 추세다.’
    - ‘북한 또한 비공식 핵보유국으로써 이는 방위 수단이자, 韓·美·日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다.’
    - ‘북한은 ICBM뿐 아니라, 전투 가능한 IRBM 또한 아직 자력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다.’
    - ‘중국의 경우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자 비호국인데, 양국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현재 중국은 북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 ‘북한은 구소련 미사일을 시초로,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는 주요 수출 품목이다.’

2012.5.23(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이 개발한 대포동 1호, 2호(사정거리 3,500km, 6,000km)는 사실상 정확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거리가 멀수록 정확성은 떨어진다.’
- ‘上記 미사일은 폭발력으로 정확성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핵 장비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사실상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을 얼마나 대량생산 할 수 있는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

○ 北, 탄도미사일 생산 및 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5.22 글로스 러시아)

- 미국의 아시아 MD 구상은 마치 거대한 고리의 연결을 연상시킴.
- 미국은 이란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예방 차원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구실일 뿐임.
- 북한의 경우 사실상 위성발사에 실패했으며, 아직 탄도미사일 생산 및 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 중국 또한 미국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 계획이 아시아 안보강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붙임 1. 38 North 원문 (5.22)

### 38 North 홈페이지

#### “New Launch Facilities Under Construction at Musudan-ri, Possible Iranian Connection”

- o New satellite photos from April 29, 2012 indicate that a major upgrade of North Korea’s Tonghae Satellite Launching Ground—more commonly referred to as Musudan-ri—underway since summer 2011, is making rapid progress. The new construction is intended to support future launches of rockets larger than the recently tested Unha—more capable liquid fueled space launch vehicles or missiles with intercontinental ranges—that will also overfly Japan, further aggravating regional tensions.
- o In addition to a new launch pad under construction, much of the nearby village of Taepodong has been razed to clear the way for what appears to be a new building designed to assemble larger rockets. The high bay portion of that building—the area where rockets are assembled—may have twice as much floor space as similar facilities at Musudan-ri and the new Sohae Satellite Launching Station (commonly referred to as Tongchang-ri). At the current pace of construction, the facilities should be operational by 2016-17.
- o The new assembly building is somewhat similar to one at Iran’s Semnan Missile and Space Center. Nevertheless, while the two countries have a long history of missile cooperation, it is too soon to tell whether that cooperation extends to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is facility or the new long-range liquid fueled rocket.
- o The new launch pad, seen in an April 29, 2012 satellite photograph from DigitalGlobe, is still in the early construction phase (see figure 1). The site is located in a remote area a little less than one kilometer northeast of the original rocket motor test stand and 1.75 kilometers due east of the original launch pad.[1] First, the flame trench—the dark object in the center—is larger than those at the original Musudan-ri launch pad and the new Tongchang-ri. The new trench measures 33 meters in length, 9.5 meters wide, and 6 to 8 meters deep.
- o Second, just above the ring are four concrete footings. Their location indicates that they are for a new rocket gantry rather than a tower for a new engine test stand that would be built over the trench. Based on the distances between the footings—14.5 meters apart with widths of 9.5 meters—the new gantry will be larger than the structure at Tongchang-ri, at which, the footings measure 10 meters by 8 meters.
- o Finally, buildings designed to enclose the fuel and oxidizer tanks as well as to contain five tanks each, are located on each side of the pad area and measure 23.5 by 18 meters. They are larger than two largest propellant buildings near the launch pad at Tongchang-ri—24 by 13 meters and 21 by 13 meters.

## 붙임 2. 걸프뉴스 게재 원문 (5.23)

걸프뉴스 홈페이지

“Reviving a ‘hemiplegic patient’”

- o A solution to the Korean peninsula division cannot be found without China's active participation aimed at weaning away North Korea from being a permanent economic basket case and a pariah state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f this is not done, reunification and the goal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will only be a mirage.
- o With the vast majority of its population facing near starvation, Pyongyang's massive armament is not just an aberration but also spells doom and destruction. The totalitarian state also stands accused of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with reports of torture, public executions, slave labour, and forced abortions and infanticides in prison camps.
- o North Korea, perhaps the world's most secretive society shaped after founder Kim Il-sung's philosophy of juche (self-reliance), has nuclear ambitions which seem to be only exacerbated with its rigidly maintained isolation from the rest of the world.
- o North Korea, which flaunts its nuclear muscle to extract food and other forms of aid from donor countries, is believed to have more than 1,000 missiles of varying capabilities.
- o Pyongyang's programme has progressed over the last few decades from tactical artillery rockets in the 1960s and 70s to short-range and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in the 1980s and 90s. Systems capable of greater ranges are understood to be under research and development. North Korean missiles, according to some experts, may also be capable of carrying nuclear warheads.
- o China can demonstrate its credentials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cooperating more actively with the US and promot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pening of North Korean society.

## 붙임 3. 중국신문주간 보도 원문 (5.23)

### 중국신문주간 홈페이지

“孙兴杰：朝鲜，请给中国渔民一个说法”

- 5月21日清晨，被朝鲜扣押的28名中国渔民回到大连港口，多人出现身体不适，据称，此次朝鲜是“免费”放人。渔民回来了，终归是好事，但是需要省思的是，中国渔民为何被盟友跨界追捕呢?外交无小事，中朝关系到了一个需要调整和反思的时候了。从渔民被扣押到释放，媒体并没有披露这次绑架事件何人所为。这才是问题的关键所在。无论是“渔业争端”事件，还是一次“绑架”都应该告之当事人肇事者的身份。
- 中国渔民的定位系统显示，事发地点在中国海域，如果是朝鲜军方背景的武装人员跨越边界的话，那就是武装侵略;如果是犯罪分子，朝鲜应该予以缉拿审判。唯有如此，才能给中国渔民一个说法。
- 朝鲜官方需要对这一事件作出解释并要做出承诺，杜绝类似的事件发生。通过外交途径最终化解这次危机，说明扣押我国渔船的武装人员具有官方背景，一个国家公然绑架、勒索另一个国家的渔民，这已经构成了对他国主权的侵犯。即便中国渔民违法，也不需要被劫持到朝鲜，羁押罚款。
- 中国与周边国家的渔业争端并不罕见，但是朝鲜扣押中国渔民的事件不同的是，中国渔民并没有在争议海域捕捞，更没有越界，所以朝鲜扣押渔船就是一种勒索，甚至侵犯。朝鲜是中国的盟国，当中国与菲律宾在黄岩岛对峙的时候，朝鲜在背后烧了一把火，大有趁火打劫之嫌。朝鲜驻华使馆官员在事件发生之后，大谈中朝友谊以及中国抗美援朝的历史。笔者认为，革命战争年代的外交理念需要作出调整，中朝同盟条约在某种程度上成为朝鲜“绑架”中国的筹码。
- 以经济建设为中心的中国与先军政治的朝鲜处于两个不同的时代，中国已经不止一次地劝说朝鲜将重心转向民生，转向经济建设，但是，朝鲜依然搞核试验、放卫星，军事建设处于核心。中朝两国的国家形态已经有了很大的分野，开放、崛起的中国融入到世界秩序之中，而朝鲜则自我封闭，自我排斥于世界之外。上个世纪六十年缔结的同盟条约需要重新审视，革命战争年代不计较经济利益，需要决战决胜的意志力;而在经济主义时代，需要权责平衡，也需要以制度规约双方的行为。
- 中国坚持半岛无核化，但是朝鲜屡屡挑战中国底线，最终，让中国在国际社会上非常被动。对朝鲜的援助需要与朝鲜的行为联系在一起，无条件的援助不符合中国利益，对朝鲜也是不负责任。
- 中国一直囿于地缘安全的迷思。朝鲜是中国安全的北大门，这种说法在核导弹时代还有大大的说服力呢?而如今，对于中国而言，一个桀骜不驯的朝鲜才是加速东北亚军备竞赛的导火线，正是朝鲜的发射导弹、搞核试验才让美国的反导系统堂而皇之地进入东北亚。但是朝鲜先军政治屡屡刺激周边国家的神经，美韩、美日

중국신문주간 홈페이지

两个双边军事同盟开始向一个三角军事同盟演变，一个美日韩军事同盟无论对于朝鲜还是中国都不是好事儿。对于中国而言，朝鲜半岛局势具有突变性，中朝关系不能再以鲜血凝结成的友谊来度量和规范，而是需要从中国国家根本利益出发，着眼于制度建设，将朝鲜纳入一个多边合作框架。

붙임 4. 일본 뉴스포스트세븐 보도 원문 (5.23)

뉴스포스트세븐 홈페이지

“情緒不安定の金正恩 遊園地の雑草にブチ切れ草むしり敢行 ”

- 不気味な沈黙を守る北朝鮮の核実験が、「いよいよ間近だ」と各国の情報機関が慌て出している。5月14日に発表された日中韓首脳会談の共同宣言に、「北朝鮮」に関する記述がなかったからだ。
- 共同宣言で日韓が求めていた北朝鮮核実験への強い懸念表明は、中国の執拗な抵抗で削除された。これを、中国が北の核実験を黙認するサインだ、と見るのは日本のある官庁の情報分析担当官僚である。
- 「中国筋の情報によると、実は4月末に一度、北から中国とロシアに対して核実験を行なう事前連絡があった。その証拠に、4月24日に北京空港から北朝鮮へパキスタン人の科学者が渡航し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
- ただしその時点では、中国が反対して中止させた。6か国協議でイニシアチブを取りたい中国は、5月4日に胡錦濤・クリントン会談、さらに13～14日に日中韓首脳会談を控えたタイミングで北が核実験を行なうと、権威の失墜につながると考えた。北の間では相当のつば競り合いがあったようだ」
- 中国に核実験を止められた金正恩の、その後の言動はおかしい。5月9日までに万景台遊園地を訪れ、「管理ができてない」と従業員に激怒し、生い茂った雑草を自ら引き抜いたという。さらに同日の労働新聞では、「もっと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て他国の先端技術に接するべきだ」という異例の声明で党員を叱責している。
- 中国の抑圧に屈した金正恩の「八つ当たり」なのか。だが、前出の共同宣言によって、いよいよ中国も金正恩の“わがまま核実験”を黙認したようだ。

뉴스포스트세븐 홈페이지

- 「共同宣言に北朝鮮の文言があると、北が直後に核実験をした場合に中国の面子が丸つぶれになる。それを外したのは中国が核実験を認めたということ。北は5月中にも核実験を行なう可能性が高いと、各国の情報機関は見ている。事実この間も、北は韓国に対し、GPS（全地球測位システム）を妨害する電波を發するなど、挑発を続けている」

**붙임 5. 일본 산케이 보도 원문 (5.23)**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中国の代理店、北朝鮮ツアー募集開始 ”

- 22日付の中国紙、東方早報によると、旅行代理店大手の上海錦江旅遊は、7月に北朝鮮を訪れる団体観光ツアー客の募集を始めた。同社の担当者は産経新聞の取材に対し、日本人など外国人も参加は可能だと説明した。
- 中国から北朝鮮への団体観光は一昨年4月に解禁され、同社では昨年7月に上海からは初の高麗航空チャーター便を利用し、平壤など4泊5日のツアーを催行した。
- 今年は7月6日出発分から3泊4日、4泊5日などのパックを、1人あたり4000～6000元（約5万～7万5000円）で売り出した。高麗航空は10月末まで上海にチャーター便を週2便飛ばす計画という。
- 「ロシアは最初から核実験は容認できないと言ってきた。国境を接するロシアにとって、北朝鮮の核問題は米国にとってよりも深刻だ」

**붙임 6. 러시아 arms-expo 보도 원문 (5.21)**

arms-expo 군사전문 통신사 홈페이지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неофициальные потенциалы”

- В статье "Абсолютное бесполезное оружие" речь шла о том, что роль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заметно изменил

## arms-expo 군사전문 통신사 홈페이지

ась, оно стало фактором не столько военным, сколько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 А для стран Запада (США,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Франции) оно является больше обременением, чем силой. Ситуация среди развивающихся стра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 азиатских)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ая. Во многих из них собственн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первых, как фактор сдерживания по отношению, как раз, к странам Запада, во-вторых, как важнейший аргумент в региональных спорах.

-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Институт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военного анализа Александр Храмчихин. Однак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уровень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намного выше иранского, КНДР сама пока не создала не только МБР, но и боеспособных БРСД.
-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меется пока одна «неофициальная» ядерная держава - КНДР. Ее ядерный арсенал - это средство «обороны по всем азимутам», оно направлено на сдерживание Южной Кореи, США, Японии и, что, конечно, не афишируется, Китая. Хотя Пекин и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союзником и покровителем Пхеньяна,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ними очень непростые, Китай предъявляет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претензии на всю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были созданы ракеты "Тэпходон-1 и -2" с дальностью 3500 и 6000 км. Можно предполагать, что точность этих ракет очень невелика (чем выше дальность, тем ниже точность), поэтому целесообразно их применение только в ядерном снаряжении (мощность БЧ в этом случае компенсирует недостаток точности). Насколько КНДР способна производить такие ракеты в массовом порядке и существуют ли на самом деле ядерные БЧ к ним -- неизвестно. Вообще не ясно, создала ли КНДР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если да - каких размеров их ядерные устройства.

## 붙임 7. 러시아 글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5.22]

### 글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США берут Азию "в клещи" глобальной ПРО"

- Азиатский сегмент глобальной ПРО США напоминает гигантские клещи. Официально такое построение ПРО объясня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отражения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угрозы со стороны Тегерана. Между тем понятно, что это только предлог -



글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у Ирана нет ни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ни ядерных боеголовок.

- КНДР, судя по неудачному запуску спутника 13 апреля, также пока не имеет технологий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запуска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Но этот запуск послужил Пентагону предлого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форсировать "заточку" азиатских "клещей".
- Пекин уже не раз заявлял, что планы Вашингтона по наращиванию вое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в регионе противоречат общему стремлению к укрепл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Азии. При этом Китай не убеждают аргументы США, что система ПРО нужна 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защиты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от ракетной угроз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美·中이 한반도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5.24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패리스 창」(美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정치외교학 명예교수),

-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미국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 ‘韓·美·日은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에 대해 거듭 경고하고 있는 한편,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확신하고 있다.’
- ‘이는 김정은 정권이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현재 행동방침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규탄성명에 동의했지만, 실제로 북한을 다치게 할 행동을 한 것인지가 의문이다.’
-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전략 우선순위는 韓·美·日과 다르며, 5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를 보여준다.’
- ‘이번 회담에서 3국은 북한의 도발을 수용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지만, 중국의 요구로 공동선언에서 북한행동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제외됐다.’
- ‘중국은 한반도 안정화에 대해 입에 발린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중국의 말은 속이 뻘히 보인다.’
- ‘한·일 정상들뿐 아니라 3월 서울 핵정상회의 때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을 만난 오바마 美 대통령도 중국의 입장에 실망했다.’
- ‘미국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을 저지하게 하는데 실패해왔다.’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제재를 가할 의도가 없으며 오히려 식량·기름·전략 물품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 '중국은 북한 정권 안정에 따르는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 '韓·美·日과 달리 중국은 핵무장한 북한을 우려하지 않고, 북한을 지리적인 완충제 및 미국과 거래시 유용한 외교적 노리게 등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다른 아젠다를 추구하는 중국에 북한 문제를 수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 美 공화당 롬니 진영의 대북정책 관련 입장(5.23 The Diplomat)

- 「로버트 오브라이언」(롬니 공화당 대선후보 외교정책 수석고문),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한국 및 다른 동아시아 국가 주둔 미군과 미국의 가까운 동맹 한국과 일본을 위협한다.'
- '뿐만 아니라, 불량국가와 미국의 적들 및 테러리스트에 핵무기가 확산될 위험도 있다.'
- '고작 16일 만에 북한이 식량지원 합의를 위반한 것을 보면 불행히도 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경험보다는 희망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마디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 '롬니 후보는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북한과 교역하는 회사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
- '또한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 빈도를 높이고 해외 항구의 북한 선박 출입 허가를 막음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의 이행을 강화해 북한의 불법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언급

## □ 중국어권

○ 中·北은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5.23 홍콩 봉황위성TV)

- 「치우쩐하이」(홍콩 봉황위성TV 시사평론가),
  - ‘북한의 중국 어선 나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 ‘첫째, 개인적인 소행인지 북한 당국이 관여된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북한은 군인에 대한 관리가 엄격한데 해군이 이번 사건에 관여됐다는 점을 통해 추측해볼 때 개인적인 소행의 가능성은 낮다.’
  - ‘둘째, 이번 사건 발생 후, 북한 외무성은 영사관이 처리를 한다고 발표한 반면, 중국 외교부는 어업부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양국의 다른 성격의 기관이 처리하는 것을 놓고 많은 사실을 분석할 수 있다.’
  - ‘셋째, 예전에는 이같은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양국의 마찰을 의도적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마찰은 양국 관계의 우정·협력과 같이 정상적인 부분으로 中·北은 정상적인 국가 관계 수립을 생각해봐야 한다.’
  - ‘정상적인 국가관계란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과 전략적 이익에 기초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中·北은 피로 맺어진 관계로 오랫동안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졌으며, 지난 60년 동안은 전략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했다.’
  -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전략적 이익 외에 국가 간에는 각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중국은 美·日 등의 관계처럼 북한과도 이데올로기와 전략적 이익보다 국가 이익이 우선시되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 '정상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충돌·마찰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은폐하거나 혹은 공개할 필요 없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쉬워진다.'

## □ 러시아어권

### ○ 新 실크로드 구축 저해요인은 북한이다.(5.23 글로스 러시아)

- 「유리 솔로조보프」(국가전략연구소 해외 프로젝트 실장),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카자흐스탄)은 대규모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명목 하에 카자흐스탄이 국제 비즈니스의 주요 교통 허브가 될 것을 제안했다.'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로는 이미 건설 중이며,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하는데 있어 실질 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이라는 요인이 문제인데, 수송로를 북한이 막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북한이라는 요인이 해소된다면 부산에서 비엔나까지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7일이면 되고, 이는 아시아·유럽을 돌아가는 시간보다 10일이나 단축되며, 더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다'고 언급

### ○ 北, 전례 없었던 특이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5.23 에코 모스크바 라디오)

-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서 또 다시 대대적 기근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있음.
- 북한에서 또 다시 과거 舊 소련시절 전쟁 前, 가장 비옥한 지대에서 발생했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현재 북한은 마치 잔인했던 스탈린 시절과 가장 무난했던 브레즈네프 시절이 결합된 듯한 기괴한 상황임.
- 특권 계층은 집에서 소니 TV를 보며, 필립스 오디오를 듣고, 말보로 담배를 피우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용소에서 최고 특권 계층을 총살시키는 상황이 동시 발생하고 있는 것임.
- 과거 舊 소련시절 후반에는 실질적으로 아사자 발생과 같은 기근난은 없었으며, 북한은 이제껏 없었던 특이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北 사절단, 방려 예정이다.(5.23 하바로프스키에 노보스티 ☞ 지역 신문)

- 오는 5월 말 극동지역의 중심지인 하바로프스크市에서 개최되는 '하바로프스크市의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하바로프스크市와 협력 협정을 맺은 북한 청진시 대표 사절단이 방려할 예정임.

## □ 일본어권

○ 中·北경계지역, 중국 주도로 개발이 시작됐다.(5.23 닛케이)

- 중국이 길림성 동부 中·北경계지역의 경제개발에 나섰다. 길림성이 개발 기본방침을 보고했으며, 얼마 전 중앙정부가 승인함.
- 북한의 신체제에 대해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 만들기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임.
- 동북아의 경제발전을 중국이 주도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음.
- 중앙정부가 승인한 지역은 中·北·러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길림성 훈춘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임.
- '중국 투먼강지역 국제협력모델구'로 지정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서 2015년까지 도로 등의 인프라와 관련 법제를 책정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을 시작함.

2012.5.2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구체적으로는 △길림, 투먼, 훈춘 각 市를 연결하는 철도망, △동해에 접한 나선시의 나진항으로 이어지는 도로망 등을 정비함.

中·北경계에 걸쳐있는 지역을 물류망으로 연결해 中·北이 하나가 되어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천웨이건」(길림성 부성장),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가능한 한 공헌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새로운 체제가 된 북한측에도 경제체제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함. 올 1월 평양에 개점한 中·北합작쇼핑센터에서는 미국 달러와 위안화뿐만 아니라 유로화와 일본 엔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함.

중국측은 훈춘시를 기점으로 러시아의 자르비노항을 경유해 니가타로 연결되는 국제물류항로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임.

니가타 국제해운과 장길도 국제물류집단화운공사는 4월 말 국제 육해수송 루트의 상호 대리계약에 조인했고, 이르면 6월부터 수송이 시작됨.

그러나 간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사업도 있어 직접 훈춘시의 국제협력모델구로 진출하는 일본기업은 아직 없음.

이번 길림성의 적극적인 행동의 배경에는 쑨정차이 길림성 당서기의 존재가 컸음.

쑨정차이는 중국의 10년 후의 지도부를 담당할 것이라고 거론되는 에이스 중 한명임. 올해 출범하는 당의 차기 지도부에서 더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한 업적 만들기 측면도 강함.

중국은 올해 차기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함.

## 붙임 1. 더 디플로맷 게재 원문 (5.24)

### 더 디플로맷 홈페이지

#### "U.S., China's Clashing Korea Dreams"

- o Beijing has very different ideas from Washington on w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look like. A month after North Korea's failed attempt to launch a satellite, and there are further signs that the country is continuing to make preparations for what would be its third nuclear test. This comes despite repeated warnings against any further provocative a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The problem is that, rightly or wrongly, Pyongyang appears to assume that it can count on the support of its traditional ally China. It's a mindset that means the Kim Jong-un regime is unlikely to be deterred from its current course.
- o It's true that China went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last month in adopting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ensuring North Korea over its violation of an earlier resolution prohibiting the country from testing long-range missiles. Yet many remain doubtful whether Beijing would ever actually take the kind of substantive action that might hurt its client state.
- o Why? Essentially because China's strategic prior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are simply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This was evident at a meeting of the leaders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n Beijing this month. The three countries agreed during talks that they couldn't accept North Korean provocations. However, reportedly at China's request, the joint declaration on "Enhancement of Trilateral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omitted any explicit reference to Pyongyang's actions.
- o The summit made clear that although China pays lip service to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repeating as it did its commitment to "realizing a peaceful, stable and prosperous East Asia" and "enhancing mutual political trust," the reality is that China's words are sounding increasingly hollow. But it's not jus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leaderships that have been destined to be disappointed by Beijing's stance. Back in March, U.S. President Barack Obama met with Hu in Seoul when world leaders gathered for the nuclear summit.



더 디플로맷 홈페이지

- o This wasn't the first - and won't be the last - tim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differ over North Korea policy. After all, successive U.S. presidents - from Bill Clinton to George W. Bush to Barack Obama - have unsuccessfully sought Beijing's support in trying to restrain North Korea.
- o But it's also clear that although Beijing has officially backed U.N. sanctions, it has no intention of actually enforcing such measures. On the contrary, China has been supplying food, oil and other strategic commodities to shore up its North Korean ally. China's reported timely food shipments in early April, for example, would have helped ease acute food shortages in North Korea, likely emboldening Kim to spurn U.S. food aid and defy U.S. pressure.
- o The reality is that China sees its national interests as being best served by a secure and stable North Korean regime, and it is determined to do wha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China doesn't really worry about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th strategists in Beijing instead seeing North Korea as an important asset - not only as a geographical buffer, but also a useful diplomatic pawn in its dealings with the U.S. and its allies.
- o It's therefore time the Obama administration drew up a new strategy, one that doesn't outsource the North Korean problem to a Beijing that is pursuing its own, quite different agenda.

**붙임 2. The Diplomat 게재 원문 (5.23)**

The Diplomat 홈페이지

“North Korea Upgrading Missile Site?”

- o Robert O'Brien, a senior foreign policy advisor to likely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Mitt Romney, for his take.
- o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s a serious menace to world peace.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Pyongyang threaten American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lsewhere in East Asia as well as our close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Furthermore, the

The Diplomat 홈페이지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creates a real danger of proliferation of these weapons to rogue regimes, American adversaries and terrorist groups," he told me.

- o "Unfortunately, the current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based on a food aid deal that was violated by North Korea in a mere 16 days, demonstrates triumph of hope over experience. Simply put, President Obama has made no progress in disarming North Korea."
- o "Gov. Romney will crack down on banks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and sanction companies that conduct commercial shipping in and out of that nation. He will also step up enforcement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o constrain North Korea's illicit exports by increasing the frequency of inspections of North Korean ships and discouraging foreign ports from permitting entry of such ships into their countries."

### 붙임 3.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5.23)

봉황위성TV 홈페이지

“邱震海：中朝应该建立正常国家关系”

- o 先分析一下，我想这个事件有几个特点，从公开媒体上，第一这是朝鲜海军所为，朝鲜海军军人，但是我们不知道这个是个人的还是官方所为，因为现在比较坦率的讲，朝鲜的军队还是比较严密的，它这个体制，它还没有完全开放，在一个比较封闭，比较集中的一个从上而下的体制下面，揣摩，我们大胆的揣摩这个军人应该个人的所为，好像似乎可能性不大，所以第一个这个背景到底是个人所为还是官方所为，我们暂且作为一个开放式的问题放在那。
- o 第二朝鲜外务省的发言人表示，朝鲜的领事部门在处理，中国外交部表示，中国的渔业部门在调查，这两个东西放在一起，其实里面有很多可以揣摩的地方。
- o 第三个，我们知道过去也许中国官方对这样的事情是不予公开的，但这次进行公开了，这个事情的性质到底是什么？我们大胆的也做一个揣摩，我们希望这是一个格外，我们也想西方媒体做一种阴谋论的思维来表示，说这是朝鲜官方故意要给中方一个下马威，中方故意要公开是一个，要故意公开两国的矛盾，但是与此同时，当发生这样的事情之后，让我们看到中朝两国一方面虽然是传统的友好盟友，但另一方面，双方的摩擦已经无可回避了，而且这种在军队之间的，军人所

**봉황위성TV 홈페이지**

造成的摩擦，如何去看待这个摩擦？我认为对于任何所以如果摩擦是两个国家正常关系的一部分，合作、友谊也是两个国家正常关系的一部分，所以就让我个人提出来的一个问题，中朝关系是不是应该考虑建立一种正常的国家关系。

- 正常的国家关系我想区别于两种，另外两种国家关系，一种是纯粹的基于意识形态的考虑的，另外是纯粹的基于战略利益的考虑，我们知道中国和朝鲜关系用鲜血凝成的友谊，过去在相当长一段时间基于意识形态的考虑，同时在过去60年间，相当程度也是基于双方的战略考虑。这些意识形态、战略考量当然从抽象的、虚幻的概念上我们都可以予以理解，也予以一定的支持，但是我们要问一下，这个意识形态是一方面，战略利益是一方面，但另一方面，国与国之间必然有双方的国家利益，这种国家利益到底体现在何处？所以彼此我认为呢，其实对中国来说非常简单，我认为意识形态我们可以考虑，战略利益可以考虑，但就像任何一个国家，我们跟日本、跟美国、跟亚非拉、其它国家一样，对朝鲜的关系我们应该寻求建立，发展一种正常的国与国关系，正常的国与国关系，就是它意识形态和战略利益应该是占据第二位，第一位是国家利益的考量，在这么一种国家利益的考量之上，当发生冲突了，发生摩擦了，我们看的非常正常，即无须掩盖，也无须去打开，而是像正常的国际关系，要进行外交部门的交涉。
- 无须掩盖冲突，但与此同时，既然是正常的国家利益，当冲突产生的时候，我们也不能让他冲突无休止的掩盖了双方的合作，掩盖大局，所以我认为，如果说还中朝关系以他的正常国家关系的本质，当然我们可以考虑意识形态，我们可以考虑战略利益，但是这样的话，友谊依然存在，但是冲突我们就无须回避了。与此同时，中国可以在国际舞台上更加游刃有余，最终的是最大的程度的来服从自己的国家。

**붙임 4.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5.23)**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построит новый Шелковый путь”

- Возродить "Шелковый путь" сей час уже не проблема. Идея транзитного хаба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пути "Китай -Западная Европа", которое будет завершено в 2015 году,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проектам Институ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и Юрий Солозобов: "Президент Нурсултан Назарбаев предложил сделать республику деловым и транзитным хабом всей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чтобы мировому бизнесу было удобно иметь дело именно с Казахстаном, как с главной своей базой".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 Со стороны Европы и Азии уже строятся транспортные магистрали навстречу друг другу. Теперь же проектируется "Новы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который практически снимет таможенные барьеры в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континента.
- "Проблема упирается, к сожалению,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Давно бы уже был реализован вариант единой колеи, от порта Пусана Южной Кореи до Вены. Сегодня прокладывается широкая колея через Украину, через Словакию до Вены, где грузы будут отправлять дальше в страны Европы. Этот проект согласован, подписан и уже реализуется, но ему не хватает небольшого кусочка, идущего от Пусана через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 сожалению,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се время блокирует этот гигантский транспортный коридор. Если бы это удалось преодолеть, то контейнеры можно было бы доставлять от Пусана до Вены за 7 дней, что на 10 дней быстрее и значительно дешевле, чем вокруг Азии и вокруг Европы".

**붙임 5. 러시아 에코 모스크바 보도 원문 (5.23)**

에코 모스크바 라디오 홈페이지

“Голод в КНДР: смерть в провинции, валютные магазины в Пхеньяне”

- Так вот, сей час информаторы по разным каналам уверяют, чт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пять начался массовый голод, который,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затронул основные земледельческие провинции на юго-западе страны, т.н. «рисовый пояс». Похоже, что в КНДР опять спровоцирована ситуация, напоминающая то, что и в СССР до войны происходило в самых плодородных районах. Да и в сам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это уже было в 90-х годах, при Ким Чен Ире - сыне основателя правящей в стране династии и отца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я.
- В КНДР, похоже, сложилось фантастическое сочетание свирепого сталинизма (с концлагерями, возможностью расстрела высшего номенклатурщика) и самого милого разложившегося бре

에코 모스크바 라디오 홈페이지

жневизма, когда номенклатура бацала дома «Эммануэль» на телевизоре «Сони», слушала стереосистему «Филипс», курила «Мальборо» и попивала «Джонни Уокер».

- Ну, а на работе без тени сомнений претворяла в жизнь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утвержденные на очередном Пленуме ЦК. Впрочем, настоящей смертельной голодухи в позднем СССР, согласитесь, уже не было. Так что достижения КНДР поистине уникальны.

**붙임 6. 러시아 하바로프스키에 노보스티 보도 원문 (5.23)**

하바로프스키에 노보스티 지역신문 홈페이지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города”

-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города в конце мая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столицу придут иностранные делегации. Город Чхонджин (КНДР), с которым у Хабаровска заключен договор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также направит на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фициальную делегацию, которую возглавит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родного комитета Чхонджина господин Ли Ир Су.

**붙임 7. 일본 닛케이 보도 원문 (5.23)**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中朝境界、中国主導で開発 北朝鮮に経済重視促す”

- 中国が吉林省東部の中朝境界地域の経済開発に乗り出す。吉林省が開発の基本方針をまとめ、このほど中央政府が承認した。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第1書記を中心とする北朝鮮の新体制に対し、経済発展を中心とした国造りを促すのが狙いだ。北東アジアの経済開発を中国が主導することで、同地域で勢いを増すロシアの動きをけん制する思惑もある。
- 中央政府が承認したのは、中朝口が境界を接する吉林省琿春市を中心とする地域。「中国図們江地域国際協力モデル区」に指定し、中央政府の

##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 財政支援の下で2015年までに道路などのインフラや関連法制を策定。20年までに本格的な運用を始める。
- 具体的には(1)吉林、図們、琿春各市を結ぶ鉄道網(2)日本海に面する北朝鮮羅先市の羅津(ラジン)港につながる道路網ーなどを整備する。中朝境界をまたがる地域を物流網で結び、中朝一体で開発を進める。
  - 吉林省の陳偉根副省長は21日の北京での記者会見で「対外開放政策を通じてできる貢献をしていく」と強調した。
  - 新体制となった北朝鮮側にも経済体制を見直す動きが出始めている。北朝鮮関係者によると、今年1月に平壤市内でオープンした中朝合弁の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では米ドルや人民元だけでなく、ユーロや日本円まで使えるという。中朝貿易関係者は「北朝鮮側に外貨導入への積極姿勢が見られる」と指摘する。
  - 中国税関総署が公表した貿易統計によると、中国と北朝鮮の11年の貿易総額は10年比で62.4%増の56億3940万ドル(約4570億円)となり、2年連続で過去最高を更新した。吉林省での中朝経済協力が軌道に乗れば、貿易総額は今後ますます増える。
  - 日本との関係では、日本海をまたがる物流網の可能性が広がりそうだ。中国側は琿春市を起点に、ロシアのザルビノ港を経由して新潟と結ぶ国際物流航路の活用に取り出す構えだ。新潟国際海運(新潟市)と長吉図国際物流集団貨運公司(琿春市)は4月末に国際陸海輸送ルートの相互代理契約に調印。早ければ6月から輸送が始まる。中国からは加工木材や繊維製品、日本からは生活雑貨などの輸送需要が見込まれている。
  - ただ、間接的に北朝鮮がかかわるビジネスとあって、企業イメージの観点から日本企業で直接、琿春市の国際協力モデル区に進出する企業はまだない。今後の日本海物流網がどう活性化するかを見定めているようだ。
  - 今回の吉林省の積極的な行動の背景には、同省トップの孫政才・吉林省共産党委員会書記の存在が大きい。孫氏は中国の10年後の指導部を担うとされるエースの1人。今年後半に発足する党の次期指導部でより良い地位を得るための実績作りとの側面も色濃い。
  - 中国は今年、共産党の次期指導部を発足させるのを機に、北朝鮮との関係の新しいあり方を探り始めている。ただ北朝鮮側には、中国が経済力を背景に影響力を増すことへの懸念も依然根強い。次期指導部入り有力視される李源潮党中央組織部長は「東アジアの安定のため、中国は北朝鮮をうまく誘導しようと努力している」と語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중국어권

○ 북한은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다.(5.23 홍콩 봉황위성TV)

- 「장리엔구이」(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김정일의 혁명유훈으로 반드시 이어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했음.’
-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핵무기를 전쟁수단으로 바꾸기 위해 핵실험을 할 것임.’
- ‘지난 두 차례의 핵실험 실패는 기술적으로 핵무기가 전쟁 도구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에 앞으로 여러 차례 핵실험을 진행할 것임.’
- ‘핵실험 진행 시기는 북한 내부의 기술적 준비 상황과 주변 국제환경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임.’

○ 어선 나포 사건은 中·北관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5.23 홍콩 봉황위성TV)

- 「장리엔구이」(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 ‘북한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양국 관계의 일부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음.’
- ‘그러나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양국 관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양국의 정상적 관계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임.’
-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충격이 크지만 양국 관계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임.’

2012.5.25(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양국 관계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음. 중국은 북한을 혈맹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서로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중국의 對北 지원에 대해서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음.'
- '중국의 지원을 받고서도 돌아서서는 미국과 대화하는 것은 중국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북한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임.'
- '위성 발사 후에도 중국 외교부는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음을 밝혔는데 이는 中·北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함.'
- '이에 이번 어선 나포 사건을 통해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줄어들어야 하며 中·北의 우정이 더욱 실질적이 되어야 함.'

## □ 영어권

○ 中은 어선나포로 北과 단절하지 않을 것이다. (5.24 타임)

-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난 중국 어부들의 장기 구금과 학대에 대한 증언으로 중국에 북한이 하나뿐인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음.
- 「안쉐통」(中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중국인들은 화가 났으며, 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우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북한은 중국 어부들을 오랫동안 구금하고 빨리 돌려보내지 않았다.'
- 온라인상에서는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음.



2012.5.25(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시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사용자, '이같이 행동하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초과 곡물을 바다에 버리고, 북한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주장
-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며 북한 정권의 안정을 바라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붕괴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
- 대북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어선나포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단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북한의 실패한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에 동의하면서도,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김정은에게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보냈음.
- 중국 당국은 납치된 중국 어부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고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 행동에 대한 비난은 회피했음.
- 글로벌타임스(中 공산당 기관지)는 해외 언론들이 이번 어선나포 사건을 이용해 中·北간 불화를 불러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함.

## □ 러시아어권

○ 대북 UN 제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23 obozrevatel 인터넷 언론사)

- 바실리 갈로브닌(이타르타스 일본주재 통신원),
  - '외국인들이 보는 평양은 또 다른 세상이다. 방북 후 돌아온 사람들은 벤츠, 렉서스, BMW 신형을 비롯한 더 많은 외제 자동차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들 한다.'

2012.5.25(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대북 사치품 반입은 2009년부터 UN 제재로 인해 금지된 상황인데도 말이다.'
- '보통강 백화점의 선반들과 냉동코너는 유럽산 식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 '주류제품도 다양한데, 샴페인은 한 병에 70유로, 싱가포르産 맥주 Tiger도 눈에 띄며, 명품 시계, 향수, TV, 의류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다.'
- '이 모든 상품들은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데, 쉽게 말해 UN 제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국은 돈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 北, 소비 붐 징후가 관측되고 있다.(5.24 RUSKOR ㉠ 언론사)

- 평양 및 주변지역의 자동차 수 증대에 따라 주유소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얼마 전 북한을 방문한 소식통이 밝힘.
- 방북자들은 주로 중국산을 비롯, Mercedes, BMW, Volkswagen 같은 자동차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함.
- 익명의 소식통은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자동차 사용에 실질적인 붐이 일어났다. 평양 뿐 아니라 외곽지역에도 새로운 주유소가 생겼다'고 전언
- 북한 관측통은 '엘리트 계층이 거주하는 평양지역은 중국과의 교역 증대에 힘입어 소비가 증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 지역은 경제적 빈곤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힘
-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소식통,
  - '대부분의 주유소는 당 기관 소유이다.'
  - '당 소유 자동차 주유는 현금 지불보다 더 싼 가격에 쿠폰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휘발유는 리터 혹은 갤런이 아닌 킬로그램 단위로 책정된다.'

2012.5.25(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과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일과 관련이 있는 7-27 번호판 수가 늘어났다'고 전언

- 대부분의 자동차는 공식적으로 군부·정부·공공기관 소유이지만, 최근 개인소유가 늘어나고 있음.
- 평양의 또 다른 소비증대 징후는 해외 브랜드의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Chanel이나 Armani 등을 파는 상점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임.
- 북한 주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2008년 3G망이 구축된 이후 핸드폰을 사용한 후부터 더욱 확실히 관찰됨.
- 평양에서 소비 인프라 증대 징후가 관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은 다양한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음.
- 일각에서는 북한 내 사치품을 가지려는 트렌드가 심화되는 상황은 권력을 압박하고, 내부 엘리트 경쟁을 심화시키는 추가적인 도구가 된다는 견해도 있음.

○ 러시아는 북한-파키스탄간 관계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5.25 nvo.ng ☞ 군사전문 일간지)

- 러시아는 북한과 파키스탄 간 관계를 가장 우려하는데, 이들 국가의 대내외 정치적 상황이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급격하게 변할 경우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러시아에게 있어 군사·전략적 차원의 최상의 안은 對 중국 핵무기 제한이고, 가능하다면 對 북한 및 파키스탄 핵군축, 對 이란 핵무기 획득을 막는 것임.
- 비공식 핵보유국인 북한 및 이스라엘의 경우, 핵 군축 협의의 공식 참가국이 될 수 없을 것임.
- 이들 국가의 핵무기가 협정 대상이 된다면 △안보문제 해결, △군비 제한, △정치·경제·역내 문제의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질 것임.
- 협정체결 과정은 핵군비 제한협정 같은 기존모델이 아닌, NPT 체제 강화라든지 지역적 차원의 형태가 될 것임.

## □ 일본어권

- 연변조선족자치주, 탈북자 집중단속 시작했다.(5.24 레코드차이나)
  -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5.15일부터 10.15일까지 '3不' 외국인 즉 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입국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됨.
  - 연변자치주 공안국의 출입경관리소장은 '연변은 국경과 가까운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3不 외국인들이 밀항한다'고 말하며, 이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암묵적으로 시사함.
- 중국 前외교부장,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요청(5.24 넷케이)
  - 일본을 방문중인 「리자오싱」(前외교부장)은 5.24일 북한과 관련해 '6자회담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에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함.
  - 남북관계의 악화를 염두하고 '관계국은 냉정히 대화해야 하며, 서로 자극해 분쟁을 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
- 日외상, 북한의 행동에 따라 응해나갈 생각 있다.(5.25 지지통신)
  - 「겐바 고이치로」(日 외상),
    - '(북한 외무성이 핵실험을 예정한 적이 없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또 다른 도발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함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응해나갈 생각은 있다'며 대화재개도 포함하여 대응할 자세를 내비침.

## 붙임 1.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5.23)

### 봉황위성TV 홈페이지

“张琰瑰：朝鲜坚定走有核道路 必进行核试验”

- 我们注意到朝鲜多次宣布过，朝鲜一定要成为一个核国家，并且说在任何情况下它都不放弃核武器。特别是金正日去世以后朝鲜公开的宣布，拥有核武器是金正日的革命遗产，它是在任何情况下都不会放弃这个革命遗产的。从这个角度来看，朝鲜是坚定不移的要走有核道路，如果是这一点要肯定的话，那么朝鲜为了使它的核武器，真正能成为一种战争手段的话，它必然要进行多次核试验。
- 我们注意到，到目前为止朝鲜进行了两次核试验，从行家来看从技术角度来看两次核试验不足以使它的核武器真正成为一个战争的工具，因此从理论上讲朝鲜肯定要近来多次核试验。至于什么时候进行核试验，我想主要的还是由朝鲜内部的技术准备情况来决定的，当然也要看周边的这种国际环境。所以从大的方面来看朝鲜进行下一次核试验这是肯定的。

## 붙임 2.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5.23)

### 봉황위성TV 홈페이지

“张琰瑰：渔民遭扣事件反映中朝关系具体问题”

- 从某种角度来讲，这件事情发生以后，使很多人认识到中朝关系具体的一些问题，这样也有助于老百姓客观的实事求是的评价中朝关系，评价朝鲜人怎么看待中国人的，从长远来看，从历史角度来看有助于中朝之间建立一种非常正常的关系。从这个角度来看，坏事确实是也能变成好事。我们应该确实从这种事情里面去认真的吸取经验教训，来检查一下我们处理这类事情过程当中有哪些不足，也利于今后中朝关系沿着健康的这种方向发展，确实这件事情出了以后，我觉得凡是涉及到的有关部门都应该在这件事情里面吸取经验和教训。
- 我想由于这件事情对中国老百姓的这种冲击是太大了，因为现在中国改革开放以后，中国这个民众的声音实际上对中国政府制定政策的话是产生影响的，我想从这个角度来看这件事情有可能对中朝关系发展产生某种影响。
- 现在这件事情还没有搞清楚，究竟是谁做的，为什么这么做说实话不太清楚，我们很难判断朝鲜内部在这个问题上有什么分歧或者是谁在主导。这个我们现在搞清楚之前，做这种分析是没有依据的。但是有一点我感觉到就是说在中朝关系这个问题上，我们一般中国人所想象的和朝鲜人所想象的可能有一定的落差，我们一直认为历史上中国和朝鲜有一种特殊的这种关系，特别是新中国建国以后在那样困难的情况下，进行了抗美援朝战争，中国和朝鲜形成了鲜血凝成的友谊，但是在朝鲜看起来可能是这种看法就和中国看法就不太一样了。

### 북황위성TV 홈페이지

- 朝鲜认为历史上中国和朝鲜是不平等的，所以说朝鲜提出来要竖立主体反对事大主义。所以在中国给朝鲜带来的援助也好，进行抗美援朝也好，朝鲜可能更多的是考虑到是不是受中国的影响太多了。所以说我们可以看到有些媒体曾经报道过，就是说朝鲜拿了中国的一些援助但是同时回过身来又跟美国人讲，中国人对我们没有任何影响，实际上就反映了朝鲜人这种心态。
- 实际上在处理具体问题上朝鲜也是这样做的，比方大家感到印象最深的就是最近这个四月份，4月13号朝鲜发卫星这件事情。朝鲜在3月16号公布要发卫星，中国感到很突然，但实际上美国在去年12月15号就已经得到了朝鲜的那种非常坦诚的通知。所以说美国已经早就知道了这件事情，但是中国呢却被蒙在鼓里。我记得去年5月份金正日访问中国的时候，胡锦涛主席曾经提出几条建议，其中很重要的一条，就是说在重大的问题上相互进行沟通，但显然像这种重大问题上并没有沟通，这样的话确实是使我们感觉到很被动。所以说我记得是到了4月13号朝鲜发卫星失败以后，中国外交部发言人公开的破天荒的罕见的公开的承认，朝鲜在发卫星之前宣布之前我们没有得到任何的通知。所以这也反映了中朝关系的一种特殊状况。
- 就像我们也强调通过这个事情把这种特殊状况的空间越发缩小，让中朝的友谊更加能够摸得着看得见。

## 붙임 3. 타임 보도 원문 (5.24)

### 타임 홈페이지

“Detention of Chinese Fishermen Fuels Anger With North Korea, But Rift Unlikely”

- But the fishermen’s lengthy detention and stories of abuse that have emerged after their release have fueled anger in China and a sense that North Korea doesn’t respect its only major ally. “People are really upset. This didn’t show North Korean friendship towards China,” says Yan Xuetong, dean of the Institute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at Tsinghua University in Beijing. “They kept them for too long and didn’t return them as quickly as possible.”
- Online, Chinese sentiment towards North Korea has run highly negative in recent days. “There’s no point in helping a country like this,” wrote one user of the Twitter-like Sina Weibo service. “Take any excess grain and throw it in the sea, just don’t give it to them.”
- Beijing has also regularly ordered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s who cross into northeast China for food, work or a chance to travel on to South Korea.

타임 홈페이지

Such policies are driven by the Chinese desire for stability in North Korea. The Chinese government fears that a collapse of the regime in Pyongyang could send millions of refugees streaming into northeast China.

- o China's leadership appears unlikely to break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over this episode, despite public anger. Beijing has been a key supporter of Kim Jong Un, who assumed power in Pyongyang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Kim Jong Il, in December. Although China went along with a U.N. Security Council vote to condemn North Korea's failed satellite launch last month, Chinese President Hu Jintao also sent a message of congratulations to Kim for his promotion to a leadership role in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 o Last week Chin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alled on North Korea to ensure the safety of the detained Chinese fishermen, and this week said that the Ministry of Fisheries would carry out an investigation, but it declined to condemn North Korean actions.
- o While the Global Times, a tabloid run by the Communist Party, described the abuses of the Chinese fishermen, in a subsequent story it blamed foreign media for using the incident to stir up disharmony between Beijing and Pyongyang.

**붙임 4. 러시아 obozrevatel 보도 원문 [5.23]**

obozrevatel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Крестьяне КНДР массово голодают, а в Пхеньяне стало больше BMW”

- o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ачался массовый голод, который затронул основны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овинции на юго-западе стра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ИТАР-ТАСС со ссылкой на японские и сеульские СМИ. В своем блоге на «Эхе Москвы» корреспондент ИТАР-ТАСС Василий Головин пишет: «Ну, а открытая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часть Пхеньяна - это другой мир. ...Приезжающие из Пхеньяна рассказывают, что на улицах города стало

obozrevatel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заметно больше машин, в том числе довольно новых «Мерседесов», «Лексусов», "BMW". Это притом, что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с 2009 года действуют санк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которые запрещают поставки туда предметов роскоши.

- «Полки и холодильники забиты: европейские сыры, новозеландское масло, австралийская говяжья вырезка, норвежский копченый лосось, все виды напитков - от шампанского по 70 евро за бутылку до сингапурского пива Tiger. Тут же часы лучших марок, драгоценности, духи, телевизоры, шмотки и прочие радости. Все это идет через Китай, который, мягко говоря, не слишком строго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санкций ООН. Китай же снабжает и рынки, где отовариваются счастливые столичные жители, не имеющие возможности швыряться валютой - т.е.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е второй категории», - пишет Головнин.

**붙임 5. 러시아 RUSKOR 보도 원문 (5.24)**

RUSKOR 언론사 홈페이지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замечены признак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бума”

- Количество автозаправочных станций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быстро возрастает вслед за таким же ростом количества автомобилей в столице и вокруг не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ИА РУСКОР из источника, недавно посетившего страну. Визитеры Пхеньяна, который подвергся значительным реновациям по случаю недавнего 100-летия основателя страны Ким Ир Сена (Kim Il-sung), заметили зримый рост числа автомобилей, в основном китайских, но также таких марок как Mercedes, BMW и Volkswagen.
- «По сравнению с несколькими прошлыми годами наступил настоящий бум в пользовании автомобилями. В то же время новые автозаправки опутали не только Пхеньян, но и его пригороды», сказал источник, попросивший не называть его имя.
- Обозреватели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говорят, что в то время как основная часть страны остается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ищете, в



## RUSKOR 언론사 홈페이지

Пхеньяне, где проживает элитный класс, растет потребление за счет увеличивающейся торговли с Китаем. Источник, который владеет точ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на Севере, сказал, что хотя владельцами подавляющего числа автозаправок являются партий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они открывают хоро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бизнеса операторов.

- Заправка автомобилей, принадлежащих парти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 купонам, в то время как цены ниже для тех, кто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твердой валютой. Бензин измеряется в килограммах, а не литрах или галлонах. Источник также отметил возросшее число номерных знаков «7-27», что связывают с новым лидером Ким Чен Ыном (Kim Jong-un) и с 27 июля 1953 года, когда вступило в силу соглашение о перемирии.
- Большинство автомобилей формально принадлежат военному ведомству,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и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но отмечается рост частных перевозок. Другие признаки растущего потребления заметны в Пхеньяне в форме открытия ресторанов и кафе под иностранными брендами и магазинов, торгующих товарами с фирменными знаками Chanel и Armani.
- Перемены в стиле жизни жителей Пхеньяна видятся более отчетливо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отовых телефонов после того, как режим установил сеть 3G в 2008 году. Несмотря на некоторые симптомы рост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столице, из провинции продолжают поступать сведения о растущем диспаритете в благосостоянии разных прослоек населения, что не в пользу новой власти в лице Ким Чен Ына. Некоторые считают, что эт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усиленные прогрессирующим трендом к приобретению предметов роскоши стану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давления на власть и усиления соперничества внутренних элит.

## 붙임 6. 러시아 nvo.ng 보도 원문 (5.25)

nvo.ng 군사전문 일간지 홈페이지

“Многостороннее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 Наибольшую тревогу у России должны вызы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Пакистаном и КНДР,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резко дестабилизированы в случае радикальных и не зависящих от РФ перемен во внутреннем положении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этих стран. Поэтому ограничение ядерных вооружений КНР и Пакистана, а еще лучше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Пакистана и КНДР,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обретения такого оружия Ираном, безусловно,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им интересом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 Наконец, два негласных и непризнанных ядерных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противоположных окраинах Евразии -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зраиль и КНДР - едва ли могут стать формаль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переговоров о разоружении с кем бы то ни было. Если их ядерные средства когда-то и будут предметом соглашения, 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в рамках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ограничения обычны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и внутренних вопросов. Это предполага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мат и контекст укрепления режимов ДНЯО, а не традиционную модель соглашений об ограничении ядерных вооружений.

## 붙임 7. 일본 레코드차이나 보도 원문 (5.24)

레코드차이나 홈페이지

“北朝鮮との国境で脱北者に対する集中取り締まりを開始、10月までの5カ月間”

- 2012年5月23日、北朝鮮と豆満江（中国名：図們江）を挟んで向かい合う中国吉林省延边朝鮮族自治州で今月15日から、北朝鮮からの脱北者の集中取り締まりを始め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中国新聞網が伝えた。

**레코드차이나 홈페이지**

- 同州公安局が同日、発表したところによると、5月15日から10月15日までの5カ月間、不法滞在、不法就労、不法入国のいわゆる「三非」外国人に対する集中取り締まりが行われている。
- 同局の李永学（リー・ヨンシュエ）出入境管理所長は「同州は国境に近いという特殊な事情を抱えているため、頻繁に一部の『三非』外国人が密航してくる」と説明。脱北者を対象にしたものであることを暗に示唆した。
- その上で、「毅然とした態度でこうした『三非』外国人の撲滅に乗り出す」と決意を語っている。同州では3月にも、龍井市三合村の各家庭にボタン1つで警察に通報できる「脱北者通報装置」が設置されたと韓国メディアが伝えている。
- 脱北者問題をめぐっては、北朝鮮への強制送還を実施する中国に対し、国際社会から「非人道的だ」と非難が集中している。2月に国連欧州本部で開かれた人権理事会の閣僚級会合では、韓国外交通商省のキム・ボンヒョン調整官が「強制送還された後の危険な境遇」を紹介、暗に中国を批判する内容の演説を行っている。

**붙임 8. 일본 닛케이 보도 원문 (5.24)**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中国前外相「6カ国協議、早期再開を」 アジアの未来”

- 「アジアの未来」に出席するため来日している中国の李肇星前外相は24日、4月に人工衛星と称して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を強行した北朝鮮情勢に関連して「6カ国協議が問題解決に向けた最善の方策だ」と述べた。米国を含む関係国に北朝鮮核問題を巡る6カ国協議を早期に再開するよう取り組みを求めたものだ。都内で日本経済新聞の取材に答えた。
- 李氏は今月7日から北朝鮮を訪問、8日に金永南（キム・ヨンナム）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と会談した。李氏は「中国も核兵器のない朝鮮半島を望んでいる」と強調。北朝鮮が3度目の核実験に踏み切らないよう中国政府の懸念を伝えたとみられる。
- 韓国と北朝鮮との関係悪化を念頭に「関係国は冷静に話し合うべきで、刺激し合って紛争を大きくしてはならない」と指摘。北朝鮮が核放棄を約束した2005年の6カ国協議共同声明に言及し「実行へ努力すべきだ」と語った。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 尖閣問題や世界ウイグル会議の東京開催など、ぎくしゃくした日中関係では「いかなる国々の間にも意見の食い違いはあるが、共通点、共通の利益を大事にしないといけない」と言明。両国関係の悪化を回避すべきだとの認識を表明した。
- 李氏は25日午前に「アジアの未来」で講演するため23日から訪日、玄葉光一郎外相や麻生太郎元首相らと会談した。

**붙임 9.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5.25)**

지지통신 홈페이지

“北朝鮮、非核化へ具体的行動を=外相”

- 玄葉光一郎外相は25日の閣議後の記者会見で、北朝鮮外務省が核実験を予定したことはないと表明したことについて「さらなる挑発行為を行わないことと併せて非核化に向けた具体的な行動が大事だ」と強調した。外相は「どういう行動かによって、応えていく用意はある」と、行動の中身次第で対話再開も含めて対応する姿勢を示し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북한의 극심한 가뭄 불구, 식량지원 가능성 낮다. (5.28 AP)
  - 북한의 심각한 가뭄으로 이미 심각한 식량난이 더 악화될 수 있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미국과 한국의 식량지원 가능성은 낮음.
  - AP기자 방문이 허용된 평안남도 남포의 논밭은 땀별에 갈라져 있었으며, 농민들은 극심한 가뭄에 대한 하소연을 했음.
  - 피부가 그을린 남녀가 갈라진 흙에 바가지로 물을 부어 배추와 옥수수 모종을 옮겨 심고 있었음.
  - 남포의 덕해협동농장의 안송민이라는 농부는 '여기서 30년 넘게 일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가뭄은 처음이다'라고 언급
  - FAO는 아직 북한의 피해 지역을 방문해 가뭄의 심각성과 피해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도 남포와 같은 상황인지는 불확실함.
  - 「퍼시 미시카」(FAO 중국·북한·몽골 대표),
    - '모종을 옮겨 심는 중요한 시기에 가뭄으로 인해 모종이 시들어 버릴 것이고 추수를 못하게 될 것이다.'
    - '가뭄이 1~2주 더 계속된다면 위태로울 것이고, 그 전에 비가 오면 희망은 있다.'
    - 'FAO 측이 가뭄 피해 지역 방문을 시도하고 있다.'
  - 지난해 말 FAO는 북한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 극심한 한파와 더 빈번한 여름철 폭우 및 태풍을 겪고 있으며, 가뭄 또한 더 잦고 길어졌다고 보고함.

○ EU 의회, 중국의 탈북자 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

(5.28 Financial Mirror)

- 유럽 의회 의원들은 5.24일 중국이 1986년 북한과 체결한 '국경 업무상호 협력의정서'를 해제하고,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한국 또는 제3국에 갈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촉구함.
- 또한, 중국이 북한측 공안요원들의 탈북자 추적·체포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고, NGO들의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 허용을 요구함.
- 이 외에도 지난 3.29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소속 운동가 4명이 탈북자를 돕다가 중국에서 체포된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중국 당국이 이들에게 한국측 영사 접견 및 법적 대리를 허용하고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함.

○ 北 수용소에 대한 탈북자들 증언 (5.28 CNN)

- 북한 정치범 수용소나 강제노동 수용소를 탈출한 사람들에게 따르면, 수감자들은 굶주림·고문·배신·사형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구타 대신 식량을 원하고 있음.
- 국제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북한 주민 20만명이 6개의 잔혹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발표함.
- 북한에 가족들을 두고 온 탈북자 김씨,
  - '수감자들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썩은 옥수수 120g이 하루 식량이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
  - '죽은 동료 수감자들은 인근 야산에 묻혔으며, 이 야산은 부패한 시체 탓에 꽃들이 만발했다.'
  - '사망자들이 많아 이들의 시체를 묻을 구덩이를 크게 팔 수 없는 상태로, 내가 삽으로 땅을 팠을 때 시체 4구가 발견됐다.'

- 탈북자 강철환(10년간 정치범 수용소 구금, 현재 한국 기자),
  - ‘영양실조와 탈진으로 죽을 고비를 세 번 넘겼으며, 강제로 쥐·곤충·풀 등을 먹었다.’
  - ‘북한 수용소는 독일 히틀러 독재정권 하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Auschwitz)와 비슷하다. 히틀러는 독가스로 살해한 반면, 김정일은 굶주림과 강제노동으로 사망하게 했다.’
- 김정은은 2011.12월 사망한 김정일의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정치범 수용소는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

## □ 중국어권

### ○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5.25 환구망)

- 「리카이성」(국제문제 전문가),
  - ‘북한의 중국 어선 나포에 화가 나지만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對北 교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완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을 보호하는 것이 謀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더욱 아니다.’
  - ‘현재 양국의 충분한 소통과 서로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데 북한이 對中 관계와 우정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했다면 이러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안보를 보장받으려 하지만 이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 ‘북한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은 韓·美의 침범인데, 현재로선 이런 가능성은 매우 적다.’
  -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것은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카드를 손에 쥐기 위함이다.’

2012.5.29(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中·北 동맹을 신뢰하지 못하며 재래식 무기로는 韓·美와의 군사력 격차가 나기에 핵위협력으로 평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 '그러나 핵개발은 관련국의 이익에 위배되어 對北제재로 이어졌고, 이는 오히려 북한 안보를 더욱 위협하게 됐다.'
- '그러므로 북한의 안보 실현을 위한 현실적 방법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 '中·北 동맹은 양국에 모두 이로우므로 중국 또한 북한과의 동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북한이 고립과 제재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핵개발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룰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정치·경제·사회 발전 수준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 '만약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 국제적인 제재는 있을 것이다.'
-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진행 시, 중국은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잘못된 길로 가는 북한을 바로바로 저지해야 한다.'

○ 북한의 對中 태도는 시계추와 같다. (5.25 봉황망)

- 「쉐리타이」(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

- '북한이 중국 어선 나포 후, 중국은 외교적 채널로 북한과 교섭한지 14일이 지나서야 중국 어선이 석방되었다.'
-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양측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 '이는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경고를 북한이 어선 나포와 석방 지체라는 방식을 통해 중국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 '북한을 위해 희생하고 오랜 기간 지원한 중국에 대한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의리를 저버리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 ‘한국전쟁 이후부터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 ‘강력한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면 북한은 중국에 의지했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 거리를 유지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해 경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심지어 중국을 방패막이로 삼아 위협에 처했을 때에는 도움을 청하지만 평시에는 다시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인다.’
- ‘예를 들어 대외적인 중요한 사건을 우선 중국에는 비밀로 하면서 사건 발생 후에는 중국이 책임지도록 하게 한다.’
- ‘이로써 중국이 공공의 적이 되고, 북한을 위해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국제사회에 대신 설명하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 ‘국제사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가난하고 小國인 북한이 어떻게 핵연료 생산 라인을 만들 수 있으며, 북한 문제 발생 후 항상 각측의 자제를 촉구하는 중국 외교부의 태도이다.’

## □ 일본어권

○ 北, 軍部내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5.26 주간 현대)

- 북한의 정세를 분석하는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접촉한 북한 인민군 간부들로부터 세계정보에 민감한 엘리트층과 군 젊은층 일부에서
- ‘현재 지도부는 돌머리들이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 희망은 없다. 기회가 있으면 해외로 도망가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언

2012.5.29(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불만의 직접적인 원인은 군부에 지급되는 물자가 감소되었고 지금까지 묵인해온 용돈별이용 물자 밀수에 상충부가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기 때문임.
  - 김정일은 군부내에서 불만이 탐지되면 간부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내어 불만을 잠재웠지만, 김정은은 불만분자에게 선물을 하려해도 충분한 자금이 없다고 함.
  - 초조해진 김정은은 외화별이를 위해 노동자를 더 많이 파견 하도록 지시를 내렸지만, 외국 문물을 접한 노동자가 반대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 있음.
  - 김정은은 경제원조를 요구하며 年内라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나라를 비우게 된다면 그 순간에라도 평양시내에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北, 일본 미디어 2개社에 방북을 타진했다.

(5.26 이자 산케이 디지털뉴스, 블로그 포털사이트)

- 북한이 2차대전 당시 일본인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골반환을 놓고 아사히방송<sup>14)</sup>과 교도통신에 대해 5월 하순 방북을 타진 함.
-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측은 6월로 연기하도록 요구해 일정을 재조정 하고 있음.
- 전사자의 유골과 유품 등이 발견됐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유족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대신, 인도적 지원을 끌어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측은 올 봄부터 複數의 라인을 통해 이러한 외교공작을 펼쳐왔음.

## □ 러시아어권

- 北 가뭄, 쌀 수확량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5.28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최근 들어 북한에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기상학자들은 6월에도 가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14) 킨키광역권 대상 민영방송

2012.5.29(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현재 농지가 말라 물을 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뭄은 향후 쌀 수확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이제까지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어 왔는데, 분석가들은 자연재해 외에도 비효율적인 농지 활용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北 문화·예술 사절단 극동지역을 방문했다.

(5.29 아무르스카야 프라우다, 프리마 미디어 ⇨ 지역 언론사)

- 「올렉 코제마코」(아무르주 주지사), 지난해 가을 방북 시 북한 문화계 인사를 초청해 총 55명으로 구성된 북한 문화·예술 사절단이 연해주 지역을 방문했다고 연해주 문화·문헌부가 발표함.
- 「올가 유리코바」(연해주 문화·문헌부 차관), '군악대를 비롯한 공식 인사로 이루어진 사절단은 하바로프스크에서 개최된 군악대 페스티벌에 참석, 양국 국가와 북한 전통음악을 연주했으며, 극동 각 지역에서 공연을 가졌다'고 발표함.



○ 불법어업방지에 관한 러·北간 협정은 6월 중 비준될 것이다.

(5.28 fishnews ⇨ 어업분야 전문 언론사)

- 불법어업방지에 관한 러·北간 협정은 '12.1.30 체결, '12.5.2 비준 승인되었으며, '12.6월 비준 예정임.
- 「안드레이 크라이니」(어업청 청장), '북한과의 협정 체결로 공식·합법적 조업 인증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힘.

## 붙임 1. Associated Press 원문 (5.28)

Associated Press 홈페이지

### "North Korea Reports Serious Drought"

- o North Korea is reporting a serious drought that could worsen already critical food shortages, but help is unlikely to come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llowing Pyongyang's widely criticized rocket launch.
- o In at least one area of South Phyongan Province where journalists from The Associated Press were allowed to visit, the sun-baked fields appeared parched and cracked, and farmers complained of extreme drought conditions. Deeply tanned men, and women in sun bonnets, worked over cabbages and corn seedlings. Farmers cupped individual seedlings as they poured water from blue buckets onto the parched red soil.
- o "I've been working at the farm for more than 30 years, but I have never experienced this kind of severe drought," An Song Min, a farmer at the Tokhae Cooperative Farm in the Nampho area, told the AP.
- o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conditions around Nampho were representative of a wider region.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aid it had not yet visited the affected regions to confirm the extent and severity of the reported drought.
- o Seedlings are being moved from seed beds to the fields, where they need enough moisture to form strong roots, Percy Misika,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s representative for China, North Korea and Mongolia, said Monday from Beijing.
- o "Any dry spell at this critical time means the seedlings are definitely going to wilt away, and there will be no harvest at the end of the day," he said.
- o Misika said FAO officials are trying to visit areas suffering from a lack of rain. "If it's going to last for one or two weeks more, it's going to be critical, but if it's a shorter period of time there could be hope," he said.

Associated Press 홈페이지

- o Droughts are common in spring, winter and autumn in North Korea, the FAO said in a special report late last year. Climate change has led to more extreme weather, making winters colder, summers packed with more intense rain and typhoons, and droughts more frequent and prolonged, it said.

**붙임 2. Financial Mirror 원문 (5.28)**

Financial Mirror 홈페이지

"Human rights: Azerbaijan and return of North Korean refugees"

- o In another resolution voted on Thursday, Parliament calls on China to stop deporting North Korean citizens back to North Korea, as returnees and their families are at "great risk of abuse and even execution".
- o MEPs hope China will end the 1986 repatriation agreement with North Korea and calls on the country to grant them safe passage to South Korea or other third countries.
- o Parliament also asks China to stop cooperating with North Korean security agents in tracing North Korean refugees with the aim of arresting them and instead to allow NGOs access to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 China.
- o Furthermore, Parliament deeply regrets that four activists of the Seoul-based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were arrested in China on 29 March, while reportedly trying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and face allegations of being "a threat to China's national security".
- o It calls on the Chinese authorities to grant the activists full consular access to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legal representation, and to release them swiftly.

### 붙임 3. CNN 보도 원문 (5.28)

#### CNN 홈페이지

"Defectors describe horror, heartbreak in North Korea's labor camps"

- o Those who have tried to escape a North Korean political or hard labor camp and have survived to tell the tale, talk of starvation, torture, betrayal and executions. By informing on others, many say inmates could hope for more food or less beatings.
- o Human rights group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up to 200,000 prisoners are being held "in horrific conditions in six sprawling political prison camps."
- o One defector, who wanted to be identified only as Kim as he has family members still inside North Korea, told CNN inmates face a slow and painful death. He was sent to a labor camp for a year and a half after being caught crossing into China.
- o "We received 120 grams of rotten corn for daily food. So many people with the same year and a half sentence as me didn't survive their term and died of hunger."
- o Kim describes seeing many of his fellow inmates die and having to bury them on a nearby hill. The only hill, he said, where flowers grew well due to the large numbers of decaying bodies beneath the ground. "When I went to bury my friend, I found the hole was too small," he said. "When I asked why, the guy said there was no more room to make a bigger hole. When I dug up the ground with my shovel, I saw about four layers of bodies and human bones."
- o Kang Chol-Hwan is now a journalist in South Korea, a world away from his previous life where he spent ten long years in a prison camp. Sent at the age of nine as his grandfather fell out of favor with the elite, he says he almost died three times from malnutrition and exhaustion. He remembers being forced to eat mice, insects and grass to stay alive.
- o "It was like Hitler's Auschwitz concentration camp, not as large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way people are killed. Hitler gassed people, Kim Jong Il sucked the life out of people through starvation and forced labor."
- o Kim Jong Un took over from his late father in December 2011 and appears to have changed nothing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 붙임 4. 중국 환구망 보도 원문 (5.25)

### 환구망 홈페이지

#### “中朝交往需改善 中国不应放弃朝鲜”

- 扣押渔民事件确实使人愤怒，但中国应该做的是改善对朝交往方式，而不是放弃朝鲜。从地缘政治的角度看，朝鲜的战略缓冲作用是客观存在的。但维护朝鲜这个国家的存在不等于维护某个政权的存在，更不意味着朝鲜可以予取予求。中国已经在安全、政治上、经济上对朝鲜做出了很大的贡献，朝鲜当然也应该尊重中国在地区安全、公民安全方面的利益。目前的问题在于中朝之间制度化的沟通渠道不够、也缺乏足够的规范来指导双方间的行为，中方应该要求朝鲜就此事进行调查并做出道歉，与朝鲜建立各层级的交往与规范，避免类似事件再次发生。
- 如果朝鲜能够从双边关系的大局、从中朝友谊的高度出发的话，双方间在渔业捕捞方面有具体、规范的沟通与合作的话，这样的事是完全可以避免的。发展核武器不是维护朝鲜安全的最好办法，因为危及朝鲜安全最重要的威胁就是美韩入侵。但从现实来看，这样的事情发生的可能性极小。
- 朝鲜之所以执意发展核武器，我想有几个原因：一是筹码，以此迫使美国签订和平条约、实现美朝关系正常化；二是对中国不放心，认为同盟关系靠不住；三是自己的常规武器老化，与美韩的差距越来越大，故此想通过核威慑实现力量平衡。但这样做违背了几乎所有相关国家的利益，故受到大家的反对，朝鲜自己也受到制裁与敌视，反而因此更加不安全。所以，朝鲜实现自身安全的现实途径还是和中国落实关系，中国也不必怕和朝鲜搞同盟，关键是这个同盟要对两国都有利。
- 从近期看是放弃核武器研发计划，解除半岛的紧张状态，推动其他国家对他的制裁。从长期看是搞改革开放，无论经济发展水平还是政治社会发展水平上来看，缩小与其他国家的差距，才能真正摆脱孤立，获得发展，并赢得国际社会的尊敬。朝核爆定招致制裁 遭军事打击可能性较小。军事打击的可能性较小，但一定会有国际制裁。因为中国也是不赞同朝鲜搞核试验的，这样一来通过安理会进行制裁的可能性就会有很大。因为如果朝鲜真的第三次核试，中国就必须表明自己的立场，也必须对朝鲜在错误的道路上越走越远的可能性加以及时的遏止。

## 붙임 5. 홍콩 봉황망 보도 원문 (5.25)

### 봉황망 홈페이지

#### “朝鲜对中国犹如“钟摆””

- 这次中方经由外交渠道同朝方全力交涉，拖延了十四天，扣船事件才获得解决。这说明北京对平壤的影响力渐趋式微，双方“摩擦”时无法进行高效的协调。这才是真正的症结所在。笔者认为，北京迭次告诫平壤克制，切勿进行第三次核试

**북향망 홈페이지**

爆。平壤对北京存有心结，在扣船事件发生以后，拖延不决，藉此对北京表示不满。这可能是平壤迟不释放渔船、渔民的背景因素。平壤处理国际争端，一贯耍横，喜走边锋，动辄摆出一副不惜以国运相赌的架势。迹象显示，平壤在屡屡得逞以后，以致食髓知味，乐此不疲。问题在于，中国不像美国，曾经为朝鲜承担过民族牺牲，也长期向朝鲜提供巨额援助。朝方如此对待中国，实属不义之行为、不智之举动。

- 对朝、中两国关系综合分析一下，读者会发现，自朝鲜战争以来，平壤同北京的战略关系可谓“剪不断，理还乱”。一旦强敌压境，平壤的钟摆就向北京靠拢，呈现“唇亡齿寒”之势；渡过了紧急关头，平壤的钟摆再次回到原点，同北京刻意保持距离。总之，平壤对北京深怀戒心。尤有甚者，平壤视北京为护符，认定北京在其危急存亡之秋必定会伸出援手，再度将其救出虎口，可是在平日又视北京为无物，并不予以尊重。譬如平壤对外有何重大举动，事先刻意对北京隐瞒，出现不测事端以后，又一味要求北京承担牺牲，从井救人。简言之，平壤就是吃定了北京，所以对北京予取予求，漫无止境。
- 在天安舰沉没事件、朝、韩炮战爆发之前以及浓缩铀生产装置曝光之前，平壤均未把类似意向知照北京，及至事态呈现高风险之际，又动辄视北京为护符，在国际社会面前一味耍“横”。如此这般，北京竟成了众矢之的，无端端为平壤背了黑锅。更为严重的是，平壤一味耍“横”，北京又总是设法替平壤解脱，国际社会在总结经验、吸取教训之后，于是趋向于认定中国最终必须为朝鲜一味耍“横”承担责任。国际社会所持依据：
- 若非中国大力支撑朝鲜，朝鲜国小民贫，又岂能拨出偌大资源，替核武器工程建造浓缩铀这第二条核燃料生产线？若非中国大力支撑朝鲜，中国外交部又何以在朝鲜惹出重大事端以后，总是呼吁各方保持冷静克制，共同致力于维护朝鲜半岛的和平稳定？

**붙임 6. 일본 주간현대 보도 원문 (5.26)**

**주간현대 홈페이지**

“訪中の日が「Xデー」か”

- 人民の間だけでなく、軍部内でも不満がくすぶりはじめ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明かすのは、北朝鮮情勢の分析を行っている中国外商部の関係者だ。
- 「最近接触した人民軍の幹部から、世界情報に敏感なエリート層や軍の若い層の一部で『現在の指導部は石頭の連中ばかりで、これではわが国



## 주간현대 홈페이지

の未来に希望が持てない』『チャンスがあればなんとか海外に逃亡したいものだ』といった声が上がっている、と聞いた。不満の直接の原因は、軍部に支給される物資が減少してきていること、それまでは・小遣い稼ぎ・として黙認されてきた物資の密輸入に、上層部が厳しい目を光らせるようになったことだ」

- 故・金正日総書記は、軍部内で不満が高まっていることを察知すると、幹部らに高価な贈り物をしてその不満を収めていた。しかし、泣きっ面に蜂というべきか、父に倣って不満分子に贈り物をしようにも、正恩第一書記の懐には十分な資金がないのだという。
- 「贈り物の購入には金一族が握る『官房機密費』のようなものが当てられていたのだが、相次ぐ経済制裁によってこの資金が不足し、満身に贈り物を渡せ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焦った金正恩は、『外貨を稼ぐために、労働者をもっと多く海外に派遣せよ!』と指示を出したようだ。
- 現在も北朝鮮は世界各地に3万人ほどの労働者を派遣しているが、さらに1万人ほどの派遣を検討しているという。新たに大勢の労働者が派遣されれば、海外の空気に触れた労働者が現体制に疑問を持ち、揺さぶりをかけるような行動に出るだろう」(前出・韓国国防部関係者)
- "体制維持"のための労働者派遣が、逆に現体制を揺さぶることにつながるかもしれないとは、なんとも皮肉である。
- 金正恩は経済援助を求めて、年内にも中国を訪問する予定だと囁かれている。実現すれば新指導者となってから初めての海外訪問であり、大変な注目を集めるのは間違いない。しかし国内情勢が不安定な状況で国を空ければ、その瞬間にも平壤市内で"革命の火"が上がる可能性があるのだ。「北朝鮮崩壊Xデー」のカウントダウンは、すでに始まっている。

## 붙임 7. 일본 이자 보도 원문 (5.26)

### 이자 홈페이지

“北朝鮮、日本メディア 2社に訪朝打診 「遺骨」で人道支援狙う ”

- 北朝鮮が、日本人戦没者とみられる遺骨返還をめぐり、朝日放送(大阪市)と共同通信社に訪朝を打診したことが25日、分かった。複数の政府高官が明らかにした。戦没者の遺骨を交渉カードに日本人の心情を揺さぶり、見返りに人道支援を引き出そうとする卑劣な外交手法だといえる。

이자 홈페이지

- 政府高官によると、北朝鮮側は2社に対し「日本人戦没者らの遺骨の取材に応じる用意がある」として取材記者らを5月下旬に訪朝させるよう打診してきた。2社とも前向きに検討していたというが、最近になって北朝鮮側は6月に延期するよう求め、日程を再調整中だという。
- 戦没者の遺骨や遺品などが見つかったことを大々的に報道させ、遺族らへの遺骨返還や慰霊のための訪朝などを認める代わりに、人道支援を引き出す狙いがあるとみられる。
- 北朝鮮側は春ごろから複数のパイプを通じて同様の外交工作を続けていた。

**붙임 8. 러시아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보도 원문 (5.28)**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угрожает сильнейшая за последние полвека засуха”

- Версия для печати Западным районам КНДР угрожает засуха, которая может стать самой сильной за последние полвека. Однако синоптики предупреждают, что наступающий июнь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не менее засушливым.
- Это может стать сильным ударом для будущего урожая риса, учитывая, что именно сей час заливные рисовые поля очень остро нуждаются в воде. Синоптики, однако, предупреждают, что большой помощи от грядущего июня ждать не стоит. По прогнозам он тоже будет весьма сухим. Отмети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традает от хронической нехватк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двух десятилетий. Аналитики объясняют это нерациональным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земель, а также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붙임 9. 러시아 지역 언론사 보도 원문 (5.29)**

아무르스카야 프라우다, 프리마 미디어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отрубят в Приамурье”

- Корейских деятелей искусства минувшей осенью пригласил в Приамурье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во время официально

아무르스카야 프라우다, 프리마 미디어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го визит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а завтра у военных музыкантов в намечено еще два выступления в Белогорске.

-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АП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творческая делегация из КНДР в количестве 55 человек будет гостить в Приамурье до четверга. В составе группы в область прибыл духовой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а такж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и. С 23 по 28 мая делегация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военных духовых оркестров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Амурские волны» в Хабаровске.
- Сегодня рано утром музыканты приедут в Благовещенск. В 19.30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состоится первый в истории амурский концерт этого коллектива. По словам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и Юрковой, духовой оркестр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собирается исполн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гимны России и КНДР, военные марши, парады,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ые, а также малоизвест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музыки.

**붙임 10. 러시아 fishnews 보도 원문 (5.28)**

fishnews 어업분야 전문 언론사 홈페이지

“В их числе - соглашение с КНДР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ННН-промысла живых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Как сообщили РИА Fishnews.ru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о СМИ Госдумы РФ, в июне в числе ряд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депутаты намерены ратифицировать соглашение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незаконного, несообщаемого и нерегулируемого промысла живых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Напомним, что этот документ Росси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дписали 30 января 2012 г. в Москве. На заседании 2 м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одобрило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ратифика

fishnews 어업분야 전문 언론사 홈페이지

ции соглашения с КНДР о совместном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ННН-промыслу. Далее законопроект был направлен в Госдуму на ратификацию. Руководитель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Андрей Крайний ранее отмечал, что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с КНДР призван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уровне регулировать систему сертификации уловов на предмет легальности их добычи.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에 혼란이 없다고 질서가 잡힌 것은 아니다. (5.29 WSJ)

- 「빅터 차」(美 조지타운대 교수이자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
  - ‘북한의 권력 승계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 외부인들은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 ‘김정일 사후 북한에 혼란이 없다는 것이 질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북한에 아무 이상이 없으며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 북한 전문가들이 많지만, 현재 북한 상황은 이보다 더 불확실할 수 없다.’
  -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한국과의 관계보다 좋지 않으며,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비핵화는 통일이 돼야 가능하다.’
  -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 ‘북한이 핵무기 국가라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모두가 여전히 6자회담 복귀에 힘쓰고 있지만, 인권문제·미사일 지역·핵연료 주기 등 부차적인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 美 특수부대 北 침투 보도, 북한이 이용할 수 있다.

(5.29 Washington Post)

- 미군이 부인한 美 특수부대의 북한 침투 보도가 사실이라면 휴전협정에 대한 위반행위임.
- 논란 이후 삭제된 Diplomat誌 기사에 따르면, 「닐 틀리」 주한 미군 특수전 사령관이 지난주 한 회의장에서 ‘위성에 포착되지 않는 北 지하 터널 정찰을 위해 韓·美 특공대가 낙하산으로 북한을 침투했다’고 언급함.

2012.5.30(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미군은 성명을 통해 '그러한 인용은 지어낸 것이며, 미군이나 한국군은 북한에 낙하산으로 침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함.
  -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보도를 도발의 핵심 근거인 미국의 호전성에 대한 증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함.
  - 지난 주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억제력은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음.
  - 「다니엘 핑크스톤」(국제위기그룹 안보전문가),
    - '이러한 보도는 미국이 북한을 전복하려는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며,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 이용할 것이다.'
  - 美 당국은 북한을 가장 첩보를 얻기 힘든 나라로 자주 묘사해왔음.
  - 미국은 몇몇 위험국가에서 첩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경이 봉쇄되어 있고 수많은 감시기관을 보유한 북한과 같이 난관이 많은 국가는 없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함.
  - 최근 몇 년간 美 정보당국은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김정일 사망 같은 중요한 정보를 북한이 공개했을 때에서야 알았음.
- 김정은에 대한 北 TV 방송 늘었다. (5.29 AFP)
- 북한 국영방송은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에 대한 대중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의 방문 방송을 잇달아 방영하고 있음.
  - 김정일도 현장지도 방문을 많이 했지만, 국영방송은 관례상 한 달 이후 이를 방영했음.
  - 북한 관영매체는 이례적으로 5월 초 김정은이 평양 만경대 유희장을 공개 비난한 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신경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됨.

○ 北, 50년만 최악의 가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28 Voice of Russia)

- 북한의 농민들은 저수지에 작은 댐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고장이 난 물펌프 및 송수관을 고치라는 지시를 받았음.
- 저수지, 강, 호수 등이 고갈되고 있는 남서지방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어권

○ 특수부대 북파설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 (5.29 stopnews ☞ 언론사)

- 韓·美 특수부대 북파설 관련, 美 고위급 인사의 발언이 있었음.
- 이 지역은 사실상 한국 외에 러·中·日 정보기관의 작전수행 지역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과연 이들 국가가 작전에 참여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임.
- 특수부대 작전을 주변국가의 눈을 속이고 하기는 매우 힘들며,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관계 당사국들과의 작전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함.
- 기 진행된 작전은 미국,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과 같은 선진 특수 정보기관의 현대 기술이 입증된 케이스로 볼 수 있음.

○ 北, 군사분쟁 발생 가능성 가장 높다. (5.30 vpk-news ☞ 군사전문 일간지)

- 현재 핵무기는 군사행동 수단이라기보다,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의 핵 잠재력 보유의 군사·정치적 목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재래식 무기 열세의 상쇄 및 정치적인 수단으로의 이용임.
- 핵무기를 사용한 군사분쟁 발생 가능 지역을 살펴본 결과 이란과 파키스탄간,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음.

○ 러 재무부 차관, 채무문제 논의 차 방북 예정이다. (5.29 재무부)

- 「스토르차크」(재무부 차관), 北 재정성과 舊소련시절 제공했던 채무문제 조율을 위해 5.31~6.2일 방북할 예정임.

## □ 중국어권

○ 韓·美 특수부대 북한 잠입, 북한의 반격은? (5.30 차이훤)

- 미국과 한국의 특수부대가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북한에 잠입했다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음.
- 주한미군측은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했지만 사실여부를 떠나 韓·美의 북한 정보에 대한 열망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정보 획득을 위해 더 많은 수단을 동원할 것임.
- 미국이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 정보 획득을 위한 미국 특수 작전병력의 북한 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은 한반도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북한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중국임.
- 작년 김정일 사망 소식을 일주일 후에야 알게된 것과 관련 해서도 韓·美·日은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크게 반응했음.
- 미국은 북한이 정보 획득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여기고 있기에 특수작전 병력의 북한 잠입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진찬룽」(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미국은 북한의 새지도자를 신임하지 못하며 북한은 위성 발사 후, 각측에 어떤 설명도 없이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
  - ‘韓·美 역시 각자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 3국의 각종 퍼포먼스가 시작되었다.’
  - ‘韓·美는 이러한 신호를 통해 북한을 위협하려 하며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도발에 대해 한국은 반격 할 것으로 결정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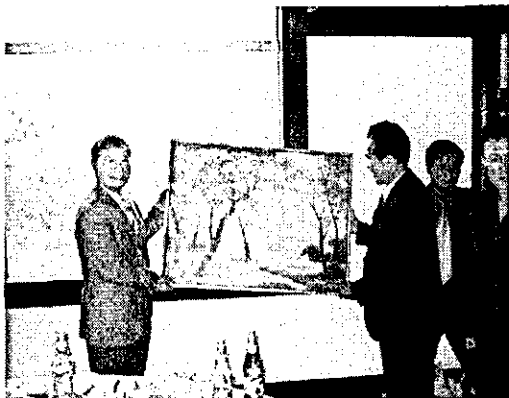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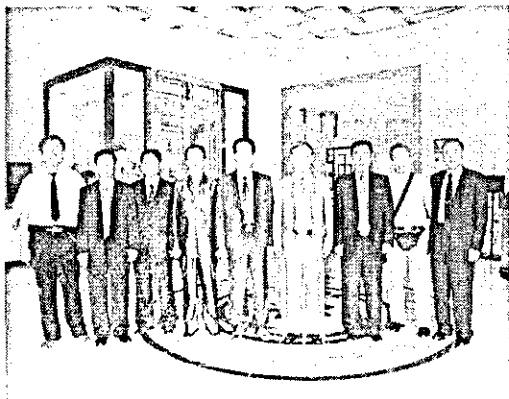


2012.5.30(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미국은 한국의 적절한 반격을 인정하며 북한이 다시 韓·美의 이러한 행동에 반응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더 불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北 평양신문사 대표단, 중국 방문 (5.29 중국 기자협회)

- 5.29일, 송낙균 책임주필을 단장으로 한 북한의 평양신문사 대표단(5인)이 북경에서 중국 기자협회와 만남을 가졌음.
- 북한 대표단은 이번 방문의 목적을 '중국 문화체제 개혁에 대한 이해'로 정하고 북경 외에도 상해, 항주도 방문할 예정임.
- 이들은 중국 문화부, 경제일보, 북경일보 등 관련 정부 부서와 주요 언론, 문화 기관 등을 방문해 중국 문화체제 개혁과 사회·문화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임.



□ 일본어권

○ WFP 新사무국장, 북한과 조건 협상중이다. (5.29 지지통신)

- 4월 취임 후 일본을 처음 방문한 UN 세계식량계획(WFP)의 「어써린 커즌」 사무총장은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현재 북한 당국과 조건을 놓고 협상중에 있다는 점을 밝힘.
- 작황의 악화로 WFP는 작년부터 영양부족에 빠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6월 종료 후에도 WFP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함.

○ 北, 외화획득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하다. (5.26 TBS뉴스)

- 올 2월 중국 단둥시에 개점한 북한 국영 레스토랑에서 외화 벌이를 위해 중국인 결혼식을 받고 있음.
- 한 테이블당 2만5,000엔이며, 수백 명이 모이는 결혼 피로연일 경우 한 번에 80만엔 이상의 매출이 됨.
- 지금까지 중국내 북한국영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은 조선족 등 극히 일부였지만, 中·北 국경이라는 관광지의 최신 대형시설이라는 점을 홍보한 결과 여행사를 통해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

## 붙임 1. WSJ 게재 원문 [5.29]

### WSJ 홈페이지

"Cha: Absence of Chaos Doesn't Mean Order in NK"

- o Victor Cha said North Korea is going through a succession process much sooner than they expected. And that, despite seeing the regime conduct an orderly funeral and quick bestowal of titles to Kim Jong Eun, outsiders just can't assume the process is going smoothly.
- o And the North'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ren't any better than they are with the South. It makes pretty clear that denuclearization, to the extent that that is the top U.S. priority, only really comes with unification. But we don't know how to get to unification. We just don't know how to get there.
- o These are all essentially acknowledging the reality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weapons state. Everybody will still try to get back to six-party talks, but we're now seeing all the secondary effects of people saying, 'Let's talk about human rights.' 'We want longer missile ranges.' Or 'we want a full nuclear fuel cycle.'
- o To me, the thing that's a problem with the people watching what is happening in the North since Kim Jong Il's death is to simply assume the absence of chaos means the existence of order.
- o Every regime is stable until it isn't. I think there are so many of these North Korea watchers who are saying 'You know everything is fine. It's the same thing all over again.' To me, that is irresponsible analysis. The situation cannot get any more uncertain than this.

## 붙임 2. Washington Post 게재 원문 (5.29)

### Washington Post 홈페이지

"U.S. denies N. Korea commando operation"

- o The U.S. military on Tuesday denied a report that it has been sending commandos into North Korea to spy on underground military facilities, a mission that would violate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ended the Korean War.
- o According to the Diplomat, Brig. Gen. Neil H. Tolley, commander of special operations for United States Forces Korea, said at a conference last week that U.S. and South Korean commandos parachute into the North to conduct reconnaissance on underground tunnels that are hidden from satellites. "Quotes have been made up and attributed to him," the U.S. statement said. "No U.S. or [South Korean] forces have parachuted into North Korea."
- o But analysts warned that North Korea, despite the U.S. denial, could seize the initial report as evidence of American belligerence, a central theme of its propaganda and a key rationale for its military spending and provocations. Last week, Pyongyang vowed to bolster its "nuclear deterrence"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d its hostile policy toward the North.
- o "Anything like this, it just plays right into the hands of North Korea," said Daniel Pinkston, a Seoul-based security expert at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It proves their narrative that America just wants to topple the regime. They can pick up the original story and just run with that."
- o U.S. officials have often described North Korea as their toughest intelligence target. The United States runs spy missions in numerous dangerous countries, security experts note, but few present the kind of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which has near-sealed borders and redundant layers of surveillance agencies. In recent years, U.S. intelligence officials have learned of important events in the North -- such as the development of a uranium-enrichment facility and the death of leader Kim Jong Il -- only when the Pyongyang government announced them.

### 붙임 3. AFP통신 보도 원문 (5.29)

AFP통신 홈페이지

"North Korea ramps up TV coverage of leader Kim Jong-un "

- o North Korea's state television is ramping up coverage of visits by Kim Jong-un in an apparent attempt to help the untested young leader bolster popular support.
- o Former leader Kim Jong-il, Jong-un's father, also made numerous "field inspection" visits. But state television in the past customarily waited about one month before airing documentary footage of them.
- o Earlier this month, in an unusual development, state media reported him scolding staff at a shabby amusement park for neglecting their duties and failing to serve the people.
- o Some analysts said the public criticism of the park - not the one which was the subject of the TV documentary - was designed to send a message to ordinary people that he was taking care of their interests.

### 붙임 4. Voice of Russia 원문 (5.28)

Voice of Russia 홈페이지

"N. Korea coping with drought aftermath "

- 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increasingly energetic moves to cope with the consequences of a drought, the severest in the past 50 years, that's swept many of the country's regions. Farmers have been told to build their own ponds by constructing small dams at water reservoirs, and urgently repair the water pumps and pipes that are out of order. The situation is grave in the southwest of the country, where water storage reservoirs, rivers and lakes are about to dry out.

## 붙임 5. 러시아 stopnews 보도 원문 (5.29)

### stopnews 언론사 홈페이지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ая акция: КНДР копает под Южную Корею”

- Итог операции: обнаружены 4 тоннеля, построенные КНДР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разделяющей Северную и Южную Корею, а также до 20 аэродромов с подземными ангарами и о борудовани ем для подвески оружия.
- В этом районе, кром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ботают» также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китайская, японская и российская разведки. Вопрос: участвовали ли они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в проведении операции? Ведь провести такое вторжение тайком от всех видов «ушей» - очень трудно. И вполне вероятно, что операция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согласована с другим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лицами».
- Что теперь произойдет -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дъявит КНДР претензии, вынесет обсуждение проблемы в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или с помощью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уничтожит нелегально возведе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Проведенную операцию можно определить как апробацию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азведки, которыми владеют ведущие разведки мира - США, России, Японии, Израиля.

## 붙임 6. 러시아 vpk-news 보도 원문 (5.30)

### vpk-news 군사전문 일간지 홈페이지

“«Другая» концепция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не средство ведения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а средство сдерживания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агрессора. Рассмотрим зоны возможных полномасштабных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ов с угрозой приме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таблица 1).
- Россия - США менее 0,1, Индия - Пакистан до 30, Вокруг Ирана менее 5, Вокруг Израиля менее 5, Россия - Китай мене

vprk-news 군사전문 일간지 홈페이지

е 1, Вокруг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о 30, Индия - Китай менее 5, США - Китай , включая ЮВА, Японию и Тайвань менее 5

- Таблица 2.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е цели поддержания ядерных потенциалов сторон: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Компенсация недостатка конвенциональных сил (весь мир), Политический бонус

## 붙임 7. 러시아 재무부 기재 원문 (5.29)

재무부 홈페이지

“Переговоры с Минфином КНДР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задолженности КНДР”

- 31 мая-2 июня Переговоры с Минфином КНДР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задолженности КНДР по кредитам,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 бывшим СССР: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А. Сторчак

## 붙임 8. 중국 차이신 보도 원문 (5.30)

차이신 홈페이지

“美特种兵空降朝鲜 朝鲜接招?”

- 不知不觉的消息在我们耳边路过。昨天在国际社会上又出现了一则令所有人都吃惊的消息，就是有消息称，一些美国和韩国特种兵已经被空降到朝鲜，对朝鲜地下军用隧道实施侦察。这一消息不亚于好莱坞上演的“拆弹专家”等电影。而随后消息流传了数小时就被韩美总司令“封杀”。并激烈否认了对朝鲜的任何特征侦察行为。但不管此消息是否属实，但美国和韩国方面对朝鲜的情况了解的渴望，也不排除会采取更多措施来获取朝鲜方面的消息。
- 面对着朝鲜的很多未知，美国不排除向朝鲜排除特种兵部队，而只是美国并不愿意承认而已。为了更多的了解朝鲜，美国和韩国很可能会加快对朝鲜的了解。去年朝鲜最高领导人金正日去世的时候，还是中国先知道，而是在一周之后向全球通报的，这种消息令美日韩措手不及，更感觉到朝鲜的保密工作是若此的严密。对朝鲜的任何消息都一点也不知情。美日韩当时反应极大。

### 차이신 홈페이지

- 而面临着美日韩对朝鲜方面的消息了解的甚少, 美国派出更多特种兵进入朝鲜也不是没有可能的。而且美国把朝鲜视为在朝鲜半岛上最大威胁的国家, 而中国次之。有美国分析, 朝鲜可能是世界上最难刺探情报的地方, 对于大多数情报机构而言堪称是一个黑洞。美国官员经常抱怨, 在这个斯大林主义国家情报太难搞, 那里几乎没有现代化童鞋, 很少人获得出国, 外国人也不受欢迎。而恰恰是这样, 美日韩更加感觉到难以捉摸, 排除特种兵部队进入朝鲜的可能更是很大。
- 美韩爆出的备战信息来得很突然, 近日朝鲜半岛并没有什么突发事件。中国人民大学国际关系学院副院长金灿荣认为, 美国对朝鲜新领导人有点不放心, 朝鲜发射卫星之后态度强硬, 没有给各方一个说法, 美韩也各怀心思, 于是开始了这三个国家的各种“表演”。美韩期望通过这些信号起到对朝鲜威慑的作用。金灿荣认为, 朝鲜半岛局势距离真正爆发战争还很远。但现在韩国已经下定决心, 如果朝鲜挑衅, 就坚决报复。美国也认可韩国适度反击的策略。从某种意义上讲, 朝鲜也很可能就对应美韩的这种情况给予回击, 那么朝鲜半岛更加不安全了。

## 붙임 9. 중국 기자협회 보도 원문 (5.29)

### 중국 기자협회 홈페이지

#### “中国记协祝寿臣书记会见朝鲜新闻代表团”

- 中国记协书记处书记祝寿臣5月29日在北京会见以平壤新闻社总编辑宋乐均为团长的朝鲜新闻代表团一行5人。
- 朝鲜新闻代表团是应中国记协的邀请于5月29日开始对华访问的。代表团访华主题为“中国文化体制改革情况”。在北京期间代表团还将访问文化部、经济日报报业集团、北京日报报业集团等单位, 并赴上海和杭州等地, 访问当地有关政府部门、主要媒体和文化团体等单位, 进一步了解中国文化体制改革及中国社会、文化等领域发展状况。

## 붙임 10.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5.29)

### 지지통신 홈페이지

#### “北朝鮮と条件交渉中=食料の行き先確認必要-WFP新事務局長”

- 4月の着任後、初来日した国連世界食糧計画(WFP)のアーサリン・カズン事務局長は29日、都内の日本記者クラブで会見し、北朝鮮への



지시통신 홈페이지

食料支援について、北朝鮮政府と現在、条件をめぐって交渉中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作況悪化を受けWFPは昨年から主に栄養不足に苦しむ子供を中心に北朝鮮で緊急支援を実施中だが、6月の緊急支援終了後も「現在WFPに認められている特別な条件を継続するよう要請している」と語った。

붙임 11. 일본 TBS뉴스 보도 원문 (5.26)

TBS뉴스 홈페이지

“北朝鮮、外貨獲得狙って新ビジネス”

- 北朝鮮の経済は災害や制裁などの影響で深刻な状況とされています。こうした中、北朝鮮が外貨獲得を狙って新たなビジネスに乗り出しました。
- 指輪を交換し、永遠の愛を誓い合う新郎と新婦。結婚式を兼ねた中国の披露宴です。その姿を、しばし仕事を忘れて見つめるチマチョゴリに身を包んだ若い女性たち。ここは中朝国境の町、丹東にある北朝鮮の国営レストラン。全員、北朝鮮政府が選抜し派遣した従業員です。
- 「このレストランは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指導のもとに進められたプロジェクトです」(北朝鮮総領事館 丹東支部 キム・ヨンナム副領事)
- 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生誕70年の記念日に合わせ、今年2月オープンしました。数百人を収容できる宴会場を備え、女性従業員は50人以上います。このレストランで結婚式を挙げる中国人が増えているといっています。
- 「こちらに朝鮮料理が並んでいます。1テーブルにつき、およそ2万5000円だということです」(記者)
- 数百人単位が集まる結婚披露宴となると、1回で80万円以上の売り上げになる計算です。
- 「風格がありますね。丹東は北朝鮮に近く、(文化を)理解しています」(披露宴参加者)

TBS뉴스 홈페이지

- 中国国内の北朝鮮レストランで結婚式を挙げるのは、これまで朝鮮族などごく一部でした。このレストランは、中朝国境という観光地の最新大型施設であることをアピールした結果、旅行代理店を通じて申し込みが増えているといいます。
- 去年の北朝鮮と中国との貿易額は前の年に比べて60%以上増え、過去最高を記録しました。経済力のある中国人を相手に、集客力のある結婚式という新たなビジネスで外貨を獲得しようという北朝鮮の思惑がうかがえます。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가뭄으로 중국에 식량지원 요청시, 핵실험 어려워 질 것이다.

(5.31 아시아타임스 ㉠ 홍콩)

-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는 북한의 지난 주 발표는 북한으로서는 드물게 약점을 시인한 것임.
- 식량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번 가뭄으로 인해 김정은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임.
- 「미무라 미쓰히로」(니카타현 소재 동북아경제연구소장), '자연재해는 김정은을 타할 수 없으므로 쉽게 시인할 수 있다.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외적인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본격적 모내기철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량에 큰 피해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 「오코노기 마사오」(규슈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북한 모내기철이 아직 한두 달 남았으며, 앞으로 강수량이 관건이다.'
- 북한이 중국과 WFP등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향후 몇 달간 핵실험 강행이 어려워 질 것임.
- 미국과 한국은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식량지원을 할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협의 지속을 바라는 듯함.
- 「미쓰히로」 소장, '미국과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될 때 북한은 핵실험을 할 것이다.'
- 「마사오」 교수, '체제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현 시점에 핵실험을 강행해 미국과 대립상황에 치닫는 것이 김정은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 아니다.'
- 두 전문가 모두 식량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이 강경한 대외정책을 구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

○ 「톨리」 주장, 곡해 여지 제공 시인했다. (5.30 NPR)

- 「닐 톨리」 주한미군 특전사령관,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당시 발언을 검토한 결과, Diplomat誌 기자는 자신을 정확하게 인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확인함.
  - ‘본인의 발언은 참석자들이 곡해할 여지를 제공했다.’
  - ‘본인의 의도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잠재적인 기술적 해법을 설명하고, 향후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하려는 것이었다.’
  - ‘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자는 본인을 정확하게 인용했으며 본인이 더 명확하게 말했어야 했다.’
  - ‘향후 기술적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현재 시제로 말했다.’
  - ‘본인의 화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일부 참석자들이 곡해할 여지를 제공했다.’
  - ‘확실히 하자면, 우리는 북한에 특수부대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언급

○ 北 식당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5.30 이코노미스트)

-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평양식당 경영자, ‘장사가 잘되고 있으며, 식당 입구에 있는 거대한 풍경화 덕을 보고 있다.’
- 풍경화에는 광활한 호수와 절벽과 함께 눈에 덮인 백두산 장관이 담겨 있음.
- 식당에는 발목 길이의 드레스를 입은 어린 웨이트리스들이 북한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름.
- 다만 영어로 사진 촬영 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표지가 있음.
- 평양식당의 음식만이 한국 이주민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기발한 사업으로 호기심 많은 관광객 및 현지인들 사이에서 확실히 성공하고 있음.
- 평양식당은 북한 정부의 미묘한 선전수단으로, 본국으로 송금하는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보임.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평양식당은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여러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있음.



[방글라데시 다카의 평양식당]

○ 김정남이 방탕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5.31 아시아타임스 ⇨ 홍콩)

- 「안드레이 란코브」(국민대 교수 / 북한 전문가),
  - ‘김정일 장남 김정남은 유력한 후계자였으나, 여러 이유로 계획이 틀어져 15년간 중국과 마카오에서 지내며 북한에는 가끔 들르고 있다.’
  - ‘김정남은 2002~2003년부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김씨 일가에서 유일하게 외국 기자들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다.’
  - ‘김정남은 재치있고 카리스마 넘치며, 그의 인터뷰 내용은 실질적이고 정치적으로 노골적이다.’
  - ‘2010년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발전 시점에서 권력세습에 대해 반대한다는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김정남은 일본 도쿄신문 고미 요지 기자와 나눈 이메일과 대화에서 사생활과 북한 리더십 파벌간 갈등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
  - ‘2011.1월 인터뷰에서는 개인적으로 경제 개혁 및 개방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믿지만, 현재 시스템이 붕괴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 '김정남은 중국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 경제 통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정남이 이 같은 의견을 폭로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라고 언급

## □ 중국어권

### ○ 북한에 있어 특수부대 잠입보다 더 큰 문제는 가뭄이다.

(5.30 타이하이망 ⇨ 중국 북경성의 兩岸관련 종합 포털 사이트)

- 「스위엔화」(북단대학 한국연구센터 주임),

- '韓·美 특수부대 북한 잠입 뉴스는 오보이다.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韓·美가 그럴 리가 없다.'
- '韓·美 특수부대가 북한에 잠입해 정찰했다는 것은 무장 세력이 북한 영토를 침입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전쟁선포와 같다.'
- '이는 반드시 북한의 강경한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전쟁 발발 가능성도 있다.'
- '韓·美는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을 도발할 가능성은 없다.'
- '특수부대의 북한 잠입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강력한 반응을 보일 것인데 현재 북한은 여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다.'
- '북한의 특수병력은 세계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한국과 미군 기지를 침입해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보도 후, 한국 정부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번 뉴스는 오보로 판단된다.'
- '현재 북한은 韓·美 특수부대의 잠입보다는 50년 만의 가뭄으로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위성 발사 실패로 국제여론의 비난과 더불어 예상 외의 가뭄으로 식량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 '이에 북한이 중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북한은 위성발사로 단절된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핵실험 유예를 조건으로 식량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반면 미국은 자신들이 북한에 놀아났다고 생각하기에 북한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UN의 북한 대표단과 소통하면서 북한과의 접촉을 정지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며, IAEA의 핵사찰과 같은 상응하는 조건을 내세울 것이다.'
-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북한은 핵보유야말로 안보 보장의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므로 어떠한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

○ 동북아 전쟁 가능성, 미리 예방해야 한다.

(5.29 환구망 / 5.27 상해포럼 2012, "중국과 아시아의 질서" 강연)

- 「왕원」(환구시보 편집위원),

- '지난 20년 간, 동북아는 어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한 지원에 참여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다.'
- '그러나 동북아 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재는 일촉즉발의 전쟁 가능성은 없지만, 소규모 군사 충돌의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 '동북아의 여러 국제관계 학자들을 만나면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발발의 잠재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동북아의 각 나라와 국민들 사이에 반감정서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한·중·일의 서로에 대한 이미지는 각자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나쁘다. 이런 상호 반감정서 (mutual antipathy feeling)는 각 국가의 민족주의를 불러 일으키고 이는 전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각국의 중등 군사계급의 전쟁에 대한 수요이다. 20년간 동북아에 전쟁이 없으면서 이러한 중등 계급들의 진급이 늦어졌고, 전쟁 참여를 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승패를 떠나 전쟁은 군인들이 진급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평형 역할이다. 미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주장하지만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과의 군사훈련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북한을 겨냥한 군사 훈련이 많은데 이는 냉전의 기운이 동아시아에서 사라지지 않은 이유이자 전쟁 가능성도 높게 만들었다.’

‘넷째, 특히 해상 분쟁과 같은 영토 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식을 아직 찾지 못했다. 해양 자원의 중요성이 증가한 반면 각국의 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식이 없어 군사적 충돌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다섯째, 권력 불균형이다. 포스트 냉전시대의 권력 균형이 깨지면서 군사적 경쟁과 안보에 대한 문제가 동북아에서 점점 드러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난 20년 간 쌓아왔던 각국의 신뢰와 지역 통합화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 각국은 전쟁 예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현재 해양을 둘러싼 주권 분쟁을 내려놓고 공동 개발로 분쟁을 해결한다.’

‘둘째, 언론과 국민들의 대화, 교류에 힘쓴다. 현재는 전통적 언론과 고위급 회담이 주를 이루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의 교류와 군사적 대화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셋째, 미국의 평화적 책임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가 정세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중국과 동아시아는 이를 반대한다'라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 러시아, 북한의 對러 채무를 협력발전 지체요인으로 생각한다.

(5.30 로스발트 硏 정보분석 언론사)

- 러시아 재무부 차관, 북한의 대러 채무 총 110억불 상환 문제 논의 차 방북(5.31~6.2) 중임.
- 양국은 2007년까지 채무상환 구조를 합의하지 못했고, 2011년부터 채무조정 협상을 재개했음.
- 러시아는 채무액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연장 혹은 투자 형태로 상환하는 안을 배제하지 않음.
- 또한 작년 8월 김정일 방러 당시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함.
- 「스토르차크」(재무부 차관),
  - '북한이 채무 사실 자체를 인정하느냐 또한 논의주제 중 하나이다. 우선 북한이 러시아가 舊 소련의 후계국임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 '이후 채무액을 루블로 재책정하는 방안을 합의하고, 책정된 채무액을 조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
- 현재 러시아는 북한의 채무를 양국간 경제·통상부문 협력 발전 지체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

### ○ 북한의 핵보유국 헌법명기는 對北 압박에 대한 조용한 대응이다.

(5.30 이즈베스티야 硏 일간지)

- 「콘스탄틴 아스몰로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국을 불량국가가 아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파트너국으로 인정해줄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의 핵보유국 헌법 명기는 급작스러운 행보가 아니며, 對北 압박에 대한 조용한 대응이다.’
- ‘북한은 2005년부터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천명해 왔으며, 금번 헌법 명기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대국민 선언으로 볼 수 있다.’
- ‘북한을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국으로 인식하는 것은 실수이다. 북한의 행보는 탈북자가 아닌, 더욱 정확한 소식통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오히려 예측 가능하다.’
- ‘여러 연유를 근거로 북한은 예측 가능하다. 군사적 대립의 경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사실상 군사력 과시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의견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또한 북한에게는 좋지 않다.’
- ‘결과적으로 현재 김정은은 어떻게 하면 이웃 및 서방국가를 심각하게 자극하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北 대표단, 협력 논의 차 아무르주 방문 중이다.(5.30 아무르주 홈페이지)

- 北 평안남도(지난 해 아무르주와 자매결연 체결) 대표단, 농작물 및 약용작물 재배 및 판매, 임업 생산물, 곡물 및 축산업 분야의 협력 논의 차 아무르주 방문 중임.
- 대표단은 유제품 및 농산물 생산 기업 등을 방문했으며, 州 정부 및 재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음.
- 주지사와의 만남(5.31일), 부레이 수력발전소 방문(6.1일) 예정임.
- 이고르 고레보이(아무르주 대외경제 관계·관광·기업활동 장관),
  - ‘지난해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이미 여러 차례 교류가 있었다. 6월에는 제1차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2.5.3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8월에는 김정일 아무르주 방문 1주년을 기념하는 러·北 우호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식당을 갖춘 북한 문화센터 개소식도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
- 아무르주는 이미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 풍부한 노하우가 있으며, 현재 임업부문에 1,500여명, 건설부문에 80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고용된 상태임.
- 양측은 올해, 농업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우선 실현 계획으로는 염소농장 건설계획 등이 있음.

## □ 일본어권

○ 인도네시아, 北에 200만 달러 지원 검토중이다. (5.31 지지통신)

- 「마티 나타레가와」(인도네시아 외무장관), '5.30일 대북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만 달러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이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를 통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붙임 1. Asia Times 보도 원문 (5.31)

Asia Times 홈페이지

### "Pyongyang starts to feel the heat"

- o North Korea, in a rare admission of vulnerability, late last week announced to the outside world that it is suffering the most severe drought in half a century and that its vast agricultural lands have been damaged. If the drought persists, the subsequent crop failure could exacerbate already dire food shortages in the hunger-stricken nation. This will test the leadership capabilities of North Korea's young dictator Kim Jong-eun, whose new government has placed a high priority on the food problem as "a burning issue in building a thriving country".
- o "North Korea began to disclose bad things through a change in leadership," Mitsuhiro Mimura, director and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in Niigata prefecture, told Asia Times Online. "The happening of the natural disaster has no blame attached to Kim Jong-eun and is easy to disclose. By stressing substantial damages, Pyongyang is appealing for food aid to the rest of the world." Mimura specializ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 o Still, more than a few experts have pointed out that the drought may not have a major impact on rice yields because rice planting is not in full swing. "There are still one or two months left before a rice-planting season in North Korea," Masao Okonogi, a research professor at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Kyushu University in Fukuoka City, said. "The incoming amount of precipitation is a key."
- o There are expectations that North Korea will officially ask for help from Chin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Food Program if the drought continues, and this would make it difficult for Pyongyang to carry out a third nuclear test in the coming months - to meet Beijing's wishes.
- o Food relief, however, is unlikely to come from the US and South Korea following Pyongyang's internationally-condemned rocket launch on April 13. Still, Pyongyang seems to welcome continuing bilateral

Asia Times 홈페이지

negotiations with the US. "Pyongyang will conduct a third nuclear test once its negotiations with the US are completely cut off," Mimura said.

- o Okonogi echoed Mimura's views. "Kim Jong-eun needs to consolidate the foundation of his new-fledged regime. For him, all-out confrontation with the US in the wake of a third nuclear test cannot be a good choice now." Both Mimura and Okonogi denied the view that severe food shortages would lead Pyongyang to adopt a hard-line foreign policy to divert people from dissatisfaction.

**붙임 2. NPR 원문 (5.30)**

NPR 홈페이지

**"General Says He Was 'Accurately Quoted' But Misspoke On North Korea"**

- o Brig. Gen. Neil Tolley says that he has reviewed his presentation at a Special Forces Industry Conference and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he was "accurately quoted" by a reporter from the The Diplomat.
- o In a statement sent to reporters today, Tolley, commander of special operations for U.S. Forces Korea, said his remarks left "opportunities for attendees to draw the wrong conclusion from what he said."
- o Essentially, he said, he was talking hypothetically but it could have been construed as fact. The statement continued:
- o "My intent was to provide some context for potential technical solutions to our unique requirements in Korea. The discussion was meant to address how technology could help us in the future. After further review of the reporting, I feel I was accurately quoted. I should have been clearer."
- o "In my attempt to explain where technology could help us, I spoke in the present tense. I realize I wasn't clear in how I presented my remarks, leaving the opportunity for some in the audience to draw the wrong conclusions. To be clear, at no time have we sent special operations forces into North Korea."

### 붙임 3. 이코노미스트 보도 원문 (5.30)

#### 이코노미스트 홈페이지

“North Korea’s culinary empire: A little slice of Pyongyang away from home”

- o BUSINESS is thriving, explains the manager of a restaurant in a posh corner of Dhaka, Bangladesh’s capital. But enough of small talk—she turns instead to extol the virtues of an immense landscape painting by the entrance. Mount Paek-tae (or Changbaishan for the Chinese: “eternally white mountain”) is shown in great, snowy glory, with a wide lake and forbidding cliffs.
- o Young waitresses in pale blue, ankle-length dresses, with doll-like perfect skin, each sport a blue-and-red North Korean badge. Rather firmly, they clap and sing along to karaoke sessions as images of North Korea’s grandeur—tower blocks of the capital city; great arches and palaces; plunging waterfalls and more mountains—are relayed on a large screen. A yellow sign, in English, forbids photography.
- o It is unlikely that Pyongyang’s food alone—a variety of cold noodles, steamed vegetables, pickled cabbage—would lure more than a few Korean ex-pats, from either the North or South, who anyway have a wide range of South Korean restaurants to try in Dhaka. It is the quiriness of the business that makes the place an apparent success, including among curious tourists and locals. Thus the restaurant serves as a relatively subtle propaganda arm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presumably earns valuable hard currency to be shipped back home.
- o Something must be working. The chain operates in cities in several countries, notably in China and South-East Asia, as well as in Bangladesh, and is branching out into western Europe.

### 붙임 4. 아시아타임스 게재 원문 (5.31)

####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Hard truths from Pyongyang’s prodigal son”

- o It seems that every royal family is bound to have a maverick prince - and Kim Jong-nam, the eldest son of Kim Jong-il, fills the role for North Korea’s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 ruling family. For a brief time, he was even considered the most likely successor to his father.
- o For various reasons, things went awry and for the past 15 years or so, Kim Jong-nam has lived in China and the Chinese territory of Macau, visiting North Korea only occasionally.
  - o From 2002 or 2003, Kim Jong-nam began to behave strangely (at least in one important regard) - he became the only member of the Kim family who was not completely and unconditionally media shy. If intercepted by foreign journalists, he usually was happy to engage in conversation.
  - o In most cases, what transpired was merely a little small talk, but it showed in and of itself the fact that North Korea's black prince was nonetheless witty and charismatic. With the passage of time, his occasional interviews have become more substantive in content and more politically frank. In 2010, he even went so far as to openly voice his disapproval of the hereditary power transfer at that point developing in Pyongyang, with Kim Jong-eun being prepared to take over from his father, which happened after Kim Jong-il died in December last year.
  - o However, the real bombshell was dropped earlier this year when Yoji Gomi, a journalist for Japan's Tokyo Shimbun, published a book that described his interactions with Kim Jong-nam.
  - o In these exchanges, Kim Jong-nam was seemingly quite careful. He did not divulg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ersonal lives or factional struggles of the leadership in Pyongyang.
  - o However, in many other cases, Kim Jong-nam is far less certain about the potential positive impact of reforms. In his interview in January 2011, he said, "I personally believe that economic reforms and openness are the best ways to make life better for the North Korean people. However, taking North Korea's unique position into account, there is a fear that economic reforms and openness will lead to the collapse of the present system.
  - o Kim Jong-nam is not particularly hostile to China, but he is hardly sycophantic when it comes to describing Chinese policies. On the one hand, Kim Jong-nam admits that China's major goal is to maintain the status quo 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however, he also states that China hopes to establish control over the North Korean economy - a development that "cannot be welcomed from North Korea's point of view".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 o But this leaves us with an important question: why did Kim Jong-nam reveal all of this? After all, Kim Jong-nam initiated contacts with Yoji Gomi and did not mind discussing many sensitive issues (and he also talked to a number of other foreign journalists with comparable level of openness).

**붙임 5. 중국 타이하이망 보도 원문 (5.30)**

타이하이망 홈페이지

“朝鲜大旱独家：朝鲜大旱恐加剧 朝鲜不怕“特种兵”就怕不下雨”

- o 昨日，导报记者就此电话采访了朝鲜半岛问题权威专家、复旦大学韩国研究中心主任石源华教授。石源华表示，“美韩特种兵潜入朝鲜”应该是假消息，而朝鲜大旱导致粮食短缺，若情况严重，可能会向中国求援。“这个消息一出来，我就判断它是个假消息！”石源华在接受导报记者采访时直截了当地说，美韩不可能派特种兵空降潜入朝鲜，因为那是“非常蠢的事情”。
- o 石源华说，美韩如果派特种兵空降潜入朝鲜进行侦察，那就表明美韩的武装力量入侵朝鲜领土，等同于对朝宣战。此举必将招来朝鲜强硬报复，甚至引发战争。而美国和韩国都不希望朝鲜半岛爆发战争，所以不可能用这样的方式去挑衅朝鲜。“此外，从目前朝鲜的反应来看，朝鲜国内显得很平静。如果美韩真的派特种兵空降朝鲜，朝鲜绝对不会善罢甘休，势必做出强烈反应，要知道朝鲜特种兵的战斗力在全世界都是有名的，它随时可能进入韩国及美军基地进行报复。同时我也注意到，这条消息发布后，韩国政府的反应也很平静，因此我断定这条消息应该是假新闻！”
- o 对朝鲜来说，“美韩特种兵来袭”是虚惊一场，但遭遇50年不遇干旱，却真的头疼不已。石源华在接受导报记者采访时表示，金正恩上台后表示今年要建设“强盛大国”，没想到先是火箭发射失败，并遭到国际舆论强烈谴责，现在大旱又不期而至，让本来就粮食短缺的朝鲜雪上加霜。
- o “朝鲜如果今年遭遇严重的粮食危机，可能会向中国求援。中国从人道主义考虑，有可能会向朝鲜援助一些粮食，帮助朝鲜老百姓度过危机！”石源华说，以前中国就曾在朝鲜遭遇严重粮食危机时援助过朝鲜。
- o 今年2月份，美国和朝鲜在北京举行高层领导对话并达成协议，朝鲜以暂停核试验、导弹试验等行为换取美方粮食援助。但朝鲜在4月份执意试射卫星，导致该协议触礁。现在朝鲜可能因为大旱面临严重粮食危机，它会不会考虑重新与美国进



## 타이하이망 홈페이지

行对话, 承诺“暂停核试验、卫星试射”以换取美韩的粮食援助呢?对此, 石源华表示, 朝鲜可能会有这种想法, 但美国未必会搭理它。因为美国觉得自己已经被朝鲜“戏弄”过一次了, 认为朝鲜的承诺并不可靠, 如果把粮食给了朝鲜, 朝鲜收下后还是有可能继续进行导弹试验或者核试验。

- 不过, 美国并没有完全停止与朝鲜的接触, 美国现在仍通过朝鲜驻联合国代表团与朝方保持沟通。如果朝鲜提出这个想法, 美国也不会一口拒绝, 美国应该会相应地提出一些条件, 将“皮球”重新踢还给朝鲜, 比如要求朝鲜开放核设施让国际原子能机构进行检查等等。有一点可以肯定的是, 不管朝鲜经历多严重的困难, 它都不会放弃拥有核武器的想法!石源华对导报记者说, 朝鲜一直认为“只有拥有核武器, 才能真正保证朝鲜的安全”。

## 붙임 6. 중국 환구망 보도 원문 [5.29]

## 환구망 홈페이지

“王文：东亚的战争可能性及其防范”

- 在过去的20年, 东亚是世界上最和平的地区, 东亚内部没有发生任何一场战争, 也没有任何一个东亚国家正式向世界另一个国家宣战, 或者参与其他战争。与此同时, 东亚国家参加国际维和的次数与对外援助的金额却是全世界最高的之一。这样的和平环境成就了西太平洋地区在冷战结束以来的20年繁荣与发展。然而, 随着东亚内部矛盾的日益激化, 现在看来, 虽然不能说战争在东亚一触即发, 但战争或小规模的军事冲突在东亚发生的几率正在增长。这是我过去几年采访上百位东亚地区国际关系学者后的一个粗略担忧。
- 有可能点燃东亚军事冲突或东亚战争的潜在因素主要有五个：第一, 东亚各国之间国民相互厌恶情绪的增加。有充分证据表明, 中韩民众之间、中日民众之间、日韩民众之间、以及各国民众与朝鲜民众之间的互相负面印象比例正在提高。在东亚, 尤其是中国、日本、韩国、朝鲜之间, 任何两国民众之间的印象, 都比该国民众对美国的印象差。这种“东亚相互厌恶情绪(mutual antipathy feeling)”是各国民族主义高涨的主要原因, 也使各国媒体都倾向于制造对邻国的负面报道, 比如, 东亚各国媒体对华报道, 基本上都是负面的居多; 中国媒体对东亚各国的强硬声音也很多。相反, 民族主义将怂恿东亚各国的好战欲望。
- 第二, 各国中层军官的“求战”情结。20多年来, 东亚各国都没有参与过战争, 各国军队内部的一些中层军官晋升非常缓慢。这些年, 我采访了不少东亚国家的中层军官, 发现有战争想法的军官不少。因为无论是战败与战胜, 战争是中层军官最好的晋升手段。

환구망 홈페이지

- 第三, 美国在东亚地区的离岸平衡作用。虽然美国一直主张东亚保持稳定与繁荣, 但是有数据显示, 美国与东亚盟友的军事演习数量正在逐年提升, 尤其是针对朝鲜的军事演习数量。这使冷战氛围始终没有完全与东亚地区绝缘, 也使得战争在东亚的可能性逐年递增。
- 第四, 领土争端尤其是海洋岛屿争端迟迟找不到最终解决的方式。东亚各国之间都存在着领土争议, 这些争议随着海洋资源重要性的上升, 越来越找不到解决的方式, 这使得战争至少是小规模的军事冲突, 越来越成为各国解决领土争端的选择项之一。过去一个多月的黄岩岛危机就是一个典型案例, 希望类似的危机以后能够少一些。
- 第五, 权力失衡是军事冲突可能性提升的重要原因。后冷战时代的权力平衡正在被打破, 潜在的军事竞争与安全困境, 在东亚地区表现得越来越明显。
- 一旦战争, 东亚20多年来建立起来的政府互信、地区一体化进程必然将受到严重冲击。如果控制不好, 整个东亚崛起都会功亏一篑。因此, 东亚各国必须想方设法降低战争发生的几率。
- 我的建议简要阐述如下 :
  - 1、搁置目前的主权争议, 尤其是目前在争议岛礁上对中国的主权诉诸。 “搁置争议、共同开发” 应当成为各国解决岛屿或海洋争议的标准范式。
  - 2、加强媒体与民间对话。目前各国社会之间的对话更多限于精英与传统媒体, 未来的对话也应注意到倾向于平民, 尤其是新媒体下的意见领袖。另外, 军方之间的对话也相当重要。
  - 3、美国的和平责任。中国及东亚其他国家都不反对美国的 “回归亚太”, 但是 “回归亚太” 不应当等于是 “亚太新乱局”。

**붙임 7. 러시아 로스발트 보도 원문 (5.30)**

로스발트 정보분석 언론사 홈페이지

“Сторчак проведет переговоры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лга КНДР”

-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рабочем плане замминистр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на сайте ведомства, речь идет о задолженности КНДР по кредитам,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 бывшим СССР. Россия и КНДР возобновили переговоры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лга в 2011 году после длительного перерыва. До 2007 года сторонам не удавалось договориться о схеме погашения долга. В частности, РФ не исключала возможности списания части долга и предоставлен

로스발트 정보분석 언론사 홈페이지

ия рассрочки по уплате оставшейся суммы или погашения долга в виде инвестиций .

- "И тот факт, что переговоры по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долга возобновлены, в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оценивается как большой прорыв в решении этого вопроса", — отметил он.
- Тогда же Сторчак сообщил, что речь идет о долг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размере \$11 млрд. Это средства,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е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На вопрос, признает ли КНДР долг, Сторчак ответил: "Это еще одна тем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начале необходимо договориться, чтобы КНДР признала РФ правопреемницей СССР, затем — договориться о методологии перерасчета рублей, и лишь потом — "о порядке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той счетной суммы, которая получается". Россия считает, что долг КНДР по кредитам бывшего СССР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держивающих факторов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붙임 8.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보도 원문 (5.30)**

이즈베스티야 일간지 홈페이지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как утверждает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 Северяне весьма активно пытаются добиться, чтобы их воспринимали не как страну-изгоя, а как пусть неприятного, но все-таки партнера в мировых отношениях, — утверждает он. По его мнению, изменения в конституции — это не внезапный шаг, а спокойная ответная мера на то давление, которое на Пхеньян оказывается. Северяне начиная с 2005 года говорят, что их страна является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Всё это, кстати,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рассчитано на внутреннюю целевую аудиторию.

이즈베스티야 일간지 홈페이지

- Ошибочно, как полагает Асмолов, воспринимать пхеньянский режим в образе непредсказуемого партнера. Напротив, шаги КНДР можно предсказывать, если опираться не на данные, полученные от перебежчиков, а на более солидные источники.
- На самом деле, как полагает эксперт, Пхеньян предсказуем по целому ряду причин. Повышать градус в военно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как минимум рискованно. При этом ты можешь, конечно, огрызнуться, но есть шанс оказаться на одной полке с Саддамом Хусейном. К тому же демонстрация военной силы требует ресурсов, которых 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т. Есть еще одна неприятность –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сориться с Пекином и Москвой. А это тоже не входит, судя по всему, в ближайшие планы Ким Чен Ына. Ему сейчас все время приходится думать о том, как достойно ответить соседям и Западу, чтобы никого серьезно не задеть.

**붙임 9. 러시아 아무르州 홈페이지 게재 원문 (5.30)**

아무르州 홈페이지

“В Приамурье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находится делегация из КНДР”

- Гости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обудут на амурской земле ещ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Завтр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их встреча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а в пятницу делегация побывает на Бурейской ГЭС. В течение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корейцы осмотрели ряд предприятий,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Благовещенский молочный комбинат и комбинат «Тепличный».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прошли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и бизнес-кругов Приамурья. Встречу провел министр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туризма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Игорь Горевой. Делегац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провинцию Южная Пхенан, с которой у Приамурь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фициально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побратимские отношения.
- Игорь Горевой подчеркнул: «В октябр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побратим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

아무르州 홈페이지

ими регионами, уже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визитов, а в июн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амечено провести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Приамурьем и Южной Пхенан. В августе мы планируем провести фестивал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освященный первой годовщине пребывания на амурской земле Ким Чен Ира. Так же к этой дате будет приурочено открытие культур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с рестораном».

-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наметила обсудить во время своего визита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выращивания 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дукции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в сфере соеводства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а также выращивание и реализация корейских лекарственных трав и торговый обмен продукцией лесного промысла.
- Приамурье уже имеет широкий опы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Так, около 1, 5 тыс. корейцев работают в лесной сфере, порядка 800 человек -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 этом году в планах у обеих сторон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Так же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озьей фермы.

**붙임 10.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5.31)**

지지통신 홈페이지

“北朝鮮に200万ドルの支援検討=関係良好のインドネシア”

- インドネシアのマルティ外相は30日、北朝鮮支援のため、インドネシア政府が200万ドル(約1億5800万円)の拠出を検討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世界食糧計画(WFP)や国連児童基金(ユニセフ)を通じた支援を計画している。
- マルティ外相は「本当に支援を必要としている人に行き渡るようにしたい」と述べ、人道支援であると強調し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탄소배출권 거래로 외화벌이(5.31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 교토의정서에 따라 개발도상국이자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탄소배출권(CER)을 신청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설계할 권리가 있음.
  - 북한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된 선진국 또는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음.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북한 프로젝트 7개가 탄소 거래에 등록돼 있음.
  - 「미로슬라프 블라젝」(북한과 탄소배출권 구매처를 연결해주는 체코 기업 토픽 에너지[Topic Energy] 책임자),
    - ‘사회주의 시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기업 관리자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북한과 거래가 가능하다.’
    - ‘북한은 탄소 거래 기회를 잡아 외화벌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은 청정에너지 제공을 위해 수력발전소 7개를 건설 중이며, 대부분이 시장성이 높은 탄소배출권 획득이 가능함.
  - 7개의 수력발전소는 매년 탄소배출권 241,000개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100만유로(약 14억5800만원)의 가치가 있음.
  - 「온드레이 보레스」(체코 빌투스 에너지[Virtuse Energy] 탄소자문서비스 책임자), ‘북한의 프로젝트는 이미 상대적으로 선진단계에 들어섰다.’
  - 다만 미국의 대북 교역 제재로 인해 탄소배출권의 잠재적인 구매처 30곳 이상이 포기하는 등 북한 상품 판매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음.
  - 「블라젝」은 유럽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중국이 관리하는 대기업과의 거래를 성사시켰음.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집착을 중단해야 한다.(5.31 National Interest)

- 「테드 갈렌 카펜터」(Cato 연구소 국방, 외교 정책 선임 연구원),

- ‘북한이 차세대 로켓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미국과의 역학관계는 변화하지 않는다.’
- ‘북한이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멸적인 처사이다.’
- ‘미국 정치인 및 전문가들이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당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불안해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아무리 작은 공격도 미국의 엄청난 보복과 북한 체제의 종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북한 지도부는 핵과 미사일 활동이 美 정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야기시키는 불안을 즐기고 있다.’
- ‘따라서 美 행정부는 절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쏟아서는 안된다.’
- ‘또한 미국은 일찌감치 북한 문제를 북한의 이웃국가들에게 넘겨줘야 했다.’
- ‘북한의 행동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보다 더 우려를 해야 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
- ‘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차베즈 정권보다 북한정권을 더 우려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 ‘불행히도 미국은 항상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 앞장섬으로써 불필요한 위협을 떠안았다.’
- ‘이러한 전략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韓·日이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 ‘불안정하고 위협한 북한이 이웃하고 있음에도, 한국측의 국방비는 고작 GDP의 2.5%, 일본은 1%밖에 되지 않는다.’

2012.6.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등 미국이 한국군에 가하고 있는 어리석고 역효과를 낳는 여러 제한들이 특히 문제이다.'
- '미국은 일본과 한국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동아시아의 베이비시터 노릇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주장

○ 北의 산림농업 혁신, 식량·에너지난 극복 기여한다.

(5.31 Science and Development Network ⇨ 개도국 대상 과학, 기술 정보 제공 英 비영리 단체)

- 지역적, 참여적 산림농업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토지파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새 논문이 학술지 Agroforestry Systems에 실림.
- 논문에 의하면 한때 주요 대북 지원국이었던 소련의 붕괴 이후 지원이 중단되자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를 겪었으며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경사지와 고지대를 경작하면서 빈번한 산사태와 광범위한 침식이 발생했음.
- 2002년부터 북한은 스위스개발협력청의 지원을 받아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위해 경사지에서 경작, 수확 및 이용을 계획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자 집단에 부여함.
- 「마인 반 노드워」(논문 공저자/ 세계농산림센터(ICRAF) 수석 과학 고문),
  - '현 단계에서 북한의 산림농업 사업들은 자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중앙집권적이고 통제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그러나 이런 시범사업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남부지역에 국한되어 왔으며 더 불안정한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못했다'라고 언급

□ 일본어권

○ 김정은이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6.1 아사히신문)

- 최근 들어 김정은이 시민생활과 오락시설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심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듯함.



- 「북한관계 소식통」,

- '(북한 언론은 김정은이) 모든 면을 배려하고 있다고 전하려 하나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민심을 잡는 효과가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함.

○ 北은 국민을 죽이면서도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이다.

(5.31 the liberty web 7월간지)

- 조선중앙통신의 가뭇피해 보도는 주변국에 대한 식량원조 요청이라는 견해가 있음.
- 핵·미사일 개발에 거액을 쏟아 부으면서 식량원조를 타국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인질로 얻은 자금으로 타국을 위협하는 군사개발을 계속하는 것임.

□ 러시아어권

○ 北, 핵실험이 고립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6.1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6월간지)

- 北 핵보유국 헌법명기, 이제까지 핵 포기를 설득해온 6자회담 참여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인지 혹은 새 지도자 김정은의 국제사회에서 입지제고 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북한 지도부 내의 분위기를 아는 분석가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상 핵폭탄 보유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
-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인정이 아닌 오히려 고립을 가져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국경제가 이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북한 또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헌법 개정과 같은 행동은 내부적 효과를 노린 수임.

○ 北 대표단, 아무르州 주지사와 만나 상호 협력방안 논의했다.

(5.31 portamur 6월간지)

- 北 평안남도 대표단, 아무르州 주지사와 회동함.

- 「올렉 코제야코」(아무르주 주지사),
  - '협의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아무르주 방문 당시, 양측은 2012년 부터 상호 협력에 착수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힘.
- 北 대표단은 약용작물 재배·판매 및 봉제 부문에서의 협력 의향을 표명했음.
- 양측은 △북한식당 및 상점 개소와 관련한 장소결정 및 의견 교환, △임업분야에서 산림보호·산불예방 관련 업무에 북한 노동자 고용예정, △농업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약 54명의 북한 노동자 고용에 합의함.
- 「이고르 고레보이」(아무르주 대외경제 관계·관광·기업활동 장관),
  - '북한 노동자들은 아무르주 투자자가 조성할 염소농장에 고용될 것이고, 이를 위해 500마리의 체코산 젖염소 구매 예정이다'라고 언급.

## □ 중국어권

### ○ 김광훈 駐심양북한총영사, 중국 장춘市 방문(5.31 장춘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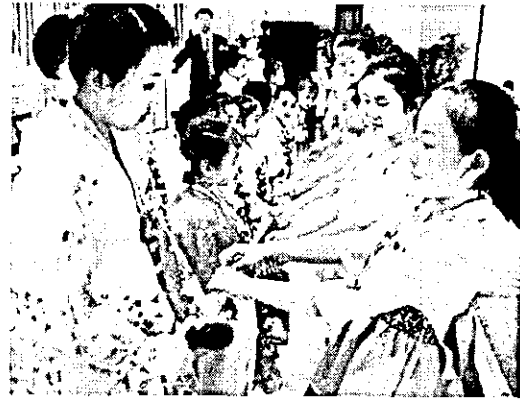
- 5.30일 김광훈 주심양북한총영사 일행이 중국 장춘을 방문해 장춘과 북한의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함.
- 「김광훈」, '장춘의 경제사회는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을 북한이 배워야 한다. 양측의 교류·협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장춘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

### ○ 北 경원郡 우호 방문단, 중국 훈춘市 방문

(5.31 훈춘열선 ⇨ 훈춘지역 사이트)

- 5.30일 북한 경원군 부녀자 연합회 우호 방문단이 훈춘을 방문함.
- 6.1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북한의 어린이 공연단은 훈춘 제1 실험초등학교 공연단과 함께 연주·합창·독창 등의 공연을 진행했음.

2012.6.1(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공연을 통해 양측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으며 공연 후, 훈춘 제1실험초등학교 학생들의 북한 어린이 공연단을 위한 선물 증정식이 있었음.

## 붙임 1.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보도 원문 [5.31]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홈페이지

### “North Korea, Eco State?”

- o The UN's Kyoto Protocol doesn't make the list. Yet under the terms of the protocol, North Korea, as a developing country and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has the right to build clean energy projects that may apply fo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or CERs, popularly known as carbon credits. The North Koreans can then sell them to a rich country or company that needs the credits to offset its own greenhouse gases. Dig into data from the U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you will find seven North Korean projects registered for carbon trading.
- o This is where Miroslav Blazek comes in. Blazek, director of Czech company Topic Energo, acts as a link between North Korea and potential carbon credit buyers. He says his experience as manager of a tractor factory in socialist-era Czechoslovakia is invaluable for doing business with the communist North Koreans.
- o North Korea is now building seven hydroelectric plants, which provide some of the cleanest energy going. Most can earn tradable carbon credits. Blazek says the North Koreans “jumped” at the opportunity to get into carbon trading: “They immediately grasped that this is a way to make money.” Korea's seven dams may generate as many as 241,000 CERs a year, worth almost €1 million (\$1.3 million). “The projects are already in a relatively advanced phase,” says Ondrej Bores, director of carbon advisory services at Virtuse Energy in Prague, who's worked with Blazek on other deals.
- o Still, selling anything made in North Korea has its challenges. More than 30 potential buyers pulled out because of the U.S. embargo on trade with North Korea. Blazek finally struck a deal with a Chinese-controlled conglomerate that needs credits to offset emissions from facilities in Europe.
- o When he visited some of the hydro dam sites, Blazek saw workers digging with their bare hands.

## 붙임 2. National Interest 보도 원문 (5.31)

National Interest 홈페이지

### “U.S. Should Stop Obsessing about North Korea”

- o U.S. leaders should take a deep breath and draw two appropriate lessons from the latest photos of heightened activity at the missile site. First, even if North Korea does ultimately develop a new generation of rockets that don't routinely blow up on the launch pad or in flight, that achievement doesn't really change much in terms of a pow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 o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ould have to be suicidal to use such weapons—especially against the United States. Despite the fevered agitation that has occurred from time to time among politicians and pundits in this country that American cities would be at risk, North Korean leaders know perfectly well that even a pinprick attack would lead to massive retaliation and the end of their regime.
- o North Korean leaders undoubtedly enjoy the agitation that their nuclear or missile activities cause in American policy and opinion circles. Consequently, giving such moves an extraordinary amount of attention is the last thing Washington should do.
- o The second lesson that U.S. policy makers should draw from the latest development is that it is well past time to turn the North Korea problem over to North Korea's neighbors. There is no logical reason that America should be more concerned than Sou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about North Korea's behavior.
- o Those countries are a lot closer than the United States to any potential trouble from that source. Indeed, absent the obsolete U.S. troop presence in South Korea, there would be little reason for Americans to be more agitated about North Korean trouble making than about the obnoxious behavior of Venezuela's Hugo Chavez.
- o Unfortunately, Washington has always pushed itself into the forefront of East Asian security matters, thereby incurring unnecessary risks. The most pernicious aspect of that strategy has been to encourage U.S.

National Interest 홈페이지

allies, especially South Korea and Japan, to free ride on America's defense guarantees. Despite having a nasty, volatile neighbor in Pyongyang, South Korea spends an anemic 2.5 percent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on defense. Japan spends barely one percent, and despite occasional assertive rhetoric, Tokyo shows few signs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its own defense, much less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its region.

- o It is especially troubling, for example, that the U.S. government has persisted in limiting the range of South Korea's missiles and placing other foolish, counterproductive restrictions on Seoul's military.
- o Washington should make it clear to its East Asian allies—and to China and Russia—that the United States expects those countries to take the lead in dealing with North Korea or any other security problems in their region. And U.S. leaders should back up such a declaration with substantive action—including beginning to withdraw all American ground forces from Japan and South Korea. The days of acting as East Asia's babysitter need to end.

**붙임 3. SciDev.Net 보도 원문 (5.31)**

SciDev.Net 홈페이지

"North Korea lifts the veil on its agroforestry practices"

- o A new study offers a rare glimpse into North Korea's agriculture and forestry policies, and may open up new international connections with the country, say researchers. The report describes how locally appropriate, participatory agroforestry is helping reverse food shortages and land degradation.
- o According to Meine van Noordwijk, co-author of the study and chief science advisor at the Kenya-based World Agroforestry Centre (ICRAF) — which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project — the study "may help open up new international connections in science-based analysis of conditions and trends" in North Korea.
- o The study, published online by Agroforestry Systems on 24 March, describes how the country suffered frequent landslides and widespread

SciDev.Net 홈페이지

- erosion in the years following the collapse in 1991 of the Soviet Union, which had until then been one of its main sources of external support. Without Soviet support, the country suffered food and energy shortages, leading people to cut trees for fuel and cultivate steep slopes and upland areas for food.
- o Since 2002 North Korea,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has given user groups rights to access, harvest and plan the use of the sloping land, so that they can manage the land sustainably.
  - o “At this stage [North Korea’s] agroforestry initiatives are a socially unique opportunity for self-organisation, with potentially much wider implications in a society where discussions on ways forward are centralised and controlled,” van Noordwijk told SciDev.Net.
  - o But he add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had been limited to "relatively benign" areas of the country’s south that are politically stable, and could not be transferred to other regions that were more difficult to work in.
  - o User groups innovated local agroforestry systems that combine double-cropping annual food crops, together with horizontal strips of valuable trees such as the aronia berry (*Aronia melanocarpa*) for its fruit, and a species of larch tree (*Larix leptolepis*) for timber. These practices have improved soils and increased tree cover and crop diversity, ICRAF said.

**붙임 4.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원문 (6.1)**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正恩氏が「絶叫マシン」チェック 子ども施設を次々視察”

- o 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第1書記が最近、児童施設や動物園、遊園地などを現地指導した様子を国営メディアが伝えた。以前は軍関係の視察が目立ったが、市民生活や娯楽にも気を配る姿を見せることで、民心を引きつける狙いがありそうだ。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 ラヂオプレス (R P) によると、朝鮮中央放送が5月31日、児童施設などへの視察の様子を伝えた。子ども向け商品を扱う平壤の児童百貨店で正恩氏は「子どもたちのための総合玩具工場を建設する」と発言。託児所では食堂の床を触り「子どもたちを暖かいオンドル (床暖房) 部屋で食事させるようにすべきだ」と述べた。
- 平壤の凱旋 (がいせん) 青年公園の遊園地で絶叫マシンなどをチェックする様子や、建設中の野外スケート場での現地指導も伝えられた。
- 北朝鮮関係筋は「あらゆる面に配慮していると伝えたいのだろうが、食べるのが精いっぱいの人がたくさんいる中で、(民心を引きつける) 効果がどこまであるかは不透明だ」と話している。

**붙임 5. 일본 The liberty web 보도 원문 (5.31)**

The liberty web 홈페이지

“北朝鮮50年ぶりの大干ばつ 国民を殺しながら核ミサイルを作る国”

- 北朝鮮の朝鮮中央通信は今月、この50年で最悪の干ばつに見舞われたことを報じた。全国的に40日以上雨が降らず、さらには来月上旬まで降らない見込みだという。食糧不足がさらに深刻になることは必至である。
- 北朝鮮が13日に打ち上げに失敗した長距離道弾ミサイルにかかった費用は約8億5000万ドルといわれる。北朝鮮の住民の約8割に対して年間を通じて食料を供給できる額だという。
- 北朝鮮では600万人以上の国民が飢餓に苦しんでおり、多くの国民を餓死させ続けながらもミサイル開発を続け、今年2月に核開発中止と引き換えに約束されたアメリカの食料支援も、北朝鮮は「ミサイル発射実験」に踏みきることで事実上拒否している。米政府は今回の干ばつを受けての食料支援にも否定的な立場を示した。
- 朝鮮中央通信のこの報道は周辺国に対する食料援助要請でもあるという見方もある。核ミサイル開発に巨額を注ぎ込んでおきながら、国内の干



The liberty web 홈페이지

ばつに対する食料援助を他国に頼るつもりならば、それは自国民の命を人質にして他国から得た資金で他国を脅かす軍事開発を続けているようなものだ。国家はあくまで国民に奉仕するのが存在意義であり、国民の犠牲の上に立つ国家の存在など許されない。現在の政治体制は一刻も早く解消されるべきである。

**붙임 6. 러시아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보도 원문 (6.1)**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КНДР тай но провозгласила себя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

- Что это? Явный вызов "шестерк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осредников, вот уже который год пытающихся убеди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лидеров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тказаться от планов по созданию собственн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ли попытка нового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ысить сво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ейтинг"?
- Знакомые с настроениями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верхушке аналитики считают,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речь идет о желании Пхеньяна добитьс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изнания в качестве ядерной державы. Однако если они правы, то зачем надо было принимать поправки тай но? И тут встает главный вопрос: есть ли и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у Пхеньяна ядерная бомба?
- Если есть, то, безусловно, одну из них можно было бы и взорвать в какой-нибудь секретной шахте. Правда, тогда более вероятно н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изнание, 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изоляция на долгие годы. Выдержит 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которая и так трещит по швам, еще один непреодолимый барьер? Вряд ли. Очевидно, понимают это и в Пхеньяне. Отсюда и не торопятся со взрывами, а лишь вносят изменения

러시이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в конституцию. И делается это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обывателя. За границами же КНДР у аналитиков всех мастей появился повод поломать головы над еще одни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секретом. Видимо, Пхеньян как раз на это и рассчитывает.

**붙임 7. 러시아 portamur 보도 원문 (5.31)**

portamur 극동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В бывшем здании Дома офицеров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откроется корейский ресторан”

- Сегодня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рошла протокольная встреча губернатора Приамурья 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бласт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Пхенан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озглавил делегацию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родного комитета провинции Ан Гых Тхо. Визи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Южной Пхенан не первый в Амурскую область.
- Из разговорной плоскости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йти в практическую,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Приамурья Олег Кожемяко. — Во время приезда Ким Чен Ира в Амурскую область, мы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о том, что начнем работать с 2012 года. На совещании обсудили открытие в Благовещенске корейского ресторана,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е на этот год. По планам, находится общепит будет в бывшем здании Дома офицеров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Так ж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ыделяют помещение под продажу различных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таких как шелк и картины.
-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и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 первоначальным планам порядка 54 граждан КНДР будут трудоустроены на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Одно из них — будущая козья ферма. — Скорее всего, ферма, на которой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граждане КНДР, будет создана в Ивановском районе одним из амур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Для н

portamur 극동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е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упить 500 молочных коз из Чехии,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туризма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Игорь Горево

- Также делегаты пожелали выращивать и продавать в Приамурье лекарственные травы, а так же шить одежду. Привлечь корейцев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и к сохранению амурских лесов — граждане КНДР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пожарных дружинах.

**붙임 8. 중국 장춘일보 보도 원문 (5.31)**

타이하이망 홈페이지

“高广滨会见朝鲜客人”

- 30日上午，省委常委、市委书记高广滨会见了朝鲜驻沈阳总领事馆总领事金光勋一行。长春在努力实现这些目标的过程中，都需要进一步扩大开放，希望通过总领事的这次访问，进一步促进长春与朝鲜地方间的交流，不断增进友谊，加强合作，促进共同发展。金光勋表示，长春这些年经济社会发生了巨大变化，很多经验值得学习借鉴，希望双方今后的交流与合作取得更多成果，祝愿长春未来的发展取得更加辉煌的成就。

**붙임 9. 중국 훈춘열선 보도 원문 (5.31)**

훈춘열선 홈페이지

“朝鲜庆源郡访问团莅临琿春一实验开展友好交流”

- 5月30日下午，六一儿童节来临前夕，以朝鲜庆源郡妇联主席方玉花为团长的友好访问团一行，在琿春市外事办朴主任、琿春市教育局等有关领导陪同下莅临一实验开展友好交流。此行的访问团小演员身着艳丽的民族服装，以乐器演奏、小合唱、独唱等形式，与琿春市第一实验小学海棠花艺术团小演员们同台演出，共庆“六一”国际儿童节，孩子们的精彩演出，展现了少年儿童多才多艺、天真可爱的精神面貌，给双方留下了深刻而美好的印象，活动增进了彼此的沟通和友谊，演出结束后，琿春一实验少年儿童还向来自异国的同学们赠送了精心准备的礼物，场面温馨而热烈。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북한 외자유치 관련 전문가 인터뷰 (6.1 38 North)

- 「브래들리 밥슨」(존스홉킨스大 국제대학원 북한경제포럼 회장/前 세계은행 수석자문관),
  - ‘1990년대초 지정된 나선특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 ‘그러나 육지에 둘러싸인 중국, 그리고 겨울철 항구가 결빙되는 러시아가 나선특구 항구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지고 있다.’
  -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 추구로 인해 북한이 항구로 출입되는 제품에 가공처리를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 ‘북한은 황금평 경제특구를 통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개성공단 같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
  - ‘성공한다면 북한의 투자유형에 대한 관리가 향상되고, 승인 절차가 통합될 것이며, 또한 이미 지방당국과 특별이사회에서 그때 그때 문제를 해결을 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 특구 관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 ‘이를 통해 북한은 투자유치, 세수확대, 신제품 개발 및 기술 접근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특히 북한이 노동력 뿐 만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도 투입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특구 이외 전반적 북한 경제 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다.’
  - ‘나선, 황금평 경제법의 흥미로운 점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자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北-中 양자관계를 넘어선 대북투자과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 '또한 북한은 과거보다 더 통합된 경제 개발 전략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내각에 있으며, 관료들이 현실적인 경제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더 많은 지원과 권위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러한 결정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온 최근 몇 년에 비해 더 합리적인 경제 개발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새로운 북한 정권은 관료들이 새롭게 시도를 하도록 다시 기회를 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경제 전략과 금융체제 감독에 대한 더 통합된 접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관료들이 임명되는가 하는 것이다.'
- '2002~3년 개혁의 중대한 잘못은 더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 '단순히 화폐개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은행, 공공재정, 조세 및 보험 체계 그리고 더 융통성 있는 부동산, 토지 및 노동 시장 등을 구축하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

○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은 19,000기로 추정(6.4 SIPRI '12 보고서)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8개 핵보유국은 배치됐거나 저장 및 해체 예정인 핵탄두 19,0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함.
- 2012년 초 기준으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 8개 핵보유국은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4,400기 보유하고 있음.

- 이 가운데 2,000여기는 언제든 작전에 투입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임.
- 북한은 핵 능력을 보여줬지만,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음.
- 2011년 말 북한은 플루토늄 30kg을 분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에 따라 핵무기를 8개까지 제조 가능한 정도임.
- 2011년 유엔 안보리 북한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나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 2011년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2.29 미·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재개 논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음.
- 북한은 제3의 국가에 대한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 이전에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핵 확산방지 노력을 위협하고 있음.

## □ 일본어권

- 美 핵전문가, 北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없을 가능성 있다.

(6.2 아사히TV)

- 「데이비드 올브라이트」(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
  -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나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다.’
  - ‘원심분리기를 수 천기 보유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북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 ‘(3번째 핵실험에 대해) 과거 두 차례 때 사용된 플루토늄형보다 강력한 열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 이뤄질지가 최대의 현안이다’라고 언급함

2012.6.4(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고농축 우라늄을 전혀 제조할 수 없을 경우 향후 美·北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발표할 예정임.
- 北, 가뭄으로 벌써부터 도시주민 총동원하다.(6.3 아사히신문)
  - 중국의 북한 전문 무역상에 따르면 평양 주변에서도 주민을 총동원해 아직 마르지 않은 강에서 물을 푸게 하는 등 가뭄 대응에 필사적임.
  - 북한에서는 매년 모내기 시기에 도시 주민을 농촌으로 파견해 농촌작업을 돕게 했지만, 올해는 더욱 강화해 평양에서는 낮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함.

## □ 러시아어권

- 北, 핵보유국 헌법명기로 국제사회 압력 약화를 기대하고 있다.  
(6.4 expert.ua ☞ 우크라이나 주간지)
  - 북한은 2005년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으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고 있음.
  - 「세르게이 즈구르차」(군사·군축연구소 소장),
    -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이 약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함.
- 駐러 북한대사, 카자흐스탄과 협력방안 논의했다.  
(6.2 카자흐스탄 대사관 홈페이지)
  - 지난 6.1일 북한측 제안으로 김영재(駐러 북한대사)와 오라즈바코프(駐러 카자흐스탄 대사)간 면담이 이루어짐.
  - 「김영재」(駐러 북한대사),
    - ‘김정은은 카자흐스탄과의 우호관계 발전 및 강화를 지지하며, 국제사회에서 카자흐스탄의 사회·경제 및 문화·인도주의 부문 발전을 높이 평가한다.’

2012.6.4(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양국간 현안은 교류확대 및 경제·통상 부문의 활성화이며, 협력 강화를 위해 아스타나에 재외공관을 개설하려 한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향을 전달함.
- 양측은 현 양국관계 논의 및 향후 발전전망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상호이득이 되는 관계구축에 합의함.
- 러시아 정교회 대표단, 訪北 중이다. (6.3 vladnews 지역 언론사)
  - 블라디보스토크 러 정교회 대표단, 김일성 생일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4.13~20)한데 이어 종교행사 참석차 방북(6.1~) 중임.
  - 오는 8월에는 김정일 방문 10주년 기념 차 북측 관계자들이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할 예정임.

## □ 중국어권

- 北 헌법 핵보유 명기, 6자회담 실패 아니다. (6.1 환구시보)
  - 「뤼차오」(한반도문제 전문가),
    - '지난 3년간 북한은 줄곧 이러한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이번 핵보유국 헌법 명기가 6자회담의 실패는 아니다.'
    - '그러나 정식 헌법 명기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며, 심각하면 한반도의 핵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
- 중국 주변 안보 환경의 3대 위기 (5.30 환구망)
  - 「장성권」(북경사범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현재 중국의 주변 안보 환경은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첫째, 주변국이 중국 발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중국의 우호정책에 대해 신뢰를 못하고 있다.'
    - '둘째, 진정한 친구로서의 연맹국이 없다. 북한·파키스탄은 자신들 이익을 우선으로 중국과 우호연맹을 맺고 있다.'



2012.6.4(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셋째, 경제위주의 발전을 이뤄 주변국과의 정치적 경영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중국만의 핵심 이념을 구축해 우호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현재 중국의 주변 안보 환경은 불안정하므로 관련 제도와 이념 구축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경제발전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국민과 정치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

## 붙임 1. 38 North 보도 원문 (6.1)

### 38 North 홈페이지

"Interview: Bradley Babson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DPRK"

- o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Rason has been around since the early 90s and it's been through a number of iterations of legal documents to try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It's been not very successful through the 90s and the early part of this decade but more recently China and Russia had become very interested in taking advantage of the port in the Rason area to be able to transfer goods in and out of land-locked China and in and out of Russia particularly during the winter months when Russian ports are ice-bound.
- o So the combination of Chinese and Russian interests in the Rason port and the opportunity to develop industries that can provide some value-added processing on goods coming in and out of that port creates a new window of opportunity for North Korea, driven by the self-interests of China and Russia, not only by the desires of North Korea to try to attract investment.
- o I think the hope this time is that they will be able to get more attraction in getting investors willing to come and to invest the way that has been successfully done in the Kesong project with South Korea. If they are successful, it means that North Korea will have better control over what kind of investment is taking place, more centralized approval processes, they have put in place goo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making decisions at the local level in the management of the zones using local authorities and special boards to solve problems as they come up.
- o The benefit for North Korea would be attracting investment, getting the returns to the country of those of the investments both from the revenues that would flow from taxes as well as the potential for new products and access to technology that could help stimulate the domestic economy, particularly if they allow backward linkages into the domestic economy to provide not just labour but also other inputs in the production in the zones. That would certainly help develop the North Korean economy beyond the zones itself.

38 North 홈페이지

- o I think one of the interesting aspects of the new laws that apply both to Rason and the western zone is that not just Chinese but national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explicitly Koreans not resident inside DPRK are allowed to invest in these zones. That's a kind of a sign that South Korean investors in these zones would be welcome and again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will be interest on the South Korean side for that type of relationship but it does create an opening for a more regional approach to investment and integration of North Korea economically than simply relying on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 o The other development that occurred during that week that is important was the decision and the announcement that the cabinet would be given primary responsibility for managing 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 a more integrated way than in the past and that the technocrats in the government would be given more support and authority to find a 'realistic' way to develop the economy.
- o That signal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be more r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han we've seen in recent years when we've seen various efforts to roll back to old style socialist economic management that have failed and continuing inflation which undermines the effort to develop the economy. So I think the new administration looks like they are willing to give the technocrats another chance to see what they can do.
- o The other big issue is going to be whether there is a new economic team that is being put in place in Pyongyang which includes a new finance minister, who are willing to try to get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economic strategy and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ystem.
- o One of the big faults of the 2002-03 reform effort was that they did not really focus on the institutions that would be necessary to support a more liberal economic policy. Just changing prices doesn't do the job. It's very important to develop the banking system, the public finance system, taxes, insurance, more flexible property and land and labour markets, these are all areas where if north korea was to lighten up and allow more flexible economic practices and more support for evolution of market economic dynamics.

## 붙임 2. SIPRI 2012 보고서 원문 (6.4)

### SIPRI 홈페이지

“SIPRI YEARBOOK 2012: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 o At the start of 2012, eight states possessed approximately 4400 operational nuclear weapons. Nearly 2000 of these are kept in a state of high operational alert. If all nuclear warheads are counted—operational warheads, spares, those in both active and inactive storage, and intact warheads scheduled for dismantlement—the USA, Russia, the UK, France, China, India, Pakistan and Israel together possess a total of approximately 19000 nuclear weapons.
- o North Korea has demonstrated a military nuclear capability. However, there is no public information to verify that it possesses operational nuclear weapons. At the end of 2011 North Korea was estimated to have separated roughly 30 kilograms of plutonium. This would be sufficient to construct up to eight nuclear weapons, depending on North Korea's design and engineering skills.
- o According to a leaked report prepared in 2011 by the UN Security Council's panel of experts on North Korea, the country has pursued a uranium-enrichment programme 'for several years or even decades'. It is not known whether North Korea has produced HEU for use in nuclear weapons.
- o The diplomatic impasse over the fate of the nuclear programme of North Korea remained unresolved in 2011. Preliminary discussions aimed at restarting the suspended Six-Party Talks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made little progress, despite renewed contacts between North Korean and US diplomats.
- o The legal and normative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ere underscored by reports that the country had been involved in covert transfers of nuclear and ballistic technologies to third countries on a larger scale than previously suspected.

## 붙임 3. 일본 아사히TV 보도 원문 (6.2)

### 아사히TV 홈페이지

“「施設が存在しない可能性」北朝鮮核保有せず?”

- o アメリカの核の専門家がANNのインタビューに答え、北朝鮮は高濃縮ウランをまだ製造できていない可能性があるとの見方を明らかにしました。

아사히TV 홈페이지

- 科学国際安全保障研究所・オルブライト所長：「北朝鮮が核兵器を作るのに十分な高濃縮ウランをすでに持っていると言う人がいるが、我々の研究によると、全く持っていないかほとんど持っていない可能性がある」
- シンクタンクの核専門家・オルブライト氏は、遠心分離機を数千機備えたウラン濃縮施設が北朝鮮に存在しないかもしれないと指摘しました。高濃縮ウランが全く製造できていなければ今後の米朝交渉にも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として、この研究結果を来週にも発表したいとしています。また、3回目の核実験について、過去2回で使ったプルトニウム型よりも強力な「熱核兵器」を作るための実験が行われるかが最大の懸案だと語りました。

**붙임 4.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원문 (6.3)**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北朝鮮、干ばつで痛手 農地 4 割被害、正恩体制に重荷”

- 北朝鮮が深刻な干ばつに見舞われている。金正恩 (キム・ジョンウン) 体制は食糧難を改善できなければ民心が離れかねないとの危機感から、食糧増産への取り組みを繰り返し呼びかけてきたが、干ばつでさらなる重荷を背負った形だ。
- 「30年以上も農場で働いてきたが、こんな干ばつは経験がない」。AP通信は5月末、北朝鮮南西部の農民の声を伝えた。北朝鮮メディアは、西部を中心に4月下旬から雨がほとんど降らず、この50年で雨量が最少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し、農地の4割が被害を受けていると報じた。
- すでに田植えなどが始まっており、干ばつが続けば収穫に深刻な影響が出かねない。中朝を行き来する貿易商によると、平壤周辺でも住民を総動員し、まだ枯れていない川から水をくむなど対応に必死だ。北朝鮮では毎年、作付け時期に都市住民を農村に派遣して農作業を手伝わせてきたが、今年はさらに強化し、平壤では昼間は通行人がほとんどいないという。

**붙임 5. 우크라이나 expert 주간지 보도 원문 (6.4)**

expert 주간지 홈페이지

“Народ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ядерная”

-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КНДР внесло в конституцию поправки, закрепляющие за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статус ядерной

expert 주간지 홈페이지

державы. С 2003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ыталась стать восьмым членом ядерного клуба вместе с США, Россией, Великобританией, Францией, Китаем, Индией и Пакистаном. В феврале 2005-го Пхеньян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 о созда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 Несмотря на усилия ведущих мировых держав и ближайших соседей, Пхеньян не сворачивает ядер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мнению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исследований армии, конверсии и разоружения Сергея Згурца, закрепив ядерный статус в своей конституции, страна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ослаб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авления.

**붙임 6. 駐러 카자흐스탄 대사관 게재 원문 (6.2)**

駐러 카자흐스탄 대사관 홈페이지

“Посол РК в РФ Г.Оразбаков встретился с Послом КНДР в РФ Ким Ен Дже”

- 1 июня с.г. по инициатив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 и Казахст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разбакова с Чрезвычайным и Полномочным Посл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Ким Ен Дже.
-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их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Посол КНДР подтвердил,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его страны выступает за укреп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Казахстаном. Он особо отметил высо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вторитет Казахстана и Президента Н.Назарбаева, достижения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м развитии Республики.
- Ким Ен Дже подчеркнул актуальность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расшир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контактов и активизации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Посол КНДР также сообщил о намерении руководства его страны открыть в Астане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миссию с целью активизации и интенсифик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붙임 7. 러시아 vladnews 보도 원문 (6.3)

### vladnews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Делегация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епархии снова отправилась в Пхеньян”

- 1 июня 2012 года делегация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епархии вылетела в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епархии. Преосвященный владыка посещал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с 13 по 20 апреля 2012 года,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ославного комитета КНДР Георгия Хо Ир Зина, в связи с празднованием Пасхи Христовой и 100-летием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Ким Ир Сена.
- На встрече епископа Иннокентия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ославного комитета КНДР Георгием Хо Ир Зином была согласова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изи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храма Святой Живоначальной Троицы г. Пхеньяна в Россию. Визит планируется на август 2012 года в связи с 10-летним юбилеем посещения полководцем Ким Чен Иром храма в честь святителя Иннокентия Иркутского в г. Хабаровске.

## 붙임 8. 중국 환구망 보도 원문 (6.1)

### 환구망 홈페이지

“张胜军：中国周边安全环境有三个危机”

- 据6月1日出版的《环球时报》报道，“朝鲜在新修订的宪法中明确自己是核拥有国”，韩国媒体爆出的这一消息昨天在三八线南侧引发激烈反响，并将朝鲜再次置于西方舆论的拷问之下。
- 朝核问题这出“摇摆游戏”该往何处去？中国朝鲜半岛问题专家吕超对《环球时报》表示，朝鲜此举并不意味着六方会谈失败，因为朝鲜3年来一直这样声称，但把它正式写入宪法的确是一个严重问题，会产生半岛有核化甚至进入核竞争的隐患。

## 붙임 9. 중국 환구망 보도 원문 (5.30)

### 환구망 홈페이지

#### “张胜军：中国周边安全环境有三个危机”

- 中国目前所面临的周边安全环境的困境如果用一个词来概括的话，就是“碎裂”。而这种碎裂的状态我将其总结为三个危机：
- 第一，周边国家对我国的认同危机。这种危机主要表现在三个方面，首先，我国的崛起理念不够完善。同时，我国的睦邻友好政策流于口头化、宣传化，难以令周边国家信服。其次，即中国威胁论的影响，虽说中国一直提倡和平崛起，但由于社会制度的差异，地缘政治的变化，中国经济的发展，我国周边地区一些国家对我国心存疑虑和戒心。
- 第二，联盟危机。我将这种危机概括为“三少”，首先，中国在周边国家的朋友少，中国实际上没有真正能够为其而战的盟国，朝鲜和巴基斯坦与中国友好结盟有着非常大的前提条件，只是因为对自身有利。
- 第三，战略危机。由于中国近年来始终以经济发展为中心，在追求经济发展的同时忽视了对周边国家的政治经营，中国在处理与周边国家关系时，应逐步建立自己的核心理念和理论框架，将空泛的政策逐步建立为具体的制度，从而有效实现中国的睦邻友好政策。
- 面对当前这种“碎裂”的周边安全环境，中国应重新定位，即要对自己所处的环境有一个清醒的认识。我们应通过相关制度的建设和理论框架的建立逐渐过渡到稳定安全的状态。我国在从功能主义转向后功能主义的过程中，不应只重视经济层面这一个维度，而更应重视周边国家民众的政治参与，在政治上加以引导，寻求周边国家对我国的政治认同。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6.4 Inter Press Service)

- 「세년 카일」(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군축 및 비핵화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 ‘확인이 가능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
-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 ‘동시에 국제사회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발생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관리하거나 적어도 완화할 수 있는 일관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가장 위험한 사항은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이나 기술을 시리아에 수출한 것과 같이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라는 것에 美 행정부와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과 정책들을 마련하는 동시에 북한과 국제사회의 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 ○ 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들, 대북 지원 반대

(6.1 자카르타 글로브 ☞ 인도네시아 영자 신문)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북한에 2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에 동의했으나, 이는 현지 인권운동가들의 비난을 사고 있음.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대북 지원 결정이 단지 인도주의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김영남 방문 후 북한과 가까워지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함.

「반탈토 반도로」(인도네시아 국방대 교수),

-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대북 지원으로 한반도의 중재자가 될 수 없다.’
- ‘대북 지원으로 인도네시아의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음이 보장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북한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한편, 한국과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음.

「데위 포르투나 안와르」(「보에디오노」 인도네시아 부통령 특별 보좌관),

- ‘인도네시아는 남북간 대화를 추진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6자회담 국가의 7번째 회원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한다.’
- ‘아세안은 믿을 수 있는 국제 행위체로 협상은 7자회담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국가 북한을 지원한 것을 비난하고 있음.

「일레인 피어슨」(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HRW]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 ‘유엔 인권이사회 멤버인 인도네시아가 북한 당국자를 초청한 것이 이상했다.’

「알렉시우스 제마두」(인도네시아 펠리타 하라판대 정치외교학과 학장)와 「하리야디 위라완」(인도네시아 국립대 국제관계 전문가), ‘인도네시아는 인권과 민주적인 개혁을 지지하는데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주장

- 美 국무부 대북 특사들, 해외 순방길 나선다.(6.4 美 국무부)
  - 「로버트 킹」(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은 2012.6.7~15일 한국·일본을 방문하며, 「글린 데이비스」(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5~9일 러시아·벨기에·프랑스를 순방할 예정임.
  - 킹 특사는 6.7~9일 도쿄를 방문해 「마쓰바라 진」(남치문제담당상), 「스기야마 신스케」(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날 계획임.
  - 6.9~15일에는 서울에서 「임성남」(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태효」(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만나고, 통일연구원이 개최하는 콘퍼런스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기조연설을 할 것임.
  - 데이비스 특사는 6.5~6일 모스크바에서 「이고르 모르굴로프」(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외교부 차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할 예정임.
  - 6.7일에는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의 비확산문제 및 아시아 문제 담당 고위관리들을, 6.8일에는 파리에서 프랑스 외교부 고위관리들을 만날 예정임.

## □ 러시아어권

- 北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6.4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 일간지)
  - 「이고르 이바노프」(前 외무부 장관),
    - ‘이란과 북한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만약 현존하는 국제법 규범의 틀 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핵 비확산체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이다.’
    - ‘러시아, 미국, 나토는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확산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

○ 美, 중국을 배제한 대북 새로운 전략 마련해야 한다.

(6.4 ruskorinfo 情報통신 언론사)

- 「패리스 H 창」(대만 정경전략연구소 소장, 前 대만 국가안보회의 副비서장),

-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던 미국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으며, 현재 對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美·中 間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 '북한을 규탄하는 UN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중국이 동의 하긴 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해치는 대대적 행보를 취할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표했다.'
-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적 목표는 韓·美·日 과 큰 차이가 있다.'
- '중국은 식량·석유를 비롯한 전략 물자를 북한에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對北 압박을 취하지 않고 있다.'
- '향후에도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 미국은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이라는 국가와 '동북아'라는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중국과 끊임없이 이어나갈 경우, 더욱 무장된 북한을 목격함으로써 꿈이 악몽이 되는 상황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

□ 일본어권

○ 中·北, 2009년 탈북자 단속 강화하기로 합의하다.(6.4 지지통신)

- 2009.6월경, 中·北 양국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개혁·개방' 추진과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당시 합의는 장성택 등 후계체제 준비 그룹과 중국 상층부간 이루어짐.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김정은 후계체제 하에서의 개혁·개방을 요구한 중국에 대해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할 의향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주민의 3분의 1이 탈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탈북 저지와 체포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함.

○ 핵실험 계획 없었다고 주장하는 北, 그 배경은?(6.1 코리아국제연구소)

- 북한이 핵실험 계획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계속한다면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와 같은 조건부 주장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의사표현 방식임.
- 여기에는 장거리 미사일발사 후 중국의 태도와 국제적 비난의 고조, 그리고 기반이 약한 김정은 정권과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난 등이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당초 목표는 2012년에 장거리미사일과 핵실험을 성공시켜 미국에 결정적인 충격을 안기는 것이었으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함.
- 북한의 남은 선택은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슬쩍 드러냄으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김정은 체제가 약한 현재 시점에서 강경책은 불리하다고 판단한 듯함.
- 형식적으로 권력 승계를 마쳤지만 경제상황 악화로 민심이 돌아서는 등 체제불안요소가 산재되어 있음.
- 최근 들어 북한당국이 각종 군중대회를 열고 노동신문 등을 통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확보와 黨·軍 기반조직 시스템 복구, 인민생활 개선 등을 통한 민심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임.
- 미사일발사 실패로 핵실험전에 대결국면을 조성해온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음.
- 지금까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며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지만 기반이 약한 김정은 체제에서 중국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듯함.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또한 북한으로서는 권력승계를 마친 김정은의 방중도 고려의 대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외교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중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는 또다른 요인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연일 핵실험을 한다면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며 견제하고 있는 점이 있음. 이런 압력은 김정은 정권에 부담이 될 것임.
- 북한이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는 배경에는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난도 있는 듯함.
- 황해북도의 한 소식통은,
  - '김정일 사후 폐쇄된 시장은 김정일의 지시로 6일만에 재개됐지만 여행증명서 발급은 중단된 채 있으며 해주지역은 사실상 고립상태였다.'
  - '영농작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얼마 안 되는 식량까지 군대와 수도로 보내졌다.'라고 전함.

## □ 중국어권

- 中 길림성 연변지역, 불법 외국인 단속 (5.25 동방조보 ⇨ 일간지)
  -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공안국은 5.15~10.15일까지 불법 외국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입국, 불법거류, 불법취업 외국인을 일제히 조사할 예정임.
  - 연변 공안국 출입국 관리처 처장은 연변이 국경지역의 특수한 위치에 있어 외국인의 불법 입국이 많다고 전함.
  - 이번 단속을 통해 해외 비정부기구, 종교기관의 불법 범죄 활동, 국가 안보와 사회안정을 해하는 각종 행위들을 규제할 예정임.
  - 불법 입국 주요 단속 지역은 훈춘, 투먼, 룡징, 화룽, 안투 등이며 불법 거류 외국인은 연길, 훈춘, 돈화, 왕칭에서 단속할 예정임.

2012.6.5(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주로 단속 업종은 서비스업, 가공업 및 각종 양식장임.

연변은 북한과 접해 있어 북한에서 넘어 온 탈북자들과 이들을 돕는 한국인들도 적지 않음.

이에 대해 서양 언론은 중국이 외국인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함.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중국 취업과 생활을 환영하며 이들의 권익보호와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외국인들도 중국 법률과 중국의 문화를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발표함.

## 붙임 1. Inter Press Service 보도 원문 (6.4)

Inter Press Service 홈페이지

"Fewer but Newer Nuclear Arms Deemed Future Threat"

- o "I think that the most plausible answer i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ikely will have learn to live with North Korea's nuclear fait accompli, given the absence of any realistic options for persuading the North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 activities in a verifiable and transparent way," Kile said. This is true even if there were to be a gradual rapproch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o At the same time, said K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develop a coherent strategy for managing, or at least mitigating, the destabilising consequences arising from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me.
- o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within the U.S. administration and among many independent analysts that the most dangerous of these consequences is the possibility that the North Korea will export fissile material, or the technology for producing it, to other countries (so-called secondary proliferation), as it allegedly did with Syria.
- o This in turn has led to renewed interest in putting into place enforceable measures and policies aimed at restrict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while at the same time finding a formula for reaching a negotiated solution that will address the main security concerns of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rit large, Kile declared.

## 붙임 2. 자카르타 글로브 보도 원문 (6.1)

자카르타 글로브 홈페이지

"Activists Criticize Jakarta's \$2m Gift To North Korea"

- o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 has agreed to send \$2 million in aid to North Korea, a move that is expected to create closer ties with the reclusive country but which has already drawn criticism from rights activists.



자카르타 글로브 홈페이지

- o Foreign Minister Marty Natalegawa said the decision was driven purely by humanitarian motives, but analysts quickly suggested that the aid could be seen as an attempt by Jakarta to cozy up to Pyongyang after Kim Yong-nam, chairma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visited earlier this month.
- o Indonesia now has an opportunity to get closer to North Korea, said Bantarto Bandoro, a lecturer at the Indonesia Defense University. "The aid also can increase Indonesia's profile, though it doesn't automatically turn Indonesia into a mediator in the Korean peninsula," he said on Thursday, adding that Indonesia should ensure that it did not hurt it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ndonesia's top investor.
- o Several foreign affairs experts have urged the government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helping to mediat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given Indonesia's historical ties with the North and its strong economic relations with the South.
- o "Indonesia can become an honest broker to facilitat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Dewi Fortuna Anwar, a special adviser to Vice President Boediono, said at the South Korean Embassy on Monday.
- o Dewi suggested that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uld become a seventh member in the Six-Party Talks, the only regional mediation mechanism for North and South Korea. "The negotiations should become the Seven-Party Talks because Asean is a credible international actor," she said.
- o Rights activists, however, have blasted Indonesia for giving aid to the authoritarian country, saying the close ties could be seen as condoning rights violations there. Elaine Pearson, the deputy Asia director at Human Rights Watch, said it was strange that Indonesia, as part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even invited the North Korean official to visit.
- o Aleksius Jemadu, the dean of Pelita Harapan University's school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and Hariyadi Wirawan, an international relations expert from the University of Indonesia, said Indonesia should use its close ties to advocat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reforms.

### 붙임 3. 美 국무부 보도자료 원문 (6.4)

#### 美 국무부 홈페이지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Robert King Travels to Tokyo and Seoul”

- o Ambassador Robert King,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will travel to Tokyo and Seoul, June 7-15. From June 7- 9, Ambassador King will be in Tokyo where he will meet with senior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Minister for the Abduction Issue Jin Matsubara, and MOFA Director 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Shinsuke Sugiyama.
- o From June 9-15, Ambassador King will meet in Seoul with senior Republic of Korea (ROK)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ROK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Issues Lim Sung-nam and ROK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Tae-hyo. Ambassador King also will give the keynote address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mbassador King will return to Washington on June 15.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n Policy Glyn Davies Travel to Moscow, Brussels, and Paris”

- o Ambassador Glyn Davie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n Policy, will travel to Moscow, Brussels, and Paris, June 5-9. On June 5-6, Ambassador Davies will meet in Moscow with his counterpart Russian Deputy Foreign Minister Igor Morgulov and other senior officials from the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mbassador Davies also will meet with academics and other government officials to exchange views on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o On June 7, Ambassador Davies will meet in Brussels with nonproliferation and Asia experts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as well as the European Union Asia-Oceania Working Party (COASI). On June 8, Ambassador Davies will meet in Paris with Paul Jean-Ortiz French President Hollande’s Diplomatic Advisor and Jacques Audibert, Fr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litical Director, as well as other officials in the French Government, and academics.

## 붙임 4. 러시아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보도 원문 (6.4)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Лавров: Россия готова к диалогу о ядерном разоружении”

- В Берлине откры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и Люксембургского форума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ядерной катастрофы, передает Интерфакс. Еще один участник конференции - экс-глава МИД Игорь Иванов -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объединенные усилия России, США и НАТО помогут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Иране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Ядерные программы Ирана и КНДР - это серьезный выз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сообществу. Если не удастся найти решения этой проблемы в рамках существующих нор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то под вопросом окажется сам режим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 подчеркнул Иванов. Экс-министр считает, что у РФ и США должно сформироваться общее видение проблемы 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 붙임 5. 러시아 ruskorinfo 보도 원문 (6.4)

ruskorinfo 정보통신 언론사 홈페이지

“США и Китай расходятся во мнении по ситуац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Попытка США привлечь Китай к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бернулась провалом. Представление Пекина о том, каким должен быть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иль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взглядов США.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Китай согласился с США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нять резолюцию Совбеза ООН. Однако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сомневаются, что Пекин будет предпринимать какие-либо существенные шаг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нанести вред его государству-спутнику.
- Почему? В основном потому чт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цели Кита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чень отличаются от целей США,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и моменты

ruskorinfo 정보통신 언론사 홈페이지

ы, когда Пекин, казалось, осознавал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как важного участник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цессов. Но также очевидно,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офи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санкций ООН, Пекин не намере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инимать такие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Наоборот, Китай поставляет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нефть и друг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товары,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 На самом деле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терес Кит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получать услуги от надежного и стабильн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ма, и Пекин намерен приня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для сохранения статус-кво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более вероятно, что она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испытания, пока не овладеет технологией установки и запуска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с ядерными боеголовк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НДР считает, что от налич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зависит само существование страны.
- Политика вовлечения, проводимая США, и 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от желания Китая помогать в деле 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вели к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ой неудаче. Д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амы настал момент, когда необходимо разработать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которая не будет предусматривать привлечение к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Китая, преследующего свои собственные цели. США должны признать, что хотя они и спят в одной кровати с Китаем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ны им снятся разные. И если бесконечные переговоры с Китаем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сон США может легко обернуться кошмаром, в котором они увидят еще более серьезно вооруженную Северную Корею.

**붙임 6.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6.4]**

지지통신 홈페이지

“09年、脱北者取り締まり強化合意=中朝、正恩氏後継体制にらみ”

- 北朝鮮の内部事情に通じた韓国の消息筋は4日、北朝鮮の金正恩労働党第1書記が2009年1月に後継者に内定した後の6月ごろ、中朝両国

**지지통신 홈페이지**

が、金正恩体制での「改革・開放」の推進と脱北者取り締まりの強化で合意していたとの情報を明らかにした。

- 合意は、金正日総書記の義弟で、公安部門を担う張成沢国防委副委員長ら後継体制の準備グループと、中国上層部との間で行われた。正恩後継体制での「改革・開放」を要求した中国側に対し、北朝鮮側は「『改革・開放』を進める意向はあるが、そうすれば北朝鮮人口の3分の1が脱北しかねない」との懸念を伝え、脱北阻止と逮捕への協力を求めたという。

**붙임 7. 일본 코리아국제연구소 원문 (6.1)**

**코리아국제연구소 홈페이지**

“「核実験の計画はなかった」と主張する北朝鮮、その背景は?”

- 北朝鮮外務省報道官は5月22日、核実験と関連して「われわれは初めから平和的科学技術衛星の発射を計画していたため、核実験のような軍事的な措置は予定していなかった。衛星発射を問題視する米国が『核実験』説を云々しながら対決を高めている」とする一方、「われわれの自衛的な核抑止力は米国の敵対視政策が続く限り、中断することなく拡大・強化される」とも主張した。この主張は、G8首脳会議（キャンプデービッド・サミット、19日）で、核実験など新たな挑発行為を中断するよう北朝鮮に警告が発せられたことに反応したものと見られる。
- しかし、「核実験の計画はない」とする一方で「米国が敵視政策を続けられれば核抑止力を強化する」というような条件付の主張はこれまでに見られなかった「意思表示」のやり方である。そこには長距離ミサイル発射後の中国の態度や国際的非難の高まり、そして金正恩政権の力不足と食糧難の深まりなどが関係しているように思える。
- 核実験が威力を発揮する上で長距離ミサイルとの関係が重要になってくるのだが、今回ミサイル（ロケット）発射に失敗したため、核実験による政治的効果は半減したといえる。
- 北朝鮮の当初目標は、2012年に長距離ミサイルと核実験を成功させることで米国に対する決定的ショックを与えることであった。米国本土に到達する核ミサイル保有を誇示することで、米国を力づくで引き寄せ、核軍縮に持ち込み、「平和協定締結」へと進もうとしたのである。この思惑が実現していれば「経済の再生」に必要な「援助」は自然と付いてくるものと計算していた。

## 코리아국제연구소 홈페이지

- しかし、長距離ミサイル（ロケット）の発射は見事に失敗した。残る選択肢は核実験を強行するのか、それをちらつかせながら有利な局面を作り出すのかであったが、金正恩体制の力不足から現在の時点では「強硬策」は不利と判断したようだ。
- 北朝鮮は4月の太陽節(金日成の誕生日)記念行事と長距離ミサイル発射に天文学的な統治資金を投入し、経済事情は悪化している。これに加え、形式的には権力承継を完了させたが、なお民心の離反など体制不安要素が散在している。最近になって、北朝鮮当局が各種群衆大会を開催し、労働新聞などを通して金正恩に対する忠誠心確保と党軍・基盤組織のシステム復旧、人民生活改善などによる民心回復に注力しているのはそのことの証左である。ミサイル（ロケット）発射の失敗によって、核実験前に対決局面を造成してきた過去とは明らかに異なる状況が作りだされている。
- 今まで「血盟」中国からの支援を受けながらも、その「警告」を無視した形で「核実験」を強行してきた北朝鮮ではあるが、金正恩体制が磐石ではない状況では中国の警告を無視できないようだ。
- また北朝鮮としては権力承継を完了した金正恩の訪中も、考慮の対象にあるものと思われる。核実験を強行する場合、外交的効果を極大化できる訪中（金正恩の初の外交舞台デビュー）が水の泡となる可能性が高い。
- 北朝鮮が、核実験を「留保」している他の要因としては、米国など国際社会が連日にわたり、核実験を急行すれば強い制裁と孤立に直面するだろうと牽制していることがある。米国側の6カ国協議主席代表である米 국무部グリーン・デービス北朝鮮政策特別代表はG8後の21日、「北朝鮮が核実験など新たな挑発行為を行うなら、国際社会の共通した行動を日の当たりにするだろう。国連安保理が再度招集されるなどの迅速で強力な措置がとられるだろう」と強調した。こうした圧力は金正日時代とは異なり、権力基盤がせい弱な金正恩政権にとって負担となっ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
- 北朝鮮が核実験を「留保」している背景には最近深刻さを増している「食料難」が背景にあるようだ。
- 消息筋は「金正日死後、閉鎖されていた市場は金正恩の指示で6日ぶりに再開されたが、旅行証明書の発給は中断されたままで海州地域は事実上孤立状態だった。農作業ははかどらず、わずかな食糧までも軍隊と首都に送った」と伝えている。

## 붙임 8. 중국 동방조보 보도 원문 (5.25)

### 동방조보 홈페이지

#### “吉林延边清理“三非”外国人外交部否认排外 ”

- 中国吉林省延边朝鲜族自治州公安局23日向媒体介绍, 从5月15日至10月15日, 延边州将开展为期5个月的清理整治“三非”外国人专项行动。延边警方表示, 凡是非法入境、非法居留、非法就业的外国人, 发现一起查处一起。
- 延边州公安局出入境管理处处长李永学说, 由于延边地处边疆地区, 地理位置特殊, 常有一些“三非”外国人偷渡到延边后, 进行违法犯罪活动。此次通过清理整治“三非”外国人专项行动, 意在最大限度地压缩“三非”外国人在延边的生存空间, 以高压态势有效打击个别境外非政府组织、宗教组织人员在延边进行各种违法犯罪活动和危害国家安全、社会和谐稳定的活动。
- 据介绍, 清理整治非法入境外国人的重点县市有琿春、图们、龙井、和龙、安图等边境县市; 清理整治非法居留外国人的重点县市有延吉、琿春、敦化、汪清。重点行业包括公共服务业、特定服务业、加工业, 以及各类养殖场和参场等种植场。
- 延边毗邻朝鲜, 当地有不少从朝鲜偷渡入境的“脱北者”以及来自韩国希望帮助这些人的志愿者。中国多地公安部门近日开展了清理“三非”外国人的专项活动。针对一些西方舆论近期称中国出现了“排外”倾向, 中国外交部发言人洪磊昨日在例行记者会上表示, 中国坚持对外开放。中国社会包容和谐。“中国政府欢迎外国各界人士来华, 并愿为其在华生活、工作、居留等提供各种便利, 保护其合法权益。同时, 我们希望外国人士在华遵守中国法律法规, 尊重中国人民的文明风尚。”他说。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美 국무부, '北 도발에 따른 보상은 없다'고 강조(6.6 美 국무부)
  - 「제임스 줌월트」(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한·미 동맹 청문회 서면발언
  -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도발에 직면해 한국과 계속 어깨를 맞대고 있다.'
  - '북한의 2012.4.13일 미사일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핵실험·영변 핵활동 유예를 약속한 2.29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 '북한은 당시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과 5메가와트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확인하려는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의 복귀에도 동의했다.'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발사가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했다는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단체와 물품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지시했다.'
  - '우리는 북한문제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 '미국은 북한에 건설적으로 접촉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는 도발에 따른 보상은 없으며 지속적인 도발 행위는 북한의 고립과 주민들의 고난만 커지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북한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길은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
  - '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3.16일 북한 지도부에 핵무기 개발보다 주민들의 존엄성과 복지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2012.6.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로버트 킹」(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은 2011.5월 북한 방문시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권문제를 제시했다.'
-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와 파트너 국가들에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정보 획득과 개선에 초점을 맞춘 비정부기구(NGO)들에 3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 美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6.6 Foreign Policy)

- 「마이클 그린」(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Georgetown大 국제관계학 교수),
  - '오바마 행정부는 초기에 대북 강경 태도를 견지했지만 2011년 중반부터 북한을 포용하지 않으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까 긴장하기 시작했다.'
  - '허접지겹 몇 번 논의가 있는 후 도달한 2.29 美-北합의를 돌파구라고 여기는 사람은 美 행정부에 아무도 없었다.'
  - '필자를 포함한 몇몇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북한이 2012년에 미사일과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 '美-北합의에 기대를 걸던 사람들도 북한과의 합의는 잘해 봤자 매우 약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렇게 빨리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 했다.'
  -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납득이 된다.'
  - '일련의 논의 끝에 작년 12월 美-北합의의 윤곽이 잡혔고 김정일이 급사하지 않았더라면 그 달에 발표 했을 것이며 올 3월에는 IAEA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 복귀했을 것이다.'
  - '그 후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다면 IAEA 사찰단을 추방당하게 하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국제사회가 지지했을까?'

2012.6.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신참 김정은은 원래 계획대로 美-北합의後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고 합의 파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었을 뿐이다.’
- ‘美행정부는 이제 북한의 행동에 대응만 하고 있고, 북한 핵실험時 채택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남겨두기 위하여 미사일 실험後 그보다 약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 ‘북핵문제에 대한 더 주도적인 전략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었을 것이다.’
- ‘△한국과 일본이 요청한 미사일 발사前 북한 압박을 위한 유엔안보리 대응지지, △중국의 유엔 결의 1874호 이행 압박을 위한 위반 기입 파악, △북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 감시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북한 편의치적선 단속, △미사일 방어 예산 유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의 조치는 북한의 명백한 핵개발 의도를 감안하면 급진적이라고 볼 수 없다.’
- ‘그러나 美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이것의 반도 하지 않을 것이다.’
-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쉽다.’

## □ 중국어권

○ 中·北 경제·문화·관광 박람회 10월 개최 예정(6.6 중국일보)

- 10.12~16일, 「2012 中·北 경제·문화·관광 박람회」가 요녕성 단둥시에서 열릴 예정임.
-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우정·협력·발전’이며 △상품 박람회 및 경제협력 상담회, △공예품 박람회, △문예교류 공연, △관광자원 및 협력 상담회로 구성됨.
- 중국 각지의 400여 사의 對北 수출상이 △의류, △전자전기, △곡물, △기계 등 12가지 분야의 상품을 전시할 예정임.

2012.6.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조선중앙예술단, 100여 개의 무역회사에서 조직한 500여 명이 참가하며 △의류, △민속 문화, △식품, △의료 보건, △전자전기, △건축자재, △농업물자, △기계설비 등의 상품을 전시할 예정임.
- 현재 박람회 지원자 모집 및 선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 북한은 중국의 킹카드가 아닌 전략적 부담이다.

(6.6 서특망 ⇄ 군사 전문 사이트)

- 「자오추」(상해 국방전략연구소 연구원),
  - ‘한국 언론이 북한 지도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북한은 최후통첩 형식으로 위협하고 있음.’
  - ‘이런 히스테릭한 북한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지만 지난 20년간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켰음.’
  -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국의 주변 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임.’
  -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이 앞으로 직면할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 여부가 아니라 동북아의 핵군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임.’
  -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헌법에 명기화하면서 韓·美·日은 더욱 급격한 핵정책을 취할 것임.’
  -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일본은 이를 묵인하거나 더욱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통일 남·북한을 기대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미래 한국의 새로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음.’
  - ‘북한이 핵무기에 있어 고집을 부리면서 두 가지 전략적인 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났음.’

2012.6.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첫째, 미국 TMD 시스템을 핵심으로 동북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미 형성되었음.’

‘냉전 이후 미국은 아시아의 나토를 구축할 수 없게 되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동아시아 우방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음.’

‘둘째, 북핵 문제와 북한 도발에 맞서, 미국의 양자 동맹이 韓·美·日연합으로 바뀌게 되면서 중국을 위협하고 있음.’

‘이외에도 북한의 무책임한 모습과 제멋대로의 행동은 중국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음.’

‘난민문제로 중국 경제·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비인도적인 잔인한 난민 송환정책은 중국 외교를 어렵게 했음.’

‘중국은 현실적인 문제와 북한에 대한 많은 전략적 투자로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일부 지정학적 냉전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음.’

‘과장되게 말하면 북한은 중국이 가진 지정학적 킹카드가 아니라 중국의 많은 전략적 자원을 소모하게 하는 밑빠진 독에 불과한 전략적 부담임.’

‘북한은 小國이 大國을 희롱하는 선례를 남겼으며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은 중국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음.’

‘그러나 앞으로 십여 년간 북한 내부의 숙청 후,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임과 방어가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임.’

‘북한은 중국의 잘못된 지정학적 전략을 이용해 필요한 물자와 외교적 보호를 받을 것이나 북한의 외교적 첫째 목표는 미국임.’

‘對美관계가 회복되면 북한은 중국을 적국으로 볼 것이며 이는 절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님.’

- '1980년대 중-베트남의 정책 관계의 비극이 21세기 中·北 관계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이 이렇게 피동적이 된 것은 북한의 전략적 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통적인 냉전 사고때문임.'
- '중국은 냉전적인 사고를 통해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를 비판하면서도 이데올로기 원칙에 근거해 북한을 진정한 친구로 보고 있음.'
- '이로 인해 북핵의 對중국 위협을 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방임하고 지지하게 되었음.'
- '중국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라 생각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은 중국의 많은 자원만 소비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전략적인 소득이 없었음.'
- '역사적으로 △隨나라의 고려정벌, △明나라의 조선원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조선(북한)은 중국이 신중해야 할 전략적 함정임.'
- '이들 전쟁은 모두 중국의 대내외 전략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런 역사적 경험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中·北 사이에 난기류가 흐른다. (6.7 NNN.ASIA 「고미요지」 기고문)

- 中·北간의 냉랭한 분위기는 김정일 사망 직후부터 나타남.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중국은 나름 극진한 대응을 했으나 북한측은 불만족스러워했으며, 미사일을 둘러싼 내정간섭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생각함.

2012.6.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중국은 김정일 사망 後, 정부內에 '조선위기관리 소조직'이라는 조직을 비밀리에 결성했고, 평양에 고위 관리의 파견의사를 전했지만 북한당국이 거절함.
  - 지난 5월, 리자오싱 중국 前외교부장이 방북했지만 김정은과 만나지 못함.
  - 그 후 북한은 중국의 어선을 나포했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협력강화를 요청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음.
- 日남치담당상, 北과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6.5 TBS뉴스)
- 「마츠바라 진」(남치문제 담당상),
    - '약 5개월 동안 남치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다양하게 접촉을 시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접촉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대화를 통해 남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강력한 의사가 북측에 전달됐을 것이다'라고 말함.

## □ 러시아어권

- 美·러, 6자회담 상호협력 활성화에 합의했다. (6.6 러시아 외무부)
- 모스크바(6.6)에서 「이고르 마르쿨로프」(외무부 차관, 6자회담 수석대표), 「글린 데이비스」(美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함.
  - 양측은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을 비롯한 동북아 현안을 논의했음.
  - 6자회담 재개에 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표명했으며, 이를 위한 양자·다자간 상호협력 활성화에 합의했음.
- 北·아무르州,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6 인테르팍스, amur.info ☞ 지역 언론사)
- 北, 아무르州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함.
  - 블라고베센스크(아무르州 州都)에서 개최된 아무르州 정부와 北 국제통상협력위원회간 '제 1차 협력 활성화 실무그룹' 회의결과,

2012.6.7(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아무르州, 올해 對北 밀 약 10,000톤, 콩 10,000톤 수출 예정이며, 소량이지만 시범물량이 이미 보내졌다.'
- '2013년 북한 노동자 고용인원 쿼터를 150명 더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이로써 총 1650명의 북한 노동자가 아무르州에 고용될 예정이다.'
- '조만간 北 농업분야 전문가 36명, 아무르州 파견 예정이다.'
- '北, 2013년 '아무르州 수출포럼' 국제박람회 참여 의사를 표명했으며, 양측은 경제·통상 부문에서 이전에 합의한 협정 성과 논의 및 향후 협력발전 계획을 정했다.'
- '임업부에서 상호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북한노동자 투입으로 아무르州 각 지역에 약 200헥타르 산림이 조성되고, 산림보호·산불예방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아무르州 정부 발표함.

○ 北 노동당 대표단, 6월 중 아무르州 공식방문 예정이다.

(6.7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amur.info ☞ 지역 언론사)

- 北 노동당 대표단(단장: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 6월 17일 아무르州 공식 방문 예정임.
- 현재 아무르州는 북한과 일련의 공동프로젝트 추진 중이며, 협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로만 코브조프」(아무르주 의원, 공산당 아무르州 위원회 비서장),
  - '北 노동당 대표단이 아무르州 정부 및 의회 방문 예정이며, 이들과 오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아무르州 공산당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있을 예정이다.'
  - '양측간 협력은 90년대에 더욱 긴밀했었다. 실례로, 우리 측 관계자들은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를 정기 방문했었다.'
  - '아직까지도 아무르州에는 북한 우호단체가 활동 중이며, 과거와 같은 상호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싶다.'
  - '부레이 수력발전소도 방문할 예정인데, 김정일의 마지막 해외순방이 연해주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북한 관계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힘.

## 붙임 1. 美 국무부 보도자료 원문 [6.6]

美 국무부 홈페이지

"U.S.-Republic of Korea Alliance: James P. Zumwalt - Deputy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 Statement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 o The United States is ful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e stand shoulder-to-shoulder in the face of DPRK provocations.
- o North Korea's April 13 missile launch was in clear violation of the commitments it made in the February 29 Leap Day announcements, in which Pyongyang pledged to implement a moratorium on long-range missile launches, nuclear tests, and nuclear activities at Yongbyon, including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It also agreed to the return of IAEA inspectors to verify and monitor the moratorium of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at Yongbyon and confirm the disablement of the 5-Megawatt reactor and associated facilitie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ssued a Presidential Statement noting the launch violate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1874 and tasked UN Sanctions Committee to designate additional entities and items for targeted sanctions.
- o We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ROK, allies and partners on North Korea polic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engage constructively with North Korea, but its new leadership must understand that there will be no rewards for provocations and that engaging in provocative acts will only increase North Korea's isolation and the hardships endured by its people. The path towards prosperity and security is for Pyongyang to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 o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During the first speech in 19 years by a sitting U.S. President to the South Korean public, President Obama on March 16, 2012, directly called on North Korea's leaders to choose the dignity and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over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mbassador Robert King raised human rights issue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during his May 2011 visit to Pyongyang, and we continue to call attention to specific DPRK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wi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partners. The State Department provides over \$3 million in grant money to NGOs focused increas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improving human rights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 붙임 2. Foreign Policy 보도 원문 (6.6)

### Foreign Policy 홈페이지

#### "How North Korea plays us in an election year"

- o The Obama administration actually started out with a pretty tough stance on North Korea, captured in an impressive statement of policy issued by Hillary Clinton while in Thailand in July 2009. By about mid-2011, however, the administration began getting nervous that its lack of "engagement" might tempt Pyongyang to conduct nuclear or missile tests.
- o After a flurry of negotiations the North agreed in the February 29 "Leap Year" deal that it would stop nuclear and missile tests for a while and let IAEA inspectors back a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in exchange for food aid (now euphemistically called "nutritional assistance"). Nobody in the administration was convinced this was a breakthrough, but it seemed to kick the North Korea problem down the road for a while.
- o It was obvious to a number of us (see my previous posts) that North Korea intended to test missile and nuclear weapons in 2012 under almost any circumstances. Hopeful North Korea watchers in and out of government acknowledged any agreement with the North is tenuous at best, but seemed genuinely perplexed that Pyongyang would violate this one so quickly. It makes sense, though.
- o A series of negotiations had yielded the outlines of an agreement with the North in December that probably would have been announced that month if Kim Jong Il had not died suddenly. By March, IAEA inspectors would have been on the ground in Yongbyon investigating the North's showcase uranium enrichment facility. After a test woul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supported U.S. sanctions that would have forced the inspectors out?
- o Kim Jong Un is new at the job and went with the original plan anyway -- cut the deal and then test. It just turned out that the gap between deal and no deal was shortened.

Foreign Policy 홈페이지

- o The administration is now entirely in reactive mode. They went for a lesser Presidential Statement (PRST) from the UNSC in response to the missile launch so that they would have their one North Korea UNSC Resolution bullet ready for a nuclear test when that comes.
- o A proactive strategy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ould have looked entirely different. Instead of (or perhaps in addition to) attempting to "engage" the North Koreans out of conducting a test, the administration could have done any number of things, including: supporting South Korean and Japanese requests to go to the UNSC to pressure Pyongyang before the launch; pressing China to actually implement sanctions under UNSC 1874 by spotlighting Chinese firms in violation; working with friends and allies to inspect any ships that have docked in North Korea in the previous 120 days; cracking down on North Korean uses of "flags of convenience;" maintaining spending on missile defenses; keeping a more open mind on South Korean requests to extend their own surface-to-surface missile ranges so they can counterstrike deeper into North Korea...and the list goes on.
- o None of these are radical proposals in light of North Korea's obvious intent to keep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of delivery. Yet I doubt the administration will do even half of these in response to another North Korean nuclear test. I do not fault the administration for talking to the North, but talk is cheap if it isn't backed by muscle.

**붙임 3. 중국일보 보도 원문 (6.6)**

중국일보 홈페이지

“中朝经贸文化旅游博览会10月举行”

- o 2012中朝经贸文化旅游博览会将于10月12日—16日在辽宁省丹东市举行。
- o 博览会以“友谊、合作、发展”为主题，由中朝商品博览会和经贸合作洽谈、工艺品博览会、文艺交流演出、旅游资源展和合作洽谈四大板块活动组成。
- o 届时，博览会将邀请全国各地400多家对朝贸易出口生产商，展出纺织服

중국일보 홈페이지

装、电子电器、粮油食品、轻工机械等12大类产品。朝鲜也将组成500人的代表团参加，包括115人的朝鲜中央歌舞团文艺演出队伍及朝鲜贸易省、国家展览社组织的100家商社、300多人的经贸团，展出服装、民俗文化、食品、医药保健、电子电器、建筑材料、农业物资、机械设备、五矿化工等10大类产品。

- 目前，博览会的对外邀商、招展等准备工作已陆续展开。为给本次博览会预热，本月将开展博览会志愿者的招募和选拔活动。

붙임 4. 중국 서육망 보도 원문 (6.6)

서육망 홈페이지

“中朝经贸文化旅游博览会10月举行”

- 据说，因为韩国部分媒体侮辱朝鲜领袖，朝鲜又一次高调对韩国下“最后通牒”了。隔三差五，人们总会看到朝鲜有歇斯底里的战争叫嚣，总认为这些叫嚣是无足轻重的，但回顾过去这些年东北亚和半岛局势的发展，朝鲜20多年来的作为实际上已经极大恶化东北亚局势，最可恶的是，对中国周边安全形势造成了非常负面的后果。
- 对于中国来说，应该承认，半岛无核化的政策目标已经彻底失败，随着朝鲜不顾举世反对，不顾中国基本立场和利益，悍然进行核试，并对导弹等技术进行扩散，未来中国面临的问题已不是半岛有核与否的问题，而是极为可能的东亚和东北亚核军备竞赛升级的问题：随着朝鲜拥核，并追求核入宪，即拥核合法化，除了美国，日韩对此采取更激进的核政策几乎是不可避免的。
- 日本有巨大的核技术和原料储备，美国驻日部队携带核武曾激化上世纪70和80年代的美日关系，但在朝鲜拥核的背景下，日本对此必然会采取默认甚至积极的支持态度。更深一层，韩国有些人深知韩朝力量对比，自信未来半岛必将统一，拥有高度发达产业的新韩国，其作为大国的雄心早已喷薄欲出，因此，这些人私下把朝鲜的核爆视为“高丽人的原子弹”，言外之意，这是未来新大国韩国的大国利器。
- 从直接的后果来说，由于朝鲜在核武等大规模毁灭性武器问题上一意孤行，有两个战略性的后果已经成为现实：其一，东北亚的导弹防御网络已经成型，以美日TMD防御系统为核心，美国在冷战后，在无法构建亚洲北约的前提下，通过反导系统，赋予了与东亚盟友新的紧密连接；其二，过去美国的各双边军事盟友之间的联系明显朝着多变化的方向演变，在朝核问题与朝鲜挑衅的推动下，美日和美韩联盟逐步融合。这一进程对中国的

## 서록망 홈페이지

内外战略性影响都是难以估量的。

- 在其他方面，朝鲜的不负责任和胡乱作为也给中国造成了诸多困难。由于其穷兵黩武的所谓先军政治，作为中国长期头号受援国，朝鲜不仅在难民问题上给中国直接制造经济和政治压力，其非人道的残忍的难民遣返政策，也给中国造成了外交的两难，在国际上给中国造成了重大软力量损害。中国出于现实主义的考虑，顾及已经深陷朝鲜的战略投资，无法做断然的处置，而且，这一现实困难在部分人老旧的地缘战略对抗的冷战思维推动下，还有愈演愈烈之势。夸张点说，朝鲜不仅不是什么中国手中的地缘战略王牌，反而是中国耗费重大战略资源的一宗无底洞似的战略负资产。朝鲜开创了小国玩弄大国的罕见战略博弈先例。
- 在这一切背后，人们看到朝鲜的蛮不讲理、不负责任和自私自利，以及给中国造成的麻烦，但真正的未来风险在于，朝鲜在经过几十年血腥和无情的内部整肃之后，其上下对中国的不信任和提防是根深蒂固的，在现实的困难面前，朝鲜利用中国的错误地缘战略思维，索取生存必须的物资和外交庇护，但从根本上看，朝鲜的首要外交目标是美国。今日中国给予生存庇护和供应的朝鲜，一旦美朝关系有突破，将成为对华最恶毒和敌意的国家，这绝非天方夜谭。1980年代的中越关系，人们已经看到了此类政策悲剧，21世纪的中朝关系很可能还将重蹈覆辙。
- 造成中国后在朝核问题和半岛事务上如对此被动的根本原因，并非朝鲜有多么高超的战略智慧或运作能力，归根到底，还是中国外交思维与实务层面的问题所致，其中最值得反思和批判的就是传统的冷战思维。中国在朝核问题上的政策是最荒诞的：中国整天以冷战思维批判外界，但在朝核问题上，却会援引子虚乌有的意识形态原则，自欺欺人地以为朝鲜同志是具有真诚信念的红色战友。这种一厢情愿的思维根本无视半岛有核和朝鲜拥核对中国的战略威胁，客观上放纵和支持了朝鲜拥核进程，以为朝鲜的对美强硬立场是中国可以利用的国际政治牌局，殊不知，这种自以为是的小聪明战略最后造成的是中国耗费巨亿，却被美朝共同利益同，造成了如今进退失据，一无所得的战略结局。
- 笔者的一位曾担任中国最高军事学术机关高级领导职务的老首长曾在某次与我交谈中说了一番意味深长的话，大意是：远自隋炀帝征讨高丽，明代的援朝之战，近迄甲午和1950年代的抗美援朝战争，朝鲜都是中国需要格外谨慎的战略陷阱，这些战争都曾给中国的内外战略环境带来标志性的负面影响，即使中国赢得战争，其正面成果也是非常有限的，而其负面的影响却非常重大和深远。环顾今日朝鲜半岛局势，这些话真是值得再三再四的咀嚼。

## 붙임 5. 일본 NNA.ASIA 보도 원문 (6.7)

### NNA.ASIA 홈페이지

“【北朝鮮】中国と北朝鮮の間に乱気流?”

- 事実上の軍事同盟関係にある中国と北朝鮮の間がおかしい。昨年末に金正日総書記が死去して以来、両国のぎくしゃくぶりは端で見ているはっきりしている。
- 中国が、正式に指導者となった金正恩氏に対して、教育的指導を行っているとも考えられるが、正恩体制に相当な危機感を持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 ミサイル騒ぎの一方で、北朝鮮と中国の間では高官級の交流がかなり少なくなっている。
- 北朝鮮と中国の間の冷たい雰囲気は、金総書記の死去直後から現れた。金総書記死去に対して、中国はそれなりに手厚い対応をしたが、北朝鮮側は不満だったようだ。さらにミサイルをめぐる「内政干渉」にも不快になっているようだ。
- 中国は、金総書記死去後、政府内に「朝鮮危機管理小組」という組織を秘密裏に結成した。さらに高官を平壤に派遣する考えを伝えたが、北朝鮮当局は受け入れなかった。5月に入って李肇星前外相が、中国の国際交流団体会長として訪朝を果たした。しかし、金正恩第一書記とは会えなかった。
- その後北朝鮮は、中国の漁船の拿捕を行って船員を長期間拘束した。さらに、北朝鮮ナンバー2の金永南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長がインドネシアを訪問して、協力強化を図るなど、中国への当てつけともとれる行動を続けている。
- 中国の努力が実って金正恩氏は、自制の道を行くのか、それとも中国の助言を無視して核実験を強行し、自分の存在をアピールするのか、北朝鮮をめぐる情勢は不安定さを増している。

## 붙임 6. 일본 TBS뉴스 보도 원문 (6.5)

### TBS뉴스 홈페이지

“「北朝鮮側と様々な接触試みている」”

- 松原拉致問題相は、閣議後の記者会見で「就任以来、拉致問題に関して、北朝鮮側と様々な接触を試みている」と述べたうえで、北朝鮮側に対し、拉致問題の解決と対話の実現を改めて訴えました。
- 「約5か月間、拉致問題に関して北朝鮮側と様々な接触を試みて参りました。こうした様々な接触を通じて、わが方からの『拉致問題を解決しよう、対話をし、拉致問題を解決しよう』との強い意思是北朝鮮側に伝わっていると考えている」(松原仁 拉致問題相)
- 会見で、松原大臣は、北朝鮮側と、様々な接触を試みており、今後も接触を続けると述べました。そのうえで、大臣がこれまで繰り返し発言してきた「高齢化が進む被害者家族が生きている間に拉致被害者を帰国させなければ解決とはいえない」などのメッセージが、拉致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日本側の強い意思として北朝鮮側に伝わっていると思うとの考えを示しました。

## 붙임 7. 러시아 외무부 게재 원문 (6.6)

###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О встрече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И.В.Моргулова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США по политике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Г.Дэвисом ”

- 6 июня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В.Моргулов принял находящегося в Москве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ША по политике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Г.Дэвиса.
-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беседы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актуальные аспекты ситуаци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том числе проблематика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тороны выразили общу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перезапуске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и условились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двустороннем и много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ах.

## 붙임 8. 러시아 인테르팍스, amur.info 보도 원문 (6.6)

인테르팍스 통신사, amur.info 지역언론사 홈페이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в 2012г импортировать из Приамурья пшеницу и сою”

- КНДР в 2012 году планирует импортировать из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порядка 10 тыс. тонн пшеницы и 10 тыс. тонн соевых боб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Данные планы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озвучила на первом заседании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митетом по содейств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е КНДР в среду в Благовещенске", - сообщили агентству "Интерфакс-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пресс-службе.
- По данным пресс-службы, на заседании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итоги достигнутых ранее соглашений в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наметили планы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Приамурье должны приехать 36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работы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А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лажено в лесопромышленной отрасли - работники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ажают в Приамурье лес. Только за минувший год в Бурейском, Благовещенском и Архаринском районах они высадили около 200 гектаров леса. Также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привлекают к охране лесов от пожаров.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КНДР планируют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пшеницу и сою. Небольшие пробные партии уже отправлены.
- На заседании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квоту на привлеч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в 2013 году решили увеличить на 150 челове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Амурскую область приедут 1 650 граждан КНДР. В 2013 году северокорейцы пожела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ярмарке «АмурЭкспоФорум». Кроме того, в августе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намечается фестиваль в память о приезде Ким Чен Ира в Россию.

## 붙임 9 러시아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amur.info 보도 원문 [67]

러시아스카야 가제타 일간지, amur.info 지역언론사 홈페이지

“В Амурскую область приедет партийная делегация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17 июня в Амурскую область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приедет делегация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Её возглавит заведующ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делом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Визит носит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характер. Секретарь амурского обкома КПРФ Роман Кобызов сообщил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ИА «Амур.инфо»,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гости должны посети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пройдёт встреча с амурскими коммунистами, которые поддерживают с Трудовой партией давние связи. «В 90-е год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было ещё более плотным, - вспоминает Ром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 Например, наши делегации регулярно ездил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тский лагерь "Сондовон". В Приамурье до сих пор существует общество дружбы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Хочется снова вывести наш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на прежний уровень».
- Вним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 Приамурью не случайно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рабатывает несколько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 Они намерены посетить Бурейскую ГЭС. Напомним, в ию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ам побывал Ким Чен Ир. Поездка в Приамурье стала последним зарубежным визитом вождя КНДР, поэтому это особенно дорого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 отметил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го заксобрания Роман Кобызов.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불평등은 출생 당시 결정된다.(6.7 AP통신)

-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탈북자 75명의 인터뷰와 북한 보위부의 1993년 매뉴얼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계급제도로 인한 차별과 학대가 있다고 지적함.
- 「그레그 스칼레토우」(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김씨 정권은 64년간 북한이 평등한 노동자의 낙원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불평등은 출생 당시에 결정돼 평생 동안 지속된다.’
  - ‘권력집단은 자신과 지지자들이 득을 보게 할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강요한다.’
- 그러나 북한 정부는 차별적인 계급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음.
- 이성민(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 ‘할아버지가 35년간 일본과 협력했다는 혐의로 가족들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낙인찍혔으며, 나는 노동당 참여와 학교 진학을 차단당했다.’
  - ‘북한에서는 아무도 성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북한 보위부는 모든 주민에 대해 17세부터 2년마다 파일을 관리해오고 있음.
- 북한에서는 15만~20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면 가족들도 유죄로 간주하고 있음.
- 핵심계층은 북한 인구 2400만 명의 1/4로 군부와 노동당을 장악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평양에 살고 권위있는 대학과 최고 직장을 독점하고 있음.

2012.6.8(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성분이 낮은 사람과 결혼할 경우 당에서 제외되며, 이는 구직 기회와 생활의 질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 로베르타 코헨(북한인권위원회 이사회 공동의장),
  - '최근 암시장 출현으로 돈, 뇌물, 부패가 성분제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 '그러나 정치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성분제도의 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성분과 관련된 속어도 등장했으며, 핵심계층은 안과 곁이 빨간 토마토로 불리고 이는 훌륭한 공산주의자를 의미함.
- 동요계층은 걸만 빨간 사과로, 적대계층은 정치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포도로 불림.

o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800~1000km로 연장해야 한다.

(6.5 Heritage Foundation)

- 「브루스 클링너」(美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동북아 선임연구원),
  - '美 행정부는 비확산 및 군축 노력 저해와 동북아의 무기 경쟁 촉발을 우려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허용을 꺼려왔다.'
  - '그러나 한국의 자발적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북한이 한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란 및 시리아 등에 판매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550km로 연장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 방어하고 패배시키기 위한 강력한 자체적 군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를 한반도 전역에 해당하는 800~1000km로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
  - '향후 북한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스커드 미사일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2012.6.8(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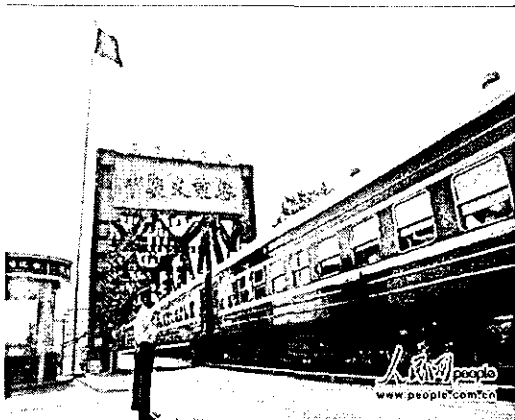
- '이에 대한 방어력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더 휘둘리게 될 것이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
- '그렇게 한다면 북한의 외교적,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고, 필요시 좌절시킬 수 있도록 한국 및 동맹국들의 안보 역량이 증강될 것이다.'

## □ 중국어권

### ○ 中 요녕 단둥시 국경검문소, 북한행 특별열차 운행 시작

(6.7인민망)

- 6.1일, 10시, 192명의 중국 관광객을 실은 북한행 특별열차가 中·北 우의교를 통과하면서 2012년 단둥~북한행 특별 열차의 정식 운행이 시작되었음.
- 2010.4.12일 북한이 해외단체관광 목적지로 전면 개방되면서 매년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의 80%인 10만 명이 이곳을 통해 출입국 수속을 함.



### ○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헌법화를 반대해야 한다.(6.2 환구망)

- 북한의 핵보유국 헌법 명기화에 중국이 韓·美처럼 연합해 압력할 필요는 없지만 공개적 비난을 통해 핵보유 합법화를 명확히 반대해야 함.

핵보유는 북한의 기정방침으로 보이며 핵보유를 비롯하며 자신들의 다른 이익 수호를 위해 '한 걸음 후퇴, 두 걸음 전진'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설사 이런 노력이 통하지 않더라도 핵보유와 관련된 북한의 모든 위험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양국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호 관계가 중국의 태도를 제한하는 역사적 이념이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보유가 합법화되면 韓·日의 핵보유에 대한 욕망을 더 자극할 것이고 이어서 대만의 핵무기화를 가져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중국 대륙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이므로 대만이 핵보유하기 전에 중국은 통일을 이뤄야 한다.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입장을 찬성한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지만 객관적으로 韓·日의 핵무기 욕망을 억제하고 있다.

핵확산 저지는 中·美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핵비확산조약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선택을 반대해야 한다.

북한 핵보유국 헌법 명기화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 반대가 실효가 없을지라도 전체 지역의 핵비확산 분위기는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책임있는 大國으로서의 이미지 수립에 도움이 된다.

북한의 과도한 행동에 중국이 불모로 잡혀서는 안되며 중국은 원칙에 근거해 계속해서 북한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中·北 관계의 기본은 우호적으로 상호 전략적 이익과 안보를 존중해야 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 이에 북한이 이런 기본에 근거해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 對北관계는 복잡한 정치이다. 그러나 중국은 원칙과 최소한의 범위를 지키면서 어려움과 일부 전략관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견을 내세우고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
- 북한도 이에 적응해야 하며 양국 관계가 민감해져서는 안되며 긴장된 관계가 지속되면 서로의 전략을 오해할 수 있다.
- 탁자에서 할 말이 있으며 직접 탁자로 나와 얘기하면 된다. 中·北 관계가 이러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 현재는 제3차 핵실험을 방지해야 한다. 평양이 다시 '한 걸음 후퇴, 두 걸음 전진'으로 최소한의 원칙을 깨트린다면 동북아의 안보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을 권고하는 것 외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한다.
- 지금까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옳았다. 복잡한 中·美관계에 있어 中·北관계의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 정세가 변하고 있으므로 양국 관계에 있어 중국이 이러한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북한 핵보유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대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책임이다.
- 북한이 비록 기뻐하지 않겠지만 중국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할만큼 中·北관계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일본어권

### ○ 北의 방해전파 강해지다.(6.8 TBS뉴스)

- 김정은 체제 후 북한이 발신하는 방해전파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함.
-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파방송 '시오카제'는 자주 방해전파로 인해 주파수를 변경해 대응해 왔음.

2012.6.8(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주파수를 변경하면 방해전파가 1주일 간 멈췄지만 김정은 체제 후 특히 최근 들어 변경 후 3일 이내에 다시 방해전파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함.
- 조사회에서는 '北의 방해전파 발신장소가 200곳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과거 이상으로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에 민감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함.

## □ 러시아어권

### ○ 北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이끌어 내야 한다.

(6.7 콜로스 러시아)

- APEC 개최와 관련한 역내통합 움직임이 있지만,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북한과 몽골임.
- 과거 중국은 북한의 NPT 탈퇴 및 핵실험 감행 이전, '북한이 APEC 회원국이 되고 싶어 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현재는 先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및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며, 북한의 APEC 회원국 가입과 관련한 성급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사태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임.
-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APEC 참여를 '자유주의 참여' 및 '미약한 개방'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새 지도자 등장으로 이러한 가능성이 촉진되고 있다고 보고있음.
- 「알렉산드르 제빈」(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한국센터 소장),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북한 초청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김정은 초청은 북한이 더욱 책임의식을 갖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해야겠다는 인식을 깨우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도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함.
- 현재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APEC 회원국들은 북한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북한의 현재 이미지를 비취볼 때 참석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음.

2012.6.8(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하지만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는 위험·비생산적인 행동을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방법을 취해야 함.
- 이에 있어서 러시아는 철도건설·가스공급 관련 경험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임.

o 南·北·러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사실상 동결상태다.

(6.7 모스크프스코에 노보스티 報 일간지)

-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가스프롬 부사장),
  - ‘현재 극동지역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다.’
  -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추가 생산량 규모는 연간 최대 약 1,000만 톤, 총 2,500만 톤이 될 것이다.’
  - ‘수출 목적의 가스관 건설 문제는 LNG에 대한 투자결정 채택 및 승인 후 다뤄지게 될 것이다’고 밝힘.
- 금번 가스프롬 부사장의 발언은 북한을 통과하는 對韓 수출용 가스관 프로젝트가 미뤄졌음을 시사함.
- 러시아 정부는 상기 프로젝트와 관련한 논의를 지난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성급하게 재개했지만, 프로젝트는 사실상 동결상태라고 메드베데프 부사장은 밝힘.

## 붙임 1. AP통신 보도 원문 (6.7)

### AP통신 홈페이지

"In autocratic NKorea, inequality assigned at birth"

- o The study released Wednesday by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ays all adults in the socialist state are categorized as one of three classes: loyal, wavering or hostile. Despite the emergence of informal markets since the late 1990s challenging state control, the study says the class system persists and is behind the discrimination and abuses faced by the lowest echelons of the North's closed society.
- o The study, titled "Marked for Life," is based on interviews with 75 North Korean defectors, including as recently as 2011. It also cites a 1993 manual issued by North Korea'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to guide its officials on how to investigate a citizen's socio-political classification, or "songbun," which translates in Korean as "ingredients."
- o "Throughout its 64-year existence, the Kim regime has claimed that North Korea is an egalitarian workers' paradise," said the committee's executive director, Greg Scarlatoiu. "Yet, inequality is assigned at birth, perpetuated throughout a person's lifetime and cruelly enforced by those in power to benefit themselves and their supporter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nies such a discriminatory class system exists.
- o Lee Sung-min, a North Korean defector living in Seoul,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Associated Press that because his late grandfather was accused of collaborating with the Japanese during the 35 years Japan ruled South Korea as a colony, his family was stigmatized by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he was blocked from joining the Workers' Party or entering the school he wanted to attend. "No one is free from songbun in North Korea," Lee said.
- o The study says the ministry maintains a file on everyone from the age of 17 that is updated every two years.
- o When an individual is sentenced to the North's gulag of political prison camps — estimated to hold 150,000-200,000 people — family members are considered guilty by association and generally accompany them, the study says.



AP통신 홈페이지

- o Today the loyal class, which makes up about a quarter of the 24 million population, still dominates the powerful military and the Workers' Party. They alone are entitled to live in the relatively prosperous capital Pyongyang and monopolize the prestige universities and best jobs, the study says.
- o Marrying someone with poor songbun likely would exclude that individual from party membership, causing severe consequences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quality of life, it says.
- o Roberta Cohen, co-chairman of the rights group, says money, bribery and corruption recently have begun to erode the songbun system because of the emergence of informal markets and the scope for paying officials for favors. But she said songbun's main elements remain in place, "guaranteed by a complete absence of political freedom."
- o The study says a slang has developed around the songbun system, wherein the loyal class are referred to as "tomatoes" that are red on both the inside and outside, so are good socialists. Those of the wavering class are "apples" that are only red on the outside, and the hostile class is known as "grapes" —considered politically unredeemable.

## 붙임 2. Heritage Foundation 보도 원문 (6.5)

Heritage Foundation 홈페이지

### "Don't Skimp on South Korean Missile Range"

- o Washington has been reluctant to allow South Korea to extend the range of its ballistic missiles due to concern that doing so would undermine nonproliferation and arms control initiatives or spur an arms race in northeast Asia. But Seoul's voluntary self-restriction did not prevent North Korea from developing missiles that can reach all of South Korea. Nor did it prevent Pyongyang from selling its missiles to a rogues' gallery of nations such as Iran and Syria.
- o South Korean media report that the United States is now considering allowing Seoul to extend its missiles to 550 kilometers. Doing so would be an improvement but still insufficient for South Korean defense

Heritage Foundation 홈페이지

needs. Instead, America's critical ally should be allowed to extend its missile range to 800 - 1000 km (the length of the Korean Peninsula) so it can have a sufficiently robust indigenous military to deter, defend, and defeat hostile North Korean actions.

- o North Korea may choose in the future to use, or threaten to use, Scud missiles to pressure Seoul. An inability to defend against the North Korean missile threat would leave South Korea more susceptible to North Korean influence. To counter this threat, Seoul should be allowed to extend its ballistic missile range. Doing so would augment a comprehensive array of South Korean and allied security capabilities to deter and, if necessary, defeat North Korea's coercive diplomacy and military attacks.

### 붙임 3. 중국 인민망 보도 원문 [6.7]

인민망 홈페이지

“辽宁丹东边检站：赴朝旅游专列开始启运”

- o 6月1日10时，辽宁丹东至朝鲜的国际旅游专列载着192名游客通过中朝友谊桥赴朝鲜旅游，从这一天开始2012年丹东口岸赴朝国际旅游专列正式启运。
- o 自2010年4月12日，朝鲜被正式新增为中国公民组团出境旅游目的地国家。每年我国赴朝旅游80%游客，近10万游客从这里出入境。丹东边防检查站在口岸设置边境旅游专用通道;实施提前预报预检制度;成立口岸服务小分队;开设旅游专线咨询电话;验放每名游客不超过10秒;设立旅游宣传功能区等服务措施，为赴朝旅游团体营造了优质、高效、便捷的通关环境。

### 붙임 4. 중국 환구망 보도 원문 [6.2]

환구망 홈페이지

“中国应反对朝鲜将拥核“宪法化””

- o 朝鲜日前宣布已将建设“有核国家”写进宪法，美韩公开表示反对。中国不应同美韩等合为“一股力量”压朝鲜，但中国也有必要对朝鲜的做法做公开批评，明确反对朝鲜试图将“有核”合法化。

한구망 홈페이지

- 拥核看起来已是朝鲜的既定方针，朝鲜的目的是熊掌和鱼两者兼得，既要拥核，又要维护自己的其他利益，因此在核问题上退一步、进两步。
- 中国应为阻止或延缓朝鲜拥核做出努力，即使不管用，也要公开反对朝鲜拥核的每一个危险动作。在对朝问题上，两国友好史应成为帮助彼此坦率沟通的资源，而不应变成限制中国表态的历史和意识形态包袱。
- 朝鲜拥核一旦事实上“合法化”，必将再次刺激日韩的拥核冲动，并有可能带来台湾也要求核武化的连锁反应。那将是中国大陆面临的巨大挑战。中国必须在台湾拥核之前完成统一，否则这一历史窗口何时重开将遥遥无期。
- 中国应对美国反对东亚国家拥核的态度给予肯定。美国反对朝鲜拥核虽然是自身利益使然，但客观上压制了韩日的核武要求，抽走了多米诺骨牌中关键的两张。制止核扩散应是中美在东亚合作面最多的领域之一。
- 中国应坚持核不扩散条约的基本原则，反对朝鲜的核武装选择。中国公开反对朝鲜将“有核国家”写入宪法很可能不会有实际效果，但这会加强整个地区反核扩散的氛围，也有助于塑造中国负责任大国的形象。
- 不应让朝鲜的各种过激行为绑架中国，中国应保持在原则问题上不断向朝鲜表明立场的自由。处好中朝关系的“常识”应是友好相处，互相尊重对方的战略利益和安全关切，而现在的问题是朝鲜不断出轨。必须让朝鲜在两国关系上回归“常识”。
- 对朝关系是复杂的政治，但中国一定要坚守原则和底线，不被各种包袱和一些想象中的战略关系误导，力求从意见到举措的务实。朝鲜应逐渐对此适应，两国关系不能永远“敏感”下去，从长远看那会误导两国对彼此的战略判断。有些该放到桌面上的话不妨就放到桌面上，相信中朝关系能受得起这种实事求是的洗礼。
- 朝鲜把“有核国家”写入宪法尚属“文攻”，现在最应防止其搞第三次核试验，假如平壤再次通过“退一步，进两步”策略强行突破这一底线，那将是东北亚安全难以承受之重。除了内部劝说，中国应把反对声现在就大声讲出来。
- 中国这些年的半岛政策总体上是对的，稳定中朝关系的大局对一言难尽的中美复杂博弈很重要。由于形势在变，中国在维系中朝关系的方法上做些调整大概无可避免。
- 对朝鲜拥核采取更严厉的态度决不仅仅是为了中国的利益，因为中国为地区负责，包含了为朝鲜负责。朝鲜虽然不高兴，但我们应当有信心，它能够接受并适应中国的做法。中朝关系没那么脆弱。

## 붙임 5. 일본 TBS뉴스 보도 원문 (6.8)

### TBS뉴스 홈페이지

“「しおかぜ」北朝鮮の妨害電波激しく”

- 特定失踪者問題調査会が会見し、北朝鮮向けに放送している短波放送「しおかぜ」が、キム・ジョンウン体制になって以降、北朝鮮からの妨害電波の発信が激しくなっていると述べました。
- 「この6月3日、北朝鮮が『しおかぜ』にかけている妨害電波の音を聞いて頂きます」(特定失踪者問題調査会 村尾建児 専務理事)
- 北朝鮮向けに拉致被害者や特定失踪者のメッセージを放送している短波「しおかぜ」は、たびたび北朝鮮からの妨害電波を受け、周波数を変更し対応しています。
- 調査会によりますと、これまで周波数を変更すると妨害電波が1週間程度止まっていたものが、キム・ジョンウン体制になって以降、特に最近は変更後3日以内で妨害電波を受けることが多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 調査会では「北朝鮮の妨害電波の発信箇所は200か所位あることが確認されており、北朝鮮が今まで以上に外部からの情報流入に敏感になっ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と分析しています。

## 붙임 6.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6.7)

###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За порогом АТЭС. Монголия и КНДР - кого позовут?”

-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есть два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ые, несмотря на региональную общность с проектом АТЭС, не входят в него. Существуют л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сширения Форума за счет эт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гроков - Монголии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К слову, еще до выхода КНДР из ДНЯО и известных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КНР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ляла о том, что "Пхеньян хочет стать членом Форума" и что Пекин окажет ему поддер

##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жку. Сегодня заявления Китая иные - необходим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ирным способом урегулировать напряже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новь запустить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и пр. Относительн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ерспектив в АТЭС Пекин наблюдает и ждет, не делая опрометчивых заявлений.

- Западные эксперты рассматривают сценарий сближения КНДР с АТЭС как возможность некоего "либерального вовлеч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и один из вариантов "мягкого открытия" страны. Смена руководства и приход к власти молодого, неопытного Ким Чен Ына, по мнению ряда американских ученых, способствует его реализации. Часть росси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в частности известный кореевед Александр Жебин, предлага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самми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для приглашения КНДР, но уже с других позиций. По его мнению, приглашение молодого Кима смогло бы побудить Пхеньян "к более ответственному и предсказуемому поведению", а,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заставить пойти "н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по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 Вряд ли сообщество АТЭС (кроме Китая и России) положительно воспримет визит молод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на саммит. Сложившийся имидж республики пока не работает на эту поездку.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льзя Пхеньян загонять в угол. Это опасно и непродуктивно. Лучше говорить с ним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поставках газа на языке денег и взаимной выгоды. И здесь Россия может обойтись и без "переводчика", но разговор с северокорейцами нужно начинать уже сегодня, поскольку завтра может быть уже поздно.

## 붙임 7. 러시아 모스크프스큐에 노보스티 보도 원문 (6기)

## 모스크프스큐에 노보스티 일간지 홈페이지

“От заката до рассвета”

- Александр Медведев заявил вчера, чт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безусловный приоритет теперь отдан проектам по сжиженному природному газу. Мощност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ак минимум 10 млн т в год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в Приморье

### 글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жку. Сегодня заявления Китая иные - необходим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ирным способом урегулировать напряже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новь запустить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и пр. Относительн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ерспектив в АТЭС Пекин наблюдает и ждет, не делая опрометчивых заявлений.

- Западные эксперты рассматривают сценарий сближения КНДР с АТЭС как возможность некоего "либерального вовлеч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и один из вариантов "мягкого открытия" страны. Смена руководства и приход к власти молодого, неопытного Ким Чен Ына, по мнению ряда американских ученых, способствует его реализации. Часть росси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в частности известный кореевед Александр Жебин, предлага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самми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для приглашения КНДР, но уже с других позиций. По его мнению, приглашение молодого Кима смогло бы побудить Пхеньян "к более ответственному и предсказуемому поведению", а,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заставить пойти "н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по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 Вряд ли сообщество АТЭС (кроме Китая и России) положительно воспримет визит молод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на саммит. Сложившийся имидж республики пока не работает на эту поездку.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льзя Пхеньян загонять в угол. Это опасно и непродуктивно. Лучше говорить с ним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поставках газа на языке денег и взаимной выгоды. И здесь Россия может обойтись и без "переводчика", но разговор с северокорейцами нужно начинать уже сегодня, поскольку завтра может быть уже поздно.

## 붙임 7. 러시아 모스크프스큐에 노보스티 보도 원문 (6.7)

### 모스크프스큐에 노보스티 일간지 홈페이지

“От заката до рассвета”

- Александр Медведев заявил вчера, чт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безусловный приоритет теперь отдан проектам по сжиженному природному газу. Мощности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ак минимум 10 млн т в год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в Приморье

모스크프스쿠에 노보스티 일간지 홈페이지

и на Сахалине, а возможно, и все 25 млн т, сказал Медведев. Вопрос строительства экспортных трубопроводов может встать в повестку тольк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решения по СПГ будут приняты и реализованы.

- Это значит, что помимо восточного китайск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Газпром» отложил в долгий ящик и проект экспорта по трубе в Южную Корею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который был срочно реанимирован Кремл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ак рецепт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после смерти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Ира, по словам Александра Медведева, проект фактически заморожен.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핵실험 부인에 대한 美 전문가 견해 (6.10 블룸버그통신)

- 인공위성 사진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23일 핵실험 계획이 없음을 밝힌 후 6.9일 이를 또 부인함.
- 「다라 파라디소」(美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
  -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부인을 환영하지만 식량지원 재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원하지만, 영양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분할 것이라는 북한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 「데이비드 맥스웰」(美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센터 부소장),
  - ‘미국의 식량지원 중단 이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 계획에 대한 어떤 발표도 경제적 양해를 위한 협상카드가 될 수 없음을 계산하고 있다.’
  - ‘북한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약해질 때까지 핵 실험을 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를 진정시키려고 할 것이다.’
- 「조너선 폴락」(美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의 핵실험 부인은 2012.12월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이며, 지금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면 북한과 긴밀히 연계할 진보적 후보의 당선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 ‘현재 북한의 말은 얼버무리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핵실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지금 핵실험을 할 계획이 없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



○ 北, 생화학 무기를 이용해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

(6.6 세계정책연구소)

- 「브루스 베넷」(美 국방·안보 전문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 박사)은 南·北 전쟁 게임을 3단계로 분석함.
- ‘첫 단계에서 북한 지도자는 자국의 쿠데타를 막기 위해 주위를 딴 데로 돌려 한국 침입을 결정한다.’
-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례적인 침략을 포기하고 생화학 무기 사용 여부 및 효과적인 사용법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 ‘미국 전략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 미국이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에 대응할 것으로 믿고 있다.’
- ‘적국은 독가스의 일종인 사린의 살포를 종료하고 미국과 동맹국이 방독면을 벗게 해 차기 생물무기 사용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 ‘두 번째 단계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예비군사단의 공습으로 실수를 만회하려 하지만, 적국은 동맹국의 예비군사단에 탄저균을 살포하며 대응한다.’
- ‘그러나 동맹국이 탄저균에 대한 백신과 항생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국의 접근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의 침략이 실패하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반격을 준비한다.’
- ‘적국은 부산에 핵 공격으로 대응하는 한편, 동맹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대항세력을 확대한다.’
- ‘전쟁게임의 교훈은 △미국은 적국의 생화학 무기 사용을 저지하고, △미국과 동맹국은 생물학 무기 위협에 대비하여 부대를 방호해야 하며, △미국은 미사일 방어 등으로 자국 및 동맹국 보호를 위해 적국의 핵부대를 즉시 무장 해제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

o AP 평양지국, 악마와 손잡았나. (6.11 The Australian)

- 지난 1월 AP가 서방 언론사 최초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한 것은 표면상으로는 대단한 업적이며 유사시 AP는 로이터나 AFP같은 경쟁사들보다 유리하겠지만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AP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비판함.
- AP와 조선중앙통신의 긴밀한 협업은 AP의 편집권 독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AP 평양지국은 조선중앙통신 빌딩 내 위치하고 있으며, AP는 「이준희」 AP 서울지국장과 「데이비드 구텐펠더」 AP 아시아 사진부장이 평양에 없을 때 사무실을 운영할 조선중앙통신 직원 2명을 채용함.
- 대북 포용을 옹호하는 북한 전문가들은 AP 평양지국 개설을 반겼지만 일각에서는 AP가 정치범 수용소, 고문, 처형, 기아 등의 실상은 무시한 채 북한이 승인한 편파적 내용만 보도하고 있다고 비난함.
- 「레오니드 페트로브」(시드니大 북한 전문가),
  - ‘AP 기자들은 북한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인터뷰하지 못할 것이며 조선중앙통신사 직원 2명은 첩보 요원이나 다름없다.’
  - ‘AP는 부정하고 있지만 북한을 나쁘게 묘사하지 않겠다는 비밀계약을 맺지 않은 한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정부가 AP 평양 지국 개설을 허락했을 리가 없다.’
- 「피터 벅」(아시아 재단 북한 전문가),
  - ‘AP가 북한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한다면 사실상 평양 지국에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 ‘북한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항상 대가가 따르며 북한과의 거래는 악마와의 거래와 다름없다.’
- 아직까지 AP는 이러한 비난에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음.

- 「캐드린 캐롤」 AP 편집국장의 최근 美 NPR과의 인터뷰,
  - ‘보도를 검열당하는 것과 북한에서 쫓겨나는 것 중 선택해야 한다면 AP는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 ‘답을 얻든 얻지 못하든 북한에서 여러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예 거기 있지 않는 것보다 낫다.’
- 언론계는 AP 평양 지국 관련 구체적 사항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20개 이상의 질문을 보내 AP측의 답변을 요구했음.
- 「폴 콜포드」 AP 공보국장은 질문에 대해 ‘우리의 노력에 대한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며 답변을 거절했음.
- 「콜포드」 국장은 ‘AP의 평양 지국 개설로 북한 고위 간부와 인터뷰, 서방 매체로는 유일한 김정일 장례식 현지취재 등 단독 보도,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강조함.

## □ 중국어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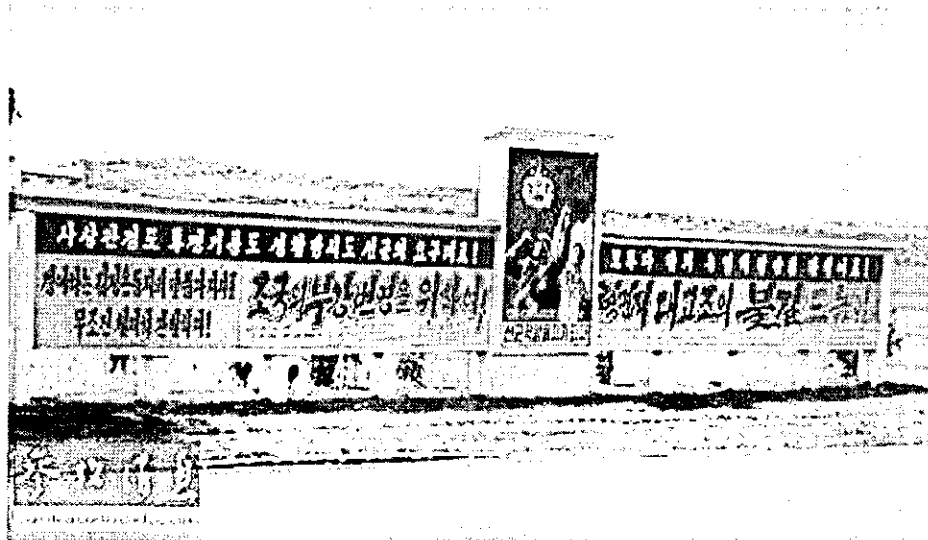
○ 北, 전투태세로 쏠 국민이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6.8 국제선구도보 ☞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지)

- 4월부터 시작된 가뭄에 맞서 6월 초, 평양 교외의 논밭에서는 농민들이 서둘러 파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됨.
- 현재 북한은 가뭄에 대응해 전국적으로 국민이 동원되어 농업 생산을 위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음.
- 5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도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5.27, 30, 31일 약간의 이슬비만 내려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음.
- 평양시와 교외에서는 저수지, 하천에서 물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과 물통을 이용해 녹지대에 물을 주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음.
- 가뭄으로 주민들의 물 사용 제한 및 일부 지역의 수질에도 영향을 미쳤음.

2012.6.11(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5월 중순, 기자가 방문한 평양 순안의 中朝우호협작농장은 모내기 작업이 한창이었으며 1/3정도 완성한 상태였음.
- 모내기 전투장의 한 농민은 '올해는 봄이 늦게 왔으나 갑자기 더워져 농작물 성장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모든 인원이 동원되어 黨의 농업생산 혁명방침을 관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음.
- 전투장(작업현장)에는 '김정은 동지의 지시를 무조건 관철하자'는 표어 아래 각계각층의 노동자들이 일손을 돕고 있었음.
- 5.30일, <민주조선>은 '가뭄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말자', '모내기 어느 정도 완성', '매일 목표 초과 달성' 등 가뭄 대응 관련 보도가 많았음.



○ 북한산 석탄 수입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6.8 국제석탄망)

- 최근 르자오(日照)항<sup>15)</sup>의 북한 무연탄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시장이 위축되어 가고 있음.
- 6월 들어 제련소의 원재료 재고가 증가하면서 보조재료로 사용되는 북한산 무연탄 수요도 계속 줄어들고 있음.
- 시장 수요 감소로 르자오 항의 북한산 무연탄 시장의 위축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15) 르자오 항 : 산둥성에 위치한 중국의 대표적 광석 수입 항구

## □ 러시아어권

- 러, 對北 인도주의 지원에 착수했다. (6.8 baikal24 지역 언론사)
  - UN산하 세계식량계획 차원에서 러시아연방 비상사태부 (EMERCOM), 알타이지역 제분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對北 인도주의 지원에 착수했음.
  - 향후 밀가루 총 6천 톤을 북한에 공급할 예정이며, 1차분은 이미 6월 초 보내졌음.
- 러·北 외교 관계자,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6.7 외무부 홈페이지)
  - 6.7일 북한측의 요청으로 마르굴로프(외무부차관, 6자회담 수석대표), 김영재(駐러 북한대사)가 회동함.
  - 양측은 상호관계 현안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 일본어권

- 김정은 생모 영상 공개의 의미 (6.10 하신기 블로그)
  - 김정은의 생모영상 공개는 사실관계를 직시하는 김정은의 정보공개 노선의 일환임.
  - 정보 유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北 공군 전투기 비행 급증한 배경 (6.9 하신기 블로그)
  - 비행횟수의 급증은 연료부족이 해소됐다는 점을 말해줌.
  - 그 배경에는 경제회복이 있음. 작년 中·北무역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56억 달러였으며, 올 1/4분기 때는 전년 대비 30~40% 증가함. 연간 80~100억 달러에 달할 기세임.
  - 이는 김정은 체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정책에 나서고 있는 결과임. 先代는 시장경제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지만 스위스에서 생활한 김정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 日 방위상, '北의 위협 심각한 상황 계속될 것이다.' (6.8 산케이)

- 「모리모토 사토시」(방위상),

· '북한의 새로운 리더가 어떠한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지 아직 다 보이지는 않지만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 '계속하여 일본에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

○ 北 핵실험 계획이 없다면 미국과의 대화를 노린다.

(6.9 교도통신)

- 핵실험 계획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함으로써 중단된 美·北대화 재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상태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붙임 1. 블룸버그통신 보도 원문 (6.10)

블룸버그통신 홈페이지

“North Korea Says It's Not Planning Nuke Test 'At Present'”

- o North Korea first denied planning an atomic weapon test on May 23, though satellite photos have since indicated preparation activities at sites for a rocket launch and a nuclear test.
- o While the U.S. State Department welcomes the North Korean statement as a sign of understanding, it isn't considering resuming food aid, Darragh Paradiso, a spokeswoman for th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aid in a written statement. We want to assist the North Korean people, including by providing nutritional assistance, but we cannot do so when we no longer have confidence that the DPRK will follow through on its implementation commitments to ensure that nutritional assistance reaches those in need,” Paradiso said.
- o With raised expectations for a nuclear test since the U.S. canceled the food deal, North Korea may now be calculating that any announcement of plans for a test would no longer be a useful bargaining chip for economic concessions, said David Maxwell, associate director of the Center for Security Studies at Georgetown University in Washington. “They might be trying to lu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o thinking they're not going to conduct a test until the expectations die down,” Maxwell said in an interview.
- o North Korea's latest statement may be aimed at influencing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said Jonathan Pollack, a senior fellow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in Washington. Any plan for a nuclear test now would weaken the chance of South Koreans electing a progressive candidate who might seek closer ties to North Korea, he said. “That's a political calculation they may be making,” Pollack said in an interview. “There's been a very hedged quality in what North Korea has been saying for a while now,” Pollack said. “It doesn't mean they're going to preclude a test.” With North Korea saying it has no plans “at present” to conduct a test, Pollack said of the new statement, “There's wiggle room in it of a significant sort.”

## 붙임 2. 세계정책연구소 게재 원문 (6.6)

세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 "Anatomy of a War"

- o Consider a game where the objective is to learn how to respond to attacks by North Korea on South Korea u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game is set at a time when North Korea has fielded nuclear warheads for its ballistic missiles, seeking to test U.S. responses to this threat. The anatomy that follows examines how the players might act in three periods of the war game.
- o In the first period, the North Korean leader has already decided to invade South Korea, likely as a diversionary conflict to avert a developing coup in Pyongyang. The Red team (the military leadership) knows that most experts expect North Korea to lose a conventional invasion. Red must therefore decide whether to use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BW), and if so, how to use them effectively. Red knows that CBW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for the attacker, especially higher attrition to and disruption of Blue forces. U.S. strategy does not reserve a unique capacity to respond to North Korean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Historically, South Korea has believ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respond to North Korean CBW use with nuclear weapons, but that's now widely seen as unlikely as official American policy seeks to avoid nuclear weapon use except to counter nuclear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Red team actions in the timeline try to make CBW use effective, including a deceptive provocation to mislead Blue and the use of sarin gas to cause Blue casualties with a non-persistent chemical that does not impede the North's advance. Red then terminates its use of sarin, leading Blue to remove its protective masks, making Blue vulnerable to biological weapons whose use may follow.
- o In this game, the White team wants Blue to learn how to deal with a battlefield failure and thus sets up the second period by adjudicating the collapse of a forward Blue Army division. Blue handles this failure with air strikes and by committing a reserve division—while Red counters the Blue response by using anthrax, a biological weapon, against the reserve division. But the Red approach is not very effective since Blue has used vaccines and antibiotics against anthrax.



세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 o The third situation occurs at the point where the North Korean invasion fails and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prepare a counteroffensive against the North. The Red team responds with a nuclear attack on Pusan, which causes several hundred thousand fatalities and serious injuries. The Blue team launches a counterforce effort to destroy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ncluding using some U.S. nuclear weapons in fulfillment of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commitment to South Korea, as included in the June 2009 "Joint Vision" statement by President Obama and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 o This war game provides several lessons. First, the United States needs some separately identifiable means for deterring CBW use by a desperate adversary who has decided to go to war. The United States should strongly prefer to deter CBW use, and not just defeat or defend against it. Secon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need to protect their forces against a range of biological weapons threats. Finally, when threatening the survival of a nuclear armed adversary, the United States must be prepared to promptly disarm that adversary's nuclear forces or otherwise to protect itself and its allies with missile defenses or other methods.

### 붙임 3. The Australian 보도 원문 (6.11)

The Australian 홈페이지

"Pyongyang bureau a coup for AP, or pact with devil?"

- o ON the face of it, Associated Press scored a big coup in January when it became the first Western media outlet allowed to open a bureau inside secretive North Korea. And, in the event of a collapse or uprising, the New York-based news agency would have a major advantage over its rivals Reuters and Agence France Press.
- o It has been hit by criticism from within the small but active community of North Korea-watchers that it has entered into a Faustian bargain with the most evil regime in the world. There's no question that AP has found its subscribers keen for its Pyongyang content, but its close

The Australian 홈페이지

collaboration with state-run media KCNA has brought questions of editorial independence.

- o The AP bureau is believed to be housed within KCNA's Pyongyang offices and AP has hired two KNCA staff to operate the bureau during the periods that correspondent Jean Lee and photographer David Guttenfelder are not there.
- o The arrangement has generated praise from pro-engagement Korea scholars, but in the other corner are those who argue that AP is presenting a false, regime-sanctioned picture of North Korea that ignores the gulags, torture,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starvation.
- o University of Sydney Korea scholar Leonid Petrov, who has led many trips to North Korea, is broadly supportive of AP's move. But he says AP correspondents would not be allowed to interview anyone not authorised by the government and the two staff from KCNA were essentially government agents.
- o He says KCNA and the regime would never have agreed to allow AP to be in Pyongyang unless the agency had reached a gentlemen's agreement "not to portray North Korea in a damaging light" -- something AP denies.
- o But another leading Korea scholar, the Asia Foundation's Peter Beck, says the arrangement had not been a success so far and had the potential to sully AP's reputation. "The simple fact is, they wouldn't be able to keep their office if they were reporting accurately about what's happening in Pyongyang. You cannot do both," he says.
- o Beck says engaging with North Korea always comes at a price and, while there is the potential for a huge payoff if there is a collapse or other momentous event in North Korea, AP is not currently getting much in exchange for this price. "Any deal with North Korea is basically a deal with the devil," he says.
- o So far, AP is yet to really engage on these criticisms and has released no details of the contract it has struck to operate in North Korea. In a recent interview on National Public Radio in the US, executive editor and senior vice-president Kathleen Carroll strived to assert AP's editorial independence.

The Australian 홈페이지

- o She said if forced to choose between censoring coverage and been booted out of North Korea, AP would choose the latter. "It's much better to be there and be able to ask questions whether or not you get all the answers that you might seek than it is to not be there at all," she added.
- o Media put a list of more than 20 questions to AP about the details and ethical considerations of its operations in North Korea and requested an interview with the correspondents involved or an executive involved establishing the bureau.
- o AP's director of media relations, Paul Colford, initially promised an interview with one of the players involved in setting up the bureau but rescinded the offer after receiving the questions, saying they suggested "a highly sceptical view of our efforts".
- o Colford says AP's efforts in North Korea have yielded a string of exclusive reports, pictures and videos including interviews with a senior politburo member and the sole Western in-country reports of Kim Jong-il's funeral.

**붙임 4. 중국 국제선구도보 보도 원문 (6.8)**

국제선구도보 홈페이지

“朝鲜全民以“战斗姿态”抗击旱灾”

- o 5月16日, 朝鲜农民在有“为了祖国的繁荣富强, 掀起革命的火热高潮”等标语牌的稻田插秧。6月初, 在平壤郊区的水稻田里, 农民们集中抢种补种, 一派忙碌景象。从4月份开始, 朝鲜便持续少雨。朝鲜气象水文局表示, 朝鲜正在遭遇50年不遇的干旱。目前, 朝鲜正举国上下全民动员支援农业生产, 全力投入抗旱工作。
- o 朝中社6月2日报道说, 朝鲜出现了更严重的干旱, 从4月开始朝鲜除了北部内陆地区外大部分地区持续干旱, 目前各地正投入抗旱工作, 大力寻找水源, 提高水资源利用率。据《国际先驱导报》记者在平壤的感受, 这里整个5月没有痛快地下过一场春雨, 只在5月27、30和31日的早晨, 有几阵地面沾湿程度的毛毛雨, 这对缓解旱情无法起到实际作用。
- o 在平壤市的城市和郊区, 不时会看到提着水桶在水池、河渠打水的市民, 在平壤市主要大街两旁, 经常可以看到工人用水桶打水浇灌绿化带。有消息说, 持续干

국제선구도보 홈페이지

旱对居民用水造成一定程度的影响，部分地区的水质也受到影响。本报记者5月中旬在平壤顺安区宅庵中朝友好合作农场看到，农民正在水田里辛勤劳作，大片的水田大约仅有三分之一完成插秧，剩下大面积还在劳作之中。

- 插秧育苗“战斗场”上（指生产建设现场的朝鲜特色表述）的农民说，“今年从冬到春天气转暖的晚，但一下子热得快，比常年温度高。不利于作物生长。我们全体动员，彻底贯彻党农业生产的革命方针”。在“战斗场”上，“思想观念、斗争风气、生活方式全部按照‘先军’的要求”、“无条件彻底贯彻金正恩同志的指示”的标语下，各行各业的劳动者纷纷前来帮农，“祖国兴衰，匹夫有责”。
- 朝鲜内阁机关报《民主朝鲜》5月30日更以多篇文章报道抗旱进展，《将所有力量集中于同旱作斗争》，《不浪费一滴水》、《已完成基本面积的插秧》、《每天都比计划多完成（插秧面积）》等文章见诸报端。

**붙임 5. 중국 국제석탄망 보도 원문 (6.8)**

국제석탄망 홈페이지

“进口朝鲜无烟煤市场继续走弱”

- 近期日照港朝鲜无烟煤市场持续弱势运行态势，现货报价不断走低。现朝鲜无烟煤A17提货价790元/吨，A15提货价820-830元/吨。据市场了解，进入6月份以后，随着钢厂降原料库存力度的加大，作为配煤使用的朝鲜无烟煤需求量继续下滑，港口库存持续高位盘整，整体出货情况始终不太乐观。目前港口成交稍好的品种依然以15-17个灰的指标为主，13、14个灰的指标鲜有成交。笔者认为，受下游钢市持续疲软的需求限制，短期内日照港朝鲜无烟煤市场或继续延续下行走势，行情难有改观。

**붙임 6. 러시아 baikal24 보도 원문 (6.8)**

baikal24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Алтайские мукомолы не дадут умереть с голоду северным корейцам”

- Россия оказывает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в рамках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ОН. Агентство «Эмерком» М

baikal24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ЧС России, которое координирует участие нашей страны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гуманитарных операциях, заключило ряд контрактов с алтайской мукомольной компанией «Алтайские мельницы». Муку, произведенную по этим контрактам, отправят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краевом Управлении пищевой,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и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мука вырабатывается на мельнице №2 Коротоякского элеватора, который входит в группу предприятий «Грана» (соучредитель компании «Алтайские мельницы»). Там установлено современно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бщий объем отгруж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составит 6 тысяч тонн. По информации чиновников, первая партия алтайской витаминизированной муки с особыми заданны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качества была отправлена в КНДР в начале июня.

## 붙임 7. 러시아 외무부 게재 원문 (6.7)

외무부 홈페이지

“О беседе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И.В.Моргулова с Послом КНДР в Москве Ким Ён Джэ ”

- 7 июня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В.Моргулов принял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Москве Ким Ён Джэ по его просьбе.
- В ходе беседы состоялся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а также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붙임 8. 일본 하신기블로그 보도 원문 (6.10)

### 하신기 블로그 홈페이지

“元在日の金正恩実母公開の意味 ”

- 金正恩第1書記の実母で元在日朝鮮人の高英姫を神聖化する記録映画『偉大な先軍朝鮮のお母様』が先代の健康が悪化した昨秋、労働党中央委員会によって再編集され、今年5月から軍中堅幹部らに公開されていると、今日の毎日新聞が一面トップで報じた。
- 「複数の北朝鮮経済関係者」から入手したようだが、李英和の「北朝鮮中枢」よりはよっぽど信用できる。
- と言うのも、基本的な事実関係は私が『金正日の後継者は在日の息子』（講談社）で明らかにしており、目新しいことは何もない
- 注目すべきは、この時期に公開した意味である。毎日は「体制の正統性に傷をつけかねない」と心配するが、そうしたチマチマした問題ではない。
- 「事実関係を直視」する金第1書記の情報公開路線の一環とみた方がよい。情報の流れに通じているので、つまらんことにエネルギーを浪費する必要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 北には改革開放の実を挙げるのが何よりも求められている。第1書記もブレインたちもそれを十分に理解している。

## 붙임 9. 일본 하신기블로그 보도 원문 (6.9)

### 하신기 블로그 홈페이지

“北朝鮮空軍が活発化 背景には？”

- 韓国軍当局によると、5月中旬以降、北朝鮮空軍の戦闘機発進回数が急増し、多い日は50回以上に達する。うち2、3回は韓国側に接近し、韓国空軍機がスクランブル発進するという。
- 連合ニュースが6日、伝えたが、以前の状態に戻りつつある。つまり、正常化しつつ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 お調子者は、増えた→挑発、と飛躍するかもしれないが、一面的である。「核実験が近い」と煽る狼少年のようなもの、と思えばよい。
- 一時期、極端に発進回数が減った原因は明白。燃料がなかったからである。発進回数が急増したのは燃料不足が解消されたことを物語る。

하신기 블로그 홈페이지

- 背景には、経済の復調がある。昨年の朝中貿易は前年比6割増の56億ドル超。今年第1四半期は前年比30~40%増。年間にして80~100億ドルに達する勢いである。
- 開城公団も好調に売上が伸び、朝口も有望だ。ミニバブルが起きつつあるとみられる。
- 金正恩新体制が中国を中心に改革開放政策に向かっている結果である。先代は市場経済に対する恐怖感があったが、スイスで生活した金正恩第1書記にそれはない。今後とも期待できる。

**붙임 10.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6.8)**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森本敏防衛相「北朝鮮、深刻な状況起こりうる」”

- 「北朝鮮は新しいリーダーがどのような方向に北朝鮮をもっていかうとしているのか、まだすべてが見えないが、核・弾道ミサイル開発は間断なく進んでいる。日本にとって深刻な状況が引き続き起こりうる」

**붙임 11. 일본 교도통신 보도 원문 (6.9)**

교도통신 홈페이지

“北朝鮮、核実験計画なしと強調 米との対話狙いか”

- 北朝鮮の外務省報道官は9日、談話を発表し、懸念が一時高まっていた3度目の核実験は「現在、計画もしていない」と主張した。韓国の李明博政権が北朝鮮を挑発し、核実験のような強硬措置に出るよう仕向け、圧力を強めようとしていると非難した。
- 核実験の意思がないとあらためて強調することで、「衛星」の打ち上げと称した4月のミサイル発射で途切れた米朝対話の再開を促すとともに、朝鮮半島の緊張状態の責任が韓国側にあると印象づける狙いがあるとみられ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北, 韓 언론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다.

(6.11 데일리 콜러 ⇄ 美 워싱턴 뉴스사이트)

- 「스티븐 예이츠」(딕 체니 前 美 부통령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낸 국제 전문가),
  - ‘북한 사람들은 한국 언론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 이번 공격은 북한이 김정은을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한 한국 언론 2곳을 비난한 후 이뤄진 것임.
- 애틀란틱(美 시사잡지)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기술적인 공격이 아닌 포격 공격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적절한 해커와 공격을 성사시킬만한 해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함.
- 「예이츠」, ‘김정은 정권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북한의 해커들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 ‘한국 언론 2곳의 웹사이트에 남긴 메시지는 달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19일과 29일을 새로운 공격 개시일로 암시하고 있다’라고 주장

#### ○ WFP-UNICEF, 北 영양실조 아동 지원 파트너십 구축(6.11 WFP)

-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북한의 심각한 급성영양실조(SAM)와 보통 수준의 급성영양실조(MAM)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
- UNICEF는 2010.10월 북한 북동부 지역의 5세 미만 영유아 18만311명을 대상으로 윗팔의 둘레(MUAC)를 측정한 결과, 17.4%가 글로벌 급성영양실조(GAM)에 걸렸으며 2.8%는 SAM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2012.6.12(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2010.11월 북한 아동영양연구소와 WFP가 다른 지역에서 5세 미만 영유아 700명의 MUAC를 측정한 결과, GAM 14.1%와 SAM 1.6%로 조사됐음.
-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GAM 18.8%와 SAM 4.5%로 높은 영양실조율을 보였음.
- UNICEF와 WFP는 급성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아동들에게 충분하고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음.
- 협력의 일환으로 양기구의 직원들이 참석하는 급성영양실조 집단관리(CMAM) 워크숍을 구축했음.
- 이는 인도주의 직원들이 급성영양실조 퇴치법을 이해하고 급성영양실조에 걸린 아동들의 진척을 감시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임.
- UNICEF의 영양진단을 북한 정부와 협력한 것으로, WFP도 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 WFP는 2012.7.1일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영양지원 대상인 북한 아동 및 임산부 240만명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속국화를 피하는 최선책이다.

(6.11 World Policy Institute)

- 「마크 베리」(美 아시아 전문가/International Journal on World Peace 편집장),
  - '한반도는 과거 수세기동안 중국의 종주권 하에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통일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남·북한 자주권 상실을 방지하는 최선책이다.'
  - '중국은 북한에 대한 중재 역할에 부응해오지 않았으며, 중국의 대북정책은 6자회담 당사국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다.'

2012.6.12(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중국 스스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해오기도 했지만 북한의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중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

‘중국의 대규모 대북 지원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원을 다른 곳에서 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가뭄으로 식량난이 악화되고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식량지원이 취소되면서 북한이 기댈 곳이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매우 근본적이고 심각하며, 북한의 체제전복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 기인한다.’

‘조선인민군 군관 중 다수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이 군부를 포함한 내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년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해왔지만 현재는 그러한 희망을 포기한 것 같이 보인다.’

‘아이러니하게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며 심지어 한국은 중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국 소식통들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중국과 손잡고 북한의 경제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을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쪽은 중국 뿐이며 한국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투자를 중단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었다.’

‘그 결과로 북한이 점차 중국 동북지방에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결국 위안화를 통용하고 사실상 자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우려한다.’

-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흡수된다면 통일이 된다 해도 중국 후원 하에 될 것이며 통일한국의 대외정책이 중국의 정책과 일치할 때만이 통일이 될 것이다.'
- '그 대신 남북한의 재통합과 궁극적 통일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것이 분단의 장기화와 중국으로의 속국화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다.'
- '가까운 미래의 남북한 재통합으로 한국, 미국, 일본에게 원원이 되는 역내 전략적 재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 뿐 아니라 북한은 중국에 더 이상 거지 신세가 아니며 중국에게 착취당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통일을 위한 초기 단계는 12월 대선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2013년 말까지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남북한은 중국의 영향권 안의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는 어느 쪽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자주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
- '한국은 미국의 명백한 지지가 있을 때 자신 있게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므로 미국은 다시 중점을 두고 있는 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가까운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주장.

## □ 중국어권

### ○ 정치 신화적 인물, 김정은의 북한(6.8 BW Chinese ⇨ 경제 전문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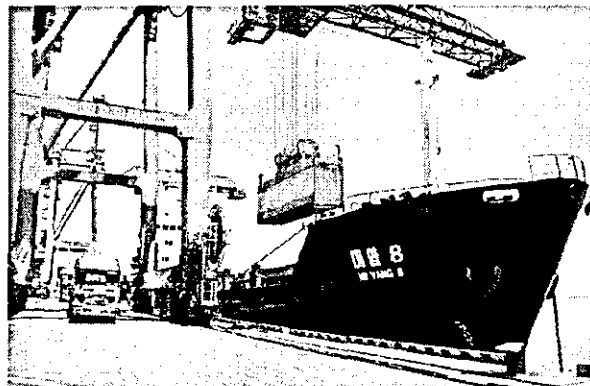
- 국제사회의 예상과 다르게 현재 김정은은 순조롭게 북한의 黨·政·軍을 장악했음.
- 또한 김정일과 다르게 친민 이미지를 내세워 새로운 정치 신화적 인물로 빠르게 부상했음.
-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오랫동안 쌓아온 정치 인맥과 강력한 정치력 때문인 것으로 여론은 분석함.

2012.6.12(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그러나 김정은이 빠르게 북한의 신화적 존재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정치적 지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임.
- 김정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이 실력이 없다면 장성택과 같은 세력에 굴복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임.
-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조상들의 영향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음.
- 이에 가장 쉽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친민 이미지를 내세워 스스로 신비한 색채를 견어내고 북한 사회로 융합되었음.
- 김정은은 계획대로 북한 주민을 자신의 정치적 神殿으로 끌어 들였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숭배하기 시작했음.
- 김정은은 북한의 개인숭배 전통을 통해 순조롭게 정치 신전으로 올 수 있었음. 이는 김정은의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에 있어 좋은 일은 결코 아님.
- 김정은의 북한에 대한 미래는 아마도 이렇게 신화적 인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中 단동항~北 남포항 컨테이너선 정기운행 시작(6.12 단동일보)

- 6.10일 중국 단동항을 출발, 북한 남포항을 가는 컨테이너선의 정기운행이 시작되면서 中·北 무역과 컨테이너의 중계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단동항 컨테이너사의 대표는 '현재는 매주 4차례 운행되지만 앞으로 매일 노선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언급.



## □ 러시아어권

○ 北 노동당 대표단, 블라디보스토크 방문했다.

(6.11 프리마 미디어 ⇄ 지역 언론사)

- 北 노동당 대표단(국제부 관계자), 경제·사회·법률 부문을 비롯한 국제관계 협력 논의 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함.
- 러 자유민주당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식 회의에서, 양측은 스포츠 친선대회 개최, 사회법률 마련·애국심 고취·건설부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노하우 공유, 기술·미디어 교류에 관해 논의함.
- 北 대표단, 북한 경제발전상 및 노동당의 호혜적인 對인민 사회 정책을 러시아 관계자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안드레이 안드레이첸코」(블라디보스토크 자유민주당 조정관),
  - ‘北 대표단은 최대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인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러시아 관계자들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했다.’
  -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없어졌다. 北측 관계자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애국심이 강하고, 또 국가의 안녕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초기 단계일 뿐이지만 금번회의는 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관계발전 및 확대를 확신한다. 우리 측 관계자들이 겨울에 북한을 답방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함.

- 駐나호드카 북한 총영사관,
  - '금번 회의의 주요목적은 국가·민족적 차원의 우호관계 강화 및 상호간 다양한 부문에서의 내실있는 발전에 큰 관심을 가졌던 김정일의 유훈 이행이다.'
  - '대표단은 하바로프스크, 아무르州를 비롯한 극동지역 또한 방문 예정이다'라고 밝힘.

○ 北 마약이 대대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데 의구심이 든다.

(6.12 apn-spb 政治 관련 뉴스보도 언론사)

- 러시아 국영방송 ORT, 금번 방북(미사일발사 및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북한관련 다큐멘터리 '민족 태양의 그림자에서'를 방영함.
- 본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진 내용 중 놀라운 사실은, 북한에서 아편, 필로폰(메탐페타민)과 같은 마약이 대대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전문가 의견임.
- 김정일 사후 북한주민들이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또한 이러한 마약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함.
- 아편은 북한에서 항상 생산해 왔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필로폰의 경우 일반주민의 획득경로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어권

○ UN 對北제재위 카브랄 의장, 연례보고서 공개에 낙관적

(6.12 지지통신)

- UN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의 카브랄 의장은 전문가 패널이 5월에 재제위반 실태를 작성한 연례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언급함.
-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이용해 무기 수출과 사치품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 붙임 1. 데일리 콜러 게재 원문 (6.11)

### 데일리 콜러 홈페이지

“Former WH national security deputy: Pyongyang may be behind cyber-attacks in South Korea”

- o A former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expert told The Daily Caller that recent cyber-attacks launched against South Korean newspapers could have been the work of North Korea.
- o “The North Koreans certainly do have the capability to do this,” said Stephen Yates, formerly deputy assistant to Vice President Dick Cheney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Yates is now CEO of DC International Advisory, a global risk management firm.
- o The attack came a few days after North Korean officials criticized the two news agencies for comparing Kim Jong Un to Adolf Hitler.
- o The Atlantic reported online that North Korea threatened artillery strikes, not a technological assault, against the South – and expressed doubt that Pyongyang has the proper personnel and hacking prowess to pull off the attack.
- o Yates, however, told TheDC that Kim Jong Un’s regime is capable. If he’s right, North Korea’s hackers are already looking ahead to next time: A message left on the two news websites implied further attacks on the “19th” and “29th,” although it did not specify a month.

## 붙임 2. WFP 보도 원문 (6.11)

### WFP 홈페이지

“UNICEF and WFP forge partnership on Community Management of Acute Malnutrition in ”

- o WFP and UNICEF are working closely together to assist children suffering from severe acute malnutrition (SAM) and moderate acute malnutrition (MA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FP 홈페이지

- o In October,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conducted a mid-upper arm circumference (MUAC) screening of 180, 311 children under five years of age in 25 counties in the North and Eastern provinces. UNICEF found a GAM prevalence of 17.4 percent and 2.8 percent for SAM.
- o A month later, the DPRK Institute of Child Nutrition and WFP conducted a MUAC assessment among 700 children under-five in 35 randomly selected counties. The MUAC assessment showed a GAM prevalence of 14.1 percent and SAM prevalence at 1.6 percent.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children under-2 have been hard hit and are most vulnerable, as their GAM and SAM prevalence were significantly higher, at 18.8 percent for GAM and 4.5 percent for SAM.
- o In response to the deteriorating situation, UNICEF and WFP are working together to ensure children suffering from acute malnutrition receive adequate and timely attention. As part of the collaboration, UNICEF and WFP jointly organized a workshop on Community Management of Acute Malnutrition (CMAM), which was attend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ff from both agencies. The training was designed to help humanitarian workers understand both how to combat acute malnutrition, and monitor the progress of children suffering from severe or moderate acute malnutrition.
- o In October, UNICEF will launch a full-scale nutritional assessment in collaboration with the DPRK Government and it is expected that WFP will participate in the exercise.
- o On 1 July 2012, WFP will start a new operation focusing on 2.4 million children and pregnant and breast-feeding women with targeted nutritional assistance to address hunger and undernutrition.

**붙임 3. World Policy Institute 보도 원문 (6.11)**

World Policy Institute 홈페이지

"Korean Reunification Would Cast Off China's Shadow "

- o Yet the Korean Peninsula for centuries was a land largely under Chinese suzerainty, and though divided today, may again face similar circumstances. Despite North and South Korea's serious differences,



World Policy Institute 홈페이지

irreversible steps toward reunification may be the best solution to avert potential loss of full autonomy for each.

- o Yet, in most respects, China has not lived up its billing as a moderating force for North Korean behavior. Though the North remains critically dependent on Chinese economic aid, China's policy toward the DPRK is manifestly based on self-interest and not on the broader interests of the other members of the Six Party Talks. There are also limits to Chinese influence in the North, both self-imposed, and more importantly, beyond Beijing's control due to strong underlying distrust of China in the North.
- o Despite massive Chinese economic assistance in food, fuel, consumer goods, and investment, the North wishes aid could come from elsewhere. As the DPRK's current food shortages are aggravated by a spring drought, and with U.S. food aid cancelled due to the failed mid-April missile launch, the North again has no one to turn to but China.
- o In my experience, I have learned the North Koreans' distrust of China is fundamental and profound. Ironically, the subversion the North fears comes not from the South, but from China. Since many Korean People's Army officers received training in China by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he North suspects the Chinese may have levers to influence events in the DPRK, especially in the military. For years, the North sought improved relations with the U.S. to balance the immense pressure it feels from China, though today it may have given up on that hope.
- o Ironically, South Korea's policies reveal an entirely different view of China, which is very upbeat. The PRC is now the ROK's largest trading partner, a dramatic leap since diplomatic ties were restored in 1992. The South even seeks a mutual military logistical agreement with China (along with Japan). President Lee Myung-bak's policies of not providing aid to the North without significant political concessions have helped push the North further into China's grasp.
- o From my ROK sources, it appears the underlying Lee administration policy toward the DPRK is to join hands with China, as highly developed economies bordering North Korea, to "envelop" the North in the expectation of spurring economic reform. Lee's administration

World Policy Institute 홈페이지

regards China as a strategic partner to help develop the North. Yet only China is actually investing in the North. Under Lee, most ROK investment in the North, outside the Kaesong complex, has dried up.

- o The result, some fear, may be that the North would slowly be integrated economically into China's northeast provinces, end up using the yuan as its currency and find itself only nominally sovereign. A scenario of economic assimilation would mean Korean reunification would take place—if ever—under Chinese auspices and only if a united Korea's foreign policy conformed to China's.
- o Instead, the two Koreas should take concrete steps to reintegrate and eventually reunify as a nation of over 70 million people; this would be the most viable solution to potential prolonged division and Finlandization by China. Near-term Korean reintegration would constitute a regional strategic realignment which would be a win-win scenario for each Korea, as well as the U.S. and Japan. For the proud North, moreover, it would send the message to China that it will no longer be relegated to beggar status and subject to its exploitation.
- o Initial movement toward Korean reunification likely could not come until after December's ROK presidential elections, but much can subsequently take place by the end of 2013. The two Koreas need to concur that neither has an assured future of polit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and viability as two states sharing the same peninsula in China's shadow. The U.S. should encourage near-term reunification as part of its renewed focus on Asia, since the ROK would more confidently move in this direction with clear U.S. backing.

**붙임 4. BW Chinese 보도 원문 (6.8)**

BW Chinese 홈페이지

“金正恩政治神坛里的神话朝鲜”

- o 就在国际社会普遍的疑虑中，年轻的金正恩出人意料地在朝鲜政坛上迅速站稳了脚跟。他不但顺利的接过了朝鲜的权杖，全面控制了朝鲜的党政军。而且正在以不同于乃父金正日风格的亲民形象，深入朝鲜民众的心里，并且被迅速打造成一个个崭新的政治神话，成为挂在三千里江山上空的又一轮鲜红的太阳。

## BW Chinese 홈페이지

- 舆论普遍认为,金正恩的迅速崛起,得益于乃祖金日成以及乃父金正日长期积累的政治人脉和强大的政治影响。应该说,这些说法有一定的道理。金正恩之所以迅速成为朝鲜的神话,离不开金家先辈的铺垫,这是毫无疑义的。但是金正恩本人的政治智慧也是他迅速被朝鲜接受的重要原因,而且是不可忽视的原因。金正恩如果没有真正的实力,要想让朝鲜的实力派,比如张成泽等人臣服在他的脚下,或许也是不很现实的事情。这从金正男的被黜,就可以看出,金正恩的脱颖而出,决不仅仅只是金正恩的运气,而主要得力于他的自身修为。
- 正因为如此,金正恩掌权后,就着力树立自己在朝鲜的崇高形象。他深知,单纯地依靠父辈的荫庇,已经不足以让朝野心服口服,他必须开创一条与金家先辈不同的造神之路,这样才能保证他永远立于不败之地。因此他选择了最容易感动人而又最能够让人接受的亲民秀。他从戒备森严的王宫里走出来,融入到朝鲜社会中去,他把自己的神秘色彩剥除,又让朝鲜各界给他披上一层更神秘的面纱。据外媒报道,金正恩一改乃父很少在公众前露面的做法,多次深入军队和地方,了解军队动态,实地考察民情,并且适时提出相关问题的指示,赢得了朝鲜军民的普遍认同。
- 可以认为,金正恩已经顺利的把朝鲜民众带到了他预设的政治神坛下,朝鲜民众已经开始对他顶礼膜拜。而金正恩借助朝鲜信仰政治神祇的传统,很轻易地就将自己搬上了朝鲜的政治神坛。很显然,这是金正恩的幸运,但是决不当认为这就是朝鲜的幸运。朝鲜要成为真正的强国,似乎并不是造几个政治神祇,就能够做到的,事实已经证明了这一点。等待金正恩的朝鲜未来,也许并没有造神这么容易。

## 붙임 5. 단동일보 보도 원문 (6.12)

### 단동일보 홈페이지

#### “丹东港——朝鲜南浦港集装箱班轮开通”

- 6月11日10时30分,丹东港5号集装箱专用泊位,巨大的门式起重机把一件件集装箱吊进朝鲜籍“美洋8号”的货舱。伴随着长鸣的汽笛,大连宇联船务公司首班丹东港至朝鲜南浦港集装箱班轮开行。
- 丹东港是中国距离朝鲜南浦港最近的港口。此次大连宇联船务公司选择丹东港开通至南浦港的航线,就是看好丹东港快速发展的吞吐实力、完善的口岸配套设施、良好的集疏运条件及区位优势。丹东港至朝鲜南浦港航线的开通,为货主提供了最便捷的运输方式,促进中朝贸易和集装箱中转业务的发展。丹东港集装箱公司总经理韩伟表示,要把这条航线打造成精品航线,争取由目前的每周4班扩充为天天航班。

## 붙임 6. 러시아 프리마 미디어 보도 원문 [6.11]

### 프리마 미디어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Многие мифы о КНДР для приморских либерал-демократов оказались не более чем выдумкой ”

- Трудовой партией Кореи и ЛДПР - обсуждали сегодн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Цель встречи, участниками которой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партий, не только укреп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о и разрушить сложившиеся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ереотипы, сообщает корр. РИА PrimaMedia.
- Как отметил в разговоре с корр. агентства координатор партии и либеральной демократи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Андрей Андреевич, обе стороны изначально были настроены на проведение продуктивной встречи, котор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а обсужд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аконотвор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 И в нашем отделении, и в корейской партии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молодых и активных. И мы решили начать наш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 спортивных встреч. Мы обсуд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Итогом этого разговора стал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том, что скоро наши спортсмены по тхэквондо на две недели отправятся в Корею, где повысят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проведут тренировки и встретятся с молоды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КНДР.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и сроки ответного визита владивостокцев в Пхеньян,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такой визит состоится зимой, - отметил г-н Андрей ченко.
- В ходе встречи обе стороны обменивались опытом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социа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законотвор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 Нас интересовал и опыт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человека, и организация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Говорил и про разработки в области технологий. В ходе визита многие мифы о КНДР были для нас разрушены. Мы увидели, что северным корейцам свойственны честность, искренность в отношениях, преданность своей стране, народу, делу. И это созвучно и понятно нам, - подчеркнул координатор ЛДП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프리마 미디어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каждая сторона сочла эту встречу плодотворной и нужной. Это только начальный этап в работе двух парти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еих сторон уверены, что дальнейшие отношения будут только развиваться и шириться. - Члены партийной делегации довольны результатом встречи. Главная цель сегодняшней встречи - это дальнейш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оторое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на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и народами, а также выполнение заветов товарища Ким Чен Ира, где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лодотворному развитию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 подчеркнули в Генеральном консульстве КНДР в Находке. В Генконсульстве КНДР также добавили, что после встречи с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партийная делегация КНДР продолжит свой путь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региону и проведет ряд двусторонних встреч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и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붙임 7. 러시아 apn-spb 보도 원문 (6.12)**

apn-spb 언론사 홈페이지

“Первый канал оклевета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 В документальном фильме Юрия Липатова о КНДР "В тени солнца наци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ном вчера в прайм-тайм по каналу ОРТ, содержалось удивительное открытие.
- Оказывается, северокорейцы столь эмоционально реагировали на смерть Ким Чен Ира, поскольку... массово употребляют наркотики! Об этом в кадре сообщил некий кореевед из Сеула Федор Тертицкий. По его словам, население КНДР поголовно торчит на опиатах и метамфетаминах. Тертицкий нагло врёт. Если история с опиатами хотя бы гипотетически может иметь под собой почву, так как в Корее и соседних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жители всегда производили этот наркотик, то метамфетамины - бред чистойшей воды. Ибо взять их населению страны просто неоткуда.

## 붙임 8.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6.12)

지지통신 홈페이지

“報告書公表に「楽観的」=北朝鮮の制裁逃れ”

- 国連安保理の下部組織、北朝鮮制裁委員会の議長を務めるポルトガルのカブラル国連大使は11日、委員会会合後、記者団に対し、委員会を補佐する専門家パネルが5月に制裁違反の実態をまとめた年次報告書が公表される可能性について「楽観的だ」と述べた。
- 報告書の公表をめぐることは、北朝鮮を刺激する恐れがあるとして中国が反対してきており、昨年の報告書も未公表。カブラル大使は「今後の協議で決定を下す。われわれは結束した精神で取り組んでいる」と語った。
- 今年の報告書には、北朝鮮が制裁を逃れる形で武器輸出やぜいたく品の入手を続けている実態が具体例を挙げて示されてい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UN, 심각한 아동 영양실조에도 北 경제개혁 조짐 없다.

(6.12 AFP)

- UN의 최신 북한 보고서에 따르면, 5세 이하 北 아동 1/3이 발육부진 증상 보이지만 경제개혁의 조짐은 없음.
- 북한 인구의 2/3인 1,600만명이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속적 식량난에 고통 받고 있음.
- 「제롬 소바주」(UN 평양 상주조정자/UN 북한 보고서 저자),
  - ‘올해는 작년만큼 식량난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되기 때문에 식량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호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우리가 방문한 몇몇 지역에서 아동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 ‘겨울이 조금 길거나 중요한 시기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거나 장마철 홍수가 나면 북한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 북한의 보건제도는 잦은 정전과 필수약품의 30%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
- 북한은 아태지역에서 아동사망률 저감, 산모건강 증진, 질병 퇴치 등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도상에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부족으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설사 발병률이 높음.
- 산비탈의 산림파괴로 악화된 홍수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는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2012.6.13(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UN보고서는 식량난의 구조적 원인은 정부 정책 변경을 통해서만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지만 인도주의적 지원도 구제의 방법임을 강조함.
- UN은 올해 대북지원 활동을 위해 1억98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5월 기준 기부금은 40%도 달성되지 않음.
- 현재 북한 정부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감행하려는 조짐은 없지만 공개적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인정하기 시작했음.
- 2011.1월, 7년 만에 국제 식량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지원 인력의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음.

o UN, 올해 美 대북지원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6.12 Reuters)

- 「제롬 소바주」(UN 평양 상주조정자),
  - ‘UN은 올해 식량 및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기금 1억9800만 달러를 모금하고 있다.’
  - ‘금주 북경에서 미국, 한국을 포함한 공여국 대표들과 만나 지원을 요청했으며 미국과 한국 모두 올해 대북 지원에 대한 의향을 보였다.’
  -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41만4000톤으로 전망되며 작년에는 두 배나 더 부족했다.’
  - ‘그러나 해마다 다른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지원만 할 수는 없으며 기계, 비료, 관개 및 에너지 부족 등 근본적 농업 문제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농업으로 만성적 식량난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 ‘아동의 절반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중앙아프리카 일부 지역과 비견되는 수치이다.’
  - ‘한 세대 전체가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이것은 결국 후세에 되물림된다’라고 강조



○ 北 변화를 위해 국제사회는 제3의 길을 시도해야 한다.

(6.12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 美 고급 일간지)

- 「즈친 주」(美 버넬대 국제관계 및 정치외교학 교수이자,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시아 연구소 객원 선임연구원),
  -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북한과 문화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 ‘과거에는 한국의 관대한 장려책과 미국의 제재로 북한을 다뤘지만, 지금까지 모두 실패했다.’
  -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평화적인 진전을 위해 정부간 접촉 외에 북한 사람들과 포괄적으로 접촉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시작해야 한다.’
  - ‘단지 식량과 연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햇볕정책을 뛰어넘는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 ‘미국 등 서방국들은 북한 학생들을 초청하는 장학금을 만드는 등 사회적 수준에서의 교류도 증진돼야 한다.’
  - ‘서방과 북한의 군부간 접촉도 검토해야 하며, 이런 개입은 북한 정권 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북한내 긍정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 ‘북한 지도부 고위층에서 이견이 보이고 있을 때 서방은 강경파 고립을 위한 분할 정복 전략을 추진하고 잠재적인 개혁가들을 장려해야 한다.’
  - ‘북한은 새로운 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며, 서방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 다른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
  - ‘김영남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방문한 것은 북한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해석된다.’
  - ‘북한은 싱가포르를 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이끄는 모델로 삼고 있으며, 2010년 싱가포르는 북한 교역국 중 6번째 규모였다.’

2012.6.13(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관계를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

○ 캐나다로 망명 신청하는 탈북난민 증가

(6.12 런던 프리 프레스 캐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 일간지)

- 탈북 난민들의 캐나다 망명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캐나다 이민당국에 따르면 2007~2010년 1만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했음.
- 캐나다 당국자들, '2011.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국가로의 망명 신청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경고
- 캐나다는 2011년 83명의 탈북자를 수용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규모임.

□ 중국어권

○ 北, 탄도미사일 제작 수준은 기술 모방에 그친다.

(6.13 홍콩 봉황위성TV)

- 「우거」(군사 전문가),
  - '탄도미사일 제작을 위해 북한은 이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 '국제사회의 기술수출 제한 제재로 사거리 300km 이상의 성능 좋은 탄도미사일을 수입할 방법이 없었다.'
  - '그러나 다른 나라와의 정치적 비밀 거래로 샘플을 얻어 모방 제작했는데,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이렇게 완성된 것임.'
  - '다만 북한의 과학 기술력과 공업환경은 이러한 모방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음.'
  - '또 다른 제작방법은 각종 경로를 통해 획득한 시스템과 부품을 재조합하는 것임.'

2012.6.13(水),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북한이 획득한 탄도미사일 기술은 다른 제3국가보다는 앞선다고 할 수 있으며 수출도 함.'
- '그러나 전체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은 실용화 부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지금까지 북한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대부분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음.'
- '그러므로 실제 전쟁상황에서의 탄도미사일 지휘통제 능력이나, 기술 수준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北 식량난은 한국의 對北 지원중단 및 자연재해에 기인한다.

(6.12 이타르타스)

- 올해 對北 인도주의 지원에 약 1억 9천 800만 불이 필요할 것이라는 UN전문가 보고서가 나왔음.
- 北 약 1천 600만 명 정도가 해결되지 않은 식량·경제 문제로 해외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원이 끊길 경우 청소년을 중심으로 수백만 명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함.
- 북한의 식량난 원인으로는 △관계악화로 인한 한국의 對北 쌀·비료 지원중단, △지속적인 가뭄·홍수·태풍으로 인한 농업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김정은, '러시아의 날' 맞아 푸틴 대통령에 축전을 보냈다.

(6.12 rusnovosti 라디오)

- 김정은은 '러시아의 날'을 맞아 양국간 우호관계가 향후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의향을 담은 축전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보냈음.

□ 일본어권

○ 日관방장관, 中미사일탐재차량 北수출 관련 언급 참가하겠다.

(6.13 산케이)

- 「후지무라 오사무」(관방장관), 북한으로 수출된 중국제 미사일탐재차량과 관련하여,
  - ‘일본 정부도 주목하고 있으나, 각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기밀과 연관돼 있으므로 코멘트는 참가하겠다.’
  - ‘안보리결의는 준수돼야 한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결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국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며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결의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붙임 1. AFP 보도 원문 (6.12)

### AFP 홈페이지

"Millions of North Koreans Suffer Chronic Food Shortages: UN"

- o Millions of North Koreans suffer chronic food shortages and dire health care, leaving one in three young children stunted, but there are no signs of reform to spur economic growth, the United Nations warns. Some 16 million people – two-thirds of the population – depend on the state rationing system and suffer varying degrees of sustained food insecurity, six UN agencies operating inside the North said in a report released Tuesday.
- o About one in three children aged under five are stunted – too short for their age – because of malnutrition, it said, as it launched an appeal for funding. UN Resident Coordinator for North Korea Jerome Sauvage said although the food situation was not as bad as it was last year, child malnutrition rates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were “alarming.”
- o “This year our surveys and assessments do not indicate we will have as serious a food problem [as last year]. Therefore we do not anticipate as wide an appeal for food,” he told AFP in Beijing. But he added: “We see among children malnutrition rates in a number of counties we have been visiting that are really alarming. Now these are chronic malnutrition problems. There is never enough food for this population.”
- o “All it takes is a winter that’s been slightly too long, not quite enough rain at critical moments, or a flood later on during the rainy season for the agriculture to really be severely affected.” The UN report said North Korea’s health care system is “in dire shape,” plagued by frequent power cuts and with less than 30 percent of essential drug needs covered.
- o The North is the only Asia-Pacific country not on track to mee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n reducing child mortality, improving maternal health and combating disease, says the report dated May 29.
- o Inadequate access to safe water and poor sanitation, coupled with poor hygiene, are mainly to blame for the high incidence of diarrhea among

AFP 홈페이지

the under-fives. The report says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landslides, worsened by the deforestation of slopes, pose serious threats to life.

- o The UN says the structural causes of food shortages can only be fully addressed through government policy changes, but stresses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does save lives. It says UN agencies need \$198 million for their activities in the North this year but less than 40 percent of this had been donated as of May.
- o While there were "currently no signs" that the government would undertake any of the structural reforms needed to spur economic growth, it has begun to publicly acknowledge severe food shortages, the UN says. In January 2011, for the first time in seven years, it made an official request for international food aid. But limitations on access for aid workers persist.

**붙임 2. Reuters 보도 원문 (6.12)**

Reuters 홈페이지

"U.N. optimistic on U.S. aid for North Korea, food still a problem"

- o The United Nations is optimistic it can get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id for isolated North Korea where chronic problems with its agriculture remain a huge stumbling block to development, the top UN official in the country said on Tuesday.
- o Jerome Sauvage said the United Nations was seeking \$198 million in funding for its mostly humanitarian assistance projects this year, mainly for to address food and health needs. Sauvage, UN Resident Coordinator in Pyongyang, said he had met representatives from don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Beijing this week to encourage them to give. There is "certainly a posture of interest" from both Washington and Seoul to give this year, he added.
- o "We are expecting a food deficit of 414,000 metric tonnes. Last year we were well above that; it was twice as high." But more effort needed to be put into addressing the country's underlying agricultural

Reuters 홈페이지

issues, including lack of mechanization, fertilizers, irrigation and energy, he said.

o "We cannot just year in, year out provide nothing but this kind of fill-the-gap aid. We feel a major need to address agricultural weakness," Sauvage said. "Agriculture will always be chronically unable to fully provide the full amount of food that is necessary unless those structural problems are addressed," he added.

o "One child in two is stunted ... These kinds of numbers can be compared with certain parts of Bangladesh or Central Africa," Sauvage said. "You're talking about a generation of people being malnourished and that eventually gets transmitted generation to generation. It is a slowly unfolding disaster."

### 붙임 3.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게재 원문 (6.12)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홈페이지

"West must try a 'third way' to change North Korea"

o South Korea's carrots and America's sticks have both failed to tame North Korea. There is another way. With a new regime and small, but positive changes stirring in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eize the chance and begin cultural exchanges with the North.

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ried two dominant approaches to deal with North Korea in the past two decades: South Korea's generous incentives and America's punitive sanctions. So far, both have failed.

o There is another way - the third w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nitiate a new strategy with one primary objective: the peaceful evolu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o This new strategy must include comprehensive contact with North Korea's people, not just its government. Such full-scale contact would involve more than just providing food and fuel to North Korea as outlined in the now broken Leap Day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this new third way would take a far more specific and encompassing outreach approach than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As a pillar of this approach, exchanges at the societal level must be promoted.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홈페이지

- o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nations can establish scholarships to invite North Korean students to study abroad. North Korean cultural, educational, and sports teams should be welcomed to participate in more international events. Even military-to-military contac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West, while inconceivable now, should be explored. Full engagement does not mean endorse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but aims at positive changes within North Korea.
- o Whil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ppears united, different views exist among top leaders. The West can apply a “divide and conquer” strategy to isolate hardliners and encourage potential reformers. Such a strategy has a better chance to influence long-term developments in North Korea than punitive sanctions.
- o This is not a quixotic idea, but a policy based on reality. Interestingly, North Korea also seems ready to try something new. After the young Kim Jong-un succeeded his father who suddenly died last December, most observers think that life will go on as usual in North Korea. Few have paid attention to recent positive changes inside the Hermit Kingdom.
- o Kim Yong Nam,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North Korea’s parliament, recently concluded a visit to Singapore and Indonesia, in an apparent attempt to draw foreign investment and expand trade. Mr. Kim is North Korea’s ceremonial head of state; his visit to Southeast Asia is significant and adds to a recent spate of positive developments in North Korea.
- o North Korea considers Singapore a model for growth and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Singapore became North Korea’s 6th largest trade partner in 2010, according to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n Seoul. By firming up trade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North Korea also appears to be trying to avoid over-dependence on China.

**붙임 4. 런던 프리 프레스 보도 원문 (6.12)**

런던 프리 프레스 홈페이지

“More North Korean refugees likely to eye Canada ”

- o Immigration authorities are preparing for ever-increasing numbers of refugee claimants from North Korea.



런던 프리 프레스 홈페이지

- o "The flow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ently turned from a trickle to a flood," said Canadian immigration officials in a January assessment obtained through an access-to-information request by immigration lawyer Richard Kurland. The documents indicate that between 2007 and 2010 around 10,000 people escaped the communist dictatorship in the north to seek refuge in the south.
- o Canadian officials warn defections will increase following the death of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Il last December, eventually meaning "increasing numbers are likely to seek asylum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Canada."
- o "Canada accepted 83 North Korean refugees in 2011 -- double the number of the previous year," said officials in the assessment.

**붙임 5.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6.13)**

봉황위성TV 홈페이지

“吴戈：朝鲜基础科学欠缺 导弹是仿制加拼凑”

- o 朝鲜为了导弹的话，基本上可以说是能用的手段都用过了。它概括起来，一方面它没有方法能够合理合法的引进全套的系统。这倒也不是说国际社会对它有什么制裁。这个是在此之前，国际社会就有导弹这些技术出口的控制协议。这个协议基本上对射程拥有300公里以上的弹道导弹出口的国家都有约束力。所以，朝鲜没有方法直接进口到性能比较满意，射程又超过300公里的弹道导弹的。
- o 但是朝鲜通过从其他一些国家，通过秘密的政治交易获得一些样品，加以解剖仿制。这种方法发展起来。它现在的导弹系统基本上这么来的。在这个过程中，当然会存在很大的问题。一方面是之前不知其所以然，它并没有一个完整的导弹方面的科学基础，尤其是科学技术方面可能比较限制。另外一方面就是它的工业能力并不能支撑这种关键字系统。从头到尾的合格产品的研制。所以好的时候，采取的还是一些拼凑的方法。比如说在全世界通过各种途径，不管合法还是非法的。进口各种系统、零部件，然后自己加以消化、组装。

북항위성TV 홈페이지

- 所以像现在这样通过这样方法得到的导弹技术。虽然说在同样获得导弹技术比较困难的一些第3世界国家之间, 朝鲜已经算是做的比较出色的。甚至有时候还要倒过来给他们出口一些。但是总的来说朝鲜的导弹系统。应该是存在一个实用化方面很大一个问题。因为我们现在为止, 看到朝鲜的导弹, 基本上都是他自己在做带有政治上表态性质的试射。我们知道这种试射, 实际上是准备好了以后在理想条件下试射。而且这样还有失手。如果说真正的在战术环境下考虑的话, 朝鲜的导弹系统他应该说还有很多可靠性, 质量。以及它整个导弹的实战方面。比如说, 指挥控制、侦查方面。这些方面的很多问题。这些问题, 我个人估计, 对朝鲜来说解决都有一定的困难。

**붙임 6. 러시아 이타르타스 보도 원문 [6.12]**

이타르타스 통신사 홈페이지

- “Около 16 млн жителей КНДР нуждаются в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из-з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 Для оказания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КНДР в текущем году требуется около 198 млн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 здесь сегодня докладе экспертов ООН. Вместе с тем, по оценкам ООН, примерно 16 млн из 24 млн жителей КНДР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епени нуждаются в поступающей из-за рубежа помощи "из-за нерешенных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Прекращение такой помощи "поставит под угрозу благополучие и здоровье миллионов жителей КНДР, прежде всего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 Дефицит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 КНДР вызван несколькими причинами, в том числе обострением отношений с Южной Кореей, которая прекратила поставки Северу риса и удобрений. Кроме того, земледелие в КНДР относится к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риска из-за постоянных засух, наводнений и тайфунов.

## 붙임 7. 러시아 rusnovosti 보도 원문 (6.12)

rusnovosti 라디오 홈페이지

“Ким Чен Ын поздравил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Днём России”

- Ким Чен Ын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дружб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прошедшая испытание временем, будет и дальше с табильно развиваться.

## 붙임 8.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6.13)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中国名指して「安保理決議順守を」  
北朝鮮へのミサイル車両輸出で藤村官房長官”

- 藤村修官房長官は13日午前の記者会見で、中国軍系列の企業が北朝鮮に弾道ミサイルの発射台車両を輸出していた問題について「この件はわが国として注目しているが、インテリジェンスに関わるものでコメントは控える」と述べた。
- そのうえで北朝鮮のミサイル関連物資の輸出を禁じた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を踏まえ、「安保理決議は順守されるべきだ。中国を含む国際社会が決議を着実かつ全面的に実施していくよう、関係国と緊密に連携して対応していく」と述べ、中国を名指しして決議順守の重要性を指摘し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경제는 강제노동을 토대로 형성된다. (6.13 휴먼라이츠워치)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이 학생들에게도 보상받지 못하는 강제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 탈북자들은 최근 인터뷰에서 노동에 대한 임금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단 결근시 뇌물을 바치거나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음.
  - 「필 로버트슨」(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담당 부국장),
    - '북한 노동자와 학생들은 무보수의 강제 노동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 '중노동을 해야 하는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
  - 2009.12월 탈북한 여성, '직장을 관둔 사람은 무직 상태라는 이유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3~6개월간 수감되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 2011.3월 탈북한 남성, '어떤 직장에 배치됐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그곳에서 일해야 하며, 맘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 없다.'
  - 또 다른 탈북자,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당국자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정부 광산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다.'
    -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픈 아버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집 인근의 도자기 공장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강제노동을 당해야 했다.'
    -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당국자들은 집에까지 찾아와 심하게 구타하며 악담을 퍼붓는다.'

2012.6.1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탈북자들은 노동에 대한 보수 부족으로 노동자들과 가족의 경제적인 생존은 가정생산, 암시장 거래 등의 사업 능력에 달려있다고 주장함.
- 「로버트슨」, '북한 당국 관료들은 공짜로 주민들에게 일을 강요하고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다른 생존 방법을 찾으려 할 때 돈을 착취한다.'
- '북한은 착취와 유린을 기반으로 경제가 형성된 명백한 약탈 정권이다'라고 강조
- 북한 헌법 31조는 16살 이하 어린이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학생들은 오전 교육 후 오후에 정기적으로 학교 노동에 무보수로 투입되고 있음.
-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국제노동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 국제사회는 北 식량안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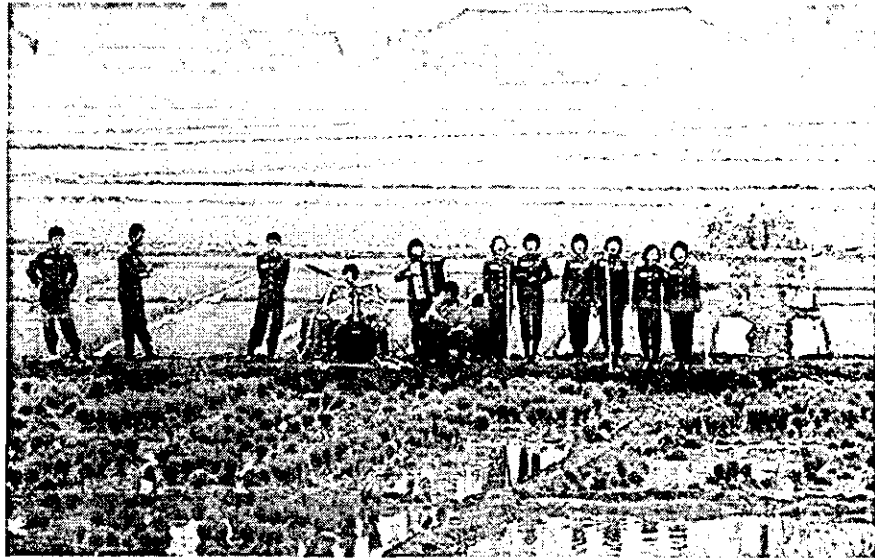
(6.13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1/3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백만명이 의료서비스나 필요한 식량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브루킹스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회의에서 전·현직 軍 고위 관계자와 정책입안자들이 북한의 식량안보 문제를 다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브루킹스연구소는 프레젠테이션 일부를 웹사이트에 게재할 계획임.
-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통일 접근법, 북한난민의 영향,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음.

○ 北, 농촌지원 軍 선전대 사진 유출에 조사 착수했다.

(6.13 英 The Sun)

- 北 군악대가 작물 성장 촉진 위해 논밭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의 유출이 北 당국의 심기를 건드렸음.



[농촌 모내기 영농지원에 투입된 '軍 선전대'의 작업 독려 및 선전 활동 일환으로 추정되나, 英 The Sun誌는 '작물 성장 촉진을 위한 음악 연주'로 평가하여 보도]

- 신의주에서 촬영된 이 사진이 공개된 후 北 당국은 대대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짐.
  - 한국 소식통, '노동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작물도 빨리 성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진의 촬영 및 유출 경로 파악을 위한 대대적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이 이상한 장면은 중국 문화 혁명 당시 농부들의 사기 고양을 위해 논밭에서 악단이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던 것과 흡사함.
- 탈북자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 미국에서 영화화된다.
- (6.13 Chicago Tribune)
- 美 브라운스타인 필름, 北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탈출에 성공한 신동혁씨에 대한 베스트셀러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을 영화화하기로 결정함.
  - 「하워드 브라운스타인」(브라운스타인 필름 총제작자),
    - '신동혁씨 만큼 고난을 견뎌낸 사람은 없다. 그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언급

## □ 중국어권

### ○ 中, 미사일 발사대 탑재용 차량 북한 수출 부인(6.14 동방조보)

- 6.14일, 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8월, 미사일 발사대 탑재 가능한 군용차량의 북한 수출에 대한 일본 언론보도를 부인함.
- 「리우웨이민」(중국 외교부 대변인),
  -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중국은 핵확산 방지 문제에 대해 관련국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 ‘중국은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탑재 도구의 확산을 결사 반대하며 유엔 안보리의 핵확산 방지, 수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 「장리엔구이」(중공중앙당표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 ‘보도에 나온 차량은 기술적으로 보면 軍民兩用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중간상을 통해 무기를 수입한다.’
  - ‘군수업체는 판매 후 상품의 용도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중국 국가 이익에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 ‘중국은 현재 북한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에 대해 정책적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핵무기 보유 반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

### ○ 북한은 중국 차량으로 미사일을 운반하지 않았다.

(6.14 홍콩 봉황위성TV)

- 「앤서니 위안」(홍콩 봉황위성TV 시사평론가),
  - ‘일본 언론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기업이 북한에 미사일 탑재차량을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 ‘중국 정부는 목재를 운반하는 민수용 차량을 판매했다고 했다.’
  - ‘열병식 때 선보인 바퀴 16개짜리 차량은 미사일 운반이 힘들어 서양에서는 미사일이 가짜라고 했다.’

2012.6.1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그런데 현재 일본 정부와 언론은 왜 이 일을 다시 들춰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사실 중형 탑재차에 불과하며 일본 정부 소식통이 언급한 부분을 확인도 하지 않고 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중국은 민수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일본 사회와 언론이 성실, 신뢰를 가졌으면 한다’라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이제 북한을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처럼 대해야 할 때이다.

(6.14 코메르산트<sup>러</sup> 일간지)

-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지난 주 러시아 방문 시 현지 일간지 코메르산트와 인터뷰 가졌음.
- 「글린 데이비스」(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미국은 지난 10개월간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했으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번에는 약속에서 위반까지가 기록적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무엇을 믿고, 또 믿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 ‘2·29 합의와 관련해서는 결렬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당시에는 노력했지만 이미 과거지사이다.’
  - ‘합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도,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명시된 의무사항은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2.6.14(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교구조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말한 대로 해봤지만 성과가 없었다. 북한은 의무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지 않는 듯하다. 관계 진전을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은 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자국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 ‘지금 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좋지 않은 구상이라 생각한다. 양자 및 6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려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새로운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한다.’
- ‘6자회담 참여국들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지 서로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부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는 말을 자주하는데, 우리는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하나의 국가다. 때문에 어린 아이가 아닌, 성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 ‘북한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긴밀했던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러시아 정부부처 및 싱크탱크 내에는 수많은 대북 전문가가 있다.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 러시아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南·北·러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가 문제다. 3자간 회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 측으로부터 정치적 보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언급

○ 안정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6.13 외교협회 홈페이지)

- 러시아 외교협회, ‘미래의 동아시아 정치지도’라는 주제 하의 100년 후 미래전망 보고서 게재함.
- 「에브게니 카나예프」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 아태연구센터 연구원),

- ‘국제정치 무대와 경제개혁에 있어서 북한의 가능성·입지 축소로 인해, 북한은 남한과의 역사적인 경쟁에서 더욱 실패를 체감·경험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통일은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붕괴 혹은 파괴적인 파급효과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 ‘또한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인데, 중국은 과거 북한과 남한에 발휘해 왔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장기적인 전략전망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지정·지경학적 파이를 배분하는 결과를 야기할 입장전환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기고함.

## □ 일본어권

### ○ 北 폭주족 증가, 추격용 차량 없어 단속 어렵다. (6.13 사치나)

- 북한에서 최근 오토바이 폭주족이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추격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 등지에서 폭주족이 늘어났으며, 4.15일에는 양강도 혜산시에서 2명이 숨지는 등 총 1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함.
- 6월 들어 청진시에서는 하루 동안에 폭주차량에 의한 사고가 4건 일어나는 등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북한의 ‘조선부강회사’가 2005년부터 오토바이를 생산해 시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폐기되거나, 중고 오토바이를 재조립해 팔고 있고 비교적 부유한 집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함.

- 인민일보의 北칭찬하는 기사에 中네티즌 비판(6.13 레코드차이나)
  - 6.12일 인민일보가 게재한 북한의 교육제도를 칭찬하는 기사가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세습에 의한 독재제도를 찬양하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음.
  - 북한의 의료, 교육제도를 칭찬하고 있는 기사에 대해 상업적 사이트 외에 인민일보 산하인 환구망에서도 '사실과 동떨어진 관제미디어의 거짓말'이라는 비판 댓글이 달림.

## 붙임 1. 휴먼라이츠워치 보도 원문 [6.13]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 “North Korea: Economic System Built on Forced Labor”

- 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require forced, uncompensated labor from workers, including even schoolchildren and university students, Human Rights Watch said today. In recent interviews with Human Rights Watch, North Korean defectors say they have faced years of work for either no wages or symbolic compensation and either had to pay bribes or face severe punishments if they did not report for work at assigned workplaces.
- o Human Rights Watch interviewed approximately 65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Thailand over the past six months. One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who left North Korea in December 2009 told Human Rights Watch that “anyone who quits his job ... is legally punished for the reason of being unemployed ...” and will be “taken to the forced labor camp for between three to six months. Anyone who doesn’t work is assumed to be a criminal in North Korea.” Another male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in March 2011 said that “... if you are placed somewhere [to work], you must go there without question” and “it is impossible to refuse working because you didn’t like it, it’s compulsory without a doubt.” If a person did not come to work, the authorities would go to their home to find them. They would beat them severely and curse at them, saying “Why didn’t you come to work?”
- o North Korean defectors said that a lack of pay for work means economic survival for them and their families depends on their ability to do their own informal business. For this, bribes must be paid to local officials and to the enterprise manager to release a person from his or her daily work requirement for time to start their own business, such as home production, informal selling of goods at local markets, or itinerant trading between provinces or even across the border into China.
- o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force people to work for free and don’t give them enough to eat, and then extort them when people try to organize other ways to survive” said Robertson. “This is truly a predatory regime, with an economic system built on exploitation and abuse.”
- o Article 31 of North Korea’s constitution clearly prohibits child labor while also setting the minimum age for children to work at 16. Yet parents told Human Rights Watch that children in secondary school studied in the morning but were regularly sent for unpaid school-organized work details in the afternoon.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 o Human Rights Watch called for North Korea to join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which would commit the government to follow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which commits member states to eradicate forced labor, child labor, and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붙임 2. 더 디플로맷 보도 원문 (6.13)**

더 디플로맷 홈페이지

"North Korea and Food Security"

- o Almost a third of North Korean children show signs of stunted growth, while millions aren't getting the health care or even food that they require,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 o As I mentioned late last week, I was attending a conference co-hosted by the Brookings Institution just outside Washington DC at the weekend, and the issue of food security in North Korea was something that participants discussed. The meetings were hel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was to be no attribution, so most of the details of the event, attended by current and former senior military officials, policymakers and media won't be publicly available. However, Brookings will be releasing some of the presentations on its website, and I recommend readers take a look when they are posted.
- o There were some frank exchanges on how to approach reunification if and when North Korea collapses, the impact of refugees and the role of China.

**붙임 3. The Sun 보도 원문 (6.13)**

The Sun 홈페이지

"Crop Idol: North Korean military band 'serenade' rice"

- o NORTH Korea is in a right paddy after a snap emerged from the secretive state appearing to show musicians serenading crops - to

The Sun 홈페이지

make them grow faster. Regime chiefs are now said to have launched a 'big inquiry' following the emergence of the pic, taken inside the closed country's north west Xinyizhou region.

- o "The idea is that the rice is inspired, the workers are inspired and the crops grow bigger and quicker," said one commentator in South Korea. "There is now a big inquiry into how the pictures were taken and how they got out." The surreal scene harks back to Communist China's Cultural Revolution when bands assembled in fields and played stirring tunes to compel farmers to work harder.

**붙임 4. Chicago Tribune 보도 원문 (6.13)**

Chicago Tribune 홈페이지

"Braunstein to adapt N. Korea escape story: 'One Man's Remarkable Odyssey' set for feature adaptation"

- o Braunstein Films has set a feature adaptation of Blaine Harden's nonfiction bestseller "Escape From Camp 14: One Man's Remarkable Odyssey From North Korea to Freedom in the West." Harden's bio tells the story of Shin Dong-hyuk, who escaped from the North Korean prison camp in which he was born and raised. After 23 years of enslaved within the camp, Shin fled to freedom in the U.S. "No one has endured more than Shin. His ultimate triumph is a testament to the human spirit," said exec producer Howard Braunstein. "I am honored to produce a movie about him."

**붙임 5. 중국 동방조보 보도 원문 (6.14)**

동방조보 홈페이지

“中国否认供朝导弹发射台车”

- o 日本多家主要媒体昨天引述多名日本政府人士透露的消息称, 日本已获得中国去年8月通过第三方籍货轮向朝鲜出口新型导弹发射运载车辆的运输记录, 并指中国涉嫌违反联合国安理会禁止对朝鲜出口导弹有关物资的1874号决议。

동방조보 홈페이지

- 针对日媒的指称，中国外交部迅速做出驳斥。外交部发言人刘为民在昨天的例行记者会上强调，有关报道与事实不符，“中国一贯严格履行安理会决议”。“中国坚决反对大规模杀伤性武器及其运载工具的扩散，一贯严格履行联合国安理会相关决议并认真执行自身防扩散出口管制法律法规。”刘为民说。
- 中共中央党校国际战略研究所教授张琏瑰在接受东方早报采访时指出，这类车辆在技术上是军民两用的。一般来说，朝鲜进口武器装备会通过中间商进行谈判，而军工企业有时对出口物品的用途欠缺考量，客观上有可能损害中国国家利益。张琏瑰进一步指出，今年5月发生的中国渔民遭朝方扣押事件，“中方正在就此进行政策微调，反对朝鲜拥有核武器的意志更加坚定。”

붙임 6.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6.14)

봉황위성TV 홈페이지

“阮次山：朝鲜没拿中国拖车运导弹 只是运木材”

- 日本很多媒体引用政府消息的人士说，朝鲜在去年发射长程火箭的时候，他们是说导弹，说长程火箭的时候用的是中国提供的拖车。中国政府说我们卖给他民间用的，运木材用的。那个时候你看，8个轮子，一边8个轮子，因为双轮，两边16个，其实运导弹是有点困难，所以西方说你是假的，导弹是假的。既然如此，现在日本政府也好，日本的媒体怎么又炒冷饭呢？
- 就是个重型拖车，问题是我们一看到这个反映，我们就是重型拖车，日本的媒体怎么不去做深究呢，政府讲什么你就听什么吗？大家都这么讲。问题在日本政府，你说消息人，日本政府的消息人士，怎么可能说日本政府消息人士把这个消息透露给日本几乎是所有的报纸，有问题，你不是独家。如果是在美国好了，他们不会你透露什么就报道什么，我必须要根据这个线索来去查证，来去做各种平衡的调查报道的工作，日本不会。一个日本政府官员发一个消息，全日本的报纸都登。
- 它就是充分地体现出来，日本官方也好，或日本的媒体也好，他们不讲诚信，否则不会一天到晚说诚信、诚信。我今天看到这个新闻我就心想，日本社会怎么可能相信媒体呢，你这个媒体报道这个事实的时候，他既然还讲说，这事情中国政府否认，中国说这个是我们运木材的，他用来运木材的，然后说美国政府，他们说把这套资料给了美国政府，美国政府说我们再研究研究，美国人比较打马虎眼，研究研究，然后中国说也有可能是民间的用途。所以我们就拜托日本的社会，日本的媒体要民无信不立，你真的要继续诚信了。

## 붙임 7. 러시아 코메르산트 보도 원문 (6.14)

코메르산트 일간지 홈페이지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ора воспринимать как взрослых»”

-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Москву посетил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ША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ГЛИН ДЭВИС. В интервью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Ъ” АЛЕКСАНДРУ ГАБУЕВУ он рассказал, почему Вашингтону не удается договориться с Пхеньяном напрямую, как надо вести себя с КНДР и какую роль Россия может сыграть в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 И какой же главный вывод вы сделали? – США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месяцев развивали активны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усилия на разных континентах и пытались улучшить ситуацию на переговорах с КНДР. Мы думали, у нас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После этого мы не можем верить их словам. Это новый рекорд не исполнения своих обещаний даже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стандартам, хотя они и раньше делали подобные вещи на протяжении 20 лет, но на сей раз от обещания до его нарушения прошло рекордно малое количество времени. Теперь в случае с КНДР мы не знаем, чему можно верить, а чему нельзя.
- То есть ваша сделка провалилась? – Тут все сложнее, чем ответ на вопрос, да или нет. 29 февраля мы предприняли попытку, но она уже в прошлом.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отдельные составляющие сделки, то сей час она не идет. Надеемся, наступит день, когда мы сможем продолжать. Ведь зафиксирован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 это часть долгосрочной стратегии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И как вы будете к этому идти? – Главная проблема тепер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архитектура. Очень часто, когда мы имеем дело с КНДР, наши партнеры из Китая или России говорят: ребята, вы должны это делать, потому что северные корейцы считают именно вас угрозой, вы для них проблема. Мы попробовали, но это не сработало. КНДР оказалась не готова и исполнять свою часть контракта. Мы должны найти другой способ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 코메르산트 일간지 홈페이지

- А чем вас не устраивает механизм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 проблема не в этом. Но одни лишь переговоры не могут быть стратегией.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понять, что у нее есть выбор из нескольких вариантов. Нельзя иметь все и сразу. Они не могут делать нечто, что не отвечает нашим интересам, и ожидать, что мы будем давать им все, в чем они нуждаются. Я думаю, что сей час возвращение к переговорам – плохая идея. Мы пытались говорить с КНДР и в дву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и в шестистороннем. Это не работает. Перед тем как начинать новые переговоры, нужно иметь план.
- То есть остальным пятерым участникам договориться, как вести себя с КНДР? Пять против одного? – На мой взгляд, это был бы не самый плохой вариант. От российских и китайских коллег часто приходится слышать: «Это их спровоцирует, они плохо отреагируют». Но нам надо перестроить наше восприятие. КНДР – это государство, и, хотя нам может не нравиться их устройство власти, это полноце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Так что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адо воспринимать как взрослого, а не как ребенка. КНДР официально провозглашает своей целью воссоединение с Югом. У них есть официальные месяцы ненависти к Америке. Они сделали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США частью сво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ифа, им враги нужны больше, чем друзья. Для нас это угроза. Так что давайте начнем искать мирный путь того, как нам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 Есть ли смысл привлекать к этим переговорам Россию? Мы хоть и сосед, но позиции Москвы в КНДР далеко не так сильны, как у Китая. – Конечно, мы должны говорить с Россией. Без всяких сомнений. Вы удивитесь, когда узнаете, сколько экспертизы у вас есть по КНДР в министерствах и различных мозговых центрах. Вы знаете гораздо лучше,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чем знаем мы. У меня есть ощущение, что с вами они разговаривают наиболее прямо и искренне. Россия могла бы быть очень важной частью корейского уравнения. Пожалуй, еще более важной, чем представляют многие русские. Ведь КНДР где-то там, далеко от Москвы, и тесные связи с ней остались где-то далеко в прошлом. Мы думаем, что Россия могла бы играть более активную роль.
- Как США относятся к идее трехсторонних проектов Россия–КНДР–Южная Коре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азопровода,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и ЛЭП правда поможет урегулировать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

코메르산트 일간지 홈페이지

у? – Если это буд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 здорово. Если от этой истории выигрывают все, мы это только поддерживаем. Вопрос состоит в том, как это сделать на практике. Как вам вести трех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Где политические гарантии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Дьявол кроется в мелочах.

**붙임 8. 러시아 외교협회 게재 원문 [6.13]**

외교협회 홈페이지

“Будущ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карта Восточной Азии”

-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рея станет еди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По мере сужения спектра возможностей КНДР, как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так и в проведении необходим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еформ, Пхеньян будет все острее проигрывать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с Сеулом.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объединение произойдет без обвальных, заведомо деструктив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 Одновременно можно ожидать роста влияния Китая на объединенную Корею. Пекин вряд ли откажется от соблазна конвертировать наработанные связи как с Пхеньяном, так и с Сеулом, в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и ге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дивиденды в расчете на долгосрочную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перспективу.

**붙임 9. 일본 사치나 보도 원문 [6.13]**

사치나 홈페이지

“北朝鮮で暴走族が増加か、追跡車両なく取り締まりは困難”

- 北朝鮮で最近、若者たちによるバイクによる暴走が急増し、事故が相次いでおり、追撃の車両がないため取り締まりが困難な状況にあることが分かった。韓国メディアが、米自由アジア放送 (RFA) の12日付の報道を元に伝えた。
- RFAは北朝鮮消息筋からの情報を元に、平壤市と平安南道南浦などで若者によるバイクの暴走が急増しており、去る4月15日には两江道恵山市で2

### 사치나 홈페이지

人が死亡するなど11人の死傷者を出す事故が起きていたと伝えた。6月に入ってから清津市では、1日で暴走車輛による事故が4件発生するなど深刻さを増しているという。

- 問題は、暴走族に対する取り締まりが有名無実ということ。北朝鮮の人民保安部は暴走族摘発の指令まで出しているが、人手不足に加え暴走族を追跡できる車輛がないことから取り締まりの効果はないという。
- 北朝鮮では、2005年から朝鮮富強会社がバイクの生産・市販している。最近は中国で廃棄されたバイクと中古バイクを再度組立て販売するケースも多く、比較的裕福な家庭でバイクを所有しているという。

## 붙임 10. 일본 레코드차이나 보도 원문 (6.13)

### 레코드차이나 홈페이지

“人民日報が「北朝鮮の園児は一日5食」と報道=美化記事をネット界は痛烈批判”

- 2012年6月12日、中国共産党の機関紙、人民日報が掲載した北朝鮮の教育制度を褒めたたえる記事が「事实に目を背け、世襲による独裁制度を賞賛している」としてネット上で嘲笑を浴びている。シンガポール華字紙、聯合早報が伝えた。
- 「朝鮮の未来、愛の中で育つ」という記事は、北朝鮮が11年間の無料教育制度を実施し、平壤蒼光幼稚園には500人の子供が同時に食事できる食堂があり、食事は一日5回、栄養士もついていると伝えている。また、医療が無料で提供され、妊婦の入院中は食事もすべて無料、双子以上の場合は国家指導者からのプレゼントまで贈られるという。
- 北朝鮮の医療、教育制度を手放しで賞賛するこの記事について、搜狐などの商業サイトの他、人民日報傘下の環球網にも「事实とかけ離れた官製メディアの特色ある嘘」だという批判が書き込まれてい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北 핵실험 계획 부인 관련 美·中 전문가 3인 인터뷰

(6.13 Global Times 中 환구시보 영문판)

- 「카이 지안」(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부소장),
  - ‘지난 5.30일 북한 헌법 핵보유국 명기는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국제사회는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해 거센 압박을 가했다.’
  -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고조되는 국제적 압력을 진정시키기 위해 핵실험 계획을 부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 「샤론 스콰소니」(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비확산국장),
  - ‘북한의 핵실험 계획 부인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단순한 핵실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고, 관련국들의 대응을 피하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다.’
  - ‘그러나 로켓 발사 및 핵보유국 선언 등을 고려하면, 핵실험 계획 부인이 현재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 「데이비드 맥스웰」(美 조지타운대 안보센터 부소장),
  - ‘미국의 식량지원 중단은 식량 분배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이 요구한 것처럼 북한이 식량차관을 상환하고 식량 전달에 있어서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핵실험 계획을 부인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다.’

「샤론 스콰소니」,

- ‘미국의 식량 지원 약속은 북한의 위성 발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결정했을 때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식량지원을 재개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했을 수도 있다.’
- ‘과거 북한지도부는 식량지원 약속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식량지원을 중단하는 조치가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카이 지안」,

- ‘과거 북한은 수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북한은 현재로서 핵실험 계획이 없다고 말했을 뿐 장기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 ‘또한,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핵실험이 도발을 통해 정치, 경제적 양보를 얻는 북한의 기존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한국 대선에서 진보적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카이 지안」,

- ‘북한의 핵실험 부인이 대화와 긴장 완화의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긴장 완화에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나 말만으로는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 ‘북한의 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 관련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데이비드 맥스웰」, 「구체적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한 북한의 발표만으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
- 「샤론 스콰소니」,
  -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것은 모든 관련국들의 이해에 부합한다. 핵실험 계획 부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되며 그 대신 관련국들은 이것을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한 방법으로 핵보유국 선언의 의미에 대해 北측과의 논의를 제안하고 현장 사찰 등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은 특히 중국에게 중요하므로 초반에 중국 외교관들과 北측간 양자 접촉을 하고 점차 다른 관련국들도 참여하는 식의 적극적 개입 또한 유의할 것이다」라고 주장

o 北에 감춰진 수용소의 충격적인 폭로(6.14 내셔널 포스트 27 캐나다 일간지)

- 북한 수용소 시스템은 지난 60년간 인도주의에 반하는 큰 범죄 중 하나지만, 한국조차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음.
- 「블레인 하든」(워싱턴포스트 동북아특파원을 지낸 작가), 탈북자 신동혁씨 증언을 토대로 쓴 「14호 수용소 탈출(Escape from Camp 14)」에서 북한 수용소 문제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
  - 「정치억압을 받고 있는 티벳과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수단 다르푸르에서는 각각 「리차드 기어」와 「조지 클루니」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북한에는 도움을 제공하는 유명인사가 없다」
- 「14호 수용소 탈출」은 어둡고 무자비하게 냉정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동혁씨는 감옥에서 수차례 고문을 당하고 작업장에서 재봉틀을 실수로 망가뜨렸을 때 오른손 중지를 잘렸음.
- 이는 재봉틀이 수감자들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012.6.15(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 수용소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식량과 맞바꾸기 위해 서로 고자질하고 있음.
- 14호 수용소 수감자들은 옥수수·양배추·소금 등 거의 기아에 가까운 식단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밭에서 잡을 수 있는 페뚜기, 잠자리, 쥐, 개구리 등도 먹고 있음.
- 영양실조 상태인 수감자들은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까맣게 변하며, 상당수가 단백질 부족으로 치매와 피부병변을 유발하는 펠라그라에 걸림.
- 14호 수용소를 비롯해 다른 수감시설들이 인공위성 사진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캐나다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북한의 범죄를 조사하는 UN 조사위원회 설립을 이끌며 북한을 망신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UN 조사위원회는 유엔 헌장 제7장하에 설립될 수 있으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 □ 중국어권

### ○ 일본은 미사일 탑재차량의 對北수출을 왜 다시 들춰내는가?

(6.14 차이쑨)

- 미국이 이미 일반 민수용이라고 인정했던 탑재차량의 중국 수출건을 몇 개월이 지나 일본이 다시 들춰내고 있음.
- 기술 한계와 국제 제재를 받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이 크게 제고되면 韓·美·日은 타국의 비밀지원이 있다고 여김.
- 이에 제일 먼저 의심받는 대상은 바로 북한과 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국임.
- 일본이 다시 들춰내는 이유는 먼저 일본의 전략적 근시안과 군국주의 때문임.

2012.6.15(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中·北의 탄도미사일 기술 협력을 빌미로 군국주의를 다시금 부활시키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음.
  - 이번 문제를 크게 만든 다음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와 일본의 재래식 무기 및 핵보유 전투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 미국은 중국이 위법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음. 이는 대북 외교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고 중국을 자극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임.
  - 그러나 일본은 근시안적으로 私利만 추구하고 한반도 안정을 해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음.
  - 반세기 전에 일어난 대동아전쟁의 전략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본 민족의 근시안은 바뀌지 않은 것 같음.
  - 차량의 외관만 보고 중국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임.
  -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빼내려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함.
  - 또한 북한이 위성 발사를 고집하는 것과 어선 나포사건은 中·北 간에 거리와 틈이 있음을 보여줌.
  - 그러므로 중국이 북한을 간섭하도록 만들면 한반도 정세는 오히려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임.
- 北, 가뭄으로 희천발전소 발전량 못미친다. (6.15 신화망)
- 6.14일 중국 신화사 기자는 북한 희천 발전소를 방문해 현재 가뭄으로 2호 발전소의 댐수위가 조금 낮아져 있음을 확인함.
  - 발전소 책임자는 '4월부터 시작된 50년 만의 가뭄으로 발전소의 수원이 부족해 새벽과 저녁에만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발전량은 평양 에너지 수요의 20%에 불과하다'고 말했음.



##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전문가, 협정 위반을 근거로 中·北 비난할 수 없다.

(6.14 콜로스 러시아어 라디오)

- 중국의 미사일차량 對北 수출 관련, 당시 사실을 알고 있었던 韓·美·日이 왜 中·北 거래를 묵인했는지 의문임.
- 러시아 전문가들은 차량공급 사실 자체로 中·北이 국제의무를 위반했다 할 수 없으며, 실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에야 이러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음.
- 현재 중국은 사실상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북한은 핵미사일 잠재력을 강화했을 때에만 대외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고, 이라크 혹은 리비아와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 「젠나디 예프스타피예프」(前 해외정보국 고위관리),
  - ‘매우 논쟁거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은 관련사실을 부풀릴 것이다.’
  - ‘물론 사실상 북한은 위성로켓이라 부르는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이미 협정을 위반했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차량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 위반으로 비난할 수 없다.’
  - ‘북한이 상황 억제력으로 여기는 대응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신호이다’라고 주장함.

○ 對北 지원 이루어지고 있다. (6.14 altapress 지역 언론사)

- UN 산하 세계식량계획 차원에서 러시아연방 비상사태부가 알타이 지역의 제분회사와 계약을 맺고 對北 공급 예정인 밀가루 총 6,202톤 중 일부를 화차 10대에 탑재해 알타이 지방을 출발했음.
- 금번 지원되는 밀가루는 철도 및 선박을 이용해 나호트카항을 거쳐 청진으로 갈 예정이며, 컨테이너는 사용되지 않을 예정임.

2012.6.15(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3차분으로 나눠 2천 톤씩 공급될 예정인데, 단시간에 대규모 물량을 한 회사에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北 노동당 대표단, 나호트카 하원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6.14 나호트카 하원 홈페이지)

- 北 노동당 대표단(단장: 안형민), 러·北간 협력 논의 차 나호트카 지역 방문해 각 정당(통합 러시아당·공정 러시아당·공산당) 관계자들을 비롯한 하원의원들과 만남을 가졌음.

- 양측은 다양한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러한 만남이 상호간 더 잘 이해하고, 더욱 전망있는 계획과 구체적인 행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결론을 내림.

- 北 대표단 단장,

-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역은 북한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다. 서로간 선린우호·경제 관계는 상호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 「발레리 미쉬킨」(나호트카 하원 환경·복지 상설위원회 의장),

- ‘북측 관계자들과 처음으로 이러한 형식의 회의를 가졌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노동당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떤 과제에 당면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간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

## □ 일본어권

○ 北 열악한 인권상황을 자국의 약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6.13 아시아프레스)

- 「이시마루 지로」(아시아프레스 편집장),

- ‘6.12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지적한 것에 대해 격렬히 반발했다.’

2012.6.15(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에 대해 비판을 받으면 반대로 타국의 인권을 맹렬히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열악한 상황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자국의 약점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

## 붙임 1. 中 Global Times 보도 원문 (6.13)

Global Times 홈페이지

"Crop Idol: North Korean military band 'serenade' rice"

- o Global Times (GT) reporter Wang Zhaokun talked to Sharon Squassoni (Squassoni), director and senior fellow of the Proliferation Prevention Program at the Washington-base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ai Jian (Cai),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Fudan University, and David Maxwell (Maxwell), associate director of the Center for Security Studies of Georgetown University, on the issues.
- o GT: How do you see North Korea's repeated denial of its nuclear test plans? Cai: On May 30, North Korea proclaimed itself a nuclear state following a revision of its constitution, complicating international efforts to persuade Pyongyang to abandon atomic weap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mmediately exerted great pressure on North Korea. Pyongyang's move was possibly aimed at averting mounting international pressure, knowing that its proclamation is unlikely to be accepted by other nations.
- o Squassoni: There could be many reasons for North Korea to deny a nuclear test plan. They may simply be responding to press speculation about activities. Or, they could be attempting to stave off action by concerned states. But I don't think that denials really improve the North Korean image at this point, given the rocket launch and its recent proclamation of itself as a nuclear state.
- o GT: After North Korea's proclamation of itself as a nuclear state, the US said that it wasn't considering resuming food aid to Pyongyang. South Korea also asked North Korea to pay back its food aid loan. Some analysts believe North Korea's latest denial was related to the suspension of foreign aid. What's your view?
- o Squassoni: The promise of US food aid was connected to an earlier agreement that North Korea violated by the satellite launch. That promise apparently did not influence North Korea's decision to launch the satellite. It is possible that North Korea's leadership considered the

Global Times 홈페이지

probability that the US wouldn't resume food aid when it decided to issue the nuclear proclamation. In the past, promises of food aid have been important to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o actions to deny food aid could still be an important influence.

o Maxwell: I believe the US is reluctant to provide food aid more because of the lack of transparency to ensure that such aid is getting to those truly in need. As to South Korea's demand, if the North worked to pay off its debts and allowed complete transparency in the delivery of food aid these would be actions that would improve its image far more than an announcement that it will not conduct a nuclear test.

o GT: There are comments saying that North Korea's denials are merely a delaying tactic. What's your prospective? Cai: North Korea has failed to honor many of its commitments before. The statements by North Korea only said that it does not have a plan for another test in the short term, which did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such a test in the long term. Also, since North Korea has proclaimed itself a "nuclear state" in its constitution, it is unlikely to give up nuclear status.

o Maxwell: I think there are several major reasons why Pyongyang may still carry out a nuclear test. First is as part of the north's traditional strategy in which it conducts provocations to gain political and economic concessions. The other consideration for such a test is the potential impact on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which North Korea hopes will usher in a progressive president in the December elections.

o GT: Do you think North Korea's statements provide an opportunity for engagement and to cool tensions? What action do you expect from China and other parties to promote the process?

o Cai: The statements might cool tensions a little bit at the moment, but it is unlikely that words alone can be accepted by other nations and lead to re-engagement and dialogue. North Korea should take more actions to cle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spicion over its intentions. That said, China, which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agreements among the relevant parties in the past, should also continue its diplomatic efforts in persuading North Korea to abandon its possible test.

Global Times 홈페이지

- o Maxwell: North Korean statements do not offer the possibility of re-engagement unless they are accompanied by concrete actions.
- o Squassoni: All the relevant parties have an interest in heading off another North Korean nuclear test. A denial of test preparations should not be taken at face value, but instead, the parties coul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build trust with Pyongyang.
- o One approach would be to invite discussions with the North Koreans on the significance of the recent "nuclear proclamation" and to explore ways in which North Korea could demonstrate it was not preparing for another nuclear test. On-site visits could be part of that. China has particularly strong interests in ensuring that North Korea does not test again. Active engagement by Chinese diplomats, perhaps first on a bilateral basis and then with other parties would be helpful.

## 붙임 2. 내셔널 포스트 보도 원문 (6.14)

내셔널 포스트 홈페이지

“Escape from Camp 14’: A shocking expose of North Korea’s ‘hidden gulag”

- o For six decades running, the North Korean gulag system has comprised one of the greatest crimes against humanity known to history. Even in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gulag issue is widely ignored, except among a small corps of refugees and dedicated activists.
- o Blaine Harden describes the reason for this in his extraordinary new book, *Escape from Camp 14: One Man’s Remarkable Odyssey from North Korea to Freedom in the West*. “In a media culture that feeds on celebrity, no movie star, no pop idol, no Nobel Prize winner [has] stepped forward to demand that outsiders invest emotionally in a distant issue that lacks good video,” he writes. Tibet has Richard Gere, and Darfur has George Clooney. But North Korea has nobody.
- o Human Rights Watch interviewed approximately 65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Thailand over the past six months. One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who left North Korea in December 2009 told Human Rights Watch that

내셔널 포스트 홈페이지

“anyone who quits his job ... is legally punished for the reason of being unemployed ...” and will be “taken to the forced labor camp for between three to six months. Anyone who doesn’t work is assumed to be a criminal in North Korea.” Another male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in March 2011 said that “... if you are placed somewhere [to work], you must go there without question” and “it is impossible to refuse working because you didn’t like it, it’s compulsory without a doubt.” If a person did not come to work, the authorities would go to their home to find them. They would beat them severely and curse at them, saying ‘Why didn’t you come to work?’

- o Escape from Camp 14 is a dark and brutally unsentimental book. Shin was tortured many times in prison – including, at one point, a slow roast over a fire, as if he were a suckling pig. When he accidentally wrecked a sewing machine in a gulag sweatshop, the chief foreman hacked off the middle finger on his right hand, because “sewing machines were considered more valuable than prisoners.”
- o To survive in the North Korean gulag system, even small children snitch on one another in return for pathetic scraps of food. At Camp 14, prisoners live on a near-starvation diet of corn, cabbage and salt – along with the locusts, dragonflies, rats and frogs they manage to catch in the fields. Over time, malnourished prisoners lose their teeth, and their gums blacken. Due to a lack of protein, many contract pellagra, which leads to dementia and skin lesions.
- o Camp 14, and the other facilities like it, now show up plainly on satellite images. Pyongyang is hypersensitive on the issue: Whenever Western negotiators bring it up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a former U.S. State Department official told Hayden, “they go nuts.”
- o Canada can take a lead role in shaming Pyongyang by leading the charge to establish a UN Commission of Inquiry that would investigate North Korea’s crimes against its citizenry – of which the gulag system is merely the most obvious example. Such commissions can be established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this is how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Darfur was established in 2004, for instance). But since China would almost certainly veto such a maneuver, a better starting point would be the U.N. General Assembly, which also has the power to initiate inquiry commissions.

### 붙임 3. 중국 차이쉰 보도 원문 (6.14)

#### 차이쉰 홈페이지

“日本缘何要为中国出口朝鲜导弹车“翻案”？”

- 朝鲜新型导弹车亮相4月阅兵式之后，外媒就一度热炒中国对朝输出导弹运输车的传闻。时隔数月，日本媒体再次掀起波澜，称有证据掌握中国向朝鲜出口导弹车。一个原本已经被美国“盖棺定论”的“普通民事案件”，为何风云再起？
- 不过，受到内部资源、技术限制以及外部多国制裁等多方面的因素，美日韩等国一直认为朝鲜突飞猛进的导弹技术是受到了别国的秘密支援。与朝鲜关系最为密切的中国自然成为首要怀疑对象。
- 那么，一个原本已经被美国“盖棺定论”的“普通民事案件”，日本为何执意为之“翻案”？分析认为，不知深浅的日本此刻再次提出中国对朝出口军车的“指控”，或是出于以下几点原因：第一，日本的战略短视及军国主义化心态；炒作中国与朝鲜的导弹技术合作，或与日本期望加速为军国主义招魂不无关系。而今次炒作中朝导弹话题，则是希望借渲染朝鲜半岛的紧张局势，为强化日本常规战斗力甚至拥有核战斗力背书。美国此前认定中国并未违规，是因为中国在对朝外交上发挥着不可替代的重要作用，美方希望避免过度刺激中国、让北京感到难堪；目光短浅的日本则只看到一己私利，不惜做出破坏半岛稳定大局的举动。半个多世纪之前的“大东亚战争”的重大战略失误，似乎并未改变日本民族的战略短视习性。
- 朝鲜半岛局势的稳定固然是各国的共同愿景，然而日本屡屡炒作中国对朝出口导弹技术不仅毫无道理，也难为半岛紧张局势降温。相反，甚至可能火上浇油。且不说日本仅仅凭借外观就断定朝鲜导弹车来自中国，是极其不负责任的态度。事实上，中国外交部也一再强调，中方企业没有向朝鲜出口任何安理会相关决议和中国法律法规所禁止的物项。另一方面，有韩国媒体之前爆料朝鲜间谍曾试图购买乌克兰的导弹技术，也从一个侧面说明在导弹研制方面朝鲜并未得到包括中国在内的其他大国的援助。况且，朝鲜执意“射星”以及中国渔船被劫持事件，都已经表明中国和朝鲜之间并非全无分歧和隔阂，因此通过某些手段迫使中国增加对朝鲜的外交干预，反而可能会令半岛局势陷入不可收拾的境地。好好管管自己吧，日本！



## 붙임 4. 중국 신화망 보도 원문 (6.15)

### 신화망 홈페이지

“走访朝鲜“新千里马速度”代表——熙川水电站”

- 记者 14 日乘车沿蜿蜒峻岭，来到清川江上游慈江道西部山区，走访了朝鲜人民引以为豪的熙川水电站。站在 2 号发电站的大坝上放眼望去，远处苍翠山间，“负责千年 保障万年”的标语分外醒目。
- 记者在现场看到，2 号发电站坝上水位有所下降。金秀吉表示，由于从 4 月开始朝鲜遭受 50 年不遇的干旱气候，导致发电站水量不足，目前发电站只在早晨和傍晚工作，发电量仅达到平壤所需电量的 20%。 据介绍，平壤目前一天的电量需求为 60 万千瓦，已建成的 1 号和 2 号发电站设计发电量能够满足平壤所需电量的 45%。目前，3 号至 12 号阶梯式发电站正在建造中，工程于 2015 年竣工后其发电量可望满足平壤所需电量的 50% 以上。

## 붙임 5. 러시아 골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6.14)

###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Платформы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 была ли сделка?”

- Полученные тогда сведения Токио передал Вашингтону и Сеулу. Правда, почему так долго все три страны молчали о сделке Пекина и Пхеньяна, остается не очень понятным. Похоже, что история, начавшаяся еще летом 2011 года, не окончена.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ША могут вновь вспомнить ее для оказания давления на Пекин и Пхеньян. Ведь Пеки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грает слишком большую роль в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Пхеньян же хорошо усвоил, что, лишь укрепляя свой ракетно-ядерный потенциал, он может защититься от внешних угроз и избежать судьбы Ирака или Ливии.
- По мнению росси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сам факт поставки неких самодельных установок не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Пхеньян или сторона-поставщик наруша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Об этом можно говорить только после запуска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

골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кет с поставленных платформ, заявил в интервью "Голосу России" бывш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офицер Службы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и РФ Геннадий Евстафьев: "Вопрос этот очень спорный. Американцы и японцы будут раздувать эту историю. Н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юридической пока эти установки не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обвинять корейцев в нарушени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нельзя. Правда, они уже нарушил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запустив свои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космические ракеты. Но это очень серьезный сигнал о то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здает ответный потенциал, который он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как потенциал сдерживания".

**붙임 6. 러시아 altapress 보도 원문 (6.14)**

altapress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10 вагонов алтайской муки отправлены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 Экспортная компания "Алтайские мельницы" осуществляет поставки витаминизированной пшеничной муки с заданными показателями качеств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отгружены первые 10 вагонов. Дальнейшие поставки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 согласованному графику.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езти в КНДР 6202 тонны алтайской муки.
- Поставка муки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через Находкинский морской рыбный порт в Чонгджин (КНДР).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а носит комплексный характер - ж/д и море. В Находкинском порту мешки с мукой будут погружены в трюм морского судна, без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нтейнеров (навалом), и доставлены в КНДР тремя партиями примерно по 2000 тонн. Это первая поставка муки навалом (в трюме судна) из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Сложность операции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отгрузить большой объем продукции в короткий срок с од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 붙임 7. 러시아 나호트카 하원 게재 원문 (6.14)

### 나호트카 하원 홈페이지

“Депутаты думы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 Депутаты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Алексей Макаров и Василий Лобода,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партию «Единая Россия», Валерий Мишкин и Павел Шкир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Леонид Зеленов и Эльсевар Габибов (КПРФ)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встреч народных избранников края 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 членами делегации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Народно –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посетившие Приморье в дни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оссии.
- Заведующ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делом ТПК Ан Хен Мин и его коллеги прибыли в Находку, чтобы вместе с депутатами обсудить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оссии.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иморье в том числе, географически близко расположенные к соседней стране,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редставляю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а расширение и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является взаимовыгод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Депутаты и корейские гости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по многим вопросам и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такие встречи имею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лучшего понимания друг друга и определения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вариантов диалога и конкретных шагов. Беседы состоялис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Находке. В нашем городе местом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тало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КНДР.
- Мы впервые общались в таком формате с коре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Было интересно узнать, как действует Трудовая партия, какие задачи стоят перед её членами, в чем мы можем помочь и чему поучиться друг у друга. Есть о чем говорить сегодня и на долгую перспективу.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итоги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стоя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экологии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находкинской думы Валерий Мишкин.

## 붙임 8. 일본 아시아프레스 보도 원문 [6.13]

아시아프레스 홈페이지

“「人権」指摘の韓国李政権を茶番劇と非難”

- 12日付け朝鮮中央通信は「人権の廃虚の上でも言うことがあるのか」と題する論評を發表。最近韓国の李明博大統領が、北朝鮮の深刻な人権状況や生活悪化を指摘していることに対して激しく反発した。
- 一方、自国の人権状況については、「人民大衆の自主的権利と創造的活動が制度的に保証されているわが国には、敵対勢力がけん伝している『人権問題』なるものが存在せず、また存在するはずもない」「国家と社会の堂々たる主人として自主的人間の真の自由と権利を享受しているわが人民の姿はむしろ、南朝鮮の同胞の羨望と憧れの的となっている」と自画自賛し強弁している。
- 北朝鮮政権は、国際社会から人権批判が向けられると、逆に他国の人権批判を激しく主張する傾向が強い。それは、体制維持のために国民に劣悪な人権状況を強いている現実を、自らの弱点として認識しているからだと思われ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UN은 조건부 대북지원 해야 한다. (6.18 Bangkok Post)

- 지난 주말 조선중앙통신은 가뭄피해소식을 전하며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고 밀, 보리, 감자 및 옥수수 수확 피해가 심하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음.
- 북한은 부적절하고 잔인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또 다시 기근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지난주 UN의 북한 보고서 공개 시점과 맞물린 발표 시기 또한 우연이 아니었을 것임.
- 북한은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와중에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세계 4위 규모인 110만 병력에게는 식량이 부족치 않음.
- 무능력하고 야만적이며 잔인한 정부는 많지만 악정, 부실 관리, 억압에서 북한을 능가하는 국가는 없음.
- UN은 다시금 국제적 대북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엄격한 조건부 지원을 해야함.

○ 韓, 北 위협에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6.15 CSIS 코리아포럼 회보)

- 「이상준」(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 조교 및 한국전담 연구프로그램 책임자),
  - '천안함 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환경은 더욱 불확실하고 안심할 수 없는 상태로, 정보·감시·정찰(ISR)에 대한 수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탄탄한 ISR 시스템으로 북한과 한반도에 대해 자세히 보고 듣는 것은 어떤 안보위협에도 방어, 준비, 대응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 '특히 진전된 ISR 능력은 한국의 방어능력과 역내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
- 'ISR 능력은 한국 군대가 북한의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저지해 전투준비와 국방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해준다.'
- '한국 군대의 불충분한 ISR 능력은 작전효과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평도 포격시 4명이 사망했음에도 적절한 때에 공격 진원지를 찾아내지 못해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
- '최근 무인항공기(UAV) 기술 개선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고 ISR 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 '한국의 UAV 기술은 상황인식과 한반도 위협에 때맞춰 대응하는 능력을 크게 강화시켜 줄 것이다.'
- '한국과 일본은 현재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 공유를 확대하는 등 ISR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은 UAV 기술 개발로 ISR의 한계 극복에 주력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주요 파트너국들과 역내 안보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ISR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 '개선되고 강화된 ISR 능력은 한국이 방어력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역내 안보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언급

## □ 중국어권

### ○ 김정일 사망 반년, 안정적 정권 교체 이뤄내다.(6.17 중국신문망)

- 6.17일로 김정일이 사망한지 반년이 되었고 그동안 정권을 잡은 김정은의 잦은 공개활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안정적 교체가 이뤄지고 김정은이 순조롭게 정권을 잡으면서 점차 김정은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2012.6.18(月),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김정은 집권 반년 동안 북한의 △내정, △외교, △군사, △민생, △대외선전 등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양시위」(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 ‘김정은의 개인적 스타일은 김정일과 많은 차이가 있다. 비밀스런 예전과 달리 지금은 더욱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 「왕이저우」(북경대학 국제관계학 부원장),
    - ‘내정에서 외교까지 김정은은 이미 순조롭게 권력을 이어 받았다.’
  - 김정은 집권 반년 동안 군사외교적인 활동이 비교적 많았으며 선군정치 노선을 변함없이 걸으며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한국에 대한 태도는 김정일 시기보다 더욱 강경해졌음.
  - 「왕이저우」,
    - ‘군대는 줄곧 북한의 버팀목이었으며 김정은에 있어 군대의 중요성은 집정 안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선군 정치 노선은 현재로선 바뀌지 않을 것이다.’
  -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은 동남아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해 지난 5월, 김영남 위원장이 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등 고위층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
  - 또한 광명성 3호 실용위성 발사로 북한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음.
  - 「양시위」, ‘북한의 위성 발사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실패를 감추지 않고 국내외에 발표를 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줬다.’
  - 또한 외신 기자 초청과 발사 실패를 즉시 발표하는 모습은 북한의 대외 뉴스 발표에 대한 변화를 보여줌.
- 中 단둥市, 북한 노동력 수입 계획있다.(6.15 경제관찰보 ⇨ 경제 전문지)
- 중국 단둥시는 지리적 이점으로 국경무역이 발달해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신도시와 개발구 건설에 주력하고 있음.

- 현지 정부는 신시가지 구역을 中·北 국경 협력의 교두보로 삼고 교통 허브로써 중국 국경무역의 대표 지역으로 만들 계획임.
- 현재 북한노동력 수입 기획을 제정하고 있는데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통해 단동을 중국 동북 지역의 OEM가공업 도시로 만들 예정임.
- 이로써 압록강 유역의 13개 도시와 함께 노력해 북한 노동력 집산지가 되어 동북 국경 지역의 전체적인 개방을 이뤄낼 예정임.

## □ 일본어권

### ○ 北 핵실험 자제하고, 경제재건을 우선시하다. (6.17 NHK)

- 북한은 일단 핵실험을 자제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제 사회와의 결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있음.
- 한편 김정은이 상점과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도함으로써 경제재건에 서두르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외교소식통은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에게 생활이 좋아졌다고 느끼게 해줘야 하며,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보다 국내의 경제재건을 우선시하는 쪽이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 ○ 中 대련항, 대북 불법수출의 온상 (6.14 산케이)

- 6.13일 산케이신문이 입수한 6자회담 참가국의 보고서에서 UN안보리결의에서 금지된 북한으로의 군수물자 수출입에 중국이 관여되어 있는 실태가 판명됨.
- 보고서는 불법수출의 거점으로 대련항을 지명함.



- 「대련항의 中·北무역관계자」,
  - ‘북한의 무역회사는 군수물자를 거래할 때 화물명을 전자제품이나 농업기계 등으로 허위기재한다.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대련항을 통해 대상물자를 반입시 사전에 관계를 맺어둔 대련세관의 간부가 근무할 때 통관수속을 하며, 컨테이너 1대당 40만~60만 위안의 뇌물이 필요하다’라고 증언함.
- 보고서는 상당한 수의 위조계좌가 중국계 은행에 개설되어 있으며, 무기거래와 사치품 수입 등의 은밀한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 계좌 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북경에서 평양까지는 항공편으로 직접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으며, 배경에 공항세관 등 중국 당국의 묵인이 있다는 점도 지적함.

○ 미사일 발사대 수출에서 드러난 中·北관계 (6.14 코리아리포트)

- 북한이 중국의 미사일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지 않듯이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을 위협으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묵인하고 있음.
- 이는 단순히 우호관계 때문이 아니라 중국은 북한을 31개省 중 하나의 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과 미국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국입장에서는 日·美에 대한 견제 혹은 방파제가 됨.
- 일본 정부는 중국의 대북지원을 중단하게 만들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 정보’를 언론에 흘렸지만 일본과 중국 간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한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군비증강을 방치할 것임.

□ 러시아어권

○ 對北 지원 재원 마련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6.15 리아 노보스티)

-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국장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 도움 없이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 상황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힘.

- 「발레리 아모스」(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국장),
  - ‘우리는 북한 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기 발표된 바와 같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1억 9,800만 달러가 필요하다.’
  - ‘하지만 북한 내부 정치상황으로 인해, 對北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재원을 모으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 ‘지난해에는 對北 식량지원에 필요한 금액의 40%밖에 채우지 못했다’라고 언급.

○ 김정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6.18 asiareport ☞ 정보분석 포털)

- 북한 지도부, 3차 핵실험을 연기한 채 경제발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김정은은 최초로 공개한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최근 들어 북한 언론매체는 김정은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공장 및 상점 방문을 선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붙임 1. Bangkok Post 보도 원문 (6.18)

Bangkok Post 홈페이지

### "North Korea's unjust ideals"

- o The official North Korean media reported on the weekend that the country was suffering a drought. As usual, the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gave few details, except to say that the dry conditions have lasted for "a long spell" and affected the major food crops \_ corn, wheat, barley and potatoes. But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it is once again on the edge of a famine caused by inept and cruel government policies.
- o The timing of the weekend news from Pyongyang was probably not an accident. Last week, the United Nations issued one of its saddest reports of recent memory.
- o Of course North Korea and its hereditary Kim dictators have achievements. Amid the millions of malnourished children, they have the atomic bomb. Current tyrant Kim Jong-un has 1.1 million well-fed citizens \_ the world's fourth largest military armed force.
- o A couple of years ago, two Stanford University instructors offered an online course in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college credits for those who passed. Project chief Peter Norvig said 160,000 students signed up. They were from every country in the world, except North Korea. This, like child malnutrition, is a graphic illustration of w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to its citizens, instead of what it does for them.
- o There are many governments which are incompetent, brutish and sometimes cruel. There is no other country, however, which rivals North Korea in mis-government, mis-management and official repression. The United Nations has opened a new appeal to the world to provide North Koreans with help. Certainly, they deserve it. But it is time the UN put on strong conditions.

## 붙임 2. CSIS 게재 원문 (6.15)

CSIS 홈페이지

### "Argus's Eyes Over the Peninsula"

- o In the aftermath of the sinking of Cheonan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 the Republic of Korea (ROK)'s security environment has grown increasingly

CSIS 홈페이지

uncertain and less secure, making the ability to collect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information ever more critical. The ROK's ability to see and hear further into the North and beyond the peninsula with a robust ISR system is essential as it is an important aspect of deterrence, readiness, and response to any potential security threats.

- o Advanced ISR capabilities are particularly necessary to improve ROK defense capacity and regional security in general. The ROK's improvement of its ISR would serve two main purposes: first, it would enable the ROK military to monitor and deter North Korean threats more effectively, enhancing its combat readiness and defense posture. Second, improved ISR would allow the ROK to cooperate with the U.S. and other partners to counter regional strategic challenges such as an emerging China.
- o Yet, the ROK military's insufficient ISR capabilities have continued to limit its operational effectiveness. In 2010, North Korea fired artillery on the Yeonpyeong Island, killing two ROK Marines and two civilians. The ROK military retaliated, yet was unable to inflict significant damage to North Korean battery positions as it failed to locate the origin of attack in a timely manner.
- o The recent innovation i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technologies presents the ROK with a new array of opportunities, and it should leverage this development to increase ISR competencies.
- o The ROK's ability to employ such platforms would substantially enhance its situational awareness and enable a timely response against possible threats on and beyond the peninsula. For example, the ROK and Japan are currently working to sign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to step up their ISR cooperation through increased information sharing on various issues including North Korea and China.
- o The ROK should continue to make a concentrated effort to address its ISR shortfalls by leveraging technological advances, placing emphasis on UAV systems. Meanwhile, the ROK should also cooperate with the U.S. and other key partners on ISR to deal with regional security concerns - such as the emergence of China - more effectively.

**붙임 3. 중국신문망 보도 원문 (6.17)**

중국신문망 홈페이지

“分析称金正日逝世半年朝鲜政权实现平稳交接”

- o 2012年6月17日, 是朝鲜前领导人金正日的半年祭。在这半年时间里, 接掌大权的

중국신문망 홈페이지

金正恩在各种场合中频频亮相。专家称，朝鲜政权已经实现平稳交接，金正恩顺利接班，朝鲜逐步迈入“金正恩时代”。

- 金正恩执政半年时间，朝鲜在内政、外交、军事、民生、对外宣传等多个方面均展现了和以往的差异。中国国际问题研究所研究员杨希雨指出，金正恩的个人风格与其父金正日有很大不同，朝鲜一改往日神秘，更真实地展现在世界面前。
- “金正日逝世半年来，朝鲜政权过渡大体顺利，社会没有出现动荡局面，对外关系上也没有冲突发生”，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副院长王逸舟表示，从内政外交方面来看，金正恩已经平稳接班。
- 金正恩执政半年，在军事外交方面动作频仍，他恪守朝鲜一直以来遵循的先军政治路线，强调进一步加强国防力量建设。而在对韩态度上，金正恩治下较金正日时期更加强硬。朝鲜官方表态永远不会同李明博政府进行接触，并声明将用武力还击任何挑衅。
- 王逸舟指出，从朝鲜建国以来，军队一直是国家的支柱，对现任领导人金正恩而言，是否重视军队是其执政稳固与否的重要标志，因此，朝鲜先军政治路线目前不会改变。
- 金正恩全面接管政权之后，朝鲜加强了与东南亚国家的外交接触，高层交流互访不断。5月中旬，朝鲜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委员长金永南访问新加坡和印度尼西亚，这是金正恩掌权以来，朝鲜最高层级官员的首次正式出访。金永南出访期间，还向印尼总统苏西洛转交了金正恩的访朝邀请，若苏西洛成行，这将是金正恩执政后开展的首次首脑外交。
- 另外，首颗实用卫星“光明星3号”的发射将朝鲜推向了风口浪尖。4月13日，“光明星3号”发射升空，数小时后被朝鲜官方证实未能成功进入轨道。杨希雨指，虽然朝鲜发射卫星影响较负面，受到国际社会的指责。但它在发射失败几个小时后就向国内外通报了这一消息，没有任何隐瞒，这也显示出朝鲜的自信。评论也称，朝鲜卫星发射的过程备受争议，但朝官方在发射卫星前邀请外国专家和记者观摩、发射失败后不久即发布卫星未能进入轨道的消息，是朝鲜对外信息发布的一次转变。

**붙임 4. 중국 경제관찰보 보도 원문 (6.15)**

경제관찰보 홈페이지

“走访朝鲜“新千里马速度”代表——熙川水电站”

- 丹东拥有的财富并不只有边贸，而外界对丹东的认知却仅限于此，这是一个很大的误区。事实上，丹东的主政者早就不满足于边贸所带来的GDP效益，而将重心

## 경제관찰보 홈페이지

都转移向新城和开发区建设, 并酝酿12+2东北东部城市城区区域合作规划, 希望引导东北东部13个城市向国家争取更多的资金和政策。

- 丹东新区全名为丹东临港产业园区新城, 又称为国门湾新区。当地政府对丹东新城的定位为中朝边境互补合作的桥头堡, 未来的区域综合交通枢纽, 并希望将其打造成中国边境最具有代表性的形象窗口, 丹东未来的“铜锣湾”。此外, 丹东目前正在制定一个关于承接“朝鲜劳动力”的规划。期望通过廉价的朝鲜劳动力, 把丹东打造成东北东部的代加工城市或者承接东部的代加工产业, 并让鸭绿江流域的13个城市一起发力, 使这成为朝鲜劳工最大的集聚地, 从而推动东北东部边境地区的整体开放。丹东市委书记戴玉林更是在辽宁省第十一次党代会上直言要优化城市发展布局, 打造国际化港口城市, 建设大气秀美新丹东。

## 붙임 5. 일본 NHK보도 보도 원문 (6.17)

### NHK 홈페이지

#### “北朝鮮 核実験自制し經濟再建優先か”

- 北朝鮮の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が死去して、17日で半年となります。後継者のキム・ジョンウン第1書記を中心とする指導部は、3度目の核実験をひとまず自制して国際社会との決定的な対立を避ける一方、喫緊の課題である經濟の立て直しを急ぐ姿勢を見せています。
- 北朝鮮では、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がちょうど半年前の去年12月17日に死去したあと、三男のキム・ジョンウン氏がことし4月、新たに設けられた第1書記などに就任し、党・国家・軍すべての権力の継承を終えました。
- 軍事優先路線を受け継いだ新指導部は、先に事実上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のに続いて3度目の核実験を行う構えを見せましたが、先月、「核実験は想定したことがない」としてひとまず自制する考えを示し、国際社会との決定的な対立を避けています。
- その一方で、キム第1書記は、初めての演説で「人民生活の向上」に取り組むと強調したほか、地下資源の管理徹底や干拓事業の推進などを指示する談話を発表しました。
- また、国営メディアでも、商店や工場を視察する様子がたびたび伝えられており、喫緊の課題である經濟の立て直しを急ぐ姿勢を見せています。

NHK 홈페이지

- これについて、外交筋の間では「北朝鮮指導部は、国民に暮らし向きがよくなったと実感させる必要に迫られており、対外的な緊張を高めるよりも国内経済の再建を優先するほうが得策だと判断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が出ています。

**붙임 6.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6.14)**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北朝鮮制裁逃れの温床、中国大連港…賄賂で目こぼし証言も”

- 国連安保理制裁決議で禁じられている北朝鮮への軍需物資の輸出入に中国が大きく関与している実態が、6カ国協議参加国当局の報告書で判明した。報告書が不正輸出の「拠点」と名指しするのが中国・大連港だ。北朝鮮は大連の中国企業を隠れみのにして、輸出入元の国名を北朝鮮から「中国」と偽装。中国税関当局者が賄賂を得て黙認しているとの証言もあり、中国側の関与の根深さが浮かぶ。
- 「北朝鮮の貿易会社は軍需物資を取引する際、貨物名を電子製品や農業機械などと虚偽記載する。取引する中国企業が結託しているからこそ可能なことだ」
- 報告書によると、大連港のある中国遼寧省の中朝貿易関係者が今年2月、こう証言したという。
- 朝鮮鉱業開発貿易会社や朝鮮嶺峰総合会社など、安保理の制裁対象に指定された北朝鮮貿易企業は、証言のように貨物名を虚偽記載したり、輸出入元を中国と偽ったりするほか、中国企業名で物資を購入し、制裁逃れを図ってきたという。
- 国連安保理の北朝鮮制裁委員会などの報告でも大連が不正輸出入の拠点になっていると指摘されてきた。北朝鮮が2009年7月、南浦港からイランにロケット弾や起爆装置を輸出しようとし、アラブ首長国連邦当局に摘発された際、大連港で第三国船籍の船に積み替えられていた。今年5月に制裁対象となった北朝鮮企業「グリーン・パイン・アソシエティッド」が軍艦部品をアフリカに輸出した際も大連の中国企業名が使われた。
- 6カ国協議参加国の報告書によると、「大連港を通じて対象物資を搬入する際、事前に連携している大連税関幹部の勤務中に通関手続きをし、コン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テナ1台に40万~60万元(500万~750万円)の賄賂が必要」といった複数の証言があり、大連税関当局の関与が濃厚となっている。

- 報告書は、相当数の偽造口座が中国系銀行に開設され、武器取引や、制裁で禁じられているぜいたく品の北朝鮮輸入などの取引に利用されていると指摘。口座への追跡調査を逃れるため、北京から平壤へ空路で直接、巨額の資金を持ち出すケースもあり、背景に空港税関など中国当局の黙認があるとも指摘している。
- 国連安保理の北朝鮮制裁委は、大連を通じた武器輸出について中国に調査を求めているが、中国側は別の国の運送企業に責任を転嫁するか、回答しないのが実情だという。

## 붙임 7. 일본 코리아리포트 보도 원문 (6.14)

## 코리아리포트 홈페이지

## “ミサイル発射台輸出で見た中朝関係”

- 昨日から中国が北朝鮮に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台車両を輸出していたことが問題となっている。この件について中国外務省は「木材運搬用として輸出したもの」と弁解しているようだ。民需用に輸出したところ、北朝鮮が勝手に軍需用に転用したと言いたいのだろう。本当だろうか？
- 確かにその可能性はないとは言えなくもない。手袋も、帽子も軍人に転用されれば、軍手、軍帽ということになる。中朝の昨年の貿易量は63億ドルに達しているが、そのうち中国の対北輸出は、31億7千万ドル。中には軍需用に転用されたものも相当あるだろう。
- しかし、輸出した車両が、国連が反対するミサイルの発射台に使われていたわけだから事は重大だ。中国は国連安保理では「ミサイル発射反対」の決議や声明に署名していたわけだから、これは明らかに国連の制裁決議への違反である。では、なぜいずれはばれることを中国はやったのだろうか？また、なぜ、北朝鮮も先の軍事パレードであえて公開したのだろうか？
- 昨日、都内のホテルで開かれた全国通運業連合会での講演で中朝関係についていつもより時間を割いて触れたが、その際「北朝鮮が中国のミサイルを脅威に感じてないように中国もまた北朝鮮のそれを脅威には感じてないどころか、むしろ黙認しているようだ。その理由は、単に友好関係にあ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中国は北朝鮮を31省の1省と位置付け



코리아리포트 홈페이지

ているからだ」と断言した。簡単な話が、国境を接している北朝鮮は中国からすれば東北4省（黒龍江省、遼寧省、吉林省、北朝鮮省）の1省扱いに過ぎないということだ。

- 北朝鮮のミサイルは尖閣諸島問題で対立を深めつつある日本や東シナ海で覇権を競っている米国に向けられているわけだから、極論を言えば、中国にとって北朝鮮のミサイルは日米に対する牽制、あるいは防波堤にもなっている。
- 日本政府は、中国が北朝鮮への支援を止めるよう、強いては中朝関係に楔を打ち込もうと、今回の「ミサイル発射台情報」をマスコミにリークしたが、日本が中国との間で尖閣諸島の問題を抱えている限り、沖縄に米軍を駐屯させ、台湾有事に備えている限り、中国は今後も北朝鮮の軍備増強を放置するだろう。

**붙임 8.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6.15)**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Мир должен поддерживать Афганистан, Южный Судан и КНДР - замгенсека ООН”

- Без помощ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Афганистан, Южный Судан и КНДР не справятся со сложн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ситуацией, заявила в пятницу в интервью РИА Нов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ООН по гуманитарным вопросам, глава Управления ООН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гуманитарных вопросов (УКГВ) Валери Амос.
- Серьезную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гуманитарных служб ООН вызывает и ситуация в КНДР, отметила глава УКГВ. Она напомнила, что на днях ООН был объявлен призыв собрать **198**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для оказания КНДР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 "Из-за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КНДР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край не сложно собирать средства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там гуманитарных программ", - сказала Амос. Так, по ее слова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оказа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удалось собрать лишь **40%** от требовавшейся суммы".

## 붙임 9. 러시아 asiareport 보도 원문 (6.18)

asiareport 정보분석 포털 홈페이지

“Ким Чен Ын стремится развивать экономику КНД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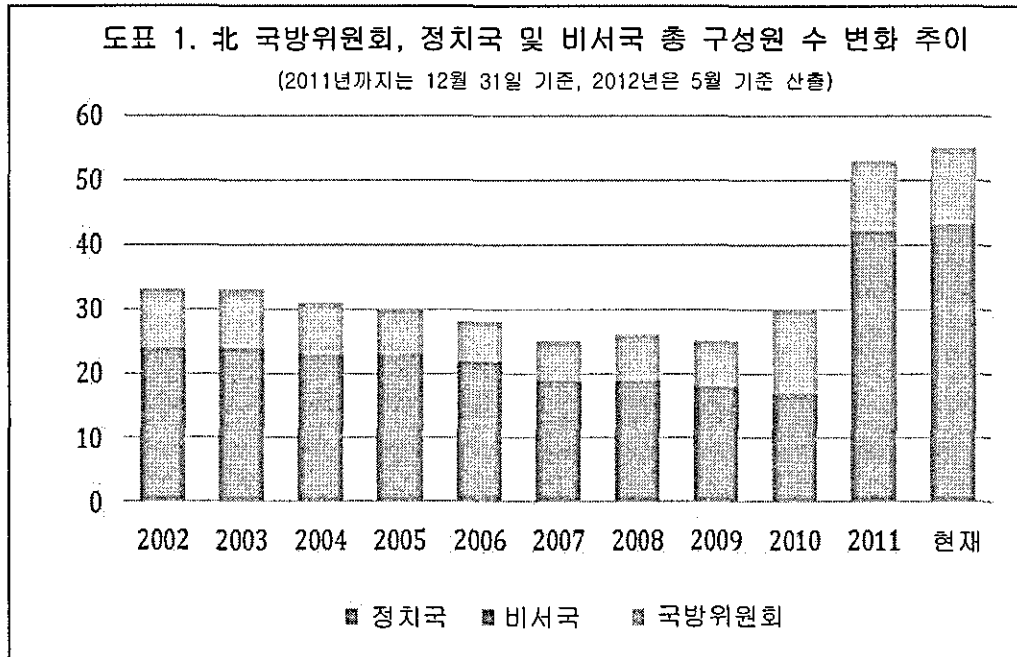
-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скорее всего, старается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откладывая пока проведение третьего ядерного испытания.
- Новы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занял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пост первого секретаря правящей в этой стране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ыступая со своей первой речью, Ким Чен Ын сказал, что он приложит усилия для улучшения жизн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опагандируют посещение Ким Чен Ыном магазинов и предприятий, стараясь подчеркнуть его стремление к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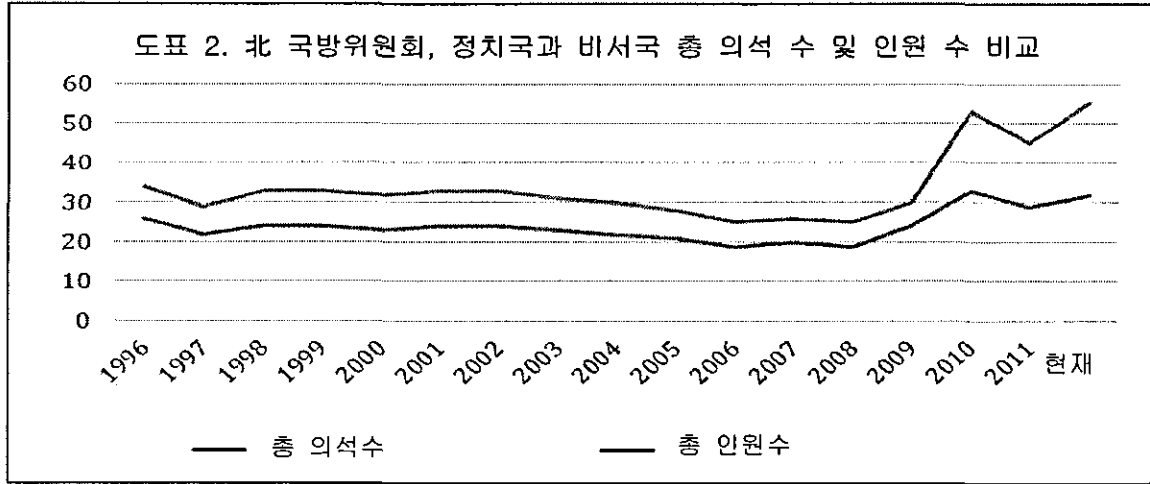
### ○ 北 후계구도의 국가권력기구 변화 추이 분석

(6.18 美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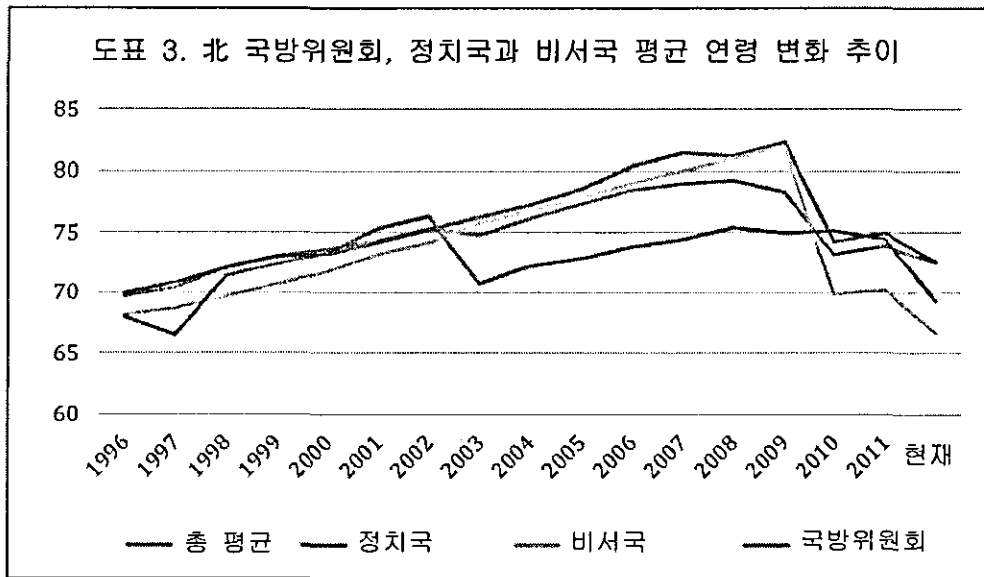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세 기구 모두 원로들이 사망함에 따라 구성원 수가 감소했고 2010년부터 국방위원회 개편을 시작으로 권력구도가 확대됨.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몇 단계에 걸쳐 대폭 확대, 개편됨.
- 정치국 구성원은 10명에서 2010년 31명으로 급증했으며, 두 차례의 당대표자회 사이에 (2010년 9월, 2012년 4월) 4명이 줄었다가 2012년 다시 31명으로 충원됨.
- 북한 체제의 특징은 한 사람이 여러 직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후계구도에서 인원 수 증가보다 급속한 의석 수 증가로 이러한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핵심층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인사가 임명되는 한편 최고층의 직위 겸직이 더욱 심화돼 '핵심 중의 핵심'의 부상을 시사함.

- 꾸준히 평균 연령이 증가해 2008년 80세를 넘겼으며 2008년 이후 감소함.



- 평균 연령 감소는 김정은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나이는 각 기관의 평균 연령을 1살 정도씩만 감소시킴.
- 평균 연령 감소폭은 비서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



○ 北 범죄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6.16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 신문)

- 「로버트 박」(재미 북한인권운동가이자 '북한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전세계적 연대' 창립 멤버),
  -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1994~1998년 굶주림 또는 기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만~350만명으로 추정된다.'

2012.6.19(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의 기아사태는 20세기 최악의 학살로 알려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우크라이나에서 홀로도모르(Holodomor)로 불리는 대기근 규모와 같은 수준이다.'
- '집단학살을 막는 해결책은 유엔 집단학살조약과 국민보호의 의무(R2P)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 'R2P 원칙은 집단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외교·인도주의·평화적인 방법, 그리고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 '미국 행정부는 북한 수용소의 무죄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외교적으로도 개입하려 들지 않고 있으며, 주민 수백만명은 식량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집단학살에 직면한 북한 정권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로 인해 열외 취급을 받고 있으나, 글로벌 안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에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고 불안정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
- '2차 한국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수많은 북한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즉시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 'R2P를 불러일으키고 북한 희생자 및 난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외교·인도주의·평화적인 개입을 시작하는 것은 북한 정권 몰락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 □ 중국어권

- 韓·美·日 연합 해상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6.18 홍콩 봉황위성TV)
  - 「정하오」(국제문제 전문가),
  - '6.21~22일 韓·美·日 3국은 연합 해상훈련 실시 예정인데 그 중 해양차단작전이 주목을 끈다.'

2012.6.19(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해양차단작전은 실전에 대비한 전략훈련으로 이지스 구축함, 무장헬리콥터 등이 동원될 예정으로 실전 성격이 농후하다.'
- '수색, 구조훈련 등 인도적 차원의 예전 훈련과 달리 이번 훈련은 전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이번 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 갑작스런 공격에 대비한다.'
- '훈련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도적 지위 강화, △韓·美·日의 군사협력 강화, △韓·美·日의 실전·협동력 강화, △평양에 보내는 무력위협 신호이다.'
- '미국의 亞太지역에 대한 전략적 구상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韓·日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 '지난 10년 간 두 차례 전쟁으로 미국의 전략 중점이 모호해졌고 韓·日과의 동맹관계도 느슨해졌다. 또한 중국의 도전 앞에 전략적인 이번 훈련을 통해 동맹국과의 군사력을 강화하려 한다.'
- '또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반대, 전작권 이전 연기 등 미군은 여전히 군사적 주도권을 쥐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실전 훈련을 통해 3국의 군사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 도발에 대해 반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주장함.

o 북한 가뭄과 김정은의 꿈 (6.18 차이선)

- 2012년은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해로 주민들에게 衣食 걱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를 약속했다.
- 그러나 심각한 가뭄으로 주민들은 다시 한 번 기아의 위협에 처했고 김정은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이 젊은 지도자가 현실에 직면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0년 만의 가뭄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굶주리는 국가에 있어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동원되어 농업생산을 지원하고 가뭄에 대처하고 있다.

가뭄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식량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안정된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국제 식량지원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외부세계는 지원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북한은 핵능력 제고와 주민 생활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모순에 영원히 빠져있는 것 같다.

김정일 사망은 김정은이 북한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기회라고 미국은 여겼지만 북한이 핵을 고수하면서 韓·美·日 등 국가의 반대도 단호해졌다.

서양에서 유학한 김정은은 북한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 것이다. 즉 그가 바라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삶 개선과 중국을 배워 개혁개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잡하고 험한 역사의 길을 직접적으로 가지 않으려 하고 많은 고위층들도 이를 원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강경한 정치·군사적 태도에서 핵포기라는 희망을 볼 수 없어 韓·美는 군사적 수단을 강화했으며 현재 상호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지역 평화에 이롭지 않으므로 주변국들도 북한의 핵보유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김정은이 주민을 고생시키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민생 개선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데 김정은은 국가 안보 및 정권 안정이 핵무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2012.6.19(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그러므로 약자의 북한을 향해 미국은 더 많은 양보와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
  - 현재 북한은 더욱 발전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길고 느릴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확고한 시작이 있어야 한다.
  - 취임 이후 공장, 학교 등 여러 기관을 시찰한 김정은의 모습에서 발전의 가능성을 찾으려 하는 그를 볼 수 있다.
  - 김정은은 현재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발걸음 앞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 北 보건성, 중국 선縣<sup>16)</sup> 결핵예방센터 방문 (6.18 라오청일보)
- 6.12일, 북한 보건성 결핵예방 시찰단이 중국 산둥省 선縣의 결핵예방센터를 방문, 견학했음.
  - 선縣 결핵예방센터는 뛰어난 성과로 '결핵예방 모범 현'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찰단의 방문과 교류를 통해 결핵예방 활동이 더욱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음.

## □ 러시아어권

- 러·美 정상, 북한에 UN안보리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6.18 리아 노보스티)
- 멕시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러·美 정상, '북한은 UN안보리 및 6자회담과 관련한 모든 의무사항 이행에 착수해야 하며, 한반도 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함.
  - 러·美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
    - '북한이 한반도 내 긴장을 확산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16) 선縣 : 중국 산둥省 북서부에 위치한 라오청(聊城)市에 속하는 현



2012.6.19(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우리는 6자회담 참여국으로서, 2005년 9월 19일자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에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언급함.

- 北 철도전문가, 러시아에서 연수중이다.(6.19 vladnews 지역 언론사)
  - 북한 철도전문가 34명, 러시아에서 철도부문 관련 연수 들어감.
  - 2012년 초 개최된 러시아 극동철도와 북한 철도성 대표단간 회의에서 북한 철도전문가 연수 조건 및 프로그램이 합의됨.
  - 본 합의 내용에 따라 극동철도 우수리스크 연수원에서 4개 그룹, 극동국립교통대 연해주 분교에서 1개 그룹이 연수를 받게 됨.
  - 연수 후 7월 하순에는 연해주 올레네보드 역에서 실습 예정임.
  - TKR 전체구간 재건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되는 하산-라진 구간 철도현대화 프로젝트는 올해 완공예정임.

## □ 일본어권

- 北외무성, 美에 대한 불만 표현하기 위해 힐러리 비난하다. (6.18 지지통신)
  - 북한의 힐러리 비난은 미국과의 대화재개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임.
- 日·美 국장급 안보협의 개최하다.(6.19 지지통신)
  - 日·美정부는 6.18일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외무·방위당국의 국장급협의를 워싱턴 국방부에서 개최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북한문제와 해양안보,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등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3개국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붙임 1.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도 원문 (6.18)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홈페이지

"Mapping the Succession I: An Overview of Institutional Change"

- o In Figure 1 below, we simply pool these institutions, tracking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n each body from 2002 to the present; membership in the body for a given year is captured by membership on December 31 of the of the year in question, except for "current" which is as of May 2012.
- o First, all of these bodies shrank over the 2000s, largely by natural attrition as elderly members died off. The second development of note is the expansion that occurs in 2010, beginning with a major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 expansion of the Politburo is even more dramatic and occurred in several stages, and with some substantial shuffling. In short succession—in September 2010 and April 2012—the leadership convened two Party Conferences; these were the first major party assemblies in thirty years. The Politburo grew from 10 to 31 in 2010, and then witnessed some attrition with the loss of 4 members between the two conferences before again expanding to 31 in 2012.
- o However,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North Korean system is that these institutions are staffed by a number of people who hold overlapping positions. However, the phenomenon has become even more pronounced during the succession. Figure 2 shows the number of positions of all three institutions as well as the number of discrete individuals occupying them.
- o As can be see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ositions grows much more rapidly than the increase in the elites holding them. While the power elite is expanding, as new members are being brought into the inner circle, the "inter-locking directorate" structure at the top is also becoming more pronounced, suggesting an inner core to the inner core that we will explore in more detail in future posts.
- o A final way of looking at these broad trends is through the lens of age and leadership cohorts. Figure 3 tracks the average age of all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홈페이지

three bodies, as well as the average age of all discrete individuals occupying positions in them. The continuity in institutions prior to 2008 can be seen in the steadily rising average age of the core institutions, peaking at nearly 80 in 2008. After 2008, the average age falls. Although this is driven in part by the ascent of Kim Jong Un, he only changes the average age of each institution by about a year or so. The fall in the average age is most pronounced in the Secretariat, the key administrative institution of the party itself but also the body that oversees the state apparatus.

## 붙임 2. 아시아타임스 게재 원문 (6.16)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North Korea’s crimes go unpunished ”

- o The most plausible estimates are that from a population of 22-24 million, between 2 million and 3.5 million people died from starvation or hunger-related illnesses from 1994-1998, in spite of one of the largest international aid efforts in modern history.
- o Overwhelming evidence exposes this famine as genocide on the same level of destruction as Cambodia’s Killing Fields and the 1994 Rwandan genocide; of Holodomor dimensions and proportions; instigated, nurtured and maintained by the DPRK establishment to meet concrete political objectives (One must always remember North Korea has systematically starved masses in the prison camps since its inception in 1945).
- o How to end this genocide should not be a mystery to anyone. The solution lies within the dictates of the UN Genocide Con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rinciple, where we pledged to intervene first by "appropriate diplomatic, humanitarian, and other peaceful means" and then by force, if necessary, when any given state fails to protect its populations from genocide, war crimes, ethnic cleansing, and/or crimes against humanity.
- o The tragic reality is that no US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to intervene even diplomatically in behalf of the masses of North Korean innocents in the prison camps subject to extermination, and the literally millions who will never be beneficiaries of food aid no matter how much may be delivered. Confronting the regime about mass atrocities has always been sidelined due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in large part to North Korea's nuclear and WMD arsenal, but with no success in improving global security; on the contrary, the world is only in a more dangerous and precarious moment than ever before in reference to its relation to North Korea.

- o Correspondingly, the reality today is that the only chance we have to avert a second Korean War is to act urgently and decisively for the sake of countless innocent North Korean victims.
- o Invoking our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beginning a diplomatic, humanitarian and peaceful intervention through bringing North Korea's genocide before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ncreasing monetary support to the DPRK's victims, the North Korean refugees can help save millions of North Korean lives and facilitate the end of the regime.

### 붙임 3.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6.18)

봉황위성TV 홈페이지

“郑浩：美日韩三国军演 目的针对朝鲜”

- o 在6月21号到22号美日韩三国将举行海上的联合军演，这次军演的科目除了有海上搜救之外，我还注意到，其中有一个科目就是海上拦截作战这样一个科目。如果说是海上拦截作战，他当然就是一个战略性的科目，也就是说它的实战特点非常突出，而且出动海上的舰只来看，也是带有实战性质的，比方说有导弹驱逐舰，有武装直升机等等。
- o 这次是首次的美日韩进行三国的海上联合军演，其实2008年举行过一次，然后每年都举行，但是规模非常小，而且项目基本上都是海上编队、海上搜救、人道援助这些比较低层次的军事项目的演习，这次完全不同了，它带有战略性质。我个人的判断，这次联合军演，它的主要指向，或者是它的主要目的还是针对朝鲜，也就是如何来通过联合军事演习来加强防范朝鲜，有可能对韩国或者是对他们所说的敌人，发动突然的进攻。
- o 具体来讲，我想这次三国的联合军演它要达到四个目的。第一，强化美军在军事应对朝鲜半岛局势上的主导地位，这点非常重要；第二，强化美日韩三国军事合作的关系；第三，强化并提升美日韩三国实际的作战能力和协同的这种能力；第四，向平壤方面发出武力威慑的信息。
- o 当然首先加强和战略盟友日本和韩国的军事联系，这是非常重要的一个细节，在

북항위성TV 홈페이지

过去的十年由于两场战争，由于美国它的战略重心比较模糊，因此对这两个战略盟友之间的关系似乎是有一些松懈，或者至少是没有达到美国所期望的愿望，再加上刚才所说的朝鲜半岛整个东北亚局势，或者是整个亚太的局势，都发生了一系列新的变化，出了一系列新的情况，中国也在迅速的崛起，一些潜在的挑战使美国不得不加强同盟友之间的战略关系，而进行海上的联合实战，带有作战性质的演习，很显然，就是要加强和盟国的这种战略的、军事上的能力。

- 美军他要牢牢的掌握朝鲜半岛的军事主导权，这点从最近的一条消息韩国想要发展远程的导弹，向美国提出了这样的主张，但是被美国拒绝了，因此我们可以看到，美军实际上还是在牢牢的掌控着军事上的主导权，有关像韩国军方移交战事指挥权，似乎也是不了了之。所以面对这样一个新情况，我相信通过这样一个非常实际的，贴近实战的演习来强化美日韩三国的军事关系，当然我刚才也提到，还要向平壤方面发出一个明确的信息，如果你真的是要挑衅，如果有所动作，当然面对的是美日韩三国毫无留情的反击。

붙임 4. 중국 차이신 보도 원문 [6.18]

차이신 홈페이지

“朝鲜旱灾和金正恩的梦想”

- 2012年本应是金正恩开启朝鲜新时代的第一年，作为最高领导人，他曾经向朝鲜人民郑重承诺要让所有人过上衣食无忧的社会主义新生活。然而，一场严重的干旱让饥肠辘辘的朝鲜人再次走在了危险的边缘，金正恩面临着严峻的考验。人们依然在看这个年轻的领袖能否直面现实，走出历史的疑云。
- 6月，在平壤郊区的水稻田里，农民们集中抢种补种，一派忙碌景象。从4月份开始，朝鲜便持续少雨。朝鲜气象水文局表示，朝鲜正在遭遇50年不遇的干旱。对于一个粮食不自给自足，而且民众经常处于饥饿状态下的国家来说，这是个灾难。朝鲜正举国上下全民动员支援农业生产，全力投入抗旱工作。
- 朝鲜官方媒体采用多种方式向外界呈现了此次严重的旱灾，国际媒体也普遍予以关注。如果此次旱灾继续的话，那么朝鲜将面临严重的粮食危机，这将对朝鲜社会的稳定产生极为不利的影晌。所以，朝鲜可能需要更多的国际粮食援助。然而朝鲜强硬的政治态度似乎让外界对于该国的援助变得谨慎。
- 朝鲜似乎永远陷在寻求国家核力量与提高人民生活水平的矛盾之中。美国认为，前朝鲜最高领导人金正日的逝世将给金正恩留下一个巨大的机会，一个可以带领朝鲜脱离饥饿并走向光明的机会。但金正恩似乎仍在延续其父金正日的推进核计划的目标，然而这恰恰是美日韩等国所坚决反对的。

차이선 홈페이지

- 在西方学习过的金正恩或许知道朝鲜需要的是什么，正如他自己所希望的那样，要带领朝鲜人民过上好日子，甚至学习中国进行改革开放。但他并不能直接越过历史的种种复杂而直接跨过这道坎，至少朝鲜的很多高层决策者这并不愿意这么做。朝鲜在政治和军事上的强势让美韩等国看不到朝鲜弃核的希望，从而令美韩加强军事应付手段，于是相互的恐吓和威胁升级为一个再也无法回头的历史循环。
- 在国际社会来看，周边国家都不希望朝鲜拥有核武器，因为这必然会造成整个东亚地区的紧张，对地区和平显然没有任何好处。美国希望金正恩放弃劳民伤财的核计划，专心改善朝鲜的民生问题，这似乎是一个二选一的问题。但在金正恩看来，核武器与朝鲜的国家安全和政权稳定息息相关，朝鲜站在弱势地位，美国需要作出更多的让步和释放更多的善意才行。
- 现在的朝鲜越来越需要发展，这或许是一个缓慢的过程，但至少需要一个坚定的开始。从金正恩上任以来，对工厂、学校和很多机构的考察可以看出，他希望朝鲜能够取得更大的发展空间。历史沉淀下来的恩怨并不会立马消失，它需要一个国家的政府和人民去解开这些恩怨，金正恩或许正在尝试，但步子迈得太大存在风险。

**붙임 5. 중국 라오청일보 보도 원문 (6.18)**

라오청일보 홈페이지

“朝鲜卫生部来莘县参观考察”

- 6月12日，朝鲜卫生部结核病防治工作考察团在省卫生厅、市卫生局及省市结核病防治中心有关领导的陪同下，就莘县的结核病防治工作进行了参观考察。
- 考察团在县疾控中心听取了莘县的结核病防治工作汇报，并参观了结核病门诊、痰检实验室和结核病病房设置和安全防护情况，查看了结核病防治工作的软件资料。近年来，莘县结核病防治工作在县委、县政府及上级有关部门的领导和大力支持下，各项工作均走在全市乃至全省的前列，多次受到上级的表彰和奖励，被命名为全市第一个“全省结核病防治示范县”。该县疾控中心负责人表示，此次考察活动的交流，必将促进该县结核病防治工作的深入开展。

## 붙임 6.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6.18)

###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РФ и США призывают Пхеньян выполнить предписания СБ ООН”

- Россия и США призвал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риступить к выполнению всех предписан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и обязательств перед шестеркой и рассчитывают, что КНДР не примет действий, усиливающих напряже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резидентов РФ и США.
-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не будет совершено действий, ведущих к эскалации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Барака Обамы, принятом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на полях саммита G20. Стороны призвал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риступить к выполнению все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редписан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и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 совместному заявлению Китая, КНДР,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оссия, США и Японии от 19 сентября 2005 года.
- "Будучи партнерами по шестистороннему переговорному процессу, мы готовы продолжать совместные усилия, чтобы достичь проверяем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вместным заявлением от 19 сентября 2005 года", -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в документе.

## 붙임 7. 러시아 vladnews 보도 원문 (6.19)

### vladnews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На ДВЖД проходят обучени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и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34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а приступили к обучению в Уссурийском учебном центр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и Приморском филиал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ДВГУПС).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

vladnews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ди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анее достигнутыми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и между ОАО «РЖД»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КНДР,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оссийской компании. После подготовк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и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участок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Туманган - Раджин.

- В начале 2012 года на совместном совещании руководств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и делег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ыли согласованы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и условия стажировки иностр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огласно протоколу совещания, в Уссурийском учебном центре вед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4-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упп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локомотивного и путевого хозяйства, а также связи, сигнализации, централизации и автоблокировки (СЦБ). Пятая группа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обучается в Приморском филиал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управлению движением.
- После обучени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июля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ов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стажировка на станции Оленевод. Модернизац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частка Хасан - Раджин, которая завершится в 2012 году,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сторонами как пилотная часть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сей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붙임 8.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6.18)**

지지통신 홈페이지

“在韓米軍増強に反発＝「自衛的国防力を強化」－北朝鮮外務省”

- 北朝鮮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は18日、在韓米軍の増強計画や日米韓の合同軍事演習の実施などについて「休戦協定に対する乱暴な違反であり、公然とした挑発だ」と強く反発し、「拡大される米国の侵略戦争準備策動を高度の警戒心を持って注視しており、自衛的国防力をあらゆる面で強化していく」と警告した。朝鮮中央通信が伝えた。



지지통신 홈페이지

- 同省スポークスマンは17日にもクリントン米国務長官を批判しており、米国との対話再開への道筋がなかなか見えないことへのいらだちを示したものとみられる。

**붙임 9. 일본 지지통신 보도 원문 (6.19)**

지지통신 홈페이지

“北朝鮮、中国情勢めぐり意見交換=日米が局長級安保協議”

- 日米両政府は18日、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問題を話し合う外務・防衛当局の局長級協議をワシントンの国務省で開き、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中国の軍拡や海洋進出の動きなど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19日も続開する。
- この日は米側が、先週ワシントンで開いた韓国との担当閣僚による安保協議(2プラス2)の内容について説明。北朝鮮問題や海洋安保、大量破壊兵器の不拡散などをめぐり、韓国を交えた3カ国の連携を強めることを確認したとみられる。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북한의 성분제도, 후계구도에서 더 중요해 질 것이다.

(6.19 American Spectator)

- 「더그 벤도우」(美 CATO 연구소 선임연구원),

- ‘김일성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전주민 대상 출신성분 분류를 통해 25%가 핵심계층, 55%가 동요계층, 20%가 적대계층에 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 ‘자주 인용되는 다른 통계는 핵심 28%, 동요 45%, 적대 27%로 추산하고 있으며 적대계층을 40%까지 추정하는 통계도 있다.’
- ‘「앤드류 낫시오스」(前 미국제개발기구 국장)는 최근 북한인권위원회의 북한 성분제도에 관한 보고서 서문에서 출신성분 비율과 영양실조 비율이 대략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 ‘90년대 말 살인적인 기근 당시 한 서방 조사에 따르면 32%의 북한아동이 건강하고, 62%가 보통수준의 영양실조, 16%가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상기 출신성분 비율과 대략 일치한다.’
-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는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젊은층은 성분제도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30대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 ‘최근 몇 년간 성분제도가 약화되었다면 그 이유는 대기근으로 북한 정부와 배급제도가 약화되어 부패 및 뇌물수수가 증가했으며, 시장 활성화로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 ‘성분제도는 존재하지만 대재앙으로 인해 출신성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기근으로 인해 기회의 평등이 생기는 것은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 '그러나 북한 정치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성분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지속되는 빈곤과 기아 때문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 유지를 계속해서 중요시할 것이다.'
- '북한 정부는 심지어 컴퓨터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개인 신상 전산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 '또한 후계구도의 불확실성으로 충성세력의 지지 유지를 위해 성분제도가 더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 '성분제도의 변화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엘리트층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다.'
- '성분제도는 북한 엘리트층의 특권과 권위를 지탱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라질 제도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

○ 北 예술에 대한 외국작가들 평가(6.16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신문)

- '북한의 예술 탐험(Exploring North Korean Arts)'이라는 책은 북한 당국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해박한 언어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 쓰여짐.
- 이 책은 201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북한 예술 전시회의 부산물임.
- 작가 중 「군 드 괴스트르」와 「키스 하워드」는 북한 방문시 예술가와 음악가들을 각각 인터뷰하고, 「제임스 호어」는 영국 대사 직무 대행으로 북한에 장기 체류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책을 썼음.
- 「드 괴스트르」, '북한 예술 전시의 경우 작품 자체가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북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며, 알 수 없는 혐오감이 도는 것이 매력적인 요소이다.'
- 북한 예술에 대해 박식한 「프랭크 호프만」(작가)은 북한 그림에 소련식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일본 그림 양식과 만나 일본 식민지와 소련통치 모델이 뒤섞여 있다고 평가함.

- 「아이단 포스터-카터」(작가)와 「케이트 헥스트」(작가)는 북한 예술에 대해 국가의 가치 없는 예술품이라고 간주함
- 북한 예술은 새로운 예술형식의 가능성을 막으며, 북한 예술의 변함없는 목적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부추기는 것임.
- 「소냐 허슬러」(작가), ‘한국의 고전문학에 대한 북한의 사고방식 변화에 주목하며, 1980년대초 북한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수용했다’고 서술함.
- 「로스 킹」(작가), ‘북한 우표가 대부분 김일성 이미지나 너무 뻔한 선전 주제를 담고 있지만, 일부는 수출 시장을 위해 발행되고 있다’고 지적.

## □ 중국어권

### ○ 중국 산둥省 동잉(東營)市, 북한 동해안 어업 허가 받았다.

(6.19 중국수산양식망)

- 얼마 전, 산둥省 동잉市의 어선 14척은 북한 동해안에서의 어업 활동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음.
- 중국 근해의 어업자원 감소로 어업장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북한 동해안은 오징어를 비롯한 어업자원이 풍부함.
- 이에 중국 농업부 어업국은 북한과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중국 어선의 어업활동 자격을 얻게 되었음.

### ○ 최초의 中·北 합작영화 ‘평양의 약속’ 개봉되다.(6.19 21CN오락)

- 6.19일 최초의 中·北 합작영화 ‘평양의 약속’이 상해영화제에서 선을 보였음.
- ‘평양의 약속’은 양국 국민들의 우정을 말하고 있으며 극중 아리랑 공연을 포함한 북한의 실제 모습을 담아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음.
- 감독은 ‘북한에 대해 호감이 있었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이번 영화를 찍게 되었으며 중국인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우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언급

## □ 일본어권

- 미국무부, 북한 인신매매 최악 국가 재지정 (6.20 니혼TV)
  - 6.19일 美 국무부는 '2012년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과 시리아 등을 최악의 국가로 지목함.
  - 북한 여성들이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결혼과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함.
- 北의 최후통첩, 한국 금융시장을 인질로 삼다. (6.19 닛케이)
  - 북한이 집요하게 위협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 언론사의 '반북 캠페인'을 중지시켜 올 12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임.
  -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있어서 관대하게 원조를 해주는 좌파정권 수립이 생존에 꼭 필요하며, 최근 '소년단 경축행사 비난'은 구실에 지나지 않음.
  - 한때 북한의 좌파정권 수립계획이 착착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북한의 개입이 드러남에 따라 언론사들이 일제히 '반북 캠페인'을 전개함.
  - 만일 한국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북세력 의원들이 제명되어 좌파연합이 무너지면 대선에 목숨을 건 북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반북 캠페인'의 본거지인 언론사에 '조준'을 맞추는 것은 당연함.
  - 이번 남북 충돌은 과거와는 크게 다르며,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 만으로도 한국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음.
  -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금융시장으로 확산 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 북한으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았는데도 한국이 외교적 반격을 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서임.

- 조준사격의 위협을 당한 신문사도 해당사실을 보도했지만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음. 정부가 보도 자체요청을 한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자제보다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통일부장관의 금강산관광 재개가능 발언에 대해 일부 시장관계자들은 '돈을 지불할테니 위협수역에 있는 금융시장을 흔드는 행동은 자제해줬으면 한다'는 메시지로 보고 있음.
- 한국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나 통화위기에 빠진 적이 있으므로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위기를 회피하려고 할 것임.
- 북한이 금융시장을 인질로 잡으면 한국에 상당한 어려움이 될 것임.
-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정도의 제의에 응할지는 미지수임.
-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돈이 필요하지만 금융시장이라는 귀한 인질까지 이용해 위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언론의 중복세력 공격을 중지시켜 좌파정권을 세우는 것이 목적임.

## □ 러시아어권

○ 북한에서는 여전히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6.19 이타르타스)

-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제기와 관련하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의 공개처형에 대한 무반응, △권력승계 수단으로서의 필요성 일시적 중단임.
- 하지만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 증거자료는 없지만 총살형 외에도 교수형이 처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음.
- 북한 공개처형과 관련한 영상이 가끔 전해지고 있지만,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에 불과함.

○ 北 노동당 대표단, 아무르州 관계자들과 회동했다.

(6.19 amurinfo 지역 언론사)

- 北 노동당 대표단, 아무르州 공산당 관계자들과 만나 현재 상호간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농업·어업 분야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 北 대표단 단장(성명 불상),
  - '북한은 정보고립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산업생산 자동화를 위해 자력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 '리비아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강한 군대와 견고한 동맹국만이 어떠한 강탈행위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주는 보장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얼마전 평양에는 40층짜리 아파트 3,000세대가 보급되는 등 북한 주민의 삶은 개선되고 있으며, 식량배급 통계치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밝힘.

## 붙임 1. American Spectator 보도 원문 (6.19)

American Spectator 홈페이지

### "Songbun Communism"

- o Kim Il-sung, who had gradually acquired dictatorial power despite starting a disastrous war just eight years before, estimated that about 25 percent of North Koreans fell into the first category, 55 percent into the second, and 20 percent into the third. Another, oft-cited set of figures is 28 percent, 45 percent, and 27 percent, respectively. Other estimates take the "hostile" class up to 40 percent.
- o Natsios points out that during the murderous famine of the late 1990s one Western survey figured that 32 percent of North Korean children were free of malnutrition, 62 percent suffered moderate malnutrition, and 16 percent endured severe malnutrition. Those figures roughly correspond to past estimates of the population's songbun ranking, and official rations are known to be based on political status.
- o Virtually all of the refugees interviewed by Collins were aware of the system. Younger people believed it to be of decreasing importance, but their elders -- in their 30s and beyond -- thought otherwise.
- o If the system has waned in recent years, it is because the great famine weakened the North Korean state and government food distribution, encouraging the rise of corruption and bribery. As a result, "burgeoning markets, born of necessity with the state's inability to feed its people, have indeed provided new opportunities and individuals in most categories of songbun have been able to earn some money through their own initiative." The system remains, but catastrophe has made it possible for people to escape some of songbun's effects. Only in North Korea could famine generate a form of equal opportunity!
- o The system is unlikely to change without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DPRK political system. Poverty and hunger persist, which make it important for the regime to continue to try to maintain control over its people. The regime has even sought to bring songbun into the computer age by digitizing personal information.
- o An uncertain power transition further reinforces songbun's importance. He and his colleagues are attempting to traverse uncertain and



American Spectator 홈페이지

dangerous terrain, which makes it important that they preserve support from regime loyalists. However, notes Collins: "Changes in the songbun policy would undoubtedly be viewed as a direct threat to North Korea's elite who benefit most from the system." Songbun is likely to be one of the last practices to disappear from the DPRK. It is the foundation of privilege and power for the North Korean elite.

**붙임 2. 아시아타임스 게재 원문 (6.16)**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A window into North Korea's art world"

- o But this book is different: it is based largely on original research by scholars with an excellent knowledge of the language, some of whom have had in-depth conversations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is makes this collection of essays virtually unique.
- o Exploring North Korean Arts is the by-product of the largest ever exhibition of North Korean art abroad which was held in Vienna in 2010. The show, entitled Flowers for Kim Il-sung, was, as the editor Rudiger Frank notes, "heavily criticized for exhibiting the paintings without any comment," and the book is based on a symposium that was held "to supplement that missing active discussion of this difficult and emotional subject."
- o At least two contributors, Koen De Ceuster and Keith Howard, have interviewed North Korean artists and musicians respectively, during research visits to Pyongyang, while James E Hoare's chapter is based on a prolonged stay in North Korea when he was British charge d'affaires there.
- o As De Ceuster notes "in the case of a North Korean art exhibition, the attraction is not so much the art itself, as the fact that it hail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lure of the unknown, tinged with a certain amount of abhorrence is the main attraction here."
- o Frank Hoffmann's history of North Korean art is impressively erudite. He sees painting in North Korea as reflecting "a jumble of Japanese colonial and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Soviet administrative models serving as a frame where Soviet-style socialist realism met Japanized painting styles.

- o Aidan Foster-Carter and Kate Hext consider the idea of North Korean art as "state-kitsch", which is not "just some loose term of distaste" but "a formulaic mode of art that imitates the style and composition of earlier artworks and cultural icons." North Korean art is kitsch on several levels, they aver, "with a leaden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new styles of art. Its unwavering aim is to stoke sentimental loyalty to the regime ...".
- o Sonja Haussler takes a highly informed look at changing North Korean attitudes to classical Korean literature, noting that the 1950s was a period of "relative intellectual freedom in academic discourse to a degree that was never again to be possible". The period from the mid-1960s until the late 1970s was bleak, but there was a thaw in the early 1980s, as authorities adopted a more positive official attitude to classical literature, although Haussler notes that a two-volume reference work published in 2006-09 virtually ignored the enormous influence of Chinese literature on the literature of Korea.
- o Ross King notes that most stamps have predictable propaganda themes, with images of the Great Leader Kim Il-sung or heroic steel workers, but some are issued mainly, if not entirely, for the export market and their subject matter is highly unexpected.

### 붙임 3. 중국 수산양식망 보도 원문 (6.19)

수산양식망 홈페이지

“山东东营市有14艘渔船将赴朝鲜东海岸指定渔场作业 ”

- o 近日, 山东东营市14艘拖网渔船被山东省海洋与渔业厅批准申请朝鲜东海岸远洋渔业项目, 将陆续开赴指定渔场作业。
- o 面对近海渔业资源持续衰退、作业渔场大幅萎缩、传统捕捞业受到挑战, 而朝鲜东部海岸渔业资源尤其是鱿鱼资源丰富、开发潜力较大, 农业部渔业局主动加强与朝方联系沟通, 继续实施朝鲜东部海岸远洋渔业项目, 积极组织渔船“走出去”。2012年东营市有14艘渔船经山东省海洋与渔业厅审核通过, 获得参与朝鲜东部海岸渔业项目申请资格。这将为东营市的捕捞业实现可持续发展提供新的空间。

## 붙임 4. 중국 21CN오락 보도 원문 (6.19)

### 21CN오락 홈페이지

“首部中朝合拍片展映 《平壤之约》扫描朝鲜风貌”

- 首部中朝合拍片《平壤之约》6月19日在上海电影节展映，讲述了一个跳朝鲜舞的中国女孩去朝鲜参观学习，最终领悟到了跳舞真谛的故事。电影的支线是当年一个抗美援朝时期战地摄影师的后代去朝鲜寻找老照片里的后人的故事，最终中国女孩手里的一张残照和摄影师手里的残照合成了完整的一张。
- 《平壤之约》主要讴歌了中朝人民的友谊，但是对于广大的观众来说，其最新奇之处在于这部电影展现了很多朝鲜的真实风貌，特别是对于朝鲜十万人舞蹈《阿里郎》的描写，让观众对朝鲜人们的心态很是惊叹。
- 影片的导演西尔扎提和主演刘冬在影片放映之后和观众做了简短的见面会。导演西尔扎提表示第一次接到拍摄任务时很惊讶，“因为从来没有人去朝鲜拍过电影，就觉得很忐忑，后来又想，这么难得的机会，一定要拍好。因为我们都是看着朝鲜电影《卖花姑娘》长大的，对朝鲜有着特别好的好感。去了朝鲜以后，看到朝鲜人民对中国人民的友谊，也非常地感动。”

## 붙임 5. 일본 니혼TV 보도 원문 (6.20)

### 니혼TV 홈페이지

“人身売買報告書 北朝鮮とシリア最低ランク”

- アメリカ国務省は19日、世界各国の人身売買や強制労働の実態をまとめた報告書を公表し、北朝鮮やシリアなどを「最低ランク」に位置づけた。
- この報告書は毎年公表されているもので、人身売買や強制労働の実態を4つの段階に分けて評価している。「最低ランク」とされた北朝鮮については、中国との国境地帯で特に女性が人身売買の対象となり、望まない相手との結婚や売春を強要されていると指摘。その上で、「政府は何の対策もしていない」と厳しく批判した。この他、シリアやイランなどが「最低ランク」に位置づけられた。

## 붙임 6. 일본 닛케이 보도 원문 (6.19)

### 닛케이 홈페이지

“北朝鮮が「最後通牒」、韓国金融市場を人質に”

- 北朝鮮がこれほど執拗に“逆賊一味”への威嚇を続けるのは、韓国メディアこそぞっての「反北キャンペーン」を止めさせ、今年12月の韓国大統領選挙で“勝つ”ためだ。経済不振にあえぐ北朝鮮にとって「気前よく援助してくれる左派政権」の再興が生存に不可欠。「少年団への誹謗」は口実に過ぎない。
- 一時、北の左派政権擁立計画は着実に進むかに見えた。北は、自らの指示通りに動く「従北派」政党、統合進歩党を今年4月の韓国の総選挙で第3党に押し上げるのに成功。同党は「米韓同盟解体」を訴える極左だが、格差拡大など国民の経済的不満を追い風に比例区では10%もの得票を得た。
- しかし、北の介入が露見するに連れ、普通の韓国人も不気味に感じ始めた。統合進歩党の比例区当選者は党内でも知られていない人ばかり。メディアが彼らの過去を調べると、スパイとして逮捕歴のある人や、水面下で動いてきた従北活動家がほとんどだった。
- 危機感を抱いた大手メディアは5月以降「従北派議員を除名すべきだ」「民主統合党は従北政党との連合を止めよ」とキャンペーンを連日、張り続けている。これに押され、李明博大統領も従北派に強い懸念を表明した。
- もし韓国の大手メディアが呼び掛けているように従北派議員の除名が実現し左派連合が崩壊すれば、大統領選挙に生き残りをかける北朝鮮のシナリオは大きく狂う。今や、北は引くに引けないのだ。「反北キャンペーン」の本拠地、南のメディアに「照準」を合わせるのも当然だ。
- 現在の南北の“衝突”は「半島で年中繰り広げられているいつもの兄弟げんか」に見える。だが、今回はこれまでと大きく異なる。欧州の金融危機が世界に一気に広がって「いつ、地獄の釜が開くか」世界中が恐怖におののいている最中のいさかいだ。ちょっとした軍事的衝突が、いや、その懸念だけでも韓国金融市場の動揺を呼ぶ可能性が高い。
- 韓国政府も北との軍事的緊張が金融市場に飛び火しないか相当に神経を払っている。「最後通牒」を突き付けられようと北朝鮮に外交的反撃をしないのは、市場が南北間の緊張に注目するのを避けたいからだろう。
- 「ミサイルの照準を合わせた」とまで脅された新聞社も、その事実は報じたが大騒ぎはしていない。被害者になるのが好きな国民であることや、派手な紙面作りを好む韓国紙の特性を考えるといつもと異なる。政府に報道の自制を要請されたのかもしれない。

닛케이 홈페이지

- 한국は自制どころか譲歩し始めたのかもしれない。6月13日、韓国の柳佑益・統一相は4年間近く中断している金剛山観光に関し「再開可能」と発言した。韓国人観光客が北朝鮮の兵士に射殺されたため中断していた事業だ。
- その再開を、北朝鮮に「ミサイル攻撃するぞ」と威嚇されている最中に呼びかけるのは唐突感がある。「カネを払うから、危険水域にあるウチの金融市場を揺らすようなマネはやめて欲しい、というメッセージ」と読む市場関係者も多い。
- 韓国は1997年、2008年と2度に渡って通貨危機に陥り、IMF（国際通貨基金）や米国から外貨を借りて破産を防いだ。このため政権はどんな犠牲を払っても危機を回避しようとする。北朝鮮が金融市場を人質にとれば韓国に相当な無理難題をふっかけられる理由がここにある。
- ただ、北朝鮮が「金剛山観光再開」程度の申し出に直ちに応じるかは微妙だ。干ばつにより食糧難が厳しくなっている今、カネはノドから手が出るほど欲しい。しかし、貴重な“人質”まで利用し脅しているのは、あくまで韓国メディアの従北派攻撃を止めさせ、左派政権を生む対北融和ムードを作らせるのが目的である。

**붙임 7. 러시아 이타르타스 보도 원문 (6.19)**

이타르타스 통신사 홈페이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публичных казней ?”

- Но куда более правдоподобными кажутся другие мотивы - на пример, эксперт, огласивший данные опроса перебежчиков, предполагает, что народ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осто перестал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публичные казни. Привык, огрубел. И они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на время вычеркнуты из списка эффективных средств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население. Есть и другие возможные объяснения - в 2010 году началась постепенная передача власти от ныне покойного Ким Чен Ира его младшему сыну - ныне шнему правителю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у. Достаточно регулярные публичные казни в этот период могли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как необходимая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встряска, призванная укрепить дисциплину. Потом нужда в таких кровавых спектаклях на время прекратилась.

이타르타스 통신사 홈페이지

- Но это не значит, что публичные казни отменены. Таких данных нет. Кстати, по некоторым сведениям, помимо расстрела в КНДР применяется и виселица. Н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такой информации не имеется. На одном из редких, украдкой снятых видео запечатлено, кстати, как за расстрелом следит в числе других людей пионер в белой рубашке и красном галстуке. Впрочем, достоверность этого видео тоже не подтверждена.

**붙임 8. 러시아 amurinfo 보도 원문 (6.19)**

amurinfo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партийная делегация встретилась с амурскими коммунистами”

- 18 июня делегация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стретилась с амурскими коммунист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дружественных партий, разделён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барьером, смогли обменяться информацией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друг с другом. Корейские гости пригласили делегацию аму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мпартии и комсомола в гости в Пхеньян, сообщает [kprfamur.ru](http://kprfamur.ru).
- Поговорили о существующем хозяйствен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ью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народных промыслах. Гости рассказали о развитии КНДР. Глава делегации Ан Хен Мин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активно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собственны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редства автоматизаци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так как страна работает в условиях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изоляции. Мировые лидеры не делятся с нами сво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Усиливающаяся военная мощь КНДР вызвана только угрозой со стороны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Трагический опыт Ливии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лишь сильная армия и надёжные союзники являются гарантом защиты страны от разграбления».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 中·北 국경지역 이주 강화가 안되는 이유

(6.16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신문)

-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북한 전문가),
  - ‘중국과 북한의 국경은 1870년대 이전에는 거의 통행할 수 없었으나, 1870~1881년 이주 금지령이 풀리며 중국 만주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 ‘중국인과 북한 사람들 모두 풍부한 농경지에 매혹됐지만, 추위에 더욱 경험이 많은 북한 사람들은 만주에 적합한 쌀 수확법을 찾아냈다.’
  - ‘이주는 1910년 한일합방과 1932년 일본의 만주 침략 후 증가했으며, 일본은 한국인들의 만주 이주를 격려했다.’
  -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들 대부분은 일본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며, 1920~1930년대 만주는 한국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온상으로 김일성도 만주에서 게릴라에 첫발을 내딛었다.’
  -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많은 한국 교포들이 북한으로 영구 이주했으며, 당시 북한 당국은 국외 거주민들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 ‘1950년대 이들 중 일부는 중국 당국의 이주허가를 받아 북한으로 합법적으로 이전했다.’
  - ‘중국 정부는 대규모 이주로 자국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본국 송환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불법 도주했다.’
  - ‘1960년대 초 중국 시골지역은 심각한 기근에 직면했으며, 한국 교포에 대한 차별도 심해지며 1970년대 초 절정에 달했다.’

- ‘이에 따라 수만명이 북한으로 건너가자 중국 당국은 국경 수비대에 도주자들을 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 통치 하에 호황을 누린 반면, 북한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극심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거래로 북한에 불완전한 합법적 시장경제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장기 체류를 위해 중국으로 이주하는 북한 사람들이 증가했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이주가 매우 드물었다.’
- ‘1990년대 들어 급속히 발전한 중국의 시장경제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찰은 도주자들을 눈감아줬다.’
- ‘시간이 갈수록 국경 이주는 변했으며, 2000~2002년 북한 이주민들은 불법 이주노동자로 묘사됐다.’
- ‘결국 북한 당국은 국경안보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국경 지역에 군대 및 보안부대가 급격히 늘었다.’
- ‘2003년부터는 북한 사람들이 국경지역 여행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됐으며, 이는 표면상으로 친척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업 또는 단기 취업이 실제 목표였다.’
- ‘최근에는 외국, 특히 한국 영화 및 TV쇼가 담긴 DVD를 시청하는 북한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는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밀수입되고 있다’라고 주장

○ 최초 中·北합작영화 ‘평양에서의 약속’ 중국 제작자 인터뷰

(6.20 Hollywood Reporter)

- 상하이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첫 中·北 합작영화 ‘평양에서의 약속’이 한국, 중국, 유럽 영화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음.
- ‘허난영화티비제작그룹’, ‘차이나 필름 스텔러’(중국 공영 영화제작소이자 영화관 체인),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공동 제작한 이 영화는 아리랑 공연을 통해 양국의 우정을 그린 영화임.



2012.6.2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한국의 '상상문영화사'가 판권을 샀고,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영화사들 또한 관심을 보임.

「리 웨이 허」(‘평양에서의 약속’ 제작자/ 차이나 필름 스틸러 회장),

- ‘2006부터 다섯 차례 평양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갔는데 북한 사람들이 영화를 사랑할 뿐 아니라 중국 드라마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공동영화제작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2009년 영화광으로 잘 알려진 김정일의 승인 아래 북한 문화성의 허가를 받고 영화 제작에 착수를 했지만 각본 작업은 2년이나 걸렸다.’
- ‘북한측은 양국 우정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고집했고 항일 전쟁과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만 제안했다.’
- ‘그러나 중국측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의 북한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고 중국 젊은층이 공감할 수 있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현대적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 ‘중국측은 6·25전쟁 당시 양국의 동맹관계를 재연하는 장면 삽입을 거부했고 최종판에는 잠깐 언급만 되었다.’
- ‘자국의 이미지에 민감한 북한측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줄거리에 어떠한 갈등구도도 넣고 싶어 하지 않아했고, 어느 쪽도 잘못하지 않는 스토리를 고집했다. 결국 오해로 인해 드라마가 전개되는 내용에 합의했다.’

촬영은 평양에서 작년 가을에 시작되었고, 양국에서 감독한 명씩(시얼자티, 김형철)과 각본가가 한 명씩 참여했음.

제작·홍보 예산 230만 달러는 중국측에서 전액 부담했으며, 북한측은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고 북한내 촬영을 허가했음.

「리 웨이 허」,

- ‘주인공부터 엑스트라까지 모든 북한 배우들은 무상으로 일했으며,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했다. 물론, 중국 배우들은 돈을 받았다.’

- '아리랑 공연 재연을 위해 동원된 1만8천명의 어린 학생들이 아침 8시에 모두 모일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제작진이 현장에 와보니 이미 전원 도착해 준비완료 상태였다.'
- '또한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북한측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모두 각자 도시락을 싸왔다.'
- 2005년작 '오리엔탈 글라디에이터'가 최초의 中·北 합작영화로 발표되었으나, 「리 웨이 허」는 '결국 북한이 최종판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평양에서의 약속'이 최초의 中·北 합작영화다'라고 주장
- '평양에서의 약속' 공식 시사회는 평양에서 6월 26일, 북경에서 7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두 시사회에는 양국 정부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중국내 극장 개봉은 8월로 잠정 예정

## □ 러시아어권

○ 南北관계 긴장상태로 인해 3자 프로젝트가 동결된 상태이다.

(6.20 리아 노보스티)

- 「콘스탄틴 브누코프」(駐韓 러시아 대사),
  - '南·北·러 철도 및 가스관 프로젝트 등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 중요한 정치적 요인이지만, 현재 모든 계획이 완전히 동결된 상태다.'
  - '南·北간 긴장된 관계가 하산~나진구간 철도 보수구간을 이용해 한국 화물을 운송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 'TKR-TSR 프로젝트 추진 초창기에는 한국 컨테이너 운송에 활용할 것을 계획했다. 여수에서 컨테이너를 실어 북한 나진항까지 운송한 후 TSR로 연계시키려고 했다.'
  - '하지만 南·北간 접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며, 컨테이너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철도 구간을 양자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2012.6.21(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南·北·러 가스관 프로젝트와 관련, 당사국들과 재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필수계약이 체결된다면, 로드맵에 따라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기술조건의 구체적 검토 및 현지실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북한 지도부와 한국 측은 합의내용을 준수할 준비가 됐다는 의향을 이미 확인한 바 있으며, 이는 본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 것을 의미한다.'
-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南·北 관계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밝힘.

○ 아무르州, 북한 노동자를 우선 고용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6.20 portamur ⇨ 지역 언론사)

- 「올렉 코제야코」(아무르州 주지사), 농업부문 불법노동자에 대한 통제강화 계획을 밝힌 동시에 유희지 개간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까지 아무르州 내 영토에서 주로 활동해왔던 중국 노동자가 아닌 북한 노동자가 우선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임.
- 최근 들어 아무르州와 북한간 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駐北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 북한 협동농장을 방문했다.

(6.20 가제타 ⇨ 일간지)

- 매년 두 차례(봄, 가을) 북한 내 협동농장 농사일을 돕는 행사 일환으로 駐北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 고창협동농장을 방문함.
- 올해 북한은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서부 지역 쌀, 옥수수, 보리, 감자 파종에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짐.

## □ 중국어권

○ 中 상해~연길 전세기 취항, 신분증으로 북한 여행가능하다.

(6.19 동방조보⇨상해 지역 일간지)

- 중국 상해춘추국제여행사유한공사<sup>17)</sup>는 6.26~10.26까지 상해 푸둥공항~연길 조양천 공항을 연결하는 전세기를 취항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는 상해와 길림성을 잇는 최초의 노선으로 상해 주민들은 직항으로 연길, 백두산을 여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권 없이 신분증으로 북한 여행도 가능함.
- 노선은 4개월 동안 매주 화, 금 두 차례 운항되며 이 기간에 '연길·장백산·남양 5일 여행'상품도 판매될 예정임.

## □ 일본어권

### ○ 日 미디어 3개社 기자단 방북(6.21 산케이)

- 2차대전 당시 일본인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골반환을 놓고 아사히방송<sup>18)</sup>과 교도통신 등 3개사가 6.19일 북한을 방문함.
- 북한측은 평양시내 등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유골을 촬영 및 보도하게 함으로써 유족들의 심정을 동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UN 對北제재위 연례보고서 이르면 다음주에 공개(6.21 TBS뉴스)

- 지난 5월 북한의 UN제재 위반상황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가 이르면 다음 주라도 공개될 전망이다.
- 중국의 반대로 2년 연속 공개되지 않았지만 UN안보리에서 협의한 결과 중국이 올해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개에 동의함.
-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위반물자를 수입할 때 중개를 한 중국 대련의 기업 명칭도 구체적으로 기재됨.
- 또한 중국이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 미사일 발사대 차량에 대해 '더 조사를 실시한다'라고만 기재했지만, 관계소식통은 '이미 정보수집이 시작됐다'고 전함.

### ○ 평양중심부 재개발 완공되다. (6.20 산케이)

- 만수대 지구의 재개발 공사가 완료돼 6.20일 완공식이 열림.
- 4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 10개동 외에 백화점, 극장, 학교 등이 정비됨.

17) 상해춘추국제여행사유한공사 : 항공사업부문과 여행사업부문으로 구성된 회사로 중국 내 4,000여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여행사

18) 긴키광역권 대상 민영방송

## 붙임 1. 아시아타임스 게재 원문 (6.21)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 "North Korea's busy border"

- o If there were times when the border was almost impassable, it was before the 1870s. The migration ban was lifted between 1870 and 1881, and soon outsiders began to flood the areas now known as the Chinese northeast, but which were then referred to as Manchuria. Both Koreans and Chinese were attracted by the abundance of arable land, but Korean farmers, more experienced with cold climates, soon discovered that their methods of rice cultivation were better suited to the conditions of Manchuria, so they became remarkably prominent as rice growers in the region.
- o The migration increased after the Japanese takeover of Korea (1910) and the Japanese invasion of Manchuria (1932) - in fact, the colonial administration encouraged Korean migration to the newly acquired Chinese lands.
- o Nonetheless, many Koreans were indeed hostile toward Japan, so Manchuria of the 1920s and 1930 became a hotbed of both Korean nationalism and Korean communism. Even Kim Il-sung, then commander of a tiny guerrilla detachment, began his career in the forests of the region.
- o Apart from the not-so-voluntary transfer of military forces, some half-million ethnic Koreans chose to move back to their homeland in the late 1940s, after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Nonetheless, many more stayed, so nowadays the ethnic-Korean population of China is about 2 million.
- o Most of the Korean migrants to Manchuria originally came from northern Korea, often from the areas immediately adjacent to the border. So a significant number of the North Koreans in the border areas have relatives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 o In the late 1950s and early 1960s, a number of ethnic Koreans moved to North Korea permanently. In those days Pyongyang actively encouraged the return of Koreans living overseas. Some of these people relocated to North Korea legally. In the 1950s, Chinese authorities usually issued an emigration permit when a Korean applied for permission to go.
- o Soon afterward, the Chinese government refused to allow further mass repatriations. Obviously, it was judged that China's reputation would be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 damaged by any massive migration from Chairman Mao Zedong's earthly paradise, even if this happened to be a migration to another communist paradise, presided over by another, similarly minded strongman. Nonetheless, large numbers of Korean-Chinese fled to North Korea illegally.
- o Soon afterward, the Chinese government refused to allow further mass repatriations. Obviously, it was judged that China's reputation would be damaged by any massive migration from Chairman Mao Zedong's earthly paradise, even if this happened to be a migration to another communist paradise, presided over by another, similarly minded strongman. Nonetheless, large numbers of Korean-Chinese fled to North Korea illegally.
  - o In the early 1960s, the rural areas of China were hit by a disastrous famine. Discrimination against ethnic Koreans also became more visible, reaching its peak in the early 1970s. Therefore, tens of thousands fled to North Korea. The Chinese authorities tried to prevent this exodus, and even reportedly ordered border guards to shoot at escapees, but these measures had little if any impact on the situation.
  - o The Chinese economy was booming under the developmental authoritarianism of Deng Xiaoping, while North Korea was gradually sinking into economic stagnation, soon to give way to an acute crisis. After the late 1980s, a good connection with China virtually guaranteed success in the emerging semi-legal market economy of North Korea.
  - o After the mid-1990s, growing numbers of North Koreans began to move to China for long-term stays. In earlier decades, such migration was very rare, and with good reason.
  - o Things changed in the 1990s, though. The booming market economy of China created many jobs, and employers did not ask too many questions about their workers' background (perhaps they even preferred workers with some problems, since such people are inclined to be less demanding). The police also turned blind eye to the escapees.
  - o As times went by, the nature of the cross-border movement changed: From 2000 to 2002, North Korean immigrants could be better described as illegal migrant workers. Eventuall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egan to increase border security. The presence of the military and security forces in the borderland are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se measures had some impact on the situation.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 o From around 2003 it also became possible for North Koreans to apply officially for a cross-border trip. As with earlier illegal visits from China (such visits still continue), these legal trips are ostensibly to meet the relatives, but the actual goal is either business or short-term employment at low-paid, unskilled jobs.
- o DVDs of foreign (especially South Korean) movies and TV shows are watched widely, but nearly all these videos have been smuggled from China.

**붙임 2. Hollywood Reporter 보도 원문 (6.20)**

Hollywood Reporter 홈페이지

"China-North Korea Co-production Offers Glimpse of Life in Present-day North Korea"

- o Officially billed as the first China-North Korea co-produced film during more than 60 yea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diplomatic relations, dance drama Meet in Pyongyang made its mark at the Shangh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y offering a glimpse of life in present-day North Korea, and attracted the interests from buyers in South Korea, Japan, and Europe.
- o Produced by Henan Film & TV Production Group - the studio that co-produced the blockbuster Ip Man series and the upcoming Saving General Yang - with China Film Stellar, and North Korea's Korean Film Studio, the film downplayed politics and put culture - in this case, traditional Korean dance - at the center of a celebration of the two countries' bond, and featured a eight-minute extract of the spectacular 100,000 people Arirang group performance re-created solely for the purpose of this film.
- o South Korea's Sang Sang Moon Entertainment has signed an agreement with distributor Henan Film & TV Production Group for theatrical release of the film, and buyers from Japan, France, Spain, and Italy had expressed interest.
- o The film was initiated and produced by Li Shuihe, a veteran producer of Chinese "Main Melody" propaganda films, who, in his previous position as the head of the Shanxi Film Studio, had been invited to the Pyongya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five consecutive years

## Hollywood Reporter 홈페이지

since 2006. "I found that not only do the North Korean people love movies, but also that Chinese television dramas are very popular there. So, apparently our two peoples enjoy the same type of entertainment, why not make a movie together?" asked Li, now president of China Film Stellar, a state-run studio and theatre chain partly owned by the China Film Group.

- o The project got the go-ahead from North Korea's Ministry of Culture with the approval of known film buff Kim Jong-il in 2009. But the script development process itself took two years, as delicate as any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the world's most isolated country, generating ten drafts and revisions from each side.
- o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ves insisted on telling stories about the history of our countries' friendship, and all they proposed were stories set during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and the Korean war," said Li. "But from the Chinese side, we don't want to talk all about the past; we want to make a modern film to show to the world the present-time North Korea, a film with commercial value that would appeal to the young people in China. We have to consider the market value of the film."
- o The Chinese filmmakers rejected any scenes of flashbacks on the countries' alliance during the Korean War, which in the final film was only mentioned in passing and in relation to the friendship of two young women in the 1950s.
- o Yet, the image-conscious North Koreans were concerned about negative portrayals, a line of thinking that frustrated even the Chinese propaganda filmmakers. "The North Korea representatives didn't want any conflict in the plot. They were adamant that no one from either country in the story could be in the wrong. Where's the drama in that? So finally, we agreed that the drama would come out of misunderstandings," said Li.
- o With the script finally locked down, filming began last fall in Pyongyang. The production had two parallel crews - one director from each country, one screenwriter each, and also corresponding members of the crew. The majority of the shoot took place in Pyongyang, with the production's 15 million yuan (\$2.3 million) production and marketing budget fully funded by the Chinese studios, and the North Korea partner supplying location, manpower, and approval to shoot inside the country.



Hollywood Reporter 홈페이지

- o In addition, all of the North Korean acting and performing talents involved in the film worked for free, producer Li revealed: “The North Korean actors, from the leads to the extras, didn’t take any money. They said it’s an honor to contribute to their country. But of course, the Chinese actors were paid.”
- o For a scene of the rehearsal of the so-called human pixel performance at the Arirang Mass Games, 18,000 young students “volunteered” or were summoned to Pyongyang’s May Day Stadium, which has a 150,000-seat capacity. Li was concerned about the feasibility of an 8 a.m. call-time for such a massive number of school children, but when the crew got to the stadium, they found that all had arrived and were ready for action. However, lunch for the one-day shoot of the scene still could be a dilemma. “The North Korean crew told us not to worry, so we dare not ask. When lunch time came, we saw that every child had brought home-made box lunch,” Li said.
- o Previously, the 2005 film Oriental Gladiator was announced as the first China-North Korea co-production, but Li disputed that claim. “At the end, the final film was not approved by the North Koreans. So in their point of view, Meet in Pyongyang is officially the first co-produced film between the two countries,” Li stated.
- o An official premiere for the film is scheduled for June 26 in Pyongyang, and one in Beijing in July, both to be attended by a group of government officials from each side. Theatrical release in China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August.

**붙임 3.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6.20)**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Напряженность между Сеулом и Пхеньяном мешает доставке грузов в Россию”

- o Напряженность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КНДР мешает реализации планов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ного участка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Хасан - Раджин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груз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сказал посол РФ в Сеуле Константин Внуков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

##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роде Ёсу, где проходит празднов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ня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и ЭКСПО-2012.

- "Изнач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что мы модернизируем этот участок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озить по нему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нтейнеры. Контейнеры должны были поставляться отсюда, из Ёсу, с юга с экспортными товарами морем до Раджина, д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порта, и идти по Транссибу... Но контейнеры не идут: полное эмбарго вообще на все контакты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 сказал посол.
- Дипломат отметил, что в этой связи Россия сей час "думает над тем, как использовать возможности этого участка в двустороннем масштабе". Внуков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облемы в отношениях Сеула и Пхеньяна мешают реализации плана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от Раджина до границы Южной Кореи. "Был такой план, и даже был план соединения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дорог, фактически они провели его, у них здесь и поезда ходили, но, опять повторяю, сей час все абсолютно заморожено", - отметил посол.
- "Если мы договоримся со всеми о финансовой стороне и подпишем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контракты, то можно уже приступат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рожными картами к конкретным проработкам технических условий, к работе на местности, с тем, чтобы проект можно было завершить к 2017 году", - сказал посол.
-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отметил, что новое руковод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уже подтвердили свою готовность соблюдать достигнуты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работа по ним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В то же время Внуков заметил, что сохраняющаяся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напряженность мешает успешному продвижению проекта.
- "Я думаю, что этот проект может быть реализован, но во многом он зависит от качества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ока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не будет,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теплоты, на серьезное продвижение рассчитывать трудно", - сказал посол. Он также добавил, что сама реализация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проек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газопровода, равно как и другого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проекта по соединению "Транссиба" и транскорейских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будет "очень важн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фактором, который будет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обстановку".

## 붙임 4. 러시아 portamur 보도 원문 (6.20)

### portamur 지역언론사 홈페이지

“Олег Кожемяко: «Нашу землю должны обрабатывать наши крестьяне»”

-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ожидается ужесточение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плане контроля над нелегалами, занятыми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Об этом вчера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овместной с полпредом Виктором Ишаевым заявил амурский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 Для сложных в плане обработке земель власти не исключ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глаш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Но реч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дет не о привыч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китайцах, а о жителях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 которой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развивается а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붙임 5. 러시아 가제타 보도 원문 (6.20)

###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Российские дипломаты в КНДР во главе с послом поработали на кукурузном поле”

- Сотрудники российской дипмиссии в Пхеньяне во главе с послом Александром Тимониным в среду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олевых работах в подшефном кооперативе «Кочхан». Участие в полевых работах сотрудник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ипмиссий стало традицией.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на полях трудились кубинские, иранские, вьетнамские дипломаты. Два раза в год, летом и осенью,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работники 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посольств выезжают в подшефны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кооперативы,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боре урожая в КНДР.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 В этом году КНДР пострадала от засухи, самой сильной за последние 60 лет. Большой ущерб, в особенности в западных регионах республики, нанесен посевам риса, кукурузы, ячменя и картофеля.

**붙임 6. 중국 동방조보 보도 원문 (6.19)**

동방조보 홈페이지

“春秋开通直飞延吉旅游包机 凭身份证可赴朝鲜”

- 春秋国旅昨天宣布, 6月26日至10月26日, 该旅行社将开通浦东国际机场至延吉朝阳川国际机场的旅游包机航线, 该航线是首条上海直飞吉林省延边朝鲜族自治州首府延吉的航线。据悉, 此航线开通后, 沪上游客不仅可以直飞延吉长白山旅游, 还可以仅凭身份证赴朝鲜出境游。同时春秋还开辟了上海至延吉、俄罗斯双飞4日游。
- 据了解, 这一包机线路为期4个月, 每周二、周五出发, 采用春秋航空的空客A320执飞, 座位179座, 共计36班。该旅游包机航线的开通, 将大大缩短游客往来于长三角地区与延边之间的距离和时间。此次, 春秋国旅不仅开通了“上海至延吉长白山北坡、西坡三星双飞4日游”, 更将线路开辟到境外临近的朝鲜、俄罗斯。
- 这一包机线路为期4个月, 每周二、周五出发。据春秋国旅有关人士介绍, 包机开通期间, 他们还开辟了“延吉、长白山、朝鲜南阳三星双飞5日游”, 游客前往朝鲜南阳旅游, 不需办理护照, 只需身份证就可成行。

**붙임 7.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6.21)**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日本メディア3社が訪朝”

- 先の大戦後も朝鮮半島に残った日本人の遺骨返還をめぐる朝日放送(大阪市)と共同通信社など日本メディア3社が北朝鮮入りしたことが20日、分かった。複数の政府高官が明らかにした。北朝鮮側は平壤市内などで見つかったと主張する遺骨を撮影・報道させることで遺族らの心情を揺さぶる狙いがあるとみられる。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 政府高官によると、3社は19日、北京経由で北朝鮮に入ったとみられる。北朝鮮側は朝日放送と共同通信社に5月下旬の訪朝を打診したが延期を求め、6月中の訪朝実現に向け再調整していた。

**붙임 8. 일본 TBS뉴스 보도 원문 (6.21)**

TBS뉴스 홈페이지

“北朝鮮の制裁違反、国連報告書を公表へ”

- 北朝鮮による国連制裁の違反状況についてまとめた報告書が来週にも公表される見通しであることがJNNの取材でわかりました。報告書は、北朝鮮が違反物資を輸入する際、中国・大連の企業が仲介していると指摘しています。
- 国連の専門家グループが先月まとめた報告書には、北朝鮮からシリアに向かっていた船からスカッドミサイルの燃料が押収されたことなど、北朝鮮による様々な制裁違反について書かれています。この報告書をめぐっては、中国の反対で2年続けて非公開とされてきましたが、国連の安全保障理事会で協議した結果、中国が今年分の分に関しては公表に同意し、早ければ来週にも公表されることが安保理筋への取材でわかりました。
- 報告書には、北朝鮮が違反物資を輸入する際、多くのケースで中国・大連の企業が仲介役となっていることが具体的な企業名とともに記されていて、今後、中国がこうした指摘にどう対応するかが注目されます。また、中国から北朝鮮への輸出が明らかになった弾道ミサイルの運搬・発射車両については、「さらに調査を行う」という記載にとどまっていますが、関係筋は、「すでに情報収集が始まっている」としています。

**붙임 9.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6.20)**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平壤中心部再開發が完工 高層住宅、劇場を整備”

- 北朝鮮・平壤の万寿台地区で進められてきた高層住宅建設などの再開發事業が終了し、完工式が20日開催された。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 同地区は金日成主席、金正日総書記の銅像が立つ平壤の中心部。4月15日の金主席生誕100年を記念した事業として昨年5月から再開発が進められてきた。
- 最も高いもので40階を越す高層住宅10棟余りのほか、デパートや劇場、学校などが整備された。当初3月末の工事終了を目指していたが、完工がずれ込んでい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北 특별경제지구가 가난의 탈출구이다.

(6.22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신문)

- 「레오니드 페트로브」(호주 시드니대 교수/러시아 출신 한반도 전문가),
  - ‘북한은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 외국인들이 무비자로 출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곳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관세·기업소득세·토지 이용 등에서 특별 혜택을 받는다.’
  -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과 합작 개발할 특별경제지구(SEZ)로 황금평과 위화도를 선택했다.’
  - ‘中·北 합작개발 및 사업 프로젝트를 승인받아 2011.6월 황금평·위화도 개발 착공식이 열렸다.’
  - ‘유기된 섬을 번창하는 공업단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경제 지원 및 투자를 구하려고 중국을 자주 방문한 김정일이 결정한 것이다.’
  -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 중국과 활발히 거래하고 가능한 많은 현금이익을 가져올 것을 촉구했다.’
  - ‘이와 같이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의 상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중앙계획 및 자급자족 경제에 자본주의 바람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선 경제무역특구의 경우 중국은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했으며, 압록강 입구의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는 중국에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으로 보인다.’
  -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서 외국인은 무비자로 출입하고 세금 우대를 받는다는 발표했지만, 여전히 중국 영역에서는 인원과 자금 이동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받는다.’

- '인근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중국 투자가와 제조자들이 무역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북한은 흥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 제재로 국제 시장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 '가난한 북한은 경제특구에 대한 해외 투자를 통해 경제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중국은 이미 나선 경제무역특구의 항만시설 및 도로 개발에 30억달러(약 3조4700억원)를 투자했으며, 황금평·위화도 경제 특구에도 투자할 것이다.'
- '중국은 북한이 시장지향 개혁을 도입해 자신들의 경우를 따를 것을 바라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개혁을 이끄는데 필요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 '북한이 개혁에 착수하는 것은 정권 붕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금기시되고 있다.'
- '아주 작은 SEZ는 국가에 변화없이 외환을 만들어내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를 개선시키지만, 주민들은 전과 다름없이 지도자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공포의 제국에 계속 살게 된다'라고 언급

○ 내년 WEF를 개최하는 미얀마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6.20 38 North)

- 「루디거 프랭크」(오스트리아 빈대 동아시아학 교수),

- 'WEF 동아시아 회의의 스타였던 아웅산 수치 여사를 보며 저명한 야당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느꼈다.'
- '미얀마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이 수치 여사로 상징되고, 야당이 아니더라도 舊소련의 고르바초프, 중국의 덩소평 같은 개혁가가 있다.'
- '그러나 북한은 어떤가? 북한의 유일한 희망은 김정은이 어린 덩소평이 되는 길 밖에 없다.'



‘WEF 동아시아 회의에서는 ASEAN의 자신감과 영향력 증대 또한 느낄 수 있었으며 미얀마의 경우, ASEAN의 긍정적 역할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미얀마가 국제 재제와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고 따라서 강경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겠지만, 내 견해에는 ASEAN의 오랜 인내와 불개입, 그리고 무조건적 포용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면,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의 사례는 또한 ASEAN과 같은 느슨한 다자간 기구가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참가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ARF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경우 몇몇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하자 제재가 신속히 해제되었고, 더 중요한 점은 투자자들이 자원이 풍부한 미얀마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미얀마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

‘과거 불량했던 나라에 대해 이렇게 갑자기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금껏 나는 아무리 신뢰성 있는 경제적 협력이나 투자에 대한 약속이라도 북한 지도부가 내부 안정과 대외적 안보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김정은은 민생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실용주의적이고 자애로운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정통성을 지탱하는 이념이 약화되어 체제유지를 위해 경제적 성과가 더 중요해진다면, 앞으로는 경제적 협력이나 투자를 더 많이 수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다.’

- '내년 WEF 동아시아 회의 개최국이 미얀마로 결정된 것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언젠가 평양에서 WEF가 개최될지 아는가?'라고 언급.

## □ 중국어권

### ○ 韓·美·日 연합 해상훈련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다.

(6.21 중국 동방망<sup>☞</sup> 뉴스전문 사이트)

- 6.21~22일 韓·美·日이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는데 이번 훈련은 최초로 외부에 공개되며 일본 해상자위대도 처음으로 참여하여 세계가 놀랐음.
- 역사적 문제로 일본과의 훈련을 반대하던 한국이 왜 일본의 이지스함을 자국 땅으로 불러들였을까?
- 「장리엔구이」(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 '3국 모두 각자 목적을 가지고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南·北韓의 격한 대립으로 인한 긴장상태가 이번 훈련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 「송샤오쥘」(군사전문가),
  - '南·北의 긴장관계는 표면적인 이유이며 실제로는 2013년 이후 감소되는 미국의 군비와 관련이 크다.'
  - '군비예산 중, 장비 유지비가 1,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1/3가량 축소되면 미국은 韓·日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 '韓·日의 공업 인프라 수준이 나쁘지 않고 신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미국은 韓·日과의 양자 협력에서 3국동맹의 군사협력 강화, 즉, 아시아의 소(小)나토(NATO)구축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 '韓·美, 美·日의 MD시스템, 연합군사훈련, 이 모두가 현재 아시아의 소나토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양바이지앙」(국제관계학원 교수),
  - ‘그러나 소나토에 대한 주장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먼저 나토는 냉전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현재 동북아는 특히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협력하고 있다.’
  - ‘韓·美·日의 3자 협력체제는 미국이 중간에 위치하고 韓·日은 서로 접촉없이 양 옆으로 있는 구도이다’
  - ‘이러한 구도의 지속성과 공고함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이번 훈련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 ‘문제는 韓·美·日의 모순된 행동이다.’
  -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막으려는 이들의 행동이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고 있다.’
- 「장리엔구이」(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 ‘韓·美·日 중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는 것 같다. 북한 또한 김정은이 제4군단, 제11군단 등 끊임 없이 군부대 시찰을 하고 있다.’
  - ‘남북이 모두 적극적인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2개월 동안,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 러시아어권

- 러시아 재무부, 북한 채무조정안 7월 중 정부에 제출 예정이다.  
(6.21 리아 노보스티)
- 러 재무부, 7월 중 정부에 북한 채무조정안 제출 예정임.
- 「세르게이 스토르차크」(재무부 차관),

- ‘(북한 채무조정안은) 아직 정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6월 중 부처간 합의를 가까스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힘들 것으로 본다. 7월 중에는 확실히 제출할 것이다.’
- ‘정부는 북한 채무조정 구조를 국제발전 지원분야 공식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했다.’
- ‘채무조정 조건은, 舊소련 당시 채무에 대한 러시아의 파리 채권국클럽 회원국 가입 조건에 따른 전형적인 일반협정이다.’
- ‘남은 채무액은 10억 달러가 넘는데, ‘채무 對 지원’ 구조에 따라 교육, 보건, 에너지 분야에서 사용될 것이다(즉, 남은 10% 채무액은 對北 공동프로젝트 추진에 활용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루블의 달러화 재책정 및 채무액의 90% 우선 탕감을 시사함)’라고 밝힘.

○ 러시아항공社, 평양발 노선 취항 준비 중이다.

(6.21 이즈베스티야 15 일간지)

- 러시아항공이 현재 평양발 노선 취항을 준비 중이며, 이제까지 양국간 운행되는 항공사는 고려항공사(Air Koryo)밖에 없었음.
- 취항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 취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러·北간 ‘항공 수색·구조 부문’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됨(6.21).
- 본 협정은 국경지역 내 사건·사고 발생 시, 양측 항공기 및 헬기를 이용해 상대국 영토 내 수색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알렉산드르 네라디코」(항공운수청장),
- ‘승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 우수 항공사 중 한 곳이 블라디보스토크-평양發 노선 취항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한 상호간 문서는 이미 교환했다.’
- ‘사건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지체가 없도록 본 협정을 체결했으며, 전화 한통이면 공동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 ‘러시아측 수색구조 가능 지역은 북한 영토의 거의 절반을 아우르며, 북한 측은 우수리스크까지 해당된다’라고 밝힘.

- 「이리나 튜리나」(관광산업 협회장),
  - '러시아에서는 2010년 최초로 그룹단위 관광이 시작됐으며, 이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졌다.'
  - '아직 관광객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연간 8~10명 단위로 구성된 3~4개 그룹이 북한을 관광하고 있다.'
  - '문제는 북한의 영사업무와 관련해 비자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작성문건을 너무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데 있다'라고 주장함.
- 「콘스탄틴 아스몰로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 체제는 실제로 완화되고 있다. 김정일 생존 당시에도 김일성 체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완화된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유사한 과정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개처형이라는 단어 자체는 북한 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 '탈북자에게 얻은 정보는 가치가 없다. 체계적인 설문이 아닌, 그저 말을 잘 하는 사람을 골라서 인터뷰한 결과로 수집한 정보는 신빙성이 없다.'
  - '상황적인 요인을 근거로 체제완화를 평가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는 평양발 국제노선 취항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음)'라고 주장함.

○ TKR 복구는 역내 지경학적 정세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6.21 이타르타스)

- 철도공사 사장, TKR 복구는 역내 지경학적 정세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힘.
- 「블라디미르 야쿠닌」(철도공사 사장),
  - '오늘날 韓·러간 비즈니스 협력이 힘든 이유는 아직까지 항구를 통해서만 상호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TKR과 같은 직접적인 철도교통을 이용한 협력은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 한국 모두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관련국 정부 차원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 가능한 협력 방향 중 하나는, 향후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부간 협정 체결이 돼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정치적 지지가 없는 협력은 공론경제 차원에서 연습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주장

## □ 일본어권

### ○ UN보고서, 北 시리아에 방호복 등 수출 기재(6.22 마이니치)

- 2009.11월 북한이 대량의 방호복과 가스를 탐지하는 시약용 용기(앰플)를 시리아에 수출하려다 그리스 당국에 적발됨.
- 수취처는 '환경연구센터'로 되어 있으며 UN보고서는 대량살상 무기개발과 관련돼 美정부의 자산동결 대상인 시리아의 '응용 과학기술 고등기관'과의 명백한 연관을 지적함.
- 그리스 당국이 압수한 4개의 컨테이너에서 방호복 13,000벌과 앰플 23,600개, 가스마스크 1개가 발견됨.
- 올 3월 UN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지적에 대해 시리아 정부는 농업과 연구용이라고 말함.
- 외교소식통은 '앰플은 화학무기의 성분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붙임 1. 아시아타임스 게재 원문 [6.22]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Pyongyang’s newest SEZ just another shortcut”

- o Last week, North Korea announced to the world that it would make its two islands Hwanggumpyong and Wihwado a visa-free zone for foreigners. A special law has been adopted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and give them preferential treatment in the payment of tariffs and taxes and in land use.
- o In an effort to turn the tide of its economic development, North Korea selected the islands of Wihwa and Hwanggumpyong as the future site of the country’s special economic zone (SEZ) with China. In June 2011, a start-up ceremony took place on the island in recognition of the North Korea-China joint development and operation project.
- o The executive decision to develop the abandoned islands into a thriving industrial park was made by the lat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who frequently visited China to solicit economic aid and investment. Soon after his death last December, his son and successor, Kim Jong-eun, called on the citizens of North Korea actively to do business with China and "bring in as much cash profit as possible". As such, the commercial importance of the Hwanggumpyong and Wihwado Economic Zone has only increased, raising speculations that it would be turned into the playground of capitalism for North Korea’s centrally planned and autarkic economy.
- o The earlier experience of joint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Rason (Rajin-Seonbong) Economic and Trade Zone showed that neighboring China was keen on aggressively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nd manufacturing sectors provided they could be guaranteed an upper hand in competition against Russian, Japanese or South Korean investors. On the contrary, the Hwanggumpyong and Wihwado Economic Zone, at the mouth of the Yalu (Amnok) River, which flows into the Yellow (West) Sea, seems to be a more attractive option for China.
- o Even the recent announcement that foreigners would be granted visa-free access and enjoy tax breaks still manages to provide China with full control over the movement of people and capital within its territory. China’s control of the surrounding geography means that Chinese investors and manufacturers will have an upper hand in trade.
- o North Korea is in no position to bargain. Pyongyang’s dependence on Beijing is growing as international sanctions over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make it increasingly difficult for it to access international markets and credit. The impoverished country is striving to revitalize its economy through foreign investment in its economic zones. Since China has already invested about US\$3 billion in developing port facilities and roads 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Beijing might decide to funnel significant capital to the Hwanggumpyong and Wihwado Economic Zone too.

- o Beijing would love to see Pyongyang follow its example by introducing market-oriented reforms, but North Korea simply cannot come to terms with granting its population the many freedoms necessary to make such a reform successful. If Pyongyang decides to initiate reform, Chinese-style or otherwise, it would inevitably and quickly lead to the collapse of North Korea's political regime. Therefore, the very word "reform" is taboo in North Korea.
- o Setting up tiny SEZs, which would generate foreign exchange without bringing about any change to the rest of the country, is a preferable way forward. As a result of this half-hearted policy, ordinary North Koreans will eat and dress better; they might even own personal computers and mobile phones. But they will continue to live in the same paranoid state of fear and dependency on the Great Leader's decisions.

**붙임 2. 38 North 보도 원문 [6.20]**

38 North 홈페이지

"The World Economic Forum on East Asia 2012: Burmese Lessons for Korea?"

- o Another important lesson I would derive from the WEF Bangkok meeting was how big of an impact a prominent opposition figure can make. The fight against the regime in Burma has a face, as does the movement for Tibet. As the Gorbachev example has shown, the face of reform does not have to come from the opposition; Deng Xiaoping in China is another case. But where is the face of North Korea's opposition, if there is any? So far, the only hope is for Kim Jong Un to become a youthful version of China's Deng.
- o Furthermore, it was difficult not to notice the self-confidence and growing relevance of ASEAN. Burma is a case in point. You could argue that the regime finally succumbed to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olitical pressure, thus suggesting that hardline policies were



38 North 홈페이지

successful. But I believe that it was also ASEAN's long-term patience and non-interference, and more or less unconditional inclusion that led to results that, as hope for was expressed during the Bangkok forum, are irreversible.

- o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is would provide new support to the sunshine policy of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administrations. Burma's example also suggests that a relaxed multilateral environment—which is not at all a proper description of the Six Party Talks, which are explicitly aimed at denuclearizing North Korea—can be an effective forum of dealing with a problematic case. Let's not forget that North Korea is participating in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If the Six Party Talks get stuck—could the ARF be a way out?
- o My last point on Burma is that once a few key demands were met, sanctions were swiftly lifted, and, more importantly, investors are now scrambling to move into this resource-rich country. Its strategic position at the border of China makes it interesting for the US and its allies even beyond economic concerns. The status of North Korea in the eyes of the West is of course different; however, the very fact that such a sudden and pragmatic approach towards a former pariah state is even possible could serve as an indication that something similar could happen elsewhere.
- o So far, I did not believe that even a reliable promise of economic cooperation and investment would be able to override other, domestic stability and external security related concern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But Kim Jong Un is obviously putting an increased emphasis on the provision of material well-being to his people and trying to build an image as a pragmatic and benevolent down-to-earth leader. If this is coupled with a simultaneous weakening of ideological sources of legitimacy, making economic success more vital for regime survival, the balance might shift towards a greater response to economic incentives in the future.
- o During the closing session of the WEF in Bangkok, a representative of the Burmese government, on behalf of President U Thein Sein, announced that his country would be willing to host the next WEF on East Asia in 2013. On behalf of the WEF, its founder Klaus Schwab accepted this invitation—one that would have been unthinkable until very recently. And who knows, maybe one day the WEF might hold a meeting in Pyongyang.

## 붙임 3. 중국 동방망 보도 원문 (6.21)

### 동방망 홈페이지

#### “专家：美日韩在黄海联合军演势必刺激朝鲜”

- 据中国之声《新闻纵横》报道，今明两天，美日韩三国被称作是“破冰式”的联合军演在朝鲜半岛水域拉开帷幕。这场联合军演创下了多个第一次——第一次对外公开宣布；第一次在半岛南部海域举行三国联合军演；日本海上自卫队第一次深度参与。从演习规模上来看，美国乔治-华盛顿号核动力航母、日本宙斯盾舰都将粉墨登场。尽管相关细节披露不多，但是仅从“海上拦截作战”这一科目来看，本次军演的实战特点相当突出。这场军演究竟意在何处？所谓的“亚洲小北约”真的已经成型了吗？
- 在今天之前，日本自卫队军官只是作为观察员参加军事演习，而在今天，这个惯例将被打破，在今天的联合军演当中，日本海上自卫队将派出宙斯盾护卫舰和战斗机加入到美日韩三国的联合演习中来。正因如此，昔日的美韩、美日双边联合军演今天第一次变成了三国联合军演，也让外界惊讶。一向因为历史问题拒不与日本联手搞军演的韩国为何终于愿意让日本的宙斯盾舰开到自家门口？中央党校国际战略研究所教授张琏瑰表示，半岛南北关系的激烈对抗是此次三国联合军演的直接动因。
- 张琏瑰：这个美日韩三家联合军事演习，日本的自卫队第一次参加，这个引起了人们的关注，人们主要是关注在美日韩三家结成联合同盟的这种趋势又有了新的动向，这次演习当然了美日韩三家各有指向，这个心目当中各有自己的目的，但整体来讲还是因为朝鲜半岛南北关系趋于紧张真正有一触即发的那种战争的可能性。
- 军事专家宋晓军认为，美国牵线搭桥让日本加入演习，半岛的紧张局势只是表面原因。宋晓军：朝韩之间的紧张只是面子，而里子是美国的2013财年之后军费开始削减，那么他们的装备维护费用将会降1/3，从原来的1500亿美元降到1000亿美元，那么这样的话就需要日本和韩国的配合，那么日本和韩国的工业基础能力应该说从某种角度上来说是可以的，不仅可以配合美国，同时在新研发的武器上面他们也会有一定的支持，或者我们说叫做抱团取暖。
- 美国从分别加强同日本或韩国之间的合作，改为努力实现美日韩三国之间的军事作，也就是积极打造俗称的“亚洲小北约”一直以来为国际社会所关注。有分析认为，美韩反导系统和美日反导系统计划进行连接，包括眼下美日韩联合军演的开展，意味着所谓的“亚洲小北约”正在形成，不过，国际关系学院教授杨伯江并不赞同这种说法：
- 杨伯江：我想这个说法恐怕还是值得商榷的，首先北约的形成是在当时的冷战背景之下，现在的东北亚地区是一个综合方面来说特别是在经济方面来说是相互依存的，高度依存的这样一个状态，第二个从现实来看的话，美日韩这样一个三边

동방망 홈페이지

体制仍然是一种马蹄型的或者马掌型的，就是美居中，这边是日本，那边是韩国，这是两个双边同盟，但是日韩这一边并没有实现一个完全的对接按，目前这一轮很大程度上是美国政策的一个推动的结果，它的持续性、牢固性怎么样恐怕还有待进一步观察。杨伯江表示，美日韩三国的防务合作能在多大程度上推进存在很大的疑问，而毫无疑问的是本次联合军演势必将会刺激朝鲜。

- 让人感到非常困惑的就是美日韩一方面呼吁要缓和半岛形势，不让它搞第三次核试，但是它的作为，它的实际表现往往是背道而驰的，反而以自己的实际行动来刺激对方这么做。
- 张珺瑰：从某种需要来看，我感觉到美日韩特别是韩国，确实有一种发生军事冲突和朝鲜进行一番较量的这种欲望，在朝鲜这方面来讲，朝鲜最新领导人不断的到前线去视察，特别是视察第四军团、第十一军团这个都是对韩斗争的尖刀部队，所以说南边和北边双方都在积极的进行部署，因此今后两个月之内，朝鲜半岛形势的发展特别值得我们关注

**붙임 4.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6.21)**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Минфин в июле внесет в кабмин проект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лга КНДР”

- Минфин в июле внесет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ект распоряжения об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задолженности КНДР, сообщил агентству "Прайм"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РФ Сергей Сторчак в кулуарах ПМЭФ-2012. Проблема долга Пхеньяна, сформировавшегося перед СССР, активно обсуждалась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однако стороны так и не смогли прийти к окончательному решению. Тогда Россия не исключала возможности списания части долга, а на оставшуюся сумму -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рассрочки и или погашения в виде инвестиций .
- "Пока еще не внесли. В июне, наверное, не успеем - едва ли закончитс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е согласование, но в июле внесем, это точно", - сказал он,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 проекте распоряжения. "Ту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пределилось, схема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долга КНДР вписывается в нашу официальную стратегию в сфере содейств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развитию", - заметил он.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 Условия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долга, продолжил Сторчак,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классические соглаш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наследством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условиями присоединения России к Парижскому клубу в качестве кредитора". Он также добавил, что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пересчет рублей в доллары,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ервичной скидки в размере 90% от суммы долга. "Остаток долга, а остается более 1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 ред.),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о схеме "долг в обмен на помощь"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энергетики", - сказал он. То есть оставшиеся 10% должны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в КНДР.

**붙임 5.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보도 원문 [6.21]**

이즈베스티야 일간지 홈페이지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НДР растет, считает глава Росавиации"

- Все больше россиян хотят посети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рассказывает глава Росавиации Александр Нерадько. Растет и число северных корейцев, желающих посетить Россию. Правда, если россияне едут туда прежде всего как в «заповедник социализма», то корейцы зарабатывают у нас валюту для своей страны. Учитывая рост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одна из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авиакомпаний даже собирается запустить собственный рейс Владивосток - Пхеньян, - говорит Нерадько. - Российская и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ы уже обменялись нотами касательно открытия нового рейса.
- Пока же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летают только самолет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возчика Air Koryo. Говорить о конкретных сроках запуска российского рейса еще рано, но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это произойдет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я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туриндустрии Ирины Тюриной, первые группы начали отправляться в КНДР в 2010 году, до того посмотреть на социализм ездили лишь одиночки.
- Но число туристов пока не столь велико, - считает Тюрина. - В год отправляется три-четыре группы, по 8-10 человек каждая.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консульские службы КНДР очень

## 이즈베스티야 일간지 홈페이지

ь тщательно подходят к выдаче виз и каждую анкету рассма  
тривают чуть ли не под микроскопом. В четверг между Моск  
вой и Пхеньяном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  
тве «в области авиационного поиска и спасания». Оно подразу  
мевает, что случись какое-то происшествие в пограничном ра  
йоне, и наши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амолеты и вертолеты смо  
гут проводить поис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седа.— Это соглашение  
заключае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е было задержек, если происхо  
дит что-то, — объясняет Нерадько. — Одного звонка будет д  
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началась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 Режим в КНДР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мягчается, и уже не первый  
год, — говорит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Корейского це  
нтра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 При Ким Чен Ире, например, действия властей уже смяг  
чились в сравнении с эпохой Ким Ир Сена. И теперь, возмож  
но, этот процесс продолжается. Но полагаться на сведения, по  
лученные от перебежчиков, вряд ли стоит, считает Асмолов.  
«Во-первых, публичных казней в прямом значении этого сло  
ва в КНДР и не было, там расстреливают за занавеской. Кро  
ме того, никто не проводит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го опроса всех без  
исключения беженцев, выбирают тех, кто красиво говорит»,  
— считает эксперт. Поэтому судить о смягчении режима надо  
на основе более обстоятельных фактов. Одним из таких факто  
в может стать постепенное откры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ейсов  
из Пхеньяна и допуск в страну иностранных самолетов. В про  
шлом году было открыто регулярн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КНДР -  
Малайзия, еще раньше в стране появились рейсы китайских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ов. Теперь на очереди Россия.

## 붙임 6. 러시아 이타르타스 보도 원문 (6.21)

### 이타르타스 통신사 홈페이지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радикально  
изменит гео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 Якунин”

-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радикально изме  
нит гео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В этом уверен пр

이타르타스 통신사 홈페이지

езидент компании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Владимир Якунин. "Почему сегодня могут быть сложности в развитии бизне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Потому что его можн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ока только через порты", - сказал он, отметив, что организация прямо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ообщения по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положительно повлияла бы на развитие и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на развит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на развитие Южной Кореи".

○ Якунин заметил, что в данном вопросе одного желания со стороны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не достаточно. "Нужна надлежащ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на уровне правительств тех стран, от которых мы говорим", - продолжил глава РЖД. Он убежден, что одним из возмо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данном вопросе должно стать подписание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с тем, чтобы потом "бизнес получил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полит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в рамках этих документов конкретных бизнес-проектов".

○ "Без такой поддержки это будет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упражнением в области теоре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ки", - заключил Якунин, выступая сегодня на пленарной дискусс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потенциал паназиатских рынков", состоявшейся в рамках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붙임 7.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 원문 (6.22)**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シリア兵器機関へ防護服など輸出か…国連が報告書”

○ 北朝鮮が09年、大量の防護服やガスを検知する試薬用容器（アンプル）のシリア向け輸出を図り、途中で第三国が取り押さえ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送り先の研究機関は、大量破壊兵器開発に関わったシリアの組織とのつながりが指摘されており、化学兵器関連の可能性が高い。シリアの反体制派組織がアサド政権による化学兵器使用を訴える中、両国の軍事的つながりの深さが浮かび上がった。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 北朝鮮に科している武器禁輸などの制裁の違反事例を調査している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専門家パネルが、こうした事例を盛り込んだ報告書(非公開)を今年5月にまとめ、安保理に提出していた。
- 報告書や外交筋によると、ギリシャ当局が09年11月に、北朝鮮の南浦港を出港し、中国の大連で荷を積み替えてシリアに向かう途中の船舶を検査。押収した四つのコンテナに防護服1万3000着とアンブル2万3600個が詰まっていた。ガスマスク1個も見つかった。シリア政府は今年3月、専門家パネルの指摘に対し、農業や研究用であることを示唆したという。
- 防護服などの送り先はシリア国内の「環境研究センター」となっており、報告書は大量破壊兵器拡散に関わったとして米政府が資産凍結の対象にしているシリアの研究機関「応用科学技術高等機関」など2組織との「明らかになつながら」を指摘している。外交筋は「アンブルは化学兵器の成分を調べるため」とみている。
- 09年10月には同じルートでシリアに向かっていた船舶の積み荷を韓国当局が押収しており、11月のものと同じ防護服が大量に見つかった。さらにフランス当局が10年11月に押収したシリア向け積み荷の中身は「銅板」などと申請されていたが、迫撃砲やロケット製造に使われる金属だったことが分かった。
- 中国が安保理決議に違反して北朝鮮に輸出した疑いがある新型弾道ミサイルの移動式発射台用車両に関し、報告書は「さらに調査する」とだけ記し、中国の名前は出ていない。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중국어권

○ 北, 올해 중국 동북지역에 12만명 노동력 수출한다.

(6.25 홍콩 봉황위성TV)

- 「두핑」(시사평론가),

- ‘중국은 줄곧 많은 노동력을 파견한 국가였고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주로 IT·무역분야의 전문 인력이었기에 12만명이라는 북한 노동력의 대거 중국 유입은 굉장히 새로운 일이다!’
- ‘이번 북한 노동력 수입은 중앙 정부가 아닌 중국의 요녕성, 길림성과 북한측에서 협의한 것이다!’
- ‘그러나 이는 지방정부를 넘어 中·北관계의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현재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며 노동력은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 ‘이에 북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관계자가 먼저 중국에 노동력 수출을 부탁했다고 한다!’
- ‘정치적으로는 배고픔의 이유로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데 반해 이들을 관리할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또한 불법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된다면 이는 양측의 수요에 모두 부합하다!’
- ‘최근 중국의 노동비 상승과 인권의식 향상으로 동북지역의 노동밀집형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히 제조, 건축, 서비스 업계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반기고 있다.'
- '그러나 이전에 많은 노동자의 유입이 없었으므로 노동력 수용 후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중국 기업들은 임금체불, 임금삭감, 노동자 학대 가능성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 '또한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에는 노동력 수출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언론이 문제로 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북한은 현재 외화와 일자리가 필요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노동력 시장이 큰 중국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번 노동력 수출을 놓고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중국 동북지역은 현재 노동밀집형 기업이 많아 12만명의 북한 노동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
- '그러나 저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은 한계가 있기에 이번 노동력 수입은 일시적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언급

○ 중국 안양市에 평양아리랑 식당이 개업되었다. (6.22 안양신문망)

- 6.21, <조선평양고려무역회사>와 <안양청안건자재회사>가 투자한 <평양아리랑 식당>의 개업식이 하남성 안양시에서 있었음.
- <평양아리랑 식당>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공연홀을 갖춘 전문 북한 음식점으로 주방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북한에서 선발되어 왔음.

□ 영어권

○ 중국의 대북정책은 비논리적이다.(6.21 CSIS 태평양포럼 회보)

- 「원순」(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

'중국의 대북정책은 △안정(내부 분열 및 전쟁 방지), △평화(美·北간 외교 정상화), △비핵화 및 비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세 가지 목표 중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韓·美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비핵화는 이차적인 중요사항이다.'

'우선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법도 다르지만, 북한의 행위는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자신들만의 우선사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역효과를 낳기 때문에 비논리적이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에 대한 지방 분권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동맹이 중국을 겨냥하거나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안보 이익에 반하면서 북한에 대응해 한·미를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은 2위이기 때문에 한·미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거나 자신들이 비우호적인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재정·정치·안보에 관해 중국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을 국가안보와 전략적 이익에 가장 중요하거나 근본적인 도전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중국은 현재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지만 대안책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럭저럭 버티는 한편, 자국을 모델로 한 북한의 경제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새로운 도발행위를 할 경우 전략적인 계산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및 2010년 도발 당시 중국의 반응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용은 매우 높은 편이다.'

-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이를 의심스러워하는 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북 정책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

○ 북한 가뭄 관련, 지난 주 방북 獨 구호단체 대표 인터뷰

(6.23 The Hindu ⇨ 인도 일간지)

- 「불프강 야먼」(세계빈곤구제 사무총장 ⇨ 1997년부터 북한에서 비닐하우스, 농업 기계화, 종자 개량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독일 구호단체),

- '극심한 식량난을 다시 초래할 수 있는 가뭄으로 인하여 김정은의 개혁 추진 여부는 향후 몇 달간의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말했으며, 극심한 영양실조와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
- '작물들이 가뭄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손으로 직접 옥수수에 물을 주고 있었고, 대규모 관개 시설도 없었으며, 급수를 위해 엄청난 노력이 동원되고 있었다.'
- '구호 단체들은 북한이 연 50만톤의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고 추정하며, 지난주 UN은 적어도 300만 명이 시급한 국제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가뭄으로 올해 수확량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숫자는 더 커질 것이다.'
- '외교관들에 따르면 배급으로 투입되는 식량이 너무 적어서 지난해 평양 구획정리 사업을 진행해 배급대상을 300만에서 250만으로 줄였다고 한다.'
- '주민들이 100m<sup>2</sup>내의 토지에 한해 개인 농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방문한 황해남도과 평안북도 마을에서는 개인 소유 토지가 증가했다.'
- '그러나 농산물을 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 수입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농촌에서는 대부분 물물교환으로 거래되고 있다.'

- ‘한편, 5년 전에 비해 평양 내 시장 규모는 10배나 커졌으며, 북한 체제가 점차적으로 경제적 통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평양의 조명도 더 밝아진 것으로 보아 평양의 전기난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 ‘서방에서는 수십억을 핵 프로그램과 군에 지출하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구호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모금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주장

## □ 러시아어권

○ 외교부 차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 계속해 나가고 있다.

(6.24 인테르팍스 → 민영 통신사)

- 러시아 외교부 차관, 러·中 협력 주요방향 관련 인터뷰 중 한반도 문제 언급함.
- 「이고르 마르굴로프」(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
  - ‘유감스럽게도 한반도 정세는 긍정적인 기대와 우려가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요동치고 있으며, 두 개의 ‘상극’간 불안한 균형유지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
  - ‘얼마 전, 새로운 핵 실험 계획이 없다고 확인한 북한의 발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확신하는 점에서 입장이 매우 유사하며, 최적의 결말로 가는 길은 對北제재 확산 및 군사·정치적 압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아태지역 전체 구조의 유기적 요인이 되고, 동북아 내 모든 관련국들의 법적 이해관계 및 우려를 적절하게 고려가 된 효율적인 안보시스템 구축이 최적의 결말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한다.’

- '우리는 동북아에 군비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데 동의하지 않으며, 핵을 비롯한 그 밖의 대량파괴무기 보유 필요성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국제 법률안을 통해 핵 미사일 팽창을 막아야 한다.'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최적의 선택을 찾는데 참여국들간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6자회담 회의론이 근거가 없음을 입증해 준다.'
- '회담 지속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는 6자회담 참여국들 중 단 한 국가도 없다'라고 주장

○ 北 통과하는 전력에너지 對韓 공급방안 논의 예정이다.

(6.23 리아 노보스티 電 공영 통신사)

- 韓·러 전력에너지 공급방안 논의와 관련, 지난해 2008년 말 북한 에너지석탄성과 러시아 전력회사 인터라오(Inter RAO UES)는 수출용 송전선 건설을 위한 북한 측 부지 제공(러시아 對北 전력 공급으로 임대료 대신함) 의향이 담긴 의정서 체결함.
- 전력회사 인터라오 홍보실, '2010년 송전선 건설을 위한 경제 타당성 검사를 추진했으며, 연해주에서 북한 영토를 거쳐 한국 까지 전력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500kV 송전선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 일본어권

○ 中·北을 빈번하게 왕래하는 밀수화물선 더 있다. (6.24 아사히)

- 작년 8월 미사일 운반차량 4대를 북한으로 실어 나른 화물선을 운항한 중국기업(대련청송선무대리유한공사)이 소속과 선원구성이 흡사한 수척의 화물선을 이용해 中·北을 자주 왕래한 것이 드러남.
- 중국은 민생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의 무기수출입상사가 당초부터 수출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련청송선무대리유한공사」는 운반차량 4대를 운송한 「HARMONY WISH」와 크기 및 이름이 비슷한 화물선 수척을 동시에 운항함. 지난 5년간 1척당 각 10회씩 원산과 청진, 남포 등에 기항함.
  - 「대련청송선무대리유한공사」는 대련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고급 맨션의 높은 층에 위치함.
  - 차량을 북한에 수출할 수 있는지 묻자 남성사원은 '북한으로 항상 화물을 보내고 있다'고 답했고, 여성사원도 '목적지까지 화물은 보내지만 적하 등의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함.
  -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련청송선무대리유한공사」의 사장은 중국인이며, 북한과 일본·한국·동남아 등에 수송을 하고 있고, 대련항에 가까운 남포항 등 북한의 여러 항만명을 도착지로 거론함.
  - 대형트럭을 수출할 수도 있는지도 묻자 '중국 국기 이외의 국기를 건 선박을 사용한다. 이는 「방편(편리한)기」라고 부르며 캄보디아 국기가 많다'고 대답함.
  - 「대련청송선무대리유한공사」가 사용하는 선박은 북한 선적 외에 중국 이외의 국적 화물선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고 함.
- 北 결혼사업에 진출, 100만 달러에 알선 (6.24 뉴스포스트세븐)
-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의 '미인' 리스트를 만들어 전문 단체를 통해 북한여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 남성에게 알선함.
  - 결혼에는 최소 100만 달러가 필요함.
  - 주로 중국인 남성이 북한 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며 중국내의 조선족과 북한내의 브로커가 결혼알선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결혼 신청을 받고 있음.
  - 북한 미인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은 먼저 단체에 계약금으로 5만 달러를 낸 뒤 사진이 첨부된 리스트에서 여성을 선택하고, 남성이 북한에 가있는 동안 여성이 파견돼 면담하는 형식임.

- 결혼한 남성은 북한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지만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만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함.
- 이와 같이 인권을 무시한 외화벌이는 북한경제가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줌.

○ 前 러시아 벌목 근로자의 증언 (6.24 아사히)

- 러시아 최대의 북한 벌목현장이 있는 아무르주 티그다에는 약 700명이 일하는 제 13사업장이 있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낙엽송을 벌목해 역으로 운반함.
- 벌목, 선별, 운반, 적재의 4단계 작업에 각각 2명씩 총 8명이 하나의 작업조를 만들어 작업을 실시하며, 사업장 전체에서 매년 3~4명이 사고로 죽는 강제수용소임.
- 매달 벌목해야하는 작업 분량은 3천m<sup>3</sup>이며 기재가 부족해 거의 달성할 수 없었음.
- 벌목 근로자가 실제 받는 수입의 최고액은 160달러 정도이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절반을 송금 후 실제 받는 액수는 80달러였음.
- 게다가 종이 증서만 쫓으며 현금은 받을 수 없었음. 얼마 정도 버는지 끝까지 알 수 없었음.
- 현금을 얻기 위해 벌목현장 근처의 숲에서 곰과 사슴, 블루베리 등을 따서 러시아인에게 팔았음.
- 사업장에 만연한 배금주의 덕분에 담배 1갑으로 외출증을 얻을 수 있었음.
- 1주일 정도 도로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면 2천 루블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음.
-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져 2005.1월 사업장을 나선 후 돌아가지 않음.
- 현재는 도피처에서 알게 된 前 벌목 근로자 4명과 러시아인이 주는 농사일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음.

## 붙임 1. 홍콩 봉황위성TV 보도 원문 (6.25)

### 봉황위성TV 홈페이지

“外媒：朝鲜今年拟向中国东北输出12万劳工赚取外汇”

- 我们今天看到韩国的《朝鲜日报》有引述消息说，中国地方政府的官员和有关企业人士就透露说朝鲜在明年之前会有12万的劳动力前往中国，也就是朝鲜计划会有12万地劳动者输出到中国，从来没有过这么大数目的一次性的输出，您怎么来看这个事情？
- 杜平：中国自从改革开放之后，基本上都是往外走，特别是输出劳工比较多，包括周边的国家，发达国家，甚至是非洲，就是大量地中国的劳工出去，而不是说其他劳工进来，当然有很多外国人进来，但是基本上都是专业工作者，搞科技的，搞商业的等方面，这些人比较多一点。但是像朝鲜劳工那么大批大批地进来，而且双方地政府都已经批准，不是国家政府，至少是辽宁省、吉林省跟朝鲜方面签了个协议，今年年内12万人要进到中国东北地区，这个事情确实是一个非常新鲜的事情，还是非常大的事情。
- 从目前来讲，当然还是属于省级政府所需要面对的问题，但实质上将来有可能会成为双边关系当中很重要的话题，这个话题不只是中国本地，本身要注重，朝鲜方面重视，同时国际上的一些人，或者一些国家也会对此越来越多的重视。
- 它是这样子的，因为朝鲜这几年经济是很差，特别是跟外部的关系也搞得越来越紧张，因为是核问题，一个是跟韩国的天安号事件，然后延坪岛事件，所以导致朝鲜在跟国际接触的时候遇到很多地问题。现在好像只有中国能够帮它。
- 现在韩国因为天安号事件以后，就把在朝鲜的代加工厂停业了，就关闭了，那么这样直接导致的原因就是朝鲜工人失业，大量地工人失业，同时它的出口的产品也减少，然后外汇就减少了。同时关于核计划这个问题，再加上它的试射卫星，所导致国际对它制裁越来越严厉，那么就是像其他国家的出口也在减少。
- 所以现在对朝鲜来讲非常困难，那么现在唯一能够出口的就是朝鲜的人，就是劳工，劳工出口。所以这次朝鲜报道里面讲，就是朝鲜的最高层跟中国方面提出这个要求，希望能够大量接受他们的劳工，首先为他们这些工人提供一个生计，能够吃饱饭，赚点钱。
- 政治方面就是，因为最近这几年朝鲜因为经济问题粮荒，很多的人，所谓地脱北者，就是跑到中国境内，就是非法的进入中国国境，那么这样的事情实质上在两国关系当中，还有在国际关系当中涉及到韩国，都是一个问题。就是说那么多人进来以后没法管理。同时他又要转道到其他国家，到韩国等等，那么就成了一个外交的课题。现在这种情况之下，既然有那么多所谓的脱北者，非法进入中国国境，我们没有办法完全地拒绝，或者是堵塞的，那你还不如用一个比较合法的，合作的手段让这些需要工作，需要吃饭的这些，有技能的这些朝鲜的工人到中国



북황위성TV 홈페이지

东北来工作, 这可能是两全其美, 也就双方都需要的事情。

- 从中国的角度来讲, 实质上最近这几年里面, 因为劳工的工资在上涨。东北这个地方也是工业基地比较多一点, 老工业基地, 也是需要比较密集型的劳工要更多地一点, 但是在中国本地要找到比较合适的工人可能也不是说那么容易。除了工资需要更高之外, 同时工人的权利意识也在增强。所以现在好像是老板求工人, 不是工人求老板, 出现这种状况之后, 正好朝鲜也有这个需求, 正好也是让东北地区各个大大小小的企业也好, 特别是服务业、建筑业、制造业, 他们能够得到更多地一些工人的来源, 当然也是一件好事情, 也是一件好的事情, 但是可能需要将来还是要考虑一下, 因为过去从来没有同时吸引那么多的工人, 可能还需要, 在管理方面还需要注意一下。
- 可是我认为从其他国家的一些例子来看, 可能在真正地管理当中并非那么简单, 可能不至于那么简单。
- 第一, 还要讲到比如说我中国企业的一些老板, 特别是私营企业, 即便对自己国家的员工都不是那么客气, 待遇都不是那么好, 克扣工资、减少工资、谩骂员工等等这样的事情都是很多, 那么对朝鲜这些比较可怜的工人过来以后, 态度是不是更加嚣张。
- 对对对, 如果你还是比较虐待他们, 对他们态度不好, 然后觉得可能更多地剥削的话, 可能时间长了以后就会是一个, 它不是一个人的问题, 可能就是一个群体的问题, 那你将来出现的问题可能就会很大。
- 另外还有就是说, 说实话在朝鲜和中国之间的关系方面, 可能会设计到国际的问题, 包括联合国安理会会怎么看, 当然安理会对朝鲜的制裁它是涉及到专门的领域, 跟劳工的输出没有什么关系, 但是万一就是说在中国的一些朝鲜劳工遇到这些问题, 国际人权组织, 或者西方国家的媒体它都会焦点放在这个问题上不断地做文章, 做文章目的是什么? 所以在这个层面里面, 可能有的问题不只是靠地方政府所处理的, 还需要更多地从国际政治, 双边关系的角度处理, 要把问题想得更复杂一点, 可能将来更有利于避免有可能发生的那些潜在的问题。
- 这个现在还不能判断是不是它是一种改革措施, 从目前所掌握的资料来看, 可能朝鲜政府确实也没有办法, 确实没有办法来获得更多地外汇, 因为它们政府需要钱, 然后它又没有办法给自己的国民提供更多地就业机会, 所以只能想到这个办法。中国是那么近, 一江之隔, 近水楼台, 既然有那么大的一个劳工市场, 他们就想尽量的利用一下, 在这方面中国也只能进行配合, 然后给一些支持和帮助。
- 比如说现在还是满足于比较密集型的劳动力企业, 当然对将来, 如果说东北地区只是靠廉价的劳工来发展经济的话可能还是不够的, 还需要想更多地办法, 目前引进劳工可能只是暂时的。

## 붙임 2. 중국 안양신문망 보도 원문 [6.22]

### 안양신문망 홈페이지

“品正统朝鲜佳肴赏原汁原味朝鲜歌舞 平壤阿里郎酒店落户安阳”

- 6月21日上午, 在《阿里郎》舒缓悠扬的乐曲声中, 平壤阿里郎酒店在安阳市拱辰广场二楼盛装开业。平壤阿里郎酒店的开业, 让安阳的百姓足不出市, 便可一边欣赏着来自朝鲜的演艺人员原汁原味的朝鲜歌舞, 一边品尝朝鲜大厨用朝鲜进口的食材做出的精美朝鲜特色名菜佳肴。
- 据了解, 平壤阿里郎酒店是由朝鲜平壤高丽贸易会社和安阳诚安建材公司合作经营的特色餐饮项目, 酒店营业面积1600平方米, 设有一个专业的娱乐演艺大厅和17个豪华高档包间, 能同时容纳近300人就餐。该酒店由朝方全权经营管理, 从每一位服务员、每一位厨师, 到每一位演艺人员全部是从朝鲜精心选拔出来, 绝大部分食材直接从朝鲜进口, 保证了原汁原味的朝鲜特色。酒店致力于让顾客在品尝纯正朝鲜美食的同时, 欣赏到正统的朝鲜民族歌舞, 感受浓郁的朝鲜文化气息。

## 붙임 3. CSIS 게재 원문 [6.21]

### CSIS 홈페이지

“The Logic of China's North Korea Policy”

- Most Chinese analysts would argue that China's policy has its own internal logic; whether the US and South Korea see that logic is a different matter. The widely accepted assumption is that China has three goal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stability (no implosion and no war), peac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denuclearization/nonproliferation. Among these three, China prioritizes stability over peace and denuclearization. The secondary status of denuclearization is a sore spot for Washington and Seoul, which see it as the most important goal (or should be). And while different priorities lead to different approaches, North Korean actions have been destabilizing. Therefore, China's strategy is counterproductive in terms of its own priority, hence illogical.
- The US and ROK have in recent years sought to “regionalize” and “globalize” the alliance with no clear indication that the future alliance would not “target” or “affect” China. This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in China: why should

CSIS 홈페이지

China help the US and ROK on North Korea against its own security interests?

- o Hence, China's logic regarding North Korea policy is clear: China will not help the US and ROK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or speed up a China-unfriendly resolution since China is "next on the list."
- o North Korean provocations cost China dearly: financially, politically, and when it comes to security. However, when China puts the issue in the broader context of US-China relations and regional dynamics, North Korea isn't the most serious or fundamental challenge to China's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ic interests. The current policy is problematic, but the alternative seems worse. That's why China chooses to muddle through while hoping economic reform will bring about a North Korea modeled after China.
- o China might change its strategic calculation if North Korea launches new provocations and drags the region into a military conflict. However, as shown by China's response to the two nuclear tests and provocations in 2010, Beijing's tolerance for North Korea is quite high.
- o As long as China is hostile toward and suspicious about the strategic intentions of the US and China's "utility" in the future US-ROK military alliance, Beijing sees no reason to change its policy on North Korea issue to speed up any resolution of the problem.

## 붙임 4. The Hindu 보도 원문 (6.23)

The Hindu 홈페이지

"In North Korea, hunger fears cloud signs of change"

- o "There is a sense of high dynamism in the country," said Dr. Wolfgang Jamann, secretary general of the German aid agency Welthungerhilfe who was granted a rare and unprecedented glimpse into life there during a visit this week. Dr. Jamann returned from a five-day visit on Thursday, following a trip that took him across two provinces and deep into the North Korean countryside.
- o Yet, any long-overdue steps that North Korea might be taking towards reforms, under its new young leader Kim Jong-un, may hinge on a crucial few months ahead for the country, Dr. Jamann said, with drought fears once again raising the spectre of dire food shortages.

The Hindu 홈페이지

- o “Every person we talk to confronted us with the statement that they were in the most severe drought in sixty years,” he said. “This could mean severe malnutrition, or even famine.”
- o His aid agency has been running, since 1997, a number of projects in rural and urban North Korea, including building greenhouses, mechanising farm equipment and developing better quality seeds.
- o “We don’t know if the plants will survive the dry spell or not,” he said. “The maize is being watered manually as there is no rain, and there are no large irrigation schemes,” he said. “A huge effort is now being made to provide water.”
- o Aid agencies estimate that the North faces an annual food shortage of 500,000 tonnes. The United Nations warned last week that at least 3 million people in the country of 23 million were in urgent need of international food assistance. If this year’s harvest is lost to the dry spell, that number could be far greater.
- o Dr. Jamann heard from diplomats that the inputs into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were so low that last year the boundaries of Pyongyang had to be redrawn, extending to 2.5 million residents rather than three million, so that fewer people could be served.
- o In the villages he visited in the South Hwanghae and North Pyong’an provinces, he observed an increasing number of private plots of land. Villagers are now allowed to grow their own crops in plots restricted to 100 square metres. There are, however, no markets for them to sell their produce, so it does not give them additional income. “In the countryside, there is mostly only barter trade,” he said.
- o Dr. Jamann did however see larger markets in Pyongyang, signs of gradual loosening of economic controls by the regime. “Compared to five years ago, the Pyongyang market is ten times in size,” he said. “The city is also a more illuminated city. Part of the energy problem for the capital seems to have been solved one way or another.”
- o Dr. Jamann acknowledged it was difficult to raise funds as there was reluctance in the West to support an aid organisation working with a regime that spends billions on a nuclear programme and the military.

## 붙임 5. 러시아 인테르팍스 보도 원문 (6.24)

### 인테르팍스 통신사 홈페이지

“Игорь Моргуло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России и Китая не зависит от конъюнктуры”

-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Игорь Моргулов рассказал "Интерфаксу" о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Разумеется, тем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фигурирует в повестке дня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го диалога. Прошедшие переговоры не были в этом плане исключением. К сожалению, обстановка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продолжает колебаться между "приливами" позитивных надежд и "отливами" в сторону тревожных ожиданий.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сегодняшней ситуации, то уместно сравнить ее с хрупким балансом между этими двумя "полюсами". Нельзя не отметить в этой связи недавно вновь прозвучавшие из Пхеньяна заверения об отсутствии планов проведения новых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 Подходы России и Китая в корейских делах очень близки. Мы неизменно убеждены в возможност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проблем полуостров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У нас есть общее понимание того, что путь к оптимальным развязкам проходит не через наращивание санкционного и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Пхеньян, а лежит в плоско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эффективной систе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ая бы адекватно учитывала законные интересы и озабоченности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и стала органичным элементом общей архитектуры АТР.
- И, конечно же, мы не можем согласиться с превращением СВА в новую арену гонки вооружений. Накачиванию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мускулатуры необходимо противопостави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правовую альтернативу, которая устраняла бы саму потребность в обладании ядерным и иным оружием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Между участниками шестистороннего процесса продолжают интенсив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 целью нахождения оптимального алгоритма его возобновления. Само по себе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необоснованности скепсиса в отношении жизнеспособности данного формата.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ни одна из входящих в него стран не ставит под сомнение важность продолж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 붙임 6.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보도 원문 (6.23)

###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홈페이지

“Южная Корея на АТЭС-2012 обсудит условия поставок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из РФ”

- Юж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в ходе саммита АТЭС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могут обсуд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авок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н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ынок, сообщил глав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Hyundai Energy and Resources Ltd. Бон-Джин Янг.
- Ранее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в конце 2008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энергетики и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НДР и "Интер РАО ЕЭС" подписали протокол, в котором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одтвердила готовность выделить отвод земли п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ЭП. Отвод земли может быть оплачен поставками российского электричества в КНДР. В 2010 году ВЭК подготовила задание на разработку техник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обоснования (ТЭ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ЛЭП для экспорта электричества из России в КНДР и Южную Корею, сообщил РИА Новости в четверг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сс-службы ВЭК. По информации ВЭК, для экспорта электричества из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построить ЛЭП напряжением 500 киловольт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до Сеула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 붙임 7.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원문 (6.24)

###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密輸貨物船、数隻存在か 中朝間を頻繁に往来”

- 昨年8月、弾道ミサイルを運搬する大型特殊車両4両を中国から北朝鮮に運んだ貨物船を運航した中国企業が、所属や船員構成の似た貨物船数隻を使い、中朝間を頻繁に往来させ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日本政府はこの企業と北朝鮮の武器輸出入商社との関係を疑い、情報を収集している。
- 日本政府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中国は4両の輸出目的を「大型木材を運ぶ民生用」と主張しているが、日本政府は、北朝鮮の武器輸出入商社が当初からこの輸出に関与していた可能性があるともみている。

##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 問題の中国企業は、大連に本社を置く「大連青松船務代理有限公司」。  
日本政府の調べでは、同社は4両を運んだ「HARMONY WISH」と  
大きさや名前が似た貨物船数隻を同時に運航していた。いずれも  
「HARMONY WISH」と同じカンボジア船籍で、全て、1~2  
人のミャンマー人以外は中国人船員という構成。過去5年間で、1隻あ  
たり各10回前後、北朝鮮の元山や清津、南浦などに寄港していた。
- 同社の名称は国連安保理の北朝鮮制裁委員会が5月に制裁対象とした北朝鮮の武器輸出入商社「青松連合」と酷似。日本政府も関心を寄せている。
- 一方、大連青松船務代理有限公司はホームページもなく、詳しい実態はわかっていない。中国は制裁委傘下の専門家パネルで中国での現地調査を拒んでいる。
- 大連港を見下ろす高台の高級マンション。北朝鮮に大型特殊車両を輸出  
した「大連青松船務代理有限公司」が入居している。高層階にある部屋  
の前まで行くと表札はなく、ドアは開いていた。
- のぞくと、100平方メートル以上はあるとみられる広い室内に事務机やソファが置かれ、数人の男女が電話で積み荷をめぐるやりとりをしていた。
- 「荷を送れるか」と声をかけると、貿易商と思われ、応接室に通された。そこで、車を北朝鮮に輸出できるかと聞くと、男性社員は「北朝鮮  
には常に貨物を送っている」と、あっさりと認めた。女性社員も「目的  
地まで貨物は送るが、積み下ろしなどの手続きには関与しない」と話した。
- 彼らの説明によると、同社の社長は中国人で、北朝鮮や日本、韓国、東南  
アジアなどへの輸送に関わっているという。大連港に近い南浦港な  
ど、北朝鮮の複数の港湾名を到着地として挙げた。
- 「大型トラックを輸出することもできるのか」。こう尋ねると、「中国  
国旗以外の国旗を掲げた船を使う。『方便(便利な)旗』と呼んでい  
て、カンボジア国旗が多い」との答えが返ってきた。同社が使う船は北  
朝鮮船籍のほか、中国以外の国籍の貨物船を使用することが多いという。
- 日本政府が入手した資料から、中国が昨年8月、北朝鮮に大型特殊車両を輸出した際、カンボジア船籍の貨物船が使われ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そのことに触れると、女性社員は戸惑った表情を浮かべ、「責任者が休んでいるので、週明けに再訪してほしい」と話を打ち切られた。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 同社を出た後、改めて同社に電話して身分を告げ、正式に取材を申し込んだ。
- すると、男性社員は「すでに中国政府も、中国は（密輸に）無関係だと発表している。今日は事務所は休みだ。もう話すことは何もない。これ以上の報道があれば、弁護士と政府に相談する」と取材を拒否。「日本の友人が記事を送ってくれて読んだ。内容には笑ってしまった。まったくのうそっぱちだ」とまくし立てて、電話を切られた。

**붙임 8. 일본 뉴스포스트세븐 보도 원문 (6.24)**

뉴스포스트세븐 홈페이지

“北朝鮮が結婚ビジネス進出 美女を100万ドルで外国人に斡旋”

- 北朝鮮が外貨獲得のために、自国の“美女”をリストアップし、専門の団体を通して北朝鮮女性と結婚したい外国人男性に斡旋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結婚には最低でも100万ドル（約8000万円）が必要だ。
- 米国を拠点に中国語のニュースを配信している多維新聞網や中国新聞網によると、北朝鮮の美女との結婚を希望しているのは主に中国人男性で、中国国内の朝鮮族と北朝鮮国内のブローカーが結婚斡旋のための団体を作り、結婚の申し込みを受け付けるというもの。
- 北朝鮮の美女との結婚を望む男性は、まずこの団体に手付け金として5万ドル（約400万円）を渡す。そして写真付きのリストから女性を選ぶ。後日、男性が北朝鮮に赴くとその滞在中に女性が派遣され面談するという。
- 結婚した男性は北朝鮮国内でビジネスを行う権利を獲得するが、投資しない場合はさらに100万ドル支払う必要がある。
- 米務省がこのほど発表した世界の人身売買報告書によると、北朝鮮の女性の場合、中国人男性と強制的に結婚させられたり、売春をさせられており、その実態は深刻だと伝えている。
- また、報告書によると、北朝鮮政府はロシアやアフリカ、東欧、中東など国々と労働者派遣の契約を結んで、北朝鮮の国民に強制的に労働をさせているという。これについて、米務省のルイス・シドバカ人身売買根絶担当大使は「数年間にわたり北朝鮮当局が中東やロシアなどに労働



뉴스포스트세븐 홈페이지

者を送り、賃金を搾取するだけでなく、徹底的に監視し、移動の自由まで剥奪しているという点で、強制労働問題は深刻だ」と指摘している。

- このような人権無視の外貨獲得策は、北朝鮮経済が一層困窮している状況を如実に物語っている。

**붙임 9.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원문 (6.24)**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北朝鮮、覚悟の出稼ぎ 国が7割超ピンハネ〈動く極東〉”

- 5月下旬のロシア。シベリア鉄道沿線にある小さなホテルに小柄な男が入ってきた。おびえた様子。しきりに辺りをうかがった。北朝鮮の元伐採工(49)。「賃金収奪」「人権侵害」で悪名高い、北朝鮮国外労働の経験者で、逃亡者だ。
- 軍人だった彼がロシア行きを志願したのは1995年9月。「苦難の行軍」と呼ばれた食糧危機で配給は途絶え、地方都市では餓死者が出ていた。「食べるためだった」と振り返る。
- 北朝鮮は国外逃亡を防ぐため、家族に韓国出身者がいる者など、思想面で問題がありそうな人は国外に出さない。彼も軍の上司から「反逆の道をたどるな」とクギを刺された。
- ロシア最大の北朝鮮伐採現場があったアムール州ティグダ。約700人が働く第13事業所が彼の仕事場だった。朝8時から夜10時ごろまでカラマツなどを伐採して駅に運んだ。伐採、選別、運搬、貨車積み込みの四つの作業にそれぞれ2人ずつ、計8人が一つの小队を作った。事業所全体で毎年3~4人が事故で死ぬ「強制収容所」だった。
- 毎月の伐採量のノルマは3千立方メートル。機材も足りず、ほとんど達成できなかった。
- 他の元伐採工らの証言によれば、当時の月収は、伐採の最盛期で2千~3千ドル(約16万~24万円)、平均500ドル程度だった。このうち7割以上は国がピンハネする。だから、彼が記憶する手取りの最高額は160ドル。さらに事業所から「故郷の家族に半額を送金しておいた」と言われ、取り分は80ドルになっていた。しかも紙の証文だけで

##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現金はもらえなかった。本当の稼ぎがいくらなのか、最後まで教えてもらえなかった。

- 現金を手に入れるため、伐採現場近くの森林で熊や鹿、ブルーベリーなどを採って、ロシア人に売った。
- 67年に旧ソ連と北朝鮮が結んだ契約は、両国が伐採した木材を約65%と約35%で分配するとした。北朝鮮はティグダに近いハバロフスクに林業省の支部を置き、極東での伐採事業に力を入れた。
- 北朝鮮の国外労働者は派遣期間が一律3年と決まっている。だが、何とか現金を稼ぎたくて、事業所の朝鮮労働党と国家安全保衛部の責任者、行政支配人らに少しずつ賄賂を渡して見逃してもらい、ロシアに居残った。幹部の信頼を得た2000年ごろから、伐採現場を離れ、しばしば「請負(チョンプ)」と呼ばれるアルバイトに精を出した。事業所にはびこる拝金主義も、都合が良かった。「たばこ1箱で外出証をもらえた」
- 1週間ぐらい道路建設などの現場で働けば、2千ルーブル(約4800円)足らずになった。ウラジオストクなどの市街地で働く北朝鮮労働者の多くが、こうしたアルバイトでわずかな現金を稼いでいるという。帰国後の豊かな生活を夢見て、こつこつお金をためている。北朝鮮関係筋は「つらい仕事だが、国内にいるよりまし。最近は希望者も多い」と語る。
- 北朝鮮当局は思想の引き締め躍起だった。97年冬、事業所のテレビで、黄長ヨプ(ファン・ジャンヨプ、ヨプは火へんに華)元党書記の亡命を伝えるロシアのニュースを見た。保衛部幹部は激怒し、「再びテレビを見たら、本国に送還する」と脅した。労働者の宿泊施設で起きたぼやで金日成(キム・イルソン)、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父子の肖像画が焼けると、部屋の住人は翌日、本国に送還された。
- アルバイトを重ねるうちに、自由へのあこがれが強くなった。05年1月、「1週間後に戻る」と伝えて事業所を出た。そのまま戻らなかった。
- 今、逃亡先で知り合った似た境遇の元伐採工4人と、ロシア人から時折もらう農業などのアルバイトをしながら、息を潜めて暮らす。いつ現れるかわからない保衛部の追手を警戒し、5人はあえて住居を別々にしている。不自由な生活を強いられ、逃亡資金はなかなかたまらない。
- 一昨年、2人の仲間が病で死んだ。「韓国に行きたいが、旅費もない。故郷に戻れば、死が待っているだけだ」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한국에 美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6.25 더 디플로맷 ☞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사 전문지)

- 「마이클 마자」(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 「「뱅크 존슨」 美 의원은 서태평양 지역에 추가 재래식 병력 및 핵부대 배치를 촉구하는 올해 하원이 채택한 국방수권법(NDAA)을 비난했다.’
- ‘논쟁의 핵심은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역효과를 낳고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 ‘존슨 의원은 이미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및 폭격기를 감안할 때,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군사적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군은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
-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 ‘북한에 김씨 정권이 지속되는 한, 북한을 무장해제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미국의 외교·경제적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나, 중국의 영향력은 보다 광범위하다.’
- ‘중국이 대북제재를 고의로 약화시키는 대신 이를 강화할 경우 북한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이다.’
-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韓·美·日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 ‘존슨 의원은 중국이 한국에 미국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물론 핵무기 배치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만, 아무도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

○ 북한의 가뭄 관련 발표에 대한 의혹 (6.21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마커스 놀란드」(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스테판 해가드」(캘리포니아대 교수),
  - '북한은 식량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날씨가 식량 생산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그러나 날씨의 중요성이 과장될 수 있고, 때로는 북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기근 당시 가장 두드러졌다.'
  - '대북지원 지지자들은 '90년대 기근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연재해 발생 이전 이미 기근이 시작되었었으며, 북한 당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과장했다.'
  -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북한 정부의 날씨 관련 주장에 의혹을 품는 것은 일리가 있으며, 특히 날씨 관련 보도의 출처가 조선중앙통신 또는 AP일 때 의혹이 더욱 커진다.'
  - '먼저 작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2011년 6, 7월 발생한 태풍과 폭우로 북한 남서지방의 곡창지대에서 6만 헥타르의 농지가 파괴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진짜 문제는 그 이후 북한 당국의 대응이었다.'
  - '이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지만, 평양 및 주요 군사시설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주민들의 영양 상태는 놀라우리만치 나쁘다.'
  - '북한 내 취재원들을 둔 일본 아시아프레스는 이 지역에서 군사 및 태양질 축적 목적으로 징수한 과도한 세금과 김정일의 100일 애도기간 중 시장 단속 강화 등의 정치적 이유를 식량난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 '지난 4월 도쿄신문은 김정일 사후 황해남도에서 2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 아시아프레스,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 및 데일리NK의 보도 또한 이 지역 내 아사자 발생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 '두 번째로 최근 서해안 지방 가뭄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관건은 북한 기상수문국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빙성이다.'
- '최근 FAO는 북한 국가조정위원회를 인용해 북한 농경지의 17%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으나, 다른 북한 가뭄 관련 외신보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 '요약하면, 작년 자연재해 이후 정부 대응으로 식량난이 악화되었고, 올해도 가뭄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는 올해 말 식량난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된다.'
-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오로지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공식 자료에만 기초하고 있으며, 북한의 과거 전력을 생각하면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떠오른다'고 언급

## □ 러시아어권

### ○ 韓·美 군사훈련, 역내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6.25 골로스 러시아 1라디오)

- 지난주 있었던 대규모 韓·美 군사훈련과 관련, 북한은 핵 억제력 강화 입장을 밝히는 등 역내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현재 南·北은 상호간 적대관계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대립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있음.
- 北 인공기를 겨냥한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韓·美 군사훈련과, 또 이에 적개심을 드러내는 북한을 둘러싼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6자회담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로알드 사벨에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한반도센터 부소장),
  - ‘한국과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상호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이성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이 긴장상황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 ‘미국은 이러한 동맹국들을 안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국이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추가행보를 취하며, 긴장 상황에 기여하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주장

○ 北 전문가, 아무르州 주택건설 현장에 투입됐다.

(6.25 인테르팩스 ㉸ 민영 통신사)

- 연방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아무르州 툰다市 주택건설 현장(현재 총 650명 고용)에 북한 전문가 100명이 고용됐으며, 조만간 80명 더 투입될 예정임.

□ 중국어권

○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벽을 허물어야 하는가?

(상해포럼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6.26 환구망)

- 「에이버리 골드스타인」(美 펜실베니아대 정치학 교수),
  - ‘미국은 줄곧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냉전시기에는 구소련과의 경쟁을 의식한 관계였고 지금은 경제, 군사, 안보적 측면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
- 「저우팡인」(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벽을 형성하고 중국이 이를 허물지 못하도록 점점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허물거나 중국의 출입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 「빅터 차」(美 조지타운대 교수),
  - ‘중국의 발전과 미국의 아시아 전략 조정이 아시아의 권력 불균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반도와 타이완 문제에 있어 미국은 중립성을 가지고 중국과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 '동남아는 中·美의 정치경쟁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동북아에서는 中·北이 이미 일종의 교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동남아 국가들과 中·美의 교류는 동북아처럼 활발하지 않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미국은 외교적으로 동남아에 관심을 갖고 있다.'
-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발전에 기대어 이익을 얻고자 하고, 안보상으로는 미국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

- 「우신바이」(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 부주임),

-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는 새로운 경제·안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냉전 시기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동아시아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향후 지역 구도는 역외 국가가 아닌 역내 국가들이 자주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중국은 지역 협력의 창도자, 지역 규범 제정자, 경제안보 자원의 제공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의 노동력 수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나?(6.25 차이선)

- 「북한 내부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

- '현재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약 3만명으로 매년 2억 달러의 외화를 창출하고 이 중 8~90%를 국가가 회수한다.'
- '이번에 12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하면 김정은의 통치자금은 약 3억 6천 달러로 김정일 시기의 1년 외화수익과 비슷하다.'
- '여기에 현재의 외화수익을 더하면 김정은의 외화획득력은 김정일 시대를 능가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노동력 수출 계획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다.'
- '중국이 이러한 계획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중국에 성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중국 칭다오市 북한 추계 상품전 참가 기업 모집한다.

(6.25 칭다오재경일보)

- 중국 칭다오(靑道) 무역축진회는 9.24~27일에 열리는 평양 추계상품전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할 예정임.
-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시장 개척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색을 돕고자 함.
- 지리적으로 이웃해있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로 인하여 중국 기업들은 항상 북한 상품전에 많이 참가했으며, 중국 상품들에 대한 반응도 좋았음.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개혁을 시도하고 경기도 좋아지고 있어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함.
- 그러므로 먼저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장악하고 수익도 많이 얻을 것임.

□ 일본어권

○ 중국도 농락하는 북한의 교활함 (6.26 산케이)

- 중국 국영기업이 미사일 운반차량 수출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 뿐 아니라 북한의 대미 핵억제력 강화에 힘을 보태준 것이 됨.
- 그러나 후진타오 정권은 과거에 북한이 핵억제력 강화조치를 강행하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은연중에 영향력을 미치려 함.
- 중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선택했고, 이는 6자회담의 기초가 됨.
-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공조는 결탁과 다름이 없었고 미국과의 직접 협의를 요구하는 외교가 제약되는 것임.
- 북한이 美·中주도를 美·北주도로 돌리려 할 때 가장 유효한 수단이 군사적 공세임.



2012.6.26(火)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두 차례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서해에서의 무력행사도 美·中결탁을 깨뜨리려는 대미정책이기도 했음.
  -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효과를 발휘해 美·北간 직접 협의가 실현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음.
  -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역이용해 '北·中우호'를 내걸며 양자관계의 회복을 요청함.
  - 미사일 운반차량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여 또다른 직접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日, 일본인 유골과 납치문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6.26 TBS뉴스)
- 「마츠바라 진」(납치문제 담당상), '일본인 유골은 전후 미해결된 문제이며, 납치 문제와는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

## 붙임 1. 더 디플로맷 게재 원문 (6.25)

더 디플로맷 홈페이지

### "A Big Stick for North Korea?"

- o Last Tuesday, U.S. Congressman Hank Johnson and his adviser Jonathan Ossoff criticized what they described as a "dangerous provision" in this year's house version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The provision, which calls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to consider deploying additional conventional and nuclear forces to the Western Pacific, isn't nearly as "dangerous" as Johnson and Ossoff make it out to be.
- o The crux of their argument is that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 which, by the way, isn't explicitly called for in the House NDAA language - "would be counterproductive and unnecessary."
- o Johnson and Ossoff argue that such redeployment would serve no military purpose given that other U.S. assets, including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and bombers, already provide a satisfactory and effective deterrent. In this they are likely right. The U.S. military wouldn't be challenged in striking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and Pyongyang knows it.
- o But to the contrary, it might just be the case that deploying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would underscore diplomatic efforts to persuade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e fact is that as long as the Kim regime, or some iteration of it, remains in power in Pyongyang, there will be no successful U.S. diplomatic effort to disarm the North. American diplomatic and economic leverage is simply too limited.
- o But Chinese leverage is much more extensive. If Beijing were to actually enforce sanctions against the North, rather than willfully undermine them, or were to cut Pyongyang off from the Chinese honey pot, Pyongyang might finally feel enough pain to bring it to the table with a willingness to deal.
- o But of course China has refused to use that leverage or to sincerely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onundrum. Johnson and Ossoff are correct in asserting that China wouldn't like to see U.S. nukes in South Korea, but the path

더 디플로맷 홈페이지

towards their withdrawal would be plain to see and, to a great extent, within Beijing's control.

- o Of course, decisions about nuclear weapons deployments require extensive deliberation. Nobody should be in a rush to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붙임 2.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도 원문 (6.21)**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홈페이지

"Blame it on the Weather"

- o Most of the food consumed in North Korea is produced locally and as a consequence weather has a considerable impact on food availability. Yet the importance of weather can be exaggerated, and has sometimes been used politically, as means to sidestep concerns about North Korean policy and instead move directly to attributing food shortages to acts of God.
- o This misdirection is most notable with respect to the famine of the 1990s, where some supporters of aid to North Korea consistently frame that episode as a result of floods and other natural disasters, when it is quite obvious that the famine emerged before the disasters, which though surely destructive, were subsequently exaggerated in magnitude by the regime.
- o So it is understandable if outside observers regard North Korean weather-related claims with a healthy dose of skepticism. That skepticism is reinforced if the initial bearers of the news are KCNA, the state news agency, and AP, which has been caught propagating North Korean disinformation.
- o The first concerns problems stemming from events last year, and the second is prospective problems emerging from climatic events this year. With respect to the first issue, in June and July 2011, typhoons and torrential rains reportedly damaged 60,000 hectares of farmland in the southwestern breadbasket region of the country. The real problem however, has been in how the state has responded in the aftermath.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홈페이지

- o Due to its proximity to Pyongyang and key military installations, while this region is fertile, it is also heavily "taxed" and the nutritional status of civilian residents is surprisingly low, as Hazel Smith and others have pointed out. The Japanese group ASIAPRESS has developed networks in the region, and their reporting together with GoodFriends has underscored the political origins of emerging stories of acute shortages. These included excessive exactions from the region, including for the military and for the Day of the Sun celebrations in Pyongyang in April, coupled with a crackdown on markets during the 100-day mourning period.
- o Back in April, Tokyo Shimbun reported that 20,000 people had died in South Hwanghae since the death of Kim Jong Il; how they could possibly know this is anybody's guess. But the reporting of ASIAPRESS, GoodFriends, and a string of good stories in the DailyNK lend credence to the claim that deaths are occurring in the region.
- o The second issue has to do with emerging stories of drought along the west coast, where much of North Korea's grain is produced. A fundamental issue is how much credence to give data produced by the Hydro-meteorological Service of the DPRK. In a widely cited report, the FAO noted this week that the North Korean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NCC) had claimed that 17 percent of the national cropland had been affected, though the FAO report indicates that they were reporting the NCC statement, and does not imply that they had independently verified this information themselves, a caveat lost in all the press coverage that we have seen.
- o In sum, we have stories of worsening food insecurity in North Korea connected in part to state behavior in the aftermath of weather problems last year. There are emerging stories of weather problems this year and by extension the possibility of worsening food availability later in the year, but this narrative appears to rest largely, if not completely, on unverified North Korean official claims. Given the past history, one is reminded of the fable of the Boy Who Cried Wolf.

### 붙임 3. 러시아 글로스 러시아 보도 원문 (6.25)

글로스 러시아 라디오 홈페이지

“За флаг ответят”

-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учения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оявшие  
ся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негативно сказались на обстано  
вке в регионе. Пхеньян уже заявил, что будет наращивать яд  
ерный потенциал в ответ на обстрел своего флага.
-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 делают ничего, чтобы снизить  
взаимную враждебность, а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подливают м  
асла в огонь конфронтации Севера и Юга, считает заместител  
ь руководителя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Роальд Савельев: "Такие дей ствия обе  
их сторон вряд ли можно назвать логичным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Особую напряженнос  
ть пытается создать Южная Корея. А американцы вместо тог  
о, чтобы несколько уgomонить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вносят свою  
лепту и даже предприним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шаги, свидет  
ельствующие о том, что Вашингтон в данной ситуации не и  
щет путей к снижению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регионе".
- Обстрел во время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х учений североко  
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лага, о котором с гордостью сооб  
щает Сеул и с негодованием Пхеньян, оставляет мало надеж  
д на то, что непростой путь к возобновлению "шестисторонк  
и" удастся прой ти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 붙임 4. 러시아 인테르팍스 보도 원문 (6.25)

인테르팍스 통신사 홈페이지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в Тынде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до  
2013 года поступит более 1 млрд руб”

- Второй транш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  
илья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в Тынде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составит  
1 млрд 60 млн рубл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 понедельник. "Первые 900 млн рублей поступят в

인테르팍스 통신사 홈페이지

область в ближай шие дни, остальные до конца года. Софина нсирование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этот год составляет 455 млн рублей , средства уже перечислены строителям", - го 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оек в Тынде работает порядка 650 человек. В микрорай оне "Т аежном"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ключились 100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КНД Р, в ближай 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бытие еще 80 человек.

**붙임 5. 중국 환구망 보도 원문 (6.26)**

환구망 홈페이지

“是否要推倒东亚的“美国墙 ””

- 金骏远(Avery Goldstein, 美国宾夕法尼亚大学政治学教授) : 亚洲是一个非常大的区域, 同时亚太也是非常大的地区。所以, 流动对地区秩序的创建很重要。美国到底是进来还是出去, 我认为美国确实应该留在东亚地区, 其实美国和东亚地区一直有着持续的关系。在冷战时期美国对于东亚的兴趣更多是派生的, 因为当时它可能更多考虑到的是美国在全球的声望, 以及跟苏联竞争的目的。如今美国对于东亚的关注就不仅仅是考虑面子了, 更多是从经济利益和从军事、安全方面来考量的, 这与冷战时候并不一样。
- 周方银(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中国周边与全球战略研究室主任) : 美国在东亚地区的联盟体系就像一堵墙, 它一直在这个地方, 立了几十年, 从上世纪50年代就开始了。这关系到我们的策略选择, 不同的选择会有不同结果。美国现在的做法是加固这堵墙, 把它延伸扩大, 阻止中国把它拆了。当然, 美国也可以改变, 比如跟中国合作把它拆了, 或者是让中国拥有进出的自由, 这里有很多的可能性。
- 维克多·车(Victor Cha, 前白宫国家安全事务委员会亚洲事务主管、乔治敦大学教授)不论中国的崛起, 还是美国的战略向亚洲调整, 并不能说明亚洲没有权力的平衡。比如, 中国的崛起更多地是在东南亚得到体现, 而在东北亚, 美国现有的基础秩序将会得到维持。我认为在朝鲜半岛和台海问题上不会出现中美之间的冲突, 因为美国一直在做准备, 我们讲到台湾和朝鲜的时候, 其实是非常中性的, 使用的一些描述词汇非常有限。
- 东南亚很有可能成为中美政治竞争的一个关键角力点。在东北亚, 中国和朝鲜达到了一种默契。但在东南亚地区, 中美以及其他国家之间并不像东北亚地区有这样多的交流。一方面中国的力量在东南亚地区不断发展, 对东南亚地区的影响日益深远; 另一方面, 美国从外交的角度已经是加入到了东南亚地区, 而且是前所

환구망 홈페이지

未有的。而东南亚国家，一方面希望通过中国的发展从中拿到一些利益，另一方面从安全的角度希望获得美国保护伞的保护。

- 吴心伯(复旦大学美国研究中心副主任)：目前的东亚格局还是从冷战时期演变而来的，不仅已经过时，而且也没有反映本地区经济和安全的新现实。实际上，我们区域内经济和合作的发展正在创建新的东亚格局。这个新格局首要的特点就是“自主性”。目前的格局很大程度上受到美国的影响，未来我们地区的格局不会是由一个域外国家来决定的，而是由这个地区主要的成员国来决定。
- 中国在这个进程中应该发挥以下作用。第一，成为整个区域合作的倡导者，其实中国在这方面已经做了很多工作。第二，成为地区规范的缔造者，在过去的十到十五年，东盟是地区合作规范的主要塑造者，今后中国要在这方面发挥更大作用。第三，成为地区公共物品的提供者。中国应该不仅仅提供经济方面的好处，也要积极提供安全物品。这意味着中国在地区合作中的角色要经历一个转型。

**붙임 6. 중국 차이선 보도 원문 (6.25)**

차이선 홈페이지

“朝鲜12万劳工输出中国 经济效益几何？”

- 根据一位了解朝鲜内部情况的消息人士透露，朝鲜目前的海外劳务派遣规模一共是3万人左右，每年创收超过1亿美元。而其中的绝大多数(约占80%至90%)，都被收归国有。因此，如果按照朝鲜的计划向外派遣12万劳工，金正恩的统治资金将会增加3.6亿美元左右，相当于金正日时期朝鲜一年的外汇收入。再加上朝鲜现有的创汇渠道，金正恩时代的朝鲜外汇赚取能力将超过金正日时代。
- 俗话说“青出于蓝而胜于蓝”，儿子超过老子，其实也不值得奇怪。不过关键在于，能不能如愿输出12万劳动力赚取外汇不是朝鲜说了算，而得看中国会不会答应；而中国是否会答应，恐怕还需要看一看朝鲜对中国的诚意了。

**붙임 7. 중국 칭다오재경일보 보도 원문 (6.25)**

칭다오재경일보 홈페이지

“我市企业将参加朝鲜“广交会”字号”

- 本报讯(记者 侯振东)记者从青岛贸促会获悉，为协助我市企业开拓朝鲜市场，寻找合作商机，青岛贸促会将组织我市相关企业赴朝参加9月24日~27日举行的平

칭다오재경일보 홈페이지

壤秋季商品展览会。

- 由于地缘相近和传统的友好关系，我国企业历来是参加该展的“主力军”，我国产品也历来受到朝鲜的欢迎。从近几届展会的情况看，我国参展商品中成交较好的主要有机械、建材、发电机、小型家用电器、日用品等。
- 据业内人士介绍，朝鲜近年来一直尝试改革，其经济状况也有所好转，贸易机会增加。先行进入的企业，有望占据有利的位置、获得更多的回报。参加“平壤国际商品展”手续便捷，费用相对低廉，为此我国许多企业视其为“试水”朝鲜市场的首选渠道。

**붙임 8.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6.26)**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防衛大学教授・倉田秀也 中国をも手玉にする北の狡猾さ”

- 北朝鮮が金日成生誕100周年記念の軍事パレードで公開したミサイル発射台が、中国国防部傘下の国営企業が輸出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疑惑が濃厚となっている。
- WS系と呼ばれる移動式ミサイル発射台は片側8輪、全長21メートルとされ、長距離弾道ミサイルを念頭に置いているのは明らかである。中国国営企業が関与したなら、中国は、北朝鮮の核実験に対して採択された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制裁決議に違反しただけでなく、北朝鮮の対米「核抑止力」向上に手を貸していたことになる。
- その温床を探るのは容易ではない。ただ、これを中国の胡錦濤政権が北朝鮮の「核抑止力」向上のために行った確信犯的な「共犯」の結果とみるのは牽強付会(けんきょうふかい)に過ぎよう。胡錦濤政権は過去、北朝鮮がその「核抑止力」向上を目指す措置を強行しようとしたとき、それらを阻止するため隠然たる-時にはあからさまな-影響力を及ぼそうとしてきた。中国は北朝鮮に非核化を求める影響力を極大化するうえで米国と協調することを選び、それは6カ国協議としていったんは輪郭を整えた。これは、2003年4月の米朝中会談が6カ国協議の母胎となったことを想起すれば、思い半ばに過ぎる。
- もとより、中国が朝鮮問題に関与しようとする意図に変わりない。しかし、中国は、北朝鮮との2国間関係を6カ国協議に組み込み、その中で影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響力の保持を図った。それは朝鮮半島非核化に逆行したり、北朝鮮の軍事力を高めるものであってはならなかった。

- 03年に中国は、北朝鮮の6カ国協議への参加を条件に無償支援を約束し、それはガラス工場の建設に供された。「大安友誼ガラス工場」は名の通り、「中朝友誼」を象徴するものと喧伝(けんでん)された。ガラスという軍事転用に不向きな資材の工場をその象徴としたところに、中国の米国への配慮を読み取るべきであろう。それはまた、北朝鮮の軍事挑発を望まない中国にも裨益(ひえき)したに違いない。
- ところが、北朝鮮にとって米中「協調」とは、米中「結託」に他ならない。これまで米国に対し、軍事停戦協定の平和協定への転換など、朝鮮半島での冷戦構造の解体を掲げてきた北朝鮮が最も危惧したのは、米中「結託」で、米国との直接協議を求める外交が制約されることであろう。
- 北朝鮮が米中主導の試みを米朝主導に引き戻そうとするとき、その最も有効な手段は軍事攻勢となる。2度に及ぶ核実験、弾道ミサイル発射、そして黄海での武力行使も、北朝鮮が米中「結託」から脱却するための対米政策でもあった。北朝鮮の軍事攻勢が奏功し米朝直接協議が実現すれば、中国の影響力は低下せざるをえない。それをわれわれは、核実験後の6カ国協議にみてきた。
- 北朝鮮の狡猾(こうかつ)なところは、中国の危惧を逆手にとる形で、「朝中友好」を掲げて2国間関係の回復を求めた点にある。それはしばしば、米国への敵愾心(てきがいしん)を煽(あお)るレトリックと行動を伴ってきた。
- 改めて指摘するまでもなく、中国には、核保有国として核不拡散への格別な義務がある。それは国連安保理で最も大きな発言力を持つ常任理事国の地位により裏づけられている。ミサイル発射台輸出に中国企業が関与していたなら、中朝2国間関係には、朝鮮半島非核化より、米国への敵愾心を煽るレトリックが横行する部門が確実に存在し、中国政府も、それが安保理決議違反に当たると知りつつ黙過していたことになる。
- しかも、ミサイル発射台は、北朝鮮の対米交渉力を強めて、さらなる対米直接協議への傾斜を招きかねない。中国が北朝鮮の「核抑止力」の向上に手を貸すことは、米国との協調で北朝鮮を非核化に導くため、6カ国協議の議長国まで買って出た政策の趣旨とも相反する。いま、中国の核保有国としての地位と実際の地域政策の間で、最も大きな格差がみられる地域こそ、朝鮮半島かもしれない。

## 붙임 9. 일본 TBS뉴스 보도 원문 [6.26]

### TBS뉴스 홈페이지

“日本人遺骨「拉致とは別に適切判断を」”

- 北朝鮮に埋葬されている日本人の遺骨がJNNなど一部のメディアに公開されたことを受け、松原拉致問題担当大臣は閣議後の記者会見で「戦後未解決の問題で、拉致問題とは別に適切に判断されるべきもの」との考えを示しました。
- 太平洋戦争末期の混乱の中、現在の北朝鮮で死亡した日本人のものと思われる遺骨がピョンヤン郊外のリョンサンで公開されたことについて、松原拉致問題相は戦後未解決の問題として注視する考えを示しました。
- そのうえで「拉致被害者の救出は一刻を争うもので、遺骨問題は拉致とは別の問題として適切に判断されるべきだ」との認識を示しました。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중국어권

○ 中·北 황금평·위화도 협력 보류, 정확한 사실 확인 중이다.

(6.26 경제관찰보)

- 6.26일 한국 언론이 '5월에 중국 정부가 황금평 개발 사업 보류를 북한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음.
- 「단동시 황금평·위화도 개발 사업의 한 관계자」,
  -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중앙의 정식 통보가 없었기에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음.'
- 「단동시 정부 관계자」,
  - '사업이 연기·정지된 것이 아니라 협력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 '현재 황금평·위화도의 개방·협력 준비는 되었으나 2014년 신압록강대교 건설 완료 후 정식으로 시작될 것이다.'
- 경제관찰보는 '황금평 개발권이 홍콩 신형지 그룹<sup>19)</sup>에 넘어가고 그룹 이사장이 신의주 행정장관에 내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음.
- 「단동시 국경무역 사업자」,
  - '단동시에 새롭게 건설되는 신시가지와 공업단지 때문에 협력이 중단되었다.'
  - '중국은 홍콩의 자본이 신시가지와 공업단지에 투자하길 원했으나 북한이 거절했다.'
  - '자금 문제로 이미 150억 위안이 투자된 신시가지와 공업단지 건설이 중단되고 있다.'
- 그러나 단동시는 자금 문제가 아니라 신압록강대교 완공을 기다리는 것뿐이라며 위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음.

19) 신형지(新恒基) 그룹 : 홍콩의 다국적 투자회사

- 기자는 여러 차례 駐中 북한대사관과 駐심양 북한영사관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음.

## □ 영어권

- o 남·북한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 겪고 있다. (6.26 AP)



[황주군 룡천리의 갈라진 논밭 / 6.22 AP]

- 한반도가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북한에서는 갈라진 논밭에 물을 나르기 위해 군인들을 동원하고, 남한 공무원들은 폐사 위기의 희귀 조개를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펼치고 있음.
- 가뭄 장기화로 북한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북한 관료들에 따르면 좋은 관개시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곡창지대인 평안남도와 황해도에서조차 수천 헥타르의 논밭이 말라가고 있음.
- 북한 황주군 농촌경제위원회 「리순범」 위원장, '저수지 고갈로 관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언급
- 황해북도 황주군 고현리에서는 노란 수건을 머리에 두른 여군들이 논에 물을 주고 있었고, 소가 물통을 실은 수레를 끌고 있었으며, 물 운반을 위해 소방차와 유조선까지 동원됨.

- 지난 주말 「박덕관」 용천협동농장 이사장, '비가 빨리 오지 않으면 옥수수의 절반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산이 많은 북한에서는 경작지가 토지의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90년대 기근 이후 발생한 만성적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식량지원에 의존해왔음.
  - 최신 UN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연료, 트랙터, 우량종자 및 비료가 부족하며 불안정한 전력공급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개시설이 전기 동력 양수장에 의존하고 있음.
  - 화요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과 일부 남서지방 도시가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남한 정부도 거의 2달간 충분한 비가 오지 않아 일부지역은 104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작물 피해와 저수지 고갈의 우려를 낳고 있음.
  - 남한에서는 군인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약 2만8천명이 논밭 급수에 동원되었으며, 가뭄지역에 1만3천개 이상의 양수기가 지원됨.
  - 기상청 「장현식」 통보관, '북한 가뭄 상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세계기상기구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주간 북한에서도 비가 적게 내린 것 같다'고 언급
- 北 사람들은 해외에서 분쟁중재 교육을 받고 있다.

(6.26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마커스 놀랜드」(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한반도 전문가),
  - '북한은 분쟁처리에 약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특히 상업적 분쟁중재 교육을 위해 해외로 파견되고 있다.'
  - '스웨덴 그룹에 따르면 중재자 교육을 받은 북한 사람은 50명에 달한다.'
  - '문제는 분쟁중재 프로그램의 후원자가 자신들의 활동을 서류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중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비협조적인 기관으로 되돌아가 말 그대로 사라지기도 한다.'
- '좋은벗들(한국 대북인권단체 사단법인)은 북한 당국이 2011년 말 이래 외국투자회사와 관련된 노동법을 포함한 경제법리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무역 관리에 국제관행을 참고하고 분쟁과 관련해 국제중재위원회 규칙을 따르는데 동의했다.'
- '익명의 당 관계자는 무역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관련 규칙과 법령을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무역분쟁을 다루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통합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주장

○ 농구로 美·北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

(6.24 데이턴데일리뉴스 ☞ 미 오하이오주 데이턴 지역일간지)

- 미국 친교농구단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2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음.
- 「루크 엘리」(주로 아시아에서 활동한 선수로 구성된 미국 친교농구단 대표) 전화인터뷰,
  - '북한과 약속한 농구경기가 결국 순간에 취소됐지만, 북한 방문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 '美·北 정부는 서로 증오하지만, 우리는 독립된 인간으로 북한과 농구 경기를 하며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다.'
  - '방북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농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이뤄진 것을 보며 흥분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언급

□ 일본어권

○ 19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정은 (6.26 코리아리포트)

- 6.23일 산케이신문은 작년 12월 김정은이 김정일의 장례식 후 열린 사적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의식을 잃어 중국에서 의사를 불러 대처했다고 보도함.

- 어려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아닌데 외국에서 의사를 불렀다는 것이 이상함.
  - 그 후로 김정은은 많은 횃수의 현지지도를 소화해 표면상 건강과 관련된 이상 징후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병약했던 김정일에 비해 현지지도 횃수가 지극히 적음.
  - 지난 석 달간 현지시찰의 간격을 보면 3월에는 6일 동안만 외출했으며, 14~25일까지 11일간, 25일부터 4.4일까지 열흘간 모습을 보이지 않음.
  - 4월에는 김일성 생일 100주년행사가 있어 11일로 늘어났지만 5~15일까지의 열흘간, 20~25일까지의 5일간 나오지 않음.
  - 5월에도 외출횃수는 10번이었지만 9~19일까지의 열흘간, 5.31일~6.6까지의 6일간 외출하지 않음.
  - 이번 달에는 아직 두 번 밖에 나오지 않음.
  - 6.7일 소년단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후 지금까지 19일 동안 공식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 '인민의 지도자'로 어필하려는 것에 비해 공식 활동이 너무 적음.
  - 김정은은 사망하기 전 석 달 동안 10월에는 18번, 11월에는 13번, 12월에는 급사하기 전까지 7번 등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현지시찰에 나섬. 그리고 대부분이 지방시찰이었음.
  - 김정은의 경우 판문점과 동서 군부대를 시찰했지만 대부분이 평양과 근교로 한정되어 있음.
- 김정은 술 마시고 졸도, 중국에서 의사 불려오다.(6.23 산케이)
- 최근 들어 서방 정보기관에 3가지 정보가 들어옴. 보통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처나 전달 경로에 따라 각국의 전문 기관이 극비리에 검증하기도 함.
  - 첫 번째 정보가 '북한은 서울을 정밀 공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임.

- 이 정보는 4.23일 북한이 특별행동을 개시한다고 선언했을 때 북한 지식계층 출신 탈북자가 중국 주재의 북한 무역업자로부터 얻었다고 함.
- '북한은 2년전 지상 30~40m의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며 레이더 경계망을 빠져나가 방어구축이 어려운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최근의 도발적 발언의 배경에는 이런 작전배치가 완료된 점이 있다'는 내용임.
- 탈북자는 이번에 제공한 정보 이전에도 사실로 확인된 중요 정보를 전한 적이 있어 한국 당국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음.
- 정부 당국은 탈북자에게 '순항미사일 개발 정보는 한국 사회를 패닉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공개를 엄금한다'고 통보한 후 극비로 다루며 검증을 했다고 함.
- 북한군 총참모부가 6.4일 공개통첩장에서 언론사의 좌표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 당국 내에는 '공격할 목표의 좌표를 공개한 것은 정밀 공격능력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북한정책의 내부대립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등의 견해가 있으며 현재도 분석 중에 있음.
- '김정은은 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두 번째 정보가 서측치안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사항임.
- 서방 정보기관이 북한 주요 소식통으로부터 이 정보를 들은 것은 올 봄임.
- 정보에 의하면 작년 12월 김정은이 김정일의 장례식 후에 열린 사적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의식을 잃어 중국에서 의사를 불러 대처했고, 정밀조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으며 당뇨병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함.
- 그 후 김정은은 많은 양의 현지지도를 소화해 표면상 건강과 관련된 이상 징후는 파악되지 않음.
- 그러나 세습이 막 끝난 북한 지도부에 있어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될 것임.
- '김정은은 무례하다'는 세 번째 정보도 올해 들어온 정보임.



- 이 정보는 김정은의 최측근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알려짐.
- 정보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 후 권력 중추 멤버를 초대한 연회에서 '오랫동안 병을 앓던 아버지가 죽어서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고 함.
-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을 놓고 근심이 없어져 아버지의 뒤를 잘 잇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보는 견해와 아버지가 없어져서 좋다는 본심을 말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음.
- 서방 정보소식통은 '발언 자체가 사실이더라도 진의를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음.
- 또 80세가 넘는 김기남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정보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친근함의 표시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 김정은의 인격 평가와 바로 관련짓기는 어렵지만 정보소식통은 '정보를 모아서 세밀히 분석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함.

## □ 러시아어권

### ○ 韓·美 군사훈련,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중국까지 우려하고 있다.

(6.26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 일간지)

- 금번 韓·美 군사훈련 관련, 미국과 동맹국들은 긴장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중국까지 우려스럽게 하고 있음.
- 「콘스탄틴 아스몰로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현재 북한 경제가 중국과의 교역 및 상품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중국 지도부는 불안정 혹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보다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북한을 어느정도 압박하겠지만 공급밸브를 완전히 막아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시사할만한 점은 중국이 북한기술자를 교육시키고 있다는 사실인데, 현명한 노선이다. 북한은 중국에 더욱 의존하고, 북한 인텔리들은 親 중국화 될 것이다.’

‘정보 전쟁과 관련, 중국과 북한간 의견충돌이 있었다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 언론매체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부풀려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얼마 전 베이징대 교수의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관료들은 북한체제 붕괴시 중국에 재앙적인 시나리오인 미국의 동맹으로 편입된 통일한국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 반하는 경제정책을 취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그는 말했다’라고 주장

## 붙임 1. 중국 경제관찰보 보도 원문 (6.26)

### 경제관찰보 홈페이지

“中国官员：中朝两岛合作停止暂无确切消息”

- 6月26日，韩国媒体称，中国政府5月已向朝鲜正式通报“重新考虑”黄金坪岛经济区开发计划，这意味着这项被视为中朝经济合作象征的计划将推迟。对此，接近丹东市两岛办人士透露，关于两岛合作目前尚未接到中央的正式通知，这一消息无法正式确认。
- 不过，接近丹东市政府人士透露，实际两岛合作并非为“推迟”或停止，只是在等待合适契机。上述人士称，两岛的新一轮开放、合作将于新鸭绿江大桥修建完毕后开始，目前两岛的一切准备工作都已经完成，只等大桥在2014年建成后，正式开始运作。
- 如今，随着项目停止，前期的投入都暂时搁浅。而此前，经济观察报曾报道未来黄金坪开发权将落户香港新恒基集团，其董事长将出任朝鲜新义州特首。
- “双方后来在后期的规划和投资上起了分叉，”丹东市资深边贸人士透露，两岛合作间的停止，实际与丹东新建的“新城”和工业园区有莫大联系。中方曾希望港资能一起投资丹东新城和工业园，而朝鲜方面则不认同，双方因此不欢而散。上述人士表示，由于资金问题，投资150亿人民币的丹东新城和工业园区目前均已停工。
- 不过这一说法，遭到前述丹东市政府人士否认。该人士认为，丹东新城的停工是为了迎合新建鸭绿江大桥所做的配套规划，不存在资金问题。经济观察报记者曾多次就此消息分别朝鲜驻华使馆和朝鲜驻沈阳总领事馆去电核实，但电话均无人接听。

## 붙임 2. AP 보도 원문 (6.26)

### AP 홈페이지

"North and South Korea face worst drought in more than a century"

- North Korea dispatched soldiers to pour buckets of water on parched fields and South Korean officials scrambled to save a rare mollusk threatened by the heat as the worst dry spell in a century gripped the Korean peninsula.
- The protracted drought is heightening worries about North Korea's ability to feed its people. Even in South Phyongan and North and

## AP 홈페이지

South Hwanghae provinces, which are traditionally North Korea's "breadbasket," thousands of hectares of crops are withering away despite good irrigation systems, local officials said. Reservoirs are drying up, creating irrigation problems for farmers, said Ri Sun Pom, chairman of the Rural Economy Committee of Hwangju County.

- o A group of female soldiers with yellow towels tied around their heads fanned out across a farm in Kohyon-ri, Hwangju county, North Hwanghae province, with buckets to help water the fields. An ox pulled a cart loaded with a barrel of water while fire engines and oil tankers were mobilized to help transport water. Pak Tok Gwan, management board chairman of the Ryongchon Cooperative Farm in North Korea, said late last week that the farm could lose half its corn without early rain.
- o Mountainous North Korea, where less than 20 per cent of the land is arable, has relied on outside food aid to help make up for a chronic shortage since a series of natural disasters and outmoded agricultural practices led to a famine in the 1990s. North Korean farmers still face a shortage of fuel, tractors, quality seeds and fertilizer, the U.N. said in a report earlier this month. Many irrigation systems rely on electrically powered pumping stations in a country with unstable power supplies, the report noted. On Tuesday, North Korean state media reported record-high temperatures in Pyongyang and other cities in the southwest.
- o South Korean officials also reported the worst drought in more than a century in some areas after nearly two months without significant rainfall, raising worries about damage to crops and a dangerous drop in water levels in the nation's reservoirs. Nearly 28,000 South Koreans, including soldiers and local residents, have been mobilized to help water rice paddies and farm fields and more than 13,000 water pumps have been provided to drought-stricken area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aid.
- o South Korean Prime Minister Kim Hwang-sik picked up a hose to water a field during a visit Tuesday to Hwaseong, south of Seoul. Beneath a blazing sun, dead fish could be seen on the nearly dried-out bed of a reservoir in Bongdam village in Hwaseong. The agency could not confirm the dry spell reported in the North, but dispatches sent by North Korea to an international weather centre indicated little rain over the past several weeks there as well, spokesman Jang Hyun-sik said.

### 붙임 3.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게재 원문 (6.26)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홈페이지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 - Arbitration”

- o Dispute settlement in North Korea is notoriously weak as we have documented in a series of papers based on surveys of Chinese and South Korean market participants. However, the North Koreans have sent people abroad for legal training and specifically training in commercial dispute arbitration. A group in Sweden says that it has trained roughly 50 North Koreans as arbiters.
- o The problem is that past sponsors of such training programs have been unable to document the impact of their activities. A common story is that these individuals are trained and then dropped back into an unsupportive institutional setting and sometimes literally disappear.
- o I am reminded of all this by a piece in GoodFriends which claims that since 15 April, “a series of instructions regarding the economy has been issued, one after the other, under the name of Kim Jong-un, the First Secretary. Since the end of last year,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been modifying its economic legal principles including labor laws regarding foreign invested companies. Accordingly, they have consulted international practices in managing economic trade areas and agreed to conform t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ssion’s rules regarding disputes.”
- o In the case of trade, the GoodFriends reports goes on to quote an unnamed Party official that “In order to eliminate the circumstances in which trade fails because the principal is not repaid in time with respect to trade between international traders, we are attempting to amend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rade. We plan to establish a professional body to handle the situation in the event of trade disputes and conduct an integrated management within it.”

### 붙임 4. 데이턴데일리뉴스 보도 원문 (6.24)

데이턴데일리뉴스 홈페이지

“Basketball bridges U.S.- North Korea gap”

데이턴데일리뉴스 홈페이지

- o It's not surprising North Korea didn't know what to make of Luke Elie and the rest of his American teammates when they first landed in Pyongyang a little over a week ago. According to several sources, they were the first American basketball team to visit North Korea since the bitterly-divisive Korean War, which began 62 years ago today.
- o Elie had just returned to Beijing, China, a couple of days ago when I reached him by phone, and he admitted the trip hadn't gone as planned ... for either side. The games that had been promised against the North Koreans were canceled at the last minute. And yet Elie said the trip was a resounding success.
- o "Let our governments hate each other, but we wanted to show we could separate ourselves as people and we could play basketball together and eat together and have fun together," he said.
- o "That's what happened and that's why I think the trip was so positive. It was exciting – pretty heart-warming really – to see what the sport of basketball could accomplish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붙임 5. 일본 코리아리포트 보도 원문 (6.26)**

코리아리포트 홈페이지

“19日間も表に出てこない正恩”

- o 先週は大宮、広島、岐阜、静岡を回り、昨日帰京。北朝鮮問題絡みでめずらしく週刊誌から電話があった。韓国で伝えられている正恩氏の「飲酒中に卒倒した」との情報に関しての問い合わせだ。
- o これが、極秘情報なのか、あるいはいつもの怪情報なのか、定かではない。
- o この情報を「産経新聞」だけが唯一伝えていたが、同紙によると「正恩氏は昨年12月に死亡した金正日総書記の葬儀・告別式の後に開かれた内々の酒席で酒を飲み、意識を失った。医療チームは直ちに専門医を手配し中国からも医師を招いて対処。精密検査の結果、心臓に疾患を抱え、さらに糖尿病であると診断されたと伝えられた」とのことだ。
- o 20代の若者が飲みすぎで意識を失うのは、日本でもよくある話。難病を治療するわけでもないのにこの程度で外国から医者と呼ぶと言うのも変な話ではないか。

## 코리아리포트 홈페이지

- 「その後、正恩氏は多くの現地指導をこなしており表面上、健康に関する異変は把握されていない」とのことだが、むしろ、現地指導は病弱だった父親に比べて少ない。そのことを本来、問題にすべきだ。
- 新体制発足後から金正恩氏の動静を綿密にチェックしているが、気になっていたことがあった。
- ここ3か月間の現地視察の間隔を調べてみると、3月は外出は6日間と少なく、14日から25日までの11日間、25日から4月4日までの10日間、外出を控えていた。
- 4月は金日成主席生誕100周年行事もあってさすがに11日間と増えていたが、それでも5~15日までの10日間、20~25日までの5日間外出がなかった。
- 先月(5月)も外出回数は10回だが、9日から19日までの10日間、5月31日から6月6日までの6日間外出がなかった。
- そして今月は何と、まだたったの2回だけだ。祝賀演説を行うため6日の朝鮮青年団創立記念大会に出席し、翌日の7日に少年代表らと記念写真を取ったこの二日間だけだ。今日現在19日間にわたって公式活動が途絶えたままだ。休養を取っているのか、何か次の手を考えているのか、これまた定かではない。
- それにしても、父親の金正日総書記の死去するまでの活動と比べてみると、「人民の指導者」としてアピールしようとしている割には公式活動が少なく過ぎる。
- 金正日総書記の倒れるまでの過去3か月を比較しても一日瞭然だ。
- 金総書記は10月は18回、11月は13回、12月は17日に急死するまで7日とほぼ二日日に一度の割合で現地視察に出かけていた。そしてその多くが地方視察だった。
- 金正恩氏の場合、板門店や東西の軍要塞など視察に行っているが、ほとんどが平壤及びその近郊に限定されている。もしかして、どこか悪いのだろうか?

## 붙임 6.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6.23)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正恩氏「飲酒で卒倒、中国から医師」…外部に伝えられた極秘情報の謎”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 ソウルでは北朝鮮情勢をめぐる“消息”や“情報”が口々密かにささやかれる。最近では「金正恩第1書記は年長者に対する礼儀を知らない」「飲酒中に卒倒した」といった情報が、西側治安機関にもたらされている。こうした情報は玉石混淆、単なる悪口や出所不明の無責任な噂話として無視されることがほとんどだが、出所や伝達経路によっては各国の専門機関が極秘に検証することがある。最近、各国の対北当局が入手した情報を紹介する。
- 情報 (1) 《北朝鮮はソウルを精密攻撃できる巡航ミサイルを実戦配備した》
- 最近、韓国の情報機関と青瓦台（大統領府）に緊張を走らせた“ヒューミント”（人的情報活動）の1つが、この情報だった。
- 北朝鮮の朝鮮人民軍最高司令部は今年4月23日、李明博政権と一部のメディアが金第1書記やその体制を冒涇（ぼうとく）したとして、「“革命武力の特別行動”を始める」と宣言。朝鮮中央通信は「軍の特別作戦行動小組」の通告だとし、「（特別行動が）始まれば3～4分より短い瞬間に、かつてない特異な手段とわれわれ式の方法ですべてのネズミ小僧集団（李政権）と挑発の根源を焦土化する」と、攻撃予告ともとれる最大限の挑発報道を展開した。
- 「巡航ミサイル配備」の情報が伝えられたのはそのころだった。韓国政府筋によると、情報は北朝鮮の知識階層出身の脱北者が、中国在住の北朝鮮貿易業者から得たとされる。
- 「北朝鮮は2年前、地上30～40メートルの低高度飛行が可能で、レーダー警戒網をくぐり抜け、防御構築が難しい巡航ミサイルを開発。最近の挑発的言動の背景には、その作戦配備が完了したことがある」というものだった。
- この脱北者は今回の情報提供以前にも「事実」と確認された重要情報を発信しており、韓国当局も一定の信頼を置いている。巡航ミサイル開発の情報について、政府当局は脱北者に「情報は韓国社会をパニックに陥れる可能性があり、公開を厳禁する」と通知、極秘扱いで検証を行ったという。
- 朝鮮人民軍総参謀部は今月4日、北朝鮮の行事をからかい、体制を傷つけたとして再び李政権と一部メディアに対し「無慈悲な聖戦」を警告する公開通告状を発表した。その際、対象となったKBSなどの緯度経度までわざわざ言及した。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 韓国当局は詳細な地理情報に言及されたことをめぐっては、「攻撃目標の緯度経度を示してきたのは精密攻撃能力を示唆している」(韓国安全保障筋)との見方や、「韓国国民に恐怖を感じさせることで、北朝鮮政策の内部対立を引き起こすことを狙っている」などの見解があり、現在も分析が続いている。
- 情報 (2) 《金正恩第1書記は心疾患と糖尿病》
- 世界各地とソウルに拠点を置く西側治安機関が、北朝鮮中枢の情報とみて継続的観察の資料としたのが、この情報だ。西側治安筋が北朝鮮中枢筋から「正恩氏は心疾患や糖尿病を抱えている」という情報を得たのは今年の春だった。
- それによると、正恩氏は昨年12月に死亡した金正日総書記の葬儀・告別式の後に関開かれた内々の酒席で酒を飲み、意識を失った。医療チームは直ちに専門医を手配し中国からも医師を招いて対処。精密検査の結果、心臓に疾患を抱え、さらに糖尿病であると診断されたと伝えられた。
- その後、正恩氏は多くの現地指導をこなしており表面上、健康に関する異変は把握されていない。しかし、政権の三代世襲が完了したばかりの北朝鮮指導部にとって、正恩氏が父、金総書記が患っていたのと同じ病を抱え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れば、北朝鮮指導部にとって極めて深刻な事態といえるだろう。
- 情報 (3) 《「正恩氏は礼儀知らず」》
- この情報もやはり、今年に入って西側治安機関にもたらされた。
- 正恩氏には常に行動を共にし、活動を支える側近がいる。その周辺にはさらに側近をサポートする要員が控え、時として正恩氏を直近で支援する態勢を取っているという。
- この情報はそのような、正恩氏の“周辺者”によって外部の知るところとなった。
- 情報によると、金総書記の死後、権力中枢メンバーを招待して開いた宴会の最中、「長く患っていた父(金総書記)が死去し、気持ちがすっきりした」と漏らしたというのだ。
- この発言の解釈をめぐっては、愛いがなくなり、父の後をしっかりと継いでいくという意味を表明したものだとする見方や、父親がいなくなってよかったという本音を語ったものだとする見方があり、「発言そのものが事実だったとしても真意を断定することは難しい」(西側情報筋)。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 正恩氏をめぐってはまた、金総書記当時の体制を支えてきた80歳を越す長老である金（キム）己男（ギナム）・朝鮮労働党宣伝扇動部長に対する言葉遣いが乱暴で非礼が目立つと指摘されているとの情報もある。
- これについても「親しみの表れ」とする見方もあり、指導部内での正恩氏の人格評価と直ちに関連付けるのは難しいが、情報筋は「情報を蓄積して丹念に分析することが重要だ」と指摘している。

**붙임 7. 러시아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보도 원문 (6.26)**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США рассердил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и своими действиями не только не способствуют смягчению напряженности, а, напротив, усугубляют ее. Это не может не тревожить как Россию, так и Китай, союзник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тметил в беседе с «НГ»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 Пекин и Москва призывали Пхеньян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ограммы созд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этом плане позиция Китая особенно важна, ведь от торговли и поставок китайских товаров зависит состояние экономики КНДР. Н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итайск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 это меньшее зло, че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стабильная или попавшая в американскую орбиту. Поэтому Китай может осажив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но полностью перекрывать канал поставок он не станет. Характерно, что Китай обучает сейчас инженеров из КНДР. Это хорошо продуманный курс. Ведь,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на будет больше обязана Китаю. А с другой -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интеллигенция будет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 Китай».
- В заключение российский эксперт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ход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войны СМИ Япо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и Запада

네자비씨마야 가제타 일간지 홈페이지

сознательно преувеличивают масштабы противоречий между Китаем и КНДР. В этой связи любопытно привести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офессора Народ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Пекине Ши Иньхуна из интервью, которое он дал New York Times. Он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китайские чиновники не осмеливаются применя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рычаги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ело в том, что в случае коллапса 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ожет образоваться объединенная Корея, которая вступит в союз с США. Это было бы для Китая кошмарным сценарием.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가뭄에도 영향 받지 않는 평양 엘리트 (6.27 英 The Telegraph)



[황주군 고현리 옥수수밭에 물을 주는 북한 군인들/AP]



[평양시 창전거리 고층주택단지/EPA]

- 조선중앙통신은 예년에 비해 올 5,6월 기온이 8도나 더 높은데다 강수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논밭이 갈라지고 있다고 발표함.
- 농민들에 따르면 황해도의 많은 지역에서 이맘때면 60인치는 자라야 할 옥수수가 15인치밖에 크지 못했다고 함.

2012.6.28(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북한의 곡창지대인 서해안 지방에서 거의 5만 에이커가 가뭄피해를 입었으며, 식량난이 악화될 것임.
- 그러나 평양은 식량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공원에 둘러싸여 있고, 학교, 병원, 음식점 및 공연장까지 갖춘 만수대지구 창전거리에는 엘리트층이 입주하고 있음.
- 지난 주, 창전거리 준공식이 환호 속에서 대대적으로 거행되었으며, 이는 김일성 생일 100회를 맞아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고취하려는 야심의 일환임.

○ 한국과 중국이 北문제를 다뤄야 한다.

(6.27 에어포스 타임스 ☞ 미 공군 잡지)

- 「제임스 카트라이트」(前 미군 합참부의장),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6.26일)에서 언급
  - ‘미국은 한국과 중국에게 북한을 압박하는 지휘권을 주고 뒷자리에 서야 한다.’
  - ‘한국과 중국에게 기회를 준다면, 상당한 양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과 중국은 모두 북한국경에 도로 및 철로를 건설해 왔으며, 일단 무역을 시작했으면 위험상황은 많이 바뀔 것이다.’
  - ‘그러나 미국이 개입하는 한 전시 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 ‘미국은 역내 국가들이 상품에 대한 접근 및 상품 이동에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면 북한 문제들을 더욱 잘 해결할 수 있다.’
- 「카트라이트」는 퇴임 후 핵 억지력 및 사이버안보 등 방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한국에는 현재 28,000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

- 북한-시리아 미사일 개발 협력 탄력 붙었다. (6.27 美 IHS Jane's)
  -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과 시리아간 기동식 재돌입 핵탄두 (MaRV) 역량을 갖춘 스커드-D 지대지 미사일(SSM) 개발 협력이 최근 탄력을 받고 있음.
  - UN 제재 결의안을 무시하고, 시리아 주재 북한 기술자 및 엔지니어들은 시리아 과학연구조사센터(SSRC) 소속 전문가들과 첨단 SSM 개발 협력을 하고 있음.
  - 하마시 인근 '자발 탁시스(Jabal Taqsis)'에 위치한 시설에서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기술자들과 SSRC '프로젝트 99' 소속 기술자들이 스커드-D 향상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

## □ 중국어권

- 北, 60년 만의 가뭄, 김정은의 토지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6.27 차이선)



- 6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한 북한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 핵, 미사일에서 다시 식량위기까지 동북아의 小國, 북한에 왜 이렇게 위기가 끊이지 않는가?

- 식량위기 앞에서 김정은의 농업개혁을 통해 북한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20년 동안 지속된 식량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고위층도 라오스·베트남·미얀마를 방문해 지원을 요구하는 등 나서고 있음.
  - 이는 일시적인 해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20년 동안 지속된 식량위기 해결은 불가능함.
  - 그러나 김정은이 연초에 발표한 '경제개혁소조' 설립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음.
  - 북한이 확실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8, 9월에는 경제개혁방안을 제정할 것으로 보임.
  - 이번 경제개혁의 핵심은 농업으로 중국의 '농가 세대별 생산 책임제'<sup>20)</sup>와 비슷한 제도를 제정할 예정임.
  - 혹은 현재의 집단농장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생산과 분배 방식을 바꾸고 생산효율을 위해 집단농장을 더 작은 단위로 줄일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중국이 예전에 시행했던 농업개혁과 비슷한데, 중국의 개혁은 농업으로부터 시작해 경제적인 큰 발전을 거두었음.
  - 북한 또한 농촌개혁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지지해야만 함.
  - 비록 토지개혁이 현재의 기황을 즉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20년 간 지속된 식량위기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임.
- 북한 가뭄 뒤에 숨겨진 정치적 함의, 中·美 힘겨루기 가열되다.  
(6.27 차이신)
- 한국전쟁 62주년이 되자 △60년 만의 가뭄, △중국에 북한 인력 수출, △중국의 황금평 개발 보류 등 한반도 관련 뉴스들도 끊이지 않고 있음.

20) 농가 세대별 생산 책임제(包產到戶) : 책임진 토지 생산 도구 기술 노동력 등의 조건에 근거해 생산량을 정하고 세대별로 책임지고 이를 완수하는 것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中·美는 김정은이 자신들을 선택하도록 힘겨루기 하고 있음.
- 김정일 사망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힘겨루기는 끊이지 않았으며 계속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관련 뉴스에는 중국의 황금평 개발 보류 등과 같은 中·北 관계를 이간질하는 내용들이 많음.
- 외국 언론은 북한의 중국어선 납치도 뉴스로 삼아 도발하려 했지만 중국의 침착함 속에 中·北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았음.
- 포스트 김정일 시대 이후, 미국의 태도는 급변했음. 북한 2대 김씨 정권은 미국을 가지고 놀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식량 지원에 대한 대화를 이어 가려 했음.
- 그러나 김정은은 전통처럼 위성 발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미국을 희롱했음. 이런 수치스러움에도 미국은 화를 내지 않고 젊은 김정은을 이해하려고 했음.
-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너그러운 것은 우선 아시아 전략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인데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임.
- 또한 김정은 정권의 개혁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북한의 가뭄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힘겨루기는 가열되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놓고 中·北, 南·北, 美·北관계는 큰 시험에 직면해 있음.
- 南·北韓의 비방전이 끊이지 않고 미국은 북한이 서양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음.
-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북한을 품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함에 있어 커다란 성과이기 때문임.
- 이런 이유에서 미국은 북한에 계속 관용적이고 언론은 가뭄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모두 다음 단계의 對北 정책을 위한 준비과정일 수 있음.



- 중국의 전략에 북한이 득이 없다는 여론이 있지만 중국 또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원하지 않음.
  - 중국이 황금평 개발 보류를 부인한 것과 농림수리공회대표단의 訪北은 모두 얼마 동안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 그렇다면 북한은 東西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 얼마 전, 북한 언론은 '제국주의의 식량 지배전략'을 비난하는 글을 발표했다.
  -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의 보수세력은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 강화로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북한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북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함.
  - 무조건적인 지원은 북한을 도리어 망치게 하므로 이러한 방법은 對北 외교의 임무라고 할 수 있음.
  - 60년 만의 대가물은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한 북한의 지혜와 힘겨루기를 하는 中·美의 지혜를 시험하는 것임.
  - 언젠가는 가물을 이겨낼 것이지만 북한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갈 것인지는 한반도에서 中·美의 힘겨루기에 달려있는 것 같음.
- 中·北, 북한 동부해역 불법 어업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  
(6.27 중국신문망)
- 6.27일 중국 농업부는 中·北이 북한 동부해역의 불법조업을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이번 <북한 동부해역 원양어업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의 (이하 '통지')발표 취지는 중국 어민의 생명·재산 안전 보장,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감소에 있음.

- 통지는 중국 산둥성, 요녕성, 대련시의 어업행정 주관부서에서 각 지역의 북한 동부해역 원양어업 허가·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지에 따르면 산둥성, 요녕성, 대련시는 북한 동부해역의 민감·복잡성을 인식하고 中·北관계와 지역안정을 위해 관련 업무를 강화해야 함.
- 통지는 2010년 4월 체결한 <북한 동부해역 조업협력협약>에 따라 중국 원양어업협회와 북한 공동조업협회가 허가하고, 해당省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은 어선만이 조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외 어선들의 조업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中·北이 엄격히 단속할 예정임.

## □ 일본어권

### ○ 北 경제담당관료, 中에서 개혁개방 연수받다. (6.27 NHK)

- 북한은 작년 12월 이후 나선경제무역지대 담당관들을 포함한 경제담당관료 200명을 중국에 파견해 개혁개방정책 등에 관한 연수를 받게함.
- 북한의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구역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관료를 20명~30명씩 그룹으로 나눠 차례대로 중국으로 파견해 2주간 연수를 받게함.
- 첫째 주에는 대련과 장춘, 천진에 있는 대학과 중국 공산당 간부양성기관 등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외국과의 경제 교류 등의 주제에 대해 중국인 전문가의 강의를 들음.
- 둘째 주에는 상해와 심천 등을 시찰했으며, 연수비용은 모두 중국정부가 부담함.

- 대대적인 연수가 실현된 것은 경제정책입안을 담당하는 인재 육성을 서두르려 하는 북한측과 완만한 개혁개방을 촉구해 북한의 체제안정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중국측의 의도가 일치한 것으로 보임.

○ 北의 핵실험, 월요일에 실시될 가능성 높다. (6.27 뉴스포스트세븐)

- 북한은 핵관리에서 舊소련이 사용한 'PAL21)(permission action links)'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도입했을 것으로 추정됨.
- 김정일 사후 PAL 방식의 '안전장치해제코드'를 아는 사람은 김정은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질적 수장인 우동측 뿐이었음.
- 그러나 김원홍이 새로 취임한 시점에서 PAL 방식의 코드가 갱신돼 김정은과 김원홍이 장악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실질적 권력자인 김경희도 PAL 코드를 장악했을 가능성이 있음.
- 신뢰성 있는 정보 당국자는 핵실험 실시일에 대해 두 차례의 핵 실험이 월요일에 실시됐으므로 '월요일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

○ 김정은, 최룡해에게 리모델링을 명령한 이유 (6.28 뉴스포스트세븐)

- 김정은이 만경대유회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당내 서열 4위인 최룡해에게 명령한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한 자재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서였음.
- 현재 북한에서는 각종 건설자재가 군의 관리하에 있으며, 모든 건설공사는 군이 중심이 된 사실을 드러냄.

## □ 러시아어권

○ 中, 탈북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6.26 보스토크 미디어 ⇨ 지역 언론사)

- 북송된 탈북자가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소식과 관련, 중국이 북한과 경제특구가 중단된 상황을 의식해 탈북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임.

21) 모든 핵무기시설과 장치에 전자잠금이 이중 삼중으로 걸려있어 KGB장교가 '안전장치해제코드'를 입력하지 않는 한 격납고의 문 개폐와 기폭장치의 기동이 되지 않는 구조

2012.6.28(木)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중국은 경제특구로 지정된 국경지역 황금평에서 북한과의 공동프로젝트 착수 의향을 밝혔지만, 지난달 프로젝트 재검토를 통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중국의 이러한 결정은 북한 경제특구의 경제 타당성에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지체가 되고있는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10개년 발전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붙임 1. The Telegraph 보도 원문 (6.27)

### The Telegraph 홈페이지

"North Korea facing worst drought in 100 years"

- o The state-run KCNA news agency said temperatures have been as much as eight degrees higher than usual for May and June and, combined with historically low levels of precipitation, have left rice paddies dried and cracked. The maize crop stands a mere 15 inches tall in many places in North and South Hwanghae provinces, instead of the 60 inches that it should be by now, farmers said.
- o Nearly 50,000 acres in western parts of the country - known as the breadbasket of North Korea - have been affected by the drought, which will worsen an already acute food shortage.
- o No such shortages are evident in Pyongyang, however, where the elite of the regime is moving into gleaming new multi-storey apartments, complete with schools, medical facilities, restaurants and a People's Theatre, all enclosed within a lush green park.
- o The Changjon Street complex was opened last week to a cacophony of cheering and speeches. It is part of North Korea's wider ambitions to be recognised as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in the 100th anniversary year of the birth of its founder, Kim Il-sung, and simultaneously boost the standing of his grandson and heir to the regime, Kim Jong-un.

## 붙임 2. 에어포스 타임스 게재 원문 (6.27)

### 에어포스 타임스 홈페이지

"Cartwright: Let China, S. Korea handle N. Korea"

- o The United States should take a back seat to China and South Korea when it comes to applying pressure on North Korea, according to an influential, retired U.S. general.
- o "We could probably do a substantial amount of solving the problems of North Korea if we would let South Korea and China work the problem," said retired

에어포스 타임스 홈페이지

Marine Corps Gen. James Cartwright, who retired last year as the 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o Cartwright's comments came during a June 26 presentation at an event sponsored by Johns Hopkins University Applied Physics Laboratory.
- o "Once you start to introduce commerce, risk equations change substantially," he said, noting both China and South Korea have built roads and rail lines up to the North Korean border. "But as long as we're there, it looks like a wartime footing. We've just got to think our way through how to do this," he said.
- o The U.S. has about 28,000 troops based on the Korean Peninsula.
- o Cartwright, who since his retirement has been outspoken on defense issues such as nuclear deterrence and cybersecurity, said the United States should partner with China to make sure nations in the region "are taken care of, that they have access to goods, that they can move their goods."
- o "We're better off solving these problems if we do so with China," he said.

### 붙임 3. IHS Jane's 보도 원문 (6.27)

IHS Jane's 홈페이지

"North Korea aiding Syria to upgrade Scud D capability"

- o A co-operative missile development programme between North Korea and Syria has recently gained momentum through a project to upgrade Syrian Scud D surface-to-surface missiles (SSMs) with a manoeuvring re-entry vehicle (MaRV) capability, according to IHS Jane's sources.
- o In marked disregard of UN sanctions (Resolutions 1718 from 2006 and 1874 from 2009 both prohibit North Korea from conducting security-related exports), North Korean technicians and engineers stationed in Syria are working with specialists from Syria's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re (SSRC) to develop an arsenal of advanced SSMs.
- o Nevertheless, IHS Jane's has learned that engineers from North Korea's Tangun Trading Corporation are working with engineers from the SSRC's Project 99 in a compound located in Jabal Taqsis, near the city of Hama, to advance the Scud D development programme.

## 붙임 4. 중국 차이쉰 보도 원문 [6.27]

### 차이쉰 홈페이지

#### “朝鲜遭“60年不遇”旱灾 倒逼金正恩搞“土改””

- 一场“60年不遇”的大旱灾让本就食物匮乏的朝鲜几乎陷入绝境。有外媒报道称，作为朝鲜“大粮仓”的黄海南道今春以来已经有2万人饿死。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年发表指示，要求成立“经济改革领导小组”，将农业改革最为“核心”，朝鲜的这场“60年不遇”的大旱灾，倒逼出了金正恩的“土改”。
- 从“朝核危机”到“导弹危机”再到“粮食危机”，长期以来朝鲜这个东北亚小国总有那么多逃不掉的“危机”。古语有云，置之死地而后生，朝鲜这场“60年不遇”旱灾能否让其“绝处逢生”？倒逼出来的金正恩“农业改革”又能否让朝鲜转“危”为“机”，彻底走出持续近20年的“粮食危机”呢？
- 为解决粮食问题，朝鲜高层最近也没少忙乎。朝鲜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委员长金永南前往新加坡、印尼求助，劳动党书记局书记金永日奔赴老挝、越南和缅甸要粮。韩国媒体认为，朝鲜已经从多个东南亚国家获得了各100万—200万美元的粮食援助。但粮食援助解决一时的旱灾尚可，要想解决持续了20年的“粮食危机”是绝对不可能的。
- 不过，另一则消息让笔者看到了朝鲜的一丝希望。媒体26日报道，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年初就发表过指示，要求成立“经济改革领导小组”，并任命副总理卢斗哲担任组长。正如本文标题所说，朝鲜遭“60年不遇”旱灾，倒逼金正恩搞“土改”。尽管该指示是年初就发表的，但希望这次“60年不遇”的旱灾可以成为朝鲜版“土地改革”的助推剂。
- 按照媒体的说法，朝鲜方面此次的确表现出了“解决问题的积极姿态”，“预期会在今年8、9月份制定出经济改革方案”。这次经济改革的出发点与核心正是农业，而有关“农业改革”方案也正在制定之中，其中一种选择是采取类似中国的“包产到户”，也可能维持现行集体农场体制，但改革生产和分配模式，还可能将集体农场划分成更小单位的生产班组，以提高生产效率，达到增产目的。
- 这不由得让人想起中国1956年的“燎原社”和1978年的“小岗村”，想起“包产到户”给中国农业以及中国经济带来的翻天覆地的变化。中国的改革始于农业始于农村，成功了；如今朝鲜也有意在农村打开改革的大门，我们应该支持。虽然漫长的“土地改革”不能马上解决当下的饥荒，却给朝鲜走出持续了20年的“粮食危机”带来了希望。

## 붙임 5. 중국 차이신 보도 원문 (6.27)

### 차이신 홈페이지

#### “朝鲜大旱灾背后的政治学含义：中美半岛角力趋热”

- 正值朝鲜战争62周年之际，有关朝鲜半岛的各类消息再次“沉渣泛起”。诸如朝鲜遭遇60年不遇大旱灾(传2万人饿死)、朝鲜拟向中国输出12万劳动力、中国决定暂停中朝黄金坪岛联合开发项目此类，不胜枚举。从一则新闻及传闻不难看出，围绕朝鲜半岛的国际博弈不断加剧，而中美半岛角力表现料成促使金正恩政权做出“东西抉择”的关键。
- 事实上，自从金正日猝然离世之后，国际社会在朝鲜半岛的博弈就一直未曾消停，且有激化倾向。频频传出的各类传闻，即是最佳佐证。从传闻的内容来看，大多属于分化中朝关系的事件，例如中国决定暂定中朝黄金坪岛联合开发项目等。而中朝前不久遭遇劫船危机，外媒也极尽挑拨之能，所幸在中国的克制之下，中朝关系才不至于僵化甚至恶化。
- 在笔者看来，美国之所以对朝鲜容忍有加，或是出于以下两方面的原因：其一，是为了“亚太战略”的需要。美国重返亚太战略的核心是中国，故不能为了朝鲜而乱阵脚。其二，朝鲜改朝换代之后，美国或许对金正恩政权的转向抱有期望。有过瑞士留学经验的金正恩正值年轻气盛时机，或不甘安于朝鲜的贫穷现状而采取激进的改革措施，这也就给了美国可乘之机。
- 如今，随着朝鲜遭遇60年不遇大旱，围绕朝鲜半岛的国际博弈可能进一步激化。而此中复杂的利害关系，或将意味着中朝关系、朝韩关系、朝美关系等多方关系均将面临严峻的考验。
- 韩国与朝鲜自是“水火不容”，双方持久不歇的骂战已经说明了金正恩政权与李明博当局的不共戴天。不过美国还是希望朝鲜转投西方怀抱的，因为倘若能够用招安的方式拔掉朝鲜这颗“眼中钉”，将是美国在巩固自身全球霸权地位过程中的辉煌战果。因此除了看到美国对于朝鲜的一再容忍之外，还可以看到美国媒体对本次朝鲜大旱给予了前所未有的关注：除报道灾情之外，还对干旱对朝鲜农业生产的影响进行分析，体现出其对朝鲜现实情况的重视与跟踪研判。而这些举动，或许正是为了制订下一阶段的美朝政策做准备。
- 而中国也是决计不希望看到朝鲜的转向，尽管不少舆论声称朝鲜对于中国的战略布局而言已经是负资产。中国26日厉声驳斥外媒报道的“中方放弃中朝黄金坪联合开发项目”传闻，以及中国农林水利工会代表团在朝鲜大旱之际造访朝鲜，都暗示中国暂时仍不可能轻易放弃朝鲜。
- 那么在东西方之间，朝鲜究竟会做出怎样的选择？前不久，朝鲜官媒发表了一篇谴责“帝国主义的粮食支配战略”的文章。从这些话语来看，朝鲜或许仍在国内保守势力的主导下倾向于进一步深化与中国的合作，以期借助中国的力量实现经济增长。至于往后，朝鲜是否仍会坚持走这样一条路就不得而知。因此中国倘若仍然认可朝鲜的战略价值，就必须懂得如何稳住朝鲜，倒不一定是完全的给予主义以纵坏了朝鲜，是为对朝外交的要务。



차이선 홈페이지

- 一场60年不遇的大旱，不仅在粮食安全保障方面考验着朝鲜的智慧，也在国际关系博弈方面考验着中国、美国等国的智慧。人定胜天，多年不遇的干旱终会被战胜，但朝鲜何从何处，恐怕仍需要取决于中美在半岛角力的表现。

**붙임 6. 중국신문망 보도 원문 (6.27)**

중국신문망 홈페이지

“农业部:中朝将严打渔船赴朝鲜东部海域非法作业”

- 眼下入渔时间已到，中国农业部27日发布通知强调，中朝双方将严厉打击渔船赴朝鲜东部海域非法作业。
- 据农业部介绍，这份全称为《农业部办公厅关于加强朝鲜东部海域远洋渔业项目管理的通知》旨在确保朝鲜东部海域远洋捕捞合作项目规范有序开展，减少涉外事件发生，保障中方渔民生命财产安全。
- 《通知》明确，今年继续由山东省、辽宁省和大连市渔业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内朝鲜东部海域远洋渔业项目的审批和管理。上述两省一市渔业行政主管部门要充分认识朝鲜东部海域项目的敏感、复杂性，从维护中朝关系和地区稳定大局出发，切实加强此项工作的组织领导。
- 根据中国远洋渔业协会与朝鲜共同捕捞协会2010年4月签署的《朝鲜东部海域捕捞合作协议》，2012年继续开展朝鲜东部海域远洋捕捞合作项目。
- 《通知》强调，所有赴朝东部海域作业渔船均须纳入中国远洋渔业协会与朝鲜共同捕捞协会签署的合作协议框架，并经省级渔业主管部门批准后方可出境作业。上述合作框架以外的所有其他渔船赴朝鲜东部海域作业均属非法，中朝双方将进行严厉打击。

**붙임 7. 일본 NHK 보도 원문 (6.27)**

NHK 홈페이지

“北朝鮮官僚 中国で改革開放を研修”

- 北朝鮮が、去年12月以降、200人に上る経済担当の官僚を中国に派遣し、改革開放政策などに関する研修を受けさせていることが分かり、経済を立て直すための人材育成を急いでいるとみられます。

NHK 홈페이지

- 中朝關係筋がNHK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りますと、去年12月以降、北朝鮮の中央政府や、地方の行政区で經濟を担当する課長クラスの官僚が、20人から30人ずつのグループに分かれて、順次、中国に派遣され、2週間にわたる研修を受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 研修の前半1週間は、東北部の大連や長春、それに天津にある大学や中国共産党の幹部養成機関などで、中国の改革開放政策や外国との經濟交流など、北朝鮮側の関心が高いテーマについて中国人専門家の講義を聴き、後半は、上海や南部の深センなどを視察します。
- 研修の費用はすべて中国政府が負担しており、この半年間に研修を受けた北朝鮮の官僚は、中朝両国が、共同で開發を進める「ラソン經濟貿易地帯」の担当者ら、およそ200人に上るとのことです。
- 北朝鮮指導部は軍事優先を掲げる一方で、經濟の立て直しも喫緊の課題だとしており、大がかりな研修が実現したのは、經濟政策の立案を担える人材の育成を急ぎたい北朝鮮側と、緩やかな改革開放を促して北朝鮮の体制安定につなげたい中国側、双方の思惑が一致したものとみられます。

**붙임 8. 일본 뉴스포스트세븐 보도 원문 (6.27)**

뉴스포스트세븐 홈페이지

“北朝鮮の核実験 月曜日に行われる可能性が高いと専門家指摘”

- 北朝鮮では過去2回、ミサイル発射実験から数か月以内に核実験が行われてきた。今回、北朝鮮は核実験の可能性を否定しているが、もちろんそれを鵜呑みにはできない。そんな中、ジャーナリストの恵谷治氏が重要な情報をキャッチした。
- 北朝鮮の核管理（核のボタン）は本誌で幾度か紹介してきたように、旧ソ連が用いた「PAL（パーミッション・アクション・リンクス）」と呼ばれるシステムを導入していると思われる。全ての核兵器施設や装置に電子ロックが何重にも装備され、KGB将校が「安全装置解除コード」を入力しない限り、格納庫の扉の開閉や起爆装置の起動ができない仕組みだ。
- 北朝鮮の核は“北朝鮮版KGB”と言われる国家安全保衛部（秘密警察）が管理していることは、脱北者らの証言で明らかになっている。金正日の

뉴스포스트세븐 홈페이지

死後、PAL方式の「安全装置解除コード」を知るのは、金正恩のほかに国家安全保衛部の実質トップだった第一副部長の禹東則のみとなった。

- しかし、4月の人事では、禹東則は国防委員を解任され、党政治局を離れ、総政治局組織担当副局長だった金元弘大將が国家安全保衛部長に新任された。韓国情報によれば、禹東則は脳出血で倒れたと言われているが、権力闘争に敗れた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 いずれにせよ、金元弘が国家安全保衛部長に就任した時点で、PAL方式のコードは更新され、金正恩と金元弘の2人が握ったと考えられる。また、金正日亡き後の真の権力者である金慶喜もPALコードを握った可能性がある。
- 北朝鮮の過去2回の核実験は、ミサイル実験とセットで3か月以内に実施されている。信頼すべき情報当局者は、実施日についてこう表現した。
- 「注意すべきは月曜日です」
- その言葉を聞いた時は理解できなかったが、調べてみると、1回目の核実験（2006年10月9日）も2回目（2009年5月25日）も、そして今年4月30日のいずれもが月曜日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
- よって核実験は、月曜日に行なわれる可能性が高いが、その理由は不明である。

**붙임 9. 일본 뉴스포스트세븐 보도 원문 (6.28)**

뉴스포스트세븐 홈페이지

“寅さん風衣装の金正恩 最高司令官に思えぬ姿演出の不可思議”

- 北朝鮮の金正恩第一書記は5月9日に平壤市の万景台遊戯場を視察したが、遊戯場の管理状況に憤慨して激しい語調で関係者を叱責し、随行した崔竜海総政治局長に対し、営業を停止して人民軍による改修を命じたと朝鮮中央通信が報じた。その言動から何が読み取れるのか、ジャーナリストの恵谷治氏が解説する。
- 金正恩登場以降、北朝鮮では以前より“情報公開”を進めていることが窺えるものの、これほどあからさまに金正恩の憤激を率直に伝えた報道は初めてで、この万景台遊戯場視察報道だけが際立っている。
- 金正恩の指示を受けた崔竜海は、約2週間後の5月22日、幕僚を引き連れて万景台遊戯場の改修状況を視察した。

뉴스포스트세븐 홈페이지

- 朝鮮中央通信は、「金日成主席と金正日総書記の指導の足跡が宿っている万景台遊戯場を、先軍時代の要求に即して、現代的な人民の文化休息の場に改修するための総突撃戦を行なっている」と報じ、「最高司令官の崇高な人民觀を心に刻み付けて、必要な資材を円滑に保障し、工事を定められた期限内に終え、最高司令官の命令を決死の覚悟で貫徹するための対策が講じられた」と伝えた。
- 金正恩が、たかだか遊園地の改修工事を人民軍總政治局長で党内序列第4位の崔竜海に命じた最大の理由は、軍の建設部隊動員という工事費コストの削減もさることながら、「必要な資材を円滑に保障」するためだった。現在の「先軍政治」下の北朝鮮では、あらゆる建設資材は軍の管理下にあり、全ての建設工事は軍が中心となって行なわれている事実を、この一連の報道は暴露している。

**붙임 10. 러시아 보스토크 미디어 보도 원문 (6.26)**

보스토크 미디어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Китай принес в жертв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еребежчиков?”

- Газета «Известия» публикует шокирующий материал «КНДР публично казнила четырех беженцев, высланных из Китая».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еще 40 человек отправились в лагеря после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Китай объявил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что у него есть желание начать работу по совместным проектам на приграничном острове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что неизбежно приведет к задержка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YTN. Хвангымпхённг - это остров,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на кита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нем создана специаль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зона. Однако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кита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ъявило о руководстве КНДР, что хочет пересмотреть все проекты, так как теперь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центр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В ответ на это в КНДР заявили, что на острове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выращиванием риса.
- Такое решение Поднебесной может повлиять на то, что создан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зона станет не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предприятием. А любая задержка в начале выполнения намеченных проектов негативно отразится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10-летнем план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 일일 주요 북한 공개 정보

### □ 영어권

○ 북한 식량난 해소하려면 非식량 부문 문제 해결해야 한다.

(6.29 Asia Times)

- UN의 최근 북한 보고서 발간과 곡창지대의 가뭄피해 소식이 겹치며 세계 언론이 북한 기근과 기아 상황에 주목하고 있음.
-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또 한 번의 식량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 이유는 지난 20년간 북한이 식량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임.
- 북한은 끊임없이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지난번의 홍수, 그리고 최근 가뭄과 같은 약간의 외부적 충격에도 대대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에 자주 빠지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식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제들 또한 위기를 심화시키거나 원인으로 작용함.
- 재정 부족에고 불구하고, UN은 지난 몇 년간 배설물 안전 관리, 중력이용 급수시설 및 예방접종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 주로 분배 감시와 식량 확보에만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UN의 노력은 북한 인구의 영양 상태를 저해하는 비식량 부문의 장애물 극복의 중요성을 보여줌.
- 상당한 관심을 요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열악한 인프라임.
- 식량 안보는 충분한 식량의 생산 이상을 의미하며, 진짜 문제는 식량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임.
-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기근을 19세기 아일랜드 감자기근에 비교하며, 당시 식량이 있어도 열악한 도로망이 국내무역과 식량 운송의 장애요소로 작용했으며, 현재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함.

- 또한, 소련의 연료 지원이 끊긴 이후, 북한은 에너지 부족으로 정부의 필수 서비스 제공 역량이 상당히 감소했음.
- 인도주의 단체들에 의하면,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전거로 식량을 운송했다고 함.
- 현재 북한은 중국의 연료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러시아 극동지방이 개방, 개발되면 북한의 에너지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음.
- 그러나 운송체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열악한 도로 및 차량 부족은 식량 지원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향후 더 많은 식량이 확보된다고 해도 분배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
- 인플레이와 식량가격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최근 평안도 및 황해도의 위기는 정부의 과도한 징발로 초래되었을 것이며, 가뭄으로 악화되었지만 더 지배적인 장기적 문제는 식량난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한 통화 정책으로 인한 곡물가격의 불규칙한 변동임.
- 2009~2010년 통화개혁으로 북한 주민들은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식량 시장에 혼란이 생겼으며, 2011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12월 초에 최고치를 기록함.
- 2012년 들어서도 4월 하락한 후 5,6월 다시 상승하는 등 쌀 가격의 변동이 지속되며, 기본 물품조차 일반인들에게 너무 비싸져 민생이 어려워짐.
- 「클린턴」(美 국무장관), '사람은 계속 그렇게 억압적인 환경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도 변화할 것'이라고 발언함.
- 「빅터 차」(美 조지타운大 교수),
  - '권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시장의 출현으로 인해 오늘날 북한의 기근 및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불안정은 김일성 사후 때와 완전히 다르다.'
  - '가까운 미래에 아랍의 봄과 같은 반란이 북한에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 그러나 잠시 덜 억압적인 사회경제체제를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독재체제를 거부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임.
- 특히, 국가가 가난할수록 국민에 대한 체제의 통제력은 더 커지며, 근대사를 보아도 국민들이 식량난에 고통 받을 때 내부반란으로 인해 전체주의 체제가 전복된 경우는 없었음.
- 북한의 향방은 불확실하지만,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많은 생명을 잃게 될 것임.

○ 北은 동남아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6.29 아시아타임스 ☞ 홍콩 인터넷 신문)

- 북한의 잇따른 외교 방문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오랜 동맹이 다시 불붙고 있음.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012.5월 인도네시아·싱가포르를 방문한 데 이어 김영일(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은 6월 라오스·베트남·미얀마를 방문했음.
-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보여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음.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김영남의 방문으로 북한과 협력 및 미래 동반자 관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200만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에 동의했음.
- 동남아는 국제의무를 어기고 로켓을 발사해 경제·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기회를 찾기에 적합한 지역임.
- 「형구 린」(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아시아연구소 교수), '북한과 동남아 국가들이 수십년간 무역 및 교환을 해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함.
- 미얀마·라오스·대만은 탈북자들이 도주하는 곳으로, 북한은 순조로운 탈북자 송환을 위해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함.

- 다만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 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한국·미국의 분노를 살 것이며, 이는 인권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약속이 형편없음을 반영함.
- 그러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을 파트너로 만들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6자회담 회원국들간 중재로 글로벌 프로펠을 만드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피터 벅」(미국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장), 김영남의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미국의 소리(VOA)에 의문을 제기함.
  - '북한은 경제 및 정치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북한이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 '솔직히 인도네시아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
-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의 최근 외교행보가 김정은이 경제 개방을 향해 발을 내딛은 것을 시사하는지 여부임.

## □ 중국어권

○ 북한은 마약 밀매 強國이다. (6.28 China Value 經濟전문 사이트)

- 북한은 정부 주도 하에 마약 무역을 하며 미사일 수출과 함께 외화획득의 주요 수단임.
- 2006년 무역 제재後, 미사일 판매 수입이 대폭 감소한 반면 마약 거래는 큰 발전을 이루었음.
- 북한과 접한 중국 동북지역은 마약 밀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곳을 통해 러시아·중국·한국·일본等 세계로 밀매함.
- 북한이 세계적인 마약 밀매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마약 산지국과 달리 정부의 지원을 빼놓을 수 없음.



북한의 마약 재배·생산은 정부 주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와 군부 이외의 개인이 경영을 할 수 없음.

「북한 함경북도의 前任 학교 교장」,

- ‘1984~1991년, 정부 명령으로 학생들과 아편을 재배했다. 전국 모든 학교에 아편 재배지를 분배했으며 정부에서 몰래 국외로 운반했다.’

산과 폐공장이 많고 세상과 단절된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마약 제조의 최적지라 할 수 있음.

또 주로 외교관들과 정부 인사들이 마약을 해외로 가져가기 때문에 세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음.

외교관들 외에도 러시아와 일본의 폭력조직과 결탁해 세계 각지로 밀매함.

마약은 외화획득의 중요한 수단이자 고위관리들의 소비품이 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도 마약을 치료약으로 생각해 소비하고 있음.

「북한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중국인」, ‘북한의 대외무역쪽 정부 관계자들은 마약 판매에 대한 압박으로 중국에 가져가 판매할 수 없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묻곤 했다.’

국제 여론과 제재로 북한은 양귀비 재배지를 축소할 예정이나 새로운 생산가지를 모색함으로써 마약생산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음.

2005~2007년, 中·北 국경지역에서 발견된 마약 종류와 수량을 보면 헤로인이 15.88kg에서 3.25kg로 감소한 반면 필로폰은 13.33kg에서 59.87kg으로 늘어났음.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북한 마약의 중계지이지만 양국 관계를 고려해 중국은 북한의 마약 밀매 문제를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음.

- 지난 10년동안 연길과 길림성의 많은 지역에서 북한 마약, 특히 필로폰이 많이 거래됐으며 북한에 접한 국경지역은 더욱 심함.
- 「최준용」(연변대학 법학원 교수),
  - ‘연길에서 밀매되는 마약은 대부분 북한산이다. 북한에서 필로폰 1g은 쌀1kg의 10배로 약 15달러이지만 중국보다 훨씬 싸다.’
- 「탈북자」,
  - ‘국경지역의 1소대 30명의 경비대원들 중 5명 정도는 국경 밀수를 한다. 1g에 130위안하는 A급 필로폰은 중국에서 150~180위안 정도에 팔 수 있다.’
  - ‘헤로인은 주로 함흥·평양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 북한과의 동맹을 고려해 중국 정부는 마약밀매를 놓고 북한을 비난하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임.
- 언론에서도 길림성의 마약은 ‘이웃의 某국가’에서 온 것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함.
- 「길림성의 마약단속 기관의 한 직원」,
  - ‘中·北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마약이 북한산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발언.

○ 지도자 초상화를 구하고 숨진 14세 소녀, 북한은 반성해야 한다.

(6.28 차이선)

- 지도자의 초상화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것이 가치가 있는가?
- 북한 지도자에 대한 이러한 숭배는 가난하고 약하며 외부의 고립을 받는 정권을 유지하는 유효한 수단임.
- 북한 당국이 이러한 행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사실 나라와 백성을 구한 영웅을 찬양하는 것과 같음.
- 그러나 생명은 유일하고 가장 소중하며 어느 것도 생명의 가치를 대체할 수 없음.

- 북한 당국이 14세 소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모습에서 이 정부는 도덕성도, 인간성도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이 소녀는 아마도 신앙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죽음에 임했을 수도 있다.
- 그러나 문명사회가 주장해야 할 것은 평등·자유·독립이며, 버려야 할 것은 이데올로기에 의지하는 것과 맹목적 숭배임을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 서양은 신성주의에서 민주법치의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화했고 중국도 인간 본성을 인정하면서 중국 특유의 조화로운 사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
- 개혁개방 이외에도 이 부분에서 중국은 북한의 '방향'이 될 수 있음.
- 봉건미신과 개인숭배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성을 말살하며 개인의 지혜가 발휘되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사회는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음.
- 민생개선, 개인의 개성과 능력 발휘, 국가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항상 불안정할 것임.

## □ 일본어권

### ○ 조총련의 약체화 피할 수 없다. (6.29 산케이)

- 일본 최고재판소의 조총련 본부 압류 가능 판결은 조총련의 新 체제에 직격탄을 날림.
- 작년 여름 대일 협상을 담당하는 북한 관계자가 일본측에 조총련 본부가 압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꺼냈다고 함.
- 일본측은 응하지 않았지만 조총련에 있어 본국에 협상을 부탁할 정도의 현안이었던 점을 여실히 드러냄.

2012.6.29(金) 정세분석국(공개정보센터)

- 작년 여름 당시 책임부의장이었던 허종만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조직내에서도 '3대세습은 용인할 수 없다'는 반발이 있었음.
  - 김정일에 대한 조의금 명목의 자금도 생각만큼 모이지 않아 강한 반발과 조직의 약체화가 부각됨.
  - 허종만 의장이 본부 경매에 대비해 관계자들에게 낙찰하도록 산하의 상공회에 지시했다는 정보도 있지만 응하는 사람은 적다고 함.
  - 한 조총련 관계자는 '조총련 시설을 사유화해 담보로 빚을 지게 된 허종만의 방만 경영이 본부가 압류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허종만에게 책임이 전가될 것이다'고 말함.
- 김정은의 건강악화설이 거론될 것이다. (6.28 코리아리포트)
-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후 김정은의 공식활동이 열흘 이상 없었던 적은 5번뿐이었음. 1.2~15일까지 13일간, 3.14~25일까지 11일간, 4.5~15일까지 10일간, 그리고 5.9~19일까지 10일이었고, 길어도 13일이었음.
  - 그런데 이번 달에는 7일을 마지막으로 3주 동안 나타나지 않음. 6.18일에 열린 당사업 개시 48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도 결석함.
  - 더 이상의 장기부재가 계속된다면 본격적으로 건강악화설이 거론될 것임.

## □ 러시아어권

- 한반도에서 리비아 혹은 시리아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다.

(6.27 mk ⇄ 일간지)

- 정치·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 리비아 혹은 시리아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통제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것임.

- 북한의 경우 공산주의·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며, 지하 경제·관계를 근간으로 경제 및 주민 생활이 지탱될 것임.
  - 통일한국 등장 시, 역내 지정학적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특히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의 특징적인 사회·정치적 변화가 나타날 것임.
  - 현재 중국은 북한의 절대적인 대외 교역국이자 한국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국가이지만, 사실상 중국에게 있어서도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뿐인 상황임.
- 러·北 협의에 관한 외무부 언론보도문(6.27 외무부 홈페이지)
- 「마르굴로프」(외무부 차관)와 「궁석웅」(北 외무성 부상)간 모스크바(6.27)에서 협의가 있었음
  - 양측은 南·北·러 삼각 투자프로젝트 실현 전망을 포함한 정치·경제 부문의 상호협력 주요 사안에 관한 논의를 했음.
  - 또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6자회담 재개방안 및 동북아 정세 전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 붙임 1. Asia Times 보도 원문 (6.29)

Asia Times 홈페이지

### "Notes on starvation"

- o Stories of famine and starvation in North Korea are making their way across world newspapers as the release of the United Nations'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report in May coincided with new accounts of devastation in the country's grain-basket provinces. One thing is clear: North Korea is not once again falling into a food crisis - because that would imply that the country had evaded food shortage at some point in the past two decades.
- o Based on the best estimates, the system appears to be perpetually suffering shortfalls and frequently dipping into a major humanitarian crisis whenever it is brushed by the slightest external pressure: last time it was flooding, this time drought. While the acquisition of food itself remains the key effort in allaying the issue, additional problems exist that significantly further or act as the outright cause of the crisis. Without taking a more holistic approach to this ongoing problem, the situation on the ground will not improve.
- o Despite these conditions, the UN had managed to make significant strides in the past few years to secure the survivability of the people: promotion of safe management of human excrement, gravity-fed water systems, immunization coverage, etc. [1] These are areas that do not receive a lot of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spotlight is usually centered on monitoring aid and food acquisition; nonetheless, the investment and efforts made by the UN highlight the importance of overcoming non-food obstacles that hinder the intake of nutrition by the North Korean people.
- o Infrastructure is the first major obstacle that requires significant attention. Food security is more than just producing enough food for the people; the true challenge is delivering foodstuffs to the people who need them. Marcus Noland of the Peterson Institute compared the famines in North Korea to those of 19th-century Ireland, pointing out that the poor internal network of roads during the Potato Famine hindered internal trade and disrupted the delivery of food even when foodstuffs were available in Ireland. [2] Likewise, North Korea's transit system is unable to distribute goods effectively to every corner of the country.

Asia Times 홈페이지

- o It is not just the roads; since losing the supply of subsidized fuel from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has had an energy shortage that significantly diminished the state's capacity to provide basic services. Accounts from humanitarian organizations suggest that certain areas have resorted to using bicycles to deliver food, which, while innovative, cannot substitute in terms of quantity and speed for the trucks that used to carry the vital goods.
- o Currently, Pyongyang is heavily dependent on fuel aid from China, but North Korea's access to energy could increase as Russia opens and develops its far-eastern provinces. Without properly addressing the delivery mechanism, bad roads and lack of vehicles will not only interfere with the aid process, but also obstruct distribution in the future even if food acquisition somehow reaches higher levels.
- o Inflation and the price of food constitute another major challenge. The current crisis in the provinces of Pyongan and Hwanghae probably started because of over-requisition by the state and was worsened by the lack of rainfall, but the more prevalent long-term problem is the erratic fluctuation of grain prices, caused not only by general scarcity but also Pyongyang's irresponsible monetary policies.
- o The currency reform in the winter of 2009-10 arbitrarily devalued the North Korean won by a factor of 100 and seriously undermined the trust the country's people had in their currency. The subsequent disruption of the private food market persuaded Pyongyang to change its banking regulations, allowing people more easy access to deposits without being taxed or be subject to arbitrary confiscation. Despite these measures, the price of rice continued to climb in 2011, reaching its peak in early December.
- o The price of rice has continued to fluctuate in 2012, falling to a low in April before making a steady climb in May and June. [3] The instability in food prices has made life difficult and rendered basic goods too expensive for average citizens.
- o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recently stated that "eventually North Korea will change because at some point people cannot live under such oppressive conditions".
- o Reviewing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Georgetown University Professor Victor Cha boldly speculated that an Arab Spring-like uprising against the Kim Jong-eun regime would erupt in the near future. He suggested that today's starvation and post-Kim Jong-il

Asia Times 홈페이지

insecurities are radically different from what occurred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in 1994 because of the advent of markets, which, according to Cha, fundamentally changed the dynamic of power relations in North Korean society.

- o But Clinton and Cha are both mistaken in presuming that the people will refuse a repressive system because they have been briefly introduced to a less coercive socioeconomic system. In particular, the poorer the system, the more robustly the regime is able to control its population by restricting and delegating the flow of resources. In addition, there is not a single historical instance of a modern totalitarian state being overthrown by domestic opposition when the general population suffers from food insecurity;
- o The problems in North Korea are not easy fixes; they require major overhaul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ry remains uncertain, but if the stat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 not step up to uphold the well-being of 25 million people in the near future, too many will be lost.

**붙임 2. 아시아타임스 보도 원문 (6.29)**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North Korea goes a-schmoozing”

- o If a string of diplomatic visits is any indication, North Korea and a number of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re working to rekindle the flames of old alliances. This month, North Korea Workers' Party secretary Kim Yong-il is touring Laos, Vietnam and Myanmar. In May, Kim Yong-nam, North Korea's second highest-ranking official, traveled to Indonesia and Singapore. Like so much of what North Korea do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is is all a bit ambiguous and could be all for show.
- o Indonesian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 said while hosting his North Korean contemporaries, "Our relations are good and have a long history. The visit of your Excellency President Kim this time marks a new milestone in efforts to enhance our cooperation and th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uture." On June 1, Yudhoyono agreed to send US\$2 million in aid to famine-hit North Korea.



아시아타임스 홈페이지

- o Southeast Asia is a logical place to look for opportunities now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ore economically and diplomatically isolated following its April rocket launch attempt and other refusals to pla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ules. Pyongyang shares many years of cooperative relations with some of the states in the region, while cold relations with South Korea have stalled trade on the peninsula.
- o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o recall is that there have been trade and exchange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individual South East Asian countries for decades, varying greatly in the level of intensity and frequency of exchange by country," said Hyung-Gu Lynn,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Asian Research in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o Myanmar, Laos and Thailand are all transit spots for North Korean escapees. Pyongyang may wish to foster good relations with those countries to smooth repatriation of North Koreans who are taken into custody after entering without documents.
- o Cooperating with the repressive Pyongyang government is sure to draw the ire of the US and South Korea and reflect poorly on the Southeast Asian states' commitments to human rights.
- o Member states may be cultivating Pyongyang as a partner that can help push their initiatives in the regional bloc. Indonesia might be interested in building its global profile by mediating between Pyongyang and the other participants in the stalled nuclear six-party talks.
- o At the time of Kim's visit to Indonesia, Asia Foundation Korea branch president Peter Beck told Voice of America, "North Korea has become a massive liability - an economic liability and a political liability - and I seriously doubt that North Korea has anything that Indonesia really needs. "Frankly I think they [Indonesia] have much more to lose than to gain from dealing with North Korea," said Beck.
- o Perhaps the most interesting question here is whether this recent activity can be taken as indicative of Kim Jong-eun taking small steps toward opening North Korea's economy.

## 붙임 3. 중국 China Value 보도 원문 (6.28)

### China Value 홈페이지

#### “朝鲜：毒品走私强国”

- 毒品贸易在朝鲜是一个“亮点”，在官方的主导下，它与导弹出口一起成为朝鲜获得外汇的重要手段。这两个贸易此消彼长，在2006年对朝鲜贸易被禁运后，出售导弹的收入大幅减少，毒品贸易则得到了长足的发展。与朝鲜接壤的中国东北是毒品贸易走私的重灾区，通过东北中转站，朝鲜的毒品被走私到俄罗斯、中国、韩国、日本乃至全世界。
- 与世界上其他毒品产区不同，朝鲜能在毒品领域占据一席之地与政府的支持分不开。与其他毒品产区不同的是，朝鲜的毒品种植和生产，被普遍认为是官方行为：朝鲜几乎没有私人经济，除了官方和军方，没有任何人有能力经营毒品。
- 一位前平安北道的校长说，在1984~1991年间，在政府的命令下，他经常带领学生种鸦片。“全国各地的学校都分配了种植鸦片的地块。政府所有的东西则被他们偷偷地运往国外。”
- 考虑到朝鲜的多种因素，多山、一个与世隔绝的国家、散落着很多废弃工厂——它是制造毒品的最佳地点。除了生产毒品受到政府的支持，朝鲜政府还会通过外交使团或者政府官员运输毒品，从而躲避海关检查。从朝鲜叛逃的人士，其中包括国家安全官员说，由于朝鲜海洛因产量激增，那些外交官们不再仅仅运输毒品，而且还和俄罗斯的黑社会及日本流氓勾结，把毒品销往世界各地，而朝鲜政权也得以进一步扩大毒品产量。
- 这些毒品除了用来换取外汇，也成为高管们的消费品，而近几年来，吸毒开始从上层向下层扩散。毒品在许多朝鲜民众心中也成为治病良药。一位在朝鲜工作数年的中国人也证实了这一说法：他在朝鲜拉肚子，当地人就用鸦片熬汤当药给他喝。一些朝鲜外贸官员似乎也有销售毒品的压力，曾经多次问他能否“带货”去中国。
- 近年，迫于国际舆论、制裁的巨大压力，朝鲜有计划地缩减了罂粟种植面积，但同时大力发展新型毒品的生产加工，令毒品生产结构发生根本变化。从2005~2007年间中朝边境缴获的不同类型毒品数量变化来看，海洛因从15.88千克下降到3.25千克，冰毒却从13.33千克一跃到59.87千克。
- 由于特殊的地理位置，东北成朝鲜毒品国际中转站。但是考虑到中朝关系，中国一直没有公开朝鲜毒品走私问题。在过去的十年半里，冰毒在延吉和吉林省很多地区泛滥。大量证据表明，来自朝鲜的毒品，尤其是冰毒，在东三省泛滥成灾。靠近朝鲜的边境地区，更是沦为重灾区。
- 延边大学法学院教授崔俊勇在去年发表的一篇文章中认定大量延吉的非法毒品是来自朝鲜。去年一支边境巡逻队就高调逮捕了6名北韩毒贩子，其中有一名毒贩名

### China Value 홈페이지

- 叫“金大姐”，这可以算印证了他的观点。“虽然消息人士估计一克冰毒在日韩的成本大约是一公斤水稻价格的10倍，约15美元，但是它仍然比中国的便宜得多。”
- o 一名朝鲜脱北者向媒体公开了一名疑为朝鲜边境警备队军人的男子接受采访透露中朝边境毒品交易内幕的视频。他说：“一个小队的警备队有30名左右的军人，大概有5个人从事边境走私。军官们则是基本工作。”他随后从口袋中拿出冰毒说：“这是A级，1克130元，拿到中国可以卖150~180元左右。冰毒主要从咸兴、平城购入，只要有钱，多少都能买到。”
  - o 也许是因为中国政府和朝鲜是盟友，中国在指责朝鲜方面特别地小心，有报道委婉地称吉林省的毒品是来自“某毗邻国家”。一位不愿透露姓名的吉林省的禁毒单位的官员说：“我们不宣传毒品是来自朝鲜，因为这会触及中朝之间的良好关系。”

## 붙임 4. 중국 차이선 보도 원문 (6.28)

### 차이선 홈페이지

“14岁女孩舍命保护领袖画像：朝鲜不当反思？”

- o 为了保护领袖画像而置自己的生命于不顾，这样的行为到底值不值？
- o 毋庸置疑，朝鲜搞领袖崇拜和精神信仰，对维护这样一个内部积贫积弱、外部遭受孤立的政权是有效的手段之一。朝鲜官方赞赏这种维护领袖的行为，其实如同我们奖赏宣扬某个见义勇为的英雄或为国为民的好官一样。只不过，生命是惟一的，也是最珍贵的，没有什么能够取代生命的价值。从这个角度讲，我们只能对这个朝鲜女孩表示惋惜。
- o 又有人说，从朝鲜当局大加赞赏和鼓励14岁女孩的行为上，能够得出的结论是，这是一个没有道德，没有人性的政府。
- o 14岁的朝鲜小女孩是无辜的，她怀着某种信仰离开尘世，甚至是怀抱着幸福而去。但朝鲜也需要意识到，一个文明社会，主张的是平等、自由、独立，摒弃的是依赖意识和盲目崇拜。西方社会从上帝走向了民主法治的人性社会，中国也在空前的释放人性和丛林法则后，在摸索适合自己的和谐社会道路。除了改革开放，这点中国也可以是朝鲜的“榜样”。
- o 而若执迷于搞这种顶礼膜拜的封建迷信和个人崇拜，不仅将扼杀个性自由和人性的解放，而一个没有个性智慧释放和人性自由发展及人的光辉四射的时代，社会的进步和发展必然阻滞不前，另外，没有民生改善和人性的释放、个体能力的发挥、国家效率的提升，这个政权也将始终处于风雨飘摇之中。

## 붙임 5. 일본 코리아리포트 보도 원문 (6.28)

### 코리아리포트 홈페이지

“「もういいよ。まあだだよ」”

- 一昨日の大阪での金融機関主催の講演でも触れたが、金正恩氏の公式活動が途絶えているのが気になって仕方がない。
- 金正恩体制は今年元旦から本格的にスタートしたが、正恩氏の公式活動が10日以上も途絶えたのは過去に5回しかない。1月の2～15日までの13日間、3月の14～25日までの11日間、4月の5日～15日までの10日間、そして5月の9～19日までの10日間。最も長くて13日間だ。
- それが、今月は7日を最後に今日(28日)まで丸3週間経った。18日の金正日総書記の党事業開始48周年記念式典も欠席している。金永南、崔永林、崔竜海、李英鎬ら4人の政治常務委員以下、党及び軍幹部が全員背揃いしたにもかかわらず唯一正恩氏だけが欠席した。
- 崔永林総理は82歳の老体に鞭を打って、猛暑の中、史上最悪の干ばつで食糧危機が取り沙汰されている農村を回って、農民を激励して回っているのに「国民を二度と飢えさせないようにする」と啖呵を切った正恩氏は最高指導者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雲隠れしたままだ。
- 来月8日は祖父の金日成主席死去18周年の日である。もうそろそろ出てきてもよさそうなものだ。
- 「もういいよ、まあだだよ」の隠れんぼうではあるまいし、これ以上長期不在が続くと、本気で「健康不安説」が取り沙汰さ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

## 붙임 6.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원문 (6.29)

###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総連中央本部競売へ 弱体化は必至”

- 最高裁の決定で、都心の一等地にあり、活動拠点となってきた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本部が競売にかけられ、立ち退きを迫られる可能性が高まった。

산케이신문 홈페이지

- 朝鮮總連本部の差し押さえを可能にする最高裁の判断は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死去と徐萬述（ソ・マンスル）前議長の死去に続いて、朝鮮總連の新体制を直撃した形だ。朝鮮總連では競売に備え、移転準備とともに関係者による本部落札も画策しているとされるが、思うように進んでいないという。新議長の求心力低下と組織の弱体化は避けられない状況だ。
- 「朝鮮總連本部の差し押さえは何とかならないのか」。政府関係者によると、昨夏、対日交渉に当たる北朝鮮関係者が日本側にこう持ちかけたという。日本側は取り合わなかったが、朝鮮總連にとって本国に泣きついて交渉してもらうほどの懸案であることを如実に示した。
- 昨年12月には金正日総書記が死去。朝鮮總連では昨夏、当時の許宗萬（ホ・ジョンマン）責任副議長が金正恩（ジョンウン）第1書記に忠誠を誓う方針を打ち出したが、組織内でも「3代世襲は容認できない」と反発があった。総書記の弔慰金名目の資金も思うように集まらず、反発の強さと組織の弱体化を印象付けた。
- 2月には徐前議長が死去。5月に新議長に就任した許氏は、金第1書記偶像化教育による組織引き締めに着手した。本部の競売に備え、関係者を通じて落札するよう傘下の商工会に指示したという情報もあるが、応じる者は少ないという。
- 本部が差し押さえられた場合、文京区の別の施設に本部機能を移転する方向で準備を進めているとみられるが「競売はまだ先の話で1、2年は現在の本部で踏ん張るつもりだ」（朝鮮總連関係者）と具体的な動きも見えていない。「本部が差し押さえられる事態を招いたのは、總連施設を私物化して担保にした借金を重ねた許氏の放漫運営が原因。新議長の責任問題に発展す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朝鮮總連関係者の一人はこう話した。

**붙임 7. 러시아 mk 보도 원문 [6.27]**

mk 일간지 홈페이지

“«Наша перестройка была настолько омерзительна, что вряд ли кто-то решится ее повторить»”

- Ведь в Южной Корее есть очень сильное движение в сторону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которое склонно проводить более лоял

## mk 일간지 홈페이지

ьную линию, не афишировать конфронтацию, и такие настроения у корейцев были всегда сильны. А если объединение состоится, то гео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регионе будет совершенно иной, и уж тем более иной она будет для корейцев.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инято относиться как к несколько специфическому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а вот что касается американцев, то они показали, что они такие же, как и все.

- Китай является абсолютно доминирующим внешним партнером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тай вызывает у Южной Кореи серьезные опасения, а потом, Южная Корея - оккупированная страна, поэтому здесь говорить о каких-то собственно корейских интересах довольно трудно. Отмечу, что Китаю непросто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с северными корейцами. Это всем трудно, но северные корейцы все-таки могут договориться с Пекином.
- Ожид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того, что мы видим в Сирии, или того, что было в Ливии, нельзя. Для этого нет ника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едпосылок. На мой взгляд, ситуация там достаточно контролируема. Корея эволюционирует в ту же сторону, как и вс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е тоталитарные режимы, т. е. в сторону перехода от тоталитаризма к авторитаризму. Эт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экономике и населению как-то существовать, потому что возникает теневая экономика, теневые отношения, и кое-как это держится.

## 붙임 8. 러시아 외무부 게재 원문 (6.27)

## 외무부 홈페이지

“СООБЩЕНИЕ ДЛЯ СМИ О консультациях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И.В.Моргулова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Кун Сок Уном”

- 27 июня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ись консультаци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В.Моргулова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Кун Сок Уном. В ходе беседы, проходившей в традиционно деловой и

외무부 홈페이지

откровенной атмосфере,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важнейшие аспект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перспективы реализации трехсторонних (Россия, КНДР,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о развитии ситуаци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путях возобновления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